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0.txt

제목: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환우와 함께하는 '러브 더 패밀리' 개최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8100000222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가지의 건강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러브 더 패밀리’를 진행한다.병원은 5월 한 달 동안 ‘100세 시대 건강한 가족 만들기’ 건강검진 이벤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기초검진을 비롯해 비만, 정밀혈액검사, 암표지자, 소변검사, 흉부X선, 폐기능, 심전도, 부인과, 위검사, 복부초음파, 골밀도 등의 검사가 기본으로 포함된다. 또한 연령별로 구성된 총 3가지의 특별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맞는 검사항목을 선별 선택가능하다. 30~40대에 맞춘 '프리지아 검진(30만원)' 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심으로 비타민D, 호르몬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동맥경화 검사와 갑상선, 전립선, 질초음파 중 1개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모란 검진(40만원)' 은 유방초음파, 수면대장내시경, CT(심장, 뇌, 폐, 경추, 요추) 중 한 가지 검사도 추가 선택할 수 있어 중증 암과 부인과 질환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 적합하다. '매화 검진(50만원)' 은 '모란 검진'과 동일한 검사이며 호모시스테인,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추가된다. 또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내원객과 입원 환우 대상 대상의 미니화분 증정 행사 '건강을 꽃 피우세요' 를 전개한다.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에는 관악구 인근 남강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교직원들에게도 미니화분과 내시경검진권도 증정한다. 11일과 12일에는 간 '가정의 달! 당뇨케어 캠페인' 을 열어 당뇨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의 기호를 반영해 병원 내원객 대상으로 혈압, 혈당, 인바디 검사를 제공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내분비과가 직접 준비하는 이 프로그램은 19일 당뇨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환관리 특강 '당뇨교실'로 이어진다. 병원은 중순인 17일에는 서울 중구 광희동에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러시아 & 중앙아시아 나눔진료'를 진행해 국내 거주 러시아와 우즈벡, 몽골 등 중앙아시아권 환우 500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흉부X레이, 초음파 검사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접하기 어려운 검사 항목도 제공된다.오는 28일에는 사랑나눔바자회인 '러브 더 바자' 를 개최해 의료진과 지역주민이 직접 기부한 의류, 잡화, 생화용품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인간 존중의 따뜻한 마음으로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함께 준비핸 이번 가정의 달 행사들을 통해 환우와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국내 거주 외국인, 소외계층 모두에게 포근한 가정의 달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span>”고 밝혔다. 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1.txt

제목: “심근경색 여부 집에서 5분 만에 진단”  
날짜: 20150508  
기자: 장영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810017225741  
본문: 심근경색을 가정에서 손쉽게 검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br/> <br/>포스텍(포항공대)은 화학공학과 전상민(사진) 교수 연구팀이 백금 나노입자와 모세관을 이용해 심근경색 여부를 5분 만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이 썩으면 근육 속에 들어 있는 효소나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흘러 나온다. 그중에서도 트로포닌은 다른 장기에는 없는 단백질로, 혈액 속에서 이를 발견하면 심근경색 진단을 내린다. 지금까지는 이 단백질을 측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가 분석장비가 필요했다. <br/> <br/>연구팀은 이번에 과산화수소가 백금 나노입자와 만나면 산소를 만들면서 부피가 증가해 유리병 속 압력이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했다. 심근경색을 확인하는 단백질 트로포닌을 검출할 수 있는 특수 나노입자를 혈액과 섞어 유리병에 넣고 잉크가 담긴 모세관 뚜껑을 닫으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온도계 온도가 올라가듯이 잉크 방울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 잉크 방울 높이는 온도계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농도에 따라 달라져 트로포닌 농도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나노입자에 붙이는 항체만 바꾸면 암은 물론 바이러스, 식중독균 등의 진단이나 검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넓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Analytical Chemistry)에 실렸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2.txt

제목: [단독] 근로자 21만명 ‘불임 공포’ 떤다  
날짜: 20150508  
기자: 윤지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8100000062  
본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김모씨는 작업환경으로 불임이 됐다며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이는 반도체 공장의 여성 근로자가 ‘생식독성’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였다.생식독성이란 특정 화학물질이 생리불순과 무정자증, 불임, 유산, 자녀 기형, 암 등의 생식기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해외에서는 작업환경에 의한 생식독성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불가리아의 배터리 공장과 미국 미주리주의 납 광산, 스웨덴의 유기용매 취급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무정자증과 불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대표적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일 국내 2만96개 사업장의 21만5335명이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482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만9659명은 생식독성물질이 노출기준의 10% 이상 측정된 ‘위험군’에 포함됐다.연구원은 국내 근로자의 생식독성물질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와 2009년 전국 산업체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에서 생식독성물질과 관련된 변수만 뽑아 분석했다.연구팀이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위험군이 속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 기타 인쇄업이 9.2%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 위험군이 주로 노출되는 생식독성물질은 생식독성 1A(생식독성이 인간에게 확인)로 분류된 납과 일산화탄소, 1B(생식독성이 동물시험으로 확인)로 분류된 2-에톡시(메톡시)에탄올, 2(생식독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 있음)로 분류된 톨루엔 등 11종이었다. 이 물질들은 용접이나 도장, 용매, 접착, 혼합 등의 과정에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평균 2배 정도 초과한 초고위험 사업장도 75개소에 달했다.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10.4%)과 기타 인쇄업(8.1%)이 그런 사업장이었다.연구팀이 2009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90%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었다. 생식독성물질을 8종 중복 취급하는 사업장 2개소를 포함해 2종 이상을 취급하는 곳이 전체의 17%에 달했다.이종란 노무사(반올림)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이제야 생식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화학물질에 의한 생식독성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span>”고 지적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3.txt

제목: 7월부터 재가(在家)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5050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08802  
본문: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 <br/>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br/> <br/>7일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r/> <br/>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r/> <br/>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br/> <br/>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br/> <br/>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도 필수 인력으로 인정된다. <br/> <br/>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br/> <br/>지금은 호스피스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 만 운영 중이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가정형 혹은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4.txt

제목: ‘줄기세포 치료 암 유발’ 해결책 찾았다  
날짜: 20150507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03323  
본문: 국내 연구진이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 유도 만능줄기세포로 만든 세포치료제를 임상에 적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암 유발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았다. <br/> <br/>김동욱 연세대 의대 교수팀은 6일 인간 줄기세포로 만든 신경계 전구세포가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물질을 제거해 암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실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br/> <br/>이 연구 결과는 국제줄기세포학회의 공식 저널인 ‘스템 셀 리포트’의 온라인판에 지난달 30일 게재됐다. <br/> <br/>연구진은 암 유발과 관련해 줄기세포를 신경계 전구세포로 분화시킬 때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 이외에 신경능선세포(NCC)가 소량 만들어진다는 데 주목했다. 신경능선세포는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신경세포를 세포치료제로 쓸 때 함께 섞여 원하지 않는 조직이나 암을 유발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줄기세포로 만든 신경계 전구세포에 섞여 있는 신경능선세포, 즉 ‘폴리시아릴산 신경세포 부착 분자’(PSA-NCAM)라는 물질이 발현되지 않은 세포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동물실험 결과 이 물질이 있는 신경세포는 이식해도 암이나 이상조직이 생성되지 않는 사실도 확인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성과는 특허도 출원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0'>PSA-NCAM을 가진 순수 신경세포를 이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척수손상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실제 연구진은 PAM-NCAM이 있는 신경세포만 순도 높게 분리한 다음 뇌졸중과 척수손상에 걸린 동물에 이식한 결과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5.txt

제목: 차움, '부모사랑 검진 프로그램' 실시  
날짜: 201505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08799  
본문:   <br/> <br/>차병원그룹 청담동 차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차움 효도 검진 패키지'인 차움 부모사랑 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br/>  <br/>차움 부모사랑 검진 프로그램은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뇌·심장질환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암과 각종 성인병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특화돼 있다. <br/> <br/>검사 항목은 위내시경·복부초음파·저선량폐CT(저선량으로 전신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최신CT장비, 기존 방사선 피폭선량 대비 최대 80% 이상 감소)·척추촬영·골밀도검사 등 10여 개로 이뤄져 있다. <br/>  <br/>또한 한국인의 발병률이 높은 10대 암을 검진하는 '프리미엄 10대 암 검진' 프로그램과 기억력 및 뇌 건강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치매검진'이 마련돼 있다. <br/> <br/>이밖에 중장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갱년기 증세를 비롯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화검진 프로그램 등이 부모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r/>  <br/>차움 가정의학과 서은경 교수는 "특히 10대암 검진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에 부모의 연령과 가족력, 유전적 체질에 따라 검진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특정 질환 및 10대 암을 정밀 검사하는 특화검진 프로그램"이라고 조언했다. <br/>  <br/>차움 푸드테라피센터 이기호 교수는 "차움의 검진은 검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의료진이 처방하는 맞춤 운동, 식이요법과 함께 센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메디컬 스파와 수중 치료, 에스테틱은 물론 푸드테라피와 티테라피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br/> <br/>차움 검진은 개인룸에서 필요한 모든 검진이 진행되는 '원스톱 맞춤검진'으로 이뤄지고 방사선량 관리 시스템 등 안심 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br/> <br/>이와 더불어 검진 결과가 나오면 주치의·영양사·운동처방사가 한 팀을 이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과를 상담하며 향후 건강관리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br/> <br/>질병이 발견되면 주치의 설명 외에 해당 진료과 전문의의 상세한 상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br/> <br/>한편 지난 6일 KBS2 의학예능 프로그램 '비타민'이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가족건강 프로젝트'에서는 가수 조관우의 아버지, 명창 조통달씨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의 건강상담을 받는 내용이 방영됐다. <br/> <br/>비타민 주치의인 차움 푸드테라피센터 이기호 교수를 비롯해 정형외과 박명률 교수, 비뇨기과 양승철 교수, 가정의학과 서은경 교수가 각각 전문의로 출연해 조통달씨의 건강 상태에 따른 건강 관리 비법을 소개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6.txt

제목: '앵그리맘' 김태훈, 아버지 박근형 악행 폭로 “날 괴물 만든 건 당신”  
날짜: 2015050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15824  
본문: 앵그리맘 <br/> '앵그리맘' 김태훈, 아버지 박근형 악행 폭로 “날 괴물 만든 건 당신” '앵그리맘' 김태훈이 아버지 박근형의 악행을 폭로해 시선을 모았다. 7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앵그리맘'16회에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선 도정우(김태훈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때 도정우는 죽은 어머니와 아버지 강수찬(박근형 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음성 파일 속 강수찬은 죽은 도정우 어머니에게 "다시는 연락 안하기로 해놓고 이게 몇번째냐"고 소리쳤다.  이에 도정우의 어머니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암이다. 한달도 안남았다. 정우 당신 아들이다"고 말했다. 강수찬은 "감쪽같이 날 속여놓고 왜 내 아들이냐. 핏줄 소리 좀 집어치워라. 내 얼룩이다"라고 지독한 대답을 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도정우는 아버지 강수찬에게 "날 괴물로 만든 것은 당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MBC '앵그리맘'은 16회로 종영을 했으며 오는 13일부터 MBC 새 수목드라마 '맨도롱 또?'이 방송될 예정이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7.txt

제목: [단독] 근로자 21만명 ‘불임 공포’ 떤다  
날짜: 20150507  
기자: 세종=윤지희 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14576  
본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김모씨는 작업환경으로 불임이 됐다며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이는 반도체 공장의 여성 근로자가 ‘생식독성’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였다. <br/> <br/>생식독성이란 특정 화학물질이 생리불순과 무정자증, 불임, 유산, 자녀 기형, 암 등의 생식기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br/> <br/>해외에서는 작업환경에 의한 생식독성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불가리아의 배터리 공장과 미국 미주리주의 납 광산, 스웨덴의 유기용매 취급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무정자증과 불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대표적이다. <br/> <br/>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일 국내 2만96개 사업장의 21만5335명이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482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만9659명은 생식독성물질이 노출기준의 10% 이상 측정된 ‘위험군’에 포함됐다. <br/> <br/>연구원은 국내 근로자의 생식독성물질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와 2009년 전국 산업체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에서 생식독성물질과 관련된 변수만 뽑아 분석했다. <br/> <br/>연구팀이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위험군이 속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 기타 인쇄업이 9.2%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 위험군이 주로 노출되는 생식독성물질은 생식독성 1A(생식독성이 인간에게 확인)로 분류된 납과 일산화탄소, 1B(생식독성이 동물시험으로 확인)로 분류된 2-에톡시(메톡시)에탄올, 2(생식독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 있음)로 분류된 톨루엔 등 11종이었다. 이 물질들은 용접이나 도장, 용매, 접착, 혼합 등의 과정에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br/> <br/>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평균 2배 정도 초과한 초고위험 사업장도 75개소에 달했다.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10.4%)과 기타 인쇄업(8.1%)이 그런 사업장이었다. <br/> <br/>연구팀이 2009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90%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었다. 생식독성물질을 8종 중복 취급하는 사업장 2개소를 포함해 2종 이상을 취급하는 곳이 전체의 17%에 달했다. <br/> <br/>이종란 노무사(반올림)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이제야 생식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화학물질에 의한 생식독성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8.txt

제목: 가정의 달 맞아 ‘가족 검진이벤트’ 전개  
날짜: 2015050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09050  
본문:   <br/> <br/> <br/> <br/>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할인해 제공하는 ‘100세 기대 건강한 가족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초검진과 더불어 비만, 정밀혈액검사, 암표지자, 소변검사, 흉부X선, 폐기능, 심전도, 부인과, 위검사, 복부초음파, 골밀도 등의 검사가 기본으로 포함된다. 이 밖에도 연령별로 구성된 총 3가지의 특별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맞는 검사항목을 선별적으로 선택가능하다. <br/> <br/>3~40대에 맞춘 ‘프리지아 검진(30만원)’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심으로 비타민D, 호르몬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동맥경화 검사와 갑상선, 전립선, 질초음파 중 1개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모란 검진(40만원)’은 유방초음파, 수면대장내시경, CT(심장, 뇌, 폐, 경추, 요추) 중 한 가지 검사도 추가 선택할 수 있어 중증 암과 부인과 질환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 적합하다.  <br/> <br/>‘매화 검진(50만원)’은 ‘모란 검진’과 동일한 검사들이 진행되며 호모시스테인,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추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병원 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r/> <br/>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실시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기관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검진시스템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br/> <br/>이 병원은 이밖에 가정의 달 환우케어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11일과 12일에는 간 ‘가정의 달! 당뇨케어 캠페인’ 을 열어 당뇨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의 기호를 반영해 병원 내원객 대상으로 혈압, 혈당, 인바디 검사를 제공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내분비과가 직접 준비하는 이 프로그램은 19일 당뇨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환관리 특강 ‘당뇨교실’로 이어진다. <br/> <br/>28일에는 사랑나눔바자회인 ‘러브 더 바자’ 를 개최하여 의료진과 지역주민이 직접 기부한 의류, 잡화, 생화용품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한다. 이날 바자회와 함께 바이올린 독주와 어구스틱 밴드가 참여하는 힐링콘서트도 전개된다. <br/> <br/>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은 “<span class='quot0'>인간 존중의 따뜻한 마음으로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가정의 달 행사를 통해 환우와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국내 거주 외국인, 소외계층 모두에게 포근한 가정의 달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09.txt

제목: 한국인 평균 휴대폰 이용 기간, 스마트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날짜: 20150507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710017211617  
본문: 한국인 평균 휴대폰 이용 기간 한국인 평균 휴대폰 이용 기간 (사진= 방송화면)한국인 평균 휴대폰 이용 기간, 스마트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br/> <br/>한국인 평균 휴대폰 이용 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해소법 1위가 의외의 방법으로 밝혀져 화제다. <br/> <br/>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가 ‘스트레스’일 정도로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스트레스는 여러 모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br/> <br/>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초조, 걱정, 근심 등의 불안 증상이 발생하고 점차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긴장성 두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의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br/> <br/>이런 스트레스는 빨리 날려 보내는 게 상책인데 해소법으로는 독서가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서섹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결과다. <br/> <br/>연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됐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다른 방법들도 효과는 있지만 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독서였다. 음악 감상은 61%,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게임은 스트레스를 21% 줄였지만, 심박수는 오히려 높였다. <br/> <br/>루이스 박사는 “<span class='quot0'>경제 상황 등이 불안정한 요즘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푹 빠져, 일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span>”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br/> <br/>한편,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 평균 휴대폰 이용 기간은 1년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휴대폰 평균 사용 기간이 늘어났다. <br/> <br/>개인 휴대폰 보유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92.4%로 만 6세 이상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휴대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평균 이용기간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2014년에는 소폭 증가해 1년7개월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휴대폰 평균 사용기간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응답자의 약 34%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1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가장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29.6%)으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뉴스(14.8%), 게임(13.8%·남성), 엔터테인먼트 (9.0%, 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0.txt

제목: '다빼 1호' 등 발암물질 들어간 다이어트제품 유통시킨 중국밀매조직  
날짜: 2015050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1949365  
본문: '다빼 1호' 등 발암물질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중국인 조직이 적발됐다. <br/> <br/>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페놀프탈레인, 디피론 등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 '다빼1호', '다빼파낙스'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중국 동포 서모(25·여), 전모(21·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br/> <br/>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중국 판매 총책과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해 사범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br/> <br/>식약처가 회수에 나선 회수 대상은 '다빼 1호'와 '다빼파닉스' 등 두가지로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br/> <br/>해당 제품에 들어간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으나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쓸 수 없다. <br/> <br/>디피론은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증의 부작용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br/> <br/>식약처는 이들이 마약 밀매조직처럼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 유통, 국내 판매원 등의 점조직 분업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br/> <br/>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명 '인니다이어트'로 불리며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제조국을 알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1.txt

제목: "염색체 텔로미어 급속히 짧아지면 암 예고 신호"  
날짜: 2015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6100000563  
본문: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속히 짧아지면 장차 암이 발생한다는 예고신호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허우리팡 박사가 암이 없는 남녀 약800명을 대상으로 13년에 걸쳐 텔로미어의 길이를 추적하면서 암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5일 보도했다.조사 기간에 모두 135명이 각종 암 진단을 받았다.허우 박사는 암 진단에 훨씬 앞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속하게 짧아지기 시작해 암 진단 3~4년 전에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멈춰 버린다고 밝혔다.암 진단 3~4년 전부터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진단되기 전의 암 세포가 자신의 증식을 위해 염색체를 '납치'해 텔로미어가 더 이상 짧아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허우 박사는 설명했다. 그 이전까지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졌으며 그 속도는 15년 더 나이를 먹은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와 같을 정도였다고 그는 밝혔다. 텔로미어의 이러한 특이한 패턴이 왜 일어나는지 규명할 수 있다면 이를 암을 예고하는 생물표지로 이용해 암을 발생 오래전에 포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차단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텔로미어란 구두끈 끝을 풀어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싸매는 것처럼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부분이다.이 말단부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점점 풀리면서 그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며 그에 따라 세포는 점차 노화돼 죽게 된다.이 연구결과는 이바이오 메디신(EBio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2.txt

제목: [WT논평] Medical innovation means cancer is no longer a death sentence  
날짜: 2015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6100000051  
본문: The Ken Burns film on PBS, “Cancer:The Emperor of All Maladies” tells us the magnitude of the murderous disease we are up against:“Cancer is a worldwide scourge. The fastest-growing disease on earth. That’s terribly true, but it hides the good news, which doesn’t get enough play in this film. That is the astonishing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diagnosing and treating cancer. No, there isn’t a cure. But we are getting there, and the treatments are nearly miraculous. In 20 years, 1.5 million lives have been saved because of medical know-how and highly effective new treatments.The reason cancer deaths have been on the rise over the past half-century is because other maladies have been largely eradicated. People used to die of typhoid fever, tuberculosis, influenza and bronchitis. Cancer is an old-age, degenerative disease. Alas, you have to die of something. A century ago, cancer and heart disease were the causes of about one-quarter of all deaths. Today, they account for nearly half of all deaths. But the all-important age-adjusted death rate from cancer is falling in the United States and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For any particular age group ― particularly the young ― cancer is less threatening than ever before. This is true of almost every type of cancer, including leukemia ― which is a killer of children. The most impressive strides have been made in reducing cancer deaths for women. The age-standardized breast cancer death rate for women has fallen by one-third over the past 50 years.One of the prevalent myths about cancer is that environmental factors ― such as air pollution ― have caused a cancer epidemic. The truth is that improvements in air and water quality over the past 30 years have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cancer death rates.Another myth is that the decline in cancer deaths is happening for the “haves” but not the “have nots.” But cancer rates are falling for everyone - the young and the old, the rich and the poor, blacks and whites, men and women. At one time, to contract cancer was to receive a death warrant. Not so anymore. Why is that? The answer is that we are a wealthy nation that is filled with problem-solvers. We have dedicate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public and private dollars to conquer this malady. Economic freedom has not just made us wealthier ― it has made us healthier, as we say all the time at The Heritage Foundation. Socialism doesn’t stand a chance in finding cures. Capitalism will.눈부신 발전을 이룬 암 치료법스티븐 무어(美 헤리티지재단 경제학자)공영방송 PBS에 방영된 켄 번즈의 영화 ‘암:모든 질병의 제왕’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이 죽음의 질병의 엄청난 규모를 사람들에게 말해 준다. “암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며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질병이다.” 그것은 끔직한 진실이지만 이 영화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반가운 소식을 감추고 있다. 그것은 암의 진단과 치료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진보다. 치료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치료법에 접근하고 있으며, 각종 치료법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의료 기술과 고도로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150만명이 구원을 받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암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 대부분 퇴치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장티푸스, 결핵, 인플루엔자, 기관지염으로 사망했다. 암은 노령의 퇴행성 질환이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다. 1세기 전에 암과 심장병은 모든 사망 원인의 근 4분의 1을 차지했다. 오늘 이 두 질병이 모든 사망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연령보정 암 사망률은 미국과 세계의 여타 대부분 지역에서 낮아지고 있다. 어느 특정한 연령집단, 특히 청년집단의 경우 암의 위험도는 과거보다 낮아졌다. 이것은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백혈병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암에 해당된다. 가장 인상적인 진보는 여성의 암 사망률을 줄인 데서 이루어졌다. 연령표준화된 여성 유방암 사망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3분의 1이 떨어졌다.널리 퍼져 있는 암 관련 신화 가운데 하나는 대기 오염 같은 환경요인들이 광범한 암 발생의 원인이란 주장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기와 물의 질이 개선되어 암 사망률 저하에 기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또 다른 신화는 ‘빈자’가 아니라 ‘부자’의 암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암 발생률은 노소, 빈부, 흑백,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낮아지고 있다. 한때 암에 걸리는 것은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그 해답은 미국이 문제 해결사들로 가득한 부유한 나라란 사실이다. 미국은 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백억달러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바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들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 자유는 단지 우리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다. 사회주의는 각종 치료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없다. 자본주의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malady: 심각한 문제, 병폐 ▲murderous: 죽이려 드는, 살인적인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3.txt

제목: [설왕설래] 가정의 행복  
날짜: 2015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6100000072  
본문: 학계에서 잘나가는 언어학자 앨리스가 언어를 잃어버리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건 분명 재앙이다. “<span class='quot0'>차라리 암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span>” 가족 앞에서 토로한 앨리스의 심경이다. 영화 ‘스틸 앨리스’의 주인공은 50세에 벼락처럼 맞은 불운을 가족과 겪어낸다. 그에게나, 가족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전의 나로 남기 위해 애쓰는” 그의 곁에는 가족뿐이다.사람들은 ‘관계’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한다. 피를 나눈 사이만큼 이타적이고 강한 관계가 있을까. 자기 아이의 웃는 사진을 보여주면 부모 뇌의 감정 중추가 활성화돼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공감 능력이다. ‘부=행복’이라는 중독증을 벗어나기 위한 치료법은 무엇일까,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 답을 찾았다. 따듯하고 다정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돈, 소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에서 행복을 느낀다.히말라야 산록의 작은 나라 부탄은 ‘행복의 나라’로 유명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안팎이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한다. 유럽신경제재단이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1위였다. 부탄은 1972년부터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만들어 관리한다. 2010년 지그미 틴레이 부탄 총리가 방한했을 때, 당시 김황식 총리가“<span class='quot1'>국민총행복지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span>”고 묻자 “가정의 행복”이라고 했다.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제 아이들은 모처럼 학원 갈 일도, 숙제할 일도 걱정하지 않고 맘껏 놀았다. 모레에는 많은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이 달릴 것이다. 어린이날만 어린이가 주인공이어선 안 되고, 어버이날에만 부모 노고를 감사해서도 안 될 일이다. 가족의 해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10여년 후에는 나홀로 가구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문 닫힌 가정’을 밉다 했지만, 요즘 세태에선 부러울 따름이다 .“저녁 때면 낯선 마을에서 낮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다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일하러 갔던 아버지는 피로하여 돌아오고,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집의 출입문이 한순간 방긋이 열리며 빛과 따뜻함과 웃음을 맞아들이고 나서 다시 닫히면 밤이 왔다. 방랑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황정미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4.txt

제목: 액상차 효능 뻥튀기 광고해 폭리 챙긴 7명 입건  
날짜: 2015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6100000293  
본문: 대전 동부경찰서는 평범한 액상차를 과장 광고해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대전 대덕구 주택가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화 홍보로 물색한 2만1천여명을 상대로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액상제품 64억원 어치를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백수오, 홍삼, 천마 등을 원료로 한 액상차가 암과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4만∼5만원 짜리 제품을 15만∼29만원 상당에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피해자 대부분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노인의 개인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취득 경위를 포함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5.txt

제목: '다빼 1호' 등 발암물질 들어간 다이어트제품 유통시킨 중국밀매조직  
날짜: 20150506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6100000674  
본문: '다빼 1호' 등 발암물질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중국인 조직이 적발됐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페놀프탈레인, 디피론 등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 '다빼1호', '다빼파낙스'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중국 동포 서모(25·여), 전모(21·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중국 판매 총책과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해 사범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식약처가 회수에 나선 회수 대상은 '다빼 1호'와 '다빼파닉스' 등 두가지로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해당 제품에 들어간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으나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쓸 수 없다.디피론은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증의 부작용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식약처는 이들이 마약 밀매조직처럼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 유통, 국내 판매원 등의 점조직 분업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명 '인니다이어트'로 불리며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제조국을 알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6.txt

제목: 쯔쯔가무시병 증상, 면역 상태에 따라 달라...면역력 높이는 식재료는? 사과만 먹어도 효과 만점  
날짜: 2015050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1845680  
본문:  쯔쯔가무시병 증상, 면역 상태에 따라 달라...면역력 높이는 식재료는? 사과만 먹어도 효과 만점 <br/> <br/>쯔쯔가무시병 증상이 면역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br/> <br/>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는 대표적으로 사과 식초, 마늘, 생강, 고추냉이 뿌리, 양파, 하바네로 고추, 강황 등이 있다. <br/> <br/>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사과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 소금과 아미노산 등이 함유돼 있다. 이외에도 나트륨, 인, 칼륨 등 다양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항 바이러스, 항균 탄산수를 만들어 준다. <br/> <br/>마늘의 경우 알리신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다. 생강은 진저롤을 통해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다. <br/> <br/>고추냉이 뿌리는 다양한 박테리아에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항생제 효능이 있다. 특히 기생충을 박멸하는 효과적인 구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파는 케르세틴잉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지니고 있어 암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br/> <br/>하바네로 고추는 지구상에서 가장 매운 음식 중 하나로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몸 안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 감기와 부비동 감염에 효과적이다. <br/> <br/>강황에 있는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편, 쯔쯔가무시병은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밭일을 하거나 성묘, 벌초, 등산 후에 발병하는데 봄, 가을철 가장 많은 환자가 나타난다. 1~3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시작되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구토, 설사 등이 동반 될 수 있다. <br/> <br/>쯔쯔가무시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2일 내에 증상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약 2주 동안 발열이 지속된다. 합병증으로 뇌수막염, 난청, 이명이 동반될 수 있다. 사망률은 지역이나 나이, 면역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60%로 다양하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7.txt

제목: 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 이유가 면역력 저하?...검은 반점 바나나 면역력 8배 증가, 건강에 좋은 과일은 무엇?  
날짜: 2015050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1532371  
본문: ▲ 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 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 이유가 면역력 저하?...검은 반점 바나나 면역력 8배 증가, 건강에 좋은 과일은 무엇? <br/> <br/>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 소식이 화제다. <br/> <br/>바이러스성 전염병인 사마귀 환자가 최근 4년 새 58% 급증했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13년 사마귀 환자는 36만 2천여 명으로, 2009년에 비해 13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연령별로는 10대가 32%로 가장 많았고, 9살 이하 아동과 20대가 뒤를 이었다. <br/> <br/>환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8월, 6만 7천 명으로 환자 수가 가장 적은 4월보다 50% 가까이 많았다. <br/> <br/>건강보험공단은 전염성 질병인 사마귀를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뜯지 말아야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특히, 손·발톱이나 성기에 사마귀가 생긴 경우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했다. <br/> <br/>편평사마귀 유행은 인체 면역력이 저하된 틈을 타 발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br/> <br/>한편 편평사마귀 유행은 인체 면역력이 저하된 틈을 타 발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br/> <br/>최근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가 후숙되어 슈가 스팟이 많아져 이른바 검은 반점이 많아진 상태에 바나나는 익지 않은 푸른 바나나에 비해 최대 8배까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br/> <br/>이에 몸에 좋은 과일도 덩달아 화제다. <br/> <br/>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섭취해야 되는 과일이지만 종류에 따라서 당분이 달라 체중이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br/> <br/>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낮은 과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br/>  <br/>당분 함량이 낮은 과일로는 라즈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레몬 라임 등이다. <br/>  <br/>이처럼 당분이 적게 들어있는 과일은 반대로 항산화성분이나 파이토뉴트리언트와 같이 영양적 가치가 높은 성분은 많이 들어있다. <br/>  <br/>베리류는 지방 탄수화물 칼로리가 낮은 반면 비타민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성분이 풍부해 심장질환과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 <br/> <br/>당분 함량이 보통인 과일은 사과 딸기 수박 복숭아 파파야 블루베리 멜론 구아바 살구 등이다. <br/> <br/>사과는 혈당지수가 레몬이나 일부 베리류보다는 약간 높지만 건강상 유익한 측면이 많으므로 매일 먹는 것이 좋다. <br/> <br/>하루 1개 정도는 오히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br/> <br/>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오렌지 키위 자두 배 파인애플 등이 있다. 오렌지는 신맛도 나기 때문에 당분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사과보다 당분이 높다. <br/> <br/>하지만 비타민C 칼륨 엽산 티아민 등의 좋은 공급원인데다 과일 치고 높다는 의미이므로 혈당지수 때문에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 <br/> <br/>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은 체리 포도 망고 석류 바나나 무화과 말린 과일 등이다. <br/> <br/>열대과일과 말린 과일이 당분 함량이 높다. 단 과일에 설탕을 더하지 않은 말린 베리류라면 당분 함량을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8.txt

제목: 쯔쯔가무시병 증상, 면역 상태에 따라 달라...면역력 높이는 식재료는? 사과만 먹어도 효과 만점  
날짜: 2015050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5100000451  
본문:  쯔쯔가무시병 증상, 면역 상태에 따라 달라...면역력 높이는 식재료는? 사과만 먹어도 효과 만점쯔쯔가무시병 증상이 면역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는 대표적으로 사과 식초, 마늘, 생강, 고추냉이 뿌리, 양파, 하바네로 고추, 강황 등이 있다.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사과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 소금과 아미노산 등이 함유돼 있다. 이외에도 나트륨, 인, 칼륨 등 다양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항 바이러스, 항균 탄산수를 만들어 준다.마늘의 경우 알리신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다. 생강은 진저롤을 통해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다.고추냉이 뿌리는 다양한 박테리아에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항생제 효능이 있다. 특히 기생충을 박멸하는 효과적인 구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파는 케르세틴잉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지니고 있어 암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하바네로 고추는 지구상에서 가장 매운 음식 중 하나로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몸 안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 감기와 부비동 감염에 효과적이다.강황에 있는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쯔쯔가무시병은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밭일을 하거나 성묘, 벌초, 등산 후에 발병하는데 봄, 가을철 가장 많은 환자가 나타난다. 1~3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시작되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구토, 설사 등이 동반 될 수 있다.쯔쯔가무시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2일 내에 증상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약 2주 동안 발열이 지속된다. 합병증으로 뇌수막염, 난청, 이명이 동반될 수 있다. 사망률은 지역이나 나이, 면역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60%로 다양하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19.txt

제목: “사랑은 영원한 숙제… 아내 보내고 새삼 느껴”  
날짜: 20150505  
기자: 문학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5100000275  
본문: “인간의 향기는 영혼의 상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그 상처가 흉터로 남으면 분노와 좌절과 앙금이 되지만 향기로 남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소설가 김홍신(68·사진)씨가 7년여 만에 신작 장편 ‘단 한 번의 사랑’(해냄)을 펴내고 4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장편소설 ‘인간시장’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밀리언셀러 작가가 됐고 국회의원(15·16대)으로도 활약했으며 건국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참여하고 있는 그가 이번에 펴낸 소설은 애절한 사랑 이야기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span class='quot0'>아내가 살아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보내고 나니 사랑이라는 게 영원한 숙제임을 새삼 깨달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누구나 자기 혼을 끄집어내 제대로 하고 싶은 갈증을 느끼는 게 사랑</span>”이라고 말했다. 소설에서 미모의 여배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 강시울은 헌신적으로 그네를 사랑했던 첫사랑의 남자 홍시진과 헤어지고 재벌 2세와 결혼한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생을 살게 된 강시울은 남은 생이나마 첫사랑과 함께 살고 싶어하며 재벌가의 비리와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의 실체까지 폭로한다. 김씨는 국회의원 시절 실제로 5명의 가짜 독립운동가를 파헤쳐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하고 훈장을 박탈당하게 한 적이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독립유공자 심사를 친일파들이 했다는 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그런 역사를 노출하고 싶어 일부러 실명을 썼다</span>”고 밝혔다. ‘인간시장’의 작가답게 사랑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고려한 셈이다.김씨는 “<span class='quot0'>아직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은데 거절하기 어려울 때마다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글쓰기</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시민운동가, 대학교수, 국회의원까지 여러 일을 해봤지만 죽을 때 글쟁이로 기억되고 싶다</span>”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소설을 쓰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 대부분의 작품이 모색하는 게 휴머니즘이고 그 휴머니즘의 핵은 사랑이라고 부연했다.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0.txt

제목: [설왕설래] 가정의 행복  
날짜: 20150505  
기자: 황정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510017178814  
본문: 학계에서 잘나가는 언어학자 앨리스가 언어를 잃어버리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건 분명 재앙이다. “<span class='quot0'>차라리 암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span>” 가족 앞에서 토로한 앨리스의 심경이다. 영화 ‘스틸 앨리스’의 주인공은 50세에 벼락처럼 맞은 불운을 가족과 겪어낸다. 그에게나, 가족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전의 나로 남기 위해 애쓰는” 그의 곁에는 가족뿐이다. <br/> <br/>사람들은 ‘관계’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한다. 피를 나눈 사이만큼 이타적이고 강한 관계가 있을까. 자기 아이의 웃는 사진을 보여주면 부모 뇌의 감정 중추가 활성화돼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공감 능력이다. ‘부=행복’이라는 중독증을 벗어나기 위한 치료법은 무엇일까,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 답을 찾았다. 따듯하고 다정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돈, 소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에서 행복을 느낀다. <br/> <br/>히말라야 산록의 작은 나라 부탄은 ‘행복의 나라’로 유명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안팎이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한다. 유럽신경제재단이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1위였다. 부탄은 1972년부터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만들어 관리한다. 2010년 지그미 틴레이 부탄 총리가 방한했을 때, 당시 김황식 총리가“<span class='quot1'>국민총행복지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span>”고 묻자 “가정의 행복”이라고 했다. <br/> <br/>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제 아이들은 모처럼 학원 갈 일도, 숙제할 일도 걱정하지 않고 맘껏 놀았다. 모레에는 많은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이 달릴 것이다. 어린이날만 어린이가 주인공이어선 안 되고, 어버이날에만 부모 노고를 감사해서도 안 될 일이다. 가족의 해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10여년 후에는 나홀로 가구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문 닫힌 가정’을 밉다 했지만, 요즘 세태에선 부러울 따름이다 . <br/> <br/>“저녁 때면 낯선 마을에서 낮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다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일하러 갔던 아버지는 피로하여 돌아오고,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집의 출입문이 한순간 방긋이 열리며 빛과 따뜻함과 웃음을 맞아들이고 나서 다시 닫히면 밤이 왔다. 방랑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br/> <br/>황정미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1.txt

제목: 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 이유가 면역력 저하?...검은 반점 바나나 면역력 8배 증가, 건강에 좋은 과일은 무엇?  
날짜: 2015050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5100000038  
본문: ▲ 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 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 이유가 면역력 저하?...검은 반점 바나나 면역력 8배 증가, 건강에 좋은 과일은 무엇?바이러스성 사마귀 급증 소식이 화제다.바이러스성 전염병인 사마귀 환자가 최근 4년 새 58% 급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13년 사마귀 환자는 36만 2천여 명으로, 2009년에 비해 13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10대가 32%로 가장 많았고, 9살 이하 아동과 20대가 뒤를 이었다.환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8월, 6만 7천 명으로 환자 수가 가장 적은 4월보다 50% 가까이 많았다.건강보험공단은 전염성 질병인 사마귀를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뜯지 말아야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손·발톱이나 성기에 사마귀가 생긴 경우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했다.편평사마귀 유행은 인체 면역력이 저하된 틈을 타 발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한편 편평사마귀 유행은 인체 면역력이 저하된 틈을 타 발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최근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가 후숙되어 슈가 스팟이 많아져 이른바 검은 반점이 많아진 상태에 바나나는 익지 않은 푸른 바나나에 비해 최대 8배까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에 몸에 좋은 과일도 덩달아 화제다.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섭취해야 되는 과일이지만 종류에 따라서 당분이 달라 체중이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낮은 과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당분 함량이 낮은 과일로는 라즈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레몬 라임 등이다. 이처럼 당분이 적게 들어있는 과일은 반대로 항산화성분이나 파이토뉴트리언트와 같이 영양적 가치가 높은 성분은 많이 들어있다. 베리류는 지방 탄수화물 칼로리가 낮은 반면 비타민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성분이 풍부해 심장질환과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당분 함량이 보통인 과일은 사과 딸기 수박 복숭아 파파야 블루베리 멜론 구아바 살구 등이다.사과는 혈당지수가 레몬이나 일부 베리류보다는 약간 높지만 건강상 유익한 측면이 많으므로 매일 먹는 것이 좋다.하루 1개 정도는 오히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오렌지 키위 자두 배 파인애플 등이 있다. 오렌지는 신맛도 나기 때문에 당분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사과보다 당분이 높다.하지만 비타민C 칼륨 엽산 티아민 등의 좋은 공급원인데다 과일 치고 높다는 의미이므로 혈당지수 때문에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은 체리 포도 망고 석류 바나나 무화과 말린 과일 등이다.열대과일과 말린 과일이 당분 함량이 높다. 단 과일에 설탕을 더하지 않은 말린 베리류라면 당분 함량을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2.txt

제목: '냉장고를 부탁해' 양희은, 식단 신경 쓴 이유 “나이 서른에 암 걸려”  
날짜: 2015050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1454013  
본문: 냉장고를 부탁해 양희은 <br/>'냉장고를 부탁해' 양희은, 식단 신경 쓴 이유 “나이 서른에 암 걸려” ‘냉장고를 부탁해’ 가수 양희은이 식단이 신경 쓴 이유를 밝혀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양희은과 김나영이 출연한 가운데 셰프들의 경쟁이 펼쳐졌다. 양희은은 "20대에는 스케줄이 많아 밖에서 끼니를 때웠다. 그런데 나이 서른에 암에 걸려 석달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식단을 신경썼다. 이어 결혼한 뒤 남편의 건강을 신경쓰면서 식단이 바뀌었다"고 전해 시선을 끌었다. 한편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3.txt

제목: '냉장고를 부탁해' 양희은, 식단 신경 쓴 이유 “나이 서른에 암 걸려”  
날짜: 20150504  
기자: 박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4100000865  
본문: 냉장고를 부탁해 양희은'냉장고를 부탁해' 양희은, 식단 신경 쓴 이유 “나이 서른에 암 걸려” ‘냉장고를 부탁해’ 가수 양희은이 식단이 신경 쓴 이유를 밝혀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양희은과 김나영이 출연한 가운데 셰프들의 경쟁이 펼쳐졌다. 양희은은 "20대에는 스케줄이 많아 밖에서 끼니를 때웠다. 그런데 나이 서른에 암에 걸려 석달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식단을 신경썼다. 이어 결혼한 뒤 남편의 건강을 신경쓰면서 식단이 바뀌었다"고 전해 시선을 끌었다. 한편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4.txt

제목: 신해철이 남긴 약속 ‘가족의 건강’  
날짜: 20150504  
기자: seose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4100000223  
본문: 지난해 10월27일 가수 신해철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가장의 부재가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족들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아내 윤원희씨 앞에는 남편 없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자꾸만 쌓여 간다.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 없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다. 그의 가족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MBC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2015년 첫 번째 편으로 신해철 가족 이야기를 다룬 ‘단 하나의 약속’을 4일 밤 11시15분 방송한다. 윤원희씨와 두 아이들에게 남편, 아빠였던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즉음은 큰 아픔이지만 꿋꿋하게 삶을 이어간다. MBC 제공원희씨는 신해철의 미국 유학 시절 그를 만나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뿐, 원희씨가 호치킨 림프암 진단을 받는다. 그런 그녀에게 신해철은 청혼했고, 결혼 후 재발과 수술이 몇 번씩 반복되는 동안에도 항상 곁을 지켰다. 이른 데뷔 탓에 오랫동안 대중에 노출된 삶을 살았던 신해철에게 가족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에게도 각별했다. 그런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큰딸 지유는 상처를 이겨내고 엄마와 어린 동생을 챙긴다. 동생 동원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올봄 누나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빠가 없어 아이가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입학식 날에도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원희씨의 긴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신해철이 바랐던 한 가지는 가족의 건강이었다. 아내에게 바친 ‘단 하나의 약속’은 그런 희망을 담은 노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신해철이 생전에 당부했던 아프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곁에 남아 있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본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5.txt

제목: “사랑은 영원한 숙제… 아내 보내고 새삼 느껴”  
날짜: 20150504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410017177950  
본문: “인간의 향기는 영혼의 상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그 상처가 흉터로 남으면 분노와 좌절과 앙금이 되지만 향기로 남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br/> <br/>소설가 김홍신(68·사진)씨가 7년여 만에 신작 장편 ‘단 한 번의 사랑’(해냄)을 펴내고 4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장편소설 ‘인간시장’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밀리언셀러 작가가 됐고 국회의원(15·16대)으로도 활약했으며 건국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참여하고 있는 그가 이번에 펴낸 소설은 애절한 사랑 이야기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span class='quot0'>아내가 살아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보내고 나니 사랑이라는 게 영원한 숙제임을 새삼 깨달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누구나 자기 혼을 끄집어내 제대로 하고 싶은 갈증을 느끼는 게 사랑</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소설에서 미모의 여배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 강시울은 헌신적으로 그네를 사랑했던 첫사랑의 남자 홍시진과 헤어지고 재벌 2세와 결혼한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생을 살게 된 강시울은 남은 생이나마 첫사랑과 함께 살고 싶어하며 재벌가의 비리와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의 실체까지 폭로한다. 김씨는 국회의원 시절 실제로 5명의 가짜 독립운동가를 파헤쳐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하고 훈장을 박탈당하게 한 적이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독립유공자 심사를 친일파들이 했다는 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그런 역사를 노출하고 싶어 일부러 실명을 썼다</span>”고 밝혔다. ‘인간시장’의 작가답게 사랑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고려한 셈이다. <br/> <br/>김씨는 “<span class='quot0'>아직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은데 거절하기 어려울 때마다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글쓰기</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시민운동가, 대학교수, 국회의원까지 여러 일을 해봤지만 죽을 때 글쟁이로 기억되고 싶다</span>”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소설을 쓰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 대부분의 작품이 모색하는 게 휴머니즘이고 그 휴머니즘의 핵은 사랑이라고 부연했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6.txt

제목: 어린이날 알아야 할 5가지…"젖꼭지가 발성에 나쁘다?" "올바른 식습관"  
날짜: 20150504  
기자: yjcho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4100000911  
본문: 5일은 어린이날이다.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보통 어린이라고 지칭한다. 부모 입장에서야 자식이 크던 어리든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일 수밖에 없겠지만 특히 이날만큼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다.중국과 일본,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일부 외국도 어린이날이나 주간을 정해 기념하고 있어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러시아에는 특별히 어린이날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쏟는 부모의 정성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현지 언론 역시 수시로 육아에 관한 정보를 싣는다.러시아 시사주간 ’아르구멘트이 이 팍트이(논거들과 사실들. 이하 A&F)’는 지난달 27일 자 인터넷판에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에 이어 4일 자에는 유아기의 언어발달에 관한 기사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한 5가지 사실’과 ‘식사도 문화…식사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두가지 기사내용을 요약해 본다.▲아이들과는 ’혀짧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어른들은 종종 아이들과 얘기할 때 아이들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혀짧은 소리를 따라 한다. 이런 일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뤄지곤 한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나는 아이들과 혀짧은 소리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부모들의 이런 태도를 완강히 거부한다. 과연 누가 옳을까? 아이들은 이른바 ’아이들 언어’에 더 가깝고 이를 더 잘 이해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한다. 아이들은 느린 속도로 말하고 접미사 부분의 톤을 낮춰 부드럽게 발성하고 문장을 반복하며 운을 맞춘 문장들을 더 잘 이해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뭘 먹일 때 이를테면 평소 ‘토끼는 암-암 먹고 아가는 냠-냠  먹는다’고 말하는 부모라면 이런 정신을 계속 유지하라.▲’전신(電信)용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 전신용 언어는 ’가자’ ’먹어’ ’잘 시간이야’ 등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를 압축한 단속(斷續)적인 문장이다. 일부 부모는 2~3살 난 아이에게는 이런 말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신용 언어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알고 익힐 기회를 빼앗아 어휘력을 빈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교육용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의 어휘력을 키운다?아이들의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려고 특별한 CD나 교육용 프로그램들을 구매하는가. 사실, 오늘날 이런 전자 ’보조도구들’이 아이들의 말 습관을 고양해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전혀 없다. 아이들이 모니터에 보이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따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상은 부모들과 노는 과정에서 말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좀 더 자주, 다양한 놀이를 하도록 하자.▲(인공) 젖꼭지는 발성(發聲)을 나쁘게 한다? 젖꼭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치열이 나빠져 이 때문에 발성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는다. 반대로 옹호자들은 젖꼭지를 오래 사용하는 아이나 사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항변한다.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리거나 말거나,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의 입에서 젖꼭지를 떼어낼 것을 권하고 있다.▲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말이 늦다?남자 아이들 대부분이 여자 아이들보다 말이 늦다. 그러나 이는 남자아이들의 발달이 늦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남자아이들의 말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여자 아이들보다 3배나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남자 아이들의 언어능력 발달 단계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는 게 좋다.(이상 언어 발달을 위한 5가지 진실)▲강요 : 아이들이 잘 먹지 않을 때 부모는 걱정하게 마련이다. 일부는  아이들에게 뭘 먹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다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해로운 오해다. 강요나 협박으로 아이들에게 뭘 먹이는 것은 절대 금지다. “<span class='quot0'>먹지 않는건 할머니(엄마)를 싫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span>”라는 식의 공갈 역시 유해하다. 이럴 경우 아이들은 가까운 사람과 대할 때도 음식을 먹고 싶거나 먹고 싶지 않은 감정과 혼동하게 된다.▲취향과 희망사항 : 아이들의 현재 상태와 뭘 먹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많이 먹인다면 커서 분별력이 없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이런 아이는 커서도 뭘 원하고 원치 않는지 잘 모를 뿐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배려 : 엄마나 할머니가 아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뭔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말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항상 뭘 먹을 준비가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든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음에 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만, 3살 때부터라도 음식이 저절로 식탁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아이 역시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되며 자신도 점차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장난 : 아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아주 어린 아이라면 이런 장난이 유익하다고 지적한다. 장난을 통해 이를 잘 알게 되면 후에도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수프로 탁자 전체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면 교육학적으로도 참을 필요는 없다.▲의식(儀式) : 음식(식사)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집단,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가정의 의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다. 아이들은 언젠가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서두름 :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종종 건강과 자신의 기분(좋은 섭생과 불가분의 관계다)보다는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된다. 이건 큰 실수다. 어린 시절 음식을 빨리 먹는 것은 커서 비만의 한 원인이 된다. 어른도 식사를 빨리하게 되면 포만감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종종 과식을 하게 된다. 이밖에 어릴 때 식사를 급하게하면 아이들은 커서도 식사시간을 ’건너뛰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순간으로 여기게 된다.(이상 식사 문화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7.txt

제목: MBC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단 하나의 약속  
날짜: 20150503  
기자: 서필웅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915578  
본문: 신해철의 돌연한 죽음으로 세상에 남겨진 아내 윤원희씨와 두 아이들. 가장의 죽음은 큰 아픔이지만 꿋꿋하게 삶을 이어간다. MBC 제공지난해 10월27일 가수 신해철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가장의 부재가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족들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아내 윤원희씨 앞에는 남편 없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자꾸만 쌓여 간다.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 없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다. 그의 가족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MBC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2015년 첫번째 편으로 신해철 가족 이야기를 다룬 ‘단 하나의 약속’을 4일 밤 11시15분 방송한다. <br/> <br/>원희씨는 신해철의 미국 유학 시절 그를 만나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뿐, 원희씨가 호치킨 림프암 진단을 받는다. 그런 그녀에게 신해철은 청혼했고, 결혼 후 재발과 수술이 몇 번씩 반복되는 동안에도 항상 곁을 지켰다. <br/> <br/>이른 데뷔 탓에 오랫동안 대중에 노출된 삶을 살았던 신해철에게 가족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에게도 각별했다. 그런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큰딸 지유는 상처를 이겨내고 엄마와 어린 동생을 챙긴다. 동생 동원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올 봄 누나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빠가 없어 아이가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입학식 날에도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 <br/> <br/>원희씨의 긴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신해철이 바랐던 한 가지는 가족의 건강이었다. 아내에게 바친 ‘단 하나의 약속’은 그런 희망을 담은 노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신해철이 생전에 당부했던 아프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곁에 남아 있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8.txt

제목: 신해철이 남긴 약속 ‘가족의 건강’  
날짜: 20150503  
기자: 서필웅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932093  
본문: 지난해 10월27일 가수 신해철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가장의 부재가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족들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아내 윤원희씨 앞에는 남편 없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자꾸만 쌓여 간다.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 없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다. 그의 가족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MBC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2015년 첫 번째 편으로 신해철 가족 이야기를 다룬 ‘단 하나의 약속’을 4일 밤 11시15분 방송한다. <br/> <br/> 윤원희씨와 두 아이들에게 남편, 아빠였던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즉음은 큰 아픔이지만 꿋꿋하게 삶을 이어간다. <br/>MBC 제공원희씨는 신해철의 미국 유학 시절 그를 만나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뿐, 원희씨가 호치킨 림프암 진단을 받는다. 그런 그녀에게 신해철은 청혼했고, 결혼 후 재발과 수술이 몇 번씩 반복되는 동안에도 항상 곁을 지켰다. <br/> <br/>이른 데뷔 탓에 오랫동안 대중에 노출된 삶을 살았던 신해철에게 가족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에게도 각별했다. 그런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큰딸 지유는 상처를 이겨내고 엄마와 어린 동생을 챙긴다. 동생 동원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올봄 누나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빠가 없어 아이가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입학식 날에도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 <br/> <br/>원희씨의 긴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신해철이 바랐던 한 가지는 가족의 건강이었다. 아내에게 바친 ‘단 하나의 약속’은 그런 희망을 담은 노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신해철이 생전에 당부했던 아프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곁에 남아 있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29.txt

제목: 리오 퍼디난드의 아내, 레베카 엘리슨 암 투병 끝에 사망..  
날짜: 2015050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800064  
본문: 리오 퍼디난드와 아내(사진- 스카이스포츠 캡처)리오 퍼디난드의 아내, 레베카 엘리슨 암 투병 끝에 사망.. <br/> <br/>리오 퍼디난드(36,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부인 레베카 엘리슨(35)가 세상을 떠났다. <br/> <br/>QPR은 2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퍼디난드의 아내 레베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br/> <br/>퍼디난드의 성명에 따르면 레베카는 1일 밤 영국 런던의 마스덴왕립병원에서 유방암과 사투 끝에 세상을 떠났다. 퍼디난드는 지난 2007년 레베카와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br/> <br/>퍼디난드는 “어젯밤 나의 영혼과도 같은 아내 레베카가 세상을 떠났다. 나의 훌륭했던 아내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짧은 암 투병 끝에 편안히 잠들었다. 그녀는 환상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였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모범적이었다. 나의 아내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며 비보를 전했다. <br/> <br/>한편 QPR 선수들은 2일 밤에 열릴 리버풀전에서 퍼디난드의 아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0.txt

제목: 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 비타민D 결핍 증상 예방하는 방법은?  
날짜: 2015050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756480  
본문: 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 비타민D 결핍 증상 예방하는 방법은? <br/> <br/>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비타민D 결핍 증상 예방법이 화제다. <br/> <br/>인체의 모든 세포는 비타민D 수용체를 지니고 있어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모든 세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로인해 대장암, 위암 등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br/> <br/>비타민 D 결핍증은 비타민 D가 부족해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구루병' '골연화증' 등으로 잘 알려진 뼈의 변형, 또는 성장장애다. <br/> <br/>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데, 부족할 경우 칼슘과 인이 충분히 뼈에 축적되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결국 휘거나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 밖에도 비타민 D의 심한 결핍은 심장혈관계 질환, 비염, 인지 장애,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br/> <br/>비타민 D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거나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만들어진다. 하지만 학교나 직장 등 낮 시간의 실내 생활이 늘고 자외선차단제 사용 등으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결핍증은 꾸준히 증가세다. <br/> <br/>비타민 D 결핍증은 비타민 D가 부족해 발생하는 질병인 만큼 생활 속에서 체내 비타민 D를 유지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곧 예방법이다. 비타민 D는 등 푸른 생선이나 우유, 동물의 간, 달걀노른자, 버섯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br/> <br/>영유아의 경우 모유를 통해 섭취하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기 또한 부족하게 돼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해 햇빛을 통해 체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조량이 많은 시간에 최소 10분 이상 햇빛을 쬘 것을 권장한다. <br/> <br/>한편,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1.txt

제목: 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한국은 몇 등?  
날짜: 2015050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756117  
본문: 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한국은 몇 등? <br/> <br/>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30일 고려대 구로병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남녀 합쳐 인구 10만명당 45명으로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했다. <br/> <br/>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58.7명으로 슬로바키아 61.6명, 헝가리 58.9명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세계 2위인 헝가리와 큰 차이가 없다. <br/> <br/>여성 대장암 발병률도 10만명당 33.3명으로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순위는 노르웨이 35.8명, 덴마크 35.7명, 네덜란드 33.9명, 뉴질랜드 33.5명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br/> <br/>대장은 음식물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위장관 끝 부분에 붙어있다. 이곳에 암이 생긴 것이 대장암이다. <br/> <br/>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간 대장암 발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식생활과 환경 변화,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br/> <br/>고려대 구로병원 대장암센터 오상철 교수는 "지방질이 많은 육류와 설탕 등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며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2.txt

제목: 리오 퍼디난드의 아내, 레베카 엘리슨 암 투병 끝에 사망..  
날짜: 2015050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3100000090  
본문: 리오 퍼디난드와 아내(사진- 스카이스포츠 캡처)리오 퍼디난드의 아내, 레베카 엘리슨 암 투병 끝에 사망..리오 퍼디난드(36,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부인 레베카 엘리슨(35)가 세상을 떠났다.QPR은 2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퍼디난드의 아내 레베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퍼디난드의 성명에 따르면 레베카는 1일 밤 영국 런던의 마스덴왕립병원에서 유방암과 사투 끝에 세상을 떠났다. 퍼디난드는 지난 2007년 레베카와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퍼디난드는 “어젯밤 나의 영혼과도 같은 아내 레베카가 세상을 떠났다. 나의 훌륭했던 아내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짧은 암 투병 끝에 편안히 잠들었다. 그녀는 환상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였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모범적이었다. 나의 아내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며 비보를 전했다.한편 QPR 선수들은 2일 밤에 열릴 리버풀전에서 퍼디난드의 아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3.txt

제목: 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 비타민D 결핍 증상 예방하는 방법은?  
날짜: 2015050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3100000089  
본문: 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 비타민D 결핍 증상 예방하는 방법은?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비타민D 결핍 증상 예방법이 화제다.인체의 모든 세포는 비타민D 수용체를 지니고 있어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모든 세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로인해 대장암, 위암 등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비타민 D 결핍증은 비타민 D가 부족해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구루병' '골연화증' 등으로 잘 알려진 뼈의 변형, 또는 성장장애다.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데, 부족할 경우 칼슘과 인이 충분히 뼈에 축적되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결국 휘거나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 밖에도 비타민 D의 심한 결핍은 심장혈관계 질환, 비염, 인지 장애,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비타민 D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거나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만들어진다. 하지만 학교나 직장 등 낮 시간의 실내 생활이 늘고 자외선차단제 사용 등으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결핍증은 꾸준히 증가세다.비타민 D 결핍증은 비타민 D가 부족해 발생하는 질병인 만큼 생활 속에서 체내 비타민 D를 유지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곧 예방법이다. 비타민 D는 등 푸른 생선이나 우유, 동물의 간, 달걀노른자, 버섯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영유아의 경우 모유를 통해 섭취하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기 또한 부족하게 돼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해 햇빛을 통해 체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조량이 많은 시간에 최소 10분 이상 햇빛을 쬘 것을 권장한다.한편,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4.txt

제목: MBC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단 하나의 약속  
날짜: 20150503  
기자: seose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3100000329  
본문: 신해철의 돌연한 죽음으로 세상에 남겨진 아내 윤원희씨와 두 아이들. 가장의 죽음은 큰 아픔이지만 꿋꿋하게 삶을 이어간다. MBC 제공지난해 10월27일 가수 신해철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가장의 부재가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족들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아내 윤원희씨 앞에는 남편 없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자꾸만 쌓여 간다.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 없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다. 그의 가족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MBC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2015년 첫번째 편으로 신해철 가족 이야기를 다룬 ‘단 하나의 약속’을 4일 밤 11시15분 방송한다.원희씨는 신해철의 미국 유학 시절 그를 만나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뿐, 원희씨가 호치킨 림프암 진단을 받는다. 그런 그녀에게 신해철은 청혼했고, 결혼 후 재발과 수술이 몇 번씩 반복되는 동안에도 항상 곁을 지켰다. 이른 데뷔 탓에 오랫동안 대중에 노출된 삶을 살았던 신해철에게 가족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에게도 각별했다. 그런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큰딸 지유는 상처를 이겨내고 엄마와 어린 동생을 챙긴다. 동생 동원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올 봄 누나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빠가 없어 아이가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입학식 날에도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원희씨의 긴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신해철이 바랐던 한 가지는 가족의 건강이었다. 아내에게 바친 ‘단 하나의 약속’은 그런 희망을 담은 노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신해철이 생전에 당부했던 아프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곁에 남아 있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본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5.txt

제목: 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한국은 몇 등?  
날짜: 2015050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3100000006  
본문: 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대장암 발병률 국가 순위...한국은 몇 등?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고려대 구로병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남녀 합쳐 인구 10만명당 45명으로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했다.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58.7명으로 슬로바키아 61.6명, 헝가리 58.9명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세계 2위인 헝가리와 큰 차이가 없다.여성 대장암 발병률도 10만명당 33.3명으로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순위는 노르웨이 35.8명, 덴마크 35.7명, 네덜란드 33.9명, 뉴질랜드 33.5명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대장은 음식물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위장관 끝 부분에 붙어있다. 이곳에 암이 생긴 것이 대장암이다.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간 대장암 발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식생활과 환경 변화,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려대 구로병원 대장암센터 오상철 교수는 "지방질이 많은 육류와 설탕 등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며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6.txt

제목: 카스트제도·비폭력저항… 간디와 대립한 인물 통해 인도독립 역사·쟁점 분석  
날짜: 20150502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613844  
본문: 박금표 지음/그린비/2만원간디와 맞선 사람들/박금표 지음/그린비/2만원 <br/> <br/>1932년 9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곡기를 끊었다. 영국 정부에 “<span class='quot0'>불가촉천민 분리선거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단식을 감행할 것</span>”이라고 통보한 뒤였다. 분리선거제는 인도 최하층인 불가촉천민이 힘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제도였다. 불가촉천민이 받는 억압과 차별은 극심했다. 1936년 17세 소년이 불가촉천민용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구타당해 숨질 정도였다. 이런 시대에 간디가 약자의 지위 향상에 반대했다니 의외로 다가온다. <br/> <br/>‘비폭력’을 실천한 간디는 성스러운 위인처럼 다뤄진다. 그의 모든 행보는 고귀하고 이상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 속 간디는 평화운동가이자 정치가였다. 저자는 동시대에 간디와 갈등한 인물들을 불러낸다. 이들이 대립각을 세운 지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평면적 위인이 아닌 시대의 모순 속에서 숨 쉬고 저항한 간디를 그린다. <br/> <br/>먼저 소환된 이는 브힘라오 암베드카르다. 암베드카르는 평생 불가촉천민 해방운동에 헌신했다. 영국 정부에 분리선거권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도 그였다. 그러나 간디가 단식에 나서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간디가 숨지면 불가촉천민은 크나큰 보복에 시달릴 게 뻔했다. <br/> <br/>카스트제도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부유하게 자란 간디는 인도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서야 차별을 경험했다. 그러기에 간디는 인도 촌락이 힘든 건 영국의 지배와 산업화 때문이라 여겼다. “<span class='quot1'>(카스트·종교 갈등 등) 모든 문제는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되면 아주 쉽게 해결될 것</span>”이라고 순수하게 바라봤다. <br/> <br/>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으로 자랐다. 학창 시절 우물·화장실 사용이 금지됐다. 친구도 사귈 수 없었다. 그에게 인도의 전통 촌락은 차별과 억압의 온상이었다. 그는 불가촉천민의 권리는 직접 쟁취해야 한다고 여겼고, 카스트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간디가 속한 국민회의가 불가촉천민 차별 철폐에 관심이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br/> <br/>암베드카르 외에도 비폭력 운동을 가장 강력히 비판한 수브하스 찬드라 보세, 파키스탄 분리독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무함마드 알리 진나, 힌두근본주의자 비나야크 다모다르 사바르카르를 통해 간디와 국민회의가 저지른 실책과 부주의가 소개된다. 그러나 이 책의 의도는 간디의 허물 들춰내기가 아니다. 저자는 “<span class='quot2'>대립이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현실이고, 대립하는 존재들로 인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은가</span>”라고 묻는다. 간디 역시 대립했던 인물들을 통해 진리를 깊이 고민할 수 있었으리라 추측한다. 폭력이 있어야 비폭력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타협이 있듯이 말이다. 실제 간디는 ‘분리선거제 단식’ 이후 불가촉천민 문제에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 <br/> <br/>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7.txt

제목: 5월 제철음식, 보약이 필요없는 특효..주꾸미-장어-매실-다슬기 효능?  
날짜: 2015050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621587  
본문: 5월 제철음식5월 제철음식, 보약이 필요없는 특효..주꾸미-장어-매실-다슬기 효능? <br/> <br/>봄철 보양식’으로 먹을 만한 음식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영양만점인 5월 제철음식으로 꼽히는 주꾸미와 장어, 매실 효능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주꾸미에는 '타우린'이란 성분이 풍부하다.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우리 몸에서 근골격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br/> <br/>장어는 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고단백 식품이다. 일반생선에 비해 150배 함량의 비타민A가 함유돼있어,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을 돕는 기능이 있다. 특히 장어에는 오메가3계열 지방산(EPA, DHA)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 성분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뇌세포와 신경조직을 구성함은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린산’ 성분은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 해독과 배설을 돕는다. 식이섬유가 많고 저열량?저지방으로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러나 매실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그냥 먹는 것보다 매실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 매실청을 담근 뒤, 5~7배의 물에 희석해 식후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그외 두릅, 멍게, 다슬기, 취나물, 참다랑어, 소라, 키조개 등이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8.txt

제목: 5월 제철음식 관심, 봄기운 가득 담은 최고의 맛과 영양  
날짜: 20150502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633928  
본문:   <br/> <br/>5월을 맞아 5월 제철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봄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5월의 제철음식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 먼저 장어는 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고단백 식품으로 다량의 비타민A가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을 돕는다. <br/> <br/>특히 오메가3계열 지방산(EPA, DHA)의 함량이 높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뇌세포와 신경조직을 구성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 장어의 콜레스테롤은 필수지방산을 포함한 다량의 불포화지방산과 토코페롤 등에 의해 체내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 <br/> <br/>주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하다.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다. 주꾸미는 낙지 꼴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 <br/> <br/>봄꽃게는 영양 덩어리다. 꽃게는 지방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위장 기능을 강화해 주고 타우린 미네랄 칼슘 키토산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이나 노화방지, 피부미용에 좋다.  <br/> <br/>미더덕은 불포화지방산 EPA, DHA 조성비가 등푸른생선보다 높고 영양면에서 우수하여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좋다. 전복도 피부미용, 자양강장, 산후조리, 허약체질 개선에 효능이 좋은 5월 제철음식이다. <br/> <br/>매실은 대표적인 5월 과일이다. 매실의' 피크린산'은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식이섬유가 많고 저열량 저지방으로 다이어트에도 좋다. 하지만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br/> <br/>여창용 기자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39.txt

제목: '슈퍼대디 열' 최종회 이동건-이유리 눈물의 결혼식  
날짜: 20150502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651190  
본문: 이동건과 이유리가 눈물의 결혼식을 올린다. <br/> <br/>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 최종화에서는 한열(이동건 분)과 미래(이유리 분)가 상황과 시련을 극복하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그려진다. <br/> <br/>지난 15화에서는 힘겨운 항암 치료 끝에 종양의 크기가 줄어 수술이 가능하게 된 미래가 수술을 앞두고 한열에게 프러포즈를 받는 장면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br/> <br/>앞뒤 재지 않는 한열의 순애보적 사랑을 열정적으로 보여준 이동건과 시한부 암환자 미래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한 이유리, 엄마의 암투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애써 씩씩한 모습을 보여준 사랑이 역을 완벽 소화한 이레의 실감나는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br/> <br/>이번 최종화에서는 여느 예비부부들과 다름 없이 옥신각신 다투며 결혼준비를 한 한열과 미래가 병원과 구단 식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br/> <br/>반면 결혼 반지를 놓고 온 한열을 대신해 반지를 찾으러 간 집에 들린 사랑은 미래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하늘색 상자를 발견하고 오열하게 된다. <br/> <br/>'슈퍼대디 열'은 2일 밤 8시 30분에 최종회가 방송된다. <br/> <br/>여창용 기자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0.txt

제목: 5월 제철음식, 보약이 필요없는 특효..주꾸미-장어-매실-다슬기 효능?  
날짜: 2015050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2100000017  
본문: 5월 제철음식5월 제철음식, 보약이 필요없는 특효..주꾸미-장어-매실-다슬기 효능?봄철 보양식’으로 먹을 만한 음식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영양만점인 5월 제철음식으로 꼽히는 주꾸미와 장어, 매실 효능에 대해 알아본다.주꾸미에는 '타우린'이란 성분이 풍부하다.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우리 몸에서 근골격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장어는 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고단백 식품이다. 일반생선에 비해 150배 함량의 비타민A가 함유돼있어,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을 돕는 기능이 있다. 특히 장어에는 오메가3계열 지방산(EPA, DHA)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 성분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뇌세포와 신경조직을 구성함은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린산’ 성분은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 해독과 배설을 돕는다. 식이섬유가 많고 저열량?저지방으로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러나 매실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그냥 먹는 것보다 매실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 매실청을 담근 뒤, 5~7배의 물에 희석해 식후에 마시는 게 좋다.그외 두릅, 멍게, 다슬기, 취나물, 참다랑어, 소라, 키조개 등이 있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1.txt

제목: 5월 제철음식 관심, 봄기운 가득 담은 최고의 맛과 영양  
날짜: 20150502  
기자: ent1@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2100000022  
본문:  5월을 맞아 5월 제철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봄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5월의 제철음식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 먼저 장어는 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고단백 식품으로 다량의 비타민A가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을 돕는다.특히 오메가3계열 지방산(EPA, DHA)의 함량이 높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뇌세포와 신경조직을 구성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 장어의 콜레스테롤은 필수지방산을 포함한 다량의 불포화지방산과 토코페롤 등에 의해 체내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주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하다.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다. 주꾸미는 낙지 꼴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봄꽃게는 영양 덩어리다. 꽃게는 지방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위장 기능을 강화해 주고 타우린 미네랄 칼슘 키토산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이나 노화방지, 피부미용에 좋다. 미더덕은 불포화지방산 EPA, DHA 조성비가 등푸른생선보다 높고 영양면에서 우수하여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좋다. 전복도 피부미용, 자양강장, 산후조리, 허약체질 개선에 효능이 좋은 5월 제철음식이다.매실은 대표적인 5월 과일이다. 매실의' 피크린산'은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식이섬유가 많고 저열량 저지방으로 다이어트에도 좋다. 하지만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여창용 기자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2.txt

제목: 5월 제철음식, '봄철 보양식' 주꾸미-장어에 매실 효능까지  
날짜: 2015050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210017166519  
본문:   <br/> <br/> <br/>5월을 맞아 제철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봄철 보양식' 주꾸미와 장어, 매실 효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 <br/>영양만점인 5월 제철음식으로 꼽히는 주꾸미와 장어다. <br/> <br/>주꾸미에는 '타우린'이란 성분이 풍부하다.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우리 몸에서 근골격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주꾸미는 100g당 1305mg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낙지(573mg), 꼴뚜기(733mg)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또한 타우린은 뇌 세포의 안과 밖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주꾸미는 100g에 47kcal로 칼로리가 낮고, DHA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좋다. <br/> <br/>장어는 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고단백 식품이다. 일반생선에 비해 150배 함량의 비타민A가 함유돼있어,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을 돕는 기능이 있다. 특히 장어에는 오메가3계열 지방산(EPA, DHA)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 성분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뇌세포와 신경조직을 구성함은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다른 어류에 비해 장어는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게 함유돼 있으나 장어의 콜레스테롤은 필수지방산을 포함한 다량의 불포화지방산과 토코페롤 등에 의해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오히려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작용을 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 B군이 많아 피로 회복에도 좋다. <br/> <br/>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린산’ 성분은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 해독과 배설을 돕는다. 식이섬유가 많고 저열량?저지방으로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러나 매실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그냥 먹는 것보다 매실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 매실청을 담근 뒤, 5~7배의 물에 희석해 식후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3.txt

제목: ‘슈퍼대디 열’ 오늘 최종회! 이동건-이유리, 눈물의 결혼식 올린다  
날짜: 2015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2100000129  
본문: [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2일 최종회를 맞는 ‘슈퍼대디 열’ 이동건과 이유리가 눈물의 결혼식을 올린다.이날 오후 8시30분에 방송되는 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 최종화에서는 한열(이동건)과 미래(이유리)가 상황과 시련을 극복하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그려진다.지난 15화에서는 힘겨운 항암 치료 끝에 종양의 크기가 줄어 수술이 가능하게 된 미래가 수술을 앞두고 한열에게 프러포즈를 받는 장면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수술의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미래를 향한 한열의 진실된 마음이 안방 극장에까지 전달된 것.앞뒤 재지 않는 한열의 순애보적 사랑을 열정적으로 보여준 이동건과 시한부 암환자 미래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한 이유리, 엄마의 암투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애써 씩씩한 모습을 보여준 사랑이 역을 완벽 소화한 이레의 실감나는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이번 최종화에서는 여느 예비부부들과 다름 없이 옥신각신 다투며 결혼준비를 한 한열과 미래가 병원과 구단 식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 반면 결혼 반지를 놓고 온 한열을 대신해 반지를 찾으러 간 집에 들린 사랑은 미래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하늘색 상자를 발견하고 오열하게 된다.한 때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첫사랑에게 차인 후 평생 혼자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아웃사이더 독신남 ‘한열’, 그 앞에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 결혼하자고 하는 한열의 첫사랑 싱글맘 닥터 ‘차미래’, 그리고 그저 아빠가 갖고 싶은 미운 아홉 살 ‘사랑이’ 의 ‘강제 일촌 만들기’를 그린 이야기 ‘슈퍼대디 열’은 2일 최종회만을 남겨두고 있다.tongil7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4.txt

제목: 경증 질환 응급실 찾을 땐 ‘진료비 폭탄’  
날짜: 20150502  
기자: brightw@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2100000395  
본문: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을 때 진료비보다 많은 ‘응급실 관리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 명목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 비용을 부담한다. 생명이 위독하거나 급성 통증·출혈 등 법으로 정한 응급환자나 준응급환자는 이 비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감기나 단순 통증 등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환자는 이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서울대병원 등 전국 2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료나 약 처방을 받아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외에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비응급환자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대한응급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약 80%는 비응급 환자다. 서울의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질환별 환자 수도 1위 암, 2위 열린 상처, 3위 감기, 4위 급성 위장관염, 5위 복통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5.txt

제목: '슈퍼대디 열' 최종회 이동건-이유리 눈물의 결혼식  
날짜: 20150502  
기자: ent1@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2100000421  
본문: 이동건과 이유리가 눈물의 결혼식을 올린다.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 최종화에서는 한열(이동건 분)과 미래(이유리 분)가 상황과 시련을 극복하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그려진다.지난 15화에서는 힘겨운 항암 치료 끝에 종양의 크기가 줄어 수술이 가능하게 된 미래가 수술을 앞두고 한열에게 프러포즈를 받는 장면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앞뒤 재지 않는 한열의 순애보적 사랑을 열정적으로 보여준 이동건과 시한부 암환자 미래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한 이유리, 엄마의 암투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애써 씩씩한 모습을 보여준 사랑이 역을 완벽 소화한 이레의 실감나는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이번 최종화에서는 여느 예비부부들과 다름 없이 옥신각신 다투며 결혼준비를 한 한열과 미래가 병원과 구단 식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반면 결혼 반지를 놓고 온 한열을 대신해 반지를 찾으러 간 집에 들린 사랑은 미래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하늘색 상자를 발견하고 오열하게 된다.'슈퍼대디 열'은 2일 밤 8시 30분에 최종회가 방송된다.여창용 기자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6.txt

제목: [김승동의 보험 X-ray]'5월은 어린이달'… 어린이보험 선택법은  
날짜: 20150501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239511  
본문: 5월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보장은 비슷하면서 보험료는 오프라인 대비 30% 정도 저렴한 온라인 어린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br/> <br/>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어린이보험은 암이나 재해장해, 수술, 골절, 입원은 물론 심한 화상을 입거나 장기이식을 할 경우를 대비해 고액을 보장한다. 게다가 손해보험사 상품이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br/> <br/>어린이들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반면 활동성은 좋아 작은 질병과 사고에 자주 노출된다. 따라서 고액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이며 자주 노출되는 사소한 질병도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험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br/> <br/>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중 온라인으로 어린이보험 가입을 완결할 수 있는 곳은 교보라이프프플래닛,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등 5개 보험사다. <br/> <br/>이들 보험사는 대부분 온라인 어린이보험을 단일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은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보험은 규격화, 단순화 되어 있다"며 "맞춤형 설계는 안 되지만 대량생산하는 공산품처럼 보험도 규격화를 통해 오프라인 상품 대비 3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br/> <br/>세계파이낸스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30세 남성이 올해 태어난 아들의 보험을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설계를 했다. 오프라인 상품으로는 우리나라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자녀보장보험4.0'을 선택했다. 온라인 상품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설계부터 가입까지 완결할 수 있는 5개 보험사를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했다. <br/> <br/>삼성생명 '자녀보장보험4.0'은 일반암 5000만원, 경계성종양·갑상선암 600만원, 소액암 300만원을 보장했다. 재해장해보험금은 최대 5000만원이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2배인 1억원을 보장했다. 또한 선택특약으로 고도장해보장·재해보장Ⅱ·신입원·재해입원·어린이수술보장 등을 선택했다. <br/> <br/>삼성화재 상품은 30년 동안 납입하는 상품이 없다. 15년 동안 납입하고 30년을 보장받는다. 가입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납보험료는 4만200원이다. 15년 동안 총 723만6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br/> <br/>반면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는 오프라인 상품 대비 부담이 현저히 적었다. 5000원대부터 1만원대 초반에 불과했다. 30년을 보장받기 위해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200만원대가 대부분이었다. <br/> <br/>온라인 어린이보험은 대부분 백혈병이나 뇌암 등의 고액암은 위암이나 간암과 같은 일반암 대비 2배를 보장했다. 보장금액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다. <br/> <br/>사고 등으로 재해가 발생해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00만원 혹은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장해라면 일반 재해장해의 2배를 보장받아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br/> <br/>어린이들은 자주 다친다. 뼈가 부러지는 골절로 수술을 할 경우 20만원 혹은 3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입원에 따라서 최대 180일까지 2만원 혹은 3만원의 입원비를 매일 받을 수 있다. <br/> <br/>이외 병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수술비도 보장된다. <br/> <br/> <br/> <br/>주요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5000원 대에 어린이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이미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고객도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핵심 보장만 설정했다"며 "어린이들이 주로 노출되는 10대 질병인 폐렴,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 등으로 입원하면 매일 2만원의 입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br/> <br/>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가 1만원인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1만원 단위로 구분된다. 대산 만기에 환급금이 있다. 0세 자녀의 보험료는 1만원이다. 대신 30년 후 만기에 남아는 17.9%(43만원), 여아는 47.9%(115만원)를 환급받는다. <br/> <br/>KDB생명은 보험료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장하는 담보 범위가 가장 넓었다. 중대화상,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등을 2000만원 보상한다. 5대 장기이식수술, 개흉 심장수술, 중증재생불량성빈혈과 중증세균성수막염 등은 1000만원 보장한다. 암수술비를 최대 200만원 따로 보장하며, 어린이 주요질환 수술비도 최대 100만원 보장한다. <br/> <br/>KDB생명 관계자는 "경쟁사의 온라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금액이 커 보험료도 소폭 높다"며 "똑같은 담보로 오프라인 상품과 비교하면 30% 정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br/> <br/>보험사 한 관계자는 "5월을 맞아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어린이보험이 있다고 해도 저렴한 보험료로 실속 있는 보장만 가입, 자녀 질병이나 사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7.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중동 환자 위한 ‘아랍의 밤’ 행사 개최  
날짜: 201505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430716  
본문:   <br/> <br/>검은 차도르를 두른 여성들과 머리에 터번을 쓴 남성들이 하나 둘 서울아산병원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9시간을 날아온 중동 환자와 가족들이다. <br/> <br/>아랍에미리트에서 온 간이식 환자 하셈(62), 신장이식을 받고 회복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브람(43)도 한자리에 모였다. 부인과 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랍에미리트의 나주드(27)도 함께했다. <br/> <br/>낯선 나라에서 병원생활을 하면서 건강은 많이 회복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가던 환자들이 이날만큼은 중동 음식으로 향수를 달랬다. 환자들을 돌보느라 힘들었던 보호자들도 동병상련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br/> <br/>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지난 30일 저녁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아산홀에서 ‘아랍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br/> <br/>아랍의 밤 행사는 타지에서 치료를 받느라 고생한 중동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중동 음식을 통해 환자들이 향수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한 자리다. <br/> <br/>행사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중동 환자 및 가족 30여명과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UAE 대사관 및 무관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등 중동 관계자가 참석했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중동 환자와 가족을 위해 만든 총 35종의 ‘할랄푸드’를 마련했다. 할랄푸드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허용된 고기와 곡식을 이용한 음식이다. <br/> <br/>이날 선보인 음식들은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에서 중동 쉐프와 환자 가족에게 배운 것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중동 환자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br/> <br/>또한 한복 체험과 한국의 전통놀이를 통해 한국문화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br/> <br/>김영탁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산부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리라 생각한다</span>” “<span class='quot0'>중동 음식을 제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우리 병원의 노력이 중동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span>”고 취지를 밝혔다. <br/> <br/>또한 “장기이식,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우리병원을 찾는 중동 환자들이 매년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의료진도 우리병원에 의술을 배우러 오고 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서울아산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br/> <br/>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랍에미리트 국적 하셈 알해브쉬(62·남) 씨는 “한국에 수술을 받으러 오게 돼 두려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 중동환자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줘 아들의 간을 이식 받고 잘 회복할 수 있었다”며 “환자에 대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장기이식과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는 지난해에만 500여명의 중동환자를 포함해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외국인환자가 다녀갔으며 매년 20% 이상의 외국인 환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8.txt

제목: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  
날짜: 20150501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0403649  
본문: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br/> <br/>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r/> <br/>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는 제외된다.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br/> <br/>문제는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다.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br/> <br/>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 <br/>비용도 만만찮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 <br/> <br/>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br/> <br/>다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br/> <br/>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다.  <br/> <br/>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이른바 서울지역 초대형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열린 상처, 3위는 감기, 4위는 급성 위장관염, 5위는 복통이었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49.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중동 환자 위한 ‘아랍의 밤’ 행사 개최  
날짜: 201505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000635  
본문:  검은 차도르를 두른 여성들과 머리에 터번을 쓴 남성들이 하나 둘 서울아산병원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9시간을 날아온 중동 환자와 가족들이다.아랍에미리트에서 온 간이식 환자 하셈(62), 신장이식을 받고 회복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브람(43)도 한자리에 모였다. 부인과 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랍에미리트의 나주드(27)도 함께했다.낯선 나라에서 병원생활을 하면서 건강은 많이 회복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가던 환자들이 이날만큼은 중동 음식으로 향수를 달랬다. 환자들을 돌보느라 힘들었던 보호자들도 동병상련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지난 30일 저녁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아산홀에서 ‘아랍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아랍의 밤 행사는 타지에서 치료를 받느라 고생한 중동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중동 음식을 통해 환자들이 향수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한 자리다.행사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중동 환자 및 가족 30여명과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UAE 대사관 및 무관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등 중동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중동 환자와 가족을 위해 만든 총 35종의 ‘할랄푸드’를 마련했다. 할랄푸드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허용된 고기와 곡식을 이용한 음식이다.이날 선보인 음식들은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에서 중동 쉐프와 환자 가족에게 배운 것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중동 환자에게도 제공되고 있다.또한 한복 체험과 한국의 전통놀이를 통해 한국문화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김영탁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산부인과 교수)은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리라 생각한다” “중동 음식을 제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우리 병원의 노력이 중동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또한 “장기이식,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우리병원을 찾는 중동 환자들이 매년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의료진도 우리병원에 의술을 배우러 오고 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서울아산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랍에미리트 국적 하셈 알해브쉬(62·남) 씨는 “한국에 수술을 받으러 오게 돼 두려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 중동환자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줘 아들의 간을 이식 받고 잘 회복할 수 있었다”며 “환자에 대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장기이식과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는 지난해에만 500여명의 중동환자를 포함해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외국인환자가 다녀갔으며 매년 20% 이상의 외국인 환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0.txt

제목: 북한산 마취제 만병통치약 둔갑  
날짜: 20150501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000059  
본문: 암환자 등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려고 몽골에서 밀반입한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부산지방경찰청 제공북한산 마취제를 다량 밀반입한 몽골인과 몽골 선교사,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무면허 의료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R(34·여)씨 등 몽골인 5명과 교회 목사 박모(57)씨,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76)씨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 등 몽골인 5명과 박씨 등 내국인 7명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6000여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1.txt

제목: 경증 질환 응급실 찾을 땐 ‘진료비 폭탄’  
날짜: 20150501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17163601  
본문: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을 때 진료비보다 많은 ‘응급실 관리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 명목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 비용을 부담한다. 생명이 위독하거나 급성 통증·출혈 등 법으로 정한 응급환자나 준응급환자는 이 비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감기나 단순 통증 등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환자는 이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br/> <br/>서울대병원 등 전국 2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료나 약 처방을 받아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외에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비응급환자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br/> <br/>대한응급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약 80%는 비응급 환자다. 서울의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질환별 환자 수도 1위 암, 2위 열린 상처, 3위 감기, 4위 급성 위장관염, 5위 복통이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2.txt

제목: "혐오감 없어야 한다"···흡연 경고그림 '단서조항' 논란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000563  
본문: 복지부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의뢰로 작년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의 예시.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경고 그림의 내용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경고그림이 혐오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소위로 되돌리면서 나온 이유 역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금연단체들은 법안의 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이 같은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실시한 담뱃갑 경고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배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담배라는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끔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법의 의도와 단서조항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서 회장은 "폐암, 후두암, 뇌경색 등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혐오스럽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암을 미화시켜서 표현하라는 말인지 당황스럽다"며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법사위가 '사실적 근거'나 '지나친 혐오감' 같은 표현을 써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단서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작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했다. 조사 결과 신체적 후유증이나 치아변색, 폐암, 임산부 간접흡연 등에 대한 효과가 경고그림의 주제일 때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적 정보 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으며 제도 도입 초반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우선 도입한 뒤 차차 강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흡연 경고그림은 내용에 따라 혐오 수준이 낮은 편인 일반형과 암 종양이나 수술 장면 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혐오형으로 나뉜다. 피부 손상이 심한 여성을 보여주거나 그림을 통해 간접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식은 일반형에, 후두암이나 폐암의 환부를 보여주는 것이 혐오형에 각각 속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효과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경고를 할 의도는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한국의 높은 흡연율을 끌어내릴 가장 강력한 비가격 금연 정책으로 꼽힌다.현재 77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제도 도입 후 6년 사이 6%포인트, 브라질은 1년 만에 8.6%포인트 흡연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흡연 경고그림 의무화가 들어있는 국민건강진흥법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되며,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3.txt

제목: 도타2, 대규모 영웅 개편 및 신규 아이템 8종 추가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000363  
본문:  넥슨(대표 박지원)은 1일 밸브 코퍼레이션(이하 밸브, 대표 Gabe Newell)이 개발하고 자사가 국내 서비스하는 정통 AOS게임 도타2에 대규모 영웅 개편을 실시하고 신규 아이템 8종을 추가했다.이번 개편은 총 110개 영웅들 간의 밸런싱을 위해 정식 서비스 이후 진행한 여섯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이며, 89개 영웅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감행했다.상향된 영웅 중 닉스 암살자는 아가님의 홀을 구매하면 땅속에 숨어 체력, 마나를 회복하는 신규 기술 파고들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군단사령관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반격하는 기술인 용기의 순간 발동 확률, 체력 흡수율이 증가했다.하향된 영웅 중 트롤 전쟁군주는 광전사의 분노를 사용할 때 더 이상 추가 공격력을 받지 못하고 전투 결의의 지속 시간이 7초에서 5초로 감소했다. 가면 무사는 분노의 칼날 재사용 대기시간이 증가했고, 궁극기인 ‘연속 베기’를 사용할 때 첫 상대를 순간 기절시키는 기능이 없어졌다.이와 함께 마나를 즉시 150 회복 시켜주는 마력 깃든 망고(소모품)부터 사용시 주변 아군의 체력, 마나를 회복시켜주는 수호자의 경갑, 모든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25% 줄여 주고 주문으로 받는 피해 일부를 체력으로 흡수해 주는 팔색구 등 전투에 도움을 주는 신규 아이템 8종을 추가했다.도타2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넥슨 도타 2 공식 홈페이지(http://dota2.nex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남윤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4.txt

제목: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 ??? 정신건강 관리는?  
날짜: 20150501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000160  
본문:  자영업자 진종운 씨(67세, 남)는 20대 초반에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질환은 만성으로 발전해 40대 중반 투석치료를 시작했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초 50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진 씨의 수명은 70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씨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span class='quot0'>늘 엄격하게 제한되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감수해야 하고, 금전적인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span>”는 진 씨는 “<span class='quot0'>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때로 나를 짐처럼 취급하는 느낌을 받는다</span>”고 토로했다.  ◆고령의 만성질환자, 가족이나 친지의 짐 될까 걱정보건사회연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1만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기경 과장은 “<span class='quot1'>만성질환자의 심리상태는 일반인의 그것과 달리 심리사회적 요인과 함께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사례자와 같은 신장질환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던 반면 최근에는 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치료를 받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측면의 문제들이 고려돼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만성질환자가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은 질환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과 신체 기능 및 외형 변화에 따른 자존감 저하다.질병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장기화되면 극심한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같은 변화는 치료에 대한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고립감도 만성질환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입원치료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자신감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 같다’는 부담감에 염려와 공포도 감당해야 한다. 병이 언제 나을지 모른다는 걱정, 친밀한 타인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다는 불안 등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만성질환자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 그 자체로 사망률이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 치료 순응도 역시 저하된다. 만성질환자 치료에 정신건강 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관절염에 상담치료, 뇌졸중엔 약물치료 필요할 수도상대적으로 질환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극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고령의 만성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세는 ‘일관성’이다. 열린 마음을 갖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가족들 또한 적절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며 질환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일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기관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만성질환자의 정서적 불안은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 노인 만성질환 중 두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관절염은 생활에 제약이 크고 통증이 심각해 질환의 발생 이전과 이후 삶의 질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의 정도에 따라 상담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후유증이나 사망의 위협이 높은 뇌졸중은 질환 자체의 심각성이 던져주는 충격과 공포도 크지만 뇌손상 부위에 따라 신경전달물질에 변화가 생겨 우울한 기분이 될 수 있다. 장기치료율이 높은 신장질환 역시 말기에 이르러 요독소가 증가해 우울증이 발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정신건강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은 약물치료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하다.만성질환자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만성질환자의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이기경 과장은 “<span class='quot1'>일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자의 정확한 질환적 상태를 파악해 맞춤식 접근이 가능하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만성질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는 치료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간의 관계를 증진시킨다</span>”고 설명했다.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만성신부전증, 치매, 암 등의 중증질환에 대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질환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입원 환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풍선아트테라피, 원예테라피, 웃음테라피, 종이접기테라피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힐링콘서트’, ‘암예방 쿠킹레시피’ 등 행사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5.txt

제목: [김승동의 보험 X-ray]'5월은 어린이달'… 어린이보험 선택법은  
날짜: 20150501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000083  
본문: 5월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보장은 비슷하면서 보험료는 오프라인 대비 30% 정도 저렴한 온라인 어린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어린이보험은 암이나 재해장해, 수술, 골절, 입원은 물론 심한 화상을 입거나 장기이식을 할 경우를 대비해 고액을 보장한다. 게다가 손해보험사 상품이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어린이들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반면 활동성은 좋아 작은 질병과 사고에 자주 노출된다. 따라서 고액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이며 자주 노출되는 사소한 질병도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험 전문가들은 조언한다.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중 온라인으로 어린이보험 가입을 완결할 수 있는 곳은 교보라이프프플래닛,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등 5개 보험사다.이들 보험사는 대부분 온라인 어린이보험을 단일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은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보험은 규격화, 단순화 되어 있다"며 "맞춤형 설계는 안 되지만 대량생산하는 공산품처럼 보험도 규격화를 통해 오프라인 상품 대비 3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고 설명했다.세계파이낸스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30세 남성이 올해 태어난 아들의 보험을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설계를 했다. 오프라인 상품으로는 우리나라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자녀보장보험4.0'을 선택했다. 온라인 상품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설계부터 가입까지 완결할 수 있는 5개 보험사를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했다.삼성생명 '자녀보장보험4.0'은 일반암 5000만원, 경계성종양·갑상선암 600만원, 소액암 300만원을 보장했다. 재해장해보험금은 최대 5000만원이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2배인 1억원을 보장했다. 또한 선택특약으로 고도장해보장·재해보장Ⅱ·신입원·재해입원·어린이수술보장 등을 선택했다.삼성화재 상품은 30년 동안 납입하는 상품이 없다. 15년 동안 납입하고 30년을 보장받는다. 가입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납보험료는 4만200원이다. 15년 동안 총 723만6000원을 납입해야 한다.반면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는 오프라인 상품 대비 부담이 현저히 적었다. 5000원대부터 1만원대 초반에 불과했다. 30년을 보장받기 위해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200만원대가 대부분이었다.온라인 어린이보험은 대부분 백혈병이나 뇌암 등의 고액암은 위암이나 간암과 같은 일반암 대비 2배를 보장했다. 보장금액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다.사고 등으로 재해가 발생해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00만원 혹은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장해라면 일반 재해장해의 2배를 보장받아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다.어린이들은 자주 다친다. 뼈가 부러지는 골절로 수술을 할 경우 20만원 혹은 3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입원에 따라서 최대 180일까지 2만원 혹은 3만원의 입원비를 매일 받을 수 있다.이외 병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수술비도 보장된다.주요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5000원 대에 어린이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이미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고객도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핵심 보장만 설정했다"며 "어린이들이 주로 노출되는 10대 질병인 폐렴,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 등으로 입원하면 매일 2만원의 입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가 1만원인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1만원 단위로 구분된다. 대산 만기에 환급금이 있다. 0세 자녀의 보험료는 1만원이다. 대신 30년 후 만기에 남아는 17.9%(43만원), 여아는 47.9%(115만원)를 환급받는다.KDB생명은 보험료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장하는 담보 범위가 가장 넓었다. 중대화상,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등을 2000만원 보상한다. 5대 장기이식수술, 개흉 심장수술, 중증재생불량성빈혈과 중증세균성수막염 등은 1000만원 보장한다. 암수술비를 최대 200만원 따로 보장하며, 어린이 주요질환 수술비도 최대 100만원 보장한다.KDB생명 관계자는 "경쟁사의 온라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금액이 커 보험료도 소폭 높다"며 "똑같은 담보로 오프라인 상품과 비교하면 30% 정도 저렴하다"고 말했다.보험사 한 관계자는 "5월을 맞아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어린이보험이 있다고 해도 저렴한 보험료로 실속 있는 보장만 가입, 자녀 질병이나 사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6.txt

제목: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  
날짜: 20150501  
기자: psc@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1100000696  
본문: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는 제외된다.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문제는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다.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용도 만만찮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다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이른바 서울지역 초대형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열린 상처, 3위는 감기, 4위는 급성 위장관염, 5위는 복통이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7.txt

제목: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 10만명 당 45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날짜: 2015043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5604774  
본문: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30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CR)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5명으로 조사 대상 18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br/> <br/>이는 국가별로 다른 인구 구성·통계의 정확도 등을 고려, IACR이 각국의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결과다. <br/> <br/>이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42.7명으로 한국의 뒤를 이었고, 헝가리(42.3명), 덴마크(40.5명) 등이 대장암 유병율이 높은 나라로 손꼽혔다. <br/> <br/>네덜란드(40.2명), 노르웨이(38.9명), 벨기에(36.7명) 등 선진국이 대장암 발병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br/> <br/>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돌았다. <br/> <br/>남성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 남성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률은 58.7명이나 됐다. <br/> <br/>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61.6명)로, 한국은 헝가리(58.9명)에 이어 3위였다. <br/> <br/>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한국(33.5명)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았다. 여성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35.8명)로 조사됐다. <br/> <br/>대장암은 고열량 육식 위주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선진국형 암'으로도 불린다. <br/> <br/>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일단 암이 진행되면 다른 암보다 암세포의 증식이 빠르고 말기 생존율이 낮아 조기 진단이 치료의 핵심이다. <br/> <br/>고대구로병원 암병원 대장암센터 민병욱 교수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가까이 완치되므로 무증상인 시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r/> <br/>같은 병원 오상철 교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당류나 지방질이 많은 육류는 줄여야 한다"며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면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8.txt

제목: 북한산 마취제 밀수, '만병통치약'으로 판 15명 검거  
날짜: 20150430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5733819  
본문: 북한산 마취제를 다량 밀반입한 몽골인과 몽골 선교사,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무면허 의료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br/> <br/>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R(34·여)씨 등 몽골인 5명과 교회 목사 박모(57)씨,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76)씨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R씨 등 몽골인 5명과 박씨 등 내국인 7명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6000여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몽골인 가운데는 R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치과의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다. <br/> <br/>국인 7명은 선교활동 등을 위해 몽골에 자주 드나드는 목사 2명, 선교사 3명, 관광가이드, 무직자 등이다. <br/> <br/>금당-2호는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벤츠 등 고급 승용차 2대를 굴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59.txt

제목: 신경마비 부작용있는 북한산 마취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유통시킨 일당  
날짜: 2015043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5805925  
본문: 북한산 마취제를 만병통치약이라며 선전해 10여억원어치를 판매한 몽골 국적 일가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br/> <br/>39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북한산 마취제 밀반입 총책인 A(33·여·몽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취제를 공급받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한방 주사제로 투약·판매한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B(76)씨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br/> <br/>또 마취제 밀반입을 도운 A씨의 가족과 국내 목사, 선교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이들은 몽골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종교인들과 공모해 북한산 불법의약품인 마취제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넘겨 만병통치약으로 유통시켰다. <br/> <br/>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자신의 가족 4명과 몽골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목사, 선교사 등 종교인 7명과 짜고 수 차례에 걸쳐 북한산 마취제의 일종인 '금당2호' 주사약 6000여 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로 적발돼 소위 '블랙리스트'(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br/> <br/>B씨 등 무면허 의료업자 3명은 금당2호를 2㎖ 앰플 1개당 2500원에 매입한 뒤 암환자 등 수백 명에게 1개당 1만원을 받고 투약하거나 자체적으로 한방 주사제를 제조해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br/> <br/>북한산 불법의약품인 금당2호는 개성 인삼 추출액과 백금을 나노 공법으로 용융해 혼합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되고 있다. <br/> <br/>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금당2호의 성분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프로카인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주사액으로 인체에 투약할 경우 쇼크나 중추 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br/> <br/>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뿐만 아니라 중국산, 러시아산 가짜 제품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이나 베트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밀반입 유통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0.txt

제목: 북한산 마취제 만병통치약 둔갑  
날짜: 20150430  
기자: 부산=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3010017151000  
본문: 암환자 등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려고 몽골에서 밀반입한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부산지방경찰청 제공북한산 마취제를 다량 밀반입한 몽골인과 몽골 선교사,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무면허 의료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br/> <br/>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R(34·여)씨 등 몽골인 5명과 교회 목사 박모(57)씨,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76)씨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 등 몽골인 5명과 박씨 등 내국인 7명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6000여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1.txt

제목: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 10만명 당 45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날짜: 20150430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30100000374  
본문: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CR)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5명으로 조사 대상 18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이는 국가별로 다른 인구 구성·통계의 정확도 등을 고려, IACR이 각국의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42.7명으로 한국의 뒤를 이었고, 헝가리(42.3명), 덴마크(40.5명) 등이 대장암 유병율이 높은 나라로 손꼽혔다.네덜란드(40.2명), 노르웨이(38.9명), 벨기에(36.7명) 등 선진국이 대장암 발병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돌았다.남성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 남성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률은 58.7명이나 됐다.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61.6명)로, 한국은 헝가리(58.9명)에 이어 3위였다.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한국(33.5명)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았다. 여성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35.8명)로 조사됐다.대장암은 고열량 육식 위주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선진국형 암'으로도 불린다.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일단 암이 진행되면 다른 암보다 암세포의 증식이 빠르고 말기 생존율이 낮아 조기 진단이 치료의 핵심이다.고대구로병원 암병원 대장암센터 민병욱 교수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가까이 완치되므로 무증상인 시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같은 병원 오상철 교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당류나 지방질이 많은 육류는 줄여야 한다"며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면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2.txt

제목: 북한산 마취제 밀수, '만병통치약'으로 판 15명 검거  
날짜: 20150430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30100000509  
본문: 북한산 마취제를 다량 밀반입한 몽골인과 몽골 선교사,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무면허 의료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R(34·여)씨 등 몽골인 5명과 교회 목사 박모(57)씨,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76)씨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R씨 등 몽골인 5명과 박씨 등 내국인 7명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6000여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몽골인 가운데는 R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치과의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다.국인 7명은 선교활동 등을 위해 몽골에 자주 드나드는 목사 2명, 선교사 3명, 관광가이드, 무직자 등이다.금당-2호는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벤츠 등 고급 승용차 2대를 굴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3.txt

제목: 자궁적출 막기 위해서는 연 2회 자궁근종 진단이 필수  
날짜: 20150430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30100001052  
본문: 가장 흔한 여성 부인과 종양인 자궁근종은 자궁내의 미성숙한 근육세포가 커져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종양으로 그 크기가 다양할 뿐 아니라, 가임 연령층인 20~40대 여성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된다. 40대 이상 여성들에서는 그 발생빈도가 더욱 높는 등 산부인과 영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연 2회 정도의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자궁근종은 악성(암)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적관찰을 통해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환자가 2009년 23만7000명에서 2013년도에 29만3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5.5%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0~40대 여성들은 자궁근종 발병률이 40~50%에 달하고 있으며, 미혼의 20~30대 여성들도 스트레스나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자궁근종의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포미즈여성병원, 자궁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 비수술적 방법으로 자궁근종 치료자궁근종의 치료는 과거에는 복강경 자궁근종 절제술, 복강경 자궁 적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법이 주를 이뤘으나, 이는 환자의 몸과 자궁에 부담을 줄뿐 아니라 비용도 비싸고, 임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문제점 등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최근에는 이러한 부담을 최대한 줄인 비수술적 치료법이 각광받고 있다. 자궁근종의 비수술적 치료로 유명한 목동 포미즈여성병원 정종일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본원에서는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이전의 수술적 치료법과 달리 여성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자궁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법인 자궁근종 용해술과 하이푸 치료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이나 시술 후의 정상 분만을 원하는 여성 환자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span>”라고 말했다.자궁근종 용해술은 최소 침습적인 치료방법으로써, 수술을 하지 않고 초음파나 골반내시경 유도 하에 열치료 바늘을 종양 안에 정확히 삽입 후 마찰열을 통해 종양을 태우는 최신 치료법으로써 치료 이후에는 근종의 성장이 멈추고, 서서히 근종이 축소된다. 또한 근종으로 인한 증세가 완화, 소실되며 근종이 서서히 자궁 밖으로 떨어져 배출된다. 이러한 자궁근종 용해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으며 합병증이나 흉터가 남지 않고, 일반적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하이푸 치료는 비침습적 치료로 환자의 몸 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종양을 칼 혹은 심지어 바늘조차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몸 밖에서 고강도의 초음파를 사용, 정확히 종양부위에 집중시켜 주변 장기 및 조직의 손상 없이 목표 종양만을 괴사시키는 열 소작 최신 치료 기술로, 무출혈, 무통, 무절개, 무마취로 자궁근종의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무절개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없고, 빠른 일상복귀가 가능하다.목동 포미즈여성병원은 1985년에 개원한 이후 많은 여성 환자들의 소중한 자궁을 부작용 없이 살려내어 많은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으며, 자궁근종 클리닉에서 환자를 치료해왔던 수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궁근종 비수술적 치료에서 인정받은 전문 의료진들이 자궁근종 용해술과 하이푸 치료를 통해 자궁근종을 치료하고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4.txt

제목: 신경마비 부작용있는 북한산 마취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유통시킨 일당  
날짜: 20150430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30100000599  
본문: 북한산 마취제를 만병통치약이라며 선전해 10여억원어치를 판매한 몽골 국적 일가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39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북한산 마취제 밀반입 총책인 A(33·여·몽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취제를 공급받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한방 주사제로 투약·판매한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B(76)씨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또 마취제 밀반입을 도운 A씨의 가족과 국내 목사, 선교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몽골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종교인들과 공모해 북한산 불법의약품인 마취제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넘겨 만병통치약으로 유통시켰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자신의 가족 4명과 몽골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목사, 선교사 등 종교인 7명과 짜고 수 차례에 걸쳐 북한산 마취제의 일종인 '금당2호' 주사약 6000여 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로 적발돼 소위 '블랙리스트'(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B씨 등 무면허 의료업자 3명은 금당2호를 2㎖ 앰플 1개당 2500원에 매입한 뒤 암환자 등 수백 명에게 1개당 1만원을 받고 투약하거나 자체적으로 한방 주사제를 제조해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북한산 불법의약품인 금당2호는 개성 인삼 추출액과 백금을 나노 공법으로 용융해 혼합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금당2호의 성분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프로카인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주사액으로 인체에 투약할 경우 쇼크나 중추 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뿐만 아니라 중국산, 러시아산 가짜 제품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이나 베트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밀반입 유통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5.txt

제목: 요르단 전력 26% 공급… 중동의 밤 밝힌다  
날짜: 20150430  
기자: 방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3010017150959  
본문: 29일(현지시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동쪽으로 40㎞ 떨어진 알 마나커의 암만아시아 디젤발전소. 50m 높이의 기둥 38개가 우뚝 솟은 발전소에서는 각각 15.6㎿ 용량인 디젤엔진·발전기 38개가 굉음을 내며 전기를 토해낸다. 360t짜리 디젤엔진 한 개에 실린더 18개가 있는데, 총 684개의 실린더가 움직이며 발전기를 가동하다 보니 귀마개를 해도 귀가 먹먹할 정도다.  <br/> <br/>한국전력이 60% 지분을 투자한 이 발전소는 지난해 10월 상업가동을 시작했고, 이날 요르단의 압둘라 은수르 총리와 이브라힘 사이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요르단의 세 번째 민자발전 사업인 암만아시아 디젤발전소는 573㎿급. 요르단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14.8%다. 총 사업비 8억달러 가운데 75%인 5억8000만달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했다. 나머지 자금의 60%를 한전이 투자했다.  <br/> <br/>요르단 알 마나커에 위치한 암만아시아 디젤발전소.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25년간 32억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디젤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 발전소의 주요 원료는 중유. 하지만 경유·천연가스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 퓨얼(Tri-fuel)’ 발전소다. 요르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전력수급을 해소할 소중한 존재다. 원료가격과 운영비 면에서 천연가스가 제일 싸고, 중유와 경유가 뒤를 잇는다. 요즘처럼 이집트 정국 불안으로 원활한 천연가스 공급이 힘들어지면 언제든 중유나 경유로 발전,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다.  <br/> <br/>29일(현지시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동쪽으로 40㎞ 떨어진 알 마나커에서 열린 암만아시아 디젤발전소 준공식에서 압둘라 은수르 요르단 총리(오른쪽 두 번째)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세 번째), 최홍기 주 요르단 대사(〃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발전소 준공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br/>한국전력 제공한전의 첫 중동 사업인 알카트라나 가스복합 발전소의 성공이 이 사업에 큰 힘이 됐다. 요르단 전력의 11%를 생산하는 알카트라나 발전소는 암만 남쪽 100㎞ 지역에 있다. 2011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주원료는 천연가스지만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경유 비율이 더 높다. 2개의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만든 후 500도 이상으로 뜨거워진 증기를 1개의 스팀 터빈으로 흘려보내 발전하는 가스복합 방식이다. <br/> <br/>한전은 알카트라나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중유화학 발전소, 아랍에미리트(UAE) 슈웨이핫 S3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등 중동에서만 3개국에서 4개 발전사업을 하는데, 2039년까지 4개 사업에서 총 10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암만·알카트라나=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6.txt

제목: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전환’ 세미나 주관  
날짜: 20150429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5402791  
본문:   <br/> <br/> <br/> <br/>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회장 송효석)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윤현숙)가 공동주관하는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만성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관리’라는 주제로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br/> <br/>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변화, 암과 같은 악성종양 질환 증가 등의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서비스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과거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중심의 질병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관리에 대하여 다양한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br/> <br/>송효석 회장(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만성질환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계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적비용 감소와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흐름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발한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7.txt

제목: 암환자 가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가로챈 의사와 환자  
날짜: 20150429  
기자: 김승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5308671  
본문: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모아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 가까운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br/> <br/>서울 광진경찰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의사 장모(43)씨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박모(45·여)씨 등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을 인수한 뒤 경영 상태가 나빠지자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자 190명과 함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총 19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조사결과 장씨는 주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이 전액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주사비나 치료비를 1회당 10만원 가량 높게 매겨 병원비를 부풀려 현금으로 받고 환자에게는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했다. <br/> <br/>입원환자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사례비로 10만원을 주는 등 유치 활동을 벌인 장씨는 ‘보험금을 부풀려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장씨가 57억원의 담보대출을 떠안고 병원을 인수했는데 병원 경영이 어려워 보험사기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사기에 가담한 환자들 대부분이 주부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span>”고 말했다. <br/> <br/>경찰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8.txt

제목: 암살 전지현, 남편과 이탈리아 로마 여행 '셀카봉 들고 셀카 삼매경'  
날짜: 201504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5115093  
본문: 암살 전지현 <br/>암살 전지현, 남편과 이탈리아 로마 여행 '셀카봉 들고 셀카 삼매경' <br/> <br/>암살 전지현이 남편과 유럽 여행 중인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 중인 전지현 부부'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br/> <br/>공개된 사진에서 전지현은 남편 최준혁 씨와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모델 같은 몸매를 과시하며 우월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전지현의 남편으로 알려진 최준혁 씨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최대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권 종사자다. <br/> <br/>한편 전지현은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에 출연했다. <br/> <br/>암살 전지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전지현, 귀엽다", "암살 전지현, 전지현도 셀카봉을?", "암살 전지현, 멋진 커플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69.txt

제목: 암살 전지현, 영화때문에 단발머리 '싹뚝'...감출 수 없는 미모  
날짜: 201504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5121677  
본문: 암살 전지현 <br/>암살 전지현, 영화때문에 단발머리 '싹뚝'...감출 수 없는 미모 <br/> <br/>암살 전지현의 스틸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암살 전지현 스틸은 해외 브로셔용 스틸로, 극 중 안옥윤 역을 맡은 전지현의 모습이 담겨 있다. <br/> <br/> '암살' 스틸 속 전지현은 비장한 표정을 짓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전지현의 트레이드 마크인 긴 헤어스타일이 아닌 어깨 길이의 단발 헤어스타일이 눈길을 끈다. <br/> <br/>안옥윤은 비밀작전에 투입된 암살단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로,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br/> <br/>전지현은 강도 높은 액션과 다채로운 매력의 연기로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안옥윤 역을 위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긴 생머리 대신 단발머리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br/> <br/>한편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br/> <br/>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전지현 외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 등이 출연한다. 올 여름 개봉 예정.  <br/> <br/>암살 전지현 스틸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암살 전지현, 머리 짧아도 예쁘다" "암살 전지현, 영화 기대돼" "암살 전지현, 개봉 언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0.txt

제목: 딸기 손질법, 당뇨-암-신장병 환자 질환별 주의할 과일은?  
날짜: 20150429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17138792  
본문:   <br/> <br/> <br/>딸기 손질법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질환별로 주의할 과일도 눈길을 끈다. <br/> <br/>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당뇨병 환자와 암 환자다. 당뇨병 환자가 과일을 과다 섭취할 시 과당으로 인해 혈당이 올라 위험하다. <br/>  <br/>암 환자는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어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또 신장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바나나, 오렌지, 수박, 키위 등 칼륨이 많은 과일은 피해야 한다. 칼륨이 갑자기 혈액으로 들어가면 근육•신경 세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고지혈증을 앓는 사람은 자몽을 주의해야 한다. 자몽을 중성지방을 낮추는 고지혈증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혈중 농도가 증가해 중성지방 조절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br/> <br/>한편 딸기는 흐르는 물에 30초 내로 닦는 것이 좋다고 전해졌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1.txt

제목: 비타민D 결핍증상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  
날짜: 20150429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000347  
본문: 비타민D는 지난 40여 년 동안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그 연구는 미비했다. 하지만 최근 비타민D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비타민D가 혈중칼슘 농도를 조절, 면역조절 세포, 상피세포, 악성 종양세포 등 여러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조절, 근력발달, 혈압조절 관여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 특히 각종 암을 비롯해 심혈관계에 도움을 주고 자가면역질환, 염증성질환에도 유익한 역할을 한다. 중풍이나 심장병이 발병하는 경우 회복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최근 미국의 내분비 및 대사질환학회지(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에서 1980년대 당시 3~18세에 이르렀던 어린이 약 2150명을 추적해 45세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의 수치, 흡연 습관, 활동량, 식습관, 혈압 등을 비교분석했고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았던 어린이들은 성년이 됐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아이에 비해 동맥경화 발병률과 경동맥이 두꺼워지는 확률이 두 배에 이르렀다. 경동맥이 두꺼워지면 일반적으로 중풍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인체의 비타민D는 장기적으로 혈관의 건강유지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체의 모든 세포는 비타민D 수용체를 지니고 있어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모든 세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로인해 대장암, 위암 등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대장암은 빈혈,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어 발견되면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40대 이상 성인의 경우 배변습관의 변화, 혈변, 빈혈 등에 변화가 있을 시 바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부산한방병원 방선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이 무서운 암이라 불리는 이유는 전이가 잘되기 때문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span>”고 조언했다. 수년간 암투병을 해온 이해인 수녀나 얼마 전 유명을 달리 한 배우 故 김자옥씨의 경우에도 대장암 완치 판정이후 폐나 위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사례다.야구선수 원종현 선수의 경우에는 대장암 수술 이후 전이에 대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부산한방병원 방선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개인별맞춤처방에 의한 면역암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많이 든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해 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발암물질이 대장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해야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대장암은 예방이 우선이므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으로 비만을 줄이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검사를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2.txt

제목: 암환자 가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가로챈 의사와 환자  
날짜: 20150429  
기자: hwan@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000559  
본문: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모아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 가까운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의사 장모(43)씨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박모(45·여)씨 등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을 인수한 뒤 경영 상태가 나빠지자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자 190명과 함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총 19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장씨는 주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이 전액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주사비나 치료비를 1회당 10만원 가량 높게 매겨 병원비를 부풀려 현금으로 받고 환자에게는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했다.입원환자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사례비로 10만원을 주는 등 유치 활동을 벌인 장씨는 ‘보험금을 부풀려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장씨가 57억원의 담보대출을 떠안고 병원을 인수했는데 병원 경영이 어려워 보험사기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사기에 가담한 환자들 대부분이 주부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span>”고 말했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3.txt

제목: 암환자 모아 가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20억 가로채  
날짜: 2015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000526  
본문: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의사 장모(43)씨와 환자 박모(45·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을 인수한 뒤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환자 190명과 함께 보험금 허위청구를 통해 모두 19억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는 주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이 전액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입원일수 등 진료기록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주사비나 치료비를 1회당 10만원 가량 높게 책정해 병원비를 부풀려 현금으로 받고 환자에게는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했다.경찰 조사결과 환자 유모(42·여)씨는 작년 2월15일 장씨 병원에 하루 입원해 한차례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았을 뿐이지만 마치 11일 동안 입원해 11차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48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또 환자 오모(51·여)씨의 경우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한 6천350만원 가운데 2천200만원이 허위청구를 통해 타낸 돈으로 드러나는 등 부당청구 규모가 1천만원대를 넘는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장씨는 입원환자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사례비로 10만원을 주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고, '보험금을 부풀려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63억원에 병원을 인수하면서 57억원의 담보대출을 떠안은데다 농촌 지역이라 병원 경영이 어려워 보험사기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자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 걱정에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4.txt

제목: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전환’ 세미나 주관  
날짜: 20150429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001186  
본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회장 송효석)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윤현숙)가 공동주관하는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만성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관리’라는 주제로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변화, 암과 같은 악성종양 질환 증가 등의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서비스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과거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중심의 질병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관리에 대하여 다양한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송효석 회장(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만성질환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계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적비용 감소와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흐름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발한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5.txt

제목: 중국, 딸기에서 제초제 성분 과다검출 파문  
날짜: 2015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000557  
본문: 중국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재배된 딸기에서 제초제 성분이 과다검출됐다는 보도로 딸기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2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중앙(CC)TV는 지난 26일 슈퍼마켓과 농원, 도매시장 등에서 딸기 샘플 8개를 구해 조사한 결과 맹독성 제초제성분인 아세토클로르 성분이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이징농학원 연구진들이 샘플을 조사한 결과 아세토클로르 성분이 ㎏당 0.09㎎에서 0.367㎎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의 0.05㎎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딸기에 대한 아세토클로르 잔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아세토클로르는 대량으로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초제 성분이다.보도가 나가자 베이징 뿐 아니라 주변 산둥(山東), 랴오닝(遼寧)성에서까지 딸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딸기 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딸기 가격이 슈퍼마켓에서 ㎏당 40위안(7천원)까지 했지만 지금은 4위안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시장 관계자는 전했다.베이징시 당국도 파문이 커지자 보도 경위 조사와 함께 딸기에 대한 질량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CCTV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연구원들도 있다. 베이징시 농림(濃林)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딸기 재배과정에서 제초제는 필요치 않다면서 제초제를 쓴다면 딸기라는 식물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세계에서 딸기 재배가 가장 많은 국가로 매년 경작면적은 13만3천300헥타르(㏊)에 이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6.txt

제목: [WT논평] Warming up to a climate of doubt  
날짜: 2015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9100000043  
본문: As much of New England continues to dig out from late winter’s massive snowstorms, the climate change lobby is doubling down. When Boston was inundated with snow in January and February, they were quick to blame ― what else? ― global warming. That’s still the favored explanation. In the past 21 years, Boston has had four of its top five heaviest snow seasons, according to Weather.com.But before you suggest that this puts the kibosh on global warming theory, think again. The big snowfalls are the result of man-caused warmer ocean temperatures, we’re told, which allow more condensation and thus more moisture in the clouds to come down as snow.Well, OK. I’m not an atmospheric scientist, but when snow is scarce, don’t they also blame global warming, since more precipitation comes down as rain than snow? This is called having it both ways.To be fair, Kevin Trenberth, distinguished senior scientist at the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and an advocate of man-caused global warming theory, does make an interesting case that Boston’s recent snow binge, like Washington, D.C.’s Snowmageddon in February 2010, is the result of “Goldilocks temperatures.” That’s when you have a relatively warm ocean and moderately cold temperatures inland ― perfect conditions for a big one. The good news for Bostonians is that Mr. Trenberth predicts that while global warming may produce more “extreme” precipitation and thus heavy snowfalls, it is also producing shorter winter seasons. California Democratic Rep. Barbara Lee on Wednesday introduced a congressional resolution proclaiming that, “it is predicted that climate change will lead to increasing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weather conditions, precipitating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round the globe.” Women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bear the biggest burden from these disasters, the resolution says, and this will drive many more women and girls into prostitution ― that’s “sex work” in liberalspeak.The resolution warns that “food-insecure women with limited socioeconomic resources may be vulnerable to situations such as sex work. If you think about this, you have to conclude that anyone cranking up a gas-powered lawnmower is callously driving poor women into “sex work.”Liberals love to make the world safe for more abortions. It’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global warming alarmists’ paradigm that people are a cancer on the planet, so the fewer of us who are around, the better.지구온난화와 성매매 증가의 관계로버트 나이트(美 민권동맹 연구원)뉴잉글랜드의 대부분 지방이 늦겨울의 대규모 폭풍설을 계속 파헤치고 나오는 동안 기후변화 로비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보스턴이 1월과 2월에 눈 속에 파묻혔을 때 기후변화 로비스트들은 지구온난화에 재빨리 책임을 돌렸다.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이 여전히 즐기는 설명이다. 웨더닷컴에 따르면 보스턴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린 다섯 해 가운데 네 해가 지난 21년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지구온난화 이론을 끝장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대규모 강설은 인위적인 대양 온도 상승의 결과라는 말을 듣는다. 대양의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응결하고 따라서 구름 속에 더 많은 습기가 모여 눈이 되어 떨어진다는 것이다.그래 좋다. 필자는 대기과학자가 아니지만 눈이 적게 올 때도 그들은 지구온난화 탓으로 돌리지 않는가. 왜냐하면 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양다리 걸치기라고 한다.공정을 기하기 위해 국립대기연구소의 저명한 선임과학자인 케빈 트렌버스의 주장을 들어보자. 지구온난화 이론 옹호자인 그는 보스턴의 최근 폭설이 워싱턴의 2010년 2월 스노마겟돈처럼 ‘골디록스 온도’의 결과라는 흥미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그것은 폭설 발생의 완벽한 조건인 대양은 비교적 따뜻하고 내륙의 기온은 적당히 낮아 차가운 상태가 갖추어진 때이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극한적인’ 강우 현상을 일으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겨울을 더 단축시키고 있다는 트렌버스의 예측은 보스턴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결의안 하나를 수요일 의회에 제안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기후변화가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전 세계의 자연재해 발생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의 여자들은 이런 재해의 부담을 가장 많이 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문은 말한다. 이는 더 많은 여자들과 소녀들을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성 노동’인 성매매로 내몰 것이다. 선언문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제한되고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여자들은 성 노동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독자가 이런 주장을 고려할 경우 휘발유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잔디깎기를 가동하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여자들을 ‘성 노동’으로 냉담하게 내몬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진보주의자들은 낙태 증가에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지구 위의 암이므로 살아 있는 인간 수가 적을수록 더 좋다는 것이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7.txt

제목: 암살 전지현, 독립군 저격수 역으로 연기 변신 ‘예사롭지 않은 눈빛’  
날짜: 201504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4944791  
본문: 암살 전지현 <br/>암살 전지현, 독립군 저격수 역으로 연기 변신 ‘예사롭지 않은 눈빛’ 영화 '암살'의 예고편 속 전지현의 연기 변신이 화제다. 28일 암살의 배급사인 쇼박스는 온라인을 통해 영화 '암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 ‘암살’은 1933년 상해와 경성을 배경으로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서로 다른 선택과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1933년 상해의 밤거리와 조국이 사라진 경성을 배경으로, 강렬한 총성과 함께 치밀한 암살작전을 예고했다. 특히 여주인공 전지현은 ‘독립군 저격수’역을 맡아 깨진 안경 사이로 목표물을 조준하는 등 노련한 모습으로 새로운 연기를 기대하게 했다. 한편, 영화 암살은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등이 출연하며 올 7월 개봉 예정이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8.txt

제목: 암살 7월 개봉,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화려한 캐스팅’ 올 여름 최고 기대작  
날짜: 201504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4823488  
본문: 암살 7월 개봉 <br/>암살 7월 개봉,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화려한 캐스팅’ 올 여름 최고 기대작 영화 ‘암살’이 7월 개봉을 확정돼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공개된 예고편에는 1933년 상해의 화려한 밤거리와 조국이 사라진 경성을 배경으로 강렬한 총성과 함께 그곳에서의 암살 작전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아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 이정재는 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을 맡아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하정우는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해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한편, 암살 7월개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pan class='quot0'>암살 7월개봉, 캐스팅 기가막히다</span>” “<span class='quot0'>암살 7월개봉, 빨리 보고싶다</span>” “암살 7월개봉,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79.txt

제목: 한국여성 괴롭히는 유방암, 확실히 알고가자  
날짜: 201504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4519611  
본문: 한국여성들에게 갑상선 다음으로 가장 흔한 암인 유방암은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여성호르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병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환자들이 많아 여성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주고 있다. 유방암은 0기 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까우나 4기의 경우 30%미만이다. 이에 자가진단으로 유방의 윤곽, 멍울 등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등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흔한 증상인만큼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많이 있다. 28일 유방암의 정확한 정보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가 확실하게 짚어봤다. <br/> <br/>◆폐경기 이후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br/> <br/>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뿐 아니라 다양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40-50대에 유방암 환자가 제일 많지만,서양에서는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을 정도이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는다. 최근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폐경 후 여성이기 때문에 폐경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방 검진을 받아야 한다. <br/> <br/>◆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선암도 더 잘 걸릴 수 있다? <br/> <br/>흔히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 갑상선암을 동시에 치료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선암 유발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으나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한국여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1,2위의 가장 흔한 암이고, 한 암을 앓고 있으면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사를 받으며 조기에 발견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암을 함께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 <br/> <br/>◆남성유방암? 남성들도 혹이나 멍울 잡히면 조기검진 필요 <br/> <br/>남성유방암도 여성유방암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개 유두 아래에 단단한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은 유방조직 자체가 많지 않고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견될 당시에 초기보다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br/> <br/>멍울이나 혹이 여성형 유방증, 즉 여유증이라는 증세인 경우도 있다. 성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처럼 유방조직이 자라나는 경우인데, 이것 또한 유두 주위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이므로 암과는 상관 없다. 하지만 자가적으로 암인지 여유증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멍울이나 혹이 잡히면 즉시 유방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한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0.txt

제목: 청소년 56% '미혼 동거'-74% '외국인과 결혼' OK, 61% '생활 스트레스'  
날짜: 2015042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34441264  
본문: 청소년의 56%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80%가 가족 모두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장남이 부양해야 믿는 청소년은 3%에 불과했다. <br/> <br/>또 10명 중 6명이 생활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br/> <br/>28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청소년통계'를 발표했다. <br/> <br/>◇ 청소년 56% "남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어" <br/> <br/>'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56.8%로 나타났다. <br/> <br/>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74.2%로 2012년(73.4%)보다 높아졌다. <br/> <br/>'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답도 작년보다 0.5%포인트 늘어난 26.4%로 전반적으로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br/> <br/>◇부모 부양은 가족과 정부 및 사회 모두의 책임…45.4% <br/> <br/>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 <br/> <br/>그다음으로 '가족'(38%)을 지목했다. <br/> <br/>'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도 13.5%로 직전 조사(11%)보다 늘어났다. <br/> <br/>가족 중 부모 부양 책임자에 대해선 '모든 자녀'라는 답이 80.1%로 가장 많아 장자 책임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가족 중 부모 부양자로 장남(맏며느리)을 지목한 비율은 3.2%에 불과했으며 '자식 중 능력 있는 자'라는 답변이 12.5%였다. <br/> <br/>◇ 93.5%가 양성평등 지지 <br/> <br/>성 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도 높아져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양성평등 의식을 가진 청소년이 93.5%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높았다. <br/> <br/> '모든 사람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93.4%에 달했으며 80% 이상이 '청소년도 사회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r/> <br/>◇ 61%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가장 큰 고민은 '공부' <br/> <br/>청소년 10명 중 6명이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3~2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1.4%가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br/> <br/>'학교생활'과 '가정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은 각각 54.4%와 34.4%였다. <br/> <br/>'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도 67.2%였다. <br/> <br/>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5.3%)가 가장 컸다. 이어 '직업'(25.6%), '외모·건강'(16.9%) 순이었다. <br/> <br/> '고민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보다 1%포인트 줄어든 4.6%에 그쳤다. <br/> <br/>이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부모'(26%)보다 '친구·동료'(46.2%)가 많았다. 부모 중에는 아버지(3.8%)보다 어머니(22.3%)를 찾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br/> <br/>◇중고생 흡연율 9.2%로 감소추세 <br/> <br/>사회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고등학생의 흡연율도 9.2%로 전년(9.7%)보다 감소했다. <br/> <br/>그러나 음주율은 0.4%포인트 늘어난 16.3%를 기록했다. <br/> <br/>자살 충동과 관련,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청소년이 7.9%로 2012년에 비해 3.3%포인트 줄어들었다. <br/> <br/>아직까지 9~24세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인구 10만 명당 7.8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운수사고(4.4명), 암(3.1명)이었다. <br/> <br/>◇월평균 사교육비 24만2000원 <br/> <br/>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개선됐다. <br/> <br/>2012년보다 3.5%포인트 높은 49.6%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만족도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떨어져 중학생의 만족도(55%)가 고등학생(47%)보다 낮았다. <br/> <br/>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예년과 비슷한 68.6%였으며 초등학생 81.1%, 중학생 69.1%, 일반계 고등학생 56.2% 순으로 어릴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 <br/> <br/>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이며 중학생 27만원, 일반계 고등학생 26만9000원, 초등학생 23만2000원 수준이었다. <br/> <br/>◇문화 예술활동 참여도 77.2% <br/> <br/>학업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br/> <br/>지난 1년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77.2%로 2011년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br/> <br/>'모험·개척활동' 경험이 36.9%로 2011년(13.3%)보다 약 3배 증가했으며 '직업·진로활동'이나 '정책 참여 활동' 등을 해본 경험도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br/> <br/>◇ 하루 1회 2~3시간은 인터넷 사용 <br/> <br/>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빈도를 보면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는 답변이 10대는 95.2%, 20대는 99.3%에 이르렀다. <br/> <br/>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0대는 14.4시간 20대는 20.5시간이었다. <br/> <br/>고등학생의 78.1%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했으며 대학생은 이 비율이 90.4%였다. <br/> <br/>중·고등학생이 접하는 유해매체는 '휴대전화 성인물'이 52.6%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 42.7%, 성인용 간행물 34.1% 순이었다. <br/> <br/>휴대전화 성인물과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2012년 조사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br/> <br/>◇ 절반 가량이 우리사회 '불안하다'고 느껴 <br/> <br/>청소년들의 46.9%는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했으며 '안전하다'는 인식은 12.9%에 불과했다. <br/> <br/>2012년 조사에선 '불안하다'는 답변이 37.1%여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br/> <br/>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발생'(27.7%), '국가 안보'(19.1%), '인재'(18%) 순으로 지목됐다. <br/> <br/>2013년 기준 아동(0~17세) 학대 사례는 6796건으로, 2012년에 비해 393건(6.1%)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76.2%로 가장 많고, 학대 유형은 '방임'(26.2%), 정서학대(16.2%), 신체학대(11.1%) 순이었다. <br/> <br/>◇9~24세 인구비중 19%, 37년전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어 <br/> <br/>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5061만7000명 중 청소년(9∼24세) 비중은 961만명(19%)으로 1978년 36.9%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br/> <br/>이런 추세라면 1978년 총 인구 3명 중 1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올해 5명 중 1명, 2060년에는 10명 중 1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br/> <br/>학령인구(6∼21세) 비중도 2010년 20.3%에서 올해 17.5%로 떨어진 데 이어 2060년에는 11.1%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br/> <br/>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 지난해 6만7806명으로, 전년(5만5780명)보다 21.6% 증가했다. <br/> <br/>이는 전체 학생 수의 1.1%에 해당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1.txt

제목: 한국여성 괴롭히는 유방암, 확실히 알고가자  
날짜: 201504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8100000852  
본문: 한국여성들에게 갑상선 다음으로 가장 흔한 암인 유방암은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여성호르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병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환자들이 많아 여성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주고 있다. 유방암은 0기 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까우나 4기의 경우 30%미만이다. 이에 자가진단으로 유방의 윤곽, 멍울 등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등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흔한 증상인만큼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많이 있다. 28일 유방암의 정확한 정보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가 확실하게 짚어봤다.◆폐경기 이후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뿐 아니라 다양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40-50대에 유방암 환자가 제일 많지만,서양에서는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을 정도이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는다. 최근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폐경 후 여성이기 때문에 폐경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방 검진을 받아야 한다.◆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선암도 더 잘 걸릴 수 있다?흔히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 갑상선암을 동시에 치료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선암 유발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으나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한국여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1,2위의 가장 흔한 암이고, 한 암을 앓고 있으면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사를 받으며 조기에 발견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암을 함께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남성유방암? 남성들도 혹이나 멍울 잡히면 조기검진 필요남성유방암도 여성유방암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개 유두 아래에 단단한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은 유방조직 자체가 많지 않고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견될 당시에 초기보다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멍울이나 혹이 여성형 유방증, 즉 여유증이라는 증세인 경우도 있다. 성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처럼 유방조직이 자라나는 경우인데, 이것 또한 유두 주위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이므로 암과는 상관 없다. 하지만 자가적으로 암인지 여유증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멍울이나 혹이 잡히면 즉시 유방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한다.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2.txt

제목: 암살 7월 개봉, 티저 예고편 공개…전지현-이정재-하정우 뭉쳤다!  
날짜: 2015042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810017123795  
본문:   <br/> <br/>암살 7월 개봉 <br/> <br/>배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주연의 영화 ‘암살’이 7월 개봉을 확정짓고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br/> <br/>28일 공개된 예고편에는 1933년 상해의 화려한 밤거리와 조국이 사라진 경성을 배경으로, 강렬한 총성과 함께 그곳에서의 암살 작전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br/> <br/>‘암살’은 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br/> <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 <br/> <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하정우의 파트너에는 오달수와 독립군 진영의 조진웅까지 가세해 영화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br/> <br/>한편 ‘암살’은 ‘타짜’,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신작으로 오는 7월 대개봉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3.txt

제목: 청소년 56% '미혼 동거'-74% '외국인과 결혼' OK, 61% '생활 스트레스'  
날짜: 20150428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8100000238  
본문: 청소년의 56%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가 가족 모두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장남이 부양해야 믿는 청소년은 3%에 불과했다. 또 10명 중 6명이 생활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28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청소년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 56% "남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어"'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56.8%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74.2%로 2012년(73.4%)보다 높아졌다.'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답도 작년보다 0.5%포인트 늘어난 26.4%로 전반적으로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부모 부양은 가족과 정부 및 사회 모두의 책임…45.4%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그다음으로 '가족'(38%)을 지목했다.'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도 13.5%로 직전 조사(11%)보다 늘어났다.가족 중 부모 부양 책임자에 대해선 '모든 자녀'라는 답이 80.1%로 가장 많아 장자 책임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가족 중 부모 부양자로 장남(맏며느리)을 지목한 비율은 3.2%에 불과했으며 '자식 중 능력 있는 자'라는 답변이 12.5%였다.◇ 93.5%가 양성평등 지지 성 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도 높아져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양성평등 의식을 가진 청소년이 93.5%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높았다. '모든 사람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93.4%에 달했으며 80% 이상이 '청소년도 사회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1%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가장 큰 고민은 '공부'청소년 10명 중 6명이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3~2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1.4%가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학교생활'과 '가정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은 각각 54.4%와 34.4%였다.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도 67.2%였다.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5.3%)가 가장 컸다. 이어 '직업'(25.6%), '외모·건강'(16.9%) 순이었다. '고민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보다 1%포인트 줄어든 4.6%에 그쳤다.이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부모'(26%)보다 '친구·동료'(46.2%)가 많았다. 부모 중에는 아버지(3.8%)보다 어머니(22.3%)를 찾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중고생 흡연율 9.2%로 감소추세 사회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고등학생의 흡연율도 9.2%로 전년(9.7%)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율은 0.4%포인트 늘어난 16.3%를 기록했다.자살 충동과 관련,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청소년이 7.9%로 2012년에 비해 3.3%포인트 줄어들었다. 아직까지 9~24세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인구 10만 명당 7.8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운수사고(4.4명), 암(3.1명)이었다. ◇월평균 사교육비 24만2000원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개선됐다. 2012년보다 3.5%포인트 높은 49.6%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만족도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떨어져 중학생의 만족도(55%)가 고등학생(47%)보다 낮았다.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예년과 비슷한 68.6%였으며 초등학생 81.1%, 중학생 69.1%, 일반계 고등학생 56.2% 순으로 어릴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이며 중학생 27만원, 일반계 고등학생 26만9000원, 초등학생 23만2000원 수준이었다.◇문화 예술활동 참여도 77.2%학업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늘어났다.지난 1년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77.2%로 2011년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모험·개척활동' 경험이 36.9%로 2011년(13.3%)보다 약 3배 증가했으며 '직업·진로활동'이나 '정책 참여 활동' 등을 해본 경험도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하루 1회 2~3시간은 인터넷 사용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빈도를 보면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는 답변이 10대는 95.2%, 20대는 99.3%에 이르렀다.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0대는 14.4시간 20대는 20.5시간이었다. 고등학생의 78.1%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했으며 대학생은 이 비율이 90.4%였다.중·고등학생이 접하는 유해매체는 '휴대전화 성인물'이 52.6%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 42.7%, 성인용 간행물 34.1% 순이었다. 휴대전화 성인물과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2012년 조사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절반 가량이 우리사회 '불안하다'고 느껴 청소년들의 46.9%는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했으며 '안전하다'는 인식은 12.9%에 불과했다. 2012년 조사에선 '불안하다'는 답변이 37.1%여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발생'(27.7%), '국가 안보'(19.1%), '인재'(18%) 순으로 지목됐다.2013년 기준 아동(0~17세) 학대 사례는 6796건으로, 2012년에 비해 393건(6.1%)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76.2%로 가장 많고, 학대 유형은 '방임'(26.2%), 정서학대(16.2%), 신체학대(11.1%) 순이었다. ◇9~24세 인구비중 19%, 37년전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어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5061만7000명 중 청소년(9∼24세) 비중은 961만명(19%)으로 1978년 36.9%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이런 추세라면 1978년 총 인구 3명 중 1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올해 5명 중 1명, 2060년에는 10명 중 1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학령인구(6∼21세) 비중도 2010년 20.3%에서 올해 17.5%로 떨어진 데 이어 2060년에는 11.1%까지 낮아질 전망이다.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 지난해 6만7806명으로, 전년(5만5780명)보다 21.6% 증가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1.1%에 해당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4.txt

제목: [WT논평] Warming up to a climate of doubt  
날짜: 20150428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810017125663  
본문: As much of New England continues to dig out from late winter’s massive snowstorms, the climate change lobby is doubling down. When Boston was inundated with snow in January and February, they were quick to blame ― what else? ― global warming. That’s still the favored explanation. In the past 21 years, Boston has had four of its top five heaviest snow seasons, according to Weather.com. <br/> <br/>But before you suggest that this puts the kibosh on global warming theory, think again. The big snowfalls are the result of man-caused warmer ocean temperatures, we’re told, which allow more condensation and thus more moisture in the clouds to come down as snow. <br/> <br/>Well, OK. I’m not an atmospheric scientist, but when snow is scarce, don’t they also blame global warming, since more precipitation comes down as rain than snow? This is called having it both ways. <br/> <br/>To be fair, Kevin Trenberth, distinguished senior scientist at the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and an advocate of man-caused global warming theory, does make an interesting case that Boston’s recent snow binge, like Washington, D.C.’s Snowmageddon in February 2010, is the result of “Goldilocks temperatures.” That’s when you have a relatively warm ocean and moderately cold temperatures inland ― perfect conditions for a big one. The good news for Bostonians is that Mr. Trenberth predicts that while global warming may produce more “extreme” precipitation and thus heavy snowfalls, it is also producing shorter winter seasons. <br/> <br/>California Democratic Rep. Barbara Lee on Wednesday introduced a congressional resolution proclaiming that, “it is predicted that climate change will lead to increasing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weather conditions, precipitating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round the globe.” Women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bear the biggest burden from these disasters, the resolution says, and this will drive many more women and girls into prostitution ― that’s “sex work” in liberalspeak. <br/> <br/>The resolution warns that “food-insecure women with limited socioeconomic resources may be vulnerable to situations such as sex work. If you think about this, you have to conclude that anyone cranking up a gas-powered lawnmower is callously driving poor women into “sex work.” <br/> <br/>Liberals love to make the world safe for more abortions. It’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global warming alarmists’ paradigm that people are a cancer on the planet, so the fewer of us who are around, the better. <br/> <br/>지구온난화와 성매매 증가의 관계 <br/> <br/>로버트 나이트(美 민권동맹 연구원) <br/> <br/>뉴잉글랜드의 대부분 지방이 늦겨울의 대규모 폭풍설을 계속 파헤치고 나오는 동안 기후변화 로비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보스턴이 1월과 2월에 눈 속에 파묻혔을 때 기후변화 로비스트들은 지구온난화에 재빨리 책임을 돌렸다.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이 여전히 즐기는 설명이다. 웨더닷컴에 따르면 보스턴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린 다섯 해 가운데 네 해가 지난 21년 속에 포함된다. <br/> <br/>그러나 이런 현상이 지구온난화 이론을 끝장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대규모 강설은 인위적인 대양 온도 상승의 결과라는 말을 듣는다. 대양의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응결하고 따라서 구름 속에 더 많은 습기가 모여 눈이 되어 떨어진다는 것이다. <br/> <br/>그래 좋다. 필자는 대기과학자가 아니지만 눈이 적게 올 때도 그들은 지구온난화 탓으로 돌리지 않는가. 왜냐하면 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양다리 걸치기라고 한다. <br/> <br/>공정을 기하기 위해 국립대기연구소의 저명한 선임과학자인 케빈 트렌버스의 주장을 들어보자. 지구온난화 이론 옹호자인 그는 보스턴의 최근 폭설이 워싱턴의 2010년 2월 스노마겟돈처럼 ‘골디록스 온도’의 결과라는 흥미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그것은 폭설 발생의 완벽한 조건인 대양은 비교적 따뜻하고 내륙의 기온은 적당히 낮아 차가운 상태가 갖추어진 때이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극한적인’ 강우 현상을 일으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겨울을 더 단축시키고 있다는 트렌버스의 예측은 보스턴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br/> <br/>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결의안 하나를 수요일 의회에 제안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기후변화가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전 세계의 자연재해 발생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의 여자들은 이런 재해의 부담을 가장 많이 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문은 말한다. 이는 더 많은 여자들과 소녀들을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성 노동’인 성매매로 내몰 것이다. <br/> <br/>선언문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제한되고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여자들은 성 노동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독자가 이런 주장을 고려할 경우 휘발유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잔디깎기를 가동하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여자들을 ‘성 노동’으로 냉담하게 내몬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br/> <br/>진보주의자들은 낙태 증가에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지구 위의 암이므로 살아 있는 인간 수가 적을수록 더 좋다는 것이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5.txt

제목: 美 중년·노년층 50% 이상 "심근경색·뇌졸중·암 예방 위해 아스피린 복용"  
날짜: 20150427  
기자: yjcho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7100000899  
본문:  미국의 중년·노년층의 50% 이상이 심근경색, 뇌졸중, 암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의과대학 약물요법전문의 크레이그 윌리엄스 박사가 45~75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전체적으로 약 52%가 현재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21%는 과거 한 때  아스피린을 복용한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윌리엄스 박사는 밝혔다.과거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다고 응답한 2039명 가운데 47%가 현재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아스피린 복용자 5명 중 4명이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라고 답했다.복용 이유(복수 응답)를 구체적으로 보면 심근경색 예방 목적이 84%로 가장  많았고 뇌졸중 예방 목적이 66%, 암 예방 목적이 18%,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목적이 11%로 집계됐다.전체 조사대상자 중 49%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49%는 고혈압이 있었다.61%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전에 피우다 끊은 사람들이었다. 흡연도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중 하나다.대부분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됐지만 의사와 협의 없이 스스로 복용을 결정한 사람도 25%나 됐다.아스피린은 진통제이지만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동맥의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그러나 아스피린은 혈액응고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장출혈을 일으키거나 위궤양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그래서 관련 전문학회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 번 겪은 환자들만 재발을 막기 위해 저단위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노스웨스턴 대학 의과대학 심장전문의 로버트 보노 박사는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흡연, 가족력 등 개개인이 지닌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과 아스피린의 부작용 사이의 득과 실을 평가해 아스피린 처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 예방의학 저널’5월호에 발표됐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6.txt

제목: “유전정보 해독 노화·질병 극복”  
날짜: 20150427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7100000191  
본문: 국내 첫 노화정보 회사가 탄생했다.울산과학기술대(UNIST)는 박종화(사진) 생명과학부 교수가 벤처기업 ‘제로믹스(除老믹스)’를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본금 2000만원의 제로믹스는 노화와 질병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대형 고래의 유전정보를 해독하고 고양이과 게놈 표준을 마련한 박 교수와 바이오케미컬 합성미생물 게놈설계 시스템을 개발한 이규상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제로믹스를 통해 게놈정보를 분석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암과 유전적인 희귀병 진단·치료 기술과 제품, 노화진단기기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첫 사업으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1억7000만원 규모의 과제를 수주했다. 연말까지 멸종위기 고양이과 생물 게놈 프로젝트 분석을 지원하는 것이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7.txt

제목: “유전정보 해독 노화·질병 극복”  
날짜: 20150426  
기자: 울산=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610017092305  
본문: 국내 첫 노화정보 회사가 탄생했다. <br/> <br/>울산과학기술대(UNIST)는 박종화(사진) 생명과학부 교수가 벤처기업 ‘제로믹스(除老믹스)’를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본금 2000만원의 제로믹스는 노화와 질병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대형 고래의 유전정보를 해독하고 고양이과 게놈 표준을 마련한 박 교수와 바이오케미컬 합성미생물 게놈설계 시스템을 개발한 이규상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br/> <br/>이들은 제로믹스를 통해 게놈정보를 분석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암과 유전적인 희귀병 진단·치료 기술과 제품, 노화진단기기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첫 사업으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1억7000만원 규모의 과제를 수주했다. 연말까지 멸종위기 고양이과 생물 게놈 프로젝트 분석을 지원하는 것이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8.txt

제목: 슈퍼대디열 이동건, 이유리 살리기 위한 사투 '눈물겹다'  
날짜: 2015042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510017086880  
본문:   <br/> <br/> <br/>‘슈퍼대디 열’ 이유리가 이동건과 이레에 마음을 열고 가족 여행을 떠나지만 여행 중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br/> <br/>25일 오후 8시30분에 방송되는 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 14화에서는 자신을 낫게 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한열(이동건 분)의 모습에 마음을 열고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미래(이유리 분)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여행 중 사라지게 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br/> <br/>지난 13화에서는 재활결혼을 통해 재활에 성공한 한열이 이번에는 아픈 미래를 위해 직접 재활에 나서는 장면이 펼쳐졌다. 미래가 자신에게 했던 대로 남편 노릇을 자처하기도 하고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었다. <br/> <br/>한열과 사랑이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곁을 맴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래는 닥터 신(서준영 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죽고 싶다”며 절규하며 오열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도 했다. <br/> <br/>이번 14화에서는 말기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들킨 미래가 마음을 열고 가족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가족 여행을 떠난 한열, 미래, 사랑이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진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 하지만 자신의 병 때문에 참담해하던 한열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미래는 한열과 사랑을 위해 조용히 떠나려고 해 또 한 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애태울 것으로 보인다. <br/> <br/>예고를 통해 이동건은 “<span class='quot0'>이 여자만 낫게 할 수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겠다</span>”며 절규하는 한열의 모습을 가슴 절절히 연기해 눈물샘을 자극할 전망. <br/> <br/>한편, 지난 13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유리 쓰러지는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실제 상황으로 착각했을 정도”, “이제 이유리는 연민정에서 완벽한 차미래가 됐다”, “이동건, 한열의 진심을 제대로 보여줘서 보는 내내 눈물이 계속 흐른다” 등의 반응으로 응원하고 있다. <br/> <br/>한 때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첫사랑에게 차인 후 평생 혼자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아웃사이더 독신남 ‘한열’, 그 앞에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 결혼하자고 하는 한열의 첫사랑 싱글맘 닥터 ‘차미래’, 그리고 그저 아빠가 갖고 싶은 미운 아홉 살 ‘사랑이’ 의 ‘강제 일촌 만들기’를 그린 이야기 ‘슈퍼대디 열’은 25일 오후 8시30분 14화가 방송되며, 매주 금토 저녁 8시30분에 방송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89.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전자담배, 호흡기질환 위험 높인다고?  
날짜: 2015042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510017086063  
본문: 올해 초 담배값이 2000원 가량 인상되면서 다수의 흡연자들이 대체제로 전자담배를 선택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봐도 흡연자들만큼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띌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늘어났으며, 이와 관련된 주식도 소폭 상승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담배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사용의 장·단점이나 과연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br/> <br/>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전자담배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앞서 복지부가 연구 용역으로 발표한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br/> <br/>NECA는 지난 2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인 'NECA 공명'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포름알데하이드·아크로라인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니코틴 양을 전자담배 사용자가 조절하는 경우 인체 유입량 예측이 어려워 직간접적 니코틴 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br/> <br/>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자담배가 궐련과 같이 규제되고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니코틴 용액 농도 수준, 첨가물의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근거에 기반을 둔 전문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이번 원탁회의 'NECA 공명'을 주관한 임태환 원장은 "현재 금연보조제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안전성 및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서 "전자담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관리방안 마련 등 공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r/> <br/>NECA가 일반인 1000명(흡연자·비흡연자 절반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71.6%였으며 '금연보조제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0.3%나 됐다. <br/> <br/>최근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 흡입이 호흡기 감염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증기가 젊은 사용자들의 호흡기 감염 위험을 상승시키며, 이 위험은 니코틴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미국 덴버 시에 위치한 호흡기질환 전문병원인 국립 주이시 헬스의 췬 우 박사팀이다. <br/> <br/>이들은 과학연구에 기증된 8~10세 어린이들의 호흡기 조직을 검사했다. 전자담배의 영향을 보기 위해 어린이들의 조직을 선택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br/> <br/>연구는 채취한 호흡기 조직 세포를 무균 그릇에 담고 한쪽에만 전자담배 증기와 세포를 접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전자담배 증기에 노출된 호흡기 조직 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에 비해 감기 바이러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바이러스의 양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연구팀은 실험쥐를 통해서도 전자담배 증기 노출 유무의 차이를 확인했다. 전자담배 증기에 노출된 쥐는 노출되지 않은 쥐에 비해 코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인 라이노바이러스(rhino virus)에 더 잘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표피세포는 호흡기를 외부에서 흡입된 위험물질로부터 보호하는 1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전자담배 증기는 이 같은 표피세포 면역체계에 손상을 끼쳐 쉽게 감염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담배 증기에 니코틴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 <br/>이와 함께 전자담배 증기 속에는 염증과 면역체계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인 인터루킨6(IL-6)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니코틴 포함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루킨6의 증가는 몸에 ▲각종 면역 이상증 ▲염증성 질환 ▲림프계 종양이 생기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반면 미국 전자담배제조회사협회(Vaping Association)는 이번 연구에 대해 "실험실에서 세포를 가지고 한 연구를 실제 살아있는 사람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면서 "실제 담배를 흡입했을 때와 비교하지 않은 제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br/>하지만 미국 폐협회의 노먼 엘더만 의학자문관은 "실험실에서 시행한 연구결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도 "이번 연구는 그동안 발표된 여러 연구결과를 확인해 주는 훌륭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br/> <br/>앞서 지난 1월8일에는 미국 암연구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와 미국 임상종양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등 두 기관이 함께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전자담배의 부작용을 줄이고 관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자담배 부작용을 줄이고 관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br/> <br/>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포장지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가격정책 병행으로 인한 금연 효과와 니코틴 오남용 예방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박 의원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는 2012년 이후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 대비 2014년엔 727.1%까지 불어났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전국의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1년 대비 78%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추세다. <br/> <br/>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시중에서 성행하고 있는 니코틴 원액과 향액의 분리판매 증가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등을 통한 직접 제조한 탓이다. 이는 통계상의 전자담배 용액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br/> <br/>특히, 전자담배 용액을 니코틴 원액과 향액으로 분리 판매할 경우 니코틴 원액에만 세금이 부과돼 과세액을 축소 납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독성물질인 니코틴과 별도의 향액을 소비자가 제조하면 니코틴 중독 및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r/> <br/>박 의원은 "최근 수요가 급성장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누수와 용액 제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규정 정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0.txt

제목: 42년간의 일기에 담긴 인간 이오덕의 삶과 죽음  
날짜: 20150424  
기자: 강구열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410017084938  
본문: 이오덕 지음/양철북/1만3000원나는 땅이 될 것이다/이오덕 지음/양철북/1만3000원 <br/> <br/>“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또 다른 한평생으로 살아간다. 오늘도 또 한평생을 살았으니 그것을 대강이나마 적는다.” <br/> <br/>2003년 8월19일 화요일 이오덕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이날로부터 닷새 전 암 선고를 받았고, 엿새 후 세상을 떠났다. 말 그대로 소중한 날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앞에 의연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것에 나도 놀랐다. 정말 이제 조용히 기쁘게 저승을 가게 되었다”고 썼다.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기쁘게 맞겠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br/> <br/>이오덕은 42년간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 책은 일기 중 일부를 뽑아 엮었다. 앞서 5권으로 나와 있던 것을 1권으로 줄여 읽는 부담을 줄였지만 교사로서, 교육사상가로서, 그리고 우리말 운동가로서 생전에 이오덕이 가졌던 신념과 실천,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 안에 하루를 한평생처럼 살다 기쁘게 저승으로 떠난 한 인간이 있다. <br/> <br/>교사가 업이었던 이오덕에게 바른 교육은 평생의 화두였다. 일기에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느꼈던 당대의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과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매섭다. 1962년 9월19일, 그는 아이들에게 “선생질은 제발 하지 마라”고 말했다. ‘대구 종합운동장 확장 기금’을 내지 않은 아이들을 독촉한 뒤였다. “<span class='quot0'>지시, 명령만의 질서와 체제에서는 아이들이…노예처럼 길드는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span>”고 한 것은 강압적인 교육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다. 그리고는 “대관절 선생님들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아이들과 같이할 줄 모른다…난 선생이니 명령만 하면 된다…이런 태도니 교육이 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강압적 교육을 혐오했던 이오덕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1970년 4월24일의 일기다. <br/> <br/>“<span class='quot0'>거짓말 글짓기를 시켰다.…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거짓말’이란 것으로 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아이들의 거짓말은 또 다른 참말이다.</span>” <br/> <br/>이런 내용에 눈길이 가는 것은 50여년 전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학교의 어딘가를 떠올리게 되고, 여전히 유용한 교육 현장의 지향점을 상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br/> <br/>이오덕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일기에 “<span class='quot1'>이제 조용히 기쁘게 저승에 가게 되었다</span>”고 적었다. 하루하루를 한평생처럼 치열하게 살다간 이의 자신감이다. 사진들은 이오덕의 생존 당시 모습. <br/>양철북 제공이오덕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응시했고, 맞서 싸웠다. 하지만 무력함에 스스로 치를 떨 때도 있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그는 비밀리에 나돌던 인쇄물을 읽고 광주의 참상을 접했다. 그해 6월1일, “공수부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찔러 죽이고 쏘아 죽였다”는 인쇄물을 읽고 난 뒤에는 그는 시를 지어 “…그래도 먹고살겠다고/좁쌀이며 감자를 사 가지고 차를 타고 온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라고 자책했다. <br/> <br/>교육 현장과 사회를 성찰한 내용이 두드러지지만,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대목도 적지 않다. 1989년 6월8일 아침, 셔츠를 빨고 내내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다. <br/> <br/>“그래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 여자들이 오래 사는 것은 바로 빨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참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건 재미있는 시적인 생각이라, 시를 한 편 써보고 싶었다. ‘빨래’란 제목으로.”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1.txt

제목: 식용유황, 만병통치약 속여 거액 챙겨  
날짜: 20150424  
기자: 김건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410017084733  
본문: 식용 유황을 만병7통치약이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노인들에게 식이유황 성분이 들어 있는 건강기능 식품을 모든 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62)씨 등 건강기능 식품업체 대표 3명 등 업체 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이유황 식품이 암·고혈압·당뇨·척추 디스크 등에 효험이 있는 만능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총 노인 1600여명에게 팔아 5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식이유황 약품을 먹었더니 10여년 앓은 퇴행성 관절염이 사라졌어요’, ‘암세포가 줄었어요’라는 등의 허위 사례를 담은 광고책자를 만들어 홍보하며 4만원짜리 식용유황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2.txt

제목: 갑상선 치료환자는 늘었으나 수술환자는 크게 줄어  
날짜: 2015042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310017064843  
본문: 한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던 감상선암 수술이 과잉 진단·수술 논란 여파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br/> <br/>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전년보다 24.2%나 줄어든 3만2711명이었다. <br/> <br/>갑상선암 수술 환자는 2008~2012년 매년 평균 15.8%씩 급증하는 추세였다. <br/> <br/>하지만 2013년 증가세가 꺾여 3.6%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이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 <br/> <br/>감상선암 수술 환자는 줄었지만 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br/> <br/>진료 인원에는 암 확진 환자뿐 아니라 암 의심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도 포함된다. <br/> <br/>작년 갑상선암 진료 인원은 30만2014명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br/> <br/>외래 환자는 7.6% 증가했지만 입원 환자는 22.7% 크게 줄었다. <br/> <br/>작년 갑상선암으로 진료한 환자의 80.3%, 수술한 환자의 80.0%는 여성이었다. <br/> <br/>수술환자 중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여성 에서 각각 56.1%, 58.5%였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3.txt

제목: 2015 新건강트렌드가 뜬다!  
날짜: 2015042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310017068311  
본문: 우리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피로와 스트레스, 잦은 과음과 흡연, 수면부족 등을 불굴의 의지로 견디면서 부와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한다. <br/> <br/>그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피로와 통증, 병마의 그림자이다. 지금도 주변에 “이제 살만하니까…”, “드디어 성공했는데…”, 그 꿈의 달콤한 열매를 즐기지도 못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br/> <br/>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 그 이유는 ‘인체의 생명력’을 충전 없이 반복적으로 쓰기만 해서 방전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두뇌·육체에너지는 즉 생명력은 ‘뱃속의 오장육부’에서 만들어진다. 인체의 오장육부가 바로 ‘생명력을 생성하는 엔진’인 것이다. <br/> <br/>그 생명엔진 오장육부가 뜨거울수록 심신(心身)이 건강하고 활기차다. 그러나 과로·과음·과식·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뱃속 장부가 차가워지면서 생명엔진이 식어간다. 생명엔진이 식어 가면 원기(元氣)가 약해지면서 만성피로·수족냉증·탈모·시력저하·코골이·비염·당뇨·정력부진·비만 등 다양한 이상증상이 나타난다. <br/> <br/>더 주목할 것은 뱃속이 차가워 져서 저체온상태가 장기간 반복되면 위염·간염·장염 등 각종 염과 갑상선암·위암·폐암 등 각종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당뇨·중풍·암·치매 등 환자들의 배를 만져보면 공통적으로 차갑다. <br/> <br/>우리 뱃속의 생명온도가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그 대자연의 이치가 생로병사의 비밀이자 무병장수의 비법인 것이다. <br/> <br/>이것이 세계 최초로 ‘생명온도건강법’을 주창한 생명온도연구소 김 소장의 핵심 이론이다. 김종수 소장은 100세 장수노인 300여명 인터뷰, 25년간 3000여일 단식 등 심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련과 연구를 통해 생명온도건강법을 탄생시켰다. <br/> <br/>김 소장은 방송 출연 등으로 자연건강학자로 명성을 얻은 뒤 여러 대학교와 기업체 등에서 600회 이상의 강연를 통해 생명온도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br/> <br/>특히 올해 새봄에 출간한 ‘생명온도\_뱃속이 따뜻하면 만병이 사라진다’는 카피라이터 출신의 캠페인 기획자인 생명온도연구소 김명식 실장과 공저로 탄생했다. <br/> <br/>김 실장은 제약과 병원·헬스 등 메디컬 광고홍보 캠페인을 다년간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그는 남녀노소, 특히 집중력이 약한 독자들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생명온도 바이블’을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4.txt

제목: 비타민D 결핍 증상, 질환 발병 위험 증가 ‘골다공증부터 암까지’ 깜짝  
날짜: 2015042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310017069461  
본문: 비타민D 결핍 <br/>비타민D 결핍 증상, 질환 발병 위험 증가 ‘골다공증부터 암까지’ 깜짝 비타민D 결핍 증상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타민D는 각종 생리적 기능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D가 부족하면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만성 신경변성 질환자에서는 노화, 비만, 햇빛 노출 부족, 고위도 지역 거주, 검은 피부 등 비타민D 결핍증 위험인자가 많이 나타난다.  비타민D 결핍증은 골다공증, 낙상, 고관절 골절 발생률을 높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도 높아진다. 미국 에모리대학 에바트 교수팀이 'Archives of Neurology(2008)'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PD) 환자는 같은 나이의 건강한 성인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비해 비타민D가 부족해지기 쉽다. 비타민D는 뼈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충분히 공급 받지 못하면 구루병, 골다공증, 다발성 경화증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비타민D가 결핍되면 골격의 석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골격이 약화되고 압력을 이기지 못해 휘게 되면서 구루병을 야기한다. 또 비타민D는 결핍 증상이 계속되면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병할 위험도 높아진다. 한편, 비타민D 함유 식품에는 등푸른생선, 동물의 간, 달걀노른자, 버섯 등이 있으며 음식을 통해 섭취하기도 하지만 햇빛에 노출되도록 적당한 야외활동이 필요하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5.txt

제목: 서하준, 과거 임성한 대사에 5분간 얼음 "암세포도 생명인데…"  
날짜: 20150423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310017063520  
본문: '압구정 백야' 임성한 작가의 은퇴설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임 작가의 작품에 출연한 배우 서하준의 발언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br/> <br/>서하준은 임 작가가 쓴 '오로라 공주'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그는 올 초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해 "드라마 출연 당시 '암 세포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죠'란 대사를 받아들고 5분간 얼음이 됐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또 "임 작가와 직접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통화만 한 적 있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임 작가의 '압구정 백야'가 비윤리적인 내용과 폭력성 등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중지' 의견을 내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기에 '압구정 백야' 방송사인 MBC 측 관계자는 "임 작가와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KBS2 방송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6.txt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항암치료 말초신경병증 임상연구 참가자 모집  
날짜: 20150422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210017052266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이수경 교수팀이 암 진단 후 항암치료로 발생한 말초신경병증(손발저림, 통증 등)에 대한 전기침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 <br/> <br/>대상은 암 진단 후 항암치료가 종료된 20세 이상으로, 5년 이내에 말초신경병증이 4주 이상 지속된 자다. <br/> <br/>참가자는 간기능, 신장기능 등의 혈액검사와 함께 1주일에 2회씩 총 6주간 12회의 전기침치료가 진행된다. 또한 신경변증 관련 양약 치료제를 복용하게 된다. <br/> <br/>참가자에게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비, 진료비 및 치료비와 함께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br/> <br/>문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02-440-7288)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7.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성형한 얼굴이 유전된다면?  
날짜: 20150422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210017056634  
본문: 오래전 개봉했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영화제목 탓인지, 가끔 길을 가다가 유치원생 여자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보면 ‘딸은 여자의 과거다’라는 엉뚱한 문구가 떠오르곤 한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하도 흔해서 얼굴이 엇비슷한 젊은 엄마를 많이 보게 되지만, 성형 전 원래 얼굴이 어땠을까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어린 딸의 얼굴을 보면 엄마의 과거 얼굴이 쉽게 연상되기 때문이다. 내 공상은 계속된다. 만일 수술한 얼굴이 유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유전자를 바꾸지 않는 한 후천적으로 얻어진 특성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br/> <br/>그런데 최근의 생물공학은 이 공상을 현실화시키려 하고 있다. 즉 유전자 자체를 바꾸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정보, 즉 ‘염기서열’을 신속히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과 이런 유전자 정보를 공학적으로 조작하려는 ‘게놈 공학’(Genome engineering)의 발전 덕분이다. 인간에게 치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 예를 들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혈우병, 그리고 일부 암의 경우에는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부위를 골라서 잘라버리거나 다른 유전자로 교체를 해버리면 치료가 가능하다. 즉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만 있다면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소설 같은 일이 실현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 특정 유전자를 찾아서 잘라낼 수 있는 ‘Zinc-finger nuclease’, 쉽게 말해서 ‘유전자 가위’와 같은 기술이 등장했고, 근래에는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에만 결합하는 리보핵산(RNA)을 이용해 유전자를 조작하려는 기술도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은 살아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병의 치료였다.  <br/> <br/> 강호정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그런데 인간들은 더 놀라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하려는 연구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만일 이 기술이 완전하다면 인간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배아단계에서는 세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세포만 치료를 해도, 이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을 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윤리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배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아이가 출생하거나 출생 후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엉뚱한 유전자가 편집이 되면 더 끔찍한 유전 질병을 낳을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질병 이외의 악용 가능성이다. 다수의 의료기술들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곧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곤 한다. 처음에 유전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도 나중에는 머리가 좋은 아이, 키가 큰 아이, 나아가서는 특정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동자 색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악용될지도 모른다. <br/> <br/>아이의 영어 발음을 교정한다고 혀까지 수술하는 극성 부모를 생각해보라. 주름을 펴준다는 보톡스 시술의 경우도 그러했다. 인간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세균의 독소에서 추출한 이 물질은 원래 사시(斜視)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곧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이 돼 이 기술은 주름을 펴는 미용 기술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장기 적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잘 모른 채 말이다. <br/> <br/>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모두 중단시켜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기술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 다만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성급한 적용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특히 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관계자들의 토론과 정보 공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단순히 생명공학자나 의사뿐만 아니라 생명윤리학자, 소비자 단체, 언론, 정부관료 모두가 참여하여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윤리적 고려 없는 기술의 발전은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강호정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8.txt

제목: 아스피린 장기복용시 소화기암 발병율 20% 낮춰, 하버드대 연구  
날짜: 201504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010017018140  
본문: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하면 소화기관암 위험을 20%가량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20일 헬스데이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 영양학과의 차오인 박사는 아스피린의 장기복용이 식도암,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등 소화기관암 위험을 20%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차오 박사는 지난 1980년 여성 간호사 8만 26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간호사 건강연구(NHS)와 1986년부터 남성 전문의료인 4만 7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문의료인 건강연구(HPS)의 최장 32년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br/> <br/>아스피린(325mg)을 매주 2회 이상 복용하는 남녀는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25%, 식도암 위험은 14%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6년 이상 장기간 복용한 사람이 효과가 가장 컸으며 복용 단위가 높을수록 효과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br/> <br/>효과에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br/> <br/>암 가족력, 체중, 흡연, 다른 진통제 또는 비타민 복용, 인종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지만, 아스피린 복용과 소화기관암 위험감소 사이의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br/> <br/>하지만 아스피린 장기복용이 다른 종류의 암, 특히 유방암, 진행성 전립선암, 폐암 위험을 낮추어 주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조사기간에 여성 2만 400명, 남성 7570명이 각종 암 진단을 받았다. <br/> <br/>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미국암학회(ACS) 약물역학실장 에릭 제이컵스 박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이지만 아스피린의 이러한 효과가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복용을 권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br/> <br/>아스피린은 저용량 복용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장 출혈과 위궤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br/> <br/>이 연구결과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099.txt

제목: 국립암센터, 올 한 해 28만여 명의 신규 암 환자 생길 것으로 예상  
날짜: 2015042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010017022182  
본문:   <br/> <br/>  <br/> <br/>  <br/> <br/>올 한 해 동안 국내에서 28만556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6698명이 암으로 인해 숨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인 10만명당 551.6명이 올해 새롭게 암 진단을 받게 되고 10만명당 150.8명은 올해 암으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다. <br/> <br/>국립암센터 정규원 암등록통계과장은 국립암센터 DB(국가 암 등록사업 결과)에 수록된 1999∼2012년 암 발생기록과 통계청의 1993∼2013년 암 사망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한국의 2015년 암 발생과 사망률 예측, Prediction of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in Korea, 2015)는 저명 국제 학술지인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올 4월호에 게재됐다. <br/> <br/>연구논문에선 올해 새로 암 진단을 받게 될 전체 예상 환자(28만556명) 중 여성 환자는 14만2809명으로, 남성 환자(13만7747명)보다 약간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br/> <br/>우리나라 남성은 위암ㆍ대장암ㆍ폐암ㆍ전립선암ㆍ간암 순서로, 올해 안에 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남성 10만명당 92.4명은 올해 대장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수십 년째 국내에서 줄곧 남성 1위 암이었던 위암(94.1명)의 턱 밑까지 대장암이 근접했음을 시사한 결과다. <br/> <br/>또 국내 남성 10만명당 69.5명은 폐암, 58.3명은 전립선암, 50.1명은 간암 진단을 올해 안에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br/> <br/>여성은 올해 10만명당 214.2명이 갑상선암, 76.5명이 유방암, 57.2명이 대장암, 43.8명이 위암, 31.3명이 폐암 진단을 올해 안에 새롭게 받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과잉 진단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에 선 갑상선암의 경우 올해에만 5만4491명의 여성이 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체 여성암의 38.2%에 해당한다. <br/> <br/>연구논문에 따르면 0∼14세, 15∼34세 연령대에선 남녀 모두에서 백혈병ㆍ갑상선암이 가장 흔한 암일 것으로 예상됐다. 35∼64세 남성에선 위암, 65세 이상 남성에선 폐암이 가장 빈번한 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35∼64세 여성에선 갑상선암, 65세 이상 여성에선 대장암의 신규 발생이 올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br/> <br/>올해 전체 암 사망자(7만6698명) 가운데 남성의 숫자(4만7527명)는 여성(2만9171명)보다 1만8000여명이나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만명당 암 사망자수가 여성은 114.6명인데 비해 남성은 187명으로, 1.6배가량 높을 것으로 평가돼서다. 남성은 올해 10만명당 50.1명이 폐암, 31.5명이 간암, 20.5명이 대장암, 18.9명이 위암, 11.1명이 췌장암으로 숨질 것으로 예상됐다.  <br/> <br/>여성은 올해 안에 10만명당 19명이 폐암, 15명이 대장암, 11.1명이 간암, 10.7명이 위암, 10.1명이 췌장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다. <br/> <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가 남녀 모두에서 사망률(10만명당 사망자수) 1위의 암은 폐암이며,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2015년(예상) 신규 암 환자의 암 종류 순위 <br/> <br/>남성 <br/> <br/>위암 17.4%, 대장암 17.1%, 폐암 12.8%, 전립선암 10.8%, 간암 9.3%, 갑상선암 8.2%, 신장암 2.6% <br/> <br/>방광암 2.5%, 췌장암 2.5%, 담낭암 2.2% <br/> <br/>여성 <br/> <br/>갑상선암 38.2%, 유방암 13.6%, 대장암 10.2%, 위암 7.8%, 폐암 5.6%, 간암 3.2%, 자궁경부암 2.2% <br/> <br/>담낭암 2.1%, 췌장암 2.1%, 자궁체부암 1.7% <br/> <br/>◇2015년(예상) 암 사망자의 암 종류 순위 <br/> <br/>남성 <br/> <br/>폐암 26.8%, 간암 16.8%, 대장암 11.0% <br/>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0.txt

제목: 말기암 환자 97%가 완치에 매달려, 비용만 550만원꼴  
날짜: 201504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010017021640  
본문: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의 97% 이상이 임종 직전까지 완치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치료'에 매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뇌졸중 등 10대 질환의 말기 환자 절반이상이 고통완화를 위주로 하는 '비적극적 치료'를 선택해 대조를 이뤘다.  <br/> <br/>20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말기암 환자의 사망 직전 의료이용 현황은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적극적 치료 비율이 97.7%에 달했다. <br/> <br/>비적극적 치료는 단 2.3%에 불과했다. <br/> <br/>암을 제외한 10대 질환 말기환자의 적극적 치료비율은 잘반 이하에 머물렀다. <br/> <br/>10대 말기질환자의 적극적 치료 비율은 Δ후천면역결핍증후군(AIDS) 47.4% Δ근위축성측삭경화증 23.7% Δ만성폐색성폐질환 46.4% Δ울혈성심부전 46% Δ만성간경화 26.1% Δ만성신부전 60.8% Δ쇠약 15% Δ치매 26.3% Δ파킨슨병 26.9% Δ뇌졸중 44%로 조사됐다. <br/> <br/>말기환자의 의료비(건강보험 급여진료비) 부담은 적극적·비적극적으로 의료이용 현황을 구분할 경우, 모든 질환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 <br/> <br/>말기암 적극적 치료가 549만6115원, 비적극적 치료가 155만5169원으로 394만946원 차이가 났다. <br/> <br/>나머지 10대 질환의 의료비 차이는 Δ후천면역결핍증후군 985만8460원 Δ근위축성측삭경화증 608만8032원 Δ만성폐색성폐질환 652만2216원 Δ울혈성심부전 768만7236원 Δ만성간경화 903만418원 Δ만성신부전 828만4985원 Δ쇠약 563만4766원 Δ치매 577만7936원 Δ파킨슨병 689만7501원 Δ뇌졸중 741만6786원 등으로 조사됐다. <br/> <br/>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중 말기암 환자에게 제공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일당정액수가'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br/> <br/>일당정액수가는 일정한 금액 내에서 하루 동안 처치·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br/> <br/>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면 3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2인실까지, 30병상 미만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br/> <br/>하지만 암을 제외한 다른 질환의 호스피스 완화치료는 건보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br/> <br/>비적극적 치료 비율이 2%선에 불과한 말기암환자에게 호스피스 의료 지원을 하고 50% 가까이 이르는 다른 질환자에게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1.txt

제목: ‘제3회 먼디파마 통증 포럼’, 서울-부산서 개최  
날짜: 2015042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010017018141  
본문:   <br/> <br/>한국먼디파마는 오는 22일과 24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제3회 먼디파마 통증 포럼’을 개최한다. <br/> <br/>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통증 교육 전문가인 베리 콜(Barry Cole) 박사를 초청해 ‘발병 기전에 기반한 통증 관리’를 주제로 비암성 통증 환자들의 통증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국내 통증전문가로는 김진혁 교수(인제대 의대, 척추외과), 오인수 교수(가톨릭대 의대, 정형외과)등이 좌장과 연자로 참여한다. <br/> <br/>만성비암성통증은 노인인구의 40~50%에서 발병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전세계적 이환 질환 중 하나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서방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통증에 대한 최적화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의료진 연수 교육에서도 통증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br/> <br/>이에 먼디파마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지역 의료진들의 통증 치료에 대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먼디파마 통증 포럼’을 개최해 왔다. <br/> <br/>먼디파마 한국·동아시아 지역 총괄 이종호 사장은 “<span class='quot0'>먼디파마는 통증 치료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 통증 포럼과 같은 학술대회를 개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통증 포럼을 통해 환자들의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들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2.txt

제목: 한국암웨이, 제5회 ‘생각하는 청개구리-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날짜: 20150420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2010017020137  
본문: 한국암웨이(대표이사 박세준)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5회 ‘생각하는 청개구리-움직이는 창의놀이터’가 지난 18일 경기도 분당 소재의 암웨이브랜드체험센터에서 열렸다. <br/> <br/>암웨이의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영재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보편 창의 보급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놀이 활동과 문화예술 워크숍이 어우러진 대규모 어린이 놀이 축제인 ‘움직이는 창의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함께 사는 공공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br/> <br/>5회째를 맞은 이번 ‘생각하는 청개구리-움직이는 창의놀이터’에는 약 500여 명의 분당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가, 어린이와 어른 세대가 한데 어우러져 놀이를 즐겼다. <br/> <br/>‘청개구리들의 봄소풍’, ‘알록달록 손놀이’, ‘스스로 놀이터’, ‘상상그림터’ 등 4개 다른 컨셉의 존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협동의 요소를 녹여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br/> <br/>자유로운 놀이로 창의력을 자극하는 ‘찰떡꿍 철떡꿍’ 흙놀이에서는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려진 초상화에 꽃잎으로 얼굴을 꾸며 보는 ‘꽃피는 얼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프로그램 별 소요시간은 15분~30분 가량으로, 각 프로그램에는 문화예술작업자와 한국암웨이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린이들의 활동을 도왔다. <br/> <br/>한국암웨이 박세준 대표는 “<span class='quot0'>놀이는 어린이의 창의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열쇠로, 어린이의 잠재된 창의력을 깨우는 놀이의 장을 꾸준히 열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암웨이는 앞으로도 ‘생각하는 청개구리-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더불어 사는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br/>사진=한국암웨이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3.txt

제목: 美 가톨릭 보수파 조지 추기경 선종  
날짜: 20150419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910017011977  
본문: 미국 가톨릭계 보수파의 대변자로 잘 알려진 프랜시스 조지(78) 추기경이 긴 암 투병 끝에 선종했다. <br/> <br/>조지 추기경은 199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17년간 미국 시카고 대교구를 이끌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을 지냈다. <br/> <br/>시카고 대교구는 조지 추기경이 17일(현지시간) 오전 11시께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암 투병 9년 만의 일이다. 로마 가톨릭 정통주의를 추구한 조지 추기경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피임정책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강경 발언으로 맞섰고, 교회에 대한 신뢰 재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br/> <br/>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톨릭계에도 낙태 및 피임 지원을 요구하자 “<span class='quot0'>종교적 신념과 가톨릭 정체성을 지킬 자유</span>”를 주장했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은퇴를 앞두고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온 아동 성추행혐의 사제들의 신원과 혐의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해 교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또 성범죄 혐의 성직자 처분과 미사 형식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 바티칸과 미국 가톨릭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4.txt

제목: '슈퍼대디열' 이유리, 딸 이레 떠나보낸 스트레스↑ "말기 암 악화"  
날짜: 2015041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810017007335  
본문: '슈퍼대디열' 이유리'슈퍼대디열' 이유리, 딸 이레 떠나보낸 스트레스↑ "말기 암 악화" <br/> <br/>'슈퍼대디 열' 이유리의 말기 암이 더욱 악화됐다. <br/> <br/>18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극본 김경세, 연출 송현옥) 12회에서는 차미래(이유리 분)가 딸 사랑(이레 분)을 떠나보내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br/> <br/>현재 미래는 말기 암 투병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자 사랑을 그의 친부인 한열(이동건 분)에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미래는 일부러 모질게 사랑을 열에게 보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br/> <br/>결국 미래는 스트레스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됐다. 사랑을 열에게 보낸 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이미 안 좋아진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br/> <br/>이날 방송에서 차미래는 "나는 첫눈에 알았다. 저 아이가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결심했다. 죽기 전까지 꼭 딸을 지켜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랑이를 낳았을 당시를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br/> <br/>한편, '슈퍼대디 열'은 독신주의를 외치며 가족의 소중함을 잊은 한열이 10년 만에 자신을 찾아와 "결혼하자"는 첫사랑 차미래의 요구를 받고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5.txt

제목: '슈퍼대디 열' 이동건-이레 알콩달콩 부녀생활, 이유리 슬픔  
날짜: 201504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810017007305  
본문: 이동건과 이레가 알콩달콩한 부녀 생활을 시작했다. <br/> <br/>18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극본 김경세, 연출 송현옥) 12회에서는 한열(이동건 분)이 차사랑(이레 분)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br/> <br/>열은 차미래(이유리 분)가 자신에게 사랑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결국 아픈 미래는 사랑을 열에게 보내면서 혼자 떠날 준비를 마쳤고, 사랑은 열과 단둘이 살게 됐다. <br/> <br/>열은 사랑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사랑의 방을 꾸며주고 교육을 위해 학습지를 선물했다. 또한 직접 요리를 해 사랑에게 밥을 해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r/> <br/>반면 미래는 사랑의 빈자리를 느끼며 슬퍼했다.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억지로 열과 사랑을 보냈지만 여전히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컸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독주가 더 빨리 취한다고?  
날짜: 20150418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810017005372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저녁 회식을 하면 일단 식사를 하고 술 한 잔씩 돌리는 게 정해진 순서처럼 돼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좌장이 건배를 제의하는 게 기본 격식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술이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한 개비라도 피우는 사람이 건강이 나쁜 데 비해,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술을 적당히 마시면 일정 부분의 심혈관 보호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적당히’에 해당하는 술의 양이 과연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br/> <br/>최근 미국 보건복지부는 적정음주량을 남자는 하루 2잔 이내, 여자는 하루 한 잔 이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한 잔이라는 것은 각 주종별로 마시는 잔을 의미한다. <br/> <br/>▲맥주는 355㏄ 한 컵 ▲막걸리는 250㏄ 한 사발 ▲소주는 50㏄ 한 잔 ▲와인은 125㏄ 한 잔을 말한다. 이 한 잔의 알코올 양은 대략 순수 알코올로 12g에 해당한다. <br/> <br/>술은 생각하는 것만큼 따스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에서 매년 180만명이 알코올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술은 암·간경화·교통사고의 주범이며 타살이나 범죄 원인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숙취를 호소하는데, 숙취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나른함·속쓰림 등의 불쾌한 증상을 말한다. 한 마디로 숙취는 신체가 전날 마신 술의 유독물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울부짖는 소리’다. <br/> <br/>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위에서 가장 먼저 분해가 일어난다. 여성은 위에서의 분해가 적게 일어나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쉽게 취한다. 이에 따라 여성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암·간경화·뇌 손상이 남자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br/> <br/>한국인중에는 알코올 분해효소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술을 마시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처리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 비해 암 발생과 간경변의 위험이 더 높다. <br/> <br/>술을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간암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암연구기금(WCRF·World Cancer Research Fund)은 '2015 간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br/> <br/>간암 환자 2만4600명을 포함, 총 820만명을 대상으로 한 34편의 연구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WCRF는 밝혔다. 잦은 음주 외에도 과체중이나 비만도 간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br/> <br/>이밖에 진균(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간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진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주로 양념이나 땅콩·피스타치오·브라질너트·고춧가루·후추·건(말린)과일 등에 잘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반면 커피가 간암 위험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커피가 염증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WCRF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관이 간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br/> <br/>그렇다면 폭탄주와 한 가지 술 중 어떤 게 더 몸에 해로울까. 전문가들은 다른 종류의 술이 섞인다고 해서 나쁜 성분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도 폭탄주를 마시면 섭취하는 술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입을 모은다. <br/> <br/>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대략 20%, 맥주는 4%인데 둘이 섞이면 인체에 가장 잘 흡수되는 10% 농도의 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술을 마실 때보다 폭탄주로 인해 알코올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양주 같은 독한 술을 마실 때 더 취할 것 같지만, 40도가 넘는 독주는 위장에 강한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r/> <br/>아울러 술은 성분의 문제가 아닌 양의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br/> <br/>또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위를 보호하는 탄닌 성분이 있고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감과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두부를 함께 먹으면 알코올 배출 속도를 높여 몸에 부담을 덜 수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7.txt

제목: [기획] 멸종위기 풍란종자 얻으려 절벽타기도…  
날짜: 20150418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810017006004  
본문: ‘우리는 해마다 1000여 종의 동식물들을 지구에서 쓸어내고 있다.’   <br/> <br/>더글러스 애덤스가 전 세계를 다니며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탐사한 뒤 저서 ‘마지막 기회(Last Chance to See)’를 통해 울린 경고음이다. 지구의 생물들이 우리 곁에서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벌인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라지는 생명체의 수와 속도에 놀란 인간은 뒤늦게 멸종위기종 복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전북 무주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식물복원센터를 찾았다. 직원들은 오는 6월 멸종위기종 Ⅰ급인 풍란의 자생지 복원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br/> <br/>전북 무주 덕유산에 위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식물복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등을 돌보고 있다.1980∼1990년대 원예용으로 돌이나 나무에 붙여 파는 것이 유행하면서 풍란은 멸종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려해상의 섬 절벽에서 풍란 자생지를 발견했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간에서 불법 채취에 사용된 로프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간에 의한 훼손의 경우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로 멸종에 이른 것보다는 복원사업이 효과가 있다. <br/> <br/>멸종위기 Ⅱ급인 기생꽃은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 키 작은 식물은 기온상승으로 주변의 키 큰 식물이 전보다 빨리 번성해지자 점점 햇빛을 받지 못하면서 사라져갔다. 기생꽃을 살리려면 주변의 키 큰 식물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br/> <br/>기후변화로 키 큰 식물의 생장속도가 빨라지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절멸되고 있는 멸종위기 Ⅱ급 기생꽃.식물 복원 과정에서 ‘원종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때 풍란을 복원한다며 개량종을 자생지에 잘못 복원하는 어이없는 사례도 있었다. <br/> <br/>멸종위기Ⅰ급 풍란을 개량한 원예종. 한때 원예종을 자생지에 복원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그러나 멸종위기에 처한 만큼 원종을 발견하기조차 어렵고 이를 채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풍란 원종을 확보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12년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이 직접 어느 섬의 절벽에 로프를 타고 내려가 풍란 종자 3개를 얻은 것이 이번에 자생지로 돌려보내게 된 기나긴 복원 여정의 시작이었다. <br/> <br/>멸종위기Ⅰ급인 나도풍란의 씨앗. 먼지 같은 것이 씨앗이다. 멸종위기종의 씨앗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신동진 식물복원팀장은 “<span class='quot0'>바다에서 원종을 확보하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배가 들어가는 날짜가 한정돼 있고 증식 발아하는 시기 역시 정해져 있다 보니 이 둘을 맞추기가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게다가 로프를 타고 채취한 종자가 막상 열어보니 덜 익었거나, 어렵게 얻은 씨앗이 센터로 오는 동안 열을 받아 삶아지거나 오염되기도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2013년 5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한 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흰 원 안)이 로프에 매달린 채 멸종위기종인 풍란의 원종을 채취하고 있다.원종을 확보해도 이를 다시 자생지로 돌려보낼 만큼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무성번식, 즉 암수 개체 없이 식물의 줄기 등을 잘라 배양을 하면 훨씬 쉽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무성번식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br/> <br/>무균배지에서 자라고 있는 멸종위기Ⅰ급 풍란. 2012년에 얻은 씨앗으로 발아시킨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자라면 적응기간을 거친 후 자생지로 옮겨 심어진다.종자로 증식하는 유성번식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센터 온실 안에 있는 종자를 심은 지 6개월 된 기후변화 취약종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겨우 몇 개만 손톱만큼 자랐지만, 가지를 잘라 무성번식한 것은 한 달 반 만에 손가락 길이만큼 자라 있었다. <br/> <br/>암석에 붙어있는 멸종위기 1급 풍란. 식물복원센터 증식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자생지 복원을 앞두고 있다.어떤 이유로든 멸종되고 있는 식물들이라 습도, 온도, 경사, 영양 등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찾는 데만도 1년 넘게 걸린다. 멸종 이유를 분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자생지를 복원하려면 적어도 300∼500개체는 불려서 가야 하는데 1∼2개체로 그만큼 늘리려면 무수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풍란은 2012년에는 3개의 씨방으로 어렵게 300개체를 얻었지만 이후 증식방법 개발에 성공해 2013년에는 한 개의 씨방으로 3000개체를 증식했다. “<span class='quot1'>그래도 풍란은 복원이 좀 쉬웠나 보죠</span>”라고 묻자 박은희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멸종위기종은 다 성질도 더럽고 까다롭다</span>”며 웃었다. <br/> <br/>종자를 심어 번식시키는 유성번식 중인 구상나무의 모습. 종자를 심은 지 6개월 만에 겨우 싹이 2개 나왔다.식물복원 사업은 복원한 식물이 자생지로 돌아가 도움없이 잘 자라는 것이 핵심이다.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자연으로 돌려보냈을 때 고사율이 20% 미만이고 2∼3년 후에 스스로 증식을 해 개체수를 늘리면 성공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센터 직원들이 식물 복원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빨리빨리’ 문화다.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초본(풀)의 경우 증식부터 자생지 복원까지 5∼6년, 목본(나무)은 10∼15년 걸린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빠른 성과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span>”고 털어놨다. <br/> <br/>사라지는 식물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식물의 역할은 무궁무진해서 식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2'>동백나무의 화분 수정을 해주며 사는 동박새는 동백나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식물복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멸종위기종인 솔붓꽃과 희귀종인 설앵초 등을 돌보고 있다. <br/>식물복원센터·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신 팀장도 거들었다. “모아새라는 2m가 넘는 새가 뉴질랜드의 섬에 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섬에 들어가 잡아먹는 바람에 절멸됐는데, 나중에 섬을 조사하다 어린나무가 없는 나무들을 발견했습니다. 모아새가 씨를 먹고 배설해야 종자가 발아하는데 모아새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나무가 안 나온 것이죠. 칠면조를 이용해 씨앗을 먹고 배설하게 하면서 그 식물을 복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br/> <br/>신 팀장은 “생태계는 커다란 톱니바퀴”라며 “<span class='quot3'>동물과 식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생태계는 살아남기 힘들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무주=글·사진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8.txt

제목: 삼성화재, 'W보험' 판매 1만5천건 육박  
날짜: 20150417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710017000159  
본문: 삼성화재가 지난 2월 출시한 여성질환 집중 보장 보험이 영업일수 기준 40여일만에 1만5000건을 바라보고 있다. <br/> <br/>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2월 9일 출시한 '여성을 위한 W(더블유)' 보험이 출시 이후 1영업일당 약 350건씩 판매되고 있다. 4월 12일까지 집계된 총 판매 건수는 1만4388건이며 초회보험료는 약 15억원이다. <br/> <br/>삼성화재 관계자는 "이 상품으로 하루 초회보험료가 36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평균 1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라며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상품 중 고액이며 30대 기혼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판매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 상품은 여성전용 상품으로 유방이나 자궁 등 여성질환을 염증부터 암이나 적출 수술까지 보장해 증가하고 있는 여성질환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br/> <br/>여성들의 주된 관심 질환인 유방, 자궁 및 부인과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암보험의 경우 대부분 유방암은 일반암의 10%정도만 보장한다. 즉 암 진단시 3000만원을 보장한다면 유방암 진단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부인과 질환에 대해 이런 감액지급 없이 보장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br/> <br/>또한 유방암과 자궁암 등의 진단비는 물론 물혹·유방선종·자궁근종·자궁/난소염 등 초기 여성질환의 수술비도 보장해 여성질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등도 지원해 수술 후 치료까지 보장 가능하다. <br/> <br/>심혈관·뇌혈관·간/췌장질환·폐질환 등 4대 중증질병 및 갑상선·녹내장·위십이지장궤양·결핵·신부전 5대 특정질환으로 수술하거나 입원할 경우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한다. 보통의 건강보험은 입원 3일 이후 입원비를 보장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 일수가 줄어든 요즘 입원비 보장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br/> <br/>아울러 일정 가입 조건 만족 시 '전자제품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후 90일에서 4년차까지 에어컨, 세탁기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리닝 서비스를 1회 받을 수 있다. <br/> <br/>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5년 갱신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입 할 경우 보장내용 변경 없이 무심사로 인수 가능하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09.txt

제목: 인간 보편의 번민과 아픔 소설로 보듬어내다  
날짜: 20150417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710016995922  
본문: 부산 문단의 두 여성 작가가 나란히 묵직한 작품을 상재했다. 중견작가 조명숙(57)과 세계문학상 대상 수상작가인 박향(52)이 그들이다. 이들은 부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곳의 풍광과 정서까지도 작품에 반영하는 토박이 작가들이다. 이들이 생산한 작품은 지역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시대와 인간 보편의 고민과 아픔을 보듬어내는 문학적 성취도가 높다.  <br/> <br/>나란히 소설을 펴낸 부산 토박이 작가 박향(왼쪽), 조명숙씨. 이들은 지역의 질감을 잘 살려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조금씩 도둑’ <br/> <br/>‘조금씩 도둑’(산지니)은 표제작을 포함해 단편 9편이 수록된 조명숙의 네 번째 소설집이다. 1996년 ‘진주가을문예’와 2001년 ‘문학사상’을 통해 문단에 나왔으니 문단 이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연치와 등단 이력만큼 작품도 깊다.  <br/> <br/>‘러닝 맨’의 아버지는 갑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팬티 바람으로 눈 내리는 거리로 달려나갔다. 그를 모시고 살아온 미혼의 서른여섯 살 막내딸이 폐암이라는 말을, 그것도 수술이 불가능한 비소세포성 선암 말기라서 잘해야 여섯 달 더 살까 말까 한다는 사실을 지나는 말처럼 형제들에게 던진 뒤였다. 아버지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어서 방심했다. 아버지는 딸의 운명을 오감으로 파악했던 것인지 모른다. ‘다섯 살에 엄마를 잃고 벙어리 아버지와 오빠 셋 틈에서 천방지축 세상을 배운 막내’는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누르고 외친다. “<span class='quot0'>저러신다고 내가 안 죽을까 봐!</span>” <br/> <br/>‘가가의 토요일’에도 말을 못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누가 무슨 질문을 던지 건 ‘가가’ 소리밖에 내지 못해 ‘가가(呵呵)’로 불리는 사내. 이 남자는 부산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수영역 2번 출구 앞 부산은행 모퉁이에서 프렌치토스트를 판다. 1987년 6월, 부산역 광장에서 뻥튀기를 팔던 가가는 도도한 시위대의 물결에 휩쓸려 서면로터리까지 행진할 때 함성과 외침 속에서 어느 순간, 태어날 때부터 까무룩 잠긴 귀가 열렸었다. 그리고 다시 2005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반대를 외치며 해운대 누리마루까지 행진하는 시위대 속에서 새로운 소리를 듣는다. <br/> <br/>‘점심의 종류’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배경인 단편으로 “10년쯤 지난 뒤에는 여러 방식으로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이 최소한이나마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썼다”고 작가의 말에 밝혔다. 시대와 특정 공간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음각된 조명숙의 이번 소설집에는 이밖에도 ‘이치로와 한나절’ ‘거기 없는 당신’ ‘사월’ ‘나비의 저녁’ ‘조금씩 도둑’ ‘하하네이션’ 등이 수록됐다. <br/> <br/>◆‘카페 폴인 러브’ <br/> <br/>199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온 뒤 2013년 ‘에메랄드궁’으로 1억원 고료 세계문학상 대상을 받으며 새삼 부각됐던 작가 박향은 새 장편 ‘카페 폴인 러브’(나무옆의자)를 상재했다. 부산 중앙동에 존재하는 가상의 카페 ‘폴인 러브’를 무대로 커피에 관한 지식을 사랑 이야기에 삼투시켰다. <br/> <br/>권세희라는 여자가 이 카페의 바리스타이다. 그네는 남편 정수와 겉도는 부부관계로 살아오다 이 카페에 단골도 드나드는 기러기아빠 제호에게 빠져든다.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세희는 정작 남편 정수야말로 결혼 전부터 한 여자를 가슴에 담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번민에 사로잡힌다. <br/> <br/>세희에게 카페를 차려준 친구 효정은 죽음을 앞둔 암환자이지만 그네 남편과의 사랑에 마지막 생의 나날을 ‘전투적으로’ 바친다. 딸과의 불화도 극복해나가는 눈물겨운 캐릭터다. ‘죽으나 사나 영도다리’에서 만나기로 했던 60여년 전의 여자를 잊지 못하는 낭만적인 할아버지, 이 노인을 감싸는 할머니의 사랑도 일품이다. 몇 개의 사랑이야기는 원두를 로스팅하고 커피를 내리는 과정의 세밀한 지식들을 배경으로 흥미롭게 전개된다. 커피에 관한 이러한 성찰은 사랑을 말할 때 제법 유용할 듯하다. <br/> <br/>“커피에는 신맛과 단맛과 쓴맛이 있다. 각각의 맛은 너무나 매력 없고 맛이 없는데, 그 세 가지 맛이 잘 어우러졌을 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커피 맛이 우러나온다. 어쩌면 사랑도 그와 같지 않을까. 사랑의 단맛만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쓴맛이나 신맛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br/> <br/>박향은 “<span class='quot1'>사랑은 나에게 어려운 숙제와 같은 일이고, 경이로움과 권태가 함께 새겨진 행운권 당첨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사랑은, 태연히 세상 한가운데에 수많은 의문을 남긴다</span>”고 작가의 말에 썼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0.txt

제목: 조지아주, 미국 50개 주 중 24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날짜: 2015041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710016996939  
본문: 미국 조지아 주가 보수적인 남부에서 처음이자 미국에서 24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br/> <br/>1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지역 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8가지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 의사가 최대 20온스의 향정신성 물질(THC)을 5% 미만 함유한 대마초 오일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에 서명했다. <br/> <br/>이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br/> <br/>법안 발효로 암,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발작질환, 크론병, 미토콘드리아 병, 겸상적혈구증, 파킨슨병을 앓는 수 만명의 환자와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한 콜로라도 주로 이주를 추진하던 최소 17개 가정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1.txt

제목: 톰 행크스 아내 리타 윌슨 "유방암 판정… 양쪽 가슴 절제"  
날짜: 20150415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510016974130  
본문:   <br/> <br/>톰 행크스의 아내이자 배우인 리타 윌슨(59)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양쪽 가슴을 제거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br/> <br/>윌슨은 한 인터뷰에서 "건강 상의 이유로 연극 '피시 인 더 다크(Fish in the Dark)'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br/> <br/>그는 병원에서 '침윤성 소엽암종', 즉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최근 수술을 통해 양쪽 가슴을 제거했으며, 현재 남편(톰 행크스)의 보살핌을 받으며 회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암을 초기에 발견해 완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리타 윌슨은 할리우드 톱 배우인 톰 행크스와 1988년 결혼했으며, 남편과 함께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과 '댓 씽 유 두'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2.txt

제목: [연중기획] 멸종위기 풍란종자 얻으려 절벽타기도…  
날짜: 20150415  
기자: 세종=윤지희 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510016978788  
본문: 전북 무주 덕유산에 위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식물복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등을 돌보고 있다.‘우리는 해마다 1000여 종의 동식물들을 지구에서 쓸어내고 있다.’ <br/> <br/>더글러스 애덤스가 전 세계를 다니며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탐사한 뒤 저서 ‘마지막 기회(Last Chance to See)’를 통해 울린 경고음이다. 지구의 생물들이 우리 곁에서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벌인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가장 큰 원인이다. <br/> <br/>사라지는 생명체의 수와 속도에 놀란 인간은 뒤늦게 멸종위기종 복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전북 무주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식물복원센터를 찾았다. 직원들은 오는 6월 멸종위기종 Ⅰ급인 풍란의 자생지 복원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br/> <br/>기후변화로 키 큰 식물의 생장속도가 빨라지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절멸되고 있는 멸종위기 Ⅱ급 기생꽃.1980∼1990년대 원예용으로 돌이나 나무에 붙여 파는 것이 유행하면서 풍란은 멸종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려해상의 섬 절벽에서 풍란 자생지를 발견했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간에서 불법 채취에 사용된 로프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간에 의한 훼손의 경우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로 멸종에 이른 것보다는 복원사업이 효과가 있다. <br/> <br/>멸종위기 Ⅱ급인 기생꽃은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 키 작은 식물은 기온상승으로 주변의 키 큰 식물이 전보다 빨리 번성해지자 점점 햇빛을 받지 못하면서 사라져갔다. 기생꽃을 살리려면 주변의 키 큰 식물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br/> <br/>멸종위기Ⅰ급 풍란을 개량한 원예종. 한때 원예종을 자생지에 복원하는 해프닝도 있었다.식물 복원 과정에서 ‘원종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때 풍란을 복원한다며 개량종을 자생지에 잘못 복원하는 어이없는 사례도 있었다. <br/> <br/>그러나 멸종위기에 처한 만큼 원종을 발견하기조차 어렵고 이를 채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풍란 원종을 확보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12년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이 직접 어느 섬의 절벽에 로프를 타고 내려가 풍란 종자 3개를 얻은 것이 이번에 자생지로 돌려보내게 된 기나긴 복원 여정의 시작이었다. <br/> <br/>멸종위기Ⅰ급인 나도풍란의 씨앗. 먼지 같은 것이 씨앗이다. 멸종위기종의 씨앗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신동진 식물복원팀장은 “<span class='quot0'>바다에서 원종을 확보하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배가 들어가는 날짜가 한정돼 있고 증식 발아하는 시기 역시 정해져 있다 보니 이 둘을 맞추기가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게다가 로프를 타고 채취한 종자가 막상 열어보니 덜 익었거나, 어렵게 얻은 씨앗이 센터로 오는 동안 열을 받아 삶아지거나 오염되기도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2013년 5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한 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흰 원 안)이 로프에 매달린 채 멸종위기종인 풍란의 원종을 채취하고 있다.원종을 확보해도 이를 다시 자생지로 돌려보낼 만큼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무성번식, 즉 암수 개체 없이 식물의 줄기 등을 잘라 배양을 하면 훨씬 쉽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무성번식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신 팀장은 “<span class='quot1'>무성번식으로 하면 엄마랑 똑같은 자식들만 나와 유전병이 잘 생기거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멸하게 된다</span>”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염병의 발병으로 전 세계 바나나가 절멸 위기에 놓인 것도 우수한 품질의 한 종만을 무성번식으로 늘린 탓이다. <br/> <br/>무균배지에서 자라고 있는 멸종위기Ⅰ급 풍란. 2012년에 얻은 씨앗으로 발아시킨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자라면 적응기간을 거친 후 자생지로 옮겨 심어진다.종자로 증식하는 유성번식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센터 온실 안에 있는 종자를 심은 지 6개월 된 기후변화 취약종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겨우 몇 개만 손톱만큼 자랐지만, 가지를 잘라 무성번식한 것은 한 달 반 만에 손가락 길이만큼 자라 있었다. <br/>암석에 붙어있는 멸종위기 1급 풍란. 식물복원센터 증식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자생지 복원을 앞두고 있다.어떤 이유로든 멸종되고 있는 식물들이라 습도, 온도, 경사, 영양 등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찾는 데만도 1년 넘게 걸린다. 멸종 이유를 분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자생지를 복원하려면 적어도 300∼500개체는 불려서 가야 하는데 1∼2개체로 그만큼 늘리려면 무수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풍란은 2012년에는 3개의 씨방으로 어렵게 300개체를 얻었지만 이후 증식방법 개발에 성공해 2013년에는 한 개의 씨방으로 3000개체를 증식했다. “<span class='quot2'>그래도 풍란은 복원이 좀 쉬웠나 보죠</span>”라고 묻자 박은희 센터장은 “<span class='quot2'>멸종위기종은 다 성질도 더럽고 까다롭다</span>”며 웃었다. <br/> <br/>종자를 심어 번식시키는 유성번식 중인 구상나무의 모습. 종자를 심은 지 6개월 만에 겨우 싹이 2개 나왔다.식물복원 사업은 복원한 식물이 자생지로 돌아가 도움없이 잘 자라는 것이 핵심이다.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3'>자연으로 돌려보냈을 때 고사율이 20% 미만이고 2∼3년 후에 스스로 증식을 해 개체수를 늘리면 성공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센터 직원들이 식물 복원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빨리빨리’ 문화다.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3'>초본(풀)의 경우 증식부터 자생지 복원까지 5∼6년, 목본(나무)은 10∼15년 걸린다</span>”면서 “<span class='quot3'>빠른 성과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span>”고 털어놨다. <br/> <br/>사라지는 식물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3'>식물의 역할은 무궁무진해서 식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3'>동백나무의 화분 수정을 해주며 사는 동박새는 동백나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식물복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멸종위기종인 솔붓꽃과 희귀종인 설앵초 등을 돌보고 있다. <br/>식물복원센터·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신 팀장도 거들었다. “모아새라는 2m가 넘는 새가 뉴질랜드의 섬에 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섬에 들어가 잡아먹는 바람에 절멸됐는데, 나중에 섬을 조사하다 어린나무가 없는 나무들을 발견했습니다. 모아새가 씨를 먹고 배설해야 종자가 발아하는데 모아새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나무가 안 나온 것이죠. 칠면조를 이용해 씨앗을 먹고 배설하게 하면서 그 식물을 복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br/> <br/>신 팀장은 “생태계는 커다란 톱니바퀴”라며 “<span class='quot1'>동물과 식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생태계는 살아남기 힘들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무주=글·사진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3.txt

제목: 스트레스 해소 식품, 이렇게나 많아? 우리가 몰랐던 식품에 관심 UP 먹으면 기분이 ‘사르르’…스트레스 날려버려!  
날짜: 2015041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410016963924  
본문: 스트레스 해소 식품 스트레스 해소 식품 스트레스 해소 식품 스트레스 해소 식품 <br/> <br/>스트레스 해소 식품, 이렇게나 많아? 우리가 몰랐던 식품에 관심 UP 먹으면 기분이 ‘사르르’…스트레스 날려버려! <br/> <br/>스트레스 해소 식품이 화제다. <br/> <br/>스트레스 해소 식품에는 버섯 단호박 사과 감 고등어 당근 무 등이 있다. 우리 선조는 봄무부터 겨울무까지중에서 건강에 이로운 무로 겨울무를 꼽았다. 겨울무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엽산 등 비타민, 칼슘·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한 무, 그리고 이런 영양소는 특히 잎에 많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br/> <br/>스트레스 해소 식품 관련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매콤하면서 자극적인 음식과, 단 음식은 강하게 미각을 자극해 정서적 마취제 역할을 한다</span>”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곧바로 “<span class='quot1'>이같이 자극적인 음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span>”고 선을 그었다. 자극적인 음식의 마취제 역할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br/> <br/>스트레스 해소 식품 음식 단호박은 속살이 노란 대표적인 옐로 푸드로 노란색의 정체는 ‘베타카로틴’으로 이것이 체내로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베타카로틴은 유해 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성분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암·심장병·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또한 체내 신경조직을 강화해주어 각종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br/> <br/>스트레스 해소 식품으로 초콜릿·사탕 같은 단 음식을 찾기도 한다. 잠시 스트레스가 완화되지만 잠시 후 다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이 단 음식을 찾게 된다. 문제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반복해 섭취하면 결국 비만·고지혈증·당뇨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강 교수는 “<span class='quot1'>실제 비만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어 비만해졌다</span>”고 지적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를 자극해 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빠른 속도로 혈당에 변화를 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혈당의 변화가 큰 단순 당질 식품, 즉 설탕이나 시럽이 듬뿍 들어 있는 간식과 캐러멜, 꿀, 사탕, 초콜릿은 되도록 멀리 한다. <br/> <br/>스트레스를 받아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면 가급적 열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한다. 쉽게 말해, 단 음식을 먹더라도 초콜릿·아이스크림·청량음료 보다는 과일을 먹는 식이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기름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메뉴를 고른다. <br/> <br/>이처럼 스트레스 해소 식품은 사과는 칼륨·비타민C·유기산·펙틴·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특히 칼륨은 소금 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매출하는 미네랄이 풍부해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다. 사과에 풍부한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면역력을 길러주고,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주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만큼 심장병 등과 같은 혈관질환과 암 예방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br/> <br/>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는 비타민C가 많은 식품이다.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기능을 높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딸기·오렌지·레몬·고추·귤·피망·브로콜리·키위·토마토·감자·양배추·시금치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러나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저장과 조리 및 가공법에 따라 파괴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짧은 시간에 조리하고 금속용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br/> <br/>또, 스트레스 해소 식품으로 포도와 복숭아처럼 당분이 많은 것보다 수박·토마토·당근처럼 당분이 적은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줄이면서 비만에 대한 우려도 없다.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아미노산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다. <br/> <br/>하지만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무기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체내에 비타민과 아연 같은 무기질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술과 카페인이 있는 음식은 피한다.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이완시 켜주지만 알코올 성분이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인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4.txt

제목: 스트레스가 해소 식품, 자극적인 맛은 ‘일시적 마취제 역할’일 뿐  
날짜: 2015041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410016963840  
본문: 스트레스 해소 식품 <br/>스트레스가 해소 식품, 자극적인 맛은 ‘일시적 마취제 역할’일 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푸드 테라피가 대중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화제다. 실제로 맵거나 비교적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에 직접접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매콤하면서 자극적인 음식과, 단 음식은 강하게 미각을 자극해 정서적 마취제 역할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같이 자극적인 음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span>”고 밝혔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은 버섯 단호박 사과 감 고등어 당근 무 등이 있다. 특히, 단호박은 유해 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노화를 억제하고 암·심장병·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해주며 체내 신경조직을 강화시켜 각종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5.txt

제목: 인스턴트 섭취 시 위암 확률 4배 증가, 스트레스-흡연-음주보다 위험  
날짜: 201504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410016960334  
본문: 사진=가천의대 길병원 암센터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14일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유양경 군산대 간호학과 교수가 위암 환자 103명과 일반 성인 141명의 생활습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스턴트 식품을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은 인스턴트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4.37배 증가했다.  <br/> <br/>질산염 등이 위암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방부제와 착색료 등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에 많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에 많은 염분도 위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스트레스와 운동부족, 음주횟수도 위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결과 평소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4.48배 높았다.  <br/> <br/>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을 방해해 면역력을 감소시켜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탓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위암 발병 확률이 1.95배 높았다.  <br/> <br/>또한 음주횟수가 월 1회 증가할 때마다 위암에 걸릴 확률은 1.0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br/>이밖에도 위암 환자는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육류를 탈 정도로 익혀 먹으며, 식사습관이 불규칙하고, 뜨거운 음식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br/> <br/>반면, 수분 및 커피 섭취량, 외식 빈도, 육류 섭취 빈도 등에서는 위암 환자와 일반인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6.txt

제목: 인스턴트 섭취 위암 확률 증가 '깜짝'...이유보니?  
날짜: 2015041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410016963926  
본문: 인스턴트 섭취 위암 확률 증가 인스턴트 섭취 위암 확률 증가인스턴트 섭취 위암 확률 증가 '깜짝'...이유보니? <br/> <br/>인스턴트 섭취 위암 확률 증가 소식이 화제다. <br/>　 <br/>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인스턴트 음식은 '커피'다. 2013년 생산량만 약 65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3%가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커피믹스(조제커피)에 대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커피의 국내 생산량은 약 65만톤이며, 5년전에 비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액은 약 1조 6000억원으로 약 92% 성장세를 보였다. <br/> <br/>2013년에 주당 가장 많이 먹은 인스턴트는 커피로 12.2회로 1인당 하루에 약 2잔 꼴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2위는 배추김치로 11.9회,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설탕이 9.7회,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잡곡밥이 9.6회로 조사됐다. 음식 김치와 밥보다 커피 마시는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시장은 국내 커피믹스 시장은 그 규모는 다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커피전문점 커피의 영향으로 맛의 다양화(카푸치노, 바닐라 라떼 등), 형태의 다양화(컵 포장형 커피믹스 제품), 원두 개선 제품(인스턴트 원두커피) 등으로 꾸준히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믹스 제품보다는 커피만 함유된 인스턴트 커피가 약 75.3%, 84%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커피 가공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과 베트남은 크림·설탕이 들어간 커피믹스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br/>14일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유양경 군산대 간호학과 교수가 위암 환자 103명과 일반 성인 141명의 생활습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스턴트 식품을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은 인스턴트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4.37배 증가했다. <br/> <br/>질산염 등이 위암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방부제와 착색료 등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인스턴트 식품에는 많은 염분도 위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암 확률을 증가시키는 데는 인스턴트 섭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음주횟수도 위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br/> <br/>조사 결과 평소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4.48배 높았다.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을 방해해 면역력을 감소시켜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탓이다. <br/> <br/>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위암 발병 확률이 1.95배 높았다. 또 음주횟수가 월 1회 증가할 때마다 위암에 걸릴 확률은 1.0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br/>이외에도 위암 환자는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육류를 탈 정도로 익혀 먹으며, 식사습관이 불규칙하고, 뜨거운 음식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7.txt

제목: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진화하는 종신보험  
날짜: 20150414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410016962025  
본문: 계약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이 생존 시 보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들이 사망 후는 물론 생존 시에도 특약 가입이나 해약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보험금도 생활비 외에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연금기능 탑재한 3세대 종신보험들 <br/> <br/>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을 필두로 생명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연금 보장을 강화한 종신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전까지 대부분 종신보험들은 계약자가 연금 전환을 원할 때 기존 계약을 해약한 후 환급금을 이용해 연금을 지급했다. 계약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이 1세대라면 암 등 중대 질병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2세대다. 이어 생활비와 교육비 등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최근 상품들이 3세대 종신보험에 해당한다. 물론 사망 후 보험금도 지급한다. <br/> <br/>신한생명은 지난 1일 ‘신한 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3세대 종신보험으로는 업계에서 처음이다.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상품으로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하다.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다면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br/> <br/>예를 들어 주계약보험금(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 중 5000만원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겠다고 신청한 가입자가 65세부터 연금을 2000만원까지 받고 사망했다면 유가족은 약 9000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잔여 사망보험금 5000만원과 유족위로금 1000만원(가입금액의 10%), 연금 미수령액 약 3000만원(할인율이 적용돼 수령기간에 따라 금액 변동)을 합한 금액이다. 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 6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이 50% 이상 되면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br/> <br/>AIA생명도 종신보험 혜택의 범위를 생전으로 확대한 ‘(무)우리가족 힘이 되는 선지급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없이 80세까지 생존 시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계약 시 생활자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 또는 30%를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계약자 사망 후 유가족 등에게 지급된다. <br/> <br/>◆자녀교육비, 의료비도 보장 <br/> <br/>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노후 의료비나 생활비로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전통형 종신보험과 달리 가입자 본인의 생전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사망 보험금의 80% 한도 내에서 은퇴 후 필요한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미리 받을 수 있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입원 시 하루 5만원, 중증 수술 시 1회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br/> <br/>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사망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앞당겨 활용할 수도 있다. 생활비도 가입금액의 80% 이내에서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매년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금액을 적립금에 가산해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br/> <br/>한화생명이 내놓은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목돈으로 자금 전환이 가능하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한 개의 보험으로 두 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보험료를 8000만원 납부한 가입자가 4000만원을 적립보험으로 전환하면 이 금액에 이자가 붇는다. 이후 계약자가 찾고 싶을 때 찾으면 된다. 나머지 4000만원은 계약자 사망 후 받게 된다. 또 부모 사망 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했다. 자녀가 7∼22세 때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교육비를 매달 별도로 보장한다. 매달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3%, 대학생(19∼22세)은 4%다. 사망보험금 1억원을 기준으로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 후, 자녀가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8.txt

제목: 손현주 "지난해 갑상선암 수술 받았다"  
날짜: 20150413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310016940109  
본문: 연기파 배우 손현주가 지난해 갑산선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br/> <br/>손현주는 13일 오전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악의 연대기'(감독 백운학, 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br/> <br/>그는 "지난해 영화 촬영을 미루고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br/> <br/>이어 "회복이 되자마자 촬영에 합류했는데 한 달 반 동안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저를 기다려 줬다"며 "수술 후 회복하고 영화사에 갔더니 감독님이 우셨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br/> <br/>손현주는 "다행히 수술이 잘 진행되서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 지금은 조절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현재 몸 상태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br/> <br/>'악의 연대기'는 특진을 앞둔 순간 사람을 죽인 경찰 최 반장(손현주 분)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담당자가 되어 사건을 은폐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추적 스릴러 영화다. 2013년 '숨바꼭질'의 성공 이후 충무로에 돌아온 손현주에 거는 관객들의 기대감이 크다. 손현주, 마동석, 최다니엘, 박서준 등이 츨연하며 내달 14일 개봉한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19.txt

제목: 美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받는 조선족 연구원  
날짜: 20150413  
기자: 김승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310016946006  
본문: 조선족 출신 서울대 연구원이 세계 최고 권위의 암 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는다. <br/> <br/>서울대는 박연옥(32·사진) 약대 종양 미세환경 연구센터 연구원이 오는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박 연구원의 논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은 위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새로운 신호 전달 양식을 관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은 이번 학회의 구연 발표 대상으로 채택됐다. <br/> <br/>조선족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박 연구원은 옌볜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뒤 한국 정부의 국가 초청 국비장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돼 서울대 약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주요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0.txt

제목: 양천구치매지원센터, 21일 7주년 기념 건강강좌  
날짜: 2015041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310016934581  
본문: 이대목동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는 오는 21일 양천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 전문자원봉사자 및 치매예방에 관심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소 7주년을 맞아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 <br/>이번 건강강좌는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를 극복하고자 ‘치매! 걷는 것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치매예방과 함께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기여하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br/> <br/>또 건강강좌뿐 아니라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건강센터 작품 전시를 비롯해 축하공연 등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br/> <br/>최경규 양천구치매지원센터장은 “이번 건강강좌에 치매 환자 및 가족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해 치매 예방을 위한 정보도 얻고,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갈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1.txt

제목: 이집트 병아리콩 특징, 밤(栗)맛에 포만감 커...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  
날짜: 2015041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210016928647  
본문: 이집트 병아리콩 특징 이집트 병아리콩 특징 이집트 병아리콩 특징이집트 병아리콩 특징, 밤(栗)맛에 포만감 커...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 <br/> <br/>이집트 병아리콩 특징이 화제다. <br/> <br/>이집트 병아리콩은 생긴 모양이 병아리의 머리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br/> <br/>이집트 병아리콩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은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다. <br/> <br/>또한 병아리콩은 ‘이집트 콩’라고도 불린다. <br/> <br/>이집트 병아리콩은 중동이 원산지로 지중해, 인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며 이 지역에서 많이 먹는 요리의 주요 재료이기도 하다. <br/>  <br/>특히 이집트 병아리콩은 다양한 품종의 콩 가운데도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뛰어난 데다 비타민 B1,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br/> <br/>병아리콩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L-아르지닌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지방 연소와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준다. <br/> <br/>병아리콩은 예로부터 기관지염이나 복부 팽창, 변비 완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br/> <br/>병아리콩은 이집트콩, 칙피 등으로 불리는데 밤과 비슷한 맛이 나고 콩 비린내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병아리콩은 소스, 샐러드, 스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간식으로도 좋고 포만감이 매우 높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안성 맞춤이다. <br/> <br/>한편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섭취해야 되는 과일이지만 종류에 따라서 당분이 달라 체중이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br/> <br/>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낮은 과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br/> <br/>당분 함량이 낮은 과일로는 라즈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레몬 라임 등이다. <br/> <br/>이처럼 당분이 적게 들어있는 과일은 반대로 항산화성분이나 파이토뉴트리언트와 같이 영양적 가치가 높은 성분은 많이 들어있다. <br/> <br/>베리류는 지방 탄수화물 칼로리가 낮은 반면 비타민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성분이 풍부해 심장질환과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 <br/> <br/>당분 함량이 보통인 과일은 사과 딸기 수박 복숭아 파파야 블루베리 멜론 구아바 살구 등이다. <br/> <br/>사과는 혈당지수가 레몬이나 일부 베리류보다는 약간 높지만 건강상 유익한 측면이 많으므로 매일 먹는 것이 좋다. <br/> <br/>하루 1개 정도는 오히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br/> <br/>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오렌지 키위 자두 배 파인애플 등이 있다. 오렌지는 신맛도 나기 때문에 당분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사과보다 당분이 높다. <br/> <br/>하지만 비타민C 칼륨 엽산 티아민 등의 좋은 공급원인데다 과일 치고 높다는 의미이므로 혈당지수 때문에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 <br/> <br/>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은 체리 포도 망고 석류 바나나 무화과 말린 과일 등이다. <br/> <br/>열대과일과 말린 과일이 당분 함량이 높다. 단 과일에 설탕을 더하지 않은 말린 베리류라면 당분 함량을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2.txt

제목: 무능한 정부·심각한 정경유착 이대로 둘건가  
날짜: 20150411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110016924736  
본문: 이정전 지음/반비/1만8000원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이정전 지음/반비/1만8000원 <br/> <br/>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지음/한울아카데미/2만2000원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지음/한울아카데미/2만2000원 <br/> <br/>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우리 사회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이런 어이없는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이런 재난이 되풀이되는지, 왜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br/> <br/>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고민과 해법이 담긴 책들이 출간됐다. 주류 경제학계 원로인 이정전(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와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가 낸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이 그런 책들이다. 전자는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번번이 실망을 안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후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세월호 참사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 책을 구상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민이 번번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데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span>”고 진단한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관료와 국회의원 등 기득권 집단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규명한다. 이 교수는 먼저 관료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가 똬리를 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대추구 행위란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이전소득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행위다. 지대란 정경유착을 통해 만들어진 특혜다. 경제력 집중은 이 같은 지대추구 행위의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전소득은 사회적 이익 창출 효과가 없는 경제 행위의 산물로,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에게 넘긴 유산이나 정부가 기업에 공여한 보조금 등이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지대추구 행위의 공모자이며 이를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br/> <br/>이 교수에 따르면 관료는 국민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 추구로 변질되는 현상들을 흔히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은 자신 이익과 공공 이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민이 이 같은 불일치를 지적하고 바꾸기는 어렵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관료들이 온갖 논리를 동원해 자신들 이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br/> <br/>기업은 경쟁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경쟁하지 않으려 한다. 경쟁하지 않고 큰 돈을 만지는 아주 좋은 방법은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 독점적 특혜를 따내거나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잘못 보았다.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유방임주의는 기대와 달리 늘 거대 독점을 탄생시켰다. 이 교수는 경쟁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에 따라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발’이라고 표현한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정부의 무능과 정경유착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넓으며 악질적</span>”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변화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정부의 실패와 정경유착의 구조적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지는 보수·진보 진영의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을 ‘암덩어리’로 비유하면서 “염치없는 보수, 눈치 없는 진보”라고 비판한다. <br/> <br/>이 교수는 시민사회가 활발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토지세와 환경세를 강화하고 분배의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정책을 펴야 우리 사회의 추락을 그나마 저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br/> <br/> 지난해 4월 16일 뒤집힌 채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를 해경 구조요원들이 바라보고 있다.‘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을 쓴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소속 학자 8명의 핵심적 주장은 ‘공공성’이다. 세월호 같은 위험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고 피해가 포괄적이라 개인이 아닌 공공성 영역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30위로 꼴찌다. 공익성(30위), 공정성(30위), 공민성(29위), 공개성(28위) 모두 최하위권이다. 네덜란드는 1953년 북해 대홍수로 수천명이 죽고 천문학적 피해를 봤다. 그러나 같은 재난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각성은 국가를 개조시켰다. 네덜란드 정부는 홍수 관리 시스템인 델타프로젝트에 45년간 50억∼70억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키웠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모범 사례로 기록됐다. <br/> <br/>저자들은 공공성의 가치를 높일 때 한국 사회가 비로소 세월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3.txt

제목: '아파도 당신을 사랑하오'…말기암 아내 보는 할아버지  
날짜: 2015041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010016922311  
본문:   <br/> <br/>몸은 병에 지배당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은 할아버지의 사진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br/> <br/>미국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병실 사진 한 장을 지난 7일(현지시각) 소개했다. <br/> <br/>사진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잠든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속 할아버지의 이름은 프랭크 리뮤뇽(85)이며, 잠든 할머니는 캐롤린 리뮤뇽(83)이다. <br/> <br/>올해 결혼 60주년을 맞은 두 사람. 그러나 안타깝게도 프랭크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환자이며, 캐롤린 할머니도 암 4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 중이다. <br/> <br/>프랭크 할아버지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병실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간을 자는 할머니가 자기를 보지는 못하지만, 프랭크 할아버지는 가만히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br/> <br/>지난 몇 주간 병원에 있던 캐롤린 할머니는 조만간 호스피스 센터로 옮겨질 예정이다. 암 치료가 어려운 관계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프랭크 할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할머니 보는 걸 포기할 수 없다. <br/> <br/>사진 촬영자이자 두 사람의 손녀인 켈시는 “<span class='quot0'>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계시다</span>”며 “<span class='quot0'>곁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계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미국 허핑턴포스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4.txt

제목: 김민교, "종합병원 병원장 아버지, 사기당하고 스님 되셨다" 가족사 공개  
날짜: 201504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010016919648  
본문: '해피투게더' 김민교김민교, "종합병원 병원장 아버지, 사기당하고 스님 되셨다" 가족사 공개 <br/> <br/>김민교가 가슴 아픈 가족사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br/> <br/>김민교는 9일 KBS2 ‘해피투게더3’는 마당발 특집으로 배우 오지호와 강예원, 홍석천과 함께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김민교는 과거 화양리 동아병원 원장이었던 아버지를 언급하며 부유하게 지낸 시절을 회상했다. <br/> <br/>김민교의 과거사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어머니가 생계를 꾸리기 시작한 이야기까지 전개됐다. <br/> <br/>김민교는 “그렇게 (부자로) 사시던 어머니가 날 가르쳐야 하니까 바로 식당에 나가시더라. 내가 이제 벌이가 좀 되니까 차를 선물했는데 지금도 그걸 타고 식당에 나가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br/> <br/>이어 “아버지는 그 이후 1~2년 안에 스님이 되셨다”며, “군대 첫 휴가를 나왔는데 머리를 깎고 계셨다. ‘스님의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고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br/> <br/>스님이 된 아버지를 보는 데 괴로워 10여 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는 김민교는 “<span class='quot0'>이후 아버지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절 근처로 이사를 해 마지막은 다 해드렸다</span>”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br/> <br/>김민교는 조심스럽게 “방송에 나와서 고생했던 얘기를 하면 감성팔이가 될 것 같아서 잘 안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그 시간에 고생한 게 배우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다. 돌이켜 살아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5.txt

제목: ‘세월호 의인’ 故 박지영 희생정신 기려…  
날짜: 20150410  
기자: 문준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010016924226  
본문: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여승무원 박지영(22)씨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장학금이 모교에 신설됐다. 수원과학대는 최근 장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지영 봉사장학금’을 만들기로 하고 세월호 참사 1주년인 16일 수여식을 통해 처음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br/> <br/>수원과학대는 앞으로 학기마다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한 학생 2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첫 수혜학생은 박씨의 학과 후배 가운데서 선정하기로 해 산업경영학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박씨는 2011년 이 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듬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휴학계를 냈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참사 당시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br/> <br/>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6.txt

제목: '썰전'허지웅, "이영돈PD 하차 적절했다"...이유는?  
날짜: 201504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1010016923363  
본문: 이영돈 <br/>'썰전'허지웅, "이영돈PD 하차 적절했다"...이유는? <br/> <br/>영화평론가 허지웅이 "이영돈 PD하차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br/> <br/>지난 9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이하 썰전)에서 '에브리바디' '이영돈PD가 간다' 폐지에 찬성하고 나섰다. <br/> <br/>이날 박지윤은 "방랑PD 이영돈PD가 또 방랑할 위기에 처했다"고 운을 뗐다. <br/> <br/>이어 김구라는 "'이영돈PD가 간다'는 탄력 받았다. 야심차게 했었다. JTBC가 탐사보도 교양이 약해서 이영돈PD로 상징성 있는 인물로 갔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br/> <br/>강용석은 "현재 시판된 그릭요거트는 모두 가짜라고 방송하고 대기업 기능성 유제품 CF에 이미 출연 중이란 사실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br/> <br/>이윤석은 "무가당 제품을 싸잡아 욕한 다음에 본인은 CF에 출연해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릭요거트는 작년부터 준비했고 식음료광고는 지난 2월 촬영했는데 방송시기가 맞아서 그렇게 됐다. 유사제품처럼 보이겠지만 성질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했다. 내 불찰이다"고 이영돈PD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졌음을 밝혔다. <br/> <br/>허지웅은 JTBC가 이영돈PD 방송을 다 폐지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처다. 미묘한 선정성 기준을 잘 넘나들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다. 그분이 가진 실력의 명암 중 암이 터진 것 같다. 프로그램을 하차하더라도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7.txt

제목: 암환자와 가족은 비행기 타면 안되나요 "쫓아낸 항공사 망신"  
날짜: 20150409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910016905150  
본문: 항공사가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비행기에서 쫓아내 비난과 함께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br/> <br/>다발성 골수종 환자인 엘리자베스 세드웨이(51·여)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8일(현지시간) 하와이 공항에서 새너제이로 가는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에 올랐다. <br/> <br/>그런데 세드웨이가 마스크를 낀 것을 본 항공사 직원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세드웨이는 처음에 ’필요 없다’고 답했다가 두 번째로 같은 질문을 받고는 “<span class='quot0'>몸이 아파서 탑승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항공사 직원은 의사를 불렀고 세드웨이와 가족이 비행기 좌석에 앉은 후 다른 직원이 와서 “<span class='quot1'>비행기를 타도 괜찮다는 의사의 비행 허용 진단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span>”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강요했다. <br/> <br/>세드웨이는 화학치료를 맡은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의사는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 것 같은 컨디션이면 그냥 타면 된다”고 말해 줬으나 항공사 직원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r/> <br/>세드웨이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br/> <br/>그는 자신과 가족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br/> <br/>이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하와이에 하루 더 머물러야 했으며 예약돼 있던 이틀간의 화학치료를 놓쳤다. 남편은 결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결석했다. <br/> <br/>알래스카항공은 항공료는 환불했고 하루 더 머무른 숙박료는 부담했다.  <br/> <br/>항공사측은 “우리 직원은 고객의 안녕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했지만 이번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다뤄질 수도 있었다”며 상황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8.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남주현 교수 ‘파네자트 렉처십 어워드’ 수상  
날짜: 2015040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910016905859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5 미국부인종양학회 여성암학회에서 남주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사진)가 ‘파네자트 렉처십 어워드(Farr Nezhat lectureship award)’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br/> <br/>이번 수상은 남 교수가 부인암 수술 중 가장 까다로운 자궁경부암 복강경 수술을  지난 15년 동안 1000례 이상 실시하고, 그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br/> <br/>남 교수는 기존 개복수술을 대신해, 환자의 흉터와 통증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복강경 수술이 일반적인 자궁경부암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이 같은 복강경 수술성과는 암 분야 권위지로 알려진 ‘종양학 연보’, ‘미국산부인과협회’ 등 유명 학술지에 게재됐다. <br/> <br/>파네자트 렉처십 어워드는 부인암 수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파네자트 미국 컬럼비아의대 산부인과 교수의 이름을 따 지난해 제정된 상으로, 미국부인종양학회가 부인종양학 발전에 기여한 의과학자에게 시상한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29.txt

제목: 암 전문 코디네이터, 병원 수요 급증  
날짜: 2015040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810016895364  
본문:   <br/> <br/>암 환자들은 암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병원 문을 들어가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로 또 한 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br/> <br/>‘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지,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인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게 되는지, 나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은 누구인지? 혹시 나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안주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지’ 등 모든 일들이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br/> <br/>이 때,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종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암 전문 코디네이터’다. 특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대형병원에서 작은 요양병원까지 암 환자와의 첫 접점에서 퇴원할 때 까지 모든 생활을 케어해주는 중책인 만큼, 병원의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br/> <br/>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암 전문요양병원 등으로 취업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br/> <br/>자연통합의학암연구회(회장 문창식)는 오는 5월 9일부터 서울역 강의장에서 제 1기 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br/> <br/>교육은 총 6주 과정이며, 의학교육과 환자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게 된다. 면역, 영양, 해독, 항암식단, 환자설문지 작성, 검사분석, 통증치료, 암 환자 프로그램의 이해 등 의학교육은 물론 암 환자 심리의 이해, 상담요령, 환자 보험 관리 등 환자관리와 관련된 교육도 자세하게 이뤄진다. <br/> <br/>문창식 회장은 “<span class='quot0'>200만 암 환자가 전문 요양병원에서 케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코디네이터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밝히고 “<span class='quot0'>앞으로 요양병원 대상으로 리쿠루팅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span>”이라고 전했다. <br/> <br/>한편, 학회는 이미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연통합의학암아카데미 12주 과정을 2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곧 3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0.txt

제목: '담배 위해성' 정부가 직접 밝힌다  
날짜: 20150408  
기자: viayou@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8100000062  
본문: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광고의 한 장면.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담배 성분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담배 연기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연구소가 정부의 주도로 세워진다.그간 담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담배에 대해 실험·분석을 실시해 비공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담배에 대해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해 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각 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의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으며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담배의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한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담배의 기본 성분 외에도 담배에 첨가된 물질들도 실험 대상"이라며 "실험과 분석을 통해 첨가물들이 얼마나 중독성을 강화하는지,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면 어떤 물질인지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각 담배의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한다. 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먼지 같은 환경 시료를 활용해 담배연기로 의한 환경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도 검사한다.  이 밖에도 실험동물과 동물 세포를 활용해 담배 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험할 계획이다. 연구소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을 수행하는 데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등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의 정부 조사는 흡연자의 피해를 살펴보는 역학조사에만 머물렀다"며 "흡연이 해롭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정보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1.txt

제목: 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뭔가 봤더니…"보기만 해도 군침이~"  
날짜: 2015040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810016886565  
본문: 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스트레스 풀리는 식품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뭔가 봤더니…"보기만 해도 군침이~" <br/>  <br/>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7가지가 알려져 화제다. <br/> <br/>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레 먹을 것부터 찾는데 그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매콤한 맛을 내는 요리다.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고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 맵거나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br/> <br/>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7가지는 버섯 단호박 사과 감 고등어 당근 무 등으로 알려졌다. <br/> <br/>우리 선조는 봄 무부터 겨울 무까지 중에서 건강에 이로운 무로 겨울 무를 꼽았다. 겨울 무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엽산 등 비타민, 칼슘·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한 무, 그리고 이런 영양소는 특히 잎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매콤하면서 자극적인 음식과, 단 음식은 강하게 미각을 자극해 정서적 마취제 역할을 한다</span>”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곧바로 “<span class='quot1'>이같이 자극적인 음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span>”고 선을 그었다. 자극적인 음식의 마취제 역할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br/> <br/>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단호박은 속살이 노란 대표적인 옐로 푸드로 노란색의 정체는 ‘베타카로틴’으로 이것이 체내로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베타카로틴은 유해 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성분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암·심장병·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체내 신경조직을 강화해주어 각종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좋다. <br/>  <br/>스트레스 풀리는 식품으로 초콜릿·사탕 같은 단 음식을 찾기도 한다. 잠시 스트레스가 완화되지만 잠시 후 다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이 단 음식을 찾게 된다. 문제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반복해 섭취하면 결국 비만·고지혈증·당뇨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강 교수는 “<span class='quot1'>실제 비만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어 비만해졌다</span>”고 지적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를 자극해 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빠른 속도로 혈당에 변화를 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혈당의 변화가 큰 단순 당질 식품, 즉 설탕이나 시럽이 듬뿍 들어 있는 간식과 캐러멜, 꿀, 사탕, 초콜릿은 되도록 멀리 하는 것이 좋다. <br/> <br/>네티즌들은 "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잘 챙겨먹고 스트레스 풀자", "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다양하네", "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초콜릿 멀리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거나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면 가급적 열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한다. 쉽게 말해, 단 음식을 먹더라도 초콜릿·아이스크림·청량음료 보다는 과일을 먹는 식이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기름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메뉴를 고른다. <br/> <br/>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사과는 칼륨·비타민C·유기산·펙틴·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특히 칼륨은 소금 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매출하는 미네랄이 풍부해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다. 사과에 풍부한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면역력을 길러주고,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주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만큼 심장병 등과 같은 혈관질환과 암 예방에 이롭다. <br/> <br/>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감은 피부 미용과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C와 A,B까지 모두 갖고 있어, 비타민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열매 뿐 아니라 감잎에도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따뜻한 감잎차 한 잔이면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을 한 방에 예방할 수 있다. <br/> <br/>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찾는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이 답이 될 수 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기능을 높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딸기·오렌지·레몬·고추·귤·피망·브로콜리·키위·토마토·감자·양배추·시금치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러나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저장과 조리 및 가공법에 따라 파괴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짧은 시간에 조리하고 금속용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또, 포도와 복숭아처럼 당분이 많은 것보다 수박·토마토·당근처럼 당분이 적은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줄이면서 비만에 대한 우려도 없다.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아미노산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다. <br/> <br/>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고등어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푸른 생선인 만큼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가 아주 풍부하다. 동맥순환을 향상시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기르는 효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DHA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를 성장, 발달시켜주어 두뇌회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여준다. <br/> <br/>스트레스 풀리는 식품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만, 변비를 막아주며 암을 예방하는 웰빙·장수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같은 효능의 중심엔 ‘베타글루칸’이 있다. <br/> <br/>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 또한 버섯은 90%이상이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만병의 근원’이라는 변비 예방 및 치료에 유효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버섯 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렌티난’(다당류의 일종)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렌티난은 암 예방을 돕고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며 항 바이러스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br/> <br/>스트레스를 풀리는 식품 7가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무기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체내에 비타민과 아연 같은 무기질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술과 카페인이 있는 음식은 피한다.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이완 시 켜주지만 알코올 성분이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인다.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 번 씹어서 천천히 먹고 먹을 때는 틈틈이 쉬는 습관을 기른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채소·과일·현미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span>”이라고 조언했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2.txt

제목: 이센스 대마초 혐의 예언? 개코의 ‘I Can Control You' 새삼 화제  
날짜: 2015040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810016895530  
본문: 가수 이센스가 대마초 혐의로 체포되자 다이나믹듀오 개코의 그에 대한 디스곡이 다시 화제다.  개코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센스의 디스곡인 ‘I Can Control You’ 음원을 공개했다. 개코는 그 안에서 “지렁이는 잘 돼야 미꾸라지 아님 뱀” “암적인 존재 니 존재자체가 독”이라고 말했다. 또 “널 존중한 기억은 지웠어 법이 개입하기 전. 용감함과 멍청함 이제 구분 좀 해라. 돈 만큼 말 좀 아껴 할 줄 하는 게 투정뿐인 무뇌야”라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이센스 대마초 혐의 예견한 것처럼 개코 비판 날카롭네</span>” “<span class='quot0'>이센스 대마초 혐의와 개코 디스곡 연관 있는 것 같다</span>” “<span class='quot0'>이센스 대마초 여러모로 안타깝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 6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3.txt

제목: 美 항공사, '암환자' 탑승 거부 논란  
날짜: 2015040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810016891719  
본문:   <br/> <br/>미국의 한 항공사가 여성 환자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 측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 <br/> <br/>지난 6일(현지시각), 하와이를 출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도착 예정이던 알래스카 항공사 소속 여객기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휴가를 즐기고 집에 돌아가려던 엘리자베스 세드웨이(51)의 탑승을 항공사 직원들이 거부한 것이다. <br/> <br/>항공사 측은 세드웨이가 환자라는 이유로 탑승을 막았다. 그는 ‘골수종’을 앓고 있다. 골수종은 말 그대로 골수에 종양이 생기는 병이다. <br/> <br/>세드웨이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 측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세드웨이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신이 장거리 비행에 괜찮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없었다. 항공사 측은 회사 소속 의사가 세드웨이의 비행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며, 그의 탑승을 끝내 거절했다. <br/> <br/>결국 세드웨이의 가족은 여객기를 놓쳤고,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하루를 더 묵은 뒤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이용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탑승 거부 상황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재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알래스카 항공사를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br/> <br/>세드웨이는 “환자라는 이유로 항공사는 나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다뤘다”며 “여객기에서 쫓겨난 후,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한탄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말을 들은 한 승객은 “신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세드웨이는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들의 정책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가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길 바랐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r/> <br/>항공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하와이에서 미국까지는 꽤 오랜 시간 비행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비행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그렇게 했던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 <br/> <br/>그러면서도 관계자는 세드웨이를 다룬 방법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세드웨이가 직원의 대처에 불쾌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기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세드웨이 페이스북 영상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4.txt

제목: 위암치료 권위자 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  
날짜: 20150407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710016884812  
본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문수(사진)병원장이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15년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15)'에서 ’종양학술상‘을 수상했다. <br/> <br/> 종양학술상은 암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펼친 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br/> <br/> 이 병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수술법 개발 및 위암 관련 연구 성과로 위암 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br/> <br/> 이 병원장은 2007년에도 독자적인 위암수술법 개발로 종양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br/> <br/> 현재 이문수 병원장은 충청위암연구회 회장,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5.txt

제목: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 금연 정책 공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날짜: 201504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710016878378  
본문: 제43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국내 금연 정책을 한 단계 높인 공로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서홍관 박사(사진)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br/> <br/>서 박사는 197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당시 흡연을 시작했으나 1988년 담배의 해로움을 알고 금연한 뒤, 흡연하는 환자들을 금연으로 이끌기 위한 금연진료를 90년대부터 중반부터 해왔다. <br/> <br/>진료실에 갇힌 금연운동의 한계를 느낀 뒤,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도와 금연운동을 20년 동안 전개했고 5년 전에는 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br/> <br/>서 박사는 지난 20년간 흡연과 간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해서 기고와 방송출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왔으며,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담뱃세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br/> <br/>이런 노력은 올해 초 결실을 맺어 담뱃값 인상이 확정됐고, 모든 음식점의 완전 금연이 이뤄졌다. <br/> <br/>국립암센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그동안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암관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span>”고 밝혔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6.txt

제목: “딸의 그림 통해 예술의 원초적 유희 되찾았다”  
날짜: 2015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710016884752  
본문: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리듬을 갖고 살아간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다. 그 리듬이 잘 맞지 않아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란 서로 리듬을 맞추어 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듬을 맞추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말’로만 시도하다 보면 ‘말뿐’으로 그치게 마련이다. <br/> <br/>어린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선 함께 놀아주는 것이 최고다. 리듬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놀이라는 얘기다. 어른도 예외가 아니다. 소통을 꿈꾸는 예술가들이 놀이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러기에 놀이, 소통, 예술은 ‘삶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다. 안상진(49) 작가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중학생 딸과의 소통이 참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국내 최초 ‘교내 갤러리’를 연 대전 호수돈여고 홀스톤 갤러리에서 ‘딸을 위한 놀이터’전(10일∼5월8일)을 연 계기가 됐다.  <br/> <br/> 보석과 말을 그린 딸아이의 그림을 따라 그린 작품. 환상적인 꿈이 넘실거리는 풍경이다.“몇 달 전 암수술을 마치고 딸아이의 그림들을 정리하게 됐어요. 심심할 때 그리라고 책상 한켠에 늘 스케치북을 놓아주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양으로 쌓였지요. 그동안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는데 한 번 살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br/> <br/>그가 큰 뜻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막상 그림을 정리하다 보니 뭔가 보였다. 바로 옆에 있어도 잘 알지 못했던 딸의 이야기, 상상, 그리고 꿈이 거기에 있었다. 기껏해야 A3 크기밖에 되지 않는 스케치북이었지만 딸에게는 가장 넓은 놀이터였던 것이다. <br/> <br/>“딸의 놀이를 이해하는 일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딸아이의 유아기 그림 중에는 무엇을 그리려 한 것인지 짐작도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이리저리 고민하고 해석해봤지만 역부족이었지요.” <br/> <br/>그는 결국 아이 ‘놀이(그리기)’를 통해 아이의 ‘놀이(그림)’을 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예 ‘딸을 위한 놀이터’라는 전시를 마련했다. <br/> <br/>“딸은 저의 딸을 뜻하기도 하지만 호수돈여고의 여고생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딸’은 모든 부모의 딸들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관객’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겠죠.” <br/> <br/>전시장 초입에는그의 딸(안성민)이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들이 내걸렸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비틀린 통로가 마주한다. 몸을 움직여 통과하다 보면 전시장이 놀이터가 된다. ‘딸을 위한 놀이터’는 ‘놀이터’이면서 동시에 ‘작품’이다. 그것은 마치 사티의 ‘가구음악’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한 ‘놀이터 작품’이다. <br/> <br/>“제가 주목하는 것은 ‘리듬’입니다. 딸의 리듬에 무관심했고 무지했기에 딸의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딸의 그림을 저의 리듬으로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멀리서 본것이지요.” <br/> <br/> ‘딸을 위한 놀이터’를 통해 창작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안상진 작가. 그는“딸아이 작품 따라하기를 통해 예술의 원초적 유희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그가 딸과의 어긋난 리듬을 맞추기 위해 ‘놀이’를 택한 것이다. 그가 보기에 놀이란 함께 놀며 상대와 리듬을 맞추어가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는 행위다. 딸의 리듬에 맞춘 놀이터를 만들고, 그곳에서 딸의 그림과 함께 놀며 딸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다. <br/> <br/>“딸의 놀이를 통해 저 자신의 놀이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림 그리며 놀아본 게 언제였던가? 문득 수많은 규칙을 알고 있는 저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규칙을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놀이의 규칙’말입니다. 저도 딸아이 처럼 그림 그리고 놀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것이 좋아 미대에 들어갔고 예술가가 된 것인데, 다시 돌아보니 그 즐거움을 어느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br/> <br/>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놀이’를 망각했거나, 망각해가고 있다. 놀이를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루어야 하는 목적들과 그것을 위한 강도 높은 노동이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놀이가 잊혀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선 다시 ‘규칙’의 습득이 필요하다. <br/> <br/>“저는 놀이를 기억해 내기 위해 딸아이의 그림을 따라 그렸습니다. ‘따라 그림’의 선택이었지요. 잊고 있던 놀이의 감각을, ‘규칙’을 기억해 내기 위해서 입니다.” 전시장 그의 작품들은 딸아이 그림을 따라 그린 것들이다. 예술의 원초적 유희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편완식 미술전문기자 wansi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7.txt

제목: 국내 줄기세포 임상, 미국 이어 두 번째  
날짜: 201504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710016877396  
본문: 줄기세포 제품화를 위한 국내 임상시험이 총 3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br/> <br/>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동향을 국가, 질환 등으로 분석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을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br/> <br/>이번 결과는 ‘1998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1215건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중 제품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 277건을 대상으로 ▲국가별 시험 건수 ▲대상 질환별 구분 ▲세포의 종류 등으로 분석했다.   국가별 임상 점유율.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br/> <br/>이 중 미국이 135건(49%)으로 전체의 약 절반에 달했다. 그 뒤로 한국(39건), 중국(25건), 스페인(21건), 이스라엘·인도(각 13건), 독일·파나마(각 7건), 영국·말레이시아(각 4건), 일본(1건) 등의 순이다. <br/>  <br/>대상 질환 별로 살펴보면 ▲심장관련(51건) ▲신경계(48건) ▲정형외과(29건) ▲소화기계(26건) ▲면역계(21건) ▲암(20건) ▲혈관(20건) ▲안과(12건) 등의 순이다. <br/> <br/>우리나라는 척추 손상 등 신경계(9건), 크론병(만성 염증성 장질환) 등 소화기계(6건), 퇴행성 관절염 등 정형외과(5건), 이식편대숙주병·아토피·두경부암 등 면역계·피부계·암(각 3건) 등의 순이었다. 국제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심장 관련 시험은 2건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br/> <br/>특정 세포나 조직 별로 살펴보면 성인 중간엽줄기세포(190건)가 가장 많이 사용됐고 그 다음으로 조혈모줄기세포(35건), 신경줄기세포(11건) 등의 순이었다. <br/>  <br/>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한 동종유래 줄기세포가 사용된 경우는 147건으로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는 자가유래 줄기세포의 사용건(130건)보다 많았다. 이는 타인의 동종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대량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 <br/>안전평가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동향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span>”고 밝혔다. <br/> <br/>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정보자료 → 자료실 →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8.txt

제목: 아산병원-파스퇴르연구소, 신약개발 공동연구 협약  
날짜: 201504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710016877492  
본문: 서울아산병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암과 감염성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r/> <br/>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풍부한 임상연구역량, 바이오이미징센터(C-BiND)의 바이오이미징 기법,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시각화 기반 초고속?대용량 약효탐색 기술(High Throughput/Content Screening)을 접목해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br/> <br/>또 지속적으로 신약개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연구자를 교류하는 등 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br/> <br/>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파스퇴르연구소를 포함한 전 세계 32개의 파스퇴르연구소 국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구축,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br/> <br/>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통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서울아산병원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39.txt

제목: 메리츠화재도 '3대질병' 집중 보장 보험 출시  
날짜: 20150406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6100000031  
본문: 암, 뇌졸중(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심혈관질환) 등  한국인 사망원인 중 약 50%를 차지하면서 한번 노출되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 뜨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3CI보험'이라고도 불리는 3대 질병 집중 보장 보험은 NH농협생명이 지난해 10월 '하나로 NH3대질병보험'을 출시, 시장성을 검증받았다. '하나로 NH3대질병보험'은 출시 열흘 만에 1만 건, 한 달여 만에 2만 건의 판매 실적을 돌파했다. 3월말 현재까지 3만6200건과 9억4600만원의 초회보험 실적을 기록 중이다.현재 3CI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NH농협생명, 하나생명, 라이나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다. 이번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가 출시해 총 4개 회사가 판매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3대질병보장보험'을 출시, 판매를 시작했다. 3대 질병에 노출되면 진단비로 500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또한 수술비로도 최고 53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일당 13만원까지 보험에서 해결 가능하다.이 상품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500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진단 즉시 보험료 납입면제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수술비도 크게 보장받을 수 있다.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으면 200만원. 30대 질병은 300만원, 질병수술비는 3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 폐렴 등의 수술은 모든 수술비 보장을 한껀번에 받아 최고 530만원을 받을 수 있다.입원 보장도 좋아졌다. 기존 상품들은 입원 4일째부터 120일까지 입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 일수가 크게 줄어 4일째부터 입원비를 받는 특약이 유명무실해졌다. 이를 감안해 이 상품은 입원 1일부터 180일까지 암 1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 5만원을 보장한다.20년갱신형인 1종과 비갱신형인 2종 등 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비갱신형인 2종, 3대 질병 진단비 1000만원으로 설계하면 30대 남성이 8만원 대, 여성이 5만원 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0.txt

제목: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직장인 노리는 치질  
날짜: 20150406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610016866795  
본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김모(45)씨는 회사에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일이 흔하다.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회식이 있어 기름진 고기와 술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런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다보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날이면 배변 후 피가 보이는 증상이 생겼다. 놀라서 병원을 찾은 김씨는 치질(치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중에는 김씨처럼 치질로 고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루종일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 치질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스트레스와 육류, 알코올의 잦은 섭취도 치질 증상을 악화시킨다. 육류는 변비를 유발해 치질 원인이 되며, 알코올은 분해성분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장을 자극해 설사를 일으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앉아서 오래 일하는 직장인을 위협하는 항문 질환을 살펴봤다. <br/> <br/>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 경계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항문질환이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돼 치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와 육류 섭취, 과다한 음주도 항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배변 후 피나고 항문 탈출하면 치핵 <br/> <br/>치질은 항문질환 전체를 말한다. 하지만 치핵이 3대 항문질환(치핵, 치루, 치열) 중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보통 치질이라고 하면 치핵을 의미한다. 치핵은 평상시 변과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항문을 막아주고, 변이 나올 때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치핵조직(항문조직)이 배변 시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배변 시 출혈이나 항문이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40~50대에 많이 발병하며 여성과 남성 비율은 비슷하다. 치질의 주요 증상은 항문조직이 밀려나는 탈출과 배변 시 출혈이다. <br/> <br/>치질이라고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다. 70~80%는 약물·식이 요법 등을 통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진다. 하지만 항문조직이 빠져나와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치핵은 수술이 필요하다. 치핵수술 후 아프다는 속설 탓에 수술을 꺼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치핵조직을 모두 잘라내 항문피부가 손상되는 예전 수술방법 때문이다. 최근엔 치핵조직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항문피부를 보존하는 수술방법인 ‘점막하 절제술’을 많이 해 수술 후 1~2일이면 퇴원할 수 있으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br/> <br/>◆열 나고 항문 주위서 고름 나오면 치루 <br/> <br/>치루는 치핵 다음으로 잘 생기는 항문질환으로 남성환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5~6배 정도 높다. 재발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까다롭다. 치루는 부드러운 배변을 도와주는 윤활액이 분비되는 항문 샘이 균에 감염돼 곪아서 생기는 병이다. 항문 주위가 곪은 상태를 항문주위 농양이라 하며, 고름이 터지면 치루가 된다. 항문주위 농양은 급성기이고 치루는 만성기 상태인 셈이다. <br/> <br/>치루 초기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고 몸살 기운에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을 보인다. 그러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항문 주위가 벌겋게 부어 오르면서 곪기 시작한다. 증세가 심할 경우 앉아 있는 건 물론이고 걸을 수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항문 주위에 구멍이 뚫리면서 고름이 배출된다. <br/> <br/>치핵은 수술 후 거의 재발이 없는 반면 치루는 수술 후 재발률이 20~30%로 높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드물게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양병원 양형규 의료원장은 “치루수술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후유증이다. 치루수술은 괄약근 손상이 동반되기 쉬운데 이 경우 변실금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괄약근 손상을 최소화한 최소시톤법이나 분리시톤법, MRI를 촬영해 염증 부위를 정확히 찾아 제거하는 MRI 네비게이션 시톤법이나 3D 항문초음파 시톤법 등 다양한 수술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br/> <br/>◆생활습관 개선으로 항문질환 예방해야 <br/> <br/>직장인이 항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업무시간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치질에 걸길 위험성이 커진다. 둘째 올바른 배변습관과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화장실에 3분 이상 앉아 있는 건 치질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이다. 항문 압력이 커져 치질조직이 아래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인스턴트식품을 줄이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해 항문건강에 도움이 된다. 배변 후 항문을 청결히 하면 치루 및 항문 가려움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배변 후 남은 찌꺼기는 항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데를 사용하거나 좌욕으로 항문을 청결히 관리하는 게 좋다. 좌욕은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br/> <br/>양 원장은 “<span class='quot0'>항문은 입 만큼 소중한 기관으로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무관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항문질환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항문에 출혈이 있거나 배변습관 변화가 느껴진다면 1% 정도는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1.txt

제목: 엉덩이 무거운 당신, 자칫하면 뒤탈나요  
날짜: 20150406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610016872052  
본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김모(45)씨는 회사에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일이 흔하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회식이 있어 기름진 고기와 술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런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날이면 배변 후 피가 보이는 증상이 생겼다. 놀라서 병원을 찾은 김씨는 치질(치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중에는 김씨처럼 치질로 고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 치질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스트레스와 육류, 알코올의 잦은 섭취도 치질 증상을 악화시킨다. 육류는 변비를 유발해 치질 원인이 되며, 알코올은 분해성분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장을 자극해 설사를 일으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앉아서 오래 일하는 직장인을 위협하는 항문 질환을 살펴봤다. <br/> <br/>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 경계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항문질환이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돼 치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와 육류 섭취, 과다한 음주도 항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배변 후 피 나고 항문 탈출하면 치핵 <br/> <br/>치질은 항문질환 전체를 말한다. 하지만 치핵이 3대 항문질환(치핵, 치루, 치열) 중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보통 치질이라고 하면 치핵을 의미한다. 치핵은 평상시 변과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항문을 막아주고, 변이 나올 때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치핵조직(항문조직)이 배변 시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배변 시 출혈이나 항문이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40∼50대에 많이 발병하며 여성과 남성 비율은 비슷하다. 치질의 주요 증상은 항문조직이 밀려나는 탈출과 배변 시 출혈이다. <br/> <br/>치질이라고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다. 70∼80%는 약물·식이 요법 등을 통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진다. 하지만 항문조직이 빠져나와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치핵은 수술이 필요하다. 치핵수술 후 아프다는 속설 탓에 수술을 꺼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치핵조직을 모두 잘라내 항문피부가 손상되는 예전 수술방법 때문이다. 최근엔 치핵조직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항문피부를 보존하는 수술방법인 ‘점막하 절제술’을 많이 해 수술 후 1∼2일이면 퇴원할 수 있으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br/> <br/>◆열 나고 항문 주위서 고름 나오면 치루 <br/> <br/>치루는 치핵 다음으로 잘 생기는 항문질환으로 남성환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5∼6배 정도 높다. 재발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까다롭다. 치루는 부드러운 배변을 도와주는 윤활액이 분비되는 항문 샘이 균에 감염돼 곪아서 생기는 병이다. 항문 주위가 곪은 상태를 항문주위 농양이라 하며, 고름이 터지면 치루가 된다. <br/> <br/>치루 초기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고 몸살 기운에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을 보인다. 그러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항문 주위가 벌겋게 부어 오르면서 곪기 시작한다. 증세가 심할 경우 앉아 있는 건 물론이고 걸을 수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항문 주위에 구멍이 뚫리면서 고름이 배출된다. <br/> <br/>치핵은 수술 후 거의 재발이 없는 반면 치루는 수술 후 재발률이 20∼30%로 높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드물게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br/> <br/>양병원‘ 양형규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치루수술은 괄약근 손상이 동반되기 쉬운데 이 경우 변실금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최근에는 괄약근 손상을 최소화한 최소시톤법이나 분리시톤법, MRI를 촬영해 염증 부위를 정확히 찾아 제거하는 MRI 내비게이션 시톤법이나 3D 항문초음파 시톤법 등 다양한 수술법이 있다</span>”고 소개했다. <br/> <br/>◆생활습관 개선으로 항문질환 예방해야 <br/> <br/>직장인이 항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업무시간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치질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 둘째 올바른 배변습관과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br/> <br/>화장실에 3분 이상 앉아 있는 건 치질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이다. 항문 압력이 커져 치질조직이 아래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인스턴트식품을 줄이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해 항문건강에 도움이 된다. 배변 후 남은 찌꺼기는 항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데를 사용하거나 좌욕으로 항문을 청결히 관리하는 게 좋다. 좌욕은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br/> <br/>양 원장은 “<span class='quot0'>항문은 입만큼 소중한 기관으로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무관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항문질환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항문에 출혈이 있거나 배변습관 변화가 느껴진다면 1% 정도는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2.txt

제목: 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오픈  
날짜: 201504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310016844199  
본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암 전문요양병원 등으로 취업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br/> <br/>  <br/> <br/>자연통합의학암연구회(회장 문창식)는 오는 5월 9일부터 서울역 강의장에서 제 1기 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br/> <br/>  <br/> <br/>교육은 총 6주 과정이며, 의학교육과 환자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게 된다. 면역, 영양, 해독, 항암식단, 환자설문지 작성, 검사분석, 통증치료, 암 환자 프로그램의 이해 등 의학교육은 물론 암 환자 심리의 이해, 상담요령, 환자 보험 관리 등 환자관리와 관련된 교육도 자세하게 이뤄진다. <br/> <br/>  <br/> <br/>문창식 회장은 “<span class='quot0'>200만 암 환자가 전문 요양병원에서 케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코디네이터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밝히고 “<span class='quot0'>앞으로 요양병원 대상으로 리쿠루팅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span>”이라고 전했다. <br/> <br/>  <br/> <br/>한편, 학회는 이미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연통합의학암아카데미 12주 과정을 2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곧 3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br/>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3.txt

제목: 최근 5년간 선종성용종 1.9배 증가···과도한 육류섭취 원인  
날짜: 20150403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310016847537  
본문: 직장인 전모씨(38)는 얼마 전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용종 2개를 제거했다. 평소 주 2회 정도 술을 마시고, 고기류를 좋아하는 전씨였지만 건강을 자신했기에 검사 결과에 적잖이 놀랐다. 전씨는 앞으로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br/> <br/>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 선종성 용종 진료 환자는 2008년 6만8000명에서 2013년 13만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선종성 용종은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생기기도 하지만 95%는 과도한 육류섭취, 과음, 비만, 흡연 등 생활습관으로 발생한다. <br/> <br/>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많은 용종이다. 위나 장 내시경 시 용종을 발견하면 검사와 동시에 즉시 떼어내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선종성 용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 선종을 방치하면 약 5~10년 후 암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br/> <br/> 병변주변주 점막하주입술(출처 민병원).크기 큰 용종이나 조기 대장암도 개복 없이 치료 가능 <br/>대부분의 용종은 내시경 검사 중에 제거 가능하나 진행성선종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를 진행성선종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진행성선종이나 조기 대장암의 경우 대장 절제술을 해야하는 부담이 컸으나 최근에는 첨단 치료술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로 개복 수술 없이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 <br/> <br/>외과전문 민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조원영 원장은 “<span class='quot0'>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장기를 보존 하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부분 당일 치료 후 퇴원가능하나 다발성이거나 혹이 큰 경우 출혈이 있으면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좋은 예방법 <br/>용종 발견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검사 중 발견된다. 따라서 선종성 용종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 <br/> <br/>특히 용종 발생이 급증하는 50대 이후에는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대변 검사와 별도로 최소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br/> <br/>조원영 원장은 “<span class='quot0'>검사 전 설사약 복용이 힘들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 질환 및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최근엔 설사약을 먹지 않고도 당일 장 세정이 가능한 방법도 있기에 무조건 검사를 피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검사 및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 제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심한 추적 검사 필요하다. 또한, 평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4.txt

제목: 식약처, 불량의료기 수입허가 후 6년간 방치  
날짜: 20150403  
기자: 세종=윤지희 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310016849005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의료기기를 허가한 뒤 6년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식약처가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인 ‘스키오’를 계속 방치하다가 수입허가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후점검에 나섰다</span>”고 지적했다. <br/> <br/>헝가리의 한 회사가 생산한 ‘스키오’는 심신진정과 재활치료에 이용되는 의료기기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에너지 의학’을 표방하며 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이 제품의 거짓·과대 광고를 문제 삼아 2009년 자동수입금지조치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스키오를 2009년 수입허가했고 이후 아무런 사후점검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올 1∼2월 뒤늦게 현장점검 등을 벌여 불법통관,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거짓·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br/> <br/>이 의원은 또 최근 서울서부지검이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2009년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pan class='quot0'>2009년에도 식약처가 식품위생검사기관 21개소를 적발하고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행정처분 건수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5.txt

제목: 서울서 평양까지… 5000리길 '암행일기'  
날짜: 20150403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310016849168  
본문: 박내겸 지음/오수창 옮김/아카넷/1만8000원서수일기-200년 전 암행어사가 밟은 5천리 평안도 길/박내겸 지음/오수창 옮김/아카넷/1만8000원 <br/> <br/>암행어사 하면 보통 박문수를 떠올린다.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 억울함을 풀어주는 암행어사의 모습은 고전소설 ‘박문수전’에 잘 묘사돼 있다. 하지만 소설 속 박문수가 실제 암행어사였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주장이 엇갈린다. 실제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어땠을까. ‘서수일기(西繡日記)’는 평안도 암행어사의 일기다. 지은이는 순조 22년(1822) 관서로 파견된 암행어사 박내겸(朴來謙·1780∼1842)이다. <br/> <br/>조선시대에는 평안도 지역을 ‘서(西)’라고 지칭했다. 고려시대엔 평안도의 중심인 평양에 서경(西京)이 설치되기도 했다. 철령의 서쪽이라 해서 관서(關西)라고 불렸다. 조선시대엔 암행어사를 ‘수(繡)’로 표현했다. 겉옷 밑에 비단옷을 감춘 존재라는 뜻이다. <br/> <br/>암행어사는 조선에서만 시행되었된 독특한 관직이다. 순조 22년 당시 처음으로 전국 8도에 모두 암행어사를 보냈다. 박내겸도 이 시기에 순행한 인물이었다. 평양을 포함한 청천강 이남 23개 군현을 돌며 민심을 시찰하고 관헌들을 감찰했다. 성실한 학자였던 그는 임무 수행 중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서수일기’로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된 일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br/> <br/>사간원 정언이던 박내겸은 43세가 되던 해인 1822년 3월16일부터 7월28일까지 평안도를 감찰하라는 순조 임금의 명을 받는다. <br/> <br/>130일간 4915리(1930km)를 이동했다. 말을 타거나 걸어서 하루 평균 40리(15km)를 이동한 셈이다. 암행어사가 임무 수행 중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니 상당히 강행군이었던 같다. 숙식마저 여의치 않았고,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치죄해야하는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암행어사는 육체적으로나 인간적인 면에서 쉽지 않은 직책이었다. <br/> <br/>박내겸이 쓴 4월22일 일기의 한 토막이다. “<span class='quot0'>내가 암행어사로 서도에 나온 뒤로부터 멀거나 가까운 간사한 무리들이 ‘암행어사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사칭하거나 ‘암행어사와 친밀한 사이’라고 하면서 아전과 백성들을 협박해 돈과 재물을 빼앗기도 했으니 (이는) 목을 베어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이며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span>” <br/> <br/>박내겸 본인이 ‘가짜 암행어사’로 의심받았다는 대목도 나온다. 박내겸이 자신을 가짜 암행어사로 의심하는 이들에게 마패를 꺼내 보였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고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한 채 서로 쳐다만 보다가 바로 자빠지더니, 판때기 위에 뒹구는 탄알처럼 언덕을 따라 몸을 뒹굴다가 저 아래에 이르러서야 멈췄다”고 한다. <br/> <br/>일기에는 암행어사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기록돼 있다. 박내겸은 가능한한 행색을 초라하게 꾸몄다. 눈치 빠른 기녀들은 그의 신분을 알아채고 서둘러 기방을 빠져나가 몸을 숨겼다. 이밖에도 신분을 숨기기 위한 암행어사의 ‘고군분투’를 일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br/> <br/>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평양 부벽루 연회도. 조선시대 임금은 암행어사들에게 이 같은 대형 연회에 참석해 관리들의 부패 실상을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br/>아카넷 제공암행어사 출두 장면도 생생하게 쓰여 있다. 박내겸은 주로 저물녘에 암행어사 출두를 외쳤다. 5월13일에 쓴 일기 내용을 보면 “역졸들이 다급한 소리로 ‘어사 출두’를 외치니 사람들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 마치 바람이 불어 우박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과 같았다”고 돼 있다. <br/> <br/>암행어사의 사적인 일기는 희귀하다. 지금까지 몇 종만 전해 내려온다.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된 것은 황해도 암행어사 박만정이 남긴 ‘해서암행일기’(1976)와 ‘서수일기’뿐이다. 서수일기는 19세기 조선의 통치기구가 작동하던 방식과 평안도 지방민들의 살아가는 사정을 살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br/> <br/>역해자인 서울대 국사학과 오수창 교수는 “<span class='quot1'>평안도 지역이 우리와 관계없는 남의 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수천년 함께 살아온 지역이라는 점을 젊은이들에게 알려 앞으로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자는 뜻에서 서수일기를 소개했다</span>”고 했다. 오 교수는 일기마다 평설을 곁들여 당시 시대 상황이나 사건을 무리없이 이해하도록 했다. 편집자는 박내겸이 거쳐간 평안도 명승지의 풍광을 담은 회화도 수록했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6.txt

제목: 사과 효능…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었어?  
날짜: 2015040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210016823643  
본문: 사과 효능 사과 효능 사과 효능 사과 효능 사과 효능사과 효능…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었어? <br/> <br/>사과 효능에 관심이 뜨겁다. <br/> <br/>사과는 품종에 따라 크기나 모양, 색 등이 다양하지만, 성분은 큰 차이가 없다. <br/> <br/>사과는 수분 함량이 높고, 안토시아닌, 팩틴, 비타민 A, 비타민 C와 칼륨, 칼슘, 나트륨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다.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할 만큼 영양이 풍부한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br/> <br/>1. 혈압 강하 작용 <br/>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적당한 양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트롤을 낮추고 LDL의 산화 억제를 통해 심장질환을 예방, 특정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br/> <br/>2. 항산화 작용 <br/>사과의 붉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혈액 중의 활성 효소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항산화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더욱 좋다. <br/> <br/>3. 폐 기능 강화와 암 예방 <br/>사과는 폐 기능이 강화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 또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체 세포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폐암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br/> <br/>4. 다이어트와 변비 <br/>사과 다이어트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3일간 사과만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 있던 숙변이나 수독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든다. 또한, 사과와 배와 같은 과일은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특히 사과의 중요한 성분인 펙틴은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주는 작용을 하며,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장 안의 이상 발효도 방지해 변비에 좋다. <br/> <br/>5. 구강건강 <br/>구미에서는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른다. 이는 껍질째 먹으면 충치가 예방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하므로 씹는 횟수가 늘어나 안면근육 운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뇌 속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며 잘 씹어야 하므로 타액분비가 증가해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준다. <br/> <br/>네티즌들은 "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었어?" , "사과 좋지", "잘 챙겨먹자", "구강건강에도 도움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7.txt

제목: 사과의 효능, 다이어트부터 암예방까지 다양  
날짜: 2015040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210016826904  
본문: 대한민국 대표과일 사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사과는 품종에 따라 크기나 모양, 색 등이 다양하지만, 성분은 큰 차이가 없다. 사과는 수분 함량이 높고, 안토시아닌, 팩틴, 비타민 A, 비타민 C와 칼륨, 칼슘, 나트륨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br/> <br/>먼저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적당한 양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트롤을 낮추고 LDL의 산화 억제를 통해 심장질환을 예방, 특정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br/> <br/>또한 사과의 붉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혈액 중의 활성 효소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항산화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것이 좋다. <br/> <br/>사과는 폐 기능이 강화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 또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체 세포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폐암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연구자들은 전했다. <br/> <br/>사과 다이어트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3일간 사과만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 있던 숙변이나 수독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든다. 과일은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br/> <br/>특히 사과의 중요한 성분인 펙틴은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주는 작용을 하며,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장 안의 이상 발효도 방지해 변비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마지막으로 사과를 깎지 않고 껍질째 먹으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하므로 씹는 횟수가 늘어나 안면근육 운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뇌 속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며 잘 씹어야 하므로 타액분비가 증가해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8.txt

제목: 비틀즈 명곡 'Hey Jude'의 엄마, 존 레넌 첫번째 부인 암으로 사망  
날짜: 201504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210016826937  
본문: 헤이 주드(Hey Jude)는 팝 역사상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비틀즈의 대표곡이다. <br/> <br/>헤이 주드는 존 레넌-신시아 레넌의 이혼(1968년)에 상처받았을 이들 부부의 아들 줄리안을 위해 폴 매카트니가 줄리안의 이름을 주드로 바꿔 쓴 곡으로 2012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까지 불려질 정도로 유명하다.   <br/> <br/>"헤이 주드,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슬픈 노래도 좋게 불러야 해"라는 노랫속 주드의 엄마이자 존 레넌의 첫 부인인 신시아 레넌이 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자택에서 향년 75세를 일기로 암으로 숨졌다.  <br/> <br/>신시아의 아들 줄리안 레넌(51)은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고 부른 노래를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br/> <br/>부친의 창법을 모방한 이 노래에서 줄리안은 "제게 당신의 인생을 주셨지요, 사랑에 당신의 삶을 바쳤지요…당신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거예요"라며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br/> <br/>줄리안의 대리인은 신시아가 짧지만 용감하게 암과 싸웠고 줄리안이 내내 그 옆을 지켰다고 전하면서 "기도에 감사하다. 어려운 시기에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br/> <br/>신시아는 1957년 리버풀의 음악 학교에서 존을 만나 비틀스가 명성을 얻기 직전 결혼했지만, 당시 10대 우상이었던 비틀스의 이미지를 지키고자 결혼 사실을 숨겼다. <br/> <br/>이들은 존이 오노 요코와 만나기 시작한 이후인 1968년 이혼했다. <br/> <br/>노래를 짓고 부른 폴 매카트니는 블로그를 통해 "리버풀 시절부터 알았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며 "줄리안에게 좋은 엄마였고 우리 모두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며, 함께 했던 시간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br/> <br/>비틀스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쓴 헌터 데이비스는 신시아를 유명한 남편에게 학대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했으며, 존과 달리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데다 결코 히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br/> <br/>음악 학교의 동료들도 두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관계가 지속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작가는 밝혔다. <br/> <br/>신시아도 자서전에서 존을 질투심 많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자신이 비틀스 초기 멤버였던 스튜어트 서트클리프와 춤을 췄을 때 존에게 맞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br/> <br/>신시아는 2005년 인터뷰에서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모두가 그에게 경탄했다"며 레넌을 추모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49.txt

제목: [사설] ‘양파껍질’ 이규태 게이트, 뿌리까지 뽑아내야  
날짜: 2015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210016837150  
본문: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방산 비리가 베일을 벗고 있다. 그의 범죄 수법은 단가 뻥튀기에서 평가서 조작, 장부 은닉, 군 기밀 빼돌리기에 이르기까지 양파 껍질 까듯 끝이 없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사업이 이토록 추한 비리로 얼룩졌다니 한심스럽고 놀라울 뿐이다. <br/> <br/>정부합동수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실상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의 기밀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했다고 한다. 2007년 방위사업청에서 EWTS 사업예산 자료를 빼낸 뒤 터키 납품업체 하벨산 측에 견적서를 당초 5120만달러에서 1억4200만달러로 부풀릴 것을 주문했다. 뻥튀기 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 등이 하청·재하청을 가장해 나눠가졌다. 이 회장이 챙긴 돈만 216억원이다. <br/> <br/>이 회장은 30년 동안 무기중개 사업을 해 온 거물이다. 여러 정권을 넘나들며 이어진 그의 범행은 권력의 유착과 후광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EWTS 사업을 담당했던 방위사업청 권모 준장은 전역한 다음날 SK C&C 상무로 재취업해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했다. 권 준장의 취업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 ‘군피아(군대+마피아)’ 방지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규태 게이트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br/> <br/>군피아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암적 존재다. 지난 2월 김대중정부 때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천기광 예비역 중장이 전투기 부품 정비 비리를 저질렀다 구속됐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그는 퇴직 후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입사해 243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에 가담했다. 얼마 전에는 통영함 납품비리로 정옥근·황기철 두 전직 해군참모총장까지 나란히 쇠고랑을 찼다. <br/> <br/>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span class='quot0'>방산 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span>”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척결 다짐과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 방탄복·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지난달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풀려났다. 이런 식의 온정주의로는 방산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국가 안보 관련 비리에는 엄벌주의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0.txt

제목: 국립암센터, 유방암 다학제 통합진료 실시  
날짜: 201504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110016814615  
본문: 국립암센터가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br/> <br/>다학제 통합진료란 유방암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등 여러 과에서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을 상담 받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조언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된다. <br/> <br/>이에 따라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등의 일차적인 항암치료가 끝난 시점에 있는 환자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치료 방침을 정하는 암 발견 초기단계의 다학제 통합진료 외에도 암 생존자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1.txt

제목: 30년을 뛰어넘은 인연…서로를 구한 '의사-소방관'  
날짜: 2015040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110016812271  
본문:   <br/> <br/>30년 간격을 두고 서로를 위험에서 구해준 의사와 소방관의 사연이 뒤늦게 공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1년 3월29일, 소아과 의사로 근무 중인 샤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br/> <br/>차량은 불길에 휩싸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샤넌을 구해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다만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탓에 샤넌은 발가락 두 개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 <br/> <br/>현장에서 샤넌을 구한 소방관 크리스 트로키는 며칠 뒤, 병원에 그를 만나러 갔다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30년 전, 갓 태어난 그를 위험에서 구해준 소아과 의사가 샤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br/> <br/>트로키는 “샤넌과 이야기하던 중 그가 나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며 “얘기를 나누다 그에게 ‘오, 당신이 정말 그 의사였어요?’라고 물었다”고 웃었다. <br/> <br/>출생 당시 트로키의 체중은 3.2파운드(약 1.5kg)였다. 50%의 확률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샤넌은 트로키의 목숨을 구했고, 그 덕에 착실히 자라 소방관이 된 트로키가 이번에는 샤넌을 죽음에서 구해준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br/> <br/>트로키는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다. 그는 “샤넌을 만난 후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며 “내 아들의 건강을 책임질 소아과 의사는 샤넌뿐”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두 사람은 어린이들의 암 치료 기금 마련을 위해 최근 열린 행사에서 함께 머리를 민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KLTA.com 영상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2.txt

제목: 호암상 수상자 5人 발표  
날짜: 20150401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40110016822213  
본문: 과학상 천진우·공학상 김창진·의학상 김성훈·예술상 김수자·사회봉사상 백영심호암재단은 제25호 호암상 수상자로 천진우(53)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br/> <br/>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버지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을 기리고자 1990년 제정한 호암상은 올해 시상까지 127명에게 상금 199억원을 수여했다. <br/> <br/>과학상을 받은 천 교수는 나노 과학의 대가로 나노 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기술을 확립하는 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상의 영예는 김창진(57)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수가 안았다. 전기 습윤기술의 창시자인 김 교수는 전위차를 이용해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의학상은 김성훈(57) 서울대 교수가 받았다. 김 교수는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가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에 관여하고,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 김수자(58)씨에게는 예술상이 돌아갔다. 사회봉사상을 받게 된 간호사 백영심(53)씨는 ‘말라위의 나이팅게일’로 불린다. 그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병원과 간호대, 초등학교 등을 세웠다. <br/> <br/>시상식은 6월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수상자는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3.txt

제목: 이문세, "아직도 성대에 암 남아 있다" 충격고백  
날짜: 20150331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110016793852  
본문:   <br/> <br/> <br/>가수 이문세가 "아직도 성대에 암 남아 있다"고 고백했다. <br/> <br/>이문세는 지난 30일 오후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 출연, 항간에 떠돌았던 ‘이문세 노래는 끝났다’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br/> <br/>MC 이경규는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항간에는 ‘(이문세는) 목소리를 잃었다’, ‘더 이상 노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span></span>”고 이문세와 관련된 소문을 언급했다. <br/> <br/>이문세는 “<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두 차례에 거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다</span></span>”며 투병사실을가수 이문세가 "아직도 성대에 암 남아 있다"고 고백했다. <br/> <br/>이문세는 지난 30일 오후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 출연, 항간에 떠돌았던 ‘이문세 노래는 끝났다’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br/> <br/>MC 이경규는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항간에는 ‘(이문세는) 목소리를 잃었다’, ‘더 이상 노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span></span>”고 이문세와 관련된 소문을 언급했다. <br/> <br/>이문세는 “<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두 차례에 거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다</span></span>”며 투병사실을 고백하던 중 “<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아직도 성대에 암이 남아 있다</span></span>”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고백하던 중 “<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아직도 성대에 암이 남아 있다</span></span>”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4.txt

제목: '힐링캠프' 이문세 "갑상선 암 이후 고음이 안나왔다"  
날짜: 20150331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110016796402  
본문: 이문세가 갑상선 암 수술을 언급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br/> <br/>30일 오후 방송된 SBS '힐링캠프-기쁘지아니한가'에서는 가수 이문세가 출연해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이문세는 "혹시 암 수술 후 목소리에 이상이 없었나"는 MC들의 질문에 "사실 이건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br/> <br/>이문세는 "아주 섬세한 건데, 수술 후 고음에서 어느 음이 나오지 않더라"며 "그 전에는 거침없이 나왔던 음인데, 어느 순간 안나온다. 그건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br/> <br/>또한 이문세는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그 때는 정말 내가 끝났나 싶은 느낌이었다"며 "대중은 눈치를 못 채지만 나만 느끼는 거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음이 나오는데, 스스로가 조금씩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br/> <br/>또한 아직까지 성대에 암이 남아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5.txt

제목: 건강검진 천만시대, 연령대별 검진은?  
날짜: 2015033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110016795587  
본문: #. 45세 주부 홍모씨는 고민이 생겼다. 봄을 맞아 부모님 건강검진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도통 어떤 검진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 건강검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필요한 검진은 뭔지, 수십 가지 검진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마땅히 물을 곳이 없어 더 고민스럽다. <br/> <br/>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의 수는 1138만명으로 건강검진 10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런 열풍에도 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검사 항목이다. 더 추가해야 할 항목은 없는지 혹은 불필요한 검사가 포함된 건 아닌지 궁금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br/> <br/>부민병원 건강검진센터 최재영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므로 무엇보다도 나이에 발병도가 높은 질환 위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현명하게 받기 위해서 자신의 나이, 가족력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특별한 증상을 알아야 한다</span>”라고 강조했다. <br/> <br/>◆20대, 궤양성 위장 질환 대비 내시경 검사 <br/> <br/>20대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중장년층에 비해 암에 대한 걱정도 적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다. 하지만 20대는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잦은 회식,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 위와 장에 궤양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평소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잦은 설사, 속 쓰림,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또 후진국병이라고 알려진 간염도 20대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A형 간염의 경우 비교적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20대들에게서 항체 생성이 되지 않아 감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후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항체 보유 여부 검사를 통해 재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br/> <br/>바이러스성 간염인 B형 간염도 마찬가지다. 결핵,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받으면 도움이 된다. <br/> <br/>◆30대, 유방암, 자궁암, 고지혈증 검사 <br/> <br/>보통 여성암은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여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방암과 자궁암 등의 여성암은 중년층보다는 오히려 30대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초경 이후부터 유방암이나 자궁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부인과 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99% 예방 효과가 있으니 여성이라면 필수적으로 맞아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2년에 한 번씩 자궁세포진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br/> <br/>남성의 경우는 2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흡연과 음주,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습관병을 주의해야 한다.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등을 측정하면 쉽게 알 수 있다.또 폐와 간 검사도 필요하다. <br/> <br/>◆40대, 정기적인 암 검사 필수 <br/> <br/>40대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듦으로써 노화현상이 가속화되는 시기다. 대사 기능도 점차 떨어지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등의 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폐암은 보통 흡연자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비흡연자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선별검사가 필수다.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과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대장암 및 전립선암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br/> <br/>위암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2배 가량 더 높으며, 위궤양이나 위염을 앓았던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40대부터는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에 신경 쓰며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다방면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50대 이상, 매년 종합건강검진 <br/> <br/>암을 비롯한 심장질환 등의 고위험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노화로 인한 백내장, 녹내장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안과질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를 맞아 몸에 큰 변화가 찾아오니 평소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br/> <br/>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낙상 사고로도 척추와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치매 선별검사도 필수다. 치매의 경우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높지만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다. <br/> <br/>최재영 센터장은 “<span class='quot0'>30대에는 여성암 검사를, 40~50대에서는 암검사는 물론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검사는 국가에서 권고하는 주기에 맞춰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span>”라고 말했다. <br/> <br/>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6.txt

제목: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현미 동충하초로 완전정복”  
날짜: 2015033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110016796551  
본문: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상승해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올 해도 어김없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 왔으니, 바로‘황사’ 와 ‘미세먼지’다. 지난 2월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3월엔 강한 황사가 발생하면서 호흡기나 기관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br/>  <br/>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겨울 내내 눈이 안 온 탓에 올 봄에는 대형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실제 지난 달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양은 84㎍(마이크로 그램, 100만분의 1g)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이 정도면 노약자나 호흡기질환 환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이다. 황사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미세먼지양은 309㎍/㎥까지 치솟았고, 23일에는 1040㎍/㎥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도 서울의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자의 야외활동이 자제되는 '나쁨' 수준인 날이 계속되고 있다. <br/> <br/>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이하의 물질을 통칭한다. 지름이 10㎛이하인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br/> <br/>미세먼지의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크기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인데, 미세먼지는 대부분 코에서 걸러지지만 머리카락 직경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초미세먼지는 숨을 쉴 때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폐질환 등을 유발한다. <br/> <br/>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증상이 악화되면 신경계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이나 순환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병약자나 노약자는 조기사망에 까지 이룰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하면서 위험성을 알렸다. <br/> <br/>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실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최대한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호흡기 건강에 좋은 식품을 적절히 섭취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br/> <br/>◆호흡기·면역력 강화 도움주는 동충하초 <br/> <br/>동충하초는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명약 중 하나로 겨울에는 곤충,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뜻을 가진 신비의 버섯이다. 불사의 꿈을 꾼 진시황이 즐겨 찾았으며, 경국지색의 양귀비가 오랫동안 복용했다고 전해진다. 동충하초에는 혈관확장작용 및 항암효과가 기대되는 코디세핀 외 식이섬유의 일종으로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용이 확인된 베타글루칸, 암 증식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진 지용성 성분인 에르고스테롤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돼 있다. 특히 기능성 지표물질인 코디세핀이 다량 존재하는데, 코디세핀은 천연 항생 물질로 면역기능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br/> <br/>동충하초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중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다양한 학술논문을 통해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동충하초의 약리작용 중 항암 및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br/> <br/>홍콩 중문대학교(CUHK) 생물의학팀 연구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동충하초 추출물이 기도 상피 표면 및 점막하샘의 음이온 분비를 자극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인체의 체액 및 전해질 수송이 증가되고, 이런 증가가 천식이나 감기, 독감과 같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서 과다 분비되는 점액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한다. <br/> <br/>즉,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코디세핀 성분이 인체의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물질인 코디세핀은 천연 항생 물질로 저하된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동충하초 추출물이 다양한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이유다. 이러한 코디세핀은 동충하초 종류 중 번데기 동충하초에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br/> <br/>◆면역력 증강 효과적인 현미 동충하초 <br/> <br/>현미 동충하초는 번데기 동충하초에서균주를 분리해 현미에 배양시켜 재배한 것으로, 기존의 곤충에서 자라는 동충하초와 효능 및 성분이 동일하다. 100% 국내산 현미를 담은 플라스틱 병에 배양액과 동충하초 종균을 투입하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생산한다. 현미 동충하초는 단백질부터 당질, 지방질,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을 가진 현미의 효능과, 식물성과 동물성 균이 더해져 있는 동충하초의 뛰어난 약리효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br/> <br/>현미 동충하초의 면역증진 효능을 밝혀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동아제약과 공동으로 동물실험과 인체시험을 실시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과 면역물질 생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면역기능을 억제한 쥐를 대상으로 현미 동충하초 추출물을 12일간 경구 투여했더니 암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Natural Killer cell)가 활성화되고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증가돼 면역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인체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성 78명을 현미 동충하초 복용군과 가짜약 복용군으로 나눠 4주간 복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현미 동충하초 복용군은 NK세포 활성도가 11% 증가하고 인체 내 면역세포가 28%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현미동충하초를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기능성 식품원료로 인증했다. <br/>◆현미 동충하초로 만든 고급 건강기능식품 ‘동충일기’ <br/> <br/>동충일기는 100% 국내산 현미에서 재배된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고급 건강기능식품이다. <br/>동충일기는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정제 형태로 출시돼 소지하기가 편리하고 복용도 간편하다.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을 인정받은 현미 동충하초를 원료로 해 하루 2회 2정씩 총 4알 복용으로 간편하게 현미 동충하초의 면역증진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br/> <br/>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7.txt

제목: 이경규, 이문세 '혼전 여행' 폭로 해명 "예림이 결혼 후 가졌다"  
날짜: 201503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110016795652  
본문: '힐링캠프' 이경규 이문세 폭로이경규, 이문세 '혼전 여행' 폭로 해명 "예림이 결혼 후 가졌다" <br/> <br/>이경규가 이문세 폭로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br/> <br/>30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기쁘지 안한가'에는 이문세가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MC 이경규는 "제가 교제중일 때 이문세 커플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br/> <br/>이에 이문세는 "제 기억에는 제가 결혼한 상태였다. 이경규는 막 연애를 시작할 때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br/> <br/>이어 "이경규 딸이 있지 않냐. 그 때 같이 커플 여행을 안갔더라면 예림이가 없었을 수 있다"며 "우리 부부는 그냥 커플 여행의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폭로했다. 당황한 이경규는 "아니다. 정확히 결혼 후 1년만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br/> <br/>한편 이날 방송에서 이문세는 갑상선 암 수술 후 성대 변화에 대한 심경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br/> <br/>'힐링캠프' 이경규 이문세 폭로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경규 이문세 폭로, 진짜 당황하셨다" "이경규 이문세 폭로, 둘이 침하구나" "이경규 이문세 폭로, 예림이는 그 뒤에 가졌나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8.txt

제목: '힐링캠프' 이문세 갑상선암 고백 "고음 어느 순간 안나오더라"  
날짜: 201503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110016797073  
본문: '힐링캠프' 이문세 갑상선암'힐링캠프' 이문세 갑상선암 고백 "고음 어느 순간 안나오더라" <br/> <br/>'힐링캠프' 이문세(56)가 갑상선암 수술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br/> <br/>30일 저녁 방송된 SBS 예능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서는 가수 이문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이문세는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br/> <br/>그는 MC들의 "혹시 암 수술 후 목소리에 이상이 없었나?" 라는 질문에 이문세는 "아주 섬세한 건데, 수술 후 고음에서 어느 음이 나오지 않더라"며 "그 전에는 거침없이 나왔던 음인데, 어느 순간 안나온다. 그건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br/> <br/>또한 이문세는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그 때는 정말 내가 끝났나 싶은 느낌이었다"며 "대중은 눈치를 못 채지만 나만 느끼는 거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음이 나오는데, 스스로가 조금씩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br/> <br/>이어 이문세는 "그러나 아주 컨디션이 좋은 날은 그게 또 나오더라. 그 때는 정말 끝났나 싶은 느낌이었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회상했다. <br/> <br/>이에 이경규는 "그럼 레퍼토리에서 그 음을 빼버리지 그랬느냐"고 덧붙여 분위기를 웃음을 자아냈다. <br/> <br/>한편, 이문세는 과거 이경규와 커플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그때 제주도 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예림이는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br/> <br/>'힐링캠프' 이문세 갑상선암 고백을 접한 네티즌들은 "'힐링캠프' 이문세 갑상선암 고백, 이런 사연이 있었네" "'힐링캠프' 이문세 갑상선암 이었구나" "'힐링캠프' 이문세 갑상선암 이럴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59.txt

제목: '힐링캠프' 이문세 "아직 성대에 암 남아있다" 충격고백  
날짜: 2015033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010016787293  
본문: 이문세가 "아직 성대에 암이 남아 있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SBS '힐링캠프'에서 대한민국 대표 감성 가수 이문세가 출연해 항간에 떠돌았던 '이문세 노래는 끝났다'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br/> <br/>이날 녹화에서 MC 이경규는 "항간에 '(이문세가) 목소리를 잃었다' '더 이상 노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문세와 관련된 소문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문세는 "두 차례에 거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다"며 투병사실을 고백하던 중 "아직도 성대에 암이 남아 있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br/> <br/>최초로 공개된 이문세의 투병 고백은 30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SBS '힐링캠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0.txt

제목: 졸리 “다르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날짜: 20150330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010016781548  
본문: “<span class='quot0'>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span>” <br/> <br/>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앤절리나 졸리(39·사진 가운데)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제28회 니켈로디언 어린이의 선택’ 시상식에서 당부한 말이다. 졸리의 이날 시상식 참석은 약 1주일 전 암 예방을 위해 유방 절제에 이어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이후 첫 외부 행사 나들이다. 자하라(왼쪽)와 샤일로 두 딸과 함께 참석했다. <br/> <br/>졸리는 이날 고전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재해석한 영화 ‘말레피센트’에서 마녀 역할로 ‘최고 악당 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 연설에서 “<span class='quot0'>말레피센트처럼 내가 어렸을 때 남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span>”고 운을 뗐다. 그는 “<span class='quot0'>나는 너무 시끄러웠고, 지나칠 정도로 활기가 넘쳤으며,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주 내가 괜히 태어났다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span>”고 어릴 때를 떠올렸다. <br/> <br/>졸리는 “그러던 어느날 문득 중요한 뭔가를 깨닫게 됐고, 나는 여러분도 이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그것은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여러분의 악당으로서 내가 또 뭔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긴 하다”며 “하지만 이번 문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졸리는 영화 ‘툼 레이더’ ‘체인질링’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이자 ‘언브로큰’ 등을 연출한 감독 겸 제작자다. 개도국 아동 입양 및 난민 구호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한 그는 유엔난민기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어머니와 이모 등 가족 세 명이 암 유전자인 BRCA1로 사망하자 2013년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최근 난소와 나팔관 제거 수술을 받았다. BRCA1유전자를 가지로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1.txt

제목: 정부, 12세 이상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 국가 지원키로  
날짜: 2015033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010016780776  
본문: 정부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만 12세 여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가 지원해 필수적으로 맞도록 할 방침이다. <br/> <br/>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다음달 열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지정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에 관련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br/> <br/>자궁경부암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되면 연간 23만명의 만 12세 여학생들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게 된다 . <br/> <br/>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160억원 정도다. <br/> <br/>접종 형태는 단체로 받거나 개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방식 등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다. <br/> <br/>자궁경부암 필수예방접종 지원이 검토된 배경은 만 12세 여학생들은 보통 3회 접종을 받는 것과 달리 2회 접종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br/> <br/>또 여성 암 예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br/> <br/>우리나라 10대들의 첫 성관계 나이는 2006년 14.2세에서 2007년 14세, 2011년 13.6세(중학교 입학 전후)로 점차 빨라지는 추세다. <br/> <br/>자경경부암 백신을 접종하면 7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 미국·일본 등 50여개국에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한 반면 한국은 3회 접종비(40만~60만원 가량)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2.txt

제목: 국내에서 비타민 D 결핍 비율 가장 높은 곳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날짜: 2015033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3010016780050  
본문:   <br/> <br/> <br/> <br/> <br/>비타민 D 결핍 비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부산ㆍ울산ㆍ창원ㆍ제주 주민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br/> <br/>뼈 건강을 좌우하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골절ㆍ구루병(곱사병)ㆍ골연화증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뇨병ㆍ암ㆍ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나은희 박사팀은 2013년 1∼12월 전국 13개 도시 16개 검진센터를 찾은 남녀 1만7252명(남성 9180명, 여성 8072명)을 대상으로 혈중(血中) 비타민 D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결과(한국인에서 비타민 D: 성별, 연령, 거주지, 계절에 따른 상태 및 결핍의 유병률)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지인 ‘Lab Med Online’ 올해 4월호에 실렸다. <br/> <br/>나 박사팀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은 거의 10%에 달했다. 수원ㆍ인천ㆍ대구ㆍ충주ㆍ전주 시민도 8%를 약간 상회했다. 대전ㆍ광주ㆍ춘천 시민의 결핍 비율은 8% 내외였다. 반면 부산 시민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았다. 울산ㆍ창원에선 4%를 약간 밑돌았고 제주에선 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br/> <br/>나 박사팀은 논문에서 “<span class='quot0'>서울ㆍ경기 지역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높은 것은 20대∼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산업화된 도시여서 실내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span>”으로 추정했다. <br/> <br/>대구ㆍ대전ㆍ광주ㆍ전주는 젊은 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꽤 높은 것은 연령 외의 인자 즉, 직업ㆍ실외 활동량ㆍ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 정도ㆍ비타민 D 보충제 복용 여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나 박사팀은 예상했다. <br/> <br/>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생성되므로 흔히 선 샤인 비타민(sunshine vitamin)으로 통한다. 일반적으로 고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 비율이 저위도 주민에 비해 높은 것은 그래서다. 실제로 유럽에서 수행된 연구에선 북위 40도 이하에서 사는 남유럽 노인에 비해 북위 55∼60도 지역에서 거주하는 북유럽 노인들의 비타민 D 부족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북위 33∼38도 사이에 위치하는 우리나라에선 위도에 따른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 박사팀은 지적했다. <br/> <br/>이번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예상대로 여성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19.2ng/㎖로 남성(21.9 ng/㎖) 낮았다. 여성이 피부 상할까봐 햇볕 쬐기를 주저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타민 D 결핍 비율도 여성이 11.8%로 남성(4.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br/> <br/>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젊은 층과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햇볕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20대 여성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14.3ng/㎖). 이에 따라 20대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가장 높았다(남성 17%, 여성 23.2%). <br/> <br/>젊은 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많은 이유를 나 박사팀은 “<span class='quot0'>인터넷과 PC가 발달된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span>”으로 추측했다. <br/> <br/>계절도 비타민 D 농도에 영향을 미쳤다.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9∼11월에 24.3 n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6∼8월, 3∼5월, 12∼1월 순서였다. 겨울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것은 겨울엔 태양의 자외선 강도가 떨어지는 데다 날씨가 추워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서다.   <br/> <br/>한편 사람에서 비타민 D는 비타민 D2(에르고칼시페롤)와 비타민 D3(콜레칼시페롤), 두 형태로 존재한다. 비타민 D2는 주로 식물에서 합성되며, 비타민 D3는 주로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에서 합성된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0 ng/㎖ 미만이면 결핍, 10∼30 ng/㎖ 미만이면 부족, 30 ng/㎖ 이상이면 충분으로 진단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3.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돼지고기의 웃픈 진실  
날짜: 20150329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910016770706  
본문: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삼겹살은 가족 외식이나 직장 회식 때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불판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돼지고기를 보면 군침이 돌지만, 한편으론 지방이 많아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돼지고기가 지방이 많아 무조건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특히 삼겹살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경우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데요. 돼지고기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br/> <br/>돼지고기에는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도 있지만 고단백·저지방 부위도 있다. 한돈자조금 등에 따르면 돼지 한 마리당 지방이 많은 삼겹살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안심·등심·뒷다리살 같은 저지방 부위 비중이 50% 이상이다. 이 부위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닭가슴살보다 단백질 섭취에 효과적이다. 또 지방이 많은 삼겹살의 경우 수육처럼 삶아 먹으면 불필요한 지방이 대부분 제거된다. <br/> <br/>대게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푹 삶거나 익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익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쇠고기 스테이크와 달리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돼지고기 육즙이 빠져나가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해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저온에서 조리한 돼지고기는 육즙을 담고 있어 육질이 부드러워 지는데 이럴 경우 맛도 풍부해진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섭씨 62.7도에서 조리한 뒤 3분 정도 레스팅(Resting·실온에 두고 잠시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면, 안전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아울러 돼지고기는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식품 중 하나로 인식돼 있다. 암 환자는 균형 잡힌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암 환자는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코기로 된 육류 섭취를 피해서는 안 된다. 단백질은 세포 성장에 중요하므로 기름기가 적은 안심이나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위주로 먹는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미세먼지나 황사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때 삼겹살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믿어 피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돼지고기에는 필수지방산과 비타민·셀레늄 등의 영양소가 많아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일을 마친 후 돼지고기를 찾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돼지고기의 붉은 살코기는 아연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이는 우리 몸 속에 축적된 중금속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br/> <br/>이런 가운데 돼지 뒷다리살이 '국민 육류' 삼겹살의 인기를 넘보고 있다. 뒷다리살은 최근 1년 사이 수요 증가로 재고가 급감하고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삼겹살은 별 변동이 없다. <br/> <br/>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1차 가공업체 2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추정한 1월 기준 한돈 재고량은 3만3618t으로, 전년 같은 달의 3만7523t보다 10.4%(3905t)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돼지 뒷다리와 돼지 등심의 재고량이 지난 1월 1375t과 472t으로, 작년 1월의 2044t과 685t에 비해 각각 32.7%(666t), 31.1%(213t)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삼겹살과 목살의 재고는 1555t과 548t으로 작년 1월의 1531t과 469t보다 각각 1.6%(24t), 16.8%(79t) 늘었다. <br/> <br/>뒷다리와 등심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재고 감소 여파로 가격도 크게 올랐다. 1월 뒷다리살 냉장육 1㎏당 평균 도매가격은 5100원으로, 전년 동기의 3100원보다 64.5%(2000원)나 급등했다. 등심 냉장육 1kg당 평균 도매가격도 6500원으로, 1년 전 4800원에 비해 35.4%(1700원)나 올랐다. 하지만 냉장육 삼겹살과 목살은 지난 1월 1만1000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br/> <br/>이는 그동안 뒷다리살과 등심은 퍽퍽한 식감 때문에 비선호 부위였지만, 지방을 멀리하는 식문화가 확산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경기불황 탓에 비싼 삼겹살을 대신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축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햄 등을 만드는 육가공업체는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부담이 늘겠지만 삼겹살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해온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입확보의 길이 열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육식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방이 적은 부위 위주로 먹고, 굽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게 좋다. 간은 소금 대신 향신료를 활용하며, 되도록이면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를 한다. <br/> <br/>◆지방 적은 부위 선택=쇠고기의 경우 육회나 장조림에 주로 쓰는 우둔살에 지방이 적고, 마블링이 많을수록 지방이 많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방 함량이 높고, 등급이 낮을수록 지방 함량이 적다. 닭고기는 지방이 껍질에 몰려 있어 비만이 염려된다면 껍질을 제거하고 섭취하면 된다. 또 닭발은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 미용은 물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br/> <br/>◆찌거나 삶거나=닭고기와 같은 흰 살코기는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고열량·고지방 식품이 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육류를 태우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 되도록 찌거나 데쳐 먹는 것이 지방 섭취를 줄이고 영양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고기를 넣어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끓인 뒤 식혀서 기름기를 걷어 내는 것도 좋다. <br/> <br/>◆문제는 먹는 시간=보통 고기는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 술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식습관상 저녁에 과식하는 경우가 많고, 알코올은 음식의 지방분해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바로 잠자리에 들기 쉬워 수면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되도록 아침이나 점심 식사 때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 <br/> <br/>◆깻잎과 함께=중국 의학서 '본초강목'에 따르면 깻잎은 고기와 생선에 포함된 모든 독을 해독해준다고 한다. 깻잎 속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 속에서 비타민A가 되는 물질로 항산화 성분임과 동시에 항암 성분이다. <br/> <br/>◆간은 소금 대신 향신료=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 중 하나가 과다한 염분 섭취다. 고기를 요리할 때도 염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마늘이나 생강·허브 등을 활용하면, 소금 사용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식에 풍미를 더 할 수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4.txt

제목: 우울증 징후,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 10가지 공개... 효능과 성분은?  
날짜: 201503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810016767250  
본문: 우울증 징후 우울증 징후 우울증 징후 우울증 징후 녹색 잎채소 호두 오메가-3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우울증 징후,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 10가지 공개... 효능과 성분은? <br/> <br/>우울증 징후와 함께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 10가지가 화제다. <br/> <br/>최근 미국의 건강 정보 사이트 ‘에브리데이헬스닷컴’은 뇌 염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10가지를 공개했다. <br/>  <br/>첫 번째는 녹색 잎채소로 '기적의 밥상(Eat to Live)'의 저자인 조엘 펄먼 박사는 건강에 가장 좋고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녹색 잎채소를 첫손에 꼽는다. 이런 잎채소는 강력한 면역력 증강과 항암 효과가 있다. <br/>  <br/>두 번째로 호두는 식물 중에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지원하고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지난 세기 동안 서양 식단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든 식품이 사라지면서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아보카도에는 뇌가 필요로 하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아보카도 열량의 4분의 3은 단일불포화지방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K를 비롯해 비타민B9, B6, B5와 비타민C, 비타민E12 등이 들어있다. 당분 함량은 낮은 대신 식이섬유는 풍부하다. <br/> <br/>블루베리를 비롯해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등의 베리류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다. <br/> <br/>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항산화제를 2년 동안 섭취한 결과, 우울증 증세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제는 몸속 세포를 고치고 암을 비롯한 병에 걸리는 것을 막는 효능도 있다. <br/> <br/>버섯도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다. 버섯이 정신건강에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br/> <br/>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 기분을 안정시키며, 건강에 좋은 장내 세균을 촉진시키는 프로바이오틱(생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br/> <br/>양파를 비롯해 파, 마늘 등의 파속 식물은 몇 가지 암 위험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br/> <br/>이런 채소들은 또한 항염증 효능이 있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br/> <br/>소화관과 뇌 사이의 연관성을 안다면 왜 장과 관련된 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정신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br/> <br/>토마토에는 우울증을 퇴치하는 데 좋은 엽산과 알파리포산이 많이 들어있다.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 약 3분의 1에게서 엽산 결핍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콩류는 당뇨를 방지하고 체중 감소에 좋은 식품이다. 콩류는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기분에 좋은 작용을 한다. <br/> <br/>끝으로 베리류처럼 사과에는 산화로 인한 손상과 염증을 막거나 고치는 효능이 있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식이 섬유질이 많아 혈당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5.txt

제목: 우주 내 암흑물질 반응성, 예상보다 훨씬 낮아  
날짜: 20150328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810016768794  
본문: 우주 내 물질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측이 되지 않는 ‘암흑물질’의 반응성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br/> <br/>암흑 물질의 반응성이 낮다는 것은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상호작용이나 암흑 물질간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br/> <br/>전미과학진흥협회(AAAS)가 발간하는 학술지 ‘사이언스’는 27일(현지시간) 최신호에 ‘충돌하는 은하단들 내 암흑물질의 비(非) 중력적 상호작용’에서 이같이 밝혔다. <br/> <br/>논문 저자들은 미국 국립항공우주국(NASA)의 챈드라 엑스레이 관측소와 허블 우주망원경 등 시설을 통해 관측한 72개의 은하단 충돌 사례를 분석했다. <br/> <br/>은하단은 은하가 수백∼수천 개 모여 중력으로 묶인 집단을 뜻한다. <br/> <br/>은하단은 항성들, 뜨거운 가스 구름, 암흑 물질로 구성된다. 은하단들끼리 충돌하면 그 속의 은하들을 둘러싼 가스 구름들이 충돌하면서 속도가 느려진다. 항성들은 차지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은하단끼리 충돌하더라도 속도가 줄어드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br/> <br/>논문 저자들은 중력의 효과를 감안해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적 기법을 동원한 결과, 암흑 물질이 존재하며 은하단간 충돌에서 암흑 물질에 따른 속도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6.txt

제목: 문란해서 걸려?... 자궁근종에 대한 심각한 오해  
날짜: 2015032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710016760312  
본문:   <br/> <br/>직장인 김 모씨(여28세, 경기도 과천) 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4cm 자궁근종이 발견됐다. 걱정되는 마음에 직장 동료들에게 질환 이야기를 꺼냈다가 민망한 반응에 당황했다. 미혼이고 결혼도 생각해야 되는데 흠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고, 부모님께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가는 것도 망설여졌다. <br/> <br/>◇ 오해1.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이 문란해서 생겼다고? <br/> <br/>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일부에서는 자궁근종이 성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40% 정도에서 발견될 만큼 흔한 질환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우 원장은 “<span class='quot0'>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 근육층에서 근육 세포가 증식해 생기는 혹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근종과 성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자궁경부암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자궁경부암은 자궁의 경부에 생기는 암이다. 자궁경부는 볼트 모양으로 생긴 부위로 자궁 경부의 일부가 질 상부로 돌출해 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여러 종의 HPV바이러스 중 16, 18형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성관계라 알려져 있다.  <br/> <br/>첫 경험 이후 2년이 지나면 60%, 일생 동안 80% 정도에서 감염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파트너 역시 건강관리 차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백신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br/> <br/>◇오해2. 자궁근종 있을 때 한약 먹으면 근종이 커진다? <br/> <br/>한약을 복용하면 자궁근종이 커진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경우 자궁근종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한약과 자궁근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생긴 부분은 처방 없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약 또는 건강원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약제가 다량 함유된 경우다. 이를 잘못 복용하면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아 자궁근종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나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치료용 한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자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면 된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녹용은 자궁근종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양인 체질에는 해롭고, 태음인 체질에는 이로울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므로 한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br/> <br/>◇오해3. 재발되는 자궁근종, 버티는게 상책? <br/> <br/>자궁근종은 생리혈 과다, 생리통, 빈혈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거나 임신, 유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거대해진 근종이 장기를 누르면서 다른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궁근종의 크기가 클 경우 자궁적출을 권했지만 결혼의 연령이 높아지고 20~30대 젊은 층에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의 발병이 증가하면서 자궁을 절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  <br/> <br/>김민우 원장은 “<span class='quot0'>젊은 여성들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폐경 전까지 자궁근종이 다른 위치에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궁 손상없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주면 자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7.txt

제목: ‘3D 프린터’로 고난도 신장암 수술 정확도 높인다  
날짜: 2015032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6129  
본문: 의료 현장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몸 속 깊숙이 자리한 암 덩어리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br/>  <br/>25일 서울아산병원 김청수(비뇨기과)?김남국(융합의학과)?경윤수(건강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6개월 동안 15명의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개인별 신장 및 암 조직의 형태를 3차원으로 완벽 재현하고 환자별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워 신장 부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신장의 해부학적 상태를 실물과 같이 출력해 눈으로 직접 보며 절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절제가 필요한 암 덩어리는 완벽히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은 최대한 보존 할 수 있게 됐다. <br/> <br/>신장을 보존한 채 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떼어내는 신장 부분절제술은 비뇨기과에서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몸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에는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는데, 이 혈류를 차단한 채 암을 잘라내고 남아있는 신장을 다시 꿰매는 과정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br/> <br/>따라서 신장 주위의 혈관 구조 및 요관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의 CT와 같은 2차원 이미지로는 신장암과 신장 내부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수술 범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br/>  <br/>연구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컴퓨터단층촬영 이미지(Volumetric CT)를 바탕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직접 개발한 3D 모델 툴(A-view software)을 통해 3차원 신장 모형을 만들었다. 표면은 투명 재질로 만들어 내부가 보일 수 있게 했고 신동맥, 신정맥, 요관, 신우, 나아가 암 조직을 구분해 제작했다. <br/>  <br/>무엇보다 신장 내 혈관 구조가 특이한 환자의 경우 3D 프린터를 활용해 높은 정확도로 이를 재현해 낼 수 있어 보다 정교한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br/>  <br/>또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도 몸속에 있는 장기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을 보며 수술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br/>  <br/>개별적으로 맞춤 제작한 3차원 신장 모형의 경우 투명 재질을 사용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뿐 만 아니라 중요한 혈관 및 암 조직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만들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수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br/>  <br/>김청수 교수는, “<span class='quot0'>3차원 신장 모형을 통해 파악한 것과 실제 수술을 집도했을 때 신장의 상태 및 신장 암 조직의 위치가 육안적으로 유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양의 상태도 거의 동일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환자 맞춤형 장기를 출력하고 이를 토대로 상세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효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경윤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는 형태, 재질, 색감 등 모든 면에서 더욱 완벽하고 정교한 3D 프린터 모형을 개발해 신장암 뿐 아니라 선천성 비뇨기 질환 등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중요한 비뇨기계 질환 치료에 활용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이번 3D 프린터 활용 수술결과는 최근 3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유럽비뇨기학회에서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8.txt

제목: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고 먹으면 ‘2배 더 이로운’ 식생활  
날짜: 201503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4577  
본문: 출처 네이버.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br/>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고 먹으면 ‘2배 더 이로운’ 식생활 최근 미국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들을 소개 해 화제다.  먼저 생선과 마늘의 궁합이 참 좋다. 생선에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일부 암을 예방하는데 좋으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증가를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 탁월한 식품이다.  사과와 포도의 궁합도 훌륭하다. 사과와 딸기에는 항산화물질인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요소는 일부 암 예방과 기억력을 향 상 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br/> <br/>특히 다른 플라보노이드인 카테킨을 함께 섭취하면 혈전을 방지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카테킨은 포도에 존재하며 이 밖에 적포도주, 초콜릿, 녹차에도 있다.  시금치와 레몬 역시 함께 하면 좋은 식품이다. 시금치, 케일, 근대 등 식물의 철분은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를 곁들이면 흡수가 더 잘 된다.  또한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69.txt

제목: 홍가혜, "무죄선고 받았지만 독방생활 검찰조사 스트레스가 원인인 듯"  
날짜: 201503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6896  
본문: 홍가혜 홍가혜 홍가혜 홍가혜홍가혜, "무죄선고 받았지만 독방생활 검찰조사 스트레스가 원인인 듯" <br/> <br/>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화제가 됐던 홍가혜씨가 악플러들과 합의를 보고 있어 화제다. <br/> <br/>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홍가혜 씨는 자신의 인터뷰에 대해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800여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 상당수는 200만~500만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해당 매체는 피고소인 대부분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취업 불이익을 우려해 억지로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혔다. 또 "200만원씩 800명에게 받으면 무려 16억"이라며 실제로 대규모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br/> <br/>한편 홍가혜씨는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span class='quot0'>수감되기 전 건강검진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석방된 이후 건강점진에서 자궁경부암 양성판정을 받았다</span>”며 암 투병 중임을 알리기도 했다. <br/> <br/>홍가혜씨는 이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구속되는 과정에서 독방생활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혈등을 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span>”고 밝혔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0.txt

제목: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고 먹으면 효과 2배! 어떤 조합인가 보니...  
날짜: 201503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7006  
본문: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고 먹으면 효과 2배! 어떤 조합인가 보니... <br/> <br/>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br/> <br/>미국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을 전했다. <br/> <br/>1.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생선과 마늘 <br/>심장 건강을 위해 고기 대신 생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마늘을 곁들이면 일부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자연적인 면역력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증가를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br/> <br/>2.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강황과 후추 <br/>카레에 주로 쓰이는 황금색 양념인 강황에는 당뇨 예방 등 몇 가지 장점이 있다. 특히 후추와 함께 쓰면 생물학적 이점이 더 충분히 발휘된다. <br/> <br/>3.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사과와 포도 <br/>사과나 딸기류에 있는 항산화물질인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호흡장애와 특정 암을 퇴치하고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특히 다른 플라보노이드인 카테킨을 함께 섭취하면 혈전을 방지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포도에 있는 카테킨은 적포도주, 초콜릿, 녹차에도 있다. <br/> <br/>4.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토마토와 아보카도 <br/>미국 퍼듀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처럼 색깔이 짙은 식품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는 소량의 지방이 옮겨주지 않으면 몸에서 흡수가 안 된다고 한다. 토마토에는 알려진 대로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라이코펜이 들어 있다. 단일 불포화지방이 4그램 정도 있는 아보카도 4분의 1쪽을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br/> <br/>5.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시금치와 레몬 <br/>샐러드에 감귤류를 살짝 뿌리면 먹음직스럽고 잎채소들은 영양의 보고로 변한다. 시금치, 케일, 근대 등 식물에 있는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된다. 레몬주스나 딸기 조금, 약간의 피망을 더하면 식물성 철분이 생선이나 고기에 있는 형태로 변한다. 그것은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기운을 북돋아준다. <br/> <br/>6.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브로콜리와 토마토 <br/>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샘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007년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1.txt

제목: 만20세 이상 여성 '3년에 한번' 자궁경부암 검사 받아야, 국립암세터  
날짜: 201503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1488  
본문: 국립암센터는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3년마다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br/> <br/>25일 암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가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문헌고찰,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개발됐다. <br/> <br/>초안은 만 20세 이상 무증상 여성은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Liquid-based cytology, LBC)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세포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br/> <br/>암센터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자궁경부암 검사로 단독 시행하는 것은 검사의 이득과 위해의 크기를 비교평가 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br/> <br/>자궁경부암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br/> <br/>또 초안은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4세에 검진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이번 권고안 개발을 주도한 자궁 경부암 검진 권고안 개정 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권고안 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후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2.txt

제목: 두릅의 효능, ‘대박’...네티즌 “알고보니 만병통치약이네!”  
날짜: 201503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8545  
본문: 두릅의 효능 두릅의 효능 두릅의 효능 두릅의 효능 두릅의 효능 두릅의 효능 두릅의 효능두릅의 효능, ‘대박’...네티즌 “알고보니 만병통치약이네!” <br/> <br/>두릅의 효능이 네티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두릅은 4~5월이 제철이다. 두릅은 맛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다. 그래서 두릅의 효능을 궁금해 하는 이가 많다. <br/> <br/>두릅은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주는 채소로, 춘곤증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봄 두릅은 금(金)이고 가을 두릅은 은(銀)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봄 두릅은 산채의 제왕으로 알려져있다. <br/> <br/>두릅은 4~5월 제철로 일반적인 봄나물에 비해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저칼로리(100g당 21kcal)이면서 비타민 A, C, 칼슘, 섬유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br/> <br/>또한 두릅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비타민 C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시켜주며 혈당 강하와 혈중지질 저하에 효과가 있다. 혈당치가 높은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다. <br/> <br/>두릅 특유의 신선한 향기는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두릅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된다. <br/> <br/>두릅의 효능을 접한 네티즌들은 "두릅의 효능, 우와", "두릅의 효능, 대박", "두릅의 효능, 만병통치약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3.txt

제목: 한국로슈 아바스틴, 자궁경부암 적응증 추가 획득  
날짜: 20150325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29043  
본문: 한국로슈 아바스틴.한국로슈의 신생혈관 생성 억제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궁경부암 적응증을 획득했다. <br/> <br/>아바스틴은 지속성,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 또는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병용요법과 함께 병용 투여하는 용도로 허가를 획득했다. <br/> <br/>현재 미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자궁경부암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 요법으로 아바스틴과 항암화학요법(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또는 파클리탁셀 토포테칸)의 병용 투여를 ‘카테고리 1’으로 권고하고 있다. <br/> <br/>이번 적응증 추가의 근거가 된 GOG 240 임상 연구에 따르면, 아바스틴 병용 요법은 지난 10여 년간 생존률 개선이 없었던 재발성, 전이성, 지속성 자궁경부암 분야에서 최초로 생존률 연장을 입증했다. <br/> <br/>해당 연구에서 아바스틴 병용 요법 치료군의 전체 생존 기간은 약 17개월로, 이는 항암화학요법 치료군의 전체 생존 기간(13.3개월) 보다 전체 생존 기간을 약 3.7개월 연장한 결과에 해당한다.(HR=0.71, 98% CI 0.54-0.95 , P=0.004) <br/> <br/>대한부인종양연구회 김병기 회장은 “<span class='quot0'>조기 진단된 자궁경부암과 달리 재발성, 전이성, 지속성 자궁경부암은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국내 유일한 자궁경부암 표적치료제인 아바스틴 적응증 추가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 전체 여성암 유병률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진단 받고 있다. 최근 백신 개발 및 진단 기술 발달 등으로 조기 진단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이성, 지속성, 재발성 자궁경부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제만이 유일한 치료 옵션으로 사용됐다. <br/> <br/>아바스틴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표적으로 작용해 종양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최초의 혈관 생성 억제치료제(anti-angiogenic treatment)로써 미국과 유럽에서 결장직장암, 비소세포폐암, 신장암, 난소암 치료제로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전이성 직결장암 및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및 자궁경부암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4.txt

제목: 홍가혜, "욕 쓰면 수백만원" 인터뷰 비방한 800여명 고소 '수십억 합의금...'  
날짜: 201503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7823  
본문: 홍가혜 홍가혜 홍가혜 홍가혜홍가혜, "욕 쓰면 수백만원" 인터뷰 비방한 800여명 고소 '수십억 합의금...' <br/> <br/>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br/> <br/>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 또한 합의는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해당 매체는 피고소인 대부분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취업 불이익을 우려해 억지로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혔다. 또 "200만원씩 800명에게 받으면 무려 16억"이라며 실제로 대규모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br/> <br/>한편 홍가혜씨는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span class='quot0'>수감되기 전 건강검진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석방된 이후 건강점진에서 자궁경부암 양성판정을 받았다</span>”며 암 투병 중임을 알리기도 했다. <br/> <br/>홍가혜씨는 이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구속되는 과정에서 독방생활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혈등을 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span>”고 밝혔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5.txt

제목: 안젤리나 졸리, 유방 이어 난소, 나팔관까지 잘라내...이유는?  
날짜: 201503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510016732636  
본문: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안젤리나 졸리, 유방 이어 난소, 나팔관까지 잘라내...이유는? <br/> <br/>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40)가 최근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br/> <br/>UN 등에서 인권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그녀는 2013년 2월 유방암 예방을 위해 양쪽 유방을 절제했다. <br/> <br/>이번에 그녀가 난소를 제거하게 된 이유도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서 초기 난소암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br/> <br/>졸리는 24일 한 매체에 ‘안젤리나 졸리 피트: 수술 일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에게 유방·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BRCA1’ 변이 유전자가 있으며 난소암 발병 확률이 50%에 달해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br/> <br/>졸리는 “친인척에게 암이 발생한 시점보다 10년 전에 예방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료진이 권고했다”며 “내 어머니는 49세 때 난소암을 진단받았고 나는 39세다”라고 밝혔다. <br/> <br/>졸리의 어머니인 배우 마르셀린 버트란드를 비롯해 졸리의 외조모와 이모들은 모두 난소암으로 사망했다. <br/> <br/>졸리는 “유방절제술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수술의 영향은 더 심각했다”며 “이 수술을 받은 여성은 폐경기를 겪게 된다”고 토로했다. <br/> <br/>졸리는 앞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게 되지만 “더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신체적인 변화도 느껴진다”며 폐경기의 영향을 설명했다. <br/> <br/>40∼50대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난소암은 아직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족 중 난소암 환자가 있거나 유방암, 자궁내막암, 직장암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br/> <br/>한편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안젤리나 졸리, 정말 멋지네</span>” “안젤리나 졸리 대단하다” “안젤리나 졸리 존경스러워요” “안젤리나 졸리 대박!”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6.txt

제목: 서울대병원 "담배 30년 피웠다면 끊었더라도 '페암검사' 필수"  
날짜: 2015032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410016715583  
본문: 흡연경력이 30년이 넘었다면 이후 담배를 끊었더라고 반드시 폐암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서울대벼병원이 조언했다.  <br/> <br/>24일 서울대병원은 폐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폐암조기진단 클리닉'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br/> <br/>전 세계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나쁜 까닭에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br/> <br/>폐암 고위험군에서는 저선량 흉부 단층촬영(CT)을 통한 선별검사가 폐암의 조기진단에 도움이 된다. <br/> <br/>어떤 사람이 고위험군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br/> <br/>지금까지 알려진 고위험군은 고령에 장기간의 흡연자들로, 흡연 기간이 30갑년(1갑년은 하루 1갑씩 1년)이면서 55세 이상이면 매년 1차례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받는게 좋다. <br/> <br/>건강검진으로 시행한 흉부 X선 또는 흉부 CT에서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 <br/> <br/>서울대병원 '폐암조기진단 클리닉'은 폐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 수반되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환자 1명당 10분 이상의 진료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br/> <br/>폐암으로 진단되면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목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진료를 받을 수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7.txt

제목: [인터뷰] 요양원 노인들의 부족한 비타민 D ‘힐링라이트’ 로 손쉽게 실내에서 챙길수 있어.  
날짜: 20150324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410016717090  
본문: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병원 내 환자나 요양원 노인들의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해 위험에 이르고 있다. <br/> <br/>비타민D가 부족한 노인들은 치매와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최대 4.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지난 2월 16일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문재훈, 임수, 장학철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팀은  “<span class='quot0'>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을수록 5년 후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음을 발견했다</span>”고 보고한 바 있다.   <br/> <br/>비타민 D는 피부 세포에 있는 7-디히드로콜레스테롤이 햇빛 중의 자외선을 받아 형성된다. 또한, 비타민 D는 소나 돼지의 간, 정어리, 다랑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에 많이 들어 있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D는 비타민 D의 전구체(어떤 물질에 선행하는 물질)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외선이 필요하다.이에 거의 하루 24시간을 실내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요양원 환자나 노인은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잠깐씩(10~20분) 밖에 나가서 일광을 쬐어 주는 것이 쉽지 않다. <br/> <br/>최근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질환은 유방•대장•전립선의 암과 골절, 고혈압, 근육 통증,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 우울증,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으로 다양하다.  <br/> <br/>실제로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을 따르면 비타민 D를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1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약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증거의 하나로 지리적으로 일조량이 적은 핀란드는 일조량이 많은 베네수엘라에 비해 1형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400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br/> <br/>이렇게 우리 몸에 면역력을 관여하는 비타민 D를 생성시키는 기기인 '힐링라이트' 를 개발한 업체가 있어 주목 받고 있다. <br/> <br/>하이로시는 ISO9001획득과 특허등록 및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고 수많은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쳐 전기를 이용한 UV B 자외선 발생장치 힐링라이트(HR-UVD1)를 출시했다. <br/>  <br/>하이로시의 햇빛비타민(비타민 D3)을 생성하는 자외선 치료기인 힐링라이트(Healing Light)는  자외선B (ultraviolet-B, UVB)를 쏘아 체내에 비타민 D3를 생성토록 해 피부질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각종 질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외선 조사기다.  <br/> <br/>앞서 노인의 치매와 비타민 D 부족에 대해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는 “<span class='quot1'>비타민 D 결핍은 만성질환 및 심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인지장애의 위험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하지만 현대인들은 주중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사무실에 앉아 있기 때문에 햇볕을 쪼일 시간이 없다. 실제 2008년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여성 93.3%, 남성 86.8%가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있다.  <br/> <br/>또한 국내 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비타민 D 수치는 선크림 차단제 사용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등 18개국의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였다. <br/> <br/>이에 하이로시 이원규 대표는 “<span class='quot2'>비타민 D3는 모든 면역력에 관계되며 한국인의 경우 이 비타민 D가 부족해 이로 인한 질병 발병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span>”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br/> <br/>하이로시는 전국 200여개 테마숍 모집을 통해 힐링라이트를 알리고 있고 현재는 대구 시내에 직영 1호 대곡점을 시범 운영 중이다. <br/> <br/>또한, 해외 진출 사업으로 중국 정부가 100% 출자한 ‘위해남해고신산업발전유한공사’와 중국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br/> <br/>이원규 대표는 “<span class='quot2'>하이로시의 기술력과 힐링라이트의 사업성을 높이 평가해 합작투자건이 성사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중국 내수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길을 개척했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8.txt

제목: "스티브 잡스 스탠퍼드 연설 자칫 못 했을지도"…새 전기 출간  
날짜: 20150324  
기자: 유태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410016718923  
본문: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퍼드대학 졸업식 축사는 손꼽히는 명연설 중 하나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늘 배고프게, 늘 우직하게”(Stay hungry, Stay foolish)와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 등 깊은 울림을 준 메시지가 바로 스탠퍼드 축사에서 나왔다. <br/> <br/>그러나 하마터면 잡스는 당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뻔했다. 자신의 SUV 차량 열쇠를 찾지 못해 출발이 지연되고 만 것. 결국 부인 로린한테 태워달라고 부탁했는데, 대학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주차장이 꽉 찼으니 돌아가시오”라고 제지했다. 부인이 “이 차에 졸업식 연사가 타고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잡스 특유의 검정 터틀넥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을 보고 눈썹을 찡그렸다. “<span class='quot0'>도대체 누가 연사라는 거요.</span>” <br/> <br/>잡스의 새 전기 ‘스티브 잡스 되기’(Becoming Steve Jobs)가 24일(현지시간) 출간된다고 미국 CNN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제멋대로인 졸부에서 선견지명을 갖춘 리더로의 진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잡스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성격의 기업가가 아닌 유머러스하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인물로 그려졌다고 한다. 스탠퍼드대 졸업식에 늦을 뻔한 해프닝을 포함해 암으로 투병할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한테서 간 이식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일화 등이 담겨 있다. <br/> <br/>미국 잡지 ‘포츈’의 편집장을 지낸 브렌트 쉘렌더가 쓴 이번 전기는 2011년 잡스 사망 직후 월터 아이작슨이 쓴 자서전 ‘스티브 잡스’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팀 쿡을 비롯한 잡스의 직장 동료들이 저자와의 인터뷰에 오랜 시간을 할애해 저술을 도왔다. <br/> <br/>애플 임원진은 새 전기를 “아이작슨의 책보다 잡스의 성격을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쿡 CEO는 “잡스는 대단히 열정적이었다. 모든 일이 완벽하기를 원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을 오만함으로 오해한다. 그는 성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79.txt

제목: [르포] 북한산경찰산악구조대 훈련현장 가다  
날짜: 20150324  
기자: 사진부(공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410016722394  
본문: 체력훈련에 나선 북한산경찰산악구조대 대원들이 인수봉 아래 가파른 암릉을 오르고 있다. 강인한 체력은 구조대원의 기본이다.포근한 봄 햇살을 맞으며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북한산 탐방로 곳곳에서 들려온다. <br/> <br/>지난 2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백운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가파른 하루재를 지나 인수암 인근 해발 550m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산경찰산악구조대를 찾았다. <br/> <br/>김창곤 대장이 쌍안경으로 인수봉을 살펴보고 있다. 낙석사고 대부분이 봄철 해빙기에 일어난다북한산경찰산악구조대는 1983년 4월 인수봉에서 조난사고로 7명이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그해 5월 창설됐다. 강왕석, 전성권, 김창곤 경위를 비롯한 3명의 구조대장과 5명의 의무경찰 대원이 365일 상주하며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br/> <br/>쌍안경으로 인수봉을 살펴보던 김창곤 대장이 반갑게 기자를 맞는다. 낙석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라 수시로 바위 상태를 살펴줘야 한다고 했다. <br/> <br/>암벽등반용 로프와 응급치료용 의약품 등 구조대원 개인배낭에 들어가는 각종 구조장비들.구조대원들이 출동 전 장비를 챙기고 있다.북한산경찰산악구조대 대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창곤 대장, 정한용, 우화승, 김현성, 김승천, 음범석 대원.막 점심식사를 마친 대원들이 각자 장비를 챙겨 체력단련 및 환자이송 훈련에 나섰다. 인수봉이 바로 올려다보이는 가파른 암릉을 김 대장을 선두로 구조대원들이 20㎏에 달하는 장비를 메고 거의 뛰다시피 오른다. 신속한 현장 접근과 부상자 이송은 물론 대원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강인한 체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br/> <br/>암릉지대를 지나 일반 등산로와의 합류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대원들이 환자이송 훈련에 들어갔다. 마침 하산 중이던 등산객이 환자 역할을 자처해 들것으로 등산로를 따라 이동해 구조대 인근 헬기장까지 이송하는 것으로 훈련을 마쳤다.  <br/> <br/>긴급이송훈련에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환자 역할을 맡은 등산객이 “덕분에 편하게 내려왔다”고 농담을 건네자 김 대장이 “<span class='quot0'>등산객이 몰리는 휴일에는 별의별 신고가 다 들어온다</span>”고 하소연한다. 물건을 등산로에 두고 왔으니 정상까지 가져다 달라는 신고 아닌 신고는 물론이고, 다리를 다쳤다고 신고해 황급히 달려가 들것에 실어 하산시켰더니 멀쩡히 일어나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br/> <br/>구조대원들이 헬기로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북한산경찰산악구조대 제공그런 사람들 때문에 허탈하기도, 황당하기도 하지만 오가며 건네는 등산객들의 ‘고생하신다’는 격려 한마디가 구조대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한다. <br/> <br/>구조대로 복귀한 김 대장은 다시 인근 바위벽에서 대원들에게 암벽등반 기술을 지도했다.  <br/> <br/>김창곤 대장(왼쪽)의 지도로 구조대원들이 암벽등반 교육을 받고 있다.“백만번 잘하다가 한번 실수로 목숨을 잃는 게 암벽등반입니다. 구조 요청자뿐 아니라 대원 여러분의 목숨도 걸려 있기 때문에 끝없는 반복 훈련과 교육을 통해 그 한번의 실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br/> <br/>김창곤 대장(오른쪽)이 구조대원들에게 암벽등반의 기본이 되는 매듭법을 교육하고 있다.등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묻자 김 대장은 “대부분 사고는 산을 우습게 여겨서 일어난다”며 “북한산은 접근성이 좋다 보니 동네 뒷동산 오르듯 구두나 운동화 차림으로 준비 없이 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산이든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고 체온유지에 필요한 여별의 옷과 열량이 높은 초콜릿이나 에너지바 등 간식을 챙겨 오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인수봉 귀바위를 오버행으로 오르는 김창곤 대장. 암벽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조루트를 정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취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뒤돌아본 인수봉이 저녁 노을을 받아 보석처럼 빛난다. 구조대원들의 숨은 노고를 생각하니 오늘 따라 북한산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br/> <br/>사진·글=남제현기자 jehy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0.txt

제목: 면역세포 자극해 암세포 증식 억제하는 '면역항암제'2종 시판 허용  
날짜: 2015032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310016702037  
본문: 우리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 종양증식을 억제하는 차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가 잇따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br/> <br/>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항 PD-1(프로그램화 세포사멸 수용체 1) 면역항암제인 한국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니볼루맙)의 시판을 나란히 허가했다. <br/> <br/>두 약품 모두 항암제 '여보이'(이필리무맙) 투여 후에도 진행이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br/> <br/>지난 2013년 사이언스지의 '올해의 연구'로 선정되기도 한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다. <br/> <br/>종양 자체를 공격하는 다른 항암제와 달리 면역체계에 인공 면역 단백질을 주입,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면역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br/> <br/>이에 따라 전신화학항암요법이 가지는 부작용과 표적항암제가 가지는 내성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여러 암종에 적용이 가능해 키트루다의 경우 현재 흑색종 외에 폐암, 유방암, 위암, 두경부암 등 30종 이상의 암질환에 대해 임상연구를 진행중이며, 7개의 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br/> <br/>옵티보 역시 오노약품공업과 다국적 제약사 BMS가 신세포암,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호지킨림프종 등 다양한 암에 대해 임상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소세포성폐암 중 편평상피암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1.txt

제목: “슈퍼푸드와 디저트가 만났다”  
날짜: 2015032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310016703868  
본문: 식사 후 즐기는 커피 한잔과 케이크 한 조각을 우리는 디저트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디저트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갖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를 이용한 디저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br/> <br/>업계에 따르면 체내 활성산소 제거와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식음료업계들이 이를 활용한 디저트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 증대에 좋다고 알려진 아로니아,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을 활용한 메뉴가 대표적이다. <br/> <br/>이에 식음료업체들은 맛과 건강함을 무기로 언제 어디서든 디저트는 몰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콘셉트의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br/> <br/>최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로니아는 블루베리의 약 4배, 복분자의 약 20배, 포도의 약 80배에 달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탄닌과 폴리페놀 등 다른 영양소도 들어 있어 효능이 많아 화제가 되고 있다. 아로니아는 아로니아 나무의 열매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며 식용 색소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관상용으로도 역시 재배된다. <br/> <br/>홀푸드 디자이너 자연원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두번 엄선한 냉동 아로니아’를 새롭게 출시한다. 자연원의 두번 엄선한 냉동과일은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냉동시켜 건강하고 편리하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br/> <br/>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능력이 우수해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유방암, 소화계통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동맥경화와 간경화에 좋다. <br/> <br/>CJ제일제당은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넣은 ‘쁘띠첼 슈퍼레드 토마토'와 ‘쁘띠첼 슈퍼레드 블루베리’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쁘띠첼 슈퍼푸드 과일젤리는 각각 토마토와 블루베리의 풍부한 원재료와 상큼한 과즙이 어우러져 식사 대용까지 가능한 디저트 아이템이다. 가격 대비 많은 양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용량도 기존 90g짜리 소형 제품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60g 용량으로 늘려 출시했다 <br/> <br/>아사이볼은 지구상 가장 완벽한 열매로 알려진 슈퍼푸드 유기농 아사이베리 냉동 스무디를 베이스로 해 각종 열대과일을 토핑한 브라질 대표 전통 건강음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세계적인 톱모델 미란다 커의 몸매 관리 비결로 소개되면서 알려졌으며, 이후 방송에서 아사이베리의 효능이 집중 소개되면서 국내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br/> <br/>㈜보뚜 슈퍼푸드에서 운영하는 보뚜아사이(BOTOACAI)의 인기메뉴인 아사이볼은 건강식품의 원료로 잘 알려진 유기농 아사이베리(Acaiberry)를 냉동 스무디로 만들어 각종 열대과일을 토핑하는 브라질 전통 영양식이다. 실제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는 아사이베리를 주원료로 한 카페들이 성업 중이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웰빙·헬스 메뉴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br/> <br/>죽 전문점 본죽에서 선보인 자연 그대로 음료 3종은 녹두, 단호박, 팥을 주재료로 해 원재료의 건강함을 그대로 살린 건강 음료다. 자연 그대로 음료 3종은 각 재료를 얼음과 함께 통째로 갈아 넣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본죽에서 죽으로 부담 없는 식사를 한 후, 지친 체력에 원기를 불어넣는 보충제 역할을 해줄 건강을 담은 디저트 음료다. <br/> <br/>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과 미용을 중시하는 젊은 층과 웰빙과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슈퍼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웰빙 디저트 개발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2.txt

제목: 꾸벅꾸벅 춘곤증… 비타민으로 날리세요  
날짜: 20150322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210016696136  
본문: 봄이 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건강한 이들도 몸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몰려오고 하품을 자주 하게 된다. 이 같은 계절성 피로감을 ‘춘곤증’이라고 한다. 피로감은 과다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춘곤증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 적응을 위한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지만 피로감이 오래갈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평소 드러나지 않던 잠복성 질환들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앓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 악화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봄철 건강을 위해 춘곤증으로 대표되는 봄철 피로에 대해 살펴봤다. <br/> <br/>건강한 사람의 경우 춘곤증은 1∼3주가 지나면 없어진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감이 지속한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봄철 피로 왜 생기나 <br/> <br/>춘곤증이 의학용어는 아니다. 봄철 많은 사람이 느끼는 피로 증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br/> <br/>성균관 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성은주 교수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불균형이 춘곤증의 첫째 원인이다. 겨울철에는 추위라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인체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부신피질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각종 비타민들이 소비된다. 하지만 봄철 일조시간이 길어지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추위에 적응하던 생리적 변화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또 다시 많은 부신피질 호르몬을 필요로 한다. 체내에 각종 비타민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될 수 없어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요즘처럼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 등이 풍부해 각종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분 섭취가 충분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br/> <br/>두 번째 원인으론 신체 기능 부조화를 꼽을 수 있다. 겨우내 추운 날씨 탓에 신체 운동량이 모자라고 결과적으로 몸 각 부위 근육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봄에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면 신체 기능 부조화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일상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다. 봄이 되면 졸업, 취직, 전근, 새로운 사업의 시작 등 생활 변화가 많기 마련이다. 이것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r/> <br/>◆각종 질환이 피로 원인일 수도 <br/> <br/>피로감을 일으키는 생활습관은 여럿이다. 운동부족, 좋지 않은 수면습관, 비만, 지나친 흡연·음주 등이 대표적이다. 피로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는 게 좋다. 당뇨, 갑상선 기능저하증, 빈혈 같은 각종 질환이 피로감 원인일 수도 있다.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심부전증, 신부전증, 류머티스성 질환, 에이즈, 수면무호흡증, 알레르기성 질환, 각종 암도 초기에 다른 증상 없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피로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질환보다 실질적으로 피로를 유발하는 것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적절한 휴식만이 해결책이 된다. <br/> <br/>주목해야 할 점은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1∼5%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 특발성 만성 피로, 섬유근통 증후군 같은 질환이 피로의 원인일 소지가 있어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선미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로가 한 달 이상 지속하면 각종 질환의 전조증상이나 정신적 원인, 약물 등에 의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확실한 원인을 찾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이어 “각 원인에 따라 휴식과 생활습관 개선, 운동요법, 약물요법, 행동요법 등을 적용하면 완치되거나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충분한 영양 섭취·규칙적 운동이 해법 <br/> <br/>춘곤증은 생활습관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처법도 생활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충분한 영양 섭취다. 특히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생리 리듬과 각종 스트레스 대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C는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각종 비타민군과 단백질, 칼슘 등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도 빼놓을 수 없다. <br/> <br/>규칙적인 운동도 봄철 피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긴요하다. 조깅, 산책, 줄넘기 등의 유산소운동을 하루 20∼30분씩 일주일에 3∼5회 정도 하는 것이 봄철 컨디션 조절에 효과적이다. 이처럼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근육 이완과 혈액 순환 증진 효과도 있어 피로 해소에 좋다. 사지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스트레칭, 맨손체조, 요가 등을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생체 리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피로 회복법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고 따뜻한 물에 자주 목욕을 자주 하는 것도 필요하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3.txt

제목: 고대구로병원 오상철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전문위원 위촉  
날짜: 2015032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2010016682677  
본문: 고려대구로병원 종양내과 오상철 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br/> <br/>오 교수는 연구대상자보호 전문위원으로 지난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 연구대상자 보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과 관련된 사항 논의 및 심의를 다룬다. <br/> <br/>그는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마쳤으며, 대장암, 위암 등 에 대한 활발한 논문과 암 치료를 위한 신약 연구 개발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2012년부터는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역임중이다. <br/> <br/>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4.txt

제목: 조기 위암 검사부터 제거까지, 내시경 하나로 ‘끝’  
날짜: 20150319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910016668306  
본문: 의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다. 암중에서도 특히 위암은 발생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암으로 꼽힌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4년 위암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6만8189명으로 갑상선암(30만1636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br/> <br/>위암은 발생률도 높지만 완치 가능성도 큰 암으로 1기에 치료하면 약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를 보면 암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40.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1.5%), ‘검사과정이 힘들 것 같아서’(16.4%)가 상위 의견으로 꼽혔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암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를 제외하면 시간적 여유나 힘든 검사과정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br/> <br/>조기 위암, 복부 절개 없이 내시경만으로 시술 <br/>시간을 내 암검진을 받을 여유도 없는 사람에게 덜컥 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곧 일상생활의 단절을 부를 수 있다. 과거 위암치료는 암의 진행정도에 관계없이 복부를 절개해 암 발병부위를 직접 잘라내는 수술이 표준적인 수술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술은 환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수술 후 회복기간이 길어 일상생활로 복귀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조기 위암일 경우 복부 절개 없이 내시경만으로 암을 제거하는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br/> <br/>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수술방법(제공 강동경희대병원).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이 가능한 대상은 주로 암이 넓게 퍼지지 않은 초기에 이루어진다. 또한 암 크기가 2~3cm 이하이면서 궤양이 없는 경우 적합하다. 반면 암이 위 주변 임파선으로 퍼지거나 위벽 근육층까지 진행한 경우, 암의 세포분화도가 나쁜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이 어렵다. 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의 진행은 내시경으로 암이 발생한 아래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부풀려 돌출시킨 후, 특수 제작된 내시경 절개도를 이용해 절개한다. 쉽게 말해 약물로 암 발생부위를 자르기 좋게 부풀린 후, 생선회 뜨듯 위벽에서 잘라내는 것이다. <br/> <br/>합병증 발생 낮추고, 빠른 회복 가능해 <br/>내시경 시술은 발생 부위만을 제거해 위의 대부분을 보존한다. 때문에 빈혈, 식도염, 설사 등의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신마취 없이 수면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한 시간 내외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회복기간도 빨라 시술 후 3일째부터는 일반 식사는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 <br/> <br/>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은 암이 발생한 최소한의 부위만 자르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후 관리부주의 등으로 다른 부위에서 또 다른 암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한다. 시술 후에는 위에 자극이 될 만한 맵고 짠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과음이나 흡연 또한 피해야 한다. <br/> <br/>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전정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는 맵고 짠 음식을 즐기고, 잦은 술자리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시간이 없거나 암 검사 및 수술과정이 부담스러워 병원을 찾지 않는 비율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위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90%가 넘고, 내시경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5.txt

제목: EBS1 ‘명의’ - 6명 중 1명, 뇌혈관 질환  
날짜: 20150319  
기자: 서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910016668224  
본문: 소리없이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다. 바로 뇌혈관질환이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사망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일 질환으로는 1위인 셈이다. 뇌혈관질환은 ‘소리없는 저격수’라 불릴 만큼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기에 질병이 생겼을 때 사망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질환은 예방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일까? EBS1 ‘명의’는 20일 밤 9시50분 신경외과 신용삼 교수와 신경과 김동억 교수를 만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 들어본 ‘6명 중 1명, 뇌혈관 질환’을 방송한다. <br/> <br/>뇌혈관 질환은 크게 머릿속 혈관이 막힌 허혈성 질환인 뇌경색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질환인 뇌출혈로 나눈다. 일반적으로는 두가지 모두를 총칭해 ‘뇌졸중’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심혈관질환과 함께 단일질환으로는 매년 발병률 1, 2위를 다투며 사망률도 높다. 더욱 무서운 것은 뇌혈관질환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6명 중 1명이 이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데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5분에 한 명씩 발병하는 꼴이다. <br/> <br/>대부분 뇌혈관 질환은 중년층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것일 뿐 뇌혈관 질환은 20대부터 꾸준히 진행된다. 본인이 자신의 머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신용삼 교수에 따르면 혈관의 99%가 막혀있어도 환자 본인은 그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예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번 발병하면 신체에 마비가 와 평생 장애가 남게 된다. 치료가 잘 된다고 해도 재발 우려가 심해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 이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또한, 발병했을 시 비극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신용삼, 김동억 두 명의와 함께 건강한 뇌혈관을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6.txt

제목: 국가암정보센터, 100개 암종 정보 구축  
날짜: 201503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910016667583  
본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가 19일 100개 암종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 <br/> <br/>국가암정보센터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종 17종을 시작으로 소아암, 희귀암을 포함한 100개의 암종의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의가 작성, 검토해 구축했다. <br/> <br/>이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내가 알고 싶은 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명칭별, 계통별로 분류해 암종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br/> <br/>해당 암의 정의, 관련통계, 예방, 진단, 치료, 생활가이드를 안내하고 있어 암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 의료 관계자 등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br/> <br/>구축된 암종 정보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 정보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7.txt

제목: ‘전립선염 증후군’, 면역계 회복 통한 효율적 견해  
날짜: 20150319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910016671224  
본문:   <br/> <br/>임권택 감독 102번째 영화 '화장'. '칼의 노래'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김훈의 원작 '화장'은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회사 내 부하 직원을 사랑하게 된 화장품 회사 중역의 이야기다. 이 영화의 주인공 오상무는 전립선염으로 배뇨 장애를 가졌고, 고장난 몸으로 인해 고통 받을 때에만 암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를 공감할 뿐이다. <br/> <br/>이 영화에서 암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의 고통을 공감하게 만드는 주인공의 질환 전립선염.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지만, 항상 세균이 원인이 되거나 염증성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으로 진단하는 증후군이다. <br/> <br/>전립선염의 증상은 통증과 배뇨증상이 특징적이다. 통증은 고환, 음경, 회음부 및 허리에 주로 나타나고 소변 볼 때나 사정 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배뇨증상은 소변이 급하게 자주 마려운 자극 증상이 많고 소변보기가 어렵고 잔뇨감 등이 있다. 일부 환자는 발기부전을 호소하기도 한다. <br/> <br/>실제 임상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이 있지만 전립선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를 통칭해 ‘전립선염 증후군’이라고 한다. <br/> <br/>이러한 전립선염은 상당히 흔한 질환이다. 50세 이하 남성의 비뇨기 질환 중 가장 흔하며,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남성의 절반 가량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전립선염 증후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br/> <br/>전립선염은 증상의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소변 및 전립선액 검사소견에 따라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95% 정도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다. 비세균성의 경우 발병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br/> <br/>전립선염 증후군은 대개 만성적 경과를 보이고 치료 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의학 저널 ‘Alterantive & Integrative Medicine’에서 한방을 이용한 효과적인 전립선 질환 치료법에 관한 임상 사례 논문이 소개되며 국내에서도 전립선염 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논문 제목: ‘Effect of BJGT on Chronic Pelvic Pain Syndrome: Case Series’) <br/> <br/>논문의 저자 김지만 원장(경희생한의원)은 10여 년 넘게 해외 비뇨기과 전문 학술지와 논문 등의 해외 최신 연구 지견을 토대로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으로 국내에서 주로 주장돼 온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이 세균 감염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이상과 전신 호르몬의 축인 HPA-axis의 비정상 작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를 만성 전립선염의 흔한 증상인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과 관련이 있는 기허 증상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br/>  <br/>또한 면역계의 이상으로 ‘NK-cell’과 ‘mast cell’이 관여하는 면역 반응이 만성 전립선염의 신경 손상에 관여한다고 보고, 이에 BJGT 처방이 면역계 회복에 효율적으로 작용해 기존 항생제와 전립선염 치료제인 항생제와 알파 차단제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만성 전립선염의 골반 통증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r/> <br/>이 논문은 한약 단독 치료로 만성전립선염 증상이 완치된 케이스 83.3%, 증상 완화 16.7%로 한약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br/>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8.txt

제목: 뇌혈관 99%가 막혀 있어도 자각 못해  
날짜: 20150319  
기자: 서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910016675397  
본문: 소리없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다. 뇌혈관질환이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많았다. 단일 질환으로는 1위인 셈이다. 뇌혈관질환은 ‘소리없는 저격수’라 불린다.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기에 질병이 생겼을 때 사망할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다. 이 질환을 예방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EBS1 ‘명의’는 20일 밤 9시50분 신경외과 신용삼, 신경과 김동억 교수를 만나 뇌혈관질환에 대해 들어본 ‘6명 중 1명, 뇌혈관 질환’을 방송한다. <br/> <br/> 뇌혈관질환은 갑자기 발병하기 때문에 사망 위험이 매우 큰 질병이다. <br/>EBS 제공뇌혈관 질환은 크게 머릿속 혈관이 막힌 허혈성 질환인 뇌경색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질환인 뇌출혈로 나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를 총칭해 ‘뇌졸중’이라고 일컫는다. 심혈관질환과 함께 단일 질환으로는 매년 발병률 1, 2위를 다투며 사망률도 높다. 더 무서운 것은 뇌혈관질환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6명 중 1명이 이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마다 10만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데, 수치상으로 5분에 한 명씩 발병하는 꼴이다. <br/> <br/>대부분 뇌혈관질환은 중년층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뇌혈관질환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것일 뿐 20대부터 꾸준히 진행된다. 자신의 머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혈관의 99%가 막혀 있어도 환자 본인은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예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번 발병하면 신체에 마비가 와 평생 장애가 남게 된다. 치료가 잘된다고 해도 재발 우려가 커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할 방법은 없나. 발병했을 때 비극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신용삼·김동억 두 명의와 함께 건강한 뇌혈관을 지킬 대책을 생각해 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89.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먹는 사람의 자존심 존중…1000원만 받았어"  
날짜: 20150319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910016669898  
본문: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즐겨찾는 '천원 백반집'을 운영해오던 김선자 할머니가 암투병 끝에 지난 18일 73세의 나이로 별세, 누리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br/> <br/>김 할머니가 전통시장 대인시장에 백반집 문을 연 것은 지난 2010년부터다. 애초 죽 집을 차리려 했다가 차라리 봉사하기로 마음먹고, 천원 백반 식당 '해 뜨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br/> <br/>김 할머니는 생전 "몇 차례 사업 실패 후 보험회사 일을 하다 은퇴하고 벌인 찜질방 사업마저 투자한 돈을 사기 당했다"며 "빈털터리일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 재래시장 한쪽에 천원 백반집을 어렵사리 열었다"고 손해만 보는 식당을 열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br/> <br/>천원 백반집에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 하루 100여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매달 쌀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연탄을 수백장씩 가져다 주거나 김치를 담가주는 등 도움이 끊이질 않았다. 밥값으로 1만원짜리를 몇 장 건네며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는 손님도 더러 있었다. <br/> <br/>그러나 천원 식당은 김 할머니가 지난 2012년경 대장암으로 쓰러지면서 문을 닫기도 했다. 김 할머니의 암투병 소식에 주변 기업과 시장상인들, 시민들이 돕기에 나서 천원식당은 1년만에 이들에 의해 다시 따뜻한 나눔의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br/> <br/>암이 악화돼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 할머니는 그동안 먼발치에 자신의 일군 천원식당의 기적을 지켜보다 이날 영면했다. <br/> <br/>김 할머니는 “천원 식당을 계속 이어가 달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적극 나서 식당운영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김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듣고 "천원 밥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밥상"이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br/> <br/>이어 "할머니의 삶은 곧 '광주정신'의 다른 이름이다"며 "남은 저희들이 그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사진=방송 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0.txt

제목: 지난해 대학진학율 女74.6%-男 67.6%, 비만 男늘고 女줄어  
날짜: 2015031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910016669688  
본문: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학진학률 여고남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이 지금은 인구 10명 중 1명꼴이지만 2040년에는 10명 중 3명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br/> <br/>201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세에 가까웠다 <br/> <br/>19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br/> <br/>◇ 대학진학률, 여학생 74.6%-남학생 67.6% <br/> <br/>2014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등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7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br/> <br/>대학 진학률은 2005년 82.1%에 달했으나 이후 꺾인 모습이다. <br/> <br/>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7.6%, 여학생은 74.6%로 1년 전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다. <br/> <br/>대학 진학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가 지난 2009년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br/> <br/>당시 0.8%포인트에 불과하던 남녀 대학진학률 격차는 2012년 5.7%포인트, 2014년 7%포인트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br/> <br/>그러나 대학생 수는 남학생이 더 많다. <br/> <br/>지난해 인구 만명당 대학생은 638.2명으로 남학생 754.7명, 여학생 521.7명이었다. <br/> <br/>◇비만인구 남자는 1.5%p늘고, 여자는 2.2%p감소 <br/> <br/>체질량지수 25 이상으로 따지는 19세 이상 인구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남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었으나 여자는 2.2%포인트 감소했다. <br/> <br/>2013년 한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1.3% 줄었고 이혼건수는 0.9% 늘었다. 재혼은 4.1% 감소했으며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46.8세, 여자 42.5세였다. <br/> <br/>◇취업자 중 43%만 전공과 일치 <br/> <br/>지난해 취업자에게 전공과 직업 일치도를 물어보니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자 중 43.0%는 일치, 31.7%는 불일치, 25.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br/> <br/>◇교원 1인당 학생수 초등 14.9명, 고등 13.7명 <br/> <br/>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br/> <br/>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30.9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br/> <br/>◇월평균 사교육비 중학교가 27만원으로 가장 많아 <br/> <br/>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1년 전(23만9천원)보다 1.1% 늘었다. 중학교가 월평균 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3만2000원, 고등학교 23만원 순이었다. <br/> <br/>초등학생 81.1%가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학생은 69.1%, 고등학생은 49.5%가 받아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68.6%였다. <br/> <br/>◇지방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22.9% <br/> <br/>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 수 300명 중 여성 의원은 47명으로, 비율은 15.7%였다. 여성 의원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r/> <br/>다만 2014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원 수 3천687명 중 여성 의원 845명으로 비율이 22.9%였다. <br/> <br/>◇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2040년엔 3배로 늘어 <br/> <br/>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5042만명이다. <br/> <br/>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해 2040년에는 510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br/> <br/>2014년 12.7%인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은 2014년 40.2세에서 2040년 52.6세로 늘어난다. <br/> <br/>지난해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3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57.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br/> <br/>◇사망원인 1위는 암, 10만명 149명이 암으로 죽어 <br/> <br/>2013년 기준 기대수명은 81.94년이다. 1990년 71.28년에서 약 10년 가량 늘었다. <br/> <br/>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9명이었다. <br/> <br/>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19세 이상 인구 흡연율은 23.2%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줄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15.9%로 1.8%포인트 감소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1.txt

제목: 말기암환자에세 가짜 면역세포 주사해 거액 챙긴 무면허 의사 등, 중형ㅁ  
날짜: 201503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810016654615  
본문: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라는 거짓말로 말기 암환자들을 모아 가짜 면역세포를 주사하고 4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무면허 의료 업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중형이 선고됐다. <br/> <br/>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r/> <br/>재판부는 모집책 고모(59·여)씨와 고씨의 남편(65)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각각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난치병에 걸려 절박한 상황의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거액을 속여 뺏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br/> <br/>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br/> <br/>임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면역세포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말기 암환자 6명에게 중국의 모 시설로 오게 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r/> <br/>임씨 등이 암환자에게 주사한 면역세포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 등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면역력 증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들에게 속아 치료받은 암환자 6명 가운데 3명은 치료 중 증세가 악화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2.txt

제목: '화장' 김호정, 삭발 투혼+체중 감량으로 완성된 열연 '소름'  
날짜: 201503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810016653633  
본문:   <br/> <br/>화장 김호정 <br/> <br/>‘화장’ 배우 김호정이 폭발적인 열연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br/> <br/>오는 4월 9일 개봉하는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로 김호정은 죽어가는 아내 역을 맡았다. <br/> <br/>원숙한 단아함 속에 강렬한 힘을 가진 배우 김호정은 영화 ‘침향’, ‘플란다스의 개’, ‘나비’, ‘꽃피는 봄이 오면’은 물론 삶의 일부라 여기는 연극무대에서 연기력을 다졌으며 지난 2001년 영화 ‘나비’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최고의 연기파 배우이다. <br/> <br/>평단에서 ‘삶의 깊이가 녹아 있는 내면 연기를 구사하는 진정한 배우’로 찬사 받고 있는 김호정을 임권택감독은 지적인 이미지와 섬세한 연기력이 캐릭터에 더 없이 적합하다며 캐스팅의 이유를 밝혔다. <br/> <br/>김호정은 캐릭터에 대해 “<span class='quot0'>암 투병하는 캐릭터이기에 연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촬영에 임하고 나서는 담담하게 잘 찍었던 것 같다</span>”고 말해 ‘화장’이 배우로서 쉽지 않은 연기 도전임을 시사했다. <br/> <br/>또한 김호정은 촬영 전부터 캐릭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암환자로 병약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과감한 삭발 투혼과 혹독한 체중 감량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그렇게 탄생된 온 몸을 던진 메소드 연기는 깊은 울림을 전하며 매 장면마다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실제 투병 경험을 더해 마치 실제처럼 열연해 놀라움을 전한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화장 김호정, 김호정 대단하다</span>”, “<span class='quot1'>화장 김호정, 아무나 못하는 열연이야</span>”, “화장 김호정, 꼭 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김호정은 최근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중산층의 주부로 우아하고 지적인 매력을 드러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3.txt

제목: '화장' 안성기-김호정-김규리, 3인 3색 캐릭터 영상 공개 '혼연일체 연기'  
날짜: 2015031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710016632989  
본문:   <br/> <br/> <br/>영원한 현역, 임권택 감독의 신작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로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 등 명품 배우들이 최고의 열연을 선보였다. <br/> <br/>최근 공개된 '화장'의 3인 3색 캐릭터 영상은 안성기, 김호정, 김규리 세 배우의 캐릭터와 열연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br/>  <br/>배우 안성기가 연기한 오상무는 직장 내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신뢰받으며 존경 받는 상사이다. 병든 아내에게도 헌신적인 좋은 남편이면서도 새로 입사한 젊은 여직원에게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는 한 남자일 뿐이다. 안성기는 오상무의 입장에 선 열연을 선보인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인생의 서글픔과 끓어오르는 갈망이 혼재된 내면을 섬세한 감정 연기로 심도 있게 표현했다. 깊이 있는 연기와 기품 있는 중후함에 중년의 섹시함까지 더해져 배우 안성기의 반전된 이미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br/> <br/>배우 김호정은 암이 재발하여 죽음을 앞에 둔 아내 역을 맡아 폭발적인 열연을 선보인다. 아내는 암 투병으로 몸도 마음도 약해져 힘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신을 돌보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점점 더 무기력해져만 간다. 김호정은 촬영 전부터 캐릭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감한 삭발 투혼과 혹독한 체중 감량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실제 투병 경험을 더해 마치 실제처럼 열연한 김호정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 세계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다. <br/> <br/>생의 한 가운데 빛나고 있는 여자 추은주는 오상무의 회사에 들어온 여직원으로 젊고 한없이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자이다. 그녀의 넘치는 생기와 꾸밈없는 젊음 그 자체가 오상무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추은주 역의 김규리는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세련된 아름다움과 지적인 여성미까지 동시에 선보인다. <br/> <br/>'화장'은 임권택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으로 세월만큼 한층 더 깊어진 시선, 삶과 죽음, 사랑과 번민이라는 보편적인 감정과 공감, 시대와 소통하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프로덕션이 돋보이는 격조 높은 작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제3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제33회 벤쿠버 국제영화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제3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제25회 스톡홀름 국제영화제, 제9회 런던한국영화제, 제25회 싱가포르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브리즈번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뉴라틴아메리카 영화제, 인도 케랄라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또한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되어 상영을 마쳤고 이달에는 제39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국내에서는 4월 9일 마침내 관객들과 만난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4.txt

제목: 딸기 효능, 임산부-암 환자-심장질환 등에 좋아...그 이유는?  
날짜: 201503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710016621688  
본문: 딸기 효능,딸기 효능,딸기 효능,딸기 효능,딸기 효능 <br/>출처 : 네이버 콘텐츠 검색딸기 효능, 임산부-암 환자-심장질환 등에 좋아...그 이유는? <br/> <br/>딸기 효능에 대한 관심이 봄철을 맞아 높아지고 있다. <br/> <br/>딸기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피로 회복, 시각 기능 개선 등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다. <br/> <br/>딸기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도 많이 들어있어 몸속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혈전 생성도를 억제하며 눈의 망막 세포 재합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각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br/> <br/>또한 딸기에는 피로 회복, 면역력 증강, 피부 미용에 효능이 있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함유돼 있는데, 신진대사를 활발히 할 뿐 아니라 멜라닌을 억제하고 기미를 막아준다. <br/> <br/>한편 딸기나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3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딸기는 임산부들에게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에게 뇌 이상,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딸기 100g에는 약 127g의 엽산이 함유돼있다. <br/> <br/>또한 딸기 속의 일라직산은 암세포의 APOTOSIS를 유발해 암세포 억제에도 효능이 있다. <br/> <br/>한편 대한영양사협회는 딸기를 1회에 10개씩, 하루에 2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br/> <br/>딸기 효능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딸기 효능, 맛도 영양도 최고", "딸기 효능, 맛있겠다", "딸기 효능, 봄이니까 사먹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5.txt

제목: 2017년까지 세계 첫 바이오의약품 5개 수출  
날짜: 20150317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710016630111  
본문: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은 2024년이면 시장규모가 2조6000억달러까지 성장해 반도체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 한국의 3대 수출산업을 더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개척 면에서 보면 이렇듯 엄청난 잠재력에도 절대 강자가 나타나지 않는 태동기에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2017년까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을 포함한 세계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5개를 출시,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이진규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span class='quot0'>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상용화 수준과 임상 연구건수 2위에 오른 만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올해 3400억원을 지원할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정부는 이를 위해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R&D)로 방향을 전환,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투자하는 신규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기술개발→임상→인·허가→수출’로 이어지는 종합 일괄형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암과 관절염, 척수손상 등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여러 부처가 연계해 지원하는 제품 지향형 사업도 도입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 2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의대 졸업생 중 연구 진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취업을 연계해주는 ‘연구 인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6.txt

제목: 자연통합의학암치료연구회,“ 암 나는 이것이 궁금해요!” 상담회 개최  
날짜: 2015031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610016590156  
본문:   <br/> <br/>자연통합의학암치료연구회(회장 문창식)은 오는 29일 메트라이프 트레이닝 센터에서 개최되는 춘계 학술대회를 맞이해 암 환자와 환자가족 등 암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암과 관련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자, “<span class='quot0'>‘암’ 나는 이것이 궁금해요!</span>” 상담회를 개최한다. <br/> <br/>학회 소속 회원과 회원병원이 마련한 이번 상담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 강의장에서 펼쳐진다. <br/> <br/>우선 '암 치료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문창식 자연통합의학암연구회 회장)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정책적 접근(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우리나라 암 치료의 문제점과 대안(중앙일보 박태균 기자) ▲암 환자를 위한 치유공간 디자인(국민대학교 건축과 김인선 교수)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br/> <br/>'자연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마련되는 2부에서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본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미래(이화의대여성암병원 백남선 병원장)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미래(대전대학교 한의대) ▲면역치료만이 살 길이다(강북삼성병원 전우규 교수) ▲아우토겐의 이론과 실제(한국아우토겐협회 이주희 회장) ▲암을 이기는 영양과 암(삼육대 이숙연 교수) ▲제4의 암 치료법, 온열치료의 현재와 미래(최일봉 제주We병원장) ▲스마트암치료의 이론과 실제(우리들의원 류영석 원장) 등의 최신지견이 펼쳐진다. <br/> <br/>문창식 회장은 "암 치료에 있어 통합기능의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통합의학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100만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공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학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참가자들이 현장을 찾아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자연통합의학연구회 홈페이지 내 마련된 상담게시판이나 이메일 으로 궁금하신 질문을 등록하면, 더욱 원활한 상담을 기대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7.txt

제목: 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날짜: 2015031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610016583777  
본문: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중 숨진 10명 중 3명꼴로 숨지기전 한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사망이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한은정·이지혜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다. <br/> <br/>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1474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행태와 생애 말기 연명치료 진료 현황 등을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60.6%,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74.7%를 차지했다. <br/> <br/>등급인정 후 사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16.2일(±430.4일)이었다. <br/> <br/>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45.6%, 1년 이상 생존한 경우 54.4%였다.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고혈압과 치매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br/> <br/>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의 순이었다.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 64.4%로 가장 많았고, 자택 22.0%, 사회복지시설 9.2%, 병원이동 중 사망 4.2% 등이었다. <br/> <br/>전체 대상자의 99.3%(26만9531명)가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입원비 등 급여를 받았다. <br/> <br/>이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은 1인당 평균 총급여비는 1425만원(건강보험 급여비 1129만원,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27만원)이었다. <br/> <br/>사망 전 기간에 따른 1인당 평균 총급여비 추이를 살펴보면, 숨진 날이 포함된 달에 가까워질수록 총급여비, 의료비는 증가했다. <br/> <br/>사망 전 12개월에 1인당 평균 65만원이었던 총급여비는 사망 전 6개월에 118만7000원으로 늘었고, 사망 전 1개월에는 208만9000원으로 솟았다. <br/> <br/>사망 전 1개월간 진료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31.8%(7만5451명)가 숨지기 전 한 달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인공적 영양공급,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중환자실 입원, 혈액 투석,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br/> <br/>이번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장기요양 노인의 병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에 맞춰진 제도적 관심을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단다"고 지적했다. <br/> <br/>또 "호스피스 제도화 논의를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장기요양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8.txt

제목: 피부 속 표피세포 고해상 관찰… 최원식 교수팀 광학현미경 개발  
날짜: 20150315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510016578155  
본문: 국내 연구진이 빛을 이용해 사람의 장기나 피부 조직 속에 있는 세포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을 개발했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고려대 물리학과 최원식(사진) 교수 등이 피부 아래 1.15㎜에 있는 세포를 1㎛(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의 해상도로 볼 수 있는 CASS광학현미경을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의 지원으로 최 교수가 주도하고 같은 대학 박규환·이재승 교수 및 건국대 임용식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br/> <br/>CASS광학현미경은 암세포가 주로 발생하는 피부 속 표피세포의 세포핵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어 암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세포는 80%가 피부나 장기의 외피에서 1∼3㎜ 깊이에 있는 표피세포에서 발생하지만, CT·MRI·초음파 등은 해상도가 낮아 암세포가 크게 자라난 이후에야 측정이 가능하다. 또 기존 광학현미경으로는 수십㎛ 깊이까지만 고해상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연구팀은 1㎜ 이상의 깊이까지 고해상도로 세포 영상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199.txt

제목: 그라비올라는 만병통치약? '독성 있는 뿌리 주의하세요'  
날짜: 201503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510016577198  
본문: 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는 만병통치약? '독성 있는 뿌리 주의하세요' <br/> <br/>그라비올라의 효능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br/> <br/>최근 방송된 SBS '생방송투데이' 똑똑한 건강백서에서는 그라비올라 효능이 공개됐다. <br/> <br/>그라비올라는 인도와 필리핀, 남미 등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돼 왔다. 현지인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이용된 만큼, 그라비올라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그라비올라의 활용법으로는 뜨거운 물에 그라비올라 잎을 넣고 우려내 차로 마시거나, 그라비올라 잎을 우려낸 물로 천연 그라비올라 비누를 만들거나 미스트로 만들어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br/> <br/>그라비올라는 또한 칼륨 함량이 높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성이 있어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좋다. <br/> <br/>그라비올라 효능에 대해 김소형 한의사는 "그라비올라 차를 마시면 고혈압은 물론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등을 포함한 항산화물질인 파이토케미칼도 풍부해 염증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br/> <br/>그라비올라 복용시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그라비올라의 뿌리에는 독성이 있어 반드시 정제된 잎만을 적량 복용해야 한다. 또 임신부나 저혈압 환자는 되도록 복용을 피해야 한다.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0.txt

제목: 그라비올라 이렇게 활용하세요...'효과↑'  
날짜: 201503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510016577279  
본문: 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그라비올라 이렇게 활용하세요...'효과↑' <br/> <br/>그라비올라의 활용법이 화제다.  <br/> <br/>최근 방송된 SBS '생방송투데이' 똑똑한 건강백서에서는 그라비올라 효능이 공개됐다. <br/> <br/>그라비올라는 인도와 필리핀, 남미 등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돼 왔다. 현지인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이용된 만큼, 그라비올라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그라비올라의 활용법으로는 뜨거운 물에 그라비올라 잎을 넣고 우려내 차로 마시거나, 그라비올라 잎을 우려낸 물로 천연 그라비올라 비누를 만들거나 미스트로 만들어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br/> <br/>그라비올라는 또한 칼륨 함량이 높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성이 있어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좋다. <br/> <br/>그라비올라 효능에 대해 김소형 한의사는 "그라비올라 차를 마시면 고혈압은 물론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등을 포함한 항산화물질인 파이토케미칼도 풍부해 염증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br/> <br/>그라비올라 복용시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그라비올라의 뿌리에는 독성이 있어 반드시 정제된 잎만을 적량 복용해야 한다. 또 임신부나 저혈압 환자는 되도록 복용을 피해야 한다.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1.txt

제목: 유방암 수술 후 정기검진 생존율 3배 높다  
날짜: 20150315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510016578072  
본문: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발병 후 5년간 정기검진을 받은 그룹에 비해 비검진그룹의 사망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연희(사진)교수·이지윤 임상강사 연구팀은 2000∼2008년 유방암 1∼3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환자 3770명의 10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br/> <br/>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유방암 1∼3기에 해당하는 환자들로, 5년 상대 생존율이 1기 97.2%, 2기 92.8%, 3기 78.7%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유방암이라도 첫 발병 후 5년간 정기검진을 받은 환자그룹(3300명)과 그러지 않은 환자그룹(470명)의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10년 누적 사망률을 비교해보니 정기 검진그룹의 사망률은 8.8%였던 반면, 비검진 그룹은 25.4%에 달했다. 이는 추적관찰을 받았는지 여부가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r/>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하지만 병원을 자주 찾는 것이 재발률 자체를 줄어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0'>최초 발병 때 병변의 크기나 상태, 병기 등 여러 요소가 재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검진만으로 재발 그 자체를 막기는 어렵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같은 암이라도 정기검진 여부에 따라 장기 생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2.txt

제목: 흑인 범죄자 넘쳐나는 美, 법 집행은 공정한가  
날짜: 20150314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410016574678  
본문: 윌리엄 스턴츠 지음/김한균 옮김/W미디어/2만9000원미국 형사사법의 위기/윌리엄 스턴츠 지음/김한균 옮김/W미디어/2만9000원 <br/> <br/>미국은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거론된다. 특히 20세기 말 미국 수정헌법은 민주국가 형사법 준거로 자주 인용된다. 그만큼 공정하다는 것이다. <br/> <br/>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없으나 미국 수정헌법에는 명시된 게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권한 제한,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는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 등이다. 이것들은 현대 민주국가 헌법에 공통된 사항이다.현실은 어떤가. 미국 교도소는 수감자로 넘쳐난다.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 수감자들 중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br/> <br/>2010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인구 10만명당 수감자는 750여명으로 전 세계 평균(145명)의 5배 수준이다. 특히 20∼30대 흑인 남성의 경우 10만명당 7000명이나 구금돼 있다. 미국 평균의 10배에 육박한다. <br/> <br/>윌리엄 스턴츠(1958∼2011) 미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고하기 전 집필한 유작인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원제: The Collapse of American Criminal Justice)에서 미국의 이런 현실을 개탄한다. 그는 형벌이 과도하게 집행된다고 비판한다. 백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법원의 복잡한 절차 탓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형사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이다. 스턴츠 교수는 “<span class='quot0'>흑인들이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기 때문</span>”이라고 풀이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 범죄를 막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차별만 심화시키면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형사사법제도는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br/> <br/>스턴츠 교수는 “흑인 남성들에게 집 근처 구금시설에서 얼마 동안 갇혀 있는 일이 보통의 인생 경험처럼 돼버렸다. 놀랄 일이지만 사실이다. 누구나 겪는 인생 경험이라면 범죄 억지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 버렸을까”라고 묻는다. <br/> <br/>저자는 미국 사법체계가 법 집행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미국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면 지키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 누구를 골라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릴지는 법집행관인 경찰관의 재량에 달렸다. ‘누군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법규를 만들어 놓고 법집행관 의지에 내맡기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재량적 사법’은 ‘차별적 사법’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인다. 경찰관들은 교통법규 위반 명목으로 흑인 운전자를 골라 정지시키고서 마약범죄 증거를 수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이것이 해묵은 인종차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br/> <br/>이를 개선하려면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지방검사와 법관들을 투표로 선출하는 미국에서 지역민주주의가 쇠퇴한 결과, 경찰과 검사에 대한 시민통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사법권력이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판결에서 이제는 지방검사보에게 넘어간 것이 미국 현실이다. 그는 “<span class='quot0'>형사사법이 공정해지려면 범죄와 형벌의 비용을 직접 치러야 하는 시민들이 법을 집행하고 형벌에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 <br/> <br/>스턴츠 교수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그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가 된 석지영 교수의 은사이다. 석 교수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빌 선생님(윌리엄 스턴츠 교수)이 세상을 떠났다. 봄방학 중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 때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그는 암으로 통증에 시달렸다. 등 버팀대와 지팡이에 의지하다가 끝내는 휠체어를 타야 했다. 교수님은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다. ‘계속 울리는 알람시계를 귀에 붙여놓은 것 같다. 알람을 끌 수도 없고 시계를 버릴 수도 없다. 앉든지 서든지 고통은 언제나 나를 쫓아다닌다.’ ….” <br/> <br/>스턴츠 교수가 고통스럽게 쓴 이 책은 미국 사법의 위기를 분명히 예견하고 있다. <br/> <br/>법률적 얘기라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하겠지만 읽다 보면 미국법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도 경찰봉으로 유색 인종이나 흑인들을 마구 두들겨패는 미국 경찰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미국 수정헌법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스턴츠 교수 저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3.txt

제목: 맛은 기본, 건강까지 책임지는 ‘컬러푸드’는?  
날짜: 2015031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310016570808  
본문: 미국 국립 암 연구소에서 암 예방을 위해 하루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를 권장하며 컬러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컬러푸드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칼’ 물질이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고, 세포 손상 저하를 가져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5가지 컬러로 꼽힌 노랑 및 빨강, 보라, 초록, 흰색 식품을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옐로 푸드(Yellow Food)=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성분이 풍부한 옐로 푸드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제아잔틴’.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미용관리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스톤월 키친 ‘망고피치 잼’은 트로피컬 망고와 제철에 수확한 신선한 복숭아의 조합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비교적 달지 않고 부드러운 맛으로 다양한 레시피로 베리에이션 가능하다. <br/> <br/>◆레드 푸드(Red Food)=레드푸드는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특히 체리는 비타민 A,C,E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노화 방지, 시력 보호, 소화작용에 효과적이다. 자연원 ‘두번 엄선한 냉동 체리’는 별도의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냉동시킨 제품으로 체리의 씨와 꼭지를 제거해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체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br/> <br/>◆퍼플 푸드(Purple Food)=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노화 방지와 뇌졸증 위험을 줄여주고, 눈 망막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 눈 건강에 효과적인 블루베리를 달콤한 디저트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 ‘쁘띠첼 슈퍼 블루’는 풍부한 블루베리와 상큼한 과즙의 조화가 돋보이는 과일젤리 제품이다. 160g의 넉넉한 용량으로 식사대용으로 손색없다. <br/> <br/>◆그린 푸드(Green Food)=엽록소와 무기질,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브로콜리의 영양을 담은 건강주스 웅진식품 ‘자연은 데일리톡’은 브로콜리와 함께 5가지 야채과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제품이다. 제품에 함유된 프락토 올리고당은 체내 유산균을 활성화 시켜 장과 간 기능에 도움을 준다. 방부제, 색소, 향료, 유화제, 증점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배제하고 저온 아셉틱 공법으로 생산해 신선한 야채를 즐길 수 있다. <br/> <br/>◆화이트 푸드(White Food)=간암 및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하는 ‘파이토케이칼’이 들어있는 화이트 푸드는 암 예방뿐 아니라 강한 살균, 향균 작용을 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화이트 푸드 중 하나인 백포도주를 간편하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보니또 코리아 ‘상그리아 화이트’는 4.5%의 낮은 알코올 도수로 여성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4.txt

제목: 인면수심 60대男, 처남 부부 노예처럼 부리고 수당까지  
날짜: 201503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310016570285  
본문:   <br/> <br/>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처남과 처남댁을 노예처럼 부리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챈 것도 부족해 처남댁을 상습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이 남성의 가족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막음 하기 위해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부부를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켜 해도 너무 했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br/> <br/>13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A(6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br/> <br/>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인인 처남과 처남댁에 몹쓸짓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 2개월에 걸친 조사와 수사끝에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br/> <br/>◇장애인 시설에서 만난 지적장애 부부, 누나집으로 옮긴 뒤 지옥생활 <br/> <br/>지적장애 2급인 B(41·여)씨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장애를 앓는 남편을 만났다. <br/> <br/>이들 부부는 평소 대화가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했지만 정만큼은 남달랐다. <br/> <br/>10여년전 시설을 나온 이들 부부는 남편 누나 부부가 사는 인천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다. <br/> <br/>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나을 것으로 믿었으나 지옥으로 들어간 꼴이었다. <br/> <br/>◇노예처럼 부리고 때리고 장애수당마저 가로채 자기 아들 보험금 내 <br/> <br/>A씨는 매번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B씨 남편을 마구 때렸다. <br/> <br/>이들 부부는 평소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잡일을 했지만 월급은 커녕 매월 부부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수당 110만원마저 남편의 누나 부부가 관리한다며 가로챘다.  <br/> <br/>남편의 누나 부부는 이들의 장애인 수당으로 집 수리를 하고 자신들의 아들 보험금을 내기도 했다. <br/> <br/>2009년 A씨의 부인인 시누이가 암으로 세상을 등지자 홀로 된 A씨의 폭행은 더 잦아졌다. <br/> <br/>◇남편 ?아낸 뒤 처남댁 성폭행 <br/> <br/>A씨는 처남을 때려 집에서 쫓아낸 뒤 B씨를 덮쳤다. <br/> <br/>B씨는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수차례 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br/> <br/>◇경찰 2013년 첩보입수, 최근에야 실체 파악 <br/> <br/>경찰은 2013년 마을 주민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br/> <br/>그러다가 강화경찰서 강력팀은 강화도 사회복지사들을 수소문해 두 달 만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br/> <br/>경찰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B씨의 피해자 진술을 받았지만 의사소통이 힘들어 혐의 입증에 애를 먹었다. <br/> <br/>◇피해자 진술 신빙성 위해 전문가 동원 <br/> <br/>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 자녀들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B씨 부부를 찾아가 강제로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가기까지 했다. <br/> <br/>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누이가 병으로 죽고 난 후 시매부가 여러 번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r/> <br/>경찰은 심리분석가까지 동원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다. <br/> <br/>◇거짓말 탐지기 사용직전 범행 자백 <br/> <br/>A씨는 최초 조사에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를 앞두고 성폭행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br/> <br/>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는 데다 피해자 부부가 장애를 앓고 있어 저항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심증은 더 자주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우선 입증된 혐의로만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br/> <br/>B씨 부부는 각방을 써야 했던 장애인 시설이 불편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 최근 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강화도의 한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5.txt

제목: [사설] 오염에 쑥대밭 된 김포 거물대리, 당국은 무얼 했나  
날짜: 2015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310016574117  
본문: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3㎞ 남짓 떨어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최근 이곳에 난립한 공장 86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70%가량인 62곳이 발암물질인 벤젠과 같은 유해 폐기물과 오·폐수를 마구 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37곳은 고발 조치됐으며, 주물공장 10곳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br/> <br/>거물대리 일대는 돌이키기 어려운 환경 오염으로 쑥대밭이 됐다. 오랫동안 폐수처리장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오·폐수를 쏟아내는 바람에 그곳의 물은 농업·생활 용수로 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눈동자가 없고 뒷다리가 틀어진 기형 개구리가 발견됐다. 미나리에서는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역학조사 결과 주민들 주거지에서는 니켈 크롬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지난 9년 동안 150여명의 마을 주민 중 22명이 암으로 숨졌다고 한다. <br/> <br/>거물대리 일대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 이곳에 공장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부터다. 김포시가 공장유치에 발 벗고 나서면서 공장이 앞다퉈 들어섰다고 한다. 공장이 가장 많을 때는 300개를 넘었다. 공장이 각종 독성 물질을 토해내자 주민들은 2012년 2월 이후 680여건에 이르는 환경민원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방치했다고 한다. <br/> <br/>환경이 마구잡이 훼손되는 곳은 김포만이 아니다. 규제 완화를 틈탄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는 곳은 전국에 널려 있다. 하지만 감시감독의 손길은 느슨하기만 하다. 환경부는 거물대리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span class='quot0'>환경오염방지 기반시설 미비지역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겠다</span>”고 했다. 뒷북 아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밀집 지역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 환경은 복원보다 예방과 보전이 더 중요하다. 망가진 환경은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6.txt

제목: '블러드', 뱀파이어 의사 박지상 분석 리포트..가상 10문 10답  
날짜: 2015031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310016562321  
본문:   <br/> <br/> <br/>“나는 감염자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존재다” <br/> <br/>KBS 월화드라마 ‘블러드(Blood)’(극본 박재범/ 연출 기민수 / 제작 IOK미디어)는 영생의 존재인 뱀파이어가 불치병에 걸린 인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와 인간다움을 깨달아가는 판타지 메디컬 드라마. 배우 안재현이 인간이 되고 싶어하 는 뱀파이어 바이러스 감염자이자 유능한 외과의 박지상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완벽한 외모와 뛰어난 의술과 냉소적인 매력으로 여심을 공략하고 있는 전무후무 뱀파이어 의사 박지상의 ‘가상 10문 10답’을 들어본다. <br/> <br/>Q. 1. 출생 및 성장과정은? <br/> <br/>VBT-01, 일명 뱀파이어 바이러스 감염자인 아버지 박현서(류수영)과 한선영(박주미)의 아들로 태생부터 바이러스 감염자로 태어났다. 지상은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타인을 구하는데 사용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바이러스를 특정 목적에 이용하려는 이재욱(지진희)의 계획에 반대하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와 단 둘이 고립된 생활을 해온 지상은 청소년기에 혹독한 방황의 시기를 거쳤지만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를 극복했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이재욱 일파에게 목숨을 잃은 후 추적자들을 피해 해외로 망명, 의술을 펼치다 2015년 태민 암병원 서전으로 한국에 돌아온다. <br/> <br/>Q. 2 장래희망은? <br/> <br/>인간이 되는 것이다. 지상은 동물도, 괴물도, 뱀파이어도 아닌 그저 보통의 인간과 존재방식이 다른 감염자이기에, 인간의 피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 아테신이라는 약물로 흡혈 욕구를 통제해 온 의지의 사나이. 더불어 뱀파이어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자신의 모든 세포가 괴사 한다 해도 인간으로 죽을 수 있다면 뱀파이어 바이러스를 모조리 파괴해도 좋을 만큼, 인간이 되고 싶다.  <br/> <br/>Q. 3. 신체적 특징은? <br/> <br/>인간과 노화속도가 달라 성장판이 멈춘 후부터 37세에 이르는 지금까지 절대동안을 유지하고 있다. 피를 보거나 극도의 흥분상태가 될 때 눈동자가 푸르게 변하고 송곳니와 손톱이 튀어나오는 등 뱀파이어 징후가 나타난다. 동틀 녘 햇볕은 치명적, 화상을 입히기도 한다. 또한 알코올에 취약해 회식자리에서도 절대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는다. <br/> <br/>Q. 4.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br/> <br/>어머니 한선영. “<span class='quot0'>혈액을 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 했던 단 한 사람</span>” 바로 지상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지상이 가진 천형을 사람을 구하는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사용하게끔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자, 인자함과 유능함으로 지상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 인물.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보며 눈물짓곤 한다. <br/> <br/>Q. 5. 가족관계 <br/> <br/>친동생과 다름없는 현우(정해인), 그리고 현우가 개발한 주책바가지 로봇 러비. 현우는 감염학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해킹까지 척척 해내는 천재. 지상과 함께 살면서 지상 부모의 죽음에 얽힌 비밀 그리고 뱀파이어 바이러스 치료제를 연구한다. 지상에게 러비는 그저 귀찮은 수다쟁이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신체 현상을 측정해주는 쓸모 있는 식구다. <br/> <br/>Q. 6. 연애경험은? <br/> <br/>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없다. 감염자의 치명적인 약점은 사랑이라는 감정. 뇌하수체의 전반적인 과분비를 일으키며, 후두엽을 자극해 통제를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한 번 지상의 가슴을 설레게 한 소녀가 있었다. 어린 시절, 들개의 공격을 받는 한 소녀를 구해주면서, 괴물 같기만 했던 자신의 위력으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 그런데 오만방자 천방지축인줄만 알았던 유리타(구혜선)가 자신에게 용기를 준 소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유리타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으로 아파하고 있음을 알게 된 지상은 리타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다. 그런데 저체온증에 신체 치유능력까지, 리타에게 하나 둘씩 자신의 비밀을 들켰던 지상이 급기야 뱀파이어 정체까지 발각되고 말았다. <br/> <br/>Q. 7. 성격 <br/> <br/>지상은 뱀파이어 정체를 들키거나, 자신의 폭력성이 발현돼 다른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과 외부 세계에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다. 연민과 동정 같은 감정 또한 생체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가급적 감정을 갖지 않는 게 좋다. 따라서 병원에서도 수술과 진료 이외의 모든 사람과 정치에 무관심하며, 만사에 냉소적이다.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금물, 환자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결코 숨기는 법이 없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슬픈 가족사로 인해 가슴 속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인정을 품고 있는 지상. 암 말기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환자의 어린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을 대면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생사가 위급한 환자에게 달려갈 만큼, 지상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 <br/> <br/>Q. 8. 요즘 컨디션은? <br/> <br/>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제대로 담판을 짓고 원수를 갚고 싶었는데,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머니를 죽인 문제의 살인 주사로 공격을 받은 뒤, 더욱 강력한 항체가 형성돼 그 어떤 화학물로도 죽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감염자가 됐다. 이로서 인간이 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 진 셈. 심지어 아테신도 더 이상 듣지 않고, 피에 대한 본능이 점차 강해지면서 뱀파이어 징후가 빈번히 나타나 더 이상 외과의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br/> <br/>Q.9. 최근 품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br/> <br/>정체를 들키기 전에 어서 병원을 떠나야한다. 하지만 지상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무상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이상 징후가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가운데 지상에게 검은 유혹이 제안됐다. 뱀파이어 바이러스 감염자임을 밝혀온 이재욱이 본능에 맞게 살아가라며 인간을 해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구한 혈액과 고주파를 없애고 정상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약물을 제공해주겠다고 지상을 유혹하고 있는 것. 지상은 인간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자로 편히 살아갈 방법을 연구하는 이재욱의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수술대에 서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욱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지금껏 인간이 되기 위해 모든 욕망을 통제하며 살아왔건만, 독이 든 성배 앞에서 혼란에 빠진다. <br/> <br/>Q. 10. 지상의 마지막 목표. <br/> <br/>지상은 언제나 인간이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영생에 가까운 수명을 누리는 뱀파이어로서 불치병과 유한한 생명으로 고통 받는 인간을 바라보는 지상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진정 인간이 겪는 수많은 육체적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은 대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지상에게 실비아 수녀(손숙)이 나타났다. 실비아 수녀는 삶에 대한 미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죽음은 “<span class='quot1'>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평등한 권리</span>”라는 명언으로 지상을 고민에 빠트렸다. 과연 진정 인간다운 삶과 가치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지상의 마지막 목표다. <br/> <br/>제작사 IOK미디어 측은 “자신의 욕망과 선택에 따라 감염자가 된 인물들과 달리 지상은 태어날 때부터 감염자로, 인간을 동경하며 좌절과 고민을 반복하는 인간적인 인물”이라며 “풋풋한 청년의 가슴을 가진 배우 안재현과 흔들림 속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낼 박지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br/> <br/>한편 ‘블러드’ 8회에서는 구혜선이 안재현의 뱀파이어 정체를 목격하는 모습이 담겨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9회는 오는 16일 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7.txt

제목: 유방암 치료 후 정기검진 여부 따라 생존율 크게 엇갈려  
날짜: 20150312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210016555254  
본문: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생존율이 높다고 알려진 유방암도 치료 후 관리 방법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정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꾸준히 건강상태를 체크한 환자(검진그룹)의 경우 사망위험을 70%나 낮출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비검진그룹)는 10년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연희 교수·이지윤 임상강사 연구팀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유방암 치료를 받은 환자 3770명의 10년 생존율을 분석했다. <br/> <br/>이들은 유방암 1~3기 해당하는 환자들로,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5년 상대 생존율이 1기 97.2%, 2기 92.8%, 3기 78.7%에 달한다. <br/> <br/>이처럼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유방암이라도 첫 발병 후 5년간 정기검진을 받은 환자그룹(3300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그룹(470명)의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br/> <br/>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분석법에 따른 10년 누적 사망률을 비교했더니 정기 검진그룹의 사망률은 8.8%였던 반면, 비검진 그룹의 25.4%에 달했다. 검진그룹은 수술 등 1차 치료가 끝난 뒤 첫 5년간 3~6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각종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 및 치료순응도 등을 체크해 왔다. <br/> <br/>이러한 결과는 후향적 연구로 재발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은 경우 등 통계분석의 여러 제한을 감안하더라도 정기 추적관찰을 받았는지 여부가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r/> <br/>다만 연구팀은 병원을 자주 찾는 것이 재발률 자체를 줄어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br/> <br/>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검진그룹의 재발율은 10.6%, 비검진그룹 16.4%로 다소 차이가 있었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br/> <br/>최초 발병 시 병변의 크기나 상태, 병기 등 여러 요소가 재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 검진만으로 재발 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br/> <br/>그러나 정기검진을 통해 재발을 포함해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챙길 것을 연구팀은 권고했다. <br/> <br/>박연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치료 후 일상생활이 바쁘다보니 본인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챙기기 힘든 환자들이 더러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처럼 같은 암이라도 정기검진 여부에 따라 장기 생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8.txt

제목: 씨티은행 민원 감축의 명(明)과 암(暗)  
날짜: 20150311  
기자: 안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03757670  
본문: 한국씨티은행은 박진회 행장 취임 후 올해의 목표를 ‘민원 없는 은행’으로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연초부터 성과를 보이고 있다. <br/> <br/>그러나 노동조합이 “과도한 민원 감축 압박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라고 반발하면서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부작용도 꽤 생겨나는 분위기다. <br/> <br/>◆두 달 새 민원 40% 감소 <br/> <br/>11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 민원 수가 31개로 전년동기의 76개보다 40%나 줄었다. <br/> <br/>씨티은행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직원 교육,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고객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개선의 결과</span>”라고 자평했다. <br/> <br/>앞서 박 행장은 ‘민원 없는 은행’을 2015년 경영 목표로 삼아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지난 9일에는 본점에서 ‘민원 없는 은행’ 결의식을 가졌으며, 전 직원에게 ‘민원 제로 밴드’를 배포했다. <br/> <br/>전 직원이 이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바쁜 업무 중에 간과하기 쉬운 고객중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민원 없는 은행을 향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원 제로 밴드’는 한국씨티은행 로고 색상을 활용한 빨간색, 흰색, 파란색 밴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 <br/> <br/>이 중 빨간색 밴드는 고객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흰색 밴드는 민원 없는 은행을 위한 정직한 마음가짐을, 파란색 밴드는 고객과의 신뢰를 통해 민원 없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씨티은행 직원의 의지를 각각 상징한다. <br/> <br/>박 행장은 “선과 미를 다한다”는 뜻의 ‘진선진미(盡善盡美)’를 언급하면서 “<span class='quot1'>‘민원 없는 은행’은 전 씨티은행 직원의 자부심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노사 간에 울리는 ‘불협화음’  <br/> <br/>그러나 박 행장의 의지에 씨티은행 노조는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br/> <br/>노조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진상 민원인’은 분명 존재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이들까지 끌어안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span>”라고 강조했다. <br/> <br/>특히 최근 진행 중인 임단협에서 사측이 각 직원의 민원 발생 수치를 성과급 등과 연계하는 안을 내밀자 노조는 격하게 반발했다. <br/> <br/>노조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민원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성과급하고도 직결된다면,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씨티은행은 카드사업부가 은행 내부에 있다 보니 자연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span>”라면서 “<span class='quot2'>민원 발생률이 은행 중 하위권인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이어 “씨티은행 민원의 상당수는 본점 업무에서 발생한다”며 “뉴욕 본사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현지화에 더 신경 쓰면, 민원 감축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결국 노사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씨티은행 임단협은 아직까지 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br/> <br/>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09.txt

제목: 4기 대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생존기간 4개월 연장  
날짜: 20150311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110016541865  
본문: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전이된 4기 암에서도 수술 후 항암치료를 병행할 시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이 4개월가량 더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br/> <br/>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암클리닉 백승혁 교수(대장항문외과)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 324명을 대상으로 수술치료를 병행한 군과 항암치료만 받은 군의 생존율을 추적 비교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인 'JSO(Journal of Surgical Oncology ; IF 2.843)'에 발표했다. 강남세브란스 제공. <br/> <br/>‘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원발암 절제의 임상 양상(Clinical Significance of Primary Tumor Resection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ynchronous Unresectable Metastasis)' 제목의 이번 논문은 4기 대장암에서는 수술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고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br/> <br/>백 교수팀은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4기 대장암 환자 485명 중 치료를 포기하거나 완화의료 등 여타 다른 치료를 택한 군 161명을 제외한 324명을 선별했다. <br/> <br/>이들을 다시 항암치료만 한 군과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한 군으로 분류해 환자들의 예후를 추적 관찰했다. 이들 4기 대장암 환자들은 인접 장기로의 국소전이가 아닌 혈액을 타고 간이나 폐, 척추 등으로 암이 퍼지는 원격전이(처음 암이 발생한 부분에서 먼 부분으로의 전이) 상태다. <br/> <br/>이들 4기 암 환자 중 원발암(原發癌)인 대장의 악성종양을 수술로 절제한 뒤 항암치료를 받은 군 72명의 평균 생존 기간은 17.2개월로, 이 같은 먼저 원발암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은 군 252명의 평균 생존 기간 13.6개월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48개월 이상 생존한 환자들도 있었다. <br/> <br/>또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원발암 관련 합병증의 빈도도 252명증 34%에 달한데 비해 수술을 받은 환자군 72명에서는 13%였다고 보고했다. <br/> <br/>지난해 Annals of Sugery에 발표된 ‘3만7793명의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원발암 절제의 역할(Prognostic Relevance of Palliative Primary Tumor Removal in 37,793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Patients)’ 논문과 같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원발암 절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br/> <br/>199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등록된 3만7793명의 전이성 대장암 환자 중 원발암 절제술을 받은 2만3004명과, 시행 받지 않은 1만4789명을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활용해 각 군의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원발암 절제술 시행 군이 전체생존율 등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 백 교수팀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병원 측은 말했다. <br/> <br/>백 교수는 “이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로서 이에 대한 치료의 원칙을 최종 확립하는데 근원적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후향적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며, “이에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 암정복 연구의 일환으로 전향적 다기관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대장암은 대장의 결장이나 직장에 암 세포로 인해 악성종양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국내 환자는 2011년 기준 국내 대장암 환자는 2만8112명이다. <br/> <br/>대장은 소화기의 끝에 있는 부위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부위에 국한되고 원격 전이나 림프절 전이이가 없이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대장암 1~2기로 칭한다. 전체 국내 대장암 환자의 36.3%가 1~2기 환자로 생존율은 93.8%다. <br/> <br/>하지만 대장암 1, 2기에서 암 발생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대장암 세포가 림프절이나 간, 폐 등에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암이 발생하면 암 주위 조직은 물론, 림프절 절제 수술도 진행한다. 이후 5년 정도 항암 치료를 하며 추적관찰을 해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완치'로 정의한다. <br/> <br/>대장암은 전이가 잘 발생하는 암 중 하나로 꼽힌다. 림프 등 국소부위로 전이되는 3기는 국내 대장암 환자의 40.2%로, 생존율은 79.2%정도다. 혈액을 타고 간이나 폐, 척추로 퍼지는 원격전이(처음 암이 발생한 부분에서 먼 부분으로의 전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대장암 4기로 부르는 이 같은 환자는 전체 대장암 환자의 14.6%이고 생존율은 평균 18.2%로 비교적 낮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0.txt

제목: 수면무호흡, ‘노화 시계’ 앞당길 수 있다  
날짜: 2015031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110016541020  
본문: 수면무호흡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11일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인간 유전체 연구소 신철 교수, 권유미 박사팀은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할수록 노화시계를 나타내는 텔로미어(telomere)의 길이가 더욱 짧아진다고 밝혔다. <br/> <br/>신 교수팀은 국내 45~72세 사이의 성인 남녀 381명(남자 138명, 여자 243명)을 대상으로 혈액에서 추출한 텔로미어의 길이와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 및 심박의 관계를 분석해 수면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노화진행시 텔로미어 길이의 변화. 사진=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제공 <br/> <br/>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양 끝 부분을 의미하는 텔로미어는 체내의 ‘노화 시계’로 불린다.  유전적 영향 외에도, 활성 산소나 염증 반응 등을 통해서 길이가 짧아질 수 있고,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 사례가 보고됐다. <br/> <br/>연구 결과 불안정한 수면상태를 자주 보이는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가 정상적인 수면상태인 사람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분석했다. 즉, 불안정한 수면상태를 나타내는 주기적 호흡 및 분절 수면이 빈번 할수록 수면의 안정도가 떨어져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의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br/> <br/>특히 수면무호흡이 1시간에 15회 이상 나타나는 중증도 수면무호흡이 동반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일반인보다 2~2.5배 더 짧았다. <br/> <br/>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는 체내의 산소가 부족해져 유해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염증반응을 일으켜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게 만든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한 불안정한 수면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해 노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등의 수면 장애가 의심된다면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올해 해외저명 학술지인 ‘수면과 호흡(Sleep and Breathing)’ 1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1.txt

제목: "연말정산 빠뜨린 게 있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세요"  
날짜: 20150311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110016547142  
본문: 연말정산 신고 때 공제항목 등을 빠뜨렸어도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11일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 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br/> <br/>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2020년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다음이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2.txt

제목: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더 낸 세금 추가 환급 받으세요"  
날짜: 201503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110016544204  
본문: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KBS 뉴스 화면 캡처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더 낸 세금 추가 환급 받으세요" <br/> <br/>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 <br/> <br/>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11일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됐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났다. <br/> <br/>이에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내거나 더 냈다면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br/> <br/>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br/> <br/>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의 경우가 뒤를 이었다.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3.txt

제목: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잘못 낸 세금 돌려받아 ‘환급 기간은?’  
날짜: 201503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110016545157  
본문: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잘못 낸 세금 돌려받아 ‘환급 기간은?’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1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11일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됐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났다.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내거나 더 냈다면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근로자 1256명 중 27.6%로 가장 많았다. 27.2%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였다. 퇴사로 인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4.txt

제목: 씨티은행 민원 감축의 명(明)과 암(暗)  
날짜: 20150311  
기자: seilen78@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1100000050  
본문: 한국씨티은행은 박진회 행장 취임 후 올해의 목표를 ‘민원 없는 은행’으로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연초부터 성과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노동조합이 “<span class='quot0'>과도한 민원 감축 압박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span>”라고 반발하면서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부작용도 꽤 생겨나는 분위기다.◆두 달 새 민원 40% 감소 11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 민원 수가 31개로 전년동기의 76개보다 40%나 줄었다.씨티은행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직원 교육,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고객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개선의 결과</span>”라고 자평했다. 앞서 박 행장은 ‘민원 없는 은행’을 2015년 경영 목표로 삼아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지난 9일에는 본점에서 ‘민원 없는 은행’ 결의식을 가졌으며, 전 직원에게 ‘민원 제로 밴드’를 배포했다.전 직원이 이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바쁜 업무 중에 간과하기 쉬운 고객중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민원 없는 은행을 향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원 제로 밴드’는 한국씨티은행 로고 색상을 활용한 빨간색, 흰색, 파란색 밴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이 중 빨간색 밴드는 고객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흰색 밴드는 민원 없는 은행을 위한 정직한 마음가짐을, 파란색 밴드는 고객과의 신뢰를 통해 민원 없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씨티은행 직원의 의지를 각각 상징한다. 박 행장은 “선과 미를 다한다”는 뜻의 ‘진선진미(盡善盡美)’를 언급하면서 “<span class='quot1'>‘민원 없는 은행’은 전 씨티은행 직원의 자부심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노사 간에 울리는 ‘불협화음’  그러나 박 행장의 의지에 씨티은행 노조는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진상 민원인’은 분명 존재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까지 끌어안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span>”라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진행 중인 임단협에서 사측이 각 직원의 민원 발생 수치를 성과급 등과 연계하는 안을 내밀자 노조는 격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민원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성과급하고도 직결된다면,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씨티은행은 카드사업부가 은행 내부에 있다 보니 자연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span>”라면서 “<span class='quot2'>민원 발생률이 은행 중 하위권인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span>”고 덧붙였다. 이어 “씨티은행 민원의 상당수는 본점 업무에서 발생한다”며 “뉴욕 본사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현지화에 더 신경 쓰면, 민원 감축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노사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씨티은행 임단협은 아직까지 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5.txt

제목: [단독]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1만건 돌파  
날짜: 201503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03137152  
본문: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필두로 암보험, 상해보험, 저축보험 등의 다이렉트 장기보험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br/> <br/>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계약 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 <br/> <br/>지난해 10월 첫 출시 된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10월 1690건, 11월 1961건, 12월 2663건의 계약고를 올렸다. 출시 3개월에 6300건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올해 1월에는 3714건의 계약 실적을 올려 총 1만건 이상 가입했다. <br/> <br/>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96.5%가 만족하는 것도 특징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최대 장점은 좋은 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편리함과 보험료를 확인해도 가입권유 전화가 없다. <br/> <br/>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객에게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선택했다는 대답이 53.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믿음직한 브랜드(41.0%), 편리한 인터넷 가입(37.9%), 가입권유 전화 없음(22.5%), 보상서비스(21.4%) 등의 순으로 중복 선택했다. <br/> <br/>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알게 된 루트에 대한 질문에는 75.2%가 인터넷 검색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인 소개가 25.7%, TV광고가 21.6%, 인터넷 배너광고가 20.1%를 차지했다. <br/> <br/>지난해 12월 말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가입고객 연령대는 30대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4.4%, 20대 이하가 15.9%, 50대 이상이 10.9% 순이었다. 3040세대가 전체의 3/4을 차지해 주력층으로 나타났다. <br/> <br/>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의 최대 장점은 오프라인 상품 대비 최대 2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한 점"이라며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운전자보험 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이렉트 장기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6.txt

제목: 자연통합의학암연구회, 전국 세미나 개최  
날짜: 2015031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010016532499  
본문:   <br/> <br/>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학술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br/> <br/>자연통합의학암연구회(장 문창식)은 오는 29일 메트라이프 트레이닝센터에서 ‘춘계 자연통합의학암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전했다. <br/> <br/>‘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된다. <br/> <br/>‘암 치료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문창식 회장)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정책적 접근(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우리나라 암 치료의 문제점과 대안(중앙일보 박태균 기자) △암 환자를 위한 치유공간 디자인(국민대학교 건축과 김인선 교수) 등에 대한 강의가 펼쳐진다. <br/> <br/>‘자연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펼쳐지는 2부에서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본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미래(이화의대여성암병원 백남선 병원장)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미래(대전대학교 한의대) △면역치료만이 살 길이다(강북삼성병원 전우규 교수) △아우토겐의 이론과 실제(한국아우토겐협회 이주희 회장) △암을 이기는 영양과 암(삼육대 이숙연 교수) △제 4의 암 치료법, 온열치료의 현재와 미래(최일봉 제주We병원장) △스마트암치료의 이론과 실제(우리들의원 류영석 원장) 등의 최신지견이 펼쳐진다. <br/> <br/>연구회 문창식 회장(사진)은 “<span class='quot0'>암 치료에 있어 통합기능의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많은 전문가들의 통합의학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100만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공유의 장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이번 행사의 참가 대상은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비롯해 자연의학암치료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7.txt

제목: 박종완 이명식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암성장 억제-당뇨병 치료 '공로'  
날짜: 201503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010016521096  
본문: 박종완 이명식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암성장 억제-당뇨병 치료 '공로' <br/> <br/>박종완 서울의대 교수와 이명식 성균관의대 교수가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br/> <br/>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9일,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기초의학부문)와 이명식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br/> <br/>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기초의학부문)와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br/> <br/>재단에 따르면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연구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김형범 교수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유전자 가위 개발 성과가, 박정열 교수는 복강경 수술로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공로가 각각 높게 평가됐다. <br/> <br/>아산의학상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했다. 재단은 2016년부터는 시상 대상에 해외 의과학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br/> <br/>상금은 기초·임상부문 수상자가 각각 상금 3억원이며,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는 각각 5천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8.txt

제목: 채식+생선 위주 식사, 대장암 위험 43% 감소시켜  
날짜: 201503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010016528212  
본문: 채식에 생선을 곁들이면 대장암 위험을 43%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미국 건강전문지 헬스데이 뉴스는 9일(현지시간) 미국 로마 린다 대학 의과대학의 마이클 올리치 박사가 성인 남녀 7만7659명을 대상으로 평균 7.3년에 걸쳐 식습관과 대장암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AMA) 학술지 '내과학'(Internal Medicine) 온라인판(3월9일자)에 발표됐다. <br/> <br/>조사대상자들은 약 절반이 최소한 매주 한 번 이상 육식을 즐기는 비채식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부분 또는 완전 채식주의자들이었다. <br/> <br/>올리치 박사는 부분 또는 완전 채식주의자들을 ▲육류 섭취가 일주일에 한 번 이하인 준채식(semi-vegetarian) 그룹 ▲생선과 해산물은 먹되 기타의 모든 육류는 피하는 페스코 채식(pesco-vegetarian) 그룹 ▲육류는 피하되 계란 또는 유제품은 먹는 락토-오보 채식(lacto-ovo vegetarian) 그룹 ▲모든 육류와 계란, 유제품을 먹지 않는 완전 채식(vegan) 그룹으로 분류했다. <br/> <br/>이 결과 모든 형태의 채식 그룹은 비채식 그룹에 비해 대장암(결장암과 직장암) 발생률이 평균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를 세분하면 결장암 발생률은 19%, 직장암 발생률은 29% 낮았다. <br/> <br/>채식 그룹 중에서는 페스코 채식 그룹이 대장암 위험이 가장 낮았다. 이들은 비채식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43%나 적었다. <br/> <br/>락토-오보 채식 그룹과 완전 채식 그룹은 비채식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16~18%, 준채식 그룹은 8% 낮았다. <br/> <br/>조사 기간에 380명이 결장암, 110명이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br/> <br/>채식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br/> <br/>이에 대해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센터의 알프레드 뉴거트 역학교수는 채식은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금연 같은 건강에 이로운 생활습관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봤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19.txt

제목: 아산병원 김태원 교수, 14회 보령암학술상 수상  
날짜: 2015031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010016531086  
본문: 보령암학술상 제14회 수상자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병원 종양내과 김태원 교수가 선정됐다. <br/>  <br/>김 교수는 대장암 항암제 개발과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를 선도하고, 직장암 수술 후 병합 보조항암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은 높이고 재발 위험도는 낮추는 새로운 표준치료법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br/> <br/>김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소장 및 다수의 다국가 대장암 임상시험의 총괄연구책임자로서 활동했다. 또 지난 5년간 유럽종양내과학회 (ESMO) 대장암 교육 프로그램 한국 책임자로서 대장암, 직장암에 대한 치료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br/>  <br/>현재 그는 대장암 항암제 치료 대한 임상연구, 항암제 신약 개발 및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중계연구, 항암제 제 1상 임상시험 연구에 집중하며 대장암, 직장암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br/>  <br/>보령제약 김은선 회장은 “<span class='quot0'>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김 교수의 연구 업적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보령암학술상’은 2002년 국내 종양학 분야 연구에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 온 학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국내 종양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해 매년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0.txt

제목: [단독]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1만건 돌파  
날짜: 20150310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10100000098  
본문: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필두로 암보험, 상해보험, 저축보험 등의 다이렉트 장기보험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계약 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지난해 10월 첫 출시 된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10월 1690건, 11월 1961건, 12월 2663건의 계약고를 올렸다. 출시 3개월에 6300건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올해 1월에는 3714건의 계약 실적을 올려 총 1만건 이상 가입했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96.5%가 만족하는 것도 특징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최대 장점은 좋은 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편리함과 보험료를 확인해도 가입권유 전화가 없다.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객에게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선택했다는 대답이 53.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믿음직한 브랜드(41.0%), 편리한 인터넷 가입(37.9%), 가입권유 전화 없음(22.5%), 보상서비스(21.4%) 등의 순으로 중복 선택했다.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알게 된 루트에 대한 질문에는 75.2%가 인터넷 검색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인 소개가 25.7%, TV광고가 21.6%, 인터넷 배너광고가 20.1%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 말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가입고객 연령대는 30대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4.4%, 20대 이하가 15.9%, 50대 이상이 10.9% 순이었다. 3040세대가 전체의 3/4을 차지해 주력층으로 나타났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의 최대 장점은 오프라인 상품 대비 최대 2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한 점"이라며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운전자보험 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이렉트 장기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1.txt

제목: ‘아산의학상’ 박종완·이명식 교수  
날짜: 20150309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910016520877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왼쪽)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기초의학부문)와 이명식(오른쪽)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기초의학부문)와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br/> <br/>재단에 따르면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연구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2.txt

제목: '슈퍼대디 열' 송현욱 감독 "'마마'와의 차이점은…"  
날짜: 20150309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910016519336  
본문:   <br/> <br/>‘슈퍼대디 열’의 송현욱 감독이 드라마 ‘마마’와의 차이점을 밝혔다. <br/> <br/>송현욱 감독은 3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한 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극본 김경세, 연출 송현욱)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br/> <br/>이날 송현욱 감독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가족을 만들어 주기 위한 내용을 담은 종영한 드라마 ‘마마’에 대해 “<span class='quot0'>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송현욱 감독은 “<span class='quot0'>하지만 우리 드라마는 ‘마마’와는 다르게 1회가 가장 많이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한열을 10년 전에 매몰차게 떠났던 미래와 한 가족이 돼 가는 것들이 볼거리가 많을 것이다</span>”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1회를 안 본 시청자들은 미래가 말기 암에 걸린 줄 모를 정도일 거다”라며 “밝고 즐겁게 터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슈퍼대디 열’은 한때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미래에게 차인 후 지금은 평생 혼자 사는 것이 목표인 아웃사이더 독신남 한열(이동건 분) 앞에 10년 만에 나타나 결혼하자고 말하는 싱글맘 닥터 차미래(이유리 분), 그리고 그저 아빠가 갖고 싶은 미운 아홉 살 사랑이(이레 분)의 강제 일촌 만들기. 배우 이동건, 이유리, 이레, 서준영, 서예지, 최민 등이 출연한다. 오는 13일 오후 8시 30분 첫방송 예정. <br/> <br/>이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3.txt

제목: 제8회 아산의학상에 서울대 박종완·성균관대 이명식 교수  
날짜: 2015030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910016518338  
본문: 국내 의학계 최고 권위의 ‘제8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문에 박종완(54) 교수, 임상의학부문에 이명식(59) 교수가 선정됐다. <br/> <br/>기초의학부문 수상자 박종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이명식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를 통해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8회 아산의학상’기초의학부문 박종완 서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사진 왼쪽)와 임상의학부문 이명식 성균관대 의대 교수(사진 오른쪽) 사진= 서울아산병원 제공 <br/> <br/>젊은의학자부문에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김형범(40) 연세대 의대 교수와 복강경 수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박정열(41)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선정됐다. <br/> <br/>기초?임상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억원이,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19일(목)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br/> <br/>아산의학상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br/> <br/>아산사회복지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발전기금을 2012년 300억원의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시상대상에 해외 의과학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br/>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4.txt

제목: [강호원칼럼] 역사는 狂氣로 발전시킬 수 없다  
날짜: 20150309  
기자: 강호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910016520950  
본문: 역사는 광기(狂氣)에 휘둘리곤 했다. 중세 유럽을 뒤덮은 마녀사냥, 1차 세계대전의 발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 사건마다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인이 도사리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광기가 번득인다. 광기는 참담한 비극을 불렀다. 시간이 지나 잘못됐음을 깨닫지만 범죄는 저질러지고 난 뒤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역사는 이성적인가. 고비마다 광기가 번득이니 그 말을 믿기 힘들다. <br/> <br/>중국의 문화혁명. 이름이 참 좋다. 이 사건에서 정치 광기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확인하게 된다. 6·25전쟁이 끝나고 3년반 뒤 중국에는 백화제방·백화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 운동이 벌어졌다. 1957년 2월 ‘인민 내부 모순을 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라는 마오쩌둥 연설이 이 운동을 점화했다.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고질을 고치겠다고 했다. 얼마 가지 못했다. 봇물 터진 비판에 사회주의 체제와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니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결국 터진 것이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다. 불파불립(不破不立). ‘파괴 없이는 건설도 없다’는 구호를 내건 어린 홍위병들은 ‘악귀를 쓸어버리자’며 붉은 사상운동을 펼쳤다. 수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첩자·주구, 수정주의자로 내몰려 숨져 갔다. 얼마나 희생됐는지 알 수조차 없다. 수십만명이라고도, 수백만명이라고도 한다. <br/> <br/> 강호원 논설실장사상혁명? 지금 중국인은 문화혁명을 어떻게 볼까.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암흑시대로 본다. 왜? 이념의 광기가 역사 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br/> <br/>문화혁명이 한창이던 때, 가난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잘살아 보자”며 땅에는 공장 지을 말뚝을 박고,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중국은 ‘이념의 대나무 장막’에 갇혀 가난을 이어갔다. <br/> <br/>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을 외치며 시작한 개혁개방. 그것은 문화혁명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비롯된다. 도전은 성공했다. ‘G2 중국’은 이념의 광기를 넘어 실사구시가 일궈낸 결과다. <br/> <br/>광기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테러 공격을 당했다. 좌우 테러에 멍든 광복 직후 혼란기에도, 반미시위가 치열했던 1980년대에도 없던 초유의 사건이다. 범인 김기종의 전력을 들여다보니 종북의 흔적이 뚜렷하다. 수십년간 이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쟁 훈련”이라고 외치는 주장이 북한의 판박이다. 피습? 그것은 테러다. 정신병자? 그렇게 보기 힘들다. 그의 행동을 촉발시킨 배경에는 이념의 광기가 도사리고 있다. <br/> <br/>리퍼트 대사 사건에서 명과 암을 보게 된다. <br/> <br/>김기종의 행동에서 어둠을 본다. 증오를 품은 광기, 그만의 정신병적 현상인가. 광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판친다. 합리는 오간 데 없고, 이념에 매몰된 ‘내 생각’만 있다. 법치? 자신의 생각만 옳다며 법과 질서를 무시한 지 오래다. 김기종의 테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저성장? 실사구시로 노력하는데 어찌 경제가 침체 늪을 헤어나지 못하겠는가. 침체는 아집을 부리고, 성장과 분배를 ‘흑백 도마’에 올려놓고 벌이는 ‘광기의 정쟁’이 빚은 결과 아닌가.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br/> <br/>리퍼트 대사의 행동과 박수 보내는 시민에게서 희망을 본다. 한국을 좋아한 리퍼트 대사. 그는 아들 이름을 ‘세준’이라고 지었다. 아침마다 정동 관저에서 세종로 대사관까지 걸어 다녔다. 수술을 끝내고 4시간 만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감사한다.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빨리 복귀하겠다.” 합리적 대응을 하는 그의 자세가 돋보인다. 그의 행동에 많은 한국인은 박수를 보냈다. 합리적 정신을 칭송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다. 희망이다. <br/> <br/>역사는 광기에 기대어 발전할 수 없다. 문화혁명이 중국을 일으켰는가, 히틀러가 독일을 일으켰는가. 이념의 광기는 참담한 비극을 낳았을 뿐이다. 실사구시, 그것은 역사를 발전시켜온 힘이다. 실사(實事)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br/> <br/>강호원 논설실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5.txt

제목: 내연男 사이에 낳은 아들과 딸 잇따라 암매장한 비정한 30대母, 긴급체포  
날짜: 2015030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910016517822  
본문: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을 잇따라 숨지게한 뒤 암매장한 비정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br/> <br/>남편과 별거중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자 경제적 어려움 등을 두려워해 갓 낳은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9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A(39·여)씨를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br/> <br/>A씨는 지난 2013년 4월 낳은지 1주일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염치읍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A씨는 이어 지난해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했다. <br/> <br/>암매장 된 두 아이는 A씨가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전해졌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어머니 등과 함께 살았다.  <br/> <br/>A씨 친정어머니와 내연남 등은 아이를 낳은 것은 알았으나 형편이 안돼 입양시킨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찰 관계자는 "첫째 아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둘째 아이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이어 암매장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br/> <br/>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점 때문에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지인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br/> <br/>한편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암매장 현장을 발굴했으나 아들의 시신만 발견했고 딸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br/> <br/>A씨가 딸 암매장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사체가 작아 찾기 어려운 때문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은 A씨의 내연남 등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캐는 한편 딸의 시신을 찾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6.txt

제목: 사망원인 1위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자살은 6조5천억  
날짜: 20150305  
기자: ikpar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5100000018  
본문: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2년 기준 14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5대 사망원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다.5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5대 사망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27조3635억원, 2009년 28조1845억원, 2010년 28조8860억원, 2011년 31조4990억원, 2012년 32조4086억원 등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였다.2012년 기준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중에서 암이 14조86억원(43.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이 6조4769억원(20.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뇌혈관질환 5조1297억원(15.8%), 심장질환 4조186억원(12.4%), 당뇨병 2조7748억원(8.6%) 등의 순이었다.2012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순위는 암이 146.5명으로 1위이고, 이어 심장질환(52.5명), 뇌혈관질환(51.1명), 자살(28.1명), 당뇨병(23명) 등이다.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7.txt

제목: 화이자, 먹는 류마티스치료제 젤잔즈 출시  
날짜: 2015030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510016488246  
본문: 한국화이자제약(이하 화이자)이 5일 최초의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표적 치료제인 젤잔즈를 국내에 출시했다. <br/> <br/>그간 류마티스관절염은 백신 형태인 생물학적 제제(TNF 억제제)를 치료제로 사용해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었으나, 이번 경구용 치료제의 출시로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br/> <br/>화이자는 이날 출시간담회를 통해 “<span class='quot0'>젤잔즈는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시대 도래 이후 10년 여 만에 최초로 승인된 경구용 류마티스제제</span>”라며 “<span class='quot0'>류마티스관절염과 관련한 염증에 직접 작용하는 정제형 제제</span>”라고 밝혔다.  <br/> <br/>이어 “젤잔즈는 천염증성 사이토카인(세포간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단백질)이 사용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인 JAK 경로를 억제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br/> <br/>이를 위해 화이자는 4200명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참여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의 20% 호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 ACR 20 도달 비율이 젤잔즈 5mg 투여군은 59.8%인 반면, 위약군은 26.7%로 나타났다. 50% 호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 ACR 50은 투여군이 31.1%, 위약군은 12.5%의 환자가 도달했으며 ACR 70은 투여군이 15.4%, 위약군은 5.8%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안전성에서도 기존 생물학적 제제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화이자 측은 설명했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지현 교수는 “<span class='quot1'>면역원성 발생 없이 빠른 효과 발현과 지속적 효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신약의 등장은 현 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span class='quot2'>젤잔즈 출시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약의 관리 및 복용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여,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류마티스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류마티스관절염은 인체 내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활막)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흔히 ‘관절의 암’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약 30만명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30~40대 등 젊은 층에도 흔하게 발생하며, 전체 환자의 70~80%가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8.txt

제목: “심장병과 정신병 등 유전질환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날짜: 20150305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510016487769  
본문: ,인간은 커갈수록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을 더 닮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모적으로는 외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체질이나 건강 측면에서는 십중팔구 친탁을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br/> <br/>4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최근 과학저널 ‘자연유전학저널’에 동물실험 결과 포유류는 예외없이 아버지 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페르난도 P 드빌레나 교수는 “<span class='quot0'>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동일한 양의 유전자를 물려받지만 자라면서 부계 쪽 유전자를 더 많이 발현하게 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연구진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지닌 9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DNA와 RNA(유전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리보핵산) 여부를 관찰했다. 이들 쥐는 각기 다른 종의 쥐 3마리를 또 다른 지역(대륙)에서 자란 유전자가 다른 3마리와 교배시켜 태어난 새끼들이다. 연구진은 9마리 쥐가 성체가 되었을 때 각각 RNA가 있는 뇌 부위를 비롯해 4개 피부조직에서의 유전자 발현 상태 등을 측정했다. <br/> <br/>그 결과 수컷 쥐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당뇨와 비만, 심장병 등 아버지 쥐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질병 유전자는 반드시 발현된 반면 어머쥐의 유전자의 발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드빌레나 교수는 “<span class='quot0'>부모 쥐로부터 동일한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더라도 모계 유전자의 경우 부계 유전자에 밀려 어른이 됐을 때 발현될 확률이 매우 적다는 의미</span>”라고 설명했다. <br/> <br/>이같은 연구결과는 인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 정신분열, 비만 등을 유발하는 수백개의 질병 유전자는 대체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발현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드빌레나 교수는 “<span class='quot0'>동일한 질병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 유전자가 질병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29.txt

제목: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연간 1600명 조기 사망"  
날짜: 20150304  
기자: 김건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410016480346  
본문: 초미세먼지가 유발한 각종 질환으로 국내에서 연간 16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 <br/>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대기오염 전문가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니얼 제이컵 교수가 참여한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고 “<span class='quot0'>2021년 초미세먼지 유발 질환 사망자가 28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br/> <br/>그린피스는 특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산화물과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들이 대기에서 화박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킬 경우 그 위험성은 1차 초미세먼지보다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br/> <br/>그린피스의 글로벌 켐페이너인 라우리 뮐리비르타는 “초미세먼지는 한국의 4대 사망원인인 암·뇌졸중·허혈성심장질환·만성호흡기질환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우리나라는 현재 총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11기를 건설 중이다. 정부는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까지 13기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 <br/> <br/>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0.txt

제목: 화가로… 의사로… 세계인 박수 받는 한국인  
날짜: 20150303  
기자: 서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310016463316  
본문: 한국 땅에서 살아야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 타국에서라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활약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그들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 KBS1은 4일 오전 11시 ‘해외동포상 특집 다큐, 제1부 대한민국을 빛내다’를 방송한다. <br/> <br/> 신동문 에모리대 교수(오른쪽)는 세계 두경부암 연구 및 예방, 치료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의학자다. 타국에서의 그의 활약은 세계 속 한국인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br/>KBS 제공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만난 이는 재독화가 노은임이다. 20년 동안 함부르크 국립 조형 대학의 회화 교수로 재직하며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화풍으로 독일 화단에서 ‘그림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녀는 1970년 파독 간호사로 처음 독일에 왔다. 우연히 그녀의 그림을 본 간호장의 주선으로 병원에서 전시회를 연 뒤 노은임의 삶이 바뀐다. 스물일곱 나이에 함부르크 미대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동화적 감성을 물씬 풍기는 그녀만의 화풍으로 독일 화단이 주목하는 화가가 됐다. 그녀의 인기는 여전해 지금도 전시회가 열리면 불황임에도 그림을 사기 위한 문의가 줄을 잇는다. 70세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관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예술을 하는 작가”라는 평을 듣는 노은임. 그녀를 만나 예술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br/> <br/>세계 두경부암 1인자로 손꼽히는 신동문 에모리 의대 교수도 만나본다. 신 교수는 두경부암과 구강암의 치료 및 연구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의학자다. 30여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두경부암과 대장암의 표적항암 치료제를 개발했고, 지금은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 항암치료제와 천연물질을 이용한 암 예방법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최고 의사에게만 주는 ‘Best Doctors in America’에 1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암 연구 및 예방, 치료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크게 성공했음에도 매일 아침 7시 전 가장 먼저 연구실에 출근해 연구에 매진하는 신 교수. 그를 만나 열정을 느껴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1.txt

제목: 종신보장 암보험, 남성 'PCA' 여성 '메트' 저렴  
날짜: 20150302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200108416  
본문: 한 번 가입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종신 보장되는 메트라이프생명과 PCA생명 암보험을 비교한 결과 남성은 PCA생명이 여성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소폭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과 PCA생명 등 일부 보험사만 가입 이후 종신까지 비갱신으로 암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두 회사의 암보험인 메트라이프생명 '100세Plus종신암보험'과 PCA생명의 'PCA매직리본종신암보험'을 고액암 4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암사망 4000만원 등으로 비슷하게 설정하고 비교한 결과 메트라이프생명 보험료는 남성 8만8900원, 여성 5만2900원이었고, PCA생명은 남성 8만1200원, 여성 5만4800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PCA생명, 여성은 메트라이프생명 상품 보험료가 소폭 저렴했다. 그러나 보장 대비 보험료 차이는 소폭에 불과해 두 상품은 보험료보다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두 회사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감면기간이다. 가입 후 90일 이내에 암이 확진을 받으면 암보험은 무효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사마다 1년 혹은 2년의 보장금액 50% 감면기간이 있다.  PCA생명은 2년, 메트라이프생명은 1년 이내에 암 확진을 받으면 보장금액의 50%만 보장 받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암 발병을 예상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50% 감면기간이 짧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하지만 보험소비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감면기간 이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자궁암 등 남녀 생식기암 보장 금액 차이다. 두 상품 모두 유방암과 생식기암을 주계약에서 보장, 동일 설정할 수 없다. PCA생명이 메트라이프생명보다 유방암, 생식기암 보장액이 소폭 높았다. 두 회사 모두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면 고액 보장 받을 수 있는 암사망 특약이 있다. 암은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이지만 가족이라면 끝까지 완치의 희망을 놓지 않는다. 환자가 사망하면 치료비는 유가족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메트라이프생명은 80세까지 암사망 특약을 보장하고 PCA생명은 종신까지 보장, PCA생명의 보장기간이 길다. 암에 걸리지 않고 사망할 경우 적립금을 지급한다. 남성 80세 기준으로 적립금은 메트라이프생명은 1182만원으로 납입보험료 원금(2134만원)의 55.4%를 지급하며, PCA생명은 1040만원으로 납입보험료 원금(1949만원)의 53.4%를 지급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암을 보장하는 상품은 두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보장내용이 비슷하고 보험료 차액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기간, 생식기암 보장액, 암사망특약 등을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남성의 경우 PCA생명이, 여성은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료는 소폭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2.txt

제목: 종신보장 암보험, 남성 'PCA' 여성 '메트' 저렴  
날짜: 20150302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2100000092  
본문: 한 번 가입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종신 보장되는 메트라이프생명과 PCA생명 암보험을 비교한 결과 남성은 PCA생명이 여성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소폭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과 PCA생명 등 일부 보험사만 가입 이후 종신까지 비갱신으로 암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두 회사의 암보험인 메트라이프생명 '100세Plus종신암보험'과 PCA생명의 'PCA매직리본종신암보험'을 고액암 4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암사망 4000만원 등으로 비슷하게 설정하고 비교한 결과 메트라이프생명 보험료는 남성 8만8900원, 여성 5만2900원이었고, PCA생명은 남성 8만1200원, 여성 5만4800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PCA생명, 여성은 메트라이프생명 상품 보험료가 소폭 저렴했다. 그러나 보장 대비 보험료 차이는 소폭에 불과해 두 상품은 보험료보다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두 회사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감면기간이다. 가입 후 90일 이내에 암이 확진을 받으면 암보험은 무효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사마다 1년 혹은 2년의 보장금액 50% 감면기간이 있다.  PCA생명은 2년, 메트라이프생명은 1년 이내에 암 확진을 받으면 보장금액의 50%만 보장 받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암 발병을 예상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50% 감면기간이 짧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하지만 보험소비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감면기간 이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자궁암 등 남녀 생식기암 보장 금액 차이다. 두 상품 모두 유방암과 생식기암을 주계약에서 보장, 동일 설정할 수 없다. PCA생명이 메트라이프생명보다 유방암, 생식기암 보장액이 소폭 높았다. 두 회사 모두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면 고액 보장 받을 수 있는 암사망 특약이 있다. 암은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이지만 가족이라면 끝까지 완치의 희망을 놓지 않는다. 환자가 사망하면 치료비는 유가족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메트라이프생명은 80세까지 암사망 특약을 보장하고 PCA생명은 종신까지 보장, PCA생명의 보장기간이 길다. 암에 걸리지 않고 사망할 경우 적립금을 지급한다. 남성 80세 기준으로 적립금은 메트라이프생명은 1182만원으로 납입보험료 원금(2134만원)의 55.4%를 지급하며, PCA생명은 1040만원으로 납입보험료 원금(1949만원)의 53.4%를 지급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암을 보장하는 상품은 두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보장내용이 비슷하고 보험료 차액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기간, 생식기암 보장액, 암사망특약 등을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남성의 경우 PCA생명이, 여성은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료는 소폭 저렴하다"고 덧붙였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3.txt

제목: 달걀이 학생에게 좋은 이유,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치매 예방에도 효과  
날짜: 2015030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210016428084  
본문: 달걀이 학생에게 좋은 이유달걀이 학생에게 좋은 이유,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치매 예방에도 효과 <br/> <br/>달걀이 학생들에게 좋은 이유가 소개됐다. <br/> <br/>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저(低) 나트륨 식이며, 비타민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달걀이 학생들에게 좋은 이유는 5가지다. <br/> <br/>첫째, 달걀은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달걀은 두뇌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생산을 도와준다. 치매예방,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학습능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에게 좋고, 특히 임신부와 어린이들은 매일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두 번째, 달걀은 위장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달걀 속에는 위궤양과 위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질환에 시달린다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br/> <br/>세 번째, 달걀은 시력 보호에 좋다. 달걀은 루테인(Lutein)과 제아크산틴(Zeaxanthin)이 풍부하다. 또 노인들에게는 녹내장과 황반변성 등의 발생률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 <br/> <br/>네 번째, 달걀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달걀에는 비타민A와 B, E를 비롯해 철분, 아연, 인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 또한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항산화제인 셀레늄도 포함하고 있다. <br/> <br/>다섯 번째, 달걀은 모발건강에 도움을 준다. 달걀에는 단백질과 케라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두 성분은 머리카락의 주 성분으로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강화에 도움을 준다. <br/> <br/>달걀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 1일 2개가 적당하다. <br/> <br/>네티즌들은 "달걀이 학생에게 좋은 이유, 맛있겠다" "달걀이 학생에게 좋은 이유, 비타민이 많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4.txt

제목: 녹십자,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 출시  
날짜: 2015030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210016439448  
본문: 녹십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테오그라스팀)’를 출시한다. <br/> <br/>2일 녹십자에 따르면 ‘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호중구감소증치료제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1주기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1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달리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br/> <br/>녹십자가 개발한 ‘뉴라펙’은 특정 위치에만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을 붙이는 페길레이션(PEGylation) 기술로 기존 제품보다 순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물의 반감기를 늘렸다. <br/> <br/>이에 보험약가를 취득해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며, 보험 약가는 60만9000원이다. <br/> <br/>녹십자 김수정 항암제팀장은 “<span class='quot0'>녹십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백신, 혈액제제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시한 ‘뉴라펙’과 함께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표적치료제 ‘GC1118’, 간암 유전자치료제 ‘JX-594’ 등을 개발하며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한편, 녹십자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뉴라펙’ 개발을 위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5.txt

제목: 호박·토마토,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Tip  
날짜: 2015030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210016434336  
본문: 호박은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에 포함될 정도로 전 세계인에게 각광받는 식품이다. <br/> <br/>최근 식품과 노화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티븐 플랫 박사는 14가지 '슈퍼푸드' 중 한 가지로 늙은 호박을 선정하기도 했다. <br/> <br/>실제로 호박에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는 물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으며, 과육부터 씨까지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또한 늙은 호박은 노화방지와 피부 미용에 탁월하며, 몸 속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억제하고 맑고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해 큰 일교차로 감기 걸리기 쉬운 가을에 면역력을 증진시켜 잦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호박과 더불어 토마토의 효능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토마토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 식품으로서 영양 만점이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또한 토마토에는 혈압을 내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또한 고기나 생선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br/> <br/>뿐만 아니라 각종 암과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화를 촉진해 위의 기능을 좋게 하기도 한다. 다만 위산과다 또는 위장이 냉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br/> <br/>한편, 최근 반짝 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프랑스 생면 파스타 전문점 ‘메조디파스타’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펌킨&마스카포네 스프’와 ‘토마토-올리브 스프’ 2종을 출시했다. <br/> <br/>이번에 출시한 스프 메뉴는 2가지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A가 풍부한 호박과 이탈리아산 마스카포네 크림치즈가 어우러진 메뉴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펌킨&마스카포네 스프’. 지중해 식단에 필수적인 토마토와 올리브를 기본 재료로 하여 유럽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토마토-올리브 스프’ 2종이다. <br/> <br/>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프랑스에서는 ‘키가 크기 위해서는 스프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영양적인 측면에서 스프를 필수 메뉴로 여기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스프는 에피타이저나 가벼운 식사대용으로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프랑스인들에게 사랑 받는 메뉴 중 하나</span>”라고 설명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누과수'를 아시나요?  
날짜: 2015030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210016416242  
본문: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리꾼들의 힘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사회적 어젠다(agenda)’가 설정되기도 하지만, ‘누리꾼 수사대’가 공권력이 담당해야 할 부분까지 권한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신상 털기’로 마녀사냥을 일삼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 수사대의 ‘명과 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br/> <br/>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는 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세상에 아이와 덩그러니 남게 된 아내는 사범대 졸업 후 임용시험을 준비중이었고, 숨진 남성도 사범대를 졸업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려 잠시 꿈을 접고 화물차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취업난·경제난 등과 맞물리며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공감을 느낀 것과 동시에 분노했다. <br/> <br/>‘크림빵 뺑소니’의 범인을 찾을 단서가 충분치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 수사대가 출동했다. 누리꾼들은 흐릿한 CCTV 영상을 보고 여러 정보를 동원해 분석의 글을 쏟아냈고, 이런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지면서 이 사건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어 추가 CCTV 제보가 들어온 뒤 ‘가해 차량은 윈스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피의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부인의 설득에 자수를 택했다. <br/> <br/>미제로 남는 뺑소니 사고 수가 매년 수백여건에 달하기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해당 사건은 전국민들의 관심 덕에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다. 또 누리꾼 수사대의 분석과 제보로 수사 대상을 좁혀간 덕택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이후 악착같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는 누리꾼 수사대에게 ‘국과수’와의 합성어인 ‘누과수’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br/> <br/>이에 대해 대학생 A(22)씨는 “가끔은 경찰의 수사력보다 누리꾼들의 수사력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며 “누리꾼 수사대의 활약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br/> <br/>하지만 누리꾼 수사대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제한된 경찰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해 수사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당시 누리꾼들이 가해 교사와 주변 사람들의 신상을 파헤치다 엉뚱한 사람을 당사자로 여론몰이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br/> <br/>대학생 B(24)씨는 “누리꾼 수사대의 영원한 단점은 누군가를 범인일 것이라고 지정했는데 아닌 경우”라며 “(일부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이를 일부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br/> <br/>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보았듯, 아무리 역기능이 있다 해도 누리꾼 수사대의 정보력이 사건의 수사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리꾼 수사대에 의해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잘 선별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br/> <br/>직장인 C(34)씨는 “<span class='quot0'>누리꾼의 다양한 의견을 선별하는 것이 경찰의 몫이고, 일부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누리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역할은 다한 게 아니냐</span>”고 반문하며 “<span class='quot0'>이런 정보들을 경찰이 잘 선별해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 사회에 분명 순기능을 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그렇다면 경찰처럼 전산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누리꾼 수사대는 어떻게 이름부터 취향까지 다 밝혀내는 것일까. <br/> <br/>이들의 수사는 포탈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등에 이름과 아이디를 검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나온 조각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모아간다.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관련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검색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무심코 올린 글 하나, 댓글 하나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 <br/> <br/>이 과정은 1명의 누리꾼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밝혀진 단서는 다른 누리꾼들에게 공유하고, 공유된 이 단서를 가지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조사를 이어간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잘게 쪼개진 정보는 점차 완성된 형태로 모양을 갖춰간다. 즉, 일종의 공조수사인 셈이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7.txt

제목: "군대 작업에서 비롯한 폐 악성종양은 공무상 재해"  
날짜: 2015030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30110016416250  
본문: 군대에서 무기를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장기간 하다 폐에 악성종양이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br/> <br/>서울행정법원은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에서 정비와 도장 업무를 해온 박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br/> <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pan class='quot0'>박씨가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도장하는 업무를 하면서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여러 의학적 보고와 연구들이 축적돼 있다</span>”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가 갖춰지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다</span>”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r/> <br/>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span class='quot1'>박씨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span>”고 주장했으나, 의료진은 박씨 손을 들어줬다.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박씨가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과 벤젠 등에 8년6개월간 노출됐다”며 “박씨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밝혔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8.txt

제목: AIA생명 암보험, 미래에셋보다 1500만원 비싼 이유는?  
날짜: 20150227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195339781  
본문: 한 번 가입하면 80세 이후까지 보험료 인상이 없이 보장되는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미래에셋 명과 AIA생명 암보험을 비교한 결과 총 납입하는 보험료 차액이 준중형차 한 대 가격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 <br/> <br/>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AIA생명 등 일부 보험사만 비갱신으로 100%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암보험을 판매 중이다. 두 회사의 암보험을 현재 40세가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일반암 5000만원, 고액암 1억원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미래에샛생명은 남성 14만6350원, 여성 9만8650원이었고 AIA생명은 남성 18만6800원, 여성 13만400원이었다. 미래에셋생명 암보험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남성 약 4만원, 여성 약 3만원 저렴했다. <br/> <br/>보험은 장기상품이다. 20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료 차액을 20년 동안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암보험에 가입한다면 총납입보험료는 준중형차 한 대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진다. 미래에셋생명의 암보험이 남성 약 1000만원, 여성 약 500만원 저렴해 비슷한 보장임에도 총 15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br/> <br/>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평균수명 증가로 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며 "비흡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등 암을 예방에 힘쓰면 최대 7% 보험료 할인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AIA생명은 케이블TV 등으로 연 100억원 이상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이 같은 광고비 투입은 중소형사의 두 배 이상의 금액"며 "투입한 광고비 일부가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비슷해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A생명은 전화로 가입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전화 가입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상식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덧붙였다. <br/> <br/>◆ 비갱신형 암보험 실제 비교해보니 <br/> <br/>세계파이낸스는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비갱신형으로 만기에 낸 돈을 100% 돌려주는 상품인 미래에셋생명 '예방하자 암보험'과 AIA생명 '뉴원스톱 암보험'을 비교했다. <br/> <br/>가입연령 40세, 20년 납, 고액암 1억원, 일반암 5000만원, 소액암 500만원 등 대부분의 조건을 비슷하게 설정했다. 다만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일부 암은 설정 조건을 똑같이 맞출 수 없었다. 또한 AIA생명은 최대 보장기간이 80세인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85세, 100세, 110세로 다양했다. 따라서 미래에셋생명을 85세로 가급적 동일하게 설정했다. <br/> <br/> <br/>암보장을 받기 위해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미래에셋생명은 남성 약 3512만원, 여성 약 2638만원으로 나타났다. AIA생명은 남성 약 4483만원, 여성 약 313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생명 암보험이 AIA생명 암보험보다 남성 약 971만원, 여성 429만원 저렴했다. <br/> <br/>두 회사 암보험의 보장은 거의 비슷하다. 뼈암, 뇌암, 백혈병 등 고액암은 1억원을 보장한다. 간암, 위암, 폐암 등 일반암으로 구분되는 암종은 5000만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등은 500만원을 보장한다. <br/> <br/>보장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다. 유방암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은 1250만원을 보장하는 반면 AIA생명은 2000만원을 보장, 유방암 노출 시 750만원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전립선암은 미래에셋생명이 1250만원으로 AIA생명보다 보장 금액이 250만원 더 많았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대장암을 일반암으로 구분해 5000만원을 보장하는 반면, AIA생명은 대장암 보장 조건이 유방암과 같은 2000만원이었다. <br/> <br/>이준일 평생자산관리연구소 대표는 "부부가 같이 암보험에 가입하면 총 납입보험료 차액이 약 1500만원 발생한다. 준중형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미래에셋생명은 보장기간이 85세로 AIA생명보다 5년 길다"고 말했다. 이어 "45년 혹은 40년 동안 보장받기 위한 평준보험료를 계산하면 AIA생명보다 미래에셋생명 고객은 약 30%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비슷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39.txt

제목: AIA생명 암보험, 미래에셋보다 1500만원 비싼 이유는?  
날짜: 20150227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7100000075  
본문: 한 번 가입하면 80세 이후까지 보험료 인상이 없이 보장되는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미래에셋 생명과 AIA생명 암보험을 비교한 결과 총 납입하는 보험료 차액이 준중형차 한 대 가격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AIA생명 등 일부 보험사만 비갱신으로 100%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암보험을 판매 중이다. 두 회사의 암보험을 현재 40세가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일반암 5000만원, 고액암 1억원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미래에샛생명은 남성 14만6350원, 여성 9만8650원이었고 AIA생명은 남성 18만6800원, 여성 13만400원이었다. 미래에셋생명 암보험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남성 약 4만원, 여성 약 3만원 저렴했다.보험은 장기상품이다. 20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료 차액을 20년 동안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암보험에 가입한다면 총납입보험료는 준중형차 한 대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진다. 미래에셋생명의 암보험이 남성 약 1000만원, 여성 약 500만원 저렴해 비슷한 보장임에도 총 15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평균수명 증가로 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며 "비흡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등 암을 예방에 힘쓰면 최대 7% 보험료 할인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AIA생명은 케이블TV 등으로 연 100억원 이상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이 같은 광고비 투입은 중소형사의 두 배 이상의 금액"며 "투입한 광고비 일부가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비슷해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A생명은 전화로 가입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전화 가입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상식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덧붙였다.◆ 비갱신형 암보험 실제 비교해보니세계파이낸스는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비갱신형으로 만기에 낸 돈을 100% 돌려주는 상품인 미래에셋생명 '예방하자 암보험'과 AIA생명 '뉴원스톱 암보험'을 비교했다.가입연령 40세, 20년 납, 고액암 1억원, 일반암 5000만원, 소액암 500만원 등 대부분의 조건을 비슷하게 설정했다. 다만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일부 암은 설정 조건을 똑같이 맞출 수 없었다. 또한 AIA생명은 최대 보장기간이 80세인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85세, 100세, 110세로 다양했다. 따라서 미래에셋생명을 85세로 가급적 동일하게 설정했다.암보장을 받기 위해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미래에셋생명은 남성 약 3512만원, 여성 약 2638만원으로 나타났다. AIA생명은 남성 약 4483만원, 여성 약 313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생명 암보험이 AIA생명 암보험보다 남성 약 971만원, 여성 429만원 저렴했다.두 회사 암보험의 보장은 거의 비슷하다. 뼈암, 뇌암, 백혈병 등 고액암은 1억원을 보장한다. 간암, 위암, 폐암 등 일반암으로 구분되는 암종은 5000만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등은 500만원을 보장한다.보장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다. 유방암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은 1250만원을 보장하는 반면 AIA생명은 2000만원을 보장, 유방암 노출 시 750만원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전립선암은 미래에셋생명이 1250만원으로 AIA생명보다 보장 금액이 250만원 더 많았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대장암을 일반암으로 구분해 5000만원을 보장하는 반면, AIA생명은 대장암 보장 조건이 유방암과 같은 2000만원이었다.이준일 평생자산관리연구소 대표는 "부부가 같이 암보험에 가입하면 총 납입보험료 차액이 약 1500만원 발생한다. 준중형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미래에셋생명은 보장기간이 85세로 AIA생명보다 5년 길다"고 말했다. 이어 "45년 혹은 40년 동안 보장받기 위한 평준보험료를 계산하면 AIA생명보다 미래에셋생명 고객은 약 30%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비슷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0.txt

제목: 호스피스 환자 건보 혜택 7월부터 확대  
날짜: 20150225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510016388378  
본문: 7월부터 말기 암 환자 등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커진다. <br/> <br/>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br/> <br/>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확대된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22만1000원의 진료비 중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통증이나 구토 전문 관리를 비롯해 음악·미술 치료, 임종에 대비하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30만1000원 중 1만9000원을 내면 된다.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시범 사업도 벌인다. 또 관리가 부실한 호스피스 기관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안은 복지부가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뒤 5년여만에 마련됐다. <br/> <br/>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작년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8%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56곳뿐이다. <br/> <br/>조병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1.txt

제목: 호스피스, 간병서비스 건보 적용…하루 1만5천원이면 호스피스병동 이용  
날짜: 201502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510016385150  
본문: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하루 1만5000원만 내면 호스피스 병동(5인실) 이용이 가능해 진다. <br/> <br/>간병비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이어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br/> <br/>2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br/> <br/>이 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br/> <br/>그러나 고가의 통증관리, 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br/> <br/>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br/> <br/>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보호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겼던 간병 서비스도 급여가 보장돼 큰 시름을 들게됐다. <br/> <br/>자격을 갖춘 병동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한 기관에 한해 간병도 급여화된다. <br/> <br/>이번 조치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간병 급여화 경우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br/> <br/>복지부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 외의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햇다.  <br/> <br/>이날 공개된 안은 복지부가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뒤 5년여만에 마련됐다. <br/> <br/>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작년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8%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br/> <br/>하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56곳뿐이다. <br/> <br/>건강보험 적용폭이 넓어짐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2.txt

제목: 여성암 사망률 '학력 낮을수록 높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 보여  
날짜: 201502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410016373548  
본문: 여성암 사망률 <br/>여성암 사망률 '학력 낮을수록 높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 보여 <br/> <br/>여성들의 암 사망률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br/> <br/>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교수팀은 2001년과 2006년, 2011년에 집계된 사망원인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5~64세 여성 암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br/> <br/>연구결과를 보면 저학력자 일수록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과 같은 여성암의 사망률이 높았고,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br/> <br/>유방암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에서 2001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8.5명에서 2011년 21.9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 비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br/> <br/>자궁경부암 역시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줄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데 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하 여성은 각각 1.5배, 3배 늘었다. <br/> <br/>이러한 차이는 '상대 불평등 지수' 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상대 불평등 지수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의 암사망률에 대비한 대학교 졸업 여성의 암사망률로, 이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학력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br/> <br/>분석 결과, 2001년 유방암의 상대 불평등 지수는 0.6이었지만 2011년에는 1.3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최근 들어 저학력 여성의 유방암 사망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자궁경부암의 상대 불평등 지수도 2.5(2001년)에서 3.8(2011년)로 그 차이가 더 심해졌다. <br/> <br/>난소암 역시 2001년 0.8에서 2011년 1.5로 상대 불평등 지수 1을 넘겨 최근 들어 학력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br/> <br/>특히 같은 암종이라도 젊은 여성에서 암 사망의 상대 불평등 지수가 더 높았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45세를 기점으로 중년 이전(25~44세)과 이후(45~64세)로 나눴을 때 2011년 중년 이전 세대의 상대 불평등 지수는 17.6인 데 비해 이후 세대는 2.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암도 경향은 비슷했다. <br/> <br/>송윤미 교수는 "한국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비교적 높아졌지만 그만큼 학력이 낮은 여성에서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해질 개연성도 커졌다"면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암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접근성, 수진율이 다른 것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3.txt

제목: 여성암 사망률, 유방암-자궁경부암 '저학력 여성일수록높아'  
날짜: 201502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410016374487  
본문: 여성암 사망률여성암 사망률, 유방암-자궁경부암 '저학력 여성일수록높아' <br/> <br/>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br/> <br/>24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교수팀은  2001년과 2006년, 2011년에 집계된 사망원인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시기 등록된 25세에서 64세 여성암환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br/> <br/>조사한 기간 동안 사망률의 변화는 암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서 저학력 여성의 증가세는 뚜렷했다. <br/> <br/>유방암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에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2001년 8.52명에서 2011년 21.9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자궁경부암 사망 비율 역시 초졸이나 중졸 이하인 여성은 고졸 이상 여성에 비해 1.5배에서 3배까지 높았다. <br/> <br/>이외에도 '상대 불평등 지수'를 활용한 재분석 결과 학력 편차에 따른 사망률이 뚜렷하게 구분됐으며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같은 암이라도 젊은 여성에서 암 사망의 상대 불평등 지수는 더 높았다. '상대 불평등 지수'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의 암사망률 대비 대졸 여성의 암사망률로 계산했으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학력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br/> <br/>송 교수팀은 연구결과를 통해 학력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위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암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4.txt

제목: 여성암 사망률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암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접근성 차이'  
날짜: 201502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410016375852  
본문: 여성암 사망률 <br/>여성암 사망률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암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접근성 차이' <br/> <br/>'여성암 사망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24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교수팀은 2001년과 2006년, 2011년에 등록된 25~64세 여성 암환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조사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사망 비율은 저학력자일수록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대표적 여성암인 유방암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에서 2001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8.5명에서 2011년 21.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br/> <br/>자궁경부암 역시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줄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데 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하 여성은 각각 1.5배, 3배까지 늘었다. <br/> <br/>이에 대해 송 교수는 "학력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암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접근성, 수진율이 다른 것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5.txt

제목: 저학력일수록 여성암에 따른 사망률 높아  
날짜: 2015022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410016370184  
본문: 저학력 여성이 여성 암에 따른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수준에 따라 암사망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24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교수팀은 2001년과 2006년, 2011년에 집계된 사망원인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5~64세 여성 암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했다.  <br/> <br/>이에 따르면 저학력자 일수록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과 같은 여성암에 따른 사망률이 높았다.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유방암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에서 2001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8.5명에서 2011년 21.9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 비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br/> <br/>자궁경부암 역시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줄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데 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하 여성은 각각 1.5배, 3배 늘었다. <br/> <br/>이러한 현상은 '상대 불평등 지수' 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br/> <br/>상대 불평등 지수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의 암사망률에 대비한 대학교 졸업 여성의 암사망률로, 이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학력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br/> <br/>그 결과, 2001년 유방암의 상대 불평등 지수는 0.6이었지만 2011년에는 1.3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br/> <br/>이에 대해 연구팀은 "최근 들어 저학력 여성의 유방암 사망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자궁경부암의 상대 불평등 지수도 2.5(2001년)에서 3.8(2011년)로 그 차이가 더 심해졌다. <br/> <br/>난소암 역시 2001년 0.8에서 2011년 1.5로 상대 불평등 지수 1을 넘겨 최근 들어 학력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br/> <br/>같은 암종이라도 젊은 여성에서 암 사망의 상대 불평등 지수가 더 높았다. <br/> <br/>자궁경부암의 경우 45세를 기점으로 중년 이전(25~44세)과 이후(45~64세)로 나눴을 때 2011년 중년 이전 세대의 상대 불평등 지수는 17.6인 데 비해 이후 세대는 2.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암도 경향은 비슷했다. <br/> <br/>이러한 결과에 대해 송윤미 교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암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접근성, 수진율이 다른 것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6.txt

제목: 여성암 사망률, 저학력자가 더 높아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따라 정보 접근성 차이"  
날짜: 201502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410016375867  
본문: 여성암 사망률 <br/>여성암 사망률, 저학력자가 더 높아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따라 정보 접근성 차이"  <br/> <br/>여성암 사망률이 학력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분석됐다. <br/> <br/>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교수팀은 지난 2001년과 2006년, 2011년에 집계된 사망원인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 시기에 등록된 25~64세 여성 암 환자들을 분석해 이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연구 결과 이 기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변화는 암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의 여성암에서는 저학력 여성의 증가세가 확연했다. <br/> <br/>유방암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2001년 8.52명에서 2011년 21.9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br/> <br/>자궁경부암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는 줄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하에서는 1.5배에서 3배까지 늘었다. <br/> <br/>이런 차이는 '상대 불평등 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br/> <br/>'상대 불평등 지수'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에 대한 대학교 졸업 여성들의 암 사망률을 비교·분석(상대비)한 것이다. 이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들이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여성암으로 더 많이 사망한다는 의미다. <br/> <br/>송윤미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유방암의 상대 불평등 지수는 0.58이었으나 2011년 1.34로 급격히 증가했다. 자궁경부암은 2001년 2.47에서 2011년 3.77로 격차가 커졌다. <br/> <br/>난소암은 2001년 0.79에서 2011년 1.5로 나타나 최근 들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같은 암이라도 젊은 여성들에서의 상대 불평등 지수가 더 높은 현상이 확인됐다. <br/> <br/>자궁경부암을 25~44세 젊은 그룹과 45~64세 중년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상대 불평등 지수가 각각 17.64, 2.41로 7.3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나머지 암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br/> <br/>조사와 관련해 송윤미 교수는 "한국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비교적 높아졌지만 그만큼 학력이 낮은 여성에서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해질 개연성도 커졌다”면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암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접근성, 수진율이 다른 것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7.txt

제목: ㈜아모레퍼시픽-분당서울대병원, 항노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MOU 체결  
날짜: 2015022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410016376277  
본문: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심상배)이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과 항노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상호간의 공동연구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23일 체결했다. <br/> <br/>이날 분당서울대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 한상훈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분당서울대병원 이철희 원장, 이재서 대외협력실장 외 교수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r/> <br/>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과학기술분야 및 의료 보건 분야의 공동연구 △고령화 대응 항노화 솔루션 공동연구 및 개발 지원 △연구 인력 교류 및 교육 △시설·장비 및 공간 등의 공동 활용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공동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게 됐다.  <br/> <br/>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에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의 기획과 ▲대사증후군 ▲근골격 활성화 ▲암 예방 ▲활력 증강 ▲멘탈 케어 등 연계 연구에도 함께 힘쓸 예정이다.  <br/> <br/>더불어 두 기관은 국민복지 및 건강을 위한 시니어케어 사업 모델 개발에도 뜻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아모레퍼시픽의 뷰티푸드 브랜드 VB와 연계하여 심신 안정 특화 솔루션 등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br/> <br/>㈜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은 “<span class='quot0'>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span>”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국민의 웰에이징(Well-Ageing) 구현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8.txt

제목: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날짜: 20150223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310016361791  
본문: UAE 왕립병원 전경.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이 지난해 6월, 5년간 1조원 규모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UAE 왕립병원)이 18일 개원 기념식을 열고 공식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br/> <br/>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3시) UAE 왕립병원 로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H. H. Mansour bin Zayed Nahyan)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 쉐이크 사우드(Sheikh Saud) 라스알카이마 통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UAE 왕립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br/> <br/>두바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거리인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은 UAE 대통령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이다.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에 대지면적 20만m2, 연면적 7만2248m2 이다. <br/> <br/>서울대병원은 미국 유럽 등지의 세계적 병원들과 경쟁 끝에 지난해 6월 UAE 왕립병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8월 계약 체결 후 현지에 서울대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파견해 개원준비를 해왔다. <br/> <br/>지난해 11월부터 심장혈관센터와 암센터에서 먼저 진료를 시작하는 등 일부 외래와 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가동하고 있으며, 심장수술 2건, 폐절제수술 1건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완전 개원은 올 4월 예정이다. <br/> <br/>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 35명, 간호사 74명 등 한국 의료진 170명과, UAE를 비롯한 외국인 280명 등 45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100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br/> <br/>UAE 왕립병원의 진료 건수는 지난해 11월 외래 가동 후 외래환자 약 700명, 12월 병동 가동 후 약 50명이 입원했다. <br/> <br/>성명훈 UAE 왕립병원장은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면서 불과 반년도 안된 짧은 기간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노력했다. UAE 대통령실의 평가에서도 환자안전, 고객만족,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며, “UAE 왕립병원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0'>UAE 왕립병원 개원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UAE에 안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한국 의료의 수출 성공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은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진출함으로써 국부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UAE 왕립병원은 UAE를 구성하고 있는 7개 에미리트(토후국) 중 북부지역에 위치한 5개 에미리트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기를 보유한 유일한 병원으로서 암, 심장질환, 뇌신경질환 등 고난이도 수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병원이 위치한 라스알카이마 지역은 물론 UAE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특히 올해 1월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수술성공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 UAE 정부와 현지인들로부터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49.txt

제목: [건강 단신] 아주대병원, 암 환자 위한 강좌 外  
날짜: 20150222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210016354581  
본문: 아주대병원, 암 환자 위한 강좌 <br/> <br/>아주대병원(원장 탁승제·사진)이 오는 6월까지 병원 웰빙센터 6층 경기지역암센터에서 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를 연다. 폐암, 유방암, 부인암, 전립선암, 간암 등을 다룬다. 먼저 25일 오후 2시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가 ‘금연과 폐암 예방’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연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경기지역암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31)219-7142 <br/> <br/>서울아산병원 ‘협심증·부정맥’ 강좌 <br/> <br/>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심장내과 박덕우·김준 교수가 26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협심증과 부정맥의 진단과 치료’란 주제로 무료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협심증과 부정맥의 진단, 개인별 맞춤 치료법, 심장 건강관리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02)3010-3051∼4 <br/> <br/>서울대 의대 ‘임산부 운동 가이드’ 발간 <br/> <br/>서울대 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소장 노동영)가 ‘임산부를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임신한 여성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 유지와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법 등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 국민건강지식센터 홈페이지(hqcenter.snu.ac.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02)740-8886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0.txt

제목: '서울대 위탁운영' 두바이 UAE 왕립병원 개원  
날짜: 20150222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2210016353556  
본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인근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 전경. 서울대병원이 2014년 6월 위탁경영권을 따낸 이래 반년 넘는 개원 준비를 거쳐 최근 문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이 위탁운영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개원 기념식을 갖고 공식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br/> <br/> 2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기념식에는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 쉐이크 사우드 라스알카이마 통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UAE 왕립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br/> <br/> 두바이에서 북동쪽으로 30㎞쯤 떨어진 라스알카이마에 자리한 UAE 왕립병원은 UAE 대통령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이다.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에 대지면적 20만㎡(약 6만500평), 연면적 7만2248㎡(약 2만1850평) 규모다. 서울대병원은 미국, 유럽 등지의 세계적 병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2014년 6월 UAE 왕립병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8월 본 계약 체결 후 현지에 서울대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파견해 개원 준비를 해왔다. <br/> <br/> UAE 왕립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심장혈관센터와 암센터에서 먼저 진료를 시작해 일부 외래와 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가동해왔다. 그동안 심장수술 2건, 폐절제수술 1건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외래환자는 약 700명, 입원환자도 50명에 이른다. 완전 개원은 4월로 예정된 상태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 35명, 간호사 74명 등 한국 의료진 170명과 UAE를 비롯한 외국인 280명 등 4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100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br/> <br/>UAE 왕립병원 개원식 직후 성명훈 원장(가운데)이 쉐이크 사우드 라스알카이마 통치자(왼쪽)와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오른쪽) 등 귀빈들을 안내하고 있다. <br/> 성명훈 UAE 왕립병원장은 “<span class='quot0'>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면서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성공적 개원을 위해 노력했다</span>”며 “<span class='quot0'>UAE 대통령실의 평가에서도 환자 안전, 고객 만족,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span>”고 소개했다. 성 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1'>UAE 왕립병원 개원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UAE에 안착하는 데 성공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한국 의료의 수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함으로써 국부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 <br/> UAE 왕립병원은 UAE를 구성하고 있는 7개 에미리트(토후국) 중 북부지역에 위치한 5개 에미리트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기를 보유한 유일한 병원이기도 하다. 자연히 UAE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올해 1월 급성심근경색 환자 수술에 성공한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 UAE 정부와 현지인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1.txt

제목: "올리브유에 '암세포' 죽이는 성분 있다"  
날짜: 2015021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710016341518  
본문: 엑스트라 버진(Extra Virgin)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oleocanthal) 성분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이 성분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과학매체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에 따르면 미국 럿거스 대학과 헌터 대학 연구팀이 올레오칸탈이 ‘소포(vesicle)’를 파괴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소포는 암세포의 ‘쓰레기’를 저장한다. <br/> <br/>연구진은 올레오칸탈에 노출된 암세포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소멸한 것을 확인했다. 보통 ‘세포사멸(손상된 세포가 자살하는 현상·programmed cell death)’에 16~24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레오칸탈이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다. 연구진은 올레오칸탈의 자체 효소가 암세포의 빠른 소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br/> <br/>럿거스 대학 영양학교수 폴 브레슬린 박사는 “<span class='quot0'>올레오칸탈이 암세포 안의 리소솜(일종의 쓰레기통)에 구멍을 뚫어 폐기물이 쏟아지게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같은 방식으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암세포의 리소솜은 정상세포의 그것보다 더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쓰레기통이 열리면 모든 게 다 쏟아져나온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올레오칸탈이 정상세포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구팀은 “올레오칸탈은 정상세포의 생활주기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며 “‘수면’ 상태에 빠진 뒤 하루가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연구팀의 올레오칸탈 연구결과는 ‘분자·세포 종양학(Molecular and Cellular Oncology)’ 최신호에 실렸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2.txt

제목: 암스트롱, 거짓말 대가로 110억원 토해낼 판  
날짜: 20150217  
기자: 국기연 특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710016343065  
본문: 약물로 자멸한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44·사진)이 거짓말의 대가로 거액을 토해낼 판이다. <br/> <br/>미국 텍사스주 법원 중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스포츠 보험회사 SCA 프로모션이 암스트롱을 상대로 제기한 우승 보너스 반환 소송에서 2 대 1 판결로 가욋돈 1000만달러(약 110억원)를 SCA 프로모션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 댈러스 제5지구 항소법원이 중재위의 결정을 지켜보고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이 결정은 그대로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br/> <br/>SCA 프로모션은 2006년 암스트롱과 후원 계약을 하고 우승하면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암스트롱이 1995∼2005년 투르드프랑스에서 뛸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고 2013년 1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시인하자 SCA 프로모션은 곧바로 이미 지급한 보너스와 소송비용을 합쳐 1200만 달러를 물어내라고 반환 소송에 나섰다. <br/> <br/>이번 재판 결과는 암스트롱이 직면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암스트롱을 상대로 소속팀 US 포스털서비스 팀에 후원한 3000만달러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암스트롱이 패소하면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1억달러(1101억원)를 물어야 한다. <br/> <br/>암스트롱은 지난해 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 이를 여자 친구가 벌인 것처럼 위증 교사한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되는 등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3.txt

제목: 삼성화재 'W보험', 하루 800건씩 판매 '돌풍 조짐'  
날짜: 20150216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192307705  
본문: 삼성화재가 최근 출시한 여성질환 집중 보장 보험 '여성을 위한 W(더블유)'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br/> <br/>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9일 출시한 '여성을 위한 W(더블유)' 보험이 출시 이후 1영업일당 약 800건씩 판매되고 있다. 이 상품은 여성전용 상품으로 유방이나 자궁 등 여성질환을 염증부터 암이나 적출 수술까지 보장해 증가하고 있는 여성질환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br/> <br/>여성들의 주된 관심 질환인 유방, 자궁 및 부인과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암보험의 경우 대부분 유방암은 일반암의 10%정도만 보장한다. 즉 암 진단시 3000만원을 보장한다면 유방암 진단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부인과 질환에 대해 이런 감액지급 없이 보장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br/> <br/>또한 유방암과 자궁암 등의 진단비는 물론 물혹ㆍ유방선종ㆍ자궁근종ㆍ자궁/난소염 등 초기 여성질환의 수술비도 보장해 여성질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등도 지원해 수술 후 치료가지 보장 가능하다. <br/> <br/>심혈관ㆍ뇌혈관ㆍ간/췌장질환ㆍ폐질환 등 4대 중증질병 및 갑상선ㆍ녹내장ㆍ위십이지장궤양ㆍ결핵ㆍ신부전 5대 특정질환으로 수술하거나 입원할 경우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한다. 보통의 건강보험은 입원 3일 이후 입원비를 보장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 일수가 줄어든 요즘 입원비 보장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br/> <br/>아울러 일정 가입 조건 만족 시 '전자제품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후 90일에서 4년차까지 에어컨, 세탁기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리닝 서비스를 1회 받을 수 있다. <br/> <br/>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5년 갱신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입 할 경우 보장내용 변경 없이 무심사로 인수 가능하다. <br/> <br/>삼성화재 관계자는 "여성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가전제품 클리닝 서비스 등 여성을 위한 부가서비스도 지원한다"며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판매 초기인데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4.txt

제목: 삼성화재 'W보험', 하루 800건씩 판매 '돌풍 조짐'  
날짜: 20150216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6100000082  
본문: 삼성화재가 최근 출시한 여성질환 집중 보장 보험 '여성을 위한 W(더블유)'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9일 출시한 '여성을 위한 W(더블유)' 보험이 출시 이후 1영업일당 약 800건씩 판매되고 있다. 이 상품은 여성전용 상품으로 유방이나 자궁 등 여성질환을 염증부터 암이나 적출 수술까지 보장해 증가하고 있는 여성질환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명했다.여성들의 주된 관심 질환인 유방, 자궁 및 부인과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암보험의 경우 대부분 유방암은 일반암의 10%정도만 보장한다. 즉 암 진단시 3000만원을 보장한다면 유방암 진단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부인과 질환에 대해 이런 감액지급 없이 보장금액 전액을 지급한다.또한 유방암과 자궁암 등의 진단비는 물론 물혹ㆍ유방선종ㆍ자궁근종ㆍ자궁/난소염 등 초기 여성질환의 수술비도 보장해 여성질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등도 지원해 수술 후 치료가지 보장 가능하다.심혈관ㆍ뇌혈관ㆍ간/췌장질환ㆍ폐질환 등 4대 중증질병 및 갑상선ㆍ녹내장ㆍ위십이지장궤양ㆍ결핵ㆍ신부전 5대 특정질환으로 수술하거나 입원할 경우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한다. 보통의 건강보험은 입원 3일 이후 입원비를 보장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 일수가 줄어든 요즘 입원비 보장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아울러 일정 가입 조건 만족 시 '전자제품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후 90일에서 4년차까지 에어컨, 세탁기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리닝 서비스를 1회 받을 수 있다.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5년 갱신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입 할 경우 보장내용 변경 없이 무심사로 인수 가능하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여성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가전제품 클리닝 서비스 등 여성을 위한 부가서비스도 지원한다"며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판매 초기인데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5.txt

제목: 작년 건강보험 4조6천억 흑자…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날짜: 20150216  
기자: ssg14@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6100000067  
본문: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선 데 따른 것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이었다.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원인으로 꼽힌다.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하락했다.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에 따른 암 급여비 증가율의 약화,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황사 발생이 줄어 호흡기계 질환이나 계절성, 유행성 질환의 발생이 감소한 영향도 있었다.진료비 증가 폭이 줄었지만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인 1.3%보다 3.8배 높다.의료비 지출을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이 상승세였지만 입원 급여비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각각 전년대비 8.4%와 5.2% 증가해 이전 5년간 증가율보다 소폭 늘었다. 반면 입원 급여비는 입원환자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등이 둔화하면서 이전 5년간 평균인 10.9%보다 4.5%포인트 줄어든 6.4%를 기록했다.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높아졌다.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에서의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3.4%를 기록했으며 요양병원은 환자 수 증가로 급여비가 전년대비 17.9% 증가했다.대규모 재정 흑자로 누적적립금 규모는 전년 8조2000억원에서 12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6.txt

제목: 안면기형 잠비아 소녀, 한국서 ‘빛’ 되찾다  
날짜: 20150216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610016333638  
본문: 안면기형을 갖고 있던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수술을 받았다. <br/> <br/>16일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에 따르면 잠비아에 살고 있는 찬사 멜리사(14)는 두 살 때쯤부터 얼굴 왼쪽의 피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이었다. 12살 무렵에는 흘러내린 피부가 왼쪽 눈을 막는 바람에 백내장이 진행됐고, 왼쪽 발은 부어올라 신발도 신을 수 없게 됐다. 가정환경도 불우했다. 부모는 떠나가고 조부모 밑에서 자란 멜리사는 또래 아이들의 놀림 대상이었다. <br/> <br/>휠체어에 앉은 찬사 멜리사와 멜리사의 할머니, 수술을 집도한 김정태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맨 왼쪽). <br/>기아대책 제공세상이 온통 잿빛이었던 멜리사는 기아대책의 희귀질환 치료 프로그램에 선정돼 한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얻게 됐다.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김정태 교수는 멜리사의 상태를 ‘신경섬유종증’으로 진단하고 “<span class='quot0'>종양이 눈 주변을 감싸고 있어 그대로 놔뒀으면 안구를 적출해야 했고 암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있었다</span>”고 설명했다. 수술은 지난달 29일 10시간 넘게 진행됐고, 멜리사양은 얼굴의 종양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종양 제거 부위를 덮는 피부 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퇴원을 앞둔 멜리사양은 “한국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7.txt

제목: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 48.5조원, 흑자 4조6000억원  
날짜: 2015021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610016328711  
본문: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6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br/> <br/>이는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 덕분이다. <br/> <br/>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됐다. <br/> <br/>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둔화됐다. <br/> <br/>이처럼 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로 인한 암 급여비 증가율의 둔화,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br/> <br/>황사 발생이 줄어들어 호흡기계 질환이나 계절성·유행성 질환의 발생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br/> <br/>진료비 증가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br/> <br/>2012년 기준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인 1.3%보다 3.8배 높다. <br/> <br/>재정 흑자로 인해 누적적립금 규모는 전년 8조2000억원에서 12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늘었다. <br/> <br/>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 2012년 4조6000 등으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br/> <br/>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이 상승세였지만 입원 급여비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br/> <br/>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각각 전년대비 8.4%와 5.2% 증가해 이전 5년간 증가율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반면 입원 급여비는 입원환자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등이 둔화되면서 이전 5년간 평균인 10.9%보다 4.5%포인트 줄어든 6.4%를 기록했다. <br/> <br/>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높아졌다. <br/> <br/>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에서의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3.4%를 기록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수 증가로 급여비가 전년대비 17.9% 늘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8.txt

제목: 메리츠화재, 한 상품으로 모든 위험 보장  
날짜: 20150216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6100000114  
본문: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메리츠화재의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501'(이하 M-Basket)이 인기를 끌고 있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 설계가 가능한 M-Basket의 보장을 강화해 한 상품으로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상품에서 특히 주목 받았던 유족보장, 암케어패키지, 간병인 현물급부 등과 더불어 추가 됐다.개정된 M-Basket은 고객이 사고 발생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은 물론 고객의 다른 금융상품의 납입까지도 생각하였다. 가장 첫 번째로 고도후유장해 생활자금특약을 통해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초회 월납기준 영업보험료의 두 배를 매월 만기까지 지급한다. 장해 발생시 소득이 끊기는 것에 대비해 이를 활용하여 M-Basket과 타 금융상품의 납입까지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기능이 추가되거나 강화되었다.유족보장최대 4단까지 유족보장 복층설계가 가능하고 보장의 종료기간의 개별적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족보장 필요시기에 합리적인 보험료로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가 가능하다. 자녀가 모두 성장해 독립했을 때는 보험금을 적게 설계하고 교육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중년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건강보장‘암케어 패키지’는 암진단비, 암검진서비스, 암사망에 대한 보장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암진단 후 2년 경과시점부터 5년간 PET-CT(양전자 단층촬영을 통해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검진기법)등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통해 이차암 발병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말기암 진단비를 추가하여 4기 암까지 고액보장이 가능하여 암에 대한 집중 보장을 받을 수 있다.기존의 3대 질환에 희귀난치성 7대 질환 진단비를 추가하여 중증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였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환자수는 약 160만명, 1인당 연간의료비는 1000만원 수준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7대 질환까지 보장한다. 고액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다.‘간병인지원 입원일당’보장은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을 지원한다. 입원을 한 환자는 간병인으로부터 일상생활수발에서 간단한 치료 수발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간병인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해당담보 가입금액을 받으면 된다.‘질병·상해수술 재택간병인지원금 특약’은 수술로 인해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퇴원 후에도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주8시간, 최고5회까지 재택간병을 지원하여 현물보상 솔루션을 강화하였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5회 간병인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생활보장주택관련 재물보장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잡았다. 주택화재/도난/화재배상/벌금 및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을 추가하여 고객의 건강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손실을 폭넓게 보장한다. 또한 의료사고법률비용/과실치사상벌금 등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비용 담보도 보장해 One-Stop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 위험까지 보상한다.노후보장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저축보험을 결합하여 최대의 세제혜택과 함께 든든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은퇴케어프리는 세제적격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으로 기존의 유배당 연금저축보험보다 사업비는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상품이다. 재무케어프리(저축보험)는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차익이 비과세이며, 일부일시납 운영으로 일시납과 비일시납 동시설계가 가능하다.자동차보험보험세목 중 하나인 자동차 보험은 2회 자동갱신 약정형 상품으로 매년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크게 줄였다. 3년간 자동갱신시 보험료의 2% 할인 혜택이 있으며, 임의보험료 부분은 11회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부담도 줄일 수 있다.장례용품지원서비스새롭게 선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장례용품지원서비스이다. 장례용품지원서비스는 가족이 사망시 신청자에게 200인분 장례용품을 제공한다. 생활케어프리의 월납기준 보험료 평균이 10만원 이상이고 서비스 이용시점에 정상 유지중인 계약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생활케어프리 가입고객들에게 상조할인 서비스 등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멀티디스카운트연계가입 할인혜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세목들을 연계가입하는 경우 제공하는 보험료 할인혜택인 멀티디스카운트를 가족까지 확대 적용하여 가족이 함께 가입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인혜택은 연계가입하는 세목들이 많을수록 더 커지며 최대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59.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  
날짜: 2015021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610016323328  
본문: #1. “엄마·아빠, 미안해요~!” <br/> <br/>김모(16)군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문장이다. 김군은 요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의 스마트폰 검색 목록에는 ‘안 아프게 죽는 법’, ‘고통 없이 죽는 법’ 등 자살 관련 검색어가 가득하다. <br/> <br/>#2. “부모님 잘 모셔라” <br/> <br/>박모(45)씨는 요즘 들어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박씨는 지난달 17년간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했다. 그 후로부터 말수가 부쩍 줄었고 입맛도 없다. 그는 “<span class='quot0'>이따금씩 자살이란 것을 생각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서울 시내 자살사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가 2010년 890건에서 지난해 4926건으로 증가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 사건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사망률)는 2011년 30명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28.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1999년(15명)에 비하면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br/> <br/>특히 남성의 자살사망률은 2013년 기준으로 여성보다 2.3배 가량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70세 이상은 2012년 기준 자살률이 253.4명에 달한다. 20~30대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다른 연령대보다 적지만 사망률 자체가 낮은 것이 원인이다. 월별 자살은 3월과 5월이 가장 빈번했고, 12월이 가장 적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자살률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br/> <br/>아울러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14 사회조사를 보면 국민 중 6.8%가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명 중 7명 정도가 자살 욕구를 느낀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8.0%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5.2%로 가장 낮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37.4%로 충동이유 중 가장 많았다. ▲가정불화(14.0%) ▲외로움·고독(12.7%) ▲신체·정신 질환(11.1%) 순이었다. <br/> <br/>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조사를 보면 자살충동 경험자 중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는 10대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76.4%로 가장 많다. 10대 이하 비율은 2011년 19.8%, 2012년 58.4%에서 2013년에는 80%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점점 어린 나이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실제 노인들의 자살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높은 자살률로 암 등을 제외한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1위는 자살이다. 교통(운수)사고나 추락사고 보다 자살 사망이 많다. <br/> <br/>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결과'에 따르면 2013년 사망원인에서 1~9세는 운수사고, 10세 이상은 자살이 사망원인 1위였다. 그 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4427명으로 사망률은 2012년 조사 때에 비해 0.4명 늘었고, 10년 전인 2003년(22.6명)보다는 5.9명 많아졌다. <br/> <br/>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자살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1년 자살률(2014년 7월 발표)은 33.3명을 기록했다. 한국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다. 자살률이 30명을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멕시코와 영국은 5.2명과 6.7명에 불과하다. 호주(10.1명)·미국(12.5명) 등도 10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일본도 20.9명에 그친다. <br/> <br/>통계청 관계자는 "자살은 삶에 대한 만족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행동"이라며 "모든 연령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살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의 주된 원인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과 더불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꼽혔다. <br/> <br/>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대규모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2월 발효된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실시한 것으로, 정부 주도로 실시한 전국 규모의 자살실태 조사다. <br/> <br/>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8848명 가운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실제 자살한 사람은 236명으로, 연간 10만명 당 약 700명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인구의 자살사망률인 10만명 당 28.1명에 비해 무려 2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자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br/> <br/>이들 가운데 남성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자살 시도 7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후 자살 시도자의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또 2013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135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 가운데 37.9%는 자살 시도의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을 꼽았다. 이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31.2%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문제'(10.1%) ▲'고독'(7.1%) ▲'신체 질병'(5.7%)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의 50%, 여성의 40%가 자살을 시도할 당시 음주 상태였다. <br/> <br/>더불어 자살 사망자 8000여명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 직전 남녀 모두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47% 늘어난 점이 눈에 띄었다. 또 수면제와 항정신병약물 복용도 크게 늘어났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72건의 자살 사망 사례에 대해 유가족의 심층 면담과 유서 분석 등을 통한 '심리적 부검'도 포함됐다. <br/> <br/>복지부는 이를 통해 자살에 이르는 유형을 ▲급성 스트레스 유형 ▲만성 스트레스 유형 ▲적극적 자해·자살 시도 표현 유형 ▲정신과적 문제 유형 등 크게 4가지로 나눴다. 자살을 앞둔 이들이 보이는 연령대별 징후도 분석했다. 20대 이하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살 관련 문구나 사진을 올리고, 30∼40대는 음주가 심해지며 점차 관계 단절의 양상을 보였다. 또 50∼60대의 경우 자식들에게 '어머니·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편, 복지부가 전국 19∼75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자살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9%가 '자살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은 '심한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응답자는 11.9%는 '누군가 자살을 원한다면 우리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25.6%는 '누군가 자살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br/> <br/>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확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통합적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등의 자살예방 대책을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전문가들은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회가 개인을 보살피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살 방지를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정부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자살률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누군가가 방문해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당장 촘촘한 안전망을 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최소한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라도 제공하기 시작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손을 내밀 곳을 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당장 범국가적 노력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0.txt

제목: 순천향대 천안병원,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  
날짜: 2015021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510016323397  
본문: 순천향대 천안병원 대장암센터 주최로 열린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 도중 여성 중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순천향대 천안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백무준)는 최근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대장암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최신 대장암 관련 정보를 전하기 위해 매년 2월 개최하는 행사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대장암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진행했다. 건강 강좌, 시식 및 식단 전시회,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br/> <br/>먼저 건강 강좌는 외과 안태성 교수가 ‘대장암 수술 후 재발을 알기 위한 검사 방법’, 김민지 사회복지사가 ‘암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정보’, 한은경 영양팀장이 ‘대장암 환자를 위한 건강요리 교실’, 오현경 약사가 ‘대장암 항암제의 부작용과 대처법’, 가정의학과 조용진 교수가 ‘복부 비만과 암의 예방’, 소화기내과 정윤호 교수가 ‘대장암의 내시경치료’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br/> <br/>행사 중간에 열린 시식 및 식단전시회와 음악회는 참석자들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했다. 참석자들은 강당 밖 로비에서 병원 영양팀 직원들이 즉석에서 만든 ‘두부미역샐러드’와 ‘고구마밤 스무디’ 등 여러 요리들을 맛봤다. 또 전시된 다양한 대장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식단들을 구경하며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br/> <br/>강당 안에서 이어진 작은 음악회에서는 피아노, 클라리넷, 비올라로 구성된 ‘한스앙상블’과 아마추어 여성중창단 ‘위드’의 공연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선율과 노래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br/> <br/>대장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외과 백무준 교수는 “<span class='quot0'>매년 행사마다 참석하신 분들이 만족해하시고 좋은 반응을 주셔서 그 힘으로 1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더욱 노력해 환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병원이 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1.txt

제목: '가족끼리 왜 이래' 결말에 관심, 해피엔딩일까?  
날짜: 2015021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510016323297  
본문: 삼화네트웍스 제공종영을 앞둔 '가족끼리 왜 이래'의 결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극본 강은경, 연출 전창근)' 52회에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해온 절친남매 순봉(유동근 분)과 순금(양희경 분)의 가슴 절절한 오열이 안방극장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br/> <br/>순봉의 병에 대해 혼자만 모르고 있던 순금이 허양금(견미리 분)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됐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황망해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금은 최근 순봉에 대해 오해하고 책망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br/> <br/>집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순금은 미스고(김서라 분)를 만나 순봉의 자세한 상태를 확인했다. 순봉이 암에 걸린 것이 모두 자신이 만든 짠 음식 때문이라 생각한 순금은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냉장고에 있던 김치들을 버렸고, 이를 본 순봉과 가족들은 놀라 말렸다.  <br/> <br/>김치범벅이 된 순금은 "내가 오빠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어. 내가 그런거라구. 불쌍한 우리 오빠"하며 절규했고, 지켜보던 가족들은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었다. <br/> <br/>영설(김정난 분)은 순금을 방으로 데리고가 진정시켰고, 순봉은 순금을 찾아가 "나 아픈게 왜 니 잘못이야 그런거 아니야"하며 순금을 위로했고, "울지마 울지마. 나 아직 괜찮어. 나 아직 멀쩡하다. 그러니까 그만 울어, 나 아직 안 죽었어"라며 끌어안고 오열했다. <br/> <br/>한편, 이른 새벽 객혈과 함께 실신한 순봉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강재(윤박 분)의 응급처치로 순봉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듯 했다. <br/> <br/>최종회에서는 순봉씨의 마지막 일곱 번째 소원이 무엇일지, 과연 순봉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7시 55분에 방송된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2.txt

제목: 암흑물질 존재 증거 발견, 70년 전 성립된 이론...뒷받침 증거 나타나  
날짜: 201502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510016323296  
본문: 암흑물질 존재 증거 발견암흑물질 존재 증거 발견, 70년 전 성립된 이론...뒷받침 증거 나타나 <br/> <br/>암흑물질 존재 증거 발견이 돼 네티즌들의 시선을 끈다. 지난해 12월 텔레그래프는 천문학자들이 암흑물질 존재 증거 발견의 증거로 암흑물질의 신호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암흑물질은 우주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신비의 존재다. 암흑물질은 70년 전에 처음으로 그 이론이 성립되었지만 지금까지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단순한 이론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우주국(ESA)의 XMM뉴튼 우주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페르세우스 은하군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X선이 방출되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했다. 연구진은 이전에 알려진 입자나 원자와는 다른 이 X선을 암흑물질 신호로 판단했다.  한편 보야르스키는 “이번 발견으로 암흑물질의 신호들을 찾기 위해 새로운 망원경 개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암흑물질 신호 발견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3.txt

제목: [S 스토리] 단절된 사회 슬픈 자화상 '고독사'  
날짜: 20150214  
기자: 울산=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410016316398  
본문: 지난해 1월 울산시 남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모(66·여)씨가 지병으로 숨졌다. 그러나 그의 임종을 지키는 가족은 없었다. 슬하에 아들(35)이 하나 있지만 남이나 다름없었다. 친척들과도 20년 넘도록 왕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아들과 이씨의 오빠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내 가족이 아니다”며 장례를 거부했다. 그는 그렇게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됐다. 시신은 57일 동안 병원 안치실에 있다가 겨우 장례가 치러졌다. 하지만 이씨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다. 비록 가족은 없었지만 곁에 ‘희망나눔 동행’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었다. 희망나눔 동행처럼 단절된 사회 속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소외로 고독사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br/> <br/>2010년쯤부터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던 희망나눔 동행은 지난해부터 쓸쓸히 생을 마감한 이들의 하늘 소풍길을 돌보고 있다. 지난달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했다. 장례지도사 30명 등 모두 12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등을 통해 무연고자나 고독사한 시신에 대한 장례 의뢰가 들어오면 입관부터 염, 운구, 화장, 봉안당 안치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대신해 준다. 장례에 드는 비용 중 75만원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한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희망나눔 동행 심문택(69) 회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외로운 죽음은 현실이었다. 지난해 초 한 어르신이 숨진 지 3일 만에 발견됐다. 켜져 있던 전기장판 때문에 시신은 심하게 부패됐었다.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 외롭게 맞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엔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과 울산 중구지역 무연고자 18명의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쓸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영정사진도 없었다.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만이 쓰인 하얀 위패가 그들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다. <br/> <br/>희망나눔 동행은 고독사 예방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회원들을 2인1조로 꾸려 독거노인을 매주 방문하고 하루에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br/> <br/>심 회장은 “적어도 사망 후 한참 뒤에 발견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r/> <br/>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은 올해로 16년째 장례봉사를 하고 있다. 처음엔 강봉희(62) 단장이 마음 맞는 사람과 이 일을 시작했지만 2009년 11월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인 봉사에 나섰다. 현재 회원은 300여명에 이른다. 이 봉사단도 모든 장례 절차를 대신 해주고 있다. 매년 치르는 장례는 70∼80건 정도. 장례에 드는 1억여원의 비용은 회비로 해결한다. 강 단장은 “1997년쯤 암에 걸려 석 달도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새로 얻은 삶은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쓸쓸히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돕고 싶었다. 고단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가는 길마저 초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r/> <br/>화장을 기다리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봉사단이 장례를 치러준 무연고자는 대부분 고독사했다. 혼자서 죽음을 맞았고 수일이 지나서야 주변에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 어렵게 찾은 친척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일도 많았다. 최근 장례를 치른 김모(63)씨는 지난달 대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에게 가족은 없었다. 인천에 살고 있는 김씨의 어머니(82)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장례를 치를 여력이 안 된다며 시신을 포기했다. 결국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돼 상주 없는 장례를 치렀다. 강 단장은 “<span class='quot0'>단절된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매번 안타깝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고독사를 막기 위해 2013년 7월 창립된 시민단체 ‘한국1인가구연합’은 장례봉사에서 더 나아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청소년과 부모, 조부모세대 등 3대를 4인 이상 가족으로 만들어 ‘홀로 또 같이’, ‘따로 또 함께’ 운동을 벌인다. 사회관계망을 만들어 연대감을 증진하자는 취지이다. 21명의 변호사들은 법률지원과 함께 회원들에게 신변 정리를 위한 ‘엔딩노트’를 쓰도록 권유하고 치매 환자 후견 지원과 무연사 방지운동도 벌이고 있다. 가입 회원 수는 230여명이다. 송영신(43) 대표는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만이라도 쓸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사회적 가족’을 천천히 늘려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br/> <br/>무연고자들의 장례를 마을 이웃이 치러주도록 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제를 시행 중이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지자체와 이웃들이 나서 장례, 화장, 사망신고 등을 맡아 처리해 준다. <br/> <br/>광주시 남구와 북구 등도 이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서울시 노원구는 2013년부터 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구성, 운영 중이다. 두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통장, 복지동장이 ‘상주’가 된다. 상주는 마을사람, 협력기관 등과 함께 영결식을 치른다. 노원구는 또 지난해 3월부터 고독사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파악한 뒤 임종 전 돌봄부터 사후 장례지원까지 책임진다. 양천구도 주민들과 함께 고독사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돌봄과 연계한 장례지원을 하고 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4.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美 티젠과 '암치료제 개발' MOU  
날짜: 2015021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310016313330  
본문: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왼쪽)과 티젠의 제프리 M 트렌트 회장이 암 치료제 연구개발의 공동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13일 초기 임상연구 신약 개발의 선두 주자인 미국 제약회사 티젠(Tgen)과 유전체 기반 맞춤 암 치료제 연구개발의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r/> <br/>티젠은 초기 진단과 혁신적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연구단체로, 지난 2002년 6월 설립됐다. 현재 미국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한 달 평균 20건 이상 진행하며, 기초과학에서의 연구 결과를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해 ‘임상시험의 메카’로도 불린다. 현재 암 환자들에게 많이 쓰는 항암제인 파클리탁셀(Paclitaxel), 젬시타빈(gemcitabine) 등 다양한 신약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br/> <br/>티젠이 미국 외 나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과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3년간 전이성 위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개인 맞춤 암 치료 프로그램(IPCP)을 3년 동안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들 암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 일반적 암 환자와는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그에 맞춰 티젠이 확보한 유전체 기반 표적 치료제를 들여와 환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br/> <br/>제프리 M 트렌트 티젠 회장은 “<span class='quot0'>IPCP는 유전체 기반 임상시험의 혁신적 연구 성과로 연결되리라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한 유전체 기반 개인 맞춤 암 치료 발전에 선도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도 “<span class='quot1'>위암, 폐암 등 5대 암에서 시작해 희귀암 등으로 확대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 맞춤형 유전체 치료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2)3410-3692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5.txt

제목: 구혜선,“첫 의사 연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날짜: 2015021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310016307346  
본문:   <br/> <br/> <br/>“<span class='quot0'>구혜선의 숨겨진 카리스마 대 방출!</span>” <br/> <br/> ‘블러드(Blood)’ 구혜선이 선혈낭자한 수술실에서 카리스마 여의사의 면모를 뽐냈다. <br/> <br/>구혜선은 오는 16일 첫 방송될 KBS 새 월화드라마 ‘블러드(Blood)’(극본 박재범/ 연출 기민수/ 제작 IOK미디어)에서 오만 방자한 철부지 상속녀로,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의술을 겸비한 태민 암병원 간담췌외과 전문의 2년차 유리타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 구혜선은 데뷔 후 처음 의사 역에 도전, 전문직 여성다운 지적인 이미지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무엇보다 구혜선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열정적으로 수술에 임하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유의 크고 선명한 눈망울과 뽀얀 피부가 파란 수술복과 어우러져 남다른 포스를 내뿜었던 것. 구혜선의 얼굴은 수술모와 수술마스크로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이마를 타고 내리는 구슬땀과 긴장감 넘치는 날카로운 눈빛이 수술실의 긴박함을 고스란히 전했다. 또한 구혜선은 환자의 피가 점점이 튀어 새빨갛게 물든 얼굴을 하고서도 차갑게 냉정을 유지, 실제 외과의 같은 카리스마를 과시했다. <br/> <br/>구혜선이 의사 유리타로서 처음 수술대에 선 장면은 지난 달 2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촬영되었다. 이 날 촬영은 끊임없는 수술 시연과 자문, 연습과 리허설을 반복하며 장장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수술실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치열하게 의사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구혜선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현장이었던 것. 구혜선은 첫 수술 집도 연기에 대한 설렘을 드러내며 쉼 없이 수술 도구를 들고 연습을 거듭했다. 이어 의료진의 자문을 꼼꼼히 들으며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의를 불태웠던 터. <br/> <br/>특히 구혜선의 수술실 열연은 여러 선후배 연기자들과의 의기투합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귀띔이다. 안재현, 김유석, 김갑수 등 극 중 태민 암 병원 핵심 인물들과 함께 실제 의료진들도 참관, 뜨거운 응원을 보냈던 것. 구혜선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여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br/> <br/>제작사 IOK미디어 측은 “연기에 대한 열정과 리타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있는 구혜선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며 “첫 의사 연기에 도전하는 구혜선의 열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r/> <br/>한편 ‘블러드’는 국내 최고의 태민 암 병원을 중심으로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의 존귀함과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뱀파이어 외과의사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판타지 메디컬 드라마. ‘굿 닥터’ 기민수-박재범 콤비가 파격과 관록을 두루 갖춘 신뢰감 100% 라인업으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블러드’는 오는 16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6.txt

제목: 인하대병원 여성암센터, 유방암 건강공개강좌 성료  
날짜: 2015021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310016311558  
본문:   <br/> <br/>인하대병원은 병원 3층 강당에서 암환자와 가족 및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방암 건강공개강좌를 실시했다. <br/> <br/>이날 강좌에는 외과 조영업 교수(여성암센터 소장)와 김세중 교수가 유방암의 유전성과 유전체 검사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조영업 센터장은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여성암 환자들의 보다 편안하고 전문적인 암 치료를 위해 2005년에 여성암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여성암 극복을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인하대병원은 3월 중순 병원 증축 완공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화된 여성암 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7.txt

제목: '보기 예쁘면서 건강에도 좋은' 컬러푸드가 뜬다  
날짜: 2015021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310016322096  
본문: 최근 자신의 건강에 맞는 다양한 컬러푸드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컬러푸드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유의 색상을 가진 자연식품을 뜻하며 보통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식품으로 구분한다. <br/> <br/>자연에서 재배한 과일·채소의 고유한 천연색소에는 색깔 별로 각기 다른 성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다양한 생리작용으로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시키므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망고, 체리, 오렌지, 브로콜리, 포도, 배 등이 대표적 식품이다. <br/> <br/>컬러푸드는 시각과 미각, 건강이라는 3박자를 갖춰 ‘보기에 예쁘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가 암을 예방하려면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라고 권장하면서 그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br/> <br/>컬러푸드가 ‘대세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자 식품업계에서는 화려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색깔 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 역시 뜨겁다. <br/> <br/>◆Yellow Food=’옐로 푸드(Yellow Food)’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베타카로틴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에 특히 섭취하기 좋다. 대표적인 옐로 푸드 망고는 100g당 64kcal의 저칼로리 음식으로 베타카로틴 성분뿐 아니라 제아잔틴 등의 항산화제가 함유돼 여성들의 미용 관리에 도움을 준다. 홀푸드 디자이너 자연원은 ‘두번 엄선한 냉동과일’ 시리즈를 선보이며 컬러푸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원의 두번 엄선한 냉동과일은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냉동시킨 제품으로 자연 해동 후 바로 먹으면 생과 본연의 맛과 영양을 느낄 수 있다. 옐로푸드 망고를 먹기 좋게 잘라 급속 냉동한 ‘두번 엄선한 스위트망고’는 망고의 풍부한 섬유질을 그대로 제품에 담았다. <br/> <br/>◆Red Food=레드푸드(Red Food)에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토마토, 수박, 석류, 체리 등이 있다. 특히 과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는 비타민 A·C·E 성분이 함유돼 피부노화 방지는 물론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이며 소화작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원의 ‘두번 엄선한 냉동 체리’는 씨와 꼭지를 제거한 체리를 담아 언제 어디서나 간식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게 했다. 뒷면에 제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가 제공돼 취향에 따라 달콤한 아이스크림부터 케익, 에이드, 푸딩, 잼 등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br/> <br/>◆Green Food=브로콜리, 배추, 케일, 양배추, 해초류 등의 그린푸드(Green Food)는 체내의 중금속 성분 및 유해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엽록소와 무기질,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특히 브로콜리는 피부에 생기를 불어 넣는 비타민E와 변비에 좋은 식물성 섬유도 풍부하다. 웅진식품의 건강주스 ‘자연은 데일리톡-브로콜리와 5가지 야채과일’은 그린푸드 브로콜리와 건강에 좋은 야채·과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만들었다. 제품에 함유된 프락토 올리고당은 체내 유산균을 활성화시켜 장과 간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br/> <br/>◆Purple Food=포도, 블루베리, 가지 등의 보라색을 띄는 퍼플푸드(Purple Food)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를 방지하며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그 외에도 눈의 망막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 눈 건강을 증진시킨다. 특히 베리의 왕 블루베리는 생과 보다 냉동으로 섭취할 때 의학적 효능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식품학과 연구진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얼릴 경우 함유된 항산화 물질 농도가 더욱 증가한다. 자연원의 ‘두번 엄선한 냉동 블루베리’는 이러한 블루베리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제품이다. 자연 그대로의 블루베리를 손질해 급속 냉동시켰으며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 스무디로 먹거나 머핀·파이 등 제과 제빵에 활용해 먹어도 좋다. 스무디 브랜드 잠바주스는 겨울을 맞아 따뜻하게 포도를 즐길 수 있는 ‘포도 핫 주스’를 출시했다. 잠바주스의 ‘포도 핫 주스’는 100% 포도만을 착즙해 포도의 새콤한 맛은 물론 비타민과 유기산 등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br/> <br/>◆White Food=마늘, 양파, 버섯, 배 등 흰색 계통의 화이트 푸드에는 바이러스 저항력을 길러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다.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봄 철 황사가 심할 때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다.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푸드 브랜드 베이비오는 화이트 푸드 ‘배’를 활용한 과일 칩을 선보이고 있다.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들이 먹기 쉽게 안전을 강화했으며 생과일의 배를 그대로 동결건조해 영양 손실을 최소화했다. 바삭한 식감으로 간식으로 즐기기에 알맞다. <br/> <br/>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컬러푸드 신드롬을 타고 상큼한 과일과 형형색색의 채소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풍부한 영양소와 화려한 색감, 고유의 맛을 다 갖춘 컬러푸드를 활용한 제품의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8.txt

제목: 삼성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보험료 차이 없어  
날짜: 20150212  
기자: 이가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191042279  
본문: 삼성생명 온라인보험 중 일부 상품은 설계사나 전화로 가입하는 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온라인 보험이 더 싸다"는 상식을 역이용하는 '마케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온라인 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대비 보험료가 10~30% 가량 저렴하다.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계사들을 위한 지점임대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TM, Telemarketing)로 가입하는 보험은 지점 임대료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오프라인 대비 10% 가량 보험료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br/> <br/>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암보험은 오프라인상품과 TM상품의 보험료가 동일했고, 온라인상품은 약 1% 저렴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정기보험은 오프라인상품과 TM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약 10% 발생했지만 TM상품과 온라인상품의 가격 차이는 2%에 그쳤다. <br/> <br/>40세 남성이 삼성생명 암보험(2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자궁암 800만원, 암으로 인한 사망 4000만원)에 동일 기준으로 가입했다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상품의 보험료는 1만3800원이다. 전화를 통해 TM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과 보험료가 똑같았다. 저렴하다는 강조한 온라인상품은 약 200원 저렴한 1만3628원이었다. <br/> <br/> <br/> <br/> <br/>  <br/>삼성생명의 정기보험도 TM상품과 온라인상품의 가격이 같았다.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사망시 2억원을 보장받는다는 동일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오프라인상품은 매달 보험료로 7만1280원을 내야 한다. TM상품은 오프라인상품보다 약 8% 저렴한 6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TM상품 대비 온라인상품은 6만4680원으로 2% 저렴한 것에 그쳤다. <br/>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TM이나 온라인 가입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동일한 보장에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하고 온라인으로 가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동일 보장일 때 오프라인상품이 가장 보험료가 비싸고 TM상품, 온라인상품 순"이라며 "채널별로 보험료가 같다는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br/> <br/>문제는 삼성생명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보험의 장점의 첫 번째로 ‘수수료가 적어 저렴한 보험료’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상품별 가격을 확인한 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TM상품과 온라인상품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서비스"라고 어필했다.  <br/>그러나 보험업계의 관계자들의 의견은 삼성생명 관계자와 다르다. 손해보험사의 온라인자동차보험과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만들어 놓은 온라인 보험의 이미지만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오프라인 대비 TM과 온라인 채널은 단계적으로 사업비가 낮아지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은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이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69.txt

제목: "흡연 유해성, 통념보다 훨씬 커"  
날짜: 20150212  
기자: 유태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210016307124  
본문: 흡연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암협회(ACS)와 여러 대학이 참여한 연구진이 55세 이상 미국인 남녀 100만명가량의 10년치 건강기록을 분석한 결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질병이 최소 5개나 추가됐다고 밝혔다. <br/> <br/>지금껏 흡연으로 사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은 폐암 등 12종의 암을 포함해 모두 21가지였으나 신부전, 감염, 간경화, 혈류 감소로 인한 장허혈, 일부 호흡기 질환도 새로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 결과 흡연은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2배 높이며, 감염·간경화·장허혈로 인한 사망위험은 각각 2.3배, 3.1배, 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흡연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2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흡연 관련 사망자 수는 매년 6만∼12만명 정도 늘어난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br/> <br/>이번 연구는 흡연 습관과 건강의 통계적 상관성을 밝힌 것으로, 의학 실험과 달리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ACS의 브라이언 카터 박사는 “흡연은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 위협을 높인다. 흡연이 유발하는 당뇨, 고혈압, 동맥질환은 신장에 영향을 미치며 폐손상 환자가 감염에 노출되면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br/> <br/>유태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0.txt

제목: KBS 다큐 미래의학보고서, 전 세계 퍼지는 ‘면역치료’ 효능 소개  
날짜: 2015021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210016303345  
본문: 자연요법, 민간요법으로 여겨지던 면역치료가 세계 의학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자연을 매개로 한 치료법을 중시하는 독일, 막대한 돈을 들여 면역치료 발전에 힘을 쏟는 미국 등 KBS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암환자의 행복한 투병을 위한 의학계 면역치료의 현주소를 카메라에 담았다. <br/> <br/>종양의 크기를 줄이는데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학은 항암이나 수술, 방사선 치료 중 겪게 되는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3대 암센터 역시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사지, 마인드요법, 한방암치료 등을 접목하여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 <br/> <br/>12일 목요일 오후 11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인 이번 다큐멘터리는 행복한 투병을 추구하는 면역치료, 세계의 통합의학 흐름과 실제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1.txt

제목: 삼성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보험료 차이 없어  
날짜: 20150212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2100000091  
본문: 삼성생명 온라인보험 중 일부 상품은 설계사나 전화로 가입하는 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온라인 보험이 더 싸다"는 상식을 역이용하는 '마케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대비 보험료가 10~30% 가량 저렴하다.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계사들을 위한 지점임대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TM, Telemarketing)로 가입하는 보험은 지점 임대료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오프라인 대비 10% 가량 보험료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암보험은 오프라인상품과 TM상품의 보험료가 동일했고, 온라인상품은 약 1% 저렴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정기보험은 오프라인상품과 TM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약 10% 발생했지만 TM상품과 온라인상품의 가격 차이는 2%에 그쳤다.40세 남성이 삼성생명 암보험(2000만원, 일반암 2000만 원, 유방암·자궁암 800만원, 암으로 인한 사망 4000만원)에 동일 기준으로 가입했다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상품의 보험료는 1만3800원이다. 전화를 통해 TM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과 보험료가 똑같았다. 저렴하다는 강조한 온라인상품은 약 200원 저렴한 1만3628원이었다. 삼성생명의 정기보험도 TM상품과 온라인상품의 가격이 같았다.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사망시 2억원을 보장받는다는 동일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오프라인상품은 매달 보험료로 7만1280원을 내야 한다. TM상품은 오프라인상품보다 약 8% 저렴한 6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TM상품 대비 온라인상품은 6만4680원으로 2% 저렴한 것에 그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TM이나 온라인 가입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동일한 보장에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하고 온라인으로 가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동일 보장일 때 오프라인상품이 가장 보험료가 비싸고 TM상품, 온라인상품 순"이라며 "채널별로 보험료가 같다는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보험의 장점의 첫 번째로 ‘수수료가 적어 저렴한 보험료’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상품별 가격을 확인한 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TM상품과 온라인상품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서비스"라고 어필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관계자들의 의견은 삼성생명 관계자와 다르다. 손해보험사의 온라인자동차보험과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만들어 놓은 온라인 보험의 이미지만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오프라인 대비 TM과 온라인 채널은 단계적으로 사업비가 낮아지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은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이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2.txt

제목: [핫키워드]돌발성 난청 진단법, 설 스미싱 주의보, 해외발 홍역 확산,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삼치의 효능  
날짜: 2015021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210016300025  
본문:   <br/> <br/> <br/>돌발성 난청 진단법, 설 스미싱 주의보, 해외발 홍역 확산,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삼치의 효능 <br/> <br/>[핫키워드]돌발성 난청 진단법, 설 스미싱 주의보, 해외발 홍역 확산,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삼치의 효능 <br/> <br/>돌발성 난청 진단법, 설 스미싱 주의보, 해외발 홍역 확산,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삼치의 효능 <br/> <br/>  <br/> <br/>  <br/> <br/># 돌발성 난청 진단법 <br/> <br/>돌발성 난청 진단법으로는 기본적인 병력청취와 이경 검사를 실시하고 청력검사를 하여 난청의 정도를 알고, 다른 원인 질환들을 감별하도록 한다. 현기증이 있으면 전정기능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br/> <br/>필요에 따라 종양 발생의 감별을 위해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진행하고, 원인이 될 만한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살피려는 목적으로 각종 혈액검사와 염증성 질환 검사 등을 시행한다. <br/> <br/>돌발성 난청 치료법에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제를 주로 사용하며,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 확장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triiodobnezoic acid 유도체가 사용되기도 한다. <br/> <br/>추정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거나 수술적 요법 등으로 치료한다. <br/> <br/>  <br/> <br/>  <br/> <br/># 설 스미싱 주의보 <br/> <br/>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스미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br/> <br/>이 같은 내용의 문자 속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깔리면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당하고 금전피해도 당한다. <br/> <br/>정부도 지난 1월 스미싱 탐지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1% 늘어났다며 올 설을 맞아서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했다. <br/> <br/>아울러 스마트폰의 경우 환경설정에서 보안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br/> <br/>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로 신고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br/> <br/>  <br/> <br/>  <br/> <br/># 해외발 홍역 확산 <br/> <br/>지난해 홍역이 크게 유행한 중국에서는 최근 한 달 새 1천 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되는 등 올 들어 홍역이 다시 확산 기세로 돌아섰다. <br/> <br/>미국도 홍역 비상이다. 지난달 중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홍역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동부 뉴저지를 비롯해 17개 주에서 12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홍역이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br/> <br/>지난해 국내 홍역 환자의 97%는 외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와 중국에서 감염된 경우가 21명,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전파시킨 2차 감염 환자는 407명에 달한다. 호흡기로 전파되는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br/> <br/>자연 면역력이 생기는 50대 이전은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br/> <br/>보건당국은 해외여행 뒤 홍역이 의심되는 고열과 발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r/> <br/>  <br/> <br/>  <br/> <br/># 닐 암스트롱 가방 공개 <br/> <br/>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이 9일(현지시간) 암스트롱이 달 착륙 비행을 마치고 가져온 가방 속 물건들을 공개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br/> <br/>가방 속에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한 후 암스토롱이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촬영한 16㎜ 무비 카레마와 휴대용 다목적 소전등, 전선 케이블, 광학 관측용 기기 및 부속장비들, 허리용 묶음 장치 등 총 17점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br/> <br/>이 가방은 암스트롱이 지난 2012년 별세한 후 미망인 캐롤 여사가 오하이오 자택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벽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br/> <br/>장비를 모두 담은 가방의 무게는 약 4.5kg.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모선으로 돌아올 때 무게를 줄이기 가방은 달에 버려두기로 돼 있던 품목이었다. 그러나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등 함께 떠난 우주인들은 기념할만한 물품을 남기기 위해 가방을 몰래 챙겨 지구로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암스트롱의 유족과 박물관 측은 "암스트롱이 생전 누구에게도 가방 속 물건에 대해 언급한 적 없었다"고 전했다. 캐롤은 이 장비들을 모두 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은 16mm 무비 카메라를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임시 전시하고 있다. <br/> <br/>  <br/> <br/>  <br/> <br/># 설 연휴 임시 전동열차 운행 <br/> <br/>11일 코레일은 설 연휴기간 수도권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20일과 21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br/> <br/>연장운행 노선은 지하철 1·3·4호선,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 9개 노선이며 종착역 도착시각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이틀간 총 66회 운행한다. <br/> <br/>임시 전동열차 운행시각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전철톡, 철도고객센터 또는 각 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아울러 코레일은 설 연휴기간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br/> <br/>코레일 측은 "설 연휴 귀경 편의를 위해 심야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하게 됐다. 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r/> <br/>  <br/> <br/>  <br/> <br/># 삼치의 효능 <br/> <br/>삼치는 태아의 두뇌발달을 돕고 머리를 좋게 하며 노인들의 치매 예방, 기억력 증진,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삼치는 살이 희고 부드러워서 꽁치나 고등어보다 노인이나 아이들도 먹기 좋은 생선이다. <br/> <br/>특히 노인과 아이들에게 좋은 생선인 삼치는 삼치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이 제철이다. 삼치를 구입할 때 살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피하고 배와 몸 전체가 단단하고 탄력있는 것을 택해야 한다. <br/> <br/>한편 삼치를 보관할 때에는 소금을 뿌린 후 최대 한 달까지 영하20도에서 0도까지의 냉장 보관이 적절하다. <br/> <br/>  <br/>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3.txt

제목: [단독] 농협生 '3대건강보험', 고액암 보장 안해… "소비자 기만"  
날짜: 20150211  
기자: 임정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190750858  
본문: 한국인에게 주로 노출되는 치명적인 3대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NH농협생명의 3대질병보험에서 고액암 보장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3대질병이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한번 노출되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br/> <br/>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암은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으로 구분한다. 고액암은 뼈암, 혈액암(백혈병), 뇌암 등으로 발병확률은 낮지만 한 번 노출되면 다른 질병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한다. 3대 질병만 집중 고액암만 빠져 있어 반쪽짜리 보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br/> <br/>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의 '하나로NH3대질병보험'은 지난해 10월 15일 출시, 출시 한 달여 만에 판매 2만 건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3만 건 이상을 판매한 인기상품이다. 1영업일당 500건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br/> <br/>이 상품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집중 보장한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특약 없이 주계약만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농협은행에서 업무를 본 고객에게 3대질병의 위험을 말하며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는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납입하는 보험료도 40세 남성 3만원, 여성 2만원 가량에 불과해 최근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 상품은 3대질병 확진 시 3000만원(유방암 900만원, 소액암 300만원)을 보장한다. 10년 만기 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계약의 만기까지 생존 시 100만원을 건강축하자금으로 지급한다.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마다 갱신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br/> <br/>보험업계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3가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구분, '3CI(Critical Illness)'라고 표현한다. 3대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CI보험은 일반적으로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보장하고 이 중에서 암은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으로 세분해 보장 금액을 차등화한다. 고액암은 일반암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r/> <br/>그러나 하나로NH3대건강보험은 보장하는 암에서 고액암이 빠져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암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암 종류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액암만 빠져 있는 경우는 없다"며 "암이 보장된다고 알리면서 고액암을 보장에서 빼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혈병, 뼈암, 척수암 등은 가장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며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 중에서 고액암, 소액암 등의 암 질환을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이라고 일갈했다. <br/> <br/>NH농협생명 관계자는 "납입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병 확률이 높지 않은 고액암은 보장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br/> <br/>보험상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장하는 질환이 빠지면 그만큼 납입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 따라서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고액암을 보장받지 못해 보험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4.txt

제목: KT, 삼성서울병원과 암 유전체 분석 연구협약 체결  
날짜: 20150211  
기자: truth@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1100000053  
본문: KT(회장 황창규)와 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암 유전자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는 암 유전체 분석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암 유전체 분석은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같은 암이라도 개인특성에 따라 항암제 처방을 각각 다르게 하는 암 맞춤의학의 핵심 기술이다. 현재는 항암제 투여 후 치료반응에 따라 약물의 종류와 항암횟수를 결정한다. 하지만 암 유전체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암제 종류와 투여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 항암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된다.KT는 두 기관이 각자가 가진 클라우드 컴퓨팅, 유전체 분석 플랫폼 등 ICT 기술과 암 치료 및 암 유전체 분석 노하우 등 의료 역량을 융합해 1000명의 암환자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분석을 통해 암유발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해 암 맞춤의료 및 유전체 분석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KT는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암 유병자를 위한 맞춤의학 발전을 가능하게 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차동석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는 "개인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 의료서비스가 보편화되면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와 분석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바이오인포매틱스 기반 유전체 분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맞춤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연구·진료 간 연계 인프라 강화 및 국내외 연구자,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암에 대한 개인 맞춤의학의 세계적 선도 기관으로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박웅양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 소장은 "향후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암유전체 분석으로 본원의 암 맞춤의료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KT는 현재 암이나 뇌질환 등 불치병 해결을 위해 커넥톰 프로젝트(Connectome·뇌지도) 참여, 공동 설립 등 학계와의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5.txt

제목: [단독] 농협生 '3대건강보험', 고액암 보장 안해… "소비자 기만"  
날짜: 20150211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1100000077  
본문: 한국인에게 주로 노출되는 치명적인 3대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NH농협생명의 3대질병보험에서 고액암 보장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대질병이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한번 노출되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이다.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암은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으로 구분한다. 고액암은 뼈암, 혈액암(백혈병), 뇌암 등으로 발병확률은 낮지만 한 번 노출되면 다른 질병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한다. 3대 질병만 집중 고액암만 빠져 있어 반쪽짜리 보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의 '하나로NH3대질병보험'은 지난해 10월 15일 출시, 출시 한 달여 만에 판매 2만 건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3만 건 이상을 판매한 인기상품이다. 1영업일당 500건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이 상품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집중 보장한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특약 없이 주계약만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농협은행에서 업무를 본 고객에게 3대질병의 위험을 말하며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는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납입하는 보험료도 40세 남성 3만원, 여성 2만원 가량에 불과해 최근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이 상품은 3대질병 확진 시 3000만원(유방암 900만원, 소액암 300만원)을 보장한다. 10년 만기 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계약의 만기까지 생존 시 100만원을 건강축하자금으로 지급한다.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마다 갱신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보험업계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3가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구분, '3CI(Critical Illness)'라고 표현한다. 3대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CI보험은 일반적으로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보장하고 이 중에서 암은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으로 세분해 보장 금액을 차등화한다. 고액암은 일반암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하나로NH3대건강보험은 보장하는 암에서 고액암이 빠져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암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암 종류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액암만 빠져 있는 경우는 없다"며 "암이 보장된다고 알리면서 고액암을 보장에서 빼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혈병, 뼈암, 척수암 등은 가장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며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 중에서 고액암, 소액암 등의 암 질환을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이라고 일갈했다.NH농협생명 관계자는 "납입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병 확률이 높지 않은 고액암은 보장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보험상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장하는 질환이 빠지면 그만큼 납입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 따라서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고액암을 보장받지 못해 보험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6.txt

제목: 70세 이후 男 ‘폐암’·女 ‘대장암’ 최다  
날짜: 2015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010016282908  
본문: 우리나라 남성은 70세 이후 폐암에, 여성은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r/> <br/>10일 국립암센터의 2012년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44세까지 갑상선암, 50∼69세는 위암,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은 69세까지 갑상선암, 70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많이 발생해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br/> <br/>모든 암의 연령별 발생률은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가 50대 후반부터는 역전됐다. <br/> <br/>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은 갑상선암(22.6%), 전립선암(12.7%), 유방암(5.8%), 대장암(5.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간암(-1.9%)은 1999년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 <br/> <br/>성별로는 남성의 주요 암 증가율은 갑상선암-전립선암-대장암 등의 순이었고 간암과 폐암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암-유방암-대장암 등의 순이었고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증가율이 떨어졌다. <br/> <br/>모든 암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999년 219.9명에서 2012년 319.5명으로 늘어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999년 291.9명에서 2012년 337.2명으로 1.6%의 연평균 증가율을, 여성은 1999년 173.3명에서 2012년 321.3명으로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7.txt

제목: 도미의 효능, 고급 요리로 불리는 이유는? 산후조리 영양식으로도 '으뜸'  
날짜: 201502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010016282013  
본문:   <br/> <br/>도미의 효능, 고급 요리로 불리는 이유는? 산후조리 영양식으로도 '으뜸' <br/> <br/>도미의 효능이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br/> <br/>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도미의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br/> <br/>‘생선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귀한 도미는 맛도 있지만, 다른 생선보다 상하지 않고 담백해 예로부터 고급 요리에 두루 쓰였다. <br/> <br/>도미의 효능으로는 도미가 지방이 적고 살이 단단한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 환자나 노인의 식사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도미의 머리로 맑은 국을 끓여서 산후조리의 영양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도미의 눈 주위에는 뼈를 형성하고 골절치료와 피부미용에 효능이 있는 젤라틴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br/> <br/>또한 도미는 타우린이 풍부해 알코올을 해독하고 담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며, 암이 옮겨가는 것을 막아주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미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타민 B1이 많아 피로회복에도 좋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8.txt

제목: 테고사이언스, 연골조직재생용 조성물 특허 등록  
날짜: 20150210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1010016282956  
본문: 테고사이언스(대표이사 전세화)는 지난 9일 ‘줄기세포 인 비보(in vivo) 이동 유도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공시했다. <br/> <br/>특허 받은 이 기술은 체외에서 배양된 줄기세포를 손상된 부위로 주입하는 기존 줄기세포치료제와 달리, 화학주성인자(케모카인)를 이용해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손상된 조직으로 빠르게 이동시켜 조직을 재생시킨다. <br/> <br/>다양한 물성, 형태, 크기의 이식물로 만들어 인체에 삽입,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 및 암으로 손상된 골 및 연골을 재생하기 위한 치료에 적용할 계획이다. “<span class='quot0'>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이식하는 번거로움 없이 손상부위로 체내 줄기세포를 다량 유도하는 등 간편하고 효과적이다</span>”고 회사 측은 말했다. <br/> <br/>테고사이언스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진우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았으며, 테고R&D팀은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에 입주해 후속 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2012년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자체적으로 상용화 연구에 착수했다. <br/> <br/>테고사이언스 전세화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1'>줄기세포 인 비보(in vivo) 이동 유도 기술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도 특허 심사 중에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줄기세포를 배양하지 않아도 되는 ‘신개념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br/> <br/>한편 테고사이언스는 동일한 기술로 피부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유도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2014년 11월에 취득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79.txt

제목: 英서도 “60대는 더이상 노인 아냐”  
날짜: 20150209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910016274055  
본문: 우리나라에서 60대는 경로당에서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영국에서도 60대는 더 이상 노인으로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장수센터(ILC)는 ‘50대 이상이 겪는 중병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병을 앓는 60대 비율이 10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심장마비와 심장 발작, 암, 치매, 파킨슨병 등을 노년에 겪는 대표적인 중병으로 분류했다. <br/> <br/>연구진이 2002∼2012년 영국 노화 종단 연구(ELSA)를 분석한 결과 연구에 표본으로 참여 중인 60∼64세 가운데 중병을 앓은 이들의 비율은 2002년 13.8%에서 2012년 7.7%로 대폭 줄었다. 65∼69세 가운데 중병을 적어도 한 번 겪어본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 역시 2002년 17.3%에서 2012년 11.7%로 격감했다. 이는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사람에게 중병이 발병하는 시기가 늦춰졌음을 의미한다. <br/> <br/>고령 근로자와 관련해 영국 정부에 자문하는 로스 알트만은 “이는 환상적인 뉴스”라며 “<span class='quot0'>이제 60대는 전통적인 의미의 노인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 <br/> <br/>60대 초반에서 중병 환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흡연 감소와 식습관 및 건강 관리 개선으로 심장마비와 심장 발작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0.txt

제목: [WT논평] The silence of the lefties  
날짜: 20150209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910016275215  
본문: This column over the years has been interested in liberalism in a special way, as a coroner is interested in a corpse in a special way. Specifically, I have been interested in the pathologies that laid the patient low. What precisely has been the cause of death? <br/> <br/>The coroner asks what made a robust fellow a corpse. Was it a remorseless cancer or a tragic accident? Was it Huntington’s disease or something else, possibly, simple alcoholism? In the case of the liberal, the cause of death was almost certainly a massive over-indulgence. Simply stated, the liberals attempted too much. They even attempted to solve problems that were not conventionally understood as problems. After all, there were no plausible solutions, for instance, for the elimination poverty, which in America amounts to relative deprivation, not destitution. How can we solve a citizen’s relative deprivation? <br/> <br/>As a result of liberalism’s morbidity, there are places in America where the liberal once thrived but now has completely vanished. Consider talk radio. I can remember back when the liberal completely dominated the medium. Back in the late 1950s, the 1960s, even in the 1970s, there were people like Jerry Williams in Boston and Irv Kupcinet in Chicago. Now they are gone. Even when Al Gore summoned the left’s billionaires to subsidize talk radio with something called Air America, the endeavor utterly failed. <br/> <br/>Frankly, I am surprised by the dominance of conservatism on talk radio. There is nothing like this conservative dominance in television. To be sure there is Fox News, but the contagion has not spread to any of the networks. There and on CNN and on MSNBC, the left presides as though all America were hanging on every word from Chuck Todd or from George Stephanopoulos rather than laughing out loud at their fatuities. Why have not conservative talk radio’s sages made a mark on the networks, CNN and MSNBC, especially when Fox News is more lucrative than all the news organizations combined? Would not a profit-driven executive at network news want to broadcast Rush Limbaugh or Mark Levin? <br/> <br/>One could not listen to Air America for long without hearing one of its luminous minds call some conservative an anatomical part instrumental in evacuation or make some other coarse remark. <br/> <br/>Yet the sincere heart of a left-winger ought to be kept in check. Nowadays, such sincerity betrays the fact that the lefty has nothing very intelligent to say. Liberalism is ― as you have heard me say ― dead. <br/> <br/>진보주의가 토크 라디오에서 전멸한 까닭 <br/> <br/>R 에밋 티렐 2세(아메리칸 스펙테이터 주필) <br/> <br/>이 칼럼은 다년간 특별한 방식으로 진보주의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검시관이 특수한 방식으로 시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특히 필자는 환자를 죽이는 여러 질병에 관심을 기울였다. 죽음의 완전한 원인은 무엇인가. <br/> <br/>검시관은 무엇이 건강한 사람을 시체로 만들었는가 묻는다. 무자비한 암이나 혹은 비극적인 사고였는가. 헌팅턴 병이나 혹은 어쩌면 단순한 알코올의존증 같은 다른 어떤 것이었을까. 진보주의자의 경우에 죽음의 원인은 심한 방종인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간단히 말해서 진보주의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했다. 그들은 심지어, 전통적으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해결하려 들었다. 예컨대 가난의 제거를 위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은 결국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가난은 궁핍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해당된다.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br/> <br/>진보주의가 병적이고 불건전한 결과로, 과거에 진보주의가 번성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분야들이 여러 곳 존재한다. 토크 라디오를 고려해보자. 진보주의가 이 매체를 완전히 지배했던 시대를 필자는 기억할 수 있다. 과거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및 심지어 1970년대조차도 보스턴의 제리 윌리엄스와 시카고의 어브 컵시네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그들은 사라졌다. 심지어 앨 고어가 좌익 억만장자들에게 에어아메리카란 이름의 토크 라디오에 지원을 제공하라고 소명을 내렸을 때조차도 그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 <br/> <br/>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보수주의가 토크 라디오를 지배하는 사실에 놀란다. TV에서는 이런 보수주의의 지배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폭스뉴스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염이 다른 여러 네트워크로 확산되지 않았다. 여러 네트워크와 CNN 및 MSNBC에서는 좌익이 주도한다. 마치 전 미국이 척 토드 혹은 조지 스테파노풀로스의 어리석은 언행을 큰소리로 비웃기는커녕 두 사람의 모든 말을 열심히 듣기라도 하는 듯이 그렇다. 보수파 토크 라디오의 박식한 사람들이 여러 네트워크와 CNN 및 MSNBC에 표시를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폭스뉴스가 이 모든 뉴스 기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시기에조차 표시를 못 남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트워크 뉴스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어느 중역이 러시 림보 혹은 마크 레빈의 프로를 방송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br/> <br/>에어아메리카를 잠시 동안만 청취하면 이 방송의 빛나는 영혼들이 특정한 보수파 인사를 가리켜 배설에 중요한 해부학적 부위로 표현하거나 혹은 다른 조잡한 논평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br/> <br/>그러나 좌익분자의 그런 정직한 마음은 제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그런 정직성은, 그 좌익분자에게 매우 지적인 발언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독자가 필자로부터 누차 들은 바와 같이 진보주의는 죽었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1.txt

제목: 흑삼, 홍삼보다 사포닌 성분 9배 더 많다  
날짜: 20150208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810016261967  
본문: 8일 오전 방송된 JTBC 에서 홍삼 특이 사포닌 성분 Rg3가 홍삼보다 9배 더 많은 구증구포 흑삼의 효능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br/> <br/>이날 방송에선 유방암 수술 후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쓴다는 한 중견 여성 탤런트의 식습관이 다뤄졌다. <br/> <br/>특히 이 여성은 암 수술 후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를 기대하며 선물받은 흑삼을 종종 챙겨 먹고 있다. <br/> <br/>한 전문가는 “<span class='quot0'>검은 인삼이라는 의미의 흑삼은 인삼을 한두 번 쪄서 말린 홍삼과 달리 인삼을 아홉 번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의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색이 검게 변하게 된다</span>”고 전했다. <br/> <br/>이어 “인삼을 찌면 찔수록 수용성 사포닌은 떨어져 나가고, 세포막 투과율이 높아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인 지용성 사포닌이 극대화된다”고 덧붙였다. <br/> <br/>실제 흑삼은 학계의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 인삼을 홍삼화 시키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홍삼 특이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 Rg3 등 여러 유효 성분이 구증구포 과정에서 대폭 강화되면서 면역 세포 활성화, 암 전이 억제, 혈당 조절, 기억력 개선, 체중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 <br/>이에 따라 흑삼이 최근 건기식 업계 대세 소재로 부상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흑삼 제품을 선보이는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br/> <br/>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CJ제일제당의 ‘구증구포 한뿌리 흑삼진액’은 구증구포 기법으로 만들어진 국내산 흑삼을 100% 추출한 제품으로 국내 흑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2.txt

제목: 그라비올라, 알고보니 만병통치약? "고혈압-암예방에 탁월" 세상에  
날짜: 2015020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810016260288  
본문: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br/>그라비올라, 알고보니 만병통치약? "고혈압-암예방에 탁월" 세상에 <br/> <br/>그라비올라의 효능이 공개돼 화제다. <br/> <br/>최근 방송된 SBS '생방송투데이' 똑똑한 건강백서에서는 그라비올라에 대한 정보가 소개됐다. <br/> <br/>그라비올라는 인도와 필리핀, 남미 등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돼 온 열대 식물이다. 현지인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이용된 만큼, 그라비올라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br/> <br/>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라비올라를 뜨거운 물에 끓여 우려내 차로 마신다. 하지만 그라비올라 잎을 우려낸 물로 천연 그라비올라 비누를 만들거나 미스트로 만들어 사용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br/> <br/>그라비올라는 칼륨 함량이 높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성이 있어 고혈압 환자들의 치료법으로도 알려져있다. <br/> <br/>김소형 한의사는 "그라비올라 차를 마시면 고혈압은 물론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등을 포함한 항산화물질인 파이토케미칼도 풍부해 염증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br/> <br/>그러나 그라비올라의 뿌리에는 독성이 있어 반드시 정제된 잎만을 적량 복용해야 한다. 또 임신부나 저혈압 환자는 되도록 복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3.txt

제목: 그라비올라, 잘못 섭취하면 '독약' 된다 …임산부는 피해야  
날짜: 2015020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810016260429  
본문: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br/>그라비올라, 잘못 섭취하면 '독약' 된다 …임산부는 피해야 <br/> <br/>그라비올라의 효능과 단점이 공개됐다. <br/> <br/>최근 방송된 SBS '생방송투데이' 똑똑한 건강백서에서는 그라비올라에 대한 정보가 소개됐다.그라비올라는 인도와 필리핀, 남미 등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돼 온 열대 식물이다. 현지인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이용된 만큼, 그라비올라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br/> <br/>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라비올라를 뜨거운 물에 끓여 우려내 차로 마신다. 하지만 그라비올라 잎을 우려낸 물로 천연 그라비올라 비누를 만들거나 미스트로 만들어 사용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br/> <br/>그라비올라는 칼륨 함량이 높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성이 있어 고혈압 환자들의 치료법으로도 알려져있다. <br/> <br/>김소형 한의사는 "그라비올라 차를 마시면 고혈압은 물론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등을 포함한 항산화물질인 파이토케미칼도 풍부해 염증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br/> <br/>그러나 그라비올라의 뿌리에는 독성이 있어 반드시 정제된 잎만을 적량 복용해야 한다. 또 임신부나 저혈압 환자는 되도록 복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4.txt

제목: [핫키워드]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요르단 IS 공습, 휴면계좌조회, 삼시세끼 시청률, 2월 축제 정보  
날짜: 2015020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710016259076  
본문:   <br/> <br/> <br/>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요르단 IS 공습, 휴면계좌조회, 삼시세끼 시청률, 2월 축제 정보 <br/> <br/>[핫키워드]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요르단 IS 공습, 휴면계좌조회, 삼시세끼 시청률, 2월 축제 정보 <br/> <br/>7일 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요르단 IS 공습, 휴면계좌조회, 삼시세끼 시청률, 2월 축제 정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br/> <br/># 이번엔 샤워장 이발소 <br/> <br/>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교황청은 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광장 돌기둥 사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조해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br/> <br/>샤워장에는 샤워기 3개가 설치됐으며 이용자들에게는 수건, 속옷, 비누, 치약, 면도기, 면도용 크림 등이 제공된다. <br/> <br/>교황 알현 행사로 번잡한 수요일을 빼고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br/> <br/>샤워장 옆에는 무료 이발소도 마련됐다. 로마의 이발소가 쉬는 월요일마다 이발사와 미용전공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노숙자들에게 이발과 면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 바티칸 사회복지 책임자인 콘라드 크라에프스키 주교가 프랑코라는 50세 노숙자에게서 '씻을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듣고 교황에게 보고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br/> <br/>교황은 또 최근 로마에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자 여행객들이 바티칸박물관에 놓고간 우산 300개를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br/> <br/>  <br/> <br/># 요르단 IS 공습 <br/> <br/>요르단군은 5일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시리아 내 IS 군사 훈련 시설과 무기고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순교자 마즈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날 공습에서 요르단은 IS가 수도로 삼는 시리아 동부 라카와 유전지대 데이르에조르를 집중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요르단 군은 "악랄한 행동을 저지른 IS를 처단할 것"이라며 "이번 공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br/> <br/>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습으로 알카사스베 중위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며 IS를 괴멸시키겠다"고 선포했다. <br/> <br/>요르단 국영 방송은 IS 공습에 나선 전투기가 발진하는 장면과 함께 사람들이 공습에 사용할 포탄에 이슬람 경전 꾸란의 경구와 반(反)IS 구호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실제 공습 장면과 함께 전투기들이 알카사스베 중위의 고향 마을 상공을 지나면서 경의를 표한 뒤 수도 암만으로 무사 귀환하는 장면도 전해졌다. <br/> <br/>요르단군은 시리아에 있는 IS 교육 센터와 무기 저장고 폭격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IS 대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에는 '니느웨의 군주'로 불리던 핵심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 <br/> <br/># 휴면계좌조회 <br/> <br/>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이며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한다. <br/> <br/>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br/> <br/>또 시중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br/> <br/>한편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은행 5년·우체국 10년이다. <br/> <br/>  <br/> <br/> <br/># 2월 축제 정보 <br/> <br/>한 포털사이트의 2월 축제 정보에 따르면 평창송어축제와 물맑은 양평 빙어 축제는 8일까지 열린다. <br/> <br/>청평 눈썰매 송어 빙어 축제와 청평 얼음꽃 송어 축제는 22일까지 계속된다. <br/> <br/>불빛축제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br/> <br/>포천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고, 용인 에버랜드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축제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br/> <br/>벽초지수목원빛축제 역시 3월 1일까지 열리며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은 3월 15일까지 계속된다. <br/> <br/>  <br/> <br/># 삼시세끼 시청률 <br/> <br/>지난 6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서 손호준은 기상 악화로 만재도에 잔류하게 됐다. <br/> <br/>아침 일찍 일어난유해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배가 못 뜰 것 같다. 호준이 못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밖으로 나온 손호준에게 "파도가 세다. 배 못 뜨겠다"고 말했다. <br/> <br/>정말 유해진의 말대로 거센 파도로 인해 배가 뜰 수 없었고, 손호준은 섬에 잔류하게 됐다. 갑작스런 잔류로 손호준은 울상이 됐다. <br/> <br/>그런 손호준을 바라보며 유해진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손님 아니다. 1박 2일만 손님이다. 이제부터는 잠 안 깬다고 투정 부리면 안 된다. 빨리 가서 나무 좀 해와라"라고 시켰다. <br/> <br/>한편 '삼시세끼'는 지난 방송에서 평균 시청률 10.8%, 최고 시청률 14.2%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45분 방송된다. <br/>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5.txt

제목: 法,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에 구속영장 발부  
날짜: 2015020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610016250508  
본문: '소금물 관장'을 만병통치인양 외치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목사 조모(56)씨 부부가 구속됐다. <br/> <br/>6일 서울동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 목사와 그의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r/> <br/>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암 등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9박10일간의 의료캠프를 연 뒤 소금물로 관장을 하거나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2011년 대장암으로 사망한 전설의 투수 최동원씨도 조 목사의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받았다. <br/> <br/>조 목사 부부는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나 처방받은 약 등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명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6.txt

제목: 뇌경색 예방법 '음주,흡연,소금량'이 원인, 유산소 운동 뇌경색 예방 도움  
날짜: 2015020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610016247602  
본문: 뇌경색 예방법 <br/>뇌경색 예방법 '음주,흡연,소금량'이 원인, 유산소 운동 뇌경색 예방 도움 <br/> <br/>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인들의 뇌졸중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뇌경색 예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서는 국내 사망률 1위이고 인구 10만명당 59.6명이 뇌졸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br/> <br/>뇌혈관 질환의 총칭으로 불리우는 뇌졸중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갑가지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의식이 없어지고 신체가 마비되는 질환을 뜻하며 크게 뇌출혈(출혈성 뇌졸중)과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두가지로 구분된다. <br/> <br/>'뇌출혈'은 약해져 있는 혈관벽이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생기는 병이고 '뇌경색'은 콜레스테롤 등으로 좁아진 혈관이 막혀버려 생기는 질환이다. <br/> <br/>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이전에 뇌졸중의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br/> <br/>노인들은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에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높아져 뇌혈관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무리한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br/> <br/>또한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나 흡연, 음주, 비만 등 신체적 활동이 적은 경우 등도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인자에 속한다. <br/> <br/>꾸준한 산책이나 맨손체조 같은 유산소 운동 등의 활발한 신체 운동을 하면 뇌졸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7.txt

제목: 국립암센터·산업단지공단, MOU 체결  
날짜: 2015020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610016246657  
본문: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오른쪽)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과 6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활성화 공동사업 ▲산학연 협력을 위한 기업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산단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자문 지원 ▲산단 기업 성장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업기업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국립암센터 혁신 자원 활용 지원 7가지 분야다. <br/> <br/>국립암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암센터의 인적 자산인 교수, 학생, 연구원 등과 기술 자산을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현재 보유 중인 우수한 기술 및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양 기관의 발전 뿐 아니라 암 관련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span>”고 밝혔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8.txt

제목: [핫키워드]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한라봉 효능, 커넥티드 카 뜻,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뇌경색 예방법  
날짜: 2015020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610016244232  
본문: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br/>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한라봉 효능, 커넥티드 카 뜻,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뇌경색 예방법 <br/> <br/>[핫키워드]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한라봉 효능, 커넥티드 카 뜻,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뇌경색 예방법 <br/> <br/>6일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한라봉 효능, 커넥티드 카 뜻,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뇌경색 예방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br/> <br/>#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br/> <br/>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구간이 2차로로 남아있어 사고 위험이 컸던 88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올해 말까지 4차로로 확장돼 개통된다. <br/> <br/>또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구간은 8차로에서 10차로로,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구간은 기존 6∼8차로에서 8∼10차로로 확장 개통된다. <br/> <br/>광주순환,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4개와 원주∼새말 등 국도 16개도 신규 착공된다. <br/> <br/>도로안전을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사고 잦은 곳 개선,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 포트홀(도로에 움푹 팬 곳) 예방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후 교량 정비(12개), 교량 내진 보강(12개),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 등 교량·터널 보수사업과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br/> <br/>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감응신호 시스템'을 17개 추가로 설치하고 졸음쉼터도 17개 더 늘릴 예정이다. <br/> <br/>국토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로예산 9조 945억 원 가운데 57%인 5조 2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 <br/>  <br/> <br/>  <br/> <br/># 한라봉 효능 <br/> <br/>한라봉은 칼로리는 낮지만 당도가 높고 즙이 많으며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한라봉 칼로리는 100g당 47~51kcal로, 100g당 39kcal인 귤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사과(57kcal), 배(51kcal), 키위(54kcal)등 다른 과일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br/> <br/>한라봉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며 감기 예방 효과에도 탁월하다. <br/> <br/>특히 철분 함유도가 높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 한라봉의 비타민C가 철분의 체내 흡수를 도울 수 있어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봉에 함유된 비타민 P(헤스페라딘)는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트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br/> <br/>한라봉을 먹을 때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한라봉은 껍질이 얇을수록 당도가 높으며 껍질 표면이 거칠고 주름이 과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br/> <br/>  <br/> <br/>  <br/> <br/> <br/># 커넥티드 카 뜻 <br/> <br/>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는 통신망을 통해 정보기술기기로 활용하는 차량을 뜻한다. 자동차가 주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br/> <br/>외부에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히터 등을 켤 수 있으며 날씨, 뉴스 등의 정보를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영상, 음악 등 각종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으로 지도 찾기, 전화걸기 등이 가능하다. <br/> <br/>커넥티드 카에는 임베디드 방식과 미러링 방식이 있는데, 임베디드 방식은 스마트폰을 통해 통신망(3G, LTE 등)으로 차량 안에 탑재된 모뎀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원격조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올라가고 별도의 통신요금도 부담해야 한다. <br/> <br/>미러링 방식은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로 차량 안 모니터인 AVN시스템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이나 영상, 내비게이션 등을 작동할 수 있지만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 <br/> <br/>애플이 커넥티드 카 개발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애플은 차량용 운영체제(OS) '카플레이(CarPlay)'를 개발하고 현대기아차, 볼보, 벤츠 등 자동차 업체들과 제휴하고 있다. <br/> <br/>  <br/> <br/>  <br/> <br/>#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br/> <br/>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공개됐다. <br/> <br/>파나 양파는 적혈구를 파괴하므로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달걀은 식중독균의 일종인 살모넬라균을 감염시킬 수 있고 기생충도 옮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준다. <br/> <br/>달걀흰자에 들어 있는 아비딘(avidin)이라는 단백질은 비오틴의 소화흡수를 방해하므로 굳이 달걀을 줄 때는 삶은 노른자만 소량 준다. <br/> <br/>닭뼈나 생선뼈, 쇠뼈 등 동물의 뼈도 고양이의 입속이나 소화기관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주어서는 안 된다. <br/> <br/>사람용 통조림, 과자, 소시지 따위의 가공식품은 사람의 섭취 적정량을 기준으로 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사람 체중의 1/10밖에 되지 않는 고양이에게 매우 해롭다. <br/> <br/>특히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등 당분이 함유된 음식물은 고양이의 신장에 부담이 되고 카페인 역시 동물에게는 매우 위험한 성분이므로 사람용 피로회복제, 초콜릿, 녹차, 커피 등은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먹지 않도록 해야한다. <br/> <br/>  <br/> <br/> <br/># 뇌경색 예방법 <br/> <br/>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서는 국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59.6명이 뇌졸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60세 이상 사망원인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br/> <br/>뇌졸중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여러 혈관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로 구분된다. <br/> <br/>'뇌출혈'은 약해져 있는 혈관벽이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생기는 병이다. '뇌경색'은 콜레스테롤 등으로 좁아진 혈관이 막혀 버리는 병이다. <br/> <br/>특히 노인들은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에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높아져 뇌혈관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무리한 운동이나 갑자기 힘을 쓰는 일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br/> <br/>산책이나 맨손 체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졸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br/> <br/>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89.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직장인 절반, 동료와 사이 안좋다  
날짜: 2015020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610016245978  
본문: 최근 드라마 성공의 이면에는 직장인들의 높은 공감이 있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위로가 직장인들에게 위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장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더 나아가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6일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일컫는 ‘번아웃 증후군’의 용어를 알고 있는 직장인들이 2014년 39.3%에서 2015년 5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번아웃 증후 상태를 언급하거나 들어본 경험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체 10명 중 4명은 스스로가 현재 번아웃 증후군 상태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성보다 여성, 그리고 젊은 직장인일수록 자신을 번아웃 증후군 상태라고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다. <br/> <br/>◆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br/> <br/>실제 번아웃 증상을 평가해 본 결과,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을 공산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체 52.5%가 업무로 인해 완전히 탈진됐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응답했다. 50대(40%)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는 직장인이 업무로 인한 완전 탈진 상태를 호소했다. 전체의 81.5%는 일에 지쳐 업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일에 지쳐서 업무를 빨리 끝내기에 급급하다는 응답을 많이 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퇴근할 무렵에는 완전히 소진된 느낌이 든다는 직장인도 작년보다 늘어난 모습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끼고도 있었다. <br/> <br/>이렇게 현대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감정노동의 증가와 함께 소속감·유대감이 부족한 직장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요즘 회사에서 불필요한 감정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직장인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감정노동을 더 많이 겪는 편이었다. 게다가 직장인 10명 중 3명만이 자신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직원간 결속력이 높은 것 같고, 회사의 일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직장 내에서 서로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회사에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2명 중 1명에 그쳤다. <br/> <br/>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직장인의 64.9%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 좀 더 인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노력을 인정하고 북돋아주는 분위기라면, 바쁜 회사생활이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직장인이 무려 75.1%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사회의 직장 문화의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span>”고 지적한다. 실제 번아웃 증후군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직원 상호간 노력을 인정하고 북돋아주는 문화를 꼽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10명 중 9명 "직장생활 스트레스 경험"…젊은 층일수록 더 심해 <br/> <br/>대부분의 직장인(96%)이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편이라는 직장인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스트레스의 강도를 더욱 높게 느끼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 차이는 거의 없는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특징도 나타났다. 반면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강도를 보통수준이라고 평가한 직장인은 31.3%였으며,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단 10%에 불과했다. <br/> <br/>직장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신체적 변화는 극도의 피로감과 의욕상실이었다. 다음으로 ▲이유 없는 분노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를 겪는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젊은 직장인들이 더 많은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것도 특징이었다. 또한 다른 이성에 비해 여성은 피로감을, 남성은 집중력 저하를 많이 느끼는 편이었다. <br/> <br/>◆ 직장생활의 암적인 존재, 진상 부리는 상사·고객 <br/> <br/>이와 함께 각 대상별 스트레스 유발 정도를 평가한 결과,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는 정도가 가장 높은 대상은 역시 직장상사였다. 전체 직장인의 56.6%가 직장상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아무래도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상사의 스트레스 유발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직장상사가 주는 스트레스 빈도가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다. 임원들 역시 스트레스를 빈번하게 느끼게 하는 주 대상이었으며, 회사 고객들에게 느끼는 스트레스 유발 정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br/> <br/>아울러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상사의 유형은 ‘팀원과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상사’ 였다. 불가능한 시간 안에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상사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는 상사, 이유 없이 질책하는 상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이밖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상사와 야근을 강요하는 상사, 주말에 일 처리를 명령하는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0.txt

제목: 선진국 여성 암환자 중 사망 1위는 폐암, 2위가 유방암  
날짜: 2015020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510016218297  
본문: 미국 등 선진국 여성 암 환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방암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타임에 따르면 린지 토레 미국 암학회(ACS) 선임연구원이 최근 '임상의학의를 위한 암저널'(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에 게재한 '선진국 여성 암 환자 사망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는 것. <br/> <br/>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선진국에서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성 수는 19만7000명인 반면, 폐암으로 사망한 여성 수는 이보다 많은 20만9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지금까지 선진국 여성 암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유방암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br/> <br/>토레 선임연구원은 "선진국 여성 암 환자 사망자 수 가운데 유방암보다 폐암이 더 많은 것은 초기 유방암 발견이 늘어나고 흡연의 폐해가 상당 기간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선진국 여성들 사이에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여성 폐암환자 수 증가는 이들이 과거 수십년 전 흡연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br/> <br/>토레 선임연구원은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폐암 환자 사망률이 정점을 찍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br/> <br/>보고서는 또 개발도상국에서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br/> <br/>개도국에서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흡연율 증가와 과체중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br/> <br/>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820만 명으로, 이 가운데 19.5%인 160만 명이 미국인이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1.txt

제목: '소금물관장 암치료한다' 목사 부부 체포, 고 최동원도 치료받아...영상보니  
날짜: 2015020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510016222787  
본문:   <br/> <br/>'소금물관장 암치료한다' 목사 부부 체포, 고 최동원도 치료받아...영상보니 <br/> <br/>소금물관장으로 신도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한 목사부부가 체포되었다. <br/> <br/>지난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의 목사 부부와 교회 관계자 2명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았다. <br/> <br/>이들 목사 부부는 암이나 난치병을 낫게 해준다며 환자들을 속여 9박 10일간의 의료캠프를 연 뒤 소금물관장을 하여 각종 의료기기와 보조제?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했다. 최근 6년간 확인된 소금물관장 피해자만 7000명이며 피해 금액은 40억 원이 넘는다. <br/> <br/>소금물관장 소식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 명에 이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목사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이들 목사 부부는 9박 10일간의 캠프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이외엔 약을 먹지 못하도록 해 캠프에 참여한 일부 중증환자는 퇴소 후 곧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공개된 영상에는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 앞에서 여성 한 명이 소금물로 관장을 하는 법을 선보이는 모습 등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경찰은 소금물관장 등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한 조씨 부부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조만간 캠프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준 한의사를 불러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r/> <br/>한편,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7·80년대 한국 야구 최고 투수 최동원도 투병 중 ‘소금물 관장’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에 경찰은 목사 부부의 불법 시술이 최동원의 병세 악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고(故) 최동원은 한국시리즈에서 홀로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최고의 투수로, 은퇴 뒤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7년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 후 병세가 호전돼 2009년 한국야구위원회(KBO) 경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그 다음해 병세가 다시 나빠져 2011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2.txt

제목: “노벨상 비결? 창의적 사고로 새 분야 개척하라”  
날짜: 20150205  
기자: 신진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510016232070  
본문: “<span class='quot0'>책에 나온 지식만 믿지 말고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span>” <br/> <br/>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는 5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제22회 자연과학 공개강연:과학자의 꿈과 도전’ 특별강연에서 창의적 사고를 강조했다.  <br/> <br/>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22회 자연과학 공개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에서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 명예교수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br/>남정탁 기자헌트 교수는 “<span class='quot1'>왜 한국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지</span>”를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span class='quot1'>노벨상을 받으려면 창의적 사고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좇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노벨상은 질문을 정해놓고 좇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을 발견할 때 따라온다</span>”며 “<span class='quot1'>내가 이룬 업적도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질문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발견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헌트 교수는 미개척 분야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하려면 정부나 민간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점에서 가능성 있는 개인 연구를 뽑아서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다</span>”고 제언했다. <br/> <br/>헌트 교수는 ‘세포 주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br/> <br/>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3.txt

제목: 소금물관장, "불치병 치료된다" 목사 부부 체포...10일동안 소금물만 먹게해  
날짜: 2015020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510016221727  
본문:   <br/> <br/>소금물관장, "불치병 치료된다" 목사 부부 체포...10일동안 소금물만 먹게해 <br/> <br/>소금물관장으로 신도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한 목사부부가 체포되었다. <br/> <br/>지난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의 목사 부부와 교회 관계자 2명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았다. <br/> <br/>이들 목사 부부는 암이나 난치병을 낫게 해준다며 환자들을 속여 9박 10일간의 의료캠프를 연 뒤 소금물관장을 하여 각종 의료기기와 보조제?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했다. 최근 6년간 확인된 소금물관장 피해자만 7000명이며 피해 금액은 40억 원이 넘는다. <br/> <br/>소금물관장 소식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 명에 이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목사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이들 목사 부부는 9박 10일간의 캠프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이외엔 약을 먹지 못하도록 해 캠프에 참여한 일부 중증환자는 퇴소 후 곧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찰은 소금물관장 등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한 조씨 부부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조만간 캠프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준 한의사를 불러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r/> <br/>한편,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7·80년대 한국 야구 최고 투수 최동원도 투병 중 ‘소금물 관장’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에 경찰은 목사 부부의 불법 시술이 최동원의 병세 악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고(故) 최동원은 한국시리즈에서 홀로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최고의 투수로, 은퇴 뒤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7년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 후 병세가 호전돼 2009년 한국야구위원회(KBO) 경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그 다음해 병세가 다시 나빠져 2011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4.txt

제목: [S앤비 한방클리닉⑦]면역질환과 대사질환  
날짜: 2015020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510016220332  
본문: 면역(immunity, 免疫)이란 특정한 병원체 또는 독소에 대해 생명체가 저항성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래성 또는 내인성인 이물질에 의해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항상 일정한 조건을 유지한다. <br/> <br/>S앤비한의원 분당점 심풍한의원 구태용 원장따라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래성 병원체나 내인성 이물질에 저항하지 못하고 생체 내부환경의 항상성에 혼란이 생겨 과민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면역과민반응’ 또는 ‘알러지반응’이라 한다. <br/> <br/>현대사회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공해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한 면역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다. 면역질환의 가장 흔한 예가 바로 감기다. 감기의 원인을 양방에서는 바이러스로 보고 있지만, 사실 감기의 주요 원인은 면역력 저하다. <br/> <br/>똑같은 환경 내에서도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피로, 스트레스, 체력저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만 감기에 걸린다.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 감수성이 민감해진 사람도 감기에 잘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항생제로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러스에 내한 내성이 생겨 면역력이 더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br/> <br/>한방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환자 스스로 감기기운을 몰아내게 하므로 치료도 잘되면서 면역 증강의 효과도 있다. <br/>  <br/>다음으로 흔한 면역질환이 비염, 아토피,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 질환이다. 비염은 호흡기 쪽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는 호흡기 과민반응이고, 아토피, 두드러기는 피부 쪽으로 과민반응이 발생하는 것이다. <br/> <br/>환절기에 편도선, 아데노이드가 잘 붓거나 중이염이 잘 생기는 아이도 비염과 마찬가지로 면역 저하로 인한 호흡기 과민반응이다. 비염은 단지 콧병이 아니고 아토피, 두드러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기에 코치료, 피부치료만 해서는 완치시킬 수 없다. <br/>  <br/>앞서 예를 든 감기와 알러지 질환들은 외래성 병원체(알레르겐)에 과민반응을 하는 질환들이고, 생체 내부에서 발생한 내인성 이물질에 과민반응을 하는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이라 한다. <br/> <br/>자가면역질환은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는 난치성 질환으로, 감기나 알러지 질환들보다 좀 더 심한 알러지 단계이므로 알러지 질환들처럼 단순히 증상치료만 해서는 결국 치료되지 않는다. <br/>  <br/>감기, 알러지 질환들처럼 몸 전체를 치료해서 어떤 요인에 과민반응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r/> <br/>면역질환(알러지질환)은 증상치료와 겸해 면역치료를 병행해야 완치시킬 수 있다. 면역치료란 인체 내 특정 장부의 기능이 허하거나 실하여 발생하는 면역과잉반응 상태를 장부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과잉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것이다. <br/> <br/>단순히 면역을 억제시키는 치료보다 근본적인 치료이며 체질을 개선하고 몸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br/> <br/>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대사질환이다. 대사(metabolism, 代謝)란 생물체가 섭취한 물질들을 흡수, 분해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신진대사, 물질대사라고도 한다. <br/> <br/>생물체가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진행하는 영양물질 흡수와 노폐물 배출의 모든 과정을 대사라 부른다. <br/> <br/>요즘 흔해지고 있는 대사질환이 ‘대사증후군’이다. 생활습관의 급속한 서구화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특히 복부비만), 당뇨병, 죽상동맥경화증 등의 질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br/> <br/>대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상기 질환군들이 요즘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와 3위를 다투는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등)과 심장질환(심근경색 등)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 <br/>  <br/>대사증후군은 대사노폐물이 제때에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 독소를 발생시켜 다양한 질환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방에서는 이 대사노폐물을 ‘담음, 수독, 어혈’ 등으로 본다. <br/> <br/>체내에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대사순환을 원활하게 해 노폐물이 잘 쌓이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하는데 이를 해독(디톡스)이라고 한다. 물론 적당한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br/> <br/>면역질환과 대사질환은 현대문명의 발달과 서구화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겨난 질환들로 증상치료만 해서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 한방치료로 무너진 체내 균형을 바로잡고 체질을 개선해 가는 동시에 각 환자별 체질에 맞는 섭생을 실천해 간다면 결국 완치될 수 있을 것이다. <br/> <br/>S앤비한의원 분당점 심풍한의원 원장 구태용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5.txt

제목: 말기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소금물로 관장한 목사 부부 붙잡혀  
날짜: 2015020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410016202896  
본문: 불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br/> <br/>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 목사 조모(56)씨 부부와 교회 관계자 2명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6년간 말기암 등 주로 불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9박 10일 캠프를 연 뒤 소금물 관장 등 무허가 의료 행위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 관계자는 "9박 10일 캠프 비용은 한 차례 120만원 수준이었고, 현장에서 각종 건강식품과 보조제, 의료기기 등도 판매됐다"고 말했다. <br/> <br/>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명이나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고 했다. <br/> <br/>피해자들은 지난 6년간 해당 캠프에 수천명이 참가했으며, 캠프에서 약을 먹지 못하게 한 까닭에 일부 중증 환자는 퇴소 후 곧 숨졌다고 경찰 조사 때 주장했다. <br/> <br/>경찰은 조씨 부부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조만간 캠프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준 한의사를 불러 공모 여부 등을 캘 예정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6.txt

제목: 영국하원 세계최초로 '3부모 체외수정'법 통과시켜  
날짜: 2015020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410016198508  
본문: 영국 의회가 '3부모 체외수정'허영법안을 세계최초로 통과시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br/> <br/>3부모 체외수정은 모계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하는 것이다. <br/> <br/>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br/> <br/>하원은 이날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된 법안을 찬반 토론 후 자유 표결에 부쳐 찬성 382표, 반대 128표로 승인했다. <br/> <br/>이 법안은 상원 의결도 거쳐야 발효되지만, 상원에서 하원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다. <br/> <br/>3부모 체외수정 시술이 최초로 합법화됨으로써 영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중 3부모를 둔 시험관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br/> <br/>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그동안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전에 변형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br/> <br/>어머니의 난자를 조작해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일으켰다. <br/> <br/>이런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2번째 여성 DNA의 0.1%를 물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br/> <br/>유전질환 환자 가족과 일부 과학자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종교계와 생명윤리 운동단체들은 태아 유전체 조작의 길이 열려 맞춤형 아이'(designer baby)가 양산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전망이라며 반발했다. <br/> <br/>하원 찬반토론에서 제인 엘리슨 공중보건담당 부장관은 "새로운 시술법은 죽음의 유전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어두운 터널 끝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며 "3부모 아이를 허용하는 대담한 발걸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반면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 의원은 "여러 세대로 이어질 합법화 조치의 결과는 간단히 예측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허용되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br/> <br/>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되 보건부 산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 신생아의 미토콘드리아 질환 가능성을 평가해 시술을 허용하도록 했다. <br/> <br/>또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이 없는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은 태어날 아이와 연관이 없어야 하며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난자 공여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br/> <br/>이밖에 관련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새로운 면허를 받도록 규정했다. <br/> <br/>영국 보건당국은 앞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자국 내에서 연간 150쌍이 3부모 체외수정 시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br/> <br/>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은 근이영양증, 간질, 심장병, 정신지체, 치매, 비만, 암 등 150여 가지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7.txt

제목: '사이클 황제'랜스 암스트롱, 뺑소니와 위증교사혐의로 재판에  
날짜: 2015020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410016198205  
본문: '사이클 영웅'에서 약물복용이 들통나 모든 명예가 박탈당했던 랜스 암스트롱(44)이 음주 뺑소니 사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br/> <br/>암스트롱은 자신이 차를 몰았으나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저지른 것처럼 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br/> <br/>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해 12월28일 저녁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음주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애나 한센을 태우고 집으로 가다가 주차돼있던 자동차 2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다. <br/> <br/>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암스트롱 소유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가 사고 당시 앞범퍼가 깨진 것을 알아냈고, 이에 암스트롱의 여자친구 한센은 "내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br/> <br/>그러나 경찰은 파티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암스트롱이 운전을 했고, 한센은 조수석에 앉았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br/> <br/>경찰은 추궁 끝에 한센으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br/> <br/>한센은 "암스트롱이 사고를 낸 것이 밝혀지면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br/> <br/>암스트롱에 대한 첫 심리는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br/> <br/>암스트롱은 고환암을 극복하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회 연속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 사상 최고의 사이클 선수로 명성을 얻었다. <br/> <br/>하지만 약물복용 사실이 드러나 영구 제명 처분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8.txt

제목: 도핑 사이클황제 암스트롱, 이번엔 음주뺑소니  
날짜: 2015020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410016210107  
본문: 미국의 ‘사이클 영웅’ 랜스 암스트롱(44·사진)이 약물복용 파문으로 추락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저지른 것처럼 위증교사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br/> <br/>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해 12월28일 저녁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음주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애나 한센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주차돼 있던 자동차 2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다. <br/> <br/>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암스트롱 소유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가 사고 당시 앞범퍼가 깨진 것을 알아냈다. 이에 암스트롱의 여자친구 한센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br/> <br/>경찰은 그러나 파티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암스트롱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한센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암스트롱에 대한 첫 심리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br/> <br/>암스트롱은 고환암을 극복하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회 연속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을 차지하면서 명성을 얻었지만, 2011년 약물복용 사실이 드러나 모든 상을 박탈당하고 사이클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299.txt

제목: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혹-기침 무시하지 마세요'  
날짜: 2015020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73273  
본문: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이 소개됐다. <br/> <br/>최근 미국의 건강사이트 프리벤션닷컴은 영국 런던대학의 논문을 토대로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를 소개했다. <br/> <br/>공개된 글에 의하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에는 덩어리나 혹, 기침, 배변습관, 방광 이상, 지속적인 통증 등이 포함돼 있다. <br/> <br/># 덩어리나 혹이 만져진다. 유방이나 다른 부위를 자주 만져 덩어리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암 조기발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br/> <br/># 기침이나 쉰 목소리,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 이런 증상은 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br/> <br/># 암 환자들의 18%는 배변 시기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이 가늘어지면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br/> <br/># 소변 습관의 변화나 방광에 통증이 있다면 신장암 및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 해당한다. <br/> <br/>#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뼈의 암이나 난소암의 전조일 수도 있다. <br/> <br/># 목의 통증.목의 통증이 계속되면 후두암 등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br/> <br/># 체중 감소는 췌장, 위, 폐, 식도암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는데도 운동이나 다이어트 탓으로 돌리면 암 조기발견을 놓칠 수 있다. <br/> <br/># 신경 또는 면역 체계의 문제, 식도암이나 위암, 목에 암이 생길 때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진다. <br/> <br/># 피가 섞여 나오는 기침은 폐암, 대변에 피가 묻어 있으면 결장,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다. 유두에서 피가 나오면 유방암, 소변의 피는 방광이나 신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br/> <br/># 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 피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피부암을 예고할 수도 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0.txt

제목: [핫 키워드] 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 매화 꽃말,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조정석 거미 열애, 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날짜: 2015020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76218  
본문: 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 매화 꽃말,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조정석 거미 열애, 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br/>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 매화 꽃말,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조정석 거미 열애, 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오늘의 '핫 키워드'로 떠오르며 주목 받고 있다. <br/> <br/># 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 <br/> <br/>뱃살을 빼는 10가지 습관이 공개돼 화제다. <br/> <br/>최근 미국의 건강포털 웹 엠디가 소개한 '뱃살을 뺄 수 있는 10가지 습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1. 식사 습관을 따져보자 <br/> <br/>늦은 밤 야식을 즐기거나 아이들이 남긴 밥이 아깝다고 다 먹는 습관이 있는가? 본인도 분명 이런 식습관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고쳐보자.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br/> <br/>2. 간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br/> <br/>허기를 참는 것은 식사 때 과식을 유발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 당분이나 칼로리가 많은 간식보다는 견과류나 방울 토마토 등을 먹으면 다이어트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어 좋다. <br/> <br/>3. 배고플 때 장을 보지 말자 <br/> <br/>배가 고플 때 식료품 가게에 가면 먹거리에 대한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때 필요 없는 음식도 카트에 쉽게 집어넣게된다. 식탐을 덜 느낄 때 절제된 식품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고플 때 장을 보는 것은 피하자. <br/> <br/>4. 일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라 <br/>  <br/>주위에서 권하는 다이어트 식사법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식사법이다. 규칙적인 식사는 과식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br/> <br/>5. 음식은 식탁에 앉아 먹어라 <br/> <br/>음식을 사서 봉투째 서서 먹으면 과식을 유발할 수 있다. 자리에 앉아 그릇에 덜어 먹어야 음식량을 조절하기 좋다. <br/> <br/>6. 개인 접시를 활용하고 20분을 유지하라 <br/> <br/>식사 때마다 개인 접시를 이용하면 과식을 예방하고 위생에도 좋다. 또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려면 식후 2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자. 매일 식사를 허겁지겁 먹는 식습관은 뚱보가 되는 지름길이다. <br/> <br/>7.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자 <br/> <br/>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식감도 잘 느낄 수 있고 소화에도 좋다. 식사 때 적당한 물을 마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8. 저녁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라 <br/> <br/>저녁을 먹은 후에도 TV 등을 보며 음식을 찾는다면 다이어트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저녁 식사 후 양치질을 정성스럽게 하면 식탐의 유혹을 줄일 수 있고 치아 건강에도 좋다. <br/> <br/>9. 간식을 먹는다면 ‘미니 식사’처럼 해라 <br/> <br/>가장 영양가 있는 간식은 지방과 단백질이 적고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좋다. 간식을 통해 살이 찌면 곤란하다. <br/> <br/>10.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자 <br/> <br/>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가 바로 아침식사다. 긴 밤의 휴식 후 우리의 몸은 물질 대사 및 하루 에너지를 아침을 통해 얻는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 점심, 저녁의 과식을 예방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br/> <br/># 매화 꽃말 <br/> <br/>겨울에 피어나는 꽃, 매화의 꽃말이 새삼 화제다. <br/> <br/>매화의 꽃말은 ‘기품’, ‘품격’이다.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松), 대나무(竹) 그리고 매화나무(梅)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고 하며, 난초·국화·대나무·매화를 사군자(四君子)라고 한다. 매화는 세한삼우에도 사군자에도 포함되어 선비의 품격을 나타내는 꽃으로 많이 표현돼 왔다. <br/> <br/>매화는 맑고 밝은 꽃과 깊은 꽃향기 때문에 선비나 화가들의 시·서(글)·화(그림)에 늘 등장할 만큼 사랑을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워 봄을 먼저 알려주는 꽃으로 사랑받았다. <br/> <br/>지조와 절개 그리고 충성을 상징하는 나무인 매화나무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므로 문인들이 시나 그림의 소재로 즐겨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r/> <br/>#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이 소개됐다. <br/> <br/>최근 미국의 건강사이트 프리벤션닷컴은 영국 런던대학의 논문을 토대로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를 소개했다. <br/> <br/>공개된 글에 의하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에는 덩어리나 혹, 기침, 배변습관, 방광 이상, 지속적인 통증 등이 포함돼 있다. <br/> <br/>덩어리나 혹이 만져진다. 유방이나 다른 부위를 자주 만져 덩어리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암 조기발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br/> <br/>기침이나 쉰 목소리,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 이런 증상은 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br/> <br/>암 환자들의 18%는 배변 시기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이 가늘어지면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br/> <br/>소변 습관의 변화나 방광에 통증이 있다면 신장암 및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 해당한다. <br/> <br/>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뼈의 암이나 난소암의 전조일 수도 있다. <br/> <br/>목의 통증.목의 통증이 계속되면 후두암 등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br/> <br/>체중 감소는 췌장, 위, 폐, 식도암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는데도 운동이나 다이어트 탓으로 돌리면 암 조기발견을 놓칠 수 있다. <br/> <br/>신경 또는 면역 체계의 문제, 식도암이나 위암, 목에 암이 생길 때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진다. <br/> <br/>피가 섞여 나오는 기침은 폐암, 대변에 피가 묻어 있으면 결장,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다. 유두에서 피가 나오면 유방암, 소변의 피는 방광이나 신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br/> <br/>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 피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피부암을 예고할 수도 있다. <br/> <br/># 조정석 거미 열애 <br/> <br/>가수 거미와 열애 중인 조정석의 이상형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br/> <br/>2일 조정석과 거미는 소속사를 통해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조정석 측 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거미와 조정석이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여 좋은 만남 이어오고 있는 것이 맞다</span>”며 “<span class='quot0'>둘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활동에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만나고 있다</span>”고 입장을 밝혔다. <br/> <br/>거미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역시 “<span class='quot1'>거미와 조정석이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여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맞다</span>”고 열애설을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도 두 사람이 예쁜 만남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수의 사생활인 만큼 더 이상의 추측보도나 과잉취재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r/> <br/>앞서 조정석은 과거 tvN ‘현장토크쇼-택시’에 출연해 이상형과 관련“<span class='quot2'>전형적인 미인보다 매력 있는 사람이 좋다</span>”라며 2NE1 씨엘을 이상형으로 꼽은 바 있다. <br/> <br/>한편 조정석은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대중들에 눈도장을 찍었으며 영화 ‘역린’, ‘관상’,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거미는 최근 KBS2 금요 드라마 ‘스파이’OST를 발매했다. <br/> <br/># 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br/> <br/>개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br/> <br/>2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남 고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바이러스(항원)가 발견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br/> <br/>국내에서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이종간 감염되는 사례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개에서 AI 항원(H5N8)이나 항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작년 9월이후 처음이다. <br/> <br/>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AI가 발병한 고성의 오리농장에서 키우던 개 3마리에서도 30일 AI 항원이 검출돼 3마리 모두 살처분·매몰했다"고 밝혔다. <br/> <br/>개에서 AI 바이러스 감염 원인은 오리농장에서 AI로 감염돼 죽은 오리를 이들 개에 먹인 것으로 추정된다. <br/> <br/>주 본부장은 AI의 사람으로의 전염성 가능성과 관련, "세계적으로 H5N8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다"면서 "개가 직접 죽은 오리고기를 먹었다면 먹는 과정에서 코 등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는 임상증상도 없고 자가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1.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고혈압 환자 전용 건강보험 출시 外  
날짜: 20150203  
기자: 정진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91231  
본문: 고혈압 환자 전용 건강보험 출시 <br/> <br/>한화생명은 고혈압 환자 전용 건강보험인 ‘The따뜻한 고혈압케어건강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혈압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심사로 가입 가능하며, 주요 성인질환인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 신부전증 진단 시 관련 특약을 통해 각 2000만원씩 보장한다. 고령층의 보장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갱신주기도 15년으로 연장하고 보장기간도 100세까지 확대했다. 가입 후 15년 시점까지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강관리자금으로 200만원도 지급한다. 40세가 주계약과 함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말기신부전증 진단, 암 진단, 암사망특약을 가입금액 1000만원씩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남성 3만2500원, 여성 2만8600원이다. 가입연령은 30∼67세이다.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span class='quot0'>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혈압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외국인 위한 ‘영문 웹사이트’ 서비스 <br/> <br/>AXA다이렉트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외국인이 직접 보험료 산출과 가입이 가능한 ‘글로벌 영문 웹사이트’(사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 조회에서 가입에 필요한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영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5분이면 한국인의 도움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은 자신의 운전 상황과 성향에 맞는 담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마일리지·블랙박스 할인 등 서비스 안내도 받게 된다. AXA다이렉트는 영문 상품 설명서와 영어가 가능한 보상 상담 전담자를 배치하는 한편 영어 응대 전담 팀과 긴출 및 사고 접수 전용 전화 (02-3479-3030)도 신설한다. 글로벌 영문 웹사이트는 2일 오픈했으며, 공식 홈페이지 주소(axa.c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의 언어 선택 메뉴를 바꿔 주면 이용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2.txt

제목: 개똥쑥, 알고보니 항암치료 효과? '보리차 대신 개똥쑥 드세요~'  
날짜: 2015020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89775  
본문: 개똥쑥 개똥쑥 개똥쑥 개똥쑥 개똥쑥 개똥쑥 개똥쑥 개똥쑥 개똥쑥 <br/>개똥쑥, 알고보니 항암치료 효과? '보리차 대신 개똥쑥 드세요~' <br/> <br/>개똥쑥이 항암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다.3일 오후 방송된 KBS2 '2TV 저녁 생생정보'의 '내 몸을 부탁해' 코너에서는 개똥쑥의 항암 효능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br/> <br/>개똥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개똥처럼 흔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 개똥쑥은 아르테미시닌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과거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최도근씨와 유방암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 역시 개똥쑥을 마시고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전했다. <br/> <br/>끓는 물 2L에 개똥쑥을 한 줌 정도 넣고 끓여주면 개똥쑥차가 완성된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3.txt

제목: 국립암센터, 저소득층 암환자 양성자치료 지원  
날짜: 2015020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84182  
본문: 국내에 유일한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양성자치료 환자 중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국내에 유일한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는 2001년 도입키로 결정한 이래 설계, 시설공사, 치료기 도입, 시험가동까지 약 5년이 걸렸다. 비용은 480억원이 소요되었다.  <br/> <br/>‘양성자치료’란 기존 X-선 방사선치료보다 종양에 치료를 집중하고, 정상 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치료다.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립선암, 간암, 초기 폐암, 뇌종양, 소아암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 종양의 위치상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 암이나 수술로 치료할 경우 안구와 시력을 보존하기 힘든 악성 안구종양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br/> <br/>2011년 4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중 뇌종양, 두경부암(안면부 포함), 중추신경계통 종양의 양성자치료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었으나 18세 이상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인 양성자치료 환자는 1인당 3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2011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소아암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나, 그 혜택이 널리 알려지지 못해 안타깝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을 계기로 양성자치료가 필요한 성인 암환자들도 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최첨단 양성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2007년 3월 양성자치료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4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해왔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4.txt

제목: 양지병원, 건강검진 50% 이상 할인 '통큰검진' 이벤트  
날짜: 20150203  
기자: 권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84659  
본문:   <br/> <br/>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우수내시경실 인증획득을 기념해 ‘통큰 검진 이벤트’ 를 진행한다. <br/> <br/>5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통큰검진 이벤트’는 기본 건강검진 항목과 함께 초음파, 내시경, MRI, MRA, CT 등 고가의 검진항목까지 포함돼 있다. <br/> <br/>최근 이 병원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실사평가에서 인력, 장비, 시설, 감염관리, 지표관리 등 72개 평가항목 전부문 만점을 받는 놀라운 점수로 서울 관악, 금천지구 최초로 우수내시경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br/> <br/>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통큰검진 이벤트’는 기초대사와 비만 여부의 검진과 혈액 및 소변 검사, 흉부 X레이, 심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여성을 위한 부인과 검사와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간, 담낭, 췌장, 신장, 비장 등에 대한 검진이 복부 초음파 검사, 위장질환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소화기 검사(위 내시경 검사 혹은 위장조영촬영) 도 포함된다. <br/> <br/>전립선 초음파, 질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초음파 검사와 골밀도, 동맥경화, 호모시스테인, 비타민 D 등의 검사는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으로 3가지를 골라 선택할 수 있다.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암 등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꾸준히 높아지며 검진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검사다. 중장년층 필수 검진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골밀도 검사와 동맥경화 검사를 비롯해 최근 일조량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타민D 검사도 관심이 높다. <br/> <br/>뇌졸중을 예측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등 주요 질환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br/> <br/>경동맥 초음파, 64CH MDCT. 유방초음파, 수면대장 내시경 등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를 선택 할 수 있고 64CH MDCT 검사는 심장, 폐 질환을 검진할 수 있다. <br/> <br/>뇌졸중 등 중증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증상이 의심돼 왔다면 뇌, 경추, 요추 을 검사할 수 있는MRI검사와 뇌혈관 협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뇌 MRA 검사가 필요하다. <br/> <br/>뇌 MRI는 뇌졸중 정밀검사에 주로 활용되며, 경추나 요추 MRI는 디스크 등의 질환을 검사할 수 있다. 전신 암검진을 원한다면 최고가 검진 패키지를 선택해  PET(전신암검사) CT 검사를 받으면 된다. <br/> <br/>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건강증진센터 김양수 본부장은 “<span class='quot0'>고객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본래 직원 및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기획 했던 행사를 검진고객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파격적인 할인 폭과 설 명절 전후로 이벤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부모님 선물로도 적합하다</span>” 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암통합케어센터 등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탄탄한 협진 시스템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 건강검진 부문에 대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거주외국인, 해외동포 등으로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br/> <br/>건강증진센터 문의: 070-4665-9351~4 <br/> <br/>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5.txt

제목: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우수 내시경실 인증획득 기념 ‘통큰검진’ 이벤트 실시  
날짜: 201502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86866  
본문:   <br/> <br/> <br/>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우수내시경실 인증획득 기념 ‘통큰 검진 이벤트’ 를 전개한다고 3일 전했다. ‘통큰검진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 건강검진 항목과 함께 초음파, 내시경, MRI, MRA, CT 등 고가의 검진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br/> <br/>최근 이 병원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실사평가에서 인력, 장비, 시설, 감염관리, 지표관리 등 72개 평가항목 전부문 만점을 받는 놀라운 점수로 서울 관악, 금천지구 최초로 우수내시경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br/> <br/>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통큰검진 이벤트’는 기초대사와 비만 여부의 검진과 혈액 및 소변 검사, 흉부 X레이, 심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여성을 위한 부인과 검사와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간, 담낭, 췌장, 신장, 비장 등에 대한 검진이 복부 초음파 검사, 위장질환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소화기 검사(위 내시경 검사 혹은 위장조영촬영) 도 포함된다. <br/> <br/>전립선 초음파, 질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초음파 검사와 골밀도, 동맥경화, 호모시스테인, 비타민 D 등의 검사는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으로 3가지를 골라 선택할 수 있다.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암 등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꾸준히 높아지며 검진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검사다. 중장년층 필수 검진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골밀도 검사와 동맥경화 검사를 비롯해 최근 일조량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타민D 검사도 관심이 높다. <br/> <br/>뇌졸중을 예측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등 주요 질환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경동맥 초음파, 64CH MDCT. 유방초음파, 수면대장 내시경 등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를 선택 할 수 있고 64CH MDCT 검사는 심장, 폐 질환을 검진할 수 있다. <br/> <br/>뇌졸중 등 중증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증상이 의심돼 왔다면 뇌, 경추, 요추 을 검사할 수 있는MRI검사와 뇌혈관 협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뇌 MRA 검사가 필요하다. 뇌 MRI는 뇌졸중 정밀검사에 주로 활용되며, 경추나 요추 MRI는 디스크 등의 질환을 검사할 수 있다. 전신 암검진을 원한다면 최고가 검진 패키지를 선택해  PET(전신암검사) CT 검사를 받으면 된다. <br/> <br/>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건강증진센터 김양수 본부장은 “<span class='quot0'>고객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본래 직원 및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기획 했던 행사를 검진고객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파격적인 할인 폭과 설 명절 전후로 이벤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부모님 선물로도 적합하다</span>” 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암통합케어센터 등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탄탄한 협진 시스템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 건강검진 부문에 대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거주외국인, 해외동포 등으로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br/>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6.txt

제목: 보장성보험 가입할때 꼭 알아야할 것들  
날짜: 20150203  
기자: 정진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310016191233  
본문: 최근 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이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보험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목돈 사용 부담을 피하고 싶은 심리는 커지고, 매달 수십만원의 돈을 먼 미래를 위해 넣어야 하는 연금·저축성 보험에는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의 대표상품인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의료비를 쓴 만큼 돌려받는다”는 가장 간단한 상품이다. 그러나 ‘쉬운 보험’임에도 청구 절차와 보상 여부를 제대로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을 소개한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중복가입 여부 확인은 기본 <br/> <br/>실손의료보험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예전에는 비용 100%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었지만 최근 나온 상품들은 80∼90% 수준의 비용을 보상해준다. 상해, 암보험 등과 달리 실손보험은 자신이 쓴 비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몇 군데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중복 가입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br/> <br/>실손보험이 보상하는 항목도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에 국한된다. 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질병이나 치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고령으로 인한 탈모나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비의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비 역시 제외된다. 치매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외의 정신과질환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br/> <br/>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역시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보상하지 않는다. 또 간병비와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간병보험과 여행자보험을 통해서만 치료비용을 보존 받을 수 있을 뿐 실손보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질병이더라도 국내에 귀국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br/> <br/>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검진 비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치료목적상 의사의 소견을 받아 진행한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네 병원에서 녹내장 의심 소견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경우, 검사비 역시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이 지급된다. <br/> <br/>◆비슷한 보장, 다른 가격… 비교해보고 가입하자 <br/> <br/>현재 거의 모든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회사마다 축적된 데이터가 다른 만큼 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실손보험 가격은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br/> <br/>실손보험의 유형은 크게 단독형과 특약형으로 나뉜다. 단독형 상품의 경우 다른 보장 내역 없이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특약형은 사망이나 입원, 수술비용 등 다양한 보장에 추가로 가입하는 형태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은 경우나 낮은 비용으로 부담없이 가입하고 싶은 경우 단독형 상품이, 이전에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 종합적인 보험이 필요하거나 만기환급금 등을 설정하고 싶은 경우 특약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br/> <br/>실손보험료는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이른바 갱신형이다. 가입자의 나이가 들수록, 의료수가가 오를수록,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갱신주기는 1∼3년 사이. 갱신주기가 3년인 상품의 경우 3년 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연령 증가와 손해율 변동이 한꺼번에 포함되면서 갱신주기가 1년인 상품보다 변동폭이 클 수 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갱신일 15일 전 가입자에게 갱신 보험료를 안내하게 돼있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7.txt

제목: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뒷통수'...자가진단 해보세요  
날짜: 2015020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210016158581  
본문:   <br/>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뒷통수'...자가진단 해보세요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가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미국의 건강사이트 프리벤션닷컴은 미국 과학공공도서관저널(PLOS One)에 올라온 영국 런던대학의 논문을 토대로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를 최근 소개했다. <br/> <br/>프리벤션닷컴에 따르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에는 덩어리나 혹, 기침, 배변습관, 방광 이상, 지속적인 통증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 중 첫 번째로 덩어리나 혹이 만져 진다는 것이다. 암 환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몸 안에 원인 불명의 덩어리가 있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이들 중 67%가 의사에 문의하지 않았고 77%는 이를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다. 유방이나 다른 부위를 자주 만져 덩어리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암 조기발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br/> <br/>두번째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은 기침이나 쉰 목소리·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데도 참고 약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는 후두암과 폐암 또는 갑상선암,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목 주위에 변화가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암을 제때 치료할 수 있다.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 중 세 번째로, 배변 습관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런던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암 환자들의 18%는 배변 시기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이 가늘어졌는데도 음식이나 약물의 영향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대장암의 전조 증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br/> <br/>네 번째 증상은 소변 습관과 방광의 이상 증세다. 요로 감염은 여성들에게서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로 감염이겠지…'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변 습관의 변화나 방광에 통증이 있다면 신장암 및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 해당한다.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 중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통증이다. 통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뼈의 암이나 난소암의 전조일 수도 있다. 미국암협회는 암으로 인한 통증은 서서히 몸 전체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부위의 통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아 암 조기발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br/> <br/>여섯 번째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은 목의 통증을 들 수 있다. 목의 통증이 계속되면 후두암 등의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런던대학 설문조사 대상자의 약 78%가 목 통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일곱 번째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은 급격한 체중 감소다. 미국암학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4.5㎏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암의 첫 징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체중 감소는 췌장, 위, 폐, 식도암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급격한 체중감소가 있는데도 운동이나 다이어트 탓으로 돌리면 암 조기발견을 놓칠 수 있다.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 중 여덟 번째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를 들 수 있다. 이 증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 런던대학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증상을 겪은 환자는 드물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의 원인은 신경 또는 면역 체계의 문제, 식도암이나 위암, 목에 암이 생길 때 종종 생긴다. <br/> <br/>아홉 번째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으로는, 출혈이다.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면 폐암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대변에 묻은 피는 결장과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 출혈을 경험한 여성은 자궁이나 자궁내막암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 유두에서 피가 새어나온다면 유방암, 소변의 피는 방광이나 신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비정상적인 출혈은 암의 전 단계임을 명심해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br/>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 중 마지막 열 번째는 피부의 변화다. 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의 모양 변화는 피부암을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피부변화에 무신경하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피부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데도 단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기 일쑤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8.txt

제목: [핫키워드]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인당 쌀 소비 사상 최저, 이순신 백의종군로 고증 완료, 혈우병 원인, 플라시보 뜻  
날짜: 2015020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210016155361  
본문: 이순신 백의종군로 고증 완료 <br/>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인당 쌀 소비 사상 최저, 이순신 백의종군로 고증 완료, 혈우병 원인, 플라시보 뜻 <br/> <br/>[핫키워드]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인당 쌀 소비 사상 최저, 이순신 백의종군로 고증 완료, 혈우병 원인, 플라시보 뜻 <br/> <br/> <br/>2일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인당 쌀 소비 사상 최저, 이순신 백의종군로 고증 완료, 혈우병 원인, 플라시보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br/> <br/>  <br/> <br/> <br/>#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br/> <br/>미국의 건강사이트 프리벤션닷컴이 미국 과학공공도서관저널(PLOS One)에 게재된 영국 런던대학의 논문을 토대로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한 암 증상 10가지'에 대해 소개했다. <br/> <br/>덩어리나 혹이 만져 진다.암 환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몸 안에 원인 불명의 덩어리가 있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이들 중 67%가 의사에 문의하지 않았고 77%는 이를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다. 유방이나 다른 부위를 자주 만져 덩어리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암 조기발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br/> <br/>기침이나 쉰 목소리.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데도 "원래 호흡기가 약해서..."라며 약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는 후두암, 폐암 또는 갑상선암,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목 주위에 변화가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암을 제 때 치료할 수 있다. <br/> <br/>배변 습관의 변화. 런던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암 환자들의 18%는 배변 시기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이 가늘어졌는데도 음식이나 약물의 영향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대장암의 전조 증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br/> <br/>소변 습관, 방광 이상. 요로 감염은 여성들에게서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로 감염이겠지..."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변 습관의 변화나 방광에 통증이 있다면 신장암 및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 해당한다. <br/> <br/>지속적인 통증. 통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뼈의 암이나 난소암의 전조일 수도 있다. 미국암협회는 암으로 인한 통증은 서서히 몸 전체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부위의 통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아 암 조기발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br/> <br/>목의 통증. 목의 통증이 계속되면 후두암 등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럼에도 런던대학 설문조사 대상자의 약 78%가 목 통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지레짐작은 매우 위험하다. <br/> <br/>체중 감소. 미국암학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4.5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암의 첫 징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체중 감소는 췌장, 위, 폐, 식도암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급격한 체중감소가 있는데도 운동이나 다이어트 탓으로 돌리면 암 조기발견을 놓칠 수 있다. <br/> <br/>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 이 증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 런던대학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증상을 겪은 환자는 드물었다. 신경 또는 면역 체계의 문제, 식도암이나 위암, 목에 암이 생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출혈. 폐암의 신호가 피가 섞여 나오는 기침이라면, 대변에 묻은 피는 결장,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 출혈을 경험한 여성은 자궁이나 자궁내막암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 유두에서 피가 새어나온다면 유방암, 소변의 피는 방광이나 신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비정상적인 출혈은 암의 전 단계임을 명심해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br/> <br/>피부의 변화. 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의 모양 변화는 피부암을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부변화에 무신경하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피부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데도 단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기 일쑤다. <br/> <br/>  <br/> <br/>  <br/> <br/> <br/># 1인당 쌀 소비 사상 최저 <br/> <br/>지난 1980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잡곡을 포함한 기타 양곡 소비량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27일 통계청은 발표한 201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78.2g으로 전년보다 5.8g(3.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br/> <br/>1963년 통계 작성 이후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 373.7ｇ의 47.7%에 불과한 양으로 알려졌다. 밥 한 공기를 쌀 100ｇ으로 가정하면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먹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br/> <br/>쌀 소비는 줄었지만 1인당 연간 기타 양곡 소비량은 8.7㎏으로 전년보다 0.6㎏(7.4%) 늘어나 2년 연속 증가했다. 잡곡(25.0%), 두류(19.0%), 고구마와 감자 등 서류(3.7%) 등 역시 증가했다. <br/> <br/>원인에 대해선 잡곡을 중심으로 한 기타 양곡의 소비 증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br/> <br/>  <br/> <br/>  <br/> <br/> <br/># 이순신 백의종군로 고증 완료 <br/> <br/>순천향대(총장 서교일) 이순신연구소(소장 임원빈)가 이순신 백의종군로 중 고증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서울~운봉 구간에 대한 고증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이순신 연구소에 따르면 해군역사기록관리단(단장 박영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난해 5월 20일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이순신 백의종군로를 고증했다. <br/> <br/>고증한 구간은 서울시 의금부(지하철 종각역 부근)에서 출발해 전북 남원시 운봉초등학교까지 340.2㎞에 이른다. 이 구간이 새롭게 고증됨에 따라 이순신의 백의종군로는 그간 지자체에서 고증한 경남의 161.5㎞, 전남의 123.2㎞, 그리고 전북 운봉에서 전남 구례까지 연결구간 15.5㎞를 포함해 전체거리 640.4㎞에 달한다. 이로써 이순신 백의종군로 전 구간이 고증됐다. <br/> <br/>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지역의 백의종군로는 서울 의금부 자리에서 경기 평택시 대사리 운선교까지 82.1㎞에 달한다.또, 충남도 지역의 원형 백의종군로는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운선교에서 전북 익산시 여산면 여산동헌까지 149.5㎞다. 전북도 지역의 원형 백의종군로는 익산시 여산면 여산 동헌에서 남원시 운봉읍 운봉초까지 108.6㎞이다. <br/> <br/>임원빈 이순신연구소장은 "이 번 고증사업으로 이순신 백의종군로의 전 구간이 모두 밝혀짐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백의종군로를 복원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모든 국민들이 인근 노선의 백의종군로를 손쉽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백의종군로 고증 사업에는 임원빈 이순신연구소장을 비롯, 정진술 해사충무공연구회 자문위원, 노기욱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5명이 참여했고 경기문화재단 이지훈 연구원 등 해당 지역의 옛길 전문가 6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br/> <br/>  <br/> <br/>  <br/> <br/>  <br/> <br/># 혈우병 원인 <br/> <br/>혈우병 A는 혈장 내 제 8 응고인자가 부족한 병으로, X 염색체에 위치한 F8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제8 응고인자 생산에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난다. <br/> <br/>혈우병 B는 F8 유전자 부근에 위치한 F9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제 9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종류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00개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다. <br/> <br/>두 질환 모두 X 염색체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원인이기 때문에 X 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된다. 거의 모든 경우에 남성에게 발생하며, 원인이 되는 유전자 이상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 <br/> <br/>또한 여성의 경우 유전자 이상이 있어도 다른 정상 X 염색체에 의해 응고인자 생산이 보완되므로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X 염색체의 무작위 불활성 현상으로 인해 응고인자의 부족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br/> <br/>혈우병은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이다. 그러나 약 30%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연변이에 의해 가족력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br/> <br/>  <br/> <br/>  <br/> <br/> <br/># 플라시보 뜻 <br/> <br/>플라시보라는 말은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비롯됐다. <br/> <br/>플라시보 뜻은 심리적 효과를 얻으려고 실제로는 약리학적으로 생리작용이 없는 물질로 만든 비활성 약을 의미한다. <br/> <br/>플라시보 효과에 따르면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는 약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br/> <br/>플라시보 효과는 무엇보다도 만성질환이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플라시보 뜻과 반대 의미를 가진 노시보 효과는 약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r/>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09.txt

제목: 암환자 도우려 '빡빡' 밀었다 정학…"그래도 자랑스럽다"  
날짜: 20150202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210016161934  
본문:   <br/> <br/>암환자 돕기 기금마련에 나섰던 10대 남학생이 정학 처분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머리를 민 남학생의 행동이 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br/> <br/>지난달 30일(현지시각) 영국 BBC 뉴스에 따르면 잉글랜드 소머셋주에 사는 스탠 록(14)이 최근 정학 처분을 당했다. 암환자 돕기에 나선 스탠이 자신의 머리를 밀었는데, 학교 측이 이를 교칙위반 행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br/> <br/>스탠은 “암은 모두에게 생길 수 있다”며 “영향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머리 깎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머리를 미는 것은 교칙을 위반하는 것</span>”이라며 스탠에게 정학 3일 명령을 내렸다. <br/> <br/>그럼에도 스탠의 엄마 멜라니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멜라니는 “<span class='quot1'>아들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학교 측이 스탠의 생각을 높이 사 그의 행동을 예외로 쳐주기를 바란 건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격려에 기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머리를 민 스탠의 결단 덕분에 영국 맥밀런 암지원센터(Macmillan Cancer Support)에는 현재까지 4000파운드(약 664만원) 상당의 기금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BBC 홈페이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0.txt

제목: 다양한 조기암 치료법, 환자 삶의 질 높인다  
날짜: 20150202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210016159929  
본문: # 유 모씨(71)는 최근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초기라 수술하지 않고 근접 방사선 치료인 브라키테라피 시술을 받았다. 유씨는 시술 다음날 퇴원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고 치료 효과도 좋아 크게 만족하고 있다. <br/> <br/># 최 모씨(54)는 개인병원에서 위암을 발견했다.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 외과를 찾았으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로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다시 소화기내과를 찾았다. 최씨는 목요일에 입원해서 시술받고 토요일 아침에 퇴원한 후, 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다. <br/> <br/>최근 암 조기발견이 늘어나면서 조기 암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특히 조기 암은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 많아 환자의 부담과 부작용 위험이 크게 줄었다. <br/> <br/>대표적인 치료법이 조기 위암에서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이다. ESD는 내시경을 이용해 병변의 점막을 부풀린 후 잘라내 치료하는 방법이다. 회복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치료 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나 조기 위암 중에서도 위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없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 <br/> <br/>연세암병원 소화기내과 이상길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위암 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내시경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조기 발견되는 경우도 늘었다</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이에 따라 ESD로 위암을 완치하고 위도 보존하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연세암병원 위암센터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술 건수는 매년 1200여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ESD는 2009년 589건에서 2012년 898건으로 50% 넘게 늘었다. <br/> <br/>조기 위암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ESD가 있다면 초기 전립선암은 근접방사선치료법인 브라키테라피가 주목받고 있다. 브라키테라피는 방사선 발생 동위원소를 체내의 종양에 직접 삽입하는 치료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외과적 수술, 체외 방사선치료와 함께 전립선암의 3대 완치요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br/> <br/>브라키테라피는 주로 초기 국소 전립선암에 적용하며, 요실금 및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적고 1회 시술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통원치료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술 후 다음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br/> <br/>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최신 4세대 브라키테라피는 시술 중 실시간으로 방사선량 확인이 가능하다. 또 방사선동위원소를 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 방사선동위원소를 체내에 삽입할 때 바늘을 이용하는데 이전까지는 바늘에 들어가는 방사선동위원소가 서로 떨어져 있어 동위원소의 위치나 방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4세대 브라키테라피는 방사선동위원소가 서로 연결돼 있어 위치나 방향 변이를 최소화한 것이다. <br/> <br/>세브란스병원은 2012년 11월 4세대 브라키테라피를 도입해 2014년 말까지 20례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br/> <br/>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재호 교수는 “<span class='quot1'>대부분의 암에서 수술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완치라고 해서 암이 없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pan>”라고 지적했다. <br/> <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로 암이 있는 부위의 장기를 절제하면 일부 또는 전체 장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이전 수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절제된 장기의 기능 저하나 수술 흉터의 회복 등 환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최소 침습 수술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각광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ESD나 브라키테라피 외에도 암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약물로 막는 색전술, 종양부위의 온도를 상승시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온열치료, 종양 부위만을 영하 40도 이하로 얼려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냉동소작술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br/> <br/>이처럼 조기 암은 수술 외에도 다양한 치료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암 검진 권고안에 따른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가족 중에 암이 있는 고위험군이나 흡연, 음주 등 암 위험인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이른 나이부터 검진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1.txt

제목: 생활고 비관해 어린 자녀 숨지게 한 30대 母, 징역 6년  
날짜: 201502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210016156600  
본문: 생활고를 비관해 7살과 3살 난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어머니가 징역 6년으로 형이 낮아졌다.  <br/> <br/>2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br/> <br/>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공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br/> <br/>다만 "범행 당시 자신의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r/> <br/>이씨는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br/> <br/>그러던 중 3살 난 딸아이가 뇌병변 3급 장애를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가게 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br/> <br/>이러한 처지를 비관한 이씨는 자살을 결심했다. <br/> <br/>이씨는 어린 두 아이도 자신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동반 자살을 하기로 했다. <br/> <br/>지난해 4월 이씨는 아이들의 목을 차례로 졸라 숨지게 했다. <br/> <br/>그뒤 이씨는 목숨을 끊으려 햇으나 실패,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br/> <br/>1심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2.txt

제목: 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 항암 신약 공동 개발 협약 체결  
날짜: 20150202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210016158366  
본문:   <br/> <br/>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약학대학 강건욱 교수와 ‘천연물 기원 Polo-like Kinase 1(PLK1) 억제 항암 신약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br/> <br/>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아트홀에서 치러진 협약식에는 강덕영 대표와 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들, 강건욱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강 교수의 연구 내용 발표와 글로벌개발본부 정원태 전무의 제품화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br/> <br/>이번 협약으로 유나이티드제약과 강 교수는 유방암을 타겟으로 한 천연물 기원  PLK1 억제 항암 신약 연구를 위한 산학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정 개발을 통한 제제 연구 분야,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한 완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br/> <br/>PLK1은 세포의 유사분열(mitosis)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다.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것이 항암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에 따라, 해외 제약사에서 여러 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나 골수 독성이 나타났다. <br/> <br/>반면 강 교수가 진행 중인 연구는 PLK1이 호르몬 저항성 유방암 세포에서 과발현되는 점에 착안, 유방암을 타겟으로 PLK1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선도 물질을 개발함으로써 골수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2021년 제품화가 목표다. <br/> <br/>유방암은 세계적으로 여성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2012년에 160만 명이 새로 진단됐고, 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2013년 기준 국내 유방암 환자는 약 13만 명으로, 총 진료비는 약 5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약산업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IMS 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제의 세계 시장은 연평균 5.8% 성장을 통해 2013년 98억 달러에서 2023년 182억 달러 규모로 10년 간 약 2배로 증가될 전망이다. <br/> <br/>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관하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최적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며, 대학 측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산업체를 통해 상업화함으로써, 원천 기술을 이용한 제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유나이티드제약은 현재 개량신약 4개 제품을 출시했으며, 2016년까지 10개 제품의 개량신약을 출시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3.txt

제목: 강동경희대병원, 12일 '암센터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20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110016143254  
본문: 곽영태 원장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곽영태·사진)은 오는 12일 오후 6시30분 본관 4층 강당에서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br/> <br/> 이번 심포지엄은 암 환자들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다학제 진료 방식을 소개하는 게 목표다. 환자 임상 사례를 통해 구강암, 식도암, 폐암 등의 다학제 진료 상황을 재연할 예정이다. <br/> <br/> 강동경희대병원 암센터장 이선경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은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로 조기 진단이 어렵고, 병원을 찾았을 땐 보통 3기 이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학제 접근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전 협진 진료와의 차이점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 심포지엄 사전등록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440-7393)나 이메일(eanam@khnmc.or.kr)로 보내면 된다.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강동경희대병원은 2012년 1월부터 암 환자를 위한 다학제 진료 공간을 마련해 꾸준히 다학제 진료를 해오고 있다. (02)440-6100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4.txt

제목: 암 조기 발견땐 비수술적 시술로도 완치  
날짜: 20150201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110016150346  
본문: #1 최근 병원에서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유모(71)씨는 “<span class='quot0'>다행히 초기라 수술하지 않고 근접 방사선 치료인 ‘브라키테라피’ 시술을 받으면 된다</span>”는 권유를 들었다. 유씨는 시술 다음날 바로 퇴원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지 않았다. 치료 효과도 좋아 지금은 크게 만족하고 있다. <br/> <br/>#2 최모(54)씨는 개인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도중 위암이 발견됐다.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 외과를 찾았으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로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소화기내과로 발걸음을 돌렸다. 목요일에 입원해 시술을 받은 최씨는 토요일 아침 퇴원한 뒤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br/> <br/>유씨나 최씨의 경우에서 보듯 요즘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면서 암을 치료하는 양상도 크게 바뀌고 있다. <br/> <br/>초기 단계의 암은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비수술적 시술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크게 줄었다. 가장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이 전립선암 환자에게 시술하는 브라키테라피, 그리고 위암 환자에게 시술하는 ESD다. <br/> <br/>◆방사선으로 전립선암 잡는 ‘브라키테라피’ <br/> <br/>브라키테라피는 방사선 발생 동위원소를 체내의 종양에 직접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외과적 수술, 체외 방사선치료와 더불어 전립선암의 3대 완치 요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브라키테라피는 주로 초기 국소 전립선암에 적용하기 때문에 요실금,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적다. 무엇보다 1회 시술로 치료가 끝나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의 부담이 없다. 시술 바로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br/> <br/>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최신 4세대 브라키테라피까지 등장했다. 시술 도중 실시간으로 방사선량 확인이 가능함은 물론 방사선 동위원소를 한층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삽입할 수 있게 됐다. 연세암병원은 2012년 11월 4세대 브라키테라피를 처음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20례의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br/> <br/>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재호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로 암이 있는 부위의 장기를 절제하면 장기의 일부, 심지어 전체가 없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이전 수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절제된 장기의 기능 저하나 수술 흉터의 회복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갈수록 비수술적 치료가 각광받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 연세암병원 소화기내과 이상길 교수(오른쪽)가 조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을 시술하고 있다. 내시경을 이용해 위암 병변의 점막을 부풀린 후 잘라내는 ESD는 비수술 치료인 만큼 회복 기간이 짧고 부작용도 적다. <br/>연세암병원 제공◆조기에 발견한 위암, 내시경으로 완치 가능 <br/> <br/>ESD는 내시경을 이용해 위암 병변의 점막을 부풀린 후 잘라내 치료하는 방법이다. 회복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치료 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다만 조기 위암 중에서도 위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없을 때에만 시술이 가능하다. <br/> <br/>연세암병원 위암센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술 건수는 매년 약 1200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ESD는 2009년 589건에서 2012년 898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br/> <br/>연세암병원 소화기내과 이상길 교수는 “<span class='quot2'>최근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위암 검진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늘었다</span>”며 “<span class='quot2'>그에 따라 ESD로 위암을 완치하고 위도 보존하는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span>”라고 설명했다. <br/> <br/>브라키테라피나 ESD 외에도 암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약물로 막는 색전술, 종양 부위의 온도를 상승시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온열치료, 종양 부위만을 영하 40도 이하로 얼려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냉동소작술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다. 조기에 발견한 암은 이처럼 수술 외에도 다양한 치료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3'>정기적 검진에 따른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span>”고 거듭 강조한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5.txt

제목: “골다공증 환자 약물 복용前 치과 검진 반드시 받으세요”  
날짜: 20150201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20110016150345  
본문: 얼마 전 어금니가 흔들려 치과에서 이를 뽑은 김모(62·여)씨는 발치 부위가 아물지 않고 고름이 계속 나오자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턱뼈가 괴사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의 병명은 골다공증 치료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으로 인한 턱뼈 괴사였다. 여러 해 전부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 김씨는 “<span class='quot0'>치과 진료부터 받고 약물을 복용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span>”이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br/> <br/>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악성 암이나 골다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뼈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 약물이다. 그러나 치아가 있는 턱뼈의 생명력을 약화시켜 턱뼈를 괴사시키는 무서운 부작용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원인이 되어 턱뼈가 괴사하면 이를 뽑아도 뽑은 자리가 아물지 않아 병균에 감염됨으로써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고름이 나오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를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처지가 된다. <br/> <br/> 서울대치과병원 명훈 교수(왼쪽)가 환자에게 골다공증 치료 약물의 부작용에 따른 턱뼈 괴사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br/>서울대치과병원 제공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명훈 교수는 “<span class='quot1'>비스포스포네이트는 효과를 없애는 일종의 길항제가 전혀 없는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1'>골다공증 약물을 투여받기 전에 치과 검진과 필요한 사전 치료를 통해 구강 상태를 최상으로 해놓는 예방이 최선</span>”이라고 말한다. 명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골다공증 약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유럽과 미국보다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편이다. 자연히 부작용으로 인한 턱뼈 괴사 환자도 상대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골다공증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소통’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br/> <br/>명 교수는 “<span class='quot1'>일반적으로 주사로 맞는 약이 먹는 약보다 약효가 수천배 이상 강해 턱뼈 괴사증이 생기는 사례도 훨씬 더 많지만, 한국인들은 유독 주사로 맞는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턱뼈와 잇몸이 녹아 사라지는 비극을 막으려면 약물 복용 전에 치과 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태훈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6.txt

제목: 암 위험 줄이는 법 5가지, 이렇게만 하면 ‘암에서 해방’ 어떤 방법 있나?  
날짜: 201501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3110016134907  
본문: 암 위험 줄이는 법 5가지 <br/> <br/>암 위험 줄이는 법 5가지에 알려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 <br/>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질병 예방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암 위험 줄이는 방법 5가지를 공개했다. <br/>암 위험 줄이는 법 첫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고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식사량을 줄여 천천히 먹으면 체중관리에 효과가 좋다. <br/> <br/>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도 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선별 검사를 통해 암의 초기 증상을 발견해 예방을 할 수 있다. 특히 대장·직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은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br/> <br/>암을 예방하려면 금연은 필수다. 금연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직장 등에서 여러 명이 함께 금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r/> <br/>암 예방에는 건강한 식사도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등 나쁜 지방은 줄이고 단일불포화나 다중불포화지방의 섭취는 늘린다. 엽산이 풍부한 멀티비타민을 매일 먹는 것도 효과적이다. <br/> <br/>마지막으로 꼽힌 암 위험 줄이는 방법은 술을 절제하는 것이다. 소량의 술은 심장에 좋지만 많이 마셨을 때는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 심장 건강에 좋은 술의 양은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 이하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7.txt

제목: 암 위험 줄이는 법 5가지, ‘금연 필수’ 술은 두 잔만  
날짜: 201501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3110016132160  
본문: 암 위험 줄이는 법 5가지 <br/> <br/>암 위험 줄이는 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br/> <br/>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질병 예방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암 위험 줄이는 방법 5가지를 소개했다. <br/>암 위험 줄이는 법 첫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고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식사량을 줄여 천천히 먹으면 체중관리에 효과가 좋다. <br/> <br/>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도 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선별 검사를 통해 암의 초기 증상을 발견해 예방을 할 수 있다. 특히 대장·직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은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br/> <br/>암을 예방하려면 금연은 필수다. 금연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직장 등에서 여러 명이 함께 금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r/> <br/>암 예방에는 건강한 식사도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등 나쁜 지방은 줄이고 단일불포화나 다중불포화지방의 섭취는 늘린다. 엽산이 풍부한 멀티비타민을 매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br/> <br/>마지막으로 꼽힌 암 위험 줄이는 방법은 술을 절제하는 것이다. 소량의 술은 심장에 좋지만 많이 마셨을 때는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 심장 건강에 좋은 술의 양은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 이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8.txt

제목: 프로야구 NC 원종현 대장암수술 무사히 진행…의식 회복  
날짜: 20150130  
기자: 유해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3010016119985  
본문: 대장암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 NC의 원종현(28)이 29일 수술을 무사히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br/> <br/>30일 NC 구단에 따르면 원종현은 전날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약 2시간 17분에 걸쳐 대장 내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이동했다. NC는 “<span class='quot0'>수술은 무사히 진행됐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span>”이라고 전했다. 의료진은 암 조직이 전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판단은 조직검사 등의 결과가 나오는 7∼10일 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br/> <br/>앞서 원종현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 중인 스프링캠프에서 불펜피칭을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조기 귀국했다. 이어 지난 28일 정밀 검진을 받고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NC는 팀 불펜투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종현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15시즌 등록선수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NC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회복에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결정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NC는 대장암 극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단이 부담하는 등 원종현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br/> <br/>암 판정을 받고 원종현은 “<span class='quot2'>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내겠다</span>”며 “<span class='quot2'>건강을 되찾아 마운드에 다시 서겠다</span>”고 말했다. 그는 NC 신년회가 열린 지난 12일 “지난해 7월 체력 위기를 느꼈는데 이 시기를 버티면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던졌다. 힘들다고 쳐질 수 없었다. 작년에 그렇게 했듯이 올해도 최선 다하겠다”며 특유의 강인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br/> <br/>유해길 선임기자 hk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19.txt

제목: [핫 키워드] 금연치료 건보 적용, 원종현 수술, 봉만대 떡국열차, 오늘 날씨, 아시안컵 결승 시간, 김성령 화보, 국제유가 상승, 노푸 부작용  
날짜: 20150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3010016120916  
본문:   <br/> <br/>[핫 키워드] 금연치료 건보 적용, 원종현 수술, 봉만대 떡국열차, 오늘 날씨, 아시안컵 결승 시간, 김성령 화보, 국제유가 상승, 노푸 부작용 <br/> <br/>금연치료 건보 적용, 원종현 수술, 봉만대 떡국열차, 오늘 날씨, 아시안컵 결승 시간, 김성령 화보, 국제유가 상승, 노푸 부작용이 오늘의 '핫 키워드'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 <br/># 금연치료 건보 적용 <br/> <br/>다음달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br/> <br/>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br/> <br/>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br/> <br/>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한다. <br/> <br/>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br/> <br/>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br/> <br/>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br/> <br/> <br/>  <br/># 원종현 수술 <br/> <br/>NC 투수 원종현이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행히 전이된 부분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원종현은 29일 09:10분 수술실에 들어가 30분이 지난 09:42분 부터 수술을 받았고, 11:59분 회복실로 이동했다. <br/> <br/>현재 의식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며 수술은 무사히 진행됐다는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br/> <br/>의료진에 따르면 암 조직이 전이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조직검사 등의 결과가 나오는 7~10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원종현은 지난 28일 대장암 판정을 받고 29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br/> <br/> <br/> <br/># 봉만대 떡국열차 <br/> <br/>방송인 김구라가 봉만대 감독의 영화에 주연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화제다. <br/> <br/>지난 29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예능심판자'에서 MC 김구라는 봉만대 감독의 영화 '떡국열차'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 <br/>이날 김구라는 공황장애로 잠시 방송활동을 쉬었던 일을 언급하며 "아프고 나서 병원에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r/> <br/>김구라는 "이번 주에 봉만대 감독과 '떡국열차'를 찍는다. 내 역할은 '커져쓰'라고 '설국열차'에서 크리스 에반스가 맡은 역이다"라고 설명했다. <br/> <br/>한편 봉만대 감독은 최근 '떡국열차'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오는 30일 티저 촬영에 들어간다. <br/> <br/>이 영화의 관계자에 따르면 '떡국열차'는 19금 영화이지만 노골적인 장면은 없으며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코믹물이라고 설명했다. 주인공은 김구라가 캐스팅됐고, 개그맨 윤형빈 박휘순과 모델 이영진도 출연하며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내레이션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에 '떡국열차' 제작진은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티저 영상을 찍은 후 2월 중순 설 연휴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3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하반기에 개봉을 염두에 두고 있다. <br/> <br/> <br/>  <br/># 오늘 날씨 <br/> <br/>30일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에 점차 맑아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후 오후에 개겠다. <br/> <br/>일부 경상남북도는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서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난 29일부터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있으니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br/> <br/>이날 낮부터 오는 31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br/> <br/> <br/> <br/># 아시안컵 결승 시간 <br/> <br/>아시안컵 결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아 축구 최강국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오는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 팀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호주 축구 대표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다. <br/> <br/>앞서 지난 27일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의 4강전 경기 후 슈틸리케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감독은 "호주 선수들은 공중볼에 강하고, 호흡을 맞춘 시간이 길어서인지 각자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우리가 그동안 경기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UAE가 후반 20분 이후 좋은 패스를 통해 흐름을 이어가는 등 공격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장면도 있었다. 결승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br/> <br/>포스테코글루 호주 대표 팀 감독 또한 결승전에 대해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때는 라인업 자체가 달랐다. 이번에는 그런 라인업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br/> <br/>한편 대한민국 축구 대표 팀은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무실점과 연승을 기록하며 '늪 축구', '경제 축구'등의 별명을 얻어 큰 화제를 얻고있다. <br/> <br/> <br/> <br/># 김성령 화보 <br/> <br/>김성령이 이탈리아 모델과 다정한 모습에 성시경의 질투가 폭발했다. <br/> <br/>29일 방송된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이하 띠과외)에서는 이탈리안 모델인 지롤라모 판체타와 화보 촬영을 진행하는 김성령의 모습이 그려졌다. <br/> <br/>이날 김성령은 화보촬영장에서 만난 이탈리안 모델 지롤라모 판체타와 함께 콘셉트 회의를 진행했다. <br/> <br/>지롤라모 판체타는 김성령에 "몸에 터치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김성령은 앞서 성시경에 배웠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며 "당신이 원하는 어디든 만져도 좋다"고 도발적으로 말해 시선을 모았다. <br/> <br/>이날 김성령의 일일 매니저로 변신한 성시경은 김성령과 지롤라모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며 '이글 아이'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br/> <br/>성시경은 김성령이 이탈리아 모델과 화보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어. 미치겠네"를 연발했다. <br/> <br/>일일매니저 성시경은 김성령을 위해 간식을 사러 나갔고, 빵집에서 김성령의 사진을 본 뒤 깜짝 놀랐다. <br/> <br/>촬영장에 돌아온 성시경은 김성령에 "신났구만. 신났어"라고 말했다. 김성령은 성시경이 사온 케이크와 빵을 보며 "내 영어 선생님 말고 매니저 해주면 안 되냐"며 "패션 센스는 없어도 빵 센스는 있다"고 칭찬했다. <br/> <br/> <br/> <br/># 국제유가 상승 <br/> <br/>국제유가 상승 마감했다. <br/> <br/>29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8센트(0.19%) 오른 배럴당 44.53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WTI는 전날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인 배럴당 44.45달러 선까지 떨어졌었다. <br/> <br/>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전날보다 66센트(1.4%) 상승한 배럴당 49.13달러에 마감했다. <br/> <br/>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량이 늘어난 탓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하락 압력이 높았지만,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크게 줄어들어 상승했다. <br/> <br/>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4만3000명 급감한 26만5000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측은 크게 밑돈 것인데다 200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br/> <br/> <br/> <br/># 노푸 부작용 <br/> <br/>물로만 머리를 감는 '노푸(No Shampoo)' 인기와 함께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br/> <br/>노푸는 말 그대로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머리를 헹구거나 자연 성분으로 머리를 감는 것이다. <br/> <br/>노푸는 샴푸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등 화학성분이 두피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처음엔 기름기가 돌지만 계속 노푸를 하면 두피가 본래 기능을 회복하면서 탈모 등에 효과적이고 더욱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br/> <br/>최근 노푸는 SNS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잇따르며 화제를 모았다. <br/> <br/>노푸는 베이킹파우더를 푼 물에 머리카락과 두피를 적신 뒤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준 후 사과 식초를 모발에 뿌린 뒤 물로 헹궈주면 되는데 이는 린스나 컨디셔너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br/> <br/>하지만 지성 타입의 두피인 경우에는 피지가 말끔히 세척되지 않아 각종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베이킹소다는 샴푸보다 세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탈모를 방지하려다 오히려 탈모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두피에 자주 사용하게 되면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된다. <br/> <br/>따라서 무작정 노푸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두피 타입에 맞고 계면활성제를 비롯해 파라벤, 미네랄 오일 등 화학 성분 대신 천연 성분이 들어간 천연 제품을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샴푸 후 린스를 포기할 수 없다면 천연 성분 린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분 이상 마사지한 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br/>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0.txt

제목: 피해야 할 식습관, 물 대신 음료수 피해야…아침식사는 필수로 섭취 필요  
날짜: 20150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910016103223  
본문: 피해야 할 식습관피해야 할 식습관, 물 대신 음료수 피해야.. 아침식사는 필수로 섭취 필요 <br/> <br/>피해야 할 식습관이 공개돼 화제다. <br/> <br/>잘못된 식습관을 고집할 경우 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피해야 할 식습관에 대해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 요인 가운데 잘못된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흡연이나 유전 보다 식습관이 암을 발병하는 데 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br/> <br/>피해야 할 식습관은 먼저 식사량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것이 꼽힌다. 또 물을 적게 먹는 것,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빨리 먹기도 피해야 할 식습관이다.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물을 대신해 음료수를 고집하거나 큰 그릇을 사용하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br/> <br/>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할 식습관으로 선정됐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1.txt

제목: 시각장애 학생들, 암환자에 '희망'을 선물하다  
날짜: 20150129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910016107837  
본문: 시각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단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찾아 입원 중인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연주를 하고 있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원장 이학노)는 최근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인천성모병원에 따르면 시각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단이 지난 28일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한 암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연주회를 가졌다. 인천혜광학교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로, 오케스트라단은 전체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br/> <br/>이날 공연에는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단 10명이 참여했다. 저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악기를 연주하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노래의 날개 위에’ 등 8곡을 선사했다. 말기암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던 환자와 가족들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한땀 한땀 이어간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에 박수로 화답했다. 악보를 볼 수 없어 곡을 모두 외워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감동을 받은 일부 환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br/> <br/>인천혜광학교 이석주 교감은 “<span class='quot0'>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한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성모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2.txt

제목: 피해야 할 식습관 '공개' 규칙적인 식사 하지 않으면 '암 발생' 요인  
날짜: 20150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910016108736  
본문: 피해야 할 식습관피해야 할 식습관 '공개' 규칙적인 식사 하지 않으면 '암 발생' 요인 <br/> <br/>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습관이라고 밝혔다. 식습관이 흡연이나 유전보다 암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 <br/>세계보건기구가 밝힌 피해야 할 식습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했다. <br/> <br/>식단표를 짜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는 습관은 고쳐야 한다. 배가 고프면 몸에 좋지 않은 간식에 손이 더 자주 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식단표를 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br/> <br/>예를 들어 주말이 되면 1주일간의 식단계획을 세운 뒤 통곡물, 콩, 닭가슴살, 과일, 요거트 등 몸에 좋은 음식을 미리 사두는 것이 좋다. 또 미리 식단표를 짜서 배식을 하면 아이들의 편식을 고치는 데도 효과적이다. <br/> <br/>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말라야만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피해야 할 식습관이다. 우리 몸은 갈증을 허기로 착각해 밥을 먹으라고 지시하게 된다. 따라서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살이 찔 가능성도 높다. <br/> <br/>게다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몸 자체 칼로리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피부미용과 척추 건강에도 탁월하다. <br/> <br/>집에서 큰 그릇을 사용하는 습관도 피해야 한다. 큰 그릇을 사용하면 무의식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염려가 높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3.txt

제목: 피해야 할 식습관, 흡연-유전보다 '암 발생' 상관 관계↑  
날짜: 20150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910016108840  
본문:   <br/> <br/>피해야 할 식습관, 흡연-유전보다 '암 발생' 상관 관계↑ <br/> <br/>피해야 할 식습관이 공개됐다. <br/> <br/>최근 세계보건기구는 “<span class='quot0'>암 발생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습관</span>”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 <br/>이에 따르면 식습관은 흡연이나 유전보다 암 발생과 상관관계다 더 높을 정도로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br/> <br/>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과식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기초대사량 이하의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평소 식사량의 절반 이하로 줄여 섭취할 시에는 요요현상이 오거나 식욕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므로 식사량을 조절할 때는 평소의 2/3 정도의 수준에서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또 과식을 하면 남은 열량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 세포에 축적되고 심한 경우 분화돼 세포 수가 늘어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해놓아야 한다. 이가 불규칙할 경우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몸에서는 음식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남은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해두려는 경향이 생기므로 마른 비만(정상 체중에서도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이 되기 쉽다. <br/> <br/>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므로 피해야 한다. 야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피한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기초대사량이 저하돼 몸에 지방이 쌓일 수 있고 폭식을 유도하므로 아침은 반드시 먹는 것이 좋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4.txt

제목: 피해야 할 식습관, 식사량 줄일 때 '절반' 아닌 '2/3' 섭취...'천천히'가 중요  
날짜: 20150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910016101163  
본문:   <br/> <br/>피해야 할 식습관, 식사량 줄일 때 '절반' 아닌 '2/3' 섭취...'천천히'가 중요 <br/> <br/>피해야 할 식습관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br/> <br/>최근 세계보건기구는 “<span class='quot0'>암 발생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습관</span>”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 <br/>이에 따르면 식습관은 흡연이나 유전보다 암 발생과 상관관계다 더 높을 정도로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br/> <br/>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과식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기초대사량 이하의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평소 식사량의 절반 이하로 줄여 섭취할 시에는 요요현상이 오거나 식욕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므로 식사량을 조절할 때는 평소의 2/3 정도의 수준에서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또 과식을 하면 남은 열량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 세포에 축적되고 심한 경우 분화돼 세포 수가 늘어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해놓아야 한다. 이가 불규칙할 경우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몸에서는 음식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남은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해두려는 경향이 생기므로 마른 비만(정상 체중에서도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이 되기 쉽다. <br/> <br/>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므로 피해야 한다. 야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피한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기초대사량이 저하돼 몸에 지방이 쌓일 수 있고 폭식을 유도하므로 아침은 반드시 먹는 것이 좋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5.txt

제목: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 없다”  
날짜: 20150128  
기자: 정재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810016090444  
본문: 국내 방사선·원자력 관련 학술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은 원전과 관련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원전 인근에 20년간 거주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과 관련 지난해 법원이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br/> <br/>대한방사선과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원자력의학진흥협의회 등 13개 방사선·원자력 관련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에서 “원전주변 방사선량은 일반인의 법적 연간 선량한도인 1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원전주변 지역의 방사선량률은 원전이 없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br/> <br/>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20년간 수행한 원전역학조사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었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인 여성 갑상선암도 ‘방사선 이외의 요인’으로 추론됐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6.txt

제목: 포스텍 김철홍·임근배교수팀, 고속 광학 해상도 광음향 현미경 개발  
날짜: 20150127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710016074783  
본문:   <br/> <br/>기존 현미경에 비해 수십배 빠른 광음향 현미경 기술이 개발됐다. <br/> <br/>포스텍(포항공대)은 김철홍·임근배 교수팀이 2축 방수 MEMS(미세전자제어기술) 스캐너를 이용, 기존의 광음향 기술보다 넓은 범위의 영상을 스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비해 50배 빠른 광음향 현미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술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 발표했다. <br/> <br/>광음향은 번개가 치면 천둥소리가 들려오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광에너지가 열로 변하는 단계에서 기체에 음파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이 현상을 이용한 의료 영상 기술은 2016년 1억2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br/> <br/>짧은 펄스의 레이저로 생체 조직을 투사하면 광음향 신호가 나오고, 이 신호는 기존의 초음파기기를 통해 감지된다. 이 기술은 실제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고감도일 뿐 아니라, CT나 MRI처럼 조영제가 따로 필요 없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br/> <br/>암 진단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고속의 영상출력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방수가 가능한 2축 MEMS 스캐너를 제작, 이 스캐너가 물 속에서 작동하도록 해 초음파와 레이저 빛을 동시에 반사하도록 해 더욱 선명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미경의 크기를 크게 줄여 향후 내시경이나 손잡이형 광학 영상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br/> <br/>연구팀은 이 연구성과를 이용, 살아있는 쥐 귓속 미세혈관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고해상도 영상과 신진대사 정보 제공을 통해 암 관련 연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조영제를 이용, 생체 내 분자 영상학에 응용하고 수술실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조직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환자에게는 편리하며 결과는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7.txt

제목: 아스텔라스 ‘엑스탄디’ 건강보험 적용···전립선암 환자 부담금 대폭 감소  
날짜: 20150127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710016073206  
본문:   <br/> <br/>한국아스텔라스제약(대표 정해도)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성분명 엔젤루타마이드)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국내 남성 암 증가율 2위인 전립선암 치료에 새 지평이 열렸다. <br/> <br/>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엑스탄디를 위험분담제(환급형) 대상약제로 지정,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보험적용 전 월 투약비용(1박스) 기준 약 400만원에서 보험적용 후 약 16만5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br/> <br/>엑스탄디는 전립선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호르몬 안드로겐의 수용체 신호전달을 차단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약물로, 이전에 도세탁셀(탁소텔 외 다수)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다. <br/> <br/>평균 2개월의 생명연장 효과가 있는 도세탁셀은 말기 암환자에게는 다소 견디기 어려운 부작용과 치료 이후 병이 재발할 경우 추가적인 치료 대안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엑스탄디 외에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카바지탁셀), 얀센의 자이티가(아비라테론) 등 신약이 지속적으로 출시됐다. 이 중 아스텔라스가 가장 먼저 건강보험 적용에 성공함으로써 도세탁셀 이후 투여할 수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br/> <br/>또한 아스텔라스제약은 기존에 도세탁셀 등 항암치료 전력이 없는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 대한 임상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말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추가 적응증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적응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8.txt

제목: 올림푸스 NBI 내시경 기술, 美 FDA 승인 획득  
날짜: 20150127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710016071180  
본문: 올림푸스가 독자 개발한 NBI(Narrow Band Imaging, 협대역 화상 강화) 내시경 기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FDA 510(K)(시판 전 신고) 승인을 받았다. <br/> <br/>FDA는 NBI 기술이 백색광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조직의 효과적인 생검을 가능케 하고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종양 경계 식별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br/> <br/>FDA가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NBI 내시경으로 방광을 검사했을 때 백생광 내시경보다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 병변 발견율이 17% 더 높았고, 추가 종양 발견율은 24%, 추가 상피내암 발견율은 28%가 더 높았다. <br/> <br/>앞으로 NBI는 비뇨기과 의료진과 집도의 모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조기 검진을 통해 의료비용 감소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올림푸스의 NBI는 보통의 생검 과정처럼 염료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백색광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조직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특허 기술이다. <br/> <br/>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진 시 백색광(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합침)으로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NBI는 혈액에 강하게 흡수되는 청색광과 녹색광만을 사용해 점막 표면의 모세혈관 형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미세병변을 더 잘 보이도록 한다. <br/> <br/>이를 통해 암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종양 주변부를 더 잘 보이도록 해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환자에게는 방광 제거와 인공 방광 대치술과 같은 침습 치료를 방지해 치료 과정의 불편을 줄여준다. <br/> <br/>NBI는 비뇨기과 이외에도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및 이비인후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임상 효과가 입증되었다. 앞서 바렛 식도의 검사와 감시검사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산부인과와 일반 외과 영역에서도 NBI에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NBI의 비뇨기과적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br/> <br/>한편, 올림푸스는 비뇨기과 의료진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Olympus NBI’을 개발한 바 있다. NBI 기술 개요를 비롯해 28가지의 임상사례 이미지, 백색광과의 비교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동료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29.txt

제목: 정읍귀리 블로거팸투어 성료  
날짜: 2015012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710016074067  
본문:   <br/> <br/> <br/>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은 지난 21일, 전국의 영향력 있는 블로거 40명을 초청해 “정읍명품귀리와 함께하는 블로거 팸투어” 행사를 가졌다. 당일 팸투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궂은 날씨를 무색하게 할 만큼 즐거운 체험행사와 시식행사로 참여 블로거들을 사로잡았다. <br/> <br/>이날 행사에서는 귀리밥과 귀리빵 시식, 귀리 제과제빵체험 등의 귀리관련 체험 및 시식과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피향정, 김동수 가옥 관광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귀리 제과제빵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읍귀리 제과제빵 행사는 귀리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 활용수업은 물론, 갓 만들어낸 귀리빵의 따끈함과 풍부한 맛으로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 잡았다. <br/> <br/>귀리는 최근 영양학에서 주목 받고 있는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은 물론, 혈당저하작용, 변비완화작용, 심장강화작용, 항암작용 등의 특징으로 세계 10대푸드에 선정되어 전 세계적인 건강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최근 연구에서는 귀리가 염증을 촉진하는 타입의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강하게 저지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소염작용, 특히 장에서 시작되는 암의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br/> <br/>이날 참여한 블로거들은 자신이 직업 체험하고 시식한 정읍귀리 후기를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br/> <br/>정읍귀리 행사 진행 관계자에 따르면 “<span class='quot0'>다가오는 설 시즌, 무분별한 설 선물 광고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 정읍귀리 팸투어는 정읍귀리를 직접 체험하고 시식한 후 그 맛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블로거가 작성한 양질의 콘텐츠만을 온라인상에 노출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span>” 이라고 말했다. <br/> <br/>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 측은 “이번 정읍명품귀리 블로거 팸투어를 통해 정읍 귀리가 정읍을 대표하는 대표 작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전 국민에게 정읍귀리의 맛과 우수성을 전파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정읍귀리는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0.txt

제목: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하루 2~3잔은 건강에 도움...혈액순환-이뇨작용 활성화  
날짜: 2015012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610016053214  
본문:   <br/> <br/>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하루 2~3잔은 건강에 도움...혈액순환-이뇨작용 활성화 <br/> <br/>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속설 때문에 커피를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br/> <br/>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의 진실과 건강하게 커피 마시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br/> <br/>첫째, 하루 2~3잔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 <br/> <br/>또한 이뇨작용을 도와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심장박동 횟수를 늘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도와준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충치 예방과 입 냄새 제거 등에도 효과가 있다. <br/> <br/>둘째, 똑같은 원두도 신선해야 건강한 커피다. 심장 질환, 암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커피의 클로로겐산 물질은 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커피콩을 볶는 로스팅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br/> <br/>셋째, 건강 염려된다면 첨가물 넣은 커피는 적게 마실수록 좋다. 일정량의 커피는 건강에 좋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블랙 원두 커피 이외 당분, 시럽, 프림 등을 첨가한 다른 종류의 커피는 조심해야 한다. <br/> <br/>넷?, 건강 상태에 따라 커피도 선택해서 마셔야 한다.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처럼 혈관 관리가 중요한 질환을 갖고 있다면 종이 필터로 커피를 내려먹는 것이 좋다.  <br/> <br/>이 외에도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젊은 여성이라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r/>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1.txt

제목: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첨가물 넣지 않은 순수 원두 커피가 정답  
날짜: 2015012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610016053248  
본문: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2014년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br/> <br/>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의 진실과 건강하게 커피 마시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  <br/> <br/>또한 이뇨작용을 도와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심장박동 횟수를 늘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도와준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충치 예방과 입 냄새 제거 등에도 효과가 있다.  <br/> <br/>다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과민 두통 어지러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약 커피 2-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  <br/> <br/>똑같은 원두, 똑같은 추출 방법으로 마시는 커피라도 원두가 신선해야 건강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심장 질환, 암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커피의 클로로겐산 물질은 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커피콩을 볶는 로스팅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br/> <br/>진하게 볶은 원두는 클로로겐산의 손상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로스팅해 산미가 풍부한 커피가 건강에 더 좋다. 또한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br/> <br/>또한 설탕이나 크림 등 첨가물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다. 블랙 원두커피는 열량이 10kcal 미만이지만 커피 믹스는 50~80kcal, 라떼는 200kcal 정도로 열량이 높다. 또한 우유의 단백질, 음료에 넣는 시럽 등은 충치의 원인이 된다. <br/> <br/>당뇨 심장질환 고혈압처럼 혈관 관리가 중요한 질환을 갖고 있다면 종이 필터로 커피를 내려먹는 것이 좋다. 커피의 구수한 맛과 향을 더하는 원두의 지방 성분은 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으므로 필터로 걸러내려 마셔야 한다. <br/> <br/>이밖에도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젊은 여성이라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2.txt

제목: 스트레스 해소 음식 7가지 섭취하면 나아져.. 올바른 식습관 가장 중요  
날짜: 2015012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610016065193  
본문: 스트레스 해소 음식 7가지스트레스 해소 음식 7가지 섭취하면 나아져.. 올바른 식습관 가장 중요 <br/> <br/>  <br/> <br/>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푸드 테라피’ 스트레스 해소 음식 7가지가 알려져 화제다. <br/> <br/>  <br/> <br/>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레 먹을 것부터 찾는데 그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매콤한 맛을 내는 요리다.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고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 맵거나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br/> <br/>  <br/> <br/>스트레스 해소 음식 7가지는 버섯 단호박 사과 감 고등어 당근 무 등으로 알려졌다. <br/> <br/>  <br/> <br/>우리 선조는 봄 무부터 겨울 무까지 중에서 건강에 이로운 무로 겨울 무를 꼽았다. 겨울 무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엽산 등 비타민, 칼슘·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한 무, 그리고 이런 영양소는 특히 잎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 <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매콤하면서 자극적인 음식과, 단 음식은 강하게 미각을 자극해 정서적 마취제 역할을 한다</span>”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곧바로 “<span class='quot1'>이같이 자극적인 음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span>”고 선을 그었다. 자극적인 음식의 마취제 역할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br/> <br/>  <br/> <br/>스트레스 해소 음식 단호박은 속살이 노란 대표적인 옐로 푸드로 노란색의 정체는 ‘베타카로틴’으로 이것이 체내로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베타카로틴은 유해 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성분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암·심장병·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체내 신경조직을 강화해주어 각종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좋다. <br/> <br/>  <br/> <br/>스트레스 해소 음식으로 초콜릿·사탕 같은 단 음식을 찾기도 한다. 잠시 스트레스가 완화되지만 잠시 후 다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이 단 음식을 찾게 된다. 문제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반복해 섭취하면 결국 비만·고지혈증·당뇨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1'>실제 비만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어 비만해졌다</span>”고 지적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를 자극해 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빠른 속도로 혈당에 변화를 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혈당의 변화가 큰 단순 당질 식품, 즉 설탕이나 시럽이 듬뿍 들어 있는 간식과 캐러멜, 꿀, 사탕, 초콜릿은 되도록 멀리 하는 것이 좋다. <br/> <br/>  <br/> <br/>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거나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면 가급적 열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한다. 쉽게 말해, 단 음식을 먹더라도 초콜릿·아이스크림·청량음료 보다는 과일을 먹는 식이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기름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메뉴를 고른다. <br/> <br/>  <br/> <br/>스트레스 해소음식 사과는 칼륨·비타민C·유기산·펙틴·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특히 칼륨은 소금 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매출하는 미네랄이 풍부해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다. 사과에 풍부한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면역력을 길러주고,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주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만큼 심장병 등과 같은 혈관질환과 암 예방에 이롭다. <br/> <br/>  <br/> <br/>스트레스 해소음식 감은 피부 미용과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C와 A,B까지 모두 갖고 있어, 비타민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열매 뿐 아니라 감잎에도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따뜻한 감잎차 한 잔이면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을 한 방에 예방할 수 있다. <br/> <br/>  <br/> <br/>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찾는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이 답이 될 수 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기능을 높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딸기·오렌지·레몬·고추·귤·피망·브로콜리·키위·토마토·감자·양배추·시금치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러나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저장과 조리 및 가공법에 따라 파괴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짧은 시간에 조리하고 금속용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또, 포도와 복숭아처럼 당분이 많은 것보다 수박·토마토·당근처럼 당분이 적은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줄이면서 비만에 대한 우려도 없다.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아미노산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다. <br/> <br/>  <br/> <br/>스트레스 해소 음식고등어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푸른 생선인 만큼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가 아주 풍부하다. 동맥순환을 향상시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기르는 효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DHA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를 성장, 발달시켜주어 두뇌회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여준다. <br/> <br/>  <br/> <br/>스트레스해소 음식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만, 변비를 막아주며 암을 예방하는 웰빙·장수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같은 효능의 중심엔 ‘베타글루칸’이 있다. <br/> <br/>  <br/> <br/>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 또한 버섯은 90%이상이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만병의 근원’이라는 변비 예방 및 치료에 유효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버섯 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렌티난’(다당류의 일종)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렌티난은 암 예방을 돕고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며 항 바이러스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br/> <br/>  <br/> <br/>스트레스를 해소 음식 7가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무기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체내에 비타민과 아연 같은 무기질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술과 카페인이 있는 음식은 피한다.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이완 시 켜주지만 알코올 성분이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인다.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 번 씹어서 천천히 먹고 먹을 때는 틈틈이 쉬는 습관을 기른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채소·과일·현미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span>”이라고 조언했다. <br/> <br/>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3.txt

제목: [핫키워드]MSG의 뜻,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진짜사나이 강예원,손수조 결혼  
날짜: 2015012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610016053292  
본문: [핫키워드]MSG의 뜻,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진짜사나이 강예원,손수조 결혼 <br/> <br/>]MSG의 뜻,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진짜사나이 강예원,손수조 결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br/> <br/> <br/>#MSG의 뜻MSG는 '글루탐산 일나트륨'(Monosodium glutamate)의 약자로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과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50% 이상 함유하거나 향신료, 염화나트륨(식염), 전분, 포도당, 설탕, 텍스트린 중 1종 이상을 혼합, 희석한 조미료다. <br/> <br/>글루탐산나트륨에는 L형과 D형이 있으며 조미료로 맛을 내는 것은 L형이다. <br/> <br/>MSG는 편두통의 원인 중 하나다. 일반 음식은 위나 장과 같은 소화기관을 따라 이동하지만 MSG는 위나 장의 혈관을 따라 뇌로 들어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뇌 안쪽에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br/> <br/>따라서 MSG가 두통이나 가슴 통증, 갈증, 졸린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 <br/> <br/> <br/> <br/>#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br/> <br/>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속설 때문에 커피를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br/> <br/>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의 진실과 건강하게 커피 마시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br/> <br/>첫째, 하루 2~3잔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 <br/> <br/>또한 이뇨작용을 도와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심장박동 횟수를 늘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도와준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충치 예방과 입 냄새 제거 등에도 효과가 있다. <br/> <br/>둘째, 똑같은 원두도 신선해야 건강한 커피다. 심장 질환, 암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커피의 클로로겐산 물질은 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커피콩을 볶는 로스팅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br/> <br/>셋째, 건강 염려된다면 첨가물 넣은 커피는 적게 마실수록 좋다. 일정량의 커피는 건강에 좋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블랙 원두 커피 이외 당분, 시럽, 프림 등을 첨가한 다른 종류의 커피는 조심해야 한다. <br/> <br/>넷?, 건강 상태에 따라 커피도 선택해서 마셔야 한다.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처럼 혈관 관리가 중요한 질환을 갖고 있다면 종이 필터로 커피를 내려먹는 것이 좋다.  <br/> <br/>이 외에도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젊은 여성이라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br/> <br/> <br/> <br/> <br/> <br/> <br/> <br/>#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br/> <br/>최근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생리불순, 무월경, 월경통(생리통)이나 비정상 자궁출혈, 월경전증후군 등 월경과 관계되는 모든 병증의 총칭하는 월경장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통계자료를 이용해 최근 4년간 연령별 월경장애에 대한 진료인원수를 조사한 결과, 연령 전체합계에서 2010년에는 약 53만 명이 2013년에는 약 56만 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1.56%로 증가(대비 4.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연령별로 비교하면 4년간 20~29세의 여성이 20만 80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 여성의 경우 18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br/> <br/>그러나 20대의 여성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연평균 1.19% 감소), 30대 여성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br/> <br/>여성의 자궁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배란과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꼽는데,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월경이 멈추는 무월경과 생리의 양이 적거나 혹은 많게 되는 배란장애, 생리불순은 그 원인이 60~85% 정도가 다낭성난소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br/> <br/>많은 전문가들은 "생리불순을 유발하는 원인을 반드시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낭성난소증후군의 대표증상이 만성 무배란(희발월경, 무월경, 기증성자궁혈)을 보이고 있고 심할 경우에는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정확한 검진와 이에 대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br/> <br/>매년 계류유산, 불임환자, 만35세 고령임신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30대의 월경장애나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는 각별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br/> <br/>또한 이 질환은 비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나친 음주나 기름진 식사 등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br/> <br/> <br/> <br/> <br/> <br/>#진짜사나이 강예원 <br/> <br/>진짜사나이 강예원의 안면홍조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2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에서 여군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됐다. <br/> <br/>이날 방송에서 강예원은 화장품을 모두 넣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자 비비크림만은 허락해주면 안되냐며 협상에 나섰다. <br/> <br/>강예원은 찬바람을 얼굴에 쐬면 얼굴이 빨개진다며 사정을 했지만 소대장은 안된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br/> <br/>이에 대해 강예원은 "홍조가 있어 찬바람을 맞으면 촌년 볼따구로 변신한다"고 토로했다. <br/> <br/>이후 화면에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홍조가 올라온 강예원의 모습이 공개돼 웃음을 자아냈다. <br/> <br/> <br/> <br/> <br/> <br/>#손수조 결혼 <br/> <br/>청년 정치인인 손수조(31) 새누리당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이 동갑내기 회사원과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이다. <br/> <br/>25일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손수조 위원장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신랑 김모 씨는 손수조 위원장과 31살 동갑내기로 평범한 회사원이다. <br/> <br/>김 씨는 부산 동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로 서울에서 IT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두 사람은 10여년 전 부산지역 고교 학생회장 신분으로 모임을 하는 등 예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지난 해부터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고,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br/> <br/>양가는 최근 부산에서 상견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손수조는 이 매체에 “예비신랑이랑 제가 초중고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듯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말이 잘 통했다”라며 “정치를 하는 마음도 이해를 잘 해줘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 행복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결혼 소감을 말했다.  <br/>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4.txt

제목: 올림푸스 NBI 내시경 기술, 美FDA 승인 받아  
날짜: 201501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610016060731  
본문: 올림푸스 NBI 내시경올림푸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협대역 화상 강화(NBI) 내시경 기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br/> <br/>FDA에 따르면 NBI 기술은 백색광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조직의 효과적인 생검을 가능케 한다. 또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종양 경계 식별에 효과가 있다. NBI 내시경으로 방광을 검사했을 때 백생광 내시경보다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 병변 발견율이 17% 더 높았고 추가 종양 발견율은 24%, 추가 상피내암 발견율은 28%가 각각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이번 올림푸스의 NBI는 보통의 생검 과정처럼 염료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백색광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조직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혈액에 강하게 흡수되는 청색광과 녹색광만을 사용해 점막 표면의 모세혈관 형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미세병변을 더 잘 보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암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종양 주변부를 더 잘 보이도록 해 정확도를 높인다. 방광 제거와 인공 방광 대치술 같은 침습치료를 방지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줄여준다. <br/> <br/>올림푸스는 NBI가 비교기과 진료의와 집도의 모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조기 검진을 통해 의료비용 감소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림푸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NBI가 방광암 진단과 치료에 혁신을 가져와 치료의 질 향상,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의료개혁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해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5.txt

제목: [핫키워드]스트레스 해소법 1위,독감 주의보 발령,미세먼지 경보제 실시,남은 겨울 기온,스피어피싱 뜻  
날짜: 201501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410016050858  
본문: [핫키워드]스트레스 해소법 1위,독감 주의보 발령,미세먼지 경보제 실시,남은 겨울 기온,스피어피싱 뜻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독감 주의보 발령,미세먼지 경보제 실시,남은 겨울 기온,스피어피싱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br/>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 스트레스 해소법 1위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영국 서섹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를 측정했다. <br/> <br/>그 결과 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바로 ‘독서’로 판명됐다. 6분 가량의 독서 후 스트레스가 68% 감소됐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br/> <br/>다른 방법들도 효과는 있었으나 스트레스 해소법 1위에 오른 독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음악 감상은 61%,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 스트레스를 21% 줄였지만, 심박수는 오히려 높였다. <br/> <br/>루이스 박사는 “경제 상황 등이 불안정한 요즘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며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푹 빠져, 일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초조, 걱정, 근심 등의 불안 증상이 발생하나 이는 점차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긴장성 두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의 발병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br/> <br/> <br/> <br/>#독감 주의보 발령 <br/> <br/>독감 주의보 발령으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br/> <br/>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14명으로 유행수준인 12.2명을 초과해 독감 주의보 발령한다고 지난 1월 22일 밝혔다. <br/> <br/>올해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1월 2일에 주의보가 발령된 것에 비해 약 20일 정도 늦다. <br/> <br/>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일본 등 북반구에 있는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중이다. 이번 인플루엔자는 올해 2월 중 독감 유행이 정점을 보인 후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br/> <br/>한편 독감 주의보 발령되면 1~9세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br/> <br/> <br/> <br/> <br/> <br/> <br/> <br/>#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br/> <br/>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br/> <br/>환경부는 지난 22일 5개 부처와 함께 가진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서울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44㎍/㎥로 WHO 권고기준 보다 2배나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며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알렸다. <br/> <br/>이번 제도를 실시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대응조치도 실시할 예정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먼지 유발 주범인 노후 경유·휘발유차량 5만 4000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와 촉매장치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br/> <br/>한편,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1일부터 도내 청주·충주·제천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해 12월 29일 밝혔다. <br/> <br/>미세먼지 경보는 시간당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24시간 평균농도가 250㎍/㎡일 때 발령될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나 노인, 폐·심장 질환자는 실내에 있는 게 좋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here.cb21.net)에 실시간 제공되며 경보 발령 사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은 주민은 이 홈페이지 대기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할 수 있다. <br/> <br/>연구원은 내년에 측정기를 조기 설치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도 도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최근 10년간 도내 3개 시 에서는 연평균 10회, 27일간 미세먼지 주의보(시간당 평균 200㎍/㎡)가 울렸다. <br/> <br/> <br/> <br/> <br/> <br/> <br/>#남은 겨울 기온 <br/> <br/>남은 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3월에는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br/> <br/>기상청은 지난 1월 23일 발표한 '3개월(2∼4월) 전망'에서 2월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기온은 평년(평균기온 1.1도)보다 높을 확률이 45%,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은 15%로 예측했다. <br/> <br/>강수량은 평년(35.5㎜)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보다 적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25%이다. <br/> <br/>봄이 시작되는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지만, 일시적으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클 때가 있겠다. <br/> <br/>기온은 평년(평균기온 5.9도)과 비슷할 확률이 45%,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낮을 확률이 15%로 분석돼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전망된다. 강수량은 평년(56.4㎜)과 비슷할 확률 40%, 평년보다 적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30%이다. <br/> <br/> <br/> <br/> <br/> <br/>#스피어피싱 뜻 <br/> <br/>스피어피싱이란 정부 고위관부, 유명인, 군인 등과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캐내기 위한 피싱 공격을 지칭한다. <br/> <br/>스피어 피싱은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반적인 피싱과는 달리 특정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br/> <br/>또한 특정인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정보를 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공격 대상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고받는 이들의 이메일을 다른 이메일로 전송되게 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정보를 빼낸다. <br/> <br/>한편 구글은 지난 2011년 6월1일 속임수로 특정인의 스피어피싱 행위를 통해 특정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를 빼내려는 조직적인 작전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미 정부의 고위 관리, 중국의 반정부 운동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정부 관리, 군인, 기자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br/>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6.txt

제목: [핫키워드]평생 후회하는 것,스트레스 해소법 1위,북한 화가 작품 국내 첫 전시,한국 이라크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  
날짜: 201501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410016050918  
본문: [핫키워드]평생 후회하는 것,스트레스 해소법 1위,북한 화가 작품 국내 첫 전시 <br/> <br/>평생 후회하는 것,스트레스 해소법 1위,북한 화가 작품 국내 첫 전시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다. <br/> <br/>#평생 후회하는 것 <br/> <br/>평생 후회하는 것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대답을 내 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성인 남녀 370명을 대상으로 '일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여자는 사랑과 관련된 일을, 남자는 직장이나 성공과 관련된 일을 많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번 연구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을 상세하게 묘사해 달라'고 한 뒤 그 답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r/> <br/>그 결과, 여성 응답자의 18%는 “그 때 그 남자를 놓친 것이 후회된다”거나 “그 때 사랑을 고백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사랑이나 연애에 관한 일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후회가 16%로 뒤를 이었고 교육(13%)과 경력(12%)에 대한 후회가 다음을 차지했다. 재정적인 문제(10%)에 대한 후회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br/> <br/>남자들은 “그 때 직장을 옮겼어야 했다”는 식으로 경력이나 교육 등 자기의 성공 문제에 대해 후회하는 비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 사랑과 가족에 대한 후회는 모두 합쳐도 19%에 그쳐 여성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br/> <br/>이 결과에 따르면 여자들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한 반면 남자들은 사회적 성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닐 루즈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자는 남자에 비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영국 서섹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를 측정했다. <br/> <br/>그 결과 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바로 ‘독서’로 판명됐다. 6분 가량의 독서 후 스트레스가 68% 감소됐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br/> <br/>다른 방법들도 효과는 있었으나 스트레스 해소법 1위에 오른 독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음악 감상은 61%,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 스트레스를 21% 줄였지만, 심박수는 오히려 높였다. <br/> <br/>루이스 박사는 “경제 상황 등이 불안정한 요즘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며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푹 빠져, 일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초조, 걱정, 근심 등의 불안 증상이 발생하나 이는 점차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긴장성 두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의 발병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br/> <br/> <br/> <br/>#북한 화가 작품 국내 첫 전시 <br/> <br/>북한 화가 작품 국내 첫 전시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br/> <br/>킨텍스는 네덜란드 미술재단 '스프링타임 아트(Springtime Art)‘ 주최로 오는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국제 순회 북한 미술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br/> <br/> '유럽에서 들려주는 북한 미술전, 숨겨진 보물들이 드러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스프링타임 아트 재단이 북한 개성지역에서 수집한 북한 작가 70명의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된다. <br/> <br/>앞서 스프링타임 아트 재단은 2008년 리투아니아에서 북한 작가 106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유럽에서 여러 차례 북한 예술 전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br/> <br/>당시 스프링타임 아트 재단은 "고립된 국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선정적이고 정치적인 작품을 제외한 2천여 점의 북한 개성 컬렉션을 수집,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br/> <br/>이번 전시회에는 임렬·공천권·최하택·탁효연·신철웅·김일수 등 국제 전시회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최고 북한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br/> <br/>킨텍스의 한 관계자는 "재단 측이 '남·북한이 더욱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럽을 거쳐 문화로 소통하는 북한 미술전을 열게 됐다'고 전시회 개최의 의미를 전했다"고 말했다. <br/> <br/>이 관계자는 이어 "분단 현실을 뛰어넘어 남북 간 문화·예술 교류 기회를 마련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 <br/>#한국 이라크 <br/> <br/>한국 이라크 4강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면서 이란 이라크 하이라이트에 관심을 갖는 축구팬들이 많다. <br/> <br/>라디 스와디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라크 축구대표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8강 토너먼트 이란과의 맞대결에서 연장전까지 3-3 명승부를 펼치고 승부차기에서 7-6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뒤 한국과 4강에서 만나게 됐다. <br/> <br/>이란 이라크의 경기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터진 이란의 선취골(24분) 덕분에 이 경기는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장전도 모자라 승부차기까지 가며 명승부가 이어졌다. <br/> <br/>24분에 사르다르 아즈문의 헤더 선취골을 이란이 자랑하는 오른쪽 측면의 지휘자 데자가와 가푸리가 만들어냈다. <br/> <br/>하지만 전반전 끝무렵 왼쪽 풀백 풀라디가 어이없는 반칙을 저질러 퇴장당했다. 22분에 이미 경고를 한 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골키퍼 잘랄 하산이 공을 잡은 다음에 발길질을 한 것이다. <br/> <br/>56분에 터진 이라크의 동점골은 왼쪽에서 넘어간 공이었지만 이란의 수비 구멍이 작용한 바로 그 자리에서 아흐메드 야신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오른발 대각선 슛을 때려넣을 수 있었다. <br/> <br/>연장전 2분만에 유누스 마흐무드의 역전골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br/> <br/>이라크는 포울라리간지에게 연장전 동점골을 내줬지만 간판 미드필더 야세르 카심이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다시 앞서나갔다. 그 시각이 116분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지만 이란의 슈퍼 서브로 들어온 레자 구차네자드가 종료 직전에 골을 터뜨려서 승부차기까지 펼쳐야 했다. <br/> <br/>무려 여덟 명씩이나 찬 승부차기에서 이란의 여덟 번째 키커 바히드 아미리의 왼발 슛이 오른쪽 기둥을 때리는 바람에 이란선수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라크 마지막 키커 살림 샤키르의 오른발 슛이 길었던 8강 세 번째 경기를 끝냈다. <br/> <br/>한편 오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시드니에 있는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강 첫 경기가 펼쳐지는데 한국과 이라크의 맞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br/> <br/> <br/>#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 <br/> <br/>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br/> <br/>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기상청이 1월 24일 전했다. <br/> <br/>기상청은 “<span class='quot4'>전국이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span>”고 밝혔다. <br/> <br/>다만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방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겠고 해가 지면서 안개가 걷히겠으나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박무의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다. <br/> <br/>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대전 -2도, 부산 3도, 대구 1도, 광주 -1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 11도, 대구 10도, 광주 10도 등이다. <br/> <br/>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7.txt

제목: 스트레스 해소법 1위 독서, 근육 긴장 완화...불안정한 '현실 탈출' 욕구 때문?  
날짜: 2015012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310016044809  
본문: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 독서, 근육 긴장 완화...불안정한 '현실 탈출' 욕구 때문?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영국 서섹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를 측정했다. <br/> <br/>그 결과 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바로 ‘독서’로 판명됐다. 6분 가량의 독서 후 스트레스가 68% 감소됐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br/> <br/>다른 방법들도 효과는 있었으나 스트레스 해소법 1위에 오른 독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음악 감상은 61%,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 스트레스를 21% 줄였지만, 심박수는 오히려 높였다. <br/> <br/>루이스 박사는 “경제 상황 등이 불안정한 요즘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며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푹 빠져, 일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초조, 걱정, 근심 등의 불안 증상이 발생하나 이는 점차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긴장성 두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의 발병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8.txt

제목: [핫키워드]스트레스 해소법 1위,음식 중독 의미,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간을 지키는 5가지 식품,독감 주의보 발령  
날짜: 2015012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310016045205  
본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음식 중독 의미,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간을 지키는 5가지 식품,독감 주의보 발령[핫키워드]스트레스 해소법 1위,음식 중독 의미,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간을 지키는 5가지 식품,독감 주의보 발령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음식 중독 의미,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간을 지키는 5가지 식품,독감 주의보 발령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크다. <br/>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스트레스 해소법 1위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영국 서섹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를 측정했다. <br/> <br/>그 결과 스트레스 해소법 1위는 바로 ‘독서’로 판명됐다. 6분 가량의 독서 후 스트레스가 68% 감소됐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br/> <br/>다른 방법들도 효과는 있었으나 스트레스 해소법 1위에 오른 독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음악 감상은 61%,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 스트레스를 21% 줄였지만, 심박수는 오히려 높였다. <br/> <br/>루이스 박사는 “경제 상황 등이 불안정한 요즘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며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푹 빠져, 일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초조, 걱정, 근심 등의 불안 증상이 발생하나 이는 점차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긴장성 두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의 발병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br/> <br/> <br/> <br/> <br/> <br/>#음식 중독 의미 <br/> <br/>음식 중독 의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br/> <br/>음식 중독 의미란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br/> <br/>일반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즐거움으로 인식하는 ‘쾌감 회로’가 오히려 강하게 발달한다. 다이어트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보상이다. <br/> <br/>다이어트를 통해 음식에 대한 쾌감 회로가 강해지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 <br/> <br/>이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이 먹는 ‘내성’이 생기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br/> <br/>급기야는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맛있게 느낀 음식을 폭식할 수도 있다. <br/> <br/>음식중독 자가 테스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가 너무 불러 불편할 정도가 될 때까지 많이 먹는다. 둘째,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많이 먹는다. 셋째, 음식을 먹은 뒤 일부러 구토를 한다. 넷째, 주말이나 저녁에 몰아서 폭식한다. 다섯 째, 과식 후 자신에 대해 혐오감·우울감·죄책감을 느낀다. <br/> <br/>이중 해당 항목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br/> <br/> <br/> <br/> <br/> <br/> <br/>#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 <br/> <br/>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이 60%로 밝혀졌다. <br/> <br/>지난 1월 22일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이 발간한 '건강과 웰빙에 관한 글로벌 소비자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응답자의 60%였다.  <br/> <br/>이는 세계 평균(4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br/> <br/>전세계 60개국 3만명 이상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에 진행된 이번 조사는 건강 관련 식습관, 식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체중 조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실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br/> <br/>이번 조사에서 자기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북미 지역이 59%로 가장 많았고, 남미(54%), 유럽(52%), 중동/아프리카(50%)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br/> <br/>현재 체중조절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미가 56%로 가장 많았고, 북미 50%, 중동/아프리카 52%로 나타났다. <br/> <br/>한편 스스로 인지하는 과체중 비율이 가장 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들의 다이어트 비율은 49%로 유럽 지역(47%)보다 높게 나타나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체중 조절 하는 '실천'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br/> <br/> <br/> <br/> <br/>#간을 지키는 5가지 식품 <br/> <br/>간을 지키는 5가지 식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br/> <br/>간을 지키는 5가지 삭품들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간의 능력을 끌어올려 자연스럽게 간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br/> <br/>첫째, 마늘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간 속 효소를 활성화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 두 성분 모두 간 정화에 도움을 준다. <br/> <br/>둘째, 사과에는 펙틴이 풍부하다. 이 펙틴은 소화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배출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중요한 구성성분이다. 다시 말해 사과를 먹으면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해야할 독소들의 양이 감소, 간에 가는 부담도 줄어든다.·· <br/> <br/>셋째, 레몬과 라임은 대표적인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이다. 이 비타민C는 우리 몸 속에서 독소들이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합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매일 아침에 레몬이나 라임의 즙을 짜서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간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br/> <br/>넷째, 대체 곡물들이다. 쌀이나 밀가루 대신 탄수화물 함량이 적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퀴노아, 메밀, 수수 등이 좋다. <br/> <br/>다섯째, 적정량의 올리브 오일은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 <br/> <br/> <br/> <br/> <br/> <br/> <br/> <br/>#독감 주의보 발령 <br/> <br/>독감 주의보 발령으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br/> <br/>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14명으로 유행수준인 12.2명을 초과해 독감 주의보 발령한다고 지난 1월 22일 밝혔다. <br/> <br/>올해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1월 2일에 주의보가 발령된 것에 비해 약 20일 정도 늦다. <br/> <br/>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일본 등 북반구에 있는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중이다. 이번 인플루엔자는 올해 2월 중 독감 유행이 정점을 보인 후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br/> <br/>한편 독감 주의보 발령되면 1~9세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39.txt

제목: [핫키워드]스트레스 해소법 1위, 독감 주의보 발령, 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 건강보험료 1.35% 인상, 유정환 전 대표  
날짜: 2015012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310016043378  
본문:   <br/> <br/>  <br/>스트레스 해소법 1위, 독감 주의보 발령, 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 건강보험료 1.35% 인상, 유정환 전 대표 <br/> <br/>[핫키워드]스트레스 해소법 1위, 독감 주의보 발령, 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 건강보험료 1.35% 인상, 유정환 전 대표 <br/> <br/>23일 스트레스 해소법 1위, 독감 주의보 발령, 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 건강보험료 1.35% 인상, 유정환 전 대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br/> <br/> <br/># 스트레스 해소법 1위 <br/> <br/>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초조, 걱정, 근심 등의 불안 증상이 발생하고 점차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긴장성 두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의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br/> <br/>영국 서섹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독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연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를 측정했다. <br/> <br/>그 결과,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됐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음악 감상은 61%,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디오 게임은 스트레스를 21% 줄였지만, 심박수는 오히려 높였다. <br/> <br/>루이스 박사는 "경제 상황 등이 불안정한 요즘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며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푹 빠져, 일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br/> <br/>  <br/> <br/> <br/># 독감 주의보 발령 <br/> <br/>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14명으로 유행수준인 12.2명을 초과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br/> <br/>독감환자는 지난해 12월7일~13일 7.1명을 기록한 후 12월14일~20일 7.2명, 12월21일~27일 8.9명, 12월28일~올해 1월3일 8.3명, 1월4일~1월10일 10명 등으로 점차 늘었다. <br/> <br/>질본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독감 유행이 정점을 보인 후 4월까지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9세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질본 관계자는 "50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r/> <br/>  <br/> <br/> <br/># 한국인 과체중 인식 비율 <br/> <br/>22일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이 발간한 '건강과 웰빙에 관한 글로벌 소비자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5%, 전세계 소비자는 절반 수준인 50%의 인구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밝혔다. <br/> <br/>전세계 60개국 3만명 이상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에 진행된 이번 조사는 건강 관련 식습관, 식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체중 조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실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br/> <br/>이번 조사에서 자기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북미 지역이 59%로 가장 많았고, 남미(54%), 유럽(52%), 중동/아프리카(50%)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br/> <br/>현재 체중조절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미가 56%로 가장 많았고, 북미 50%, 중동/아프리카 52%로 나타났다. 스스로 인지하는 과체중 비율이 가장 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들의 다이어트 비율은 49%로 유럽 지역(47%)보다 높게 나타나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체중 조절 하는 '실천'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체중조절을 위해 전세계 소비자들의 75%가 식단 관리를 하고 72%가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한국인들의 주요 다이어트 방법은 '운동'이 71%, '식단 관리'가 57%로 음식 조절보다는 주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그 외에 한국인의 체중 조절 수단은 '다이어트 관련 보조제나 쉐이크 섭취'가 11%,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이 7%로 드러났다. 한국인의 식단 관리 방법으로는 '같은 음식을 먹되 양을 줄여서 먹기'가 53%, '저지방 음식 위주 섭취'가 42%, '신선한 자연식품 섭취'가 42%, '초콜렛과 설탕 줄이기'가 26%,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가 26%로 나타났다. <br/> <br/>  <br/> <br/> <br/># 건강보험료 1.35% 인상 <br/> <br/>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며 "지난 2009년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br/> <br/>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0.08%p 오른 6.07%, 보험료 기준으로 1.35% 인상됐다.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각각 3.035%씩 부담하게 된다. <br/> <br/>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됐다. <br/> <br/>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경우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10원 오르게 됐다. <br/> <br/>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지난 2010년 5.33%였던 보험료율은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지난해 5.99%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br/> <br/>  <br/> <br/>  <br/> <br/># 유정환 전 대표 <br/> <br/>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유 전 대표의 머리카락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정환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소변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br/> <br/>앞서 몽드드 유정환 전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자신의 벤틀리를 몰고 운전하던 중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아반떼 차량을 훔쳐 달아난 뒤 금호터널에서 BMW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환씨는 피해 차량 여성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돼 충격을 자아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유씨는 옷을 벗고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알려졌다. <br/> <br/>당시 유정환씨는 음주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폭행 당한 피해차주가 저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일단 석방된 '몽드드물티슈' 유정환 대표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다 체포됐다. <br/> <br/>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최근 동남아 한 국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약을 접했기에 양성반응이 나왔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정신이 혼미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br/> <br/>경찰은 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0.txt

제목: 깨의 효능, 고소한 맛&항산화 작용&해독작용,,,'하루 한 스푼'  
날짜: 2015012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210016032851  
본문: 깨의 효능, 고소한 맛&항산화 작용&해독작용,,,'하루 한 스푼' <br/> <br/>깨의 효능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br/> <br/>깨는 음식에 고소한 맛을 더하고,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작용을 한다. <br/> <br/>깨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E가 풍부하다. 대장암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오레인산이 깨 지방질의 40%를 차지하고 간 기능을 돕고 해독작용을 높이는 세사민도 많다. <br/> <br/>깨에 함유된 세사미놀 배당체는 콜레스테롤 침착을 억제하고, 사람의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 작용에 의해 세사미놀로 변환되어 항산화작용을 한다. <br/> <br/>활성산소를 퇴치해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모든 종류의 깨에 세사미놀 배당체가 풍부하다. 특히, 검은깨는 껍질에 함유된 색소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 <br/> <br/>먹는 양은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번 정도가 적당하다. 깨의 표면은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덮여있어 그대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볶아서 빻아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1.txt

제목: [핫키워드] 부산 크레인 사고, 공항철도 검암역, 대전 소닉붐,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잠들기 전 먹어도 괜찮은 음식  
날짜: 2015012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210016033030  
본문:   <br/> <br/> <br/>부산 크레인 사고, 공항철도 검암역, 대전 소닉붐,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잠들기 전 먹어도 괜찮은 음식 <br/> <br/>[핫키워드] 부산 크레인 사고, 공항철도 검암역, 대전 소닉붐,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잠들기 전 먹어도 괜찮은 음식 <br/> <br/>22일 부산 크레인 사고, 공항철도 검암역, 대전 소닉붐,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잠들기 전 먹어도 괜찮은 음식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br/> <br/>부산 크레인 사고 <br/> <br/>부산 영도구의 옛 조선소 터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선박 건조용 크레인의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했다. <br/> <br/>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50분경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에 위치한 선박물 제조업체 소유 야적장에 있는 40t짜리 지프크레인 3분의 2 지점에 있던 기계실이 20여m 밑으로 떨어졌다. <br/> <br/>이 사고로 기계실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근로자 박 모 씨 역시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소방본부가 2시간이 넘는 구조작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숨졌다. <br/> <br/>사고 현장에 있던 한 근로자는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쾅'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크레인 기계실이 추락해 있었고, 비명과 함께 사람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r/> <br/>경찰과 소방본부는 이날 사고가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기계실을 떼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크레인과 기계실을 잇고 있는 지지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가운데 기계실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이에 대해 경찰은 "유압 크레인을 불러 기계실을 들어 고정한 뒤 해체해야 하는데 고정 장치나 안전장치 없이 절단작업을 먼저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br/> <br/>한편 경찰은 목격자와 해체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사고 경위 및 해체 작업 당시 작업 안전수칙을 지켰는지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br/> <br/>  <br/> <br/> <br/>공항철도 검암역 <br/> <br/>공항철도 검암역에서 한 승객이 직행 열차 선로에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r/> <br/>21일 오전 6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한 승객이 서울역 방향 직행열차 선로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br/> <br/>공항철도 측은 30여분 만인 오전 7시쯤 사고 현장 수습을 완료해 열차 운행을 정상화 했다고 밝혔다. <br/> <br/>경찰은 해당 승객이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직행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뛰어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r/> <br/>  <br/> <br/> <br/>대전 소닉붐 <br/> <br/>지난 21일 오후 3시쯤 대전지역에서 정체 불명의 폭발음이 발생했다. <br/> <br/>대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이용자들은 "쿠궁!!소리나서 놀랐는데 대전에 무슨일이 있는가봐. 뭔일이야", "대전에서 쾅 소리났음. 창문도 울리고 이거 뭐야 깜놀이네", "대전 폭발음 뭐지? 창문 흔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br/> <br/>이에 대해 카이스트에서 실험을 하다 폭발음이 발생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폭발음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br/> <br/>한편 대전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소리가 났었다. 당시 소리의 원인으로는 '소닉붐 현상'이 거론됐다. <br/> <br/>소닉붐 현상은 전투기 등 빠른 속도를 내는 항공기체가 음속폭음이 발생시키는 현상. 2013년 '소닉붐 현상'이 발생했을 당시, 놀란 시민들이 소방서 등에 신고전화를 하면서 화제가 됐었다. <br/> <br/>  <br/> <br/> <br/>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br/> <br/>담배를 사재기해 인터넷으로 팔려던 성인 남성 3명이 각각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올해 1월 초부터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우모(32)씨 등 3명과 우씨에게 담배를 판매한 신모(32)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말보로, 에쎄 등 총 3171갑의 담배를 사재기했다. 이는 무려 8100만여원어 어치에 해당하는 양이다. <br/> <br/>우씨는 2000원대에 산 담배 한 갑을 3000원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16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특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관심을 보이며 댓글을 단 회원들에겐 따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우씨는 "글을 하나 올릴 때마다 쪽지가 3~4통씩 왔을 정도로 회원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br/> <br/>또 경찰 조사 결과 다른 피의자 박모(33)씨와 신모(34)씨 역시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각각 215갑, 361갑씩 사재기해 인터넷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던힐 담배를 주로 구입해 모아뒀다가 던힐만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걸 알자 거래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br/> <br/>한편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개인적으로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r/> <br/>  <br/> <br/>  <br/> <br/>잠들기 전 먹어도 괜찮은 음식 <br/> <br/>잠들기 전 먹어도 괜찮은 음식 8가지를 미국 여성 전문지 우먼스헬스가 소개했다.이 음식들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거나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 <br/> <br/>스트링치즈, 치즈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으로 스트링치즈의 경우 개당 80칼로리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또 치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한데, 이는 뇌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 수면에 도움을 준다. <br/> <br/>시리얼, 정제설탕으로 버무려진 시리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설탕류는 수면을 방해하고 위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대신 통곡물 시리얼을 먹도록 한다. 시리얼과 함께 먹는 우유를 통해 단백질 섭취도 가능하다. <br/> <br/>무지방 그리스식 요거트, 그리스식 요거트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요거트는 다른 식품에 비해 위에 주는 부담도 덜하다. <br/> <br/>칠면조 고기 2조각 ,칠면조고기는 닭고기와 함께 화이트미트의 대표주자로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최고로 꼽힌다. 2조각을 먹더라도 100칼로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잠들기 전 먹기에 좋다. <br/> <br/>사과와 땅콩버터,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몸에 나쁜 것은 아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 특히 사과 껍질에는 암 퇴치 효과가 있는 퀘르시틴과 비타민C, 트리터페노이드 등의 성분도 들어있다. 여기에 땅콩이나 아몬트 버터를 약간 겻들이면 포만감을 더 느낄 수 있다. <br/> <br/>무지방 초콜릿 푸딩, 부드러운 초콜릿 푸딩을 먹을 계획이라면 꼭 무지방 제품을 먹어야 한다. <br/> <br/>베이비 당근, 당근은 비타민A와 식이섬유소가 풍부하나 다른 채소와 비교할 때 칼로리가 있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칼로리가 적은 베이비 당근을 먹으면 좋다. <br/> <br/>바나나, 바나나 속에 섬유질 성분은 소화 작용을 촉진시키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바나나의 개당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다. 또 밤늦게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싫다면 야식으로서 바나나는 최고가 아닐 수 없다.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2.txt

제목: 맞벌이 지원 늘리고 보육시설 지원 줄이고  
날짜: 20150122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210016039342  
본문: 아동학대 논란 속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과도한 어린이집 지원 등은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체계가 개편된다. 지난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던 원격의료는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아정책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00가지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span class='quot0'>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현재 월 10만∼20만원 수준인 가정양육 지원금보다 22만∼77만원의 보육시설 지원금 때문에 전업주부까지 과도하게 보육시설로 아이를 보내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br/> <br/>복지부는 올해 안에 암환자 유전자검사, 방사선치료 등 200가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약 4200억원가량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실직자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금수급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br/> <br/>지난해 시범사업을 했던 원격의료를 전방 군부대나 교도소, 도서벽지 등 50여곳으로 확대한다. 의료인 간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br/> <br/>여성가족부는 육아지원정책인 ‘워킹맘·워킹대디 센터’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등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워킹맘·워킹대디 센터는 그동안 낮시간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가족센터를 확대 개편해 아빠 육아학교, 야간 주말 맞벌이 부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br/> <br/>28만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도 지난해 54개에서 올해 2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3.txt

제목: 깨의 효능 '암 예방' 효과적, 좋은 깨 고르는 방법은?  
날짜: 2015012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110016030586  
본문: 깨의 효능깨의 효능 '암 예방' 효과적, 좋은 깨 고르는 방법은? <br/> <br/>음식에 고소한 맛을 더하는 깨. 깨가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br/> <br/>깨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E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암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오레인산이 깨 지방질의 40%를 차지하고 간 기능을 돕고 해독작용을 높이는 세사민도 많다. <br/> <br/>깨에 함유된 세사미놀 배당체는 콜레스테롤 침착을 억제한다. 또한 사람의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 작용에 의해 세사미놀로 변환되어 항산화작용을 한다. <br/> <br/>활성산소를 퇴치해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모든 종류의 깨에 세사미놀 배당체가 풍부하다. 특히, 검은깨는 껍질에 함유된 색소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 <br/> <br/>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번 정도가 적당하다. 깨의 표면은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덮여있어 그대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볶아서 빻아 먹는 것이 좋다. <br/> <br/>그런데 일단 빻고 나면 공기에 노출돼 산화가 진행되므로 먹기 직전에 필요한 양만 볶아서 빻아 넣는 것이 좋다. 깨는 필수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을 함유한 단백질이 적다. 콩과 함께 섭취하면 이상적인 아미노산 균형을 이룬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4.txt

제목: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30대 회사원들 인터넷 중고 사이트 암거래  
날짜: 2015012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110016032237  
본문:   <br/> <br/>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30대 회사원들 인터넷 중고 사이트 암거래 <br/> <br/>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21일 종암경찰서에서는 담배 수천 갑을 담뱃값 인상을 노리고 인터넷중고시장에 몰래 판매하다 불구속 입건된 30대 회사원들이 검찰에 송치됨을 밝혔다. <br/> <br/>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이나 댓글을 올려 사재기한 담배 3천여 갑을 되팔아 총 1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를 했다. <br/> <br/>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거래장소 주변을 잠복근무하던 중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5.txt

제목: 정기적인 유방암검사, 가족력 없어도 해야 할까?  
날짜: 2015012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010016017512  
본문: 국내 여성 암 발병률 1, 2위를 다투는 유방암. 여성이라면 누구나 유방암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유방암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유방암 정기검진, 유방조직검사 등의 정기적인 검사에 대한 중요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유방암학회의 연령별 유방암발생분포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유방암 환자의 40%가 40대에 발병하고, 50대에서 약 26%, 30대에서도 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에 많은 유방외과 전문의들은 유방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정기적인 유방 검진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유방암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 발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40세 즈음부터 시작하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br/> <br/>실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제시하는 유방암 조기검진 권고안은 35세부터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40세부터 1~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촬영술(유방 엑스레이촬영)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유방,갑상선 외과 전문의 홍수정 원장은 “<span class='quot0'>만약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과도 관계 없이 유방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물론 유방에 혹이 만져지거나 유방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인 것은 아니다. 정상 조직도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단순 물혹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혹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우선 초음파 검사로 진단을 한 후 유방 조직검사로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진을 받아야 한다. <br/> <br/>홍수정 원장은 “유방에 생긴 종양(혹)은 조직검사도구로 간단하게 암 확진 검사가 가능하다. 만져지는 혹을 무시하고 방치했다가는 시간이 흐른 후 진행된 암으로 밝혀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r/> <br/>한편, 알아두어야 할 유방암 증상으로는 유방에서 만져지는 혹과 유두의 비정상적인 분비물, 비대칭 유방으로 변한 가슴 형태, 피부나 유두의 함몰 증상, 피부가 두껍고 단단해지는 병변,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혹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유방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 도움말: 아산유외과 홍수정 원장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6.txt

제목: "손자냐고요? 아니요, 제 아들이에요"  
날짜: 2015012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2010016017008  
본문:   <br/> <br/>즐겁게 뛰노는 아들을 바라보노라면 기분은 좋지만, 조만간 아들과 이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돈다. 70살이던 지난 2008년, 쌍둥이 자녀를 낳아 기네스북에 오른 인도 여성 옴카리 사인(76)의 이야기다. <br/> <br/>인도 북부의 한 마을에 사는 옴카리는 당시 아들 암리트와니와 딸 바르삿을 낳았다. 그러나 바르삿은 4살 때 불행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옴카리는 막내아들 암리트와니를 소중히 키워왔다. 옴카리와 남편(89) 사이에는 두 딸과 다섯 아들이 있다. <br/> <br/> <br/>아들과 나들이 나온 옴카리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손자냐”고 묻는다. 옴카리의 겉모습과 암리트와니를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br/> <br/>옴카리는 “난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항상 ‘아들’이라는 답을 해야 한다”며 “그래도 이 나이에 여섯 살 난 아들이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행복”이라고 웃었다. <br/> <br/>암리트와니는 여느 여섯 살 소년과 같이 굉장히 활기차다. 그래서 항상 옴카리는 아들이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지켜봐야 한다. 옴카리는 “아들을 씻기는 게 힘들긴 하다”며 “이 나이되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느냐”고 말했다. <br/> <br/>올해 76세인 옴카리는 아들과 이별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죽더라도 내 딸과 아들들이 암리트와니를 잘 돌봐 줄 것이라 믿는다”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들이 얼른 커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메트로 홈페이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7.txt

제목: 보리의 효능 '콜레스트롤' 낮추며 변비 치료에도 효과적, 암 예방까지  
날짜: 20150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910016012964  
본문: 보리의 효능보리의 효능 '콜레스트롤' 낮추며 변비 치료에도 효과적, 암 예방까지 <br/> <br/>우리 몸에 이로운 곡물인 보리의 효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특히 보리는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리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br/> <br/>또 보리는 항균과 항산화 효과를 지니며 암 예방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br/> <br/>보리는 곡류에 속하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단백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통보리 100g당 단백질 함량은 13.8g 정도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로마의 검투사들은 강인한 체력을 위해서 보리를 먹었다고 전해져 왔다. <br/> <br/>보리는 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변비치료 효능도 지녔다. <br/> <br/>아울러 식사를 할 때 보리밥만을 먹는 것보다는 쌀과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다. 쌀과 보리의 비율은 7:3 정도가 적절하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8.txt

제목: 자외선 차단 ‘썬크림’비타민D 결핍 유발…여성 2.8배 많아  
날짜: 20150119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910016011073  
본문: 실내에서 주로 지내는 생활패턴과 야외 활동 부족으로 비타민D 결핍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제 ‘썬크림’을 바르고 외출하는 여성에서  비타민D 결핍이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9~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D 결핍(E55)’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9년 2027명에서 2013년 1만8637명으로 4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했다. <br/> <br/>비타민D 결핍 환자 증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상현 교수(가정의학과)는 “햇빛이 비타민D 생성과 관련성이 높다.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비타민D 결핍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br/> <br/>비타민D 결핍 진료를 받은 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009년에는 1.9배, 2010~2013년에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비타민D 결핍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의 경우 외출 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것이 일상화돼 야외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타민D 생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 비타민D 결핍이 남성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2013년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은 △60대 이상(4480명) △50대(4449명) △40대(3037명) △30대(2186명) △9세 이하(2142명) 순으로 나타났다. <br/> <br/>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50대(57명) △60대 이상(55명) △9세 이하(47명) △40대(35명) △30대(27명) 순이다. <br/> <br/>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9세 이하에서도 진료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br/> <br/>이 교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타민D 결핍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span class='quot0'>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의 노화로 인해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에서 비타민D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야외활동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9세 이하 아동의 비타민D 결핍도 상대적으로 많다</span>”고 말했다. <br/> <br/>비타민D 결핍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3억1891만원(급여비 2억4,276만원)에서 2013년 16억5644만원(급여비 10억9307만원)으로 4년 동안 5.2배(급여비 4.5배) 증가했다. <br/> <br/>이 교수는 비타민D 결핍의 정의, 증상,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비타민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 뼈의 건강에 중요하다.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 충분한 비타민D가 필요하다”며, “비타민D는 음식을 통해 흡수되지만 한정된 음식에 소량만이 포함돼 있어 음식을 통한 흡수는 제한적이므로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켜 비타민D를 생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br/>비타민D 결핍 기준은 아직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타민D 혈액 농도가 30ng/mL 이상인 경우 충분, 20ng/mL 이하면 부족하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br/>  <br/>비타민D가 다소 부족할 때 스스로 느낄 정도의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타민D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 중 특히 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가 증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뼈가 약해지게 돼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향후 골절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br/>      <br/>비타민D 결핍은 골다공증 뿐 아니라 근육 약화나 낙상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D 결핍이 면역 체계나 일부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이 높으나, 아직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다. <br/>      <br/>비타민D 결핍이 심각한 경우는 소아에서는 구루병이 올 수 있고, 성인에서는 골연화증이 올 수도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br/> <br/>이 교수는 비타민D 결핍 예방 위해 “<span class='quot0'>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는 경우 너무 강한 햇빛이 있는 낮 시간 외에는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해야 한다</span>”고 권장한다. <br/> <br/>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 대구 간유, 달걀 노른자와 버섯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D는 대부분 태양광선에 의해 만들어지며, 식품으로 섭취되는 비타민D는 많지 않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비타민D 결핍이 심한 경우는 의사와 상의하여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비타민D와 관련이 높은 골다공증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하루 800IU의 비타민D 섭취</span>”를 권유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49.txt

제목: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종재 교수  
날짜: 20150118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810016002924  
본문: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병리과 김종재(사진) 교수를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에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로 부임한 뒤 미국 국립보건원(NIH) 방문교수, 웨인주립대 의과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br/> <br/>아산생명과학연구원은 1990년 아산생명과학연구소로 출범해 2011년 지금의 연구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비뇨기과 김청수 교수가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암, 뇌신경, 대사질환, 분자영상, 유전체, 줄기세포 6대 분야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도형 암 연구사업단, 항암선도 기술개발지원센터, 알츠하이머 치매 중개연구 등 국책과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0.txt

제목: [건강 단신] 위암 수술 전 과정 복강경 시행 안전성 입증 외  
날짜: 20150118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810016005529  
본문: 위암 수술 전 과정 복강경 시행 안전성 입증 <br/> <br/>위암 수술 전 과정을 복강경으로 시행하는 ‘전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의 안전성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입증됐다.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이주호(사진) 교수팀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위암 환자 110명에게 전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 경험이 쌓이며 전복강경 수술에 대한 선호가 느는 추세</span>”라고 말했다. (02)2650-5311 <br/> <br/>‘청소년 자살에 대한 심리부검 효과’ 포럼 <br/> <br/>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소장 홍현주)는 23일 오후 1시30분 성심병원 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아동·청소년 자살에 대한 심리부검의 필요성과 효과’란 주제로 포럼을 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전문가, 청소년 상담사 등이 모여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심리부검에 관해 토의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 예방법을 도출한다. (031)380-6012 <br/> <br/>암 환자별 최적 치료 위해 여러 과 통합 진료 <br/>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원장 이학노)은 암 환자별로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했다. 환자 한 명의 진료를 위해 외과·혈액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병리과 등 여러 진료과 전문의 4, 5명을 투입한다. 유방암을 시작으로 대장암, 두경부암, 뇌신경종양 순으로 통합진료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032)280-6244 <br/> <br/>요관 스텐트 새 삽입술 ‘튜브 테크닉’ 개발 <br/> <br/>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정창욱 교수팀이 요로결석 등 비뇨기질환 치료를 위한 복강경수술에서 그동안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요관 스텐트 삽입을 개선하는 수술법 ‘J-튜브 테크닉’을 개발했다. 요도에의 스텐트 삽입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극소수 의사만 시행할 수 있었다. ‘J-튜브 테크닉’은 스텐트 삽입 전 피부를 절개한 뒤 튜브를 요관에 삽입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수술 시간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02)2072-0077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1.txt

제목: 가족건강 위한 새해 보험 준비법은?  
날짜: 20150116  
기자: hemked@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6100000080  
본문: 하나생명은 2015년 새해를 맞아 '가족건강을 위한 보험 가입가이드'를 16일 소개했다.우선 우리나라 중장년층 남성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가장의 부재에 대비하려면 사망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정기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로 핵심 기간 동안 사망의 원인과 시기를 따지지 않고 사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대체상품 혹은 종신보험만으로 부족한 사망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월급처럼 매달 지급받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실용적 운용이 가능하다.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속에 의료실비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 평생 의료비는 평균 1억원에 이른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노출 가능한 위험도 증가하면서 앞으로 가계 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의료실비보험은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부터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80~90% 보장하는 상품으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씩 가입하는 추세다. 단, 장기치료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질병의 경우 특약 추가가 필요하고 중복보장이 불가해 여러 상품을 가입하기 보다 한가지 상품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하나생명은 "아이들이 성장기에 접어들면 골절, 화상, 장 감염 등 생활질환이 잦아지고 혹여 암이나 심장병, 결핵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와 수술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때문에 필요 보장내역과 장기유지를 목적에 두고 상품을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을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고령출산, 맞벌이, 조기어학연수 등 과거보다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험 상품도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 왕따, 유괴납치 등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장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다자녀가정이거나 가족 중 유사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가족우대 상품들을 활용해 보험료 절감과 보장내역 확보를 동시에 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하나생명 ‘건강한어린이보험’은 가입자녀 포함하여 형제자매 2명이면 0.5%, 3명 이상이면 1% 주계약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어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동부화재 ‘우리가족건강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최대 4명의 가족을 한데 묶을 수 있어 보험료가 절감된다.하나생명 마케팅기획부 최춘석 차장은 “<span class='quot2'>지난해 각종 사건사고를 겪으며 그 대비책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가족 구성원 별로 상품과 보험료, 보장혜택 등이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2.txt

제목: 고대구로병원, ‘암병원 심포지움’ 성료  
날짜: 201501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510015987985  
본문: 고려대 구로병원은 최근 암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지역 협력병의원장들과 함께 ‘암병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백세현 병원장을 비롯한 암병원 의료진들과 협력병의원장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움은 총 7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br/> <br/>1부에서는 민병욱 암센터장이 암병원 설립과 구성을 소개하고, 대장암센터, 유방암센터 등 주요 센터들과 환자리퍼시스템 설명이 이어졌다. 2부는 협력병의원장들이 연좌로 나서 ‘1차 진료에서 바라보는 암환자 협력 진료의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br/> <br/>이어 준비된 암병원 투어에서는 진료 의뢰된 환자들이 암치료를 위해 받는 의료서비스를 협력병의원장들이 직접 보고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br/> <br/>백세현 구로병원장은 인사말에서 “<span class='quot0'>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암병원 교수진들과 병의원장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신설된 진료협력센터부서와 더불어 향후 환자리퍼시스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고광송 구로구 의사회장은 “암병원 의료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시설 등을 돌아보니, 우리병원 환자들을 고대구로병원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구로구 지역병원과 고대구로병원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3.txt

제목: 손가락 9개 등반가가 암벽등반 새 역사 썼다  
날짜: 20150115  
기자: 유태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510015992643  
본문: 미국의 암벽 등반가 토미 콜드웰(36)과 케빈 조거슨(30)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엘 캐피턴’(El Capitan)의 ‘새벽직벽’(Dawn Wall)을 맨손으로 올라 암벽등반의 역사를 새로 썼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오르기 시작한 지 18일 만이다. 콜드웰은 특히 과거 알카에다 연계조직에 납치됐던 트라우마를 딛고 손가락 9개만으로 도전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해발 2300m인 엘 캐피턴은 독특한 모양의 직벽으로 1958년부터 숱한 등반가들의 도전 대상이었다. 지금까지 정상까지 오르는 루트는 100개 이상 개척됐지만 대부분 로프와 고리못을 사용한 경우였다. 맨손으로 직벽의 틈새를 붙잡아 올라가는 ‘프리 클라이밍’에 성공한 루트는 이 중 10여개뿐이었다. 특히 콜드웰과 조거슨이 이번에 처음으로 맨손 등반에 성공한 새벽직벽은 엘 캐피턴의 루트 중에서도 ‘난공불락’으로 꼽힌다. 출발지점부터 따지면 914m 높이로 우리나라 북한산(837m)보다도 높다. <br/> <br/>암벽 등반가 토미 콜드웰(왼쪽)과 케빈 조르게슨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국립공원 엘 캐피턴 새벽 직벽의 마지막 구간에 오른 뒤 서로를 포옹하며 맨손 등반에 성공한 기쁨을 나누고 있다. <br/>파타고니아닷컴 제공두 사람은 불의의 추락사고에 대비해 허리에 느슨하게 로프를 매달기는 했지만 암벽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 수면과 식사 등 생존에 필요한 일은 절벽에 텐트를 매달아 해결했다. 이들은 낮에는 휴식하고 해가 진 뒤에야 헤드램프를 켠 채 등반을 시도했다. 표면이 매끄럽기로 악명 높은 암벽이라 낮에 햇볕을 쬐며 오를 경우 손에 땀이 나 미끄러워지기 때문. <br/> <br/>2001년 톱질을 하다가 왼손 검지를 잃은 콜드웰에게 맨손 등반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의사가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을 정도. 더욱이 그는 2000년 암벽 등반차 키르기스스탄에 갔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수주간 인질로 붙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의식은 꺾이지 않았다. 콜드웰이 먼저 계획하고 조거슨이 합류한 뒤 이들은 5년간 새벽직벽 도전을 준비했다. <br/> <br/>이번 등반에서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새벽직벽의 31개 구역 중 제15구역을 오르는 사이 조거슨이 날카로운 바위를 잡았다가 손가락 끝을 심하게 다쳤다. 이들은 손가락이 아물기를 기다리며 이틀간 휴식한 뒤 도전을 재개해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br/> <br/>조거슨은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새벽직벽을 찾는 데 우리가 영감을 줬길 바란다”며 “우리가 느리지만 확신을 갖고 이 일을 해낸 것처럼 모두가 언젠가는 각자의 새벽직벽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4.txt

제목: 인천성모병원, 암환자 '다학제통합진료' 개시  
날짜: 2015011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410015978827  
본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주요 진료과를 대표하는 의료진이 한데 모여 암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향후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원장 이학노)은 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전환한 인천성모병원은 다학제협의진료팀을 신설할 자격을 갖추게 됐다. <br/> <br/>인천성모병원에 따르면 다학제 통합진료는 한 명의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전문의 4, 5명이 한 자리에 모여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 계획을 도출한다. <br/> <br/>실제로 최근 인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 1층 다학제 통합진료실에서 유방암 재발 환자와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방외과 오세정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손석현 교수, 혈액종양내과 변재호 교수, 병리과 전선영 교수가 모여 치례 계획을 협의했다. 환자는 57세 여성으로 2013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해 지난해 12월 광범위 국소절제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중 뭐가 우선인지 등을 놓고 상의했다. <br/> <br/>이미 암 치료를 경험한 환자는 “또 어떻게 그 힘든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학제협의진료팀 위원장을 맡은 오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은 국소재발이라 하더라도 일단 한 번 재발하면 앞으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침</span>”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br/> <br/>이처럼 다학제 통합진료는 진단부터 검사, 수술, 치료 일정을 결정하는 협의가 빠르고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는 각 진료과 의료진을 한 공간에서 모두 만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br/> <br/>유방암 환자를 시작으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한 인천성모병원은 앞으로 대장암(이윤석 교수), 두경부암(남인철 교수), 림프종암(양승아 교수), 뇌신경종양(정동섭·윤완수 교수) 환자 순서로 통합진료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5.txt

제목: 송준근 선행 '말기암 가족 오열' 마지막길 함께, 훈훈함 자아내  
날짜: 2015011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410015985261  
본문: 송준근 선행송준근 선행 '말기암 가족 오열' 마지막길 함께, 훈훈함 자아내 <br/> <br/>개그맨 송준근이 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둔 한 학생의 사연을 듣고, 아버지의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특별하게 꾸며준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이목을 모으고 있다. <br/> <br/>최근 송준근이 한 학생의 사연을 듣고 췌장암 말기 아버지의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특별한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훈훈한 사연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라는 한 학생의 사연을 듣고 송준근은 둥이 개그맨인 이상민, 이상호와 함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br/> <br/>해당 학생의 아버지에게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하고,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병실에서 상영해 투병중인 아버지와 병실 안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br/> <br/>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학생의 아버지는 일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났다. 이후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6.txt

제목: 안국약품,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신약 개발 박차  
날짜: 2015011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410015980948  
본문: 안국약품이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br/> <br/>안국약품은 인천대학교·바미켐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신약후보물질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안국약품은 인천대 생명과학부 안순길 교수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 사업을 통해 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차세대 당뇨병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성공한 바 있다. <br/> <br/>이번 기술이전 협약으로 안국약품이 개발 및 판매권한을 가진다. 인천대와 바미켐은 선급기술료와 마일스톤·로열티 등을 받게 된다. <br/> <br/>안국약품은 기술이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연내 비임상연구(GLP)를 완료하고 임상1상 IND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 <br/>또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공동개발 및 라이센싱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br/> <br/>안국약품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차세대 당뇨병 치료제인 ‘11β-HSD1’ 저해제는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인 심혈관계 질환, 암 발생 위험 및 체중 증가가 없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지방대사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span>”며 “<span class='quot0'>DDP-4 억제제 이후 혁신적인 당뇨병 치료제로 기대가 되는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한편 안국약품은 매년 10%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개량신약, 천연물신약과 더불어 최근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7.txt

제목: 法, 사실혼 관계 부부 중 한쪽의 일방적 혼인신고도 '유효'  
날짜: 2015011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410015980142  
본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고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r/> <br/>14일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이동호 판사는 심근경색으로 C(38·여)씨 등 A씨의 자녀 3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r/> <br/>이 판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r/> <br/>이 판사는 "A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막내 처제' 등의 용어와 '처 000(B씨)을 동반한 지도 5년이 넘어 또 새해를 맞는구나'라는 문장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A씨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br/> <br/>A씨는 1977년 결혼한 부인과 2001년 이혼했다. 이후 셋 딸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다. <br/> <br/>A씨는 2002년 10월부터 6살 연하의 B(60·여)씨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r/> <br/>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 생활이었다. <br/> <br/>A씨는 B씨의 여동생을 막내 처제라고 불렀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했다. <br/> <br/>2011년 9월 A씨가 후두암 절제수술을 받을 때 병실을 지킨 이는 B씨 뿐이었다. <br/> <br/>B씨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7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br/> <br/>의사는 서둘러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A씨에게 "수술 전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다. <br/> <br/>A씨는 딸 셋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왕래도 없다고 했다. 이에 의사는 B씨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다.  <br/> <br/>몇시간 뒤 A씨는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상태가 악화됐다. B씨는 그 즉시 구청으로 가 A씨와의 혼인 신고를 했다. <br/> <br/>혼수상태에 빠졌던 A씨는 B씨가 혼인 신고한 다음 날 새벽인 2013년 7월 31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br/> <br/>A씨 사망 뒤 연락이 닿은 딸 셋은 "B씨가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혼인 신고를 했다"며 "아버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혼인 신고는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8.txt

제목: 암 예방 컬러푸드, 음식으로 암 예방하자  
날짜: 2015011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69463  
본문: 암을 예방하는 컬러푸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라고 권장했다. 5대 컬러푸드는 붉은색, 노랑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등의 색이 포함된 채소와 과일을 지칭한다. <br/> <br/>5대 컬러푸드는 암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파이토케미칼'이란 물질이 들어있다. 파이토케미칼은 음식의 색깔 별로 들어있는데 종류와 효과도 다르다.  <br/> <br/>붉은색이 나는 토마토나 수박, 딸기와 같은 과일과 채소에는 풍부한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등의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다. 이 물질은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뛰어나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특히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br/> <br/>오렌지, 귤, 호박, 당근, 감 등에 해당하는 노란색의 과일과 채소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항암 효과를 나타내며 산화를 방지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 향상에 도움을 준다.  <br/> <br/>특히 오렌지, 자몽, 감귤 등의 안쪽의 흰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은 여러가지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노란색 곡류와 과일에 해당하는 대두, 옥수수, 망고, 멜론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배추, 브로컬리, 케일, 양배추, 해초류, 대두 등의 초록색 채소와 곡류에는 설포라판, 인돌, 리그난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건강한 세포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 대장암이나 유방암과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도를 낮춘다. <br/> <br/>자두, 딸기 등 붉은 보라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는 페놀화합물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고 이것은 항산화 효과 뿐 아니라 염증반응과 암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마늘, 파, 양파, 버섯, 배, 백포도주 등의 흰색계통의 식품에는 알릴화합물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간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또 강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59.txt

제목: 표적 치료·맞춤 장기… 첨단 의료시대 ‘활짝’  
날짜: 20150113  
기자: 서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5637  
본문: 유전자 연구 성과와 첨단 정보기술(IT)의 결합으로 미래 의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500여개 유전자 변이 발견으로 암 정복의 초석이 마련됐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환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진단하기도 한다. 이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의학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14일 밤 10시 ‘미래의학 2부 - 2015 첨단 맞춤의료의 현주소’를 방송한다. <br/> <br/> 첨단의학의 발달로 인공장기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더 다양한 장기들이 이식 가능해질 것이라 말한다. <br/>KBS 제공인간의 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첨단 의료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이 중 표적치료제는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린다. 표적치료제란 암세포 자체만을 공격해 주변의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치료제로 부작용이 적고 항암 효과 또한 뛰어나다.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인 암이지만 표적치료의 성공적 치료자들은 암환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생존해 있다. 제4의 암 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면역치료도 주목할 만하다. 환자 자신의 정상 면역세포를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악성 흑색종을 시작으로 폐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면역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인간 유전자의 연구 성과로 인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암 치료의 면면을 살펴본다. <br/> <br/>생명 연장을 실현한 인공장기의 발전상도 돌아본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우리 몸속의 여러 장기 역시 노화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기증자 수는 현저히 부족하다. <br/> <br/>이 불균형 현상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인공장기’다. 심장, 간, 췌장과 같은 인체의 중요한 생체 장기를 대신 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인공장기가 과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더 다양한 장기들이 이식 가능해질 것이라 말한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0.txt

제목: 암 예방 컬러푸드 5가지 공개, '암 예방-만성질환'에 효과...그 종류는?  
날짜: 201501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69523  
본문:   <br/> <br/>암 예방 컬러푸드 5가지 공개, '암 예방-만성질환'에 효과...그 종류는? <br/> <br/>암 예방 컬러푸드인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채소-과일은 암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최근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암을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색깔의 식품을 공개했다. <br/> <br/>암 예방을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 등 컬러푸드의 영양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식물에 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이다. <br/> <br/>노란색의 당근, 호박, 귤, 오렌지, 파프리카, 고구마 등은 암이나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카로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br/> <br/>또 흰색의 마늘, 양파, 배, 바나나, 버섯, 컬리플라워, 감자, 생강 등에 든 안토크산틴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마늘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한다. <br/> <br/>빨간색의 토마토, 딸기, 사과, 수박, 자두, 홍피망, 강낭콩 등에 든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등은 인체 내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로 불린다. <br/> <br/>청보라색의 가지, 붉은양배추, 포도, 베리류, 검은콩 등은 눈과 두뇌 건강에 좋고, 심혈관계 질환을 막아준다. <br/> <br/>녹색의 시금치, 피망, 브로컬리, 배추, 멜론, 키위 등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1.txt

제목: [핫키워드] 대승기신론소 최고본 발견, 설 연휴 열차표 예매, 암 예방 컬러푸드, 신진대사 높여주는 식품, 고속버스 시간 조회, 삵의 특징  
날짜: 201501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69324  
본문:   <br/> <br/> <br/>대승기신론소 최고본 발견, 설 연휴 열차표 예매, 암 예방 컬러푸드, 신진대사 높여주는 식품, 고속버스 시간 조회, 삵의 특징 <br/> <br/>[핫키워드] 대승기신론소 최고본 발견, 설 연휴 열차표 예매, 암 예방 컬러푸드, 신진대사 높여주는 식품, 고속버스 시간 조회, 삵의 특징 <br/> <br/>13일 대승기신론소 최고본 발견, 설 연휴 열차표 예매, 암 예방 컬러푸드, 신진대사 높여주는 식품, 고속버스 시간 조회, 삵의 특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br/> <br/> <br/>대승기신론소 최고본 발견 <br/> <br/>신라시대 고승 원효대사의 대표 저술인 '대승기신론소' 최고본이 발견됐다. 중국 투르판 필사본 단간이 중국 상해 사범대 딩위안(定源) 교수가 독일에서 발견한 중국 투르판 필사본 단간은 현존 최고본인 돈황본보다 200년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br/> <br/>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김종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12일 오후 2시 동국대 대학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당위안 교수를 초청,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br/> <br/>이번에 독일에서 발견된 단간은 돈황본이 아니라 중국 투르판 본으로 '대승기신론소'의 여러 이본(異本)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br/> <br/>2010년 딩위안 교수는 영국 런던의 대영도서관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오럴 스타인(1862~1943)이 가져온 돈황 문서들을 검색한 결과 ,15행의 단간을 발견하고 이어 중국 베이징대의 소장문서에서 5행,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소장문서에서 3행, 10행, 9행의 단편을 추가 확인한 바 있다. <br/> <br/>이번 투르판 본 '대승기신론소' 단간의 발견으로 원효대사의 명성과 사상적 영향이 중앙아시아 돈황과 투르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br/> <br/>  <br/> <br/>설 연휴 열차표 예매 <br/> <br/>1월 13일부터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br/> <br/>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3(화)일과 14일(목) 인터넷과 대리점, 기차역을 통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경부, 경전, 경북, 대구, 충북, 경의, 경원, 동해남부선 노선 예매가 가능하며, 14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 대백, 영동, 경춘선 예매를 진행한다. <br/> <br/>예매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 1회당 최대 6매 이내 예매가 가능하고, 승차권 결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결제해야 예매가 자동취소 되지 않는다. <br/> <br/>또 입석 포함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잔여 승차권 판매 역시 15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br/> <br/>자세한 예매 방법은 한국도시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r/> <br/>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예매전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예매 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  <br/> <br/>암 예방 컬러푸드 <br/> <br/>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붉은색, 노랑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등의 색이 포함된 채소와 과일을 지칭하는 5대 컬러푸드는 암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파이토케미칼'이란 물질이 들어있다. 파이토케미칼은 음식의 색깔 별로 들어있는데 종류와 효과도 다르다. <br/> <br/>붉은색이 나는 토마토나 수박, 딸기와 같은 과일과 채소에는 풍부한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등의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다. 이 물질은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뛰어나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특히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오렌지, 귤, 호박, 당근, 감 등에 해당하는 노란색의 과일과 채소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항암 효과를 나타내며 산화를 방지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 향상에 도움을 준다. 특히 오렌지, 자몽, 감귤 등의 안쪽의 흰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은 여러가지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노란색 곡류와 과일에 해당하는 대두, 옥수수, 망고, 멜론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배추, 브로컬리, 케일, 양배추, 해초류, 대두 등의 초록색 채소와 곡류에는 '설포라판', '인돌', '리그난'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건강한 세포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 대장암이나 유방암과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붉은 보라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는 '페놀화합물'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고 이것은 항산화 효과 뿐 아니라 염증반응과 암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식품은 자두, 딸기, 적포도, 적포도주, 키위, 건포도, 토마토 등이 해당된다. <br/> <br/>마늘, 파, 양파, 버섯, 배, 백포도주 등의 흰색계통의 식품에는 '알릴화합물'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간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강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 <br/> <br/>  <br/> <br/>신진대사 높여주는 식품 <br/> <br/>최근 신진대사 높여주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진대사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몸에 필수적인 과정을 뜻한다. 섭취한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몸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을 만들어 신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br/> <br/>신진대사가 얼마나 잘되느냐가 건강의 척도라고 말할 정도로, 활발한 신진대사는 건강의 필수 요건 중 하나다. 활발한 신진대사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br/> <br/>신진대사 높여주는 식품 중 하나는 계란 후기다. 계란흰자는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BCAA(branched-chain amino acids)가 풍부하다. 또한 계란 흰자는 단백질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D 함량도 높다. 비타민 D는 골격 형성에 필요한 칼슘을 대장과 신장에 흡수시키는데 역할을 하며 대부분은 햇빛을 통해 얻는다. <br/> <br/>다음으로는 살코기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는 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살코기다. 살코기는 철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 철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성성분이다. 산소를 각 조직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이것이 결핍될 경우 빈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일정량 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살코기 외에도 검정콩이나 짙은 녹색 채소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br/> <br/>물 역시 신진대사 높여주는 식품 중 한다. 체내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몸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기 때문이다. <br/> <br/>물은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안의 불필요한 노폐물 배출도 도와준다. 물을 마실 때도 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이 있는데, 찬물을 마실 경우에 급속도록 차가워진 속을 덥히기 위해 몸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한다. <br/> <br/>고추는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다. 이 캡사이신은 몸의 신진대사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용을 한다. 식욕을 촉진하기도 하고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지방을 태워 없애기 때문에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또한 막아준다. 캡사이신이 지방을 태운다는 효능이 알려지면서 한때 국내에서는 캡사이신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기도 했다. <br/> <br/>  <br/> <br/> <br/>고속버스 시간 조회 <br/> <br/>고속버스 시간조회는 먼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가능하다. 지역과 출·도착터미널을 선택하면 출·도착 시간과 등급, 요금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br/> <br/>이외에도 코버스나 이지티켓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들은 현재 고속버스통합정보 시스템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터미널의 고속버스 운행노선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 <br/>승차권 예약에서 노선(출발지-도착지), 출발일시, 버스등급을 지정하면 출발 일시 이후의 배차정보 및 잔여좌석, 등급별 요금, 운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br/> <br/>  <br/> <br/>삵의 특징 <br/> <br/>삵은 고양이과의 동물로 흔히 '살쾡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에 분포하고 있다. <br/> <br/>삵의 특징으로는 몸길이가 55~90cm로, 고양이보다 덩치가 약간 큰 편에 속한다. 또한 삵은 황갈색 또는 적갈색 털빛에 온 몸에 반점이 많고, 새나 작은 포유동물을 잡아먹는 특징이 있다. <br/> <br/>다 자란 삵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고라니도 사냥할 수 있는 맹수의 특징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현재 삵은 6·25 전쟁 이후 살서제에 오염된 먹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입으면서 멸종 위기 보호 종으로 분류 중이다. <br/>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2.txt

제목: [핫키워드]암 예방 컬러푸드,파주 LG디스플레이 ,설 연휴 열차표 예매,추신수 선수 아버지,응답하라 1988  
날짜: 201501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0555  
본문: [핫키워드]암 예방 컬러푸드,파주 LG디스플레이 ,설 연휴 열차표 예매,추신수 선수 아버지,응답하라 1988  <br/> <br/>암 예방 컬러푸드,파주 LG디스플레이 ,설 연휴 열차표 예매,추신수 선수 아버지,응답하라 1988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br/> <br/>#암 예방 컬러푸드 <br/> <br/>암 예방 컬러푸드인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채소-과일은 암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최근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암을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색깔의 식품을 공개했다. <br/> <br/>암 예방을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 등 컬러푸드의 영양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식물에 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이다. <br/> <br/>노란색의 당근, 호박, 귤, 오렌지, 파프리카, 고구마 등은 암이나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카로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br/> <br/>또 흰색의 마늘, 양파, 배, 바나나, 버섯, 컬리플라워, 감자, 생강 등에 든 안토크산틴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마늘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한다. <br/> <br/>빨간색의 토마토, 딸기, 사과, 수박, 자두, 홍피망, 강낭콩 등에 든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등은 인체 내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로 불린다. <br/> <br/>청보라색의 가지, 붉은양배추, 포도, 베리류, 검은콩 등은 눈과 두뇌 건강에 좋고, 심혈관계 질환을 막아준다. <br/> <br/>녹색의 시금치, 피망, 브로컬리, 배추, 멜론, 키위 등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br/> <br/>#파주 LG디스플레이 <br/> <br/>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가스에 질식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 상태이다. <br/> <br/>지난 1월 12일 오후 12시 43분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8세대 공장 9층 작업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문 씨와 이모 씨(32)가 숨졌고 오모 씨(31)는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br/> <br/>문 씨 등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로봇팔 등 납품 장비를 점검하러 작업장에 들어갔다. 평소 2시간 정도 작업한 뒤 휴식했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뒤늦게 쓰러져 있는 문 씨 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조에 나선 직원 3명도 질소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r/> <br/>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대형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만드는 곳이다. 평소에는 유리판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질소로 채워져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없다. 질소가스가 모두 빠져나간 뒤에야 유지 보수 작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br/> <br/>소방당국은 장비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span class='quot0'>장비는 외관상 이상이 없었고,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질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br/> <br/>밀폐된 장소에서 갑자기 질소가 누출되면 공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질식에 이르게 된다.  <br/> <br/>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질소가 누출돼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등 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br/> <br/> <br/> <br/>#설 연휴 열차표 예매 <br/> <br/>설 연휴가 한달 남짓 다가온 가운데 13일부터 15일까지 노선별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br/> <br/>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3일(화)과 14일(목) 인터넷과 대리점, 기차역을 통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br/> <br/>13일에는 경부, 경전, 경북, 대구, 충북, 경의, 경원, 동해남부선 노선 예매가 가능하며, 14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 대백, 영동, 경춘선 예매를 진행한다. <br/> <br/>예매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 1회당 최대 6매 이내 예매가 가능하고, 승차권 결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결제해야 예매가 자동취소 되지 않는다. <br/> <br/>또 입석 포함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잔여 승차권 판매 역시 15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br/> <br/>자세한 예매 방법은 한국도시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r/> <br/>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예매전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예매 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 <br/> <br/> <br/> <br/>#추신수 선수 아버지 <br/> <br/>추신수 선수 아버지가 지난 9일 부산구치소에 갇혔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지난 1월 12일 경찰에 따르면 메이저리거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 선수의 아버지 추 모(64)씨는 지난 9일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혀 부산구치소에 감치됐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br/> <br/>추신수 선수의 아버지는 2007년 5월 조 모(58)씨와 함께 박 모(54)씨한테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돈을 빌려준 박 모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추신수인데 거짓말을 하겠냐"며 "2주 안에 갚아준다고 빌려갔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또한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는 2012년 10월 상환하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요구도 무시하며 법정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서약하고 감치 3시간 만인 오후 9시 30분쯤 풀려났다. <br/> <br/>한편 추신수는 텍사스와 7년간 무려 총액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역대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최대 규모  FA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올해 추신수의 연봉은 1400만달러로 알려졌다. <br/> <br/> <br/> <br/>#응답하라 1988 <br/> <br/>응답하라 1988이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br/> <br/>지난 1월 12일 tvN 관계자는 1988년이 배경이 될 것이라는 보도에 "응답하라 '1988'은 논의 중인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콘셉트가 변경될 정도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r/> <br/>또한 방송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작이 가시화된 단계는 아니라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예능 출신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선보인 '응답하라' 시리즈는 2012년 '응답하라 1997'에서 시작해 2013년 '응답하라 1994'로 이어지면서 대중문화계에 복고 열풍을 일으키는 등 커다란 인기를 모았다. <br/> <br/>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3.txt

제목: 서남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증 받아  
날짜: 2015011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0662  
본문: 서울시서남병원(원장 김준식·사진)은 이 병원 완화의료병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인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br/> <br/>서남병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인허가는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실사를 통해 이뤄진다. 두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전문기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br/> <br/>의화여대의료원이 운영하는 서남병원의 완화의료병동은 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 및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갖추고 있다.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등 시설과 흡인기, 산소발생기, 목욕침대 등 장비도 완비한 것이 이번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br/> <br/>서남병원이 완화의료병동을 개소한 것은 2013년 11월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이 하나의 팀을 이뤄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돕고 있다. 마사지, 목욕,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br/> <br/>서남병원 김준식 원장은 “<span class='quot0'>말기 암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완화의료병상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우리 병원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 공공병원으로서 완화의료병동 활성화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완화의료 병동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4.txt

제목: 평균 수명 100세시대 앞둔 현대인 ‘비타민D’에 주목하는 이유  
날짜: 20150113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1949  
본문: 지난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성 81.4세와 여성 86.7세로 나타났다. 머지않아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둔 현대인들은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금연, 운동,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 <br/> <br/>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의하면 ‘비타민D’가 4개월간 건강기능식품 분야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비타민D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영양소다. 최근 덴마크의 한 연구진이 만성 비타민D 부족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연구진이 주목한 비타민D가 결핍되면 생길 수 있는 증상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올바른 섭취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야외활동 부족한 한국인 93%가 비타민D 결핍···건강보조식품 통한 비타민D 섭취 필수 <br/>비타민D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필수 영양소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체내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줘 결핵,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면역력 질환을 예방하고, 부족할 경우 팔, 다리, 골반 등의 통증과 심할 경우 척추측만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br/> <br/>음식을 통한 섭취는 불가능하며, 햇빛을 통해서만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월등히 높고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생활화된 현대인의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타민D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br/> <br/>실제로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93%(성인남성 91%, 여성 96%)가 비타민D 부족을 겪고 있으며, 비타민D 결핍 환자 수는 지난 2007년 1800명에서 2011년 1만6000명으로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햇빛을 쬐는 시간을 늘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이 우려돼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 보스턴 의대에서 비타민D를 연구하는 마이클 F. 홀릭 박사(Michael F. Holick, Ph.D., M.D)는 “SPF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햇빛으로 들어오는 비타민D가 95% 가까이 줄게 되지만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되, 부족한 만큼의 비타민D는 보충제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일조량 부족한 겨울철, 비타민D 매일 섭취하면 겨울철 6대 만성 질환 예방 가능 <br/>비타민D 관련 지식과 최신 의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비타민D 정보센터(www.vitamindinfo.co.kr)에 의하면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비타민D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며 특히 겨울철 6대 만성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혈압, 류머티스 관절염, 종양, 골다공증, 당뇨병은 비타민D 가 부족할 경우 악화될 수 있어 비타민D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br/> <br/>겨울철 만성 질환자들의 61%가 비타민 부족 상태이며, 혈중 비타민D의 농도가 20ng/mL 이하인 비타민D 결핍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여름에 비해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를 꾸준히 섭취하기만 해도 류머티스 관절염의 유발 면역 세포와 염증 유발 인자, 암의 증식을 억제 할뿐만 아니라 뼈의 파괴와 생성을 주관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해 골다공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 <br/> <br/>비타민D, 식후복용 및 연령대별 권장 섭취량 맞춰 먹어야 효과 높일 수 있어 <br/>현대인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D는 어떻게,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비타민D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50%밖에 흡수가 되지 않아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중 식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을 지정해 매일 동일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개월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최소 400에서 1000IU를 섭취해야 하며, 1세부터 18세까지는 최소 600IU에서 많게는 1000IU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1500IU에서 2000IU까지 섭취해야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다만, 비타민D 결핍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 권장량의 2-3배를 섭취해 비타민D 혈중 농도를 30ng/mL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비타민D 결핍 상태는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br/> 다나음 비타민D3 제품군, 왼쪽부터 비타민D3 1000IU, 베이비 D-드롭 500IU, 비타민D3 5000IU. <br/>비타민D 전문기업 ‘다나음’에서 출시한 ‘비타민D3’ 제품군은 각 연령대에 맞춘 제품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을 뿐 아니라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복용법을 제시하고 있어 겨울철 건강 관리에 탁월하다. 성인을 위한 ‘하이포텐시 고함량 비타민D3 5000IU’와 1세부터 8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1000IU’ 제품은 연질캡슐 형태로 흡수율을 높였다. <br/> <br/>특히 ‘비타민D3 1000IU’ 제품의 경우 젤리처럼 씹어 먹을 수 있어 평소 알약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1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베이비D-드롭 500IU’는 드롭 타입으로 출시돼 이유식이나 과일 등에 떨어뜨려 간편하게 먹일 수 있으며 하루 한 두 방울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br/> <br/>‘다나음’은 비타민D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비타민D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올바른 제품을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나음의 비타민D 제품은 전국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나음 공식 홈페이지(danau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5.txt

제목: 태전그룹, 해독주스 ‘츄링’ 출시  
날짜: 2015011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3234  
본문: 태전그룹은 자사 유통 시스템인 오더스테이션을 통해 해독주스 ‘츄링’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br/> <br/>오더스테이션을 통해 약국에 첫 선을 보이는 해독주스 ‘츄링’은 당근, 양배추, 토마토, 콜리플라워 등의 야채를 삶아 익힌 후, 바나나, 사과, 딸기를 넣고 갈아 만든 홈메이드 방식의 건강 음료이다.  <br/> <br/>이 음료에 함유된 채소는 제조 과정에서 분리 가열 방식으로 삶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 외에 별도 첨가물이나 설탕,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아, 채소와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 <br/> <br/>원래 해독주스는 미국 암센터에서 투병생활로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된 암환자의 영양소 보충을 위해 개발된 치료식으로 개발돼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디톡스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야채와 과일을 삶고 갈아서 주스로 섭취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태전그룹 오더스테이션 담당자는 “<span class='quot0'>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천연 재료로 만든 해독주스 ‘츄링’으로 성인병 예방과 체질 개선 그리고 영양소 불균형을 해소시켜 수 있는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6.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 공개강좌 개최  
날짜: 2015011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2639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br/>  <br/>이번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와 영양팀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강좌는 ‘알고 싶어요, 콩팥병이 어떤 질환인지?’(신장내과 김용수 교수)와 ‘저 단백식이’(김영애 영양사),‘콩팥병 환자는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요?’(김영주 간호사)로 구성되며, 해당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br/> <br/>한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환자 평균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7.txt

제목: 빠르면 3월부터 호텔등급 ★갯수로, 현장 및 암행평가해 결정  
날짜: 201501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310015972121  
본문: 특1등급·특2등급 등 기존의 호텔 등급이 빠르면 3월부터 외국처럼 별(★) 개수로 표시된다. <br/> <br/>호텔등급은 한국관광공사의 현장 및 암행평가 결과에 따라 매겨질 예정이다. <br/> <br/>13일 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호텔업 등급결정 기관 승인을 받고, 새로 도입되는 별 등급제도 평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br/> <br/>강옥희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호텔 서비스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소비자들이 등급만 봐도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br/> <br/>새 기준에 따른 평가는 평가요원이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하는 '암행 평가(4∼5성급)·불시 점검(1∼3성급)'의 2단계로 나뉜다. <br/> <br/>현장 평가의 경우 호텔 측의 브리핑과 시설 점검, 직원 인터뷰 등을 거쳐 진행된다. <br/> <br/>암행 평가는 평가요원 2명이 직접 호텔에 1박2일 투숙하면서 예약·주차·룸서비스·비즈니스센터·식당 등 9가지 항목을 점검한다. <br/> <br/>불시 점검은 1명의 요원이 호텔을 찾아 객실 및 욕실, 공용공간 서비스 등 4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br/> <br/>새 기준 마련에 참여한 한진수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암행 평가와 불시 점검이 신설된 것이 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평가는 객실과 공용시설 등 호텔 핵심 서비스를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각 호텔은 신청 등급별로 정해진 총 배점 가운데 일정 수준의 점수를 따면 별을 받을 수 있다. <br/> <br/>5성급 표시를 신청한 호텔은 현장평가 700점, 암행평가 300점 등 1000점 만점에 90%(900점) 이상을 획득해야 별 5개를 받을 수 있다. <br/> <br/>4성급을 신청한 호텔은 850점 만점에 80%(6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br/> <br/>평가단은 문화관광부의 호텔 등급결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참여 전문가 추천과 호텔업협회·관광협회중앙회의 추천, 호텔경영학과 설치대학의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명으로 이루어진다. <br/> <br/>용선중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출신 지역과 등급 결정을 신청한 호텔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공정성을 최대한 높이고, 사전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br/> <br/>관광공사는올해는 새 제도와 옛 제도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며 별 등급은 디자인 선정과 응용 디자인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8.txt

제목: 암 줄기세포 백신치료…新수지상세포치료  
날짜: 2015011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210015965261  
본문: 줄기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암 발생 원인 중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2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진이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암은 65%가 암 줄기세포 생성으로 인해 발생했다. 암 줄기세포는 정상 줄기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생겨난다. 또 암 줄기세포는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 복제 또는 분열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많은 암세포를 무작위로 만들어 낸다. <br/> <br/>암 줄기세포는 항암 및 방사선치료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일본에 암치료 면역요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암 줄기세포’를 타겟(Target)으로 하는 면역세포 치료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센신병원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세포치료 전문가로 지난 2013년부터 DC-AIBac/CSC(암줄기세포특이항원획득면역백신요법: 이하 ‘암 줄기세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br/> <br/>암줄기세포치료’는 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채취해, NK세포, NK-T세포, 킬러-T세포, 감마ㆍ델타-T세포, 수지상세포의 5종 면역세포를 배양한다. 그 과정에서 성숙한 수지상세포에 암항원 펩티드 ‘WT1’을 인식시킨 치료법을 ‘新수지상세포치료’라고 한다. 또 ‘암줄기세포특이항원’을 추가로 인식시켜 암치료제로 제작해 환자에게 링거하는 요법이다. <br/> <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은 구라모치 박사가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항원으로 암치료에 접목해 사용되고 있다. <br/> <br/>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그 동안 5종복합면역요법과 신수지상세포치료를 시행해 왔고, 지난 2013년부터는 암 줄기세포 치료를 중심으로 암치료를 해왔다.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러며 “당원의 암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그 동안의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암치료 유효율이 80%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공식적인 임상 통계는 대학 병원과 진행하고 있는 임상을 근거로 오는 5월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Agent 법인 에스유 바이오 주최로 열린 ‘포기하지 않는 암치료’세미나에서 대표 강연자로 나서 면역치료의 중요성과 암줄기세포치료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69.txt

제목: 겨울철 암 환자 면역력 높이는 방법  
날짜: 20150112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210015964810  
본문: 암은 면역시스템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면역력의 상승이 곧 암의 진행을 전적으로 막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면역력의 저하는 새로운 암세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암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암 환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br/> <br/>특히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시에는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정상적인 면역기능도 급격히 저하되므로 적극적인 면역력 상승이 필요하다. 요즘과 같이 추운 겨울 날씨는 야외 운동이 힘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된다. 암 환자의 경우 면역력 향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계절이다. <br/> <br/>수면의 양과 함께 수면의 질이 좋아야 <br/>첫째로 수면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질 또한 좋아야 한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신의 피로가 풀릴 만큼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이때 수면의 질은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불안감과 우울감, 신경이 예민해진 경우와 같은 정신적인 요인과 암성 통증과 같은 불편한 신체 증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정신적인 원인은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갖도록 하며, 명상을 꾸준히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증을 포함한 신체적인 원인에는 침과 뜸 치료가 효과적인데, 치료를 통해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br/> <br/>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 <br/>둘째로 주간에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해야 한다. 비교적 하루 중에서 따뜻한 시간인 한낮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이나 등산을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추워서 야외 운동이 어려운 요즘에는 실내에서 하는 기공, 요가, 태극권 등을 적극 추천한다. 이러한 운동은 호흡, 정신, 신체 동작을 하나로 조화롭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어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br/> <br/>복부를 따뜻하게, 장의 울혈상태 개선 노력 <br/>셋째로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장의 울혈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장의 울혈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적취(積聚)라고 한다. 적취란 복부 속을 누르면 장이 단단히 뭉쳐져 있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를 암 발생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장의 울혈상태가 지속되면 림프순환 및 말초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면역기능과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어 암이 발생될 수 있는 미세 환경이 조성된다. 따라서 복부를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 하는 것과 뜸 치료, 좌훈 요법 등도 장의 울혈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한 불규칙한 식생활을 삼가고, 무분별한 약제의 복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br/> <br/> 윤성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한방내과 교수가 암 환자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공요법’을 설명하고 있다. <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력의 상승은 암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면역력의 상승은 실제로 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에도 유효한 효과를 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에서는 암 환자의 면역력 강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승한 기자 journalist7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0.txt

제목: [핫 키워드]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 신은미 씨 강제출국, 국제시장 윤제균  
날짜: 2015011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210015963268  
본문: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 신은미 씨 강제출국, 국제시장 윤제균[핫 키워드]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 신은미 씨 강제출국, 국제시장 윤제균 <br/> <br/>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 신은미 씨 강제출국, 국제시장 윤제균 키워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br/> <br/>'그것이 알고싶다' 백화점 모녀 사건이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br/> <br/>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10일 방송에서는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을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백화점 모녀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br/> <br/>백화점 모녀 사건의 주차요원은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무서웠다. 살면서 무릎을 꿇은 게 처음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br/> <br/>이어 "주먹질로 딸을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먹질은) “아줌마를 향하지 않았다. 내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는데 당황스럽고 말을 잘 못하니 의사전달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br/> <br/>또 “내 머릿속에 스친 게 1학기 낼까말까 하는 금액인데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무릎을 꿇었던 이유를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앞서 이날 방송에서 백화점 모녀는 “주차 요원이 먼저 차 안에 있던 딸을 위협하는 듯 한 행동을 취했고 이에 격분해 주차요원에 따지러 갔다”며 “때릴 수 없기 때문에 무릎 꿇렸고,사회정의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br/> <br/>이어 백화점 모녀의 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을의 횡포”라고 말했다. <br/> <br/>또 어머니는 사무실 바닥을 뒹굴며 “내 돈 쓰고 내가 왜 주차요원에게 모욕을 받아야 하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br/>  <br/># 과식 피해 줄이는 음식 <br/> <br/>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br/> <br/>과식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한 활성산소가 몸에 해를 끼친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세포를 공격한다. 또 심장병, 당뇨병,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건강생활 잡지 이팅웰(EatingWell)이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 5가지를 소개했다. <br/> <br/>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으로 우선 식초가 좋다. 샐러드에 뿌리는 식으로 한 스푼 정도 식초를 먹으면 많은 양의 탄수화물 식사를 한 뒤에 혈당이 치솟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대부분은 혈당이 갑자기 올라도 그만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다.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br/> <br/>또다른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으로는 오렌지 주스가 있다. 오렌지 주스도 활성산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 과식 피해를 줄이는 식품이다. 항산화제와 같은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는 고칼로리, 고지방식이 심장에 주는 폐해를 상쇄시켜준다.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를 하면서 오렌지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같은 식사에 맹물이나 설탕물을 마신 사람들보다 활성산소 수치와 심장병을 일으키는 염증성 지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으로 레드와인이 있다.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지방을 먹은 뒤 인체에 생성되는 화합물의 수치를 낮춰 과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식품이다. 이런 화합물은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레드와인은 1~2잔이 적당량이다. <br/> <br/>과식의 해로운 피해를 줄이려면 향시료를 더해서 먹으면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리, 오레가노, 계피, 강황, 후추, 마늘, 파프리카 등을 섞어 만든 양념 두 스푼 정도를 넣어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를 한 사람들은 같은 식사를 양념 없이 먹은 사람들에 비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중성지방과 인슐린 수치가 낮고, 항산화 수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과일 중 과식 피해 줄이는 식품으로는 딸기류, 포도, 키위, 체리 등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인데 먹으면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과일이나 채소 없이 고칼로리 식사를 하면 나쁜 영향이 오래갈 수 있다. <br/> <br/># 신은미 씨 강제출국 <br/> <br/>북한 관련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신은미 씨(51·여)가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br/> <br/>신은미 씨는 이날 오후 7시 50분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그는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심정”이라며 “몸은 강제 퇴거되지만 모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해외에서 기도하고 애쓰겠다”고 말했다. <br/> <br/>신은미 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제출국 심경을 밝힌 뒤,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다가 기소된 황선 씨(41·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기다리던 지인 30여 명에게도 한 명씩 “고맙다”는 말을 건넨 뒤 출국했다. <br/> <br/>신은미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황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면담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자 지인 중 일부가 호송차량 바퀴에 드러누워 112타격대가 현장 출동하기도 했다. <br/> <br/>외국인이 한국에서 국익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하면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br/> <br/>신은미 씨가 출국했지만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은미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법률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는 “강제퇴거는 행정소송,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각각 법리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br/> <br/>신은미 씨가 같은 날 오후 2시 40분(현지 시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미국에서도 보혁 충돌이 발생했다. 입국 전부터 미국 내 한인진보단체에서는 “민족의 영웅 신은미 환영” 등의 팻말을 들고 나왔지만, 보수단체에서는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팽팽히 맞섰다. <br/> <br/>신은미 씨가 교회 지인 및 진보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종북분자는 북한으로 가라”면서 귀가를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보수단체 회원 2명을 연행하고서야 충돌이 끝났다. 신은미 씨는 “당분간 쉬고 싶다. 차차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공항을 빠져나갔다. <br/> <br/>#국제시장 윤제균 <br/> <br/>윤제균 감독이 스태프들에게 천만관객 달성시 한 턱 쏘겠다고 밝혔다. <br/> <br/>윤제균 감독은 1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국제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br/> <br/>이날 윤제균 감독은 다른 영화와 달리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스태프분들이 힘든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 <br/> <br/>그는 “크게 4가지예요. 하루에 12시간 촬영하고, 더 이상 촬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시간 이상 촬영하게 되면 분명히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1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은 꼭 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보험이 말단 막내 스태프까지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br/> <br/>이에 이정민 아나운서는 “네 가지 중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천만 돌파하면 보너스 갑니까?”라고 질문했다. <br/> <br/>이에 윤제균 감독은 “당연하다. 특히 막내 스태프 밑에 있는 스태프들한테는 후하게 주려고 한다. 어차피 방송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재치있게 말해 웃음을 안겼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1.txt

제목: "고혈압은 완치 아닌 조절… 꾸준한 투약이 가장 중요"  
날짜: 20150111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110015958944  
본문: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 혈관이 움츠러든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려면 심장은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 겨울철에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는 여러 합병증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br/> <br/>실제로 고혈압 합병증에 의한 사망은 1년 중 9월이 가장 적은 반면 1, 2월이 제일 많다. 따라서 고혈압, 심장병 등 지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을지대병원 심장내과 최유정(사진) 교수와 겨울철 고혈압 관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br/> <br/>“요즘처럼 추운 날일수록 나이든 어르신이나 고혈압 환자들은 남다른 건강관리가 필요해요.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자칫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br/> <br/>최 교수에 따르면 사람의 혈압은 매순간 다르다. 흥분하거나 운동을 하면 올라가고, 쉬고 있거나 잠을 잘 때는 떨어진다. 이렇듯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심장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물이 지나는 호스의 구멍을 좁게 만들면 물은 더 멀리 나가지만 수압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좁아지면 그만큼 압력이 커지게 된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한 번 오른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고혈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혈관의 압력은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가끔 머리가 아프거나 뒷머리가 무겁기만 할 뿐 평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수년이 지나도록 위험을 알리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방치하다가 신장, 뇌, 심장, 눈 등에 합병증이 생겨서 건강을 잃고 고생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br/>고혈압을 ‘난치병’으로 여기는 이가 많으나, 조기에 발견해서 위험인자를 조절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꾸준히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 <br/> <br/>고혈압을 진단하는 비결은 단 한가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혈압을 재는 것이다. 수축기 혈압이 120㎜Hg, 이완기 혈압이 80㎜Hg을 각각 넘지 않으면 정상 혈압이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각기 140㎜Hg, 90㎜Hg까지 올라가면 ‘고혈압 직전’으로 본다. 수축기 혈압이 140㎜Hg를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Hg 이상인 채로 지속되는 경우가 고혈압에 해당한다. <br/> <br/>“고혈압은 암과 달리 완치가 아니라 조절하는 질환입니다. 환자는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문의 지시에 따르는 ‘충실한 협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료약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선택해야 하며, 지속적인 투약으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br/> <br/>심한 운동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호흡이 가빠져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실외운동을 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 장기인 심장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위험해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평소 아침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가급적 겨울에 아침 운동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고,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해왔더라도 추운 날에는 옷을 충분히 껴입고 하는 게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고혈압을 가진 사람은 피로 해소를 위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현기증을 느끼게 되죠. 온탕에서 냉탕으로 옮기는 것도 절대 삼가야 합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2.txt

제목: [핫 키워드] 당뇨망막병증 치료법·의정부 아파트 화재·과일 당분 함량·태종대 오토캠핑장 건립·펠리오 다이어트  
날짜: 201501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110015956407  
본문:   <br/> <br/>[핫 키워드] 당뇨망막병증 치료법·의정부 아파트 화재·과일 당분 함량·태종대 오토캠핑장 건립·펠리오 다이어트 <br/> <br/>1월 11일 오전 당뇨망막병증 치료법·의정부 아파트 화재·과일 당분 함량·태종대 오토캠핑장 건립·펠리오 다이어트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 <br/>#당뇨망막병증 치료법 <br/> <br/>당뇨망막병증이란 전신 질환인 당뇨병에 의해 말초 순환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때 망막의 미세순환에 장애가 생겨 시력 감소가 발생하는 병이다. <br/> <br/>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황반부의 침범이 일어나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br/> <br/>시력은 망막병증의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로 삼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상당히 진행된 망막병증에서도 황반부의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시력이 좋게 나타나고, 가벼운 정도의 망막병증이라 하더라도 병적인 변화가 황반부에 국한되어 나타난 경우에는 상당한 시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br/> <br/>당뇨병의 초기에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면 망막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일단 망막병증이 발생한 후에는 그 진행을 막기 어려우며 다만 철저한 혈당 조절로 망막병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br/> <br/>#과일의 당분 함량 <br/> <br/>과일의 당분 함량이 낮은 과일로는 라즈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레몬, 라임 등이 있다. <br/> <br/>당분이 적게 들어있는 과일은 반대로 항산화성분이나 파이토뉴트리언트와 같이 영양적 가치가 높은 성분은 많이 있다. <br/> <br/>베리류는 지방, 탄수화물, 칼로리가 낮은 반면 비타민,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성분이 풍부해 심장질환과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춘다. <br/> <br/>당분 함량이 보통인 과일은 사과, 딸기, 수박, 복숭아, 파파야, 블루베리, 멜론, 구아바, 살구 등이다. <br/> <br/>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 오렌지, 키위, 자두, 배, 파인애플 등이 있다. 사과는 혈당지수가 레몬이나 일부 베리류보다는 약간 높지만 건강상 유익한 측면이 많으므로 매일 먹는 것이 좋고 하루 1개 정도는 오히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br/> <br/>오렌지는 신맛도 나기 때문에 당분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사과보다 당분이 높다. <br/> <br/>하지만 비타민 C, 칼륨, 엽산, 티아민 등의 좋은 공급원인데다 과일 치고 높다는 의미이므로 혈당지수 때문에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 <br/> <br/>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은 체리, 포도, 망고, 석류, 바나나, 무화과, 말린 과일 등이다. <br/> <br/>#태종대 오토캠핑장 건립 <br/> <br/>부산 영도구 태종대유원지에 '오토캠핑장(자동차 야영장)' 건립이 추진된다. <br/> <br/>영도구는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응모,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 지난 6일 2차 PPT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br/> <br/>오토캠핑장 건립이 추진되는 곳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유원지 입구 오른쪽 주차장 아래 9천400㎡ 부지다. 유휴지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이 부지는 시유지와 국유지로 이뤄져 사업하기에 적합하다. <br/> <br/>태종대유원지는 영도대교~태종대 해안산책길,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게 강점이다. <br/> <br/>영도구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걸음이 많은 영도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서면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관광객들의 유입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평일 5천 명, 휴일 8천 명 등 연간 1만 3천 명이 태종대유원지 오토캠핑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r/> <br/>#펠리오 다이어트 <br/> <br/>펠리오 다이어트란 굶지않고 상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먹으며 살을 빼는 것이다. <br/> <br/>‘펠리오’는 구석기 시대를 뜻하는 펠리오리틱(paleolithic)의 약자로 한마디로 원시인이 먹던 식단으로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이다. <br/> <br/>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펠리오다이어트는 과학자 로렌 코데인 박사가 주창했다. 코데인 박사는 2011년 12월 이 다이어트 방법을 다룬 책 ‘Paleo diet’를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석기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번역됐다. <br/> <br/>펠리오 다이어트는 신석기 시대 이후 등장한 식재료인 유제품, 속껍질까지 벗겨낸 가공 곡류, GMO 콩류, 콩기름 등 가공된 기름, 정제된 설탕과 소금, 주류, 커피 등의 섭취를 제한한다. <br/> <br/>과자, 아이스크림과 패스트푸드도 모두 금지하지만 소나 양에게서 직접 짠 우유, 방목해 키운 쇠고기와 닭고기, 생선, 채소는 적극 권장한다. <br/> <br/>펠리오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지 끊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하루 탄수화물 300g은 섭취해야 한다. <br/> <br/>펠리오 식단을 따르면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지만 건강을 위해 적절한 운동이 권장된다. 자주 걷고, 1주일에 2∼3회 근육운동과 1회의 전력질주(100m 달리기)면 충분하다. <br/> <br/>#의정부 아파트 화재 <br/> <br/>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에서 "시 전 직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차질없는 부상자 치료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족과 피해자 입장에서 시가 지원할 부분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라"고 말했다. <br/> <br/>안병용 시장은 "현재 경찰과 소방에서 화재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경기도,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담팀을 만들어 이런 재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br/>또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 단기·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다"며 "단계별로 매뉴얼화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br/> <br/>앞서 이날 오전 9시 27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오후 5시 현재 4명이 숨지는 등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br/> <br/>소방당국에 따르면 인근 소방서 인력 수십 명을 포함 총 80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다. 또 헬기 4대를 동원해 주민 구조에 나섰다. 총 구조 인력은 900여명. 하지만 건물 뒤편 경원선 전철 선로가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연기와 불길이 심해 진화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3.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미니스커트라 쓰고 욕망이라 읽는다  
날짜: 20150111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1110015956392  
본문: #. 대학생 김모(23·여)씨는 거의 매일 짧은 치마를 입는다. 되레 바지를 입으면 하체가 상대적으로 통통해 보이기 때문. 김씨는 “<span class='quot0'>겨울에 치마를 입으면 춥긴 하지만, 따뜻한 기모레깅스 등으로 커버하면 그나마 낫다</span>”며 “<span class='quot0'>남자친구도 내가 바지를 입는 것보단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span>”고 밝혔다. <br/> <br/>요즘처럼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여성들이 멋을 부리려고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사람들은 ‘멋 부리다 얼어 죽을래?’라는 말을 하곤 한다. 물론 미니스커트 입고 멋을 좀 부렸다고 해서 진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얘기가 신빙성 있는 말일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온이 0도라 할 경우, 이 때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체감온도는 약 영하 2도다. 반면 바지를 입은 사람의 체감온도는 4도 이상이다. 다시 말해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가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체감온도가 6도 이상 손실이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치마가 무릎 위 10cm까지는 치마선이 2cm 오를 때마다 체감온도가 0.5도씩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불황엔 미니스커트, 빨란 립스틱 잘 팔린다 <br/> <br/>불황에는 역시 미니스커트가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옥션은 지난달 1~28일 레깅스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니스커트와 립스틱 판매량은 모두 15%씩 증가했다. 미니스커트의 경우 밑단이 퍼진 형태의 A라인 스커트와 타이트한 형식의 H라인 미니스커트가 인기이며, 모직소재의 미니스커트와 발색이 오래 지속되는 틴트 제품이 인기상품에 올랐다. 11번가가 지난달 1~28일 불황형 상품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립스틱과 레깅스(치마레깅스 포함)는 각각 84%, 75% 판매가 늘었다. 또 하이힐 29%, 미니스커트 15% 등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닷컴이 지난달 1~29일 미니스커트와 하이힐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립스틱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했다. <br/> <br/>옥션 관계자는 "레깅스의 경우 미니스커트나 반바지가 부착된 치마 레깅스나 반바지 레깅스가 인기를 끌었다"며 "한 번에 두 가지 아이템을 착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기모나 융이 들어간 제품이 있어 방한의류로도 인기"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2014년은 '불황에 미니스커트와 빨란 립스틱이 잘 팔린다'는 속설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던 해였던 것 같다"며 "2015년 역시 경제지표도 좋지 않은 것이 시장에 작용, 미니스커트나 립스틱 인기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 "치마 속 촬영, 사생활 침해 아냐" <br/> <br/>한편,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은밀한 부위를 당사자 몰래 찍는 '몰카'내지 '도촬'을 성범죄시하는 현실에서 논란을 빚을 판례로 보인다. <br/> <br/>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DC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4일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가 체포된 버지니아 출신 크리스토퍼 클리블랜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클리블랜드는 2013년 6월 링컨기념관 계단에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들의 노출된 부위를 사진에 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의 카메라에서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를 찍은 사진 다수가 발견됐다. 워싱턴DC 고등법원의 줄리엣 매케나 판사는 판결에서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한 가운데 옷을 입고 그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사생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짧은 치마라면 어느 정도 노출이 예상되며, 이는 입은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br/> <br/>또한 이미 공공장소에서 드러난 만큼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매케나 판사는 “<span class='quot3'>클리블랜드의 사진에 대해 (여성의 치마 속을) 우발적으로 훑어본 것들이 아니었으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span>”고 덧붙였다. 이어 “클리블랜드의 행위가 불쾌하고 불온하지만,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 등 옷을 입거나 입지 않은 상태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인해 클리블랜드가 체포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br/> <br/>◆ 20대 이후 치마 사이즈, 유방암과 정비례 <br/> <br/>중년 여성의 치마 허리둘레가 커지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BBC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유니버스티 컬리지 런던 대학 부속 여성건강연구소의 연구진이 20대 중반 후 10년마다 치마 사이즈가 한 치수씩 늘어난 여성이 폐경 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33%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BMJ 오픈에 발표했다. 연구진 이 학술지에 20대 중반부터 치마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만, 특히 몸통 중간 부위의 비만은 암에 걸리는 위험 인자로 알려졌다. 이 연구를 이끈 여성건강연구소의 여성암학과 교수 우샤 메논은 BBC에 “<span class='quot4'>치마 사이즈가 중년 여성에게 유방암 위험의 좋은 예측지수가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연구진이 영국에 거주는 50대와 60대 이상 9만여명을 3년동안 관찰한 결과, 1090명이 유방에 걸렸다. 연구진은 만 25세부터 폐경 후까지 10년마다 치마 사이즈를 한 치수씩 크게 입은 여성이 암에 걸릴 위험이 33% 증가한 사실을 밝혀냈다. 10년 간 치마사이즈가 2치수 커지면 위험이 77%로 더 증가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영국의 유방암연구소인 영국유방암극복협회의 시몬 빈센트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span class='quot5'>유방암의 40%가 꾸준하게 운동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등 생활 방식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이 연구는 시간에 따른 체중 증가를 관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보여주며, 여성이 젊었을 때 자신의 BMI보다 자신의 치마 사이즈를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4.txt

제목: 인체조직기증이란 '생명나눔' 활동에 반하는 '인육 캡슐' 논란  
날짜: 2015010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0910015951203  
본문:   <br/> <br/>인체조직기증이란 '생명나눔' 활동에 반하는 '인육 캡슐' 논란 <br/> <br/>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피부ㆍ뼈 등을 기증하는 활동으로 사회 곳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인육캡슐이 다시금 논란이 돼 세간에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다. <br/> <br/>인육캡슐은 뼈?연골 등의 인체조직으로 제작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때 유산되거나 사산한 태아를 갈아 만든다는 설도 있다. <br/> <br/>말기 암?중증 당뇨?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인육캡슐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약청 검사 결과 인육캡슐 1정에서 박테리아 등의 세균 187억 마리가 검출돼 소문은 근거 없는 낭설로 밝혀졌다.  <br/> <br/>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5.txt

제목: [사설] 공동체 기반 좀먹는 ‘갑질 종양’, 뿌리 뽑아야  
날짜: 2015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0910015954346  
본문: 새해 벽두부터 갑질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논란의 불똥이 공직사회로까지 번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최근 보고서를 제 시간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 총경급 간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들을 모욕하고 자주 욕설을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경찰청이 엄중 경고하고 당사자가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br/> <br/>약자의 인격을 짓밟는 갑의 횡포는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 얼마 전에는 백화점 대표 친척을 빙자한 50대 모녀가 주차 아르바이트생의 무릎을 꿇리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항공기 사무장의 무릎을 꿇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오만을 떠올리게 한다. 서울의 대형마트에서는 30대 여성고객이 “몇 억씩 쓴 VIP 고객이야”라고 소리치며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런 갑질 추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청년 구직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악덕 상혼도 활개를 친다. 택시기사에게 반말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종 부리듯 하는 몰상식은 또 얼마나 많은가. <br/> <br/>경찰은 수사에 나서고, 정부와 기업에서는 제도 개선을 고심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고질이 법과 제도만 고친다고 뿌리 뽑힐 일인가. 문제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추태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병리 현상이다. <br/> <br/>약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는 ‘천박하고 저급한 의식’의 소산이다. 우리 사회에는 지위가 높고 힘이 강해야 대우받는다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한다. 비뚫어진 의식이 갑질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이런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조현아 사태는 터질 수밖에 없다. <br/> <br/>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볼 정도로 성장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갑질은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암적 존재다. 나의 인격이 중요하다면 남의 인격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배려하는 정신’ 없이는 밝고 따뜻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6.txt

제목: 집에서 담근 양파와인 가족 건강 챙겨요  
날짜: 20150108  
기자: 강서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0810015944247  
본문: 양파와인이 몸에 좋을까. 의학적인 검증은 모르겠으나 당뇨, 혈압,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주변에서 양파와인을 직접 만들어 건강식으로 대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양파는 몸속에서 콜레스테롤과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걸세친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강화시켜 동맥경화를 막고 혈압을 낮추는 데 좋다. <br/> <br/>중국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혈관성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차이니스 패러독스’(Chinese Paradox)라 하는데 이 말은 평소 양파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왔다. <br/> <br/>이와 함께 와인은 피로해소와 노화방지에 좋은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이 가득 함유돼 있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며 케르세틴 성분은 항암효과와 암 예방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실제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 이모(22)양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양파와인이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 직접 만들어 마시면서 운동을 병행한 결과 원하는 몸무게를 달성했다. <br/> <br/>강모(60)씨는 10년째 혈당 조절과 건강을 위해 식이요법을 하던 중 딸의 권유로 3개월 동안 양파와인을 먹고 있는데 들쭉날쭉하던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 중이다. <br/> <br/>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지닌 양파와 와인을 접목시켜 간단하게 양파와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br/> <br/>먼저 양파는 껍질을 벗겨 4등분한 다음 끓는 물에 소독한 유리병에 양파를 담고 양파가 잠길 정도로 와인을 붓는다. 뚜껑을 닫아 서늘한 곳에서 2∼3일 숙성시킨 후 양파를 건져내면 완성된다. 와인을 식후 소주 1잔 정도 하루 2∼3회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에 좋다. <br/> <br/>와인 한 병(750ml)에 중간 정도 크기의 양파 5∼6개면 적당하다. 건져낸 양파는 버리지 말고 요리에 활용해도 무방하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와 와인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br/> <br/>강서은 리포터 rocheviru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7.txt

제목: 암 사망자 10명중 7명, 생명보험 가입 안했다  
날짜: 20150106  
기자: hemked@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06100000031  
본문: 암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암 사망자가 고령층일수록 생명보험금 수령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암 사망자는 2만3000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자(7만3000여명)의 31.5%였다.이들 중 60세 이상 암 사망자가 받은 암 관련 보험금은 1인 평균 2800만원으로, 60세 미만(8900만원)의 31.4%에 불과했다.암 관련 보험금은 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보험금 등이다.또한 20~40대 암 사망자는 각각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50대는 평균 7500여만원을 받았다.반면, 60대 암 사망자의 보험금 수령액은 3860만원, 70대는 1580만원, 80대는 690만원이었다. 90대 이상은 100만원에 그쳤다.60대 이상 사망자가 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 등 4개 담보 중 받은 1인당 담보는 평균 2.2개로, 60세 미만의 3.2개보다 평균 1개가 적었다.60세 미만은 4개 담보를 모두 받은 비중이 51.1%로 가장 높았으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사망 보험금만을 수령한 비율이 43.8%였다.또 60세 미만 전체 암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1.9%)이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60세 이상은 10명 중 2명 (21.7%)만이 보험금을 받았다.전체 암 사망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67.7%로 보험금 수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와 70대는 각각 43.0%, 18.7%였다.60세 이상의 암 보험금 수령액이 60세 미만 대비 크게 낮은 것은 고령층이 암보험을 해지하거나 암 관련 보장을 적게 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8.txt

제목: 보험계약·보험금청구 시 유의할 점은?  
날짜: 20150105  
기자: hemked@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05100000090  
본문: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15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암의 직접치료'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또한 보험만기 전 약관에서 정하는 만기환급금 등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계약체결 및 청구시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이는 보험모집·청구·만기환급금지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함이다.분쟁사례를 보면 A씨는 친척인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기재내용 확인없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했고, 정상계약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모니터링에서도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여 전부 '예'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더불어 자택 및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분쟁사례에 따르면 B씨는 약 4개월 전 유방암으로 C 대학병원에 약 2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보험사는 C 대학병원에서의 입원 및 수술급여금 청구에 대해 전액 지급했다. B씨는 최근 1개월간 C 대학병원에서 통원으로 수차례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D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온열 치료, 압노바 및 헬릭스 투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퇴원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입원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D 요양병원의 입원급여금 일부만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사전적인 개념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해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암의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뜻한다.법원 판결 등에서 노바 및 헬릭스의 투여는 아직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투여만으로 '암의 직접치료'로 보기 어렵고, 고주파 온열치료도 '암의 부수적인 치료'로 보고 있다.또한 보험만기 도래 전, 약관에서 정하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예시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과 다른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계약자는 만기도래 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사의 만기환급금 적립현황에 대해 안내장 발송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79.txt

제목: 현대重 노사,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규정 포함해  
날짜: 20150104  
기자: vrdw88@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04100000024  
본문: 현대중공업이 노사는 사업장의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현대중공업 노사는 4일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노사는 단협 '안전상의 조치'(101조)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사내 통신으로 전 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회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처음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눈길을 끄는 또다른 단협은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노사는 10대 암을 판정받으면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대 암을 제외한 암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자녀가 출생하면 5일 휴가를, 본인 회갑시 2일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합의했고 부모 등 사망시 부서 동료 2명을 문상객 도우미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조합원이 출산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한다. 임신하면 축하 선물(허리보호 쿠션, 튼살 방지크림, 포토 다이어리 등)도 지급한다.노조는 임신 중인 조합원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유산과 사산 시 일정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0.txt

제목: 건강한 새해계획, 여성을 위한 레포트 제시  
날짜: 20150101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10110015896556  
본문:   <br/> <br/> <br/> <br/>2015년 새해가 밝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새해계획이 운동(51.9%)과 건강관리(46.8%)라는 것은 이미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오히려 최근 한국여성의 초경과 출산시기의 변화로 인해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br/> <br/>1일 의료계는 20~30대 여성에게도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등의 여성 질환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2012년 동안 자궁내막증은 연평균증가율 8.5%, 자궁근종은 연평균증가율 약 10%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환자가 늘어나며 여성의 자궁이 위협받고 있다. <br/> <br/>이에 2015년 새해를 맞아 연령별로 여성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하는 부분과 연령별로 주의해야 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br/> <br/>◆ 20대 여성, 산부인과 검사 받아야 <br/> <br/>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20대가 되면 여성 건강에 대해서 가장 크고 세심하게 관리를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20대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신진대사가 활발한 만큼 적정량의 근육 유지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유산소 운동과 식이섬유, 단백질 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다. 이는 급증하는 20대 자궁근종, 유방암 등의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예방법이 된다. <br/> <br/>산부인과 전문의 조필제 원장은 “<span class='quot0'>20대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다.그러나 모든 질환에서20대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pan>”며 “<span class='quot0'>젊다고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는 것보다 사소한 증상이 있더라도산부인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span>”라고 조언하였다. <br/> <br/>◆ 30대 여성, 20대 보다 특정 질환과 관련된 검사 추가로 받아야 <br/> <br/>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역할이 커지는 30대 여성들, 결혼이 늦어지면서 초산 시기도 늦어지고 있어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어떤 연령보다 더 자궁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시기에 겪게 되는 극심한 생리통, 성교통, 요통은 자궁질환의 적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6개월에 1번 이상 초음파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분비물검사, 풍진항체 검사와 성병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br/> <br/>가장 흔한 질환인 자궁근종은 20대부터 시작해 30~40대 여성의 몸에 소리 없이 파고 들어 건강을 앗아가는 병으로,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정기적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 크기가 커진 후에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자궁을 적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가임기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며 35세에서는 40~60%, 50세에서는 70~80%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br/> <br/>◆ 40대여성, 자궁근종 주의해야 <br/> <br/>40대는 여러 가지 잔병치레를 겪으며 몸에 적신호가 생기기 쉬운 나이지만 일과 육아에 바쁜 어머니들은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년기로 접어드는 40대에는 자궁근종 발생률이 높아진다.  <br/> <br/>자구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10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서서히 자라나는데 앞서도 강조했듯 보통 20~30대부터 시작하여 40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생리통과 비슷해 간과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해 증상이 악화되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꾸준한 검진이 중요하다.  <br/> <br/>이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암 발생률이 높아져 정기적 건강검진과 함께 반드시 산부인과 검진도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 검사, 분비물 검사, 혈액검사, 성병검사 등을 6개월에 1번, 최소 1년에 1번 이상 받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가족력이 있거나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건강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br/> <br/>◆ 50대, 폐경 후 증상관리 잘해야 <br/> <br/>갱년기에 속하는 50대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폐경을 맞게 된다. 두 번 이상 생리가 건너뛰면서 생리 간격이 60일 이상이 되면 최소 2~3년 안에 폐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폐경기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여러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안면홍조, 건망증, 근육통, 불면증 등이 흔하다.  <br/> <br/>50대 폐경기 이후부터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노인성 치매 등을 주의해야 하며 이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 취미 활동 등을 병행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산부인과 전문의 서지현 원장은 “최근 여성질환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정기 검진을 통해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 증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며 “여성 2명 중 1명이 앓는 자궁근종의 경우 이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하이푸시술 등 최신 의료기법이 발달되어 있어 두려워 하지 말고 1년에 1번이상 초음파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1.txt

제목: 헬리코박터균 억제 식품 6가지, 고려홍삼ㆍ김치ㆍ마늘ㆍ감초ㆍ요구르트ㆍ오메가-3 지방  
날짜: 20141231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3110015893878  
본문: 위염ㆍ위궤양ㆍ십이지장궤양ㆍ위암 등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을 없애는 데 고려홍삼ㆍ김치ㆍ마늘ㆍ감초ㆍ요구르트ㆍ오메가-3 지방 등이 효과적이란 연구논문이 나왔다.  <br/>  <br/>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팀은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지’ 최근호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과 음식을 통한 연관질환 완화 및 암 예방적 접근’이란 제목의 리뷰(review)논문을 발표했다. <br/>  <br/>논문에서 함 교수팀은 “홍삼을 꾸준히 먹으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삼 성분 중 진세노사이드(사포닌의 일종)가 종양괴사인자(TNF-α)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여럿 나와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br/>  <br/>함 교수팀은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 100여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항생제 등을 투여한 뒤 10주간 홍삼을 함께 먹여봤다. 함 교수는 “항생제 등만 복용했을 때는 헬리코박터균 제균율(除菌率, 세균을 죽이는 비율)이 70% 정도에 그쳤지만 홍삼을 먹은 뒤엔  85%대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br/>  <br/>이어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와 함께 마늘ㆍ고춧가루ㆍ홍삼ㆍ갓 등 각종 채소와 식물 영양소(식물성 생리활성물질, 파이토케미컬)를 추가한 특수 암 예방김치를 만들었다. 이어서 이 김치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생쥐들에게 먹였다.  <br/>  <br/>함 교수는 “암 예방김치를 먹은 생쥐에서 위(胃)의 염증과 위선종(胃腺腫) 등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일부에선 맵고 짠 음식인 김치가 위 건강에 해가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발표음식이자 항산화(抗酸化) 음식인 김치가 위암 예방을 도울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br/>  <br/>‘약방에 감초’란 속담이 있을 만큼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감초도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논문에서 꼽혔다.  혈압 상승 등 부작용(독성)이 있는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은 줄이고 유익한 리코(lico) A 성분은 늘린 특수 감초 추출물을 생쥐에 먹였다. 이 감초 추출물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해 위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억제했다.   <br/> <br/> 논문에선 요구르트 등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지방, 마늘 추출물도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에 유익한 식품으로 꼽혔다. 함 교수는 “일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헬리코박터균 제균율이 올라갈 뿐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 복용한 항생제의 부작용은 감소한다”며 “염증 억제 효과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br/>  <br/>마늘은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10대 장수식품의 하나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NCI)가 추천한 대표적인 암 예방 식품으로 전해졌다. 함 교수는 “마늘은 직접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마늘 추출물 또는 합성물질을 이용하는 것 모두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위염은 물론 위암 예방도 가능한 채소”라고 평가했다. <br/>  <br/>DHAㆍEPA로 대표되는 오메가-3 지방은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의 일종이다. 함 교수팀이 생쥐를 이용해 45주간 오메가-3 지방의 염증 억제ㆍ암 예방 효과를 추적한 결과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한 생쥐에서 위축성 위염을 동반한 위암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한편 일본에선 지난해 2월부터 만성 위염을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 제균(除菌)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소요 예산만 2조원 규모다. 올 2월부터는 만성 위염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상대로 ‘헬리코박터균 박멸 작전’에 돌입했다.  <br/>  <br/>함 교수는 “일본인의 위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50명으로 한국인(20명가량)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일본 정부는 위암 사망을 줄이기 위한 최후의 대책으로 ‘헬리코박터균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10년 뒤 이 정책이 성공(위암 환자 대폭 감소)으로 판명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br/>  <br/>또 “위염, 위ㆍ십이지장궤양, 위암 등을 예방하려면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것 못지않게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염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염증 억제는 김치ㆍ마늘ㆍ홍삼ㆍ요구르트 등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br/>  <br/> ◇헬리코박터균=사람의 위(胃) 속에서 사는 세균으로 1983년 호주 의사 베리 마샬 박사에 의해 처음 밝혀졌다. 이 세균은 위염과 위ㆍ십이지장 궤양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위암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나이들 수록 감염률이 높아져 60세 정도 되면 60%가 소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균을 잘 치료해 완전히 죽이면 궤양이 낫는 것은 물론 재발도 거의 하지 않는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2.txt

제목: 이대의료원, 암 완치 생존환자 초청 파티 열어  
날짜: 20141230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3010015887623  
본문: 이순남 이화여대의료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의료진과 암 치료 환자 및 가족들이 축하 파티에 앞서 케익 커팅 행사를 하고 있다.이화여대의료원(원장 이순남)은 지난 26일 암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5년 이상 생존해 완치 판정을 받은 암 환자를 초청, 파티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br/> <br/>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파티에는 이순남 이대의료원장과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암 환자, 보호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직접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케익 커팅과 4인조 통기타 그룹 ‘파란하늘’의 축하공연, 완치 판정을 받은 장기 생존 암 환자들의 극복 사례 소개 등 프로그램이 이러졌다. <br/> <br/>이대의료원은 매년 개최하는 장기 생존 환우 축하 모임을 통해 새로 암 진단을 받거나 투병 중인 환자들과 장기 생존 환우들을 연결해 자연스러운 멘토·멘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span class='quot0'>암 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에 참석한 여러 환우들의 존재만으로도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암 환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겨내고 더욱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계신 환우들이 너무 자랑스럽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대의료원은 암 환자들의 전반적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우 모임, 희망 텃밭 가꾸기, 파워 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인적 통합치료에 힘쓰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3.txt

제목: 이화의료원, 완치 암환자 축하 행사 열어  
날짜: 2014122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910015885933  
본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최근 5년 이상 생존해 완치 판정을 받은 암환자를 초청, '암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축하 파티에는 이순남 의료원장과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함께 암환자 100여명과 보호자들이 참석했다. <br/> <br/>이날 행사에서는 직접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케? 커팅과 함께 4인조 통기타 그룹 '파란하늘'의 축하공연, 완치 판정을 받은 장기 생존 암환자들이 자신의 암 극복 사례를 이야기하며 다른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br/> <br/>이순남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span class='quot0'>암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에 참석한 여러 환우 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겨내고 더욱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나가고 계신 환우 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단순한 암의 제거만을 하는 치료병원이 아닌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우모임, 희망 텃밭 가꾸기, 파워 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인적인 통합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4.txt

제목: '가족끼리 왜이래' 김현주, 남다른 오열 연기 '호평 일색'  
날짜: 201412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910015885699  
본문:   <br/> <br/>KBS ‘가족끼리 왜이래’ 속 김현주의 명품 오열연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41.2%, 전국기준, 닐슨코리아)을 기록했다. <br/> <br/>지난 28일 방송한 39회에서는 김현주(차강심 역)가 아버지 유동근(차순봉 역)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큰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김현주는 평소 당찬 모습과는 다르게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 아버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의 감정을 쏟아내며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다. <br/> <br/>특히, 아버지의 발병사실을 처음 접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나 송재희(변우탁 역)를 찾아가 서럽게 울부짖는 오열 연기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br/> <br/>또한 아버지의 버킷리스트를 이뤄 드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김상경(문태주 역)에게 고마워하며 울컥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등의 섬세한 감정표현은 차강심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br/> <br/>한편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컨트롤 하고 있는 김현주의 열연은 매주 토·일 오후 7시 55분 KBS ‘가족끼리 왜이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5.txt

제목: 감염합병증 10배 이상 낮추는 전립선 조직검사 발견  
날짜: 2014122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910015887382  
본문: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 팀은 전립선 조직검사에서 여성 질 세정제를 이용해 감염 및 합병증을 대폭 줄였으며, 국제학술지 ‘외과적 감염(SURGICAL INFECTIONS)’에 게재됐다고 29일 밝혔다. <br/> <br/>박 교수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립선 조직검사가 필요한 환자 1684명을 대상으로 여성용 질 세정제(좌약)를 검사 직전 직장에 넣은 후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11명에서 감염관련 합병증을 보였다.(발열 2명, 요로감염 9명) <br/> <br/>기존 보고된 전립선 조직검사의 감염 관련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10%인 것을 감안하면, 그는 감염 관련 합병증을 0.65%로 크게 낮춘 것이다. 특히, 패혈증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 <br/>박동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작은 총알 모양의 좌약 형태로 된 여성용 질 세정제를 조직검사 직전에 직장에 넣어주면,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좌약이 서서히 녹으면서 감염 방지의 효과를 낸다</span>”고 말했다. <br/> <br/>전립선 조직검사는 혈액검사의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거나, 진찰 소견에서 암이 의심될 때 시행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최근 전립선암이 급증하여 전립선조직검사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br/> <br/>하지만 전립선 조직검사의 경우 합병증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감염이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항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항문에 있을 수 있는 대장균이 전립선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조직검사 후 감염의 발생 빈도는 약 10%로, 발열을 동반한 경우가 약 4%, 패혈증상이 약 1%로 보고되어 있으며, 심하게는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 그 외에 혈뇨, 통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6.txt

제목: 가족끼리 유동근 암 투병, 김현주 드디어 알게 돼 ‘눈물바다’  
날짜: 201412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810015884425  
본문:   <br/> <br/>가족끼리 유동근의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된 김현주가 오열했다. <br/> <br/>27일 KBS 2TV '가족끼리 왜 이래' 38회에서 강심(김현주 분)이 순봉(유동근 분)의 건강상태를 알게 돼 눈물을 쏟았다. <br/> <br/>이날 강심은 강재에게 아버지가 아픈지를 물었으나, 강재는 표본조사 중이라 둘러대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br/> <br/>강재는 항암치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오지 않고 있는 순봉을 설득하러 두부가게로 갔고, 강재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강심은 강재를 찾았다. <br/> <br/>강재는 순봉에게 항암치료를 받도록 설득했지만 순봉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br/>두부가게를 나서던 강재는 문 앞에 서있던 강심을 보게 됐다. 강심은 강재에게 항암치료 얘기를 들었다며 아버지가 아프신 것이냐 물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강재는 강심에게 사실을 전했다. <br/> <br/>아버지의 상태를 알게된 순봉은 원망과 미안함의 눈물을 흘려 안방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br/>특히 예고편에서 순봉이 건강상태를 알게되는 태주(김상경 분)의 모습이 예고돼 이들이 순봉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7.txt

제목: 여성 전문병원 제일병원, 몽골 여성질환 치료 지원  
날짜: 20141228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810015884503  
본문: 대표적인 여성 전문병원인 제일병원(원장 민응기)이 몽골 여성들의 각종 질환 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br/> <br/>28일 제일병원에 따르면 김태경 행정부원장은 최근 몽골을 방문해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부인 볼로르마 여사와 만났다. 두 사람은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암 예방 및 정복 캠페인에 제일병원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br/> <br/>몽골은 현재 자궁경부암 발생률 세계 2위를 기록 중이다. 인구 10만명당 28.4명이 자궁경부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인 10만명당 15.4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15∼44세 가임기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몽골의 자궁경부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나란히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요즘 몽골에선 자궁경부암 검진 확대와 조기 발견 필요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다. <br/> <br/> 제일병원 의료진이 입원 중인 외국인 환자를 찾아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경 행정부원장, 민응기 원장, 양광문 난임생식내분비과 교수. <br/>제일병원 제공이번 만남을 계기로 제일병원은 향후 몽골 정부의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일병원은 2013년 한 해에만 몽골인 환자 732명을 치료하는 등 일찌감치 몽골과의 의료협력에 앞장서왔다. 자궁경부암 등 여성 암은 물론 난임, 갱년기 질환, 요실금 등 진료 분야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br/> <br/>얼마 전 몽골의 ‘국민가수’로 불리는 자란타이 알탄체첵(41·여)이 제일병원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해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제일병원은 그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몽골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제일병원은 몽골 보건부, 국립의과대학, 국립모자보건센터, 국립암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 해 평균 20여명의 의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술교류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br/> <br/>김 부원장은 “<span class='quot0'>몽골에서 제일병원은 이미 하나의 의료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파트너 입장에서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교류를 이어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8.txt

제목: 연근 효능, 위장병, 동맥경화에 효과적 ‘다이어트에도 좋아’ 최고네  
날짜: 201412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810015884726  
본문:   <br/> <br/>  <br/> <br/>연근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br/> <br/>연근은 100g당 칼로리 67kcal로 낮지만 위점막을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연근 특유의 끈적임을 만드는 뮤신이 위점막을 보호에 탁월하다. <br/> <br/>이에 위장이 안 좋아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연근의 효능은 매우 효과적이다. <br/> <br/>연근의 또 다른 효과는 연근 속에 있는 비타민C, 클로로겐산 성분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 탄닌 성분이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 <br/> <br/>또한 연근은 혈당지수와 칼로리 등이 낮고 식이석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를 준비하거나 실행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br/> <br/>한편 연근의 효능은 이 외에도 빈혈 예방, 저혈압 예방, 혈액 순환, 해독 효과, 남성력 향상, 피부 미용, 피로 회복 등 여러부분에 도움을 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89.txt

제목: '가족끼리' 유동근 암, 김현주 알았다…주저앉아 '오열'  
날짜: 2014122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810015884427  
본문:   <br/> <br/>가족끼리 유동근 <br/> <br/>‘가족끼리’ 유동근의 병환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br/> <br/>지난 12월 27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극본 강은경, 연출 전창근, 이하 가족끼리) 38회에서 강심(김현주 분)은 순봉(유동근 분)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됐다. <br/> <br/>강심은 여섯 번째 합의조항을 발표하는 가족회의 후 강재(윤박 분)가 순봉(유동근 분)의 혈압을 체크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강재에게 아버지가 아픈지를 물었으나, 강재는 표본조사 중이라 둘러대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br/> <br/>다음날 저녁, 차씨 삼 남매는 중백(김정민 분)의 치킨 집에 모여 순봉의 여섯 번째 합의조항인 클럽을 구하는 문제를 의논하며 오랜만에 남매간에 단란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 중간에 강재는 항암치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오지 않고 있는 순봉을 설득하러 두부가게로 갔고, 강재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강심은 강재를 찾았다. <br/> <br/>그 시간 강재는 순봉에게 항암치료를 받도록 간곡히 설득하고 있었고, 완강히 거부하던 순봉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두부가게를 나서던 강재는 문 앞에 서있던 강심을 보게 되고, 강심은 강재에게 항암치료 얘기를 들었다며 아버지가 아프신 것이냐 물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강재는 강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br/> <br/>순봉의 병에 대해 알게 된 강심이 변우탁(송재희 분)의 사무실에서 절망감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이를 문밖에서 듣게 되는 태주(김상경 분)의 모습이 예고되며, 이들이 순봉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가족끼리 유동근,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 건 상상하기도 싫어</span>”, “<span class='quot0'>가족끼리 유동근, 너무 슬펐어</span>”, “<span class='quot0'>가족끼리 유동근, 어떻게 전개될까?</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가족끼리 왜 이래’ 39회는 오늘 오후 7시 55분에 방송된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0.txt

제목: '무한도전' 이본, 과거 방송 쉬게된 이유 "엄마 암판정에"...까만콩 매력 그대로네  
날짜: 201412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710015879031  
본문:   <br/> <br/>'무한도전' 이본, 과거 방송 쉬게된 이유 "엄마 암판정에"...까만콩 매력 그대로네 <br/> <br/>이본이 '무한도전' 토토가 MC로 오랫만에 방송에 얼굴을 드러내며 반가움을 안겼다. <br/> <br/>27일 오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 MC로 합류한 이본은 “문 밖을 나가기가 기분이 이상하다. 눈물이 날 것만 같다”며 감상에 젖어있다 “여기 말 끊는구나”라며 분노를 저도 모르게 표출했다. <br/> <br/>이어 이본은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 엄마가 암 판정을 받았다. 이 때가 효도할 때라고 생각해 엄마 곁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br/> <br/>대기실을 나선 이본은 무대에 올라 90년대를 함께 한 스타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다. 이본은 “만나서 너무 반갑다. 무대에 서서 음악과 함께 이 분들을 보면 눈물이 더 날 것만 같다”라고 말하며 가수들 한명 한명과 인사를 나누며 감회에 젖었다. <br/> <br/>한편 ‘토토가’는 박명수, 정준하가 직접 기획한 아이템이자 ‘무한도전’ 연말공연으로 한국 가요계의 르네상스, 90년대 가수들의 귀환이라는 기획 하에 당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 무대로 꾸며졌다. <br/> <br/>한편, 제작진은 '토·토·가'의 콘셉트를 부각시키기 위해 무대디자인·촬영·자막까지 90년대식 기법들을 도입한 것은 물론, 90년대 유행했던 가수들의 희귀 셀프 카메라 영상과 2014년 버전의 '토·토·가 셀프카메라'도 공개하며 시청자들이 그 시절의 향수에 젖어들게 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1.txt

제목: '무한도전' 이본, 90년대 스타들 만나자 눈물 왈칵 "만나서 너무 반갑다"  
날짜: 201412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710015878907  
본문:   <br/> <br/> <br/>'무한도전' 이본, 90년대 스타들 만나자 눈물 왈칵 "만나서 너무 반갑다" <br/> <br/>이본이 '무한도전' 토토가 MC로 오랫만에 방송에 얼굴을 공개했다. <br/> <br/>27일 오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 MC로 합류한 이본은 “문 밖을 나가기가 기분이 이상하다. 눈물이 날 것만 같다”며 감상에 젖어있다 “여기 말 끊는구나”라며 분노를 저도 모르게 표출했다. <br/> <br/>이어 이본은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 엄마가 암 판정을 받았다. 이 때가 효도할 때라고 생각해 엄마 곁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br/> <br/>대기실을 나선 이본은 무대에 올라 90년대를 함께 한 스타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다. 이본은 “만나서 너무 반갑다. 무대에 서서 음악과 함께 이 분들을 보면 눈물이 더 날 것만 같다”라고 말하며 가수들 한명 한명과 인사를 나누며 감회에 젖었다. <br/> <br/>한편 ‘토토가’는 박명수, 정준하가 직접 기획한 아이템이자 ‘무한도전’ 연말공연으로 한국 가요계의 르네상스, 90년대 가수들의 귀환이라는 기획 하에 당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 무대로 꾸며진다. <br/> <br/>한편, 제작진은 '토·토·가'의 콘셉트를 부각시키기 위해 무대디자인·촬영·자막까지 90년대식 기법들을 도입한 것은 물론, 90년대 유행했던 가수들의 희귀 셀프 카메라 영상과 2014년 버전의 '토·토·가 셀프카메라'도 공개할 예정이라 시청자들 역시 그 시절의 감회에 젖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2.txt

제목: 모링가 '영양의 보고' 성장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섭취 시 유의사항은?  
날짜: 201412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710015878015  
본문: 모링가모링가 '영양의 보고' 성장기 어린이 부터 노인 까지... 섭취 시 유의사항은? <br/> <br/>모링가(Moringa)가 겨울 건강을 챙기는 천연 식품으로 호응을 이끌고 있다. <br/> <br/>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당뇨에 효능이 있는 식물로 소개되며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모링가는 각종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영양의 보고’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br/> <br/>이미 수년 전 부터 모링가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비롯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면역력을 키우고 신체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더해져 ‘모링가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br/> <br/>항산화물질은 암 예방과 산소활동에 의한 노화현상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데 모링가의 특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2007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올해의 식물’로 모링가를 선정했다. <br/> <br/>비타민, 칼슘, 칼륨, 폴리페놀, 단백질, 미네랄 등 인체에 필요한 5대영양소가 다른 식품들에비해 월등하게 골고루 함유되어 잘못된 식습관과 고른 영양을 필요로 하는 키 크는 성장기 어린이,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 식품으로 통한다. <br/> <br/>한편 섭취 시 유의사항은 모링가는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외국에선 보관과 영양분 파괴 최소화를 위해 2차 가공된 형태보다는 원료 그대로의 고체 형태로 많이 상용화 되고 있으며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습기를 피해 보관하여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라 한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3.txt

제목: '더 테너' 유지태, 배우 그리고 아버지(인터뷰)  
날짜: 20141227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710015878823  
본문: “배우의 자존감은 작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 지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br/> <br/>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더 테너’를 통해 배우 유지태는 실존 인물을, 그것도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배재철을 영화에 그대로 담아냈다. <br/> <br/> <br/> <br/>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감독 김상만, 이하 더 테너)는 목소리를 잃은 천재 테너 배재철의 다시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감동 실화를 다룬 영화. 유지태, 차예련, 이세야 유스케 등이 열연을 펼쳤다. <br/> <br/>유지태가 맡은 성악가 배재철은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번 나올 목소리라는 찬사를 들었던 천재 테너였지만 지난 2005년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고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그만큼 무엇보다 성악 연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했다. <br/> <br/>“처음 연습할 때 ‘이거 큰일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두려움까지 들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유지태는 오페라 가수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감독님의 믿음이 저에게는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습밖에 없었어요. 1년 동안 성악을 직접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발음과 싱크로율, 박자의 텀까지 선생님과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br/> <br/>유지태는 ‘더 테너’를 위해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씩 연습을 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그만큼 유지태에게 ‘더 테너’는 특별한 작품일 터. 하지만 이미 작품을 완성했음에도 개봉까지 약 2년 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br/> <br/>“프로덕션이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을 때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좋은 레퍼런스 영화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당연히 있지만 흥행에 상관없이 저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았구나. 해냈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배우 김효진)에게 ‘내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자 기쁨입니다.(웃음)” <br/> <br/> <br/> <br/> <br/> <br/>완벽한 음악성, 그리고 시련, 다시 일어서기. 유지태는 왜 이 작품을 선택했고 무너질 뻔한 배재철의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두려했을까. <br/> <br/>“‘좋은 영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고를 땐 많은 기대감이 듭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잘 부응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감독님과의 두터운 파트너십이 역할을 파고드는 것에 있어서 큰 힘이 됐고요.” <br/> <br/>“처음에 감독님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지태가 테너역할하면 잘 하겠냐’고. 하지만 감독님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성악가보다 더 성악가다운 모습을 보일 거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곧 저에게는 책임감이었어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담은 좀 있었습니다. 성악에 대한 부담감과 영어 연기에 대한 부담감이요. 성악은 웬만히 해서는 했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싱크를 맞추는 것) 그래서 제가 성악을 배우지 않으면 그 느낌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 연기는 ‘한국 사람은 이정도면 돼’ 라는 느낌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제 연기를 봤을 때 거리낌 없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웃음)” <br/> <br/>한국에서 ‘더 테너’ 정도 규모의 오페라 영화가 처음인 만큼 부담감도 더 컸을 것. 그리고 한 인물과 그 가족의 내적 갈등이 작품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br/> <br/>“기존 유명 오페라 음악 영화 ‘파리넬리’, ‘가면 속의 아리아’, ‘레미제라블’ 등이 존재하는 만큼 그에 필적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연기처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배재철 선생님의 실제 영상을 많이 참고했어요. 영화 속에 그려진 건 연출이 가미돼있는데 그건 무방비 상태로 보게 돼요. 많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br/> <br/> <br/> <br/> <br/> <br/>유지태는 현재 동료 배우 김효진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배우로, 연출가로 살아가며 발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영화 ‘더 테너’와 드라마 ‘힐러’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시에 연출작을 준비 중에 있다. 믿고 보는 배우의 색다른 행보인 만큼 영화팬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br/> <br/>“연기와 연출의 매력은 너무 달라요. 특히 다른 강도인 연기와 연출이 잘 어울어 졌을 때 그 때 진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배우 겸 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기할 때는 연기하기 바쁘고 껴들 새가 없습니다. 연기자의 꿈과 감독의 꿈이 정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br/> <br/>“결혼 전과 달라진 점은 스스럼이 덜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기준치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배우는 이렇게 해야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고 너무 신중하려고 했습니다.” <br/> <br/>“이제는 작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좋게 바라봐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망감을 안겨드리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너무 움츠려들면 평생 몇 개 못하니까 적당히 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아들도 있으니까요.(웃음)” <br/> <br/> <br/> <br/> <br/> <br/> <br/>이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4.txt

제목: [WT논평] Diem Brown and the future of ovarian cancer  
날짜: 20141226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610015877192  
본문: Reality TV star Diem Brown died earlier this month of advanced ovarian cancer after a nearly decade long struggle against the disease. She was only 34 years old. Her courage and refusal to give up was her emblem, and it stands as an inspiration to cancer sufferers everywhere. In my book “The Inner Pulse”, I found many examples of patients who were more effectively able to fight their disease because of their courage and inner strength. Diem was certainly a prime example of this. <br/> <br/>Despite modern medical advances, ovarian cancer is still a big killer of women. By the time it is diagnosed it is usually too late to cure. The main reason is because the ovaries are buried deep within a woman’s body, there are no characteristic symptoms for early ovarian cancer, and no reliable marker to make a doctor suspicious. <br/> <br/>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ovarian cancer has a high death rate; in fact ac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mong American women while ovarian cancer is only the 8th most common cancer with 22,000 new cases diagnosed every year, at the same time it is the 5th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with over 14,000 deaths. Put another way, though ovarian cancer accounts for only 3% of cancer in women, at the same time it causes more death than any other cancer of the female reproductive system. <br/> <br/>Early symptoms are non-specific and are certainly not reliable indicators. Bloating, abdominal pain, feeling full quickly or loss of appetite, and urinary problems are the most common. <br/> <br/>Help is on the way. Studies of abnormal proteins, known as proteomics, are promising at detecting cancer early and genetic markers are beginning to differentiate who is most at risk. Scientists have also determined that most ovarian cancers originate in the fallopian tubes, which will help guide new imaging studies. <br/> <br/>In terms of treatment, targeted antibodies are being developed to seek out for destruction abnormal proteins on the surface of the ovarian cell. Chemicals known as PARP inhibitors block the mechanism for rapid tumor growth. Genetic treatments will reverse the mutations that lead to the cancer. But that is the future. In the meantime a young woman with ovarian cancer is still faced with the only methods of trying to poison the cancer with chemotherapy before you destroy the body along with it. That’s why the story of Diem Brown is so extraordinary. <br/> <br/>The battle against ovarian cancer has really just begun. Diem Brown was one of the strongest early foot soldiers. <br/> <br/>개발 초기단계에 접어든 난소암 치료법 <br/> <br/>마크 시걸(美 뉴욕대학교 의대 의학 부교수) <br/> <br/>리얼리티 TV 스타인 디엠 브라운이 근 10년에 걸친 난소암 투병 끝에 이번 달 암의 진전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나이는 불과 34세였다. 그녀의 용기와 포기의 거부는 그녀의 상징이었고 이런 태도는 모든 곳의 암환자들을 격려한다. 필자는 자신의 저서 ‘내부의 맥박’에서 용기 및 내면의 힘 때문에 자신의 질병과 더욱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환자들의 모범 사례 다수를 찾아냈다. 디엠은 분명히 이런 사례 중 으뜸이었다. <br/> <br/>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난소암은 여전히 여자들의 커다란 사망원인이다. 진단이 내려질 때는 치료의 시기가 너무 늦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 주된 이유는 난소가 여자의 몸속 깊은 곳에 묻혀 있고 초기 난소암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며 의사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br/> <br/>그러므로 난소암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여자들의 경우 난소암은 해마다 2만2000명의 신규환자 진단이 내려지는 발병 빈도 8위의 암인 동시에 암 사망 원인 5위로 1만4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다. 달리 표현하면, 난소암은 여성 암의 불과 3%를 차지하는 동시에 여성 생식기 암 가운데서 사망 원인 1위다. <br/> <br/>초기 증상들은 뚜렷하지 않으며 신뢰할 만한 징표와는 거리가 멀다. 복부팽만, 복통, 빠른 포만감, 식욕 상실, 각종 배뇨 장애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br/> <br/>도움의 손길이 오는 중이다. 단백질 유전 정보학이라고 불리는 비정상 단백질 연구가 암의 조기 발견의 유망한 수단이며 유전적 지표들은 발병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난소암이 나팔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 발견은 새로운 영상 연구의 길잡이에 도움을 줄 것이다. <br/> <br/>치료의 경우 표적이 정해진 항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항체는 난소 세포 표면의 비정상 단백질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 PARP 억제제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종양의 빠른 성장 메커니즘을 차단한다. 유전적 요법이 암으로 발전하는 변이를 되돌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일이다. 그동안은 난소암에 걸린 젊은 여자는 암세포와 더불어 신체를 파괴하기에 앞서 화학요법으로 암에 독의 주입을 시도하는 방법밖에는 여전히 달리 의지할 데가 없다. 디엠 브라운의 이야기가 그토록 남다른 까닭이 거기에 있다. <br/> <br/>난소암과의 싸움은 사실 방금 시작되었다. 디엠 브라운은 가장 강력한 초기 보병 중 한 사람이었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r/> <br/>▲emblem:상징 ▲help is on the way:도움의 손길이 오는 중이다 <br/> <br/>▲proteomics:단백질 유전정보학 inhibitor:억제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5.txt

제목: 비뇨기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에 김덕윤 교수  
날짜: 201412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610015875984  
본문: 대구가톨릭대병원(원장 이동국)은 이 병원 비뇨기과 김덕윤(사진) 교수가 제40대 대한비뇨기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에 선출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5년 1월1일부터 지회장 임기를 수행한다. <br/> <br/>김 교수는 경북대 의대에서 의학박사를 수료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위원장, 의과학연구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대구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병원 암센터장을 맡아 지역주민 가운데 암 환자들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비뇨기과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회원들 간의 다양한 임상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6.txt

제목: 연세암병원, 폐암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날짜: 201412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610015873853  
본문: 지난 4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옆에 들어선 연세암병원은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함은 물론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재활의 희망을 불어넣는 ‘힐링캠프’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연세암병원 폐암센터(센터장 김대준)는 폐암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폐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진용은 물론 환자용도 제작해 환자들의 치료 참여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br/> <br/>폐암센터는 호흡기내과와 흉부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핵의학과 등이 참여해 다학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진단과 치료법이 발달하고 세분화되면서 같은 병기의 폐암이라도 환자별 치료법이 달라 다학제에 참여한 진료과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br/> <br/>의료진 간의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폐암센터는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의 자체 회의를 거쳐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국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더라도 환자가 명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환자용 가이드라인은 폐암 각 병기별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치료를 도식화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치료가 끝난 후 추적검사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게 최대 강점이다. <br/> <br/>김대준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폐암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을 표준화해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계획이나 향후 검사에 대해 알고, 함께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span>”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7.txt

제목: 어려보이게 만드는 식품, 오이-메이플시럽-코코넛유-꽃 잎채소  
날짜: 2014122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610015872788  
본문:   <br/> <br/>먹는 것만으로 더 어려보이게 하는 식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미국의 여성 매거진 '위민스 헬스'(Women‘s Health)는 최근 당신의 외모를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건강 전문가 미셸 프로말레이코가 공개한 것으로 모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다.  <br/> <br/>미셸이 제안한 어려보이게 하는 식품은 오이, 메이플시럽, 코코넛유, 꽃 또는 잎채소다. 먼저 오이는 오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기억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기억 장애의 촉진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br/> <br/>또한 오이의 딱딱한 껍질에 주로 들어 있는 실리카 성분은 신체를 연결하는 조직 형성에 기여한다. 근육과 관절은 물론 연골 등에도 좋다. 비타민C와 카페인산이 풍부해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얇게 썰어 팩으로 활용하면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이다. <br/> <br/>메이플시럽은 항산화물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이 들어 있고 소염 기능도 있다. 하지만 설탕 성분을 갖고 있으므로 하루 한 찻숟가락(티스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코코넛유는 주간 매일 사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32%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꽃과 잎채소도 유용하다. 식용 꽃은 페놀산은 물론 갈릭산과 클로로겐산, 루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또 장미 꽃잎과 같은 식용 꽃은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 <br/> <br/>식용 꽃을 구하기 어렵다면, 케일, 시금치, 민들레, 근대와 같은 잎채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채소는 꽃잎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8.txt

제목: "갑상선자극호르몬, 男 심장병 발병률 높인다"  
날짜: 2014122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510015868525  
본문: 사진설명=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현 교수팀의 연구 내용. 남성 고혈압 환자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24시간 수축기 혈압, 중심 수축기 혈압, 동맥 경직도, 전신 혈관 저항이 현저히 높고, 심박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남성 고혈압 환자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질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br/> <br/>25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원장 백민우)에 따르면 이 병원 순환기내과 임상현 교수팀과 제주 서귀포의료원 순환기내과 권범준 과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정상 갑상선 기능을 가진 환자 285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나눠 24시간 활동혈압 수치를 비롯한 다양한 혈역학적 차이를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남성 고혈압 환자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24시간 수축기 혈압은 물론 중심 수축기 혈압, 동맥 경직도, 전신 혈관 저항 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심박출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높을수록 심혈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한 것이다. 여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폐경, 호르몬 치료 등 이유로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br/> <br/>그동안 학계에선 갑상선 호르몬이 혈관의 확장과 관련이 있어 고혈압과 심장질환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아직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연구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남성 고혈압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br/> <br/>임 교수는 “<span class='quot0'>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높아져 있다면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표적 장기 손상이 있는지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심혈관 분야 권위지인 국제심장학회지(IJC) 최신호에 실렸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399.txt

제목: 암환자의 5년 생존율, 90년대 비해 20% 높아져 '불치병 아냐'  
날짜: 201412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410015861847  
본문:   <br/> <br/>암환자의 5년 생존율, 90년대 비해 20% 높아져 ‘불치병 아냐’ <br/> <br/>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높아졌다. <br/> <br/>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최 근 5년간(2008~2012년) 발생한 암환자 5년 생존율은 68.1%로, 2006~2010년 65.0%보다 3.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5년 생존율은 암 환자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해 추정한 5년 이상 생존 확률이다. 일반인구의 5년 기대 생존율 대비 암 발생자의 5년 관찰 생존율을 뜻하고, 보통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 <br/> <br/>90년대 초반에는 5년 생존율이 일반인의 41% 정도에 불과해 암은 불치병으로 여겨졌다. <br/> <br/>암에 걸린 뒤 10년을 더 살 수 있는 확률 또한 50%를 넘어셨다. <br/> <br/>암 환자의 생존율은 암이 위치한 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조기 진단이 많고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의 경우, 환자가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0%며 전립선암과 유방암도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과 위암 환자도 각각 74%, 69%로 생존율이 다른 암 환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br/> <br/>하지만 반대로 간암과 폐암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고 5년 더 생존할 가능성이 일반인의 30%를 넘지 못했으며, 췌장암은 9%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br/> <br/>한편 이강현 국립 암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사업의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0.txt

제목: 암환자 5년 생존율 66%까지 올라가 '생존율 낮은 암은?'  
날짜: 201412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410015861073  
본문:   <br/> <br/> <br/>암환자 5년 생존율 66%까지 올라가 '생존율 낮은 암은?' <br/> <br/>암환자 5년 생존율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최근 조사에서 암환자 5년 생존율이 66%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암에 걸리더라도 3명중에 2명은 5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것이다. <br/> <br/>또한 암에 걸린 뒤 10년을 더 살 수 있는 확률 또한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같은 생존율은 암이 위치한 부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br/> <br/>조기 진단이 많고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의 경우, 환자가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0%였다. 그리고 전립선암과 유방암도 9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이밖에도 대장암과 위암은 74%, 69%를 각각 차지해서 일단 생존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br/> <br/>하지만 일단 걸리면 생존율이 낮은 암들도 있다. 간암과 폐암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고 5년 더 생존할 가능성이 일반인의 30%가 안 됐고, 특히 췌장암은 9%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1.txt

제목: [되짚어보는 2014 영화계] 이순신 '명량' 흥행 신기원… 할리우드 강세도 여전  
날짜: 20141224  
기자: 김신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410015866145  
본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영화적으로 재해석한 김한민 감독의 ‘명량’이 1761만 관객을 불러들이며 최다관객 신기록을 수립했다. 디즈니의 ‘겨울왕국’은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상반기 극장가를 장악했다. ‘인터스텔라’와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등을 앞세운 할리우드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영화계에서는 각종 표준계약서를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으며, 한류 확산을 위해 중국 자본과의 합작도 다각도로 추진했다.  <br/> <br/>＃이순신 돌풍 일으킨 ‘명량’ <br/> <br/>68만명으로 개봉일 최다 관객을 동원한 ‘명량’은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파죽지세로 200만명에서 1000만명까지의 흥행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운 ‘명량’은 8년간 깨지지 않은 ‘괴물’(1301만 명)의 한국영화 흥행기록을 17일 만에 넘어섰고, 부동의 1위였던 ‘아바타’(1362만 명)마저 제친 뒤 역대 흥행영화 순위 1위에 올라 섰다. <br/> <br/>모객 성적 1761만명. 성인 2명 중  한 명꼴로 ‘명량’을 봤다는 얘기다. 매출액도 역대 최대인 1357억원에 이르렀다. ‘명량’의 돌풍에 힘입어 8월 한 달 관객은 사상 처음으로 2500만명을 넘었고, 3분기 극장가 실적도 역대 최대(5399억원)를 기록했다. ‘명량’은 3년 연속 한국영화 1억 관객 돌파 또한 견인했다. <br/> <br/>＃할리우드 강세 - ‘겨울왕국’ ‘인터스텔라’ <br/> <br/>‘명량’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군도: 민란의 시대’ 등이 올해 한국영화의 흥행세를 이끌었지만, 사실 상반기만 해도 한국영화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관객 400만명 이상 성적을 거둔 한국영화는 ‘수상한 그녀’ 한 편뿐이었고 , 그 자리를 할리우드 외화가 차지했다. 1000만 관객을 끌어들인 ‘겨울왕국’이 그 주역이다. <br/> <br/> <br/>‘겨울왕국’은 개봉 17일 만에 ‘쿵푸팬더’가 보유하고 있던 애니메이션 흥행기록(544만명)을 따라잡은 데 이어 연일 승승장구하며 새기록을 써 나갔다. 주제곡 ‘렛잇고’(Let it go)는 각종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주제곡으로 동심을 훔친 ‘겨울왕국’은 ‘아바타’(2009) 이후 5년 만에 외화로는 역대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br/> <br/>하반기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바통을 이어 외화의 강세를 이끌었다. 개봉 열 하루 만에 500만 관객을 동원한 ‘인터스텔라’는 900만 관객을 넘어선 뒤 1000만 고지를 점령할 태세다. <br/> <br/>이 밖에도 음악영화이자 다양성 영화로 분류된 ‘비긴어게인’이 이례적으로 342만명을 모으며 ‘작은 영화 돌풍’을 일으켰고,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엣지 오브 투마로우’ 등도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선전했다. <br/> <br/>할리우드 영화는 ‘겨울왕국’(2위), ‘인터스텔라’(3위),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7위), ‘엣지 오브 투모로우’(9위), ‘액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10위) 등 5편이 올해 박스오피스 10위권에 포진했다. 이 같은 외화 강세에 힘입어 할리우드 영화 점유율은 47.8%를 기록하며 지난해(36.7%)보다 11%포인트 이상 올랐다. <br/> <br/> <br/>＃대륙 자본 유입, 표준계약서 안착, 떠나간 배우들 <br/> <br/>중국과의 합작 붐이 일고 있다. 국내 투자배급사 1위인 CJ E&M은 ‘수상한 그녀’를 모티브로 한 한·중 합작 코미디 ‘20세여 다시 한번’과 장윤현 감독이 연출한 한·중 합작 스릴러 ‘평안도’의 중국 개봉을 준비 중이다. 국내 4대 배급사 중 하나인 뉴(NEW)는 중국 화책미디어의 자금 535억원을 투자받았다.  <br/> <br/>국내 영화계에서는 각종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영화 제작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한 임금 별도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 개의 스크린에서 영화 한 편을 상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영과 배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했다. <br/> <br/>세상을 뜬 이들도 있었다. 원로배우 황정순씨가 오랜 지병으로 89세로 별세했고, 1980년대에 활동한 김진아도 암 투병을 하다 하와이에서 숨졌다. 김자옥도 암이 재발해 세상을 떠났다. <br/> <br/> <br/>영화인들의 세계무대 진출이 늘면서 경사도 있었다. 김태용 감독은 오랜 연애 끝에 중국의 톱 배우 탕웨이와 지난 7월 결혼했다. ‘도희야’로 칸국제영화제에 진출했던 배두나는 현지에서 할리우드 배우 짐 스터게스와 교제 중임을 인정했다. 반면, 할리우드에서도 주목받는 배우 이병헌은 동영상 공개 협박을 둘러싼 뜻밖의 추문에 휩싸이기도 했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2.txt

제목: 임종 환자 유족들 "님아, 그 강 건너지 마오"  
날짜: 2014122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410015864127  
본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임종을 맞은 환자 유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늘나라로 떠난 ‘님’을 추모하는 뜻에서 풍선을 띄우고 있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원장 이학노)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사별 가족과 자원봉사자, 의료진, 성직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희망가족모임’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br/> <br/>희망가족모임은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임종을 맞은 고인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추모미사와 함께 고인의 병동 생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며 시작했다. 이어 고인을 위한 편지 쓰기와 성탄리스 만들기 등을 통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가수 김대성 스테파노, 교구 청년 음악봉사단 ‘에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노래 등 특별공연도 펼쳐졌다. <br/> <br/>행사 막바지에는 고인을 향한 마음과 생전에 전하지 못한 메시지를 풍선에 담아 하늘에 날려 보냄으로써 슬픔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했다.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인 김대균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span class='quot0'>고인을 떠나 보내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작은 행사이나마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이달 초 개소 1주년을 맞았다. 20병상 규모로 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최근까지 암 같은 질병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 약 300명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3.txt

제목: 타이거JK, 부친 故서병후 이름으로 지난 4월 세월호에 1억 기부...새삼 화제  
날짜: 20141224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410015863830  
본문:   <br/> <br/>타이거JK, 부친 故서병후 이름으로 지난 4월 세월호에 1억 기부...새삼 화제  <br/> <br/>지난 4월 가수 타이거JK가 부친 고(故) 서병후 씨의 이름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한 연예 관계자는 "타이거JK가 지난 2월 운명을 달리한 아버지 故 서병후 씨의 이름으로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비밀리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 매체에 밝힌 적이 있다. <br/> <br/>이 관계자는 "故 서병후 씨가 생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많이 베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쪽지로 남겼다"며 "타이거JK가 세월호 사고에 큰 아픔을 느꼈고 이번에 고인의 뜻을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었다. <br/> <br/>한편, 故 서병후 씨는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로 미국 빌보드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등 가요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故 서병후 씨는 향년 72세로 지난 2월 1일 자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4.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겨울철 최고 간식 고구마 제대로 먹으려면  
날짜: 20141224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410015866413  
본문: 겨울철 대표적인 먹거리를 든다면 뭘까. ‘겨울의 별미’로 추억의 간식인 군고구마가 아닐까.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군고구마는 겨울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추운 겨울은 군고구마 계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행인들의 걸음을 돌려세우곤 했다. 겨울철 서민의 간식을 책임졌던 고구마. 그러면 이 고구마를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br/> <br/>고구마는 가능한 한 껍질째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고구마라도 굽거나 튀기면 영양소가 소실되고 칼로리가 높아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가운데 탄수화물 60%, 단백질 25%, 지방 15% 비율로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어느 영양소 가운데 지나치거나 적게 먹어도 몸에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탄수화물의 과다섭취는 당뇨 등 성인병이나 비만을 유발한다. <br/> <br/>고구마는 탄수화물 작물 가운데 껍질째 생으로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구마를 통째로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뿐 아니라 대표적인 성인병인 암, 당뇨, 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고구마에 포함돼 있는 비타민C, E와 황색고구마의 베타카로틴,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물질이다. 특히 고구마가 항암활성이 높은 것은 고농도의 항산화물질 덕분이다. 고구마는 섬유질 함량이 높아 다당류의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변환돼 현미와 같이 당화지수(GI)가 낮아 당뇨환자에게도 적합한 탄수화물 식품이다. 또한 높은 함량의 섬유질 덕분으로 고구마는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 고구마는 칼륨(K) 농도가 높아 짠 음식으로 먹게 되는 나트륨(Na)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압상승을 막아준다. 알칼리 식품인 고구마는 쌀, 육류 등에 의한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있다. <br/> <br/>고구마 껍질에도 자색의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성분과 생체방어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고구마 재배에 화학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고구마를 물로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고구마 잎사귀와 줄기도 항산화물질이 많아 건강에 좋다. 고구마 줄기에는 칼슘, 철 등의 여러 무기물질과 면역조절과 항산화활성이 높은 클로로겐산이 다량 함유돼 있다. 잎에는 비타민 C, E가 고구마보다 많다. 우리는 고구마의 줄기를 많이 먹지만 세계 고구마 생산의 72%를 차지하는 중국은 어린잎을 채소로 애용한다. 이처럼 고구마는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br/> <br/>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고구마 100g당 열량은 생고구마 111㎉, 삶은 고구마 114㎉, 군고구마 141㎉로 군고구마는 열량도 높을 뿐 아니라 껍질의 좋은 성분을 버리는 셈이다. 고구마는 익힌 후에도 비타민C는 70∼80%가 존재하지만 가능한 한 굽거나 튀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고구마에는 아마이드 성분이 있어 장의 발효를 촉진하는데 이 때문에 배가 더부룩하고 방귀가 나올 수 있다. 고구마를 먹을 때 소화효소가 풍부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나 소화를 돕는 펙틴이 많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전분분해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더부룩한 증세가 없고 방귀를 줄일 수 있다. <br/> <br/>고구마는 3대 영양소 가운데 탄수화물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므로 우유, 콩 식품 등을 같이 먹으면 고구마의 부족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생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갈면 어린이와 노인도 쉽게 먹을 수 있다. 고구마를 다른 잡곡과 함께 고구마 밥을 해 먹어도 영양에 좋다. 몸에 좋다고 고구마를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고구마를 먹으면서 밥이나 빵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돼 건강에 좋지 않다. <br/> <br/>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과학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구마이지만 과유불급처럼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고 제철에 나는 다른 식품과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성인병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고구마에 많은 관심과 더 좋은 고구마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br/> <br/>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 <br/> <br/>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5.txt

제목: 암발생률 12년 만에 첫 하락세 전환  
날짜: 20141223  
기자: 세종=윤지희 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310015858649  
본문: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암 발생률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br/> <br/>23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2년 암 발생률은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의 323.1명보다 3.6명 줄었다. 암 발생률은 전국 단위의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에 10만명당 219.9명이었다가 2000년 소폭 줄어든 뒤에는 줄곧 증가추세였다. <br/> <br/>국가 전체의 암 경험자는 123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00명 중 2.5명이 암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자주 발생한 암은 전체의 19.6%를 차지한 갑상선암이었다. 위암(13.8%) 대장암(12.9%) 폐암(9.9%) 유방암(7.4%) 간암(7.3%) 전립선암(4.1%)이 그 뒤를 이었다. 남자에게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았다. <br/> <br/>최근 5년간(2008∼2012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8.1%로, 암 발생자 3명 가운데 2명이 5년 이상 생존한 셈이다. 이는 2006∼2010년의 65.0%보다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5년 생존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6.txt

제목: 암 환자와 의료진 하나 된 '환우회 송년의 밤'  
날짜: 2014122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310015855137  
본문: 이대여성암병원이 여성암 환우회 회원과 보호자를 초청해 연 ‘2014 송년의 밤’ 행사 참가자들이 의료진과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이대여성암병원(원장 백남선)은 여성암 환우회 회원과 보호자를 초청해 ‘2014 송년의 밤’ 행사를 열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br/> <br/>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는 지난 19일 환우 모임인 ‘이유회’ 회원들과 보호자들을 초청,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한 ‘유방암·갑상선암센터 의료진과 함께하는 일문일답’ 시간을 시작으로 환우들과 의료진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후 최희선 노래강사의 도움으로 흥겨운 노래마당을 펼치며 참석한 환우들과 보호자,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r/> <br/>앞서 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도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환우 모임 ‘난초회’ 회원들과 보호자들을 초청,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전혜진 건진의학과 교수의 ‘예방 접종, 아는 것이 힘!’ 강좌를 시작으로 환우들과 의료진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또 ‘다함께 행복, 차차차’라는 이름으로 환우들의 장기자랑과 흥겨운 노래가 이어졌다. <br/> <br/>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암 환우들은 수술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다양한 환우회 활동을 통해 여성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7.txt

제목: 나를 빛냈던 음악으로 생의 기로에 선 분들께 치유의 희망 주고 싶어  
날짜: 20141223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310015858787  
본문: “바이올린 부문은 줄리아드 음악원에 재학하고 있는 선형훈군이 (…) 유망 신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줄리아드 음악원의 유명한 갈라미안 교수의 제자인 그는 한국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에게 발탁되어 가르침을 받고 있다.” <br/> <br/>1983년 7월13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대 모으는 신인 연주자들’이란 기사의 일부다. 당시 열여덟 꽃다운 나이로 피아니스트 김대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용배(전 예술의전당 사장) 등과 나란히 유망주로 뽑힌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선형훈.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br/> <br/>기자는 이달 초 보도자료를 하나 받았다. “<span class='quot0'>대전선병원 선형훈(49) 문화이사가 12월12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프레미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span>”는 내용이었다. “<span class='quot0'>왕년의 바이올린 신동이 20년 넘는 공백과 방황 끝에 재기의 무대를 갖는다</span>”는 문구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선 이사한테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물었다. <br/> <br/>바이올리니스트인 선형훈 대전선병원 문화이사는 “<span class='quot1'>투병 중인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연주회라고 해서 특정 레퍼토리만 고집하지는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바흐, 슈베르트의 곡처럼 귀에 익숙한 음악부터 음악적 깊이가 있는 곡까지 다양하게 선곡한다</span>”고 말했다. <br/>대전선병원 제공“문화이사를 둔 건 대전선병원이 국내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음악회를 비롯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를 돕는 게 문화이사의 일이죠. 저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직접 환자를 위해 연주하고, 병원에서 여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예술감독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br/> <br/>대전선병원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독일 하이델베르크의대에서 정형외과를 전공한 선호영(1925∼2004) 박사가 1966년에 세운 병원이다. 선 박사는 슬하에 5형제를 뒀는데 이 중 선두훈(57) 이사장, 선승훈(55) 의료원장, 선경훈(51) 치과병원장 3형제가 대를 이어 병원을 이끌고 있다. 선 이사는 이 5형제의 막내다. <br/> <br/>“선친의 격려로 6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유학 시절에 보니 독일 의사들은 클래식음악에 조예가 깊고 다들 악기 하나씩 척척 다루는데, 당신은 하모니카를 좀 부는 것 말고는 음악과 거리가 멀어 늘 허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만 내리 넷을 낳은 터라 다섯째는 딸을 원했는데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웃음) 그래서 저를 딸처럼 여기신 게 아닌가 싶어요.” <br/> <br/>어린 시절 선 이사의 재능은 당대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강동석도 인정할 정도였다. 일찌감치 미국 명문 줄리어드 음대로 유학을 떠나 바이올린 연주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반 갈라미안 교수한테 배웠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믿고 따랐던 갈라미안 교수가 갑자기 별세했다. 스승을 잃은 슬픔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20대 초반의 미숙한 나이에 낯선 곳에서 이방인들 틈에 끼어 하루 10시간씩 바이올린만 켜는 단조로운 생활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파국이었다. <br/> <br/>“교수님의 사망 이후 원인 모를 낭패감에 사로잡혀 방황했죠. 일본에만 5년 머물렀고 하와이와 괌 등지로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는 사이 바이올린은 손에서 완전히 뗐고, 아예 처분해 버렸습니다. 2004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평생 저의 성공만 간절히 바라셨는데….” <br/> <br/>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는 매일 새벽기도를 통해 선 이사가 유랑을 그만두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빌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1년 결혼한 아내도 악기를 다시 잡으라고 권유했다. <br/> <br/>“오랜 세월 애틋한 기도로 기다려주신 어머니, 늦은 결혼이었지만 정말 순수하게 제 음악을 좋아한 아내 덕분에 비로소 방랑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남아 있는 음악을 향한 열정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들을 위해 여는 연주회, 1500석 규모 대전예술의전당을 빌려 하는 병원 음악회 등을 통해 보람을 찾고 있죠. 음악에는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는 힘이 있잖아요. 제 음악이 심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r/> <br/>지난 1월 55세를 일기로 타계한 첼리스트 임해경(전 충남대 교수)은 생애 말년 선 이사의 ‘팬’이 됐다. 대전선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임해경은 늘 선 이사의 연주를 기다렸고, 링거를 꽂은 불편한 몸인데도 음악회 때마다 제일 먼저 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br/> <br/>“연주 도중 누군가 발자국 소리라도 내면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해달하고 부탁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정말 음악을 마음으로 즐기며 편안해하셨어요. 앞으로도 투병 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음악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병마와 싸우는 모든 분께 ‘절대 포기하지 말고, 틈틈이 취미생활도 하며 삶을 즐겨라’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br/> <br/>어렵사리 다시 잡은 바이올린을 선 이사는 다시는 놓지 않을 작정이다. 그를 기억하는 음악계 선후배들은 조만간 대전에 모여 다같이 연주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선 이사는 “<span class='quot2'>환자들을 위한 음악회와 별개로 2015년에는 체임버오케스트라 등 서울 여러 오케스트라와 5차례 정도 협연 계획을 갖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8.txt

제목: 농협유통, 국산 오렌지류 소비촉진에 나서  
날짜: 20141223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310015857341  
본문: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청룡)이 수입산 과일의 무분별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등 국산 오렌지류를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최대 30% 할인하는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한다. <br/> <br/>23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과일매장에서 진행한 사진행사에서 직원들이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등 국산 오렌지류를 선보이고 있다. 국산 오렌지류는 밀감류와 오렌지류 등을 교잡하여 만들어 졌다. (청견+밀감류=한라봉, 밀감류+오렌지류=천혜향, 한라봉+천혜향=황금향, 한라봉+밀감류=레드향) <br/> <br/>국산 오렌지류는 수입산 오렌지에 비해 풍부한 단맛에 적당한 신맛까지 갖춰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고 껍질이 얇아 어디서든 손쉽게 까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양상에 있어서도 비타민C가 가득 들어있고 다른 감귤에는 없는 베타크립토크산틴이 있어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br/> <br/>올해 국산 오렌지류는 풍년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물량이 10~15%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도 15%정도 하락하였다. 행사기간 동안 한라봉(3kg)29,800→19,900원, 황금향(3kg)21,800→17,900원, 천혜향(3kg)31,800원, 레드향(3kg)29,800원에 할인 판매한다. <br/> <br/>농협유통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국산 오렌지류는 밀감의 단맛과 오렌지의 신맛이 함께 잘 어우러져 우리의 입맛에 맞고 올해는 풍년으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다.</span>”라고 전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09.txt

제목: “레드와인 마시면 장수 도움”  
날짜: 20141223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310015858818  
본문: 레드 와인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크립스연구소 연구진은 미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폴리페놀계 항산화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인간의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br/> <br/>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붉은 포도나 땅콩, 콩 등에 많이 들어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암이나 당뇨병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고 장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논쟁해왔다. <br/> <br/>이에 연구진은 레스베라트롤을 TyrRS라 불리는 세포 핵의 스트레스와 연관된 효소와 결합시키고 이전보다 1000배 적은 양의 레스베라트롤을 실험용 쥐에 투여했다. 레스베라트롤과 TyrRS가 결합되면 세포 치유 기능이 있는 아미노산인 타이로신을 모방하게 되며 이는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PARP-1이라 불리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레드 와인을 적정량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박진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0.txt

제목: [기업 사회공헌 특집]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4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110015841200  
본문: 1945년 창립한 아모레퍼시픽은 지속가능 경영을 꿈꾸며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중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게 2008년부터 시작,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다. <br/> <br/>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긍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가 후원한다.  <br/> <br/>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이 캠페인에는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뷰티 카운셀러 및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여성 암 환우들을 위해 ‘미(美) 전도사’로 활동한다. <br/> <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환우를 대상으로, 상반기(5∼6월)·하반기(10∼11월)로 나눠 각 병원에서 개최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병원별 30∼60명 선착순 마감) 가능하다. <br/> <br/>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에서는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1.txt

제목: [건강 단신] 삼성서울병원 ‘척추종양 클리닉’ 개설·운영 외  
날짜: 20141221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110015841789  
본문: 삼성서울병원 ‘척추종양 클리닉’ 개설·운영 <br/> <br/>삼성서울병원 특수암센터(센터장 임호영·사진)는 원발성 척추종양 치료를 위한 ‘척추종양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원발성 척추종양이란 척추 자체에 생기는 희귀암으로, 심한 통증과 신경마비를 초래한다. 클리닉은 정형외과·신경외과·방사선종양학과·혈액종양내과·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 지침을 신속히 결정한다. (02)3410-3043 <br/> <br/>“<span class='quot0'>난자동결보존이 임신·출산 고령화의 대안</span>” <br/> <br/>여성의 결혼과 임신이 갈수록 늦어지는 가운데 ‘난자동결보존’이 현실적 대안이란 주장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임력보존 클리닉 서창석, 이정렬 교수팀은 “<span class='quot1'>여성이 35세 이전에 양질의 난자를 채취해 냉동시켜 보관하면 나중에 원할 때 건강한 난자로 임신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난자 채취에서 냉동까지 약 2주일이 걸리며, 수면마취 상태에서 진행해 통증은 거의 없다</span>”고 설명했다. (031)787-1126 <br/> <br/>80세이상 노인대상 ‘척추 청춘센터’ 열어 <br/> <br/>서울 강남 우리들병원(원장 김호진)은 80세 이상 노인의 척추·관절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100세 척추 청춘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br/> <br/>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팀이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 질환을 중심으로 수술·비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02)513-8888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2.txt

제목: 대전선병원, 2014 인재양성 우수기관상 수상  
날짜: 2014122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2110015839235  
본문: 대전 선병원 선두훈 이사장(오른쪽)이 2014년도 올해의 보건복지 인재양성 우수기관상을 받고 있다.대전 선병원(이사장 선두훈)은 최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최 ‘2014 KOHI HRD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보건복지 인재양성 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br/> <br/>이번 페스티벌에서 대전 선병원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보건복지 인력 양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선병원은 박근혜정부가 내건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관광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인력 개발은 물론 국내외 병원 및 대학, 기관들의 의료관광 및 해외마케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병원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br/> <br/>선병원은 2011년 해외환자 유치 선도병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건강 검진을 비롯해 척추·관절·정형, 암, 심뇌혈관 분야 치료를 위해 3300여명의 해외 환자가 내원했다. 2013, 2014년 2년 연속으로 의료관광 부문 복지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3.txt

제목: 정요셉 교수, 日 암 연구 사업 지원금 받아  
날짜: 20141219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910015833518  
본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원장 송석환)은 이 병원 병리과 정요셉(사진) 교수의 연구 과제가 최근 일본 후쿠오카현(縣)이 시행하는 암 연구 지원금 대상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br/> <br/> 여의도성모병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여러 암 가운데 가장 나쁜 예후를 보이는 췌장암에서 그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암줄기세포 면역마커를 발굴하는 내용의 연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이 암 연구 지원 사업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연구비를 수여받게 되었다. <br/> <br/> 후쿠오타현의 암 연구 지원금 사업은 재단법인 후쿠오카현 ‘튼튼한 건강 사업단’에서 진행한다. 매년 국제적으로 우수한 암 연구를 뽑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4.txt

제목: 부천성모병원, 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받아  
날짜: 20141219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910015833776  
본문: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원장 백민우·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부천지역 병원 가운데 폐암 적정성 1등급을 받은 곳은 부천성모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부천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10개 기관에서 실시한 5010건의 진료가 대상이다. 구조,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전신요법, 방사선치료 영역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부천성모병원은 모든 지표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br/> <br/> 폐암은 5년 생존율이 낮은 암질환이다. 65세 이상 남성에서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여성 흡연 인구의 증가로 여성의 폐암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부천성모병원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호흡기내과·혈액종양내과·흉부외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핵의학과 7개 진료과 전문의로 구성된 ‘폐암전문센터’를 개설해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br/> <br/>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폐암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최초 호흡기내과로 내원해 검사를 받고, 7개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 수술·항암·방사선 등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해 7개 진료과 12명 이상의 전문의가 매주 1회 이상 모여 협진을 시행하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5.txt

제목: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 건보 적용  
날짜: 20141219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910015836508  
본문: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 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br/> <br/>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br/> <br/>그동안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에이즈(HIV/AIDS) 환자도 앞으로는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기준도 개정된다. HIV는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성이 낮지만 그동안 HIV감염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이 분류돼 문제가 됐다. <br/> <br/>또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6.txt

제목: 호스피스·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41219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910015835203  
본문: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 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br/> <br/>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br/> <br/>그동안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에이즈(HIV/AIDS) 환자도 앞으로는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기준도 개정된다. HIV는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성이 낮지만 그동안 HIV감염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이 분류돼 문제가 됐다. <br/> <br/>또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7.txt

제목: 한번 치료에 1억9000만원짜리 세계 최고가 백혈병 치료제 탄생  
날짜: 201412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9112321893  
본문: 한번 치료받는데 1억9000만원이나 드는 백혈병 치료제가 등장했다. <br/> <br/>세계 최고가 답게 임상실험에서 완치율이 32%에 달했다. <br/> <br/>18일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사인 미국 암젠(Amgen)은 새 백혈병 치료제 가격을 17만8000달러(1억9000만원)로 책정했다고 외신 등이 보도했다.  <br/> <br/>한 외신은 블린사이토(Blincyto)라 불리는 이 치료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 중에 최고가일 것이라고 했다. <br/> <br/>블린사이토는 주입식 약물로 이를 이용한 한 번의 치료는 두 번의 주입을 기본으로 한다. 한 번의 주입이 8만9000달러(9800만원)로 한 번의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은 총 17만8000달러가 된다. <br/> <br/>블린사이토는 희귀 혈액암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쓰이는 치료제로 임상실험 결과 32%의 환자들이 투약 7개월 후 완치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는 성인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평균 3~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증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32%의 완치율은 기적에 가깝다.  <br/> <br/>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8월 블린사이토를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하기도 했다. <br/> <br/>다니엘 버트란드 암젠 대변인은 "블린사이토는 백혈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이며 "치료제의 의학적, 경제적, 인본주의적 가치를 고려해 가격을 측정했다"고 했다. <br/> <br/>하지만 업계에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다. <br/> <br/>이 치료제는 줄기세포이식이나 화학요법 같은 기존의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br/> <br/>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미국에서 약 6020명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그 중 1440명이 사망했다. <br/> <br/>또 환자의 반절 가량은 어린아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8.txt

제목: [포토] 영화 '더테너' 출연진 한자리에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909  
본문: 성악가 배재철, 배우 차예련, 유지태, 김상만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19.txt

제목: [포토] 차예련, '눈부신 미모'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8053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0.txt

제목: [포토] 차예련-유지태 '우리 잘 어울리죠?'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911  
본문: 배우 차예련, 유지태가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1.txt

제목: [포토] 차예련, '남심 녹이는 섹시미'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8133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2.txt

제목: [포토] 유지태, '따뜻한 미소'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739  
본문: 배우 유지태가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3.txt

제목: [포토] 차예련, '섹시한 레드 원피스'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8054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4.txt

제목: [포토] 차예련, '행복한 미소'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836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5.txt

제목: [포토] 차예련, '정열의 레드 미니 드레스'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619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6.txt

제목: [포토] 차예련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621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7.txt

제목: [포토] 영화 '더테너' 실제 주인공 배재철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623  
본문: 성악가 배재철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8.txt

제목: [포토] 유지태 '오늘은 성악가 처럼'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8049  
본문: 배우 유지태가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29.txt

제목: [포토]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기자간담회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837  
본문: 성악가 배재철, 배우 유지태, 차예련, 김상만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0.txt

제목: [포토] 차예련, '몸매 드러낸 밀착 드레스'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736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1.txt

제목: [포토] 차예련-유지태 '더테너 화이팅!'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907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2.txt

제목: [포토] 차예련, '상큼한 미소'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624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3.txt

제목: [포토] 차예련 '영화 잘 부탁드려요'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839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4.txt

제목: [포토] 배재철-차예련-유지태 '더테너에서 만나요!'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910  
본문: 성악가 배재철, 배우 차예련, 유지태가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5.txt

제목: [포토] 차예련, '너무 사랑스러워'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8055  
본문: 배우 차예련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6.txt

제목: [포토] 유지태, '따뜻한 미소'  
날짜: 20141218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8047  
본문: 배우 유지태가 18일 오후 서울 롯데시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31일 개봉한다.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7.txt

제목: '더 테너' 차예련 "이미지 변신 잘 한 것 같아 만족해"  
날짜: 20141218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835  
본문:   <br/> <br/>'더 테너'의 배우 차예련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br/> <br/>차예련은 12월 18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한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감독 김상만)의 언론 시사회에 참석했다. <br/> <br/>이날 차예련은 작품에 참여하게 된 소감에 대해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남편과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따뜻하면서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br/> <br/>차예련은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연기 변신에 대해 "처음으로 연기 변신을 하는 것 같아 노력도 많이 했다"고 말하며 "차도녀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내 이미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다"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br/> <br/>이어 "이 영화를 참여하게 돼서 꿈같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름 이미지 변신을 잘 한 것 같아서 내 자신은 만족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br/> <br/>한편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테너'는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천재 테너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를 그렸다. 유지태, 차예련, 이세야 유스케, 키타노 키이, 나타샤 타푸스코비치 등이 출연했다. 오는 31일 개봉 예정.  <br/> <br/>이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8.txt

제목: '더 테너' 유지태 "애정과 애증이 있는 작품"  
날짜: 20141218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738  
본문:   <br/> <br/>'더 테너'의 배우 유지태가 영화를 본 소감을 밝혔다. <br/> <br/>유지태는 12월 18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한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감독 김상만)의 언론 시사회에 참석했다. <br/> <br/>이날 유지태는 "2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만든 영화는 있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준비한 영화는 없었다"며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br/> <br/>또한 그는 "마음을 태우고 애정과 애증이 있는 '더 테너'는 남다른 것 같다. 순간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고 배재철 선생님과 한 자리에 선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하며 "이 영화가 많은 열정을 담아서 만든 만큼 이 영화 속의 사람들의 열정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이에 성악가 배재철은 "지태씨가 1년 동안 하루 네 시간씩 성악 연습을 했다"며 "감사하다"고 극찬했다. <br/> <br/>한편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테너'는 가장 화려했던 시절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천재 테너가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를 그렸다. 유지태, 차예련, 이세야 유스케, 키타노 키이, 나타샤 타푸스코비치 등이 출연했다. 오는 31일 개봉 예정. <br/> <br/>이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39.txt

제목: 겨울철 수족냉증, 체내의 차가운 기운 ‘냉적’이 원인  
날짜: 2014121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8505  
본문:   <br/> <br/> <br/>서울에 거주하는 강모씨(32. 여)는 겨울에 들어서면서 손발이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가을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던 증상이 겨울이 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왔다. <br/> <br/>강씨는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장갑을 꼬박 챙겼지만, 손발은 계속 차갑기만 할 뿐 나아지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br/> <br/>특히 이런 증상은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서 더 문제가 됐다. 직장 업무도 계속적으로 밀려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줬다. <br/> <br/>결국 휴가 처분을 받은 강씨는 몇 주간의 휴식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결국 한의원을 찾았고, ‘냉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냉적’ 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상당한 치료시간 필요 <br/> <br/>냉적은 겨울철에 자주 나타나는 기허증과 수족냉증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다. 한방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몸에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냉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이 차가운 것을 넘어 여러 질환과 질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가진다. <br/> <br/>체온저하는 면역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체온은 조금만 낮아지더라도 감기나 다른 질환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어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최근에는 암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며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br/> <br/>◆냉적은 조기에만 치료한다면 수월한 치료가 가능하다. <br/> <br/>냉적과 같은 몸의 대사증후군은 그 원인이 다양한 곳으로부터 온다. 그 중에서도 자율신경 실조, 내분비 대사 이상, 활동량 부족, 잘못된 음식 섭취를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특히 활동량도 부족할뿐더러 음식이 식은 상태로 섭취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 요소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br/> <br/>되도록 실내에서라도 운동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고, 냉장음식이나 인스턴트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챙겨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br/> <br/>◆한방치료로 체질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br/> <br/>냉적 치료 가로세로한의원 구리점의 한순현 원장은 “한방에서는 면역을 촉진시키는 효과의 경혈을 자극하는 약침과 뜸으로 냉적을 치료한다"며 "냉적은 수족냉증과 기허증을 비롯해 식적, 혈적, 오장적 등의 질환까지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냉적을 치료하는 것은 이 모두를 호전시키는데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한 원장은 "이와 같이 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와 더불어 몸에 양기를 보충해주고, 근본적인 대사능력 조절을 증진시켜주는 한약을 환자의 체질에 맞게 사용한다"며 "이런 치료는 냉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달리질 수 있지만 꾸준한 치료를 진행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0.txt

제목: 한번 치료에 1억9000만원짜리 세계 최고가 백혈병 치료제 탄생  
날짜: 201412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810015827303  
본문: 한번 치료받는데 1억9000만원이나 드는 백혈병 치료제가 등장했다. <br/> <br/>세계 최고가 답게 임상실험에서 완치율이 32%에 달했다. <br/> <br/>18일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사인 미국 암젠(Amgen)은 새 백혈병 치료제 가격을 17만8000달러(1억9000만원)로 책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br/> <br/>로이터통신은 블린사이토(Blincyto)라 불리는 이 치료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 중에 최고가일 것이라고 했다. <br/> <br/>블린사이토는 주입식 약물로 이를 이용한 한 번의 치료는 두 번의 주입을 기본으로 한다. 한 번의 주입이 8만9000달러(9800만원)로 한 번의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은 총 17만8000달러가 된다. <br/> <br/>블린사이토는 희귀 혈액암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쓰이는 치료제로 임상실험 결과 32%의 환자들이 투약 7개월 후 완치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는 성인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평균 3~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증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32%의 완치율은 기적에 가깝다.  <br/> <br/>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8월 블린사이토를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하기도 했다. <br/> <br/>다니엘 버트란드 암젠 대변인은 "블린사이토는 백혈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이며 "치료제의 의학적, 경제적, 인본주의적 가치를 고려해 가격을 측정했다"고 했다. <br/> <br/>하지만 업계에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다. <br/> <br/>이 치료제는 줄기세포이식이나 화학요법 같은 기존의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br/> <br/>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미국에서 약 6020명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그 중 1440명이 사망했다. <br/> <br/>또 환자의 반절 가량은 어린아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1.txt

제목: 인천내과, 바쁜 직장인을 위한 예약제 건강검진센터 운영  
날짜: 2014121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610015811703  
본문:   <br/> <br/> <br/>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잘 받는다고 자신하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매년 하는 건강검진 이지만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루는 직장인들이 많다.  <br/> <br/>16일 의료계에게 따르면 한국인 5명 중 2명이 걸린다는 암에 대한 검진률은 일반 건강검진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바쁜 일상생활,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과음 등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직장인의 경우는 정기적인 암 검진이 필요하다. <br/> <br/>암 발생 빈도와 예방에 대하여 고려할 때 중요한 검진은 위, 대장 검진이다. 위암은 한국인에게 흔한 암이고, 대장암은 용종 절제를 통해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치료에 있어서 조기검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시경검사 방법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야 완치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30대의 젊은 나이에 위암이 발생하였을 경우, 암이 빠르게 진행하므로 조기검진을 간과할 수 없다.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일찍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 40~60대 중년층의 경우는 대장내시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용종 발생률이 높으므로 조기에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br/> <br/>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는 40세 이후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천내과 휴내과 정회훈 원장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에도 혈변, 변이 가늘어짐, 변비 등 배변습관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 5~6일전부터는 내시경검사를 방해하는 잡곡밥, 콩나물, 씨가 있는 과일의 섭취를 피하고 받기 전날 저녁은 금식하거나 미음과 같은 가벼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고 대장내시경검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덧붙였다. <br/> <br/>해당 병원은 검진센터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대기시간 없이 바로 검진이 가능하다. 연말연시, 바쁘지만 건강검진으로 건강부터 챙겨보는건 어떨까.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2.txt

제목: 결별 요구에 "함께 죽자" 종용·알몸사진 유포 협박  
날짜: 20141216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610015810461  
본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6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함께 죽자”며 자살하려한 혐의(자살교사미수 등)로 기소된 서모(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pan class='quot0'>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해 자살교사를 시도하고 그 전후로 반복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span>”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빠져나와 자살교사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r/> <br/>서씨는 지난 9월 여자친구였던 이모(21·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이씨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전송해 “<span class='quot1'>암에 걸린 너희 엄마한테도 전송할 것</span>”이라고 이씨를 협박하고 함께 죽자고 회유해 모텔방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3.txt

제목: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보니 '매운맛' 내는 음식이 많아  
날짜: 201412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510015798746  
본문:   <br/> <br/> <br/>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보니 '매운맛' 내는 음식이 많아 <br/> <br/>면역력 높이는 식재료가 생강, 양파, 마늘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생강은 해열과 진통효과에 좋기 때문에 겨울에는 생강차를 끓여먹기도 한다. 생강 특유의 매운 맛은 뿌리에 있는 에센셜 오일과 진저롤, 쇼가올 같은 페놀 화합물 때문이다. 진저롤은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다. <br/> <br/>마늘 역시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로 유명하다. 마늘은 지난 수천년간 광범위하게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여져 왔다. 마늘 특유의 강력한 냄새는 마늘에 함유되 있는 알리신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인데, 이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다.  <br/> <br/>14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2주 동안 고농도의 알리신을 섭취한 결과 감기에 걸릴 확률이 64% 감소했으며, 설령 감기에 걸렸더라도 증상이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은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파는 위궤양에도 효과적이며, 양파의 생리활성물질은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4.txt

제목: 면연력 높이는 식재료, 추운 겨울 잔병 예방 가능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  
날짜: 201412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510015802144  
본문:   <br/> <br/>면연력 높이는 식재료, 추운 겨울 잔병 예방 가능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 <br/> <br/>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모였다.  <br/> <br/>낮은 온도는 사람 몸의 면역력을 낮춘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는 추운 겨울 잔병을 예방할 수 있게 돕는것으로 알려졌다. <br/> <br/>면역력 높이는 식재료로는 마늘, 김치, 토마토, 홍삼, 콩 등이 있다. <br/> <br/>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다. 마늘은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알리신은 또 비타민 B1의 흡수를 향상시키며 이 비타민과 결합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알리티아민을 만든다. <br/> <br/>김치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김치는 무, 배추, 열무, 젓갈, 생강, 파, 마늘 등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무기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아울러 김치는 피로회복, 항암치료, 노화방지 등에도 도움이 된다. <br/> <br/>토마토는 수분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갖고 있어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인다. 토마토에 포함된 성분인 라이코펜은 노화, 노인성 치매, 소화기계통의 암, 기미,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 <br/> <br/>홍삼도 면역력을 높인다. 홍삼은 수삼을 증기에 찐 붉은 빛깔의 인삼을 말한다. 이는 여러 종류의 사포닌을 갖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므로 감기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체질개선,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 <br/> <br/>콩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면역력 저하를 막는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아르기닌도 풍부하게 함유해 면역증진에 도움을 준다. <br/> <br/>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정보에 누리꾼들은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메모해놔야지"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오늘부터 식단 바꿔야겠다"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혼자살면 절대 못먹어요"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 요즘 감기 자주걸리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마늘, 생강, 고추냉이, 양파, 강황 등도 면역력 높이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5.txt

제목: 추운 날씨, 오줌누기가 어렵다면?  
날짜: 201412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510015798213  
본문: 본격적인 한파주의보가 예보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량이 줄고 몸이 위축되면 인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쉽다. 특히 비뇨기과 질환은 날씨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소변보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br/> <br/>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기온이 떨어지면 소변을 참기 힘들고, 소변을 봐도 잔뇨감 등의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 땀의 배출을 줄이는데, 이 때문에 체내 수분량이 늘어 방광에 소변이 자주 많이 차게 되는 것. <br/> <br/>여기에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면 요도 근육이 제대로 이완하지 못한다. 원래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압박된 요도가 교감신경의 작용 까지 겹체 제대로 풀리지 못하면 방광엔 소변이 가득차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급성 요폐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br/> <br/>특히 겨울철 배뇨 장애는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심해진다. 추운 날씨에 외부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면 혈액순환이 갑자기 빨라져 소변이 마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br/> <br/>남성과 여성의 비뇨생식기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성은 방광과 요도가 만나는 지점에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 등의 발생으로 인해 배뇨곤란, 세뇨, 빈뇨, 잔뇨감 등이 발생한다. 여성은 폐경기가 되면서 빈뇨나 급박뇨 증상을 호소하는 과민성방광이나 본인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는 요실금의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br/> <br/>남성의 경우 전립선은 평균크기가 20gm정도로 호두만한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하며 전립선에 암이 발생하여도 초기에는 전립선비대증과 증상의 차이가 없다. 전립선비대증의 발생률은 80대의 경우 9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생 위험인자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br/> <br/>전립선비대증의 진단은 병력 및 증상 설문지를 작성하고 직장수지검사와 전립선특이항원인 PSA검사를 시행하여 전립선암의 유무를 확인하고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와 요속 및 잔뇨량 검사를 시행하여 전립선의 크기 및 배뇨양상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행한다. <br/> <br/>치료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중등도일 경우는 약물치료를 우선하며 요폐나 요로감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br/> <br/>여성인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최고 65%까지 요실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요로감염, 약물, 변비, 거동불능, 만성질환, 뇌질환, 치매 등이 주요 원인이다. <br/> <br/>진단으로는 문진과 배뇨일지를 작성하여 배뇨양상을 확인하며 간단한 요검사와 요배양검사를 실시해 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요속 및 잔뇨량 검사, 또는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한다. <br/> <br/>과민성 방광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데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으로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나 청량 음료, 너무 자극적인 매운 음식 등은 피해야 한다. 요실금도 마찬가지로 약물치료를 우선 고려해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수술적인 치료도 해 볼 수 있다. <br/> <br/>국립교통재활병원 비뇨기과 김재식 교수는 “노인의 오줌누기는 대부분 무시되거나 자연 섭리라는 이유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를 하면 많은 경우 치료를 통해 환자를 편안하게 만들고 가족들의 불편을 덜게 할 수 있으므로 오줌누기가 불편해 지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비뇨기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6.txt

제목: 그라비올라, 암세포 죽이는 신비의 명약? '어떻게 먹어야 하지?'  
날짜: 201412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510015799996  
본문:   <br/> <br/>그라비올라, 암세포 죽이는 신비의 명약?  '어떻게 먹어야 하지?' <br/> <br/>그라비올라가 뛰어난 항암효과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지난 11일 방송된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는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 약초에 대해 다뤘다. <br/> <br/>이날 소개된 약초 중 하나인 그라비올라는 브라질, 베트남 등 열대 또는 열대 우림지역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초목초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진 식물이다. <br/> <br/>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그라비올라의 아노나신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영양공급 통로인 ATP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한다. 현존 항암제보다 약 1만 배 이상 강한 효과를 지녀 용종과 암세포 파괴에 탁월한 효능을 가져온다고. <br/> <br/>그라비올라는 주로 잎을 말린 뒤 뜨거운 물에 차로 우려내서 먹는다. 또한 생잎을 빻아 그 즙을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에 바르기도 한다. <br/> <br/>그라비올라 묘목은 열대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키울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서 그라비올라 묘목을 구매한 뒤 한 화분에 2그루 씩 옮겨 심으면 된다. 이후 그라비올라 줄기를 자르면 옆에서 20일 만에 싹이 돋는다. <br/> <br/>그라비올라는 물보다 흙에 심는 것이 좋으며 물을 줄 때는 여름에는 5일에 한 번, 봄 가을에는 8~10일에 한 번, 겨울에는 15~20일에 한 번 주는 것이 좋다. <br/> <br/>그라비올라의 효능에 누리꾼들은 "그라비올라, 직접 키울 수도 있구나", "그라비올라, 암이 요즘 가장 무서워", "그라비올라가, 항암제보다 좋다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7.txt

제목: 녹십자,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뉴라펙’ 임상결과 입증  
날짜: 201412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510015798823  
본문: 녹십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2014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SABCS)에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펙’의 임상결과를 포스터 세션을 통해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호중구감소증(neutropenia)은 혈중 백혈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혈구세포인 호중구가 항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요법 등의 원인으로 정상치 이하로 감소하는 질환이다. <br/> <br/>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항암보조제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1주기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1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달리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녹십자는 지난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획득해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br/> <br/>녹십자는 이번 학회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기관에서 진행한 뉴라펙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대조약인 암젠의 뉴라스타와 맹검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비교한 결과 비열등성을 보였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r/> <br/>이와 함께, 뉴라펙의 항암화학요법 1주기 동안 절대호중구수(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최저값 이후 2000/mm³ 이상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관찰한 결과, 뉴라펙 투여군은 8.85일, 대조약 투여군은 9.83일로 나타나 회복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약 하루 짧았다. <br/> <br/>녹십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임상시험을 통해 뉴라펙이 세계적인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뉴라스타와 비교해 동등이상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만큼 학회 참가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녹십자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뉴라펙 개발을 위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8.txt

제목: “기본 건강검진으로 심혈관질환 예측 가능해진다”  
날짜: 201412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510015799019  
본문: 기본 건강검진 항목만으로도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 도구가 개발됐다. <br/> <br/>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최재원·심장내과 김영학 교수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만7000 여명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형 심혈관질환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혈관의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전 세계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암에 이어 주요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심혈관질환의 중요성을 인식해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예방 가이드를 잘 해온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인에 맞춰진 심혈관질환 예측 모델조차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br/> <br/>이에 교수팀은 한국형 심혈관질환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나이 ▲당뇨병 ▲고혈압 ▲흡연 ▲관상동맥질환 가족력 ▲백혈구 ▲크레아티닌 ▲당화혈색소 ▲심방세동 ▲혈압지표 ▲콜레스테롤 지표 등 총 11개 예측인자를 선별했다.  한국형 심혈관질환 예후 계산 도표. 사진= 서울아산병원 제공 <br/> <br/>30세부터 80세까지 혈압, 혈액검사 등의 기본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 값을 각각 이 11개 예측인자에 적용하면 총 0점부터 220점까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향후 3년과 5년 내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예측 가능하다. <br/> <br/>특히 총점이 200점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3년 안에 심혈관질환 발생 확률이 20%이상이고, 5년 안에 심혈관질환 발생 확률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이 ‘한국형 심혈관질환 예측 모델’에 따르면 40세 이상에서는 같은 연령이더라도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이상지질혈증도 심혈관질환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br/> <br/>김영학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은 서서히 진행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병이 상당히 진행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치료할 수 없는 돌연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최재원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은 “<span class='quot1'>이번에 개발된 심혈관질환 예측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결과를 이용해 심혈관질환 예측치를 제공하고, 각각의 기준에 결과에 맞는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span>”고 전망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서큘레이션’의 자매지인 ‘서큘레이션 심혈관의 질과 결과(Circulation Cardiovascular Quality and Outcomes)’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49.txt

제목: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선정  
날짜: 20141214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410015795798  
본문: 함시현·임혜숙·유향숙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주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함시현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명예 연구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학부문 수상자인 함 교수는 치매, 암, 광우병 등의 원인인 단백질 응집현상의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부문 임교수는 인터넷 통신망 장비의 부품인 패킷 전달 엔진의 고속화를 위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구조를 개발해 고속화·소형화에 기여할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0.txt

제목: 부천성모병원, 위암 수술 진료량 평가 '1등급'  
날짜: 2014121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410015794106  
본문: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원장 백민우·사진)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 수술, 간암 수술, 고관절치환술 진료량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r/> <br/>부천성모병원에 따르면 진료량 평가는 특정 수술의 경우 해당 진료의 경험, 즉 진료량(수술 건수)이 사망률이나 합병증과 같은 진료 결과에 영향을 줘 진료량이 많은 병원의 진료 결과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좋다는 이론에 근거한 평가다. <br/> <br/>이번 평가는 위암 수술의 경우 208개 기관, 간암 수술의 경우 109개 기관, 고관절치환술의 경우 877개 기관의 2013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술 건수, 수술 사망 건수, 평균 입원일수, 평균 진료비 등을 종합 점수로 산출해 평가했다. <br/> <br/>부천성모병원은 앞서 위암, 간암 수술 사망률 진료 결과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암 치료 잘하는 병원’이란 인정을 받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특히 고관절치환술의 경우 심평원이 평가를 시작한 이래 3년 연속 1등급을 받으며 매회 우수성을 검증받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 2014년 진료량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1.txt

제목: 암흑물질 신호 발견, 안드로메다-페르세우스 운하의 불가사의한 신호는 무엇?  
날짜: 201412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310015792343  
본문: 암흑물질 신호 발견(사진: NASA) <br/>암흑물질 신호 발견, 안드로메다-페르세우스 운하의 불가사의한 신호는 무엇? <br/> <br/>암흑물질 신호 발견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ESA(유럽우주국)의 XMM뉴튼 우주선(XMM-Newton spacecraft)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페르세우스 운하 두 개의 다른 천체가 이전에 보지 못한 X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r/> <br/>비활성중성미자가 붕괴하면 X선을 방출한다. 연구진은 이것이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 은하군에서 방출되는 불가사의한 신호의 암흑물질 입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연구를 이끈 로잔 공과대학과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알렉시 보야르스키(Alexey Boyarsky)는 "이번 발견을 검정하기 위해 우리 은하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같은 관측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br/> <br/>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올레그 루차이스키는 "은하 내부에서 이 신호의 분포 상태는 그동안 암흑물질이 그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일치했다"며 "즉 물체 중앙은 밀도가 높고 집중적이며, 가장자리는 밀도가 낮고 분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br/> <br/>만약 이번 연구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천문학계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원이 열리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br/> <br/>한편 암흑물질은 우주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어 우주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2.txt

제목: 암흑물질 신호 발견, 우주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 '비밀 밝혀질까?'  
날짜: 201412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310015791729  
본문:   <br/> <br/> <br/>암흑물질 신호 발견, 우주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 '비밀 밝혀질까?' <br/> <br/>암흑물질 신호 발견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ESA(유럽우주국)의 XMM뉴튼 우주선(XMM-Newton spacecraft)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페르세우스 운하 두 개의 다른 천체가 이전에 보지 못한 X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r/> <br/>비활성중성미자가 붕괴하면 X선을 방출한다. 연구진은 이것이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 은하군에서 방출되는 불가사의한 신호의 암흑물질 입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연구를 이끈 로잔 공과대학과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알렉시 보야르스키(Alexey Boyarsky)는 "이번 발견을 검정하기 위해 우리 은하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같은 관측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br/> <br/>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올레그 루차이스키는 "은하 내부에서 이 신호의 분포 상태는 그동안 암흑물질이 그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일치했다"며 "즉 물체 중앙은 밀도가 높고 집중적이며, 가장자리는 밀도가 낮고 분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br/> <br/>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후보로 여러 개의 특이한 입자들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는 약하게 반응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의미의 윔스(WIMPs), 액시온(axion), 비활성 중성미자(sterile neutrinos), 보통의 중성미자의 가상적인 4촌(전자를 닮았지만 전하가 없는 입자) 등이 있다. <br/> <br/>만약 이번 연구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천문학계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원이 열리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br/> <br/>한편 암흑물질은 우주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어 우주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3.txt

제목: 암흑물질 신호 발견, 암흑물질 뭐길래... '우주의 비밀 푸는 열쇠?'  
날짜: 201412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310015791918  
본문:   <br/> <br/> <br/>암흑물질 신호 발견, 암흑물질 뭐길래... '우주의 비밀 푸는 열쇠?' <br/> <br/>암흑물질 신호 발견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ESA(유럽우주국)의 XMM뉴튼 우주선(XMM-Newton spacecraft)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페르세우스 운하 두 개의 다른 천체가 이전에 보지 못한 X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r/> <br/>비활성중성미자가 붕괴하면 X선을 방출한다. 연구진은 이것이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 은하군에서 방출되는 불가사의한 신호의 암흑물질 입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연구를 이끈 로잔 공과대학과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알렉시 보야르스키(Alexey Boyarsky)는 "이번 발견을 검정하기 위해 우리 은하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같은 관측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br/> <br/>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올레그 루차이스키는 "은하 내부에서 이 신호의 분포 상태는 그동안 암흑물질이 그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일치했다"며 "즉 물체 중앙은 밀도가 높고 집중적이며, 가장자리는 밀도가 낮고 분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br/> <br/>만약 이번 연구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천문학계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원이 열리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br/> <br/>한편 암흑물질은 우주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어 우주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4.txt

제목: 그라비올라, 암세포도 죽이는 '신비의 명약'...이 식물의 정체는?  
날짜: 2014121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210015787507  
본문:   <br/> <br/>그라비올라, 암세포도 죽이는 '신비의 명약'...이 식물의 정체는? <br/> <br/>그라비올라 약초가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그라비올라는 강력한 항암작용으로 유명하다. 브라질·베트남 등 열대 또는 열대 우림지역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초목류인 그라비올라는 잎과 열매에 약용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다. <br/> <br/>그라비올라 아노나신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영양공급 통로를 차단,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한다고 알려졌다. 각종 용종을 비롯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효능이 현존 항암제보다 1만배 이상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암세포만을 골라 공격해 항암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 <br/> <br/>그라비올라는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해졌다. 그라비올라 잎을 빻아 생즙을 만들어 피부질환이 있는 곳에 바르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물 2L에 그라비올라를 말린 잎을 20∼25정도 넣은 뒤 약 1시간 정도 푹 우려 차로 마실 수도 있다. <br/> <br/>그라비올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라비올라, 신기하네" "그라비올라, 암세포도 죽인다고?" "그라비올라, 관심 올라가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5.txt

제목: 국립암센터, '통증 다학제클리닉' 개설  
날짜: 2014121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110015778366  
본문: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암 환자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통증 다학제클리닉’ 진료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통증 다학제클리닉은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해 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립암센터 지원진료센터(센터장 김종흔·사진) 소속 통증, 재활의학, 신경, 정신건강, 가정의학 클리닉 등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자 개인별로 통증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치료 방법도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재활치료, 정신치료 등을 총동원해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게 특징이다. <br/> <br/>통증 다학제클리닉의 또 다른 중요한 강점은 통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복합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에 따른 불안, 우울, 불면 등은 통증을 악화시킨다. 때로는 통증이 불안, 우울, 불면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 항암화학치료에 의한 말초 신경병증, 림프절제술 후의 림프부종 등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합병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br/> <br/>김종흔 국립암센터 지원진료센터장은 “<span class='quot0'>통증 다학제클리닉은 환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암에 따른 합병증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암 환자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6.txt

제목: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학술대회 13일 열려  
날짜: 2014121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110015782862  
본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이사장 동석호·사진)는 13일 오후 1시30분 경희대 종합강의동 청운관에서 제47회 추계 학술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번 학술대회는 ‘건강검진과 암 관리’, ‘IT 시대의 건강검진’이란 주제 하에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한다. 검진센터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새로운 건진 항목 개발, 수진자를 위한 모바일 개인기록 관리 등 검진 세계의 새로운 분야를 소개한다. <br/> <br/>15개 대학병원 건진센터가 참여하는 유전체 관련 공동임상연구의 결과 발표가 특히 눈길을 끈다.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석호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의 유전체검사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건진센터의 역할은 건강을 체크해 질병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새로운 검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까지 제안하는 추세로 진화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참가 희망자는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홈페이지(kshep.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2-968-1848)나 이메일(soun0824@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사전등록을 한 경우 2만원, 당일등록이면 3만원이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7.txt

제목: 여성에게 흔한 유방암 갑상선암, 정기검진 필요한 이유?  
날짜: 20141211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110015780237  
본문: 유방암은 갑상선암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에서 아주 흔한 암이다. 한국유방암학회가 최근 발표한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2008년 10만명당 38.9명꼴로 발생하던 유방암은 2012년 10만명당 52.1명꼴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유방암 발병률은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br/> <br/>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이 늘고 있는 것은 고지방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육류의 1일 섭취량은 1998년 53.7g에서 2012년 85.1g으로 약 60% 증가했다.  <br/> <br/>이에 비례해 지방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가 2002년에는 전체 환자의 58.2%였으나 2012년에는 73%까지 상승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 <br/> <br/>여성 호르몬도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유방 세포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자극에 의해 증식, 분화되므로 일생 동안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초경은 빨랐으나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에 첫 임신하는 경우 등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br/> <br/>이밖에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 폐경 이후 호르몬 요법, 과도한 음주, 비만도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방암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아 어머니나 자매 가운데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br/> <br/>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가진단을 통해 유방의 윤곽이나 형태, 크기에 이상한 변화가 없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유방이나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br/> <br/>또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유방암 이외에도 유방에 양성종양이나 염증관련 질환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 중 임신을 계획하거나 모유 수유 중에는 항상 자신의 유방에 이상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br/> <br/>유방암 검진에는 초음파와 유방 촬영술이 시행되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조직검사 후 양성종양으로 확인되거나, 처음부터 거의 확실하게 양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의 종양 덩어리를 제거하면서 전체를 조직 검사할 수 있다. 국소마취로 10~30분 이내 시술이 가능하며, 검사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다. 100%에 가까운 정확한 검사결과를 보이며, 피부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br/> <br/>유방 갑상선 여성외과전문의 홍지선 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만혼 풍조로 인해 유방암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가족 가운데 유방암 환자가 있거나 폐경기 전후의 40세 이상 여성은 매년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를 포함하는 유방검진을 실시해 혹시라도 모를 유방암을 조기에 찾아내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갑상선암 역시 여성에게 아주 흔한 암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남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바로 갑상선암이었다. 2004년까지는 유방암이 1위였으나 2005년부터 갑상선암이 추월해 1위로 올라선 뒤 해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br/> <br/>갑상선암은 유전이나 CT(컴퓨터단층) 촬영 등 방사선 노출에 의한 유전자 변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모가 갑상선암인 경우 자녀는 발병 위험이 4배 높으며, 형제 자매가 갑상선암인 경우에는 6배 이상 높다. 또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거나 통통한 체질, 당뇨병이 있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br/> <br/>유방암과 달리 갑상선암은 자가검진이 쉽지 않아 정기적인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조차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 <br/> <br/>경부 초음파로 진단하며, 5mm 이상의 결절(종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거나 1cm 이상의 결절이 발견되면 바로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검사의 정확도는 90%에 달하며,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하고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두암의 경우 이 방법으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다. <br/> <br/>홍 원장은 “<span class='quot0'>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고위험군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결절이 최근에 갑자기 커졌거나, 결절이 커서 호흡 곤란 증상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고, 갑상선에 덩어리가 있으면서 목소리 변화를 동반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갑상선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도움말:서울장문외과  홍지선 원장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8.txt

제목: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성료'  
날짜: 2014121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110015779260  
본문: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조용준 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기근속자와 모범직원 등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림대 춘천성심병원(원장 조용준)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날 행사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5년 동안 근무한 강광호 재무팀장을 비롯한 장기근속자 76명과 모범직원 22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 후 조용준 춘천성심병원장은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료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30년 동안 이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을미년 새해에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br/> <br/>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1984년 12월 10일 개원 이래 지역주민의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춘천은 물론 강원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6월에는 강원도 최초로 암 광역화 치료에 성공했으며, 2014년 7월에는 91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각막이식수술에 성공하는 등 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br/> <br/>2011년 6월에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국제 수준에서 평가하는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장암 진료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급성기뇌졸중 평가 5회 연속 1등급 등 각종 의료질 지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59.txt

제목: [WT논평] Money alone, public or private, won’t eradicate malaria  
날짜: 20141211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110015783874  
본문: Malaria was once a scourge in the United States, primarily in the rural South, where mosquitoes thrive in a marshy, subtropical climate. The 1920 census counted 3,136 malaria deaths, a relatively larger number then than now. But a concerted effort fought back against the disease. More than 4 million homes were sprayed with DDT, an effective and inexpensive pesticide, by 1949. Two years later,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n called the Office of Malaria Control, declared the disease eradicated in the United States. <br/> <br/>It would have been long gone from the developing world, too, but for the environmental zealotry of Rachel Carson, whose 1962 book “Silent Spring” condemned millions to an early death. Many of the victims were children. Miss Carson claimed that DDT causes cancer, poisons the oceans and wipes out so many birds that springtime would eventually fall silent because there would be no feathered friends to chirp and sing. <br/> <br/>In 1972,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anned DDT in the United States.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dopted regulations effectively prohibiting the funding of international projects if DDT were used. This was good news for the mosquitoes, particularly in Africa, but not for the millions who suffered the fever, the chills, the debilitating weakness and often death. <br/> <br/>J. Gordon Edwards, an entomologist writing in the Journal of American Physicians and Surgeons, calls Miss Carson’s work “a case study in scientific fraud.” <br/> <br/>Indeed, an Audubon Society census shows that bird populations increased in areas where DDT was used, and Miss Carson’s claim that DDT caused bird’s egg shells to develop thin and fragile was shown in the laboratory to have been caused by Carson researchers feeding the birds under study a calcium-deficient diet. “Silent Spring” was rigged. <br/> <br/>The damage persists, though the truth has begun to sink in. The United Nations gave DDT “a clean bill of health” and rescinded a ban on its use. Since then, may subtropical countries, particularly in Africa, have resumed applying the pesticide in homes. <br/> <br/>In his 2004 report, Mr. Edwards lamented that the lack of a worldwide initiative to kill mosquitoes persists to this day. “Instead,” he wrot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re devoted to the search for vaccines, which might or might not be effective.” Several researchers have been convicted of embezzling millions of dollars from malaria-research grants. <br/> <br/>Throwing money at a serious health problem isn’t always the best way to fight disease. Eliminating malaria requires killing bugs, not just writing checks. <br/> <br/>말라리아 퇴치를 막은 “침묵의 봄” 사기 <br/> <br/>말라리아는 한때 미국의 주로 남부 농촌에서 골칫거리였다. 그곳에서는 늪지대와 아열대 기후 속에서 모기가 번성했다. 1920년의 국세조사에서는 말라리아 사망자가 313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금에 비해 많은 수였다. 그러나 조화를 이룬 노력으로 이 질병을 퇴치했다. 효과적이고 값싼 살충제인 DDT가 1949년까지 400만이 넘는 가구에 살포되었다. 당시 말라리아통제본부라고 불렸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년 뒤 미국에서 이 질병이 박멸되었다고 선언했다. <br/> <br/>레이철 카슨의 환경 분야 열성만 아니었다면 말라리아가 개발도상 세계에서도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녀의 1962년 저서 ‘침묵의 봄’ 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기 사망선고를 내렸다. 희생자의 다수는 어린이들이었다. 카슨은 DDT가 암의 원인이 되며 대양을 독성물질로 오염시키고 너무나 많은 조류를 전멸시켜 지저귀고 노래하는 깃털 달린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결국 봄철이 정적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1972년에 환경보호국은 미국에서 DDT를 금지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DDT가 사용되는 경우에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것은 모기들 특히 아프리카의 모기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고열과 오한 및 신체 쇠약 및 종종 사망에 시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br/> <br/>미국 의사 저널에 기고한 곤충학자 J 고든 에드워즈는 카슨의 연구를 가리켜 “과학적 사기의 연구 사례”라고 부른다. <br/> <br/>실제로 오듀본학회의 현장 조사는 DDT가 사용된 지역에서 조류의 개체수가 증가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DDT가 조류의 알껍데기를 얇고 연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카슨의 주장은 그녀의 연구진이 연구 대상 새들에게 칼슘이 부족한 먹이를 준 것이 원인이란 사실이 연구실에서 밝혀졌다. ‘침묵의 봄’ 은 조작된 것이다. <br/> <br/>진실이 인식되기 시작했으나 사기의 피해는 지속되었다. 유엔은 DDT에 ‘건강증명서’ 를 주었고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그 이후 아열대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정에서 이 살충제의 사용을 재개했다. <br/> <br/>에드워즈는 자신의 2004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기를 죽이는 계획의 결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span class='quot0'>대신 수억달러의 돈이 효력이 의문시되는 백신 연구에 바쳐지고 있다.</span>” 일부 연구자들은 말라리아 연구 보조금을 수백만달러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br/> <br/>심각한 보건문제에 돈을 퍼붓는 것이 질병과 싸우는 최선의 방식이 항상되는 것은 아니다. 말라리아를 박멸하는 데는 단지 수표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세균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0.txt

제목: 소화불량과, 속쓰림, 복통의 원인은 담석증 때문일 수 있어?  
날짜: 20141211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110015780562  
본문:   <br/> <br/> <br/> <br/>주부 유인정(39세, 안양시 평촌)씨는 1년 전 속쓰림과 복통이 잦아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후 위염약을 장기간 복용했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오히려 심해졌고 체중도 줄어드는 등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심각한 병은 아닐까 걱정이 돼 다시 검사를 받으니 원인은 위가 아닌 담낭에 생긴 돌 때문이었다. 외과에서 복강경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만성 소화불량이 호전됐다. <br/> <br/>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사 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을 경우 위장관의 이상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의 경우 위염의 증상인 소화불량,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등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과에서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외과전문의 배병구 과장은 “<span class='quot0'>담석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4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체질적, 환경적 요인 외에도 식생활, 육체적 활동, 급격한 체중감소, 비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음주, 과식, 급격한 다이어트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 <br/>◆ 담석증, 위염 증상과 비슷해 자칫 병 키울 수 있어 <br/> <br/>담석증은 간, 담도, 담낭(쓸개) 안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간내 담석, 담도담석, 담낭담석으로 구분된다. 특히 몸 속에서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담즙을 생산하는 담낭에 돌이 생기면 식사 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쓰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오심, 구토, 발열, 오한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통증은 갑자기 시작되어 1~4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서서히 또는 갑자기 호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약 75%에서는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내원했다가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br/> <br/>담석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잘못된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저단백, 고콜레스테롤, 단순 당섭취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유전적 경향, 임신, 당뇨, 비만 및 체중감소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br/> <br/> <br/>◆ 담낭절제술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해야 <br/> <br/>증상이 없는 담석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추후 2cm이상 커졌을 때 암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통증 등 증상을 동반한 담석증 역시 절제술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담석증은 담낭의 운동성, 담즙 성분 변화로 인해 돌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담낭을 절제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br/> <br/>담석증은 초음파나 CT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복강경으로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 과거 담낭절제술은 보통 3개의 투관침을 사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3군데의 상처가 남았는데, 최근에는 배꼽을 통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거의 없다.  <br/> <br/>배병구 과장은 “<span class='quot0'>담석증으로 내원하는 일부 환자의 경우 담석증과 담도 결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내시경실에서 ERCP(역행성담췌관 내시경수술)를 시행해 담도를 깨끗히 한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시간이 짧고 회복속도가 빠른 수술이지만 담낭 주위에는 간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과 십이지장 등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한 후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담낭절제술 후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다량 섭취할 경우 담즙을 한번에 내보내지 못해 일시적인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증상이 완화된다. 담낭이 없어도 담즙 생성은 간에서 하기 때문에 소화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양을 줄이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한 체중조절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외과 전문의 배병구 과장  <br/> <br/>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1.txt

제목: 53억에 산 노벨상 메달, 원주인에게 돌려줘  
날짜: 20141210  
기자: 유태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010015775487  
본문: 경매에서 475만달러(약 53억원)에 팔렸던 노벨상 메달이 원래 주인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br/> <br/>러시아의 철강·통신 재벌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구단주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왼쪽 사진) 회장은 지난 4일 뉴욕 경매에서 미국 과학자 제임스 왓슨(86·오른쪽)의 노벨상 메달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서 이 메달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우스마노프는 자신의 부친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공개하며 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왓슨을 돕기 위해 경매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왓슨은 이 메달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뛰어난 과학자가 생활고에 쫓겨 메달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기가 괴로웠다”고 말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2.txt

제목: 러시아 재벌, "왓슨 도우려 낙찰받았다"며 노벨상 메달 돌려줘  
날짜: 201412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010015769225  
본문: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해 196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제임스 왓슨(86)이 내다 판 노벨상 메달을 되돌려 받게 됐다. <br/> <br/>20세기 최고의 과학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DNA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던 왓슨은 지난 2007년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흑인이 백인과 동일한 지적능력을 갖췄다는 전제아래 이뤄지는 서구의 아프리카 정책은 잘못됐다"며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br/> <br/>이후 연구논문 도용 논란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br/> <br/>견디다 못한 왓슨은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아 475만 달러(53억원)를 받았다. <br/> <br/>노벨상 메달을 주인 품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나선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을 소유한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회장이다. <br/> <br/>영국 인디펜던트지는 9일(현지시간) "우스마노프가 지난 4일 뉴욕 경매에서 왓슨의 노벨상 메달을 낙찰받은 주인공이 자신이라며 왓슨에게 메달을 되돌려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br/> <br/>우스마노프는 자신의 부친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공개하며 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왓슨을 도우려고 경매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br/> <br/>우스마노프는 "뛰어난 과학자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메달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br/> <br/>이어 "왓슨은 인류역사의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라며 "그 업적을 기리는 상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3.txt

제목: 한국인의 10대 사인 중 30년 전보다 사망률 증가한 것은 자살ㆍ당뇨병ㆍ폐렴  
날짜: 2014121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010015770764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 30년 전보다 사망률(10만명당 사망자수)이 증가한 것은 자살ㆍ당뇨병ㆍ폐렴 등 세 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또  한국인 사망률은 30년간 뚜렷한 감소 추세였으나 예외적으로 IMF 사태 이후 4년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률이 떨어진 7가지 사인(死因)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고혈압과 간 질환이었다. <br/> <br/>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983년엔 남성 10만명당 사망자수가 1666명에 달했으나 2012년엔 639명으로 62%(같은 기간 여성 10만명당 1203명→588명, 51% 감소)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1983∼2012년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으며(연령 보정)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KMS’ 올 12월호에 실렸다. <br/> <br/>연구를 수행한 보건산업진흥원 임달오 보건산업정책본부장은 “<span class='quot0'>지난 30년간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990년대 말(1998년∼2001년)엔 예외적으로 약간 증가했다</span>”며 “<span class='quot0'>1997년 말에 맞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특히 30년 전에 비해 현재 사망률이 높아진 것은 자살ㆍ당뇨병ㆍ폐렴에 의한 사망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남성은 10만명당 17명에서 3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도 6명에서 18명으로 세 배나 늘었다.  <br/>  <br/>임 본부장은 “<span class='quot1'>자살 증가는 고용과 사회 복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span>”며 “<span class='quot1'>여성의 자살률이 2010년 이후 약간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다행한 일</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당뇨대란’ㆍ‘국민병’이란 말이 있듯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30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당뇨병으로 숨진 남성이 10만명당 11명에서 21명(92% 증가), 여성은 10만명당 8명에서 21명(176% 증가)으로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br/> <br/>폐렴에 의한 사망률은 30년 간 갈 지(之)자 행보를 보였다. 감염성 질환이니 만큼 독감 등의 유행 여부에 따라 폐렴 사망률도 덩달아 요동쳤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엔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폐렴으로 숨진 남성은 10만명당 16명에서 18명으로 17% 늘었다. 여성은 12명에서 18명으로 44% 증가했다. <br/> <br/>폐렴은 흔히 ‘노인의 친구’로 통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실 송인명 책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2'>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span>”으로 예측했다.  <br/> <br/>한국인의 10대 사인 중 지난 30년간 가장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고혈압에 의한 사망이다. 고혈압으로 숨진 남성이 83년엔 10만명당 139명이었으나 2012년엔 8명으로 94%나 줄었다. 같은 기간 고혈압으로 사망한 여성은 10만명당 84명에서 19명으로, 감소율이 77%에 달했다.  <br/> <br/>임 본부장은 “<span class='quot1'>고혈압 사망자수가 급감한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혈압을 약 등으로 조절하게 된 덕분</span>”으로 풀이했다. <br/> <br/>30년 새 사망률이 고혈압 다음으로 낮아진 질병은 간(肝) 질환.  간 질환으로 숨진 남성이 30년 전 10만명당 96명에서 20명으로(79% 감소), 여성은 10만명당 27명에서 5명으로(80% 감소) 줄었다. <br/> <br/>임 본부장은 “<span class='quot1'>B형 간염 백신이 널리 보급돼 간염ㆍ간경화ㆍ간암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줄고 폭음 등 무절제한 음주를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span>”으로 해석했다. <br/> <br/>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심장병ㆍ뇌혈관 질환ㆍ만성 호흡기질환(천식ㆍ만성 기관지염ㆍCOPD 등)에 의한 사망률도 지난 30년간 두 자리수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br/> <br/>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30년 새 약간 감소했다. 암으로 숨진 남성이 10만명당 188명에서 171명(9% 감소), 여성은 103명에서 102명(1% 감소)으로 줄었다. <br/> <br/>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9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남성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21명에서 18명으로 14% 감소했으나 여성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만명당 7명). <br/> <br/>자동차수가 급증했는데도 오히려 자동차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그동안 도로 기반이 잘 갖춰지고 음주운전 단속ㆍ안전벨트 매기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거둔 덕분으로 풀이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4.txt

제목: 2013년 출산율, 4년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날짜: 201412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010015769169  
본문: 2013년 출산율이 2009년 이후 4년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임신 및 출산 적령기인 20대 후반~30대초반 출산율이 낮았다. <br/> <br/>출산율이 극히 낮은 가운데 2017년 한국사회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br/> <br/>1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1.19명이었다. <br/> <br/>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떨어진 뒤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지난해 다시 5년 전인 2008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br/> <br/>이는 인구 대체수준(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br/> <br/>출산율 하락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두드러졌다. <br/> <br/>25~30세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는 65.9명으로 2012년 77.4명보다 11.5명이나 줄었다. 30~34세 역시 전년 121.9명보다 10.5명 줄어든 111.4명을 기록했다. <br/> <br/>반면 노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어서 작년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10년 전인 2003년(41.3)보다 두배 가까이 상승한 83.3을 기록했다. <br/> <br/>지금 추세라면 2017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4.1이 돼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16.7로 10년 전(11.6)보다 5.1 상승했다. <br/> <br/>작년 한국인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이었다. <br/> <br/>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11.8명이었으며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52.8명과 50.4명이었다. 당뇨병 사망자수는 21.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다섯번째로 많은 17.3명이었다. <br/> <br/>작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는 모두 10만2488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br/> <br/>종사자 1인당 시설 생활인원은 평균 1.9명이었으나 노숙인 시설은 7.4명, 정신질환자요양 시설은 5.6명씩을 한명의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5.txt

제목: 부천성모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날짜: 20141210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1010015771103  
본문: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원장 백민우·사진)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br/> <br/>부천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전국 의료기관 18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 및 수술 관련 부문, 기록충실 부문, 보조치료요법 등 4개 영역에 대한 18개 항목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부천성모병원은 진료 관련 전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종합 점수 99.52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평균 입원 일수 및 평균 입원 진료비 부문에서도 환자의 부담을 대폭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br/> <br/>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평가를 받은 185개 기관 전체의 평균 입원 일수가 10일, 우리 병원과 동일한 종합병원급의 평균 입원 일수가 11.6일인데 반해 우리 병원은 6.5일 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단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진료비 역시 185개 기관 전체 평균이 321만원, 종합병원급 평균이 350만원인 반면 우리 병원은 239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이 입증됐다</span>”고 말했다. 부천성모병원은 2012년 위암, 간암 암수술 사망률 진료 결과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6.txt

제목: 한영, 갑상선 암 투병 전...아찔 볼륨-롱다리 노출 화보 '화제'  
날짜: 2014120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910015761937  
본문:   <br/> <br/>한영, 갑상선 암 투병 전...아찔 볼륨-롱다리 노출 화보 '화제' <br/> <br/>가수 한영이 갑상선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과거 노출 화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한영은 9일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서 2014 트로트 최고 인기가수 강진, 금잔디, 진성과 출연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br/> <br/>이날 MC 조우종 아나운서가 "너무 예쁘고 섹시한 분이시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고 말하자 한영은 "5년 만에 싱글앨범으로 돌아왔다"고 입을 열었다. <br/> <br/>이어 한영은 "제가 데뷔가 댄스가수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데뷔도 트로트 가수였고 5년 만에 돌아온 앨범도 트로트앨범이다"며 데뷔부터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음을 밝혔다. <br/> <br/>특히 한영은 "5년 만에 복귀한다.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마비가 와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 그래서 이번 앨범은 힘을 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고 5년 만에 복귀하게 된 이유를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7.txt

제목: 비싼 의료비 대책을 위해선 미리 의료실비보험 가입해야  
날짜: 20141208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810015756095  
본문: 30대 후반 남성 K씨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다. 병원의 검사 결과 서혜부 탈장으로 판명났고 K씨는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다. 다행이 늦지 않게 병원을 찾은 터라 치료도 잘 끝났고 몇 가지 서류로 작년에 들어둔 의료실비보험으로 치료비도 해결할 수 있었다. <br/> <br/>K씨가 며칠간 병원에서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은 454,890원으로 이 비용의 90%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실비보장으로 409,400원을, 질병 수술비 보장으로 300,000원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었다. 만약 K씨가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갑작스레 약 45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어 곤란했겠지만 미리 가입한 덕에 K씨는 보험료로 보양식을 먹으며 쉽게 기력회복을 할 수 있었다. <br/> <br/>이렇게 갑작스러운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은 암이나 2대 질병 역시 진단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런 탈장이나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어 매우 인기가 높다. <br/> <br/>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은 전반적인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 가입 조건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5년 이내 과거의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직업 또는 연령 등에 의해 보장이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미리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의료실비보험의 대표적인 실비 보장은 보장 범위도 넓고 한도도 넓은 편이지만 의료비용의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비 보장은 중복보장이 불가능한 상품이라 처음 가입할 때 신중하게 알아보고 잘 선택해야 한다. <br/> <br/>그럼에도 보완하고 싶은 보장이 있다면 각종 선택 보장이 있으니 보험사별로 다른 담보를 비교해보고 의료실비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건강이 약한 부분이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 및 상해의 경우 이런 선택 담보로 한번 더 집중보장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r/> <br/>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는 되도록 길어진 수명을 반영하여 만기를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년에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의료비용을 필요로 하는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품에 따라 11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평균 수명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br/> <br/>의료실비보험은 부담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렇기에 이런 상품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게 합리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만기 환급은 빼고 실비 외에는 모두 비갱신형 담보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상품에도 가입한 경우 중복되는 보장인 기본 계약금을 최대한 낮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상품별 가입조건· 가격비교· 보장내용 등을 따져보고 유리하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8.txt

제목: 위암·신장암 원스톱 로봇수술 성공  
날짜: 20141207  
기자: 김태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710015749619  
본문: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발전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복합암을 동시에 수술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br/> <br/>삼성서울병원 소화기외과 배재문 교수와 비뇨기과 서성일 교수는 최근 위암, 신장암이 동시에 발생한 환자 A(55·여)씨를 상대로 로봇을 활용한 ‘원스톱’ 수술에 성공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정기 건강검진 당시 내시경 검사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됐다. 이후 추가 검사 결과 오른쪽 신장에서 3.6㎝ 크기의 암이 또 확인됐다. <br/> <br/> 배재문 교수·서성일 교수의료진은 논의 끝에 로봇 수술로 두 개의 암을 동시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배 교수가 환자 복부에 8∼12㎜의 구멍 5곳을 뚫은 뒤 무려 4시간20분이 걸려 위암 부위를 절제했다. 이어 서 교수가 구멍 4곳을 추가로 뚫은 다음 1시간50분 동안 신장암 부위를 절제했다. 총 6시간10분에 걸친 대수술 후 A씨는 건강을 되찾았다. 병원 측은 “6개월 동안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재발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r/> <br/>배 교수와 서 교수는 이번 성공을 계기로 로봇 수술의 다양한 활용법과 수술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암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면 아무래도 수술 자체에 따른 위험 요소를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또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이다. <br/> <br/>A씨의 경우 위암과 신장암 수술을 할 때 로봇 팔의 진입을 위해 각기 구멍을 뚫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수술 기술이 발전해 진입 부위를 공유하면 미용적 측면 등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교수와 서 교수는 “<span class='quot0'>초기 암 환자에게는 가급적 최소 침습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이번 수술 경과를 대한위암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br/> <br/>김태훈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69.txt

제목: 두 얼굴 '야누스 고양이' 15년 묘생(猫生) 마감  
날짜: 2014120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710015748870  
본문:   <br/> <br/>최장수 두 얼굴 고양이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야누스 고양이’가 최근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br/> <br/>미국 USA투데이 등 외신은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카운티(Worcester County) 그래프턴에 있는 한 수의학교에 머물던 ‘야누스 고양이’가 15세의 나이로 지난 4일(현지시각) 세상을 떠났다고 6일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프랭크 루이’인 야누스 고양이는 그동안 암과 싸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두 얼굴을 갖고 태어난 고양이는 선천성 결손에 의해 제대로 살 수 없지만, 프랭크 루이는 끈질긴 생명력을 바탕으로 주인의 사랑을 받았다. <br/> <br/>프랭크 루이는 지난 2012년 두 얼굴을 가진 고양이 중 가장 오래 산 사실을 인정받아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고양이 주인인 스티븐(여)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야누스 고양이가 있다면 또다시 입양해 기를 생각이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telegram.com 홈페이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0.txt

제목: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으로 미리 암 치료비 대비하자  
날짜: 20141205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510015744247  
본문: 우리나라 전체 암 발병률 중 위암, 폐암, 간암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궁경부암이다. 발병률 높은 암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암 치료비 대비를 위한 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최근 암 발병자 수 증가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증대되면서 암 관련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또 보장 범위는 점점 축소되어 미리 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br/> <br/>암 보장은 암 진단금과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암 진단금이다. 암 진단금은 치료비와 함께 생활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암 발생률이 높은 위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 보장금액이 큰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br/> <br/>처음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갱신형 상품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 꼼꼼하게 비교하고 분석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또 입원비나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은 수시로 되는 상품인지 한 번만 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80세까지만 보장되는 보험 상품 대신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되는 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br/> <br/>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암 보험의 가입인데, 그래서 상품에 따른 보장내용 및 보험료 비교는 필수다. 최근에는 암 보험 상품을 비교하거나 가입순위를 무료로 추천해주는 온라인 암 보험 가격비교추천견적사이트(http://www.insvalley.com/news/measure.jsp)가 암 보험 가입예정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이 곳에서는 단순 상품 비교를 넘어 가입순위 및 만족도· 전문가 의견까지 들을 수 있어 암 보험 가입 시 필수코스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유명 보험회사별 암 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 특약 정보· 보험료 설계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정리하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1.txt

제목: ‘MBC기분좋은날’ 요리하는 한의사가 공개하는 면역치료요리  
날짜: 20141205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510015741286  
본문: 아토피, 천식치료 한의원 프리허그 수원점의 한명화 수석원장요리하는 한의사 한명화 원장이 체온조절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요리를 소개해 화제다. <br/> <br/>MBC기분좋은날에서 의료자문을 맡고 있는 한명화 원장의 맛있는 처방전 레시피는 공개가 될 때마다 많은 호응를 얻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어왔다. <br/> <br/>5일 방영된 MBC기분좋은 날의 주제는 바로 ‘냉증과 열증’이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문제가 되는 체온은 단 1도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br/> <br/>한명화 원장은 냉증과 열증을 치료할 맛있는 처방으로 ‘화이트 수프’와 ‘레드 수프’를 공개했다. 한 원장은 “<span class='quot0'>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어려운 요리는 절대 준비하지 않는다</span>”며 레시피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br/> <br/>이어 “몸이 아프면 인체는 회복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소화기능의 에너지를 줄이려 하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떨어지며 식욕이 줄어든다. 하지만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영양보충이 중요하므로 소화기 부담을 덜 수 있는 죽이나 수프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수프의 형태를 선택한 이유를 함께 밝혔다. <br/> <br/>한 원장은 “냉증에 좋은 ‘화이트 수프’에는 무, 기장, 마늘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무와 같은 뿌리채소는 체온을 올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한다”며 “무의 경우 차가운 성질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나, 날 것과 익힌 것은 성질에 차이가 있다. 익힌 무는 몸을 따뜻하게 데운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차가운 부위에 발생하는 암이나 아랫배가 차가워 발생하는 설사· 무른 변의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는 마늘이 큰 도움이 된다”며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음식”이라고 덧붙였다. <br/> <br/>열증에 좋은 ‘레드 수프’에 대해 한 원장은 “토마토· 양배추와 같은 여름 채소는 수분과 칼륨이 많아 열을 내리고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효과가 좋으며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느타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버섯은 열을 식히는 효능이 있어 아토피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양파와 피망은 너무 차지 않도록 하여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한다”고 전했다. <br/> <br/>끝으로 “음식으로 질환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꾸준히 드시기를 권한다. 또 열증에는 유산소 운동· 냉증에는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냉증과 열증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한의원의 전문치료와 함께 면역요리· 운동을 통한 생활관리를 병행하신다면 냉증과 열증에서 쉽게 벗어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br/> <br/>한편 한의사 한명화는 아토피•천식한의원 프리허그 수원점의 수석원장으로 아토피· 한포진· 두드러기· 지루성피부염· 건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증상)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교장으로 역임한 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의 아토피 힐링캠프와 저서 ‘먹으면서 치료하는 아토피 요리혁명’을 통해 면역요리의 대가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최근 언론 및 방송출연을 통해 요리하는 한의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br/> <br/>최종범 기자 jongbe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2.txt

제목: 매해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의료실비보험으로 대응책 마련  
날짜: 20141205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510015743661  
본문: 현재 우리나라는 매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발전으로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br/> <br/>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는데다가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br/> <br/>거기다 요즘은 의료발전과 신종질병 발생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항목도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r/> <br/>이러한 까닭에 의료비 지출에 대해 미리미리 경제적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 의료실비보험 추천 상품이 대비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실생활의 활용도나 보장이 커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의료실비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지출된 병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br/> <br/>하지만 실손보험은 병원치료비로 지출한 비용 이외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직장보험이나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비례보장을 받는다. <br/> <br/>그리고 예전에는 한 사람이 중복으로 여러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복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의료실비보험에는 의료비 보장 이외에도 많은 특약이 있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암과 같은 중증 질병이나 상해관련· 운전자 보장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 활용하는 것도 좋다. <br/> <br/>다만 실손보장과 달리 선택특약은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비갱신형으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유리할 수 있다. <br/> <br/>또한 병원비 지출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어린이부터 노인· 가족· 부모님 모두 의료실비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기간을 길게 선택하길 권유한다. <br/> <br/>아울러 의료실비보험은 가입 한 날부터 병원비 보장 해주어 가입자의 건강상태나 병력 등의 알릴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과거 병력으로 보장이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건강할 때 실손의료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br/> <br/>최근에는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www.directbh1004.com/medi24.php)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각기 다른 상품마다의 장단점과 보장· 보험료 등의 가입조건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여러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의료실비보험 순위 가격비교 가입이 쉽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3.txt

제목: 다액의 암 치료비, 암보험으로 경제적 부담 던다  
날짜: 20141204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410015734245  
본문: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각종 질병에 대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인데 많은 질병 중 암으로 인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br/> <br/>예전에는 암 발견이 늦고 치료가 어려워 걱정 이였지만 요즘은 눈부신 의료발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조기 암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br/> <br/>그러나 의료발전으로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암은 종류에 따라 치료비가 천차만별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br/> <br/>그러다보니 암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중요한 가운데 개인적인 대비책으로 암 보험 추천 상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암의 경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어린이· 노인·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암 보험으로 치료비용 및 검사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br/> <br/>다만 판매회사에 따라 보장이나 보험료· 가입조건 등이 달라지므로 암 보험 가입 순위 및 가격비교를 통해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 비교가 필요하다. <br/> <br/>먼저 암 보험은 암 진단금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하는데 암 발생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보장을 축소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br/> <br/>특히나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생식기암의 경우 점차 소액암으로 보장을 줄이는 추세여서 암 보험 가입 시 암 진단금을 확인하길 권장한다. <br/> <br/>그리고 암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어 보험료 함께 올라가게 되므로 어릴 때 암 보험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저렴하며 암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기간을 길게 선택하길 권유한다. <br/> <br/>또한 암 보험은 여타 다른 보험과 달리 가입 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90일의 면책기간과 보험사별로 1~2년 미만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 <br/> <br/>그래서 건강하고 어릴 때 준비해야 하며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 특성상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 가입자의 나이나· 상황· 병력· 보장 등을 비교했을 때 갱신형 암 보험이 유리할 수 도 있다. <br/> <br/>상품마다 장단점이 달라 최근 암 보험 비교사이트(www.ins-119.com/allam-care.php)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기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비교가입이 쉽고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알아볼 수 있어 효율적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4.txt

제목: [영양칼럼] 똑똑한 비타민 이야기\_11 예민한 장 건강에 좋은 음식 및 건강기능식품 추천  
날짜: 20141204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410015732865  
본문: 장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br/>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위· 소장 그리고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배설되며 체내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면 위에서 먼저 음식물이 소화되고 소장에서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흡수된다. 마지막으로는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음식물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설되게 되는데 이 기능들이 적절하게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br/> <br/>장 건강이 왜 중요할까요? <br/>사람의 장에는 100가지 종류 이상, 그리고 약 100조 개 이상의 균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균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함께 먹고 살아간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의 비율이 잘 맞아야 하는데 특히 유익균이 많고 유해 균이 적은 바람직한 장내 세균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상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 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 설사나 면역 능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 장 건강에도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장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br/>장은 나이와 잘못된 배변 습관 등의 요인으로 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정제설탕 및 인스턴트 식품, 수분이 적은 과자류· 과도한 육식· 항생제 복용· 스트레스· 술과 담배 등의 잘못된 식습관도 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대장균과 같은 유해한 균은 영양분을 가지고 암모니아와 아민 등의 유독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 유독물질은 다시 장에서 흡수되고 우리 몸에 독성을 나타내어 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br/> <br/>장 건강해지는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br/>장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장내에 존재하는 음식 찌꺼기들이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설물 양이 많으면 장벽을 자극시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 깨끗한 장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br/> <br/>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는 배설물의 부피를 늘려 원활한 배변활동을 유지시키도록 도와주며 우유(젖산)를 포함한 유산균 음료나 발효식품은 유익균을 통해 바람직한 장내 세균총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튼튼한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조리할 때에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r/> <br/>장 건강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br/>건강한 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균을 장까지 살아서 가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기능에 도움을 주고 장에 유익한 균을 공급해 준다. <br/> <br/>유익한 균은 유기산을 만들어 장을 산성화 시켜주기 때문에 산성에 약한 유해균의 성장을 저해해주며 바람직한 장내 세균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익균은 유해균이 생성하는 유독물질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비타민을 합성하여 영양소를 보충해주므로 장내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주면 장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r/> <br/>장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 <br/>? 장은 입과 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다. <br/>? 음식물은 위와 장에 각종 영양소로 소화되어 온몸으로 운송된다 <br/>? 침과 소화액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장의 운동이 약해지면 변비에 걸리기 쉽다. <br/>?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장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br/>?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br/> <br/>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중 자일로 올리고당은 무엇일까? <br/>사람들은 올리고당하면 설탕 대용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올리고당은 대장에 들어가서 비피더스라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자일로 올리고당은 섭취 시 위에서 흡수되거나 변하지 않고 대장까지 가기 때문에 열량(Kcal)문제가 없다. 또한 자일로 올리고당은 효소와 같이 뜨거운 온도에 민감하지 않을뿐더러 당뇨환자에게도 해가 되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해도 좋다. <br/> <br/>건강에 유익한 자일로 올리고당은 식물섬유(옥수수심)을 효소 분해하여 제조되며 비피더스균에 활성을 갖는 올리고당으로 pH안정성 및 열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기분 좋은 단맛을 가지고 있다. 사람 인체에는 자일로 올리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소화 흡수되지 않고 직접 대장으로 흘러 비피더스균과 유익균을 촉진시키는데 올리고당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주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r/> <br/>기초가 탄탄해야 할 어린이의 맞춤 영양관리를 위한 스페쉬의 아테네 키즈는 13가지의 비타민 미네랄과 유산균 외 다양한 부 원료가 한 알 속에 함유되어 있어 예민한 장 건강은 물론 균형 있는 영양관리와 성장발달에 효과적이다. 또한 아테네 키즈는 장내 유익균 증식과 유해군 억제 및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능성을 인정 받은 자일로 올리고당이 들어 있어 장 건강관리에 좋다. <br/> <br/>채소나 과일을 싫어해 영양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어린이나 비타민, 자일로 올리고 당 등의 영양 성분을 따로 챙겨먹기 어렵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좋다. 특히 장의 활동이 약해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이라면 자일로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관리에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5.txt

제목: [류현민의힐링스토리] ‘마음의 毒’ 제거하기  
날짜: 20141204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410015738208  
본문: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오오.” 김동명 시인은 마음을 호수로 비유했다. 평소 잔잔하게 맑아 보이는 호수도 돌풍이 불면 물결친다.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호수를 흐트러트린다. 우리 마음도 호수와 같다. 별걱정 없이 평온하다가도 막상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거나 비난받기라도 하면 마음은 곧장 흔들린다. 호수를 흐리는 찌꺼기들처럼 마음에서 별별 생각들이 일어난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마음을 오염시키고 아프게 한다. 일종의 마음의 독소이다.  <br/> <br/>류현민 한국전인치유연구소장·뷰티건강관리학불교에서는 마음의 독소로 세 가지를 꼽는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온갖 걱정과 근심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삼독(三毒)이다. 좋다 여기는 것을 더욱 원하는 마음. 싫은 것에 화나는 마음. 좋고 싫음에 가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마음의 독이다. 이 때문에 윤회의 사슬에 매이니 인생이 고(苦)다. <br/> <br/>탐욕은 마치 거센 불길과도 같다.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이 본능적인 욕구뿐 아니라 다양한 성취욕들을 잘못 다스렸다간 자칫 마음을 잿더미로 만들지도 모른다. 분노는 칼과 같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어리석음은 어둠이다. 대상을 자기식대로 판단 내리는 오류는 삶을 어둠의 나락에 빠지게 한다. <br/> <br/>몸도 마음도 독소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진다.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마음의 호수 바닥을 청소할 필요가 있겠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한들 청정한 마음 여여(如如)하지 않겠는가. <br/> <br/>마음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명상이 좋다. 명상은 마음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다. 명상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에 따라 사마타(Samatha) 명상과 위파사나(Vipasana) 명상으로 구분된다. 사마타 명상은 주의를 강하게 집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호흡이나 소리, 촛불 등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한다. 집중의 결과 수많은 생각이 사라진다. 탐욕과 분노가 제거되면서 고요함에서 오는 자유를 얻는다. 위파사나 명상은 주의를 기울이되 좀 더 부드러운 집중이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몸의 느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식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단지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관찰하는 방법이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이 제거되면서 지혜로부터 오는 자유를 얻게 된다. <br/> <br/>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 교황 프란치스코는 마음의 해독제로 ‘희망’을 꼽는다. 희망은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에 대한 해독제라 하였다. 최근 그는 터키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 이슬람 지도자와 합동예배를 올림으로써 종교 간 화합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바 있다. 천 년간의 반목에서 화합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안겼다. <br/> <br/>삶을 단순화시키면 마음도 단순화된다. 여기에 긍정과 희망, 감사와 용서라는 양식을 섭취하면 마음에 새로운 길이 나기 시작한다. 사실 마음은 길들이기 나름이다. 긍정과 희망적인 생각의 반복은 마음의 길을 새로 닦는 작업이다. 긍정의 신경 고속도로가 깔리면 삶의 패턴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br/> <br/>류현민 한국전인치유연구소장·뷰티건강관리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6.txt

제목: "최경환 아저씨, 저는 화가 났습니다"…연고대에 대자보 등장  
날짜: 2014120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410015735007  
본문:   <br/> <br/>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등장했다. 작년 하반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약 1년 만이다. <br/> <br/>최근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과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 등에는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를 붙인 이들은 연세대와 고려대생이 운영하는 20대 대안 미디어 ‘미스핏츠’ 회원들로 추정되며, 최씨 아저씨는 최 부총리다. 이들에 게재한 대자보는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br/>이들은 “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나 있습니다”라며 “아저씨가 하신 말 때문에요”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계급장 떼고,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상상해 봅시다”라며 “요즘 욕 많이 드시느라 힘들다고 소주 한 잔 따르신다면 그거 냅다 뺏어 제 잔부터 채우렵니다”라고 덧붙였다. <br/> <br/>글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여해 한 말을 비판하고 있다. 당시 최 부총리는 “<span class='quot0'>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정규직 과보호로 겁 난 기업이 (인력을) 못 뽑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r/> <br/>이들은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는 걸로 들린다”며 “우리는 정규직 과보호가 불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만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라고 되물었다. <br/> <br/>이들은 “정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하다”며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라며 “이건 권유, 애걸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같이’ 좀 살길을 찾아봅시다”라고 글을 맺었다. <br/> <br/> <br/> <br/>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신 말 때문에요. 총리 대 찌질이 대학생으로 말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우리가 그냥 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요즘 욕 많이 드시느라 힘들다고 소주 한 잔 따르신다면, 저는 그거, 냅다 뺏어 제 잔부터 채우렵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삶은 아저씨 생각이랑 많이도 다릅니다. <br/> <br/>작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은 암으로 죽고, 20대는 자살로 죽었답니다. 장년층이 속 곪아 암으로 죽는다면, 청년층은 애쓰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천 삼백만원어치 빚을 지고 대학을 나갑니다. 요즘엔 취업도 힘들어서, 1년 정도 '취준'하는 건 찡찡될 축에도 못 끼고요. 기업들은 '스펙초월'이다 뭐다 하는데, 주변에 토익점수 하나 없이 이력서 쓰는 애들, 본 적 없습니다.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 두 명이 야근하는 분량을 합치면 일자리 하나는 거뜬히 나오는데 왜 채용인원은 그렇게 적습니까. <br/> <br/>고생대결 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잘 좀 해보자고요. 우리도 부모한테 빚 안지고, 독립해서 멀쩡히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이 고생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 데 가고 싶어한다고요. 이 빚, 본인이 못 갚으면 부모 빚 되고 형제 빚 되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못 만들면 청년만 손해가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또 하나의 부모 최경환씨? 우리가 취업 못하고, 창업 망하고, 집 못사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고요. 우리가 엄마아빠가 가진 부동산들 안 사주면 집은 누가 사고, 부모님 받으실 연금은 누가 내요. 청년이 이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끊으면, 달릴 힘이 어디서 날까요? <br/> <br/>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 낸다고 저희 미래 책임져 주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60살 되면 남는 연금이 없을테니까요. 예? 그러면서 20만원 지원하고 다자녀 낳으라고 하고요. 택도 없네요. 자꾸 이렇게 헛소리 하시면 우리는 순순히 애를 낳아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청년을 '봉'으로 알고 선거때만 빛 좋은 개살구를 던지면, 우리는 순순히 연금을 내주지도, 집을 사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br/> <br/>맞습니다. 협박입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이유는 아저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되서 불만인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니, 트렌드따라 '창조적'이라고 해드릴께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 <br/> <br/>아저씨,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들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못드리고 내복 한 벌 못사드릴 거라고요.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설마, 애 기를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을 저에게 뭔가 막 기대하고, 그러실 거 아니죠? <br/> <br/>정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래를 갉아먹고 지금 당장 얼마나 배 부를 수 있습니까?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 세대에게 짐을 미뤄두고, 장년 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br/> <br/>아저씨,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건 권유나 애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 '같이' 좀 살 길을 찾아봅시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7.txt

제목: 2013년 태어난 아이 男 78.5년, 女 85.1년 산다  
날짜: 20141203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310015728729  
본문: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은 78.5년, 여자아이는 85.1년으로 추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1.0년, 2.2년 길다. 이들이 암으로 숨질 확률은 남자아이가 28.1%, 여자아이가 16.6%였다. <br/> <br/>3일 통계청의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1.9년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2년 출생아(81.4년)보다 0.5년 길다. 성별로는 남자가 78.5년, 여자가 85.1년으로 2012년보다 각각 0.6년, 0.4년 늘었다. <br/> <br/>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 8.4년까지 벌어졌으나 이후 점차 좁혀지고 있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과거와 달리 남성들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기대수명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지난해 기준으로 2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59.0년, 20세 여자는 65.5년이었다. 40세 남성과 여성은 각각 39.7년과 45.9년, 60세 남성과 여성은 각각 22.0년과 27.0년이었다. <br/> <br/>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34개 회원국 중 4위에 해당됐다. 일본(86.4년)과는 1.3년 차이가 났지만 스페인(85.5년)이나 프랑스(85.4년)와는 0.3∼0.4년 차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성은 OECD 회원국 중 18위에 그쳤다. 남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아이슬란드(81.6년)보다 3.1년, 스위스(80.6년)보다 2.1년 각각 짧았다. <br/> <br/>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예상 사망 원인으로는 암이 1위로 꼽혔다. 남자는 암(28.1%), 뇌혈관질환(9.3%), 심장질환(9.1%) 순이었다. 여자는 암(16.6%), 심장질환(11.9%), 뇌혈관질환(11.5%) 순이었다. <br/> <br/>2012년과 비교해 지난해 출생아의 사망원인별 사망확률을 보면 남자는 암(0.5%포인트), 폐렴(0.2%포인트), 자살(0.1%포인트)이 올라간 반면에 심장질환(-0.4%포인트)과 당뇨병(-0.3%포인트)은 내려갔다. 여자는 폐렴(0.4%포인트), 암(0.3%포인트), 뇌혈관질환(0.1%포인트)이 높아졌으나 심장질환(-0.5%포인트)과 고혈압질환(-0.4%포인트)은 낮아졌다. <br/> <br/>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4.7년, 여자가 2.8년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이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1.3년 늘어나고, 뇌혈관질환에 안 걸리면 남녀가 각각 1.2년, 1.3년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65세의 경우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남자는 3.9년, 여자는 2.0년 기대여명이 증가했다. 이들이 뇌혈관질환에 안 걸리면 남자는 1.1년, 여자는 1.3년 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을 경우에도 똑같이 남자는 1.1년, 여자는 1.3년 더 살 것으로 전망됐다. <br/> <br/>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8.txt

제목: 자궁근종, 햇빛샤워로 예방하자  
날짜: 20141203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310015724043  
본문:   <br/> <br/>한국인 결핍 영양소 1위를 차지한 비타민D는 달걀노른자, 생선, 간 등에 들어있지만 대부분 햇빛을 통해 얻는데 자외선이 피부에 자극을 주면 인체 내에서 합성이 일어난다. <br/> <br/>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햇빛을 피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물론 지나친 자외선은 피부에 해롭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햇빛은 여성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요소다. <br/> <br/>햇빛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에 걸릴 위험도를 낮춰준다. 또 햇빛을 많이 쬐면 골다공증,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폐렴, 우울증 등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모두가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D’덕분이다. 그런데 비타민D가 자궁근종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 수는 2008년 21만8988명에서 2012년 28만5120명으로 4년 새 30%나 늘었다. 물론 자궁근종 환자의 48%가 40대이긴 하지만 20~30대 자궁근종 환자도 1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젊은 자궁근종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br/> <br/>하지만 자궁근종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고, 있어도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등 병을 모르고 있다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br/> <br/>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서 매일 1시간 이상을 옥외에서 보내는 여성들의 자궁근종 진단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40% 낮을 뿐 아니라 혈중 비타민D 수치가 충분한 수준을 보인 여성들의 자궁근종 발병률이 혈중 비타민D 수치 결핍에 해당한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32% 낮게 나타나 자궁근종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D가 부족한 산모의 제왕절개시술 비중이 그렇지 않은 산모의 비중보다 2배 더 높다는 것을 밝히고 그 원인을 비타민D가 부족해지면 자궁근육이 약해져 자연 분만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비타민D가 부족해지면 햇볕 쬐기, 비타민D가 함유된 음식물 섭취 등으로 충전할 수 있다. 이중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햇볕 쬐기인데. 햇볕 속 자외선이 피부에 닿아 비타민D가 합성되는 것으로, 하루 15분이면 충분하다. <br/> <br/>단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면 합성되지 않으므로, 해가 강하지 않은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에 햇빛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br/> <br/>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에는 등푸른생선, 동물의 간, 달걀노른자, 버섯 등이 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이나 기름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비타민D는 안정된 생체 원소이므로 장기간 보존 또는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지 않아 비타민D가 함유된 재료를 이용해 요리로 만들어 섭취해도 좋다. <br/> <br/>하지만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면 비타민D의 전구체를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을 쬐어 완벽한 합성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br/> <br/>이러한 연구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들은 실내 생활에 익숙해 햇볕을 쬐기가 쉽지 않고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에 과다노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궁근종에 쉽게 노출된다. 자궁근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인 만큼 자신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br/> <br/>김상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급증하는 자궁근종과 같은 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도 초음파만으로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하이푸시술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 있으니 자궁근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span>”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79.txt

제목: 데치면 좋은 채소, 데쳐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 높아  
날짜: 2014120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310015728084  
본문: 데치면 좋은 채소 게시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데치면 좋은 채소'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게재됐다. <br/> <br/>공개된 게시글에 따르면 데치면 좋은 채소에는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우엉, 시금치, 표고버섯 등이 꼽혔다. <br/> <br/>채소를 데치면 생으로 먹을 때 보다 많은 양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 또한 질소비료를 사용하여 생긴 질산염은 데쳤을 때 50% 이상 감소한다. <br/> <br/>이 채소들은 데쳤을 때 숙성과정이나 조리과정, 다른 재료와의 배합과정에서으로 생으로 먹었을때에는 얻지 못하는 영양소를 우리 몸에 공급한다. 성분들이 농축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br/> <br/>당근의 영양소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은 생으로 먹을 때 체내에 10% 밖에 흡수되지 않지만 익혀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며, 브로콜리에 있는 암을 예방하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도 데치는 과정에서 농축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br/> <br/>데치면 좋은 채소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한데 이를 데쳐 먹으면 조리 과정에서 나쁜 이물질이 제거되고 다른 재료와 배합되면서 좋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br/> <br/>반면 생으로 먹어야 좋은 채소에는 피망, 오이, 양상추, 마늘, 마, 토마토, 무 등이 꼽히고 있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0.txt

제목: WHO, " 자궁경부암 백신 3회에서 2회로, 세포검사 5년마다"로 완화  
날짜: 2014120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310015727454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암정상회의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검진 권고횟수를 기존보다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3일 발표했다. <br/> <br/>WHO는 새 지침에서 9∼13세 여아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현행 3회가 아닌 2회만 접종받도록 권고했다. <br/> <br/>이는 최근 연구결과  HPV 백신을 2회만 접종받더라도 3회 접종과 동일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름이다. <br/> <br/>WHO는 또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여성은 적어도 5년간 재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br/> <br/>현행 권고기준은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세포진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br/> <br/>WHO는 이번에 발표한 새 지침으로 HPV 백신 접종이 수월해지고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br/> <br/>전세계에서 매년 약 27만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는 백신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국민인 것으로 추산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1.txt

제목: 자녀 병원비 보장하는 어린이 태아보험 든든히 준비  
날짜: 20141202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210015716881  
본문: 요즘에는 환경적인 요인들과 산모의 고령출산 등의 원인으로 태아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br/> <br/>특히 최근 기형아 출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다운증후군등과 같은 선천성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br/> <br/>실제로 최근 산모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줄어든 반면 30~40대 분만여성의 수가 많게는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 <br/>이에 따라 예방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태아 때부터 출생 이후까지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태아 보험 어린이 보험 추천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태아 보험은 태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해 보장을 한다. 특히 선천성 질병이나,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br/> <br/>다만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선택함으로 보장 받는 태아 보험은 가입시기를 유의해야 한다. 태아에게 특화된 보장이다 보니 가입시기를 지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br/> <br/>보편적으로 임신 후 22주 내에 태아 보험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22주가 지나게 될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으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그리고 어린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다방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이들은 크고 작은 질병· 사고로 인해 병원 방문이 잦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왕따· 유괴· 납치 등과 같은 보장도 받을 수 있다. <br/> <br/>또한 어린이 태아 보험의 경우 보장성격에 따라 어린이 생명보험· 어린이 실비보험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는 암이나 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 질병에 대한 보장이 크고 정액보장으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손해보험사는 실손보장으로 지출된 의료비만 보장하지만 보장 폭이 넓다. <br/> <br/>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두 보험사의 어린이 태아 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 될 경우 보장의 폭이 좀 더 넓은 어린이 실손보험을 먼저 준비하길 권유한다. <br/> <br/>이처럼 상품마다 보장뿐만 아니라 장단점과 보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태아 어린이 보험 가입 시 순위 가격비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br/> <br/>최근에는 태아 어린이 보험 비교사이트(www.teabigyo.com/tea-medi24.php)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회사의 자녀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비교하기 쉽다. 태아 어린이 보험 가입 시 주는 사은품이나 가입선물 보다는 자녀를 위한 보장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2.txt

제목: 담뱃값 올려 90%는 금연정책 강화 '말로만'  
날짜: 20141202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210015720200  
본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려서 거두는 세금의 90%를 금연정책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편성 예산안에는 30%만 금연정책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세수 확보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br/> <br/>2일 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은 총 3조2762억원이다. 이는 담배 1갑당 부과하는 부담금을 현재 354원보다 487원 오른 841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기금 2조3314억원에 비해 9447억원(40.5%)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기서 금연정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4%에서 7.6%로 206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br/> <br/>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2000원 더 올리면 7700억원이 더 들어오는데, 90% 가까이는 금연정책에 쓰겠다고 예산을 짰다.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편성 예산안에서는 다른 사실이 드러나 국가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공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허언이 된 셈이다. <br/> <br/>그동안 기금에서 금연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칠 만큼 미미했다. 2009년 4.5%, 2010년 4.1%, 2011년 3.8%, 2012년 3.8%, 2013년 3.6%, 2014년 3.4%로 계속 감소했다. 반면 사업운영비는 점차 증가했다. <br/> <br/>기금의 절반이 넘는 돈은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쓰인다. 내년에도 1조5185억원(55.9%)이 건강보험에 들어간다. 일반사업비도 9944억원(36.5%)에 달한다. 정보화 사업에 39억6900만원, 한의약 선도기술개발 사업 106억6500만원 등이다. 금연정책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총액은 7707억원(28.3%)에 불과하다. <br/> <br/>건강증진기금은 목적세인 만큼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br/> <br/>예산정책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금의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이 작아 건강증진사업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암치료 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다른 사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 <br/> <br/>현재 국회에는 담뱃세를 통해 거두는 건강증진기금의 30%는 금연정책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3.txt

제목: 유방암 예방, 적극 관리로 여성성 지켜야  
날짜: 201412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110015706527  
본문: 유방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그 발병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환경, 식습관 등에 의해서 발병하게 되는데, 가족 중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의 여성암을 경험한 사람이 있거나 12세 이전에 초경을 경험하고 55세 이후의 늦은 폐경을 맞은 여성들에게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br/> <br/>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식습관의 변화와 지방섭취의 증가가 유방암 발병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br/> <br/>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0기 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까우나 4기의 경우 30% 미만이다. <br/> <br/>그러므로 증상이 없을 때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방의 변화를 스스로 민감하게 점검하고 감지한다면 유방암 조기 발견은 더욱 쉬워진다. 유방암 자가진단 테스트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br/> <br/>우선 생리 뒤 5일 전후에 거울 앞에 서서 유방의 전체적인 윤곽, 좌우 대칭여부, 유두와 피부함몰여부를 살핀다. 그리고 양손을 올려 유방의 피부를 팽팽하게 한 뒤 피부 함몰 여부를 다시 한 번 관찰한다. <br/> <br/>왼손을 어깨 위로 올린 뒤 오른쪽 가운데 세 손가락의 끝을 모아 유방 바깥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원형을 그리며 유두를 향해 천천히 들어오면서 만져보고 유두를 짜면서 분비물이 있는지 만져보는 방법이다. 겨드랑이에도 멍울이 잡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br/> <br/>유방암에 대한 최신 치료 방법은 치료뿐 아니라 재건과 미용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br/> <br/>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에는 유방즉시재건술로 유방 절제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실시해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잃는다는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까지 생각하는 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첨단수술법으로 각광받는 로봇수술도 유방암치료에 적극 적용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는 “<span class='quot1'>로봇수술로 수술흉터를 최소화하고 등 근육을 이용한 재건을 통해 미용상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어떤 질병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하지 않도록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호르몬제의 사용과 음주량을 줄이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폐경 전 여성은 방사선 조사량을 최소화 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이요법으로는 커피, 차, 초콜렛 같은 음식을 피하고, 지방섭취를 줄이고 야채나 과일 등 섬유질을 증가시키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또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더 오랜 기간 수유를 한 여성일수록 유방암에 적게 걸리고, 젊은 나이에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한 사람일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r/> <br/>최근에 이슈가 된 첨가물 파라벤은 유방암을 유발하긴 하지만 고용량의 파라벤을 한 번에 사용하지는 않는 만큼 큰 위험은 없다. <br/> <br/>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파라벤의 함유량을 확인해 보는 것도 유방암 예방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이라는 질병 자체도 건강에 큰 적이지만, 과도한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건강을 해치는 주범</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4.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에도 악플 계속,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충격'  
날짜: 2014120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110015704350  
본문:   <br/> <br/> <br/>AOA 민아 부친상에도 악플 계속,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충격' <br/> <br/>AOA 민아 부친상이 전해진 가운데 악플이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다. <br/> <br/>AOA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AOA 민아의 아버지가 29일 오전 8시경 암으로 숨을 거뒀다. 고인의 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1일이다. <br/> <br/>소속사 측은 AOA 민아의 부친상에 대해 "고인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투병을 해왔다. (AOA 민아가) 임종을 지킨 뒤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라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추후 활동은 장례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r/> <br/>AOA 민아의 부친상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일부 악플러가 걸스데이 민아를 거론하며 AOA 민아를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주로 언급돼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AOA 민아 부친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AOA 민아 부친상, 이럴수가", "AOA 민아 부친상, 부친상에도 악플다는 애들은 뭐냐?", "AOA 민아 부친상, 진짜 인간들이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5.txt

제목: [양정윤의 내밀한 미술사] 렘브란트의 말년의 작품들  
날짜: 20141201  
기자: 김명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20110015706954  
본문: 예술가의 노년의 작품에서는 오랜 세월 고수해 온 인습적인 표현이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저하된 시력과 떨리는 손 때문에 장시간 작업에 몰두하기 힘들지 몰라도, 그 속에는 늘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원초적인 힘이 숨어있다. 꼼꼼하게 무언가를 잘 그려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던져버린 듯한 물감들이 놀랄만한 색의 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규율에 순응하고  이성으로 통제되는 색과 형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난해하고 모호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감상자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위대한 대가들만이 다다를 수 있는 숭고한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br/> <br/>티치아노, 렘브란트, 터너 그리고 모네의 말년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특징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붓 자국을 캔버스에 고스란히 남겼다는 점이다. 거친 필촉과 넓은 붓면으로 평면을 급히 휘갈겨 그린듯한 자국들이 눈에 들어오고 가까이서는 무엇을 그렸는지 잘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작품에서 좀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것들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억지스럽고 과다하게 표현하는 것을 버리고, 불필요한 과정을 모두 생략했을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 <br/> <br/>런던의 내셔널갤러리에서 렘브란트의 말년의 작품을 총망라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렘브란트의 후기 양식은 명확하게 무언가를 그리려는 의도를 배제한 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폐허와 같은 풍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생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리 없었던 모호한 성향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그 예술적 중요성이 재평가되었다. 결코 사그러들지 않는 빛과 색의 강렬한 힘 속에서 미의 본질,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한계를 넘어선 렘브란트 예술의 정수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위대한 예술가가 숙명처럼 거쳐간 말년의 작품들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도르노에 의한 ‘베토벤의 말년의 양식’ (1937년)이라는 연구로 거슬러올라간다. 오리엔탈리즘으로 일세대를 풍미했던 학자 에드워드 사이드가 유작으로 남긴 ‘말년의 양식에 대하여’라는 책도 기억에 새롭다. 음악과 미술에서 보이는 말년의 작품들은 파격적인 자유와 혁신을 갈망하는 마음과 우주까지 아우르려 하는 의지가 묻어난다. <br/> <br/>아도르노는 베토벤이 말년에 집필한 현악곡과 특히 마지막 교향곡 9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윽고 주관적인 것으로 넘쳐나 통제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그곳에 남겨지고 잊혀 버린듯하다. 주관성이 폭발함과 동시에 그 파편들은 산산이 흩어졌다.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그냥 버려진 채로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에는 그 자체가 표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폭발적인 힘과 거친 부분이 주는 여운은 베토벤의 음악뿐만 아니라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 정도부터 그린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일명 ‘유대인 신부’라는 타이틀로 친숙한 ‘이삭과 레베카’에서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은 강렬한 힘을 찾아볼 수 있다. 숨죽이며 신부의 가슴에 손을 올린 신랑의 오른손과 그 위에 다소곳이 얹어진 신부의 왼손은 앞으로의 인생의 반려자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엄숙한 맹세와도 같다. <br/> <br/>렘브란트의 ‘이삭과 레베카’ (일명 ‘유대인 신부’, 1669년경, 121.5cm x 166.5c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br/>렘브란트의 ‘이삭과 레베카’의 부분 <br/> <br/> <br/>이 그림을 1885년에 처음 본 반 고흐는 자신의 친구에게 “<span class='quot0'>다 말라 푸석푸석해진 빵조각만 먹으며 이 그림 앞에서 2주일 동안만 앉아있을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10년을 포기해도 좋다</span>”라고 고백했다. 평범할 수도 있는 신랑신부의 신체적 접촉은 신비할 만큼 고요하고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팔레트와 캔버스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움직였을 손길이 그대로 느껴진다. 광기를 내뿜듯이 온갖 색의 물감을 불규칙적으로 바르며, 심지어 두꺼운 물감층을 막대기나 나이프로 긁은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물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그의 열정과 혼을 그대로 담아내는 유일한 도구였던 것이다. 마치 음악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목소리까지도 동원해 통합된 우주의 세계로 만들어버린 베토벤의 9번 교향곡처럼 그 무질서한 물감 자국들은 전율을 일으킨다. <br/> <br/>렘브란트의 말년의 작품들이 갖는 특징을 말하기 전에 늘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중년 이후의 그의 삶이다.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야경’이 완성되고, 자신의 부인인 사스키아가 별세한 1642년부터 이후의 27년 동안 천재화가로서의 영광이 아닌 굴곡지고 힘든 고비를 맞이하였다. 작가의 주관적인 색채가 강해질수록 작품의 인기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거듭되다 보니, 결국 개인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의 재판 기록과 개인 파산을 신청한 후 남을 재산을 처분했던 장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r/> <br/>현실로 닥친 금전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화뿐 만 아니라 판화같이 비교적 쉽게 거래가 가능한 분야에도 의욕적으로 도전하였다. 파산이 확정된 직후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새로 지어진 암스테르담 시청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릴 대작 ‘클라우디우스 시빌리스와 바타비아인들의 음모’의 주문을 받은 것이다. 이 기회를 살려 어떻게 해서든 암스테르담 지도층들로부터 다시 많은 주문을 받아 재기할 기회로 삼고 싶어 했던 렘브란트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br/> <br/>렘브란트의 ‘클라우디우스 시빌리스와 바타비아인들의 음모’ (1662년, 196cm x 309cm, 스톨홀름 국립 미술관) 원화는 암스테르담 시청사의 벽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그림으로 교체되고 작품값도 지불하지 않은 불운의 작품이 되었다. 대작인 탓에 처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렘브란트는 원래 사이즈의 4분의 1로 잘라내어 다른 컬렉터에게 판매하였다. 1734년의 암스테르담의 경매 기록에 따르면 니콜라스 콜이라는 상인이 작품을 낙찰하였고, 그의 사후 스웨덴인의 부인의 손으로 넘어가 현재에는 스톡홀름의 국립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br/>애꾸눈의 지도자와 바타비아인 동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칼을 맞대고 서약하는 장면을 선택하였고, 엄숙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극적인 명암의 효과를 이용하였다. 테이블보의 윗면이 발하는 하이라이트는 마치 화면위의 수평선처럼 드러나고, 금속의 칼들이 발하는 반사광에 비친 인물들의 얼굴은 투박하고 웅장하게 등장한다. 복잡한 도상이나 세밀한 표현을 일체 배제하고, 단지 어둠 속에서 발하는 인공적인 빛이 주는 극적 효과와 인물의 심리적인 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동시대의 작가들이 도전했던 세련된 색감과 유행하는 구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장대한 스케일로 연출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br/> <br/>다른 조건들과는 타협하지 않고 극단적인 작가의 비전을 중시한 이 반년도 가지 않아 시청의 벽에서 내려지고 말았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던 이 일이 예기치 못한 결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작품값도 받지 못해 분노한 렘브란트는 대작인 원화를 주요인물들이 들어간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고 말았다.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다른 컬렉터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br/> <br/>렘브란트의 ‘포목상 조합의 이사들’ (1662년, 191cm x 279c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큰 화폭에 다수의 인물을 그린 초상으로는 마지막 작품. <br/>이러한 불운한 결과가 있었을지라도 성공과 실패라는 양분법의 논리로 그의 말년의 작품이 평가될 수 없다.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화풍을 더욱 견고히 했다. 과감하게 화법을 바꾸고, 인물과 사물의 자연스러움을 중시하였다. 암스테르담 포목상 조합원들의 단체 초상화에서 보여지는 섬세한 표정은 마치 그들의 내면의 구현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서서 캔버스 밖의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올 듯한 생동감 넘치는 화면은 원숙의 경지에 도달한 예술가가 아니고서는 보여줄 수 없는 명장면이다.  <br/> <br/>렘브란트의 ‘63세에 그려진 자화상’ (1669년, 86cm x 70.5cm, 런던 내셔널갤러리) 1669년 10월 4일 세상을 떠난 렘브란트가 같은 해 제작한 마지막 초상화. <br/> <br/>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듯, 노년의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생을 마감한 63세의 렘브란트의 모습을 앞에 두고 우리는 붓을 놓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고분 분투한 그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의 사후에 쓰인 전기에서 하우브라켄은 “렘브란트가 인생의 가을 무렵부터 찾아 나선것은 영광이 아닌 자유였다”라고 평했다. 그의 말년의 작품 속에 격정적인 흥분이 사방으로 방사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창작에의 갈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br/> <br/>\*전시회 정보 <br/>렘브란트: 말년의 작품들 <br/>런던 내셔널 갤러리 2014년 10월 15일 ~ 2015년 1월 18일 <br/>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2015년 2월 12일 ~ 2015년 5월 17일 <br/>양정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6.txt

제목: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껍질째 먹고 암 예방까지 함께 1석2조'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1471  
본문: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과채가 누리꾼들 사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미국 여성생활 잡지 위민스 헬스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과 채소 6가지를 소개했다. <br/> <br/>우선 감자의 껍질에는 비타민B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20%가 들어있어 잘 씻기만 하면 된다. 고구마 역시 껍질에 비타민C와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다음으로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암 퇴치 효과가 있는 퀘르시틴과 비타민C, 트리터페노이드 등의 성분도 껍질에 들어있다. 당근은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들어있는 대표적 채소다. <br/> <br/>다섯번째로 오이의 거칠고 어두운 녹색의 껍질 속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막고 위장 건강에 좋다. <br/> <br/>마지막으로 가지의 통통한 표면에는 나수신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뉴트리엔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일종이다.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를 접한 누리꾼들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오늘부터 사과는 그냥 먹어야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고구마도 그렇구나",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건강 챙겨야지 미리미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7.txt

제목: 초겨울 뇌졸중 경보, '극심한 온도차 조심하세요..준비운동 필수'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0938  
본문:   <br/> <br/>초겨울 뇌졸중 경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최근 내린 비와 함께 온도가 떨어지며 초겨울 뇌졸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r/> <br/>뇌졸중은 심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혈관에서 생기는 병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된다. 60세 이상 사망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무서우 병이다. <br/> <br/>먼저 뇌출혈은 약해진 혈관벽이 높은 혈압을 이기지 못한 채 터지는 병이다. 뇌경색은 혈관이 좁아지다 결국 막히는 병이다 뇌경색은 콜레스트롤 등이 이유다. <br/> <br/>이러한 뇌졸중은 한국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초겨울 뇌졸중 경보가 일어나는 것은 집안과 밖의 기온차가 극심한 이유가 있다. 급격하게 낮아지는 기온에서 무리하게 운동하고 힘쓰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높아지는 것. 따라서 초겨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이 필수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8.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부친 곁에서 극진 간호했지만...모든 일정 중단'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0160  
본문:   <br/> <br/>걸그룹 AOA의 민아가 부친상을 당했다. <br/> <br/>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민아는 출연중인 SBS 드라마 '모던파머'의 촬영을 제외한 시간에는 부친 곁에서 간호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 <br/>소속사 측은 "민아가 모던파머 촬영은 물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장례를 마친 뒤 추후 활동을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br/> <br/>AOA 민아의 부친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AOA 민아 부친상, 이제 막 뜨기 시작했는데..." “AOA 민아 부친상, 이런일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정신차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부친상을 당한 민아는 29일 MBC '쇼! 음악중심'의 무대에 서지 못했으며, 나머지 멤버들은 검은색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89.txt

제목: AOAO 민아 부친상, '30일 인기가요 나머지 멤버들만 오른다'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0731  
본문:   <br/> <br/>걸그룹 AOA의 민아가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민아는 출연중인 SBS 드라마 '모던파머'의 촬영을 제외한 시간에는 부친 곁에서 간호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 <br/>소속사 측은 "민아가 모던파머 촬영은 물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장례를 마친 뒤 추후 활동을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br/> <br/>AOA 민아의 부친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AOA 민아 부친상, 이제 막 뜨기 시작했는데..." “AOA 민아 부친상, 이런일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정신차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부친상을 당한 민아는 29일 MBC '쇼! 음악중심'의 무대에 서지 못했으며, 나머지 멤버들은 검은색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0.txt

제목: 초겨울 뇌줄중 경보, '부모님 외출시 반드시 '이것만' 주의하세요'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3270  
본문:   <br/> <br/>초겨울 뇌줄중 경보, '부모님 외출시 반드시 '이것만' 주의하세요' <br/> <br/>초겨울 뇌졸중 경보와 예방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br/> <br/>최근 내린 비와 함께 온도가 떨어지며 초겨울 뇌졸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r/> <br/>뇌졸중은 심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혈관에서 생기는 병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된다. 60세 이상 사망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무서우 병이다. <br/> <br/>먼저 뇌출혈은 약해진 혈관벽이 높은 혈압을 이기지 못한 채 터지는 병이다. 뇌경색은 혈관이 좁아지다 결국 막히는 병이다 뇌경색은 콜레스트롤 등이 이유다. <br/> <br/>이러한 뇌졸중은 한국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초겨울 뇌졸중 경보가 일어나는 것은 집안과 밖의 기온차가 극심한 이유가 있다. 급격하게 낮아지는 기온에서 무리하게 운동하고 힘쓰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높아지는 것. 따라서 초겨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이 필수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1.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활동 중단하면 아버지가 살아나냐?' 무개념 악플…'공분'  
날짜: 2014113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0161  
본문:   <br/> <br/>AOA 민아 부친상 <br/> <br/>걸그룹 AOA의 민아가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의 악플에 팬들이 공분했다. <br/> <br/>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29일 "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br/> <br/>또한 소속사 측은 "민아가 모던파머 촬영은 물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장례를 마친 뒤 추후 활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왔으며 민아는 출연중인 드라마 SBS '모던파머'의 촬영을 제외한 시간에는 부친 곁에서 간호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br/> <br/>이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의 악플이 팬들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악플러들은 "활동 중단하면 아버지가 살아나냐? 그런 정신력이면 영원히 활동 중단하길", "걸스데이 민아인 줄. AOA 같은 그룹은 상관없음" 등의 댓글을 남겼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AOA 민아 부친상, 민아 힘내세요", "AOA 민아 부친상, 개념없는 것들. 다 잡아야돼", "AOA 민아 부친상, 빨리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AOA는 MBC '쇼! 음악중심'의 무대에 이어 30일(오늘) SBS '인기가요' 등의 무대에도 민아 없이 나머지 멤버들만 오를 예정이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2.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개념 상실 악플러 또 등장 "활동 중단할 정신력이면 영원히 중단해"  
날짜: 2014113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2034  
본문:   <br/> <br/>AOA 민아 부친상 <br/> <br/>걸그룹 AOA의 민아가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파렴치한 악플에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br/> <br/>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29일 "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며 "민아가 모던파머 촬영은 물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장례를 마친 뒤 추후 활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r/> <br/>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왔으며 민아는 출연중인 드라마 SBS '모던파머'의 촬영을 제외한 시간에는 부친 곁에서 간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의 개념을 상실한 악플이 눈에 띄고 있다. 일부 악플러들은 "활동 중단하면 아버지가 살아나냐? 그런 정신력이면 영원히 활동 중단하길", "걸스데이 민아인 줄. AOA 같은 그룹은 상관없음" 등의 댓글을 남겨 네티즌들을 공분하게 했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AOA 민아 부친상, 악플다는 것들은 사람도 아냐", "AOA 민아 부친상, 민아 힘내길 바랍니다", "AOA 민아 부친상, 다 잡아서 죗값 치르게 해야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AOA는 MBC '쇼! 음악중심'의 무대에 이어 30일(오늘) SBS '인기가요' 등의 무대에도 민아 없이 나머지 멤버들만 올랐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3.txt

제목: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6가지는? '함께 먹고 건강관리 하세요'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1314  
본문: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과채가 공개됐다. <br/> <br/>미국 여성생활 잡지 위민스 헬스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과 채소 6가지를 소개했다. <br/> <br/>우선 감자의 껍질에는 비타민B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20%가 들어있어 잘 씻기만 하면 된다. 고구마 역시 껍질에 비타민C와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다음으로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암 퇴치 효과가 있는 퀘르시틴과 비타민C, 트리터페노이드 등의 성분도 껍질에 들어있다. 당근은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들어있는 대표적 채소다. <br/> <br/>다섯번째로 오이의 거칠고 어두운 녹색의 껍질 속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막고 위장 건강에 좋다. <br/> <br/>마지막으로 가지의 통통한 표면에는 나수신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뉴트리엔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일종이다.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를 접한 누리꾼들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오늘부터 사과는 그냥 먹어야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고구마도 그렇구나",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건강 챙겨야지 미리미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4.txt

제목: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6가지, '껍찔째 먹어야 효과 2배'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3138  
본문: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6가지, '껍찔째 먹어야 효과 2배'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과채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미국 여성생활 잡지 위민스 헬스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과 채소 6가지를 소개했다. <br/> <br/>우선 감자의 껍질에는 비타민B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20%가 들어있어 잘 씻기만 하면 된다. 고구마 역시 껍질에 비타민C와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다음으로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암 퇴치 효과가 있는 퀘르시틴과 비타민C, 트리터페노이드 등의 성분도 껍질에 들어있다. 당근은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들어있는 대표적 채소다. <br/> <br/>다섯번째로 오이의 거칠고 어두운 녹색의 껍질 속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막고 위장 건강에 좋다. <br/> <br/>마지막으로 가지의 통통한 표면에는 나수신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뉴트리엔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일종이다.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를 접한 누리꾼들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오늘부터 사과는 그냥 먹어야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고구마도 그렇구나",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건강 챙겨야지 미리미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5.txt

제목: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6가지, '건강에 더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2980  
본문: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6가지, '건강에 더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과채가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미국 여성생활 잡지 위민스 헬스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과 채소 6가지를 소개했다. <br/> <br/>우선 감자의 껍질에는 비타민B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20%가 들어있어 잘 씻기만 하면 된다. 고구마 역시 껍질에 비타민C와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다음으로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암 퇴치 효과가 있는 퀘르시틴과 비타민C, 트리터페노이드 등의 성분도 껍질에 들어있다. 당근은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들어있는 대표적 채소다. <br/> <br/>다섯번째로 오이의 거칠고 어두운 녹색의 껍질 속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막고 위장 건강에 좋다. <br/> <br/>마지막으로 가지의 통통한 표면에는 나수신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뉴트리엔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일종이다.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를 접한 누리꾼들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오늘부터 사과는 그냥 먹어야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고구마도 그렇구나",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건강 챙겨야지 미리미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6.txt

제목: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함께 먹어 더 건강한 채소+과일 6가지'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2168  
본문: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과채가 화제다. <br/> <br/>미국 여성생활 잡지 위민스 헬스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과 채소 6가지를 소개했다. <br/> <br/>우선 감자의 껍질에는 비타민B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20%가 들어있어 잘 씻기만 하면 된다. 고구마 역시 껍질에 비타민C와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다음으로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암 퇴치 효과가 있는 퀘르시틴과 비타민C, 트리터페노이드 등의 성분도 껍질에 들어있다. 당근은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들어있는 대표적 채소다. <br/> <br/>다섯번째로 오이의 거칠고 어두운 녹색의 껍질 속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막고 위장 건강에 좋다. <br/> <br/>마지막으로 가지의 통통한 표면에는 나수신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뉴트리엔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일종이다.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를 접한 누리꾼들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오늘부터 사과는 그냥 먹어야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고구마도 그렇구나",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건강 챙겨야지 미리미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7.txt

제목: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이제는 까먹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날짜: 2014113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3010015701534  
본문: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이제는 까먹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과채가 화제다. <br/> <br/>미국 여성생활 잡지 위민스 헬스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과 채소 6가지를 소개했다. <br/> <br/>우선 감자의 껍질에는 비타민B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20%가 들어있어 잘 씻기만 하면 된다. 고구마 역시 껍질에 비타민C와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다음으로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암 퇴치 효과가 있는 퀘르시틴과 비타민C, 트리터페노이드 등의 성분도 껍질에 들어있다. 당근은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들어있는 대표적 채소다. <br/> <br/>다섯번째로 오이의 거칠고 어두운 녹색의 껍질 속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막고 위장 건강에 좋다. <br/> <br/>마지막으로 가지의 통통한 표면에는 나수신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뉴트리엔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일종이다. <br/> <br/>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를 접한 누리꾼들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오늘부터 사과는 그냥 먹어야지",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고구마도 그렇구나",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건강 챙겨야지 미리미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8.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촬영 없을 때 늘 아버지 곁 지켜 '활동 잠정 중단'  
날짜: 20141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910015699596  
본문:   <br/> <br/>aoa 민아, 부친상.. 촬영 없을 때 늘 아버지 곁 지켜 '활동 잠정 중단' <br/> <br/> aoa의 멤버 민아가 부친상을 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br/> <br/>29일 민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민아의 부친 권모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1일이다. <br/> <br/>고인은 3개월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투병을 해왔다. SBS 드라마 '모던파머'에 출연 중인 민아는 드라마 촬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내며 간호해왔고 이날 임종을 지킨 뒤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aoa 민아 부친상에 네티즌들은 "aoa 민아, 힘내요" "aoa 민아, 안타까워" "aoa 민아, 얼마나 속상할까" "aoa 민아,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499.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촬영 없을때마다 아버지 곁 지켜..'안타까운 마음'  
날짜: 20141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910015699893  
본문:   <br/> <br/>AOA 민아 부친상, 촬영 없을때마다 아버지 곁 지켜..'안타까운 마음' <br/> <br/>AOA의 멤버 민아(21·본명 권민아)가 부친상을 당했다. <br/> <br/>AOA 멤버 민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 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br/> <br/>고인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투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SBS 드라마 ‘모던파머’에 출연 중인 민아는 드라마 촬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내며 간호해 왔다. 이날 임종을 지킨 뒤 깊은 슬픔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br/> <br/>AOA 민아 부친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많이 힘들겠네</span>”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많이 힘내세요</span>”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너무 안쓰럽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0.txt

제목: 창원요양병원, 통증 치료기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mabler)’ 도입  
날짜: 20141128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810015693728  
본문: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또 다른 국내 연구결과에는 암 환자의 50~60%가량이 적절한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br/> <br/>암 환자에게 통증은 당연한 결과일까, 실제 암환자들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등으로 암을 치료하지만 시기가 늦을 수록 암에 의한 고통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그 고통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든다. <br/> <br/>이러한 암성 통증을 그냥 방치할 경우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불러와 우울증과 불안증 등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br/> <br/>이러한 통증 문제는 암 치료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 또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암성 통증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br/> <br/>창원요양병원(병원장 이창현)이 최근 통증 치료기인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mabler)’ 도입에 속도를 낸 배경도 이 같은 환자들의 통증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다. <br/> <br/>그 동안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저주파 치료 등이 쓰였다. 약물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통증 치료이지만 변비· 졸림· 구토증· 호흡곤란· 배뇨장애· 입 마름 증상 등 소소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또 효과 지속 시간이 짧은데다 체내 신호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br/> <br/>이번에 창원요양병원이 도입한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mabler)는 이런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통증 치료기로 평가된다. <br/> <br/>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mabler)의 특징은 ‘비침습’ 치료 방식’이라는 점이다. 인위적으로 무통증 신호를 만든 후 이를 척추 통증 부위 주변 피부에 부착하고 비침습 전극을 일으켜 뇌에 전달하는 식이다. 통증 신호와 무통증 신호를 섞은 채 뇌로 전송, 전혀 다른 신호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통증을 잊게 하는 원리인 셈이다. <br/> <br/>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mabler)는 이미 유럽 CE마크, 미국 FDA 허가를 받아 유럽 지역, 미국, 인도 등과 수출계약을 체결해 2009년 말부터 국외에 수출되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신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보험적용을 위해 처치코드(CPT-3 code)를 획득하기도 했다. <br/> <br/>창원요양병원 이창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도입한 페인 스크럼블러(Pain Scrmabler)에 의한 비침습적 암 통증 치료는 현재까지 실시 하고 있는 치료법 가운데 암성 통증환자의 통증 지수를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술로 판단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부작용 없이 깔끔한 시술 역시 높은 환자 만족도의 한 요인이다</span>”라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1.txt

제목: 분당차병원, 복막암에 '복강내 고온열 항암화학요법' 실시  
날짜: 201411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810015696090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는 복막암 및 난소암 환자에 항암제 온도를 높여 암세포를 전멸시키는 ‘복강내 고온열 항암화학요법(하이펙, HIPEC)’을 본격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하이펙은 먼저 복막암 및 난소암 환자들의 미세 암 조직이나 복강 사이에 남아있는 종양세포에 고농축 항암제를 일정시간 동안 42~43도의 고열과 함께 복막 내에 관류시킨다. <br/> <br/>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 열에 약해 40℃에서 변하는 점을 이용, 고온을 사용해 암조직에만 영향을 미치고, 열과 항암제의 상승효과로 침투력을 높여줘 수술로도 제거하지 못한 미세한 종양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br/> <br/>배속에 퍼진 모든 종양을 제거하는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면 남아있는 미세한 병소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반복시술이 가능하여 전이 결절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다. <br/> <br/>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이준모 교수는 “<span class='quot0'>난소암으로 인한 복막암 환자에서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고온항암화학 관류요법을 시행한 경우, 기존의 항암화학요법과 비교 시 생존기간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무엇보다 난소암과 복막암의 특징인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2.txt

제목: 전자담배 발암물질 '담배 끊을려고 피다가 암걸리게 생겼네' 일반담배보다 10배 많은 발암물질  
날짜: 201411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810015697645  
본문: 전자담배 발암물질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br/> <br/>전자담배 발암물질이 일반담배 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일본 TBS방송은 일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이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 증기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다고 한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장인 구누기타 나오키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전자담배의 액상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최대 10배가 많았다</span>”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일반환경에서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다. <br/> <br/>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특정 향 등이 첨가된 액체를 가열해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일반 담배와 달리 냄새가 나지 않는다.  <br/> <br/>이에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담배가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br/>앞서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태아와 청년층에 유해하다고 경고하며 각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br/> <br/>또한 지난 18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br/> <br/>한편 28일 오후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폭을 정부가 발표한 2000원으로 요구해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1500원 인상을 주장해 왔다. <br/> <br/>앞서 지난 9월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최초 발표한 바 있다. 유성엽 수석부의장은 "합의해도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할건데"라며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암시했다. <br/> <br/>전자담배 발암물질 담뱃값 2000원 인상 잠정합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발암물질, 충격” “전자담배 발암물질 담뱃값 2000원 인상 잠정합의 , 이럴줄은 몰랐네” “전자담배 발암물질 담뱃값 2000원 인상 잠정합의 , 담배란 담배는 백해무익하구나”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3.txt

제목: 檢, 신도들에게 주식사라고 부추겨 200억원대 손해 입힌 목사 영장청구  
날짜: 2014112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810015696735  
본문: 교회 신도들에게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0원)을 "장래가 매우 밝은 회사이다"며 50만원에 사라고 해 2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r/> <br/>28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원곤 부장)는 특경법상 사기·주식매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기독교 모종파 목사 A(7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r/> <br/>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의 한 비상장회사가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줬다. <br/> <br/>액면가의 100배로 주식을 산 신도들은 소스란히 손해를 봤다. <br/> <br/>회사 고문을 맡은 A씨는 설교를 통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며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A씨가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 <br/> <br/>A씨는 검찰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검찰은 A씨에게 경영 보고를 한 이 회사 전·현직대표 3명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br/> <br/>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월 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4.txt

제목: 파라벤 치약·화장품 유해성 논란…“연구 더 필요해”  
날짜: 201411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710015686069  
본문: 화학 보존제인 ‘파라벤이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 <br/>파라벤은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돼 세균성장을 억제하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방부제다. 현재 화장품 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br/> <br/>27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는 “<span class='quot0'>파라벤이 유방암 발생을 높인다는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다</span>”고 밝혔다. <br/> <br/>유방암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비만, 생활습관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한 가지만 콕 집어 단정할 수 없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br/> <br/>실제로 파라벤 장기간 사용은 유방암뿐 아니라 우리건강에 완전히 무해한지, 아니면 직접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관련 없음. <br/> <br/>즉, 유방암의 발생에는 파라벤이라는 단일요소 외에도 수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br/> <br/>하지만 유방암 발병에 있어 여성 호르몬 노출기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즉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고, 임신기간이 짧을수록 유방암의 발생확률은 높아진다. <br/> <br/>이때 이 에스트로겐과 발암물질인 파라벤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우리 몸에 흡수될 경우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유방암 환자의 유방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파라벤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br/> <br/>다만 파라벤(p-hydroxybenzoic acid esers, parabens)은 에스트로겐에 비해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이 만 배에서 백만 배 가량 약하기 때문에 유방 조직에서 암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파라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br/> <br/>이에 따라 국내와 유럽, 미국의 파라벤 기준은 단일 0.4%, 혼합은 0.8%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br/> <br/>정승필 교수는 “<span class='quot0'>제한규정을 준수한 제품이라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양이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유방암과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파라벤의 장기간 사용이 유방암뿐 아니라 우리건강에 완전히 무해한지, 아니면 직접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뿐 아니라 과학자, 정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5.txt

제목: 대한림프부종학회 새 회장에 김이수 교수  
날짜: 201411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610015680399  
본문: 김이수(사진) 한림대 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이 최근 열린 대한림프부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br/> <br/>26일 한림대 성심병원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유방암 치료의 권위자로 꼽힌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환교수 자격으로 연수를 했다. 미국암연구학회(AACR) 회원으로 매년 학회에 참석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 학술지의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것은 물론 유방암 관련 학회의 위원장과 이사를 역임했고, 2013년에는 한국유방암학회 부회장으로 뽑혔다. <br/> <br/>대한림프부종학회는 2004년 11월 림프부종과 관련된 기초 및 임상적 연구와 림프부종의 예방, 교육, 진단 및 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들이 모여 결성했다. 매년 2회의 심포지엄과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br/> <br/>림프부종은 림프계 손상이나 기능 이상에 의한 림프액 수송 능력저하에 의해 조직에 과도한 부종과 단백물질 축적, 염증 및 섬유화가 초래되는 만성질환이다. 특히 암 치료 후 발생하는 이차성 림프부종은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br/> <br/>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0'>2차성 림프부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암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들을 매일 현장에서 만나 치료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림프부종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환자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6.txt

제목: 서울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암보다 무서워  
날짜: 2014112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610015676764  
본문: 서울시 10~30대 젊은층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전체 서울시민 사망원인 1위는 암이였다.  <br/> <br/>26일 서울시 통계포털 서울통계의 '서울시민 건강 및 사망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4만2000명으로 31%(1만3028명)가 암으로 죽었다. <br/> <br/>암을 이어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자살(6.1%), 당뇨병(4%) 순으로 죽은 이가 많았다. <br/> <br/>이른바 '3대질환'인 암, 심·뇌혈관으로 서울시민의 절반 가까이(47.6%)가 사망했다. <br/> <br/>20대 51.6%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10대는 35.1%, 30대 39.7%를 차지하는 등 서울 청춘들의 사망원인은 자살이 압도적이었다. <br/> <br/>40대 사망원인은 암(32.0%), 자살(19.7%), 간질환(7.2%) 순이었고, 50대는 암(40.8%), 자살(10.6%), 심장질환(6.5%), 60대는 암(48.8%), 뇌혈관질환(6.9%), 심장질환(6.5%) 등 나이가 많아질 수록 질병에 의한 사망이 많았다. <br/> <br/>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8.8세에서 지난해 82.9세(여성 86세, 남성 79.7세)로 늘었다. <br/> <br/>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50.9%에서 지난해년 44.5%로 줄었다. <br/> <br/>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최근 1년동안 한달에 1회이상 음주)은 2008년 57.7%에서 지난해 60.7%로 증가했지만 건강에 해가 될 정도의 고위험 음주율은 같은 기간 20.3%에서 17.5%로 떨어졌다. <br/> <br/>월간 음주율은 남성 75.3%에서 77.1%로, 여성은 40.8%에서 45.1%로 증가폭이 더 높았다. <br/> <br/>성인 흡연율은 2008년 24.2%에서 지난해 21.7%로 감소했다. 여성 흡연율이 3.7%로 변동이 없는 반면 남성은 45.6%에서 5년새 40.6%로 낮아졌다. <br/> <br/>서울시민 비만율은 2008년 20.6%에서 지난해 23.2%로 늘었다. 남성 비만율이 30.6%로 서울 남성 열에 셋은 비만상태로 조사됐다. <br/> <br/>지난해 여성 비만율은 16%로 낮았지만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41%에 달해 객관적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7.txt

제목: '팍팍한 젊음' … 1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날짜: 20141126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610015683701  
본문: 지난해 서울 지역의 사망자 중 10∼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노년층을 비롯한 전체 사망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br/> <br/>서울시가 26일 발간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주요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4만2063명이었다. 2008년 3만8298명 이후 지속적으로 늘면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375.6에서 420.1로 높아졌다. <br/> <br/>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31%(1만3028명)를 차지했다.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자살(6.1%), 당뇨병(4%), 폐렴(3.7%) 등이 뒤를 이었다. 여러 원인 중 암과 자살은 10년 전에 비해 사망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3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8.3%(1만659명), 자살은 4.4%(1670명)였다. <br/> <br/>특히 10∼30대 사망자의 원인은 자살이 1위였다. 지난해 10대 사망자 151명 중 35.1%, 20대 사망자 552명 중 51.6%, 30대 사망자 1092명 중 39.7%가 자살했다. 전체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줄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 <br/>10대 사망 원인은 자살(35.1%·53명)에 이어 암과 운수사고가 각각 15.2%(23명)를 차지했다. 20대는 자살이 51.6%(285명)로 반 이상을 차지했고, 암(12.7%)과 운수사고(10.3%)가 뒤를 이었다. 40대와 5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고, 자살은 2위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1위 암에 이어 2위 뇌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기대수명은 82.9세로 2000년(78.8세)보다 4.1세 높아졌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8.txt

제목: 국립암센터·홈플러스, 유방암 극복 '의기투합'  
날짜: 201411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610015679676  
본문: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왼쪽)이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에게서 유방암 치료비 및 심리치료 기금을 전달받고 있다.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홈플러스와 함께하는 ‘핑크플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유방암 환자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핑크플러스 캠페인’은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여성가족부·국립암센터·한국유방암학회·대한암협회 등과 손잡고 벌이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br/> <br/>유방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립암센터 사회사업실을 통해 접수받으며,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의료 사회복지사 및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제적 상황, 의료적 상황, 외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br/> <br/>국립암센터와 홈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와 치료 종결 후 2년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유방암 전문의 등 주관 하에 심리교육, 인지요법, 표현적 글쓰기, 영화를 통한 마음 치유, 심신요법 등으로 구성된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총 10회에 걸쳐 시행한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여성이 암에 걸리면 본인도 매우 힘든 시간이지만 가족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캠페인을 통해 유방암 환자 및 가족들이 유방암을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심리 치료 프로그램은 타병원 환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031)920-1279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09.txt

제목: 국내 비뇨기과 여의사 1호가 누구냐고요?  
날짜: 201411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610015680970  
본문: 여의열전/박효순 지음/경향신문/1만8000원대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해 진료에 종사 중인 이는 8만7668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1만9604명으로 전체의 5분의 1을 훌쩍 넘어 22.4%에 이른다. 1980년 당시 1918명에 불과했던 국내 여의사가 30여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br/> <br/>여의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 기준으로 수련의(인턴)의 32%, 전공의(레지던트)의 35%가 각각 여성이기 때문이다. <br/> <br/>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계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의사가 다른 직종보다 진입이 훨씬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면 여의사의 증가는 그저 변화하는 사회상의 일부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의사는 반드시 의학을 전공해야 하고 교육 기간도 총 6년으로 일반 4년제 대학보다 훨씬 길다. <br/> <br/>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의사 46명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저자는 단순히 그들의 ‘성적’과 ‘실력’에만 주목한 게 아니다. 남자가 읽어도 감동할 만한 ‘스토리’를 담으려 애썼다. 남편의 외조를 받으며 늦깎이 인턴에서 골수 간경화 치료의 희망봉으로 떠오른 박정화 교수,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 1호 윤하나 교수, 위암으로 부친을 잃은 뒤 암 치료 권위자가 된 최은경 교수, 간호사에서 의사로 변신해 노화방지의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홍기연 교수….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저마다 숨겨둔 감동적인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풀렸다. <br/> <br/>길병원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추천사에서 “<span class='quot0'>여의사가 드문 시절 환자들조차 여의사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 여의사들은 남자 의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야 했다</span>”고 회상했다. 이순남 이화여대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이제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통할 여의사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span>”라고 강조한다. <br/> <br/>저자는 신문사에서 25년 넘게 병원만 취재한 건강의료 전문기자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수여하는 ‘생명사랑대상’을 받았으며, 현재 네이버 캐스트에 ‘건강 날날날’을 연재하고 있다. 전국 50여개 대학병원 원장과 원로 여의사, 병원 홍보 전문가 등에게서 추천을 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엄선했다. 저자 이름만 보고 ‘아, 여기자라서 여의사에 관한 책을 썼구나’ 하고 생각할 독자가 많겠으나 저자는 남자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0.txt

제목: 윤영호 교수 ‘건강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특강  
날짜: 20141126  
기자: 조정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610015679160  
본문: 윤영호 교수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26일 오후 3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제4회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br/> <br/>이번 행사는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등을 저술한 윤영호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br/> <br/>서울대병원 의사로 25년간 한국인의 죽음을 연구해온 저자는 “<span class='quot0'>탄생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삶의 일부</span>”라고 말하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촉구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저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법과 죽음을 맞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br/> <br/>강연 신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도서관소식>행사안내)에서 할 수 있다. 접수는 100명 선착순 마감, 참가비는 없다. 강연 후에는 추첨을 통하여 참가자 30명에게 저자의 사인이 담긴 저서 1권씩 증정할 예정이다. <br/> <br/>이 행사를 기획한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 해당하는 저자를 초청하여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02)3483-8822 <br/> <br/>조정진 기자 jj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1.txt

제목: 더 테너 유지태, 촬영 중 생긴일 밝혀... '총괄 매니저 세상 떠났다'  
날짜: 201411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510015673330  
본문: 더 테너 유지태‘더 테너’ 유지태가 해외 촬영 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화를 공개했다. <br/> <br/>25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는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연 배우 유지태와 차예련 등이 참석했다. <br/> <br/>이날 유지태는 “세르비아 촬영 중 총괄 매니저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 아파했다. 우리 영화가 세르비아 영화제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 곳에 가서 조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한편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유럽 오페라 스타 배재철(유지태 분)이 갑작스레 갑상선 암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자 아내 윤희와 친구 사와다가 그의 성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오는 12월31일 개봉 예정이다. <br/> <br/>더 테너 유지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 테너 유지태, 영화 기대되네”, “더 테너 유지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속상하겠다”, “더 테너 유지태, 안타까운 일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2.txt

제목: 더 테너 유지태, '촬영 중 총괄 매니저 사망' 안타까운 사연 고백  
날짜: 201411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510015673481  
본문: 더 테너 유지태‘더 테너’ 유지태가 해외 촬영 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화를 공개했다. <br/> <br/>25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는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연 배우 유지태와 차예련 등이 참석했다. <br/> <br/>이날 유지태는 “세르비아 촬영 중 총괄 매니저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 아파했다. 우리 영화가 세르비아 영화제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 곳에 가서 조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한편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유럽 오페라 스타 배재철(유지태 분)이 갑작스레 갑상선 암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자 아내 윤희와 친구 사와다가 그의 성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오는 12월31일 개봉 예정이다. <br/> <br/>더 테너 유지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 테너 유지태, 영화 기대되네”, “더 테너 유지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속상하겠다”, “더 테너 유지태, 안타까운 일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3.txt

제목: 더 테너 유지태, 해외촬영 중 스태프 사망 "세르비아에서 조우를...”  
날짜: 201411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510015671193  
본문:   <br/> <br/> <br/>배우 유지태가 영화 촬영 중 겪은 일을 털어놨다. <br/> <br/>25일 유지태는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감독 김상만·제작 (주)모인 그룹) 제작보고회에서 “<span class='quot0'>세르비아 촬영 중 총괄 매니저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span>”라고 전했다. <br/> <br/>지난 4개월 동안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촬영 팀은 세르비아, 일본에서 체류하며 해외에서 촬영을 감행했다. 그 기간 중 영화 총괄 매니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것이다. <br/> <br/>유지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 아파했다. 우리 영화가 세르비아 영화제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 곳에 가서 조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br/> <br/>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유럽 오페라 스타 배재철(유지태)이 갑작스레 갑상선 암으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고 이에 아내 윤희와 친구 사와다는 그의 성대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영화이다. <br/> <br/>한편 김상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유지태, 차예련, 이세야 유스케, 나타샤 타푸스코비치, 키타노 키이 등이 출연하며 오는 12월 31일 개봉예정이다. <br/> <br/>이에 네티즌들은 "더테너 유지태, 힘들었겠네." "더테너 유지태, 힘들었던 만큼 작품 잘 나왔겠지." "더테너 유지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4.txt

제목: "우리 같이 치즈 먹자"…4살 아이의 연애편지  
날짜: 2014112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510015671587  
본문:   <br/> <br/>4살짜리 남자아이가 무려 ‘2년간’ 알고 지내온 여자아이에게 보낸 연애편지가 공개돼 네티즌들을 살며시 웃음 짓게 하고 있다. 혹시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멘트에 익숙하다면, 이번 편지는 꽤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br/> <br/>영국 미러 등 외신은 베넷(4)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동갑내기 친구 베일리(4·여)에게 건넨 연애편지와 관련해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베넷은 최근 베일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베넷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는 단 몇 줄이지만, 보는 이가 미소 짓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베넷의 연애편지는 아이 엄마 제니퍼가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널리 퍼졌다. <br/> <br/>"베일리 /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 우리 같이 놀자 /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난 네가 말이나 무당벌레처럼 예쁘다고 생각해 / 우리 집에서 같이 치즈 먹자 / 난 네가 좋아, 그리고 어젯밤에 이가 빠졌어 / 너를 위해 마술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로봇과 싸우는 걸 보여주고 싶어" <br/> <br/>중간중간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4살 남자아이의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낭만적인 내용이다. 제니퍼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도 되겠느냐”고 물어봤으며, 베넷은 “네”라고 답했다. <br/> <br/>물론 베넷이 직접 편지를 쓴 건 아니다. 베넷은 소파에 앉아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냈으며, 제니퍼가 옆에 앉아 아들의 ‘대사’를 옮겨 적었다. 특히 베넷은 말하는 내내 베일리의 ‘노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계속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니퍼는 베일리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br/> <br/>겉으로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사실 이 안에는 슬픔이 담겨 있다. 베넷이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니퍼는 “아들이 곧 검사를 받는다”며 “<span class='quot0'>이번 편지가 아들에게 어떤 기분전환의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메트로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5.txt

제목: 더 테너 유지태 “해외 촬영 중 매니저 심장마비로 사망”세르비아가서 조우할 예정...  
날짜: 201411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510015671589  
본문:   <br/> <br/> <br/>배우 유지태가 영화 촬영 중 겪은 가슴아픈 사연을 털어놨다. <br/> <br/>25일 유지태는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감독 김상만·제작 (주)모인 그룹) 제작보고회에서 “<span class='quot0'>세르비아 촬영 중 총괄 매니저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span>”라고 전했다. <br/> <br/>지난 4개월 동안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촬영 팀은 세르비아, 일본에서 체류하며 해외에서 촬영을 감행했다. 그 기간 중 영화 총괄 매니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지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 아파했다. 우리 영화가 세르비아 영화제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 곳에 가서 조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br/> <br/>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유럽 오페라 스타 배재철(유지태)이 갑작스레 갑상선 암으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고 이에 아내 윤희와 친구 사와다는 그의 성대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영화이다. <br/> <br/>한편 김상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유지태, 차예련, 이세야 유스케, 나타샤 타푸스코비치, 키타노 키이 등이 출연하며 오는 12월 31일 개봉예정이다. <br/> <br/>이에 네티즌들은 "더테너 유지태, 마음 아팠겠다." "더테너 유지태, 힘들었던 만큼 작품 잘 나왔겠지." "더테너 유지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6.txt

제목: 암보험으로 부담스런 암 치료비 경제적 고민 잡는다  
날짜: 20141124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410015660698  
본문: 우리나라는 암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중인 암 유병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 <br/>다행이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료발전과 암 검진 사업을 통해 암 발견이 빨라져 치료가 가능해지고 암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 <br/> <br/>그러나 여전히 각종 원인으로 암 발생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암 치료 시 들어가는 고액의 의료비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br/> <br/>암 치료비는 암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어린이부터 노인· 남성· 여성 모두 암 보험 추천 상품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br/> <br/>암 보험은 암 치료 시 들어가는 수술비나· 입원비· 치료비 등의 전반적인 경제적 보장을 하며 암 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br/> <br/>그래서 암 보험 보장금액과 보장범위를 충분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먼저 남녀에게 자주 발병되는 암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다. <br/> <br/>남성은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암 발병률이 높고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은데 발생률이 높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생식기암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암 보험의 보장범위를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br/> <br/>그리고 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고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해 가능한 보장금액이 클수록 좋다. 다만 보장금액이 커질수록 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br/> <br/>또한 암 보험 보장기간을 길게 선택하며 연령이나 병력 등에 따라 보장이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비교적 건강하고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길 권유하다. <br/> <br/>아울러 갱신형,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갱신형은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갱신형에 비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르지 않아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부담이 적어 유리할 수 있다. <br/> <br/>단, 가입자의 조건· 연령· 병력· 보장성격에 따라 갱신형 암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암 보험 순위 가격비교를 통해 가입하길 권장하며 다른 보험과 달리 면책기간이 있어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br/> <br/>한편 암 보험 비교사이트에서는 이처럼 상품마다 다른 장단점과 보험료, 보장 등을 비교하기 쉽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7.txt

제목: 이대의료원, AIA와 손잡고 '여성암 극복' 후원  
날짜: 2014112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410015663475  
본문: 이순남 이화여대의료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AIA생명 한국지점 다니엘 코스텔로 대표(왼쪽 두 번째)로부터 여성암 극복 지원금 2억원 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이화여대의료원이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한국지점과 손잡고 여성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br/> <br/> 이대의료원은 24일 이대여성암병원 다목적실에서 ‘여성암 환우 암 극복 지원금 전달식’을 열어 AIA생명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전달식에는 이대의료원 이순남 원장,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AIA생명 한국지점 다니엘 코스텔로 대표, 마크 스탠리 부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과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 <br/> <br/> 이대의료원은 이번 여성암 환우 암 극복 지원금을 통해 여성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환우를 대상으로 입원비 및 외래 치료비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암 무료 검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암 환우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는 여성암을 앓고 있는 환우와 가족을 선정해 치료 동기를 고취하고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2013년 제주도에서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br/> <br/> 이순남 이대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AIA생명의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암 환우들이 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성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암 예방과 치료,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8.txt

제목: AIA생명, '여성암 환우 및 여성 건강 증진' 지원  
날짜: 20141124  
기자: truth@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4100000098  
본문: 이대여성암병원에서 마크 스탠리 AIA생명 부대표, 다니엘 코스텔로 AIA생명 대표,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왼쪽부터)이 AIA생명의 저소득층 여성암 환우들의 암 극복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사진=AIA생명AIA생명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여성암 환우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24일 AIA생명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이대여성암병원 다목적실에서 저소득층 여성암 환우들의 암 극복을 위한 지원금 2억원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다니엘 코스텔로 AIA 생명 대표, 마크 스탠리 AIA생명 마케팅 총괄 부대표,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참석해 여성암 극복 및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AIA생명은 지난해부터 이대여성암병원 의료원과 손잡고 저소득층 여성암 환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을 통해 AIA생명과 이화 의료원은 여성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환우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입원비 및 외래 치료비를 지원한다.또한 강서·양천 지역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여성암 무료 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검진 대상자는 30세부터 70세 여성으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기본건강검진을 비롯한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여성암을 앓고 있는 환우 가족을 선정해 치료 동기를 고취하고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고자 '힐링여행'을 지원할 예정이다.AIA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환우 10명의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가족들과의 야외활동 및 동행하는 의료진들과의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암투병으로 지친 여성 환우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전했다.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다니엘 코스텔로 대표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 친화적 보험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AIA생명은 앞으로도 여성암뿐 아니라, 여성특화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여성의 건강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AIA생명은 여성암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이대여성암병원 의료진과 여성 건강 관련 전문 컨텐츠를 제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19.txt

제목: AIA생명, 여성암 환자 위해 2억 기탁  
날짜: 20141124  
기자: 김수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410015665301  
본문: AIA생명 한국지점 관계자들이 24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저소득층 여성암 환자들의 치료 지원금 2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AIA생명 마케팅 총괄 마크 스탠리 부대표(왼쪽부터), 다니엘 코스텔로 대표, 이순남 이대 의료원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r/> <br/>AIA생명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0.txt

제목: 윤영호 교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특강  
날짜: 2014112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410015663468  
본문: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26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2시30분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br/> <br/> 이번에 초청한 저자는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사진) 교수다. 윤 교수는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등의 저서로 유명하다. <br/> <br/> 윤 교수는 ‘건강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의사로서 25년간 한국인의 죽음을 연구해 온 저자는 “<span class='quot0'>탄생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삶의 일부</span>”라며 “<span class='quot0'>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span>”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 저자는 특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법과 죽음을 맞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줄 계획이다. <br/> <br/> 강연 신청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 할 수 있다. 접수는 100명 선착순 마감이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강연 후에는 추첨을 통하여 참가자 30명에게 저자의 사인이 담긴 저서를 한 권씩 증정한다. <br/> <br/>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 해당하는 저자를 초청하여 행사를 실시해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02)3483-8822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1.txt

제목: 의사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무장 병원'  
날짜: 20141124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410015665006  
본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명 ‘사무장병원’들이 고령이나 병이 들어 진료가 어려운 의사를 고용하고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br/> <br/>대전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사무장병원 인가를 도운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성모(49)씨를 구속하고, 송모(56)씨 등 병원 사무장 6명과 의사·간호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건소 공무원 강모(5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으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성씨는 2010년 6월 송씨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받고 서류를 꾸며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차리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송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충남 공주 등지에 의료생협 또는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운영, 3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의료생협은 산간·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한 제도다. <br/> <br/>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명의만 빌린 뒤 출자금은 대납하고 본인이 직접 출자한 돈은 기부받은 것으로 꾸며, 의료생협 병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또 다른 사무장은 종교법인에 월 200만원 상당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렸다가 들통났다. <br/> <br/>이들은 80세가 넘는 고령의 의사는 물론 신용불량자이거나 심지어 암에 걸린 의사까지 고용해 진료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br/>또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과잉 진료를 요구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놓거나 물리치료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br/> <br/>강부희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span class='quot0'>무료로 점심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한편 의사들에게 필요없는 처방을 하도록하는 등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2.txt

제목: 암 환자들에게 책 읽어주는 의사 '눈길'  
날짜: 2014112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310015655111  
본문: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장 김희철 교수가 환자 및 그 가족들과 책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삼성서울병원 암병원(원장 심영목)이 대장암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책 읽기 특강을 열어 화제다. 주인공은 대장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소화기외과 김희철 교수다. <br/> <br/>23일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19일 암병원 지하 1층 암교육센터에서 대장암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장암 극복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대장암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20명을 초청해 대장암 극복으로 유명한 이해인 수녀의 저작 ‘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를 함께 읽으며 건강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br/> <br/>강연을 진행한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을 극복하신 이해인 수녀님의 책을 같이 읽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환자분들이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는 좋은 기회였다</span>”고 소감을 전했다. 환자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강연에 참가한 한 환자는 “암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환자의 언 마음을 녹여 주었다”고 감사의 말을 남겼다. <br/> <br/>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암 환자들의 정신적 쾌유를 돕는 ‘암 전문의의 책 읽기 특강’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02)3410-6619, 6603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3.txt

제목: [아름다운 동행]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41123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310015657137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 up your life’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r/> <br/>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다. <br/> <br/>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이 캠페인을 통해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br/> <br/> 아모레퍼시픽이 2001년 처음 실시한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4년을 맞는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셀러 및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 여성 암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올 상반기까지 총 8654명의 여성 암환우 및 2872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올해에도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전국 35개 병원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전개하고 있다. <br/> <br/>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의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br/> <br/>핑크리본캠페인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이 있다. 마라톤 대회는 유방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200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4.txt

제목: 암 치료! 한방으로 도전하다  
날짜: 20141122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210015653694  
본문: 11월 21일 KNN 메디컬 24시 닥터스에서 한방치료로 암을 이겨내고 있는 환자들의 도전 같은 이야기가 방송됐다. <br/> <br/>암 선고 이후 수술과 항암화학 치료를 견디면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이 환자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한방으로 항암 부작용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증상이 완화 되었는지 환자 개별 맞춤 치료·식생활 관리까지 한방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인터뷰를 통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br/> <br/>한방 부작용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화학 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암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한 진행성 위암 환자인 A씨와 개구장애로 식사조차 힘들었다는 B씨가 한방치료로 다시 새로운 삶을 아가고 있는 모습 또한 카메라에 담겼다. <br/>  <br/>통합암치료 방선휘한의원은 한방치료의 우수성과 통합암치료의 발전을 위해 외국의 통합종양학 학회 연수와 지속적인 논문발표를 하고 있다. <br/> <br/>방선휘 대표원장은 “항암화학적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손발저림· 오심· 구토· 식용부진 등을 동반한 면역력 저하이다. 이런 부작용이 항암화학 치료 중 계속 지속된다면 기력저하로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하지만 항암 부작용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치료를 할 경우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유지 강화시켜 항암화학 치료 스케줄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5.txt

제목: 편도암 수술 후 ‘개구장애’, “통합면역암치료 받고 개선”  
날짜: 20141122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210015653693  
본문: 지난 21일 KNN 에서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치료법과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통합면역암치료’에 관하여 자세히 방송되었다. <br/> <br/>특히 실제로 항암 부작용 치료중인 환자 · 항암치료 및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환자 · 암을 완치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자 등의 사례 인터뷰는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또한 방송을 통하여 소개된 ‘통합종양학’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방송에서 소개된 실제 환자들의 치료 사례 인터뷰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특히 편도암 3기 진단(2012년11월) 후 수술을 받은 이씨(54)의 경우 방사선치료 30회와 더불어 항암화학치료 6회 등으로 인하여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를 겪게 되었다. <br/> <br/>2013년 5월 이씨는 개구장애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 시작 후 개구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 반응은 없었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심하여 재활치료 자체를 중단하였다. 이씨의 개구장애가 호전이 되지 않자 식사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체중도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가족의 권유로 인해 방선휘한의원에 내원. ‘통합면역암치료’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br/> <br/>이씨는 통합면역암치료 과정 중 초반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이 호전되고 있음을 느꼈다. 기력이 회복되길 희망하며 매일 내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씨. 방선휘한의원의 한방암치료와 이러한 이씨의 노력으로 겪고 있던 개구장애는 치료전 2mm에서 43mm로 개선되었다. 특히 이씨의 경우 구강건조 상태가 심각해 평소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치료를 통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br/> <br/>방선휘 대표원장은 “암 선고 자체가 삶의 종료가 아니라 암을 치료해나가는 여정이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면역감시체계 회복과 강화 그리고 암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br/> <br/>현재 이씨는 “개구장애가 개선되어 그동안 줄었던 식사량이 많이 늘었다”며, “개구 범위도 유지 되고 있고 체중도 64kg에서 74kg 까지 증가했다. 이제는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나 즐겁다.”고 웃음을 보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6.txt

제목: MRI검사, 직장암 항문보존절제 수술 선택에 유용  
날짜: 2014112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41362  
본문: MRI촬영이 진행성 직장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후 종양크기 감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오승택, 김준기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장홍석 교수, 성빈센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종훈 교수팀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전남대학교병원 등과 함께 다진행성 직장암 2,3기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 후 수술 전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br/> <br/>이 중 방사선 치료 후 종양 크기가 감소해 예후가 좋은 직장암 1기로 떨어지거나 0기로 종양이 아예 없어진 26명을 따로 뽑아 실제 직장암 침범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MRI촬영 당시 예측됐던 병기 그대로 수술 병리 결과를 얻은 환자는 23명(88%)으로 높은 정확성을 나타냈다. <br/> <br/>직장암이 발생하면 수술 전 암 세포가 퍼지는 것을 제한하고 암 세포 크기를 줄이며 수술 후 항문보존을 위해 6주간 고농도의 방사선 치료 후 근치적 절제수술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2주 줄인 4주 치료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장홍석 교수팀이 발표했다. <br/> <br/>그동안 방사선치료 후 종양 반응을 예측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직장암 환자 수술 시 외과의사 재량 하에 항문 보존여부를 판단해왔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직장암 환자들은 수술 전 항문 보존 여부를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br/> <br/>오승택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로 MRI검사가 직장암 환자에서 종양의 크기 및 림프절 침범유무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등 병기설정은 물론이고 항문 보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직장암 환자의 정확한 방사선치료 후 병기를 MRI 검사로 예측해 최소침습수술을 통해 항문 보존율을 높임으로써 직장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방사선종양학회 공식지(Radiotherapy and Oncology) 9월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7.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치료율 보니???  
날짜: 20141120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41857  
본문: 인체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종양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을 때 이를 인식하고, T-세포에 공격을 요청하는 손가락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세포인 수지상세포가 세간의 이목을 모은 바 있다. <br/> <br/>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개별화의료의 전략적 전개’를 주제로 열린 제19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수지상세포를 한 단계 발전시킨 ‘다가(多價)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을 발표했다. <br/> <br/>아베 박사의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항원)을 찾아내고 추가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법과는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r/> <br/>아베 박사는 표준치료(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를 할 수 없는 전이· 재발암 환자에게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적용했고, 치료는 2주에 1번씩 총 6회(1싸이클)로 했으며 효과판정은 혈액검사와 영상진단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br/> <br/>다가 신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 결과, 진행성 폐암환자 22중 15명(68.2%)에서 효과가 있었고, 진행성 대장암환자 32명 중 19명(59.4%)에서 효과와 진행성 췌장암환자 42명 중 18명(42.9%)에서 치료효과를 얻었다. <br/> <br/>치료는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 종합검사 후 환자의 수지상세포에 평균 5개의 펩타이드를 추가 사용했다. 사용된 펩타이드는 써바이빈· MAGE-A3· NY-ESO-1· GV1001· WT1· MUC1· CEA· CA125 등이며 아베종양내과는 암세포 인지능력을 가진 다양한 항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GV1001은 유럽에서는 이미 특정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펩타이드(항원)이며, 한국에서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 허가한 췌장암 치료제다. 아베 박사는 췌장암 이외에서도 GV1001이 효과가 있어 일본의 임상시험계획(IND)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임상실험 중인데, 이 임상실험은 폐암과 위암· 췌장암· 유방암 등 암종별 환자 4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주)선진바이오텍이 공동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br/> <br/>인체에서 암세포 살상을 담당하는 것은 킬러T세포다. 이 킬러T세포는 면역세포의 사령탑인 수지상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수지상세포는 암세포의 표식인 항원을 기억해 킬러T세포에게 암세포의 정보를 전달·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하게 된다. <br/> <br/>이 같은 획득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와 그 역할을 발견한 랄프 슈타인만 박사는 지난 201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일본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슈타인만 박사가 주축이 된 연구회 소속으로 슈타인만 박사의 독자적인 지식을 전수받아 기존의 단순한 수지상세포 치료법이 아닌 항암작용이 더욱 강력한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br/> <br/>하지만 인체에 존재하는 수지상세포는 1% 미만이고 정맥혈액에는 0.1% 미만이라, 소량 채혈해서는 수지상세포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임파구만 배양해 치료하는 수준이어서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 <br/> <br/>또 기존 치료는 성분채혈에 약 5,000ml가 필요했고 2~3시간이 소요돼 환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사용할 수 있는 펩타이드(항원)는 1~2 종류 정도였으며 단쇄(單鎖) 펩타이드라 치료효과도 부족했다. 또 동결보관 후 해빙해 치료에 사용하면 물리적 결합된 항원이 떨어지고 정맥주사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br/> <br/>아베 박사는 정맥혈에 있는 8~11%의 단구를 분리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량인 약 25ml 채혈만으로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가능하다는데 착안했다. 아베 박사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후 여러 종류의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가 추가로 사용되며, 사용된 펩타이드는 장쇄(長鎖)라 항암 작용기간이 길며 암세포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로 한다. <br/> <br/>아베종양내과는 지난 7월 이 치료법으로 특허(특허 제5577472호)를 받기도 했다. 암세포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사람의 같은 암세포라 해도 표면에 제시된 항원(암표시)가 틀리므로 그 다양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펩타이드와 일치되는 킬러T세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박사의 주장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8.txt

제목: 유방암 조기 발견, 자가검진 가장 중요  
날짜: 20141120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40201  
본문: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유방암 환자는 2001년 약 7천명에서 2011년 1만5천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해 전체 여성 암의 15%를 차지 할 정도다. <br/> <br/>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유방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유전적 요인이나 에스트로겐 분비 등 다양한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나 기름진 음식 등을 즐겨 먹고 비만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br/> <br/>민병원 유방센터 김종민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약 50% 정도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는 전이가 쉽고 예후 또한 좋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암은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것이 좋고, 발생 요인이 큰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보통 30-40대부터 유방암 정기 검진을 받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20대부터 정기적으로 유방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폐경기 이후 여성 중 과체중이거나 복부비만이 심하다면 관심을 갖고 자가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br/> <br/>유방암은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다. 물론 자가 검진만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자가 검진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이 작고 섬유조직이 많기 때문에 유방을 스스로 만져 진찰해보는 자가 검진이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다. <br/> <br/>검진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생리가 있는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직 후 일주일 전 후 가장 검사하기 좋은 시기이고, 임신 혹은 폐경 등으로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자가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br/> <br/>자가검진 시 주의해야 할 소견으로는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한쪽 유방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지거나 피부가 귤껍질 같고 평소와 다르게 유두가 들어가 있는 듯 한 증상이 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전문의의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하다. <br/> <br/>유방암 검사는 간단하게 엑스레이 혹은 초음파 검사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방 속 젖을 만드는 유선 조직이 조밀한 치밀 유방이 대부분이라서 엑스레이 검사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검사는 엑스레이와 유방 초음파를 적절히 활용해 함께 진단해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br/> <br/>유방암이 발견됐다면 암의 크기가 작더라도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암 크기가 크면 유방절제술 시 유방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항암치료 후 악성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시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br/> <br/>김종민 원장은 “<span class='quot1'>실제로 자가 검진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유방암인 경우가 상당수</span>”라며 “<span class='quot1'>자가 검진도 좋지만 대충하면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의 있게 자가 검진을 실시해야 정확도가 높아지고 작은 변화를 발견하기 쉬워진다</span>”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29.txt

제목: 성장통, 우울증... 원인은 비타민D 부족  
날짜: 20141120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40110  
본문:   <br/> <br/>실내 활동은 늘고 야외활동은 부족해지는 겨울이 왔다.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어야 건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br/> <br/>이러한 생활습관은 비타민D 부족을 초래한다. 비타민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로,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햇볕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다. 비타민 D는 호르몬처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타민D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br/> <br/>햇빛을 통해 생성된 비타민D는 칼슘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 칼슘 중 일부는 소장벽을 통해 스스로 흡수되지만 상당 부분은 그냥 통과한다. 비타민D는 이렇게 배출되는 칼슘을 소장벽으로 운반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br/> <br/>비타민D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질환에 걸릴 수 있다. 골다공증은 물론 면역력을 낮추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구루병을 유발하고 경련, 근력 저하, 호흡기 감염 증가, 심장 근육병증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부 신경과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기 쉽고 기억력이 떨어져 인지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 <br/> <br/>비타민D의 충분한 공급은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한 살 이전에 비타민D를 충분히 보충해주면 천식이나 1형 당뇨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도 비타민D가 부족한 겨울철에 더 잘 발생하고 잘 낫지도 않는다. <br/> <br/>◆젊은 여성, 다이어트로 골다공증 위험 <br/> <br/>비타민 D는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몸 안에 최대한 많이 재흡수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 골다공증 골절 예방 성분으로도 불린다. 젊을 때 우리 인체에 칼슘, 비타민D 등을 최대한 많이 축적해 놓아야 나이 들어서도 높은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br/> <br/>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마른 체형을 추구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 섭취량이 적은데다 피부 노화를 우려해 햇볕 쬐기를 꺼리고 있다. 때문에 뼈가 튼튼해야 할 젊은 여성들에게도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40대 이후 골다공증을 앓을 확률이 높다. <br/> <br/>◆비타민D 부족은 우울증도 유발 <br/> <br/>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을부터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흔히 기후 변화를 꼽는다. <br/> <br/>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다. 햇볕이 비추는 시간이 점점 줄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나 호르몬이 변화해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많다. <br/> <br/>계절성 우울증의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되도록 햇볕 아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집에만 있는 건 절대 금물이다. <br/> <br/>◆아동 성장통, 비타민D 복용으로 낮출 수 있어 <br/> <br/>비타민D는 자라는 어린이 키 성장에도 매우 중요하다. 인천성모병원이 성장통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야외활동과 일조량이 많은 봄이나 여름보다는 일조량이 저조한 가을과 겨울에 2배 이상 높았다. 성장기 어린이는 성장판에 이상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면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br/> <br/>성장기 어린이들은 햇볕을 쬐며 뛰어 노는 것 자체가 뼈 발육과 성장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br/> <br/>◆비타민D 부족…예방법은? <br/> <br/>긴 옷을 입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봄이 될 때까지 적절한 비타민D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겨울에 춥다고 실내에서만 머무는 것은 피해야 한다. <br/> <br/>비타민D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 400~800단위 정도 비타민D를 보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비타민D 부족이 심한 사람은 하루 1000~2000단위가 필요하다. <br/> <br/>겨울처럼 햇볕을 적게 쐬거나 자외선의 강도가 낮아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합성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때는 동물의 간, 삼치, 참치, 고등어, 연어, 장어, 계란 등 동물성 식품과 표고, 느타리, 팽이, 송이 등 버섯류를 통해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야외 활동 기회가 적고 식품을 통해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비타민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대안이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0.txt

제목: [영양칼럼] 똑똑한 비타민 이야기\_07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주는 비타민 E  
날짜: 20141120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39453  
본문: 젊음· 건강· 힘을 상징하는 항산화 비타민E!  <br/>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인정한 비타민E의 기능성 내용은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이다. 즉 항산화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다른 비타민들도 그렇듯이 비타민E도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 이외에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건강을 지켜주는데 비타민E는 어떤 효과들이 보고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br/> <br/>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E의 작용은 아주 중요하다. 과산화지질에 의한 피해는 간· 폐 등 모든 곳에 미치고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E는 혈액순환 장애에서 오는 어깨 결림· 두통· 치질· 동상· 냉증 등의 증상을 개선한다. <br/> <br/>또 호로몬의 균형이 무너져 생기는 갱년기 장애의 치료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화를 방지하므로 충분히 공급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br/> <br/>비타민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tocopherol)이라고도 부른다. 토코페롤은 무슨 뜻 일까? 토코페롤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합성어인데 자식 또는 후손을 뜻하는 “tocos”, 힘을 준다는 뜻의 “phero”· 알코올을 뜻하는 “ol”을 합쳐서 만든 단어이다. 즉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알코올성 물질이라는 뜻이다. <br/> <br/>비타민E가 부족하면 여자에게는 불임· 유산· 대하증세가 나타나고 남자는 정자 형성 기능이 감소하여 체내 정자의 수가 부족해진다고 한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소화기내과 과장인 Arum J. Sanyal 박사에 의하면 알코올 섭취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 질환의 치료에 비타민E가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br/> <br/>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지만 비타민E가 간질환 개선에 뚜렷하게 도움이 되었으며 부족하지 않게 적절히 섭취하면 간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다. 또한 비타민E 함유제제는 말초 혈행 장애와 갱년기 시 어깨와 목결힘, 수족저림, 수족냉증의 증상을 완화해 준다고 한다. 비타민E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해 혈행을 개선시켜 준다고 한다.  <br/> <br/>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내에 쌓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E !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은 3~400 ㎎ α-TE이다. 과잉 섭취 되어 체내에 쌓였을 경우에 피부가려움증· 홍조· 부종· 복부팽만감· 근력저하· 피로감 증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대표적 식품은 식물성 유지(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와 식물성 유지로 만든 제품(마가린· 쇼트닝)이다. 기름기 있는 생선· 갑각류· 곡류· 녹색채소· 동물성 기름 등에는 소량 들어 있다.  <br/> <br/>이렇듯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E 섭취를 급원 식품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똑똑한 비타민 스페쉬의 5060 포세이돈 포 맨· 5060 데메테르 포 우먼 제품을 추천한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멀티 비타민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좋은 편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1.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박미선 이경실 송은희 조형기 "가지마" '눈물의 마지막'  
날짜: 2014112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39176  
본문:   <br/> <br/>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애통...박미선 이경실 송은희 조형기 "가지마"  '눈물의 마지막 인사' <br/> <br/>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가족들과 동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엄수됐다 <br/> <br/>지난 19일 기독교식으로 진행된 발인 예배에는 남편 오승근, 남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등 유족과 이성미, 박미선, 이경실, 송은이, 조형기, 강부자, 강석우 등 동료 연예인들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이 자리를 지켰고 고인이 영구차에 오르자 마지막 인사를 나눈 동료 연예인들은 '언니 행복했어', '언니 편히 쉬어요'라며 오열하며 눈물을 쏟았다. <br/> <br/>특히 생전 고인과 깊은 우애를 자랑했던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운구 행렬을 따라 걸었다. <br/> <br/>또 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br/> <br/>오승근은 “오늘(19일) 10시에 (고인을) 화장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합니다”라며 “특히 오늘 아내를 보기 위해 해외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왔다. 참 보고 싶어했는데 많이 보고 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br/> <br/>故 김자옥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앞서, 故 김자옥은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향년 63세로 눈을 감았다. <br/> <br/>한편 지난해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한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은 “<span class='quot0'>한참 아프셨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span>”고 모친을 향한 애틋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br/> <br/>당시 김자옥은 아들에 대해 “처음에 불임판정을 받았을때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며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슬프다" "故 김자옥 발인, 좋은 곳으로 가시길" "故 김자옥 발인, 요즘 슬픈소식이 너무 많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2.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동생 김태욱 비통...김자옥 마지막 모습에 부둥켜안고 오열 "가지마"  
날짜: 2014112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38878  
본문:   <br/> <br/>故 김자옥 발인, 동생 김태욱 비통...김자옥 마지막 모습에 부둥켜안고 오열 "가지마" <br/> <br/>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가족들과 동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엄수됐다 <br/> <br/>지난 19일 기독교식으로 진행된 발인 예배에는 남편 오승근, 남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등 유족과 이성미, 박미선, 이경실, 송은이, 조형기, 강부자, 강석우 등 동료 연예인들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이 자리를 지켰고 고인이 영구차에 오르자 마지막 인사를 나눈 동료 연예인들은 '언니 행복했어', '언니 편히 쉬어요'라며 오열하며 눈물을 쏟았다. <br/> <br/>특히 생전 고인과 깊은 우애를 자랑했던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운구 행렬을 따라 걸었다. <br/> <br/>또 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br/> <br/>오승근은 “오늘(19일) 10시에 (고인을) 화장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합니다”라며 “특히 오늘 아내를 보기 위해 해외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왔다. 참 보고 싶어했는데 많이 보고 간다”고 말했다. <br/> <br/>故 김자옥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앞서, 故 김자옥은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향년 63세로 눈을 감았다. <br/> <br/>한편 지난해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한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은 “<span class='quot0'>한참 아프셨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span>”고 모친을 향한 애틋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br/> <br/>당시 김자옥은 아들에 대해 “처음에 불임판정을 받았을때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며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슬프다" "故 김자옥 발인, 좋은 곳으로 가시길" "故 김자옥 발인, 요즘 슬픈소식이 너무 많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3.txt

제목: 결혼은 깨져도 보험 안깨진다  
날짜: 20141120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44873  
본문: 내년 상반기부터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보험 등 가족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br/> <br/>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을 점검한 결과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이 피보험자로 설정된 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의 경우 이혼이나 자녀 결혼 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혼 시 계약이 소멸해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br/> <br/>금감원은 또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나눠내는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 시 내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던 약관조항의 경우 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삭제토록 했다. <br/> <br/>한 가지 손해를 담보하면서 ‘종합보험’이라는 명칭을 붙인 경우 소비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지된다.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면책기간(90일)내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처리 해오던 관행도 개선된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4.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주치의와 나눈 문자 공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안타까워'  
날짜: 2014112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41371  
본문:   <br/> <br/> <br/>故 김자옥 발인, 주치의와 나눈 문자 공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안타까워' <br/> <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자옥의 주치의가 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날인 지난 19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폐암 투병 끝에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난 故 김자옥을 추모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br/> <br/>이날 방송에서 故 김자옥 주치의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 (본인이) 길게 못 갈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조금 두렵기도 하다는 내용이었다"며 문자내용을 밝혔다. <br/> <br/>이어 "(故 김자옥이)옆에 성탄트리 불빛을 봤을 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다고 하셨다. 내가 성탄절 불빛을 보면 기뻐하셔야지 왜 벌써 우울한 얘기를 하느냐고 했는데 그 때 조금 아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 <br/>김자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자옥, 정말 속상하다", "김자옥,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네", "김자옥, 눈물이 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故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오던 중 지난 16일 오전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故 김자옥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5.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동료들 오열 속 하늘나라로 '눈물바다'  
날짜: 2014112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37670  
본문: 故 김자옥 발인/사진=사진공동취재단지난 19일 오전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br/> <br/>故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발인식에서 "오늘 10시에 화장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특히 오늘 아내를 보기 위해 외국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왔다. 참 보고 싶어 했는데 많이 보고 간다"고 말했다. <br/> <br/>故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김자옥의 발인식에는 고인의 남편인 오승근과 아들 오영환 씨,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 등 가족과 친지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료 연예인 이경실,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윤소정, 강석우, 강부자, 김지선 등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br/> <br/>또한 빈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를 대신 장미가 놓여져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故 김자옥이 평소 좋아했던 꽃이기 때문으로, 사진 역시 남편 오승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알려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16일 오전 7시 40분경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6.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주치의 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 공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나?'  
날짜: 2014112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39851  
본문:   <br/> <br/> <br/>故 김자옥 발인, 주치의 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 공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나?' <br/> <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故 김자옥의 주치의가 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날인 지난 19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폐암 투병 끝에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난 故 김자옥을 추모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br/> <br/>이날 방송에서 故 김자옥 주치의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 (본인이) 길게 못 갈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조금 두렵기도 하다는 내용이었다"며 문자내용을 밝혔다. <br/> <br/>이어 "(故 김자옥이)옆에 성탄트리 불빛을 봤을 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다고 하셨다. 내가 성탄절 불빛을 보면 기뻐하셔야지 왜 벌써 우울한 얘기를 하느냐고 했는데 그 때 조금 아신 것 같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故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오던 중 지난 16일 오전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故 김자옥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故 김자옥 발인 마음이 아프네요", "故 김자옥 발인, 알고 있었구나", "故 김자옥 발인, 아직도 믿기지 않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7.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동료.가족들 남기고 하늘나라로 '눈물의 발인식'  
날짜: 2014112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2010015637863  
본문: 故 김자옥 발인 <br/>지난 19일 오전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br/> <br/>故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발인식에서 "오늘 10시에 화장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특히 오늘 아내를 보기 위해 외국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왔다. 참 보고 싶어 했는데 많이 보고 간다"고 말했다. <br/> <br/>故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故김자옥 발인식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러졌다. 이날 故 김자옥 발인식에는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그리고 방송인 이성미, 박미선, 이경실 등 수많은 동료연예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16일 오전 7시 40분경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8.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어떤 제품인가 봤더니... '충격'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036  
본문:   <br/>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어떤 제품인가 봤더니... '충격'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향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치약 등에 사용되는 향균제인 '트리클로산'이 간 섬유화 암을 일으킨다고 전해졌다. <br/> <br/>이 매체에 따르면 한 연구진은 쥐와 함께 사람에게도 간 독성 위험이 있다고 말해 주의가 요구된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 실험을 통해 알려졌다. <br/> <br/>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가 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이럴수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뭘 쓰라는거야?",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죄다 암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39.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트리클로산 어디에 사용되나 봤더니... '이럴수가'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374  
본문:   <br/>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트리클로산 어디에 사용되나 봤더니... '이럴수가'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가 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연구진은 "쥐의 트리클로산 노출기간인 반년은 사람에게는 약 18년에 해당한다며 인간도 마찬가지로 간섬유화나 암이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분비 장애나 근 수축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한편 '트리클로산'은 향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치약 등에 사용되는 향균제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충격이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쓸게 없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물로만 해야 하는거?"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0.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물비누 바디워시 등 항균제가 원인이라고? '소비자 충격'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6249  
본문: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br/>비누와 바디워시, 치약 등에 함유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안겼다. <br/> <br/>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항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등에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 암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학술원 회보에 실었다. <br/> <br/>논문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화학물질에 의해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그 크기도 컸다. <br/> <br/>연구진은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br/> <br/>'트리클로산'이 함유된 비누와 바디워시, 치약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수차례 노출되는 필수 생활용품인 만큼 이번 소식으로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br/> <br/>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근수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항균제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헐 씻지도 못하니?"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항균제가 그렇게 안 좋나?"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충격이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항균제 조심해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1.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향균제, 어디에 들어있나 봤더니 '충격'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626  
본문: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향균제, 어디에 들어있나 봤더니 '충격'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br/> <br/>항균 물비누나 치약 제품에 많이 쓰이는 항균제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항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등에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학술원 회보에 실었다. <br/> <br/>논문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화학물질에 의해 유도된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 크기도 더 컸다. <br/> <br/>연구진은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br/> <br/>연구진은 특히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화합물과 함께 트리클로산에 노출될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근수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r/> <br/>한편 트리클로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국정감사때 치약 함유량과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물질로 알려졌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에 네티즌들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치약 비누 조심히 사야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이럴수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잘 확인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2.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비누, 바디워시 쓰면 암걸린다고? 이제는 씻지도 못하겠네..'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4970  
본문: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비누와 바디워시등의 사용으로 간섬유화나 암 유발 위험이 있다고 밝혀져 화제다.  <br/> <br/>비누와 바디워시, 치약 등에 함유된 '트리클로산'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br/> <br/>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학술원회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br/> <br/>논문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화학물질에 의해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그 크기도 컸다.  <br/> <br/>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연구팀은 "쥐의 트리클로산 노출 기간인 반년은 사람에게는 약 18년에 해당한다"며 "인간도 마찬가지로 간섬유화나 암이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br/> <br/>한편, 트리클로산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의해 유해성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재원 의원은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외국에서 이미 판매가 금지됐다. 국민이 겁나서 양치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br/> <br/>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연구팀은 트리클로산이 다량 함유된 물비누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지만 치약은 트리클로산 사용량이 적어 그냥 사용해도 좋다고 밝혔다.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충격이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씻지도 못하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불안해 살겠나",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씻기만 해도 암 걸리겠네",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숨도 쉬지 말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3.txt

제목: '트리클로산'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우리가 매일쓰는 그 제품들 속에 암유발 유해물질 가득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4440  
본문:   <br/> <br/> <br/> <br/> <br/>향균제인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br/> <br/> <br/>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학술원회보를 통해 "비누와 치약 등에 함유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br/> <br/> <br/>논문 내용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화학물질에 의해 간 종양에 걸리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의 크기도 더 컸다. 연구진은 트리클로산이 다량 함유된 물비누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고 치약은 트리클로산 사용량이 적어 그냥 사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br/> <br/> <br/>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수년간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암 유발 위험 등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자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br/> <br/> <br/>트리클로산은 주로 향균 물비누, 바디워시, 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화합물이다. 수유를 하는 산부의 모유 중 97%, 검사 대상자 중 75%의 소변에서 이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실생활에 흔히 쓰이는 화합물중 하나이다. <br/> <br/> <br/>한편, 트리클로산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유해성이 지적된 바 있다. <br/>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헐",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그럼 뭘로 씻어".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천연 비누 만들어쓰라는건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안돼 이럴수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믿을게 없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4.txt

제목: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트리클로산' 국감서도 지적.사용 조심해야 될 항목은?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4105  
본문:   <br/> <br/> <br/> <br/> <br/>향균제인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있다. <br/> <br/> <br/>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학술원회보를 통해 "비누와 치약 등에 함유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br/> <br/> <br/>논문 내용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화학물질에 의해 간 종양에 걸리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의 크기도 더 컸다. 연구진은 트리클로산이 다량 함유된 물비누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고 치약은 트리클로산 사용량이 적어 그냥 사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br/> <br/> <br/>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수년간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암 유발 위험 등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자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br/> <br/> <br/>트리클로산은 주로 향균 물비누, 바디워시, 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화합물이다. 수유를 하는 산부의 모유 중 97%, 검사 대상자 중 75%의 소변에서 이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실생활에 흔히 쓰이는 화합물중 하나이다. <br/> <br/> <br/>한편, 트리클로산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유해성이 지적된 바 있다. <br/> <br/> <br/>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대박 헐",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무서워서 쓰겠나".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뭘로 씻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안돼 이럴수가", "간섬유화 암 유발 위험, 천연비누 사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5.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남편 오승근, '눈물로 떠나 보내'(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687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故 김자옥 남편 오승근이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6.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발인식(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338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부자, 박미선, 김지선, 이경실, 이성미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7.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발인, '강부자 애통한 표정'(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336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부자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8.txt

제목: [포토] 오열하는 김지선-이경실(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268  
본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방송인 김지선, 이경실이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고인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49.txt

제목: [포토] 윤유선, '너무 슬퍼'(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816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윤유선이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0.txt

제목: [포토] 강부자-박미선-이성미, '하염없이 눈물만'(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271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부자, 박미선, 김지선, 이경실, 이성미가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고인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1.txt

제목: [포토] 눈물만 흘리는 이경실-김지선-이성미-박지선(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335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부자, 박미선, 김지선, 이경실, 이성미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2.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동생 김태욱, '망연자실한 표정'(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443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3.txt

제목: [포토] 강부자 '우리 자옥이가 이렇게 떠나다니'(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340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부자, 박미선, 김지선, 이경실, 이성미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4.txt

제목: [포토] 조형기-이경실-김지선, '멈추지 않는 눈물'(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624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송은이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5.txt

제목: [포토] 조형기-이경실-김지선, '어떻게 이런일이'(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451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조형기, 이경실, 김지선이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6.txt

제목: [포토] 조형기-이성미-박미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689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조형기, 이성미, 박미선이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7.txt

제목: [포토] 강석우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342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석우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8.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떠나보내는 동료 연예인들(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273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부자, 박미선, 김지선, 이경실, 이성미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59.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발인식(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447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부자, 박미선, 김지선, 이경실, 이성미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0.txt

제목: [포토] 김태욱 아나운서, '누나 김자옥 떠나보내'(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688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1.txt

제목: [포토] 송은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621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송은이가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2.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공주 미소 남기고 떠나'(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820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3.txt

제목: [포토] 강부자-김지선-박미선-이성미, '고인의 마지막길 함께'(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270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강부자, 박미선, 김지선, 이경실, 이성미가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고인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4.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미소만 남기고 떠나'(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199  
본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고인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5.txt

제목: 항균물비누에 함유된 '트리클로산' 간섬유화·암 유발 위험  
날짜: 20141119  
기자: grl87@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000023  
본문: 항균 물비누, 바디워시, 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liver fibrosis)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1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화학과·생화학과·약리학과의 로버트 튜키 교수와 UC 데이비스의 브루스 해먹 교수 등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미국 학술원회보(PNAS)에 게재했다.연구진은 "6개월간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화학물질에 의해 유도된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 크기도 더 컸다"며 "이 노출 기간은 사람으로 따지면 약 18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연구진은 또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기전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튜키 교수는 "환경에서 채취된 샘플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소비자용 제품에서 이 물질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물질의 사용에 따른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데 쥐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간 독성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화합물과 함께 트리클로산에 노출될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리클로산은 미국의 강에서 가장 흔히 검출되는 화합물 7개 중 하나이며, 수유를 하는 산부의 모유 중 97%, 검사 대상자 중 75%의 소변에서 이 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해먹 교수는 "손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비누처럼 트리클로산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에 따른 이득은 적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트리클로산의 인체·환경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다만 치약은 트리클로산 사용량이 적은데다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FDA는 최근 수년간 트리클로산이 호르몬 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근수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용을 제한해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6.txt

제목: "겨울철 뇌졸중 빠른 처치 '관건'"  
날짜: 201411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137  
본문: 겨울철 대표적으로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가 뇌졸중이다.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뇌졸중은 겨울철이 되면 환자가 특히 증가하고 있다. <br/> <br/>19일 고대안암병원에 따르면 뇌졸중은 뇌 조직으로 공급되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 뇌혈류가 차단돼 몸을 관장하는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병이다. <br/> <br/>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혈관이 파열되어 생기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된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주로 한쪽 얼굴과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떨어져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말이 제대로 안되거나, 한쪽이 보이지 않거나, 어지러워서 걸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심한 경우 의식장애로 쓰러지기도 한다. <br/> <br/>뇌졸중에 걸리면 그 증세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뇌졸중은 주로 50대 이후 장·노년층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요즘은 30~40대에도 부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br/> <br/>뇌졸중은 발병 시 환자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장애를 남기지만 가족에게도 정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뇌세포는 일단 손상을 받으면 순식간에 죽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생명이다.  사진=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제공 <br/> <br/>증상 발생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혈전용해술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도 있으므로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는 4~5시간 까지도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늦을수록 치료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더 커진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br/> <br/>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담배, 기름지거나 짠 음식, 술 등은 피해야 한다. 또 스트레스는 자기 전에 풀어버려야 하고, 걷기·산책·수영 등 규칙적인 운동으로 심혈관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br/>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유성욱 교수는 “<span class='quot0'>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인으로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주 3~4회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를 가진 40대 이상의 사람이라면 생활패턴을 바꿔 뇌졸중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또 저나트륨 고칼륨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금은 1일 6g이하로 섭취하고 칼륨은 1일 4.7g 이상 섭취한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과일, 야채, 저지방 우유·치즈·요거트 등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며, 더불어 포화지방 또는 총 지방량의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술, 담배,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은 절대 금물이다. <br/> <br/>Tip.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지침 <br/> <br/>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br/>2.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피하고 과식하지 않는다. <br/>3. 심혈관에 무리를 주는 과음을 하지 않는다. <br/>4. 규칙적인 걷기, 산보, 수영 등으로 심혈관을 튼튼히 한다. <br/>5. 스트레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풀어버린다. <br/>6. 고혈압 환자는 지속적인 혈압관리에 힘쓴다. <br/>7. 당뇨환자는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혈당조절에 힘쓴다. <br/>8.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므로 꾸준히 관리 치료한다. <br/>9.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졸중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다. <br/>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7.txt

제목: [포토] 이성미-박미선, '슬픔에 잠겨'(故 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19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0814  
본문:   <br/> <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 <br/>동료 연예인 이성미, 박미선이 눈물로 故 김자옥의 마지막 가는길을 함께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8.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가족·지인 참여 속 엄수 '눈물 바다'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5622  
본문: 故 김자옥 발인/사진=사진공동취재단 <br/>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김자옥의 발인이 엄수됐다. <br/> <br/>故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빈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를 대신 장미가 놓여져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故 김자옥이 평소 좋아했던 꽃이기 때문으로, 사진 역시 남편 오승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알려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자옥은 지난 13일 저녁 급속히 악화된 병세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69.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가족-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동생 김태욱 아나-남편 오승근 "미안한 마음 뿐" 눈물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476  
본문:   <br/> <br/>故 김자옥 발인, 가족-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동생 김태욱 아나-남편 오승근 "미안한 마음 뿐" 눈물 <br/> <br/>故 김자옥 발인식이 엄수되었다. <br/> <br/>김태욱 아나운서 등은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고 김자옥 발인식에 참석했다. <br/> <br/>이날 고 김자옥 발인에는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와 남편 오승근, 그리고 생전 친분이 있었던 동료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br/> <br/>故 김자옥 발인에는 이경실,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윤소정, 강석우, 강부자, 김지선 등이 참석했다. <br/> <br/>이날 발인 예배에서 故 김자옥의 남편이자 가수 오승근은 "오늘 10시 화장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김 권사(김자옥)의 가족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었다. 그럼에도 3일 동안 김 권사가 거의 모든 가족들을 본 것 같다"고 털어놨다. <br/> <br/>이어 "집사람과 함께 했던 성가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나도 잠시 몸 담았던 곳이지만 계속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br/> <br/>특히 생전 고인과 깊은 우애를 자랑했던 김태욱 아나운서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운구 행렬을 따라 걸었다. 마지막까지 고인의 유해를 바라봐 안타까움을 더했다. <br/> <br/>김태욱 아나운서는 자신이 진행하는 SBS 러브FM '김태욱의 기분 좋은 밤'을 뒤로한 채 지난 16일부터 고 김자옥 빈소를 지켰다. 이에 따라 '김태욱의 기분 좋은 밤'은 17, 18일은 녹음 방송으로 대체 됐으며 19일부터는 SBS 배성재 아나운서가 김태욱 아나운서의 빈자리를 채운다. <br/> <br/>고 김자옥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고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오던 중 지난 16일 오전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발인, 방송에서 웃는 모습 본게 어끄제 같은데" "故 김자옥 발인, 슬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0.txt

제목: 홍삼 4배 폭리…노인 울린 '떴다방' 적발  
날짜: 201411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1601  
본문: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업체는 상품교환권을 이용해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약 18만원 제품을 58만원에 판매했다. <br/> <br/>#. 인천 남구 소재 ○○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를 보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약 18만원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br/> <br/>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일명 '떴다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br/> <br/>이들 33곳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등이다. <br/> <br/>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br/> <br/>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span>”고 밝혔다. <br/>  <br/>이어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1.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빈소에는 국화대신 장미...이유 들어보니 '애틋'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7604  
본문: 故 김자옥 발인19일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진행된 가운데, 남편 오승근이 심경을 고백했다. <br/> <br/>故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발인식에서 "오늘 10시에 화장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특히 오늘 아내를 보기 위해 외국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왔다. 참 보고 싶어 했는데 많이 보고 간다"고 말했다. <br/> <br/>故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김자옥의 발인식에는 고인의 남편인 오승근과 아들 오영환 씨,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 등 가족과 친지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료 연예인 이경실,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윤소정, 강석우, 강부자, 김지선 등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br/> <br/>또한 빈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를 대신 장미가 놓여져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故 김자옥이 평소 좋아했던 꽃이기 때문으로, 사진 역시 남편 오승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알려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옥은 지난 13일 저녁 급속히 악화된 병세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r/> <br/>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2.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남편·동료 오열 속 엄수… "집사람과 헤어지려 해"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6338  
본문: 故 김자옥 발인19일 故 김자옥 발인식이 진행됐다. <br/> <br/>故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김자옥의 발인식에는 고인의 남편인 오승근과 아들 오영환 씨,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 등 가족과 친지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료 연예인 이경실,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윤소정, 강석우, 강부자, 김지선 등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br/> <br/>또한 빈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를 대신 장미가 놓여져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故 김자옥이 평소 좋아했던 꽃이기 때문으로, 사진 역시 남편 오승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알려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br/> <br/>故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발인식에서 "오늘 10시에 화장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특히 오늘 아내를 보기 위해 외국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왔다. 참 보고 싶어 했는데 많이 보고 간다"고 말했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옥은 지난 13일 저녁 급속히 악화된 병세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3.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누나 마지막에 '울컥'..동료 배우들 참여 발인식 엄수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2043  
본문:   <br/> <br/> <br/>故 김자옥 발인,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누나 마지막에 '울컥'..동료 배우들 참여 발인식 엄수 <br/> <br/>故 김자옥 발인식이 엄수되었다. <br/> <br/>김태욱 아나운서 등은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고 김자옥 발인식에 참석했다. <br/> <br/>이날 고 김자옥 발인에는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와 남편 오승근, 그리고 생전 친분이 있었던 동료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br/> <br/>故 김자옥 발인에는 이경실,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윤소정, 강석우, 강부자, 김지선 등이 참석했다. <br/> <br/>특히 생전 고인과 깊은 우애를 자랑했던 김태욱 아나운서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운구 행렬을 따라 걸었다. 마지막까지 고인의 유해를 바라봐 안타까움을 더했다. <br/> <br/>김태욱 아나운서는 자신이 진행하는 SBS 러브FM '김태욱의 기분 좋은 밤'을 뒤로한 채 지난 16일부터 고 김자옥 빈소를 지켰다. 이에 따라 '김태욱의 기분 좋은 밤'은 17, 18일은 녹음 방송으로 대체 됐으며 19일부터는 SBS 배성재 아나운서가 김태욱 아나운서의 빈자리를 채운다. <br/> <br/>고 김자옥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고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오던 중 지난 16일 오전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발인, 방송에서 웃는 모습 본게 어끄제 같은데" "故 김자옥 발인, 슬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4.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엄수.동료 연예인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박미선-이성미 오열, 슬픔 더해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4365  
본문:   <br/> <br/> <br/> <br/> <br/>19일 오전 동료 연예인들의 참석 속에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br/> <br/>故 김자옥의 발인에는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를 비롯해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이경실, 강부자, 조형기 등 동료 연예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br/> <br/>특히 박미선과 이성미는 故 김자옥의 운구차를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슬픔을 더했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16일 오전 7시 40분경 세상을 떠났다. <br/> <br/>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박미선 이성미 오열을 접한 누리꾼들은 "故 김자옥 발인, 슬프다" "故 김자옥 발인,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故 김자옥 발인, 너무 안타까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5.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동료 연예인 100여명 참석. 박미선-이성미 오열, 안타까움 더해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3872  
본문:   <br/> <br/> <br/> <br/> <br/>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br/> <br/>故 김자옥의 발인에는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를 비롯해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이경실, 강부자, 조형기 등 동료 연예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br/> <br/>특히 박미선과 이성미는 故 김자옥의 운구차를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슬픔을 더했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16일 오전 7시 40분경 세상을 떠났다. <br/> <br/>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박미선 이성미 오열을 접한 누리꾼들은 "故 김자옥 발인, 안타깝다" "故 김자옥 발인, 아직도 안믿김" "故 김자옥 발인, 그 곳에서도 행복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6.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동료 연예인 100여명 참석 속 박미선-이성미 운구차 붙든 채 오열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4010  
본문:   <br/> <br/>19일 오전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br/> <br/>故 김자옥의 발인에는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를 비롯해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이경실, 강부자, 조형기 등 동료 연예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br/> <br/>특히 박미선과 이성미는 故 김자옥의 운구차를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슬픔을 더했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16일 오전 7시 40분경 세상을 떠났다. <br/> <br/>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될 예정이다. <br/> <br/>故 김자옥 발인 박미선 이성미 오열을 접한 누리꾼들은 "故 김자옥 발인, 슬프네" "故 김자옥 발인, 아직도 어딘가 살아계실것 같아" "故 김자옥 발인, 오랫동안 감사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7.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심경 고백 "집사람과 헤어지려 해"  
날짜: 201411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910015637100  
본문: 故 김자옥 발인/사진=사진공동취재단19일 故 김자옥의 발인식이 진행된 가운데, 남편 오승근이 심경을 고백했다. <br/> <br/>故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발인식에서 "오늘 10시에 화장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특히 오늘 아내를 보기 위해 외국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왔다. 참 보고 싶어 했는데 많이 보고 간다"고 말했다. <br/> <br/>故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김자옥의 발인식에는 고인의 남편인 오승근과 아들 오영환 씨,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 등 가족과 친지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료 연예인 이경실,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윤소정, 강석우, 강부자, 김지선 등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br/> <br/>또한 빈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를 대신 장미가 놓여져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故 김자옥이 평소 좋아했던 꽃이기 때문으로, 사진 역시 남편 오승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알려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옥은 지난 13일 저녁 급속히 악화된 병세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r/> <br/>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8.txt

제목: 고대안암병원, 인술(仁術)도 한류…몽골인 간질환 무료검진  
날짜: 2014111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810015624214  
본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몽골인의 건강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br/>  <br/>18일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지난달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간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br/> <br/>이번 간질환 검진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간질환 등 소화기질환, 심혈관계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은 몽골환자들을 위해 안암병원이 몽골사회복지센터와 함께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몽골 현지방송국에서도 취재팀을 파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br/> <br/>특히 간질환은 몽골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유병률과 위험성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몽골의 의료수준이 낙후되어 치료는 물론 조기발견을 위한 진료조차도 쉽지 않아 간질환 조기검진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br/> <br/>검사결과는 영상의학과 김윤환 교수를 비롯해 진단검사의학과 조윤정 교수, 소화기센터 서연석 교수 등 전문 의료진이 대거 참여해 판독 및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안암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도울 예정이다. <br/> <br/>안암병원에서 지난해에만 치료받기 위해 직접 찾은 몽골환자만 6000여명이 넘는다. 특히, 심혈관계질환, 중증간질환, 암 수술 등 전문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서부터 개인맞춤형 건강검진이나, 일반 질환 치료를 원하는 일반 환자까지 안암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 몽골 환자를 위한 통역과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r/> <br/>안암병원의 몽골에 대한 애정과 의료지원은 남다르다. 현지에서 이식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이 직접 몽골을 찾아 이식수술을 집도하고 관련 의료술기과 노하우를 의료진에 전수하기도 했다. <br/> <br/>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에서는 구순구개열 아기를 안암병원으로 데려와 예쁜 얼굴을 찾아주기도 하고, 산부인과에서는 난산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쌍둥이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도 했다. 심혈관센터는 심근경색으로 위독했던 환자를 데려와 응급시술로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인술과 나눔 및 공헌활동으로 훈훈한 감동을 전해 왔다. <br/> <br/>지난 8월에는 김영훈 안암병원장이 직접 몽골을 찾아 총리를 비롯한 보건의료 당국자들과 만나 몽골 최초로 공공 제세동기를 기증하고,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자문활동을 펼쳤다. 또 현지 의료진에게 세계 톱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이식술을 전수하고 심혈관시술 및 치료를 받는 몽골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몽골을 방문해 직접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br/> <br/>김영훈 원장은 “<span class='quot0'>낙후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통 받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힘을 보탤 계획</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단순한 의료지원 및 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의료환경 및 시스템 개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79.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남편 오승근 '끝없는 눈물' 과거 故 김자옥 방송 보니... '이해돼'  
날짜: 2014111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810015620782  
본문:   <br/> <br/> <br/>故 김자옥 빈소, 남편 오승근 '끝없는 눈물' 과거 故 김자옥 방송 보니... '이해돼' <br/> <br/>故 김자옥 빈소가 마련된 가운데 故 김자옥이 과거 남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지난해 8월 22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김자옥은 자신의 남편 오승근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br/> <br/>당시 김자옥은 과거 암 투병 때 자신을 돌봐준 남편에 대해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다 챙기고. 근데 유독 이 사람은 많이 울고 마음을 너무 아파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김자옥은 "검사할 때마다 본인이 결과 알아보고 약 있다고 하면 나 몰래 가 보고, 유명한 의사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랬다"며 "부부가 그런 것 같다. 고맙다. 난 저 사람이 아프면 잠도 못 자고 보고 있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은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께 폐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3세. 故 김자옥의 빈소는 16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 치러진다. <br/> <br/>故 김자옥 빈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故 김자옥 빈소, 안타깝다", "故 김자옥 빈소, 마음이 아프네요", "故 김자옥 빈소, 남편을 정말 사랑하셨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0.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장미에 둘러싸인 공주님 "이렇게나 밝았었는데..."  
날짜: 2014111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810015620008  
본문: 故 김자옥 빈소/사진=사진공동취재단 <br/>故김자옥의 빈소에 끊임 없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br/> <br/>故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빈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를 대신 장미가 놓여져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故 김자옥이 평소 좋아했던 꽃이기 때문으로, 사진 역시 남편 오승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알려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옥은 지난 13일 저녁 급속히 악화된 병세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r/> <br/>고 김자옥 남편은 가수 오승근이며 오승근 나이는 김자옥과 동갑인 63세다. 슬하에 딸 오지연 씨와 아들 오영환 군을 뒀다. 김자옥 동생은 SBS 김태욱 아나운서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1.txt

제목: 암 면역반응 방해 단백질 발견… 타깃 치료 가능  
날짜: 20141117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8696  
본문: 최근 암 환자의 면역반응을 이용해 스스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면역치료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암세포 주변에는 면역반응을 방해하는 환경이 형성돼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뼈 생성 관련 단백질을 차단하면 치료 효과가 증진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효율 증진이 기대된다. <br/> <br/>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서울대 약대 강창율(사진) 교수와 김은경 박사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뼈 생성 관련 단백질인 ‘오스테오폰틴’(OPN)이 암세포 제거를 방해하는 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생성과 증식을 유도하는 원리를 확인했다. <br/> <br/>OPN은 골격을 구성하는 주요한 인 단백질로, 주로 뼈의 재형성에 관여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 감염과 부상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암세포에서 분비되기도 한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를 통해 OPN이 암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항암 면역반응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인 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축적을 촉진해 체내 암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pan>”고 밝혔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암 치료제에 OPN을 겨냥한 항체나 저해제를 이용하면 면역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2.txt

제목: 여성가슴질환, 흉터 걱정 덜어낸 맘모톰 수술  
날짜: 20141117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6701  
본문: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유방혹· 유방종양 등 가슴, 유방질환에 단어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요즘 30-40대 무증상 유방암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br/> <br/>이에 양성의 단계에서 암 위험도가 있는 유방 양성 혹을 사전에 절제하기에 효과적인 ‘맘모톰’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br/>  <br/>맘모톰은 진공흡입방식을 이용해 조직을 검사하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전통적인 긴 절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여성들에 선호되고 있다. <br/> <br/>강남유외과 유방센터 조윤선 원장은 “<span class='quot0'>맘모톰수술은 겨드랑이 주름에 작은 구멍을 절개해 특수바늘을 통해 간단하게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워낙 흉터가 작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통증이 적은 특징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실제 맘모톰은 치료 대상과 범위가 넓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 양성종양이 발견되는 경우, 임신예정이어서 장기간 추적검사가 어려운 경우, 해외출타 등 주기적인 추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진단·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 <br/> <br/>하지만 가슴질환 진료를 위한 맘모톰 사용은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조직의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인 만큼 유방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종양을 검사상 놓치거나, 제대로 된 방법을 취하지 않아 재발· 암 진단· 치료에서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이에 대해 강남 유외과 조윤선 원장은 “<span class='quot0'>맘모톰은 유방의 혹을 제거할 때에는 암으로 진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맘모톰 시술 후, 혹 제거 부위의 함몰변형에 대해 의사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큰 혹이라도 적절한 교정을 통해서 이를 방지해 줄 수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강남유외과 조 원장은 이어 “<span class='quot0'>20~30대 젊은 여성층의 유방암의 증가하는 추세인데, 무증상이어도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제때에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span>”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3.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과거 '무릎팍'에서 "암은 준비할 수 있는 병" 발언 눈길 '준비해 왔을까'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4240  
본문:   <br/> <br/>故 김자옥 빈소, 과거 '무릎팍'에서 "암은 준비할 수 있는 병" 발언 '울컥' <br/> <br/>故김자옥이 과거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김자옥은 2013년 8월 22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암에 대한 의연한 자세를 보여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br/> <br/>당시 김자옥은 “종합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됐다. 사실 별로 증상이 없다가 검사했더니 암이 나왔다”며 “암이라고 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쓰러지는데 일을 하는게 오히려 도움 된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방사선 치료받고 촬영하고 그렇게 3년을 했는데 임파선에 전이가 됐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br/> <br/>이어 김자옥은 “장하고 폐하고 친척이다. 폐에서도 암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해서 (임파선에 있는 암을)떼어내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머리카락은 하나도 안 빠졌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r/> <br/>특히 김자옥은 “보통 혈압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족들도 아무 준비를 못하지 않냐”며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다. 절망적인 필요는 없다. 나중에 더 나빠지면 그때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잖아”라고 말한 뒤 웃음을 지어보였다. <br/> <br/>한편 김자옥은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했다. 향년 63세.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반포동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br/> <br/>故 김자옥 빈소에는 배우 나문희, 유호정 ,정경순, 나영희, 이혜숙, 윤소정, 주원, 개그맨 최병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등이 찾았으며 계속해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안타깝네요"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이렇게 갑자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4.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장미꽃에 둘러싸여 웃고 있는 공주님 "이렇게나 환한데..."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9949  
본문: 故 김자옥 빈소/사진=사진공동취재단 <br/>故 김자옥 빈소, 장미꽃에 둘러싸여 웃고 있는 공주님 "이렇게나 환한데..." <br/> <br/>배우 김자옥이 폐암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63세. <br/> <br/>16일 오전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는 故 김자옥 빈소가 마련됐다. <br/> <br/>빈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를 대신 장미가 놓여져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故 김자옥이 평소 좋아했던 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역시 남편 오승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알려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br/> <br/>한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옥은 지난 13일 저녁 급속히 악화된 병세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br/> <br/>한편, 빈소에는 배우 나문희, 유호정, 정경순, 이혜숙, 나영희, 허진, 김민자, 이광기, 한지혜, 주원, 개그맨 최병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아나운서 윤현진 등 동료 연예인들의 끝없는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5.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과거 방송서 故 김자옥이 한 말 들어보니... 김태욱 눈물 '이해돼'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5080  
본문:   <br/> <br/> <br/>故 김자옥 빈소, 과거 방송서 故 김자옥이 한 말 들어보니... 김태욱 눈물 '이해돼' <br/> <br/>故 김자옥 빈소가 마련된 가운데 故 김자옥의 과거 방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2013년 8월에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막내동생인 김태욱에 대해 언급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故 김자옥은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에 대해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라며 "김태욱이 7형제 중 가장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얼핏 오빠같지만 나하고는 9살 나이차이고,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했다. <br/> <br/>이에 MC 강호동은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을 안 하셨느냐"라고 묻자 "안 하겠다고 했다.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 <br/>故 김자옥 빈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故 김자옥 빈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故 김자옥 빈소, 나도 눈물이 난다", "故 김자옥 빈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폐로 암세포가 전이됐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지난 16일 숨졌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6.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과거 "동생 내 아들같다"...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빈소오열 '이유 있었네'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3424  
본문:   <br/> <br/>故 김자옥 빈소, 과거 방송에서 "동생 내 아들같다"...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빈소오열 '이유 있었네' <br/> <br/>故 김자옥의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을 향한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김자옥은 지난 2005년 한 방송에 출연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동생은 아버지랑 똑같다. 공부 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결국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밝혔다. <br/> <br/>이어 김자옥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누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생은 아버지, 나는 엄마와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br/> <br/>김자옥은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라고 말하며 남매의 남다른 우애를 보였다. <br/> <br/>한편 김자옥 소속사 측은 지난 16일 "고(故)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에 별세했다.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다. 지난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밝혔다. <br/> <br/>고인의 빈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다.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된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지키고 있다. <br/> <br/>발인은 오는 19일 8시30분이며, 장지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이다. <br/> <br/>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빈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동생 슬퍼하는 이유 알겠네" "故 김자옥 빈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7.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오열한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과거 방송에서 "동생 내 아들같다" 남다른 우애 '눈길'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4811  
본문:   <br/> <br/>故 김자옥 빈소, 오열한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과거 방송에서 "동생 내 아들같다" 남다른 우애 '눈길' <br/> <br/>故 김자옥의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을 향한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김자옥은 지난 2005년 한 방송에 출연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동생은 아버지랑 똑같다. 공부 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결국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밝혔다. <br/> <br/>이어 김자옥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누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생은 아버지, 나는 엄마와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br/> <br/>김자옥은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라고 말하며 남매의 남다른 우애를 보였다. <br/> <br/>한편 김자옥 소속사 측은 지난 16일 "고(故)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에 별세했다.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다. 지난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밝혔다. <br/> <br/>고인의 빈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다.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된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지키고 있다. <br/> <br/>발인은 오는 19일 8시30분이며, 장지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이다. <br/> <br/>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빈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동생분 많이 슬프시겠다알" "故 김자옥 빈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8.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故 김자옥 임종 전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안타까워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1600  
본문:   <br/> <br/> <br/>故 김자옥 빈소, 故 김자옥 임종 전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안타까워' <br/> <br/>故 김자옥 빈소를 찾은 지인들이 임종 전 故 김자옥이 "6개월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절친' 송도순은 16일 故 김자옥의 빈소를 찾아 "기침 나오니까 통화 말고 문자로 하라고 하더니…이렇게 빨리 가게 될지 몰랐다"면서 "아들 결혼시킨다는 이야기에 웃으면서 좋아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이어 이어 "임종 전에 '6개월만 더 있었으면'이라고 했다더라"면서 "그땐 알더래 자기가 가는지…"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선배인 배우 윤소정은 "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며 "지난 번에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 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라며 애통한 심정을 밝혔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김자옥은 대장암으로 투병했으며 얼마 전 폐로 암이 전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故 김자옥 빈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故 김자옥 빈소, 이럴수가", "故 김자옥 빈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故 김자옥 빈소, 정말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89.txt

제목: 故 김자옥 별세, 과거 방송에서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도움 못줘서 미안해" 애틋한 우애 눈길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2128  
본문:   <br/> <br/>故 김자옥 별세, 과거 방송에서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도움 못줘서 미안해" 애틋한 우애 눈길 <br/> <br/>故 김자옥의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을 향한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김자옥은 지난 2005년 한 방송에 출연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동생은 아버지랑 똑같다. 공부 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결국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밝혔다. <br/> <br/>이어 김자옥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누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생은 아버지, 나는 엄마와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br/> <br/>한편 김자옥 소속사 측은 지난 16일 "고(故)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에 별세했다.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다. 지난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밝혔다. <br/> <br/>고인의 빈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다.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된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지키고 있다. <br/> <br/>발인은 오는 19일 8시30분이며, 장지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이다. <br/> <br/>故 김자옥 별세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별세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남매였구나" "故 김자옥 별세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별세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0.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영정 앞에 국화가 아니라 장미꽃이 놓인 이유'가슴 뭉클'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6871  
본문:   <br/> <br/>16일 배우 김자옥의 빈소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 <br/>故 김자옥의 빈소엔 국화꽃과 함께 놓인 장미꽃이 놓였다.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br/> <br/> <br/>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와 남편 오승근이 고인의 빈소를 지켰다. <br/> <br/> <br/>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최근 암이 폐로 전이되어 나흘 전인 14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지만 16일 오전 7시 40분 끝내 숨졌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밝혀졌다. <br/> <br/> <br/>故 김자옥의 빈소에는 하얀 국화꽃 대신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장미꽃이 영정을 장식했다. 영정으로 사용된 사진은 남편 오승근이 가장 좋아했던 사진이다. 영정 속 김자옥의 환한 미소가 세상에 남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했다. <br/> <br/>40년간 연기자 동료로 활동하며 김자옥을 아꼈던 배우 윤소정은 이날 빈소를 찾아 "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다.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였다"며 "지난 번에 만났을 때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결혼식)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간다"고 애통해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네티즌들은 "김자옥 별세 故 김자옥 빈소, 아직도 실감이 안나", "김자옥 별세 故 김자옥 빈소, 너무 빨리 가셨다", "김자옥 별세 故 김자옥 빈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1.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장미꽃이 놓여져..향년 63세 별세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6460  
본문:   <br/> <br/>故 김자옥 빈소,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장미꽃이 놓여져..향년 63세 별세 <br/> <br/>배우 故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br/> <br/>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동생 김태욱(54) 아나운서와 남편 오승근(63)이 고인의 빈소를 지켰다. <br/> <br/>지난 2008년 수술을 받은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나흘 전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고 오늘 오전 7시 40분에 서울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알려졌다. <br/> <br/>故 김자옥의 빈소에는 하얀 국화꽃 대신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장미꽃이 놓여 있다. 또한 영정사진은 남편 오승근이 평소 좋아하던 사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빈소를 찾은 배우 윤소정은 "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며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간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故 김자옥 빈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故 김자옥 빈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 정말 마음 아프다", "故 김자옥 빈소, 정말 안타까워요", "故 김자옥 빈소,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2.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남편 오승근-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지켜...유호정 윤소정 주원 조문 이외수 "공주님도 가셨군요" 애도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1919  
본문:   <br/> <br/>故 김자옥 빈소, 남편 오승근-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지켜...유호정 윤소정 주원 조문 이외수 "공주님도 가셨군요" 애도 <br/> <br/> <br/>故 김자옥 빈소에 동료 배우들의 조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br/> <br/>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br/> <br/>지난 16일 오전 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 <br/>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된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지키고 있다. <br/> <br/>특히,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아내 빈소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끝내 오열해 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오승근은 평소 소문난 애처가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날 故 김자옥 빈소에는 배우 나문희, 유호정 ,정경순, 나영희, 이혜숙, 윤소정, 주원, 개그맨 최병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등이 찾았으며 계속해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빈소를 찾은 배우 윤소정은 고인에 대해 "가장 예뻐했던 후배"라며 "지난 번에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니.."라고 아들의 결혼을 못 보고 떠난 고인에 대한 애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br/> <br/>앞서 소설가 이외수는 16일 오후 2시께 트위터를 통해 "마왕님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라며 "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이지요"라고 밝히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 출신으로 '보통 여자', 'O양의 아파트', '꽃보다 누나'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br/> <br/>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안타깝네요"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많이 아프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3.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유호정 윤소정 주원 조문행렬 "내년 3월이면..." 애통...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자리지켜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2107  
본문:   <br/> <br/>故 김자옥 빈소, 유호정 윤소정 주원 조문행렬 "내년 3월이면..." 애통...동생 김태욱 자리지켜 <br/> <br/> <br/>故 김자옥 빈소에 동료 배우들의 조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br/> <br/>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br/> <br/>지난 16일 오전 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 <br/>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된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지키고 있다. <br/> <br/>특히,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아내 빈소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끝내 오열해 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오승근은 평소 소문난 애처가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날 故 김자옥 빈소에는 배우 나문희, 유호정 ,정경순, 나영희, 이혜숙, 윤소정, 주원, 개그맨 최병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등이 찾았으며 계속해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빈소를 찾은 배우 윤소정은 고인에 대해 "가장 예뻐했던 후배"라며 "지난 번에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니.."라고 아들의 결혼을 못 보고 떠난 고인에 대한 애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br/> <br/>앞서 소설가 이외수는 16일 오후 2시께 트위터를 통해 "마왕님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라며 "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이지요"라고 밝히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 출신으로 '보통 여자', 'O양의 아파트', '꽃보다 누나'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br/> <br/>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안타깝네요"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영원한 우리들의 공주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4.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윤소정 "가장 예뻐했던 후배..6개월만 더 있었으면" 안타까워...유호정 윤소정 송도순 박미선 주원 조문행렬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4683  
본문:   <br/> <br/>故 김자옥 빈소, 윤소정 "가장 예뻐했던 후배...6개월만 더 있었으면" 안타까워...유호정 윤소정 송도순 박미선 주원 조문행렬 <br/> <br/> <br/>故 김자옥 빈소에 동료 배우들의 조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br/> <br/>지난 16일 오전 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 <br/>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된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지키고 있다. <br/> <br/>특히,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아내 빈소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끝내 오열해 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오승근은 평소 소문난 애처가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날 故 김자옥 빈소에는 배우 나문희, 유호정 ,정경순, 나영희, 이혜숙, 윤소정, 주원, 개그맨 최병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등이 찾았으며 계속해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빈소를 찾은 배우 윤소정은 고인에 대해 "가장 예뻐했던 후배"라며 "지난 번에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니.."라고 아들의 결혼을 못 보고 떠난 고인에 대한 애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br/> <br/>또 절친인 송도순은 "기침 나오니까 통화 말고 문자로 하라고 하더니…이렇게 빨리 가게 될지 몰랐다"며 "아들 결혼시킨다는 이야기에 웃으면서 좋아했다"고 생전의 고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br/> <br/>송도순은 이어 "임종 전에 '6개월만 더 있었으면'이라고 했다더라"면서 "그땐 알더래 자기가 가는지…"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br/> <br/>앞서 소설가 이외수는 16일 오후 2시께 트위터를 통해 "마왕님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라며 "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이지요"라고 밝히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br/> <br/>지난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 출신으로 '보통 여자', 'O양의 아파트', '꽃보다 누나'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故 김자옥은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br/> <br/>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안타깝네요"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영원한 우리들의 공주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5.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임종 전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안타까워...유호정 윤소정 송도순 주원 조문행렬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2888  
본문:   <br/> <br/>故 김자옥 빈소, 임종 전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안타까워...유호정 윤소정 송도순 주원 조문행렬 <br/> <br/> <br/>故 김자옥 빈소에 동료 배우들의 조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br/> <br/>지난 16일 오전 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 <br/>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된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지키고 있다. <br/> <br/>특히, 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아내 빈소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끝내 오열해 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오승근은 평소 소문난 애처가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날 故 김자옥 빈소에는 배우 나문희, 유호정 ,정경순, 나영희, 이혜숙, 윤소정, 주원, 개그맨 최병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등이 찾았으며 계속해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빈소를 찾은 배우 윤소정은 고인에 대해 "가장 예뻐했던 후배"라며 "지난 번에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니.."라고 아들의 결혼을 못 보고 떠난 고인에 대한 애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br/> <br/>또 절친인 송도순은 "기침 나오니까 통화 말고 문자로 하라고 하더니…이렇게 빨리 가게 될지 몰랐다"며 "아들 결혼시킨다는 이야기에 웃으면서 좋아했다"고 생전의 고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br/> <br/>송도순은 이어 "임종 전에 '6개월만 더 있었으면'이라고 했다더라"면서 "그땐 알더래 자기가 가는지…"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br/> <br/>앞서 소설가 이외수는 16일 오후 2시께 트위터를 통해 "마왕님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라며 "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이지요"라고 밝히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br/> <br/>지난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 출신으로 '보통 여자', 'O양의 아파트', '꽃보다 누나'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故 김자옥은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br/> <br/>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안타깝네요"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김자옥 별세, 영원한 우리들의 공주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6.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막내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눈물만' 과거 故 김자옥이 한 말 들어보니...  
날짜: 20141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710015614907  
본문:   <br/> <br/> <br/>故 김자옥 빈소, 막내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눈물만' 과거 故 김자옥이 한 말 들어보니... <br/> <br/>故 김자옥 빈소가 마련된 가운데 과거 故 김자옥이 김태욱 아나운서에 대해 언급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故 김자옥은 2013년 8월에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막내동생인 김태욱에 대해 언급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故 김자옥은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에 대해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라며 "김태욱이 7형제 중 가장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얼핏 오빠같지만 나하고는 9살 나이차이고,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했다. <br/> <br/>이에 MC 강호동은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을 안 하셨느냐"라고 묻자 "안 하겠다고 했다.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 <br/>한편 故 김자옥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폐로 암세포가 전이됐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지난 16일 숨졌다. <br/> <br/>故 김자옥 빈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故 김자옥 빈소, 안타깝다", "故 김자옥 빈소, 마음이 아프네요", "故 김자옥 빈소, 너무 일찍 가셨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7.txt

제목: 끊임없이 재발하는 암… '완전정복' 어떻게?  
날짜: 2014111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328  
본문: 한 시대를 풍미한 명배우 김자옥이 16일 폐암으로 별세하면서 암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자옥은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암이 폐로 전이하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처럼 암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율이 매우 높은 무서운 병이다. <br/> <br/>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사진)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 다시는 걸리지 않기!’라는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 번 발생한 암의 재발을 막고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방침이다. <br/> <br/>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암이 발생하는 기전과 원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 ▲암을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 ▲발생한 암을 정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강좌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02)2072-0077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8.txt

제목: 소설가 이외수, 故 김자옥 애도 '마왕이어 공주님까지'  
날짜: 2014111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228  
본문: 소설가 이외수가 故 김자옥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br/> <br/>이외수는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왕님(故 신해철)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 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이시지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br/> <br/>김자옥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향년 63세로 폐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유족으로 남편이자 가수 오승근, 아들과 딸이 있다. 김자옥은 2008년 대장암으로 한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전 폐와 임파선 등에 암이 전이돼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고인의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예정이다. <br/> <br/>故 김자옥은 지난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동해왔다. 남편은 가수 오승근이다. 특히 김자옥은 1990년 대 도도한 공주 캐릭터로 혁신적인 중견배우 캐릭터를 구축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599.txt

제목: 김자옥 별세, 소속사 공식 입장 "사인, 폐암에 따른 합병증"  
날짜: 2014111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7931  
본문: 김자옥 별세김자옥 별세, 소속사 공식 입장 "사인, 폐암에 따른 합병증" <br/> <br/> <br/>김자옥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br/> <br/> <br/>11월 16일 김자옥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자옥이 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했다.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br/> <br/> <br/>김자옥은 지난 1970년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이며 '공주는 외로'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 <br/> <br/>특히 김자옥은 지난해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 출연했으며, 지난 1월 종영한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왔다. <br/> <br/> <br/># 다음은 김자옥 측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br/> <br/> <br/>연기자 김자옥씨가 2014년 11원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 하셨습니다 <br/> <br/> <br/>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1월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 지난 40여년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빈소 강남성모병원 14호실, 발인 11월 19일  8시 30분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0.txt

제목: "암은 이별 준비할 시간 주는 병"…故 김자옥은 '긍정의 아이콘'  
날짜: 2014111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125  
본문:   <br/> <br/>16일 오전 세상을 떠난 故 김자옥(63)은 한 마디로 ‘긍정의 아이콘’이었다.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으며,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를 웃어넘겼다. <br/> <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마지막회 게스트로 참여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대장암 투병과 관련해 입을 열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br/> <br/>김자옥은 “<span class='quot0'>작년에 ‘대장암 재발’ ‘드라마 하차’ 등의 기사가 나가니 내가 다 죽어간다는 말이 있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진 중 발견된 암이 다행히 수술하기 딱 좋은 부위에 있었다”며 “몇 년간 치료와 활동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br/> <br/>김자옥은 암이 결코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을 밝혀 시청자들을 감동케 했다. 김자옥은 “<span class='quot0'>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지,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지 등의 생각을 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 <br/> <br/>올 1월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꽃보다 누나’ 측도 김자옥을 긍정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렸다. 방송을 앞두고 tvN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할 또 하나의 ‘소녀’를 여러분께 소개한다”며 “바로 언제나 ‘소녀’ 이고픈 우리 둘째 누나, 자옥 누나”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br/> <br/>김자옥은 ‘꽃보다 누나’ 멤버들과 터키에서 방황하던 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당시 김자옥은 다른 멤버들이 우왕좌왕하는 통에도 “이 모든 상황을 난 쓰잖아”라며 앉아있던 카페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일기를 썼다. 또 “막 급하게 사람들이 그러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한다”며 “결국 다 될 건데”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br/> <br/>한편 김자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0여년간 사랑을 받은 고인의 명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되어 있으며, 발인은 오는 19일이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MBC·tvN 방송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1.txt

제목: '꽃누나' 김자옥, 폐암 투병 중 별세  
날짜: 2014111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7664  
본문: 폐암으로 투병하던 중견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br/> <br/>16일 김자옥 측은 대장암을 앓았던 고인이 최근 암이 폐로 전이 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오는 19일 발인 예정이다. 장지는 아직 미정이다. <br/> <br/>1951년 생인 고 김자옥은 지난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동해왔다. 남편은 가수 오승근이다. <br/> <br/>특히 김자옥은 1990년 대 도도한 공주 캐릭터로 혁신적인 중견배우 캐릭터를 구축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만년 소녀같은 모습으로 '꽃누나' 캐릭터를 확고히 하기도 했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2.txt

제목: [포토] 나문희, '故 김자옥만 바로보며'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62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3.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폐암으로 세상 떠나'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52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4.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조문하는 나문희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64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5.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폐암을 별세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58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6.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다시는 볼 수 없는 미소'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56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7.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미소 남기고 떠나'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53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8.txt

제목: 김자옥 별세, 향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조문 행렬 멈추지 않아'  
날짜: 2014111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9342  
본문:   <br/> <br/>김자옥 별세, 향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조문 행렬 멈추지 않아' <br/> <br/> <br/>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br/> <br/>16일 故 김자옥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자옥 씨가)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했다.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지난 11월14일 금요일 오후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 <br/>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치러지고 장지는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br/> <br/>김자옥 별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자옥 별세, 믿기지 않아", "김자옥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자옥 별세, 정말 안타까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09.txt

제목: [포토] 오승근, '아내 김자옥 떠나 보내며'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492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0.txt

제목: [포토] 故 김자옥 빈소, '조문 행렬 이어져'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491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1.txt

제목: [포토] 나문희, '故 김자옥 영정보며 슬픔에 잠겨'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90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2.txt

제목: [포토] 오승근, '슬픔에 잠긴 故 김자옥 남편'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91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3.txt

제목: [포토] 슬픔에 잠긴 故 김자옥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560  
본문:   <br/> <br/>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4.txt

제목: 故 김자옥 측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명복 빌어달라"  
날짜: 2014111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7978  
본문:   <br/> <br/>16일 오전 7시40분쯤 세상을 떠난 故 김자옥(63)의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밝혀졌다. <br/> <br/>김자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자옥 씨가 2014년 11월16일 오전 7시40분 별세 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br/> <br/>그러던 중 김자옥은 지난 14일 오후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병마와 힘겹게 싸운 김자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김자옥 측은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며 "지난 40여년 동안 사랑을 받아온 고인의 명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했다. <br/> <br/>한편 1951년생인 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방송 3사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한 김자옥은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와의 인연으로 프로젝트 음반 ‘공주는 외로워’를 발매,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또 올 1월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꽃보다 누나’를 통해 또 다른 매력을 과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세계닷컴 DB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5.txt

제목: 김자옥 별세, 문화계 애도 물결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날짜: 2014111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814  
본문: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김자옥 별세, 문화계 애도 물결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br/> <br/> <br/>김자옥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문화계 인사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br/> <br/> <br/>11월 16일 김자옥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자옥이 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했다.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br/> <br/> <br/>김자옥은 지난 1970년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이며 지난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 <br/> <br/>특히 김자옥은 지난해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 출연했으며, 지난 1월 종영한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왔다. <br/> <br/> <br/>김자옥 별세 소식에 영화, 가요, 방송 및 다양한 분야에서 그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 선후배들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네티즌들 또한 대중과 친근했던 '꽃누나' 故 김자옥의 별세 소식에 슬픔을 드러냈다. <br/> <br/>인터넷팀  사진 = 사진 공동취재단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6.txt

제목: 김자옥 별세, 사인? '폐암 합병증'..대장암이 폐로 전이  
날짜: 2014111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644  
본문: 김자옥 별세,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김자옥 별세, 사인? '폐암 합병증'..대장암이 폐로 전이 <br/> <br/> <br/>김자옥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인은 폐암 합병증으로, 대장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11월 16일 김자옥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자옥이 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했다.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br/> <br/> <br/>김자옥은 지난 1970년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이며 지난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 <br/> <br/>특히 김자옥은 지난해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 출연했으며, 지난 1월 종영한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왔다. <br/> <br/> <br/>김자옥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자옥 별세, 그곳에서도 행복하기를", "김자옥 별세, '꽃누나'가 이렇게 가버리다니", "김자옥 별세, 충격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7.txt

제목: [포토] 나문희, '자옥아 하늘에서 편히 쉬길'  
날짜: 20141116  
기자: 한윤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08490  
본문: 16일 오후 故 김자옥의 빈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 <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 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다. <br/> <br/> <br/>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8.txt

제목: '영원한 공주' 하늘무대로 오르다… 배우 김자옥 별세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610015610270  
본문: 16일 타계한 탤런트 김자옥의 빈소. 환하게 웃는 고인의 영정이 동료연예인과 팬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 있다. ‘영원한 공주’였던 탤런트 김자옥이 16일 오전 7시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세. <br/> <br/>고인은 수술을 받았던 대장암이 폐로 번져 항암 치료를 해오던 중 지난 14일 오후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5월 올림픽공원에서 악극 ‘봄날은 간다’에 출연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끝내 암을 이기지 못했다.  <br/> <br/>작고 아담한 체구에 꽃처럼 피는 미소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고인은 시인 고 김상화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CBS 기독교방송 어린이 전속 성우로 활동했다. 배화여중 재학 중 TBC 드라마 ‘우리집 5남매’ 출연을 거쳐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다. <br/> <br/>연기를 시작한 뒤에도 성우를 겸업했던 그는 1974년 MBC 라디오 드라마 ‘사랑의 계절’로 한국방송대상 성우상을 받았으며, 1975년에는 드라마 ‘수선화’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거머쥐었다.  <br/> <br/>지난 4월 마지막 작품이 된 악극 ‘봄날은 간다’의 시연무대 한 장면.이후 영화 ‘보통여자’ ‘O양의 아파트’ ‘영아의 고백’ ‘지붕위의 남자’ ‘상처’ 등을 통해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최우수연기상, 아시아영화제 우수배우상 등을 수상한 데 이어, 안방극장에선 ‘모래 위의 욕망’ ‘사랑과 진실’ ‘유혹’ 등의 드라마로 ‘김자옥 시대’를 열었다. <br/> <br/>인기 절정이던 1980년 가수 최백호와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은퇴했던 그는 2년 뒤 KBS 드라마 ‘사랑의 조건’으로 복귀하고 이듬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 1년 후 그룹 ‘금과 은’의 보컬 가수 오승근과 재혼해 지금까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살아왔다. <br/> <br/>1970∼1980년대 비련의 여인, 청순한 여인의 대명사로 꼽히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는 이후 ‘따뜻한 어머니’ 상을 줄곧 보여주며 중년 배우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1996년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가요계에 데뷔해 ‘공주는 외로워’를 히트시키기도 했다. 당시 애교 넘치는 공주 이미지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코믹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변신해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등 각종 예능 프로에 출연했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태진아는 “<span class='quot0'>한 행사에 같이 갔을 때 연기 활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에, 돌파구로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했고 당시 MBC ‘오늘은 좋은 날’에서 여고생 복장의 공주병 캐릭터로 등장해 방송 2주 만에 큰 반향을 일으켜 CF를 10여개나 찍을 정도였다</span>”고 회상했다.  <br/> <br/>1990년대 중반 ‘공주병 소녀’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의 모습.최근 위암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진 작가 이외수는 트위터에 “마왕님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 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이시지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적어 그를 기렸다. 가수 김광진은 “선배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항상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만 기억이 나는데요”라며 추모 글을 올리는 등 그의 영면에 동료, 후배는 물론 팬들도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br/> <br/>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는 남편 오승근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생전 절친했던 동료들이 앞다퉈 찾아와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코미디언 최병서, 개그우먼 박미선 이성미 등 생전에 그와 친했던 일부 연예인도 가족과 함께 빈소를 지켰다. 배우 나문희 윤소정 박원숙 송도순 등 동시대를 겪으며 친분을 쌓았던 동료 연예인들도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동료 및 후배들의 조화도 잇따랐다. tvN ‘꽃보다 누나’ 제작진을 비롯해, 배우 안성기, 김희애, 박시후, 가수 심수봉, 정수라 등이 조화를 보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br/> <br/>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1남1녀가 있으며, 발인은 19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19.txt

제목: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알고 보니 '선암'… "완치 방법 실마리는?"  
날짜: 20141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510015606679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1위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알고 보니 '선암'… "완치 방법 실마리는?" <br/> <br/>한국인의 폐암 유형 1위는 폐의 선 세포에 생기는 폐선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 김형렬 교수팀은 지난 13일 한양대의대,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해왔다. <br/> <br/>연구 결과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인 폐선암의 재발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밝혀져 폐암 재발 예방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br/> <br/>실험 결과에 따르면 R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한국인 폐암 유형 1위로 수술 후 조기 폐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결과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가 폐암의 재발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 유전자에 변이가 없는 환자의 6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br/> <br/>장세진 교수는 "RB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견으로 조기 폐암 수술 후 재발 고위험군의 분류 및 선별이 가능해져 적극적 치료와 재발 예방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0.txt

제목: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 일으키는 유전자 따로 있었나? 누리꾼 '충격'  
날짜: 20141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510015606410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1위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 일으키는 유전자 따로 있었나? 누리꾼 '충격' <br/> <br/>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가 발견됐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 김형렬 교수팀은 지난 13일 한양대의대,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해왔다. <br/> <br/>연구 결과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인 폐선암의 재발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밝혀져 폐암 재발 예방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br/> <br/>실험 결과에 따르면 R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한국인 폐암 유형 1위로 수술 후 조기 폐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결과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가 폐암의 재발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 유전자에 변이가 없는 환자의 6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br/> <br/>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의 암으로 최근에는 폐의 선(腺)세포에 생기는 '선암'이 국내 폐암 환자 중 40%에 달한다. 조기 폐선암의 경우 1기라 할지라도 10~20%는 수술 후 재발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br/> <br/>누리꾼들은 "폐암 유형 1위, 선암 무섭네"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역시 유전성이 강하군"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1.txt

제목: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폐선암' 재발유전자 발견.. 완치 비법 되나?  
날짜: 20141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510015607162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1위한국인 폐암 유형 1위인 폐선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가 발견됐다. <br/> <br/>한국인 폐암 유형 1위는 폐선암으로, 국내 폐암 환자의 40%에 달한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 김형렬 교수팀은 지난 13일 한양대의대,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해왔다. <br/> <br/>연구결과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가 폐암의 재발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 유전자에 변이가 없는 환자의 6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br/> <br/>이와 같은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견으로 폐선암의 재발 예측과 표적 약물치료 등 폐선암의 맞춤형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누리꾼들은 "폐암 유형 1위, 선암 무섭네"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역시 유전성이 강하군"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2.txt

제목: 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 재발 유전자 발견... 치료법 발견되나?  
날짜: 20141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510015606970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1위한국인 폐암 유형 1위 '선암' 재발 유전자 발견... 치료법 발견되나? <br/> <br/>한국인 폐암 유형 1위인 폐선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가 발견돼 눈길을 끈다. <br/> <br/>한국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폐암은 폐의 선세포에 생기는 선암 발병으로 국내 폐암 환자의 4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 김형렬 교수팀은 지난 13일 한양대의대,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해왔다. <br/> <br/>연구 결과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인 폐선암의 재발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밝혀져 폐암 재발 예방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br/> <br/>연구결과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가 폐암의 재발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 유전자에 변이가 없는 환자의 6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br/> <br/>이와 같은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견으로 폐선암의 재발 예측과 표적 약물치료 등 폐선암의 맞춤형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3.txt

제목: 부담되는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해결  
날짜: 20141114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410015601138  
본문: 매년 늘어나고 있는 암 발병률로 인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암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이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암 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완치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생활습관, 식습관의 급격한 변화와 과중한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아무리 제때 치료를 받으면 완치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암 치료비다. 국립 암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진단을 받은 후 1년간 지출되는 비용이 폐암은 약 2,500만원· 유방암 1,900만원· 간암 1,600만원· 위암 1,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런 비용을 한번에 선뜻 마련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방안으로 준비하는 것이 암 보험이다. <br/> <br/>암 보험이란 말 그대로 암 진단 시 때 암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최근에 늘어나는 암 발병률· 암 치료비용의 고액화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암 치료비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 그것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되고, 또 암 치료를 받는 중 소득 상실에 대한 가정경제의 부담이 몹시 크다. 실제로 암 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암 환자 전체의 76.5%나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대안으로 암 보험에 가입해두는 방법을 추천한다. <br/> <br/>암 진단비는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으로 나눠지고 다르게 지급되므로 질병 종류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 <br/> <br/>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 암 보험과 첫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다. 연령이 낮을 경우 비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50대 이후,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대는 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br/> <br/>아울러,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br/> <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 <br/>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4.txt

제목: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 토론회  
날짜: 2014111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410015601764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사진)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암 치료제의 위험분담 계약제 적용과 고가 항암제 접근성 강화 등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 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br/> <br/>토론회 1, 2부 행사는 대한암협회 노동영 부회장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을,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이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이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측면에서 정책적 보완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br/> <br/>이어 3부 종합 토론은 문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 대한암협회 곽점순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br/> <br/>문 의원은 “<span class='quot0'>고가 항암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현재의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후원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가 맡는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5.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커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날짜: 2014111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410015599367  
본문: 최근 커피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시는 커피 양이 유전자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은 ‘분자정신의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커피를 마시는 12만명의 유전자 구성을 조사한 기존 연구 28건을 분석한 결과, 커피 섭취와 연관된 유전자 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은 남과는 다른 유전자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못 마시는 사람도 일정 기간 꾸준히 커피를 마시면 몸이 적응하기도 한다. 커피의 약리작용 성분에 몸이 적응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br/> <br/>그렇다면 커피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었기에 몸에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푸린 계열의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커피나 코코아·차 등의 식물에 골고루 함유돼 있다. 카페인을 흡수하면 45분 이내에 혈액으로 유입돼 간에서 대사가 이뤄진다. 카페인 다음으로 많이 함유된 성분은 커피콩의 지방성분인 디테르펜이다. 디테르펜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양을 높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수록 안 좋은 성분 가운데 하나다. 더운물에 직접 닿으면 쉽게 추출되지만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대부분 걸러진다. <br/> <br/>◆ 에스프레소·아메리카노, 다이어트에도 '好好' <br/> <br/>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열량은 5kcal 미만이다. ▲카푸치노 120kcal ▲카페모카 310kcal ▲프라푸치노 400kcal 열량인데, 우유와 설탕을 넣을수록 열량은 높아진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커피는 검은색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기초대사율은 물론 에너지 소비, 지방 산화, 지방 분해, 열 발생 활동 등을 높이고 이런 모든 작용이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 <br/> <br/>뿐만 아니라 커피는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 결과, 스트레스나 유해 자극에 의해 기억력이 교란될 때 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인에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포르투갈 코임브라대 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에는 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손상된 인지 능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만성 스트레스, 주의력 결핍증, 과잉행동장애, 조기 발작증, 알코올성 기억력 상실증에도 커피가 유용한 효과를 발휘한다. <br/> <br/>또 커피는 유방암이나 결장직장암·전립샘암·난소암·췌장암·간경화·간세포성암·위암·신장암·방광암·뇌종양·피부암·구강암·식도암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과 커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무척 방대한데, 이 연구들에 따르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디테르펜·커피산·폴리페놀·아로마·헤테로고리 화합물 등 여러 생물학적 활동 성분이 증상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화크산틴 계열의 카페인은 기관지 확장제인 테오필린 성분을 함유해 폐 기능을 높여 천식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크산틴 산화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통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br/> <br/>◆ 하루 4잔이상 마시면 심·뇌혈관에 부정적 <br/> <br/>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나쁘게 작용하기도 한다. 커피도 마찬가지다.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심장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커피 한 잔에는 100mg 안팎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으며, 성인이 하루 섭취 권고량인 400mg을 초과해 섭취하면, 심·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br/> <br/>커피 한 잔을 마시면 4~6mg의 칼슘 손실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폐경기 여성이나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는 여성이 특히 이런 질병에 취약한데, 그럴수록 우유나 채소를 통해 적절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아직 논쟁 중인 사안이지만, 커피 과다 섭취가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200mg 이상 커피를 섭취할 경우 급성 이뇨 작용이 발생하고 체내 수분이 감소해 칼슘 배출을 유도하면서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 성인들, 쌀밥보다 커피 더 찾는다 <br/> <br/>회사원 김모(30·여)씨는 지난달 커피값으로만 20만원을 넘게 썼다. 하루 3~4잔씩 습관처럼 마신 결과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커피는 음료라기보다 주식에 가깝다</span>”고 말한다. 한국인의 주식이 밥에서 커피로 바뀔 지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들이 일주일에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커피로 나타났다. <br/> <br/>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3805명(만19∼64세)을 대상으로 음식 항목별(총 112개) 일주일당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커피는 주당 12.3회로 단일 음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성인 1명당 하루에 1.8번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br/> <br/>사람들은 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찾았다. 이어 ▲배추김치 주당 11.8회 ▲잡곡밥 주당 9.5회 ▲쌀밥 주당 7회 ▲기타김치 주당 4.5회 ▲우유 주당 2.7회 순이었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커피는 12.1회보다 조금 늘었고 밥과 배추김치는 조금씩 줄었다. 1895년 커피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여년만에 나타난 변화다. <br/> <br/>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수입량은 관세청 기준 연간 10만t을 웃돈다. 성인 1인당 연간 아메리카노(커피 10g) 약 300잔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음식군별 주당 섭취빈도는 아직 밥이 17.8회로 가장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커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날짜: 2014111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410016316270  
본문: 최근 커피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시는 커피 양이 유전자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은 ‘분자정신의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커피를 마시는 12만명의 유전자 구성을 조사한 기존 연구 28건을 분석한 결과, 커피 섭취와 연관된 유전자 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은 남과는 다른 유전자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못 마시는 사람도 일정 기간 꾸준히 커피를 마시면 몸이 적응하기도 한다. 커피의 약리작용 성분에 몸이 적응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br/> <br/>그렇다면 커피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었기에 몸에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푸린 계열의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커피나 코코아·차 등의 식물에 골고루 함유돼 있다. 카페인을 흡수하면 45분 이내에 혈액으로 유입돼 간에서 대사가 이뤄진다. 카페인 다음으로 많이 함유된 성분은 커피콩의 지방성분인 디테르펜이다. 디테르펜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양을 높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수록 안 좋은 성분 가운데 하나다. 더운물에 직접 닿으면 쉽게 추출되지만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대부분 걸러진다. <br/> <br/>◆ 에스프레소·아메리카노, 다이어트에도 '好好' <br/> <br/>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열량은 5kcal 미만이다. ▲카푸치노 120kcal ▲카페모카 310kcal ▲프라푸치노 400kcal 열량인데, 우유와 설탕을 넣을수록 열량은 높아진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커피는 검은색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기초대사율은 물론 에너지 소비, 지방 산화, 지방 분해, 열 발생 활동 등을 높이고 이런 모든 작용이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 <br/> <br/>뿐만 아니라 커피는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 결과, 스트레스나 유해 자극에 의해 기억력이 교란될 때 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인에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포르투갈 코임브라대 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에는 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손상된 인지 능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만성 스트레스, 주의력 결핍증, 과잉행동장애, 조기 발작증, 알코올성 기억력 상실증에도 커피가 유용한 효과를 발휘한다. <br/> <br/>또 커피는 유방암이나 결장직장암·전립샘암·난소암·췌장암·간경화·간세포성암·위암·신장암·방광암·뇌종양·피부암·구강암·식도암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과 커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무척 방대한데, 이 연구들에 따르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디테르펜·커피산·폴리페놀·아로마·헤테로고리 화합물 등 여러 생물학적 활동 성분이 증상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화크산틴 계열의 카페인은 기관지 확장제인 테오필린 성분을 함유해 폐 기능을 높여 천식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크산틴 산화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통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br/> <br/>◆ 하루 4잔이상 마시면 심·뇌혈관에 부정적 <br/> <br/>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나쁘게 작용하기도 한다. 커피도 마찬가지다.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심장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커피 한 잔에는 100mg 안팎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으며, 성인이 하루 섭취 권고량인 400mg을 초과해 섭취하면, 심·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br/> <br/>커피 한 잔을 마시면 4~6mg의 칼슘 손실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폐경기 여성이나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는 여성이 특히 이런 질병에 취약한데, 그럴수록 우유나 채소를 통해 적절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아직 논쟁 중인 사안이지만, 커피 과다 섭취가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200mg 이상 커피를 섭취할 경우 급성 이뇨 작용이 발생하고 체내 수분이 감소해 칼슘 배출을 유도하면서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 성인들, 쌀밥보다 커피 더 찾는다 <br/> <br/>회사원 김모(30·여)씨는 지난달 커피값으로만 20만원을 넘게 썼다. 하루 3~4잔씩 습관처럼 마신 결과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커피는 음료라기보다 주식에 가깝다</span>”고 말한다. 한국인의 주식이 밥에서 커피로 바뀔 지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들이 일주일에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커피로 나타났다. <br/> <br/>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3805명(만19∼64세)을 대상으로 음식 항목별(총 112개) 일주일당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커피는 주당 12.3회로 단일 음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성인 1명당 하루에 1.8번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br/> <br/>사람들은 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찾았다. 이어 ▲배추김치 주당 11.8회 ▲잡곡밥 주당 9.5회 ▲쌀밥 주당 7회 ▲기타김치 주당 4.5회 ▲우유 주당 2.7회 순이었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커피는 12.1회보다 조금 늘었고 밥과 배추김치는 조금씩 줄었다. 1895년 커피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여년만에 나타난 변화다. <br/> <br/>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수입량은 관세청 기준 연간 10만t을 웃돈다. 성인 1인당 연간 아메리카노(커피 10g) 약 300잔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음식군별 주당 섭취빈도는 아직 밥이 17.8회로 가장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7.txt

제목: 웨딩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궁근종, 난임 원인  
날짜: 20141114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410015601682  
본문:   <br/> <br/># 예비신부 김영지(여, 30) 씨는 결혼을 석달 앞두고 웨딩검진을 받았다. 혈액검사, 자궁암검사, 초음파 검사를 차례로 받던 중 1cm, 3.7cm의 자궁근종 2개가 발견됐다. <br/> <br/>평소 생리주기도 정상이었고 첫날 생리통이 심한 것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않았다. 의사는 “<span class='quot0'>자궁근종을 치료하지 않으면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유산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가 늘었다. 웨딩검진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2세를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신부들은 산부인과에서 혈액, 초음파, 빈혈, 성병, 암 검사 등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검진은 결과까지 5~1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초음파 검사의 경우 자궁근종, 선근증 등의 종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br/> <br/>김민우 산부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1'>많은 여성들이 생리양의 증가, 생리통, 빈혈 등의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고 있는데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은 증상 없이 크기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자궁근종은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혼 전 2~6개월 전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자궁근종 절반은 무증상으로 발생  <br/> <br/>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다. 대부분 발육 속도가 완만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주위 조직과의 경계가 명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 되지 않으며 생명을 위협할 일도 거의 없다. <br/> <br/>하지만 자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임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임기 여성들의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가 중요해졌다. 자궁근종의 증상은 통계적으로 20~50%에서 월경과다, 골반통, 초기유산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자궁암 검진 때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 <br/> <br/>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궁근종이 있어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의 형태가 변하거나 난관의 구조가 변하는 경우 착상률이 떨어지고 임신에 성공했더라도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br/> <br/>자궁근종은 흔히 자궁근층 내 깊숙이 생기며, 자궁을 덮고 있는 복막 바로 아래 또는 자궁내막 하층에도 생길 수 있다. 여러 개가 다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크기는 1cm미만부터 거대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br/> <br/>대부분의 자궁근종은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임신과 착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궁근종이 3cm이상 커질 경우에는 자연유산, 조기진통, 자궁기능 부전, 태아의 위치이상, 태반 잔류 및 산후출혈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br/> <br/>◆자궁 보존하고 근종만 치료 가능해 <br/> <br/>평소 생리통, 생리 과다 등의 특별한 증상이 없고 초음파 검사상 1cm미만의 크기가 작은 근종이 발견됐다면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상태를 파악하면 된다. 하지만 3cm이상이거나 다발성으로 생겼을 경우 또는 급작스럽게 성장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동반됐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br/> <br/>김민우 전문의는 “<span class='quot2'>치료법은 연령, 산과력, 가족환경,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2'>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궁근종이 크거나 증상이 심한 환자들도 절개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후유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자궁 손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자궁근종의 치료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임기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 자궁의 안전하게 보존하고 근종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의 최신 치료법인 하이푸 시술(HIFU)은 기존 수술적인 치료와 달리 절개나 출혈없이 종양 조직만을 제거하는 시술법이다. <br/> <br/>부작용이 적고 시술 직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해 결혼을 앞두었거나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이 시술 받을 수 있다. 절개로 인한 흉터가 없고 자궁 손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최신 수술법으로 지난 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자궁근종, 자궁 선근증의 비침습적 시술로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이라는 검증을 거쳤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8.txt

제목: 식욕조절 호르몬 조절을 통한 한방 비만 치료  
날짜: 20141113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310015595935  
본문: 비만이란 체지방의 과잉 축적을 의미하는데, 이는 장기간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아주 작은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과거의 비만 치료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위주로 진행이 됐지만, 최근에는 섭식 욕구와 에너지 소모 행동을 조절해 에너지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br/> <br/>최근에는 섭식욕구 및 에너지 소모 행동이 신경내분비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 섭식 욕구를 억제하는 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배고픔을 느끼게 해 섭식 욕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br/> <br/>이노한의원 박경미 원장은 “<span class='quot0'>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비만의 생리적 정체는 습담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뜻하는데, 습담은 렙틴내성으로 인한 식욕의 증가, 고그렐린혈증으로 인한 포만감의 결여· 고지혈증· 세포외 체액의 저류로 인한 부종과 유사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습담을 제거하는 다양한 약재를 체질에 맞게 배합함으로써 비만 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 예로 비만 치료에 주재로 쓰이는 약재 중 하나인 의이인은 한의학적으로 소화관내 습담을 배출시키고, 표피 중의 습담을 제거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부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 의학적인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의이인은 고지방식이에 의한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몸무게 증가를 억제하고 혈중 렙틴의 농도도 감소 시킨다는 것이 판명됐다. <br/> <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0'>실제로 비만 환자에게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관여하는 약재를 체질에 맞게 사용했을 때, 섭식 욕구를 억제해 유의한 체중감소와 체질량지수의 개선 및 에너지 소모량 증가가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조절을 통해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다이어트를 행하는 과학적 한방 치료의 한 예</span>”라고 말했다. <br/> <br/>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이노한의원의 박경미 원장은 KAIST 생명과학과 박사 출신이라는 이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천연물 유래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해 알레르기 치료, 알콜성 간장 질환 치료· 환경호르몬에 의한 내분비계 교란의 치료· 면역증진을 통한 암 치료 등의 연구를 10년이상 수행해왔다. <br/> <br/>이후 한의학에 입문한 그는 6년간의 한의대 학창시절 동안 전통 한의학을 두루 섭렵하면서도 인삼의 연구결과를 해외에 소개하는 책(Herbal Medicine, CRC press)의 저자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br/> <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0'>전통적인 한의학 고서에 기술돼 있는 약초의 효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최신의 연구 결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약초 하나하나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임상에 활용해 한의학적 치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싶다</span>”라고 전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앞으로의 한의학은 보다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상의들이 자신의 치료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 필요하다</span>”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29.txt

제목: 단국대 ‘춘강 효행 장학금’ 수여  
날짜: 20141113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310015594247  
본문:   <br/> <br/>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가 13일 천안캠퍼스 인문학관 대회의실에서 ‘춘강효행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재학생 10명에게 각 200만원씩 2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br/> <br/>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희귀병이나 암 투병중인 부모님을 간호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보충하는 학생부터 가장 역할을 하며 형제의 학비까지 지원하는 등 애틋한 사연이 줄을 이었다. <br/> <br/>장학생으로 선발된 홍석이(23·멀티미디어공학과 3학년)씨는 군 복무 중 부친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효행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br/> <br/>김리원(19·식품영양학과 1학년)씨는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간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요양원, 장애아동 시설, 다문화가정 멘토링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br/> <br/>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성실한 학생들이라는 것이 장학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br/> <br/>김리원씨는 “효행 장학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훗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br/> <br/>최학근 단국대 부총장은 “<span class='quot0'>어려운 환경에서도 효행과 봉사를 실천해 장학금을 받게 된 우리 학생들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선행을 실천하는 사회의 귀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span>”고 격려했다. <br/> <br/>단국대 춘강효행장학금은 지난 2008년 단국대 동문인 춘강(春江) 박상엽 선생이 모교에 기탁한 10억원을 기반으로 설립된 장학금으로, 2009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왔다. 기탁자의 뜻에 따라 성적이나 특기가 아닌 ‘효행’을 기준으로 매 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학기까지 총 98명의 재학생에게 약 2억 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0.txt

제목: 국내 폐암 유형 1위 '폐선암' 재발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  
날짜: 201411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310015594592  
본문: 한국인 폐암 유형 중 가장많은 폐선암의 재발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밝혀졌다. <br/> <br/>이번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은 폐암 재발 예방 및 치료 길을 찾을 단서로 여겨진다.  <br/> <br/>13일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병리과)·김형렬(흉부외과) 교수, 한양대학교 의대 공구 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 백대현 교수 등으로 이뤄진 공동 연구팀은 근치적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RB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조기 폐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폐선암 1기 157명, 2기 44명, 3기 40명, 4기 6명 등 총 247명 환자에서 얻은 각각의 폐암 조직과 정상 폐 조직을 대상으로 차세대 유전체 검사법인 전체 엑솜 염기서열 분석법(Whole Exome Sequencing, WES)을 이용해 유전체 모두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폐선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 중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정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유전자 변이 22개를 발견했으며 이중 16개는 새롭게 발견한 변이였다. <br/> <br/>특히 조기 폐선암 환자군(1·2기)에서 5년 재발률을 비교했을 때, RB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군(전체 환자군의 5.9%)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재발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br/> <br/>RB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재발 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br/> <br/>RB 유전자 변이가 조기 폐선암 수술 후 환자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br/> <br/>장세진 교수는 "총 247개의 폐선암종 유전체와 정상유전체를 함께 분석한 이번 연구는 폐암 유전체 단일연구로는 최대 규모이며 유전체 연구 결과의 임상적 응용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RB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견으로 조기 폐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재발 고위험군의 분류·선별이 가능해져 적극적 치료 및 재발 예방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br/> <br/>김형렬 교수는 "이러한 표적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의 지출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폐암 관련 16개 유전자 발견과 EGFR 유전자 변이 확인 등 한국인 특유의 유전체 규명 소식은 한국인 폐암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개인 맞춤 치료제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암연구학회(AACR)가 발간하는 임상암연구(Clinical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실렸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1.txt

제목: 아내의 자궁 이식한 남편 아이 낳을 수 있을까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310015597150  
본문: “남자가 임신한 여자의 자궁을 이식받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학의 미래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과장님들의 고견을 직접 듣고 썼습니다. 아직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 뿐이죠.” <br/> <br/>의사 소설가 유문두(55·사진) 통영 성모병원 원장이 새 장편소설 ‘임신夫’를 펴냈다. 임신한 부녀가 아니라 ‘아이를 밴 남자’라는 제목이다. 유 원장은 소설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남자 엄마’의 이야기를 가정을 지키려는 한 가장의 사연에 녹여냈다. <br/> <br/>전문직 종사자들의 소설은 구체성과 실감 차원에서 전문지식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서구 작단에서 변호사나 의사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배경이다. 이번 소설은 유 원장이 작심하고 쓴 의학 소설이다. 그는 자궁 이식의 미래를 합리적인 추론과 현직 의사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썼다. 소설에서 산부인과 4년차 수련의인 닥터 유는 여름 휴가를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통영으로 간다. 그곳에서 임신한 아내는 바다 지진을 만나 쓰나미에 휩쓸리고 죽음 직전에 이른 그 아내로부터 자궁을 이식받기 위해 남자인 닥터 유가 몸을 내놓는다. <br/> <br/>소설에서 가사 상태의 임신 초기 젊은 부인의 자궁을 적출해 자신의 배에 이식하려 했던 동성애 남자의 경우는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가톨릭 재단 대학의 신부가 강력하게 자궁 이식을 반대하면서 미래의 생명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닥터 유는 과연 소설에서 남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 무사히 생존하는 기록을 세웠을까. 현실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이 진행되는 정도다. <br/> <br/>“의학적인 화제를 떠나서라도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싶은 작의도 있었습니다. 소설 속 닥터 유는 처음에는 가정에 소홀했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의 자궁 속 아이를 직접 자신의 배로 받아들이는 수술을 자청한 겁니다.” <br/> <br/>편도암 3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 유 원장은 가톨릭 의대를 나와 경남 통영에서 의사로 살아오면서 7년에 걸쳐 12권짜리 대하소설 ‘귀향’을 펴낸 작가다. 통영을 무대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파란 많은 현대사를 건너온 다양한 인간 군상(群像)의 삶과 운명을 그려냈다. 그는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서 소설을 써왔는데 8년째 암이 재발하지 않아 거의 완치된 단계라고 한다. <br/> <br/>유 원장은 “<span class='quot0'>몸도 안 좋은데 왜 그리 힘든 작업을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지적 시점에서 인간의 운명을 주무르며 소설을 쓸 때면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재미있다</span>”면서 “소설이 나를 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 구간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새로운 장편도 구상해놓았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2.txt

제목: 비갱신형 암보험 똑소리나게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자  
날짜: 20141112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210015584908  
본문: 암은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최신 장비비용, 치료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정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질병이다. 따라서 암 치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암 보험 상품을 알아보는 추세이지만 다양한 보험상품 때문에 혼자서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br/>  <br/>암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장인 김씨(32세)는 암 보험을 미리 준비하려고 여러 상품들을 알아보다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일정 기간 지나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암 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알았다. 이미 보험료가 한 차례 갱신되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해지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이라며 고충을 털어 놓았다. <br/> <br/>갱신형은 가입시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최대 4배 가량 증가할 수 있다며, 젊은 층의 경우 처음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만기시까지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갱신형 암 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다. <br/> <br/>따라서 암 보험 가입시 비갱신형인 지 갱신형인 지 가입유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입시 특약 선택에 따라 보험료 인상될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 특약이 아닐 경우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암 보험은 보험사마다 특징이 다르고 보장해주는 범위나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br/> <br/>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이 낮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기에 필요한 보장이라면 상품 비교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br/> <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br/> <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 <br/> <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 <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 보험비교몰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무료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3.txt

제목: 김은기 청주한국병원 건강검진센터장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날짜: 20141112  
기자: 김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210015585107  
본문: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한 사례가 많습니다</span>” <br/> <br/>김은기 청주한국병원 건강검진센터장(가정의학과 전문의·사진)은 “<span class='quot1'>저희 병원에 아무런 증상이 없이 찾아와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으로 확진 받는 사례만 해도 1년에 50명이 훌쩍 넘는다</span>” 며 “<span class='quot1'>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방광암을 발견하는 등 우연히 다른 장기의 암을 알아낸 경우도 최근에만 3건이 있었다</span>”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r/> <br/>이어 김센터장은 “<span class='quot1'>40대부터는 모든 사람이 위장 내시경을 비롯한 종합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질병을 조기에 알아낼 수 있고, 50대부터는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제거로 대장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30대부터 유방을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자가검진을 실시해야 자기수명대로 사는 기본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1'>특히 흡연자 및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는 경우는 노화로 인한 위점막이 얇아져서 생기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발생하여 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1'>본인 나이에 맞는 연령대별 건강검진외에도 특정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span>”라며 “<span class='quot1'>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벌써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몇 년 전 35세 여성이 남편에게 떠밀려오다시피 해 위 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암으로 진단된 적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우연히 왔다가 조기에 진단 받으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삶을 이어오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 센터장은 요즘은 암을 진단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 대해 의료장비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br/> <br/>청주한국병원에는 다음달 10일 독일 지멘스사의 256채널 CT가 들어온다. <br/> <br/>이 장비는 현재 충북에서 유일하다. <br/> <br/>이 장비는 현존하는 CT장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심장촬영이 가능해 기존 CT로 30분 걸리던 것이 5분 안에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br/> <br/>특히 이 장비는 움직이는 장기인 폐와 심장, 장을 촬영하고 판독하는데 탁월한 기능이 있어 돌연사를 막을 수 있는 협심증 심근경색의 진단, 머리혈관이나 신체부위의 혈관의 염증을 알아낼 수 있다. <br/> <br/>방사능 피폭량도 기존CT의 4분의 1수준으로 적어 수검자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r/> <br/>한국병원에서 지난해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경우는 모두 56건으로 이 가운데 갑상선암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암등 소화기계 암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올해는 지금까지 37명이 건강검진을 통해 암 확진을 받았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4.txt

제목: ‘무서운 암’췌장암, 생존률 가장낮아..호전이나 회복은 없나?  
날짜: 2014111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010015568359  
본문: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모든 암의 종류 중 가장 낮으며 ‘나빠진 것에 대한 호전이나 회복은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난치성 질환으로 꼽혀 왔다. <br/> <br/>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췌장암은 국내에서 2000년대 중반 ‘아버지 신드롬’을 일으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화제의 장편 소설 '아버지' (김정현 지음)의 주인공이 진단받은 암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br/> <br/>이 작품에서 유능한 의사인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조차도 임종이 다다를 때까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질환’으로 묘사된 이후 다른 작품들 속에서 극적인 소재로 등장해왔기에 대중들에게는 특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되어 왔다.  <br/> <br/>그러던 중 2011년 췌장암과 투병 중이던 글로벌 기업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자 백만장자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질환’으로의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 <br/> <br/>실제로 췌장암은 높은 악명만큼 항암치료 옵션도 제한적인 편이다.지난 9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내년 시판 예정인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경우는 최근 영국에서 실시된 췌장암 임상시험에서도 모든 시험 환자 대상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br/> <br/>단, 체내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생체물질인 이오탁신의 생체지표가 높은 특정 환자군에서만 생존일이 약 두 배로 연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에도 연장 기대수명은 15개월에 불과하지만 식약처는 “<span class='quot0'>췌장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의 의미에서 시판을 허가했다</span>”고 발표했다. <br/> <br/>스티브 잡스의 병으로 알려진 췌장암의 종류는 정확히 랑게르한스섬세포종양(islet cell tumors)으로도 불리는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NET, Neuroendocrine tumors)인데 종양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시점에서 이미 환자의 약 60%는 암세포가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로 치료가 매우 어려운 희귀 악성 종양이다.  <br/> <br/>평균 생존기간은 17개월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방법은 수술과 화학요법이 있으나 역시 제한적이고 본디 신장암 치료제로 알려졌던 표적치료제 에베로리무스(everolimus)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상태다. <br/> <br/>이러한 실정에서 통합한방암치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져 있다. 한의학 전문의 임창락 원장은 “단순히 면역력만 높이거나 환자가 체감하는 기력이 좋아진다고 암이 성장하지 않는 몸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방암치료에서도 대강의 눈대중이 아닌 치료결과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r/> <br/> <br/>도움말:큐어람한의원의 임창락 원장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5.txt

제목: 30대 여성, 올해 위 내시경 받으셨나요  
날짜: 20141110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010015566633  
본문:   <br/> <br/># 자녀를 출산한 후 3년 여 동안 육아에 전념했던 김미애 씨(32세)는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김 씨는 위장에 작은 크기의 용종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r/> <br/>위장 용종은 치료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씨가 검진을 실시한 병원에는 치료내시경 시술이 도입돼 있지 않아 또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 <br/> <br/>위장 용종은 상황이나 크기에 따라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pan class='quot0'>일정에 쫓기다 보니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에 나섰다</span>”는 김 씨는 “<span class='quot0'>검진 이후 시술까지 고려했다면 검진 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보다 꼼꼼하게 고려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위 내시경 사각지대 30대 여성, 위암에 속수무책 <br/> <br/>최근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위암 추이를 보면 전 연령대의 위암 발생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유독 40대 여성에서만큼은 1999년에서 2011년까지 위암 발생률이 22%나 증가했다. <br/> <br/>전문가들은 국가적인 건강겅진 사업으로 인해 40대 여성의 위 내시경 검사가 활발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30대에 발생한 위암이 위 내시경 검진을 통해 40대에 발견됐을 가능성도 높다.  <br/> <br/>위암은 종양이 점막층과 점막하층에 분포하는 조기위암과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의 단계로 진행되는 진행성위암으로 나뉜다. 조기위암의 경우에는 5년 간 생존율이 100%에 이른다. 때문에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r/> <br/>30대 여성은 위 내시경 검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병원을 찾지 않으면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br/> <br/>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 유태호 센터장은 “<span class='quot1'>30대 여성은 암 가능성이 낮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검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커 상대적으로 검진에 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족력이 있거나 위암 징후가 있었다면 2년에 한 번씩은 위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위 내시경 검사를 위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은 전체 위 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0.25%에 그쳤다. <br/> <br/>◆진단부터 종양제거까지 가능한 치료내시경 <br/> <br/>젊은 여성의 위암에는 미만형 위암 비율도 높아 더욱 위험하다.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가 빠르고 항암치료가 어려운 미만형 위암은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한 성인 여성에게서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하지만 검진 등을 통해 조기에 발견된 암은 시술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생존율도 높다. 최근에는 한번의 내시경으로 종양제거까지 가능한 치료내시경이 도입돼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br/> <br/>조기 발견된 종양을 떼낼 수 있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은 내시경에 달린 기구로 병변 아래의 점막을 제거해 외과적 절개가 필요 없다. <br/> <br/>치료내시경은 조기위암 진단 및 치료뿐 아니라 내시경적 식도확장술, 체내 스텐트(관) 삽입술 등을 비롯해 위로 직접 튜브를 삽입해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피 내시경적 위루술(PEG) 등에 두루 사용된다. 상당히 민감한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요한다. <br/> <br/>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박재석 소화기병센터장은 “<span class='quot2'>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질환이 발견됐을 때 추가적인 치료나 시술까지 염두에 두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30대 여성의 위암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치료내시경 도입 여부나 시술횟수 등의 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6.txt

제목: '주인님 안녕히 가세요'…암투병 주인에 인사한 말 '감동'  
날짜: 2014111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1010015567846  
본문: 암 투병 중이던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아끼던 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다. <br/> <br/>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등 현지 매체는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와 관련해 최근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쉬라 마쉬(77)라는 이름의 할머니는 그동안 경마장에서 근무했으며, 평소에도 말과 자신을 한 몸으로 여길 만큼 그곳을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쉬는 지난 25년간, 집에서 말과 개, 고양이 등을 키울 정도로 동물 애호가였다. <br/> <br/>그러나 마쉬는 암이라는 적군을 만나 힘겹게 싸워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다한 것을 안 듯 마쉬는 입원 중인 병원 측에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브로닌’이라는 이름의 말과 인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br/> <br/>의료진에 의해 옮겨진 마쉬는 침대 위에서 브로닌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그 둘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던 나머지 의료진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리고 마쉬는 브로닌과 인사를 나눈 몇 시간 후, 숨을 거뒀다. <br/> <br/>마쉬의 딸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했다”며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 병원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맨체스터이브닝뉴스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7.txt

제목: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암과 희망' 노래  
날짜: 20141109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910015561334  
본문: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은 제2회 ‘앎의 날’을 맞아 11일 오후 1시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앎의 날’은 ‘암’과 ‘알다’의 합성어로,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분당서울대병원만의 특별한 행사다. <br/> <br/>이번 강좌는 ‘병원과 암환자의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암센터 의료진들의 치료 경험을 소개한다. 외과 김성원 교수가 ‘가슴아린 동행 이야기’,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가 ‘신실한 동행 이야기’, 혈액종양내과 김유정 교수가 ‘희망의 동행 이야기’를 각각 발표한다. <br/> <br/>특히 직장암을 극복한 이해인(사진) 수녀가 ‘시, 노래, 이야기가 있는 가을’이란 제목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행사 당일 별도로 설치되는 부스에서는 환우회 및 암환우 멘토들의 상담도 이뤄진다. 이밖에 한호성 암뇌신경진료부원장의 축사, 한유애 합창단의 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다. <br/> <br/>이번 강의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좌 후에는 이해인 수녀의 도서 사인회가 열린다. (031)787-2515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8.txt

제목: 최면감성출산으로 환자에게 감동 선사하는 ‘김포나리병원’  
날짜: 20141107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710015556140  
본문: 올해로 개원 17주년을 맞는 나리병원은 ‘환자에게 감동을· 직원에게는 자긍심을· 사회에는 희망을’이라는 핵심 가치와 비전으로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종합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여성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자궁근종클리닉· 산후조리원· 산모문화센터등 여성의 모든 진료를 완전히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발 돋음하고 있다. <br/> <br/>나리병원의 건물은 외양자체가 독특하다. 이는 최근 SBS ‘컬처클럽’ 건축 특집에 출연한 ‘서울시 총괄건축가’ 승효상씨의 걸작품이다.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붉게 녹슨 듯한 특수철판 '코르텐강(剛)'은 그늘에서는 음전한 팥죽빛이지만 볕이 들면 아연작약 빛으로 아름답게 변한다. <br/> <br/>건물에 난 창문의 크기와 위치를 불규칙하게 한 것은 같은 경관이 다르게 비친다. 나리병원을 구성하는 두 개의 건물은 사이의 공간을 비우고 여러 개의 통로를 이어 연결했다. 하나의 건물 안에 길이 있고 공원이 있고 안과 밖의 공간이 존재한다. 승효상씨는 비어 있음에도 그 안은 가득 차 있다. 이를 '어번보이드(도시의 빈공간)'이라 이른다. <br/> <br/>나리병원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좋은 출산을 위한 ‘최면감성출산’으로 출산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새로운 출산문화를 선도해 주목 받고 있다. <br/> <br/>최면감성출산을 위한 시설로 자유진통실· 감성출산실· 최면유도실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돼 있다. 그 중 최면유도실은 산모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곳으로 고통스러운 출산이 아닌 고요한 출산을 위한 준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br/> <br/>나리병원 이종찬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좀 더 많은 산모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출산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과감한 의료시설 투자와 서비스 향상을 지향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39.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성료'  
날짜: 2014110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710015555941  
본문: 사진설명=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7일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7일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송재훈 원장은 “<span class='quot0'>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1994년 11월 9일 문을 연 삼성성서울병원은 의료계에서 변화와 혁신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의료계 문화가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는데 큰 기여를 했다. 삼성서울병원이 개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계에는 친절, 서비스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희박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고객의 개념을 환자에게 적용, 의사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친절이 몸에 배도록 했다. <br/> <br/>진료 성과면에서도 한국 의료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해 왔다. 1994년 국내 최초로 뇌종양 내시경 레이저 수술을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간암 초고주파 열치료 성공 ▲2001년 국내 최초 소장이식수술 ▲2002년 국내 최연소 생후 3개월 간이식 ▲2008년 병원간 부부 간이식, 싱글포트 복강경 신장수술 ▲2012년 반영구 인공심장수술 ▲2013년 신장이식 후 면역관용 등 국내 의료 역사를 새롭게 썼다. <br/> <br/>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 기관으로서 치료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06년 삼성의료봉사단을 출범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국내외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3만9908명, 아프리카 등 해외 1만5858명을 진료했다. 그 밖에 밝은 얼굴 찾아 주기, 무료 심장 및 개안수술(Heart for Heart, Heart for Eye), 인공와우수술 프로그램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br/> <br/>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한국인이 주로 걸리는 5대암에 대해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의학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송 원장은 “<span class='quot0'>새로운 도약을 향해 다시 한 번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20년은 더욱 더 기대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유방내분비외과 남석진, 신경외과 남도현,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 등 공로상과 장기근속상, 모범상 등을 수여했다. ‘한국의료 세계로 나아간다’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도 성황리에 열렸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0.txt

제목: 인천성모병원, 여성 암환자 '외모관리' 특강  
날짜: 2014110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610015546307  
본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원장 이학노·사진) 사회사업팀은 여성 암환자의 외모 관리를 돕기 위해 21일 오후 2시 병원 15층 마리아홀에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제목의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br/> <br/>암 환자는 힘든 진료 과정뿐만 아니라 항암·방사선 치료에 따른 탈모·피부변색 등 외모 변화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특히 여성 암환자는 달라진 외모 때문에 외출을 꺼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br/> <br/>이번 공개 강좌는 여성 암환자의 자신감을 찾아주고 삶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종양간호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한다. 전문 강사가 여성 암환자의 피부관리, 메이크업 등 외모 관리의 노하우를 소개한 뒤 실습 시간도 갖는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후에는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br/> <br/>이번 강좌의 참가 대상은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중인 여성 암환자다.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관련 문의는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032)280-6214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1.txt

제목: 윤성우 교수, 국제통합암학회서  
날짜: 20141106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610015547533  
본문:   <br/> <br/>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주관한 ‘국제통합암학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에 참석, 암성 피로에 대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치료 효과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6일 강동경희대벼우언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윤성우 교수가 지난 2010년 통합 종양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Integrative Cancer Therapies'지에 게재한 ‘암성 피로에 대한 보중익기탕의 치료 효과(Bojungikki-Tang for Cancer-Related Fatigue: A Pilot Randomized Clinical Trial)’ 연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br/> <br/>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 황기, 인삼, 백출, 당귀, 진피, 감초, 승마, 시호 등의 약제로 구성되어 있다. 피로, 식욕부진 등 기허(氣虛)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이다.  <br/> <br/>암성 피로(Cancer-related Fatigue)는 암환자가 느끼는 피로감, 무력감, 쇠약감 등을 일컫는다. 암환자의 60~90%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암성 피로는 암 자체로도 발생되지만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br/> <br/>윤성우 교수는 “<span class='quot0'>황기, 인삼, 백출, 감초 등의 약제가 들어간 보중익기탕은 한의학에서 기허증(氣虛證)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약으로, 항암치료와 병행했을 때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항암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발표를 통해 전통 한의학적 암 치료의 효과를 전 세계의 통합종양학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span>” 고 말했다. <br/> <br/>특히 마시모(Massimo Bonucci) 교수(이탈리아 통합암치료연구회장, Association for Integrative Oncology Therapies, ARTOI)는 “<span class='quot1'>보중익기탕에 들어가는 황기(黃?)는 유럽에서도 많은 암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보중익기탕이 암환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매우 인상적이었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국제통합암학회는 전 세계 300여명의 통합의학자, 종양학자, 전통의학자들이 모여 근거중심의 통합 암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학회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2.txt

제목: 암치료에 심부체온상승 중요, 온열치료로 면역력 높여줘야…  
날짜: 20141106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610015548345  
본문: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심부체온상승이다. 체온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은 3배에서 5배 활성화되고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 <br/> <br/>하지만 암환자 대부분이 저체온인 36도 이하로, 암이 악화되면 될수록 암세포가 분비하는 네옵트린이라는 단백질이 인체의 체온조절기능을 마비시켜 체온은 점점 떨어진다. 암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체온 저하로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 <br/> <br/>때문에 직장암을 비롯해 위암과 대장암 등 다양한 암치료를 위해서는 바이오매트를 이용한 온열요법으로 환자들의 체온을 상승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이 같은 체온상승의 중요성은 최근 대형서점을 통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요시미즈 노부히로 의학박사의 의학서 '면역강화 온열요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r/> <br/>이 책에는 체온면역에 관한 국내외 의학적 임상이 정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온열요법의 암치료 대한 임상사례도 함께 실려있다. <br/> <br/>책에서 요시미즈 노부히로 박사는 일본 아보도오로교수(면역학박사)의 이론처럼 최소한 체온을 1℃ 상승시킨다면 신체면역력은 약 40% 높아진다고 밝히면서, 암치료를 위한 항암치료· 항암건강식품인 차가버섯· 꽃송이버섯· 잎새버섯· 후코이단· AHCC· 아베마르· 게르마늄 등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과 면역력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는 그 효과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br/> <br/>또한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심부체온상승에 따른 열활성 단백질 생성에 있으며 바이오매트 온열요법을 통한 체온상승과 이에 의한 면역 강화가 암 치료의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r/> <br/>위암이나 대장암· 직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방광암· 담낭암· 신장암· 췌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수많은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심부체온 상승이라는 것. <br/> <br/>이에 환절기의 추운 계절일수록 체온관리 중요성을 아는 암치료 환자들은 미국FDA· 일본 후생성 공식승인 온열의료기기 바이오매트의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디자인만 똑같이 따라한 유사상품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br/> <br/>미국 리치웨이사가 지난 1997년 개발한 바이오매트는 체온상승을 통한 혈액순환개선· 근육통완화로 식약청 의료기기로 승인 받은 제품이다. 또한 미국 FDA, 일본 후생성 공식 승인한 온열의료기기로 해외 수십만여 명이 사용해 치료효과가 검증됐다. <br/> <br/>지난 2010년 하반기에 국내 처음 공급된 이후 암병원· 요양원 등에서 암치료 환자들을 위해 사용돼 호평을 얻으며 사용 환자 수만 4~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3.txt

제목: 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어린시절 가족들에 의한 간접흡연 폐암 확률 높인다 '충격'  
날짜: 2014110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610015545627  
본문:   <br/> <br/>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폐암에 걸리는 여성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어릴 적 가족에 의한 간접흡연을 꼽고 있다. <br/> <br/>3일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의 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831명을 조사한 결과 730명(87.8%)이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진수 폐암센터 박사는 "50~60년대 가난했던 시절 부모나 남편, 조부모, 형제와 한방에 함께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게 노년기 들어 폐암으로 진단받는 주요 이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br/> <br/>이 같은 여성 폐암환자 증가 추세는 국내 폐암 발생 통계치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여성 10만 명당 폐암 발생률은 1999년 12.9명에서 2011년 15.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51.9명에서 46.7명으로 줄었다. <br/> <br/>여성의 비흡연 폐암은 흡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술 성공률이 높다. 초기 폐암의 경우 비흡연 여성의 5년 생존율이 96.6%로 전체 폐암환자의 5년 생존율(84.4%)보다 높았다. <br/> <br/>특히 수술 후 재발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는 재발 이후부터 중앙생존값(생존확률이 0.5에 해당되는 기간)이 34개월이었고, 5년 생존율도 22.5%에 달했다. <br/> <br/>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소식에 누리꾼들은 "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요즘 버스정류장에서도 심각해" "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간접흡연 정말 안좋구나" "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담배 피해다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4.txt

제목: [양정윤의 내밀한 미술사] 고흐의 시크릿 팔레트  
날짜: 2014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610015551567  
본문: 밀라노 부근의 크레모나 지역에서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색의 비결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원목의 특수함이나 악기가 완성되기 전에 발라진 니스에 그 비법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존재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같은 음색을 낼 수 있는 악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수수께끼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유사한 예로 대가들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과학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수백 년 전의 화가들이 사용했던 팔레트의 색을 재현하기 위해서, 혹은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물감의 성분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복잡한 화학구조식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br/> <br/>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의 수석 수복가 엘라 헨드릭스는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안료의 재질을 분석하고, 그 후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완벽한 시뮬레이션으로 완성시켜 본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다거나 틀린 걸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철두철미하게 사전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br/> <br/>캔버스의 색면과 그 밑에 감춰진 색과 형태를 파악하고, 안료의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은 마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 갖는 음색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악기 몸통에 사용된 원목의 원산지를 추정하고, 균열된 틈 사이에 번식한 곰팡이 균들을 찾아내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시간의 경과, 습도와 온도의 변화, 빛에 노출되는 환경 등은 작품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요 요인들이다. 이로 인해 표면의 물감 층은 산화되어 군데군데 떨어지고, 기존의 색은 퇴색해 버리고, 캔버스의 갈라진 틈새에는 긴 세월의 먼지가 그대로 쌓여있기도 하다. <br/> <br/>훼손의 정도가 심한 그림들은 철통 경비 시스템이 갖추어진 보존수복팀의 건물로 옮겨진다. 분석 및 촬영 기기가 빼곡히 들어찬 스튜디오는 종합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병동을 연상케 한다. 수복가들의 숭고한 이념은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그림을 되돌리는 것이다. 자칫 화가가 실수로 그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거나 새로운 기법을 더해서는 안 된다. 작품이 탄생되었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원초적인 작가의 의도와 손길을 있는 그대로 미래에 남기기 위해 복원기술이 사용돼야 한다는 관점이 중시되고 있다.  <br/> <br/>반 고흐 미술관의 수석 수복가 엘라 헨드릭스가 고흐 그림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있다.최근 반 고흐 미술관에서 수복이 진행 중인 작품은 1888년 5월 초순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붓꽃이 있는 아를 풍경’이다. 고흐는 열악한 생활환경, 그리고 예술가들 사이에 만연했던 과도한 음주문화에 지쳐서 파리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특히 아를에 자리 잡은 이유는 그의 예술적 취향의 변화와 일본 채색 목판화(우키요에·浮世繪)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었다. <br/> <br/>수복 중인 그림이 그려지기 석 달 전인 2월 20일에 고흐는 아를에 도착했다. “<span class='quot0'>나는 이미 일본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야</span>”라고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희망에 부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그림이 그려지기 바로 직전인 5월 1일에는 그해의 10월부터 고갱과 함께 작업을 한 장소로도 유명한 라마르틴 광장 앞 노란집을 빌려 살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상향이었던 일본과 가장 비슷한 풍경을 가진 아를에서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계획에 한껏 부풀어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작품은 그려졌던 것이다. <br/> <br/>화면이 가득 차게 그려진 후기의 붓꽃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1888년 5월의 작품은 주위 경관과 조화로운 구도를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원경의 건물과 나무들이 수평으로 배치된 것에 비해 전경의 붓꽃들은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화면 밖으로까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푸른 하늘의 색감과 노란 밀밭의 색, 그리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보랏빛 붓꽃 잎은 고흐가 동경했던 일본의 목판화에 사용된 색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붓꽃이 있는 아를 풍경’을 완성한 직후, 테오에게 “나는 이곳 아를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너의 눈이 어느 정도 이곳의 색에 적응되고 좀 더 일본인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색을 다르게 느끼게 될거야”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고흐의 색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br/> <br/>그러나 이 붓꽃과 황금 벌판 위에 덧입혀진 색의 언어는 1930년경에 덧입혀진 니스의 변색으로 원래의 생기를 잃고 말았다.  <br/> <br/>수복중인 빈센트 반 고흐의 ‘붓꽃이 있는 아를 풍경’(1888년작, 반 고흐 미술관 소장). 점선으로 둘러싸인 곳은 수복 과정에서 오래되고 색이 변색된 니스 층을 제거한 부분이다.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온통 누런색으로 변해버린 니스를 제거하는 일이다. 고흐의 붓 터치는 누구보다도 강했고, 불규칙하게 덧발라진 물감 덩어리가 표면 위로 울퉁불퉁 돌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끈하게 붓질로 마감이 된 화면을 다룰 때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br/> <br/>니스가 발라진 층과 바로 밑의 물감 층의 구분은 육안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수 현미경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니스를 제거한다. 이 그림의 경우, 액자를 빼고 캔버스를 분리해보니 모서리 부분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우연하게도 테이프 밑에는 니스가 발라지지 않은 125년 전의 색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본래의 색을 추정하는 데에 큰 도움을 되기도 했다. <br/> <br/>“고흐는 이미 세월의 변화에 따른 작품의 노화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행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그림은 마치 꽃이 지듯 시들고 만다고 적고 있지요.” <br/> <br/>고흐의 작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자신의 손길을 더해 그림의 수명을 연장시켜온 엘라 헨드릭스는 늘 이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br/> <br/>일반인들은 오해하기 쉽지만, 기본적인 수복은 화가가 그렸던 원래의 그림 위에 색을 새로 덧칠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수복 과정에서 그림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칠해진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린다고 했다. “늘 고흐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복원한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매뉴얼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결코 똑같은 작품은 없기에, 작품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br/> <br/>털실 꾸러미가 담긴 빨간 칠기 상자. 색채 이론에 관심이 많았던 고흐는 보색대비와 동시대비와 같은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털실 꾸러미를 사용하였다.고흐가 사용했던 안료는 이미 보급되었던 메탈 튜브형 물감이었다. 1842년 영국의 윈저앤뉴턴이 처음으로 출시했던 이래로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이 형태의 물감을 사용하고 있던 데다가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종종 구입해야 할 물감 색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했기 때문에 어떤 물감을 사용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용이한 편이다. <br/> <br/>대량생산이 가능한 물감이 사용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물감은 모두 화가의 공방에서 직접 만들어졌다. 때문에 각기 다른 비밀 레시피를 갖고 어두컴컴한 작업실에서 독특한 물감을 만드는 예술가들은 신비한 연금술사에 비유되기도 한다. <br/> <br/>유명한 맛집의 비결은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 양념에 있다고 말하듯,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졌던 화가들의 공방에서는 가장 측근 제자들만이 장인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었다. <br/> <br/>화가들의 열전을 읽다 보면 혁신적인 기술의 방법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일반적인 물감을 사용한 고흐의 경우 색을 사용하는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 헨드릭스는 그 해답을 색의 배색과 대비에서 찾아보고 있었다. <br/> <br/>특히 색채 이론에 늘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1867년 발표된 샤를르 블랑의 ‘조형예술의 문법’에 등장하는 보색 대비와 인접해 있는 두 색 이상을 볼 때 생기는 동시대비와 같은 효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고흐의 팔레트에 짜여진 물감들은 들라크루아의 강렬하고 아름다운 색채 대비를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br/> <br/>“보라색 붓꽃과 황금빛 밀밭의 원색의 향연은 고흐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색을 충실히 옮기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화가들은 자연보다도 팔레트의 물감들을 통해서 색을 배워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미술관에 소장된 빨간 칠기 상자를 보여주었다. 이 안에는 각기 다른 색이 느슨히 감겨진 털실 열여섯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br/> <br/>그중에는 한눈에 봐도 아를 풍경에 등장하는 노랑과 보라의 보색 대비를 연상케 하는 꾸러미가 있다. 고흐가 죽고 난 후 동료였던 에밀 베르나르는 고흐의 파리 작업실에 있던 테이블 위에는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보이는 털실 꾸러미들이 놓여 있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다양한 색의 조합을 보이는 털실들을 이용해 효과적인 색채 사용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실험도구처럼 사용되었다.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이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다른 꾸러미와 비교해가며 팔레트의 색을 연구했던 것이다. <br/> <br/>과학적인 조사나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로 하지만 수복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과 대화를 하는 일이다. 고흐가 손에 들고 있었을 팔레트의 물감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고독한 작업의 연속이다. <br/> <br/>화가의 팔레트 위의 물감들에 의해 색이 만들어졌을 과정을 생각해 보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화가의 손에 붓과 팔레트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페인팅이기에, 한번 지나가는 붓자국의 색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에 고스란히 묻힌 창작의 고뇌를 느낄 수 있다. <br/> <br/>양정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5.txt

제목: 이대암병원, '여성이 뽑은 좋은기업상' 받아  
날짜: 2014110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510015538949  
본문: 이대여성암병원(원장 백남선·사진)이 제17회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의 암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한다. <br/> <br/>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대여성암병원은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병원 방문 당일 한 공간에서 진료·검사를 시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등 신속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만을 위한 여성건강증진센터, 레이디병동 등 여성 친화적인 진료 환경 구축으로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이 후한 점수를 얻었다. <br/> <br/>백남선 원장은 “<span class='quot0'>우리는 여성암 전문 치료 병원으로서 여성암 환자의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고 유방보존술, 유방동시재건술 등을 통해 여성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이대여성암병원은 2011년 JCI 인증 및 2014년 재인증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국제 표준임을 인정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외국인 환자 우선 진료 시스템 구축 및 중국어, 러시아 등 해외 국가별 외국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를 통한 외국인 환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UAE, 몽골, 중국, 러시아 등 60개국에서 여성암 환자들이 찾는 세계적 여성암 치료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6.txt

제목: 일양약품, 국산 신약 ‘슈펙트’ 장영실상 수상  
날짜: 2014110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510015539082  
본문: 일양약품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아시아 최초 슈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국산 18호 신약)로 대한민국 산업 기술 최고기술상인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br/> <br/>이번 수상은 슈펙트가 ‘2세대 TKI 제제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 대비 경제적인 약가를 갖춘 신약’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적인 SCI급 논문 및 저널을 통해 ‘효능·효과의 우수성’과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로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br/> <br/>특히 슈펙트의 ‘경제적 약가’는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 처방이 힘든 국내 및 전 세계 환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실화와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슈퍼 백혈병 치료제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임상2상을 완료하고 글리벡(성분 이마티닙) 내성환자 치료 및 초기 약물이 전혀 듣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슈펙트는 백혈병 초기환자까지 처방할 수 있는 ‘1차 치료제’ 인증을 위해 4개 국가, 24개 병원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터키, 러시아 등에 제품과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을 성사했다. <br/> <br/>‘장영실 상’은 대한민국 산업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상으로 독창성, 경제성, 기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가공인 최고 기술상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7.txt

제목: 한미약품, 차세대 표적항암제 1상 임상 돌입  
날짜: 2014110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510015539088  
본문: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차세대 표적항암제 HM95573이 국내 1상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br/> <br/>한미약품은 최근 HM95573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흑색종 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br/> <br/>HM95573은 암세포 증식 및 성장에 관여하는 변이성 RAF과 RAS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강하게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큰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2세대 RAF 저해제 약물로 개발되고 있다. <br/> <br/>한미약품은 이번 임상을 통해 고형암 환자에서 HM95573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해 최대 내약용량 등을 결정하며 종양반응률, 최대 종양크기 변화율, 질병조절율 등을 관찰하게 된다. <br/> <br/>약물의 종양 반응과 관련한 시험 대상은 변이성 B-RAF, 변이성 K-RAS 및 변이성 N-RAS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흑색종, 대장암, 간암 또는 비소세포폐암 등 환자이다.  <br/> <br/>한미약품 정진아 임상개발 담당이사는 “HM95573은 기존 항암제에서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2세대 약물로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라며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br/> <br/>한편 이번 HM95573 개발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것이다. <br/> <br/>한미약품은 HM95573을 비롯해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EGFR(상피세포성장인자) 돌연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HM61713’, EGFR 수용체의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포지오티닙(Poziotinib) 등 3건의 표적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8.txt

제목: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세 의사의 대담  
날짜: 2014110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310015522714  
본문: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김건열, 정현채, 유은실 지음/북성재/1만4500원웰빙(Well-being) 열풍에 이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죽음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br/> <br/>일 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쫓기며 사는 탓에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겨를도 없을뿐더러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죽음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다.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면 두려움에 발버둥 치면서 제대로 삶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기 마련이다. <br/> <br/>이러한 죽음문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했던 의사 세 명이 나섰다. 왜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죽음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툭 터놓고 나눈 이야기를 대담집,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로 묶어낸 것이다. <br/> <br/>임상의로서 수많은 죽음을 눈앞에서 접하면서 존엄사에 관한 연구를 해 온 원로 의학자 김건열 전(前)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죽음 문제에 천착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죽음학 강의를 하고 있는 정현채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다양한 책의 출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죽음 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유은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가 그 주인공들이다. <br/> <br/>저자들은 한결같이 “<span class='quot0'>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수십 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고,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길</span>”이지만 “<span class='quot0'>현실에서는 허겁지겁 죽음을 당하고, 병원에서는 존엄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을 맞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안타까웠다</span>”고 말했다. <br/> <br/>죽음 준비를 위한 세 의사의 대담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이 책에는 △연명치료와 완화의료, 안락사와 존엄사 등 의료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죽음 △근사체험 등 죽음의 순간 △의식의 체외이탈과 윤회 등 사후세계 △죽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 등이 여러 사례를 곁들여 소개되어 있다. <br/> <br/>특히 저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가족들이 환자의 상태를 숨기는 바람에 환자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으면 의외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r/> <br/>실제 ‘말기 암을 알리는 문제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입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진실을 알기 원하느냐는 물음에 암 환자 96%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암 환자 72%가 가능한 빨리 알려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건열 전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에게 병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고, 남은 생을 더 열심히 살려고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그러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존엄하게 죽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또 이 책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근사체험, 죽음이후의 삶, 윤회에 대해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의학의 발달로 알게 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br/> <br/>이 책의 말미에는 담담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저자들의 모습도 알 수 있다. 장기기증 서약서, 사전의료의향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놓는다든지, 장례식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하는 모습에서 독자들도 구체적으로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49.txt

제목: 평생 담배 멀리한 여성 폐암환자 증가, 어릴적 간접흡연 영향인 듯  
날짜: 2014110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310015521661  
본문: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린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릴 적 가족에 의한 간접흡연의 영향으로 의심하고 있다. <br/> <br/>3일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폐암센터의 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폐암 수술을 받은 2948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 환자가 10명 중 3명꼴에 해당하는 831명(28.2%)으로 집계됐다. <br/> <br/>이중 대다수인 730명(87.8%)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br/> <br/>폐암센터 이진수 박사는 "50~60년대 가난했던 시절 부모나 남편, 조부모, 형제와 한방에 함께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뒤 노년기 들어 폐암으로 진단받는 주요 이유로 추정된다"고 봤다.  <br/> <br/>이 박사는 "어릴 적 남성보다 여성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었던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br/> <br/>여성 폐암환자 증가 추세는 국내 폐암 발생 통계치에서도 확인된다. <br/> <br/>국내 인구 10만 명당 폐암 발생률은 1999년 28.9명에서 2011년 28.7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2.9명에서 15.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남성은 10만 명당 51.9명에서 46.7명으로 줄었다. <br/> <br/>다행인 점은 비흡연 폐암 여성의 수술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br/> <br/>초기(IA기) 폐암의 경우 비흡연 여성의 5년 생존율이 96.6%로 전체 폐암환자의 5년 생존율(84.4%)보다 높았다. 특히 수술 후 재발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는 재발 이후부터 중앙생존값이 34개월로, 5년 생존율도 22.5%에 달했다. <br/> <br/>암센터는 표적치료제에 잘 듣는 유전자변이가 흡연자보다 비흡연 여성 폐암환자한테 더 많아 암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br/> <br/>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폐암을 예방하려면 금연과 간접흡연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영유아나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고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0.txt

제목: [기고]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힘, ‘치유농업’  
날짜: 2014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210015520096  
본문: 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면서 우리 농촌은 1년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보는 가을걷이 끝자락에 와 있다. 농촌 들녘을 거닐다 보면 농촌 관광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언제부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하더니 이들도 농촌에서 힐링하고 싶어 찾았다 한다. <br/> <br/>몇 년 전부터 ‘힐링’이 사회·경제 분야 트렌드 예측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다뤄지기 시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힐링을 내세우고 있다. 박카스 등 상품광고에도 힐링이 결합되며 감성 마케팅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관광업계에서는 템플스테이·트레킹·휴양림체험, 서비스업계에서는 스파·마사지, 요식업계에서는 건강음식 등을 앞세워 저마다 힐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처럼 힐링 트렌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련 산업이 형성되고 있지만 진정한 치유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 <br/> <br/> 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러한 때,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녹색농장에서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식물과 동물을 다루는 농업에 치유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예치료, 동물매개치료 등 일부 체험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이제 개념을 잡아가는 단계이긴 하나 우리 농업에서의 치유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밝다. 실례로 치유농업의 하나인 원예치료가 치매나 정신적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연구 결과 원예치료는 수형자의 불안감과 대인 예민성, 그리고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원예치료 체험 시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생리지표인 ‘코티졸’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불안감 해소와 자아 통합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 식물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서 정부3.0을 대표하는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br/> <br/>이러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매일 커가는 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또 함께 수확해 나눠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 치유를 한다니 치유농업의 대단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액은 1조55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시작 단계인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치유농업은 시장 진입 단계이기에 후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주도의 집중적인 기반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생태보전, 예방,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가기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br/>우리 농업은 식량생산 같은 먹는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치유농업 등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농업을 제시해줄 치유농업에 대한 보다 신뢰 있는 연구와 정책이 뒷받침돼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 <br/> <br/>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1.txt

제목: 기부천사 부잣집 딸 행세한 상습 사기꾼 구속  
날짜: 20141101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10110015516762  
본문: 고액 기부자 행세를 하며 시민단체에 접근한 뒤 현금을 빌려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2일 “어머니가 암으로 위중한데 재산이 많다. 독립운동을 하던 외삼촌을 생각해서 3억원을 기부하려 한다”며 독립운동 관련 단체 회장 A씨를 성동구 행당동의 한 카페로 불러낸 뒤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하는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 14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김씨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을 돌면서 “<span class='quot0'>어머니가 종업원 200∼300명을 둔 큰 술집 3곳을 운영한다</span>”고 속이는 등 부잣집 외동딸 행세를 해 한번에 200만∼300만원씩 돈을 뜯어내고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했으며 출소 수개월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2.txt

제목: 암보험 상품으로 경제적 고통 주는 암 치료비 걱정 그만  
날짜: 20141031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110015514299  
본문: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을 꼽을 수 있다. <br/> <br/>암이란 질병은 전 연령층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질병 사망원인 1위의 자리를 고수 하고 있다. <br/> <br/>과거에는 암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걱정 이였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전되고 조기 암 검진을 통해 암 치료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br/> <br/>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발생 및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 의료기술이 발전된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br/> <br/>특히 암의 경우 부단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해 아무런 대비 없이 암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고통도 생길 수 있어 어린이, 노인,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암 보험 추천 상품으로 경제적 대비가 중요하다. <br/> <br/>다만 암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면책기간이 있어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후에 온전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br/> <br/>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져 보험료도 인상되며 병력이나 나이로 인해 가입 및 보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어릴 때 건강할 때 암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br/> <br/>또한 암 보험 가입 시 암에 대한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암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암 진단금을 축소하거나 몇몇 암만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어 보장범위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암 진단금은 치료비용 외에 생활비나 요양비로도 활용 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다. <br/> <br/>그러나 암 진단금이 클수록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암 보험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br/> <br/>아울러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비갱신형 암 보험 상품이 유리할 수 있는데 장기간 납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보험 특성상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 좋다. 단, 가입자의 연령이나 보장에 따라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갱신형 암 보험 상품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교가입은 필수다. <br/> <br/>이에 최근 암 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곳에서는 암 보험 가입 순위 가격비교를 통한 다양한 상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소비자가 비교하기 어려운 보장· 보험료· 보험용어에 대해 효율적으로 비교가입이 가능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3.txt

제목: 항암 면역세포치료 전문가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 한국서 세미나 개최  
날짜: 20141031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110015513346  
본문: 세계 최초로 암 줄기세포치료를 개발한 일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박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미나 강연을 한다. <br/> <br/>세미나는 다음달 7일(금) 서울 강남에 있는 GS타워 25층 강연실에서 열린다. 주제는 ‘포기하지 않는 암 치료’이며 ‘표준치료의 한계를 넘어서’ 제4의 치료법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선진의료, 면역세포치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5종복합면역요법의 창시자로서 일본 내에서도 세포배양 전문가로서 명망이 높고 의학박사로서 암 세포치료 전문병원의 원장이다. <br/> <br/>'구라모치식' 면역세포치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5종복합면역요법'과 이를 더욱 개량한 '新수지상세포면역백신요법',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백신치료'가 있다. 기존의 행해지던 면역요법보다 뛰어난 치료법으로 암치료 유효율을 상당히 높혔으며 박사의 치료법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br/> <br/>특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백신치료는 암 세포의 줄기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박사가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3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암 줄기세포의 특이 항원 펩티드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센신병원 암 치료의 중심이 되고 있다. <br/> <br/>이번 세미나는 박사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법에 대한 설명과 그 동안 암 치료현장에서의 사례 그리고 치료실적 등으로 암 환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세미나 참가 신청은 (주)에스유 바이오(02-453-0901)로 연락하면 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4.txt

제목: 현대중공업 노조, 부분파업 결정...20년만의 파업  
날짜: 2014103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110015513685  
본문: 현대중공업이 20년만에 파업사태를 맞게 됐다. <br/> <br/>31일 현중 노조는 울산 본사 노조 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다음 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br/> <br/>노조는 11월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는 한편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br/> <br/>현대중공업은 지난 1995년 노가간 첫 무분규 타협 이후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분규 타협 기록을 이어왔다. <br/> <br/>노사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협상을 벌여 휴직·단체 암보험가입·조합활동 등 단체협약 부문 18개 조항에서 합의 또는 의견일치를 이뤘으나 임금 부문에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br/> <br/>노조의 파업예고와는 별도로 노사는 다음주에도 교섭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r/> <br/>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50여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br/> <br/>반면 사측은 지난달 초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2015년 1월부터 정년 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출연안 ▲월차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br/> <br/>현대중공업은 지난 30일 올 3분기 1조9346억원의 사상최대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5.txt

제목: 우리나라 성인여성…젊은 시절 저체중, 나이 들며 과체중으로  
날짜: 20141031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110015512972  
본문:   <br/> <br/>성인남성에 비해 간과돼 온 성인여성의 건강체중 문제가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전체의 비만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만율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br/> <br/>저체중 여성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상체중을 가진 여성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대 여성 저체중률도 지난 2008년도 14.4%에서 2012년도 21.8 %로 5년 만에 7.4 %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여성 난임 등 건강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br/> <br/>여성의 과체중은 암, 골밀도저하, 심장질환, 우울증 등의 원인이 된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여성은 뇌졸중과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현상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br/> <br/>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비만의 경우 지방과 나트륨의 과잉섭취와 같은 영양문제를, 저체중은 근력운동 등 신체 활동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br/> <br/>최근 보고에 따르면 성인여성은 나트륨 섭취권장 기준(2,000 mg/일)의 약 2배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섭취하는 비율이 권장기준 20%를 넘기고 있다. 반면 건강유지를 위해 권고되는 신체활동량을 실천하는 비율은 14.0%에 그치고 있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br/> <br/>성인여성이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식생활, 신체활동의 규칙적인 실천이 필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 75분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또는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활동실천과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기와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을 적게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 <br/>따라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한식위주의 식사하기, 국물 남기기 등과 같은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하며, 올바른 건강식생활, 신체활동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6.txt

제목: 폐렴, 노인들 주요 사망원인으로 떠올라  
날짜: 20141031  
기자: 윤지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110015514328  
본문: 폐렴이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떠올랐다. 31일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따르면 2000년에는 노인 사망원인 1∼5위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이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폐렴의 순으로 폐렴이 처음으로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등장했다. 2013년에는 폐렴이 4위로 한 계단 더 올라갔다. 연구팀은 폐렴의 급부상을 두고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7.txt

제목: '기부천사 부잣집 딸' 행세한 상습 사기꾼 구속  
날짜: 20141031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110015513959  
본문: 고액 기부자 행세를 하며 시민단체에 접근한 뒤 현금을 빌려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2일 “어머니가 암으로 위중한데 재산이 많다. 독립운동을 하던 외삼촌을 생각해서 3억원을 기부하려 한다”며 독립운동 관련 단체 회장 A씨를 성동구 행당동의 한 카페로 불러낸 뒤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하는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 14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김씨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을 돌면서 “<span class='quot0'>어머니가 종업원 200∼300명을 둔 큰 술집 3곳을 운영한다</span>”고 속이는 등 부잣집 외동딸 행세를 해 한번에 200만∼300만원씩 돈을 뜯어내고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했으며 출소 몇달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8.txt

제목: 암 치료비 절약방법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 대비 사이트 활용  
날짜: 20141030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4278  
본문: 주부 A씨는 검진을 통해 유방암2기 라는 진단을 받았다. 암은 가족력이 크다고 했지만 가족력도 없고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했던 A씨로서는 암 진단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치료가 가능했고 갑작스러운 수술비용이 발생했지만 2년 전 가입한 암 보험 덕분에 비용부담을 덜었다고 전했다. <br/> <br/>유방암은 여성 3대 암에 속할 만큼 여성들에게 발병율이 높을뿐더러 가족력이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다. 다만, 조기발견 되면 90~100%의 5년 생존 할 수 있고, 유방암 4기까지 진행되면 생존율은 50%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이러한 암에 대비하고자 암 보험 상품에 관심이 높다. 암 보험은 가입 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 90일의 면책기간이 있기에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보장에서 제한이 되거나 가입 거절 될 수 있어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암 진단을 받은 후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암 진단비는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 등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기에 보장금액과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특히 발병률이 높아진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 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장율이 낮거나 없을 수 있다. <br/> <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중복보장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 암 보험과 첫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다. 연령이 낮을 경우 비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50대 이후·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대는 갱신형 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br/> <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br/> <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br/> <br/>많아도 너무 많은 암 보험 상품중 내게 맞는 상품 찾기란 쉽지 않다. 도움을 주는 암 보험 비교추천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계산 활용해보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59.txt

제목: 자궁경부전암 치료 백신 세계 첫 개발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8803  
본문: 자궁경부전암을 주사로 치료할 날이 이르면 3년 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유전자(DNA) 치료 백신으로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궁경부전암 환자를 치유하는 데 성공했다. <br/> <br/>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성영철(사진)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팀과 김태진 제일병원 교수팀은 자궁경부전암 후기 환자 9명에게 DNA 치료 백신인 ‘GX-188E’를 투여하는 임상 1상 시험을 한 결과 7명(78%)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져 완치에 이르는 결과를 확인했다. 70%가 넘는 유효성을 보인 백신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 원인인 자궁경부전암은 병소를 도려내는 수술 외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수술에 따른 조산, 유산 등을 피할 수 없는 데다 HPV가 남아있다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미 개발된 백신이 있지만 HPV에 감염된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중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발병한다. <br/> <br/>연구팀이 개발한 치료 백신은 어깨근육에 3회 주사를 놓는 것으로 전암을 치료한다. 주사를 통해 HPV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T세포’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죽은 세포의 자리에는 정상세포가 분열함으로써 해당 부위는 다시 건강한 자궁경부가 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br/> <br/>성영철 교수는 “<span class='quot0'>주사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없애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재발 가능성도 작은 치료제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HPV로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은 물론이고 구강암, 항문암, 외음부암에도 향후 적용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지난 5월부터 국내에서 임상 2상에 돌입했고,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임상 2상을 시작해 세계적인 제약사와 손잡고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해 최대한 빠르게 마치면 2017년 세계 최초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PV 연관 암을 둘러싼 시장은 5조원 규모로 짐작된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0.txt

제목: 산삼배양기 ‘심마니’로 집에서 길러 먹는 110년 산삼!  
날짜: 20141030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7355  
본문: 산삼은 예로부터 최고의 보양식으로 알려져왔다. 산삼은 원기를 보호하고 혈액생성을 왕성하게 해줘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한다. 또한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체액을 충당시켜 갈증을 해소해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된다. 이 외에도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관· 체내 독소 제거 등 다양한 효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산삼이다. <br/> <br/>산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항암 및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진세노사이드는 항염증작용 및 종양 증식 억제 작용· 암 전이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삼은 암환자들이 자주 찾는 식품이다. 또한 기억력 증진작용 및 피로회복 촉진작용· 스트레스성 행동장애 개선 작용 효과가 있어 수험생에게도 좋은 것이 산삼이다. <br/> <br/>산삼은 인삼의 원종으로 사람에 의해 밭에서 길러진 것을 인삼· 태생적으로 산에서 자라난 삼을 산삼이라고 부른다. 산삼은 야생에서 자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 순수종인 100년 이상 된 산삼은 전문 심마니도 발견하기 어렵다. 100년 이상 된 산삼은 1~2년에 한 두 뿌리 정도 밖에 나오질 않아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 때문에 시중에서는 산삼 조직을 떼어내 배양근을 만들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재배 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없어 유전자 조작이나 농약 투여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식회사 ACT는 산삼배양근을 집에서 직접 기를 수 있는 산삼배양기 ‘심마니(SIMMANI)’를 출시했다. <br/> <br/>심마니(SIMMANI)의 산삼배양근은 한국산삼감정평가 협회에서 3억원 가치로 인증 받은 110년된 산삼을 원형으로 한다. 즉, 소비자들은 110년된 산삼의 효능을 그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이 배양근은 국내외 공익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독성· 유전자조작이 없다는 것을 검증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사용가능허가를 받았다. 이 산삼배양근은 70g씩 팩에 담아 판매된다. <br/> <br/>가정용 산삼 배양기 심마니(SIMMANI)는 산삼을 기르는 데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 및 빛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세균을 걸러내는 무균 시스템과 청정 제균 에어 공급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은 센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계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작동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배지성장 영양액도 최적의 성분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산삼을 키우는데에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br/> <br/>한편,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ACT는 11월 17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홀 208홀에서 산삼배양기 ‘심마니(SIMMANI)’의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br/>문의: 1800-1103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1.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불타는 목요일' 건강한 음주 Tip  
날짜: 2014103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6316214  
본문: 이른바 ‘불타는 목요일’이다. 예전엔 불타는 금요일(불금)이 대세였지만, 금요일에 연차나 반차를 내고 주말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며, 회식이나 단체모임을 목요일로 조정하고 있는 것.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술인데,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술을 마시는 음주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br/> <br/>술을 먹고 얼굴이나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것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자제해야 한다. <br/> <br/>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질적으로 술에 약한 사람은 독성물질을 분해할 수 없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임신 중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 대사 능력이 부족한 태아는 더 짙은 농도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알코올에 노출되어 신경관 결손이나 안면이상, 성장지체 등의 기형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금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br/> <br/>◆ 건강을 지키는 음주 노하우 <br/> <br/>빈속에 술을 마시면 장 속에서 알코올 흡수는 빨라지고 알코올 분해능력이 낮아지므로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마시면 위와 장 속의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고 알코올의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므로 술을 마실 때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br/> <br/>침 속에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 술을 마신 후 그냥 자게 되면 알코올과 알코올 속의 각종 발암물질이 함께 남아 구강점막과 식도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 꼭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br/> <br/>◆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 <br/> <br/>숙취해소를 위해서는 알코올 분해의 경우 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간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알코올과 알데히드 분해효소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대표적인 숙취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나물국, 유해산소를 없애는 메티오닌이 풍부한 북어국,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타우린이 풍부한 조개국이 있다. 또한 알코올 분해과정을 돕거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촉진하는 꿀물과 유자차·녹차 등이 좋다. <br/> <br/>◆ 과음, 체내 수분 배출시켜 피부 건조 초래 <br/> <br/>다량의 술이 몸에 들어오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가 분비되고,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이때 우리 몸은 술을 해독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분을 내보내게 된다. 따라서 음주 중에 물을 많이 마셔주지 않으면 피부는 바짝 건조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 과음한 다음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체내 수분이 과다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br/> <br/>보통 알코올과 물은 1대 10 비율로 배출된다. 따라서 알코올 농도 10% 이상인 술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열 배 가량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 음주를 할 때 되도록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 체내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 숙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br/> <br/>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알코올이 혈관을 팽창시키고 미세 혈관을 파열시키기 때문이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과다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모세혈관이 자주 확장되다가 나중에는 긴장도가 떨어져 시도 때도 없이 붉은 얼굴이 되거나 결국 늘어난 실핏줄이 보이는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심해지면 안면홍조가 된다</span>”고 설명한다. <br/> <br/>◆ 술에는 ‘물’이 보배 <br/> <br/>대개 음주 다음날 숙취가 심하면 빨리 깨어나기 위해 사우나를 찾아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땀을 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과음 후에는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진 상태라서 열·온탕에 앉아 땀을 흘리면 혈압이 더 떨어져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를 하거나 15분 이내로 목욕을 하는 것이 낫다. <br/> <br/>술에는 물이 보배다. 숙취를 푸는 방법은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체내에 남은 알코올과 안주로 인한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감잎차를 마시는 것도 알코올 분해에 이롭다. 음주 후 정신을 맑게 한다고 여러 잔의 진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카페인은 탈수된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br/> <br/>◆ 女, 음주 후 피부 관리법 <br/> <br/>▲음주 당일 저녁은 이중 세안, 보습 크림=음주 후 집으로 돌아와 바로 쓰러져 자는 행동은 피부에 가장 큰 해악. 화장을 하는 여성은 반드시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클렌징 폼으로 꼼꼼히 세안을 한다. 너무 뜨겁거나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좋고 수분 크림을 듬뿍 발라줘야 한다. <br/> <br/>▲음주 다음날은 녹차 세안=술을 마신 다음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붓는 일이 많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한 잔 마시고 부은 얼굴은 수건으로 냉찜질을 한 뒤 미지근한 물로 닦아내 피부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다. 특히 녹차로 세안을 하면 녹차의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인 폴리페놀이 붓기를 가라앉힌다. <br/> <br/>▲화장을 못 지우고 잔 다음날엔 스팀타월=과음 후 화장도 못 지운 채 잠을 잤다면, 다음날 정신이 들자마자 클렌징 제품으로 화장을 지운 뒤 꼼꼼히 세안을 한다. 세안 후에는 스팀타월로 얼굴 피부를 덮어 모공을 열어준 후 토너를 솜에 묻혀 얼굴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낸다. 얼굴이 누렇게 떠 칙칙해 보이면 오이를 갈아 얼굴 팩을 해주면 피부에 생기가 돈다. 에센스를 듬뿍 발라주고, 로션과 수분 크림까지 바른 뒤 손으로 톡톡 두드려 피부의 흡수를 돕는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2.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불타는 목요일' 건강한 음주 Tip  
날짜: 2014103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6929  
본문: 이른바 ‘불타는 목요일’이다. 예전엔 불타는 금요일(불금)이 대세였지만, 금요일에 연차나 반차를 내고 주말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며, 회식이나 단체모임을 목요일로 조정하고 있는 것.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술인데,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술을 마시는 음주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br/> <br/>술을 먹고 얼굴이나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것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자제해야 한다. <br/> <br/>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질적으로 술에 약한 사람은 독성물질을 분해할 수 없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임신 중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 대사 능력이 부족한 태아는 더 짙은 농도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알코올에 노출되어 신경관 결손이나 안면이상, 성장지체 등의 기형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금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br/> <br/>◆ 건강을 지키는 음주 노하우 <br/> <br/>빈속에 술을 마시면 장 속에서 알코올 흡수는 빨라지고 알코올 분해능력이 낮아지므로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마시면 위와 장 속의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고 알코올의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므로 술을 마실 때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br/> <br/>침 속에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 술을 마신 후 그냥 자게 되면 알코올과 알코올 속의 각종 발암물질이 함께 남아 구강점막과 식도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 꼭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br/> <br/>◆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 <br/> <br/>숙취해소를 위해서는 알코올 분해의 경우 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간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알코올과 알데히드 분해효소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대표적인 숙취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나물국, 유해산소를 없애는 메티오닌이 풍부한 북어국,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타우린이 풍부한 조개국이 있다. 또한 알코올 분해과정을 돕거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촉진하는 꿀물과 유자차·녹차 등이 좋다. <br/> <br/>◆ 과음, 체내 수분 배출시켜 피부 건조 초래 <br/> <br/>다량의 술이 몸에 들어오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가 분비되고,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이때 우리 몸은 술을 해독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분을 내보내게 된다. 따라서 음주 중에 물을 많이 마셔주지 않으면 피부는 바짝 건조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 과음한 다음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체내 수분이 과다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br/> <br/>보통 알코올과 물은 1대 10 비율로 배출된다. 따라서 알코올 농도 10% 이상인 술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열 배 가량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 음주를 할 때 되도록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 체내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 숙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br/> <br/>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알코올이 혈관을 팽창시키고 미세 혈관을 파열시키기 때문이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과다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모세혈관이 자주 확장되다가 나중에는 긴장도가 떨어져 시도 때도 없이 붉은 얼굴이 되거나 결국 늘어난 실핏줄이 보이는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심해지면 안면홍조가 된다</span>”고 설명한다. <br/> <br/>◆ 술에는 ‘물’이 보배 <br/> <br/>대개 음주 다음날 숙취가 심하면 빨리 깨어나기 위해 사우나를 찾아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땀을 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과음 후에는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진 상태라서 열·온탕에 앉아 땀을 흘리면 혈압이 더 떨어져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를 하거나 15분 이내로 목욕을 하는 것이 낫다. <br/> <br/>술에는 물이 보배다. 숙취를 푸는 방법은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체내에 남은 알코올과 안주로 인한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감잎차를 마시는 것도 알코올 분해에 이롭다. 음주 후 정신을 맑게 한다고 여러 잔의 진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카페인은 탈수된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br/> <br/>◆ 女, 음주 후 피부 관리법 <br/> <br/>▲음주 당일 저녁은 이중 세안, 보습 크림=음주 후 집으로 돌아와 바로 쓰러져 자는 행동은 피부에 가장 큰 해악. 화장을 하는 여성은 반드시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클렌징 폼으로 꼼꼼히 세안을 한다. 너무 뜨겁거나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좋고 수분 크림을 듬뿍 발라줘야 한다. <br/> <br/>▲음주 다음날은 녹차 세안=술을 마신 다음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붓는 일이 많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한 잔 마시고 부은 얼굴은 수건으로 냉찜질을 한 뒤 미지근한 물로 닦아내 피부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다. 특히 녹차로 세안을 하면 녹차의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인 폴리페놀이 붓기를 가라앉힌다. <br/> <br/>▲화장을 못 지우고 잔 다음날엔 스팀타월=과음 후 화장도 못 지운 채 잠을 잤다면, 다음날 정신이 들자마자 클렌징 제품으로 화장을 지운 뒤 꼼꼼히 세안을 한다. 세안 후에는 스팀타월로 얼굴 피부를 덮어 모공을 열어준 후 토너를 솜에 묻혀 얼굴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낸다. 얼굴이 누렇게 떠 칙칙해 보이면 오이를 갈아 얼굴 팩을 해주면 피부에 생기가 돈다. 에센스를 듬뿍 발라주고, 로션과 수분 크림까지 바른 뒤 손으로 톡톡 두드려 피부의 흡수를 돕는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3.txt

제목: 가을 고구마의 화려한 변신  
날짜: 2014103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4433  
본문: 갖가지 색깔을 뽐내는 가을의 열매와 곡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붉은색의 가을 고구마는 항노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란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암 치료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br/> <br/>또 고구마는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생고구마를 자를 때 나오는 흰색의 진액, 고구마 속 풍부한 섬유질이 바로 ‘만성변비 해결사’다. <br/> <br/>고구마가 탄수화물이 많아 먹으면 살이 찌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고구마 속 탄수화물은 느리게 흡수되고 천천히 배설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줘 오히려 다이어트를 돕는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고구마만 먹으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유를 곁들이는 게 좋다. <br/> <br/>한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31일부터 업계 최초로 아이스군고구마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GS25가 이번에 선보이는 ‘아이스군고구마’는 맥반석에서 구운 전북 고창 고구마를 영하 40도에서 급속 냉각하여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린 신개념 상품이다. <br/> <br/>아이스크림과 함께 아이스크림 케이스에 얼려서 판매하는 아이스군고구마는 구매 후 자연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로 20초 해동하면 시원한 천연 고구마 아이스크림으로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3분 렌지업을 하면 따끈한 군고구마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 <br/> <br/>김영화 GS리테일 편의점 간편식 MD는 “<span class='quot0'>차가운 군고구마라는 모순된 상품명이 선사하는 즐거움과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천연 고구마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맛, 언제 어디서든 따끈한 군고구마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는 간편함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4.txt

제목: 자생한방병원, ‘어혈’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날짜: 2014103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4105  
본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만성통증과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어혈’의 객관적 진단지표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br/> <br/>‘어혈’은 심한 피로나 외부의 충격, 혹은 신체의 노화로 인해 혈액이나 인체 조직의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고 신체 한 부분에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어혈’이 발생하면 생리기능이 저하되고 조직의 회복을 억제해 치료효과를 감소시키고 후유증이 나타난다. 또 특정부위에 어혈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전신통증, 불임, 암 등의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한의학에서는 어혈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혈을 진단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객관화 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어혈을 한의학적, 양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지표와 진단방법을 마련하고 나아가 어혈의 더 나은 치료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br/> <br/>임상연구 참여자는 대상자의 상태와 기준에 따라 ‘어혈증 증례 참가자(200명)’과 ‘건강인 증례 참가자(50명)’으로 구분한다. 만 5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남·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는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 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본 임상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한자를 대상으로 문진을 실시해 참여기준에 적합한 자를 최종 결정한다. <br/> <br/>이번 자생한방병원의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무료로 조갑모세혈관검사와 간수치/콜레스테롤/중성지방/당뇨/신장기능/염증상태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혈액검사를 받게 된다. <br/> <br/>임상연구의 세부내용과 참여신청은 자생의료재단 자생척추관절연구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5.txt

제목: 음주 뒤 양치안하고 자면 암(癌) 위험  
날짜: 2014103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3010015503191  
본문: 연말이 다가오면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주(飮酒)문화다. 하지만 술을 싫어하는 사람에겐 괴로운 자리기도 하다. 특히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에겐 ‘독’이나 마찮가지다.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br/> <br/>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질적으로 술에 약한 사람은 독성물질을 분해할 수 없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음주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음주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 세계일보 DB) <br/> <br/>우선 빈속에 술을 마시면 장 속에서 알코올 흡수는 빨라지고 알코올 분해능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마시면 위와 장속의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고 알코올의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br/> <br/>침 속에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 그냥 자게 되면 알코올 속의 각종 발암물질이 함께 남는다. 이는 구강점막과 식도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 꼭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br/> <br/>숙취해소를 위해서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알코올과 알데히드 분해효소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숙취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나물국, 유해산소를 없애는 메티오닌이 풍부한 북어국,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타우린이 풍부한 조개국이 좋다. 또 알코올 분해과정을 돕거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촉진하는  꿀물, 유자차, 녹차 등이 좋다. <br/> <br/>식약처는 안전한 음주 실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 술자리 뽐내기’와 ‘우리가족 술來잡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br/> <br/>‘안전 술자리 뽐내기’는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회식문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1분 이내로 동영상을 촬영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수 출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br/>　 <br/>‘우리가족 술來잡기’는 안전한 음주문화를 약속하는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참여하는 방식이며 우수 사진 66건 출품자에게는 영화예매권 2매씩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br/> <br/>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안전한 음주, 건강한 내일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 개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안전한 음주 습관을 지켜야한다</span>”고 당부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6.txt

제목: 구글, 나노입자 이용해 스마트워치로 암 진단 기술 개발  
날짜: 20141029  
기자: 최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910015500001  
본문: 구글이 나노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워치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29일(한국시간) 주요 외신은 구글의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부서 구글X가 나노 기술을 이용해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적혈구의 1/2000 크기인 산화철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이 진단 기술은, 캡슐 형태 알약으로 나노입자를 인체에 투여해 해당 입자가 암세포 등 특정세포와 결합하면 이를 자성을 띤 스마트워치로 감지하는 방식이다. <br/> <br/>구글X 생명과학부문의 앤드류 콘라드 박사는 "지금까지의 진단법이 1㎞ 높이에서 길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나노 진단법은 직접 골목에 들어가 관찰하는 것처럼 몸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이 기술의 의미를 설명했다. <br/> <br/>이에 구글은 제약회사와 웨어러블 기기 업체들과 협력해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br/> <br/>한편 구글은 혁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손떨림을 억제하는 숟가락을 개발하는 벤처를 인수하고 혈액, 유전자 정보 등을 분석해 건강 진단을 하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중이다. <br/> <br/>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7.txt

제목: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앱 출시  
날짜: 2014102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910015498191  
본문: 국립암센터는 암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유익한 암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가암정보센터 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이 앱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약 90여종의 다양한 암 정보 및 암예방 건강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br/> <br/>‘국가암정보센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암의 종류별 증상, 예방법, 치료방법, 검진 등의 정보 뿐 아니라 암환자 생활백서, 통계로 보는 암, 국가지원프로그램, 암예방 멀티미디어 자료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암정보 상담전화(1577-8899)’와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하면 된다. <br/> <br/>또 암예방을 위한 건강다이어리 ‘암예방 관리’ 기능은 금연, 금주, 식이, 운동, 체중, 예방접종, 조기검진 등 항목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인 암예방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람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br/> <br/>니코틴중독 자가평가, 식습관 자가평가, 알코올의존도 자가평가로 현재 나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볼 수도 있으며, 암환자와 가족 및 암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그룹을 생성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암예방 talk’도 마련돼 있다. <br/> <br/>앱은 일반인, 암환자 및 가족, 의료 관계자 등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가능하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앱스토어에서 ‘국가암정보센터’를 검색한 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8.txt

제목: 배우 이영애, 대만서 세계생명사랑상 받는다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910015500121  
본문: 한류스타 이영애(43·사진)가 대만 저우다관(周大觀) 문교재단이 수여하는 세계생명사랑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소속사 리예스가 29일 밝혔다. <br/> <br/>리예스는 “<span class='quot0'>최근 대만 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시상식은 내년 5월 대만에서 열린다</span>”고 말했다. <br/> <br/>1997년 설립된 저우다관문교재단은 암 투병하다 10살에 사망한 소년 저우다관을 기념해 설립된 재단이다. 이 재단의 활동 중 하나가 매년 세계생명사랑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세계 각지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다. 지금까지 17차례 시상식이 열렸으며 48개국에서 선발된 280명이 수상했다. <br/> <br/>이영애가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올 초 서울에서 사고로 일찍 태어난 대만 아기를 위해 병원비 1억원을 쾌척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69.txt

제목: '세계생명사랑상' 이영애, 대만인 산모·아기 도운 공로 인정 받아  
날짜: 20141029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910015497194  
본문: 배우 이영애(43)가 대만의 인권상 수상자로 지목됐다. <br/> <br/>이영애 소속사는 "대만의 저우다관(周大觀)문교재단이 수여하는 세계생명사랑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이영에는 최근 대만 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고, 시상식은 내년 5월 대만에서 열린다. <br/> <br/>세계생명사랑상을 수여하는 저우다관문교재단은 암 투병하다 10살에 사망한 소년 저우다관을 기념해 1997년 설립됐다. <br/> <br/>저우다관은 암 투병 중 시를 지어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지구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호소했으며, 그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을 설립해 생명사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br/> <br/>활동 중 하나가 세계생명사랑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7차례 시상식이 열렸고 48개국에서 280명이 이 상을 받았다. <br/> <br/>이영애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사고로 예정일보다 2개월 일찍 태어난 대만인 아기가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사정을 듣고 약 10만 달러(한화 약 1억100만원)을 쾌척한 사실이 알려졌다.  <br/> <br/>그는 직접 아기와 산모의 병문안을 가는 등 물심 양면으로 대만인 가족을 도왔고, 이 같은 사실이 7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와 대만에서 화제를 모았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0.txt

제목: [인터뷰] ‘나의 독재자’ 박해일 “나 인복 많다, 인정”  
날짜: 20141029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910015498530  
본문: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남자만큼 안티팬이 없는 배우도 드물지 않을까. 데뷔 후 15년간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연기만 해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br/> <br/>배우 박해일(37)은 올해만 세 편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거나, 만날 채비를 마쳤다. 지난 6월 개봉한 ‘경주’(감독 장률), 현재 상영 중인 ‘제보자’(감독 임순례), 그리고 개봉을 앞둔 ‘나의 독재자’(감독 이해준)까지. 스토리·장르·캐릭터 뭐 하나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작품들이다. <br/> <br/>이들 작품에서 박해일은 자기가 맡은 몫을 110% 해내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부드러운 인상의 얼굴에 이토록 많은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건 배우로서 큰 장점이다. <br/> <br/>“처음부터 껄렁한 역할로 시작했어요. ‘청춘예찬’(2000)이란 제목의 연극이었는데, 불량기 가득한 고등학생 역할이었죠. 절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따뜻한 캐릭터를 더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별로 안 그래요. 이번 ‘나의 독재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일단 작품이 좋고 호기심을 느끼면 역할은 잘 안 가리게 되죠.” <br/> <br/>‘나의 독재자’는 본인이 김일성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살아가는 대역배우 성근(설경구 분)과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 태식(박해일 분)이 함께 그려나가는 감동 드라마. 박해일은 이 영화에서 다단계 MP에 사채까지 막 끌어다 쓰는 철부지 아들 역을 맡아 ‘껄렁한’ 매력 한 번 제대로 살려냈다. <br/> <br/>◆ 감독들의 끊이지 않는 러브콜? <br/> <br/>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른 데 한 번 기웃거리지 않고 충무로에서만 연기할 수 있었던 건, 박해일 본인의 노력과 의지, 연기력이 큰 몫 했지만 무엇보다 강우석, 봉준호, 김한민, 송해성 등 감독들의 끊이지 않는 ‘러브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br/> <br/>2001년부터 매년 한두 편씩 주연급으로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직업란에 ‘배우’라고 적을 뿐, 일반 회사원이나 가장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조용히 공감의 미소를 짓는 그다. <br/> <br/>“저 인복 하나는 타고난 거 인정해요. 데뷔 때부터 감독님들이 좋게 봐주셨는지 일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죠. 이게 다 조상님 잘 모신 부모님 덕분인가란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웃음) 이해준 감독님은 ‘김씨표류기’ 연출했을 때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 통성명한 사이인데, 그때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 작품 합시다’ 그랬는데 그 기회가 이제 온 거죠.” <br/> <br/>◆ 아버지란 그 이름 <br/> <br/>박해일은 ‘나의 독재자’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을 꼽았다. 지금껏 다양한 영화에 출연했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고 한다. <br/> <br/>“자식 입장에서 아버지를 말하는 영화는 종종 나왔지만, 이해준이란 연출자가 그리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는 어떤 톤일지 궁금했어요. 아버지 역할의 설경구 선배님과 함께한 현장의 에너지는 정말 굉장했고요.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 저의 아버지도 자꾸 떠올렸어요.” <br/> <br/>앞서 열린 언론시사회 당시 박해일은 ‘나의 독재자’ 촬영 중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아 충격을 받았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br/> <br/>“다행히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영화 개봉하면 보러 가시라고 티켓 끊어드리려고요.(웃음)” <br/> <br/>◆ 특수분장 전문배우? <br/> <br/>‘나의 독재자’는 ‘김일성 대역’ ‘아버지와 아들’이란 독특한 소재 말고도 ‘설경구의 특수분장’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br/> <br/>설경구는 40대부터 70대까지 김일성과 외모가 흡사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매일 새벽 2시부터 촬영장에서 나와 무려 5시간의 특수분장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는 “박해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br/> <br/>알고 보니 2012년 영화 ‘은교’(감독 정지우)에서 박해일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몇 시간만 지나면 너덜너덜해지는 특수분장 때문에 모든 촬영은 설경구 위주로 진행됐고, 그와 호흡을 가장 많이 맞춘 박해일은 늘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다. 설경구는 또 “은교 때 박해일은 8시간씩 특수분장 했다더라. 그에 비하면 저는 (5시간) 호강한 셈”이라고 말하기도. <br/> <br/>“설 선배님 말씀은 과찬이신 것 같아요.(웃음) 글쎄요. ‘은교’ 때 김무열, 김고은씨는 저보다 더 기다려 줬는걸요. 특수분장은 아직 개척할 게 많은 영역 같아요. 배우의 얼굴을 늙어 보이게, 또는 (기술이 좋아져서) 젊어 보이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배우 입장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배역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되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보다 기술이 더 좋아진다면, 다음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br/> <br/>◆ 배우가 배역 잡아먹을 줄 알아야 <br/> <br/>‘나의 독재자’는 이해준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요즘 상업영화 시스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가주의 영화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런 점에서 박해일은 이 작품을 더욱 지지하고 싶다고 했다. <br/> <br/>“감독이나 배우나 똑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 받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해준 감독님은 이 영화에서 한 남자이자, 배우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결국 본인의 이야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br/> <br/>영화에서 오래 호흡을 맞춘 설경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존경심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br/> <br/>“배우가 배역을 잡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우, 배역, 스토리 등 모든 게 잘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란 쉽지가 않거든. 이번에 설 선배님이 연기하신 성근은 배우 생활 하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배역이었고, 선배님은 그런 캐릭터를 최고의 경지로 이끌어내셨죠. 저도 언젠가 한 번쯤 만나길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br/> <br/>마지막으로 박해일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영화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자식에게 있어 만큼은 모든 걸 해주고 싶었고,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후회 없는 영화가 될 것 같다. 박해일이 처음 선보이는 아버지 이야기, ‘나의 독재자’는 10월30일 개봉된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1.txt

제목: [상생경영 특집]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로 유방암 인식 개선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910015493630  
본문: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서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핑크리본의 상징인 분홍색 의상을 입고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아모레퍼시픽은 유방암 예방을 위한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서울대회’를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했다. <br/> <br/>10월 ‘유방건강의 달’을 맞아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유방 자가검진 교육과 무료 유방암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또 화장품 공병을 활용해 제작한 대형 조형물을 전시하고 유방암 예방을 주제로 한 마술쇼도 부대행사로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br/> <br/>아모레퍼시픽은 유방암 예방과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26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했으며 이 중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 760여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했다. <br/> <br/>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체의 특성을 살려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br/> <br/>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메이크업과 피부 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br/> <br/>이 캠페인은 여성 암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피부 변화와 탈모 등을 겪는 점에 착안해 시작됐다. 이들에게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해 투병 기간 겪는 우울증 등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다. <br/> <br/>아모레퍼시픽은 2008년부터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유방암학회 등과 함께 이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여성 암환자 8000여명이 참여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2.txt

제목: 암보험으로 경제적 고통 주는 암 치료비 걱정 줄이자  
날짜: 20141028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810015490119  
본문: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7만 명 이상이 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 남녀 4명 중 1명꼴로 사망한다고 볼 수 있다. <br/> <br/>날로 발전하는 의료기술로 인해 암 치료가 가능해지고 생존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암 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br/> <br/>암 발생은 주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음주·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늘어난 수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br/> <br/>거기다 최근에는 의료발달로 높아진 암 치료비용이 경제적인 방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암 종류에 따라 치료비용이 다르며 최대 수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 <br/> <br/>건강관리와 검진을 통해 암 예방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시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부터 노인· 남성 여성 모두 준비가 가능한 암 보험 추천 상품이 대비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br/> <br/>암 보험 상품은 암 발생 시 경제적인 보장을 해주며 치료비용 이외에 생계비용이나 요양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을 먼저 비교하고 알아봐야 한다. <br/> <br/>암의 경우 재발률도 높고 치료나 수술, 입원이 여러 번 발생될 수 있어 암 보험 가입 시 보장금액이 클수록 유리할 수 있으며 입원비나 수술비에 대해 횟수에 상관없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br/> <br/>그리고 암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률이 높은 암의 보장을 축소하거나 몇 가지 암에 대한 보장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암 보험 암 진단금에서 고루고루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br/> <br/>또한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보험 특성상 비갱신형 암 보험이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좋지만 가입자의 상황이나 연령 등 조건에 따라 갱신형 암 보험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입은 필수다. <br/> <br/>다만 암 보험의 경우 90일의 보장개시일이 있으며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후부터 온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병력이나 연령· 건강상태로 보장 및 가입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br/> <br/>최근에는 암 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해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려는 추세인데 암 보험 가입 순위 가격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을 알아볼 수 있어 고려할만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3.txt

제목: 골골한 당신에게 가을햇빛은 ‘천연 치유제’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810015491392  
본문: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공공의 적’처럼 돼 버린 ‘햇빛’. 하지만 햇빛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군이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 어린이 성장에 도움이 되고 대사성 질환 방지와 암 예방까지 햇빛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29일 오후 10시 햇빛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움을 알아보는 ‘햇빛 충전 99%’를 방송한다.  <br/> <br/> 피부 보호 등의 이유로 햇빛을 피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과도하게 햇빛을 피하거나 장시간 햇빛을 쬐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 <br/>KBS 제공미의 기준이 되어버린 새하얀 피부. 때문에 하얀 피부를 검게 태우는 햇빛은 피부 미용의 적이 돼버린 지 오래다. 특히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야외 활동을 할 때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마스크, 양산 등을 착용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br/> <br/>그러나 과도하게 햇빛을 피하거나 장시간 실내 생활을 하면서 햇빛에 등을 돌리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롭다. 햇빛을 쬐어야 생성되는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나아가서는 혈압, 면역력 등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햇빛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어린이의 성장이 저하될 수 있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br/> <br/>햇빛은 호르몬의 합성과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걱정과 달리 주기적으로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피부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우울증에는 햇빛만큼 좋은 치유제는 없다고 할 정도다. <br/> <br/>프로그램은 평소 햇빛을 쬐지 않는 4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햇빛 쬐기 실험을 진행했다. 피부 걱정이나 생활 습관 문제로 햇빛을 멀리했던 이들의 건강은 심각한 상태. 그들에게 내려진 2주간의 햇빛 쬐기 처방을 통해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실험을 통해 햇빛이 가진 놀라운 치유효과를 알아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4.txt

제목: 신해철, 결혼 전 부인 암 소식에 "더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날짜: 201410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810015487863  
본문:   <br/> <br/> <br/>신해철 부인 <br/> <br/> <br/>신해철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br/> <br/> <br/>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회사원으로 뉴욕 스미스대학교를 졸업,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에서 일했다. 신해철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2년간 열애를 했고 지난 2002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특히 윤원희 씨는 림프암에 갑상선암까지 와 투병생활을 했지만 신해철은 그의 곁을 지키며 결혼까지 감행해 눈길을 끌었다. <br/> <br/> <br/>앞서 신해철은 2008년 SBS '야심만만2-예능선수촌'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인 윤원희 씨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br/> <br/> <br/>당시 신해철은 "결혼 전 부인이 암으로 아팠다"며 "나는 원래 결혼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더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br/> <br/> <br/>신해철은 "(부인과) 병원에 가면 그냥 '남자친구'인 것과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보호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르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신해철은 "빨리 결혼해 든든한 남편으로서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여 감동을 자아냈다. <br/> <br/> <br/>신해철 부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해철 부인, 감동이다", "신해철 부인, 신해철이 죽다니", "신해철 부인, 부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신해철 부인, 정말 눈물만 나네요", "신해철 부인, 신해철 정말 멋진 사람이다", "신해철 부인,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신해철 부인, 믿기지 않아", "신해철 부인, 2014년 왜 이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5.txt

제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암, 억제 가능  
날짜: 201410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810015486438  
본문: 위암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가 규명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위암 발생 억제와 조기 진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br/> <br/>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원상 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위점막 상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Gastrokine 1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성인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발병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인 암이다. <br/> <br/>일반적으로 위점막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면 독성물질인 CagA를 분비해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산하고 유전자들의 변이를 유도한다. 또 점막상피세포가 증식하고 세포사는 억제된다. <br/> <br/>연구진은 이러한 감염에 의해 위점막이 지속적인 만성 위염 과정을 거쳐 위암으로 진행되는 병인(病因) 규명과 함께, 생체의 방어 기전과 Gastrokine 1을 이용한 위암 예방 전략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br/> <br/>이를 위해 AGS, MKN1, MKN28, HFE-145 세포주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 독소를 과발현시킨 후 세포증식, 세포자멸사 및 세포 침습을 조사했다. 그 결과 CagA 독소는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유전자 변이와 세포 증식 및 침습을 촉진했다. <br/> <br/>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상 교수는 Gastrokine 1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 독소에 의한 위점막의 염증과 세포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위암 발생 억제와 예방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br/> <br/>박원상 교수는 “<span class='quot0'>Gastokine 1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위암 발생 예방제는 물론, 효과적인 진단용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Gastrokine1이 인체에서 자연 생성되는 단백인 만큼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종양학 분야의 학술지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6.txt

제목: [기고] 갑상선암 초음파검진의 진실은?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810015491610  
본문: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분명 우리나라 땅임에도 일본의 거짓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헷갈린다. 최근 10여년 사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급격히 증가한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br/> <br/>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중단하면 갑상선암이 늦게 발견돼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은근히 협박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다.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밖에 안 된다며 초음파 검사를 중단하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생존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인구 6300만명이 넘는 영국에서 2011년 발생한 갑상선암 환자는 2727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373명이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4만568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350명 정도였다. 환자 수는 우리나라가 15배가량 많은데, 두 나라의 사망자 수는 비슷하다. 즉, 갑상선암 검진을 하지 않으면 갑상선암으로 죽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는 허구다. <br/> <br/>모 학회는 갑상선암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암이어서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초음파 검사 및 조기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교묘한 거짓 주장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물론 그런 갑상선암도 있다. 하지만 그런 암은 커다란 갑상선 혹이나 암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사람 중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암이지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작은 갑상선암에서 그런 암이 생기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작은 갑상선암이라도 경부 림프절 전이나 피막 침범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부 림프절 전이나 피막 침범이 아닌 폐 전이나 피막외 침범이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경부 림프절 전이와 폐 전이를 또는 피막 침범과 피막외 침범을 구분하지 않고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도 거짓 주장이다.  <br/> <br/>이용식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두경부외과학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2㎝ 이하의 갑상선암에서는 폐 전이나 피막외 침범은 매우 드물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갑상선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 이하의 작은 암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더욱 드물다. <br/> <br/>작년 7월부터 갑상선 전문의들이 모여 갑상선 검진을 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 결과를 지난 8월에 발표했는데 갑상선 초음파 검진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초음파 검진을 하더라도 심각한 환자를 미리 발견해 사망할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의 해(害)에 대한 논문이 136편이나 있는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의 위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결론지었다. 이는 잘못된 주장 아닌가. <br/> <br/>칭기즈칸의 칙령 중에 알고도 거짓을 말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있다. 소위 전문가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칭기즈칸에게 물어보고 싶다. <br/> <br/>이용식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두경부외과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7.txt

제목: 림프절로 전이 쉬운 ‘유방암’, 재발 막으려면  
날짜: 20141028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810015487141  
본문:   <br/> <br/># 주부 박미옥(여, 48)씨는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한쪽 유방이 미세하게 찌그러지듯 변형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왼쪽 유방에 3.4x3.1cm의 종양이 발견됐으며, 림프절에 전이된 상태였다. <br/> <br/>가슴 절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져 여러 수술법을 알아본 후 비수술적 치료를 택했다. 수술 후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으며, 재발은 없었다. 비수술 치료를 받은 종양의 크기도 0.86x0.67cm로 축소되었다. 의사는 “<span class='quot0'>유방암 조직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남아있는 부분도 섬유화된 상태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의 분열이 과도하게 빨라져 덩어리를 형성해 생기는 것이다. <br/> <br/>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뉘는데, 양성종양은 대부분 정상 세포로 이루어져 덩어리를 만들기는 하지만 생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악성종양이다. <br/> <br/>김태희 종양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1'>악성종양은 비정상적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위 조직으로 파고드는 성질을 갖고 있어 혈액이나 림프의 흐름을 따라 처음 생긴 곳을 벗어나 전이되기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유방암이 가장 잘 전이되는 곳은 겨드랑이의 림프절이며, 목이나 겨드랑이에 덩어리가 만져질 경우 유방암 전이를 의심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유방암 환자의 30%는 위험인자 없이 발생 <br/> <br/>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을수록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을 수 있으며,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도 원인이 될 수 있다. <br/> <br/>그 외에도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이, 과도한 음주, 비만,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은 첫 임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직계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br/> <br/>하지만 모든 유방암 환자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유방암 환자의 30%정도에서는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br/> <br/>유방암은 초기 단계에서는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다.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인데 통증이 없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며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유방에서 만져질 정도가 되려면 최소 1cm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을 경우 이미 진행된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다. <br/> <br/>특히 유방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되거나 폐, 뼈, 간, 뇌 등으로 전이도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진찰과 유방촬영술을 시행받는 것이 유방암 발견에 도움이 된다. <br/> <br/>◆전이된 암도 절제 없이 비수술로 완치 가능 <br/> <br/>유방암이 발견되는 모든 환자가 가슴을 절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유방암의 치료법은 외과적 절제와 항암치료, 비수술 치료법 등이 있다. <br/> <br/>절제술의 경우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치료의 고통을 줄이고 유방을 그대로 보존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수술법으로 혈관내 치료와 하이푸 시술을 병행해 시행한다. <br/> <br/>유방암이 림프절과 뼈 전이가 되면 통증이 심해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비수술 치료인 ‘혈관 내 치료’와 ‘하이푸 나이프 시술’을 병행하면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br/> <br/>혈관 내 치료는 가는 카테터를 동맥 내에 삽입해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통증과 합병증이 없으며, 정상조직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 항암제 양을 적게 주입하기 때문에 골수억제, 머리빠짐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br/> <br/>혈관 내 치료 후 하이푸 시술을 하면 치료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다.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 집속 치료술로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가슴의 절개 없이 종양만을 소멸시키는 최신 치료법이다. <br/> <br/>김태희 전문의는 “<span class='quot2'>유방암의 하이푸 치료는 경험이 부족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절개 없이 치료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으며, 유방의 형태 변화 없이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시술 후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8.txt

제목: 대한소화기학회 새 회장에 장영운 경희대 교수  
날짜: 2014102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80146  
본문: 경희대병원(원장 임영진)은 이 병원 소화기내과 장영운(사진)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제2차 평의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1년. <br/> <br/>장 교수는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된 위장관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암 발생에 관여하는 한국인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위암환자 직계가족의 경우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암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br/> <br/>또 장 교수는 제20차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우수구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9차 유럽소화학회에서 톱 포스터로 선정됨은 물론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2011~2012년판’에도 등재되는 등 국내외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79.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아이 생기고 나서는 자살 충동도 치유됐었다' 애틋한 아빠의 마음 다시금 화제  
날짜: 2014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83048  
본문: 신해철 유언장 <br/> <br/> 신해철 유언장, 신해철 상태 <br/> <br/> <br/>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잔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 <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라는 영상을 남겼다. <br/> <br/> <br/>당시 신해철은 "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 <br/> <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 <br/>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 <br/> <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 <br/> <br/>신해철 유언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해철 유언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어나실거라 믿어요", "신해철 유언장, 부디 마지막이 아니길", "신해철 유언장,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마왕 일어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한편, 신해철은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0일 가슴 복부 등의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러나 21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0.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다시금 화제..."사랑하는 사람에게 못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는 한 남자가..." 애틋  
날짜: 2014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82814  
본문:   <br/> <br/>신해철 유언장, 신해철 상태 <br/> <br/> <br/>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잔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 <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라는 영상을 남겼다. <br/> <br/> <br/>당시 신해철은 "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 <br/> <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 <br/>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 <br/> <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 <br/> <br/>신해철 유언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해철 유언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어나실거라 믿어요", "신해철 유언장, 부디 마지막이 아니길", "신해철 유언장,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마왕 일어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한편, 신해철은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0일 가슴 복부 등의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러나 21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다. <br/> <br/> <br/>인터넷팀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1.txt

제목: 신해철 27일 오후 8시19분 별세...'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  
날짜: 2014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83843  
본문: 신해철 유언장, 신해철 상태 <br/>신해철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그가 방송을 통해 남긴 유언장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다. <br/> <br/> <br/>과거 故신해철은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라는 영상을 남겨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br/> <br/> <br/>또한 신해철은 "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 <br/> <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며 가족을 통해 이겨냈음을 드러냈다. <br/> <br/>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 <br/>  <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혀 애통함을 자아낸다. <br/> <br/>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으나, 이후 22일 새벽 복부 및 흉부 통증으로 재입원한 후 오후 1시 심정지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응급수술 후 의식불명에 빠졌다. <br/> <br/>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의 보컬로 데뷔한 뒤 밴드 넥스트로 활동했으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 또한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DJ로도 활약해 수많은 팬을 양산하며 '마왕'이라는 애칭을 얻은 바 있다. <br/> <br/>한편 신해철의 빈소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아산병원 23호에 마련된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2.txt

제목: 신해철, 부인 아이들에게 남긴 유언장 화제...아내향한 애틋함 담긴 사연 보니 '가슴아파'  
날짜: 2014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78737  
본문: 신해철 유언장, 신해철 상태 <br/>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잔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 <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라는 영상을 남겼다. <br/> <br/> <br/>당시 신해철은 "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 <br/> <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 <br/>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 <br/> <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 <br/> <br/>한편, 신해철이 최근 위밴드수술을 받을것으로 알려졌다.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이라면서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 <br/> <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 <br/> <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라며 "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 <br/>의료진은 또 "(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며 "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br/> <br/> <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3.txt

제목: 남성 유방암, 드물지만 전이 쉽고 빨라 조기 발견 중요  
날짜: 20141027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78739  
본문:   <br/> <br/>최근 한국유방암학회가 발표한 ‘유방암백서 2014’에서 국내 유방암 발병률이 동아시아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2001년 약 7천명에서 2011년 약 1만 5천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br/> <br/>특히 전체 유방암 환자 중 0.6-3%는 남자 유방암으로 보고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방암의 경우 여성들에게만 발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유방암에 대해서는 주목되지 않았다. <br/> <br/>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남성 유방암은 매우 드물지만 남성에게도 유방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유전적 요인, 호르몬 영향 등이며 주로 고령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유방에서 혹이 만져지면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형 유방암과는 다르게 혹이 아닌 단단한 것이 특징. 유방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고 가려운 경우, 유두에서 핏빛 분비물 등이 나올 경우에도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br/> <br/>민병원 유방센터 우희두 원장은 “<span class='quot0'>남성 가슴에서 멍울이 만져진다고 모두 남성 유방암은 아니며 단순 멍울, 여성형 유방, 피부염증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남성 유방 조직은 여성보다 적기 때문에 다른 근육이나 피부로 전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유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남성들은 유방에 변화가 있거나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가지 않고 꺼리는 경우가 많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 정기 검진 및 자가 검진을 시행하지만 남성의 경우 유방 검사는 물론 관심이 적어 특이점도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br/> <br/>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며 전이 된 후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우희두 원장은 “<span class='quot0'>집안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나 만성 간질환이 있는 남성들은 신경쓰고 유방을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은 경우에는 진찰과 함께 초음파나 엑스레이 촬영술로 기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4.txt

제목: 신해철, 겉은 '마왕'이지만 속은 부드러웠던 사람  
날짜: 2014102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83858  
본문:   <br/> <br/>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에 따른 응급수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있던 가수 신해철이 27일 오후 8시19분쯤 저 멀리 하늘로 떠나갔다. 향년 46세. <br/> <br/>신해철은 앞선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수차례 통증으로 인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리고 22일, 갑자기 심정지 상태를 일으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입원 닷새 만에 가족 그리고 팬들과 영영 작별을 고했다. <br/> <br/>신해철은 소문난 ‘애처가’였다. 그는 지난 2002년 9월29일, 3년여 동안 사귄 9살 연하의 아내 윤원희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특히 신해철은 자신보다 키가 5cm가량 큰 윤씨를 옆에 두고도 “<span class='quot0'>키 큰 여자와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span>”고 말할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다. <br/> <br/>사실 신해철은 아내 윤씨가 암투병 중인 것을 알고도 결혼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DJ를 맡고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span class='quot0'>암이라는 진단을 알게 됐을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남편으로서 병간호해주고 싶어 결혼을 결심했다</span>”고 말했다. 이후 윤씨는 신해철의 극진한 보살핌에 힘입어 1년 만에 치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만 알았던 대중에게 신해철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br/> <br/>신해철은 같은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곧 태어날 아기에게 경상도 사투리로 인사까지 건넸다. 그는 “<span class='quot0'>야야 고마 저 무사히 빨리 내오래이, 됐다</span>”며 수줍은듯 인사한 뒤 고개를 숙여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br/> <br/>신해철은 케이블채널 tvN ‘오페라스타 2011’ 방송을 앞두고 아내를 방청석 맨 앞줄에 앉혀달라는 부탁도 제작진에게 했다. 독한 카리스마 소유자, ‘록의 제왕’ 신해철이지만 아내가 앞에 있어야 생방송에서 긴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br/> <br/>한편 빈소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발인, 장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5.txt

제목: 신해철 별세, 과거 방송에서 작성한 유언장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아내에게 뜨거운 사랑 보여줘  
날짜: 2014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84346  
본문: 신해철 별세신해철 별세 <br/> <br/> <br/>신해철은 2011년 7월 케이블 MBC 에브리원 ‘부엉이 시즌 2’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br/> <br/> <br/>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  <br/> <br/> <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 <br/> <br/>신해철은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 <br/> <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span>”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 <br/> <br/>제작진은 신해철의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 <br/> <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  <br/> <br/> <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6.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신해철 상태 '아이들이 생기고는 자살충동도 다 치유됐었는데..'다정한 아빠의 모습  
날짜: 2014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82920  
본문:   <br/> <br/>신해철 유언장, 신해철 상태 <br/> <br/> <br/>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잔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 <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라는 영상을 남겼다. <br/> <br/> <br/>당시 신해철은 "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 <br/> <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 <br/>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 <br/> <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 <br/> <br/>신해철 유언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해철 유언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어나실거라 믿어요", "신해철 유언장, 부디 마지막이 아니길", "신해철 유언장,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마왕 일어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한편, 신해철은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0일 가슴 복부 등의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러나 21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7.txt

제목: 경북 원전 인근 주민들, 한수원과 갈등 격화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83036  
본문: 경북 경주를 비롯해 울진, 영덕 등 동해안지역이 원전시설 안전성 문제와 각종 민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br/> <br/>2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동해안지역 시·군에 따르면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신한울원전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울진범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한수원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3·4호기 사업 시행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관을 항의 방문하는 집회와 함께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신한울원전 공사 저지 시위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br/> <br/>8개 대안사업은 자율형사립고 한수원 설립·운영 등 신울진원전 1∼4호기 건설에 따른 정부 지원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울진군과 한수원이 15년에 걸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br/> <br/>경주에서는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을 놓고 한수원과 주민, 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결과안을 공개했다. 월성 1호기는 연말쯤 계속운전이 최종 결정되면 2022년 11월까지 8년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다. <br/> <br/>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주핵안전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 20여명이 24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며 월성원전까지 도보순례를 벌였다. <br/> <br/>월성원전 주변 주민들도 갑상샘암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주 월성과 울진 한울원전 등 주변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공동소송을 통해 원전의 암 발생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br/> <br/>신규 원전 후보지인 영덕지역에서도 한수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영덕은 2011년 영덕읍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의 주민 동의 아래 140만㎾짜리 원전 4기 유치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지금까지 보상과 주민이주 등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br/> <br/>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도 영덕군의회에 “전체 군민이 아닌 후보지 인근 주민의 의견만 물은 것은 잘못”이라며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r/> <br/>경주·울진=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8.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화제, 아내-아이들 향해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이 두려워 남긴다"... 신해철 상태는?  
날짜: 2014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79718  
본문:   <br/> <br/>신해철 유언장, 신해철 상태 <br/> <br/>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 <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라는 영상을 남겼다. <br/> <br/> <br/>당시 신해철은 "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 <br/> <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 <br/>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 <br/> <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 <br/> <br/>한편, 신해철이 최근 위밴드수술을 받을것으로 알려졌다.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이라면서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 <br/> <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 <br/> <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라며 "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 <br/>의료진은 또 "(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며 "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br/> <br/> <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89.txt

제목: 신해철 부인 암투병에도 불구 결혼 러브스토리 화제...'신해철에게도 기적을'  
날짜: 2014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710015479586  
본문:   <br/> <br/>신해철 부인, 신해철 상태 <br/> <br/>'신해철 부인'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br/> <br/>가수 신해철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아내와의 러브스토리가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br/> <br/>신해철은 지난 2011년 방송된 '승승장구'에서 아내와의 '목숨을 건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br/> <br/>신해철의 부인은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신으로 미국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의 일본지사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재원, 하지만 신해철과 연애시절 당시 암투병을 겪고 있었다. <br/> <br/>신해철은 이어 "미국에서 처음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며 "장장 3개월간 뉴욕과 일본을 오가는 초장거리 연애를 했다"고 말했다. <br/> <br/>신해철은 "아내와 미국에서 연애를 하던 중,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저쪽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테니 수술 경과보고 결혼하지 말고 먼저 결혼하고 다 같이 힘을 합치자!'하시며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셨다"고 말해 감탄을 자아냈다. <br/> <br/>신해철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2년간 열애를 했고 지난 2002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br/> <br/>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주목받는 것은 결혼 전 윤원희씨가 림프암에 이어 갑상선암까지 와 투병생활을 했을 당시 신해철은 그의 곁을 지켰고 결혼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br/> <br/>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나를 선택해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br/> <br/>한편 신해철 소속사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3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수술이 더 필요한 상태다.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루속히 신해철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br/> <br/>신해철 부인 러브스토리, 신해철 상태를 접한 네티즌들은 "신해철 부인, 진짜 절절한 러브스토리" "신해철 부인, 어서 일어나셔야죠" "신해철 부인, 가족들 애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0.txt

제목: 신해철, 부인과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 '화제' 암도 이겨냈다  
날짜: 201410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510015471387  
본문:   <br/> <br/> <br/>신해철 신해철 부인 <br/> <br/> <br/>신해철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위중한 가운데 신해철 부부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 <br/>신해철은 지난 2011년 KBS2 '승승장구'에서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br/> <br/> <br/>이날 방송에서 신해철은 지난 1997년 넥스트 해체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현지에서 부인 윤원희씨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br/> <br/> <br/>신해철 부인 윤원희씨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회사원으로 뉴욕 스미스대학교를 졸업,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에서 일했다. 신해철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2년간 열애를 했고 지난 2002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br/> <br/> <br/>신해철은 결혼 전 윤원희씨가 림프암에 이어 갑상선암까지 와 투병생활을 했음에도 그의 곁을 지켰고 결혼까지 감행해 눈길을 끌었다. <br/> <br/> <br/>이후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투병생활을 끝내고 건강이 완치됐다. <br/> <br/> <br/>신해철 부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해철 부인, 안타깝네요", "신해철 부인, 신해철도 일어나거에요", "신해철 부인, 부인도 힘들겠네", "신해철 부인, 마음이 아프네요", "신해철 부인, 제발", "신해철 부인, 아직은 아니에요", "신해철 부인, 어서 일어나세요", "신해철 부인, 기도할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한편 신해철은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장협작증 수술 부위를 개복,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혈압은 안정됐지만 아직 의식이 없고, 동공반사도 없는 위중한 상태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1.txt

제목: '소리 없는 습격자' 담낭암…의료계, 한방치료 가능성 모색  
날짜: 20141024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410015469113  
본문: 두 아이의 엄마인 주부 박민정(30, 가명)씨는 얼마 전부터 소화불량 증상을 느껴 집 근처 내과를 찾았다. 위내시경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초음파검사 결과 담낭용종 여러 개가 발견됐다. <br/> <br/>내과에선 담낭은 위나 대장처럼 눈으로 보고 조직을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담낭절제술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면서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추천했다.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민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br/> <br/>다양한 암 중에서도 담낭암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암이다. 담낭암은 담낭· 즉 쓸개에서 생기는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 담낭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돼 있지 않다. <br/> <br/>특히 담낭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징적인 증상이 없고 단순한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증세로 오인해 대부분 환자들이 암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보통 담낭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병원의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를 통해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br/> <br/>하지만 담낭암은 췌장암이나 간암 등과 같이 수술 성공률이 비교적 낮은 암으로 분류되고 있어 기존의 암 치료법 이외에 한방 치료법을 모색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br/> <br/>이런 경향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미국· 독일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방암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는 등 한방암치료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br/> <br/>특히 미국 엠디앤더슨, 하버드 다나파버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통합의학 센터를 구축해 녹용· 산삼약침 등 한방암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br/> <br/>소람한방병원 소화기암센터 양인철 진료원장은 "담낭암은 한방의 면역 암 치료를 통해 면역력 강화· 암 세포 파괴· 통증 완화· 부종 개선· 기력 회복· 암 세포 사이즈 감소· 황달 개선· 우상복부통증 완화· 소화장애 개선 등과 같은 호전 증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양 원장은 이어 "담낭암 말기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한방치료를 병행한다면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며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완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소람한방병원에서는 환자의 체질· 특성· 증상·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1 맞춤형 면역치료인 소람 12주 면역프로그램을 통해 한방암치료를 진행 중이다. <br/> <br/>또 소람약침· 무연쑥뜸· 비훈요법 등을 이용한 3단계에 걸친 단계별 면역력 강화 치료로써 환자 스스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면역매니저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질병의 특성관리· 생활관리 등 맞춤식 관리로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하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2.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퍼킨엘머와 신약개발 연구 선도  
날짜: 2014102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410015466821  
본문: 서울아산병원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가 세계 1위 이미징분석장비 기업인 퍼킨엘머(PerkinElmer)와의 공동연구 협약으로 바이오이미징을 통한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 연구를 선도해 나갈 전망이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24일 병원 동관 6층 대회의실에서 최신 바이오이미징장비 우선사용 및 연구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아산병원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퍼킨엘머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br/> <br/>바이오이미징은 영상장비를 통해 생명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분석하거나 세포의 약리학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 신약개발의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바이오이미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신약개발 바이오이미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비임상 단계부터 임상시험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주기에서 바이오이미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br/> <br/>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이미징센터의 연구역량과 퍼킨엘머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적 자원이 결합함으로써,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연구의 질을 높이고 이미징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br/> <br/>바이오이미징센터는 이번 퍼킨엘머와의 협약을 통해 ▲퍼킨엘머에서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형광 내시경 개발 참여 ▲퍼킨엘머 최신 이미징장비 우선 사용 권리 획득 ▲이미징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br/> <br/>이날 협약식에는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 명승재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장, 김청수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브라이언킴(Brian Kim) 퍼킨엘머LST(생명과학사업부)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br/> <br/>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은 “<span class='quot0'>퍼킨엘머와의 연구협약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혁신기술과 산업적 지식을 한층 끌어올려, 기초과학과 임상을 연결하는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span>”이라고밝혔다. <br/> <br/>명승재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장(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1'>첨단공학과 의학의 만남인 바이오이미징을 통해, 연구자들이 다양한 치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바이오이미징 분석장비기업인 퍼킨엘머는 1937년 미국 뉴욕에서 광학용 렌즈 생산 회사로 시작해 현재 전세계 150개국에 지사를 두고있는 회사로, 333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 서울아산병원과는 2012년부터 줄기세포암 연구, 내시경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왔다. <br/> <br/>브라이언 킴 퍼킨엘머LST 사장은 “<span class='quot2'>이번 전략적 연구협력을 통해, 최첨단 의료사업을 이끌어온 서울아산병원 및 신약개발 융합 바이오이미징센터에 분자영상기술과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더 깊이있는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도울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중개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내달 27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심포지엄을 개최해 중개연구 최신 가이드 및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3.txt

제목: “사고는 갑자기 찾아온다”…의료실비보험으로 각종 사고 대비  
날짜: 20141024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410015469367  
본문: 20대 A씨는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A씨는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 의료실비보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다. <br/> <br/>최근 A씨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 이유는 자전거를 타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다리의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A씨는 2주 가량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와 약제비 지출로 병원비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미리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br/> <br/>A씨의 경우처럼 젊고 건강한 나이에는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고는 A씨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 <br/> <br/>실제 암이나 기타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큰 초기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갑작스러운 진단에 당황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병원비가 부담스럽게 된다. <br/> <br/>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의료비로 사용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젊은층은 의료비로 사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질병과 상해가 모두 보장되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을 대처하는 수단이 된다. <br/> <br/>의료실비보험은 기존의 다른 보험들과는 달리 보장범위가 넓은 상품이다. 몇 가지 비보장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병이나 상해를 높은 비율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은 보함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의료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의 80~9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지만 실비 보장은 하나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곳을 가입해도 보험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br/> <br/>최근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인기 많은 의료실비보험을 몇 가지 추천 받아서 자신의 상황에 맞춤 설계를 받아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하는 추세다. <br/> <br/>보험비교사이트에서는 가입자의 성별· 건강· 연령· 직업 등의 조건에 따라서 각 보험사의 장단점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의료실비보험 상품별로 보장조건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br/> <br/>의료실비보험은 설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비교사이트 상담원과 충분히 상담 후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br/> <br/>한편 의료실비보험은 한화손해보험 슈퍼플러스건강보험·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험· 현대해상 퍼펙트종합보험· LIG손해보험의 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등이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4.txt

제목: 폐암환자 고통스런 숨소리 담긴 금연광고 2탄 등장  
날짜: 2014102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310015458691  
본문: 24일부터 폐암환자의 고통을 다룬 금연광고 2편이 나간다. 사진은 흡연의 위험을 표현한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포스터.폐암환자가 고통스럽게 숨쉬는 소리를 담은 독한 금연 광고가 등장했다. <br/> <br/>23일 보건복지부는 뇌졸중을 소재로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상반기 금연광고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새로운 금연광고 '호흡의 고통' 편을 방영한다고 밝혔다. <br/> <br/>광고는 가족들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던 남자가 담배를 꺼내 피우자마자 화목했던 가족의 모습은 사라지고 듣기 고통스러운 가쁜 숨소리,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br/> <br/>이후 호흡곤란으로 고통받는 남자의 모습이 크게 잡히고 '금연만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br/> <br/>이번 광고 특징에 대해 복지부는 폐암의 고통을 청각적 요소로 극대화해,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의 모습을 가감 없이 다뤘다고 설명했다. <br/> <br/>폐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인 질환이며 폐암으로 진단된 남성의 87%가 흡연자다. <br/> <br/>폐암은 조기발견과 치료가 어려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복지부는 "11월 중 케이블 TV를 비롯해 극장, 전국 보건소, 전국 고등학교 내 설치된 키오스크 등을 통해 금연광고를 널리 알리고 연말까지 대대적인 금연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br/> <br/>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5.txt

제목: 뜨거운 생명, 詩語에 담고 삶의 마지막 숙제를 마치다  
날짜: 2014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310015462391  
본문: 삶과 죽음은 늘 한통속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죽음의 입김이 강한 듯하다. ‘세월호’가 길게 억장을 끊더니 환풍구 위 추락이 이어진다. 모두 창졸간 닥친, 어이없는 죽음이어서 더 서럽고 안타깝다. 예견된 죽음이라고 편안할 리 없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일은 역시 범상치 않은 마지막 숙제다. <br/> <br/>“<span class='quot0'>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던 그가/ 팔소매를 훔치며/ 체면도 없이 그저 펑펑 울 때는/ 참, 젊어 보였다/ 나는 그저 흐느끼는 어깨만 토닥였다/ ‘아, 나는 언제 펑펑 울어보나’</span>” <br/> <br/>펑펑 울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 김종철(1947∼2014) 시인이 그 사람이다. 그는 소문보다 빠르게 암이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침묵이 변명이 되어버렸는데, 그가 꾸리는 출판사 식구들에게 소문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회사 살림만 우직하게 꾸려왔던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펑펑 울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그는 ‘펑펑 울다’는 시를 지었다. 최근 출간된 유고시집 ‘절두산 부활의 집’(문학세계사)에 실렸다. 그의 ‘회사’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국내에 독점 번역 출간해 1000만부 이상을 판매한 ‘문학수첩’이다. 애초 출간 제안서가 여러 출판사를 떠돌다 거부당한 끝에 문학수첩에 당도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두 해 간격으로 신춘문예에 두 번(한국일보·서울신문)이나 시로 당선돼 타고난 언어감각을 과시해온 시인이기도 하다. ‘못에 관한 명상’이라는 첫 시집 이래 그는 ‘못의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못’을 모티프로 시 세계를 펼쳐왔다. <br/> <br/>“<span class='quot0'>소문만으로도 더 빨리 중환자가 되었다/ 안됐구먼, 그 팔팔한 양반이!/ 조심스레 격려 전화와 문자가 찍혔다/ 힘내, 파이팅!/ 나는 종목도 없는 운동선수로 기재되었다./ 이길 수 없는 경기에만 나오는 선수다// 그중 가장 살맛나게 하는 소문은/ 이제 끝났어, 살아오면 내 손에 장 지지지!/ 오랜만에 듣는 행복한 저주였다/ 일찍이 나를 잉태했던 어머니는/ 가난에 겨워 조선간장 몇 사발 들이켰지만/ 그래도 세상 구경한 나였지 않은가/ 오냐, 네놈부터 장 지지게 해 주마!</span>”(‘오늘의 조선간장’) <br/> <br/> ‘못의 사제’로 살다간 김종철 시인. 그가 암과 싸우며 죽음을 예감하던 시점에 딸(윗줄 왼쪽)과 아내와 더불어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그가 처음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항암치료를 거듭한 끝에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올 3월 시인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그를 다시 살게 한 것은 ‘안 됐구먼, 그 팔팔한 양반’이라는 ‘행복한 저주’였다고 썼다. 그를 살맛나게 한 것은 울음보다 오기였던 셈이다. <br/> <br/>“<span class='quot0'>퇴원이다/ 안녕 안녕/ 덕담하며 병원 문턱을 넘었다/ 몸 버리면 세상을 잃는다는/ 일상의 처방전/ 잘 있다, 괜찮다고 나는 사인했다// 월요일 젖은 몸 말리고/ 급히 지퍼 올리다가 목에 걸린/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생명은 한순간 뜨겁다</span>”(‘안녕’) <br/> <br/>뜨거운 생명은 종내 목에 걸리고 말았다. 시인협회 회장으로 ‘시의 달’ 제정, 시인의 마을 조성, 남북시인대회, 시문학 전문지 부활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그는 갑작스러운 암의 재발과 악화로 지난 7월5일 이승을 떠났다. <br/> <br/>“<span class='quot0'>유작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 밤새 고치고 다듬는다/ 실컷 피를 빤 아침 하나가/ 냉담한 하느님과 광고를 믿지 않은/ 자들만 분리수거해 갔다/ (…) /몸만 남은 체면이 기도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순명하다가/ 무릎 꿇는 또봇의 새 아침/ 쩍 벌어진 애도의 쓰레기통이나 뒤져/ 악담 퍼부은 유작들만 분리수거되는 날이다</span>”(‘유작으로 남다’) <br/> <br/>이번 시집은 그가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스스로 유고들을 선별해 1부에서 5부까지 분류까지 마친 결과물이다. 1부에는 암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투병 중의 심정을 담은 시편, 2부는 일본군 위안부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못박힌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시편, 3부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짚어 낸 시인의 부드럽지만 강직한 시선의 에스프리들, 4부는 가톨릭 신자로서 성지순례나 해외여행 중에 포착해낸 마음의 풍경과 종교적 심상들, 5부에는 그간의 삶 속에 떠오른 그리움의 편린들과 사람살이에 대한 관조적 시선을 담았다. 그가 죽기 2주 전, 2014년 6월22일 오후 7시22분 연세 암병동에서 둘째딸의 손을 빌려 정리한 마지막 시편은 이렇다. <br/> <br/>“<span class='quot0'>몸과 마음을 버려야만 비로소 머물 수 있는 곳/ 아내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와 시안에도 들렀다/ 내 생의 마지막 투병하는데/ 절두산 부활의 집을 계약했다고 한다/ 신혼 초 살림 장만하듯 아내와 반겼다</span>”(‘절두산 부활의 집’)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6.txt

제목: 호박의 효능, 탈모부터 유방암 퇴치에 탁월한 채소 '왜 진작 몰랐지?'  
날짜: 2014102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310015459055  
본문:   <br/> <br/>호박의 효능 <br/> <br/> <br/>호박의 효능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 <br/> <br/>호박의 칼로리는 낮은 대신 섬유질, 비타민A, C, E와 미네랄(구리, 칼슘, 칼륨), 항산화 물질(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베타-크립토크산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 <br/>호박의 놀라운 효능 4가지를 보면 우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2011년 나온 연구에 따르면호박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두통과 관절통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br/> <br/> <br/>또한 탈모를 막아 준다. 2014년 한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대머리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4주 동안 매일 400㎎의 호박씨 기름을 섭취한 사람들은 머리털이 40% 더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br/>특히 호박은 유방암을 퇴치하는데도 탁월하다. 2012년 ‘영양과 암(Nutrition and Cancer)’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나 해바라기 씨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br/> <br/> <br/>이어 호박씨에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인 리그난과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레산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유방암 발병을 막아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br/> <br/>호박의 효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호박의 효능, 호박 맛있음” “호박의 효능, 잘 알아둬야지” “호 <br/>박의 효능, 효능 정말 많구나” “호박의 효능, 내일 사러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7.txt

제목: 오염된 공기, 영유아 자폐증 유발 위험 2배  
날짜: 20141023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310015462500  
본문: 최근 미국에서 '환경오염과 자폐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r/> <br/>미국 피츠버그대학교의 공공건강연구센터는 "오염된 공기가 영유아의 자폐증을 유발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br/> <br/>이 연구소가 펜실베이니아주 남서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자폐스펙트럼 장애(Aus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를 앓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태아 시절 또는 생후 24개월 이내에 독성이 포함된 대기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ASD는 미국에서 68명 당 1명꼴로, 남자아이의 경우 42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신경발달 장애, 언어 장애, 사회 부적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피츠버그대 에블린 탈봇 박사는 2005~2009년 태어난 ASD 아이 환자의 가족 217 가구와 같은 기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족을 인터뷰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임신 당시 크로뮴과 스티렌 수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했거나 신생아가 생후 24개월 이내에 위의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ASD에 걸릴 확률이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크로뮴 화합물은 다량 흡입할 경우 독성을 나타내며 각종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스티렌은 플라스틱이나 페인트에 주로 함유돼 있어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과 함께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하나다. <br/> <br/>탈봇 박사는 "지난 20년 간 미국 내 ASD 환자는 8배나 증가했다. 크로뮴과 스티렌이 포함된 대기 오염이 자폐증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자폐증의 급속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경오염과 자폐증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매우 희박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오염된 공기와 ASD의 발병원인을 연구하는 데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는 쥐 등을 이용한 기존 실험과 달리 ASD 환자수, 특정 오염물질 데이터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공해 등 환경과학과 나노과학, 바이오과학 등을 연계해 연구하는 학회인 미국 에어로졸 학회(AAAR) 연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8.txt

제목: [WT논평] The surgeon general and the sun  
날짜: 2014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310015462489  
본문: The sun is ever shooting healthful rays at us, even as the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suggests we dart for cover under sunscreen and hats. The sun’s rays are evil, the government tells us, and we should avoid them like the plague. So why has mankind not died out from sun-caused disease thousands of years ago? <br/> <br/>There would be nothing without the sun no animals, plants or government bureaucrats looking for something to regulate. Man has always toiled beneath it, chasing buffalo on the American plains, growing crops in barbarian Europe, catching fish in pre-dynastic China. Are we really “harmed” by its rays more than they were? <br/> <br/>Our bodies require sun, as well as life-sustaining salt and fats our surgeon general also says we don’t need. Maybe what we don’t need is a surgeon general. <br/> <br/>Now devolved into Nanny State Central, the surgeon general’s office has become spokesman for intrusive government policies that unnecessarily frighten people, try to control their personal decisions. <br/> <br/>If the “nation’s doctors” can dole out politically motivated insurance advice, their ability to deliver sound, agenda-free health guidance is also questionable. On the specific question of “exposure,” we are getting too much White House-focused surgeon general and not enough science or sun. <br/> <br/>An August study by the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found low Vitamin D levels (delivered through UVB rays) are a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Alzheimer’s disease, stroke and all forms of dementia. A moderate Vitamin D deficiency can cause a 51 percent increase in dementias; a severe deficiency, 122 percent. This is a profound finding. <br/> <br/>Research recently published in th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and ignored by our medical bureaucrats) found increased rates of melanoma were not the result of too much sun exposure, but the benefit of “diagnostic drift” - increased awareness of the disease by the public and physicians, leading to hikes in identifying the disease in early, rather than latter, stages. <br/> <br/>This study and another in the prestigious medical journal Lancet also found skin cancers increasing at greatest rates among indoor workers, though Vitamin D-producing UVBs don’t pass through windows. Other global studies have found that more sun actually protects against melanoma and leads to lower incidences of breast, colorectal and ovarian cancers and that 30 percent of cancers could be prevented with adequate UVB exposure. <br/> <br/>과학을 외면하는 정부의 간섭 사례 <br/> <br/>케리 톨로스코(美 자유 개척 연구소 연구원) <br/> <br/>미군 의무감이 차양이나 챙이 넓은 모자 아래로 달려가 피신하라는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건강에 이로운 광선을 우리에게 언제나 쏘고 있다. 태양 광선이 나쁘며 우리는 역병을 피하듯이 햇빛을 피해야 한다고 정부가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태양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질병으로 인류가 오랜 세월 전에 멸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br/> <br/>태양이 없으면 동물, 식물 혹은 무언가 규제할 것을 찾는 정부 관료 등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항상 태양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해왔고 미국의 평원에서 들소를 뒤쫓았으며 야만 시대의 유럽에서 농작물을 키웠고 왕조시대 이전의 중국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우리는 과거 인류보다 태양 광선의 “해”를 실제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일까. <br/> <br/>우리의 신체는, 생명을 지탱하는 소금과 지방은 물론 태양을 필요로 한다. 미군 의무감은 소금과 지방 역시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미군 의무감이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br/> <br/>오늘날 유모국가의 중앙부서로 발전한 미군 의무감의 직무는 간섭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했다. 그런 정책들은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시민들의 개인적인 결정을 통제하려 한다. <br/> <br/>만약 “국가의 의사들”이 정책적 동기를 지닌 보험의 조언을 제공할 경우 건전하고 목적에서 해방된 보건 지침을 제공하는 그들의 역량 또한 의문스러워진다. 햇빛 “노출”이란 특정 문제에서 우리는 백악관에 초점을 맞춘 미군 의무감으로부터 너무 많은 말을 듣는 한편 과학이나 혹은 태양에 관해서는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다. <br/> <br/>미국 신경 아카데미가 8월에 발표한 연구는 (자외선으로 공급되는) 비타민 D 수준의 저하가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및 모든 형태의 치매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비타민 D의 낮은 수준 결핍이 치매 발병률을 51% 증가시키고 심각한 결핍은 122%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br/> <br/>영국 피부과학 저널에 최근 발표된(우리의 의료 관료들이 무시한) 연구는 흑색종 발병률의 증가가 지나친 햇빛 노출의 결과가 아니라 이 질병에 대한 대중과 의사들의 인식 증가인 “진찰 추이”의 결과란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인식 증가는 후기 단계보다는 초기 단계에 이 질병을 확인하는 사례의 증가로 이어졌다. <br/> <br/>비타민 D를 생산하는 자외선이 창문을 통과하지 않으나 실내 근로자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사실이, 이 연구 및 저명한 의학저널인 랜싯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의해 발견되었다. 더 많은 햇빛 노출이 실제로 흑색종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유방암, 직장암, 난소암의 발병률을 낮추며 각종 암의 30%가 충분한 자외선 노출로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 다른 많은 세계적 연구에 의해 발견되었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699.txt

제목: 질환별 주의할 과일, 특히 항암치료 중인 암환자들 세균 감염 가능성↑  
날짜: 2014102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210015449648  
본문:   <br/> <br/>질환별 주의할 과일 <br/> <br/> <br/>질환별 주의할 과일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다. <br/> <br/> <br/>당뇨병 환자와 암 환자에게는 모든 과일이 좋지 않다. 특히 당뇨 환자가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 위험하다. <br/> <br/> <br/>이어 암 환자 역시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br/> <br/> <br/>또 제산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오렌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제산제를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알루미늄 성분이 몸에 흡수될 위험이 있다. <br/> <br/> <br/>이어 신장 관련 병을 가진 환자나 심장병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바나나, 오렌지, 수박, 키위 등 칼륨이 많은 과일을 피해야 한다. 이 과일들을 많이 섭취할 경우 칼륨이 갑자기 혈액내로 들어와 근육, 신경 세포가 제도로 작용하지 않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br/> <br/> <br/>또한 고지혈증 환자는 자몽을 피해야 한다. 특히 자몽주스와 중성지방을 낮추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함께 먹으면 약의 혈중 농도가 증가해 중성지방 조절에 장애를 가져온다. 자몽주스는 이 밖에도 항불안제, 부정맥치료제 등의 약물효과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br/> <br/> <br/>질환별 주의할 과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질환별 주의할 과일, 막 먹으면 안되겠네</span>” “<span class='quot0'>질환별 주의할 과일, 처음 안 사실</span>” “<span class='quot0'>질환별 주의할 과일, 필요한 정보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0.txt

제목: 질환별 주의할 과일 "병에 따라 달라"  
날짜: 2014102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210015447400  
본문: 과일은 비타민 그 자체로 불릴 정도로 훌륭한 식품이자 식재료로 병문안을 갈 때 애용된다. 하지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기에 질환별 주의할 과일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br/> <br/>우선 당뇨병 환자와 암 환자에게는 모든 과일은 금물이다. 당뇨 환자가 과일을 과다 섭취할 경우 과당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 음료를 하루 1개 이상 마신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당뇨 위험이 8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암 환자 역시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익히지 않은 음식은 섭취할 수 없다. 익히지 않은 음식에는 과일도 포함된다.  <br/> <br/>이밖에도 콩팥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바나나, 오렌지, 수박, 키위 등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 이들 과일을 과다섭취하다가 칼륨이 갑자기 혈액 내로 들어오면 근육, 신경 세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br/> <br/>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과일은 좋은 음식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질환별 주의해야할 과일이 있다"며 "질환별 주의할 과일을 알아두는 것이 건강한 과일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br/> <br/>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1.txt

제목: 질환별 주의할 과일, 모르고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날짜: 2014102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210015448701  
본문:   <br/> <br/>질환별 주의할 과일 <br/> <br/> <br/>질환별 주의할 과일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됐다. <br/> <br/> <br/>당뇨병 환자와 암 환자에게는 모든 과일이 좋지 않다. 특히 당뇨 환자가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 위험하다. <br/> <br/> <br/>이어 암 환자 역시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br/> <br/> <br/>또 제산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오렌지를 조심해야 한다. 제산제를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알루미늄 성분이 몸에 흡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br/> <br/> <br/>이어 신장 관련 병을 가진 환자나 심장병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바나나, 오렌지, 수박, 키위 등 칼륨이 많은 과일을 피해야 한다. 이 과일들을 많이 섭취할 경우 칼륨이 갑자기 혈액내로 들어와 근육, 신경 세포가 제도로 작용하지 않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br/> <br/> <br/>또한 고지혈증 환자는 자몽을 피해야 한다. 특히 자몽주스와 중성지방을 낮추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함께 먹으면 약의 혈중 농도가 증가해 중성지방 조절에 장애를 가져온다. 자몽주스는 이 밖에도 항불안제, 부정맥치료제 등의 약물효과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br/> <br/> <br/>질환별 주의할 과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질환별 주의할 과일, 조심해서 먹어야지</span>” “<span class='quot0'>질환별 주의할 과일, 난생 처음 알았다</span>” “<span class='quot0'>질환별 주의할 과일, 좋은 정보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2.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스무 살 한국 웹, 사이버 망명 시끌  
날짜: 201410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210015454000  
본문: 지난 17일 세종대에서 한국 웹 20주년 기념 콘퍼런스가 열렸다. 현재 웹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로 꼽히는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한 브렌던 아이크를 비롯해 웹의 탄생과 확산에 기여한 유명한 외국의 손님들이 방문했고, 20년 전 우리나라에 웹을 처음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 <br/> <br/>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미래학우리나라에 웹이 처음으로 공식 소개된 것은 1993년이었고, 1994년에는 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웹 활성화 방안을 자발적으로 연구했다. 당시 카이스트 대학원생이었던 최우형이 이메일로 정보를 주고받는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고, 이 멤버들 중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용운 연구원을 편집인으로 22명의 참여자가 역할을 분담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책이 바로 ‘가자, Web의 세계로!’ 이다. <br/> <br/>이처럼 인터넷은 일반적인 다른 산업과는 달리 경제적 이윤, 도덕적인 당위,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네트워크의 힘으로 구성됐고 발전했다. 그러기에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은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 시각과는 매우 다르다. <br/> <br/>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글로벌 시민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자유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기존의 방식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빅브러더 사이의 긴장관계는 꾸준히 존재해 왔다. <br/> <br/>암호화 기술의 등장은 사실 이런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 및 해커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암호화를 통해 해커들이 자유를 확보하고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난다는 설정은 사이버펑크 공상과학(SF)소설의 단골 테마다. <br/> <br/>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 등에서 주도하는 중앙집중적인 권력과 이런 권력의 제어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네트워크에서의 자유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사람들의 충돌은 미국에서는 멀리는 1993년 국가안보국의 클리퍼 칩 도입이 무산된 사건부터 가깝게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의 사찰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기밀정보를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사건 등 여러 사례가 있었다. <br/> <br/>최근 이런 충돌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오해의 여지가 있든 없든 국가에서 국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로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그 대상이 되면서 뉴스의 중심이 됐다. 그 와중에 암호화와 보안성을 자랑한다는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서비스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카카오톡의 보안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네트워크상에서의 자유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다. 결국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br/> <br/>인터넷은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국가의 관여가 노골화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1월, 영국의 ‘가디언’은 브라질, 독일, 인도 등이 독자 통신망 구축에 나서 인터넷이 지역 단위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중국정부는 인터넷 감시를 위해 수백만명의 인원을 동원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하거나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 우려의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 물론 안보나 확실한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는 법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당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자유를 찾아 떠나는 제2, 제3의 사이버망명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br/> <br/>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미래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3.txt

제목: 세계적 디자이너 드 라 렌타 별세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110015445150  
본문: 세계적인 디자이너 오스카 드 라 렌타(82)가 2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br/> <br/>뉴욕타임스는 그가 미국 코네티컷 자택에서 암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이날 전했다. <br/> <br/>“<span class='quot0'>패션은 여성이 착용해야만 비로소 패션이 된다</span>”고 생각한 그는 여성들이 돋보일 수 있는 우아하고 로맨틱한 의상을 주로 선보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드 라 렌타는 18세 스페인에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1965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재클린의 옷을 만들며 명성을 얻었으며, 낸시 레이건, 로라 부시, 힐러리 클린턴도 그의 옷을 선택했다. 사라 제시카 파커 등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은 드 라 렌타의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 위에 섰다. 2006년 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그는 왕성하게 활동했다. 최근에는 배우 조지 클루니와 결혼한 인권변호사 아말 알라무딘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4.txt

제목: 50대 이상 위암 환자 급증…정신적·신체적 부담감 줄여주는 한방치료  
날짜: 20141021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110015441815  
본문: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위암의 발병률을 높아지고 있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위암으로 진료 받는 환자수는 지난 2009년 약 12만5000명에서 2013년 약 14만6000명으로 16%가 늘어났으며,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특히 성별과 상관 없이 50대 이상 환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70대는 지난 2009년 3만445명에서 2013년 4만43명으로 5년 동안 31.5%(약 1만명)가 증가했다. <br/> <br/>위암은 초기 통증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다.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젊은 층 환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도 가볍게 여기기 쉬워 조기 진단이 어렵다. <br/> <br/>속쓰림과 더불어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위출혈로 대변색이 흑색으로 변한 경우 질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 건강검진과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 <br/> <br/>염분이 많고 절인 음식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자제하고 탄 음식이나 지나치게 방부제가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흡연자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보균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br/> <br/>위암의 치료법으로는 수술· 항암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위암 환자의 대다수가 5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들은 전이와 재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기나 연령· 환자의 체력에 따라 통상적인 양방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br/> <br/>이럴 경우, 한방치료의 병행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열격· 반위· 심적· 복량· 위완통· 심하비’라는 병증을 위암과 유사한 질환이라고 진단해 위암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몸 스스로의 면역력을 높여 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다. <br/> <br/>한약 및 침과 뜸 등의 한방치료를 통해 위암 수술 후의 관리나,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감소와 항암치료 효과의 상승, 재발 방지와 예방에 도움을 준다. <br/> <br/>소람한방병원 김성수 원장은 "한방 치료는 기본적으로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 치료할 수 있다"며 "환자의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극대화하면 암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br/> <br/>소람한방병원에서는 약침 속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성분을 이용해 면역세포를 포함한 정상세포의 재생과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산삼약침치료’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해주는 '온열치료'를 통해 면역력 증강 및 암 치료에 효과를 주고 있다. <br/> <br/>한편 김성수 원장은 음식 섭취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위암 환자를 위한 한방 면역 요법 지침서인 ‘위암, 먹어야 산다’의 작가로 유명한 한의학 박사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5.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암 종류·진행 단계 따라 보장내용 세분화 外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110015444911  
본문: 암 종류·진행 단계 따라 보장내용 세분화 <br/> <br/>LIG손해보험은 최근 암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보장내용을 세분화시킨 ‘내마음 아는 암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암이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재진단암진단비’ 특약 가입 시 만기 시점인 100세까지 암 재발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암진단비를 무한 보장하도록 했다. ‘단계별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하면 암 진행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5000만원 한도 가입 시 1기부터 3기암에 대해 5000만원, 4기암 또는 특정암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한다.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특정소액암도 단계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암 종류도 세분화해 일반암의 경우 최고 7000만원을, 치료비가 많이 드는 10대 고액암에 대해서는 최고 4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br/> <br/>운전자 형사책임·레저활동 위험도 보장 <br/> <br/>롯데손해보험은 미 운전 시에 발생한 사고와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하는 ‘롯데 안전동행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하며, 각종 골절, 탈구, 추간판탈출증, 척추염좌 등 자동차사고로 발생하기 쉬운 부상 시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 자전거 탑승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폭넓게 보장한다. <br/> <br/>동양생명은 고혈압 환자를 위한 종합보장보험인 ‘수호천사고혈압Yes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혈압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큰 뇌출혈·급성심근경색·암 등 3대 질환과 장해·골절·수술 등 재해관련 상해·치료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특약, 암 특약 가입 시 각각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고혈압 환자가 상대적으로 재해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 착안해 재해사망에 대해 일반사망의 2배인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6.txt

제목: '시가 문 체 게바라'로 유명 스위스 사진작가 뷔리 별세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110015445149  
본문: 쿠바 혁명의 주역 체 게바라가 시가를 물고 있는 흑백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스위스의 사진작가 르네 뷔리가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br/> <br/>세계적 보도사진 작가 그룹인 매그넘은 암 투병 중이던 뷔리가 20일(현지시간) 취리히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33년생인 뷔리는 1946년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스위스를 방문해 카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카메라에 담으면서 사진 세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23세에는 농아학교를 찍은 사진 ‘농아를 위한 탄주’가 미국 ‘라이프’지에 실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56년 매그넘에 합류한 뷔리는 체 게바라가 1963년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도중 시가를 피우며 상념에 빠진 듯한 모습을 찍었고, 이 사진은 곧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뷔리는 파블로 피카소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낸 피델 카스트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건축가 르코르뷔지에 등도 자신의 렌즈에 담았다. 중동과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각지를 누빈 그가 남긴 사진 30만장은 스위스 로잔의 엘리제 사진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7.txt

제목: 유방암 환자 대상 '헬스 아바타' 프로그램 첫 선  
날짜: 20141021  
기자: truth@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1100000053  
본문: '헬스 아바타' 프로그램이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서울대병원 유방센터와 서울의대 정보학교실은 21일 환자의 개인별 진료기록을 스마트폰에 담아 향후 진료와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헬스 아바타' 프로그램의 첫 시제품으로 '핑크 아바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전했다.이 프로그램은 서울대병원 유방센터에서 수술받은 유방암 환자들은 본인의 치료요약정보를 병원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둘 수 있고, 이를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환자가 이 앱을 이용해 병원 측에 치료요약정보를 요청하면  수술 당시 유방암의 크기와 위치, 림프선 전이 여부, 방사선·항암 치료 여부, 처방 약물, 바이오마커 유무 등 환자 치료와 관련된 요약정보를 받아 앱에 저장해 둘 수 있다.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응급상황이 생겨 다른 지역에서 병원에 가야 할 때 해당 의료진이 곧바로 앱을 통해 환자의 간단한 병력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환자는 사전에 정보요청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병원측에 보내야 사용이 가능하다. 개발팀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한테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이 앱에는 건강한 여성의 유방암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뿐 아니라 유방암 자가진단, 생리주기 관리 기능,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우울증·뇌졸중 등의 질환 위험도 예측 등의 기능이 담겨 여성들이 건강을 캐어하는데 좀 더 편리해질 듯하다.개발팀은 향후 이 프로그램을 다른 암환자로 확대 및 참여 의료기관도 늘리고, 병원 측으로부터 넘겨받는 치료정보도 구체화할 예정이다.김주한 서울의대 정보학교실 교수는 "개인의 건강기록은 정보주체인 해당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병의원이 이를 관리해왔다"면서 "비록 지금은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자에 국한된 앱이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건강기록을 내려받고 스스로 관리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헬스 아바타 프로그램은 기존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병원 측의 진료기록 제공 없이 환자 스스로 정보를 기록해야 했던 점에서 벗어나 병원과 환자가 개인의료기록을 두고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병원에서 자신의 진료기록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넘겨받아 응급상황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8.txt

제목: 의료계 한 '목소리'…천연물신약 안전성 논란 재점화  
날짜: 2014102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110015443235  
본문: 천연물신약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엔 의료계가 자체조사 결과까지 내놓으면서‘천연물신약은 안전하다’는 정부 입장에 반박한 것이다. <br/> <br/>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동아ST 위염치료제 스티렌 ‘때리기’에도 나섰다. 동아ST는 최근 스티렌정의 급여환수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의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여서 안전성 논란은 자칫 소송결과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br/> <br/>◆벤조피렌 벤치마크용량, 사람이 아닌 '쥐실험' <br/> <br/>21일 대한의원협회가 일본 스미카분석센터에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인 동아ST 스티렌정과 SK케미칼 조인스정, 녹십자 신바로캡슐은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최대 19ppb,  21ppb로 검출됐다.  대한의원협회가 일본 스미카분석센터에 의뢰한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분석결과 표/ 대한의원협회 제공 <br/> <br/>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식품 중 벤조피렌 1일 섭취안전용량(Virtual Safe Dose, VSD)을 0.5 ng/kg/day로 규정한 상태. 하지만 의원협회는 1일 3회 복용하는 스티렌정만으로도 하루에 18 ng을 섭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br/> <br/>또 의원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로 삼은  WHO 동물실험 벤치마크용량은 실험쥐의 결과인데, 식약처는 마치 사람의 1일 섭취허용량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즉 쥐를 통한 결과물을 마치 사람의 1일 섭취용량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br/> <br/>이에 의원협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들을 모두 판매중지 시키고 허가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 <br/>◆전의총, ‘스티렌 소송’ 건보공단 지원사격 나서 <br/> <br/>여기에 전국의사총연합은 건보공단 스티렌 소송지원에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20일 오후 동아ST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스티렌 벤조피렌 검출관련 자료를 건보공단 법무팀에게 제공했다. <br/> <br/>전의총 정성일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span class='quot0'>해외에서는 약에서 벤조피렌이 나온 적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애초에 천연물신약이라는 유래가 없는 약을 만들고 이를 식품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span>”라고 말했다. <br/> <br/>이어 “법리적으로는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안된 것에 대한 소송이지만 천연물신약이기 때문에 위약하고의 대조군 실험이 늦어졌고 발암물질이 나온 것”이라며 “따라서 재판부가 천연물신약이라고 넓게 본다면 벤조피렌은 이번 재판하고 관계가 있다”며 소송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br/> <br/>또 전의총은 벤조피렌 검출 외 스티렌에 대한 또 다른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팀 관계자가 전국의사총연합회가 전달한 스티렌 안전성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br/> <br/>정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천연물신약은 특정 성분을 농축해서 가열하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해물질이)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건보공단 측은 스티렌 벤조피렌 검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br/> <br/>◆한의협 “천연물신약, 팜피아 산물” <br/> <br/>한의계도 같은 시기 천연물신약의 허가과정을 문제 삼으며 보건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br/> <br/>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span class='quot1'>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사업이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분노하며, 현행 천연물신약 사태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촉구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 국감에서 1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이 현재 수출도 못하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해 일부 제약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br/> <br/>한의협은 또 “<span class='quot2'>천연물신약 사업은 식약처 내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검은 커넥션이 만든 팜피아의 작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관련 고시내용을 수차례 변질·왜곡시킨 식약처의 잘못으로 인해 촉발 됐고 그 책임 역시 식약처에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로 인해 한의협은 76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건보적용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09.txt

제목: '나의 독재자' 박해일 "내 아버지 실제 암 판정 받으셨었다"  
날짜: 2014102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010015434865  
본문:   <br/> <br/>배우 박해일이 실제 자신의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던 당시를 언급했다. <br/> <br/>10월 20일 서울 광진구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진행한 영화 '나의 독재자'(감독 이해준)의 언론 시사회에는 이해준 감독을 비롯해 배우 설경구, 박해일, 윤제문, 이병준, 류혜영 등이 참석했다. <br/> <br/>이날 박해일은 실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촬영이 끝나고 나서 추억이라기보다는 인상적인 기억이 있다"며 "영화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었는데 실제 내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br/> <br/>박해일은 "그래서 영화인지 현실인지 잠깐 헷갈렸다"며 "수술 후 얼굴이 반쪽이 되신 모습을 보고 기분이 묘했다. 다행히 지금은 회복을 하셔서 티켓을 끊고 영화를 보여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해 안도감을 내쉬게 했다. <br/> <br/>한편 '나의 독재자'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리허설을 위해 김일성의 대역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기미한 작품으로 대한민국 한복판, 자신을 굳게 믿는 남자와 그런 아버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아들의 이야기다. 설경구, 박해일, 윤제문, 이병준, 류혜영 등 출연. 오는 30일 개봉 예정.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0.txt

제목: 한국메나리니, 앱스트랄 설하정 출시  
날짜: 2014102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010015431138  
본문: 한국메나리니가 돌발성 암성 통증 치료제 앱스트랄(성분명: 펜타닐시트르산염) 설하정을 최근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함께 본격 출시했다. <br/> <br/>20일 한국메나리니에 따르면 앱스트랄은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내약성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성인 암 환자’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br/> <br/>앱스트랄 설하정은 펜타닐 제제로써 혀 밑에 넣어 녹여 사용한다. 1분 이내에 용해되고, 10분 이내 빠른 효과 발현으로 돌발성 암성 통증에 대해 이상적인 치료제의 조건을 갖춰 환자 선호도가 높다.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 맞춤 치료가 가능하도록 100μg부터 400μg까지 다양한 용량을 갖추고 있다. <br/> <br/>한국메나리니 알버트김 사장은 “<span class='quot0'>앱스트랄의 복용 편리성과 빠른 진통 효과가 돌발성 암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국내 환자에게 의미 있는 치료 옵션이 될 것을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돌발성 암성 통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앱스트랄은 유럽에서 돌발성 암성 통증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 약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1.txt

제목: 동탄성심병원, 핑크리본 유방암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4102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2010015434262  
본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유방내분비외과는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4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유(乳)비무환-핑크리본 캠페인’을 슬로건으로 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 <br/>매년 10월은 한국유방암학회가 정한 ‘유방암 예방의 달’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해 이번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br/> <br/>강좌에서는 ▲유방암 왜 생길까요?(외과 강희준 교수) ▲유방암의 치료(외과 임영아 교수) ▲유방암 환자를 위한 지원(사회사업팀 이송월) ▲유방암 환자의 영양(영양팀 이영란)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 및 행운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br/> <br/>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외과 강희준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에는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유방조직 전체를 제거했지만 최근에는 암의 범위를 정확히 평가한 뒤 최소범위만 절제해 예후가 좋은 대표적인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평소 관심을 기울이면 유방암을 예방하고 완치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2.txt

제목: [건강 단신] 팔기능 장애환자 로봇재활기로 운동 치료 外  
날짜: 2014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910015427437  
본문: 팔기능 장애환자 로봇재활기로 운동 치료 <br/> <br/>세브란스재활병원(원장 신지철·사진)은 팔 기능에 장애가 생긴 환자를 위한 로봇 재활치료기를 도입해 치료에 들어갔다. 뇌졸중, 뇌손상, 척추손상 등으로 어깨 관절과 팔꿈치, 손목 등 근육이 마비된 환자들은 로봇 팔을 장착하고 운동 치료를 받게 된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이 가상의 3차원 화면을 보며 팔과 어깨 운동을 따라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span>”고 소개했다. 1599-1004 <br/> <br/>한국인 유방암 발생률 동아시아 1위 기록 <br/> <br/>2008년 인구 10만명당 38.9명꼴이던 한국인 유방암 발생률이 2012년 52.1명으로 증가해 사상 처음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송병주)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한국 유방암 백서’를 최근 발표했다. 백서는 “한국은 이제 서구 선진국과 함께 유방암 고위험 국가”라며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02)3461-6060 <br/> <br/>‘허리·무릎·어깨 되살리기’ 주제 건강강좌 <br/> <br/>바른세상병원은 23일 오후 6시30분 경기 성남 NC백화점 6층 소극장에서 ‘내 몸의 기둥-허리, 무릎, 어깨 되살리기’란 제목의 건강 강좌를 연다. 이 병원 서동원(재활의학과) 대표원장, 이승철(신경외과) 척추센터장, 이원희(정형외과) 원장 3명이 강사로 나서 허리, 무릎, 어깨의 건강한 관리에 관해 설명한다. 참가 희망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1577-3175 <br/> <br/>전립선 질환·비뇨기암 최신 치료법 소개 <br/> <br/>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30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전립선 질환과 비뇨기암의 최신 치료’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 강좌를 연다. 비뇨기과 정인갑, 송채린 교수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전립선 질환의 최신 치료법, 로봇을 활용한 비뇨기암의 첨단 수술법 등을 설명한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전립선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02)3010-3051∼4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3.txt

제목: NH농협생명, 모바일앱 가입고객 10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날짜: 20141019  
기자: hemked@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9100000022  
본문: NH농협생명(대표이사 나동민, www.nhlife.co.kr)이 모바일앱 가입고객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11월 14일까지 '모바일 상품 안내장 SNS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 NH농협생명 모바일앱 가입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이벤트는 지난 15일 새롭게 출시된 「하나로NH3대질병보험(갱신형/무배당)」을 비롯한 NH농협생명의 보장성 상품(종신/정기/건강/암) 안내장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간단히 참여할 수 있다.친구 10명에게 추천한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5000포인트를, 그 이상 추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10만포인트를 지급하며, 지급된 포인트는 농협a마켓(www.nhamarket.co.kr)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10월 신보험시스템과 함께 오픈된 NH농협생명 모바일 창구에서 고객들은 보험계약조회, 대출서비스 신청,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지급신청 등의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대출서비스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한 모바일 창구의 장점으로 인해, 전체 채널의 월평균 이용 증가율 5.4%에 훨씬 웃도는 22%를 기록하고 있다. (이용 금액 기준)NH농협생명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다.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4.txt

제목: “고리원전 암 발병 영향” 법원 첫 인정  
날짜: 2014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710015422709  
본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br/> <br/>이번 판결은 정부의 원전 운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웃 일본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br/> <br/>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박모(48·여)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pan class='quot0'>한수원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span>”며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r/> <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span>”고 밝혔다. <br/> <br/>박씨는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50)씨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 이씨와 아들은 청구소송에서 빠졌다. <br/> <br/>박씨 가족은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원전 반경 5㎞ 안에서 생활했다. <br/> <br/>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span class='quot2'>그동안 한수원 사업장 내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원전 사업장 외부의 일반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향후 원전과 각종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소송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span class='quot3'>갑상선암의 경우 최근 검사기술 발달로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가 원전 가동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3'>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전지역 주민의 암 발생과 원전 간에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5.txt

제목: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  
날짜: 20141017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710015421381  
본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법원이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br/> <br/>이번 판결은 정부의 원전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웃 일본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br/> <br/>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박모(48·여)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span class='quot0'>한수원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span>”며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r/> <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span>”고 밝혔다. <br/> <br/>박씨는 지난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50) 씨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 이씨와 아들은 청구 소송에서 빠졌다. <br/> <br/>박씨 가족은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원전에서 반경 5㎞ 안에서 생활했다. <br/> <br/>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span class='quot2'>그동안 한수원 사업장 내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원전 사업장 외부의 일반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span>”며 “<span class='quot2'>향후 원전과 각종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소송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span>”고 말했다. <br/> <br/>또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span class='quot3'>이번 판결은 원전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이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span class='quot4'>갑상선암의 경우 최근 검사기술 발달로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가 원전 가동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원인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4'>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전지역 주민의 암 발생과 원전 간에 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6.txt

제목: 北 김정은 위원장 받았다는 '위밴드 수술'이란?  
날짜: 2014101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710015420955  
본문: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도비만 해결을 위해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17일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비만클리닉 이상권(사진) 교수에 따르면 위밴드 수술은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위밴드’라고 불리는 장치를 채워 위장의 음식이 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다. 위소매절제술·위우회술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3대 비만대사수술 가운데 하나다. <br/> <br/>위밴드 수술은 개복해서 위를 직접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과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위밴드라고 불리는 장치를 채워 위장의 음식이 덜 내려가게 한다. 식사량은 밴드 내에 있는 풍선을 부풀여 조절한다. <br/> <br/>이 수술을 받으면 한끼 먹는 양이 밥과 반찬 모두 합쳐도 종이컵 하나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초과된 체중의 45%에서 80%까지의 체중감량을 이룰 수 있다. 또 비만 관련 합병증이 대부분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구멍 몇 군데를 통해 수술을 하는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상처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br/> <br/>문제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도비만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했다는 점이다. 고도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계질환, 수면무호흡증, 관절염,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의 직·간접적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비만과 관련된 사망률은 18.2%나 된다. 따라서 고도비만 환자와 가족들은 비만을 단순히 ‘미용’의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되고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비만수술은 체중감량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 대사를 변화시켜 건강을 되찾도록 유도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음식 조절이 이전보다 쉽게 된다는 것이지 수술 자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하고, 안 좋은 생활습관도 교정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7.txt

제목: 암 발병 시 다가오는 경제적 고통, 암보험으로 걱정 던다  
날짜: 20141016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610015412193  
본문: 세상에는 많은 질병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을 꼽을 수 있다. <br/> <br/>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암으로 고통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br/> <br/>예전과 달리 암 발견이 빨라지고 완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불규칙한 생활습관· 비만·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의 각종 원인으로 암 발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거기다 요즘은 죽음에 대한 걱정보다 암 치료 시 발생되는 고액의 암 치료비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br/> <br/>고액의 암 치료비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암 보험 추천 상품으로 경제적 대비를 해야 한다. <br/> <br/>암 보험은 크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비교가입 할 수 있다. 갱신형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일정기간마다 보험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다. 비갱신형은 갱신형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좀 더 높지만 처음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에서 변동이 되지 않는다. <br/> <br/>그래서 장기간 유지하고 납입해야 하는 보험 특성상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유리할 수 있다. 단,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형이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가입이 중요하다. <br/> <br/>그리고 어린이· 노인·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암 보험 상품의 암 진단금을 비교해야 한다. 암 발생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보장금액 및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br/> <br/>특히나 남녀에게 자주 발생되는 암에 대한 보장이 크고 넓은 지를 봐야 하며 암 보험 보장금액이 클수록 치료비용 외에 생활비나 기타 요양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br/> <br/>아울러 암은 어릴 때 준비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하며 연령이나· 병력· 직업·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강할 때 암 보험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져 보장기간을 가능한 길게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br/> <br/>암 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개시일이 정해져있고 보험사에 따라 1년~2년이 지나야 완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상품마다 장단점이 달라 암 보험 가입 순위 가격비교를 통해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br/> <br/>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암 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8.txt

제목: 24회 분쉬의학상 본상에 김효수 서울대 교수  
날짜: 2014101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610015413032  
본문: 왼쪽부터 김효수 서울대 교수, 윤승용 울산대 교수, 김찬 연세대 강사.제24회 분쉬의학상 본상에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 젊은 의학자상 기초 부분에 울산대 의대 윤승용 교수, 젊은 의학자상 임상 부문에 연세대 의대 김찬 강사가 각각 선정됐다. 구한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독일인 의사 리하르트 분쉬의 이름을 딴 분쉬의학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상이다. <br/> <br/>본상 수상자인 김 교수는 ‘사이토카인-줄기세포 요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하고 장기간의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줄기세포 분야 권위자다. ‘사이토카인-줄기세포 요법’은 세포간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이용해 환자로부터 고통 없이 세포를 채취하여 심혈관질환 치료에 응용하는 요법이다.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가 있는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협심증 심근경색증 대사증후군 환자를 위한 혁신적 치료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성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젊은 의학자상 기초 부문 수상자인 윤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대표 병리물질 중 하나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신경해부학적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전파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베타-아밀로이드의 전파 양상을 비교 관찰한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 전략을 발견했다. 이는 임상신경학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br/> <br/>젊은 의학자상 임상 부문 수상자인 김 강사는 암 혈관에서만 발현되는 로제이 단백질이 암 조직에서 혈관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항암제 및 암혈관 표적 치료제와 병합, 새로운 암혈관 신생 조절 치료 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로제이 단백질의 선택적 차단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이번 연구는 암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br/> <br/>분쉬의학상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더크 밴 니커크)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젊은 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각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19.txt

제목: 폐암의 한방치료, 종양 치료까지 가능한가  
날짜: 20141016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610015413669  
본문: 최근 한방치료가 부작용이나 통증 완화 등 보완적 요법으로 인식되면서 폐암 치료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br/> <br/>폐암의 증상은 폐에 있는 종양의 증식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폐의 종양이 자라면서 폐의 용적을 줄어들게 해 숨참· 기침· 가래 등이 나타나게 되고, 폐의 혈관들을 침범하면서 객혈이 나타난다. 늑막에 종양의 침범 등으로 악성 흉수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게 된다. <br/> <br/>이런 폐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뼈나 뇌로 쉽게 전이되며 생명과 직결되는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br/> <br/>폐암 증상의 치료는 근본적으로 숨참· 기침· 가래· 객혈· 흉수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종양 크기의 감소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수술 요법 등이 사용된다. <br/> <br/>종양의 효과 있는 감축을 위해 현재로써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마다 개인차는 있으나 대부분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다양한 부작용들을 일으킨다. 때문에 최근 면역력을 키워주는 한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방치료, 종양 치료도 가능한가? <br/>국제 학술지인 'Case Report in Oncology'에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원발성 폐암과 방광에서 전이된 전이성 폐암 환자의 한방단독치료 케이스가 게재됐다. <br/> <br/>원발성 폐암 환자는 79세 남자 환자로, 지난 2012년 12월 비소세포성 폐암(편평세포암) 췌장 전이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고령임을 감안해 항암 화학요법을 강력하게 거부해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2개월 후인 2013년 2월 CT 검사에서 종양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그때부터 한방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2개월 후인 지난 2013년 4월에 종양의 크기가 최장 길이 5.4cm에서 1.7cm으로 줄어들었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한방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다시 2개월 후인 지난 2013년 6월 검사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최장 길이 1.7cm에서 1.1cm으로 줄었고 췌장에 있었던 전이성 병변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다시 한방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2개월 후인 지난 2013년 8월 검사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1.1cm으로 변함 없었고 종양이 퇴축된 상태로 기침· 가래 등의 증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됐다. <br/> <br/>전이성 폐암 환자는 74세 남자 환자로, 지난 2013년 8월 방광암 다발성 폐전이 진단을 받고 방광 적출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 환자 스스로 항암 화학요법을 강력하게 거부해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있다가 기침· 가래· 숨참· 객혈 증상 때문에 지난 2014년 1월부터 한방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br/> <br/>한방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의 개선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고 2개월 이후 찍은 지난 3월 X-ray 검사에서 종양의 크기 및 개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양이 진행됐지만 환자가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의료진의 설득으로 좀 더 치료받기로 해서 처방을 변경해 치료를 시행했고 1개월 이후인 지난 4월 X-ray 검사 상 종양의 크기 및 개수가 감소했다. <br/> <br/>환자의 증상은 기침· 가래는 남아 있지만 객혈이 사라졌다. 이후 1개월 치료를 더 지속했고 지난 5월 X-ray 검사 상 종양의 크기 및 개수가 확연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침· 가래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br/> <br/>▶폐암 환자를 위한 조언은? <br/>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환자의 신체 상태에서 득과 실을 따져서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병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몸 상태가 독성이 강한 치료를 이겨내기 힘들 때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가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한방 치료가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보완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한방 치료가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br/> <br/>소람한방병원 이동현 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0.txt

제목: 암 예방하려면?…WHO 국제암연구소, 암 예방 지침 발표  
날짜: 20141015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510015406296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암 전문가들이 12개 항암 지침을 발표했다. <br/> <br/>14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빌레방송에 따르면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항암 지침에는 금연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됐다. 집안을 금연구역으로 만들고 직장의 금연 조치를 지지하라는 것이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600만명이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60만명에 달한다. <br/> <br/>연구소는 술을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평소 체력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연구소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만들기 위한 (운동 같은) 행동에 나서는 동시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라고 조언했다. 어린이의 경우 햇빛을 과다하게 쬐지 마라고도 했다. <br/> <br/>이어 여성의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한편 특정 암의 발병률을 더욱 높이는 호르몬 대체요법(HRT)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신생아는 B형 간염 백신을, 여아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주사를 반드시 맞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정기적인 암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남녀 모두 장암 검진을,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조언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건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 발암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덧붙였다. <br/> <br/>이번 조사를 이끈 조아킴 슈에즈 IARC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지침이 암 예방을 위한 개인적 행동 변화에 대한 모든 권고사항을 담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발병을 절반까지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1.txt

제목: 국립암센터, ‘유방암 10년 극복 환자 격려식’ 개최  
날짜: 201410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510015404180  
본문: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는 15일 오후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국립암센터 유방암 10년 극복 환자 격려식’을 개최하고 유방암 환자 및 보호자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br/> <br/>이날 격려식에는 유방암 극복에 대한 토크쇼와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가 직접 제작한 영화 ‘남남이 되다’ 상영 등을 통해 유방암을 극복한 환우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br/> <br/>영화 ‘남남이 되다’는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 의료진, 간호사들이 영화 시나리오 구성, 촬영, 연기하고 모든 부분에 직접 참여, 제작한 영화이다. <br/> <br/>이은숙 연구소장(유방암센터)은 “<span class='quot0'>유방암은 과거에 비해 조기 진단으로 발견된 경우가 많아졌고 생존율도 높아졌지만, 여성만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이 따르게 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반적인 암들은 치료의 성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5년 생존율을 평가하지만, 유방암의 경우 치료의 성적이 매우 훌륭해 5년 생존율이 91.3%에 달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환자에게 10년이라는 기간은 질병을 극복함과 동시에 향후 삶의 질에 대해서도 계획하는 의미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span class='quot1'>유방암을 극복한 분들을 축하 격려하며, 암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국립암센터의 가장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 주길 부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근석 유방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2'>현재의 유방암 치료는 수술할 수 없는 진행성 유방암인 경우에도 항암치료와 표적치료를 통해 장기생존이 가능함을 보여주어 암은 극복할 수 있는 만성병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유방암 환우회 자조모임 민들레회의 이순우 회장은 “<span class='quot3'>유방암을 이겨낸 우리 환우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암을 같이 극복하는 과정이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었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2.txt

제목: [재테크 특집] 중대질병·간병 평생 보장… 생활자금도 지급  
날짜: 2014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510015400292  
본문: 교보생명의 ‘멀티플랜교보통합CI보험’은 사망보장과 중대질병(CI), 장기간병(LTC)까지 평생 보장하는 전천후 보험이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CI보험·장기간병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CI나 LTC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함께 매월 가족생활자금까지 수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br/> <br/> 교보생명이 판매하는 ‘멀티플랜교보통합CI보험’은 사망 보장은 물론 중대질병(CI), 장기간병(LTC)까지 보장한다. <br/>교보생명 제공예를 들어 주계약 1억원에 보험 가입 시 경제활동기에 CI나 LTC가 발병하면 일시금으로 5000만원의 진단보험금을 받고, 가족생활자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3년간 받을 수 있다. <br/> <br/>CI나 LTC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들고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이때 고액의 치료비는 물론 가장의 소득 상실에 따른 생활비까지 지원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도록 한 것이다. <br/> <br/>또 아프지 않고 은퇴하면 은퇴시점부터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건강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후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 하나로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3명 등 총 5명까지 CI, 입원비, 실손의료비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또 CI보장특약 가입 시 중대한 암 등 다른 CI가 재발해도 한 번 더 보장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br/> <br/>교보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평균수명 증가로 ‘유병장수’ 시대가 다가오면서 치료비는 물론 생활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3.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20일 '부인암 환자의 날' 행사 개최  
날짜: 2014101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510015402765  
본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부인암센터(센터장 김병기·사진)는 20일 오후 2시 암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부인암 환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br/> <br/>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부인암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투병 의지를 독려하고 희망을 나누면서 부인암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태중 산부인과 교수가 ‘부인암의 수술 치료’ 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어 ▲부인암 환자의 식생활(김현정 영양사) ▲부인암의 약물치료 및 임상시험의 의미(이유영 산부인과 교수) ▲암환자의 스트레스 관리(조의리 사회복지사) 등이 이어진다. <br/> <br/>유방암 동호회 ‘산샘’의 특별공연 등 문화행사도 곁들인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부인암센터 김병기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부인암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평소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부인암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인암센타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2)3410-2246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4.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변기에 고인 핏물 '나 어떡해'  
날짜: 2014101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510015405387  
본문: #1.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을 혹사한 직장인 김모(33)씨는 지난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변기에 고인 핏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한 변비를 앓을 때 화장지에 조금씩 핏방울이 묻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변기 한 가득 새빨간 핏물이 고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장암이나 직장암 등 무시무시한 질병의 이름이 머리를 스쳐 갔다. 김씨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 <br/> <br/>#2. 치질 초기 환자인 직장인 이모(38)씨는 용변 뒤 항문을 세척하는 기구인 ‘비데’(bidet) 사용 시 늘 불안하다. 치질에 좌욕이 좋다는 말에 집에서는 물론 사무실에서도 비데가 설치된 곳에서만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언제부턴가 비데 수압을 가장 낮게 조절해도 통증과 출혈이 동반됐다. 병원을 찾은 이씨는 치질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비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br/> <br/>#3. 주부 박모(43)씨는 셋째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치질이 생겼다. 처음엔 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왔지만 통증이 없는 데다 진료받기가 부끄러워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사용했다. 약을 쓸 때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 걸을 때도 앉을 때도 통증을 느낀다. <br/> <br/>이 같은 사례처럼 용변을 볼 때 출혈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가 ‘치질’이라고 부르는 ‘치핵’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의 징후일 수도 있다. 대변을 볼 때만 피가 나고 금방 멈춘다며 항문 출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장과 직접 연결된 항문은 장 건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평소 항문 건강만 잘 체크해도 대장 질환을 방치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br/> <br/>◆ 항문 출혈, 대수롭지 않게 넘겨선 안돼 <br/> <br/>특히 항문 주위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항문소양증이 유발된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항문을 과도하게 긁게 되면 2차적인 피부 손상도 일어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40∼50대에 흔하다. 여름철과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br/> <br/>항문소양증은 다른 질환의 2차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속발성 소양증과 다른 질환과 연계되지 않은 특발성 소양증으로 나뉘는데 특발성 소양증이 대부분이다. 특발성 소양증은 대개 ▲술이 ▲커피 ▲스트레스 ▲과도한 항문 청결 습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청결하지 못한 항문도 소양증을 유발한다. <br/> <br/>대변에는 리소자임이라는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배변 후 제대로 뒤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물질이 항문을 자극한다. 비누 역시 알칼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속발성 소양증은 치루와 치열·치핵과 같은 항문질환이 원인으로, 이런 질환이 있으면 항문 내 분비물이 항문 주위에 묻어 자극과 염증을 일으킨다. <br/> <br/>◆ 치질 심해지면 항문 조직 손으로 밀어 넣어야 <br/> <br/>치질은 항문 내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이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치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치핵은 변비 등으로 인해 변기에 오래 앉아 무리하게 힘을 주는 잘못된 배변 습관이 주요 원인이다. 배변 때 통증이나 출혈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빠진 항문 조직을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할 정도가 된다. <br/> <br/>땀이나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해 치질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밖으로 빠져 나온 항문 조직(치핵)에서 새어 나온 분비물과 땀이 섞여 양이 많아지고 악취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br/> <br/>◆ 시원한 맥주, 치질 환자에게 '毒' <br/> <br/>보통 갈증을 잊기 위해 마시는 시원한 맥주는 치질 환자에게 독약과 같다. 맥주를 많이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 압력이 높아져 치핵뿐 아니라 항문 주변조직도 함께 부어 오르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 상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설사 역시 치질을 악화시킨다. <br/> <br/>항문 농양은 항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 곪은 상태로, 심하면 안쪽에서 농양이 터져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이 상태가 만성화되면 항문 안쪽과 바깥쪽에 고름터널(누관)이 생기는 치루로 발전한다. 치루를 오래 놔두면 고름이 주위 조직으로 퍼지게 되어 단순 치루였던 것이 누관이 여러 개 생기는 복잡형 치루로 발전해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루의 경우 10년 이상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름철에는 세균 증식이 왕성해져 치루 증상이 더 심해진다. <br/> <br/>◆ 항문 주변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 <br/> <br/>항문소양증 치료를 위해서는 항문 주위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꽉 끼고 땀 흡수가 잘 안 되는 바지는 피하고, 헐렁한 옷을 입으면 항문 주위 혈액순환과 통풍이 잘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치질도 좌욕을 하면 항문이 청결해지고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이 잘돼 증상이 완화된다. <br/> <br/>한편, 코웨이는 서울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와 공동연구를 통해 좌욕 기능을 탑재한 '클리닉비데'를 15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좌욕 전용 수류(물줄기)'를 적용해 비데를 쓰면서 좌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좌욕 수류는 두 개의 물줄기가 한 점으로 분사돼 수류의 힘이 상쇄되고, 이를 통해 항문 내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br/> <br/>좌욕 수류를 연구한 박규주 서울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코웨이와 공동으로 좌욕 수류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실시했으며 좌욕 수류를 이용할 경우 휴식기 항문 내압이 일반 좌욕기를 사용할 때와 유사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좌욕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좌욕기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항문질환 예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5.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변기에 고인 핏물 '나 어떡해'  
날짜: 2014101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510016316172  
본문: #1.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을 혹사한 직장인 김모(33)씨는 지난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변기에 고인 핏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한 변비를 앓을 때 화장지에 조금씩 핏방울이 묻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변기 한 가득 새빨간 핏물이 고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장암이나 직장암 등 무시무시한 질병의 이름이 머리를 스쳐 갔다. 김씨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 <br/> <br/>#2. 치질 초기 환자인 직장인 이모(38)씨는 용변 뒤 항문을 세척하는 기구인 ‘비데’(bidet) 사용 시 늘 불안하다. 치질에 좌욕이 좋다는 말에 집에서는 물론 사무실에서도 비데가 설치된 곳에서만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언제부턴가 비데 수압을 가장 낮게 조절해도 통증과 출혈이 동반됐다. 병원을 찾은 이씨는 치질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비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br/> <br/>#3. 주부 박모(43)씨는 셋째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치질이 생겼다. 처음엔 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왔지만 통증이 없는 데다 진료받기가 부끄러워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사용했다. 약을 쓸 때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 걸을 때도 앉을 때도 통증을 느낀다. <br/> <br/>이 같은 사례처럼 용변을 볼 때 출혈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가 ‘치질’이라고 부르는 ‘치핵’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의 징후일 수도 있다. 대변을 볼 때만 피가 나고 금방 멈춘다며 항문 출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장과 직접 연결된 항문은 장 건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평소 항문 건강만 잘 체크해도 대장 질환을 방치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br/> <br/>◆ 항문 출혈, 대수롭지 않게 넘겨선 안돼 <br/> <br/>특히 항문 주위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항문소양증이 유발된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항문을 과도하게 긁게 되면 2차적인 피부 손상도 일어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40∼50대에 흔하다. 여름철과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br/> <br/>항문소양증은 다른 질환의 2차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속발성 소양증과 다른 질환과 연계되지 않은 특발성 소양증으로 나뉘는데 특발성 소양증이 대부분이다. 특발성 소양증은 대개 ▲술이 ▲커피 ▲스트레스 ▲과도한 항문 청결 습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청결하지 못한 항문도 소양증을 유발한다. <br/> <br/>대변에는 리소자임이라는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배변 후 제대로 뒤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물질이 항문을 자극한다. 비누 역시 알칼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속발성 소양증은 치루와 치열·치핵과 같은 항문질환이 원인으로, 이런 질환이 있으면 항문 내 분비물이 항문 주위에 묻어 자극과 염증을 일으킨다. <br/> <br/>◆ 치질 심해지면 항문 조직 손으로 밀어 넣어야 <br/> <br/>치질은 항문 내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이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치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치핵은 변비 등으로 인해 변기에 오래 앉아 무리하게 힘을 주는 잘못된 배변 습관이 주요 원인이다. 배변 때 통증이나 출혈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빠진 항문 조직을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할 정도가 된다. <br/> <br/>땀이나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해 치질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밖으로 빠져 나온 항문 조직(치핵)에서 새어 나온 분비물과 땀이 섞여 양이 많아지고 악취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br/> <br/>◆ 시원한 맥주, 치질 환자에게 '毒' <br/> <br/>보통 갈증을 잊기 위해 마시는 시원한 맥주는 치질 환자에게 독약과 같다. 맥주를 많이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 압력이 높아져 치핵뿐 아니라 항문 주변조직도 함께 부어 오르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 상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설사 역시 치질을 악화시킨다. <br/> <br/>항문 농양은 항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 곪은 상태로, 심하면 안쪽에서 농양이 터져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이 상태가 만성화되면 항문 안쪽과 바깥쪽에 고름터널(누관)이 생기는 치루로 발전한다. 치루를 오래 놔두면 고름이 주위 조직으로 퍼지게 되어 단순 치루였던 것이 누관이 여러 개 생기는 복잡형 치루로 발전해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루의 경우 10년 이상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름철에는 세균 증식이 왕성해져 치루 증상이 더 심해진다. <br/> <br/>◆ 항문 주변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 <br/> <br/>항문소양증 치료를 위해서는 항문 주위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꽉 끼고 땀 흡수가 잘 안 되는 바지는 피하고, 헐렁한 옷을 입으면 항문 주위 혈액순환과 통풍이 잘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치질도 좌욕을 하면 항문이 청결해지고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이 잘돼 증상이 완화된다. <br/> <br/>한편, 코웨이는 서울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와 공동연구를 통해 좌욕 기능을 탑재한 '클리닉비데'를 15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좌욕 전용 수류(물줄기)'를 적용해 비데를 쓰면서 좌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좌욕 수류는 두 개의 물줄기가 한 점으로 분사돼 수류의 힘이 상쇄되고, 이를 통해 항문 내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br/> <br/>좌욕 수류를 연구한 박규주 서울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코웨이와 공동으로 좌욕 수류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실시했으며 좌욕 수류를 이용할 경우 휴식기 항문 내압이 일반 좌욕기를 사용할 때와 유사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좌욕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좌욕기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항문질환 예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6.txt

제목: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불국사에서 부부관계 치유하기  
날짜: 20141014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410015395274  
본문:   <br/> <br/>힐링도시 경북 경주에서 제3기 힐링캠프가 열렸다. <br/> <br/>14일 경주시에 따르면 13일∼14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3기 힐링캠프는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굴암에 결혼, 이혼, 재혼의 여러 가지 모습의 부부들이 모여 힐링 캠프구성원이 되었다. 힐링캠프는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 경주에서 곳곳에 있는 힐링의 자원들을 갖고 부부관계를 짚어보며, 갈등과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이번 힐링캠프에는 치유를 원하는 부부참가자 10쌍이 참가하고, 힐리언스선마을의 진용일 교수,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명상지도를 하고 있는 조수희 교수, 가족사랑클리닉 김미화 원장이 힐링캠프를 이끌었다. <br/> <br/>진용일 힐리언스선마을 원장은 명상전문가로 화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명상을 부부들에게 전파했다. 힐링캠프 참가자는 명상에 집중하며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나 자신을 느끼고, 현재의 내가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며, 스트레스를 밖으로 발산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br/> <br/>조수희 교수의 춤명상은 부부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엔 머뭇거리고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프로그램 중반부터는 눈물, 분노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br/> <br/>힐링캠프 둘째날은 부부마음다지기 부부치료로 이어졌다. ‘어떻게 하면 백세 동안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주제로 유대감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부부 대화법을 소개하고, 부부의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br/> <br/>1박 2일의 힐링캠프에 참가한 부부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캠프에 참여한 정해란씨 부부는 “<span class='quot0'>처음엔 손도 제대로 잡지못했는데, 이제 다정하게 두 손을 꼭 잡으며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불만과 원망이 그동안은 쌓이고, 치유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모두 내려놓고, 치유방법을 아니 후련하고 평생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br/> <br/>힐링캠프는 현대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 소통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가족문제, 부부문제, 내면갈등 등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에는 암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9월에는 주부우울증과 화병을 주제로 캠프가 진행됐다.  시는 지속적으로 힐링캠프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마련해 힐링 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r/> <br/>김미경 소장은 “<span class='quot1'>신라인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경주에는 편안함이 흐르고 역사와 문화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경주가 치유의 도시, 다시 오고 싶은 힐링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7.txt

제목: “신선하고 질 높은 국산 우유, 우수성 널리 알릴 것”  
날짜: 20141014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410015390916  
본문:   <br/> <br/> <br/>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젖소가 매일 생산하는 우유의 양은 30kg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우유 및 유제품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보관을 위해 분유 형태로 저장한다. <br/> <br/>최근에는 이러한 국내 우유 재고량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유값 인상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즈, 요구르트, 가공유 등 유제품의 원료가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br/> <br/>실제로 올해 유제품 수입량은 최대 17% 이상 증가해, 낙농선진국과의 직접적인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국내 낙농업체의 어려움과 함께 식량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br/> <br/>지난 8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이상기 사무국장을 찾아 우유의 필요성과 국내 낙농업의 현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br/> <br/>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br/> <br/>-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br/> <br/>“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인 우유의 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됐다. 지난 1999년부터 2005년 까지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고, 더 폭넓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월 일을 기점으로 우유자조금 거출을 시작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생산농가의 피와 땀이 담긴 자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낙농산업의 발전과 낙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우유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해 낙농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국산 우유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TV광고, 방송 PPL, 온·오프라인 홍보, 도심 속 목장나들이, 주부 우유 요리 교실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br/> <br/>-소비자들에게 우유의 장점을 소개한다면. <br/> <br/>“개인적으로는 ‘우유는 남을 속여서라도 꼭 먹여야 하는 식품’이라는 농담을 자주 한다. 그만큼 우유 속에는 단백질, 지방, 유당, 무기물, 비타민 등 114가지에 달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어 건강에는 더 없이 좋은 식품이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유를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비만과 골다공증 예방, 피부미용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사증후군 및 각종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하지만 일반 우유와 가공유는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흰 우유의 경우 유해균을 죽이기 위한 살균 과정만 거치지만 가공유는 인공 향료 색소, 당분 등을 첨가하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이 비만 아동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적·영양적 측면을 고려해 흰 우유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 우유의 품질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 <br/> <br/>“우유는 체세포 수와 세균 수가 적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아 고품질유로 분류된다. 체세포 수는 젖소의 면역세포, 즉 백혈구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낙농기구에서는 우유 중 체세포 수를 분석해 젖소의 유방염 감염 유무를 판단한다.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체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젖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선진 낙농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체세포 수에 의한 유방염 진단 및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유 품질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세균 수 검사다. 원유의 미생물 오염 정도는 최종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며, 우유 생산과 저장 과정 중의 위생 상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시중에 유통되는 우유의 품질은 해외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 <br/> <br/>“우리나라의 1등급 우유 기준은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까다롭다. 우리나라 1등급 우유는 1ml 당 체세포 수가 20만 개 미만이다. 덴마크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20만 개 미만을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체세포 수 40만 개까지가 1등급 판정을 받는다. 세균 수 규정 역시 뉴질랜드가 1만 개 미만,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3만 개 미만, 프랑스 5만 개 미만, 네덜란드 10만 개 미만으로 우리나라는 낙농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유를 만들기 위해 젖소의 건강관리에서부터 제종 과정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매일 목장의 모든 우유에 대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고 착유한 원유는 즉시 냉각해 저온 보관한다. 우유 내에는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상온에서는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이다. 체세포 수 및 세균 수 검사를 위해 목장별로 채취한 우유를 매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우유 제조 과정 역시 깐깐하다. 우유 공장에 도착한 원유는 2백90여 가지 항목 테스트를 거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원유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br/> <br/>-최근 국내 낙농업의 상황은 어떠한가. <br/> <br/>“지난해 가구당 4주 평균 우유 구매량은 5.55kg으로 지난 2012년보다 3.5% 감소했고, 소비자의 1회 우유 평균 구매량은 1.86kg으로 0.5% 줄었다.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원유생산량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5.6% 증가했고 국산분유 사용분은 0.3% 감소한 반면, FTA에 의한 수입 유제품 사용은 급증(9.5%~17.5%)했다. 국산 분유재고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제품 수입은 증가한 것이다.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우유 재고’ 문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유 쿼터제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쿼터 내 생산량은 정상유대를 받지만 쿼터를 초과할 경우 리터 당 100~300원의 우유값을 받는다. 수입 유제품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낙농가의 생산기반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br/> <br/>-우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br/> <br/>“국산우유의 차별하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산우유사용인증(K·MILK)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산우유사용인증이란 100% 국내산 우유만을 사용한 우유 및 유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도 우유 및 유제품의 겉면에 ‘국산원유 100%’ 등의 문구가 표기돼 있지만 가시성과 제품 간 통일성이 떨어져 수입 유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 국산우유사용인증은 소비자에게 국산 원유로 만든 제품에 대한 식별을 높여 신뢰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우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거시다. 이 제도는 소비자 뿐 아니라 낙농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원유 자급률을 높여 장기적으로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7월 우유 가공업체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고, 심사 결과 총 8개 업체 220개 제품이 K·MILK 인증을 받았다. ‘국산우유사용인증(K·MILK)’ 마크가 인쇄된 우유와 유제품은 10월 중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우유를 홍보하고 있다.” <br/> <br/>-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br/> <br/>“올해에는 TV 캠페인을 통해 흰 우유의 가치를 소개하고 남녀노소 전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우유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 매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대국민 대상 우유 관련 정보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를 활용해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편견을 바로잡기도 했다.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유 음용의 효능과 생활 속 우유 활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각종 프로모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유과학교실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유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도록 한다. 도심 속 목장나들이는 온 가족을 보도심 속에 목장을 구현해 젖소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우유체험 교실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해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유 음용 홍보를 제공하고, 주부 우유 요리 교실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 강좌를 개설해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br/> <br/>-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를 말해 달라. <br/> <br/>“우유는 소비자의 연령층과 특징에 따라 다양한 효능이 있다. 청소년에게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을 도우며, 20~30대에게는 에너지를 쉽게 보충해주는 영양 간식이고, 체력이 저하되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공급원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 결국 우유는 나이와 무관하게 평생 마셔야 하는 건강 음료다. 앞으로도 연령층과 생활 습관을 연관 지어 홍보함으로써 우유의 가치를 널릴 알릴 계획이다. 소비자가 우유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어린이 우유체험 교실, 주부 우유 요리 교실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TV나 신문을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우유를 신뢰하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이새하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8.txt

제목: 고령자 입원 원인 1위는 '상해사고'  
날짜: 2014101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310015389668  
본문: 고령자 입원 원인 1위가 '상해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고령자는 넘어짐,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사고로 입·통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보험개발원은 13일 2010∼2012년 생명,장기손해 보험의 입원과 통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이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상해사고에 이어 근골격계 질환, 암 순으로 고령자의 입통원이 많았다. <br/> <br/>또한 같은 기간 고령자의 평균입원일수는 치매(정신 및 행동장애) 70.3일, 뇌혈관질환(순환기질환) 31일, 신경계통 질환 30.8일, 내분비 대사 질환 24.5일, 상해사고 23.6일로 나타났다.  <br/> <br/>고령자의 평균 통원일 수는 암 12.3일, 상해사고 9.9일, 근골격계질환 7.5일, 신경계통 질환 6.8일, 순환기 질환 6.3일 등이었다. <br/> <br/>70세 이상 보험가입자 수는 128만명에 가입률은 31.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상해보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보험개발원은 "고령자의 경제여건에 맞춘 보장범위 자유설계상품을 개발하거나 자기부담금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r/> <br/>이어 "현재 장기간병보험은 젊은 세대 건강체를 가입대상으로 한 심사 보험이므로 고령자전용 간병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r/> <br/>고령자 입원 1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령자 입원 1위가 상해사고, 노인들이 많이 다치지" "고령자 입원 1위는 상해사고인데 보험은 암 권유, 뭔가 잘못된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br/> <br/>ent@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더니 맞아죽고, 딸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 [영상] "얼마나 더" 비키니女 과도한 셀카 놀이 "에볼라 걸렸어요" 기내에서 거짓말 했다가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소녀시대에 뒷통수 친 제시카의 '탐욕'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29.txt

제목: 고령자 입·통원 원인 1위는 ‘상해사고’  
날짜: 20141013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310015387672  
본문: 고령자는 넘어짐,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사고로 입·통원 치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보험개발원은 2010∼2012년 생명·장기손해 보험의 입원과 통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이용 형태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br/> <br/>상해사고에 이어 근골격계 질환, 암 순으로 고령자의 입·통원이 많았다. <br/> <br/>아울러 같은 기간 고령자의 평균입원일수는 치매(정신 및 행동장애) 70.3일, 뇌혈관질환(순환기질환) 31일, 신경계통 질환 30.8일, 내분비 대사 질환 24.5일, 상해사고 23.6일로 나타났다. <br/> <br/>고령자의 평균 통원일 수는 암 12.3일, 상해사고 9.9일, 근골격계질환 7.5일, 신경계통 질환 6.8일, 순환기 질환 6.3일 등이었다. 70세 이상 보험가입자 수는 128만명에 가입률은 31.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상해보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은 “고령자의 경제여건에 맞춘 보장범위 자유설계상품을 개발하거나 자기부담금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책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장기간병보험은 젊은 세대를 가입대상으로 한 심사 보험이므로 고령자전용 간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더니 맞아죽고, 딸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 여성 오르가즘의 비밀, 연구를 통해 밝혀져 박기량 "아빠뻘 되는 분이 술 한 잔 따르라면서…"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당신을 화나게 하는 지하철 비매너 8가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0.txt

제목: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갑상선암의 ‘세 가지 진실’  
날짜: 2014101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310015383496  
본문: 암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치료가 까다롭고 힘들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완치로 가는 길이다. 다른 암보다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진 갑상선암도 예외는 아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고, 어떤 종류는 진행이 빨라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다. <br/> <br/>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분비외과 윤정한 교수(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회장)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 검진이 과잉이며, 크기가 작으면 수술하지 말라는 일각의 주장 때문에 많은 환자가 갑상선암을 무조건 필요 없는 수술처럼 오해하기 쉽다</span>”고 말했다. 초음파 검진에 쓰이는 장비.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갑상선암 발생은 과잉 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br/>KBS 제공 <br/>◆갑상선암은 증상이 없으면 검진 안 해도 된다? <br/> <br/>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갑상선암은4~5cm 이상으로 매우 커서 주위 장기를 압박하거나, 암이 폐나 뼈로 전이 되거나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등 여러 장기로 원격 전이된 경우에야 증상이 나타난다.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진을 한다면 치료 시기가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 <br/> <br/>또 1cm 이상의 큰 암도 손으로 만져서는 알기 어렵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눈으로 봐서만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갑상선암이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갑상선암이 언제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br/> <br/>갑상선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방법이다. 조기 검진을 통해 사전에 암을 발견하면 최소한의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할 경우 수술 범위가 커지고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갑상선암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머리와 얼굴부위에 방사선 조사 과거력이 있을 때 ▲소아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전신방사선조사의 과거력이 있을 때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br/> <br/>◆갑상선암의 크기가 작으면 지켜봐도 된다? <br/> <br/>갑상선암의 크기가 1cm 이하면 지켜봐도 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갑상선암의 크기가 0.5cm 이하의 작은 암이면 세포 검사를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위 림프절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단순히 크기가 작다고 무조건 지켜보는 것이 아니며, 종양이 기도, 식도, 혈관, 림프절, 성대 신경 주위에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권유된다. <br/> <br/>또한 0.6cm ~ 1cm 사이의 암도 재발률과 전이 위험성이 높아 수술이 권유된다. 이 크기의 갑상선암은 35년 내 재발될 확률이 14%로 높고, 0.6cm 이상부터 측면 림프절 전이와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1cm 이상의 암의 경우에는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갑상선암을 진단 받으면 암의 크기만을 따지지 말고, 형태나 위치, 종류, 예후 등과 관련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br/> <br/>◆모든 갑상선암은 느리게 진행된다? <br/> <br/>갑상선암은 ‘거북이암’ 또는 ‘착한암’으로 불릴 만큼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암이다. 하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갑상선암은 종양이 빨리 자라거나 주위 조직 침윤 및 원격 전이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후가 좋지 않다. <br/> <br/>진단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암은 암세포의 성숙정도인 분화도에 따라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구분한다. 성숙이 비교적 잘된 분화암은 정상세포를 많이 닮고있고, 미분화암은 정상세포와 거의 닮지 않고 미성숙한 형태를 보인다. 미분화암은 분화암에 비해 분열속도나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고, 진단시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미분화암으로 진단 받으면, 3-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사망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 <br/> <br/>윤정한 교수는 “암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외성이 있어 종양이커지는 속도나 크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은 예후가 좋은 분화암이라도 난치성 암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갑상선암 역시 늦게 발견할수록 예후가 좋지 않고 재발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완치율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갑상선암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위 세 가지 진실은 바로 알고 있어야만 갑상선암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더니 맞아죽고, 딸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 여성 오르가즘의 비밀, 연구를 통해 밝혀져 당신을 화나게 하는 지하철 비매너 8가지?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SM 중국 멤버 이탈…이유는 결국 돈?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1.txt

제목: 60대 소세포폐암 환자, 한방치료로 항암 부작용 완화  
날짜: 20141013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310015389129  
본문: 폐암의 암세포를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을 통한 외과적 절제다. 하지만 폐암환자의 1/4 이하 정도만 수술적 외과 절제가 가능하다. 특히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진 소세포폐암의 경우 외과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br/> <br/>소세포폐암의 발생은 대부분 흡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실제 환자의 95% 이상이 흡연의 과거력이 있다. 하지만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br/> <br/>폐암은 감시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발견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 좋게 건강 검진을 하다가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발견됐을 때 이미 림프나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br/> <br/>그렇기 때문에 소세포폐암은 예방 및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40세 이상 흡연자라면 매년 1회 정도 저선량 CT 촬영검사· 객담 암세포진 검사· 흉부X-선 촬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br/> <br/>예를 들면, 74세 한 남자 환자는 소세포폐암이 간에 전이가 됐다는 진단을 받은 뒤 기력이 쇠약해질 것을 우려해 항암· 방사선 등의 치료를 거부하고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3개월 만에 찾았다. 하지만 이미 암세포가 간 대부분을 덮을 정도로 퍼져 있었으며 주변부 동맥까지 침범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br/> <br/>이처럼 소세포폐암은 대개 흉부 중앙의 기관지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기침· 호흡곤란· 천명(wheezing)· 피 섞인 가래 혹은 객혈·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br/> <br/>소세포폐암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전이가 됐을 때 ▲쉰 목소리 ▲상대정맥 증후군 ▲뇌 기능 장애 ▲두통·구토 등이 올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도 어느 정도 암이 진행 된 후에야 나타나게 된다. <br/> <br/>보통 양방에서는 제한기나 확장기로 병기가 결정되고 나면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하거나 항암 화학요법 단독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항암치료는 항암제인 에토포시드(Etoposide)의 발견 이후 치료율이 높아졌으며 백금계 화합물(Cisplatin이나 Carboplatin)과의 조합으로 많이 시행된다. <br/> <br/>이어 양방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한방 치료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 시키며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미 중국은 물론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주로 온열치료나 침· 약 등을 이용해 치료하고 있다. <br/> <br/>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항암 화학요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br/> <br/>실제로 소람한방병원에서 진료 중인 69세 남자 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방면역치료를 병행하면서 힘들지 않게 항암 화학요법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펫씨티(PET C.T· 양전자 단층 촬영)영상 판독결과 두드러지게 호전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소람한방병원 이범수 진료원장은 “<span class='quot0'>소세포폐암은 금연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방의 방사선 및 항암 치료와 더불어 한방의 온열치료· 침 등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2.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전자담배, 금연효과 있나  
날짜: 2014101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310016316161  
본문: #1. 직장인 김모(33)씨는 두 달 전부터 주변 권유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던 김씨지만, 지금은 전자담배만 피운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전에는 경험 못 했던 상쾌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담배 욕구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br/> <br/>#2. 자영업자 박모(42)씨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보고 전자담배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기기만 구입하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지인들의 경험을 보면 충분히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나 담배향이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장치를 뜻한다.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니코틴이 담긴 액체를 기화시키고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이 전부다. 니코틴 용액을 제외한 전자담배 기기 가격은 보통 5만~7만원에 온라인 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br/> <br/>실제 지난 9월1일부터 23일까지 오픈마켓 G마켓에서 판매된 전자담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4배(2399%) 늘었다. 올해 1월과 비교해서도 17배(1678%) 가까이 증가했다. 11번가도 9월 같은 기간 동안 ‘전자담배 등 금연 보조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873% 증가했으며, 옥션도 약 1200% 늘었다. <br/> <br/>◆ 전자담배, 금연에 도움될까? <br/> <br/>이 같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도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전자담배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1ℓ당 0.1∼11.8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성장하던 국내 전자담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기도 했다. <br/> <br/>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여전히 논란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전자담배에 ‘있다’는 형태로만 발표했다. 일반 담배 검출량과 전자담배 검출량을 정확히 비교하지 않았다. <br/> <br/>그렇다면 전자담배의 메리트는 무엇일까. 우선 전자담배의 가장 큰 장점은 냄새가 없다는 점이다. 옷이나 손은 물론 입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많은 애연가들이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또 가격도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약 15% 정도 저렴하다. <br/> <br/>◆ “전자담배 사용, 흡연율 더 높인다” <br/> <br/>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사용해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이성규 박사는 미국 의학학술지 '청소년건강저널'(Journal of Adolescent Health)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시장진출, 이중사용, 금연시도와 흡연경력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실었다. <br/> <br/>이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13~18세 한국 청소년 7만5643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최근 30일 이내 흡연 ▲하루 흡연량 ▲금연시도와 금연성공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했다. <br/> <br/>분석 결과 조사 대상의 9.4%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8.0%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했으며, 1.4%는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했다. <br/> <br/>최근 30일 이내에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응답도 4.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3.6%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1.1%는 전자담배만 단독으로 썼다고 대답했다. 또 금연을 시도했던 청소년은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컸다. <br/> <br/>이 박사는 이런 조사결과를 한국 인구통계에 적용해보면, 궐련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비(非)흡연자보다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자주 피울수록 전자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도 더 컸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br/> <br/>그는 "결론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은 현재의 흡연을 더욱 지속시킬뿐더러 (연기나는) 담배를 더 많이 피우도록 하는 것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br/> <br/>◆ 전자담배 사용한 청소년, 보통 담배 피울 가능성 ↑ <br/> <br/>한편,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보통 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br/> <br/>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미국의 6~12학년 학생 중 43.9%가 '앞으로 1년 안에 보통 담배를 피워볼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 <br/> <br/>이는 같은 연령대의 비흡연 학생 중 '1년 안에 보통 담배를 피워보겠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 21.5%보다 크게 높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전자담배가 보통 담배보다 위험이 낮고 일반 담배의 '대체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br/> <br/>반면 전자담배를 보통 담배와 같은 제품군으로 묶어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도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를 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br/> <br/>미국 CDC 역시 보통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먼저 경험한 청소년이 2011년 약 7만9000명에서 지난해에 약 26만3000명으로 늘어났다며, 청소년 사이에서의 전자담배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br/> <br/>이번 보고서에서 CDC는 담배 광고를 접하지 못한 청소년의 13%만 흡연에 관심을 보였지만 1~2개 매체로 담배 광고를 접한 청소년의 20.4%, 3~4개 매체로 접한 청소년의 25.6%가 흡연에 관심을 표했다며 담배 광고 노출과 청소년 흡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3.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전자담배, 금연효과 있나  
날짜: 2014101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310015386977  
본문: #1. 직장인 김모(33)씨는 두 달 전부터 주변 권유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던 김씨지만, 지금은 전자담배만 피운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전에는 경험 못 했던 상쾌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담배 욕구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br/> <br/>#2. 자영업자 박모(42)씨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보고 전자담배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기기만 구입하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지인들의 경험을 보면 충분히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나 담배향이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장치를 뜻한다.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니코틴이 담긴 액체를 기화시키고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이 전부다. 니코틴 용액을 제외한 전자담배 기기 가격은 보통 5만~7만원에 온라인 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br/> <br/>실제 지난 9월1일부터 23일까지 오픈마켓 G마켓에서 판매된 전자담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4배(2399%) 늘었다. 올해 1월과 비교해서도 17배(1678%) 가까이 증가했다. 11번가도 9월 같은 기간 동안 ‘전자담배 등 금연 보조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873% 증가했으며, 옥션도 약 1200% 늘었다. <br/> <br/>◆ 전자담배, 금연에 도움될까? <br/> <br/>이 같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도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전자담배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1ℓ당 0.1∼11.8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성장하던 국내 전자담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기도 했다. <br/> <br/>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여전히 논란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전자담배에 ‘있다’는 형태로만 발표했다. 일반 담배 검출량과 전자담배 검출량을 정확히 비교하지 않았다. <br/> <br/>그렇다면 전자담배의 메리트는 무엇일까. 우선 전자담배의 가장 큰 장점은 냄새가 없다는 점이다. 옷이나 손은 물론 입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많은 애연가들이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또 가격도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약 15% 정도 저렴하다. <br/> <br/>◆ “전자담배 사용, 흡연율 더 높인다” <br/> <br/>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사용해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이성규 박사는 미국 의학학술지 '청소년건강저널'(Journal of Adolescent Health)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시장진출, 이중사용, 금연시도와 흡연경력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실었다. <br/> <br/>이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13~18세 한국 청소년 7만5643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최근 30일 이내 흡연 ▲하루 흡연량 ▲금연시도와 금연성공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했다. <br/> <br/>분석 결과 조사 대상의 9.4%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8.0%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했으며, 1.4%는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했다. <br/> <br/>최근 30일 이내에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응답도 4.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3.6%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1.1%는 전자담배만 단독으로 썼다고 대답했다. 또 금연을 시도했던 청소년은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컸다. <br/> <br/>이 박사는 이런 조사결과를 한국 인구통계에 적용해보면, 궐련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비(非)흡연자보다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자주 피울수록 전자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도 더 컸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br/> <br/>그는 "결론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은 현재의 흡연을 더욱 지속시킬뿐더러 (연기나는) 담배를 더 많이 피우도록 하는 것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br/> <br/>◆ 전자담배 사용한 청소년, 보통 담배 피울 가능성 ↑ <br/> <br/>한편,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보통 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br/> <br/>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미국의 6~12학년 학생 중 43.9%가 '앞으로 1년 안에 보통 담배를 피워볼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 <br/> <br/>이는 같은 연령대의 비흡연 학생 중 '1년 안에 보통 담배를 피워보겠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 21.5%보다 크게 높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전자담배가 보통 담배보다 위험이 낮고 일반 담배의 '대체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br/> <br/>반면 전자담배를 보통 담배와 같은 제품군으로 묶어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도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를 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br/> <br/>미국 CDC 역시 보통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먼저 경험한 청소년이 2011년 약 7만9000명에서 지난해에 약 26만3000명으로 늘어났다며, 청소년 사이에서의 전자담배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br/> <br/>이번 보고서에서 CDC는 담배 광고를 접하지 못한 청소년의 13%만 흡연에 관심을 보였지만 1~2개 매체로 담배 광고를 접한 청소년의 20.4%, 3~4개 매체로 접한 청소년의 25.6%가 흡연에 관심을 표했다며 담배 광고 노출과 청소년 흡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더니 맞아죽고, 딸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 여성 오르가즘의 비밀, 연구를 통해 밝혀져 박기량 "아빠뻘 되는 분이 술 한 잔 따르라면서…"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당신을 화나게 하는 지하철 비매너 8가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4.txt

제목: 이창우 연구팀, 림프종 유발 발암 유전자 발견  
날짜: 20141012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210015380147  
본문: 국내 연구팀이 림프종(임파선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br/> <br/>성균관대는 의대 분자세포생물학교실 이창우 교수(사진), 박혜영 박사, 고현정 교수 등이 ‘B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새로운 발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악성 림프종은 림프조직 세포들이 악성으로 바뀌어 생기는 종양으로, 국내 전체 암 발생의 2%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펠리노(Pelino) 1’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세포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과정을 밝혀냈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펠리노 1 유전자의 발현을 림프종 환자 진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 가능성도 보인다</span>”고 밝혔다. <br/> <br/>해당 논문은 기초·임상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더니 맞아죽고, 딸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 지디-키코, 심야데이트·스킨십…이래도 아니야? 여성 오르가즘의 비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5.txt

제목: 림프종 유발 유전자 발견… 이창우 성균관대 교수팀  
날짜: 2014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1210015381563  
본문: 국내 연구팀이 림프종(임파선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br/> <br/>성균관대는 의대 분자세포생물학교실 이창우 교수(사진), 박혜영 박사, 고현정 교수 등이 ‘B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새로운 발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악성 림프종은 림프조직 세포들이 악성으로 바뀌어 생기는 종양으로, 국내 전체 암 발생의 2%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펠리노(Pelino) 1’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세포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유발에 관여하는 과정을 밝혀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펠리노 1 유전자의 발현을 림프종 환자 진단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 가능성도 보인다</span>”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기초·임상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더니 맞아죽고, 딸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 여성 오르가즘의 비밀, 연구를 통해 밝혀져 당신을 화나게 하는 지하철 비매너 8가지?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SM 중국 멤버 이탈…이유는 결국 돈?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6.txt

제목: 흙·불로 빚은 ‘생명의 그릇’, 장인들 숨결 오롯이  
날짜: 2014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910015370331  
본문: 우리 한민족의 독특한 음식 저장 용기. 흙으로 만든 그릇 ‘옹기’다. 수분은 차단하지만 산소는 통과시키는 특성이 있다. 천연 재료 흙으로 만든 옹기만의 장점이다. 덕분에 조상들은 발효 음식을 잘 만들었다. 간장과 된장, 김치가 그것이다. 인스턴트 먹거리가 판을 치는 현대에 더없이 좋은 건강식이다. 발효 음식이 암 예방 내지 건강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옹기 그릇 덕분일 것이다. <br/> <br/>울산시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은 독을 짓는 장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울산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장인 8명이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공방과 가마가 있다. 우리나라 옹기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외고산옹기마을에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울산 옹기축제’가 열린다. 올해 옹기축제는 사업비 6억2000만원을 들여 ‘흙과 불의 노래’라는 슬로건 아래 60여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br/> <br/>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옛 가마를 재현한 ‘옹기장인촌’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싸릿대로 만든 담장 안에서는 옹기장이 직접 독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흙을 밟은 뒤 물레를 돌리고, 바람에 말려 가마에 불을 때는 과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장성우·서종태·진삼용·조희만·허진규·신일성·배영화·최상일 등 8명의 옹기장이 참여한다. 흙 밟기와 같은 일부 제작과정은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br/> <br/>옹기장인들의 집에서는 깜짝경매가 열린다. 진행자를 따라 옹기장인들의 집을 돌며 장인과 공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즉석 경매를 통해 옹기를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루에 8차례 진행된다. <br/> <br/>옛 옹기장수를 재현한 옹기퍼레이드는 볼 만하다. 짚으로 짠 패랭이를 쓰고 등에 옹기를 진 옹기 도부장수 뒤로 다양한 크기의 옹기를 한 가득 실은 소달구지가 뒤따른다. 40∼50명이 참여하는 행렬이다. 옹기마을길 2㎞를 행진하고 하루에 두 번, 한 시간씩 공연한다. <br/> <br/>외고산옹기마을 안에 문을 연 울주민속박물관에선 2010년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최대 옹기도 볼 수 있다. 높이 221㎝, 둘레 246㎝ 크기의 이 옹기는 무게만 175㎏에 달한다. 이 밖에 옹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흙과 불, 바람을 주제에 맞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흙놀이터에서는 흙밟기와 다트왕, 옹기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불놀이터에서는 옹기양초 만들기를, 바람놀이터에선 바람개비와 헬리콥터 만들기를 할 수 있다. 옹기에 그림을 그리는 옹기 꾸미기와 옹기다례, 옹기김치 담그기 체험도 마련된다. <br/> <br/>옹기박물관과 민속박물관, 아카데미관 앞에서는 마당극, 전통연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메인 무대에서는 24일 오후 6시 개막식 축하공연과 옹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장인의 애환을 담은 주제극이, 25일 콘서트 공감과 산골영화제, 26일 서커스 공연과 전통혼례 등 매일 색다른 볼거리가 이어진다. <br/> <br/> 지난해 열린 옹기축제 모습. <br/>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제공윤종수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장은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옹기축제 중 올해 축제가 가장 이색적이고 볼거리가 넘친다. 지난해 56만명이 찾았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외고산옹기마을은 축제를 위해 만든 곳이 아니다. 이곳에 옹기장들이 정착한 것은 약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7년 영덕 출신 고 허덕만 장인이 마을 언덕 밭에서 옹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옹기마을로 변모했다. 옹기업이 번성했던 1960년∼1970년대에는 350여명의 장인과 도공들이 거주했다. 당시 마을에서 생산한 옹기는 전국 각지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까지 수출되기도 했다. <br/> <br/>70년대 이후엔 플라스틱 그릇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위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그 수가 대폭 줄었지만 옹기장들은 묵묵히 가마를 지키며 고집스러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참살이(웰빙) 바람을 타고 옹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2000년 마을은 옹기보존마을로 지정됐다. 이후 옹기축제와 옹기엑스포가 열렸고, 이제는 옹기 체험마을로 자리 잡았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XX녀·XX한?··· 대학가 축제에까지 번진 '일베' 논란 고속도로 요금소 바바리맨에 女징수원은 괴롭다 성추행·스토킹…20대 계약직 女의 억울한 죽음 "서울대생이 개발하니 대박" 3주만에 3천단어 암기…충격!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7.txt

제목: 산삼약침 등 한방치료, 항암치료와 병행하는 한방병원  
날짜: 20141008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810015362157  
본문: 최근 녹용· 산삼약침 등 한방치료가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강도 높은 항암치료는 기력은 물론, 인체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항암치료 효과의 저하와 암이 재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br/> <br/>실제 폐암, 위암, 간암 등 암환자들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최근에는 암환자들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녹용· 산삼약침 등 한방치료를 항암치료와 병행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200여 곳의 한의원에서 산삼약침법을 사용하고 있다. <br/> <br/>항암치료와 병행하고 있는 한방치료 중 산삼약침은 한의대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중의 하나인 ‘약침학’에 ‘산삼약침’ 관련 논문 및 임상사례가 소개되는 등 법적· 학술적으로 공인 받기 시작했다. <br/> <br/>약침학에 따르면 산삼약침은 말기암을 앓고 있거나 항암요법 중인 사람· 면역계 질환· 기존의 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제반 난치성 질환에 유효한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고 있다. <br/> <br/>약침은 산삼· 녹용 등 한약재를 달여 추출한 약액을 고도로 정제해 혈자리에 주사하는 한방의료행위를 말한다. <br/> <br/>이런 약침은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생체 기능 조정과 질병 치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술법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한편 녹용· 산삼약침 등 한방치료는 미국 엠디앤더슨·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서도 통합의학 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서양의학적 치료와의 병행을 통해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중인 환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월호 구조 특혜 '언딘', 86일동안 80억 벌어 성추행·스토킹…20대 계약직 女의 억울한 죽음 기업가 정신 체험한다며 모교 수험생 상대 돈벌이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8.txt

제목: 한방가슴성형, 2가지 방법 있다!  
날짜: 20141008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810015363938  
본문: 최근 중년 이후에 발병한다고 생각했던 유방암이 젊은 층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br/> <br/>특히 15~34세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 유방암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지난해 국립암센터는 발표했다. <br/> <br/>더욱이 미혼 여성에게 발병하는 유방암이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br/> <br/>또 이런 유방암 예방을 위해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영국의 암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에 실렸다. <br/> <br/>이런 유방암 관련 뉴스에서 가슴 성형 수술은 항상 뜨거운 이슈였다. <br/> <br/>전문가들은 수술 방법이 발달해 이제는 유방암과 '보형물 가슴 성형 수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 <br/> <br/>따라서 최근에는 보형물을 넣는 방법보다는 시술이 간단한 '자가지방이식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r/> <br/>하지만 이 방법 역시 1년 이내 지방이 흡수돼 사이즈가 줄어들 확률이 높고, 지방이식석회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br/> <br/> 또 한국 소비자원의 발표로 한방가슴성형으로 알려졌던 '매선침'이 효과 문제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br/> <br/>이에 중의학에서는 많이 알려진 치료법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복합 한방가슴확대' 방법이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복합 한방가슴확대 치료법은 돼지고기와 돼지기름을 항상 먹는 식습관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인들 체형과 식단에도 효과 있는 치료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br/> <br/>그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치료 방법이 발달하면서, 가슴 주변 조직에 기를 모아주는 한약재로 구성된 ‘가슴산’과 가슴 조직을 활성화 시켜 지방 감소를 막아주는 ‘경피침주요법’· 등쪽과 겨드랑이쪽 가슴 혈류를 개선시켜 가슴의 지방 축적을 도와주는 ‘침 자극요법’ 등이 개발됐다. <br/> <br/>또 가슴부위의 자극을 통해 기혈 순환을 원활히 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커핑치료’· 가슴확대한약과 가슴확대침의 장점을 결합한 ‘약침’ 등 다양한 치료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br/> <br/>한 병원에서 12주 동안 치료한 결과, 한 컵에서 두 컵까지 가슴 확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 또 치료 후 확대 유지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팰리스한의원 송진호 원장은 “환자마다 매선이 적합한 체형이 있고, 복합 한방가슴확대가 더 적합한 체형도 있다"며 "그 동안 쌓인 환자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대 시술 시 유지가 용이하도록 치료하는 것도 핵심이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송 원장은 “한방가슴성형 치료는 확대뿐이 아니고, 한방가슴축소 치료법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며 "한방가슴축소 치료의 기원은 동의보감에 하고초와 왕불유행 등의 약재가 유선의 증식을 억제하고 가슴을 지속적으로 줄여준다는 기록을 토대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임상 실험을 통해 확인되면서, 가슴축소수술의 대안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마지막으로 송 원장은 "한방가슴축소는 단순히 지방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유선의 퇴화를 유도한 치료를 병행하기에, 체중이 빠져도 가슴이 줄지 않아 고민이 많은 여성들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치료"라고 덧붙였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월호 구조 특혜 '언딘', 86일동안 80억 벌어 성추행·스토킹…20대 계약직 女의 억울한 죽음 기업가 정신 체험한다며 모교 수험생 상대 돈벌이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39.txt

제목: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 모드'도입…암호화  
날짜: 2014100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810015362825  
본문: 사이버검열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8일 발표했다. <br/> <br/>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 강력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해진다. <br/> <br/>카카오톡은 프라이버시 모드를 위해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 end encryption)'기술을 도입한다. <br/> <br/>암호화된 대화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는 개인 단말기에 저장된다. 따라서 대화를 나눈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사실상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 된다. <br/> <br/>비밀대화 기능은 연내 1:1 비밀대화방을 통해 제공되고, 내년 1/4분기까지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비밀 대화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br/> <br/>또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수신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바로 지워지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올해 안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경우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기로 했다. <br/> <br/>이번 조치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할 경우 수사기관 영장집행을 통한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br/> <br/>다음카카오측은 앞서 발표했던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하는 보호책을 이날부터 실시했다. <br/> <br/>한편 다음카카오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서 통상적 절차에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br/> <br/>다음카카오측은 주기적으로 요청건수와 처리율을 공개키로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월호 구조 특혜 '언딘', 86일동안 80억 벌어 성추행·스토킹…20대 계약직 女의 억울한 죽음 기업가 정신 체험한다며 모교 수험생 상대 돈벌이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0.txt

제목: 수두 바이러스 경험자, 대상포진 가능성 높아  
날짜: 20141007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710015353478  
본문:   <br/> <br/>최근 현대인의 복잡한 생활 스타일과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br/> <br/>대상포진 환자수는 급증하고 있는 게 특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2010년 심사결정자료 분석 결과,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06년 34만 명에서 2010년 48만 명으로 41.4% 증가했다고 밝혔다. <br/> <br/>성별로는 여성환자가 28만 8315명으로 남성환자(19만 5218명)보다 1.4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8%), 40대(17.4%) 순이었다. 10세 미만(1.9%)의 연령에서는 드물게 나타난 반면 40~60대의 중장년층(58.7%)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br/> <br/>중요한 것은 특히나 암환자, 면역질환 환자, 장기이식환자, 고령 환자에서 특히 더 많이 발생이 되며, 이런 환자들은 특히 대상포진후 신경병증, 감각 및 운동 장애, 시력 및 청력 저하, 뇌수막염등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br/> <br/>특히 70세 이상의 환자에선 50% 이상이 대상 포진을 앓고 나서 수년 동안 불에 데이는듯한 통증, 바늘에 찔리는 듯한 통증, 감각 저하, 만지기만해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br/> <br/>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우리몸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주로 어릴 때 감염되는데, 처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때는 대상포진이 아닌 수두가 생기고 수두에서 회복되더라도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지 않고 일부가 몸속의 신경 세포에 잠복해 지내다 몇 가지 원인으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그때는 수두가 아닌 대상포진으로 발병하게 된다. <br/> <br/>즉,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의 원인이며, 때문에 바이러스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br/> <br/>수두 바이러스를 경험한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경절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면서 신경을 파괴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상포진은 등과 가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머리, 허리 등 신체 어디라도 나타날 수 있고, 대게는 편측성으로 발병된다. <br/> <br/>특징적인 소견은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 며칠 지나 붉은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은 붉은 수포가 나타나고 나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디스크나 근육통으로 생각해 방치하다가 병을 키워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아주 드물게는 피부에 수포가 없이 통증만 있는 대상 포진도 (herpes zoster sine) 있어 진단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br/> <br/>통증이 있는 자리에는 작은 물집들이 잡히며 통증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심하면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운동 신경까지 마비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br/> <br/>또 얼굴 부위에 신경이 마비되면 미각 장애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면역억제환자, 면역질환 환자,  장기 이식 환자, 고령 환자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된다. <br/> <br/>찬바람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과 휴식, 영양 섭취를 골고루 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고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대상포진의 예방에 중요하다. <br/> <br/>또한 50세 이상의 고령 , 장기 이식 환자, 면역억제 환자, 암 환자등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이 대상포진 발병을 현저히 낮춰주기 때문에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성추행·스토킹…20대 계약직 女의 억울한 죽음 "내가 차승원 아들 노아 친아빠, 1억 내놔라" "'칼퇴근'을 허하라!" 6시면 사라지는 사무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1.txt

제목: 경희의료원 개원 43주년 기념식 '성료'  
날짜: 2014100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710015354132  
본문: 지난 2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개원 43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경희의료원(원장 임영진)은 지난 2일 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개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 기념식에는 유지홍 의무부총장과 임영진 원장, 경희암병원 김의신 자문위원장, 박영국 치과병원장, 최도영 한방병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 각종 시상, 경희대 의료기관 HI로고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br/> <br/> 임 원장은 기념사에서 “<span class='quot0'>어려운 의료 환경에도 교직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 2010년에 선포한 비전인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도약 기회로 삼자</span>”고 말했다. 유 부총장은 “<span class='quot1'>의료원을 43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힘은 모두 교직원 노고 덕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료원의 전통을 이어가고 발전하길 바란다</span>”고 덕담을 건넸다. <br/> <br/> 기념식에서는 경희의학상과 미원임상의학상, 장기근속상, 우수 부서와 우수 교직원에 대한 포상 등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경희의학상 금상은 소화기내과 이창균 교수, 은상은 구강악안면외과 권용대 교수 외 3명, 동상은 한방3내과 김진성 교수 외 5명이 받았다. 미원임상의학상 금상은 안과 곽형우 교수 외 4명, 은상은 침구과 이상훈 교수 외 4명, 동상은 보철과 김형섭 교수 외 4명이 수상했다. <br/> <br/> 한편 경희의료원은 개원 43주년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본관 로비에서 피아니스트 서혜경의 연주회를 열었다. 암 환자를 위한 가발 기증식도 진행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성추행·스토킹…20대 계약직 女의 억울한 죽음 "내가 차승원 아들 노아 친아빠, 1억 내놔라" "'칼퇴근'을 허하라!" 6시면 사라지는 사무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2.txt

제목: 빅토리아 애도, 이수만 대표 부인 별세에 "깊은 슬픔 느낀다"  
날짜: 20141006  
기자: 최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610015342891  
본문: 빅토리아가 이수만 대표의 부인 별세소식에 애도의 뜻을 남겼다. <br/> <br/>지난 5일 빅토리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br/> <br/>더불어 빅토리아는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SM타운 라이브 인 도쿄(SMTOWN LIVE IN TOKYO)'의 공연장 전경 사진을 함께 게재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br/> <br/>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수만 대표의 부인이 2년여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br/> <br/>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수만 프로듀서는 부인의 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으며, 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뤄 2일 발인을 마쳤다. <br/> <br/>한편 빅토리아는 현재 영화 '엽기적인 그녀2'를 촬영중이다. <br/> <br/>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3.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에 빅토리아 애도.."아버지 같은 분, 힘내세요"  
날짜: 2014100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610015342218  
본문:   <br/> <br/> <br/>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부인 별세에 에프엑스 빅토리아가 애도의 뜻을 전했다. <br/> <br/>빅토리아는 자신의 SNS에 "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전했다. <br/> <br/>앞서 슈퍼주니어 최시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는 여기서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로 게재한 바 있다. <br/> <br/>한편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는 지난달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 이수만 부인의 소장암은 2012년 12월에 발병했으며, 2013년 1월에 대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왔다. 이수만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해 사망에 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4.txt

제목: 곤지름(콘딜로마) 환자 증가…방치하면 암으로 악화될 수도  
날짜: 2014100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610015345973  
본문: 최근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해 곤지름(콘딜로마)에 걸린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곤지름의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다. 성기부, 항문뿐만 아니라 여성의 질과 외음부, 자궁경부, 남성의 요도 등에서도 발생한다. <br/> <br/>보통 곤지름은 성병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강성교•항문성교•질내성교 등의 주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지만, 성적 접촉 없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100% 성병이라 말하긴 어렵다. 특히 음주 후 성관계나 피부접촉 등 몸의 면역력이 평소보다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전염되기 쉽다. <br/> <br/>2~3개월간의 잠복 기간을 가지는 곤지름의 초기증상은 주로 성기나 항문 주위에 좁쌀만한 혹이 한 개내지 여러 개 생기거나 뭉쳐서 닭벼슬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변형된 피부조직이 별다른 통증 없이 자연치유될 가능성도 있지만, 속옷과 마찰 때문에 떨어지거나 손으로 제거할 경우 피가 나고 병변이 더 번질 수 있다. <br/> <br/>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병변이 더 넓어지면서 크게 번져 항문 입구를 막거나 항문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남성은 음경암, 항문암, 요도암, 인두암, 후두암과 연관이 있으며, 여성은 자궁경부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바이러스 배양과 중합효소 연쇄반응(PCR)등이 사용되면 특히 DNA로 검출하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br/> <br/>곤지름의 치료 방법으로는 과거 전기 소작술, 냉각법, 레이저 절제술 등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액체질소를 이용해 병변을 얼려서 제거하는 냉동요법과 출혈이 적고 재발이 낮은 레이저 제거시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곤지름은 발생부위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 <br/> <br/>남성의 경우 요도에 곤지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특수 마취하에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고, 잘못 치료를 하였을 경우 요도협착등을 일으킬수 있다. <br/> <br/>요도와 더불어 항문에도 곤지름이 빈번히 발생하며 항문 곤지름 일 경우 항문괄약근 상부까지 확인하여야 제대로 된 치료 및 재발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요도와 항문곤지름 같은 경우 전문화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br/> <br/>비뇨기과 전문의 김태헌 원장은 "곤지름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며 "피부 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까지 비뇨기과 전문 병원에서 정밀히 검사를 한 후 치료를 받아야 암으로 발전할 예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이어 김원장은 “<span class='quot0'>곤지름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면역증강제와 백신을 이용해 예방 및 진행억제, 바이러스 박멸을 촉진시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곤지름은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따라서 부끄럽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치료를 통해 재발 없는 완치를 확인한 후에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도움말:골드만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헌 원장 <br/> <br/>한편 골드만비뇨기과는 곤지름 치료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성내시경과 모든 연조직에 사용가능한 레이저를 보유하였고, 통증을 거의 없게 하는 특수한 마취법을 이용하여 시술을 하기 때문에 당일검사, 당일치료가 가능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5.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치약 67%, 발암물질 함유 '논란'  
날짜: 2014100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610015343279  
본문: 국내에서 허가 받은 치약의 3분의 2에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가 긴급 해명 자료를 발표했지만 논란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br/> <br/>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주장했다. <br/> <br/>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이에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br/> <br/>우리나라는 치약 제품에서 파라벤을 0.2%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br/> <br/>더구나 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br/> <br/>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날 오후에 긴급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br/> <br/>식약처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는 파라벤은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2개 품목은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트리클로산은 치약 허가·심사 과정에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파라벤은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의 일종이다. 몸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는 물질로 청소년 성장기 성호르몬과 관계가 있다. 여성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방암과 고환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트리클로산은 살균·살충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자외선이나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br/> <br/>인체에 유해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포함된 치약 유통 실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 해명에 나서자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이 이를 재반박했다. <br/> <br/>식약처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br/> <br/>김 의원은 "트리클로산은 치약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기준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식약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한편, 치아 관리에 소홀하면 실제 나이보다 치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신체 전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치아 건강을 지키려면 자신의 구강 관리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정확한 칫솔질과 치아 상태에 맞는 치약 선택, 칫솔질 후의 치실 사용 등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건치왕’으로 거듭날 수 있다. <br/> <br/>◆ 건치왕 되기 위한 10계명 <br/> <br/>①정기 건강검진을 받듯 치과 검진도 빠뜨리지 않는다. <br/>②칫솔·치실·치간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3총사를 가까이한다. <br/>③치약은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춰 고른다. <br/>④사탕 깨물어 먹기, 마른 오징어 씹기 등 치아에 무리를 주는 식습관을 고친다. <br/>⑤육류보다는 채소 위주로 식사하며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은 가급적 삼간다. <br/>⑥치아를 부식시키는 산성·탄산음료는 빨대로 마시고 마신 직후 물로 헹군다. <br/>⑦이갈이와 이 악무는 습관을 고친다. <br/>⑧치조골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br/>⑨세균 번식 억제와 구취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br/>⑩금연하고 절주한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성추행·스토킹…20대 계약직 女의 억울한 죽음 "내가 차승원 아들 노아 친아빠, 1억 내놔라" "'칼퇴근'을 허하라!" 6시면 사라지는 사무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6.txt

제목: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현장 홍보관 '성황'  
날짜: 2014100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610015346204  
본문: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만든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홍보관에 가을 연휴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양업체 측은 이번 연휴 3일간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현장 홍보관에 3000여명이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당초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래미안 갤러리에 있었으나 지난 3일 강동구 길동에 새로 현장 홍보관을 열었다. 고객들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7.24대책과 9.1대책 등으로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상담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객들의 요구가 커진 것도 현장 홍보관이 생기게 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br/> <br/>방문객들은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으며 연령층도 다양했다. 연휴 때문인지 가벼운 복장을 사람들이 상담을 받거나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받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방문객들의 대부분은 현장 홍보관이 열린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전까지 문정동에 있는 모델하우스가 거리가 있어 다소 불편했던 것과 달리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br/> <br/>암사동에 거주하는 박모(48)씨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도 방문했었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 곳이라 최근 상황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문정동까지는 거리가 적잖아 편하게 다니기 어려웠다”며 “지하철로 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 거리밖에 안되는 곳에 새로 홍보관이 생겨 다음에도 몇 번 더 와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br/> <br/>기존 계약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보관을 방문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계약자 이모(36)씨는 “<span class='quot0'>현장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들을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업체 측에서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도 느낀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현장 홍보관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 사이에 있으며, 현장 홍보관에서 상담 고객들에 한해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주택형을 둘러볼 수 있도록 차량도 배치해 편의를 돕고 있다. 기존 모델하우스는 송파구 문정동의 래미안갤러리 4층에 마련돼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농·축협 임원진, 꼬리 문 자녀 취업 품앗이 '들통' "내가 차승원 아들 노아 친아빠, 1억 내놔라" "'칼퇴근'을 허하라!" 6시면 사라지는 사무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7.txt

제목: [건강 단신] 염증성 여드름 치료법 JAAD 게재 외  
날짜: 2014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510015339843  
본문: 염증성 여드름 치료법 JAAD 게재 <br/> <br/>연세스타피부과 이상주(사진) 원장이 병변 모공에 직접 주사하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법에 관한 논문을 미국피부과학회지(JAAD) 최신호에 게재했다. <br/> <br/>이 치료법은 확대경으로 좁은 모공 입구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생긴 부위 모공으로 직접 들어가 주사한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미세한 바늘이 모공 길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이 없고, 통증이 줄어들며, 흉터가 생길 확률도 낮다</span>”고 소개했다. (02)332-0023 <br/> <br/>‘어린이 우울증 전문 클리닉’ 개설 <br/> <br/>서울대어린이병원(원장 김석화)은 최근 ‘어린이·청소년 우울증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다. <br/> <br/>소아정신과 김재원 교수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료한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정신과적 위험 요인 1위</span>”라며 “<span class='quot1'>최근 증가한 아동·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우울증의 효과적 치료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02)2072-3040 <br/> <br/>암 환자·가족 대상 ‘건강 코칭’ 강좌 <br/> <br/>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센터장 금웅섭)와 암예방센터(센터장 김태일)는 공동으로 16일 낮 12시30분부터 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에서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코칭’ 강좌를 개최한다. <br/> <br/>암 환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운동과 영양 섭취에 관한 강의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02)2228-4930, 1<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8.txt

제목: [기자가만난세상] 호스피스 병동  
날짜: 2014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510015340329  
본문: 괜히 검은색 재킷을 입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그머니 벗은 뒤 흰색 안감이 보이게 뒤집어 팔에 걸쳤다. 이번에는 체크무늬 셔츠가 너무 화려한 것처럼 느껴진다. 혼란스럽다. 환자나 보호자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야 할까, 아니면 굳은 표정으로 목례하듯 고개를 숙여야 할까 고민했다. <br/> <br/>며칠 전 대구 한 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이란 곳을 처음으로 갔을 때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생전 마지막일 이 공간에서 나는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무엇 하나 조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호스피스 병동은 이 병원 암센터의 안쪽 가장자리에 있다. 문 하나를 경계로 바깥쪽은 항암 치료나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병상을 지키고 있지만, 안쪽은 살 날을 늘리기 위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곳이다. <br/> <br/>이정우 사회2부 기자그러나 6개월‘이나’ 남겨놓고 호스피스 병동을 찾는 환자는 드물다. 환자 스스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가족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다. 환자들은 서울 대형병원 암센터를 거치고, 민간 요법까지 모두 시도해보고 이곳에 온다. 현실과 타협하는 데 남은 시간을 쓴 뒤에야 마지막을 준비한다. <br/> <br/>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곳. 나는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둘러본 이곳 표정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환자들은 여느 병동과 마찬가지로 병상에 누워 TV를 보거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족이나 자원봉사자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산책하는 환자도 보였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해서인지, 모른 척하고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모두 평온한 표정이었다. <br/> <br/>간호사들에 따르면 환자들은 가족들과 평소에 하지 못한 얘기를 나누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각자의 방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면서 삶이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써내려가는 것이다. 일반 암환자 병동이었다면 다른 환자의 격한 감정에 동요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가능했을 일이다. 삶 못지않게 죽음도 고귀해야 하므로 호스피스 병동은 꼭 필요하다. <br/> <br/>그런데 최근 대구의료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지난 8월부터 간호사 필요인력 7명 중 2명이 부족하고 지원자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간호사들도 인간이기에 임종을 지켜보는 일에 적잖은 심적 부담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가 200명이나 되는 병원에서 2명을 충원 못해 병동을 폐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 중 하나는 만성적자를 이어가는 대구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돈 안 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손을 떼려고 했다는 것이다. 맞다면 결국 돈 때문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말기암 환자들의 존엄한 임종의 기회가 대구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사라질 뻔한 것이다. 참 가혹한 세상이다. <br/> <br/>이정우 사회2부 기자<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49.txt

제목: 이수만 부인 소장암으로 별세  
날짜: 2014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510015340303  
본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62·사진) 회장의 부인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M은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씨가 지난달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고 5일 밝혔다. SM은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소장암이 처음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회장이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고 설명했다. 장례는 고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렀으며 지난 2일 발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0.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아버지 같은 분, 힘내세요"  
날짜: 201410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510015339612  
본문:   <br/> <br/>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br/> <br/>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걸그룹 에프엑스의 빅토리아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 <br/>10월 5일 SM측은 "당사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br/> <br/>SM 측은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오셨다"고 말하며 "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돼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고 설명했다. <br/> <br/>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다고 전해졌다. <br/> <br/>이에 빅토리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라며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br/> <br/>한편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1.txt

제목: 파라벤 치약 논란 확산, 국내 시판 치약 3분의 2가?…'뭐길래'  
날짜: 201410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510015339417  
본문:   <br/> <br/>파라벤 치약 <br/> <br/>국내 치약 3분의 2가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10월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치약 2050종 중 63.5%에 해당하는 1302종의 치약에 방부제의 일종인 파라벤이 들어있었다. <br/> <br/>이에 김재원 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양의 파라벤을 함유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br/> <br/>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br/> <br/>한편 파라벤 치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무서워서 이도 못 닦겠네", "파라벤 치약, 빨리 찾아내서 처벌을", "파라벤 치약, 무슨 치약을 써야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2.txt

제목: 시판 치약 64% ‘유해 논란’ 파라벤 함유  
날짜: 2014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510015339653  
본문: 국내 시판 치약 10개 가운데 6개 이상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치약 2050개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로 63.5%에 달한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도 63개(3.1%)로 나타났다. <br/> <br/>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일종의 방부제이며, 트리클로산은 향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인체 유해 물질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파라벤이 포함된 치약 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0.3%가량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했다. 트리클로산은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지만 치약에는 기준이 없다. <br/> <br/>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2년부터 2년간 2717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한 결과 “<span class='quot0'>우리 국민의 파라벤 노출 수준은 일일 섭취허용량 이하의 안전한 수준</span>”이라고 해명했다. <br/> <br/>김 의원은 “<span class='quot1'>유해 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과 성분 표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3.txt

제목: 국내 시판치약 3분의2, 유해물질 논란 파라벤 등 함유  
날짜: 20141005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510015338370  
본문: 국내 시판 치약 10개 가운데 6개 이상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치약 2050개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로 63.5％에 달한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도 63개(3.1％)로 나타났다. <br/> <br/>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일종의 방부제이며, 트리클로산은 향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인체 유해 물질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br/> <br/>파라벤이 포함된 치약 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0.3％가량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했다. 트리클로산은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지만 치약에는 기준이 없다. <br/> <br/>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2년부터 2년간 2717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한 결과 “<span class='quot0'>우리 국민의 파라벤 노출 수준은 일일섭취허용량 이하의 안전한 수준</span>”이라고 해명했다. <br/> <br/>김 의원은 “<span class='quot1'>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과 성분 표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4.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임종 직전까지 병상 지켜…별세 이유는?  
날짜: 201410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510015338143  
본문:   <br/> <br/>이수만 부인 별세 <br/> <br/>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별세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br/> <br/>10월 5일 SM측은 "당사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br/> <br/>SM 측은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오셨다"며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습니다"라고 안타까운 비보를 전했다. <br/> <br/>이어 "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돼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라며 "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며, 2014년 10월 2일 발인을 마쳤습니다"고 덧붙였다. <br/> <br/>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만 부인 별세, 안타깝네요", "이수만 부인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수만 부인 별세, 힘내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500만원 수표가 150억원이 된 사연? '휴가나온 군인들' 여고생 폭행에 모니터 박살까지··· 제시카 '블랑' 사업계획서 입수…수상한 타일러권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응급이송 중 女환자 가슴 만진 구급대원,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5.txt

제목: 폐암 걱정... “금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날짜: 20141002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210015324183  
본문: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정책이 이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으나 호흡기 질환, 특히 폐암의 발생에 미치는 흡연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br/> <br/>폐암은 우리나라 남성에 있어 위암, 대장암에 이어 3번째로 잘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여성에서도 발생률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2011년 국가 암 등록통계) 높은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기 검진 방법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증상이 있어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수술하기에 늦은 경우가 흔하여 사망률이 매우 높다.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자의 22.6%인 16,654명(1위)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통계수치로 미루어봤을 때, 폐암의 예후가 매우 불량함을 알 수 있다. <br/> <br/> <br/>따라서 폐암의 치료법은 발생한 이후에 시행되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다. 폐암의 원인에는 흡연, 석면, 비소, 크롬, 니켈 등에 노출, 방사선, 폐 섬유증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담배에서 발견되는 유해 물질은 약 4,000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것이 60종 이상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폐암의 발병률은 증가한다. 폐암으로 진단된 남성 가운데 87%, 여성 가운데 85%가 흡연자다. 특히 여성은 흡연의 발암작용에 더 취약해 같은 양의 흡연에도 남성보다 발생률이 1.2~1.7배 높다. 간접흡연 역시 중요한 폐암의 원인으로, 폐암 환자의 25~50%가 간접흡연에 의해 발병한다. 금연 후 10~20년이 지나도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의 2.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분류하며,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구분된다. 그 중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세포암은 평생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흡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선암의 경우, 비흡연자인 폐암환자에서 선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위험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역시 흡연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br/> <br/>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흡연으로 인한 유전자 변형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혀내 주목받고 있다.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요 유전자들의 변형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전체 환자의 80%에서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인 TP53이 정상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104명 중 5명만이 담배를 피운 적이 아예 없었으며, 나머지 환자들은 20년 안팎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피웠던 경험이 있다. 또한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FGFR3과 TACC3 유전자가 서로 융합되어 폐에서 세포증식과 분열을 반복하도록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 변형에 대한 표적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br/> <br/>방선휘한의원 이재찬 원장은 “방사선, 화학요법, 항암치료의 공격적인 치료로 인해 환자의 체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약침치료, 침치료, 면역약제, 항종양 면역약제. 온열치료, 심리치료 등의 한방암치료를 이용해 환자의 면역감시체계를 회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명 모델, 응원 팀 승리하자 알몸으로 소녀시대 탈퇴 제시카 "내가 충격받은 건 멤버들이…" 5개월동안 닫혀있던 문, 열어보니 모녀 시체가···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당신은 콜라를 단순히 음료수로만 생각하는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6.txt

제목: 자궁경부 이형성증, 한방 면역치료로 치료율 증가  
날짜: 20141002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210015330088  
본문: 최근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 여성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br/> <br/>자궁경부 이형성증이란, 흔히 HPV라고 불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자궁경부 조직 또는 이를 이루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세포조직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한다. <br/> <br/>주로 2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특히 흡연이나 발암 물질, 극심한 스트레스 등은 이형성증을 유발하는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증상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나 가끔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통증, 분비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직접적으로 암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궁경부암이 진행될 수 있는 단계로, 보통 이형성증으로 시작해 상피내암, 자궁 경부암 순서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이형성증을 진단 받는 경우도 있다. <br/> <br/>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초기에는 추적 관찰 치료를 하며 증상이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는 레이저, 냉동, 전기, 원추절제술 등을 이용하고, 이형성증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br/> <br/>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미혼의 젊은 여성이나 출산 전의 여성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치료법이 될 수도 있어 대부분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br/> <br/>이런 가운데 최근 소람한방병원 여성암 센터 임하라 원장은 이형성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도입해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br/> <br/> <br/>한방 면역치료 중 면역 약침 요법과 질내주입법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호전돼 원추절제술이나 자궁적출술까지 가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br/> <br/>실제, 해외출장이 잦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30대 여성 김모씨는 1개월 전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고 HPV 고위험군에 감염 소견이 있어 원추절제술을 권유 받았다. <br/> <br/>김 씨는 수술을 받으려 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원추 절제 이후 재발 가능성이 높고 또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임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향 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찾다가 소람한방병원에서 면역치료를 시작했다. <br/> <br/>적극적으로 치료한 결과 1개월 뒤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세포진 검사에서 정상, 바이러스 검사에서 감염된 바이러스가 없다는 진단결과를 들었다. <br/> <br/>김 씨는 결과에 매우 기뻐하며 현재는 결혼을 위해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면역치료를 유지하고 있다. <br/> <br/>소람한방병원 임하라 원장은 "사람마다 호전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항하는 치료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호전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서? 12세 여아 성폭범에 징역 3년 탄산음료 콜라, 녹슨 자동차 범퍼에 뿌리니 "단통법 아니라 호갱법"… "차라리 중국산 직구"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유명 모델, 응원 팀 승리하자 알몸으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7.txt

제목: '시월드' 홍원빈, 과거 폐암 아버지 병간호 "도리와 의리"…뭉클  
날짜: 20141002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210015330743  
본문:   <br/> <br/>홍원빈이 '시월드'에 출연해 극진한 효심을 드러냈다. <br/> <br/>10월 2일 방송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웰컴 투 시월드'에서는 '암 걸린 시어머니 고친 며느리' 편이 전파를 탔다. <br/> <br/>이날 방송에서는 폐암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 직장암 선고를 받으신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 간 이식을 받은 시아버지 등 각자 사연을 가진 스타 며느리와 시아버지·어머니가 출연해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br/> <br/>특히 홍원빈은 2001년 폐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꺼내며 "평소 건강했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으셨다"라고 입을 열었다. <br/> <br/>홍원빈은 "아버지가 '여기가 지옥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때 정말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팠다"며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은 도리도 도리지만 의리였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아내의 의견은 어땠냐는 질문에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다. 미안함에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아내가 먼저 나서줬다"고 답해 뭉클함을 자아냈다. <br/> <br/>앞서 홍원빈은 지난 8월 한 방송을 통해 폐암에 걸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4개월 동안 신혼 생활을 하다 함께 모시고 살았다고 말해 지극한 효심으로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br/> <br/>홍원빈은 모델출신 트로트가수로 2007년 싱글 앨범 'Fall in love'으로 데뷔, 다양한 가요무대 공연과 '세바퀴', '출발 드림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r/> <br/>한편 '웰컴 투 시월드'는 세기의 끝나지 않는 고부간의 전쟁. 스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는 법을 21세기 식으로 풀어내는 시월드 토크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 <br/> <br/>이린 기자 ent2@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서? 12세 여아 성폭범에 징역 3년 탄산음료 콜라, 녹슨 자동차 범퍼에 뿌리니 "단통법 아니라 호갱법"… "차라리 중국산 직구"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유명 모델, 응원 팀 승리하자 알몸으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8.txt

제목: 결핍을 지닌 생명… ‘타자’가 채워줘  
날짜: 2014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210015329819  
본문: 요시노 히로시(吉野弘) <br/> <br/>생명은 <br/>자기 자신만으로 완결될 수 없도록 <br/>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br/>꽃도 <br/>암술과 수술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br/>불충분하고 <br/>버러지나 바람이 찾아와 <br/>암술이나 수술을 중매한다 <br/>생명은 <br/>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br/>그것을 타자他者에게서 채워 받는다 <br/> <br/>세계는 아마도 <br/>타자와 총화總和, <br/>그러나 <br/>서로가 <br/>결핍을 채운다고는 <br/>알지도 못하고 <br/>알려지지도 않고 <br/>산재散在해 있는 것들끼리가 <br/>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br/>때로는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도 허용되는 사이, <br/>그렇듯 <br/>세계가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왜일까? <br/> <br/>꽃이 피어 있다. <br/>바로 가까이까지 <br/>등에의 모습을 한 타자가 <br/>빛을 두르고 날아와 있다 <br/>나도 어느 때 누구를 위해서 등에였겠지 <br/>당신도 어느 때 <br/>나를 위한 바람이었는지도 모른다 <br/> <br/>제석천의 궁전에는 오색찬란한 구슬로 된 그물이 있다. 그물코마다 붙어있는 구슬에는 다른 그물코에 붙어있는 모든 구슬들이 비치고 있다. 제각기의 아름다운 빛이 제각기의 구슬에 들어가 비치고 이들 모든 영상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도 비친다. 하나가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린다. 서로가 서로의 속에 들어가는 상입(相入)이요, 서로가 남남이 아닌 하나라는 상즉(相卽)을 이루어 찬란한 다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 사는 세상의 참된 모습이라 한다.  <br/> <br/> 그림=화가 박종성‘화엄경’에서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인드라그물 이야기이다. 이는 모든 개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의존관계에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시인도 노래한다.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 완결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고. 트리나 포올러스도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나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꽃들에게 희망을 주어 암술과 수술이 결합하여 새 열매를 잉태하게 됨을 애벌레의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br/> <br/>나도 어느 때 누구를 위해서 ‘빛을 두른 등에’였고 ‘바람’이었다. 누구인지 모르는 그대도 나를 꽃피게 하는 빛이었고 바람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믿는다. <br/> <br/>이혜선 시인·문학평론가<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서? 12세 여아 성폭범에 징역 3년 탄산음료 콜라, 녹슨 자동차 범퍼에 뿌리니 "단통법 아니라 호갱법"… "차라리 중국산 직구"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유명 모델, 응원 팀 승리하자 알몸으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59.txt

제목: 녹십자, 항암보조제 뉴라펙 임상결과 유럽학회서 발표  
날짜: 2014100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210015327699  
본문: 녹십자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4년 유럽종양내과학회(ESM팀)’의 임상결과를 포스터 세션을 통해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호중구감소증(neutropenia)은 혈중 백혈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혈구세포인 호중구가 항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요법 등의 원인으로 정상치 이하로 감소하는 질환이다. <br/> <br/>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항암보조제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1주기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1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달리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녹십자는 지난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획득해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br/> <br/>녹십자는 이번 학회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기관에서 진행한 뉴라펙의 임상 2/3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대조약인 암젠의 뉴라스타(일반명 : 페그필그라스팀)와 맹검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비교한 결과 비열등성을 보였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r/> <br/>이와 함께 뉴라펙은 항암화학요법 1주기 동안 절대호중구수(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최저값 이후 2000/mm³ 이상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관찰했으며 대조약에 비해 회복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약 하루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수정 녹십자 부장은 “<span class='quot0'>임상시험을 통해 뉴라펙이 세계적인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뉴라스타와 비교해 동등이상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만큼 학회 참가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녹십자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뉴라펙 개발을 위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서? 12세 여아 성폭범에 징역 3년 탄산음료 콜라, 녹슨 자동차 범퍼에 뿌리니 "단통법 아니라 호갱법"… "차라리 중국산 직구"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유명 모델, 응원 팀 승리하자 알몸으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0.txt

제목: '2014년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는 누구?  
날짜: 20141001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100110015318272  
본문: 삼성은 1일 '2014년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br/> <br/>삼성행복대상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다. 여성의 권익과 사회공익에 기여한 여성, 학술·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여성, 효행 실천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br/> <br/>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정진성 교수(61·서울대 사회학과) ▲여성창조상 백성희 교수(44·서울대 생명과학부) ▲가족화목상 e세대 가정봉사단(단체) ▲청소년상 김솔비(18·제주여상고 3), 박세은(18·관양고 3), 송은혜(18·해남공고 3), 이준영(17·부평공고 2), 정다영(18·전주사대부고 3) 학생 등 8명이다. <br/> <br/>'여성선도상'을 수상한 정진성 교수는 '여성의 권익 신장에 헌신한 인권 전도사'로서 한국 및 세계 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정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UN인권이사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결혼이주여성, 불가촉천민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 및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br/> <br/>'여성창조상'을 받은 백성희 교수는 '암 정복의 전기를 마련한 세계적인 생명과학자'로, 암을 발생시키거나 전이하는 유전자와 이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다수 규명해 암 조절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해 왔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으면 날아가는 느낌? 알고보니 "당신은 콜라를 단순히 음료수로만 생각하는가?" 강남 한복판서 불타오른 람보르기니, 피해액이 무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나체 동영상·살인 인증샷…도 넘은 SNS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1.txt

제목: 車사고자 3년전 못받은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날짜: 20140930  
기자: truth@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30100000024  
본문: 2012년부터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사로부터 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우선 각 손해보험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개선노력이 부족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금감원은 30일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생겨나는 민원을 확실히 줄이기 위한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암보험이나 입원특약 등 정액형 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며 "계약자가 어떤 보험, 특약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하나만 보상받는 사례가 많아 사후 민원을 야기한다"고 전했다.이어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금 지급청구를 누락하고 보험사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보험사들은 내달말까지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가지를 자체점검해야 한다.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세부 대상이다.현재 1년이상 장기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는 110만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자체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료를 추출해 점검토록 했다.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보험 지급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협회 등에 신청해 자기가 가입한 보험 리스트를 받아보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2.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카레, 건강에 좋은 이유  
날짜: 20140928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810015287491  
본문: 카레에 뇌 손상을 치유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br/> <br/>독일 신경과학·의학연구소의 아델레 뤼거 박사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에 들어있는 방향성 정유(aromatic-turmerone)가 내인성 신경줄기세포(endogenous NSC: neural stem cell)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BBC뉴스 인터넷판과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br/> <br/>내인성 신경줄기세포란 뇌 조직 자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스스로 증식·분화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 보충하는 뇌의 자가 수리 시스템 중 일부다. 방향성 정유는 황색 색소인 쿠르쿠민과 함께 카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생물활성 성분 중 하나다. <br/> <br/>뤼거 박사는 시험관실험과 쥐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팀은 먼저 쥐 태아의 뇌에서 채취한 신경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해 방향성 정유에 노출시킨 결과 신경줄기세포가 증가했다. 방향성 정유 노출량이 많을 수록 신경줄기세포 증식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br/> <br/>이러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이 신경줄기세포에 방향성 정유를 첨가한 뒤 쥐의 뇌에 주입하고 5일에 걸쳐 증식하는 신경줄기세포와 결합할 수 있도록 추적자(tracer)인 브로모디옥시우리딘을 투여했다. <br/> <br/>이어 7일 후에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쥐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뇌실하 영역(SVZ: subventricular zone)이 넓어지고 기억중추인 해마가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의 이 두 부위는 포유동물의 뇌에서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곳이다. <br/> <br/>연구팀은 이 쥐들의 뇌를 직접 해부해 살펴봤다. 그 결과 방향성 정유가 신경줄기세포의 증식과 여러 뇌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향성 정유가 많이 첨가된 신경줄기세포가 주입된 쥐일 수록 이러한 효과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뤼거 박사는 뇌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이에 대해 영국치매연구학회의 로라 핍스 박사는 이 연구결과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 연구결과는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Stem Cell Research & Therapy)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이와 함께 카레를 자주 섭취할 경우 유방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전용순 교수(가천대 길병원)는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뚜기가 후원해 열린 '제4회 카레 및 향신료 국제심포지엄'에서 "카레의 주성분인 커큐민과 함께 커큐민을 체내에서 흡수가 잘되도록 나노입자 형태로 변형한 '나노커큐민'을 유방암을 유발한 실험쥐의 유관에 주입한 결과, 탁월한 유방암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br/> <br/>이 자리에서 이재원 교수(부산대)는 "커리의 향신료인 커큐민은 산화적인 스트레스와 염증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며 "마우스 신경줄기 세포(Neural progenitor cells)와 성인해마신경발생에서의 커큐민의 기능을 실험해 본 결과, 낮은 농도에서도 세포 생장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에게 의해 강황에 함유돼 있는 커큐민과 향신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 암 예방과 의학적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등이 발표됐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으면 날아가는 느낌? 알고보니 "당신은 콜라를 단순히 음료수로만 생각하는가?" 강남 한복판서 불타오른 람보르기니, 피해액이 무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나체 동영상·살인 인증샷…도 넘은 SNS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3.txt

제목: [정철어학원의 1분 SpeaKing!] Jenifer had her dog put to sleep yesterday.  
날짜: 2014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810015287720  
본문: A:Lucia, did you hear that Jenifer had her dog put to sleep yesterday? <br/> <br/>루시아, 어제 제니퍼가 그녀의 강아지를 안락사시켰다는 거 들었어요? <br/> <br/>B:Really? Why did she have to do that? <br/> <br/>정말요? 그녀가 왜 그래야 했던 거예요? <br/> <br/>A:Her dog had suffered from cancer for a long time. <br/> <br/>그녀의 강아지가 오랫동안 암을 앓았나 봐요. <br/> <br/>B:That’s so bad. So how is she doing now? <br/> <br/>너무 안 됐네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br/> <br/>A:She’s been in deep sorrow. <br/> <br/>깊은 슬픔에 잠겨 있죠 뭐. <br/> <br/>‘put something to sleep’은 ‘(병 들거나 다친) 동물을 안락사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br/> <br/>▶Key expressions <br/> <br/>She took her old dog to the vet and he put it to sleep. <br/> <br/>그녀는 그녀의 아픈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데려갔고, 그는 강아지를 안락사시켰어요. <br/> <br/>정철어학원 종로캠퍼스 Jenna 강사(iwillbe1030@daum.net) <br/> <br/>www.종로정철.com <br/> <br/>02)736-0530<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만녀'로 분장한 미녀, 소개팅 남성들 반응이 4급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왜 나랑 같이 자게?" 싱크홀에 삼켜진 어린소녀, CCTV 영상 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병원 이사장 등이 100편이 넘는 집단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4.txt

제목: 일교차 큰 환절기…제철음식으로 건강 관리하자  
날짜: 2014092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710015287130  
본문: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햇빛이 뜨거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를 비롯한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br/> <br/>이때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제철 재료 섭취로 면역력을 높여주면 좋다. <br/> <br/>이런 가운데 외식업계에서는 자연송이를 비롯한 가을 재료를 활용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메뉴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br/> <br/>웰빙 죽 전문점 본죽(대표 김철호)에서는 자연송이를 듬뿍 넣어 더위로 원기 회복 효과가 뛰어난 가을 보양메뉴 ‘자연송이쇠고기죽’ 판매가 한창이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자연송이는 콜레스테롤 감소, 암 세포 억제를 비롯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차이니즈 레스토랑 차이나팩토리는 가을을 맞아 자연산 송이를 이용한 신메뉴를 출시했다. 자연송이, 구운 마늘, 쇠고기를 굴 소스에 볶아낸 ‘자연송이 쇠고기 볶음’과 자연송이, 초고 등 버섯 4종, 새우, 키조개 등 다양한 해산물로 만든 ‘자연송이 해산물 볶음’ 총 2종이다. <br/> <br/>삼양그룹의 샐러드&그릴 레스토랑 세븐스프링스는 제철 과일과 치즈의 궁합이 잘 어울리는 가을 메뉴로 고객 입맛 잡기에 나섰다. 제철 해산물로 만든 가을 시푸드 샐러드를 추가해 메뉴를 풍성하게 구성했다. <br/> <br/>CJ푸드빌의 한식뷔페 계절밥상은 가을 대표 채소인 연근, 우엉과 도토리, 낙지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11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표 메뉴는 햇 연근을 바삭하게 튀긴 '연근 튀김'과 '우엉 주먹밥', '뿌리채소무침' 등이다. <br/> <br/>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과를 활용한 메뉴도 인기다. 사과에는 펙틴이 다량 함유돼 있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br/> <br/>파리바게트는 최근 국내산 사과를 주원료로 한 가을사과 제품 10종을 출시했다. 대표 제품인 ‘가을사과 케이크’는 상큼한 사과크림과 카라멜 푸딩이 어우러진 케이크로 탁구공 만한 크기에 ‘미니사과’를 통째로 얹어 사과함량이 40%에 달한다. <br/> <br/>카페 드롭탑은 새빨간 겉껍질에 노란색 반점이 있는 레드 딜리셔스 품종의 사과를 사용한 차를 선보이고 있다. 제철 사과는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만녀'로 분장한 미녀, 소개팅 남성들 반응이 4급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왜 나랑 같이 자게?" 싱크홀에 삼켜진 어린소녀, CCTV 영상 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병원 이사장 등이 100편이 넘는 집단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5.txt

제목: ‘iSAMS2014’, 일본서 한의학 세계화 꽃 피운다  
날짜: 2014092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610015283516  
본문: 한의학 세계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iSAMS2014’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br/> <br/>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올해로 10회째인 국제학술대회 ‘iSAMS’가 ‘침상연구의 새로운 방향 ; 기초 및 임상 연구’라는 주제로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 쇼와대학(School of Medicine, Showa University)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br/> <br/>‘iSAMS2014’가 개최되는 쇼와대학은 1928년 설립돼 현재 동경과 요코하마 지역 등에 8개 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다. 일본 내에 유일하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재활의학대학’등 4개 학부가 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경시내 최대의 임상병원을 가지고 있다. <br/> <br/>이번 ‘iSAMS2014’는 9개국 28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일본에서 동서양 의학의 융합과 약침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물들을 발표하는 등 명실상부 세계 의학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br/> <br/>그 기대만큼이나 9개국 28명의 석학들이 참석해 ‘침상연구의 새로운 방향 ; 기초 및 임상 연구’라는 주제로 한의학과 약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br/> <br/>특히 ‘iSAMS2014’ 대회장인 일본 쇼와대학 의과대학장 타다시 히사미츠 교수는 ‘혈액 유동성에 대한 침과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분교(UCI) 의과대학 존 롱허스트 교수는 ‘고혈압에 초점을 맞춘 침시술로 해석한 심혈관 메커니즘’ 연구를 발표한다. <br/> <br/>또 세계적인 신경학자인 스웨덴 캐롤린스카 의대 신경학부 쉘 푹세 명예교수와 독일 뷔르쯔부르그 대학 로버트 슈미트 명예 교수는 각각 ‘통증 조정에서의 침의 역할론’과 ‘통각(nociception)에서 만성 통증까지’라는 창의적인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br/> <br/>이와 함께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 캐런 필킹톤 박사는 ‘통증 침 치료에 관한 설득력 있는 증거 만들기’라는 주제로 침에 관한 논리적이고도 설득적인 결과 도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br/> <br/>아울러 한국에서는 대전대 유화승 교수, 동국대 이승덕 교수, 경희대 조성훈 교수, 원광대 주종천 교수 등이 참석해 한의학과 침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다. 특히 유 교수는 ‘암 치료에 있어서의 약침’이란 주제로 서양의학과 약침의 융합과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br/> <br/>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전 세계 의학계는 한국 한의학을 비롯한 각국의 전통의학을 주목하고 있고 미주나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나 아프리카까지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을 정도로 한의학이 세계 의학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부분들이 약침과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고 ‘iSAMS’가 개최되는 의미</span>”라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이번 ‘iSAMS2014’에서는 우수한 한의학 관련 연구업적 이뤄낸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많은 과학 연구자들에게 한의학과 관련한 연구동기 부여와 함께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의학 전반에 걸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AMS(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AWARDS의 7번째 시상식이 열린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급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왜 나랑 같이 자게?"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싱크홀에 삼켜진 어린소녀, CCTV 영상 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택시에서 만취女 강제추행 하던 男, 몇 분 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6.txt

제목: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삭발도 패션으로 승화…'삭발한 이유는?'  
날짜: 2014092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610015279462  
본문:   <br/> <br/>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br/> <br/>최근 방송을 통해 암투병 사실을 공개한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이 삭발 머리를 공개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br/> <br/>홍진경은 지난 9월 24일 열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성아의 업력 25주년 기념 파티에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 삭발한 머리에 비니를 쓰고 참석했다. <br/> <br/>이 가운데 행사에 함께 참여한 엄정화와 이영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진경과 함께 한 사진을 공개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br/> <br/>앞서 홍진경은 "암 투병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가발을 쓰고 있다. 가발을 쓰고 생활을 하니 항상 다들 너무나 궁금해 하셨는데 매번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다"며 "5년 후 내 모습에 대한 분명한 건 머리가 많이 자라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br/> <br/>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홍진경 너무 멋있어. 당당함이 좋아",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홍진경 씨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가발 안 써도 괜찮은 듯. 박수를 보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차기전투기 F-35 기술 이전 '핵심'은 쏙 빠져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싱크홀에 빠지는 어린소녀, CCTV 영상 '충격'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택시에서 만취女 강제추행 하던 男, 몇 분 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7.txt

제목: 홍진경, 가발 벗고 삭발 공개 '투병 중에도 당당함 빛나'  
날짜: 20140925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510015270405  
본문: 모델 겸 배우 홍진경이 가발을 벗고 민머리를 공개했다. <br/> <br/>홍진경은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성아 뷰티 업력 25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했다. <br/> <br/>이날 홍진경은 방송에서 늘 착용하던 가발을 벗고 삭발한 머리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삭발 헤어스타일에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 써 스타일을 완성했다. <br/> <br/>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머리에 쏠려 있었음에도 당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br/> <br/>홍진경은 지난달 26일 방송된 SBS 예능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 암 투병 중인 사실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br/> <br/>당시 그는 "치료를 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다. 눈썹도 빠지고 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졌다"면서도 "병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치료는 잘 끝났고 낫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차기전투기 F-35 기술 이전 '핵심'은 쏙 빠져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8.txt

제목: ‘120세 무병장수의 꿈’ 오송서 만나세요  
날짜: 2014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510015276165  
본문: 2014 오송 국제 바이오 산업엑스포가 26일 막이 오른다. <br/> <br/>25일 오송 바이오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엑스포는 충북도와 청주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 비용은 250억원에 달한다. <br/> <br/>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킨 천연기념물 제540호 ‘동경이’ 복제견. <br/>충북도 제공26일 오전 8시30분 KTX 청주 오송역 인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주공연장에서 엑스포 개막을 축하하는 개장식,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1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공군 블랙이글의 축하 비행과 비보이팀의 ‘생명의 비트’ 퍼포먼스, 신체의 움직임으로 빛과 소리를 연주하는 IT밴드 카타의 식전 공연이 예정돼 있다. <br/> <br/>엑스포는 주제전시 2개관, 체험 3개관, 산업 3개관과 인체탐험관, 체험학습센터, 야외체험장 등으로 구성됐다. 바이오미래관은 포스트 게놈 이후의 바이오 산업화 단계, 현황과 성과, 의료·의약·식량·에너지·융합기술 등 바이오 기술의 미래와 무병장수를 향한 인류의 꿈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서울대 수의과학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킨 천연기념물 제540호 ‘동경이’ 복제견도 볼 수 있다. <br/> <br/>주제영상관은 생명공학의 가치, 바이오산업이 가져올 아름다운 미래 세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보여주는 어드벤처형 영상관이다. ‘인류의 꿈, 바이오 라이프’라는 주제의 7분 분량 영상물에서 미래의 바이오 시대상을 미리 볼 수 있다. <br/> <br/>건강체험관은 생명 120세에 도전하는 바이오 미래 치료기술 체험 프로그램과 건강한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 한 방울로 간단하게 암과 심장병, 갑상선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br/> <br/>뷰티 체험관에서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K뷰티를 즐기고 바이오 융복합 화장품 등 미래의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다. 에듀체험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충북도립대가 진행하는 ‘재미있는 바이오 실험실’에서는 생명과학의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다. <br/> <br/>이 엑스포에는 국내외 297개 바이오 기업과 70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한다. 관람객은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2383억원, 부가가치 1089억원으로 전망된다. 4176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br/> <br/>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흐름과 성과는 물론 미래 가치를 집대성한 바이오엑스포장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차기전투기 F-35 기술 이전 '핵심'은 쏙 빠져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싱크홀에 빠지는 어린소녀, CCTV 영상 '충격'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택시에서 만취女 강제추행 하던 男, 몇 분 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69.txt

제목: 면역요법치료로 암환자 면역력 극대화  
날짜: 20140924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410015262955  
본문: 지난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30년 내에 암을 정복하기로 하고 암 치료 연구에 아낌없는 재정 지원을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할 동안에도 암은 정복되지 않았다. 미국 의학계에서 2기b~3기 스테이지 이상의 암에 대해서 현대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암 치료에 있어 현대의학은 크게 발전했고 암 치료율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br/> <br/>일본의 경우, 200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가 아닌 새로운 제4의 암치료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면역세포치료로 불리는 면역요법은 현재 일본 전역에 걸쳐 크고 작은 240여 병·의원에서 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다. <br/> <br/>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공인된 암 전문잡지· '암 선진의료(がんの 先進醫療)'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 사이트(www.gan-senshiniryo.jp)에 나와 있는 일본 내 세포배양 또는 치료 병원 리스트를 살펴보면 세포배양 전문기관 5개 중 유일하게 병원에서 배양과 세포치료를 하는 곳이 있다. <br/> <br/>암 전문 센신병원은 미국 FDA가 정한 엄격한 기준으로 설치돼 있는 세포배양실· CPC(세포처리센터)에서 병원장이자 배양책임자인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의 40년의 세포배양기술(일본 및 한국에서 특허로 인정)을 가지고 있다. <br/> <br/>'구라모치식' 5종복합면역요법은 5종의 면역세포를 동시에 배양해 면역세포간 네트워크를 형성· 팀플레이(Team Play)를 가능케 해 암환자의 체내에 투여함으로써 암 환자의 면역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배양 시 면역세포의 수는 200~500배로 증식·활성화되고 완성된 세포배양치료제는 환자의 몸 속으로 들어가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공격한다. <br/> <br/>의료기관마다 여러 세포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종합병원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라모치 박사의 5종복합면역요법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공동 임상연구도 진행도 병행하고 있다. <br/> <br/>현재는 5종복합면역요법보다 더욱 발전된 5종복합면역세포가 포함된 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치료가 있고, 특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치료'는 치료 받고 있는 암 환자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눈에 띄게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br/> <br/>DC-AIvac•CSC(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치료)는 구라모치 박사가 일본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로 개발한 암 줄기세포의 특이항원을 이용한 치료법이다.(대학병원과 공동임상 중) <br/> <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암 환자이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들이 본래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국의 암 환자는 (주)에스유 바이오(02-453-0901)를 통해 상담 또는 문의할 수 있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0.txt

제목: 서울대 약대 연구팀 “손상 뇌조직 보호하는 단백질 규명”  
날짜: 20140924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410015263169  
본문: 국내 연구진이 뇌수막의 즉각적인 회복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찾아내고 그 기능을 규명했다. 뇌를 둘러싸 보호하는 뇌수막은 손상되더라도 바로 재구축되는데, 이번 연구로 뇌수막 재생을 돕는 새 치료법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김규원(사진) 서울대 약대 교수팀은 이런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을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최근호 온라인판에 실었다. <br/> <br/>그동안 뇌수막 세포가 뇌 손상 부위 주변으로 이동해 재구축하는 사실을 확인됐지만, 이런 과정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았다. <br/> <br/>연구팀은 뇌손상 후 회복과정에서 암 억제 단백질로 알려진 ‘AKAP12’가 뇌수막의 재구축 과정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뇌손상에 따른 혈관손상으로 저산소 상태에 노출되면 뇌수막 세포에서 AKAP12 생성이 줄고, 이게 정상 뇌의 뇌수막에서 많이 발현되는 ‘TGF-β1’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쳐 뇌수막 세포가 병변주변으로 이동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저산소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혈관에서 새로운 혈관이 뻗어 나와 산소를 공급하면서 다시 뇌수막 세포의 AKAP12 생성이 회복된다. 이후 TGF-β1 단백질에 의해 손상부위 주변으로 새로운 뇌수막 구조가 재구축된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 뇌손상 환자의 뇌수막 재구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1.txt

제목: [재테크 특집] 한화생명  
날짜: 2014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410015259099  
본문: 한화생명이 여성만을 위한 차별화된 치명적 질병(CI)보장보험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을 판매 중이다. <br/> <br/>한화생명은 여성만을 위한 차별화된 치명적 질병(CI)보장보험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br/>한화생명 제공‘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중대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과 같은 치명적 질병 보장은 물론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특정 류머티스성 관절염, 중증 루푸스 신염,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여성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도 특약으로 평생토록 보장한다. 특히 상속자금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사망보장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br/> <br/>기존 CI보험은 CI진단자금으로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인 20%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40%까지 사망보장을 확대해 최대 120%까지 보장받도록 했다. 높은 보장급여에 비해 합리적인 보험료도 장점이다. 최저보험료 월 5만원이며, 비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갈수록 늘어나는 치매보장에 대한 고객 수요도 반영했다. ‘LTC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 치매상태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금액만큼의 간병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장, 성인병보장, 암보장, 재해·입원·수술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필요에 따라 골라 담을 수 있다. 계약 시에는 물론 가입 후에도 중도부가가 가능하다. <br/> <br/>아울러 노후자금에 대한 필요가 늘어날 때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전환기능,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상품운용도 가능하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2.txt

제목: 대장암 단일공 복강경 수술, 안전성 입증  
날짜: 2014092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410015262896  
본문: 대장암을 단 하나의 구멍으로 수술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 치료해도 수술의 안전성은 기존 복강경 수술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준기 교수가 주축이 돼 국내 최초로 7개 대학병원 대장항문 외과 의사들이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br/>  <br/>연구진은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장암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은 257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수술 중 합병증과 수술 후 합병증이 1.9%와 13.2%로, 기존의 복강경 수술의 7.4%와 16.2%와 차이가 없었다. <br/> <br/>환자들의 평균나이는 62.5±11.7세로 남자가 146명, 여자 111명이고, 대장암 병기별로는 0기 14명, 1기 57명, 2기 80명, 3기 102명, 4기 4명이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준기 교수가 단일공 복강경을 이용해 대장암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사진= 서울성모병원 제공) <br/> <br/>대장암 복강경 수술은 배를 열지 않고 배꼽과 복벽의 부위에 모두 5개의 구멍을 내어 몸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넣고 모니터를 보며 암을 제거한다. 복강경 수술은 큰 절개창이 필요한 개복수술보다 상처가 적어 수술부위의 감염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이 낮고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흉터가 작고 회복기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고 미용적으로도 보기 좋은 장점이 있다. <br/> <br/>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절개 부위를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 더 최소화 시킨 수술로, 1.5~2cm 길이로 절개 후 하나의 절개 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해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 <br/> <br/>김준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로 단일공 대장암 복강경 수술은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 절개부위가 작아 상처 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수술효과도 동일함을 증명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 연구는 미국 복강 내시경 수술학술지인 ‘Journal of Laparoendoscopic &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5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3.txt

제목: 고령 임신 증가로 임산부 암 발병도 ↑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310015256832  
본문: “요즘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령 임신의 증가로 임신 중 암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겠으나, 태아와 본인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br/> <br/>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석주(사진) 교수의 말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1994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병원을 찾은 임산부 4만7545명 중 91명이 임신 중 암 진단을 받았다. 1만명당 19.1명 꼴로 암 판정을 받았으니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1994∼1999년 암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12명에 불과했으나 2000∼2005년에는 33명, 2006∼2012년엔 46명이 각각 암 판정을 받았다. 10년 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br/> <br/>“종류별로 살펴보면 자궁경부암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방암 16명, 소화기암 14명, 혈액암 13명, 갑상선암 11명 등 순서로 나타났죠.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를 감안하면 임신 중 암 발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암은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최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암에 걸린 임산부 91명 중 출산을 포기한 이는 21명에 그쳤다. 나머지 70명은 그대로 임신을 유지했고, 출산도 무사히 마쳤다고 한다. 이 70명 가운데 44명은 출산 후에 비로소 치료를 받았지만 26명은 임신 도중 수술과 항암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신 중 암을 진단받아도 아이와 산모 모두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있으니, 임산부라고 해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무조건 참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산부도 암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태훈 기자<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4.txt

제목: 암 사망률 1위는 폐암…10만명당 34명  
날짜: 20140923  
기자: 이상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310015253777  
본문: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질환이 2위, 심장질환이 3위로 나타났다. <br/> <br/>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7만533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8.3%를 차지했다. 2012년에도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br/> <br/>2위는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다. 2만5447명으로 2012년 2위를 기록했던 '심장질환'(2만5365명)을 앞질렀다. 심장질환 사망자는 전체의 9.5%로 원인별 사망원인 3위를 기록했다. <br/> <br/>이에 따라 3대 사인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은 전체사인의 47.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47.1%보다 0.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br/> <br/>10년전인 2003년과 비교해서는 3대 사인은 순위가 같았으나 ▲고의적 자해(5위→4위) ▲폐렴(12위→6위)은 순위가 상승했다. <br/> <br/>반면 ▲당뇨병(4위→5위) ▲간 질환(6위→8위) ▲운수 사고(8위→9위) ▲고혈압성 질환(9위→10위)은 하락했다. <br/> <br/>암 사망률에서는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고 간암, 위암이 뒤를 이었다. <br/> <br/>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149명꼴로 나타났으며 폐암은 34명, 간암은 22.6명, 위암은 18.2명을 기록했다. <br/> <br/>성별로는 남자는 폐암(49.5명), 간암(33.3명), 위암(23.7명)순, 여자는 폐암(18.4명), 대장암(14.2명), 위암(12.6명)순이었다. <br/> <br/>연령별로는 30대가 위암이 가장 많았고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높았다. <br/> <br/>10대는 백혈병이 10만명당 0.8명, 뇌암이 0.8명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백혈병 1.0명·위암 0.5명, 30대는 위암 3.0명·유방암 1.9명·간암 1.9명 순이었다. <br/> <br/>또한 40대는 간암 10.8명·위암 7.7명·유방암 5.6명, 50대는 간암 33.7명·폐암 24.2명·위암 18.5명, 60대는 폐암 86.4명·간암 65.7명·위암 37.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br/> <br/>질병외 사망률은 자살(28.5명), 운수사고(11.9명), 추락사고(4.6명) 순으로 나타났다. <br/> <br/>남성은 자살 39.8명, 교통사고 17.4명인데 반해 여성은 자살 17.3명, 교통사고 6.4명 등으로 집계됐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5.txt

제목: 에스터-C 비타민의 이유 있는 돌풍  
날짜: 20140923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310015252103  
본문: 최근 비타민C의 수요 증가로 츄어블이나 분말형태의 비타민C· 비타500과 같은 드링크류· 원산지를 강조한 고려은단 비타민C 등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C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br/> <br/>하지만, 높은 함유량에 비해 체내 흡수율 및 이용률이 낮은 제품을 복용하거나 비타민C를 과다복용할 경우 복통이나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체외 배설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요로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JTBC ‘닥터의 승부’를 통해 알려진 '에스터-C' 비타민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허 받은 비타민C인 에스터-C는 기존 비타민C의 문제점을 해결해 체내흡수율 및 이용률이 높고, 위장의 불편함 없이 흡수할 수 있다. 또 비타민C의 체외 배출이 적어 결석에 대한 우려가 적다. <br/> <br/>이 같은 장점 덕분에 에스터-C는 닥터의 승부 방송 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며 '변정수 비타민'으로 유명세를 탔다. <br/> <br/>이날 방송에서 외과 강세훈 원장은 "갑상선암 등 암 예방에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며 “비타민C 섭취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산도가 강한 비타민C는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공복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고함량 제품이 아닌 체내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br/> <br/>강 원장은 또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굳이 식후가 아니더라도 운동 전 간편하게 섭취하는 데에는 에스터-C 형태로 된 비타민제가 좋다"며 "뿐만 아니라 에스터-C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현저히 적어 옥살산결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전했다. <br/> <br/>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은희 원장은 “비타민 연구 중에 산화가 덜 되고 안정적이며 조금만 섭취해도 체내에 오래 잔존해 흡수율이나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에스터-C다"며 "에스터-C는 24시간 이상 백혈구 내 남아 활동해 감기에 좋은 예후를 보인다거나, 혈청 내 비타민 C 농도를 2배를 유지한다. 논문에 따르면 에스터-C 섭취 그룹이 감기에 덜 걸리고, 감기를 겪는 기간이 1.3일 더 적어 빨리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6.txt

제목: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하루 평균 40명 '자살'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310015256099  
본문: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폐렴 사망자가 늘었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br/> <br/>23일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은 1만4427명으로 1년 전보다 1.9%(267명) 늘었다. 하루 평균 39.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8.5명으로 전년(28.1명) 대비 1.5%(0.4명) 증가했다. 자살 사망률은 10년 전인 2003년 22.6명에 불과했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1.0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2012년 28.1명으로 떨어졌으나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br/> <br/>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연령구조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12년 기준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20명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헝가리(22.0명)와 일본(20.9명)뿐이다. OECD 평균은 12.1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br/> <br/>지난해 남자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9.8명으로 여자(17.3명)의 2.3배였다. 전년과 비교해 30대(27.3→28.4명), 40대(30.9→32.7명), 50대(35.3→38.1명)는 자살률이 높아졌고 나머지 연령대는 낮아졌다. <br/> <br/>지난해 사망 원인은 암(인구 10만명당 149.0명), 뇌혈관질환(50.3명), 심장질환(50.2명), 자살, 당뇨병(21.5명) 순이었다. <br/> <br/>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와 50세 이상은 암이 사망 원인 1위였고, 나머지 10대, 20대, 30대는 자살이 1위였다. <br/> <br/>사망원인별로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폐렴(인구 10만명당 20.5→21.4명)과 폐암(33.1→34.0명)으로 0.9명 늘었다. 반면 만성하기도질환(-1.6명), 호흡기결핵(-0.4명), 운수사고(-1.0명) 등은 줄었다. <br/> <br/>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26만6257명으로 전년보다 964명(0.4%) 감소했다. 연간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12년 한파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해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7.txt

제목: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규제완화 논란 재점화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310015256250  
본문: 정부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명공학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 대 생명윤리’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br/> <br/>정부 관계자는 23일 “<span class='quot0'>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의 1차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br/> <br/>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중 1단계 임상시험 면제 대상은 자가줄기세포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br/> <br/>시민단체와 의료윤리학자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span class='quot1'>줄기세포는 몸속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span>”이라고 비판했다. <br/> <br/>복지부가 추진 중인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도 문제다.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질환·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두 조건 가운데 한 경우만 해당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제는 1990년대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아직 임상시험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기술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아직 인간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br/> <br/>정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 33조원 규모에서 2020년 123조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유전자 치료제도 같은 기간 10조원에서 21조원으로 시장이 확대할 것이라며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아직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산출된 시장 규모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br/> <br/>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경찰청이 최근 경찰견의 복제사업에 황우석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선정하면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날 “<span class='quot3'>특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을 복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차라리 외국의 다양한 특수견을 구입해 자연교배를 통해 경찰견을 확보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과학적</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8.txt

제목: 생명나눔한의원의 안소미 원장, 한방암치료를 통한 폐암의 호전가능성  
날짜: 2014092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210015239021  
본문:   <br/> <br/>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인 81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죽기 전 암에 걸릴 확률은 36%다. 즉 암은 어느 유명인의 얘기도, 운이 아주 나쁜 누군가의 일도 아닌 나를 포함한 주변인 3명중 1명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됐다. 물론 최근 조기진단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 환자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폐암’만큼은 얘기가 틀리다. <br/> <br/>◆ 증상이 나타났다면, 말기일 가능성 높아 <br/>폐암은 진단 뒤 대부분 1년 안에 죽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암이다. 폐에서 비정상적인 암 세포가 무절제하게 증식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폐에 국한되어 발견되기도 하지만 진행이 빠르고, 반대쪽 폐 뿐 아니라 임파선,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br/> <br/>폐암은 그 자체로도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쁜 암으로, 더 심각한 것은 폐에 감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br/> <br/>한방 암 치료 전문 생명나눔한의원의 안소미 원장은 “<span class='quot0'>폐암은 무증상부터 단순한 기침, 전이로 인한 전신 증상까지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 이미 전이가 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 고 위험군은 평소 내가 폐암이 아닌지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횡격막 탄력 회복, 폐암 극복에 도움 <br/>생명나눔한의원에서는 폐암의 일차적인 원인을 ‘횡격막의 탄력저하’에서도 보고 있다. 사람의 노화는 횡격막의 탄력의 정도와 반비례하는데, 호흡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하는 구조물로써 고무풍선 같은 이완과 수축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 노화로 인해 횡격막이 느슨해지면 자연스럽게 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br/> <br/>안소미 원장은 “<span class='quot0'>암 환자들을 보면 자세가 유난히 구부정하거나 혹은 횡격막의 긴장이 지나치게 심해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여성들의 경우 하이힐 통굽 등 굽이 있는 신발을 오래 신는다던가, 쪼그리고 앉아서 가사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횡격막이 탄력을 잃는 요인이 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최근 생명나눔한의원의 ‘산삼생명단’ 치료가 폐암에서 치료효율이 높은 것은 소변반응이 있을 때 복압을 상승시켜 상하부 횡격막의 탄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br/> <br/>안 원장은 “<span class='quot0'>우리 병원에서는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이는 한약들을 연구해왔는데 그 결실이 바로 산삼생명단</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말기암과 재발암에서 부작용의 우려를 걱정했던 환자들에게도 독성을 배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폐암에 있어서 산삼생명단의 효과는 기침감소, 호흡곤란 진정, 암세포 사멸, 흉수 감소, 전이방지, 통증감소, 식욕 증진 등의 효능으로 말기 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암 환자의 기본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이다. <br/> <br/>끝으로  안 원장은 “폐암은 단순한 감기처럼 가볍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효과가 높은 치료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인 만큼 더더욱 면역력을 키우고 암성 체질과 암을 유발하는 체형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치료해야 한다.“ 고 설명하며 ”특히 노년기의 여성폐암환자는 근육의 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욱 면역과 자세를 바로잡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돈 어디로…" 제아 문준영, 소속사 비판 티파니 태연, '19금 댄스' 눈을 어디에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아시안게임 선수촌 콘돔 하루 5천개나 동나는 이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79.txt

제목: 성공적인 가슴축소수술과 한방가슴축소  
날짜: 20140922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210015243673  
본문: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에 의하면, 하루 3잔 이상의 커피가 가슴 크기를 줄이고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br/> <br/>스웨덴 룬드대학의 종양학 겸임교수인 헬레나 예른스트럼은 커피를 즐겨 마시는 신체 건강한 여성 270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가슴 크기의 관련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커피가 가슴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카페인은 유방 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며, 신체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슴 크기를 작게 만든다. 더불어 그는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도 함께 발표했다. <br/> <br/>최근 중년 이후에 발병한다고 생각했던 유방암이 젊은 층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5~34세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 유방암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지난해 국립암센터는 발표했다. <br/> <br/> <br/>지방이 많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부족 등이 질병의 유형도 바꿔 놓고 있다. 가슴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거대유방증’을 앓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br/> <br/>거대유방증을 미용상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준다. 거대유방증 여성들은 무거운 가슴 때문에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무리가 가서 목, 어깨,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 가슴 밑 피부가 마찰돼 습진이나 짓무름 등 피부 질환을 앓는 여성들도 많다. <br/> <br/>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축소 수술의 부담과 수술 후 남는 흉터 문제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근 수술 없는 한방가슴축소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r/> <br/>가슴 크기를 줄이는 치료의 기원은 조선시대 동의보감에 하고초와 왕불유행 등의 약재가 유선의 증식을 억제하고 가슴을 지속적으로 줄여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더불어 음식으로는 식혜가 모유 수유를 중단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런 내용이 임상 실험을 통해 확인되면서 가슴축소의 대안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있다. <br/> <br/>한방가슴축소 치료를 주로 하는 팰리스한의원 송진호 원장은 “한방 가슴 축소의 경우, 수술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포기했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오일디톡스, 유선축소환, 축선약침, 축유탕 등의 치료법이 추가되면서 리프팅 효과를 포함해 가슴 축소 치료 효과가 더욱 좋아졌다. 한두 컵 축소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4-5Kg의 다이어트를 병행한다면, 두 컵 이상의 축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br/> <br/>전문가들은 한방가슴축소가 단순히 지방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유선의 퇴화를 유도한 치료를 병행하기에, 체중이 빠져도 가슴이 줄지 않아 고민이 많은 여성들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치료라고 조언했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0.txt

제목: '왔다 장보리', 2회 연장 확정…"'국민 암 유발녀' 이유리 더 볼 수 있다"  
날짜: 2014092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2210015246240  
본문:   <br/> <br/> <br/>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앞서 알려진 것과 달리 1회가 아닌  2회 연장으로 종영한다. <br/> <br/>2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방송 관계자측은 "'왔다 장보리'가  2회 연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br/> <br/>앞서 MBC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중계방송으로 한 회가 결방될 가능성을 대비,1회 연장을 논의 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회분을 연장을 최종 결정 하면서 50회에서 2회 늘어난 52회로 종영한다. <br/> <br/>하지만 종영 날짜는 아시안게임 중계로 편성이 유동적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 <br/> <br/>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는 전국 기준 37.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 기록을 했다. <br/>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대생들 "외박하려면 부모님께 전화부터…" "20분 코스는 예약 끝"···'변종 성매매' 도심 점령 '핫팬츠에 가슴골까지' 대학축제 과열된 노출 경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펜싱 金' 전희숙, 왕배와 5개월째 열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1.txt

제목: [기고] 청백리 오리대감이 남긴 가르침  
날짜: 2014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810015223266  
본문: 현재 정부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관료병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이라는 공무원의 관료적 습성을 타파하기 위한 ‘관료병 혁파론’이 제기되고 있다. <br/> <br/>행정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제럴드 케이든 교수는 ‘관료병’이란 부도덕, 병폐, 질병 등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관료병의 한 요소인 범죄는 관료질병이다. 관료병은 관료들의 불안, 근심 등으로 평안함이 결여된 상태로 일종의 정신병이다. 기분이 우울하면 항암기능이 20% 감퇴한다. <br/> <br/>브라질의 한 연구진은 538명의 부패관료와 동일한 숫자의 청렴한 관료를 비교 조사한 결과 부패관료의 60%는 뇌출혈, 암, 심근경색 등의 질환에 걸렸지만 청렴한 관료는 발병률이 16%에 불과했다. 수뢰 혐의 등으로 체포된 고위 관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br/> <br/>중국의 건강교육 전문가인 훙샤오광 교수는 “<span class='quot0'>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span>”이라고 강조하고 “<span class='quot0'>모든 부패 관료들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span>”고 했다. 그가 부패 관료 1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41세였으며, 10년 후 15명이 질병에 걸려 그중 6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br/> <br/>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관료병이란 공직 내 관료개인의 직무·직책과 관련된 의식적이고 부당한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비윤리적 행태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료병이란 공직규범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의도적인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탐욕적 범죄이며, 권력남용의 결과로서 제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관료개인의 정신적인 탐욕 증후군으로 정의된다. <br/> <br/>이처럼 탐욕이 인간을 죽이기 때문에 선인(先人)들 중 당태종의 어의 손사막은 오욕칠정을 버리라고 했고, 원나라의 어의였던 홀사혜는 음식을 소량 섭취하고, 말을 적게 하며, 탐진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명나라 세종 때 어의 고정방도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고 했다. 청(淸)은 무욕(無慾)이며, 탁(濁)은 유욕(有慾)이다. 유가적 처방과 치유로서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방법실천’을 통해 관료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 <br/> <br/>특히 관료병의 역기능 진단과 치유방안과 관련해 조선 중기 영의정 오리(梧里) 이원익은 개인적 심신 수양관 측면에서의 수양의 핵심으로 부동심(不動心)과 완평(完平)을 실천했다. 완평심(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 오리의 덕은 한마디로 지칭할 수 없으나 도에 합치되고, 청렴했다. <br/> <br/>광명에 오리 청렴체험교육관이 내년 개설된다고 한다. 공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리 정신을 체험해 관료병을 줄이거나 예방하고 부동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정신가치를 전수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br/> <br/>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업 중 여학생 다리 속 찰칵…'늑대 선생님' '하의 안 입은 듯' 女사이클팀 유니폼 보니··· 군인처럼 숲 속에 매복했다가 경찰 오자···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아시안게임 선수촌 콘돔 하루 5천개나 동나는 이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2.txt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암환자 통합치유 프로그램 개설  
날짜: 20140917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710015208791  
본문:   <br/> <br/># 이선미(가명 ? 여, 42)씨는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와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피로감, 손발저림, 전신근육통, 탈모 그리고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왔다. <br/> <br/>이 씨는 항암치료 휴식기 동안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의 통합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다. <br/> <br/>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암센터는 최근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br/> <br/>17일 강동경희대병원에 따르면 통합치유 프로그램의 치료대상은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치료 휴식기를 갖고 있는 암환자, 암성 피로나 식욕부진, 암성 통증 등의 불편한 증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진 환자들이다. <br/> <br/>암환자들은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과 함께 항암치료로 인해 불안, 우울감 심지어 수면장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계를 교란시켜 암의 예방과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r/> <br/>통합치유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범주의 프로그램으로 암환자의 불안, 우울, 수면장애 및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유명상, 한방음악치료, 감정자유화 기법’, 암환자의 신체기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기 위한 ‘산책, 운동, 기공요법’, 암환자의 저체온증과 면역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원적외선을 이용한 ‘공진요법, 암의 치료와 예방에 관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양생식이교육과 운동 교육‘ 등 2주 입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br/> <br/>통합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는 항암치료 부작용 감소, 항암치료의 회복기간 단축, 항암치료의 효과 상승 등을 경험할 수 있다. <br/> <br/>실제로 말기 암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진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중요한 독립인자라는 것을 밝혔다. <br/> <br/>또한 항암치료를 받은 566명의 노인 폐암 환자에게서 삶의 질과 신체기능이 좋을수록 생존기간이 길었다는 이탈리아 의료진의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 <br/> <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한방내과) 윤성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암의 치료는 물론 삶의 질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본 프로그램은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치료 휴식기를 갖고 있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숙대 교수 "밤일 나가냐, 뛰어 내려 죽어라" 폭언 "일은 내가 하는데 부모 학력이 무슨 상관이죠?" 강병규, 이병헌 겨냥? SNS에 "게임은 끝났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3.txt

제목: 수술 까다로운 인환세포암 환자, 수술 전 고려 사항은?  
날짜: 20140917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710015210719  
본문: 지난 7월 내시경검사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한 40대 남성 이모 씨는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 PET 검사를 거쳐 위암 3기 Signet Ring Cell Type을 진단 받았다. <br/> <br/>식도 접하부에서 근위부 약 1.5cm 침범, 분문부 주위를 4~50% 가량 둘러 싸는 궤양 침윤· 전정부와 체부에 위축성 점막변화를 보여 이 씨는 전절제술을 권유 받았으나 후유증과 전이에 대한 부담으로 결정을 미뤄왔다. <br/> <br/>이 씨는 “위암이 3기에다 인환세포라 전이가 잘된다고 들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전이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br/> <br/>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이 씨는 가족과 상의 끝에 수술을 보류하고 암치료 한방병원을 찾아 한방암치료를 시작했다. 한방암치료는 한의학의 기전을 바탕으로 질병 부위 뿐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체계 회복에 중점을 둬 치료하는 것으로 전이·재방 예방을 원하는 환자·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후유증을 겪는 환자나 병기가 상당히 진행돼 서양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주로 찾고 있다. <br/> <br/>이 씨 역시 국소적 치료는 전이, 재발의 가능성을 남기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방암치료를 선택,치료 경과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한방암치료 시행 12주 후 내시경 결과에서 위 내시경상 보이던 종양이 소실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br/> <br/>이 씨의 치료를 담당한 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대표원장은 “한방암치료는 환자의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 치료할 수 있다"며 "환자의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극대화하면 암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숙대 교수 "밤일 나가냐, 뛰어 내려 죽어라" 폭언 "일은 내가 하는데 부모 학력이 무슨 상관이죠?" 강병규, 이병헌 겨냥? SNS에 "게임은 끝났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4.txt

제목: 한국인 자살·위암·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고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610015203732  
본문: 우리나라의 자살·위암·교통사고(운수)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2012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10년에 비해 28.2%(약 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br/> <br/>위암 사망률은 2012년 23.4명으로 10년 전(42.8명)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칠레(27.9명)와 일본(25.4명)에 이어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체 암 사망률은 29위,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32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평균(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명당 1054.6명에서 2012년 753.8명으로 28.5%나 감소했다. <br/> <br/>우리나라 2012년 사망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10대 원인 가운데 1위는 암으로 7만3759명이 숨졌고, 이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2만6442명, 2만5744명이다. 자살은 그 뒤를 이어 1만4160명으로 당뇨병 1만1557명 보다 많았다. 운수사고는 6502명으로 9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숙대 교수 "밤일 나가냐, 뛰어 내려 죽어라" 폭언 "일은 내가 하는데 부모 학력이 무슨 상관이죠?" 강병규, 이병헌 겨냥? SNS에 "게임은 끝났다"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5.txt

제목: 뮤지컬 배우 전수경 “예비 남편 첫 만남 때 ‘암 투병’ 고백”  
날짜: 2014091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610015198462  
본문: 뮤지컬 배우 전수경과 그의 예비 남편 에릭 스완슨이 ‘택시’에 오른다. <br/> <br/>이영자가 혀를 내두를 만큼 ‘연애 쑥맥’이었던 전수경은 최근 진행된 케이블채널 tvN ‘현장토크쇼 택시’ 녹화에서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두 사람이 호텔에 꾸민 신혼집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전수경은 갑상선암을 선고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예비 남편을 만났다. 수술 후 항암치료 전 에릭을 만난 전수경은 그의 첫인상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 이에 솔직하게 ‘암 투병’ 사실을 털어놓은 전수경. 그럼에도 에릭은 전수경을 이해하고, 오히려 홀로 치료받아야 하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로 감동을 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영자는 에릭에게 “<span class='quot0'>첫 만남 당시 갑상선암이라는 얘기에 놀라지 않았냐</span>”고 물었다. 이에 에릭은 “<span class='quot1'>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은 힘든 시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어머니 또한 암이셨고, 간병을 해봤기에 오히려 전수경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span>”고 답했다. 에릭은 전수경의 암을 전혀 마음의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br/> <br/>한편 녹화는 두 사람의 신혼집에서도 진행됐다. 현재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는 에릭이 몸소 꾸민 호텔 내 신혼집이 공개된 것이다. 호텔 신혼집과 달달한 이야기가 펼쳐질 ‘현장토크쇼 택시’ 347회는 16일 자정을 넘긴 오는 17일 오전 12시20분에 방송된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CJ E&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섹스인형'에 경찰 대거 출동, 상황 알고보니… 강병규, 이병헌 겨냥? SNS에 "게임은 끝났다" "뽀뽀하기 좋은 입술~" 제자 상습 추행한 교사 결국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6.txt

제목: [이코노 브리핑] 이니스프리 ‘생녹차수 기술’ 인증 외  
날짜: 2014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510015194386  
본문: 이니스프리 ‘생녹차수 기술’ 인증 <br/> <br/>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 이니스프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린티 라인’ 제품의 핵심원료를 추출하는 ‘생녹차수 기술’이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제품·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기 위해 2010년 시행한 인증제도다. <br/> <br/>연내 증권사서도 은행계좌 개설 <br/> <br/>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라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사 간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토록 해 은행 등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br/> <br/>우리銀 명동성당 영업점 개설 <br/> <br/>우리은행은 명동성당 앞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신청사에 서민금융 전담 영업점인 ‘우리희망나눔센터’ 가톨릭점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희망나눔센터는 서민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점포로, 지난해 5월 서울 상계동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새희망홀씨대출 등을 판매한다. <br/> <br/>신한유니버설 6대 종신보험 출시 <br/> <br/>신한생명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에 더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말기 3대질병(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신한유니버설6대 건강종신보험(사진)’을 15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6대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를 선지급하고, 미진단 시 사망보험금 100%와 유족위로금 30%를 지급한다.<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섹스인형'에 경찰 대거 출동, 상황 알고보니… 강병규, 이병헌 겨냥? SNS에 "게임은 끝났다" "뽀뽀하기 좋은 입술~" 제자 상습 추행한 교사 결국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7.txt

제목: [재미난 융합과학 이야기] (39) 로봇으로 암을 치료한다  
날짜: 2014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410015183677  
본문: 정상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분열하거나 다른 세포와 접촉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지만 세포 주기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분열을 계속하게 된다. 이렇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해 증식하면 다른 세포들 위로 여러 층을 이루며 세포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를 종양이라고 한다. 일부 종양은 혈관 속으로 들어가 다른 부위까지 이동해 또 다른 종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를 전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이를 일으키는 종양을 암이라고 한다. <br/> <br/>암세포는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정상신호를 무시한다. 또 배양 중에 밀도 의존성 억제를 보이지 않으며, 성장 인자가 부족해도 분열을 멈추지 않는다. 암세포는 필요한 성장인자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신호 전달 경로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양 상태에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기만 하면 분열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한 암의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부 종양은 외과수술을 통한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암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 방사선 요법을 병행한다. 방사선은 염색체를 손상시켜 세포주기가 중단되도록 한다. 따라서 암세포처럼 분열하고 있는 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방사선에 훨씬 민감하다. 부작용은 방사선이 조사된 부위의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것, 탈모현상, 극심한 피로와 무력감, 구역질 등이 있다. <br/> <br/>화학요법은 몸 전체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에는 DNA를 손상시키거나 DNA 복제를 억제하는 것,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저해하는 것 등이 있다. 부작용은 약제에 의해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도 파괴될 수 있는 점이다. <br/> <br/>요즘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로봇을 이용한 외과수술이 각광받고 있다. 로봇수술은 위암과 대장암, 방광암, 자궁암 등 여러 가지 암의 수술에 적용하게 되었다. 로봇수술은 환자의 몸에 뚫은 구멍 안에 수술용카메라와 로봇팔을 넣어 의사의 원격조종에 의해 진행된다. 의사는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암이 있는 부위를 10∼15배 크게 볼 수 있으며, 의사의 손동작이 로봇팔에 그대로 전달돼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된다.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수술 방법보다 절개부위가 작아 출혈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수술 시간이 짧아 통증이 덜하며 회복이 빠르다. 또 암을 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 암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 <br/> <br/>미래엔 올리드 과학팀<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독] 전자발찌 부착 대학생 2개월만에 또 성추행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눈물나고 미칠 것 같다" 아기 자지러져 살펴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30대男, 부인 폰으로 여고생에 음란영상 보냈다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8.txt

제목: 수에즈운하 기념우표에 파나마 운하사진이?  
날짜: 2014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410015183861  
본문: 이집트가 수에즈운하 확장 프로젝트를 기념해 발행한 우표에 수에즈운하가 아닌 파나마운하 사진을 싣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br/> <br/>13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집트 우편국은 기념우표 3종중 한 우표에 이집트 지도와 함께 운하의 사진을 담았다. 우표가 공개되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암로 알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파나마운하 사진과 함께 우표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파나마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운하다. <br/> <br/> 수에즈운하 프로젝트 기념 우표(왼쪽)와 파나마운하 사진.우표 속 운하는 파나마운하와 거의 똑같다. 무엇보다 우표 속 운하는 바다로 이어지는 2개의 수로가 있지만 실제 수에즈운하의 수로는 하나밖에 없다. 알리는 “이집트가 파나마운하 사진을 훔쳤다”며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br/> <br/>이집트 정부 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span class='quot0'>오류를 수정해 다음 주 우표를 다시 발행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이집트 정부는 지난달 총 공사비 84억달러(약 8조7000억원) 규모의 수에즈운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br/> <br/>이진경 기자<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독] 전자발찌 부착 대학생 2개월만에 또 성추행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눈물나고 미칠 것 같다" 아기 자지러져 살펴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30대男, 부인 폰으로 여고생에 음란영상 보냈다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89.txt

제목: [단독][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한국, 원인불명 사망률 OECD1위  
날짜: 2014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410015183683  
본문: 대한민국은 사인불명의 나라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한 해 사망자 10% 이상이 ‘원인불명’으로 사망처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원인불명 사망률 1위’다. <br/> <br/>이는 국민의 마지막 인권을 지키는 검시체계 전반에 걸쳐 사망진단서 부실 발급, 검안·부검 체계 혼선 등 그야말로 적폐가 정치권 무관심, 부처 칸막이 속에 방치됐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근대국가 국민복지의 최종 목표가 우리나라에선 표류 중인 것이다. <br/> <br/>사인 규명은 인권 보호와 보건·사회 발전의 중대 과제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통일된 기준으로 사인(死因·death cause)을 분류하는데 최대 1만2000여개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같은 상세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망자는 의사의 사망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인 불명은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br/> <br/>세계일보가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에 기초한 통계청 2012년 사망원인통계 원자료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사망자 26만7221명 중 2만8838명(10.8%)의 사인이 불명확했다. 이는 ‘분류기호 R코드’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증후에 의한 죽음’ 2만5016명에 급성심장사,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등 기타 불명확한 병태에 의한 사망을 더한 결과다. <br/> <br/>만약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 사망원인 순위에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빠지는 ‘원인불명’을 넣으면 암(7만3759명)에 이은 국민 제2의 사망원인이다. <br/> <br/>빈부 격차는 죽음에도 예외가 없었다. 원인 불명 죽음을 들여다본 결과 역시 병원보다 병원 밖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고, 학력이 낮거나 혼자 산 이들이 많았다. 무관심과 소외의 사각지대에서 원인 미상 사망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인 미상 사망자 79.7%(2만2975명)는 의료기관 바깥에서 사망했다. 전체 사망 인원(26만7221명) 중에서 의료시설 내 사망이 70.1%(18만7253명)인 것과 반대다. <br/> <br/>‘병원 밖 사망’에는 주치의에 의한 사망진단서 대신 시체검안서가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사가 쓰기 마련인 시체검안서는 사인이 ‘심박정지’ 등으로 불명확할 가능성이 크다. <br/> <br/>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원인 불명 사망 비율을 비교한 결과 부산(6.4%), 울산(7.2%), 세종(7.7%)이 가장 적었다. 부산과 울산은 이례적으로 검안서 작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의학자가 민간 법의의원을 차려 검안서 대부분을 꼼꼼히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전체 원인 불명 사망자 수가 적어진 것이다. <br/> <br/>왜 죽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묻힌 이들은 소외계층일 가능성도 컸다. 전체 사망자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47.5%(12만6998명)이었지만 원인 불명 사망자 중에서는 33.3%(9599명)만 남편·부인이 있었다. 학력에서도 전체 사망자 중 57.7%인 무학·초등학교 학력자 비중은 원인 불명 사망자 중에서는 69.4%로 늘어났다. 소외계층은 죽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서러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br/> <br/>원인 불명 사인에도 종류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노쇠'(51.8%·1만4946명)다. 고령층이 병원 밖에서 사망하면 전신 기능 쇠약으로 인한 노쇠로 사망했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아서다. 사실상 '노인이라서 뚜렷한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알 필요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선 친족에 의한 살인이 가장 흔한 만큼 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br/> <br/>다른 원인 불명 사인에는 '기타 불명확하고 상세 불명의 사망 원인'(15.8%·4536명), '급성 심장사로 기술된 것'(7.1%·2043명), '지켜본 사람이 없었던 사람'(6.1%·1753명), '원인 미상의 기타 급사'(3.5%·1014명)가 뒤따랐다. <br/> <br/>선진국은 대체로 원인불명 사망률이 낮다. 세계일보가 OECD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R코드로 분류된 원인불명 사망자수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100.4명, 2011년 90명, 2012년 85.8명으로 연속 1위였다. 다른 나라는 2010년 기준 포르투갈 81.8명, 그리스 80.3명, 폴란드 71.1명 등이 많고 일본 30.3명, 독일 23.3명, 스페인 20.2명, 영국 14명, 미국 12.5명, 캐나다 7명, 호주 3.9명 등이다. <br/> <br/>원인불명 사망이 많다는 것은 보건이 나쁘거나 사인을 밝히려는 국가·사회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WHO는 “<span class='quot0'>원인불명 죽음 뒤에는 진짜 사인이 숨어있다</span>”며 ‘65세 미만 사망자는 R코드 사인 비율 5%, 65세 이상은 10% 이하’를 상한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미만 5.7%, 65세 이상 10.8%로 이를 초과한 상태다. <br/> <br/>원인불명 사망자가 많은 건 부실한 검시체계 때문이다. 이를 연구한 구향자 통계청 통계실무관과 이태용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span class='quot1'>분석 결과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으로 검시제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선정됐다</span>”며 인우증명 폐지, 검시대상 사망종류의 명문화, 시체검안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br/> <br/>▷ 관련기사 <br/> <br/>[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억울한 죽음 만드는 엉터리 검안서 <br/> <br/>[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진단·검안서 76% 오류…행정력 낭비·사망통계 질 저하 <br/> <br/>[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유병언에 덴 경찰… 뒷북 변사대책 <br/> <br/>[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사인불명의 나라 <br/> <br/>[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변사자 분류 되면 수사기관서 맡아 처리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독] 전자발찌 부착 대학생 2개월만에 또 성추행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소식에 패닉 "눈물나고 미칠 것 같다" 아기 자지러져 살펴보니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30대男, 부인 폰으로 여고생에 음란영상 보냈다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0.txt

제목: [새로 나온 책] 사소한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다 외  
날짜: 201409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310015179479  
본문: 사소한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다(랑가 요게슈바어 지음, 이미옥 옮김, 에코리브로, 1만7000원)=“우유를 가열하면 왜 막이 생길까”, “소화기는 어떻게 작동할까”, “해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등 일상에서 건져낸 소소한 질문 99가지에 대한 답을 과학으로 재밌게 풀어낸 책이다. 얼핏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저자는 질문은 저마다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것에 답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br/> <br/>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차병직 지음, 창비, 1만5000원)=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에서 20년간 활동해 온 저자가 한국시민운동의 궤적을 살펴본 책이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2000년 대선정국을 뒤흔든 낙천·낙선운동, 경제민주화의 씨앗을 뿌린 소액주주운동,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운동 등을 훑어본다. 책은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 얻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일기이고,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정치에 대한 현재진행형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다. <br/> <br/>동물실험 윤리(권복규 등 지음, 로도스, 1만6000원)=실험동물에 대한 윤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낯선 일이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동물보호협, 실험동물법이 제정되는 등 변화를 맞고 있다. 책은 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이유와 그 철학적인 근거, 유전자 변형 동물 등을 다룬다. 연구자들은 물론 관련 분야의 학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나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소개한다. <br/> <br/>자연 몰입(에바 M 셀허브 등 지음, 김유미 옮김, 해나무, 1만6000원)=뇌가 자연을 좋아할 뿐 아니라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 생기 있게 작동한다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명한다. 저자들은 현대인의 뇌가 심각한 자연 결핍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로 취약해진 뇌를 위해 ‘자연 몰입’을 권한다. 자연 그 자체가 선사하는 빛, 소리, 향기에 몸을 맡기는 자연 몰입은 도시 환경의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며 사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br/> <br/>리더의 옥편(김성곤 지음, 김영사, 1만3800원)=동양 고전을 대표하는 문학, 역사서, 철학서에 담긴 지혜를 가려 뽑아 우리 시대의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한다. 인재 발굴을 위해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조직에 해를 끼치는 행위나 세력에 대한 진심 어린 경계의 말, 재물을 얻고 쓰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도 등 기업을 경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서른 가지 말들을 고사성어에 빗대어 간명하게 정리했다. <br/> <br/>10살의 심리학(와타나베 야요이 지음, 임정희 옮김, 이아소, 1만3000원)=“초등학교 4학년 때의 성적이 평생을 결정한다”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조기 교육이 광풍이지만 정말 10살이 되었을 때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 발달심리학자인 저자는 조기교육을 부추기는 논리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허점을 들추어낸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 10살의 특징에 대해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 도덕성과 사회성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br/> <br/>스물 살을 건너는 8가지 이야기(정윤희 지음, 동양북스, 1만3500원)=가장 빛나지만 가장 초라하고 힘들 수 있는 나이 20살. 8명의 작가들이 그 나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풀어낸다. 정유정 작가는 암에 걸린 어머니의 병 간호와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보냈고, 박범신 작가는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만을 고민했다고 한다. 이들이 20살 청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세속적인 성공만이 목표라면 차라리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br/> <br/>내 인생에 너만 없었다면(프랑수아 를로르 등 지음, 최고나 옮김, 책담, 1만6500원)=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힘들게 하는 ‘힘든 성격’을 11가지로 구분했다. 각 성격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처방, 대처법, 성격 파악을 위한 질문지 등을 제공한다. 힘든 성격은 학교, 회사, 가정 등 어디서나 등장한다. 누구라도 힘든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것이다.<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눈물나고 미칠 것 같다" 아기 자지러져 살펴보니 이병헌 측, 협박女의 '3개월 교제 주장'에··· 30대男, 부인 폰으로 여고생에 음란영상 보냈다가…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고은아, '과감한 19금 노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1.txt

제목: 동성제약, 광과민제 포토론 희귀의약품 지정  
날짜: 2014091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210015177808  
본문: 동성제약이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Photolon)’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이로써 수술 등 기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피부기저세포암의 치료를 획기적으로 가능하게 해줄 광역학치료의 2세대 광과민제 보급이 가시화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br/> <br/>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세대 광과민제는 투여 후 48~72시간의 대기시간이 있고, 시술 후 최소 2주 간의 차광시간을 가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은 1세대 광과민제와 달리 투여 후 3시간 내 시술이 가능하며, 차광시간도 2일이면 충분하다. 또 치료 깊이도 4mm정도였던 1세대에 비해 12~15mm로 깊어졌다. <br/> <br/>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란 종양세포를 가진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광과민제를 투여해 종양세포에 광과민제를 축적시키고, 이렇게 축적된 광과민제를 적색의 광원(레이저)로 활성화시켜 급격한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br/> <br/>그 결과 정상세포는 살리면서 종양세포만 파괴되는 원리다. 동성제약은 ‘포토론’을 적용한 광역학치료를 위해 2012년 의료용레이저조사기 ‘LEMT Laser Device’의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득했다. <br/> <br/>동성제약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시작으로 허가 및 수입 진행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향후 광역학치료의 대중화가 암치료 시장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눈물나고 미칠 것 같다" 아기 자지러져 살펴보니 이병헌 측, 협박女의 '3개월 교제 주장'에··· 30대男, 부인 폰으로 여고생에 음란영상 보냈다가…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고은아, '과감한 19금 노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2.txt

제목: ‘라스’ 오창석 “현빈과 강남 5대 얼짱…‘이민정-전지현’은 선배”  
날짜: 2014091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110015164691  
본문:   <br/> <br/>배우 오창석이 한때 ‘강남 5대 얼짱’이었던 사실을 털어놔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br/> <br/>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는 ‘어머님들의 엑소’ 특집으로 오창석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그는 현재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에 출연 중이다. <br/> <br/>이날 방송에서 오창석은 MC들의 “<span class='quot0'>이민정, 전지현과 함께 강남구 5대 얼짱이라는 이야기가 있다</span>”는 말에 “이민정, 전지현씨는 선배”라고 입을 뗐다. 그는 “<span class='quot0'>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span>”는 질문에 “<span class='quot0'>영동고를 나온 현빈씨가 있었다</span>”고 답했다. 이어 “다만 현빈씨와는 친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br/> <br/>MC들이 공개한 사진 속 오창석은 또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했다. 특히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당시 유승준의 스타일이 유행해 그걸 따라 했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오창석은 ‘왔다! 장보리’에서 호흡을 맞추는 이유리를 언급했다. 그는 “이유리씨를 보고 많은 시청자께서 ‘국민 암 유발녀’라고 부르더라”며 “전 그 옆에서 괜히 호구같아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해 보는 이를 폭소케 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대서 목매 숨진 송일병···온몸서 피하 출혈 발견 꽃다운 나이에 개와 결혼한 '인도 소녀'···왜? 40대男, 알몸으로 돌아다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임신한 10대 딸에 약 먹여 불법 낙태시킨 母,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3.txt

제목: 김진근, 누나 故 김진아 병명 공개 "경피증이 종양으로 악화"  
날짜: 20140911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110015166028  
본문: SBS 방송 캡쳐 <br/> <br/>배우 김진근이 누나인 고(故) 김진아씨의 사망 원인을 언급했다. <br/> <br/>김진근은 11일 오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앞서 고인의 병명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br/> <br/>그는 "우리(가족)에게는 병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떠났는데 빈 자리가 더 중요했다. 그렇다고 병이 창피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누나는 사실 오랫동안 면역 체계 질환 중 하나인 희소병 경피증을 앓았다"면서 "그 병 때문에 피부에 이상이 왔고, 혈액순환도 안 됐다.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 몸에 이상이 생겨 종양이 생겼고 그게 암이 됐다. 종양 제거 수술을 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미국에 돌아갔는데 종양이 다시 생겼다더라. 이후 무서울 정도로 급격하게 종양이 커지면서 급작스럽게 위급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br/> <br/>경피증이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병이다. 경피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없으며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고 김진아씨는 배우인 고 김진규씨의 딸로, 1980년대 섹시 스타로 이름을 알렸다. 2000년 케빈 오제이 씨와 결혼해 아들 매튜 등과 함께 하와이에 거주 중이었다. 2010년 영화 '하녀'에 출연하고, 2011년 SBS 예능 '스타 부부쇼-자기야'에 모습을 비추는 등 최근까지도 대중과 호흡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대서 목매 숨진 송일병···온몸서 피하 출혈 발견 꽃다운 나이에 개와 결혼한 '인도 소녀'···왜? 40대男, 알몸으로 돌아다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임신한 10대 딸에 약 먹여 불법 낙태시킨 母, 결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4.txt

제목: [양정윤의 내밀한 미술사] 미스터 식스 이야기 (상)  
날짜: 2014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1110015171004  
본문: 자신의 거실에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작품을 걸고 사는 사람은 전 세계를 통틀어 매우 찾기 힘들다. 그것도 한 미술관의 등급을 좌지우지할 만한 거장들의 그림, 예를 들어 렘브란트의 걸작 정도가 되면 훨씬 더 진귀한 일이 된다. 그것도 모자라 경이롭게도 그림 속의 모델과 똑같은 이름을 350년 가까이 지키며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1654년 렘브란트에 의해 그려진 초상화의 주인공 얀 식스 가문의 장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세습했다. 식스 가문의 10대와 11대손은 아직도 초대 얀 식스가 살았던 암스텔 218번지의 집에서 렘브란트와 프란스 할스를 비롯한 17세기의 예술품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젊은 11대 얀 식스는 일찍부터 세계적인 미술 경매 회사 소더비에서 10년간 경력을 쌓고, 현재는 암스테르담에서 바로크 시대의 작품을 주로 다루는 기민한 아트 딜러로 활약 중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컬렉터이며 미술시장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안목을 믿고 그림을 고르는 그와 렘브란트의 그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br/> <br/>렘브란트의 친구 얀 식스는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다. 또한 신흥 귀족으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한 정치적 역량과 예술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엘리트이기도 했다. 70세가 넘어서 암스테르담 시장을 지내기도 한 식스는 정치가로서의 공적뿐만 아니라, 많은 시와 희곡 등을 집필한 문인으로도 유명하다. 띠동갑 친구였던 식스는 험난했던 렘브란트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렘브란트는 1642년에 ‘야경’을 완성한 이후로 줄곧 인생의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급기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식스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몇 번이고 작품을 주문하는 관대함을 보였다.  <br/> <br/>렘브란트의 ‘얀 식스 초상화’ (1654년, 캔버스에 유채, 112×102㎝, 식스 컬렉션). 얀 식스가 막 장갑을 끼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을 포착한 초상화로,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나타내는 ‘스프레차투라’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렘브란트는 사려 깊은 눈매와 의지가 강해 보이는 입가를 강조하며, 개인적인 친밀함을 반영하듯 유독 신뢰감이 느껴지는 얀 식스의 반신상화를 완성했다. 몇 세기가 지나도록 미술 애호가들은 렘브란트가 그린 남자 초상화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식스의 초상화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 렘브란트만큼 모델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한 화가도 없었다. 한순간에 칠해질 눈썹과 눈꼬리의 마지막 터치조차도 그의 심층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눈과 마음으로 읽힌 모델의 내적, 외적 형상은 여지없이 화가의 손끝에 있는 신경까지 도달하는 즉시 붓끝으로 전달되었다. 공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얀 식스를 그리려고 했다면 당연히 검은색 정장 차림의 공직자의 모습으로 그렸을 것이다. 그러나 얀 식스는 여가를 이용해 잠시 말을 타고 친구 집을 방문한 듯한 사적이고 친숙한 복장으로 등장한다. 한 손에 장갑을 끼며 방문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을 포착했다. 노련한 배우가 관객을 의식하지 않고 연출한 자연스럽고 세련된 포즈처럼 보인다. 일정한 형식에 구속되지 않은 파가니니의 카프리치오를 연주하듯, 캔버스 위에서 춤추는 렘브란트의 거친 필촉은 이 자연스러운 포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델의 왼쪽 어깨에 걸쳐진 빨간 의상의 장식과 장갑 부분에는 붓이 지나간 자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자유로운 붓놀림이야말로 지적인 얀 식스에게 어울리는 젠틀맨의 행동 미학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식과 억지로 점철된 저속함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밴 듯한 유유자적한 아름다움이 그것이다. 카스틸리오네의 ‘궁정인’에서 강조된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최상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표현하는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 정신에 가장 근접한 네덜란드의 초상화로 꼽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br/> <br/>세계에서 유례없는 개인 컬렉터인 얀 식스 11세는 소더비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은 뒤, 영국 왕실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컬렉터들을 상대로 거장들의 작품을 매매하는 아트 딜러로 활약하고 있다.렘브란트는 초상화를 통해 37세의 얀 식스의 모습을 영원불멸하게 만들었다. 우리 세대의 젊은 얀 식스는 내년이면 그림 속의 모델과 같은 나이가 된다. 그는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림을 볼 때마다 “내 이름은 얀 식스!”라고 되뇐다고 한다. 그 그림에는 “얀 식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얀 식스는 늘 법도를 지켜야 하고, 얀 식스라는 명성에 걸맞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커다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400년 전에 태어난 당신의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렇듯 계속해서 존재해야 합니까”라고 그림 속의 모델에게 반문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그 이름값을 증명해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br/> <br/>렘브란트는 서재에서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얀 식스의 모습을 에칭기법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암스테르담 시장 자리에까지 오른 얀 식스는 많은 시와 희곡을 발표한 문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넘쳐나는 예술품 속에서 자란 그가 선택한 길은 옛 거장들의 그림을 거래하는 일이었다. 그의 삶이 낳은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른다. “<span class='quot0'>지금과 같은 세상에 고화에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나 같은 사람은 멸종된 공룡과 같은 부류에 속하겠지요</span>”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소더비에서 일하기 시작한 20대에 이미 탁월한 감식안으로 렘브란트의 진품을 분별하여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학문이라는 타이틀을 건 미술사를 답습해서는 절대로 얻어질 수 없다고 단언한다. 복제된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아카데믹한 접근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사항들을 경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술품을 직접 취급하는 소더비와 같은 경매회사의 전문가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머릿속의 공허한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늘 치수를 재고, 돋보기를 통해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작품의 고유한 냄새를 느끼고 기억하기 위해 인체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여지없이 동료들과 묻고 확인하며, 자신의 감정법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늘 냉정하고 비평적으로 검토한다. 체면을 중시하는 미술사 교육기관의 정서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답을 찾기 위한 비장한 각오와 열정이 결여되기 쉽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림 속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찾아보려는 용기와 각오로 임하지 않고서는 영영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언했다. <br/> <br/>이렇듯 호되고 철저하게 자신의 감식안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림 속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물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직접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갤러리 사무실 곳곳에는 17세기 정물화에 등장하는 온갖 종류의 조개껍데기, 식물과 곤충 표본, 식기와 오브제들이 가득했는데, 인터뷰 도중에도 그림과 관련된 사물이 있으면 실제로 작품 앞에 진열하며 그림 속의 형태나 색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아무리 오래된 그림이라고 해도, 그려진 것들은 결코 판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진정한 리얼리티에서 출발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한 뒤 초상화 속의 주인공 얀 식스가 소유했던 책을 한 권 내밀었다. 그리고는 실제로 가죽 책 표지와 속지를 만져보며 갤러리 전시장을 걸어볼 것을 권했다. 400년 전 실제로 존재했던 이러한 사물들이 캔버스에 그려졌다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함이었고,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눈은 신체적 경험과 감각기관을 총동원한 관찰에 의해 비로소 그림 속의 내용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br/> <br/>암스텔 218번지에 위치한 식스 집안 내부의 모습(20세기 초반, Stadarchief Amsterdam의 자료). 최근 들어 인터넷 예약 (www.collectiesix.nl)을 통해 한정된 수의 관람객에게 식스 집안의 내부와 예술품을 공개하고 있다.아트 딜러로 독립한 배경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어느 미술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백점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식스 집안 출신이었기에 가능했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1대 얀 식스는 과거와 집안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동기에서 이 길을 선택했다. 집안의 컬렉션과는 구분하여 자신의 힘으로 하나씩 소장품을 매매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만큼의 이윤을 남기는 거래도 할 수 없다. 명예와 소신, 그리고 뛰어난 작품을 선별하는 자신의 안목을 기반으로 컬렉터들을 매료시키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 한편 젊은 얀 식스는 오랫동안 지켜온 가풍은 새로운 변화를 맞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사실 렘브란트가 그린 얀 식스의 초상화가 일반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이고, 그 이후에도 식스 집안 밖으로 렘브란트의 작품이 대여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식스가 후손들의 사유물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원칙을 완화하고, 연간 정해진 입장객 수에 한해 집안의 내부와 작품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년 전 방문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렘브란트의 얀 식스 초상화는 강이 훤히 보이는 창가 옆의 벽면에 다소곳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가와 벽 하나 사이에 걸려진 그림이었을 뿐인데, 작품 감상을 위한 문턱은 너무 높았다. <br/> <br/>이러한 변화에 대한 젊은 얀 식스의 신념은 확고했다. 위대한 한 점의 그림을 지켜나가야 할 가문의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것과 동시에, 거장들의 작품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후대에 남겨야 할 사회적 소명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상자 안에 든 작은 천조각의 예를 들며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천조각을 상자에서 꺼내면 그 수명은 30년 정도이고, 만약 상자 안에 넣은 채 보관하면 100년 이상은 보존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과연 그 상자 속의 천을 보다 값지게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대다수 사람들은 상자를 열지 않은 채 그 천조각의 보존 기간을 될 수 있는 한 연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라 여길 것이다. 이 방법을 택하면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실물을 볼 수 없게 된다. 아마도 100년 이상 보관하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이 작은 천조각을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낙관주의적 생각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할지 모른다. <br/> <br/>그러나 젊은 얀 식스의 의견은 정반대다. “나라면 그 귀한 천조각을 당장 그 상자 안에서 꺼내어, 그 작은 유물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싶습니다. 그 천을 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유물이 갖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라고 그는 명쾌하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 이 눈앞의 천조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100년 후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유물을 전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면 당연히 유물 조사에 관한 기금을 조성할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수한 학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이러한 발견과 학설들은 새로운 지식 산업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미술관들이 수장고에 잔뜩 작품을 쌓아두기만 하고, 제3세계의 대중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자세야말로 자신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증명하기 위한 그의 선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br/> <br/>양정윤 미술사학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5.txt

제목: 히포크라테스의 온열요법, 한방암치료 효과?  
날짜: 20140906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610015150680  
본문: 의학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온열요법을 통해 어떠한 질병도 극복할 수 있으며, 온열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체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체온을 높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온열요법으로 한방암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열요법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정도로 여기곤 한다. <br/> <br/>하지만 이 요법은 찜질• 뜸• 온욕 등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 받은 보완대체요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 의학계에서도 이런 온열요법을 활용한 치료방법이나 의료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br/> <br/>우리 몸의 세포는 심부체온이 섭씨 36.5~37도일 때 활성화된다.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진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저하되며,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3배~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한방암치료로 온열요법이 좋은 이유는, 몸이 따뜻해지면 생기는 열활성단백질 때문이다. 이 열활성단백질은 체온이 높을 때 자극을 받아 생성되는 단백질로, 체내에 열활성단백질이 증가하면 엔도르핀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몸의 면역기능이 올라간다. <br/> <br/>암세포는 온도가 낮을 때 활성화되고, 42도 정도의 열에서는 죽는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암세포까지 42도의 열을 전달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때문에 온열요법은 암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많이 쓰인다. <br/> <br/>한방 병원을 내원한 암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항암치료와 한방면역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은 증상개선 및 부작용 감소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삶의 질이 92.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계모가 "포르노 따라해"…남매의 악몽 "○○년, 한번 줄래?" 서울시 공무원 도 넘은 성희롱 로스쿨 교수, 성희롱…"넌 중상, 넌 중하, 넌 상"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엑소 쫓아다니려 범죄저지른 '사생팬', 끝내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6.txt

제목: "약에 기대지 말고 해독·재생으로 체질 바꿔야"  
날짜: 2014090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510015146727  
본문: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조병식 지음/비타북스/1만5000원 한국인만큼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없다. 여름에 농촌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다녀온 사람들, 지방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span class='quot0'>약 좀 충분히 더 지어 달라는 어르신들의 성화 때문에 고생했다.</span>” 근처에 변변한 병원이 없으니 약이라도 확실히 챙겨둬야 응급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어르신들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안 먹어도 될 약까지 굳이 먹는 건 ‘중독’이라는 또다른 병리현상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br/> <br/> 저자는 암 환자들 사이에서 ‘산으로 들어간 의사’로 통한다. 평범한 의과대학에서 서양의학을 전공하고 개원의로 활동하다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입산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래서 대체의학 하면 속된 말로 ‘돌팔이 의사’부터 떠올리는 대다수 사람들한테 저자의 존재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br/> <br/> 책은 제목 그대로 “자신의 건강을 약에 의존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저자에 따르면 병을 부른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 없이 약으로 증상만 조절하는 것은 결코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다.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겠으나, 질병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는 것이다. <br/> <br/> “<span class='quot0'>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곧 ‘자연치유력’을 갖고 있다</span>”는 저자의 주장을 반신반의할 독자가 많을 듯하다. 하지만 10년 동안 2500여명의 말기 암 환자와 중증 만성질환자를 치료한 저자의 이력을 감안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법도 하다. 책은 “만성질환을 완치하려면 무조건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자연치유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몸의 토대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br/> <br/> 그럼 몸을 바꾸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크게 ‘해독’과 ‘재생’ 두 가지다. 해독이란 병의 원인인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 혈액과 세포를 맑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재생이란 해독이 끝난 뒤 혈액과 세포를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여 장기와 몸 전체의 기능을 되살리는 과정이다. 책은 천연발효 영양 요법부터 수정 명상 요법까지 다양한 재생 요법을 소개한다. <br/> <br/> 책은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심장병·악성종양 등 이른바 10대 만성질환으로 불리는 각 질병에 대한 맞춤형 대처법도 제시한다. 뜻을 함께하는 의사, 한의사들과 ’한국자연통합의학연구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까지 지낸 저자가 한국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에 한 번 귀를 기울여 보자.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학교수, 버스에서 20대女 특정부위 몰카찍다가… '회사에서 음란물 내려받다니…해고' VS '억울해요' 아이돌 가수들, 목숨건 도로위 '무법질주'…대체 왜?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韓미인대회 우승 미스 미얀마 "성접대 강요받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7.txt

제목: 위암 조기검진의 날, 미리 알고 예방하자  
날짜: 20140905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510015144953  
본문: 오는 7일은 그린벨재단이 정한 ‘위암 조기검진의 날’이다. 9월 7일인 이유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7% 완치 가능하다는 의미로, 위암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선포됐다. <br/> <br/>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3%로 3명 중 1명은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br/> <br/>남녀를 합해 201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다음으로 위암이었고, 남성의 경우 위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br/> <br/>위장을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위내시경과 위장조영촬영이 대표적이다. 위내시경 검사는 위 안의 기포를 제거하는 약을 마시고 목에 마취한 후 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약을 주사한 뒤, 끝에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입으로 집어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다. <br/> <br/>화면을 통해 위 안을 직접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 중 어떤 병변을 발견하면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br/> <br/>위장조영촬영검사는 조영제인 바륨과 발포제를 마신 뒤 X선 촬영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발포제는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며 팽창해 바륨을 위벽에 도포하는 역할을 하는데, 탄산가스는 검고 바륨은 하얗게 나타나므로 위벽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검사 중 큰 불편감이 없고 시간도 10분 정도이므로 비교적 간편하다. <br/> <br/>위암의 위험인자로는 위암 가족력, 헬리코박터균 감염, 흡연, 염장 음식, 가공된 단백질, 신선하지 않은 음식 등이 있다. <br/> <br/>이런 위험인자가 겹쳐져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반드시 위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정 가능 인자(흡연, 식이습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재현 과장은 “<span class='quot0'>위암은 뚜렷한 위험인자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이 호발되는 곳에서는 40세 이후부터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위내시경에서 위암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소견이 나타나면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가 필요한데, 주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궤양, 위의 선종성 용종 등이다. <br/> <br/>이런 소견이 있을 경우 병변의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추적검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평소 건강생활 실천과 함께 정기적으로 나이, 건강상태, 가족력 등을 고려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위암예방의 지름길이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학교수, 버스에서 20대女 특정부위 몰카찍다가… '회사에서 음란물 내려받다니…해고' VS '억울해요' 아이돌 가수들, 목숨건 도로위 '무법질주'…대체 왜?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韓미인대회 우승 미스 미얀마 "성접대 강요받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8.txt

제목: 영화 '암살' 크랭크인, 전지현·이정재·하정우·조진웅 등…'기대↑'  
날짜: 201409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510015144955  
본문:   <br/> <br/>암살 크랭크인 <br/> <br/>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중국 상하이에서 9월 크랭크 인을 한다. <br/> <br/>9월 5일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 측은 배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의 캐스팅을 마치고 촬영 시작 소식을 알렸다. <br/> <br/>'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 '도둑들'까지 매 작품마다 독창적 캐릭터와 탁월한 스토리텔링, 세련된 연출력으로 한국 장르 영화의 진일보를 이끌며 흥행을 견인해 온 최동훈 감독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br/> <br/>특히 '암살'은 전작을 통해 최동훈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전지현과 이정재, 오달수, 최덕문, 그리고 '암살'을 통해 첫 호흡을 맞추는 하정우, 조진웅, 이경영의 가세로 궁금증과 기대를 더욱 증폭시킨다. <br/> <br/>국내 최고 배우들의 캐스팅을 확정한 '암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전개와 예측불허의 결말, 그리고 1910년대부터 1949년대까지 상하이, 만주, 경성의 모습을 리얼하게 구현한 생생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액션신이 결합한 요소로 귀추가 주목된다. <br/> <br/>'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2015년 여름 개봉 예정.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br/> <br/><br/><br/> <br/>세계일보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학교수, 버스에서 20대女 특정부위 몰카찍다가… '회사에서 음란물 내려받다니…해고' VS '억울해요' 아이돌 가수들, 목숨건 도로위 '무법질주'…대체 왜?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와르르’ 韓미인대회 우승 미스 미얀마 "성접대 강요받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799.txt

제목: 소의영 전 아주대의료원장, 갑상선학회장 취임  
날짜: 2014090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410015137304  
본문: 대한갑상선학회는 최근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외과 전문의인 소의영(사진) 전 아주대의료원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대한갑상선학회는 1977년 갑상선연구회으로 시작하여 현재 7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갑상선 결절과 암 환자의 치료기술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소 회장의 임기는 2015년 8월까지 1년 동안이다. <br/> <br/>소 회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고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아주대병원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회장,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회장, 아시아내분비외과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0.txt

제목: 한화생명, '여성CI보험' 출시  
날짜: 20140903  
기자: hemked@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3100000021  
본문: 한화생명은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을 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중대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과 같은 치명적 질병(CI: Critical Illness) 보장은 물론,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루푸스 신염,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여성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도 특약으로 평생토록 보장한다.특히 상속자금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사망보장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CI보험은 CI진단자금으로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인 20%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40%까지 사망보장을 확대하여 최대 120%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높은 보장급부에 비해 합리적인 보험료도 장점이다. 최저보험료 월 5만원이며, 비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35세 여성이 주계약 2천만원, 여성특정4대질병보장특약을 1천만원씩 가입해도 월 보험료 5만원대(20년납)로 가입할 수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보장에 대한 고객 니즈도 반영했다. ‘LTC보장특약’ 가입시, 중증 치매상태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금액만큼의 간병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장, 성인병보장, 암보장, 재해·입원·수술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필요에 따라 골라 담을 수 있다. 계약시에는 물론, 가입 후에도 중도부가가 가능하다.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최대 4%까지 월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 가입시 2.5% 할인되며, 보험료 자동이체시 1% 할인, 한화생명과 협약된 단체의 종사자가 가입하면 1.5%의 단체할인혜택도 있다. 중복할인 제외 등을 고려하면 최고 4% 할인 가능하다.이외에도 노후자금에 대한 필요가 늘어날 때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전환기능,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상품운용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고품격 의료서비스인 ‘헬스케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한화생명 김운환 상품개발실장은 “<span class='quot0'>'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보장하는 최적의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또한 여성에게 부족한 사망 및 CI보장을 보험료 갱신 없이 평생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한화생명 최초의 여성 전용 CI보험</span>”이라고 말했다.'한화생명 여성CI보험'의 최저가입 기준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월 보험료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15세~60세로 여성만 가입 가능하다. 35세 여자가 20년납, 주계약 3000만원, 특약으로 CI추가보장 2000만원, 여성특정4대질병보장 1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7만5780원이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1.txt

제목: 막걸리 가라앉은 부분에 항암물질 '스쿠알렌' 많아  
날짜: 20140903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310015124823  
본문: 막걸리의 가라앉은 부분에 암의 발생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항종양 물질인 스쿠알렌과 파네졸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 하재호 박사 연구팀은 3일 “최근 연구에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막걸리에 스쿠알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면서 “함량도 맥주와 포도주보다 50∼200배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스쿠알렌 함량은 1260∼4560㎍(마이크로그램)/㎏으로 포도주(10∼60㎍/㎏)와 맥주(30∼60㎍/㎏)보다 50∼200배 많았다. <br/> <br/>하 박사 연구팀은 스쿠알렌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효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앞서 하 박사 연구팀은 2011년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졸 성분을 세계 최초로 분석해 발표한 있다. 하 박사는 “<span class='quot0'>막걸리가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술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막걸리의 가라앉은 부분에 스쿠알렌과 파네졸이 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마실 때 잘 흔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스쿠알렌과 파네졸 분석기술에 관한 연구결과는 지난 2월 국내 분석전문 학술지인 한국분석과학회지와 세계적인 식품관련 전문학술지인 ‘Food Chemistry’에 각각 게재됐고 이번에 개발한 스쿠알렌과 파네졸 간편 분석기술은 ‘Journal of AOAC International’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2.txt

제목: 암 전이과정 규명… 치료제 개발 새길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210015119511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전이를 막는 치료법의 실마리를 풀었다. ‘두 번째 암’으로 불리는 전이암은 발생원리가 밝혀진 바가 거의 없어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br/> <br/>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엄홍덕(사진)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팀은 암세포 전이가 일어나는 유전자 경로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전이를 촉진하는 효소를 찾아내고, 이 효소를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규명했다. <br/> <br/>연구팀은 폐암 세포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위치한 ‘콤플렉스1’ 효소가 암 전이를 촉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효소는 활성산소 생성을 통해 암 전이를 촉진했다. 이 같은 전이과정에는 쓸모없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백스’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사실도 연구팀은 확인했다. 더불어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p21’ 단백질이 암 전이를 촉진하는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이를 억제한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br/> <br/>엄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규명된 암 전이 경로를 바탕으로 억제를 극대화하는 물질 또는 기술을 개발해 사전 차단하면 암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3.txt

제목: 꾸준한 계단 걷기로 성인병 예방하세요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210015119412  
본문: 우리는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별도의 시간과 돈을 들여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인의 옆에는 운동을 위한 최적의 도구가 항상 있다. 바로 계단이다. 계단을 운동에 이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구는 없는 셈이다. 내 몸의 하중을 이용하는 계단 걷기는 각종 생활 습관병은 물론 암까지 고쳐주는 놀라운 운동이다.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3일 밤 10시 현대인의 건강에서 계단의 의미를 조명한 ‘방송의 날 기획, 국민건강 프로젝트 계단혁명’을 방송한다. <br/> <br/>언제나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운동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운동의 필요성이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따로 시간을 내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시급한 가운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계단이다. 전 세계 비만율 1위에 달하는 뉴욕에서 건강의 비결로 찾은 것도 바로 계단이었다.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계단 걷기를 강조했다. 그는 계단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계단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접근이 쉽도록 했다. 뉴욕에 위치한 대학교는 건물 어디에서도 보이는 곳에 계단을 설치하고, 학교의 중요한 공동 공간을 계단과 연결해 학생들의 계단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br/> <br/> 현대문명 속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계단. 그러나 계단 걷기는 내 몸의 하중을 이용하는 현대인을 위한 최적의 운동이다. <br/>KBS 제공뉴욕뿐 아니라 한국에도 서서히 계단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가 곳곳에 건강을 목적으로 한 계단을 설치한 데 이어 국내 다양한 기업에서도 계단을 이용한 업무문화가 번지고 있는 것. <br/> <br/>그렇다면, 계단 걷기의 의학적 이점은 무엇일까? 계단걷기는 운동량이 부족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인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더불어 암의 후유증까지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운동이다. 프로그램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 4명에게 3주간의 계단 걷기를 제안했다. 기본 체성분 분석과 각종 검사를 통해 개인의 몸에 맞는 계단 활용법이 처방되었다. 3주 후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계단 걷기의 놀라운 효과를 알아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4.txt

제목: 뻔뻔한 공적보험 기관, 국민 납부 보험료로 임직원 사보험 지원  
날짜: 20140902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210015117577  
본문: 공적보험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임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을 들여 민간보험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로 지출한 돈이 최근 10년간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을 통해 “<span class='quot0'>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span>”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무시한 셈이다. <br/> <br/>건보공단은 올해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로 32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2010년 3억7600만원에 비해 8.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최근 5년간 78억원에 이른다. 공단은 2011년까지는 재해·질병 사망, 재해장애 등 3가지에 대해서만 보장했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직원 1만2000여명에게 포함하면서 보험료 지출이 크게 늘었다. <br/> <br/>심평원은 임직원 민간보험 지출이 2008년까지는 연 1억원 안팎이었으나 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하면서 지출이 급증해 올해는 6억4000만원을 지출했다. 연금공단도 2009년 9억2000만원 등 최근 6년간 61억4000만원을 민감보험료로 사용했다. <br/> <br/>김 의원은 “<span class='quot1'>공적건강보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에서는 건보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면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복지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5.txt

제목: 고유 발효음식 김치…문화 + 전통 '복합산업' 진화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90210015119254  
본문: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김치는 우리 고유 발효식품이자 대한민국 밥상 제1의 반찬이다. 채소를 장기간 보관해 먹기 위한 절임 음식으로 시작된 김치는 양념을 버무리고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서 풍부한 영양은 물론이고 암과 노화, 비만에 효과적인 기능성을 지닌 슈퍼 발효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에 와서 김치는 단순히 음식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전통이 결합한 복합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br/> <br/>2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김치는 지역마다, 계절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 다양하게 변신해 그 종류만 300개가 넘게 존재한다. <br/> <br/>우리나라는 익산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 유적에서 대형 독이 발견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초기 형태의 김치를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김치는 소금 등에 채소류를 절여 저장성을 높인 절임 채소류로 김치보다는 장아찌에 가까운 식품이었다. 절임 채소였던 김치는 고려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양념으로 2차 ‘침채(沈菜)’를 시키는 우리만의 독특한 발효과학 식품으로 발전했다. 고려시대에 생채를 소금에 절여 저장성을 높이는 절임 기법에 양념을 첨가해 한 번 더 침채를 시키는 담금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념이 절임 채소에 침투돼 발효되면서 유산균이 증가하고 기능성 물질들이 탄생하는 등 발효과학 식품으로 진화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담금법이 개발되고, 주재료가 다양화되며 김치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br/> <br/>서울, 경기 지방은 밭농사와 논농사가 고루 발달해 풍부한 재료로 다양한 김치를 즐겼다. 국물이 많거나 뻑뻑하거나,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서해의 해산물과 동쪽 산간지방 산채가 어우러져 맛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통배추김치, 장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보쌈김치 등이 있다. <br/> <br/>강원지역은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의 환경이 달라 두 지역의 특색 있는 재료를 모두 이용한 김치가 존재한다. 태백산맥 줄기 산악지역에서는 갓으로 김치를 담그고, 동해안 지역은 싱싱한 명태와 오징어를 넣은 김치를 즐긴다. 배추김치에도 생오징어채와 말린 생태조각이 들어가며, 해물김치와 창란젓 깍두기, 서거리김치 등이 전통 김치다. <br/> <br/>충청지역은 다양한 곡식과 채소, 서해안의 해산물이 풍부하나 양념을 적게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김치를 ‘짠지’라 해 배추짠지, 무짠지라 부르기도 한다. 양념을 적게 넣어 시원한 맛의 총각김치와 굴 섞박지, 열무김치, 가지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br/> <br/>전라도는 다른 지방보다 풍부한 곡식과 해산물, 산채를 이용해 음식이 매우 호화로우며, 다양한 김치를 담근다. 기후가 따뜻해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맵고 짠 편이지만 찹쌀풀을 넣어 국물이 진하고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배추 포기김치, 고들빼기김치, 갓김치, 전라반지, 나주 동치미 등이 잘 알려져 있다. <br/> <br/>경상도는 바다의 어장과 남부의 기름진 농토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이용하며 맵고 세게 간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말랭이김치, 깻잎김치, 콩잎김치, 우엉김치, 부추김치 등이 유명하다. <br/> <br/>제주도는 겨울철에도 싱싱한 채소가 생산돼 김치 종류는 적으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이한 김치들이 존재한다. 음력 정월에 밭에 남아있던 배추로 담그는 동지김치와 톳으로 담그는 김치, 여름 김치인 양배추 포기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북지역에는 산악지대인 함경도의 맵지만 짜지 않은 김치와 평야가 넓은 평안도의 풍부한 김치 등이 존재한다. 함경도는 채칼김치, 무청김치, 대구깍두기 등이, 평안도는 동치미, 지름섞박지, 백김치 등이 있다. <br/> <br/>이외에도 종가에서는 독특한 비법으로 만든 특별한 김치가 전해오며 김치를 담그고 먹는 일도 수행이라 여기는 사찰에서는 마늘과 파, 부추 등 오신채(五辛菜)를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김치도 존재한다. <br/> <br/>산업이 발달하면서 김치는 단순히 음식에 머무르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치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가 형성하는 김치 후방관련 산업은 그 생산액만 연간 3조3000억원이 넘고 있으며 주로 배추김치로 형성된 김치 생산은 2조3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김치의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가 또 1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한다. <br/> <br/>최근에는 우리만의 김장 문화가 관광산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김치의 영양 기능성과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여러 기능성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새로운 요리의 식재료로 김치는 39조원의 외식산업의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6.txt

제목: 김진아 장례 한국서도 치른다  
날짜: 20140829  
기자: 김신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910015091692  
본문: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별세한 배우 김진아(51)의 장례식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치러진다. 김진아의 빈소는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31일 오전 10시. <br/> <br/>고인은 지난 2000년 미국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뒀으며 하와이에서 생활해왔다. 김진아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의 유골함을 들고 28일 귀국했고, 고인의 남편과 아들도 함께 왔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진근은 김진아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건너가 누나 곁에머물다 임종을 지켰다. 김진근과 함께 하와이에 갔다가 먼저 귀국한 그의 아내 탤런트 정애연이 시누이의 한국 장례식을 준비했다. <br/> <br/>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김진아는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딸’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고속도로’ ‘연산일기’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80년대 섹시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다. 2001년에는 드라마 ‘명성황후’ ‘사랑’ 등에 출연하며 TV에서도 활동했다. 최근작은 2010년 출연한 영화 ‘하녀’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7.txt

제목: 면역력 강화시켜주는 한방암치료 산삼약침, 항암치료 부작용 극복  
날짜: 20140829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910015091856  
본문: 녹용, 산삼약침 등 한방암치료가 암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폐암, 위암, 간암 등 암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기 마련. 특히 강도 높은 항암치료로 인해 기력은 물론 인체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br/> <br/>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항암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은 물론, 치료를 통해 관해 또는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할 여지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면역력을 강화하는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br/> <br/>한방치료 중 하나인 약침은 ‘일정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각종 약물 또는 물질을 유관한 혈위, 압통점 혹은 체표의 촉진으로 얻어진 양성반응점에 주입하여 생체기능을 조정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시술행위’(출처:대한약침학회)이다. <br/> <br/>이는 경혈의 자극과 산삼, 녹용 등 한약재의 효능을 활용하는 치료법으로 유효성분의 체내 도달이 빠르고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정신분열증 등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br/> <br/>이러한 약침과 같은 한방암치료는 서양의학적 치료와의 병행을 통해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중인 환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 엠디앤더슨,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서도 통합의학 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8.txt

제목: 흥국생명, '(무) 프리미엄 암평생보장보험' 출시  
날짜: 20140828  
기자: hemked@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8100000019  
본문: 흥국생명(대표이사 김주윤)은 암 진단 시 사망보험금이 선지급 되는 '(무)프리미엄 암평생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암의 4기에 해당하는 암, 진행 기수와 관계 없이 특정암(간암, 폐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으로 진단받을 경우 1억원을 암 진단급여금으로 한번에 선지급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대부분 암 보험의 경우 진단급여금만 지급하거나 백혈병, 골수암 등 특정암에 대해서만 고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일반암에 대해서도 4기암이라면 총 1억원을 암 진단급여금으로 지급해 기존 암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특정암을 제외한 암의 경우는 1~3기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5000만원을, 추후에 4기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같은 혜택을 보험료 상승 부담 없는 비갱신형으로 종신보장이 가능하며 의무납입(2년) 이후 자유납입,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약관대출 등 자유로운 자금운용이 가능하다.암 발생 후 사망보장특약 부가시 암 진단급여금으로 선지급된 사망보험금을 재충전해 암 진단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흥국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의 CI보험, 종신보험, 암보험의 장점만을 결합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상당수 암환자는 치료비는 물론 직업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로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고객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다</span>”고 설명했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09.txt

제목: 녹십자랩셀, 첨단 바이오의약품 지원 대상 선정  
날짜: 201408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810015077817  
본문: 녹십자랩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항암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치료제인 ‘MG4101’가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br/> <br/>이번 선정에 따라 녹십자랩셀은 식약처의 허가 심사자와 맞춤형 협의체를 구성해 ‘MG4101’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받게 된다. 이 협의체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향 또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안종성 녹십자랩셀 이사는 “<span class='quot0'>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중 의료적 중요성과 제품화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해 녹십자랩셀에서 개발중인 자연살해세포치료제가 최종 선정된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녹십자랩셀의 ‘MG4101’은 종양 및 감염병 치료를 목적으로 정상인의 말초혈액에서 자연살해세포를 분리 및 증식 배양한 세포치료제다. <br/> <br/>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파괴해 암을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의미한다. 정상인의 경우 하루 4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성된다. 이 가운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이세포는 약 400개. 통상 체내에 존재하는 자연살해세포가 변이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변이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암이 발생하게 된다. <br/> <br/>자연살해세포치료제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외에서 자연살해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제품화를 위해서는 암세포살해능력과 세포생존율을 일정하게 관리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br/> <br/>녹십자랩셀은 이미 지난해 ‘MG4101’ 임상 1상을 완료하고 대량 배양 및 동결기술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 상태로, 현재는 간암과 소아암에 대한 연구자 임상 2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내년 상반기안에 간암에 대한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MG4101’은 기존 면역세포치료제의 생산 및 공급의 한계, 높은 생산비용의 문제를 극복한 면역세포치료제로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를 사용하여 상시 공급이 가능함은 물론 면역 부작용 없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신개념의 면역 세포치료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br/> <br/>한편 미국 대형금융업체인 시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항암 면역치료제 세계시장은 10년 안에 350억 달러(약 3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0.txt

제목: WHO, 전자담배 광고·후원 규제 촉구  
날짜: 2014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710015062881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현지시간)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전자담배 광고·판촉·후원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WH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WHO는 보고서에서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이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이며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 시 나오는 기체는 제조업체들 주장처럼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서 비흡연자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니코틴이나 폐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높인다. 또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특히 전자담배는 임신 8주 이후의 태아와 청소년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2배나 증가했다고 WHO는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날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일반 담배 흡연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br/> <br/>WHO는 또 간접 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나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눈·코·목 등을 자극하며, 니코틴 노출로 임신에도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1.txt

제목: 홍진경, '힐링캠프'서 솔직한 속내 고백..네티즌 '호응'  
날짜: 2014082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610015058478  
본문:   <br/> <br/>  <br/> <br/> <br/>방송인 홍진경이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암 투병과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br/> <br/>홍진경은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힐링캠프'에 출연해 "지난 3월 처음 병을 알았다. 수술하고 치료하기까지 올 여름이 참 힘들었다. 아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으니 마음이 짠하고 힘들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br/> <br/>홍진경은 이어 "예능 하는 사람이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 투병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눈썹도 없고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졌다"고 힘들었던 과거를 전했다. <br/> <br/>더불어 "매번 가발을 쓰고 다니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했다. 매번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었다"고 배경을 덧붙였다. <br/> <br/>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진경 암 투병, 힘 내시길", "홍진경 암 투병, 슬프다" "홍진경 암 투병,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2.txt

제목: 홍진경 암투병 고백 "3월에 진단… 지금은 완치 중"  
날짜: 20140826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610015059483  
본문: SBS 방송 캡쳐 <br/> <br/>홍진경이 암 투병 중이라고 고백했다. <br/> <br/>홍진경은 25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속내를 털어놨다. <br/> <br/>그는 "지난 3월 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하고 치료까지 올 여름이 힘들고 길었다"면서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도 없고, 몸의 털이란 털은 다 빠졌다"고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br/> <br/>"웃음을 주는 사람이어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그는 "가발 쓰고 아이 유치원에 가고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한다. 매번 설명하기도 힘들고 한 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br/> <br/>앞서 그는 '매직아이' 제작보고회에서 가발을 쓰고 출연한다는 사실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은 치료가 잘 끝나 완치되는 일만 남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이어 "설마 (가발을) 벗어보라고는 안하겠지"라고 농담을 건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br/> <br/>방송 후 누리꾼들은 "홍진경 암 투병, 너무 밝아서 몰랐는데 힘내세요" "홍진경씨 가발 쓴 모습이 예뻐요. 어서 쾌유하시길" "홍진경 암 투병, 완치하는 일만 남았다니 정말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3.txt

제목: ‘힐링캠프’ 홍진경 “수술 당일에야 암 투병 母에 고백”  
날짜: 2014082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610015055726  
본문:   <br/> <br/>아팠던 그의 과거가 보는 이의 마음을 힐링시켰다.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힐링캠프)’에 나온 방송인 홍진경의 이야기다. <br/> <br/>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서는 홍진경이 출연해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홍진경은 결혼 7년 만에 얻은 귀중한 선물인 딸 라엘이를 언급했다. 그는 “남편이 5대 독자”라며 “결혼 후 바로 아기를 갖고 싶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런데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며 “안 해 본 게 없었다”고 말했다. <br/> <br/>홍진경은 “<span class='quot0'>시험관 아기 시술 동안 남편은 내게 ‘아이를 싫어한다’고 말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말 아이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span>”고 울먹였다. 힘든 아내를 위로하는 홍진경 남편의 작은 배려였다. <br/> <br/>최근 암 투병 사실을 밝혔던 홍진경은 “<span class='quot0'>치료가 잘 돼 지금은 회복하고 있다</span>”며 시청자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홍진경은 “<span class='quot0'>수술 당일이 되어서야 어머니에게 투병 사실을 말씀드렸다</span>”며 “<span class='quot0'>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딸을 위해 기도할 기회마저 빼앗는 거라 생각해서 그랬다</span>”고 고백해 보는 이를 놀라게 했다. <br/> <br/>한편 홍진경은 결혼 전 남편이 자기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일부러 살찌운 사연을 털어놔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100kg까지 찌웠다”며 “<span class='quot0'>결혼하고 나서 살 빼라고 잔소리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오빠가 떠날 것 같아 일부러 라면이랑 만두를 많이 먹였다”며 “거구인 채로 결혼사진을 찍어서 그런지 오빠가 너무 힘들어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4.txt

제목: 목 쉬고 이물감 느껴지면…갑상선 결절 의심  
날짜: 20140826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610015055182  
본문:   <br/> <br/># 박모(57세)씨는 얼마 전부터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목감기로 생각하고 감기약을 먹었으나 특별한 차도가 없었다. <br/> <br/>그러던 중 최근 거울을 보다 목에 작은 혹이 생긴 것을 발견한 박 씨의 목 앞 부위에 작은 덩어리가 만져졌다. 깜짝 놀라 병원을 찾은 박 씨는 갑상선 양성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26일 의?계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목이 쉬거나 물이나 음식물을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갑상선 결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보통 증상 없이 목 앞쪽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약 10%의 갑상선 결절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다. <br/> <br/>결절 위치나 크기에 따라 기도를 심하게 누르며 호흡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마른기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br/> <br/>갑상선은 목 중앙에 위치한 작은 기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해 몸의 대사과정을 촉진하고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 갑상선에 종양이 생기는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고 5mm 이상의 종양이 발견되면 세침검사 혹은 조직검사를 통해 양성인지 암인지를 구분한다. <br/> <br/>양성 결절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없으나 커지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치료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결절이 크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술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br/> <br/>특히 1cm 이상의 증상 있는 결절은 더 크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크기가 커질수록 시술 횟수가 늘어나고 기도, 식도, 후두신경과 가까워져 시술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br/> <br/>민병원 김종민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암으로 진단되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지만 양성 결절일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고주파 혹은 레이저치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악성이 아닐 경우 신체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편함을 느끼고 외관상 안 좋게 보일 경우 고주파 및 레이저로 쉽게 당일 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5.txt

제목: 한의사 비방한 A원장 항소심서 무죄  
날짜: 2014082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610015059100  
본문: 병원 내 게시판에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br/> <br/>26일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제4형사부)은 최근 자신의 의원 내 게시판에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원장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pan class='quot0'>전국 43개 지점을 갖춘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판매한 녹용탕약에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녹용을 넣었더라도 원가대비 약 5배나 되는 가격으로 환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보도된 방송기사를 프린트해 게재한 것이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span>”고 판단했다. <br/> <br/>또 “‘산삼약침’이라는 요법으로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내용을 다룬 언론기사를 출력해 게시하면서 전국의사총연합이 신문에 게재했던 공고문을 그대로 함께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전체적 취지 역시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한의사의 주사제 투여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r/> <br/>재판부는 또 “<span class='quot0'>일부 한의사의 잘못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이에 따라 대한의원협회도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br/> <br/>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한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면죄부가 준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에 부합하는 행위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를 한 회원을 지원하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6.txt

제목: '인육캡슐' 중년여성들이 더 찾는 이유는?  
날짜: 20140826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610015060958  
본문: 인체성분이 함유된 '인육 캡슐'이 최근까지도 국내에 밀반입 돼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2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육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 적발된 물량은 6만6149정에 달했다. <br/> <br/>최근 3년여간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시도는 40건(3만8067정), 여행자의 휴대 밀반입 시도는 76건(2만7812정), 특송을 통한 밀반입 시도는 1건(270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인육캡슐은 대부분 중국에서 반출됐으며, 일부는 미국에서 들여온 경우도 있었다. 인육캡슐에서는 신체 일부 성분이 실제 검출됐으며, 두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털도 포함돼 있었다. <br/> <br/>이들은 말기 암, 만성신부전증, 중증 당뇨, 난치병, 수술을 마친 환자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만병통치약을 찾는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일부 중년여성들은 태반보다 미용효과가 좋다는 소문에 인육캡슐을 찾기도 했다. <br/> <br/>그러나 식약청 조사 결과, 치명적인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물론 각종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180억 마리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인육캡슐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7.txt

제목: '착한 종양'도 절제 필요하다  
날짜: 2014082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510015045734  
본문: 암세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적어 ‘착한 종양’으로 불리던 과증식성 위 용종도 적극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안지용 교수?병리과 박영수 교수팀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cm 이상의 과증식성 위 용종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784명 환자들의 용종 809개를 분석한 결과, 3.7%에서 암 혹은 암 전단계인 선종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안지용 교수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br/> <br/>그동안 과증식성 용종은 위용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지만 2cm 이상으로 커진 경우에만 암세포를 동반할 가능성이 1～2% 정도여서 암일 가능성은 낮은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왔다. <br/> <br/>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과증식성 위 용종이 암 혹은 선종을 동반할 가능성이 그동안의 학설보다 더 높다는 것이 증명됐다. <br/> <br/>특히 암과 선종으로 분석된 30개의 용종 중 5개의 크기가 1.0?1.9cm인 것으로 나타나 2cm 미만의 용종도 제거해야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br/> <br/>또 암 혹은 선종으로 밝혀진 과증식성 용종의 96.7%가 올록볼록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어, 검사 시 발견된 용종의 모양이 매끄럽지 않다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위에서 발견되는 용종은 크게 선종성·염증성?과증식성 용종으로 나뉜다. 선종성 위 용종은 암으로 진행되는게 확실하며, 염증성 용종은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위 용종이다. 하지만 과증식성 용종은 위용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은 반면, 암일 확률은 낮은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의사 재량에 따라 치료여부가 달라지곤 했다. <br/> <br/>안지용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용종은 특별한 신체적 증상이 없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용종이 한번 생기면 이를 제거해도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박영수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내시경 검사 시 조직검사를 위해 떼어낸 과증식성 용종의 일부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체에 남아있는 용종에선 암세포 혹은 선종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니 크기가 큰 용종은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는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8.txt

제목: [박스오피스] '해적'의 뒷심… '명량'은 1600만 돌파  
날짜: 20140825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510015045196  
본문: 영화 '해적'과 '명량'의 쌍끌이 흥행은 주말에도 계속됐다. <br/> <br/>25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주말 사흘간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전국 95만1494명을 동원해 개봉 3주 만에 첫 정상에 올랐다. 지난 6일 개봉한 이후 누적관객수는 592만8238명으로, 600만 돌파를 목전에 뒀다. <br/> <br/>'명량'은 개봉 4주 만에 1위 자리를 '해적'에게 물려줬지만, 누적관객수 1600만명을 돌파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갔다.  <br/> <br/>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이어 최고 매출액 기록까지 조만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명량'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아바타'가 보유하고 있던 최다 관객 기록(1330만명)을 갈아치웠지만, '아바타'의 경우 3D 관람객이 많았던 탓에 최고 매출액 기록은 깨지 못한 상황이다. <br/> <br/>주말박스오피스 3위는 할리우드 영화 '안녕, 헤이즐'이 차지했다. 암에 걸린 소녀 헤이즐(쉐일린 우들리)와 그녀의 첫 남자친구(안셀 엘고트)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주말 16만6443명을 더해 누적관객수 54만1648명으로 집계됐다. 꾸준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작품. <br/> <br/>김윤석 박유천 주연의 스릴러 '해무'는 16만2115명을 추가해 4위, '원스' 감독의 또 다른 음악영화 '비긴 어게인'은 15만1903명을 모아 5위를 각각 차지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19.txt

제목: 3040女 ‘위암 주의보’  
날짜: 2014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410015041669  
본문: 요즘 30, 40대 여성들 사이에 ‘위암 주의보’가 내렸다. 보통 위암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유독 사망률은 30, 40대 여성이 높다. 실제로 50, 60대 여성이 위암에 걸렸을 때 사망률은 18.25%인 반면 30, 40대 여성의 위암 사망률은 24.5%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이는 30, 40대 남성의 위암 사망률 19.15%보다도 확실히 높은 수치다. <br/> <br/>30, 40대 여성의 위암 사망률이 다른 연령대나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의들은 주기적인 위암 검진을 주문한다. <br/>민병원 제공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30, 40대 여성의 위암 사망률이 높은 것은 검진을 받는 이가 적기 때문</span>”이라고 입을 모은다. 젊은층의 경우 암세포가 정상 세포와 구별하기 힘든 불분명한 형태로 흩어져 있다는 점도 주된 원인의 하나다. 이처럼 암세포 분화도가 나쁘면 조기 발견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도 쉽다. <br/> <br/>위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민병원 김종민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위암은 초기 통증이 거의 없어 증상을 느끼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특히 젊은 여성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이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다</span>”고 말했다. 30, 40대가 되면 여성도 주기적으로 위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속쓰림과 더불어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위출혈로 대변이 흑색으로 변했다면 위암 발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흡연자, 헬리코박터균 보균자 등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정기적 검진이 꼭 필요하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위암 발암인자로, 위 점막 염증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br/> <br/>김 원장은 “<span class='quot1'>염분이 많고 절인 음식은 위장 건강에 나쁘므로 자제해야 하고, 탄 음식이나 방부제가 지나치게 많이 든 음식도 피하는 게 좋다</span>”며 “<span class='quot1'>용변 후 손과 항문 주위를 깨끗이 씻어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막는 것도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태훈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0.txt

제목: 변정수, 갑상선 암 판정 뒤 리마인드 웨딩 '눈물'  
날짜: 20140822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210015032442  
본문: KBS2 방송 캡쳐모델 출신 배우 변정수가 2012년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를 밝혔다. <br/> <br/>변정수는 22일 오전 방송된 KBS2 '여유만만'에 출연해 당시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자 남편, 두 딸과 '리마인드 웨딩'을 올렸다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br/> <br/>그는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다"면서 "등도 시리고 두피 각질이 일어나고 금방 목이 쉬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상해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암이라더라. 미칠 것 같아서 며칠 동안 말도 못했다"고 당시 괴로웠던 심정을 털어놨다. <br/> <br/>이어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면서 "리마인드 웨딩으로 인생 마지막 순간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하다 오열했다. <br/> <br/>변정수의 고백에 누리꾼들은 "변정수씨, 방송에서 밝은 이미지로만 기억했는데 그런 아픈 사연이… 힘내세요" "변정수 화이팅, 늘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1.txt

제목: 80년대 스타배우 김진아 별세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110015027986  
본문: 1980년대를 풍미한 배우 김진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1세. 김진아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span class='quot0'>김진근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김진아는 2000년 미국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며 하와이에 거주했다. 배우 김진규·김보애 부부의 딸이기도 한 김진아는 올 초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2.txt

제목: 진행 빠른 폐암, 한방암치료의 효과는?  
날짜: 20140821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110015025160  
본문: 지난 2012년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73,759명이며, 이 중 주요암 사망률 1위인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6,654명으로 전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22.6%를 차지했다. 다른 암 중 유독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br/> <br/>폐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암의 진행이 이루어진 이후 기침, 객혈, 체중감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많은 진행이 됐다고 할 수 있다. <br/> <br/>또 폐는 인체의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 장기로 전이가 쉽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진행속도도 빠른 편이다. <br/> <br/>폐암의 치료는 1기 혹은 2기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병세가 진행된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br/>이런 경우 방사선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 중 환자들이 힘들어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체력저하로 인해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br/> <br/>소람한방병원의 성신 병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에서의 폐암은 치료의 근간이 되는 환자의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방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치료로 면역력을 끌어 올려 암과 싸울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항암 화학요법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한방암치료를 경험한 황OO(74세, 남)씨는 방광암에서 폐로 전이가 된 환자로 기침· 객혈· 객담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폐에 다발성 전이가 된 상태로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다. <br/> <br/>이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한방면역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해 치료 4개월 만에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증상들이 없어졌으며, 폐에 다발성으로 전이된 암세포가 사멸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한방 면역치료에 대한 효과를 봤다고 전해졌다. <br/> <br/>한편 소람한방병원은 이 환자 사례를 논문으로 작성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 해 한방면역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3.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28일 대장암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4082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110015023293  
본문: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변정식 양동훈 박상형 교수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에서 ‘대장암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 <br/>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내시경 등의 적절한 검사를 받으면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암이다. <br/> <br/>이번 대장암 예방 캠페인 에서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며 적절한 식생활 등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br/> <br/>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4.txt

제목: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날짜: 20140821  
기자: 이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110015025889  
본문: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하지만 다른 공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산재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 <br/>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은경씨 등 다른 근로자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br/> <br/>재판부는 우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했던 황씨 등 2명의 경우 원심과 같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망인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등에 근무하면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span>”고 판단했다. <br/> <br/>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및 기흥사업장 5라인 공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취급 물질이 암과 무관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r/> <br/>원고 측 이종란 노무사는 판결 직후 “<span class='quot1'>삼성전자 측의 정보 은폐와 사실 왜곡 등 반박 주장에 맞서 싸워야 했는데 (산재를 인정해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유족들 고통에 삼성전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5.txt

제목: 배우 김진아, 하와이 자택서 암으로 별세···향년 50세  
날짜: 20140821  
기자: 최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110015025002  
본문: 김진아(사진=방송캡처) <br/> <br/>배우 김진아가 사망했다. <br/> <br/>지난 20일 새벽 김진아는 하와이 자택에서 지병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향년 50세. <br/> <br/>앞서 故김진아는 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해 하와이에서 거주 중이었다. 또한 올해 초 방송에 출연해 연예계 복귀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건강이 악화돼 하와이에서 요양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고인의 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치른 후 이달 중 한국에서도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br/> <br/>한편 故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해 80년대 섹시 스타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드라마 '개성시대' '명성황후', 영화 '못된 사랑', '하녀' 등에 출연했다. <br/> <br/>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6.txt

제목: 국내연구진, 간암 치료 효과 높인 '나노미사일' 개발  
날짜: 20140821  
기자: grl87@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1100000055  
본문: 한국·싱가포르의 공동연구진이 천연 물질로 간암 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인 '나노미사일'을 개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의 현택환 단장 연구팀이 싱가포르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연구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암 치료법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종양으로 분류된다. 미국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간암치료제 가운데 효과가 가장 좋다는 '소라페닙'도 간암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한다.연구팀은 수백 종의 약물 조사를 거쳐 천연물인 미역순나무에서 발견된 트립톨리드(triptolide)가 간암 세포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독성이 강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연구팀은 종양조직(pH 6.5)이 정상조직(pH 7.4)보다 산도가 낮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성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산성인 간암 조직에서만 터지는 고분자를 만든 뒤 트립톨리드를 그 안에 담았다. 여기에 암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엽산(비타민B군에 속한 수용성 비타민)을 붙여 종양만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이 나노미사일은 정상 조직을 피하고 간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생쥐로 실험한 결과 생존율이 3배 이상 개선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택환 단장은 "효능이 뛰어난 천연 간암치료제를 발굴한 것은 물론 나노기술을 융합한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성과는 지난 5일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나노재료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나노' 온라인판에 실렸다.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7.txt

제목: 연세사랑요양병원 강동철원장, 암 자연치유방법 담은 '암 낫는다' 출판  
날짜: 2014082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010015012030  
본문: 현대의학이 도입된 지 백 년이 넘은 현재, 자연의학은 제도권 밖의 민간의학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외국 서적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자연의학의 과학성과 성과가 입증되면서 국내에서도 재조명 받고 있다. <br/> <br/>이와 관련해 최근 ‘빌 헨더슨’과 의사 ‘카를로스 엠 가르시아’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한 미국 베스트셀러를 번역한 '암 낫는다(Cancer Free!)'(강동철·허준도 번역/(주)한울림)가 출간돼 암 환우와 가족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r/> <br/>암 낫는다(Cancer Free)는 미국에서 발간될 당시 60만 권이 팔려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으며, 현재 전 세계 9개 국어로 번역돼 출판되고 있다. <br/> <br/>본 서는 의사· 병원· 보조식품과 식단 변화· 중금속 제거· 해독 등 수백 가지의 암 치료법 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양생법(자가치료법)을 7가지로 알기 쉽게 요약했다. <br/> <br/>그 7가지 내용은 ▲면역증강제-베타 1,3 글루칸 ▲ 카티지치즈/아마씨유 혼합물 ▲하트플러스와 녹차추출물 ▲발리파워 ▲암과 싸우는 식품 ▲비타민/미네랄 보조식품-데일리어드밴티지 ▲비타민 D3의 복용법이다. 또 인슐린 강화요법· 약물요법· 레비치요법· 세포발광요법· 킬레이션요법 등 보다 저렴하고 쉽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br/> <br/>2장 ‘암 환경’에서는 현대인의 대표적 질병인 암 치료에 관한 현대의학 외의 치료방법과 암과 관련한 사실에 관해 설명한다. 3장부터 8장까지는 ‘암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를 시작으로 '카를로스 엠 가르시아 박사의 중금속과 킬레이션요법’에 이르기까지 암 완전정복을 위한 치료법을 ‘자연의학’· ‘대체의학’· ‘통합의학’적 접근에서 그 방법을 찾아 서술했다. <br/> <br/>이 같은 암 치료방법은 원 저자인 빌 헨더슨이 암으로 아내를 잃고 남은 생을 암환자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하면서 오랜 노력과 연구 끝에 얻은 방법으로, 그를 통해 수많은 암환자들이 삶을 되찾은 뜻 깊은 결실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암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네 가지 식품과 먹을 수 있는 식품의 구별법도 수록돼 있다.  <br/> <br/>금번에 출간된 암 낫는다(Cancer Free)는 ‘암 자연치유백과’라 할 만큼 자연치유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를 덧붙여 호평을 받고 있다.  <br/> <br/>연세사랑요양병원 강동철원장은 “<span class='quot0'>환경변화와 스트레스 증가는 연령과 무관하게 현대인의 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각종 바이러스 감염이나 암 발병을 예방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하며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외 자연치료와 면역요법 등 통합적인 치료법을 통하여 암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송파구 방이동 연세사랑요양병원에서는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본 서에서 소개된 여러 방법 외에도 면역요법 프로그램과 고주파온열암 치료 등을 암 환우 등에게 적용해 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8.txt

제목: 30-40대 여성 사망률 높은 위암, 정기 검진 중요  
날짜: 20140820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010015012561  
본문: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암으로 진료받은 환자수가 2009년 약 12만5천명에서 2013년 약 14만6천명으로 약 16% 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다. 특히 성별과 상관없이 50대 이상 환자들이 눈에 띄게 많은데 70대는 2009년 3만445명에서 4만43명으로 5년 동안 31.5%(약 1만명)가 늘었다. <br/> <br/>이처럼 위암은 50대 이상 고연령층에 환자가 집중돼 있지만 위암 사망률은 30-40대 여성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실제로 2011년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에 따르면 50-60대 여성 위암 사망률이 18.25%인데 비해 30-40대 여성 위암 사망률은 24.5%며 이는 30-40대 남성 사망률 19.15% 보다도 높은 수치다. <br/> <br/>보통 연령대가 높을수록 면역력 저하 등의 이유로 사망률이 높지만 여성의 경우 젊은층 여성에 나타나는 암세포의 유형이 악성인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br/> <br/>민병원 김종민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젊은층 암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검진 비율이 낮고 암세포 분화도가 나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분화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암세포가 정상 세포와 차이가 크고 불분명한 형태로 흩어져 있어 발견이 어렵고 전이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위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초기 통증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다.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암이 상당 진행된 상태이며 젊은층 환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도 가볍게 여기기 쉬워 조기 진단이 어렵다. <br/> <br/>만약 속쓰림과 더불어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위출혈로 대변색이 흑색으로 변한 경우 질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 건강검진과 식생활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br/> <br/>한국인들의 식습관 중에 염분이 많고 절인 음식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자제하고 탄 음식이나 지나치게 방부제가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흡연자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보균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br/> <br/>민병원 송옥평 원장은 “<span class='quot1'>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위암 발암인자인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궤양과 위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1'>주로 대변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나 손잡이 등을 주의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29.txt

제목: [포토] 암 예방 쿠킹 레시피  
날짜: 20140820  
기자: 남제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010015016884  
본문: 20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에서 암통합케어센터 의료진 추천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 암예방 건강 요리법을 소개하는  '암 예방 쿠킹레시피' 시식회가 열리고 있다. <br/> <br/>남제현기자 jehyun@segye.com <br/>사진=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0.txt

제목: 자궁경부암 핵심원인 HPV, ‘HPV DNA 검사’로 확실하게 예방하자  
날짜: 2014082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2010015016577  
본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씨젠의 자궁경부암 CF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는 자궁경부암을 원인부터 파악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br/> <br/>HPV(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이는 자궁경부암 CF 영상 속에서도 언급했듯이 ‘HPV DNA 검사’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HPV 바이러스는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HPV DNA를 직접 검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br/> <br/>HPV의 종류는 약 100여 가지로 매우 다양하며 암 발생 기전과 관련해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나뉜다. <br/> <br/>저위험군 바이러스는 대부분 인체 표피에 사마귀를 만들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감염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실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 <br/>하지만 고위험군 바이러스(HPV 16· 18· 21·31· 33· 35· 39· 45· 52· 56· 58· 59· 66· 68)는 감영상태가 지속되면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발전하고 이 중 일부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 <br/> <br/>이처럼 고위험군 HPV가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 되고는 있지만 반드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바이러스의 70~80%는 1~2년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우리의 면역체계에 의해 자연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r/> <br/>자궁경부암 HPV DNA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씨젠우먼(www.씨젠우먼.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1.txt

제목: 국내 연구진, PET 이용한 암 융합진료 시스템 개발  
날짜: 20140819  
기자: grl87@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9100000054  
본문: 국내 연구진이 대표적 의료 영상장비인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이용해 암 진단과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유전자 시스템을 개발했다.한국원자력의학원 강주현·김광일 박사팀은 PET 장비에 유전자 치료시스템을 접목시켜 암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융합진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밝혔다.이 유전자치료는 방사성동위원소인 '구리-64'를 이용한 것으로 '사람 구리수송체(hCTR1) 유전자'를 이용해 암 조직에 구리수송체를 과발현시킨 후 구리-64를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PET를 찍게 되면 암세포에 구리-64가 집중돼 암의 크기와 위치가 영상화되는 것은 물론 구리-64에서 배출되는 방사선으로 암세포가 파괴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즉 기존에는 암세포 진단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방사성의약품에 유전자 치료시스템을 접목시킴이로써 진단과 함께 치료도 가능해진 셈이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난치성 암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번 연구는 핵의학 분야 권위지인 '미국 핵의학회저널(Journal of Nuclear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2.txt

제목: 유방암 환자 급증, 한방 면역 암 치료법 이란?  
날짜: 2014081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8495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4년 사이에 유방암 환자 수가 4배가량 급증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는 1만 6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에 걸리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37.1%), 50대(29.1%), 60대(14.0%), 30대(12.7%), 70대(5%) 순으로 밝혀져 40대 이하 젊은 여성층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폐경 이후 50대와 60대의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며 유방암의 ‘안전세대’를 찾아볼 수 없다. <br/> <br/>실제로 50대 후반의 한 주부는 최근 진행성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8년 전 유방암이 재발했던 것. 한쪽 가슴 전체를 절제하고 항암치료까지 받았지만, 재발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처럼 모든 여성에게 싸늘한 공포로 다가오는 유방암은 한 번 걸리면 가슴을 상실할 수도 있어 큰 절망감을 주는 암으로 꼽힌다. <br/> <br/>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유즙(모유)을 만드는 조직이나, 유즙이 밖으로 나오는 관에서 가장 바깥쪽 세포인 상피세포에서 암세포로의 변이가 생겨 발생한다.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전적, 환경적, 영양적, 호르몬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인자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r/> <br/>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5%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암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유방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종괴가 발견될 수도 있다. 특히, 치료를 한 후에도 언제든지 전이와 재발이 나타날 수 있어 꾸준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br/> <br/>때문에 다양한 치료법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항암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최근 생명나눔한의원에서는 한방암치료법을 통해 효과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바로 항암본초와 산삼을 통해 만든 ‘산삼생명단’ 치료법. <br/> <br/>한방 면역 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생명나눔한의원 안소미 원장은 “<span class='quot0'>산삼생명단을 통해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재발이나 전이를 방지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후유증 개선, 백혈구 등 면역세포증가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전했다.  도움말:생명나눔한의원 안소미 원장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3.txt

제목: 체온 1℃의 과학, 한방암치료 온열요법  
날짜: 2014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7481  
본문: 의학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온열요법을 통해 어떠한 질병도 극복할 수 있으며, 온열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체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체온을 높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온열요법. 많은 사람들이 이 요법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정도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 요법은 찜질· 뜸· 온욕 등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 받은 보완대체요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br/> <br/>또 의학계에서도 이런 온열요법을 활용한 치료방법이나 의료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한 온열요법 <br/> <br/>우리 몸의 세포는 심부체온이 섭씨 36.5~37도일 때 활성화된다.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진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저하되며,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3배~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온열요법이 건강 효과를 내는 이유는, 몸이 따뜻해지면 생기는 열활성단백질 때문이다. 이 열활성단백질은 체온이 높을 때 자극을 받아 생성되는 단백질로, 체내에 열활성단백질이 증가하면 엔도르핀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몸의 면역기능이 올라간다. <br/> <br/>소람한방병원의 김성수 대표원장은 "이런 치료기전을 이용해 한방암치료에는 온열요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온열요법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 암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 개선된다. 또 암으로 인한 통증이 감소해 대사 기능이 좋아져 암환자들에게 매우 효과 높은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일상생활에서도 온열요법을 응용한 반신욕 <br/> <br/>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대표원장은 "집에서는 뜸을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찜질팩을 이용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찜질은 배꼽과 배꼽의 2~3㎝ 아랫부분을 하루에 한 번씩 해주면 된다"고 전했다. <br/> <br/>김 원장은 이어 "그 효과로 몸의 대사 기능이 올라가 만성적인 소화기 증상이 완화된다"면서 "아랫배나 엉덩이 부위를 찜질하는 것도 좋다. 뜨거운 장판에 누워서 온몸을 지지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평소에는 장판 온도를 피부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로 맞추고 사용해야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도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항암치료 병행하면 부작용 개선 등 효과 높아져 <br/> <br/>암세포는 온도가 낮을 때 활성화되고, 42도 정도의 열에서는 죽는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암세포까지 42도의 열을 전달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때문에 온열요법은 암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많이 쓰인다. <br/> <br/>소람한방병원을 내원한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항암치료와 한방면역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은 증상개선 및 부작용 감소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삶의 질이 92.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4.txt

제목: 국립암센터, 2014 암 대사 워크숍 개최  
날짜: 2014081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3666  
본문: 국립암센터는 22일 오후 1시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대강당에서 ‘2014 암 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br/> <br/>이번 워크숍은 ‘어둠 속에 한줄기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말기암, 난치암에 희망적인 암 대사연구의 태동’을 비롯한 총 9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립암센터 미래도전암대사통합연구사업 및 보건복지부 암정복과제 ‘암 대사’연구과제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암 대사 연구의 방법론과 성공적 성과들이 소개될 것이며, 관심 있는 이들과의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워크숍 참가 등록비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5.txt

제목: “제중원 옛 건물 복원 환자들 힐링캠프로”  
날짜: 2014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9008  
본문: “1885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濟衆院)이 올해 개원 129주년을 맞았습니다. 고증을 거쳐 제중원을 옛 건물 그대로 복원해 환자들을 위한 ‘힐링캠프’로 만들겠습니다.” <br/> <br/>정남식(62·사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의 포부다. 지난 1일 취임식을 가진 정 원장은 18일 기자들과 처음 만나 포부를 밝혔다. <br/> <br/>“원래 국립병원으로 출발한 제중원이 1904년 미국인 사업가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 ‘세브란스병원’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의 출발점인 셈이죠. 제중원의 복원은 한국 의료사의 새로운 혁신을 뜻합니다.” <br/> <br/>정 원장에 따르면 제중원 힐링캠프는 중증이나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게 목표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각종 모임을 주최하고, 수시로 미술 전시회와 음악 공연을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교인, 화가, 연주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받을 방침이다. 정 원장은 “<span class='quot0'>제중원 힐링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와 가족에 기여하는 곳으로 운영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의료원과 사회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4, 5개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식’하는 바람에 중소병원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원성이 적지 않다. 정 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세브란스 병원은 암이나 심혈관질환, 난치성 희귀 질환 치료와 연구에만 치중할 생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굳이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필요가 없는 경증 환자들을 설득해 다른 병원에 가도록 적극 권유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6.txt

제목: 동아ST, 듀라스틴 주 식약처 허가 취득  
날짜: 2014081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810014993337  
본문: 동아에스티는 호중구감소증치료제인 ‘듀라스틴 주사액(트리페그필그라스팀)’에 대해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호중구감소증이란 백혈구 안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호중구가 갑자기 떨어질 때의 증세를 말하며, 호중구감소증치료제 G-CSF 제제는 암환자의 항암치료 시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암보조치료제다. 지난해 전 세계 약 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암젠사(社)의 ‘뉴라스타’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br/> <br/>‘듀라스틴’은 독자적인 지속성제제 기술을 적용해 개량한 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제제의 2세대 약효지속성 바이오베터 의약품으로, 적응증은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이다. <br/> <br/>1세대 G-CSF제제보다 수용성을 증가시키고 생체 내에서 장시간 약효를 유지하여 항암화학요법 주기 당 단1회 투여로 호중구감소증의 예방 및 발현 기간을 감소시킨다. <br/> <br/>동아에스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세대 바이오베터 의약품 듀라스틴은 기존에 매일 투여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복용 편의성을 높였고, 잦은 투여로 인한 면역반응 유발의 가능성을 낮췄다</span>”며 “<span class='quot0'>금년 내 발매와 해외 개발 및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듀라스틴’은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2007년 전임상 시험을 완료했다. 이후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예방 및 치료에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고 지난해 8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7.txt

제목: 교황이 찾는 주요 성지 ‘솔뫼’·‘해미’는  
날짜: 2014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410014979158  
본문: 25년 만에 방한한 교황의 일정은 한국의 성지 중심으로 짜여 있다. 5일 동안 이루어지는 교황의 일정 중 4일이 국내에 조성된 가톨릭 성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한국 가톨릭의 전통이 깊고 수많은 순교자가 존재한다는 뜻. 교황은 각 성지에 도착할 때마다 기도와 참배를 하며 한국의 순교자에게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기간 찾게 될 주요 성지를 중심으로 교황의 일정을 정리했다. <br/> <br/>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오후 방문하게 될 충남 당진의 솔뫼성지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다. 교황은 김 신부의 영정에 장미꽃을 바치며 기도할 예정이다. 성지에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와 제3회 한국청년대회에 참가한 젊은이들과 성소자(사제나 수도자 지망자), 당진 지역민 등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황은 행사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희귀병, 암 등 병마와 싸우는 환자, 불임을 극복한 부부 20여쌍과 그들의 자녀를 만날 계획이다. 이후 청년대회 참가자들이 있는 ‘만남의 장막’에서 아시아 청년들과 만남을 갖는다. <br/> <br/>교황은 16일 광화문에서 봉헌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에 앞서 서소문 순교성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곳은 200여년 전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신앙인들이 ‘인륜을 저버린 패륜의 죄인’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곳이다. 교황은 서소문 성지의 현양탑 앞 제대에 헌화를 한다. 이 자리에는 서소문에서 순교한 이현의 후손 이수진 수녀, 홍낙민의 후손 홍기홍, 정약종의 후손 정호영, 윤지충의 후손 윤재석씨와 한국 첫 세례자인 이승훈 순교자 후손인 서울대교구 병원사목부 이태석 신부가 동석할 예정이다. <br/> <br/>17일에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해미성지의 소성당에서 아시아 주교들과 만나 성무일도 낮기도를 바친 뒤 박물관에 들러 순교자 유해를 참배할 예정이다. 해미성지는 ‘천주학 죄인’들이 생매장당한 순교지에 조성된 곳으로 이날 오후에는 해미성지에서 2㎞ 떨어진 해미읍성에서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폐막 미사가 열린다. 해미읍성은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가 순교한 옥터, 순교자들의 머리채를 묶어 매달던 ‘호야나무’ 등이 남아 있다. 교황은 폐막 미사에 참석한 뒤 16일 시복되는 해미 순교자 3위(인언민·이보현·김진후)의 기념비 제막식에도 자리한다. <br/> <br/>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울 명동성당을 찾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를 드린 뒤 지하 소성당으로 가서 기도하며 순교자의 유해를 참배한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기해박해(1839)와 병인박해(1866) 당시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다.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조선에서 선교하다 기해박해 때 순교한 성 앵베르 주교,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탕 신부,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인 성 최경환, 성 김성우, 병인박해 때 순교한 푸르티에 신부와 프티니콜라 신부, 이 에메렌시아와 무명 순교자 1명의 유해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8.txt

제목: 서울대병원 UAE 칼리파 병원 위탁운영 정식 계약체결  
날짜: 20140814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410014973852  
본문: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종합병원을 5년간 위탁운영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는 첫 해외 종합병원 위탁운영 계약이다. <br/> <br/>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대병원이 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사진) 위탁운영 정식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병희 서울대병원장과 알 자비 UAE 대통령실 차관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만나 계약에 서명했다. <br/> <br/>서울대병원은 앞으로 5년간 UAE 대통령실로부터 약 1조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병원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1400여명 규모의 칼리파 병원 인력 가운데 의료진 약 150명은 국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수익과 연간 70억∼80억원 수준의 위탁운영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r/> <br/>내년 4월 공식 개원할 칼리파 병원은 라스알카이마 지역에 위치한 총 248병상 규모(대지면적 20만㎡·건물 연면적 7만2248㎡)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암·심장질환·어린이질환·응급의학·재활의학·신경계질환에 중점을 둔 3차 병원이다. <br/> <br/>칼리파 병원은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원에 앞서 오는 11월부터 암·심장 등 주요 진료과목 외래를 시작하기 위해 의료기기와 인력 배치 등을 준비 중이다. <br/> <br/>서울대병원은 이번 계약을 위해 지난해 9월 위탁운영 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병원과 경쟁을 벌였다. 지난 6월 UAE 대통령실 실사단이 국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을 실사한 끝에 최종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39.txt

제목: 캡사이신 과다 섭취 암 발생 촉진한다  
날짜: 2014081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310014964163  
본문: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린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br/> <br/>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아군 즉,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위암을 비롯한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교수팀은 캡사이신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캡사이신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자연살해세포의 세포질 과립방출 기능장애를 일으켜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br/> <br/>자연살해세포는 혈액 속에서 떠다니다 암세포를 만나면, 암 세포막에 구멍을 낸 후 세포질과립을 분비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항암면역세포이다. <br/> <br/>연구진은 여러 암세포를 대상으로 캡사이신의 양을 10μM, 20μM, 50μM, 100μM(마이크로몰?백만분의 1몰) 등으로 각각 다르게 투여한 후,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비교 분석했다. <br/> <br/>연구결과, 위암세포 AGS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세포질 과립 방출 정도)가 캡사이신 투여 전 15%에서 고용량 50μM을 투여 후 10%로 활성도가 33%나 감소했다. <br/> <br/>자연살해세포 기능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혈액암세포 221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캡사이신 투여 전 32%에서 50μM 투여 후 16%, 100μM 투여 후 4%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반면 저용량의 캡사이신 10μM, 20μM을 투여했을 때에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28%, 27%로 투여 전 32%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br/> <br/>캡사이신 자체가 암을 일으키진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캡사이신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아군의 무기를 망가뜨려 암세포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다.  <br/> <br/>김헌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자연살해세포 활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용량 캡사이신에 대한 활성억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캡사이신을 고용량으로 섭취할 개연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교수 <br/> <br/>또 캡사이신은 체내 수용체인 TRPV1 단백질과 결합해 항암활성을 나타내는데, 고용량의 캡사이신은 TRPV1과 결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장애를 유도했다. <br/> <br/>이는 상대적으로 TRPV1이 부족하거나 민감성이 떨어지는 30, 40대 이후 성인이 캡사이신을 다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암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br/> <br/>그동안 캡사이신은 암 억제나 진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항암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암세포에만 국한됐던 캡사이신에 대한 연구를 항암면역세포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캡사이신 연구가 암에만 국한됐던 반면, 이번에는 항암면역세포 활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span>”라며 “<span class='quot0'>캡사이신에는 항암, 통증완화 등 유용한 생리 활성성분도 많은 만큼 적당하게 먹으면 좋지만, 지나치게 매운 고추는 피하고,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로티어 사업과 선도연구센터 사업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 SCI 학술지 ‘칼시노제네시스(발암학회지, IF:5.635)’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0.txt

제목: “매운 음식 지나치게 먹으면 암 발생 촉진”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310014969958  
본문: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암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교수팀은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 캡사이신을 투여한 결과 체내에서 항암 면역기능을 하는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암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살해세포는 혈액 속에서 떠다니다 암세포를 만나면 암 세포막에 구멍을 낸 후 세포질과립을 분비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br/> <br/>캡사이신이 암 유전자(EGFR)의 활성을 유도해 염증 유발 및 암 발생에 중요한 단백질(COX-2)을 발현시켜 피부암 등의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은 있지만 자연살해세포와의 연관성을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캡사이신 자체가 암을 일으키진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 속 아군의 무기를 망가뜨려 암세포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1.txt

제목: 할리우드 원조 섹시스타 로렌 바콜 별세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310014970466  
본문: 1940∼50년대 은막을 주름잡았던 미국 여배우 로렌 바콜(89)이 1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br/> <br/>AFP통신은 미국 연예전문매체 TMZ를 인용해 바콜이 이날 아침 집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전했다. <br/> <br/>바콜은 1942년 잡지 표지모델을 계기로 영화계에 뛰어든 뒤 영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데뷔했고 함께 출연한 25세 연상의 험프리 보거트와 1945년 결혼했다. <br/> <br/>1957년 보거트가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으며 두 자녀를 뒀다. <br/> <br/>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한동안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으며 1960년대에는 브로드웨이 연극무대에 등장해 토니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바콜은 섹시한 미모와 174㎝의 큰 키는 물론 허스키한 목소리와 직설적 화법으로도 유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2.txt

제목: '안녕, 헤이즐' 호평 이어져… 관람포인트는?  
날짜: 20140813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310014967462  
본문:   <br/> <br/>영화 ‘안녕, 헤이즐’이 13일 개봉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br/> <br/>'명량' '해무' 등 한국영화 블록버스터들 사이에서 '안녕, 헤이즐'(감독 조쉬 분)은 전 세계 관객과 평단을 사로잡은 작품이란 강점을 무기로 영화팬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이 영화는 2012년 출간된 존 그린의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The Fault in Our Stars)'를 원작으로, 암에 걸린 소녀와 그녀 앞에 나타난 순정남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 <br/> <br/># 재치와 유머를 겸비한 유쾌한 영화 <br/> <br/>'안녕, 헤이즐'은 관객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웃음을 유발한다. 폐가 좋지 않은 헤이즐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어 실망을 안겨줄 뻔한 어거스터스가 "사람을 죽이는 물건을 입에 물지만, 날 죽일 힘은 주지 않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며 능글맞게 미소 짓는 장면, 헤이즐과 어거스터스, 아이작 세 친구가 아이작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날계란을 던지는 장면 등 재치와 유머를 겸비한 장면들로 관객들에게 속이 시원해지는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br/> <br/># 사랑과 우정, 가족애, 삶… 폭풍 공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br/> <br/>단순한 로맨스 영화가 아니다. 사랑은 물론 우정, 가족애, 삶의 의미까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헤이즐과 어거스터스의 두근거리는 러브 스토리를 중심으로 헤이즐, 어거스터스, 아이작의 각별한 우정과 헤이즐에게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 등 다양한 감정과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까지 관객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올 여름 극장가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영화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br/> <br/>  <br/> <br/># 베스트셀러 원작이 선사하는 명대사 & 주인공 커플의 케미와 신예의 발견 <br/> <br/>존 그린의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니 만큼 '안녕, 헤이즐'에는 명대사들이 대거 등장한다. 특히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는 헤이즐과 어거스터스의 대화들은 그야말로 명대사의 향연. 낭만적인 암스테르담에서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에게 "갈수록 뜨거워지는 태양이 이 지구를 녹여버리겠지만 난 지금 널 사랑하고 있어"라며 설레는 사랑 고백을 하고, 헤이즐 또한 "너를 만나 내 삶은 무한대가 되었어"라며 어거스터스에 대한 마음을 전한다. 주인공을 맡은 쉐일린 우들리와 안셀 엘고트는 할리우드에서 주목 받은 최강의 신예로 이번 영화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열연을 선보였다. 평소에도 친분이 두터운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환상적인 커플 케미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무한대의 설렘을 선사한다. <br/> <br/>'안녕, 헤이즐'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호주 등 총 18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 젊은 감각과 안정적인 연출 실력을 지닌 조쉬 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3.txt

제목: 국립암센터, ‘제5회 엄마·아빠직장 체험학습 행사' 개최  
날짜: 2014081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210014958400  
본문: 국립암센터가 12일 오전 원내에서 100여명의 직원 자녀 및 자녀 친구들을 초청하여 ‘제 5회 엄마·아빠직장 체험학습 행사’를 개최했다. <br/> <br/>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직원 자녀들을 엄마아빠의 직장으로 초대, 부모님들의 일터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이뤄지는 암 연구·진료·암 관리사업 업무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국립암센터에 대한 이해와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br/> <br/>행사는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애니메이션 ‘암예방수칙’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br/> <br/>또 연구소의 수술용 로봇, 양성자치료센터의 토모치료기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 도전 퀴즈 왕, 풍선 아트, 엄마·아빠께 사랑의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br/> <br/>행사에 참여한 류원석 군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 와서 보니 아빠가 하시는 일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는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 자녀들이 부모의 직장을 견학함으로써 장래의 꿈을 키우고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과 동시에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span>”고 밝혔다. <br/> <br/>국립암센터는 엄마아빠직장 체험학습 외에도 2008년부터 출산· 육아 장려 캠페인을 매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발굴 실행해 지난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4.txt

제목: 분당차병원, 항암치료 식단 전시회 개최  
날짜: 2014081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110014946317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2층 대강당에서 ‘암환자를 위한 항암치료 식단 무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번 행사는 △분당차병원 항암치료 식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발표(임상영양사 심진주) △영양강의: 항암치료 시 영양관리(임상영양사 배은주) △질의응답 △항암치료 식단 전시회 및 부스 관람 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br/> <br/>장영은 분당차병원 영양팀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항암환자 식단전시회에서는 항암치료 시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할 식품과 영양관리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 스스로 치료와 회복에 따른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영양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항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 <br/> <br/>이번 건강강좌는 항암치료 환자 및 가족, 항암치료 식단에 관심 있는 일반인 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문의는 분당차병원 영양팀으로 하면 된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5.txt

제목: 성관계 연령층 ↓…감기와 비슷한 구강성병 조심  
날짜: 20140811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110014951354  
본문:   <br/> <br/>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성적으로 자유로워진 사회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층이 낮아져성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br/> <br/>국립암센터가 '2012 통계로 본 암 현황'을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율을 살펴보면, 성관계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학생은 지난 2005년 4.8%에서 2010년 5.3%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지난 2010년도에는 성관계 경험 학생의 비율이 13.4%까지 올라갔다. <br/> <br/>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 연령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병에 노출 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병은 그 종류도 많고 증상에 따라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또 구강 및 인두점막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br/> <br/>특히 구강성교는 임신에 대한 염려가 없어 콘돔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은 콘돔을 착용한 일반성교시보다 높은 감염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구강성병의 주된 증상은 감기증상과 비슷하다. 목이 붓고 가래가 끼는 증상이 반복된다. 때문에 구강내 성병을 보균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감기로 오인해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 <br/> <br/>이들은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도 증상에 개선을 느끼지 못하곤 한다. 특히 최근엔 감기에 가급적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확실하게 치료가 되지 않아 그 전염율이 높아지고 있다. <br/> <br/>구강내성병균으로인해 감염된균은 남성의 정관이나 여성의 나팔관에섬유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또 구강성교로 인해 구강내HPV(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는인후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br/> <br/>골드만비뇨기과 이민종 원장은 "구강 내 성병을 보균하고 있는 상대와 구강성교가 이루어질 경우요도내에 균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구강 및 인두에 감염이 될 경우 증상이 거의 없어 감염자에 의한 병의전염이 쉽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구강성병은 정확한 핵산증폭검사를 통해 균의 DNA를 조사해치료 가능하다"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각한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골드만 비뇨기과는 유전자 DNA검사(PCR검사)를 통해서 기존의 검사로는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균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균들을 효과적이며, 빠르게 치료 할 수 있는 맞춤치료시스템을 도입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춘계 비뇨기과의사회 학회에서 남성 성기사마귀의 예방및 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6.txt

제목: “모유 수유, 유방암 예방·산후 회복에 큰 효과”  
날짜: 2014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1010014941448  
본문: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는 매년 8월 첫째 주를 ‘세계 모유수유 주간’으로 정해 모유 수유를 홍보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도 이 주간에 맞춰 지난 1∼7일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모유가 아기한테 좋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야 거의 없겠으나, 한국의 모유 수유율은 2009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사진) 교수와 모유 수유의 장점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br/> <br/>“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젖을 빨 때 반사적으로 산모 혈중의 옥시토신 농도가 높아집니다. 옥시토신은 일종의 자궁수축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옥시토신 농도가 높아지면 산후 출혈 감소 효과가 있고, 또 자궁을 빠르게 수축시킵니다.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들은 6주일 안에 자궁이 임신 전 크기로 되돌아가죠. 아기가 젖을 빨면 젖 분비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때 배란이 억제되므로 자연 피임 효과도 생깁니다.” <br/> <br/>김 교수에 따르면 모유 수유는 출산 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급격히 불어난 체중이 줄지 않아 고민하는 여성들한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모유 수유로 칼로리 활용이 높아지고, 젖을 분비하는 양만큼 엄마 몸의 지방도 분해되므로 산후 회복이 빠르고 출산 전 체형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단축된다</span>”고 설명했다. 골다공증과 난소암 발생률을 줄이는 것도 모유 수유의 긍정적 기능 중 하나다. 특히 유방암 예방에는 모유 수유만큼 좋은 게 없다. <br/> <br/>“갑상선암에 이어 여성 암 발병률 2위인 유방암은 완치율이 높다곤 해도 온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암연구기금(WCRF)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병 위험성을 5%가량 낮춘다고 해요.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만으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br/> <br/>요즘 각종 기능성 분유가 많이 출시되다 보니 ‘모유보다 분유가 아기 몸에 더 좋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span>”이라고 단언한다.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어도 키와 몸무게가 증가하고 두뇌가 발달하는 등 신체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다.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콜레스테롤과 디에이치에이(DHA)가 모유에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br/> <br/>“모유는 각종 면역물질과 항체를 포함하고 있어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현저히 줄이고 면역력도 키워주죠.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높아 여름철에 흔히 걸리는 장염이나 감기 등에 강합니다.” <br/> <br/>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다. 모유 수유는 아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그뿐 아니다. 출생 직후부터 6개월 동안 모유를 먹은 아이의 아토피피부염 발생률은 그러지 않은 아이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모유는 천식, 습진, 당뇨 같은 비감염성 질환 발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아이의 인지능력 발달과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 <br/> <br/>한국의 모유 수유율이 낮은 건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모유 수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탓도 있으나, 외모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모유 수유가 여성의 가슴을 처지게 한다고 알려져 많은 산모들이 모유 수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모유 수유는 꼭 필요하다</span>”고 거듭 강조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7.txt

제목: 가슴 절제가 더 두려운 유방암, 다른 방법 없을까  
날짜: 20140808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0810014936609  
본문:   <br/> <br/># 주부 임모씨(여, 40)씨는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유방암을 발견했다. 종양의 크기는 3.5x2.7cm였으며, 자각증상은 없었다. 건강검진 당시 의사는 “<span class='quot0'>수술시 종양의 위치가 가슴 근육과 붙어 있어 난이도가 꽤 높은 수술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조기 자각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방암의 약 20%는 정기검진을 통해 발견된다. 조기에 발견할 경우 생존율이 90%에 이르며 유방보존 수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3기를 넘게 되면 생존율이 50% 정도로 떨어지므로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br/> <br/>청담산부인과외과 김태희 원장은 “<span class='quot1'>많은 여성들이 유방에 종양이 발견되면 모두 유방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증상에 따라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방법도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유방암은 여성암의 2위, 연평균 높은 증가율 보여 <br/> <br/>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1위가 갑상선암, 2위가 유방암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방암은 연 평균 6.1%의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br/> <br/>유방암은 최소한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발생한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며, 유방암이 진행됨에 따라 피부의 궤양, 함몰, 겨드랑이 종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유방암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영향, 연령 및 출산경험, 수유, 음주, 패스트푸드와 육류중심의 식습관, 늦은 결혼으로 인한 출산지연, 스트레스, 방사선노출,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br/> <br/>유방의 상피세포는 에스트로겐 등의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성장 및 분열을 하는데 출산이나 모유수유 경험이 없거나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어 생리를 오래한 여성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br/> <br/>◆카테터 주입해 종양 제거하는 혈관 내 치료로 흉터 없이 치료 <br/> <br/>유방암 검사를 받고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면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유방암이 전이암으로 변하게 되어 다른 장기까지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br/> <br/>유방암의 치료법은 외과적 절제와 항암치료, 비수술 치료법 등이 있다. 절제술의 경우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유방암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br/> <br/>치료 시 고통을 줄이고 유방을 그대로 보존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혈관 내 치료법이 있다. 유방암이 림프절과 뼈 전이가 되면 심한 통증이 수반되고 팔이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혈관 내 치료는 통증을 현저하게 줄여주고 팔도 예전처럼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준다. <br/> <br/>김태희 원장은 “<span class='quot1'>혈관 내 치료는 가는 카테터를 동맥 내에 삽입해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통증과 합병증이 없으며, 정상조직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전신항암보다 적은 항암제 양을 주입해 종양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므로 항암 시 나타나는 골수억제, 머리 빠짐 등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혈관 내 치료는 암이 발생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신생혈관의 펌프에 약물을 투입해 불필요한 혈류만 줄여 종양이 커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종양이 줄어들게 하는 원리다. 비수술적 치료인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종양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이암, 간암, 췌장암, 폐암 등의 악성종양과 거대 자궁근종과 같은 양성종양이 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8.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산야초 발효액과 면역 강화  
날짜: 2014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0610014923845  
본문: 최근 서부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에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고열, 출혈, 탈수 등의 증상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br/> <br/>2003년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강타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발효식품인 김치 덕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br/> <br/>김치에 많이 들어 있는 마늘은 이미 암과 심장병 발생률을 줄이고 각종 감염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가 조류독감 퇴치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김치를 비롯한 된장, 청국장 등 발효식품은 단순한 영양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 <br/>요즘 제철에 수확되는 산야초나 과일을 설탕에 담가 만든 ‘발효액’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고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 산야초, 과일을 재료로 만든 발효액도 인체 면역력을 증강하는 성분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br/> <br/>발효는 유기물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 분해돼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당분해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오래전부터 빵, 양조제품 제조 등에 이용돼 왔다. 발효에는 효소가 중요하게 관여한다. <br/> <br/>효소(엔자임)는 각종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이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도 효소에 의해 속도가 빨라진다.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수많은 생화학 반응은 모두가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효소의 종류도 매우 많다. 대표적인 효소로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 가수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를 들 수 있다. 식물은 동물에 비해 더 많은 효소를 가질 수 있다. <br/> <br/>최근 유전체 연구에 의하면 인간 세포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약 2만4000개인 데 비해 벼와 감자에는 약 3만8000개 있음이 밝혀졌다.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 토코페롤 등 천연 항산화물질은 식물에는 풍부하지만 사람은 만들지 못한다. 한 종류의 항산화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br/> <br/>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대부분의 효소는 적정 온도와 적정 pH (수소이온 농도) 범위에서 활성이 활발히 일어난다. 부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하면 효소의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다. 한때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효소의 하나인 SOD(superoxide dismutase)는 노화 방지 화장품, 기능성 차, 목욕 첨가제 등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SOD는 실온에서 쉽게 변성돼 소비자가 사용할 시점에는 효소로서 기능이 없어진 단백질에 불과한 것이다. 효소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돼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br/> <br/>산야초 발효액의 인기와 함께 명칭과 효능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산야초나 과일 무게의 약 50%의 설탕을 넣고 일정기간 담가 만든 것을 일부에서 효소액이라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효소액이 아니라 ‘발효액’이 더 적절하다. 발효액에는 효소반응에 의해 생긴 물질과 설탕물에 의해 추출되는 성분이 존재한다. 식물 재료를 설탕물에 오래 담가 두면 ‘팽윤현상’(물질이 용매를 흡수해 부푸는 것)으로 세포막이 터지면서 세포에 들어 있던 영양성분 가운데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성분이 설탕물에 의해 추출된다. 여기에는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면역활성이 있는 항산화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br/> <br/>음식에도 먹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음식궁합이 있듯이 건강을 위해서나 질병 치료에도 각자의 체질에 맞는 처방이 중요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야초 발효액이라도 같은 성분을 장기간 많이 복용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개별 산야초 발효액의 질병치료, 면역활성, 건강에 대한 종합적 과학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br/> <br/>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49.txt

제목: 분당차병원, 부인과분야 로봇수술 100례 달성  
날짜: 20140805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0510014911601  
본문:   <br/> <br/>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차병원)이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자궁근종, 난관복원수술 등 부인과 분야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도입 7개월 만에 100건을 돌파했다. <br/> <br/>5일 차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다빈치Si 로봇수술을 처음 시작한 이래 부인과 이외에도 비뇨기과·외과·흉부외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br/> <br/>로봇수술은 기존 개복수술을 보완한 최신 수술법이다. 기존 개복수술에서는 암 덩어리를 포함한 장기를 제거할 때 긴 복벽 절개가 필요했으나 로봇수술은 복벽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구를 삽입, 수술을 진행한다. <br/> <br/>출혈량이나 수술 후 통증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고배율의 3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때문에 기구의 관절을 이용해 인간의 손과 유사한 기술이 가능하고, 수술자가 콘솔을 사용해 장시간의 수술에 따르는 피로도도 줄일 수 있다. <br/> <br/>분당차병원 지훈상 원장은 “<span class='quot0'>단기간에 로봇수술 100건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 결과로 보답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로봇수술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 전 외과 계열의 고난이도 중증수술을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차병원은 지난 1988년 국내 최초로 산부인과 영역에 복강경 수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0.txt

제목: 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 개설  
날짜: 20140804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0410014902789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 첨단연구암센터 내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br/> <br/>4일 차의과대학교에 따르면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은 암환자 및 암 발병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 상태를 검사해 진행 중이거나 숨겨진 암의 발병확률을 예측한다. <br/> <br/>종양 유전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조기검진,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r/> <br/>모든 종양의 5~15%는 유전성으로, 유전성 암은 여러 유전자들 중에서 특정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진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 다른 암에 비해 조기에 발병하고 다른 장기에서 암을 함께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난소암 환자의 경우는 자궁내막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br/> <br/>이제호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가족 중 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1.txt

제목: 차가버섯, 노벨문학상 수상작 ‘암병동’에 소개돼 눈길  
날짜: 20140804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0410014904853  
본문: 자연이 준 선물로 불리는 차가버섯이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암병동’에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암병동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3년간의 유형생활 중 우즈베크 공화국의 타슈겐트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죽음 일보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그린 체험적 기록이다. 책에서는 당시 솔제니친이 말기 암 선고를 받았으나 성공적으로 치료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솔제니친은 이 작품을 통해 지난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br/> <br/>솔제니친의 문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암병동'은 솔제니친 개인에 그치지 않고, 차가버섯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차가버섯의 '차가'는 언뜻 우리나라 말처럼 보이지만 러시아어 'Чага'를 우리말로 발음한 것으로 영문으로는 Chaga, Chaga Mushroom 등으로 불린다. <br/> <br/>차가버섯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죽은나무나 부식토· 토양 등에서 자라는 버섯과 달리 살아 있는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이다. Inonotus Obliquus라는 균이 자작나무 내부에 침투해 영양분을 빼앗아 10여년간 성장한 후 나무 표면으로 돌출돼 나오는데, 이 부분을 차가버섯이라 부른다. <br/> <br/>이 과정에서 자작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그 수명이 다하고 죽는데,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에서는 차가버섯을 '자작나무의 암(癌)'이라 부르기도 한다. <br/> <br/>러시아는 차가버섯의 본고장으로 예부터 차가버섯을 민간약재로 사용해왔으며,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차가버섯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2세기 러시아 황제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가 입술에 생긴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차가버섯을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이후에도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1950년대 이뤄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연구는 주목할만하다. <br/> <br/>러시아(구소련)는 여러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지난 1950년부터 1960년까지 만 10년 동안 차가버섯 연구 실시, 차가버섯의 다양한 효능· 효과를 확인하게 됐다. 이에 마침내 지난 1955년 11월 26일 소련 보건부 학자 소비에트 약리학위원회는 차가버섯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발표했다. <br/> <br/>하지만 차가버섯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폐쇄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만 이용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br/> <br/>바로 이즈음에 위암 말기를 진단받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차가버섯을 이용해 치료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 '암병동'을 지난 1968년 발표했다. 이는 차가버섯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 이후 차가버섯은 러시아를 넘어 핀란드·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는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br/> <br/>건강 기업 고려인삼공사는 차가버섯 국내 도입 초기인 지난 2001년 처음 차가버섯을 접한 후, 이듬해인 2002년부터 러시아산 차가버섯을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해오고 있다. <br/> <br/>고려인삼공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차가버섯이 수입 초기에 비해 그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는 암환우 뿐만 아니라 일반들에게도 알맞은 제품을 개발하겠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2.txt

제목: 차가버섯, 베타글루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효성분 다량 함유  
날짜: 2014080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80110014892152  
본문: 대체식품 전문기업 고려인삼공사는 천연 대체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가버섯에 베타글루칸 외에도 다른 유효성분들이 다량 함유됐다고 설명했다. <br/> <br/>차가버섯에 함유된 성분으로는 익히 알려진 베타글루칸과 SOD 항산화물질을 비롯해 폴리페놀은 물론 이노시톨· 망간· 아연· 각종 유기산 등 여러 생리 활성 물질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오랜 연구결과 유독 차가버섯에 많이 들어있고 약효가 우수한 성분은 베타(1-3)글루칸인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베타(1-3)글루칸은 차가버섯의 효능을 좌우하는 주요한 성분이다. <br/> <br/>일반 베타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버섯류에 함유돼 있다. 하지만 차가버섯에 함유된 베타(1-3)글루칸은 다른 버섯류가 가지고 있는 베타글루칸과 비교해 차이를 보인다. 질병을 가진 환자의 몸에 흡수돼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일부 암에도 높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r/> <br/>차가버섯의 베타(1-3)글루칸 함량은 항암버섯으로 유명한 아가리쿠스보다 5배 이상, 상황버섯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인다. <br/> <br/>하지만 차가버섯의 약효는 베타글루칸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차가버섯에는 앞서 언급한 성분들 외에도 칼슘·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이 함유돼 있으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유효성분들이 많이 있다. 때문에 베타글루칸만으로 차가버섯의 효능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br/> <br/>러시아 키트(K&T LTD)차가버섯의 한국·아시아·미국 총판을 맡고 있는 고려인삼공사 관계자는 "차가버섯의 효능은 베타글루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유효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이다"고 전했다. <br/> <br/>그는 이어 "차가버섯은 원물을 우려내 먹는 것 보다는 추출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무엇보다 원물이든 추출분말이든 복용법을 잘 숙지한 후 일정기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3.txt

제목: 병 보다 아픈 편견에 우는 뇌전증 환자  
날짜: 2014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3110014885654  
본문: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A(30)씨는 5년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발작 증상을 경험했다. 병명은 뇌전증이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증상은 나아졌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뇌전증이란 사실을 알리자 취직에 번번이 실패한 것이다. 병을 숨기고 들어간 회사에서도 우연히 병명이 밝혀지면서 해고를 당했다.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던 그는 결국 지난해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밖에 나가길 꺼리면서 대인관계도 끊어졌다. 그는 “<span class='quot0'>약을 먹으면서 최근 몇년간 발작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만날때면 날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없어진다</span>”며 “<span class='quot0'>병 자체보다도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span>”고 털어놨다. <br/> <br/>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간질’이란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br/> <br/>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최근 ‘감영병의 진단기준’을 개정하면서 법령 용어 상 ‘간질’을 ‘뇌전증’으로, ‘간질발작’을 ’뇌전증발작’으로 바꿨다. 간질이란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의료계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2010년부터 간질의 공식 명칭을 뇌전증으로 고쳐부르고 있다. <br/> <br/>뇌전증이란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되거나 억제되면서 신체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는 증상을 말한다. 100명 중 한명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병으로,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만 40만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은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뇌전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학은 발달하지만 차별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면이 있다. 다른 장애에 비해 장애 등록율이 현저히 낮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간질이란 단어가 주는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있기때문에 이번 결정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r/> <br/>용어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뇌전증 환자들이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있는만큼, 실질적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노력이 수반돼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환자의 70∼80%는 약물치료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고 정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경중 차이 없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해고 되는 등 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대한뇌전증학회 따르면 취업시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알리면 60%가 취업을 거절당하고, 직장 생활 중 뇌전증 환자임이 밝혀질 경우 40%가 해고 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span class='quot0'>(자녀를) 뇌전증환자와 결혼시키겠는가?</span>”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은 60%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반대율은 5%에 그쳤다. 뇌전증 환자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1.7배였으며, 이혼율은 3배, 미혼율은 2.6배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앓고있었으며, 병을 숨기거나 심지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br/> <br/>결혼을 앞두고 있는 B(26·여)씨도 최근 고민이 크다. 어릴때부터 뇌전증 치료를 받아온 B씨는 몇년 전 수술을 하면서 발작 증상은 없어졌지만, 남자친구에게 뇌전증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B씨는 “평생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남자친구 집에서 사실을 알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아 두렵다”며 “하나의 질병일 뿐인데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 괴롭다”고 토로했다. <br/> <br/>뇌전증협회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변사람에게서 발작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인식 하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처럼 발작시 대처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증질환 등록 등 정부의 치료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질병의 경우 수술시 환자의 부담은 5%지만, 뇌전증은 20%에 달한다. 연간 수술이 500건에 그치는 것도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용어 변경은 인식 개선의 시작에 불과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치료 지원과 인식 교육 등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4.txt

제목: 전세계 비만·과체중 어린이 4400만명, 2025년 7500만명으로 급증 예상  
날짜: 2014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3110014879237  
본문: 전세계적으로 비만 및 과체중 어린이가 지난 2012년 4400만이었으며 오는 2025년에는 75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br/> <br/>WHO는 이 같은 추세는 비만 및 과체중 어린이가 3100만명이었던 1990년 이후의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비만 및 과체중 어린이가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에 4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br/> <br/>피터 글루크먼 WHO 아동기비만방지위원회 공동의장은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과체중 어린이는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당장 행동을 취하는 것이 미래의 보건시스템에 미칠 부담을 막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아동기비만방지위원회는 지난 6월 WHO가 설치했으며 15명의 위원들은 17일 첫 회의를 마쳤다. 위원회는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HO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r/> <br/>황온중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5.txt

제목: ‘3분카레’로 레토르트식품 시대 열다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3010014875868  
본문: 그저 간단히 먹기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카레는 사실 영양상 많은 비밀을 지녔다. 바로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음식이다. <br/> <br/>이는 카레에 노란색을 띠게 하는 ‘커큐민(curcumin)’ 성분 때문이다. 커큐민은 소화를 촉진하고 심장마비 등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치매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br/> <br/>1940년쯤 국내에 처음 소개된 카레는 1970년대 ㈜오뚜기에 의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카레 하면 자연스럽게 ‘오뚜기 카레’를 떠올릴 정도로 국민상품이 됐다. <br/> <br/>1969년 오뚜기 회사 설립과 함께 출시된 오뚜기 카레는 ‘오뚜기 분말 즉석카레’라는 브랜드로 첫선을 보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1960년대 당시 우리 국민의 주식이 쌀인 데다 매운맛을 즐기는 기호와 맞아떨어지는 제품이 카레라고 판단돼 창립 제품으로 생산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출시 초기 분말 형태로 선보인 오뚜기 카레는 시대 변화와 함께 그 형태를 다양화해 1981년 ‘3분 요리’란 브랜드로 레토르트 카레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판매 첫해 400만개를 팔아치웠다. <br/> <br/>레토르트 식품은 완전 조리된 식품을 미생물 차단성 용기에 담아 무균성을 유지해 장기간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또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상온 보존이 가능해 원재료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간편 식품이다, 국내에서는 오뚜기가 최초로 생산 시판함으로써 레토르트 식품의 역사가 시작됐다. <br/> <br/>오뚜기 ‘3분 요리’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국내 즉석식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끓는 물에 3분이면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국내 첫 즉석식품인 ‘3분 카레’를 시작으로 ‘3분 짜장’ ‘3분 햄버그’ ‘3분 미트볼’ 등이 잇따라 나왔다. <br/> <br/>2000년대 들어서는 현대인의 소비성향에 맞춰 카레도 진화했다. 건강 지향적 원료를 조화시킨 프리미엄급 ‘3분 백세카레’, 끓는 물에 데우거나 레인지를 이용할 필요 없이 밥 위에 그대로 부어 먹을 수 있어 더욱 간편한 ‘그대로카레, 그대로짜장’를 선보였다. 즉석식품의 지평을 넓힌 셈이다. <br/> <br/>‘3분 카레’의 성공에 힘입어 오뚜기는 공장을 신축해 생산설비를 자동화하고 꾸준한 신제품 개발에 착수해 원재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은 다양한 3분 제품을 선보였다. 이 모든 제품은 최신의 위생설비를 갖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공장에서 생산된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6.txt

제목: '화장' '자유의 언덕' 토론토국제영화제 마스터 섹션 초청  
날짜: 20140730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3010014871179  
본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장, 임권택 감독과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 나란히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br/> <br/>30일 임권택 감독의 '화장'과 홍상수 감독의 '자유의 언덕' 해외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화인컷은 이 두 영화가 각각 '제3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마스터(Masters)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고 전했다. <br/> <br/>칸, 베니스,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토론토국제영화제는 해마다 60여개국의 300편 이상의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신작 영화가 상영되며, 40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가하는 등 북미 최대 규모의 영화제이자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명성이 자자하다. <br/> <br/>'화장'과 '자유의 언덕'이 초청된 마스터 섹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영화 감독들의 최신작들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해마다 약 10~13여 편 내외의 작품이 선정된다.  <br/> <br/>'화장' 임권택 감독의 획기적인 걸작 <br/> <br/>임권택 감독의 작품으로는 2004년작 '하류인생', 2007년작 '천년학'이 같은 섹션에 초청된 바 있다. 그간 미카엘 하네케, 크리스티앙 문쥬, 지아 장커 등 세계적 거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감독들 중에서는 임권택, 이창동, 홍상수, 김기덕 감독 등의 신작들이 소개됐다. <br/> <br/>토론토 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지오반나 펄비(Giovanna Fulvi)는 '화장'에 대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세계는 매우 인상적이며 그의 102번째 영화인 '화장'은 대단할 따름이다. 감독의 힘 있고 독창적인 영화 제작 기법을 토대로 인생, 죽음, 사랑에 대하여 성숙하고 강렬한 시선으로 돌아보는 특히 더 혁신적인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있다. 임권택 감독의 획기적인 걸작이며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라고 평했다. <br/> <br/>'화장'은 암에 걸린 아내가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다른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이야기.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오는 8월27일부터 9월6일까지 열리는 '제71회 베니스 영화제' 비경쟁 부문 마스터 감독들을 소개하는 갈라(gala) 상영작으로 초청되기도 했다. <br/> <br/>세월만큼 한층 더 깊어진 시선, 삶과 죽음, 사랑과 번민이라는 보편적인 감정과 공감, 시대와 소통하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프로덕션으로 격조 있는 작품의 탄생을 예고한다. 안성기가 중년 남성의 매력을 담은 캐릭터를 열연하고, 김호정과 김규리가 각각 죽음으로 스러져가는 아내와 생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여인을 연기한다.  <br/> <br/>'자유의 언덕' 의사불통과 어긋난 바람에 대한 코미디 <br/> <br/>마스터 섹션에 초청된 또 다른 작품, '자유의 언덕'은 홍상수 감독의 장편 신작이자, 일본의 연기파배우 카세 료가 주연한 영화다. <br/> <br/>인생에 중요했던 한 여인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모리(카세 료)가 서울에서 보낸 며칠을 다룬 작품. 최근 '제7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종티 경쟁부문에 진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br/> <br/>홍상수 감독은 2012년 '다른 나라에서'와 2013년 '우리 선희'에 이어 올해 '자유의 언덕'까지 3년 연속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러브콜을 받게 됐다. 2000년 '오! 수정' 이후, '생활의 발견' '해변의 여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옥희의 영화'를 포함하면 무려 8번째 공식 초청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br/> <br/>지오반나 펄비는 "의사불통과 어긋난 바람에 대한 코미디이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영화 '자유의 언덕'은 거장 홍상수 감독님의 클래식 영화들의 사색적 가벼움을 취하고 있다. 재치 있고, 유쾌하고, 독창적인 이 작품은 일종의 통찰력 있는 인류학적 연구로 읽힐 수 있으며 순전히 총명한 엔터테인먼트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선정 평을 전해왔다. <br/> <br/>올해로 39회째를 맞은 토론토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4일부터 14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7.txt

제목: 개인 맞춤 의료실비보험…“비교해보고 가입하자!”  
날짜: 20140730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3010014870482  
본문: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이 씨(34, 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딪혔다. 큰 통증과 붓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측은 골절을 진단했다. 그녀는 당일 진료비 5만6100을 지불했다. 이후 이 씨는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그곳이 일반병원이었기에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제외한 4만1100원과 골절진단비 20만원을 추가로 받아 보험사를 통해 총 24만1100원을 지급받았다. <br/> <br/>이처럼 의료실비보험은 일상의 소소한 상해부터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큰 질병까지 보장해주며, 이 씨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 또한 덜어주고 있다. <br/> <br/>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각종진료· 각종검사· 특진비· 입원비· 식대까지도 지원해주고 있다. <br/> <br/>이에 많은 사람들은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고 있다. <br/> <br/>의료실비보험은 이제 ‘국민보험’ ‘필수보험’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상태다. <br/> <br/>전문가들은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는 가입할 수 있을 때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보험사에서 가입을 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졌으며 절차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100세까지 보장받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시 재가입하려면 기존 병원력으로 재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br/> <br/>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가 의료실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추가적으로 회사별 차이가 나는 보장 내용도 존재한다. <br/> <br/>이 가운데 무료로 의료실비보험을 비교추천해주고 상담까지 가능한 인터넷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추천견적사이트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br/> <br/>이 사이트에서는 18개의 보험사상품을 비교해 상담해주기 때문에 각보험사들의 장단점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br/> <br/>가족· 어린이· 부모· 홈쇼핑· 노인 등의 특화되고 저렴한 의료실비보험은 물론이고, 1만원대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및 다양한 보장내용과 특약으로 구성된 완성형 의료실비보험도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br/> <br/>거기에 비갱신 암보험· 치아보험· 실버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운전자보험· 간병보험· 정기보험 등 인기 상품도 비교할 수 있다. <br/> <br/>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인기 상품에 대한 무료 상담문의는 물론, 신규가입 시 유의사항과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갱신주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 보험설계 무료상담· 다양한 보험 종류 비교와 만기 시 적립되는 의료비 특약의 반영 여부 등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도 공유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요즘 민감한 개인정보유출에 대비 간소화된 절차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가지고 상담이 진행되므로 부담 없이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길 추천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su-mall.kr) 또는 전화문의(080-936-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8.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4대 중증질환 집중 보장 ‘백년해로1407’ 외  
날짜: 2014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910014866435  
본문: 4대 중증질환 집중 보장 ‘백년해로1407’ <br/> <br/>메리츠화재는 4대 중증 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메리츠 건강보험 백년해로1407’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에 주를 이뤘던 암, 뇌, 심장 부위의 3대 질환 보장 외에 치료법이나 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까지 보장한다. 재생불량성빈혈, 파킨슨병, 모야모야병, 전신성 홍반루프스, 만성신장질환, 심근질환, 운동뉴런질환 등이 보험 보장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이다. 또 말기암 진단비 담보를 신설해 4기암 진단 시 가입금액을 100% 지급받도록 했다. 15∼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br/> <br/>연금 전환 가능한 ‘엄마사랑종신보험’ <br/> <br/>삼성생명은 엄마들을 위한 종신보험 ‘엄마사랑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자녀가 학업을 끝내고 독립하는 연령인 27세를 기준으로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나눠 보장을 차별화하고 있다.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시기에 엄마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초·중·고교에 필요한 교육비를 차등화해 나이에 맞는 교육자금을 매년 추가로 제공한다. 자녀가 27세 이후 독립하면 추가 일시금도 지급된다. 자녀독립시기까지 가입자가 생존하면 연금으로 전환해 엄마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입 연령은 20∼60세다. <br/> <br/>보험료 갱신 없이 진단·수술 등 100세 보장 <br/> <br/>푸르덴셜생명은 보험료 갱신 없이 진단, 입원, 수술을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무배당 더블업 100세 헬스케어 플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시점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해주는 비갱신형으로, 최초 가입 시 설정한 전환 나이가 지난 이후부터는 질병 보장금액을 2배로 지급해 노후를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전환 나이는 가입시 55세, 60세, 65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59.txt

제목: 8월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 의료보험 적용  
날짜: 2014072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910014859445  
본문: 소장 질환의 시술과 처지를 위한 '풍선 소장내시경'에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 <br/>29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br/> <br/>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필요한 것이다.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15만6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br/> <br/>심장 이식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검사의 비용도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br/> <br/>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축소된다. <br/> <br/>이밖에 장 질환여부를 진단하는 소장 캡슐내시경 검사와 파킨슨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 1일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 <br/>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0.txt

제목: 의료실비 보험…“가격비교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하세요”  
날짜: 20140729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910014861339  
본문: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이 씨(34, 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딪혔다. 큰 통증과 붓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측은 골절을 진단했다. 그녀는 당일 진료비 5만6100을 지불했다. 이후 이 씨는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그곳이 일반병원이었기에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제외한 4만1100원과 골절진단비 20만원을 추가로 받아 보험사를 통해 총 24만1100원을 지급받았다. <br/> <br/>이처럼 의료실비보험은 일상의 소소한 상해부터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큰 질병까지 보장해주며, 이 씨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 또한 덜어주고 있다. <br/> <br/>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각종진료· 각종검사· 특진비· 입원비· 식대까지도 지원해주고 있다. <br/> <br/>이에 많은 사람들은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고 있다. <br/> <br/>의료실비보험은 이제 ‘국민보험’ ‘필수보험’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상태다. <br/> <br/>전문가들은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는 가입할 수 있을 때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보험사에서 가입을 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졌으며 절차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100세까지 보장받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시 재가입하려면 기존 병원력으로 재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br/> <br/>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가 의료실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추가적으로 회사별 차이가 나는 보장 내용도 존재한다. <br/> <br/>이 가운데 무료로 의료실비보험을 비교추천해주고 상담까지 가능한 인터넷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추천견적사이트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br/> <br/>이 사이트에서는 18개의 보험사상품을 비교해 상담해주기 때문에 각보험사들의 장단점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br/> <br/>가족· 어린이· 부모· 홈쇼핑· 노인 등의 특화되고 저렴한 의료실비보험은 물론이고, 1만원대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및 다양한 보장내용과 특약으로 구성된 완성형 의료실비보험도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br/> <br/>거기에 비갱신 암보험· 치아보험· 실버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운전자보험· 간병보험· 정기보험 등 인기 상품도 비교할 수 있다. <br/> <br/>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인기 상품에 대한 무료 상담문의는 물론, 신규가입 시 유의사항과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갱신주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 보험설계 무료상담· 다양한 보험 종류 비교와 만기 시 적립되는 의료비 특약의 반영 여부 등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도 공유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요즘 민감한 개인정보유출에 대비 간소화된 절차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가지고 상담이 진행되므로 부담 없이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길 추천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su-mall.kr) 또는 전화문의(080-936-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1.txt

제목: 방선휘한의원,‘국제중서의결합종류학술교류대회’참석  
날짜: 2014072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810014853893  
본문:   <br/> <br/> ‘암치료에 있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치료의 표준화 모델의 정립’을 주제로 제5회 국제중서의결합종류학술교류대회가 지난 18일 부터 20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었다. <br/> <br/>28일 방선휘 한의원에 따르면 이 날 학술대회는 임홍생(林洪生)이 총괄하여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중의과학원광안문병원, 광저우중의약대학제1부속병원을 포함하여 중국 주요 병원에서 참석하였으며, 미국의 MD앤더슨 암센터에서, 한국에서는 동서암센터, 경희대한방병원, 동의의료원, 원광대한방병원, 방선휘한의원에서 참석하였다고 전했다.    <br/> <br/>중국의 종양학은 한국과는 달리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암치료가 결합된 “중서의결합종양학”이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중의학원종류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융합되어 왔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유방암, 직장암, 간암, 폐암, 췌장암에 대한 중서의결합암치료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br/> <br/>이와 더불어 암환자 개인맞춤형 개별 변증치료, 겨우살이, 고삼과 같은 천연물의 임상적용, 한의학의 최신 연구 경향 등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MD앤더슨 암센터의 Gary Deng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의학의 임상연구를 소개했으며, 한국에서 참석한 동서암센터의 유화승교수와 경희대의 고성규교수의 발표는 학회참석자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br/> <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원장은 “이번 중서의결합종류학술교류대회를 통해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양방결합암치료가 세계적 암치료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며,  상당 부분의 연구가 이미 완료되어 유방암, 직장암, 간암, 폐암, 췌장암과 같은 주요 고형암에 대해서는 치료 권고안을 제시할 수준에 이른 점은 아주 높이 살만한 부분이다” 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한의학의 종주국으로 미래의 세계 암치료의 흐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양방과 한방간의 배타적인 풍토가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고 덧붙혔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2.txt

제목: 협진이 폐암환자 생존률 높인다  
날짜: 2014072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510014839641  
본문: 여러 과가 공동 연구·진찰하는 다학제 진료가 폐암환자의 생존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폐암센터는 1997년부터 2011년 본원에 폐암으로 내원한 환자 4246명의 생존율을 병기별로 조사한 결과, 폐암 협진 진료가 시작된 2005~2011년 기간의 5년 상대생존률은 35%로 협진 이전 기간인 2000~2004년의 생존률 17%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25일 밝혔다. <br/> <br/>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의 2007~2011년 기간의 우리나라 폐암환자의 5년 생존률이 20.7%인 것을 감안해도 괄목할만한 결과다.  <br/> <br/>성모병원 폐암센터의 2005~2011년 5년 관찰생존율을 병기별로 보면 1기 80%, 2기 55%, 3기 22%, 4기 10%로 2000~2004년의 1기 54%, 2기 32%, 3기 9%, 4기 3%에 비해 모든 병기에서 골고루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br/> <br/>관찰생존율은 임상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출율로 관심질병을 가진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이다. <br/> <br/>또 2005~2011년 5년 상대생존율도 1기 87%, 2기 60%, 3기 24%, 4기 11%로, 2000~2004년의 1기 61%, 2기 35%, 3기10%, 4기 4%보다 높았다.   <br/> <br/>이는 2005년부터 쌓아온 다학제 폐암 협진시스템의 도입이라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br/> <br/>일반적으로 폐암은 진단 후 5년 내에 85%가 사망하지만, 증상이 감기, 만성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환과 유사해 조기에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폐암은 조기진단과 함께 폐암진단 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br/> <br/>이 때문에 의사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를 통해 폐암을 초기 발견하고 협력 치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서울성모병원 폐암센터는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소속 20여명의 전문의와 전문간호사가 탄탄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 <br/> <br/>서울성모병원 다학제 진료 과정을 살펴보면 △흉부 X선·흉부 CT 등 영상의학과 검사, 호흡기내과의 기관지내시경검사 실시 △ 병기 판정을 위한 뼈 스캔, 뇌 MRI, 전신 PET-CT 등 검사 △분야별 의료진 다학제 회의를 진행 및 치료 방향 결정 등으로 이뤄진다. <br/> <br/>이에 각 임상과 노하우와 경험, 학술정보를 총 망라한 ‘환자별 맞춤 치료’ 방법을 찾아, 늦어도 5일이면 폐암 여부와 향후 치료 계획까지 세운다. <br/> <br/>서울성모병원 폐암센터장 강진형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른 장기에 가려있는 폐의 특성 때문에 건강검진 때 가슴 X선 사진으로는 진단도 어려우며, 또 목이 쉬거나 기침이 나거나 하는 자각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 시간을 허비하는 환자들도 많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폐암을 조기발견 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협진을 통한 관련된 여러 전문의 의견 교환이 꼭 필요하다”면서 “조기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술은 물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 암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환자중심의 협진시스템으로 신속하고 빠른 진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3.txt

제목: 故 유채영, 가요-방송-영화 누비며 해피바이러스 전달한 ★  
날짜: 2014072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410014828301  
본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br/> <br/>만능엔터테이너 유채영(본명 김수진·41)이 24일 오전 8시 위암 말기 투병 중 끝내 숨을 거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고(故) 유채영은 1989년 안양예술고 재학 당시 17세 나이에 그룹 푼수들 멤버로 가요계에 입문, 1994년 그룹 쿨 1집 '너이길 원했던 이유'로 대중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br/> <br/>당시 유채영은 여성임에도 과감한 삭발 헤어스타일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이듬해 쿨에서 탈퇴, 혼성듀오 어스 멤버로 활동했다. <br/> <br/>1999년에는 솔로가수로 전향, '이모션' '이별유애' 등의 곡을 발표하며 가요계 테크노 열풍에 한몫했다. <br/> <br/>2000년대 들어서는 활동영역을 연기로 확장해 영화 '색즉시공'(2002) '누가 그녀와 잤을까?'(2006) '색즉시공 2'(2007), 드라마 '패션왕'(2012) '천명:조선판 도망자 이야기'(2013) 등에서 개성 강한 감초 역할로 사랑 받았다. <br/> <br/>특히 유채영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한껏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중은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이나 제스처를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지만, 곧 유채영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자신의 비호감 이미지를 호감으로 돌아서게 만든 그녀의 해피 바이러스가 제대로 통한 것이었다. <br/> <br/>유채영은 지난해 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방송을 놓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끝까지 대중과 호흡했다. <br/> <br/>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연예계 관계자, 누리꾼들의 애도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 동료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br/> <br/>유채영의 소속사는 "위암 투병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유채영의 생전 밝았던 모습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4.txt

제목: “파킨슨병·암 근본적 치료 약물 개발”  
날짜: 2014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410014835287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파킨슨병과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 개발에 성공했다. <br/> <br/>24일 포스텍에 따르면 이 대학 화학과 임현석(사진) 교수팀은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려진 파킨슨병과 3명 중 한 명이 발병할 정도로 현대인에게 빈번해진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단백질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화합물을 보다 쉽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최근호에 발표됐다. <br/> <br/>임 교수팀은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용 화합물 개발법과 파킨슨병·암 치료용 화합물을 새롭게 제시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 화합물 개발법을 통해 수천 가지 화합물 형태를 수집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 연구팀은 또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화합물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했다. <br/> <br/>지금까지 암이나 파킨슨병이 단백질 상호작용의 문제로 발병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단백질 상호작용을 억제 또는 안정화시키는 화합물을 만들기가 어려워 실제로 약물 개발에는 난항을 겪어 왔다. 연구팀은 우선 상호작용을 하는 단백질 구조 속 나선구조에 주목했다. 상당수 단백질은 이 나선구조를 인식하여 다른 단백질과 반응해 작용한다. 이 나선구조의 모양을 모방해 유사한 물질을 만들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도록 할 수도 있고, 몸에 이롭지 않은 상호작용을 막게 할 수도 있다. <br/> <br/>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새로운 개념의 항암제 연구도 수행 중이지만, 특히 파킨슨병과 관련된 이 화합물은 새로운 개념의 파킨슨병 치료제로서 개발을 진행해 나갈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5.txt

제목: 암세포만 파괴, 부작용 줄인 암치료법 '고주파 온열암치료' 관심 집중  
날짜: 20140723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310014819186  
본문: 온열치료법(Hyperthermia)은 암세포가 열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종양조직의 주변 온도를 42°C~43°C까지 올려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br/> <br/>암환자의 경우,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인체 내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성화돼 면역기능이 70% 정도 향상된다. 온열치료법은 암 환자에게 고주파를 투과해 전기장에 의해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 종양에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원리를 적용한 치료법이다. <br/> <br/>하지만 기존의 온열치료법은 정상세포에까지 열을 주기 때문에 효과 대비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br/> <br/>최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암치료법이 등장했다. 온코써미아(ONCOTHERMIA) 고주파 온열암치료기(EHY-2000)를 사용한 '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이 그것이다. <br/> <br/>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은 환자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암 조직을 따라 치료부위가 자동 조절되기 때문에 치료 중에도 CT· MRI 등을 이용한 위치 확인이 필요 없다. 환자의 체중, 신체 사이즈 등 개인의 변화를 분석해 적정 에너지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자동 조절함으로써 개인별 맞춤 치료와 전이성 암치료가 가능하다. <br/> <br/>또한 방사선·항암 치료와 병행 시 방사선 효과를 증대시키고 항암제 약물흡수를 증대하는 등 치료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br/> <br/>연세사랑요양병원 강동철 원장은 “<span class='quot0'>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은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가해 열 발생과 동시에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암세포의 산소 공급 및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만을 파괴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또 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은 원칙적으로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고형암 치료와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적어 뇌종양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대장암· 폐암· 난소암· 췌장암 등 여러 고형암의 치료 시 수명 연장· 통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br/> <br/>모든 치료법이 그렇겠지만 암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작용과 합병증의 정도다. 고주파 온열암치료법은 암치료 시 일반적인 부작용인 오심· 구토· 식욕부진· 체중감소와 소화장애와 탈모· 팔과 다리의 저림 등의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기존의 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었지만, 전극을 부착한 피부 주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피부 아래·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에는 약간의 화상· 상처· 염증· 괴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강동철 원장은 “부작용이 없는 암치료법으로 알려진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결과는 환자의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미한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전문의사와의 개인별 맞춤 정밀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한편 연세사랑요양병원은 강동·송파 관내 최초로 고주파 온열암치료기(EHY-2000)를 도입해 암환자 치료 및 면역증강을 목적으로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타민 요법· 면역약침· 해독관장· 영양요법 등 면역요법과 온열요법· 해독요법을 병행해 양·한방 협진으로 암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6.txt

제목: 감사원 “대학병원, CT 방사선 위험 은폐”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310014824580  
본문: 대학병원들이 검진 대상자에게 양전자 컴퓨터단층촬영기(PET-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왜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의 9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PET-CT 촬영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PET-CT 1회 촬영 시 인체 내부에서는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발생한다. 이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이고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r/> <br/>감사원은 “<span class='quot0'>PET-CT 촬영으로 일반인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는 정보 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span>”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원안위가 2001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을 개발하고도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관에서는 총 56회에 걸쳐 연간 허가량을 최대 948.2%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br/>감사원은 “<span class='quot0'>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원안위 등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7.txt

제목: 대학병원들 검진CT 높은 방사선 피폭치 알리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 돼  
날짜: 2014072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310014821905  
본문: 대학병원들이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고객들에게 축소·왜곡해오다가 감사원에 걸렸다. <br/> <br/>23일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br/> <br/>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의 9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PET-CT촬영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PET-CT는 1회 촬영마다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인 동시에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다. <br/> <br/>높은 방사선 피폭치임에도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의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br/> <br/>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들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할 보건복지부는 정보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br/> <br/>복지부의 규정 부실로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드러났다. <br/> <br/>서울과 제주 등 전국 16개 국립병원에서는 총 137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 등을 드나들며 일을 하고 있다. <br/> <br/>관련규정에 안전관리 대상을 '장치 운영·조작 업무 종사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br/> <br/>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을 개발하고도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r/> <br/>이 때문에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관에서는 총 56회에 걸쳐 연간 허가량을 최대 948.2%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감사원은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원안위 등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8.txt

제목: 갑상선암 “증상 없으면 검진 안받도록 추진”  
날짜: 20140722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210014807481  
본문: 국립암센터가 최근 과잉 진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갑상선암과 관련해 ‘증상이 없으면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최근 몇 년 사이 특별한 이유없이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한대 따른 조치다. 학계 일각에서는 조기 진단으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br/> <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1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검진 기준을 두고 과잉 진료를 막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br/> <br/>이날 토론에 참가한 김수영 갑상선암 검진 제정위원회 실무위원(한림대 의대 교수)은 “<span class='quot0'>문헌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갑상선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갑상선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거나 반대할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span>”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span class='quot1'>갑상선암 검진 효과는 검진이 사망률을 낮추느냐가 핵심인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없고 검진 시행으로 발생할 위해성을 제대로 밝혀낸 논문도 부족한 상태</span>”라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최종안은 아니지만 현재 준비 중인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은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한다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검진을 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span>”이라고 했다. 이어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 검사는 일상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잦은 검진으로 인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의미다. <br/> <br/>정부가 마련중인 권고안 초안은 곧 전문가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장은 “<span class='quot2'>암 발생률 1위인 갑상선암의 조기검진 효과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담긴 검진 권고안 개발이 필수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국내에 존재하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에 질병비 부담이 큰 폐암과 논란이 큰 갑상선암을 포함, 7대암 검진 권고안을 만들고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span>”고 말했다. 김 과장은 “<span class='quot2'>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초안은 1∼2주 안으로 관련 학회와 전문가에게 배포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전문가 의견을 수집해 올해 안으로 7대암 검진 권고안 제·개정 총괄위원회가 최종안을 발표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중앙암등록본부의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를 보면 갑상선암은 주요 암 가운데 발생률 1위(18.6%)이며 1999∼2011년까지 10여년간 연평균 23.7% 급증했다. 가장 유력한 갑상선암 급증 원인으로는 초음파 등 검진기술 발전으로 인한 조기 진단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규원 국립암센터 암등록사업과장은 “<span class='quot3'>최근 갑상선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줄고, 검진 과정에서 (갑상선) 암을 발견한 경우는 크게 늘었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러나 강호철 전남대 의대 교수(내과)는 “<span class='quot4'>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크기가 작은 갑상선 미세유두암이 진단 당시 전이된 경우도 많다</span>”며 “<span class='quot4'>갑상선암 크기가 작다고 잠재암으로 예측할 지표는 없다</span>”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5'>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선암이 항상 크기가 작거나 초기인 것도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5'>촉진만으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갑상선암 결절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논란이 크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69.txt

제목: 유채영 남편 "채영이를 위해 기도해달라"  
날짜: 20140722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210014809153  
본문:   <br/> <br/>위암 말기 투병 중인 가수 유채영(41)의 남편 김주환씨가 아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br/> <br/>김씨는 21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영이가 활동할 당시 대중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던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br/> <br/>쿨의 전 멤버로 대중의 인기를 얻은 뒤 솔로 가수와 예능, 연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사랑 받은 유채영은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br/> <br/>이후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임을 알고 암 세포 일부만 제거한 채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방송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는 최근까지도 MBC 라디오 '좋은 주말 김경식, 유채영입니다'를 진행했지만, 병세가 위중해지면서 지난 18일 하차했다. <br/> <br/>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유채영은 의식이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영의 투병 소식에 방송인 정준하, 김창렬 등 동료 연예인들 역시 그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br/> <br/>정준하는 2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저를 위해 항상 마음 써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밤은 우리 유채영씨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br/> <br/>김창렬 역시 21일 "여러분 채영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친구로서 해줄게 없어 미안하네요"라는 글을 게재했고, 개그우먼 김미연은 "우리 채영언니 버텨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언니 힘내. 언니 조금만 더 힘내야해. 언닐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 제발"이라는 글을 올려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0.txt

제목: 카메라 앵글에 담아낸 몸의 향연, '댄스토리 서울'  
날짜: 20140722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210014812507  
본문: 이탈리아 사진작가 잔마르코 브레사돌라(왼쪽)가 인천 영종도에서 한국 전문 무용수와 일반인들의 몸짓을 앵글에 담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무용·무대 전문 사진작가 잔마르코 브레사돌라(42)가 한국의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펼쳐지는 무용의 향연을 앵글에 담는 프로젝트 ‘댄스토리 서울(Danstory Seoul)’을 진행한다. <br/> <br/> 22일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에 따르면 ‘댄스토리 서울’은 댄스·스토리·서울의 합성어로 ‘서울의 이야기를 담은 춤’을 뜻한다. 재단 산하 무용 전문 창작공간인 홍은예술창작센터가 유망주로 선정한 열혈예술청년단(대표 유재미)과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단’ 단원 등 70여명이 함께한다. <br/> <br/>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잔마르코 브레사돌라는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사진작가다. 역사학자의 깊이있는 시선으로 무용수들의 순간적 움직임을 포착해낸 그의 작품은 예술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독일 베를린 샤우뷔네 암 라이너 프라츠 극장 전속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br/> <br/> 지난 11일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진행한 촬영은 전문 무용수의 안무와 시민들의 몸짓을 통해 ‘열정’, ‘여행’, 그리고 ‘휴식’의 컨셉트를 표현했다. 이어 13일에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잔마르코 브레사돌라는 “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움직이는 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춤을 추는 일반인들의 열기를 카메라에 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이런 광경은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 지금까지 촬영한 장소는 청계천, 김포공항, 영종도, 여의도 물빛광장, 시민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남산타워, 이대 부근 주택가 등이다. 앞으로 25일까지 지축 지하철 차량기지 등에서 남은 촬영을 진행한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프로젝트 ‘댄스토리’의 전체 과정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사진집으로 만들어 2015년 상반기 시민청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표정의 서울을 만날 기회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행사의 구체적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02)304-9100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1.txt

제목: 캡슐 내시경, 나도 한번 검사 받아봐?  
날짜: 2014072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210014810961  
본문: 캡슐 내시경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 중 검사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된 캡슐 내시경에 큰 관심이 가고 있다. <br/> <br/>하지만 캡슐 내시경은 일반적인 내시경과 달리 특정 질환에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라는 것이 내시경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br/> <br/>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은 1개의 긴 관 형태로 몸속의 장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맨 앞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의사는 내시경을 환자 몸속으로 넣으면서 카메라가 보내 주는 화면을 외부 모니터를 통해 받아 보면서 내부 장기를 관찰하게 된다. <br/> <br/>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 대장 내시경의 경우 암이 의심되는 용종을 기구를 통해 바로 떼어낼 수 있고, 최근엔 비교적 초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을 통해 시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의 길이와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어 소장과 같이 길고 복잡한 구조의 장기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br/> <br/>캡슐 내시경은 비타민 알약처럼 작은 크기의 진단 장치로 환자가 캡슐 내시경을 삼키면 장치가 몸속 소화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기록 장치로 전송돼 저장되고, 의사는 저장된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게 된다. <br/> <br/>캡슐 내시경은 관 형태의 일반 내시경이 들어가기 힘든 소장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원인 모를 복통, 설사, 출혈 및 빈혈의 원인을 찾는데 쓰이고 있으며 크론병, 소장종양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서 나타날 질환의 경우 65~70% 이상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정혜경 교수는 “<span class='quot0'>관 형태의 일반 내시경은 환자의 장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처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이나 대장암,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에 용이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캡슐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으로 관찰이 힘든 소장의 출혈 등을 관찰하는 데 용이하나 일반적인 위나 대장 검사에는 큰 효과가 없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캡슐 내시경 검사도 일반 내시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10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장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장 청결액을 복용하기도 한다. 심박동기,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장 폐색, 장 협착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리고 임산부는 캡슐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 <br/> <br/>환자가 캡슐을 삼킨 후 검사가 진행되는 8시간 동안 걷기나 눕는 등 일상적인 행동은 가능하나, 격렬한 운동이나 힘든 일은 삼가야 한다. 또한 4시간이 경과되면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캡슐은 일회용으로 장운동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항문으로 배출되는 동안 고통이나 불편감은 크게 없다. <br/> <br/>정혜경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캡슐 내시경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비싼 진료비 부담으로 검사를 미루었던 원인 모를 빈혈이나 위장관 출혈, 소장질환으로 인한 만성 설사나 복통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2.txt

제목: 페이스북, 여대생 나체사진 삭제 논란  
날짜: 20140720  
기자: 이은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2010014795460  
본문: 페이스북이 최근 영국 여대생들이 기부 목적으로 만든 누드사진 페이지를 유해 콘텐츠로 지정,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삭제된 사진의 주인공들은 워릭대학교 조정부 여대생들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이 누드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2014 누드 달력에 들어간 사진으로, 학생들은 달력 판매 수익금을 맥밀란 암 지원센터에 기부해왔다. <br/> <br/>페이스북 측은 이 사진이 유해하다며 무단으로 삭제했다. 이 캠페인을 주관한 학생 소피 벨(20)은 "더 많은 모금을 위해 만든 페이지가 졸지에 유해 콘텐츠가 됐다"며 "나체사진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는데 이 사진들은 페이스북이 제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br/> <br/>그는 "페이스북에는 우리보다 더 야한 페이지가 많다"면서 "어떻게 자선 달력 사진이 포르노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이 사진이 삭제됐다"며 "곧 복구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br/> <br/>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3.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암치료의 중심 ‘면역력’  
날짜: 2014071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710014777415  
본문:   <br/> <br/>암 환자 100만명 시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암을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로 ‘면역력’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35%를 넘었지만, 암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있다. <br/> <br/>최근 들어 조기검진 및 의료기술이 발달해 암에 걸리더라도 완치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암에 걸린 환자나 완치된 환자가 면역력관리를 잘 하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암 재발을 겪는 사례도 종종 생긴다. <br/> <br/>65kg의 성인의 경우 60~70조개의 세포로 이뤄져 있는데 하루에 1.000~10.000개의 암세포가 매일 몸 안에 생성되고 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 종양이 된다. 따라서 종양이 형성될 수 없도록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암이 발견되면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의 공격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암 치료 중에는 우울, 분노, 좌절 등의 마음가짐과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현대의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면역요법’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br/> <br/>통합면역치료 전문 방선휘한의원에서는 면역 암 치료의 핵심인 약침치료, 침 치료, 항종양 면역약제, 맞춤처방, 온열치료, 심리치료(웃음치료, 음악치료)를 통해 저하되어 있는 면역감시체계를 회복시키고 암 억제 기전을 정상 가동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한다. <br/>  <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대표원장은 ‘암환자들의 수술로 인한 체력소실과 면역력 저하 등 공격적인 치료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면역감시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면역치료를 받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생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4.txt

제목: 항암치료와 한방암치료 병행 효과, 말기암 환자에게는?  
날짜: 20140717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710014780849  
본문: 일부 말기암, 전이·재발암 환자는 암이 전체로 퍼져있는 상태로, 수술 등의 서양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 반복적인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생존율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 <br/> <br/>말기암 환자·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나 항암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에게 면역력은 신체 기력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따라 최근 면역력 강화를 돕는 한방암치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br/> <br/>한방암치료는 한약과 침· 쑥뜸 등의 한의학적 요법을 통해 구토· 오심과 같은 제반 증상을 완화시키고 인체 면역력을 강화시켜 말기암· 전이암· 재발암 환자는 물론 약을 먹을 수 없거나 복잡한 증상을 겪는 암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br/> <br/>특히 치료법 중 하나인 약침은 산삼· 녹용 등 한약재를 달여 추출한 약액을 고도로 정제해 혈자리에 주사하는 한방의료행위로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생체 기능 조정과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최근 이런 항암치료와 한방암치료는 병행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의료진의 대장암 환자 병행치료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5.txt

제목: 포스텍­일리노이대 연구팀, 콜레스테롤 몸속 신호등 역할 연구결과 발표  
날짜: 20140717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710014778088  
본문:   <br/> <br/>흔히 해롭다고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이 태아 기형이나, 암 발병 등의 신호를 조절하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한·미 공동연구팀이 처음으로 밝혀냈다. <br/> <br/>포스텍(포항공대) 한진관 교수와 미국 일리노이대 조원화 교수팀은 몸속 세포막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을 조절하는 윈트(Wnt) 신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를 통해 밝표했다. <br/> <br/>척추동물의 발생이나 세포의 분열과 분화, 줄기세포의 유지와 같은 생물학적 현상들은 윈트라는 이름을 가진 단백질이 베타-카테닌에 의한 전형적 신호전달과 베타-카테닌에 의하지 않은 비전형적 신호전달 등 2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함으로써 이뤄진다. 이 신호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태아가 기형이 되거나, 성인의 경우에는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윈트 신호전달체계’는 암 발병을 알리는 ‘발암신호’로도 알려져 있다. <br/> <br/>그러나 이 서로 다른 두 신호전달 체계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택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br/> <br/>공동 연구팀은 생화학적·발생학적 분석을 통해 세포막에 위치한 콜레스테롤이 신호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Dvl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신호전달체계에 필요한 여러 단백질들을 세포막들로 유도해 신호체계가 베타-카테닌에 의한 전형적 신호전달로만 선택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즉, 콜레스테롤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처럼 세포막을 구성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호등’처럼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조절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성과는 특히 ‘발암신호’를 미연에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6.txt

제목: 오송서 바이오 첨단기술의 향연 펼쳐진다  
날짜: 2014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710014782292  
본문: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펼쳐진다. <br/> <br/>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주시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오송 KTX역 인근 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다.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이라는 주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엑스포는 태동기부터 미래 산업까지 바이오산업의 흐름을 폭넓게 담는다. <br/> <br/>엑스포장은 바이오미래관(주제관)과 바이오 건강체험관, 바이오 뷰티마켓 등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이 참여하는 기업관과 산업관이 운영된다. 바이오 미래관에서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인 게놈 지도가 완성된 이후 산업화되는 과정과 미래의 바이오산업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복제견인 스너피, 줄기세포, 항암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술과 세계적인 연구·산업화 동향은 물론 3D 프린팅 인공장기, 바이오연료 자동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바이오 사회의 모습을 구현한다. <br/> <br/>바이오건강체험관은 오감을 이용한 건강요법, 유전자 검사와 스마트 암 검사, 생체나이 측정 등 바이오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암과 치매, 심장 질환, 당뇨 등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남녀노소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뷰티체험관도 대표적인 볼거리 중의 하나다. 이곳에서는 노화방지 성분인 바이오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핸드크림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나 노화·탈모·비만 예방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br/> <br/>생명과학 기초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에듀체험관에서는 인체 장기 모형을 조립하거나, 초음파로 자신이나 친구의 장기를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외에 주제영상관, 바이오마켓, 바이오산업관, 화장품·뷰티산업관이 있다. 살아 움직이는 대형 신체 장기의 행렬인 ‘바이오 휴먼 로드 페스티벌’,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공룡 퍼레이드인 ‘응답하라. 바이오 사우르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야외에 준비돼 있다. <br/> <br/>관람객들이 대형 신체 장기를 직접 만지고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들이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시설도 준비된다. <br/> <br/>세포 모양의 그네를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세포 그네’, 세포 위로 팡팡 뛰며 즐기는 ‘세포 트램플린’, 세포를 타고 오르는 ‘세포 정글짐’은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인체의 신비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교육용 놀이시설이다. <br/> <br/>관람객들이 모형 어미 개의 뱃속에 머리를 직접 넣고 영상을 구경하는 ‘바이오 동물 농장’도 흥미로운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어미 개의 뱃속에서는 세포가 생명체로 성장하는 신비한 과정이 상영된다. 인간의 뇌를 형상한 대형 돔 형태의 ‘바이오 컨트롤 게임장’에서는 ‘뇌파 사격’, ‘레이싱’ 등 뇌파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을 준비한다. <br/> <br/>충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바이오산업은 무병장수를 실현하고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꿈의 산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충북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확인시키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7.txt

제목: 잘 먹는 습관, 암을 잡는다  
날짜: 2014071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610014770648  
본문:   <br/> <br/> <br/>암(癌)이란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계 산출을 시작한 이래 암을 경험한 국민은 약 110만 명에 달하며 이는 국민 45명 가운데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살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br/> <br/>하지만 암은 아직까지도 그 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만 건강한 습관은 암의 발병을 억제하고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항암효과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주는 식습관은 암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항암작용에 효과가 있는 대표식품은 바로 토마토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그냥 섭취해도 좋지만 익힌 뒤 올리브오일을 뿌려 먹으면 체내흡수율이 7배까지 높아진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자색고구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로 발암물질의 활성화 산소를 제거해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br/> <br/>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암세포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가 자가소멸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생마늘을 그대로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br/> <br/>장뇌삼 역시 항암효과가 우수한 식품 중 하나다. 장뇌삼에는 다량의 사포닌이 함유돼 항암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뿌리뿐만 아니라 그 열매 역시 예로부터 귀족과 황족들이 자양강장을 위해 섭취해왔을만큼 뛰어난 효능을 지녔다. 항암효과는 물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r/> <br/>원기산삼 관계자는 “약으로서의 장뇌삼은 특히 그 생육환경이 중요하다. 원기산삼은 강원의 자연 그대로를 담아 믿고 섭취해도 된다. 파종의 단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산의 원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며 “암은 비교적 중년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낮아지고 세포의 힘이 약해져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장뇌삼은 노화방지에 효과적으로 암을 이겨내는 힘을 받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8.txt

제목: "암페타민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장기 복용 시 생명위험"  
날짜: 2014071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610014769233  
본문:   <br/> <br/>걸그룹 2NE1 박봄이 ‘마약 밀반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들여오려던 암페타민 치료제가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r/> <br/>지난 15일 오후 방송된 SBS ‘뉴스토리’에서는 암페타민의 실체를 파헤치는 취재과정이 전파를 탔다. <br/> <br/>이날 방송에서 시청자들은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접했다.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졌을 경우 암페타민 치료제를 먹으면 잠시나마 각성 효과가 일어나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마치 공부를 잘하게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다. <br/> <br/>미국의 한 한인약국 약사는 “<span class='quot0'>암페타민 치료제의 목적은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쓰이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요즘은 용도가 삐딱해져서 공부를 더 잘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span>”고 말했다. 미국의 한 노래 가사에는 “공부에 집중되지 않아 약을 찾았다”며 “이 약(암페타민 치료제)은 내게 집중력을 줬다”는 문구도 있었다. <br/> <br/>암페타민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분자구조가 비슷하다. 다만 중독성이 적어 의약품에 쓰이는 것뿐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복용할 경우 심장 부정맥이나 협심증, 심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암페타민 치료제는 일시적으로 식욕을 떨어뜨려 일부 복용자 사이에서는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br/> <br/>실제로 과거에 암페타민 치료제를 먹었던 여러 복용자들은 “집중이 잘 되게 해줬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주위에 처방받는 사람을 통해 약을 나눠달라고 해 구했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만 들어가도 암페타민 치료제를 사고파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br/> <br/>다만 이들이 지금도 암페타민 치료제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결국 나중에 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br/> <br/>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일반 정신과병원에서는 절대로 암페타민 치료제를 쉽게 처방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찾은 여러 병원 관계자들은 “<span class='quot1'>향정신성 의약품이라 큰일 난다</span>”며 “<span class='quot1'>의사가 옆에서 관찰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친구끼리 나눠 먹는 그런 일은 매우 위험하다</span>”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을 먹은 사람이 심장문제로 돌연사하면 그 책임은 약을 준 사람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반면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약을 쉽게 처방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약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span>”고 경고한 뒤 “일단 며칠 분량을 드리겠다”고 비교적 쉬운 모습을 보였다. <br/> <br/>올해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향정신성 의약품 밀수입 사례는 총 19건이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모두 국제우편을 이용했으며, 이는 박봄의 사례와 똑같다. 서울의 한 명문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한때 암페타민이 든 치료제 100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br/> <br/>세관 관계자는 “알약으로 많이 들어온다”며 “<span class='quot1'>주로 인터넷 거래처를 이용해 약이 들어오는데 모두 우편물이다</span>”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79.txt

제목: “게임으로 암 환자 항암치료 돕는다”  
날짜: 201407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510014759792  
본문:   <br/> <br/>국내 의료진이 항암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를 돕는 게임을 개발했다. <br/> <br/>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과제를 통해 씨엘 게임즈(CLGamez)와 공동으로 암 환자의 항암치료 향상을 위한 기능성 소셜 네트워크 게임 ‘알라부(I Love Breast)’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알라부’는 암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같은 온라인 게임 속의 아바타를 설정해 게임을 진행하며 의사가 준 퀘스트(Quest)를 잘 수행하면서 아바타의 모습이 호전되는 미션게임으로, 유방암 환자 치료에 있어 항암치료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기능성 소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이다. <br/> <br/>장 교수팀은 항암 치료중인 환자들이 필연적으로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을 경험해 치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보고 개발한 것이다. <br/> <br/>따라서 암 환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침습적 치료법이 아닌 오락의 일종인 게임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고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게임을 통해 암 치료의 순응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br/> <br/>‘알라부’ 게임을 실제 유방암 항암치료중인 환자에게 적용해 사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게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를 느꼈으며, 게임을 통해 항암치료제 약 복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사진 왼쪽)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사진 오른쪽) 사진. <br/> <br/>유방암 환자를 위한 ‘알라부’ 게임은 거의 모든 환자의 분포가 여성층인 유방암의 특성상 30~5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선호하는 장르인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또 암 환자들끼리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유방암 치료 및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br/> <br/>특히 실제 항암 치료와 같은 주기인 3주간의 게임 플레이 기간을 통해서 치료 과정을 습득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암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br/> <br/>장정순 교수는 “<span class='quot0'>알라부 게임을 유방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항암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환자들의 게임에 대한 몰입과 지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 <br/> <br/>한덕현 교수는 “<span class='quot1'>유방암 환자에게 적용해 나타난 긍정적인 반응과 교육 효과를 바탕으로 타 진료과목으로 확대해 암 환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에서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0.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암·뇌·심장 이외 희귀난치성 질환도 보장 외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510014764825  
본문: 암·뇌·심장 이외 희귀난치성 질환도 보장 <br/> <br/>메리츠화재가 암, 뇌, 심장 부위의 3대 질환 보장과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 보장하는 ‘(무) 메리츠 건강보험 백년해로1407(사진)’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무) 메리츠 건강보험 백년해로1407’은 희귀 난치성 질환 중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7대 질환(재생불량성빈혈, 파킨슨병, 모야모야병, 전신성 홍반루프스, 만성신장질환, 심근질환, 운동뉴런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 상품을 차별화했다. 또 말기암 진단비 담보를 신설해 4기암 진단 시 가입금액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간암, 폐암, 뇌암, 백혈병 등의 특정암 진단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 암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br/> <br/>영업용 운전자 가입 문턱 ‘확’ 낮춰 <br/> <br/>LIG손해보험은 영업용 운전자의 가입 문턱을 일반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가입 연령도 만 18세부터 77세까지로 확대한 운전자보험 ‘LIG매직카운전자보험Ⅱ’를 판매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병력자도 간편 심사제도를 통해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운전 중 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장한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진단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원한다. 확정 판결된 벌금형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1.txt

제목: [단독]박봄 밀수 암페타민, 제3자에게 갔나  
날짜: 20140715  
기자: 조성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510014764026  
본문: 검찰이 유명 걸그룹 2NE1 멤버인 박봄(31)씨의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 사실을 적발한 뒤 실시한 약물반응 검사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암페타민 8알을 숨긴 뒤 2알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박씨가 암페타민을 복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넨 것인지, 약물검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만 검찰은 사실 규명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어버려 부실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br/> <br/>◆박봄 암페타민 ‘음성’ 반응 <br/> <br/>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010년 10월18일 박씨에게 암페타민 각성제 79정이 담긴 국제 특송우편 소포를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했다. 검찰은 19일 자정을 넘겨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박씨 숙소에 들이닥쳐 71정의 약물을 회수했고, 박씨를 상대로 약물 반응을 보기 위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박씨 소변에서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br/> <br/>며칠 뒤 박씨는 검찰에 암페타민 각성제 4정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나머지 4정에 대해 “<span class='quot0'>2정은 먹었고, 2정은 찾지 못했다</span>”고 해명했다. 박씨가 암페타민 각성제 복용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검찰은 모발검사 등 추가 약물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끝내 암페타민 각성제 4정을 회수하지 못했지만 박씨가 질병으로 인해 진료와 처방을 받은 기록과 약물을 대리 수령하게끔 했다는 미국 대학병원 설명 등만 참고한 뒤 별도 수사 없이 입건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br/> <br/>◆암페타민 제3자에게 갔나 <br/> <br/>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2정의 약물을 자신이 복용했다고 한 박씨 진술과 배치된다. 이런 검사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br/> <br/>우선 박씨가 암페타민 각성제를 복용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씨가 찾지 못했다는 암페타민 각성제 2정뿐 아니라 박씨가 복용했다는 암페타민 각성제 2정의 행방도 미궁에 빠진다. 박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4정의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씨가 암페타민 각성제를 전달한 제3자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복용한 것으로 거짓 진술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br/> <br/>만일 박씨 진술이 맞다면 약물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일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암페타민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박씨 소변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꿔치기해 검출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관 등 입회하에 약물검사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보면 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극히 드물다. <br/> <br/>두 경우 모두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씨 진술이 거짓이라면 검찰은 회수하지 못한 암페타민 각성제의 행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되고, 반대의 경우 약물검사 결과와 다른 박씨 진술만 듣고 사건을 종결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br/> <br/>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박씨가 밀반입하려던 암페타민 각성제의 성격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당시 했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지금에라도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2.txt

제목: 유방암 3개요법 등 6개항암요법, 8월부터 건보혜택  
날짜: 2014071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410014753379  
본문: 내달부터 유방암 3개 요법 등 6개 항암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br/> <br/>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했다. <br/> <br/>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6개 항암요법이 내달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br/> <br/>지금까지 이들 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아 허가 범위 밖에 있는 탓에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 혈액종양, 방사선종양 등 암 관련 전문의로 구성)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서만 심평원장이 인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 <br/> <br/>심평원은 이런 허가초과 항암요법 가운데 3년 이상 사용됐고 100건 이상의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후향적 평가연구를 해 왔다. <br/> <br/>그 결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 요법에 대해 보험적용을 결정했다. <br/> <br/>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br/> <br/>6개 항암요법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개정안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실려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3.txt

제목: 독성 한약재로 말기암치료제 제조해 500여명 속여  
날짜: 20140714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410016162880  
본문: 독성이 있는 한약재로 만든 중탕 진공팩을 말기암치료제로 속여 500여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br/> <br/>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북 완주군 소재 산야초연구소 대표인 정모(68)씨를 구속했다. <br/> <br/>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 독성이 있는 저가 한약재인 천남성과 반하 등을 섞어 달인 제품(지리산 천년학)을 암치료제라고 속여 말기암 환자 가족 등 565명에게 팔아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건강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씨는 2009년 완주에 ‘천년학 산야초목연구소’라는 식품 제조업체를 차린 뒤 홈페이지에 ‘겨우살이 등 야생식물 143종, 전갈 등 야생동물 45종 이상의 재료를 사용’, ‘상하이 푸딘대학병원 암환자 검증된 사실’, ‘노벨의학상을 받아야 한다’는 가짜 사용후기 등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암환자 가족 등 565명에게 가짜 암치료제를 판매했다. <br/> <br/>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헛개나무와 천남성 등 10여종의 독성이 있는 한약재와 일반 한약재를 섞어 중탕을 만든 뒤 진공팩 30개 당 80만∼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4.txt

제목: 독성 한약재로 말기암치료제 제조해 500여명 속여  
날짜: 20140714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410014753101  
본문: 독성이 있는 한약재로 만든 중탕 진공팩을 말기암치료제로 속여 500여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br/> <br/>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북 완주군 소재 산야초연구소 대표인 정모(68)씨를 구속했다. <br/> <br/>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 독성이 있는 저가 한약재인 천남성과 반하 등을 섞어 달인 제품(지리산 천년학)을 암치료제라고 속여 말기암 환자 가족 등 565명에게 팔아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건강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씨는 2009년 완주에 ‘천년학 산야초목연구소’라는 식품 제조업체를 차린 뒤 홈페이지에 ‘겨우살이 등 야생식물 143종, 전갈 등 야생동물 45종 이상의 재료를 사용’, ‘상하이 푸딘대학병원 암환자 검증된 사실’, ‘노벨의학상을 받아야 한다’는 가짜 사용후기 등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암환자 가족 등 565명에게 가짜 암치료제를 판매했다. <br/> <br/>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헛개나무와 천남성 등 10여종의 독성이 있는 한약재와 일반 한약재를 섞어 중탕을 만든 뒤 진공팩 30개 당 80만∼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5.txt

제목: 한센인과 동고동락 20년… ‘소록도 슈바이처’  
날짜: 2014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410014755633  
본문: “<span class='quot0'>소록도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오히려 환자들에게 받은 고마움이 더 많은 걸요.</span>” <br/> <br/>14일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된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46·사진) 의료부장이 밝힌 짤막한 소감이다. JW중외그룹 창업자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의 호를 따 지은 성천상은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의료인을 발굴하고자 제정했다. <br/> <br/>치과의사인 오 부장은 조선대 치대 졸업 직후인 1995년 소록도병원에 부임해 지금까지 20년째 한센인 진료에만 매진하고 있다. 당시 말기암 환자였던 어머니가 소록도행을 극구 만류했으나, 오 부장은 “<span class='quot1'>딱 1년만 있다가 돌아오겠다</span>”는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그대로 소록도에 눌러앉았다. <br/> <br/>“어려서 슈바이처를 배우며 의사의 꿈을 키우고 소록도에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센병 후유증으로 아랫입술이 처진 환자들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요. 또 손가락이 없으면 양치가 어려우니 각종 치과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입속에 고름이 생기기도 했어요.” <br/> <br/>오 부장은 독학 끝에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을 개발해 이제껏 400명 넘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시술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6.txt

제목: 습관적 유산, ‘자궁선근증’이 원인?  
날짜: 20140714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410014750551  
본문:   <br/> <br/># 주부 임모(여, 38)씨는 7년 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자궁선근증을 진단받았다. 평소 생리통과 빈혈이 심하고 아랫배가 아파 진통제를 자주 복용했다. 처음 진단 후 의사는 자궁적출술을 권했지만 둘째 계획이 있어 수술 결정을 할 수 없었다. <br/> <br/>호르몬 치료, 주사치료, 체형 교정 등을 받으며 증상완화에만 신경 쓰다가 2년 전에는 어렵게 둘째 임신에 성공했지만 4개월이 지날 무렵 돌연 유산했다. 의사는 “<span class='quot0'>자궁선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임신해도 유산될 가능성이 크다</span>”고 설명했다. <br/> <br/>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연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15~20%에서 발생한다. 고령임신, 여러 번의 임신, 유산경험, 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분류된다. 임신 12주 미만에서 유산하는 경우는 염색체 이상이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신 12~20주 사이에 발생하는 유산은 자궁 또는 자궁 경부의 이상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br/> <br/>자궁선근증은 자궁의 내부(내막) 조직이 자궁의 근육 안으로 자라 들어가 자궁이 비대해지는 질환으로 정상 자궁근육보다 두터워지고 크기도 두 배 이상이 된다. <br/> <br/>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궁에 생기는 종양을 자궁근종이라 생각하지만 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른 질환으로 분류된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혹의 모양을 띠며, 선근증은 자궁의 내막조직이 증식해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질환이다. <br/> <br/>자궁선근증은 보통 분만 경험이 있는 40대에서 50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가임기, 폐경기 여성들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다. 평소 빈혈을 동반한 생리과다, 생리통, 성교곤란증, 만성골반통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선근증의 1/3정도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br/> <br/>대부분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혈이 증가하면서 전조증상을 느끼지만 진통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병을 키우기도 한다. 또한 자궁선근증의 절반 이상에서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암 등과 동반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 <br/> <br/>김민우 산부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1'>자궁선근증이나 자궁근종이 난임이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자궁선근증 병변에 유입된 혈액 속 물질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자궁선근증으로 인해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중인 여성은 반드시 선근증을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7.txt

제목: [S 스토리]"흙에 살리라"…쳇바퀴 도시생활 버리고 제2의 삶  
날짜: 2014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210014741984  
본문: 대도시를 떠나 지방 소도시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가구는 2007년 2000가구를 넘어서더니 2012년엔 2만7000가구를 돌파했다. 지난해엔 3만2424가구가 시골살이를 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골을 삶을 터전으로 삼는 것일까. 퇴직 후 제2의 삶을 찾는 베이비붐(1955∼63년 출생자) 세대부터 팍팍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젊은 층까지 연령대, 이유도 다양하다. 귀농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 <br/>◆탈(脫)도시, 취업난, 자립적인 삶… 30대들의 귀농 <br/> <br/>이승희(32·여)씨는 처녀 농부다. 전북 고창군 해리면 3409㎡ 넓이의 들판에서 고추와 삼채 농사를 짓고 있다. 4월부터 모종을 심고 7월 말부터 시작하는 고추 수확은 11월 초까지 계속된다. 뿌리 약효가 더 좋은 삼채는 봄에 심어 겨울에 수확하고, 효소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이씨는 직접 가꾼 수확물과 효소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과 블로그 ‘고창처녀농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br/> <br/>햇볕에 그을려 주근깨가 내려앉고 까무잡잡해진 얼굴이며 밀집모자에 헐렁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 시골농부 티가 풀풀 나는 이씨는 2년 전만 해도 서울의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이었다. 그가 귀농을 결심한 건 2009년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해 농장체험을 하면서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슴이 넉넉한 삶을 사는 농장주들의 행복한 모습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직장생활에 문득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갖고 또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결론은 ‘귀농’이었다. <br/> <br/>직장을 다니면서 2년여간 인터넷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쌓았다. 고향인 고창으로 삶의 터를 옮기고 나서는 귀농귀촌학교와 고창개발대학, 고창귀농귀촌협의회 등을 통해 농사지식을 쌓아가며 귀농을 준비했다. 부족한 자금은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해결했다. 소득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줄었지만 이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한다. <br/> <br/>그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당초 계획했던 길로 가고 있다”며 “자연을 벗삼아 살다보니 스트레스가 줄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박덕근(39)씨가 ‘귀농’을 선택한 건 농산물 가공·유통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다. 꿈인 법조인의 길을 가기 위해 연세대 법학과에 진학해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수차례 낙방했다. 그는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아내를 따라간 적십자 바자회에서 그는 답을 얻었다. 껍질을 벗겨낸 호두를 용기에 담아 판매하니 가격이 4배 넘게 뛰었고, 그런데도 불티나게 팔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마침 박씨의 부모가 예천에서 호두 농사를 짓고 있었다. 예천 특산품인 참깨를 참기름으로 가공 판매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했다. <br/> <br/>2011년 11월, 그는 귀농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박씨는 “고향 분들이지만 ‘고시에 실패하니 시골에 농사지으러 내려온 것 아니냐’는 눈빛이었다.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박씨의 부모 역시 반대했다. 힘들게 농사지어 대학에 보냈는데 시골에서 농사짓겠다는 아들을 반길 수만은 없어서였다. <br/> <br/>그럼에도 꿋꿋이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차근차근 준비해간 그는 2012년부터 벼와 잡곡 등의 농사를 시작했다. 힘든 만큼 거둘 수 있는 일. 그가 느낀 농사의 묘미였다. 그는 주변의 민심을 사는 데도 공 들였다. 최근 그는 귀농인 20여명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농산품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서다. 박씨의 카카오톡에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 <br/> <br/>◆전원 속 ‘제2의 삶’… 40·50대의 귀농 <br/> <br/>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남부럽지 않은 타국 생활을 하던 박윤경(45)·최재원(46)씨 부부의 귀농은 암과의 싸움으로 시작됐다. 박씨가 2007년 11월 귀국해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2년 만인 2009년 암세포는 폐와 간으로 전이돼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 <br/> <br/>박씨는 18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그해 5월 나홀로 귀국해 친정인 전북 전주로 돌아왔다. 항암치료 등으로 쇠약해진 박씨의 치료와 안정을 위해 2011년 3월 박씨 부부는 귀농했다. 귀농지는 박씨의 고향인 전주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인 완주 용진이었다. <br/> <br/>박씨 가족이 농촌에 정착해 가는 과정은 미국으로 이민갈 때처럼 낯설고 힘들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들 부부는 시골에서 ‘할 일’을 찾다가 된장과 인연을 맺었다. 항암 치료 중인 박씨는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은 달랐다. 밥 한 그릇을 뚝닥 비울 정도로 입맛에 맞았다.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한 콩으로 담근 된장과 청국장은 몸이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장류 사업에 손을 대게 됐다. 남편은 대학에서 장을 만드는 법과 경영·유통의 노하우를 배웠다. <br/> <br/>농업회사 법인도 만들었다. 박씨 부부가 만든 ‘된장 푸는 남자’ 브랜드는 어느새 전북 완주와 전주, 무학산 등 8개 지역의 로컬푸드에 공급되고 있다. 박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다. 박씨는 마을 경로당에서 초·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br/> <br/>완주·대구=한현묵·이정우·이보람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8.txt

제목: 고려인삼공사 차가버섯 ‘베료즈카골드’ 힐링세트로 인기몰이  
날짜: 2014071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110014739048  
본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조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 절반 이상이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식품은 하나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br/> <br/>이런 가운데 최근 건강식품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버섯이 있다. 바로 ‘차가버섯’이 그 것이다. <br/> <br/>차가버섯은 북위 45도 이상의 러시아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자작나무 숲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자생하는 버섯이다. <br/> <br/>러시아에서는 이미 암치료 약제로 인정받아 활용 중인 차가버섯은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수입돼 암 환우들의 항암대체식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br/> <br/>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고려인삼공사는 차가버섯으로 10만여 암환우 회원을 확보하며 보완대체식품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br/> <br/>고려인삼공사는 지난 2009년 ‘베료즈카골드’를 선보이며 차가버섯 대표 회사로 성장했다.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베료즈카골드는 기존 차가버섯 추출분말에 비해 크로모겐 콤플렉스의 함량을 높였으며, 노약자나 중증질환자들처럼 흡수율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 러시아 키트(K&T)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br/> <br/>차가버섯 추출분말 베료즈카골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베료즈카골드로 구성된 힐링세트까지  인기몰이 중이다. <br/> <br/>힐링세트는 베료즈카골드로 구성된 세트다. 체력이 약하신 이들을 위한 체력보충· 소화력이 약한 이들을 위한 식사대용· 식전 식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아로니아 구성· 차가버섯과 온열요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온열구성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현재 건강상태에 맞는 세트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r/> <br/>고려인삼공사 관계자는 "베료즈카골드에서 시작된 차가버섯의 신뢰가 힐링세트로까지 이어지며, 많은 암환우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차가버섯을 넘어 또 다른 천연원료를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89.txt

제목: [류현민의힐링스토리] 심신에 안정을 돕는 완전호흡  
날짜: 2014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1010014733866  
본문: 긴장을 풀고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쉴 때는 복부를 부풀린다. 이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복부기관을 압박한다. 계속해서 복부를 부풀려가면서 들이쉬면 늑골 사이 근육이 팽창하면서 흉곽이 열린다.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고 생각한다. 흉부와 복부가 오므라들어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br/> <br/>완전호흡에 대한 설명이다. 완전호흡은 복식호흡에 흉식호흡이 더해진 호흡법이다. 좀 더 적극적인 복식호흡이라 할 수 있겠다. 완전호흡을 반복하면 심신(心身)이 안정된다. <br/> <br/>류현민 한국전인치유연구소장·뷰티건강관리학대전에 사는 임신부 A씨는 분만 교육을 받는다. 자연분만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다. 분만 교육에서 핵심은 호흡이다. 특히 완전호흡은 자연분만법이라 알려진 소프롤로지 분만과 라마즈 분만에서 유용하게 차용된다. 완전 호흡 시 고요한 음악과 기분 좋은 상상은 효과를 배가한다. 이때 통증을 덜어주는 호르몬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그녀에게 완전호흡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였다. 지속적인 호흡 훈련은 막상 강도 높은 통증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돕는다. <br/> <br/>몸과 마음의 건강은 호흡과 매우 밀접하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호흡이 연결자다. 호흡 조절은 스트레스에 인한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정서적인 부조화를 균형과 조화 안에 머물게 한다. <br/> <br/>“<span class='quot0'>호흡과정은 마음에 이미지를 만들어 내며, 호흡이 진정되면 마음도 진정된다.</span>” 고대 요가경전 ‘요가쿤달리 우파니샤드’의 호흡과 마음의 상관성에 대한 기록이다. 경전에 의하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본원인은 욕망과 호흡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조절하더라도 마음은 쉽게 제어된다. 그중에서도 호흡 조절이 우선이라 강조한다. <br/> <br/>호흡의 길이와 마음의 여유는 비례 관계다. 성인은 보통 1분에 16∼20회 정도의 호흡을 한다. 복식호흡이나 완전호흡을 하면 횟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평온한 아이를 보라. 배로 호흡한다. 숨이 길다. 반면 분노와 흥분에 휩싸인 사람은 어깨를 들썩이며 호흡한다. 호흡이 거칠고 짧다. 흔들리는 감정이 호흡으로 드러난다. 완전호흡이 임신부뿐만 아니라 수험생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스트레스 완화법으로 요긴하게 쓰이는 이유다. <br/> <br/>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당뇨, 암, 치매, 결막염, 신장결석, 아토피 등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발병한다고 보고했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와 급격한 호흡을 유발하는 과로와 과한 운동이 주된 원인이다. 이쯤 되면 호흡의 길이와 수명이 비례한다는 속설이 설득력을 얻는다. 수명이 짧은 동물의 호흡은 빠르고, 수명이 긴 동물의 호흡은 느리다는 이야기다. <br/> <br/>일상에서 호흡 조절은 주의를 호흡에 두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호흡을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길어진다. 여기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더 좋다. 소식과 채식 중심의 식단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호흡을 편안하게 한다. 요가나 유산소운동에서 복식호흡이나 완전호흡은 호흡과 관련된 근육을 풀어주고 수행에 집중을 더한다. <br/> <br/>류현민 한국전인치유연구소장·뷰티건강관리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0.txt

제목: 일본, 암 선진의료…수지상세포치료·면역세포치료  
날짜: 20140708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810014711957  
본문: 암은 현대의학으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암 치료법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제4의 암치료법 또는 선진의료라 불리는 이 치료법은 치료 시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통근치료를 할 수 있다. 특히 암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br/> <br/>이 치료법은 전이·재발 암을 치료하거나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대의학 치료와 병용도 가능하다. 이 치료법은 항암요법과 같은 현대의학 치료와 병행하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이와 관련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재생의료의 한 축인 줄기세포치료와 난치병인 암 치료 등을 위한 면역세포치료 기준을 세워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정책의 일환으로 선진의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br/> <br/>암 전문잡지 ‘암 선진의료(がんの 先進醫療)’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월간지로 다양한 정부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또 암 선진의료 발행사 홈페이지는 암 환자들에게 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br/> <br/>이 발행사는 최근 면역요법에 대한 정보를 기획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면역세포 치료제를 배양해 공급하는 기관과 병원에 대한 시설 일람표를 게재돼 있어 면역세포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암환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면역세포 전문 배양기관은 5개 정도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240여 곳의 의료 기관에 면역세포를 공급하고 있다. <br/> <br/>면역세포 전문 배양기관 중 4곳은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센신병원이 유일하게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br/> <br/>센신병원은 병원장이자 배양책임자인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가 40여 년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만든 5종복합면역요법, 수지상세포치료 그리고 DC-AIVac/CSC요법(암줄기세포 획득면역 백신요법) 등 암줄기세포 백신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암 면역요법 전문병원이다. <br/> <br/>츠네오 박사는 “<span class='quot0'>암으로 고통 받는 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국내 암환자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새로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1.txt

제목: 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2018년 적자 2조 예상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7100000029  
본문: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수입보다 1조~2조원 많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특히 2019년경에는 건강보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함에 따라, 당장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부터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계획안에서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불어난다.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떨어진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 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이 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결국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기본적으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 2014년 1조4450억원 ▲ 2015년 2조510억원 ▲ 2016년 1조8740억원 ▲ 2017년 6320억원 ▲ 2018년 6320억원 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 보고에서 "적자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9년 적립률이 5%까지 떨어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2.txt

제목: 삼성병원, '예방부터 재활까지' 암치유센터 개설  
날짜: 2014070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610014692180  
본문: 최근 열린 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개소식 참가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규하 행정부원장, 황지혜 재활의학과 교수, 김미순 간호본부장, 윤순봉 지원총괄사장, 심영목 암병원장, 이정권 암치유센터장, 손태성 암병원 운영지원실장.삼성서울병원 암병원(원장 심영목)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포괄적 암 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암치유센터’를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br/> <br/>암치유센터는 암병원 1층 ‘첫방문상담실’과 ‘암치유센터’ 두 공간으로 구성된다. 진료 영역과 암교육 영역으로 나눠 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진료 영역은 정신건강, 재활, 통증, 완화 케어, 평생건강, 감염, 재건성형 등 총 10개의 전문화된 클리닉에서 치료를 실시한다. 암교육 영역은 정보 제공, 상담, 교육, 연구 등 분야를 특화시켰다. <br/> <br/>기존 암병원 내 암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암 환자와 가족들도 ‘지능형 협진 자동알림’ 전산 시스템에 의해 암치유센터에서 포괄적인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초대 암치유센터장은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가 맡았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단순 암치료를 넘어 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불안·두려움까지 해소해주는 게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암교육 정보 제공과 평생 건강관리를 포함한 ‘한국형 통합 암치유센터’로 자리매김 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02)3410-0086,88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3.txt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만으로 1차 예방 가능합니다”  
날짜: 2014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610014694567  
본문: 흔히 ‘암’ 하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힘든 무서운 병을 떠올린다. 그런데, 암 중에는 발생 원인을 거의 다 규명해 백신 접종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여성의 자궁에 생기는 자궁경부암이 대표적이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갑상선암과 더불어 한국 여성을 괴롭히는 3대 암으로 꼽힌다. 경기 수원에 있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 윤주희 교수와 만나 자궁경부암 예방·치료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윤 교수는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여성이 건강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최근 출범한 ‘건강한여성재단’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자궁경부에서 시작하는 암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성이 암으로 사망하는 순위 중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죠. 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 질환입니다. 한국도 하루 평균 10명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3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br/> <br/> 자궁경부암 예방·치료를 위한 ‘퍼플리본’ 행사에 참여한 의료진이 젊은 여성들에게 예방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자궁경부암은, 윤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인류가 발병 원인을 확실히 알고 있는 암”이다. 사람의 유두(젖꼭지)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자궁경부에 침투해 암으로 발전한다. 약 100종의 HPV 가운데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형은 30종 안팎이고, 그중 HPV 16형과 18형이 자궁경부암과 특히 관계가 깊다. <br/> <br/>“HPV는 사람 사이에 옮겨집니다. 여성 본인은 HPV가 없어도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죠. 자궁경부암의 약 93%가 HPV 감염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려면 HPV 감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br/> <br/>성관계 후 여성 생식기에 출혈이 생기면 자궁경부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암이 진행될수록 출혈이나 분비물 양이 증가한다. 허리 통증이나 악취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 만약 성관계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면 콘돔 같은 피임도구로 HPV 전파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콘돔 사용으로 HPV 감염의 차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한 ‘암 예방’ 개념에 따르면 1단계 예방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2단계 예방은 조기 진단으로 일찍 발견하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3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방법이고요.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는 30세 이상 여성에게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관계를 시작할 나이가 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WHO가 자궁경부암을 ‘근본적으로 1차 예방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암’으로 보는 것도 백신 접종 때문이죠.” <br/> <br/> 윤주희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현재 ‘서바릭스’와 ‘가다실’ 두 제품이 출시돼 있다. 백신 종류와 접종 방식 등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해 정하면 된다. 접종은 9세부터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여성의 첫 성관계 연령을 감안해 15∼17세를 최적 접종 연령으로 권하고 있다. 이미 성생활을 시작한 20∼40대 여성도 백신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이 가능하다. <br/>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0'>미국·유럽과 달리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혼전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은 초기에 진단해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커져 임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수원=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4.txt

제목: 암세포막 뚫고 항암제 침투시키는 전달체 개발  
날짜: 2014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610014695000  
본문: 암 치료를 막는 장애요인을 꼽자면 항암제 내성이 대표적이다. 이는 암세포막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펌프 단백질’이 항암제를 세포 밖으로 퍼내기 때문이다. 이 펌프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도 어려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런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br/> <br/>가톨릭대 연구진이 빛에 반응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해 새로운 나노 약물 전달체를 개발, 내성을 뛰어넘을 계기를 마련했다. <br/> <br/>6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가톨릭대 생명공학과 나건(사진) 교수와 박형·박우람 박사과정 연구원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이 같은 성과를 국제학술지인 ‘생체재료’의 지난달 1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br/> <br/>연구진이 개발한 전달체는 빛에 반응해 세포막을 붕괴시키는 물질을 만들어 약물의 세포 유입을 돕는다. 연구진은 항암제를 담을 수 있는 나노입자 표면에다 빛에 반응하는 광감작제를 결합해 이 전달체를 탄생시켰다. 빛을 받은 광감작제가 활성산소를 만들면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의 막을 붕괴시켜 항암제의 전달 효율을 높이는 원리이다. 세포막이 붕괴하면 펌프 단백질은 항암제를 세포 밖으로 퍼내지 못한다. <br/> <br/>나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세포 치료에 이용되는 광감작제를 약물 전달체에 도입해 항암제 내성 극복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생쥐에 투여한 결과 기존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가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 이어 “덕분에 많은 양의 항암제를 투여할 때 나타나는 탈모, 빈혈, 구토, 설사와 같은 부작용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5.txt

제목: “백신시장 지속적 고성장 전망, 국가 주도산업으로 육성해야”  
날짜: 2014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610014694297  
본문: 2009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의 대유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백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br/> <br/>우리나라는 당시 백신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태라 신종플루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국민이 불안 속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국민의 보건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 <br/> <br/>백신은 인체를 세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보건 및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따라서 백신은 다양한 바이오 의약 중 국가정책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br/> <br/>현재까지의 백신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감염성 병원체 특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면역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암, 당뇨 등과 같은 난치병 치료백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br/> <br/>미래의 백신시장은 지속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현재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질병 극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r/> <br/>병에 걸렸을때 이뤄지는 치료는 의료비의 과다한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사전 예방을 통한 예방 중심으로 백신 산업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br/> <br/>또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화로 인해 질병이 전 세계로 쉽게 확산되고 있으며, 온난화 현상 등 지구환경 변화에 의해 신종 질환 및 새로운 유전적 변이주에 따른 2차 감염성 질환의 확대가 백신산업의 주요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생물테러 등의 위협 급증에 대비해 백신 개발 및 비축도 백신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br/> <br/>이러한 기회 요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백신을 국가 주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백신개발은 그동안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개별기업이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백신 시장의 선점을 위해 산업화가 필요한 분야다. <br/> <br/>백신개발은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기업과 연계해 개발 및 상용화 등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 <br/>특히 국내는 백신 관련 연구개발 단계 대비 기술 분야 영향 분석 결과, 임상 또는 비임상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생산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br/> <br/>앞으로 국내의 SK케미칼, 녹십자 등과 같이 우리나라 백신기업이 경험한 백신 생산 국산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예방 및 치료용 백신 개발을 통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백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6.txt

제목: “암 발병 공개한 그는 일류 CEO” 버핏, 다이먼 JP모건 회장 칭찬  
날짜: 2014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410014689248  
본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83)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최근 암 발병 사실을 공개한 제이미 다이먼(58·사진)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일류”라고 치켜세웠다. 경영자로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빠르고 정확히 알릴 의무를 잘 따랐다는 이유에서다. <br/> <br/>버핏은 3일(현지시간) 다이먼이 후두암 발병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는 그 일을 확실히 옳게 처리했다. 그가 매우 존경스럽다”고 칭찬하면서 다이먼 회장이 치료를 잘 받기를 기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다이먼은 전날 자신의 입사 1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암 발병 사실과 8주간의 치료 계획 등을 알렸는데, 과거 버핏이 전립선암 발병 사실을 공개한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은 2012년 주주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암 진단 사실과 구체적 치료 내용을 알린 바 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7.txt

제목: 워런 버핏, 자신처럼 암 투병사실 공개한 JP모건 회장 극찬  
날짜: 2014070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410014685159  
본문: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손꼽히는 워런 버핏(83)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암 발병 사실을 공개한 제이미 다이먼(58)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극찬했다. <br/> <br/>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버핏은 다이먼이 후두암(throat cancer) 발병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그는 그 일을 확실히 옳게 처리했다. 그는 일류이며 그가 매우 존경스럽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선, 화학 요법 등 치료를 잘 받기를 기원했다. <br/> <br/>버핏은 "경영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고 했다. <br/> <br/>다이먼은 지난 2일 자신의 입사 1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암 발병 사실과 8주간의 치료 계획 등을 알렸다. <br/> <br/>다이먼은 2년 전 버핏이 전립선암 발병 사실을 공개한 방식을 지침으로 삼았다. <br/> <br/>버핏은 2012년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암 진단, 구체적인 치료 내용을 알렸다. <br/> <br/>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최고경영자의 건강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규칙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주주들은 자세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상당히 원한다고 설명했다. <br/> <br/>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찰스 엘슨 델라웨어대 교수는 "건강 문제가 기업 운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러한 방식이 정확한 표준"이라며 "(버핏과 다이먼은) 뜬소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8.txt

제목: "치매 신약 임상시험 실패율 99%"  
날짜: 20140704  
기자: 한성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410014685831  
본문: 지난 10년 사이에 개발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임상시험에서 거의 전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뇌건강센터의 제프리 커밍스 박사가 2002-2012년 사이에 개발된 치매 치료 신약의 임상시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한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BBC 뉴스 인터넷판 등이 3일 보도했다. <br/> <br/>치매 신약의 임상시험 실패율은 99.6%로 암 치료 신약의 실패율 8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커밍스 박사는 밝혔다. <br/> <br/>그 한 가지는 2003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나멘다(Namenda)로 그나마 근본 치료제가 못 되고 인지장애, 착란 등 치매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불과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br/> <br/>그 이전에 승인된 약은 아리셉트, 엑셀론, 라자딘, 코그넥스 등 모두 4종으로 이들 역시 치매의 근본원인인 뇌세포 손상을 차단하는 약이 아니고 뇌 신경세포간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특정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것으로 치매증상을 일정기간 완화 또는 안정시킬 뿐이다. <br/> <br/>특히 그동안 큰 기대를 걸었던 두 가지 치매 신약 솔라네주마브와 바피네우주마브가 임상시험에서 실패로 끝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커밍스 박사는 지적했다. <br/> <br/>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실패율에 제약업계가 위축되어서인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매 신약은 약80종에 불과하다. <br/> <br/>이는 미국의 경우 치매 환자가 현재의 600만명에서 2050년에는 1천600만명으로 늘어나고 치매환자 치료·간병 비용이 현재의 2천억 달러에서 1조1천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너무 초라한 것이다. <br/> <br/>이에 비해 현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는 새로운 항암제는 300종에 이르고 있다. <br/> <br/>커밍스 박사는 치매 신약이 높은 실패율을 겪고 있는 이유로 연구예산의 부족과 지나치게 치우친 치료표적 설정을 지적했다. <br/> <br/>치매의 생물학적 기초연구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도 국립보건원(NIH)이 책정한 치매연구 예산은 연간 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에이즈 연구에는 연간 30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다. <br/> <br/>또 하나 문제는 신약 개발의 표적이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 신경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노인반)에만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가지고 있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커밍스 박사는 강조했다. <br/> <br/>따라서 치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타우 단백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br/> <br/>타우 단백질은 베타 아밀로이드와는 달리 신경세포 안에서 엉키면서 신경세포 파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 <br/>커밍스 박사의 조사결과는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hy) 최신호에 실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899.txt

제목: [인터뷰] 방선휘 원장 "암은 치료 가능한 질병"  
날짜: 201407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310014677757  
본문:   <br/> <br/> <br/>암은 난치병이고 때로는 불치병이다. 그러나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인체가 드러내는 사람마다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통합 면역 암 치료 전문 방선휘한의원 원장을 만나 암에 대한 시각과 견해, 암환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들어봤다. <br/> <br/>Q.한의원에서 암을 치료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의아했다. 암을 치료하게 된 계기는. <br/> <br/>인턴시절 담당 과장님의 위암 4기선고와 40대 말기췌장암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서 암에 대한 한방치료를 시작했다. 한방치료를 통해 암 성장이 억제되고 암 관련 증상들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암 치료에 매진하기 위해 대전대학교 동서암센터에서 3년간 전문의 과정을 하면서 암 치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br/> <br/>동서암센터 수련 기간 동안 미국의 통학암학회(SIO)와 캘리포니아주의 시티오프호프 통합암센터에서 연수하고 상해중의학대학 악양병원에서 한 달간 교환교수로 상주해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통합 암 치료의 열기와 현황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한방 종양학의 잠재력을 더욱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 <br/> <br/>Q. 암을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에 대해 말해 달라. <br/> <br/>한마디로 말하자면 암은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WHO에서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로 완치될 수 있으며, 나머지 1/3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제는 암을 극복하였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암 생존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br/> <br/>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암이라는 질환이 불치의 질환이 아니라 완치 및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는 암은 고칠 수 없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면역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암은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고 본다. <br/> <br/>Q. 암과 면역치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br/> <br/>나라에는 군인과 경찰이 있고 축구 경기에는 주심과 부심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부적절한 위치와 수량을 점하고 있는 암세포들은 실제 인체의 면역기능에 의해 인지, 억제 되고 제거 되는데요 그러한 면역기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져야 하는데 이는 면역 암 치료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면역 암 치료를 통해 암 관련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다양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br/> <br/>Q. 암과 투쟁중인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br/> <br/>암은 치료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암 선고 자체가 삶의 종료가 아닌 암을 치료해나가는 여정의 시작으로 생각해주시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임종을 맞이한 여자 간암환자분이 있었는데, 엄마의 암종을 지켜주려고 멀리서 고3인 따님이 병원으로 급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br/> <br/>그 환자분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극히 힘든 상황에서도 딸에게 유언을 해주려고 수 시간동안 생명의 끈을 붙잡고 계시다가 따님을 보고서야 임종을 맞이한 상황 본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조차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정신력은 우리 모든 의료진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지와 정신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암에 걸렸다하여 절망하지마시고 희망의 빛을 따라 암치유의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0.txt

제목: 유혹의 도시 섹스 중독자들 ‘진짜 사랑’ 찾을 수 있을까  
날짜: 2014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310014681297  
본문: 중독은 현대인의 질병이다. 물론 중독은 매우 오래된 질병이기도 하다.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들은 증상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중독이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병치될 때, 그 질감은 더 심각해진다.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쿨미디어가 중독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br/> <br/>‘님포매니악’이 섹스 중독을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작품이면 ‘땡스 포 쉐어링’은 섹스 중독을 임상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제목인 ‘땡스 포 쉐어링’의 의미만 봐도 알 수 있다. ‘나눠서 고마워요’라는 의미의 제목은 중독자 그룹 치료의 상투어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고백한 후 멤버들에게 그 나눔을 감사한다. <br/> <br/>영화 속 그룹 치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섹스 중독으로 곤란을 겪는 인물들이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것도 아니다. 의사, 사업가 등 멋진 직업을 가지고 제법 성공한 성인처럼 보이지만 섹스 문제에서만큼은 곤란을 면치 못한다. <br/> <br/>그들은 자신을 중독에 붙잡아 두는 성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쓴다. 하지만 그들 아니 우리 주변, 도시 전체는 사실 성적 자극으로 넘쳐난다. TV 광고나 자유로운 옷차림의 여성들 그리고 거리의 이미지 광고만 해도 그렇다. 메가 시티는 성적인 자극을 토대로 운용되는 듯싶다. 섹스를 병으로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유로운 메가 시티의 분위기 자체가 위험이고 유혹이다. <br/> <br/>‘땡스 포 쉐어링’의 주인공은 그래도 제법 질병을 극복한 인물이다. 문제는 중독에서 완전한 극복이란 없다는 점이다. 마치 오랜 절연이 있을 뿐 완전한 금연은 없다는 말처럼 말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몰리는 순간, 중독자들은 자신이 중독되었던 바로 그것으로 도피하고자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술을 사고 섹스 중독자는 아무 여자라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전화번호를 뒤적이고 거리를 떠돈다. 중독이 심각한 질병인 까닭은 바로 자기 절제력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남을 속이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br/> <br/>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 당당함이다. 영화 속 중독자들은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지만 다시 극복하고, 중독에서부터 점차 자유로워진다. 스스로를 속이던 의사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무분별한 섹스로 인간관계를 망치던 여자는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게 된다. <br/> <br/>주인공 애덤(마크 러팔로)은 이런 말을 한다. “차라리 암에 걸렸던 사실을 고백하기가 낫죠. 암을 고백하면 위로받지만 섹스 중독을 고백하면 심판을 받죠.” <br/> <br/>마크 러팔로, 팀 로빈스, 기네스 펠트로 등의 세련된 배우들이 중독과 메트로폴리스의 삶을 훌륭하게 보여준다. 어떤 점에서, 메가 시티에 살아가는 메트로폴리탄은 누구나 비밀스러운 중독을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백하고 나눠야 한다. 누구나 중독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영화 ‘땡스 포 쉐어링’이 전해주는 가장 큰 위안이다. <br/> <br/>강유정 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1.txt

제목: 고려대구로병원, 1100병상으로 확장  
날짜: 2014070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310014675416  
본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최근 1100여병상으로 확장하고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며 환자중심 병원으로 거듭난다고 3일 밝혔다. <br/>  <br/>구로병원은 지난 4월 암병원 신축과 함께 본관과 신관에 위치한 연구실과 교육실, 일부 진료과 등을 재배치 및 새단장하고 총 180여병상을 증설했다. <br/> <br/> <br/>  <br/>구로병원은 지난달 26일 본관에 총 140여병상을 1차 오픈한데 이어 이달 신관 40여병상을 추가 오픈하는 등 총 운용병상 1140병상을 열어 입원환자를 맞이하고 있다. <br/>  <br/>특히 140여병상의 암 전용병상을 비롯해 중증외상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중증질환 중심의 치료시스템을 강화했다. <br/>  <br/>백세현 원장은 “<span class='quot0'>구로병원은 일반병실 비중이 국내 톱수준이면서도 병상가동률은 국내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입원을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병상증설은 환자 입원대기를 최소화하고 환자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이어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병원 전체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환자중심 의료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한편 구로병원은 1983년 300여병상으로 개원해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성장해 지금까지 병상가동율이 90%이상을 상회하는 등 환자들에게 믿음과 신뢰가 강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br/> <br/>지난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올해 암병원 개원을 기점으로 특성화병원, 만성질환 및 산학연구센터 건립 등 마스터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산업화를 선도하는 1600여병상의 세계적인 메디컬 콤플렉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2.txt

제목: 암세포 억제 유전자 발견…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  
날짜: 20140702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210014666282  
본문: 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팀이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유전자 중의 하나인 ‘DKK3' 유전자가 암세포 억제유전자인 것을 밝혀내 해당 유전자를 이용한 암 치료제를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2일 중앙대병원에 따르면 이은주 교수팀은 DKK3 단백질이 여러 암세포에서 발현이 감소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유전자를 다시 발현시키자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베타 카테닌(beta-catenin)’의 발현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된다는 것이 세포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됐다. <br/> <br/>이 교수팀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위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 환자의 65%(88명 중 57명), 난소암 환자의 61%(69명중 42명), 위암 환자의 41%(158명 중 64명)가 DKK3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br/> <br/>또한 자궁경부암 및 위암 환자의 병기가 높을수록 DKK3 단백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DKK3 단백질 발현이 감소된 환자일수록 자궁경부암 및 위암의 재발이 더 빨리 진행됐다. <br/> <br/>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암 뿐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암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DKK3 유전자가 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br/> <br/>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DKK3 유전자가 자궁경부암 환자의 무병 생존율과 난소암 환자의 항암치료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또한 위암 환자의 수술 전 병기를 결정할 때 CT검사와 함께 병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서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다학제적 연구진에 의해 임상 바이오 마커(bio-marker)로써의 활용 및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암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14일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유전자 치료 심포지엄(Symposium of Ease Asian Gene Therapy Innovative Group)’에서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3.txt

제목: 미국 북서부체리 협회 "Cherry is love, 체리로 사랑을 나누세요"  
날짜: 20140702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210014670933  
본문: 미국 북서부체리 협회(www.nwcherries.co.kr)는 2일 체리데이를 맞아 “Cherry is love, 체리로 사랑을 나누세요” 라는 주제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미국 북서부 체리 출시기념 사진 행사를 개최했다. <br/> <br/>이번 행사는 강력한 항암, 항산화 효능을 지닌 미국 북서부체리를 소개하고, 체리로 사랑을 전하는 ‘Cherry is love’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br/> <br/>매년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수입, 판매되는 미국 북서부체리는 미국 북서부의 5개 주(워싱턴, 오리곤, 아이다호, 유타, 몬태나 등)에서 생산되는데, 전 세계 체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br/> <br/>미국 북서부 지역의 적절한 일조량, 시원한 밤 기온, 기름진 토양 등 체리 재배의 최적 조건으로 인해 월등한 당도와 맛을 자랑한다. <br/> <br/>진한 붉은 색상을 띄는 미국 북서부 체리는 심혈관계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br/> <br/>특히 아스피린의 10배 달하는 소염 효과를 지녀 통풍이나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좋다. 이 외에도 체리에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편두통(만성 편두통, 월경성 편두통)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4.txt

제목: 박봄, 우울증 치료에 암페타민 처방?…의구심 증폭  
날짜: 2014070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210014670678  
본문:   <br/> <br/>최근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멤버 박봄(31)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연일 논란이 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br/> <br/>지난 1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span class='quot0'>우울증 치료목적으로 박씨가 미국에서 정식 처방받은 약</span>”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우울증 치료에는 드물게 처방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br/> <br/>◆ 암페타민은 어떤 약? <br/> <br/>암페타민(amphetamine)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마약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br/> <br/>1930년대 초반 의료계에 소개된 암페타민은  기관지 천식, 비만증, 우울증, 파킨슨씨병, 간질, 수면 발작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왔다. <br/> <br/>소량 사용 시에는 식욕감퇴, 호흡 및 심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동공확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다량을 사용할 경우 발열, 두통, 발한, 현기증 등이 발생하며 매우 많은 양을 사용할 때에는 홍조나 안면창백, 심혈관계 이상을 나타낸다. <br/> <br/>암페타민을 남용하면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의 원인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적인 남용자는 편집성 조현증(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br/> <br/>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암페타민을 환각·각성 및 습관성·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해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등지에서도 암페타민을 규제 약물로 지정해 제한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br/> <br/>◆양현석 해명글, 우울증 치료 목적…왜 암페타민일까? <br/> <br/>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어릴 적 미국에서 자란 박봄은 학창시절 축구 경기 도중 친한 친구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 이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처방으로 약을 복용해 왔다”며 박씨가 암페타민을 복용하게 된 배경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br/> <br/>이어 “박봄은 4년 전 조사 과정에서 암페타민이 수입 금지 약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해 복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br/> <br/>즉 치료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복용했을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다. <br/> <br/>하지만 국내 의료계에서는 암페타민이 박씨의 우울증 치료에 적절한 처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암페타민 계열의 성분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쓰이는 각성제로 우울증 치료에는 드물게 사용된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박씨처럼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신경안정제 계열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r/> <br/>박씨같은 우울증 환자한테는 암페타민이 불면증이나 심지어 조현병까지 초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국내 한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충격으로 인해서 암페타민을 복용을 했다고 하는데 각성제 계열은 주로 ADHD 소아들한테 처방을 한다”고 말했다. <br/> <br/>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백용욱 사무국장은 “암페타민이 우울증 적응증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대체 약물도 많은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가 지정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은 명백한 마약법 위반이고, 이에 공정한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5.txt

제목: ING생명, 'ING튼튼 어린이보험' 출시  
날짜: 20140701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701100000060  
본문: ING생명(대표이사 사장 정문국, www.inglife.co.kr)은 내 자녀를 태아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주는 ‘ING튼튼 어린이보험’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ING생명 ‘ING튼튼 어린이보험’은 임신 중이거나 만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주계약은 처음 납입한 보험료 그대로 최대 100세까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질병 및 재해를 보장해준다. 더불어 아이의 성장단계별 맞춤보장을 위해 11가지의 다양한 특약이 준비되어 있다. 산모를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질병과 사고는 물론 신생아의 주요선정이상보장, 치아치료, 재해골절 등 성장기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과 입원˙수술 등의 폭넓은 보장을 받고, 30세 이후에는 성인 특약을 중도 부가할 수 있다.특히 부모 사고시에도 안심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자녀뿐 아니라 부모가 암 진단 확정이나, 사고로 장해상태(장해지급률 50%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며, 부모 유고 시 자녀의 생활에서 교육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자금, 학자금이 지급된다. (해당 특약 가입시)ING생명 이구현 상품개발부 이사는 “<span class='quot0'>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체중아 출산 증가 및 어린이 사고 경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녀가 출생 전부터 생애기간 동안 튼튼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장단계별 맞춤보장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span>”이라고 말했다.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1% 할인이 적용되며, 형제자매 1명 추가 가입 시 각각의 계약에 대해 2회차 보험료부터 1% 할인혜택이 있다. (각각 계약 별 최대2% 할인)가입나이는 자녀의 경우 0세(태아)부터 최고 만14세까지이며, 부모는 최고 60세까지 가능하다이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NG생명 FC(재정컨설턴트) 및 콜센터(1588-5005), 홈페이지(www.inglife.c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황은미 세계파이낸스 기자 hemked@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6.txt

제목: 생명보험사 1조대 ‘자살보험금 폭탄’ 비상  
날짜: 2014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3010014651821  
본문: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과 관련, ING생명 제재를 기점으로 모든 보험사에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최대 1조원의 보험금 폭탄을 맞은 생명보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br/> <br/>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는 한편 20개 생보사에도 보험금 지급을 지도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 경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20개 생보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br/> <br/>논란이 된 자살보험금은 지난 8월 금감원의 ING생명 종합검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과 관련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br/> <br/>문제는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대부분의 생보사가 ING와 같은 약관을 썼다는 데 있다.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 대신 재해 사망을 적용하면 보험금은 두 배로 오른다. 금감원 지시대로라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 향후 지급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br/> <br/>“<span class='quot0'>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span>”는 보험사 주장에 기울었던 금융당국도 최근 원칙론 고수로 입장을 정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로 매번 약관을 근거로 삼은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약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보험금 폭탄’에 직면한 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금을 적용할 경우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약관에 일부 실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7.txt

제목: 한화생명, 다문화가정 만성신부전 환우에게 힐링 선물  
날짜: 20140630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30100000020  
본문:  한화생명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다문화가정 만성신부전 환우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우리가족 힐링캠프'를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에서 진행했다.올해 총 6회로 예정된 '우리가족 힐링캠프'는 총 96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여행은 특별히 다문화가정 만성신부전 환우 가족 11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만성신부전 환우의 종합휴양시설인 ‘제주 라파의 집’에서 이틀에 한번씩 투석을 받으며, 제주도 주요 명소를 관광했다. 라파의 집에는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고, 관광시에는 한화생명 봉사자가 동행하는 등 환우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했다.만성신부전 환우 가족들은 한화 제주 아쿠아플라넷, 성산일출봉 등반, 쇠소깍, 천지연 폭포 등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돌아보았다.특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환우들을 위해 전통혼례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정복 씨(70세, 女)는 중국에서 귀화한 후 지난 8년간 암 투병중인 남편을 간호해 왔다. 남편은 만성신부전 합병증까지 앓고 있다. 딸 최종순 씨(45세, 女)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며 "어머니의 칠순을 맞는 올해 전통혼례와 가족여행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 행복하고, 앞으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큰 힘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필리핀 출신의 라도플로대리즈에이씨(49세, 女, Lado Flordeliza)는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으로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첫 가족여행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돼 기쁘고, 가족과 아름다운 추억이 생겨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째 만성신부전 환우를 위한 '우리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30가족 266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우리가족 힐링캠프' 참여를 원하는 만성신부전 환우 가족은 한화생명 홈페이지(www.hanwhalife.com)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 (www.donor.or.kr)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한화생명 서지훈 커뮤니케이션팀장은 "한화생명은 '우리가족 힐링캠프'를 통해 긴 질병에 지친 환우와 가족들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생명보험업의 정신인 생명존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황은미 세계파이낸스 기자 hemked@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8.txt

제목: 장뇌삼, 과연 산삼보다 가치가 떨어질까?  
날짜: 2014062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810014638193  
본문:   <br/> <br/> <br/>산삼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능을 가졌다. 예로부터 산삼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신기한 식물로 여겼다. <br/> <br/>그런데 산삼은 희소하다. 생육 조건이 까다로우며 성장 속도가 느리고 번식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이다. 몸이나 줄기에 상처를 받아 양분을 빼앗기면 자기의 양분이 만들어질 때까지 줄기를 내지 않고 오랜 시간 휴면에 들어가는 독특한 성질을 가졌다. <br/> <br/>불로장생의 꿈을 꾸는 이들이 산삼을 찾아 나서지만 저렴한 장뇌삼만 찾아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터다. 그만큼 우리가 산삼과 장뇌삼을 대하는 자세는 다르다. <br/> <br/>하지만 장뇌삼을 제대로 알면 태도를 달라질 것이다. 장뇌산삼은 삼의 종자를 채취해 깊은 산속에서 씨를 뿌려 야생 상태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사실 모양이나 약효 면에서 자연산 산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합리적인 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장뇌삼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br/> <br/>장뇌산삼 역시 사포닌 성분을 가지고 있어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두뇌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당뇨, 암 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장뇌산삼을 얕잡아 볼 일이 아니다. <br/> <br/>단 장뇌산삼을 재배하는 방법만큼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재배 방법에 따라 효능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묘장뇌산삼은 삼밭을 조성해 삼의 씨를 뿌린 후 2~3년 정도 뿌리를 생육시켜 묘를 야산에 이식한 방법이다. 이에 비해 씨장뇌산삼은 자연상태의 야산에 산삼의 씨앗을 뿌려 자연 상태에서 재배한다. 씨장뇌산삼이 산삼과 보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묘삼에 비해 귀하고 가치가 높다. <br/> <br/>원기산삼의 강원도 홍천의 해발 700m 고지에 직접 파종하고 기른 씨장뇌삼으로 그 이름이 높다. 원기산삼의 장뇌삼은 처음부터 씨를 뿌려 재배해 산의 기를 그대로 흡수한 제품인 것이다. <br/> <br/>산삼을 찾아 헤매기보다 꾸준히 장뇌삼을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09.txt

제목: 기업단체보험에 개인보험 더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날짜: 20140627  
기자: 황은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710014632010  
본문: 직장인 이모씨(28세)는 최근 회사 복지 차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기업단체보험으로 S사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주계약인 사망보장에 고도장해보장특약과 암진단특약이 추가된 것으로, 보장금액은 각각 3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이다. 재직 중 회사가 전액 납입해주고, 퇴직 후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가 가능해서 좋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3,000만원으로는 아무래도 적다고 판단, 1억 원의 사망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br/> <br/>보통 회사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업단체보험'은 재직기간 회사가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주는 제도다. 물론 직장마다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 등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망 및 고도장해보장과 정년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것이 많다. <br/> <br/>이 같은 기업단체보험은 가입 시 병력을 따지지도 않고 개인 가입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퇴직 후에도 개인 의사에 따라 저렴한 비용 그대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br/> <br/>그러나 사망 및 추가특약의 보장금액이 사고 발생시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에는 적다는 점이 약점이다. 그래서 이씨와 같이 기업단체보험에 더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기업단체보험 사망보장금액에 더해 개인 정기보험 가입 시 보다 실속 있는 보험설계가 이뤄지는 셈이다. <br/> <br/>특히 최근 출시되는 인터넷 전용 정기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대면 채널이나 전화를 통한 다이렉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가입을 고려해봄 직하다. 또 주계약 위주로 단순하게 돼 있어 가입이 복잡하지 않다. 실제로 이씨는 월 커피 두 잔 값으로 인터넷 전용 정기보험에 가입해 1억원의 사망보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br/> <br/>28세 남자의 경우 20년간 1억 원의 사망보장을 하는 정기보험 가입 시 S사 다이렉트정기보험은 월 1만6000원,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라이프플래닛 정기보험은 1만1600원만 내면 된다. 두 상품의 월 보험료는 4400원 차이지만,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라이프플래닛의 정기보험이 총 105만6000원이나 저렴하다. <br/> <br/>이씨는 매월 1만원 정도를 투자해 개인 보험과 기업단체보험을 합쳐 20년 동안 1억3000만원이라는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br/> <br/>한편 사망보장금은 가장 유고 시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가족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연평균 가구소득의 5~6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추천하는 이유이다. 가장이라면 자신의 사망보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br/> <br/>황은미 세계파이낸스 기자 hemked@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0.txt

제목: 힘찬 물줄기… 몸과 마음 말갛게 씻습니다  
날짜: 2014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610014627616  
본문: ‘소금강(小金剛)’은 우리 땅의 절경을 일컫는 최상급의 찬사 중 하나다. 예로부터 최고의 절경으로 공인받아 온 금강산에 견줄 만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 ‘원조’는 오대산 소금강이 아닐까 싶다. 오대산 소금강은 국가 지정 ‘명승 1호’이기도 하다. 명승 2호도 경남 거제 앞바다의 해금강, 즉 바다의 금강이다. <br/> <br/>소금강은 동해를 향해 치닫는 오대산 동쪽 자락의 계곡이다. 소금강 물줄기는 오대산 봉우리 중 하나인 노인봉(1330m)의 동쪽 사면에서 발원해 흘러내리고, 다시 연곡천과 합쳐져 동해로 빠져나간다. 예전에 노인봉은 청학산, 노인봉 동쪽 기슭에 들어선 마을은 청학동으로 불렸다. <br/> <br/>소금강이라는 이름은 강릉이 낳은 대학자 율곡 이이의 글에서 유래했다. 1569년 초여름 벼슬을 그만두고 강릉으로 내려온 율곡은 연곡천을 거슬러 올라 이 청학동 계곡을 찾는다. 그리고 그 감흥을 담은 ‘유청학산기(游靑鶴山記)’라는 기행문을 남겼는데, 청학동 계곡의 빼어난 산세가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소금강이라고 명명한다. 소금강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니라 실제 금강산과 닮은 형상도 여럿이다. 소금강 구룡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와, 소금강 만물상은 금강산 만물상과 꼭 닮았다고 해서 같은 이름을 붙였다. 소금강 연화담도 금강산 연주담과 흡사하다고 한다. <br/> <br/> 아홉 자락의 폭포와 소(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구룡폭포는 오대산 소금강 절경 중 하나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자 가장 아래 자리한 9폭이 힘찬 물줄기를 내뿜고 있다. 우산을 쓴 등산객들이 감상하는 바로 위 8폭은 이단으로 구성돼 있다.소금강 계곡은 13㎞에 이른다. 계곡 전체를 눈에 담고 싶은 사람들은 강릉·평창을 잇는 오대산 진고개에서 출발해 노인봉을 거쳐 소금강 계곡을 내려오는 15㎞짜리 산행을 한다. 가벼운 걸음으로 소금강의 명소를 감상하려면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분소가 있는 연곡면 삼산리에서 출발해 구룡폭포까지 다녀온다. 왕복 5㎞로, 경사가 급하지 않아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오갈 수 있다. <br/> <br/>소금강 계곡 안으로 들자 짙은 초록의 터널이 이어진다. 초여름 소우(小雨)에 젖은 숲은 한결 더 싱그럽고 생기가 넘친다. ‘명불허전(名不虛傳)’이 따로 없다. 명성 그대로다. 초입부터 감탄사를 멈출 수 없는 비경이 이어진다. 기기묘묘한 형상의 하얀 화강감 사이로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계류가 흐르고, 주변에는 낙락장송들이 우거져 있다. 소금강에는 유난히 폭포와 청담(淸潭)이 많아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다. 구룡폭포에 이르는 길은 계곡 트레킹의 재미를 맛보는 데도 제격이다. 대부분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지만 군데군데 제법 가파른 구간이 있어, 힘들지도 않지만 심심하지도 않다. <br/> <br/>소금강에서 처음 만나는 명소는 무릉계. 계곡 아래 약 300m 구간에 기암괴석이 펼쳐져 있다. 이어 화강암 절벽이 십자형으로 길게 갈려 있는 십자소와 활짝 핀 연꽃을 닮은 연화담을 지난다. 십자소와 연화담에는 푸르다 못해 검은빛을 띠는 물이 담겨 있다.  <br/> <br/> 마의태자의 군사 수백명이 한꺼번에 앉아 식사를 했다는 식당암.중간쯤에 금강사라는 작은 절집이 있다. 약수 한모금으로 땀을 식히고 다시 산길을 오르면 거대한 바위가 눈앞에 펼쳐진다. 소금강의 최고 명소 중 하나인 식당암이다.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청학산에서 군사들을 훈련하며 이곳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바위는 장정 수백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넓이다. 율곡이 이 바위에 붙인 비선암이라는 이름은 기록에만 남아 있으니, 후대 사람들에게는 식당암이라는 이름이 더 부르고 쉽고 친숙했나 보다. <br/> <br/>식당암부터 소금강의 형상은 웅장한 협곡에 가깝다. 양 옆으로 수직 절벽이 서 있고, 한쪽 절벽 아래는 식당암을 위시한 거대한 바위들이 늘어서 있다. 이 바위들을 연결한 철계단을 오르면 소금강의 백미인 구룡폭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br/> <br/>아홉 개의 폭포와 소(沼)가 염주알 꿰듯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등산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자리한 8폭과 9폭이다. 거대한 바위를 타고 힘차게 휘어져 떨어지는 물줄기는 이름 그대로 꿈틀대는 용의 몸짓을 연상시킨다. 구룡폭포 위로는 만물상이 마치 팔짱을 낀 듯한 형상으로 산자락을 굽어보고 있다. 8폭과 9폭 사이 너럭바위에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폭포수의 새하얀 물줄기에 눈을 씻고, 청량한 물소리에 귀도 씻을 수 있었다. <br/> <br/>강릉=글·사진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1.txt

제목: 연세암병원, 글로벌 암 치료 컨소시엄 가입  
날짜: 2014062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510014614770  
본문: 연세암병원 전경. 지난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바로 옆에 새롭게 문을 연 연세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암 치료 전문병원을 지향한다. 연세암병원(원장 노성훈)은 최근 전 세계 암 환자들을 위한 정밀 치료제 개발 기구인 ‘윈(WIN)’ 컨소시엄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윈이란 ‘전 세계 혁신 네트워크(Worldwide Innovative Network)’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br/> <br/> 연세암병원에 따르면 윈 컨소시엄은 개별 맞춤형 암 치료제를 만들어 향후 3년 이내에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MD앤더슨암센터 같은 유수의 병원들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GE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br/> <br/> 이번에 윈 컨소시엄 참여가 결정된 연세암병원은 이르면 올 후반기부터 컨소시엄에서 진행 중인 임상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정현철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한국과 아시아에 많은 암은 서구 의료진의 치료제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국내 암 환자들이 윈 컨소시엄에서 진행하는 최신 신약들에 의한 최고의 맞춤형 치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2.txt

제목: 유전자 빅데이터로 의학연구 시스템 개발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410014607325  
본문: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인간 유전자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암, 당뇨와 같은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 질환과 관련된 신호 전달경로를 예측·발굴할 수 있게 된 만큼 미래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연세대 생명공학과 이인석(사진) 교수 주도 아래 황소현 박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의 마콧 교수가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이런 연구 성과를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의 지난달 26일자 온라인판에 실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앞서 2011년 인간 유전자소셜네트워크인 ‘휴먼넷’을 자체 개발했다. 유전자소셜네트워크는 세포 내 모든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소셜네트워크 방식으로 나타낸 모델인데, 휴먼넷은 인간 유전자 2만여개 사이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지도화했다. 연구팀은 휴먼넷을 이용해 동물에서 인간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호전달경로 모델을 발굴하는 웹 기반 예측 시스템 ‘모핀’을 개발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모핀은 동물 모델에서 작동하는 특정 유전자가 암이나 당뇨 등을 유발하는 인간 유전자와 어떤 기능적 유사성을 가지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3.txt

제목: 아이유, 울랄라세션 故 임윤택과 만났다… '애타는 마음' 발매  
날짜: 20140624  
기자: 이금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410014599901  
본문: 아이유와 울랄라세션이 최갑원 프로듀서 프로젝트로 뭉쳤다. 오는 30일 '더 리릭스(The Lyrics)'의 다섯 번째 작품 '애타는 마음'으로 팬들 곁을 찾는 것. <br/> <br/>'애타는 마음'은 좋은 가사로 좋은 음악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최갑원 프로듀서의 '더 리릭스' 다섯번째 프로젝트 곡이다. 소유X정기고 '썸'을 만든 인기 작곡가 김도훈과 한국 작곡가 최초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곡을 만든 작곡가 PJ가 공동 작곡했으며, 최갑원이 가사를 썼다. <br/> <br/>퍼포먼스형 보컬 그룹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울랄라세션과 탁월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아이유가 만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지 벌써부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갑원 프로듀서를 비롯해, 김도훈 작곡가, 울랄라세션, 아이유 모두 음원에서 강한 면을 보여왔다는 점 역시 곡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br/> <br/>특히 이 곡은 지난 2012년 겨울 녹음을 마치고 이듬해 발표 예정이었으나,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울랄라세션의 멤버 고(故) 임윤택이 사망하면서 발표 시기가 잠정 연기됐다. 이후 더 리릭스 측은 고인이 마지막까지 보였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상업적인 이슈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올 여름 발표키로 확정했다. <br/> <br/>더 리릭스 측은 "고인의 마지막 음성이 담긴 음원으로, 고인을 그리워하는 팬들에게는 뜻 깊은 선물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더 리릭스'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휘성과 소울스타 이승우가 함께한 '감기라도 걸릴까'를 시작으로, 영지와 소울스타 이규훈의 '행복해라', 빅마마 출신 이지영과 팬텀의 한해가 호흡을 맞춘 '불편한 진실', 거미가 부르고 이시영이 내레이션을 한 4번째 작품 '내 생각날 거야' 등을 공개해,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았다. <br/> <br/>이금준 기자 everun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4.txt

제목: 레지오넬라 6~8월 주의…4년간 환자 105명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4100000021  
본문: 심하면 폐렴으로 진행돼 목숨까지 잃는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이 6~8월에 흔한 만큼, 여름철 에어컨·분수대·샤워기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 병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나타나는 증상으로, 1976년 여름 미국 필라델피아 재향군인 총회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폐렴으로 3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처음 알려진 질환이다. 크게 레지오넬라 폐렴(Legionnaire's disease)과 폰티악 열(Pontiac fever)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급성 열병인 폰티악 열은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반면 레지오넬라 폐렴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증에 해당한다.레지오넬라균은 물만 있다면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는데,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에어컨·샤워기·수도꼭지·가습기·온천·병원내 호흡기 치료기·분수대 등의 오염된 물 속에 있다가 작은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사람 몸에 들어온다. 24일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레지오넬라증의 역학적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3년 4년동안 국내에서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모두 105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법정감염병 사망자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0년 12월 30일 이후 레지오넬라증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는 모두 4건이었다.2010~2013년 환자 가운데 역학 분석이 끝난 94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65명) 환자가 여성(29명)의 2배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70대이상이 44.7%(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8.1%)·50대(17.0%)·40대(8.5%) 등의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자가 뚜렷하게 늘었다.연중 주로 6~8월에 환자가 집중됐고, 유형별로는 보다 심각한 '레지오넬라 폐렴'(85.1%)이 '폰티악 열'(13.8%)보다 흔했다. 발병률이 높은 폰티악 열 환자의 보고 사례가 오히려 더 적은 것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일선 병원에서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게 보건당국 설명이다.환자들은 주로 발열(68.1%)·기침(57.4%)·호흡곤란(44.7%)·오한(37.2%)·전신피로(34.0%) 등의 증상으로 호소했다. 레지오넬라 폐렴의 경우 폰티악 열에 비해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심한 반면, 폰티악 열 환자에서는 두통·근육통·구토 등이 잦았다. 환자 가운데 74.5%(70명)는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앞서 암(23명)·당뇨(13명)·고혈압(8명)·만성폐쇄성폐질환(6명) 등 다른 질환을 앓고 있었다. 면역력이 떨어진 만성질환자가 레지오넬라균에도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레지오넬라증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는데, 최근 4년간 집단 발병 신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집단 발병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효과적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내 감염이나 지역사회 특정 장소 방문 후 증상이 확인될 경우 이용시설의 냉각탑수·분수대·샤워실·샤워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지도·검사해야한다고 당부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5.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연구 네트워크 '윈 컨소시엄' 합류  
날짜: 2014062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310014590772  
본문: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윈(WIN, Worldwide Innovative Network) 컨소시엄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받고 세계 최고의 '맞춤형 암 치료'에 나선다. <br/> <br/>윈 컨소시엄은 5대륙에 걸친 대규모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안에 전 세계 암환자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로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센터, 연구소, 제약회사들이 ‘맞춤형 암 치료’의 혁신을 위해 모인 협력체다. <br/> <br/>  <br/> <br/>특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유창식 소장이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디렉터로 위촉돼 앞으로 2년 동안 전 세계 ‘맞춤형 암 치료’ 관련 최고 정책결정에 나서게 됐다. <br/> <br/>의학계에선 이미 예견된 영입이었다. 미국 하버드의대와 공동으로 맞춤형 암 치료 시스템인 ‘한국형 온코맵’과 차세대 유전체 해독기술을 이용한 ‘온코패널’을 구축하며 아시아 권역에서 맞춤형 암 치료의 발전을 이끌어온 서울아산병원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는 윈 컨소시엄에 최적의 파트너로 꼽혀왔다. <br/> <br/>특히 컨소시엄의 주축인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는 서울아산병원의 ‘맞춤형 암 치료’ 기술과 독보적인 임상기반에 매료돼 지난 2년에 걸쳐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1년 아산-다나파버 암유전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하며 대한민국 ‘맞춤형 암 치료’ 개발을 본격화했다. <br/> <br/>종양 유전자를 분석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온코맵 기술과 유전체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온코패널 기술을 바탕으로 1400례의 맞춤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800여건 이상의 표적항암제 관련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br/> <br/>특히 폐암과 담도암의 경우 실제 임상치료에 적용해 환자들이 유전체맞춤 표적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세계 유수의 병원들이 유전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서울아산병원의 탁월한 역량을 실감할 수 있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맞춤형 암 치료’ 분야의 아시아 대표 병원으로서 싱가포르 국립암센터,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네게브 대학병원과 하닷에셀대학병원, 중국 푸단대 상하이암센터, 요르단 킹 후세인 암센터, 인도 타타기념병원 등 여러 회원병원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br/> <br/>유창식 소장은 “암 치료의 미래는 맞춤형 암 치료에 있다”며 “윈 컨소시엄 가입은 서울아산병원에게도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내 환자들이 세계적인 암 치료 프로젝트의 성과를 더욱 빠르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6.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글로벌 암 치료 협의체 가입  
날짜: 2014062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310014591216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현지시간으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윈’ 컨소시엄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윈(WIN)이란 세계혁신연대(Worldwide Innovative Network)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윈 컨소시엄은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암 관련 병원과 기관들이 모여 만든 협력체다. <br/> <br/> 서울아산병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연구진을 갖춰 일찌감치 윈 컨소시엄 가입이 예상돼왔다. 특히 컨소시엄 가입과 더불어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유창식(사진) 소장이 협의체의 아시아 지역 디렉터로 위촉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로써 유 소장은 향후 2년간 전 세계의 암 치료 관련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br/> <br/> 유 소장은 “<span class='quot0'>암 치료의 미래는 맞춤형 암 치료에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가입을 계기로 국내 환자들이 세계적인 암 치료 프로젝트의 성과를 더욱 빠르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서울아산병원은 2011년 아산-다나파버 암유전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2년에는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여는 등 국내 ‘맞춤형 암 치료’ 프로젝트 추진에 앞장서왔다. 종양 유전자를 분석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온코맵 기술과 유전체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온코패널 기술을 바탕으로 1400례의 맞춤형 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800건 이상의 표적항암제 관련 임상실험도 진행하는 중이다. <br/> <br/>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앞으로 싱가포르 국립암센터,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네게브 대학병원과 하닷에셀대학병원, 중국 푸단대 상하이암센터, 요르단 킹 후세인 암센터, 인도 타타기념병원 등 여러 회원 병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7.txt

제목: 日 아베종양내과,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성과 밝혀  
날짜: 20140623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310014593549  
본문: 일본의 암치료 병원인 아베종양내과가 지난 14일 일본 삿포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된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신 수지상세포의 암백신 치료효과’를 발표했다. <br/> <br/>아베종양내과와 공동연구에 참여한 국내기업 선진바이오텍에 따르면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집중 연구해왔다. 그는 앞서 제17회 학회에서는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적용한 결과 74.4%의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이날 아베종양내과 아베 이사장은 25ml의 소량 혈액만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이는 우리 인체 내 8%에 불과한 단구를 분리해 유전자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검사를 한 뒤 개인 맞춤형 암항원을 추가해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br/> <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원발암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를 강화시키는 WT1을 비롯해 MUC1 펩타이드, 개인별 특이적 암항원, NY\_ES01 펩타이드, 서바이빈 펩타이드, GV1001 펩타이드 등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높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아베종양내과에서는 말초혈순환종양세포 검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유리RNA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돼 향후 암 진단과 임치료 유효판정에 영상진단과 혈액검사, 암별 유전자분석, CTC검사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8.txt

제목: "정기건강검진, 사망위험 낮추고 의료비 지출 줄여"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3100000031  
본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일수록 중증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작고 의료비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최근 발간한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160만여명의 문진자료, 검진자료, 급여·자격·사망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연구진은 1992년부터 2000년에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첫 검진 연령이 20∼50세인 163만2399명을 검진 횟수에 따라 하위집단(1∼2회), 중위집단(3∼4회), 상위집단(5∼7회)으로 나누고 이들의 심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암 사망위험도 및 의료비 지출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사망위험도는 상위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남성은 0.65배, 여성은 0.78배 낮았다. 이는 남성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사망위험을 3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환별로 보면 심뇌혈관질환 사망위험도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남성은 0.64배, 여성은 0.68배 낮았다. 뇌졸중 사망위험도도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남성은 0.44배, 여성은 0.72배 낮았다. 단, 허혈성심장질환과 암은 검진횟수와 사망위험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를 합한 의료비 지출도 검진횟수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은 건강검진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사대상 모든 질환에서 의료비 지출이 줄었고 남성은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의 치료비가 줄었다. 연구를 진행한 지선하 교수는 건강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사망위험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검진을 자주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건강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질환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사망 위험도는 낮아진다는 근거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19.txt

제목: [한방교실]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 흡연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310014587834  
본문: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95%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폐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폐암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폐질환 중 하나이며, 폐기종과 기관지확장증이 이에 포함된다. 만성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다. <br/> <br/>폐암과 흡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즉 흡연기간이 길고,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또한 흡연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br/> <br/> 노영희 편강한의원 안산점 원장담배는 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기관지벽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 기관지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기관지가 좁아져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폐의 세균이나 기관지의 세균을 걸러주는 기관지 내의 섬모들이 제 기능을 잃게 되어 점점 악화된다.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br/> <br/>다시 말해, 담배는 폐를 점점 병들게 하여 끝내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과 같은 무서운 폐질환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담배에 들어있는 수많은 물질 중의 하나인 ‘타르’는 직접적인 발암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서, 폐암뿐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 등 각종 암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 발암물질을 함유한 담배연기가 구강, 식도, 폐 기관지에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이다. <br/> <br/>흡연자들이 금연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고, 금단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한 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흡연자들은 하루빨리 금연을 실천해야 하며,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을 피해야 한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건강한 폐 건강을 위해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다. <br/> <br/>노영희 편강한의원 안산점 원장 <br/> <br/>■노영희 편강한의원 안산점 원장 약력… <br/> <br/>▲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석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0.txt

제목: [건강 단신] 난치암 치료 ‘아바타뇌조직은행’ 외  
날짜: 2014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210014586420  
본문: 난치암 치료 ‘아바타뇌조직은행’ <br/> <br/>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난치암 연구를 위한 일명 ‘아바타뇌조직은행’을 개설했다. 이 은행은 암 환자에게서 확보한 인체조직을 세포 단위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신경외과 남도현 교수는 “<span class='quot0'>난치암 환자를 치료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연구와 신경 줄기세포 관련 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02)2148-9775 <br/> <br/>위식도역류질환 공개 강좌 개최 <br/> <br/>아주대병원(원장 유희석)은 25일 낮 12시30분 본관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을 주제로 공개 강좌를 연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을 포함한 위액이 식도 안으로 역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과 속쓰림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가 강사로 나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과 치료, 예방법 등을 설명한다. (02)3469-9037 <br/> <br/>위암 예방·치료 등 건강 강좌 <br/> <br/>연세암병원(원장 노성훈) 위암센터는 25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 강좌를 연다. 위암의 예방 및 정기검진의 중요성, 위암의 내시경 치료, 수술적 치료, 항암치료, 위암 환자의 영양 및 식사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환자 및 보호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02)2228-4068, 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1.txt

제목: 원병원, 부산 다대지역에 오는 8월 초 개원  
날짜: 20140622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210014585110  
본문: 오는 8월 개원하는 원병원 전경 응급의료기관의 부재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산 다대포 지역에 응급실과 200병상을 갖춘 준 종합병원이 탄생한다. <br/> <br/> 원병원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565번지에 오는 8월 초 개원식을 갖고 지역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br/> <br/>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200㎡ 규모인 원병원은 24시간 응급실과 최첨단 의료장비인 MRI(자기공명촬영기)와 CT(컴퓨터단층촬영기)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내과와 정형외과, 일반외과, 소아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을 두고 대학병원 교수진 출신 등 10여 명의 의료진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br/> <br/> 다대지역의 경우 주민수가 7만5000여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병원 없이 의원급만 있어 주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등 야간 응급환자들의 큰 불편을 겪어왔다. <br/> <br/> 원병원은 종합건강검진센터와 위·대장 내시경센터, 5대 암 검진센터, 척추관절센터, 통증크리닉센터를 비롯해 지하층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며 동시에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br/> <br/> 또 원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100여명의 직원을 모집한다. <br/> <br/> 모집직종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 및 재활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원무과, 심사과, 총무과, 구매과, 전산실, 시설과, 영양사, 조리사, 운전직 등으로 채용은 부산 사하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는 병원방침인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다. <br/> <br/> 접수나 문의는 이메일(onehospital1@hanmail.net)과 전화(051-266-6227)로 하면 된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2.txt

제목: 혹시 내 가슴이… “매월 꼭 유방암 자가진단을”  
날짜: 2014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210014586570  
본문: 20대 여성이 3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 가운데 하나가 유방암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유방암 환자 중 40대 이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무려 3배가량 많다고 한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만 하면 생존율이 90%를 넘는다. <br/> <br/>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30대가 되면 매월 유방암 자가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조언한다. <br/> <br/>◆“30대, 초음파로 발견 못할 수도” <br/> <br/>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암은 환자의 삶의 질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 3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리면 심리적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유방을 절제할 경우 ‘여성성을 잃었다’는 상실감 탓에 연애나 부부관계, 사회생활에서 모두 자신감이 줄고 위축되기 십상이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송병주)는 최근 전국 30개 대학병원과 유방암 전문병원의 생존 환자 109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중증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명지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신혁재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유방암 치료 후 외모 변화나 불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젊은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윗 세대보다 훨씬 큰 편</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유방암은 치료 후 5년간 생존할 확률이 약 91%로 비교적 높다. 발병 초기에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완치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br/> <br/>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주웅 교수는 “<span class='quot2'>출산과 임신을 겪어야 하는 여성들은 빠르고 이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적어도 35세 이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전문의를 찾아 유방암 진찰을 받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물론 병원에서 받는 정기 검진을 통해 발견할 수도 있겠으나, 30대 여성은 유방 조직이 아직 치밀할 때라 초음파 검사 등 기계로는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자가진단이 필수적이란 얘기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의 70% 이상은 본인이 직접 발견했다는 통계도 있다. <br/> <br/>유방암 예방·치료를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이 활짝 웃고 있다. 유방암은 대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매월 생리 직후 자가진단 필수적 <br/> <br/>유방암 자가진단은 매월 생리가 끝나고 2∼5일 지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샤워를 할 때 비눗물을 묻혀서 하는 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br/> <br/>일단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다. 두 팔을 몸에 붙인 자세로 거울을 보며 양쪽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지, 피부가 두꺼워진 곳이나 멍든 것처럼 색이 변한 곳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유두 위치가 양쪽이 서로 같은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혹시 피부가 쑥 들어간 곳은 없는지도 점검한다. <br/> <br/>그리고 양손을 허리에 고정시킨 자세로 어깨를 앞으로 내밀며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 직접 육안으로 유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br/> <br/>유방을 만질 때에는 먼저 검지·중지·약지 세 손가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쓸어본다. 이어 겨드랑이부터 유두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 만져본다. <br/> <br/>유방에는 깊이가 있으므로 얕게 또는 좀 더 깊게 만져보며 멍울이 있는지, 림프절이 커져 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한다. 손으로 만져보는 경우 유방 외에 가슴 중앙선과 쇄골 아래를 포함한 부분, 그리고 양쪽 목과 겨드랑이 쇄골 위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br/> <br/>한쪽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상하 및 좌우로 유두를 눌러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과전문병원인 민병원 김종민 원장은 “<span class='quot3'>유두를 눌렀을 때 핏빛 분비물이 나오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유방 및 유두가 눈에 띄게 함몰한 경우,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어진 경우 등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3.txt

제목: 30년간 30배 ↑… 한국인 갑상선암 급증 왜  
날짜: 2014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010014580682  
본문: 5년 전 전남 영광에선 갑상선암 환자가 갑자기 급증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은 수치의 발병률을 기록했다. 영광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학자들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3, 4년 동안의 조사 끝에 도출한 결론은 뜻밖이었다. 애초에 의심했던 원자력발전소는 전혀 무관했다. 갑상선암 환자 전체의 의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급증 원인은 영광에 있는 두 곳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갑상선 초음파 검진이었다. <br/> <br/> 초음파 검진에 쓰이는 장비.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갑상선암 발생은 과잉 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br/>KBS 제공KBS2 ‘추적 60분’은 21일 오후 10시25분 초음파 검진의 과도한 확산으로 갑상선암 발견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현실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br/> <br/>매년 평균 23.7%씩 꾸준히 증가해 30년간 약 30배 이상 많아졌으며,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발병률을 기록한 대한민국 갑상선암. 제작진은 갑상선 초음파 검진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직접 서울시내 내과, 산부인과를 찾았다. 한국은 ‘검진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종류와 양의 검진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갑상선 초음파 검진은 특히 보편화되어 있다. <br/> <br/>“우리는 5년 넘게 갑상선암 진단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암을 찾아냈지만 결국 같은 수의 사람들이 그 병으로 사망한다는 뜻이다.”(아비 멘델슨 미국 UCLA대학병원 두경부외과 교수) <br/> <br/>한국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국가가 지정한 5대 암 검진 외에 갑상선 초음파 등 검진 ‘끼워팔기’가 만연한 상황이다. <br/> <br/>“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위암·폐암·간암 검사는 했어도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은 안 했는데, 이게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의료 자본으로 볼 때는 블루 오션이 된 거죠. 그중 갑상선암이, 그건 암이니까 암이 주는 공포감과 단어 자체가 주는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유영진 상계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4.txt

제목: "의사인 내가 봐도 흡연은 자살…국민도 알아야죠"  
날짜: 2014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2010014580687  
본문: 지난 4월 10일 대법원은 폐암 환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 등 30명이 KT&G(한국담배인삼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 <br/>서홍관(56)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0'>판결이 시대착오적이며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담배회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국민에게서 심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실제로 서 회장은 같은 달 14일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원고 측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br/> <br/>자타가 공인하는 의료계의 ‘트러블메이커(Troublemaker)’인 서 회장은 그가 만들어 내는 뉴스만큼이나 이력이 흥미롭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과 인제대 백병원을 거쳐 현재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1985년에는 창작과비평에 ‘금주선언’이라는 시집으로 등단한 시인으로 3권의 시집도 발표한 특이 이력의 소유자다. <br/> <br/>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립암센터의 개인연구실에서 만난 서 회장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span class='quot1'>1988년 담배를 끊을 때까지 11년 동안 담배를 태웠다</span>”고 멋쩍게 웃어보였다. <br/> <br/>서 회장이 담배를 끊게 된 것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회원으로 활동하던 1988년 양담배 수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서 회장은 당시 국민 건강증진에 반한다는 주제로 어떻게 짧고 명료하게 성명서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담배와 관련한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담배가 어떻게 인체에 해로운지 알지 못했던 그는 담배를 피워 문 채 관련 논문들을 읽었다. <br/> <br/>서 회장은 “논문을 읽다가 ‘이건 미친 짓이다. 자살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완전히 끊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br/> <br/>그는 이후 ‘내가 의사로서 이렇게 해로운 담배를 나만 끊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환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금연을 하도록 유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금연방법과 선진국 사례, 청소년 흡연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금연운동을 해나갔다. 1996년 한국의 흡연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던 해에는 당시 근무하던 인제백병원에 금연클리닉을 만들었지만 ‘하루 10명씩 보는 환자들로는 1300만명 모두를 금연하게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일순 회장이 운영하던 금연운동협의회에 참가했다. <br/> <br/>서 회장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span class='quot1'>담배가 몸에 해로운지를 왜 법원이 판단하냐</span>”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span class='quot1'>의사가 보기에는 세포유형에 상관없이 담배가 암에 영향을 미치는데, 1심에서 법원은 아예 담배가 암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에 가서도 일부 세포유형에 대해서만 인정했다</span>”고 판결을 평가했다. <br/> <br/>대법원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만 담배가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서 회장은 건보공단과 진행하는 이번 소송에서 이 유형의 암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모아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br/> <br/>서 회장은 금연정책 제안으로 “<span class='quot1'>담배 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6500원까지 올리고,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사진을 넣어야 하며 금연진료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투입해 보험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20일 고양 일산동구 국립암센터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국내 금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r/>이재호 기자현재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담뱃값이 가장 싸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1등이다. 그는 “<span class='quot1'>런던 올림픽 세계 5위인 나라가 금연정책은 100위인 현 상황이 말이 안 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현재 한국의 금연정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10년째 제자리인 담배 가격과 지지부진한 금연정책은 탐욕스러운 담배회사, 이런 담배회사로부터 로비를 받는 국회의원, 의지 없는 보건복지부가 맞물려 일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br/> <br/>그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담배회사 직원들에게서 로비를 받은 문서를 확보했다”며 “한국에서는 담배회사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금연정책이 결코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br/> <br/>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레지던트로서 의사시국선언에 참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진료하기 바쁜 중에 각 대학 의대를 찾아가 137명의 의사를 모아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시국선언문을 바탕으로 인의협이 만들어졌다. <br/> <br/>서 회장은 “<span class='quot1'>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때문에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되지만,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그가 시인이 된 것은 대학시절 개인적으로 조금씩 시를 쓰다가 1981년 서울대 의대 문학의 밤 행사에서 신경림 시인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신경림 시인은 당시 서 회장이 낭독한 시에 대해 “기성 시인 못지않다”고 극찬했다. 서 회장이 1984년 졸업하면서 개인 시집을 만들어 신경림 시인을 찾아가자 “홍관이도 이제 등단하지”라고 말해 창작과 비평에 시를 보내 등단했고, 띄엄띄엄 세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2011년 발표한 시집 ‘어머니 알통’의 첫 문장인 ‘어머니를 어머니로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첫번째 행운이었다’를 꼽았다. 2007년 어머니를 여의고 2011년 시집을 발표한 서 회장은 서재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어머니의 영정을 모시고 있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5.txt

제목: 말기 암 환자, 삶 만족도 높으면 더 오래 산다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000054  
본문: 말기 암 환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이용주 교수와 동국대학교 가정의학과 서상원 교수팀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경기지역 6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연구진은 유럽 암연구·치료기구 위원회(EORTC)가 개발한 암환자 삶의 질 평가도구(QLQ-C15-PAL)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환자가 느끼는 건강상태와 감정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위험비는 1보다 낮아지는 통계적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생존 위험비는 진찰 기록상 환자의 생존 기간을 분석한 통계적 수치로 1보다 낮을수록 생존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교수는 "일반 암 환자의 삶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말기 암 환자의 삶의 만족도와 생존 기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말기 암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진은 말기 암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완화의학 관련 학회지 'Support Care in Cancer' 3월호에 발표되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6.txt

제목: 현대차 구형 싼타페서 부식발견…1년간 무상 점검  
날짜: 20140619  
기자: 이다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14568979  
본문: 현대자동차가 구형 싼타페(SM) 차량의 ‘트레일링 암’이 녹스는 현상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br/> <br/>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싼타페의 트레일링 암이 심하게 부식돼 주행에 영향을 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에서 부식이 생겨 내구성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r/> <br/> <br/> <br/>소비자원은 겨울철 이물질 등이 뒷바퀴 트레일링 암 틈새로 들어갔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남아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br/> <br/>현대차는 소비자원의 안전조치 권고를 수용해 향후 1년간 무상으로 점검하고 트레일링 암에 녹 방지를 위한 방청 조치를 하거나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 <br/> <br/>해당 차종은 2000년 12월1일부터 2003년 1월27일까지 생산한 싼타페(SM) 차량 13만1417대다. 차량 소유자는 현대차 고객센터(080-600-6000)로 연락해 현대차 서비스망에서 무상 점검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으면 된다. <br/> <br/>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7.txt

제목: “말기암 환자 삶의 질 평가 통한 생존기간 예측”  
날짜: 201406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14560059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이용주 교수.말기암 환자 스스로가 느끼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이, 환자의 남은 생존기간(기대여명)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이용주·동국대학교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팀이 2006년부터 2007년 동안 서울·경기지역 6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입원한 말기암환자 162명이 환자 삶의 질 점수를 평가한 결과 생존기간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19일 밝혔다. <br/> <br/>특히 삶의 질 평가 항목 중 건강상태, 감정기능은 점수가 높을수록 말기암 환자의 생존위험비가 낮았으며 피로, 구토, 식욕부진, 변비는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환자가 느끼는 건강과 감정 상태가 양호하면 생존기간이 길수 있지만, 나머지 위의 4가지 증상은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암환자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질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EORTC QLQ-C15-PAL’를 이용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유럽 암연구 및 치료 기구 위원회(EORTC)에서 개발한 EORTC QLQ-C15-PAL 설문지.‘EORTC QLQ-C15-PAL’은 유럽 암연구 및 치료 기구  위원회(EORTC)에서 개발한 암환자 삶의 질 평가도구로, 기존 설문조사보다 설문 내용이 간결해 환자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br/> <br/>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이용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로 삶의 질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신체상태도 환자의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이 연구 결과는 완화의학 관련 ‘Support Care in Cancer’ 3월호에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8.txt

제목: 유방암, 조기발견 시 생존율 높아…30세부터 자가 검진 필요  
날짜: 20140619  
기자: 이새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14559305  
본문: 보건복지부의 암관련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2001년 약 7천명에서 2011년 약 1만5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방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는 암으로 알려져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조기 발견을 위한 자가 검진이 중요하다. <br/> <br/>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암 4기는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낮은데 비해 조기 유방암의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자가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br/> <br/>유방 자가 검진은 여성들이 스스로 쉽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유방암 조기 발견에 용의하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자가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다. <br/> <br/>우리나라 전체 유방암 환자 중 40대 이하 환자 비율은 서구 여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40대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20-30대 젊은층도 매달 유방 자가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br/> <br/>유방암 자가 검진은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생리 후 2-5일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매달 임의로 지정한 날에 시행하며 유방을 만져볼 때는 샤워할 때 비눗물을 묻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br/> <br/>먼저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두 팔을 몸에 붙인 자세로 양쪽 유방의 모양이나 크기가 같은지 피부가 두꺼워진 곳이나 멍든 것처럼 색이 변한 곳이 있는지 살펴본다. <br/> <br/>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올린 후 유두의 위치가 양쪽이 같은지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피부가 쑥 들어간 곳은 없는 지 본다. 그리고 양손을 허리에 고정시킨 자세로 어깨를 앞으로 내밀며 허리를 굽혀 유방을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br/> <br/>또한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위 아래로 번갈아 가며 쓸어보거나 겨드랑이부터 유두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만져본다. <br/> <br/>유방에는 깊이가 있으므로 얕게 혹은 좀 더 깊게 유방을 만져보며 멍울이 있는지 림프절이 커져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br/> <br/>손으로 만져볼 때에는 유방 외에도 가슴 중앙선과 쇄골 아래를 포함한 부분과 양쪽 목과 겨드랑이 쇄골 위까지 혹이 만져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상하 및 좌우로 젖꼭지를 눌러 분비물이 나오는 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br/> <br/>만약 핏빛 유두 분비물이 나오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br/> <br/>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29.txt

제목: 원가 2만원 건강식품, 200만원에 판 업자들 2명 입건… 16억원 챙겨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14568293  
본문: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br/> <br/>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인이나 주부 2000명에게 “<span class='quot0'>1만가지 질병 치유에 도움을 주는 지구상의 유일한 물질이라 당뇨나 암, 혈압 등을 치료해 준다</span>”며 프로폴리스의 효능을 지나치게 부풀려 원가 2만원짜리(300㎖)를 최고 200만원에 팔아 총 16억8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오영탁 기자 o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0.txt

제목: 편백나무 숲서 삶의 희망 찾는 사람들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14569316  
본문: 우리나라에서 편백나무가 가장 많은 전남 장성의 축령산. 이곳엔 편백나무 250만여 그루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 산이 치유의 숲으로 알려지면서 암환자들은 물론이고, 각종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의 쉼터가 되고 있다. <br/> <br/>EBS ‘하나뿐인 지구’는 20일 오후 8시50분 편백나무 숲이 사람들의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 ‘나는 매일 편백숲으로 간다’를 방송한다.  <br/> <br/> 전남 장성 축령산의 편백나무 숲에서 삼림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 편백나무 숲은 다량의 피톤치드를 뿜어내 항스트레스·우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BS 제공올해 초 간의 17.7㎝가 암 세포로 뒤덮였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권승옥씨는 매일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축령산을 찾고 있다. 이미 수술할 단계를 지나버린 그가 아내와 함께 찾은 편백숲은 부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다. <br/> <br/>4년 전 위가 딱딱하게 굳는 위경화증을 앓게 된 23살의 박성일씨도 어김없이 숲을 찾는다. 유명하다는 병원은 안 가본 곳이 없던 성일씨가 평소 산을 좋아했던 엄마와 함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축령산이다. <br/> <br/>축령산의 편백숲은 곳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가파르지 않은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 데다 환우들을 위한 쉼터까지 갖춰져 있어 환우들이 끊이지 않고 찾는 ‘치유의 명소’다. 보통 나무의 10배 이상의 피톤치드(식물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지닌 물질)를 뿜어내 항스트레스·우울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지친 한 주의 끝에 모 기업 직원과 가족들이 축령산을 찾았다. 일일 숲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 대표로 두 사람이 자율신경균형도 검사로 스트레스와 저항력 등을 측정했다. 스트레스 지수 10점 만점에 10점, 9점이 나와 대한민국 직장인들 스트레스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후 맨발로 숲을 느끼고, 눈을 감고 소리를 듣고, 온몸으로 호흡하며 2시간의 숲 활동이 끝나고 다시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항력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1.txt

제목: 200만원짜리 '만병통치약' 원가는 2만원  
날짜: 20140619  
기자: 오영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14565312  
본문: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br/> <br/>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인이나 주부 2000명에게 “<span class='quot0'>1만가지 질병 치유에 도움을 주는 지구상의 유일한 물질이라 당뇨나 암, 혈압 등을 치료해 준다</span>”며 프로폴리스의 효능을 지나치게 부풀려 원가 2만원짜리(300㎖)를 최고 200만원에 팔아 총 16억8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꿀벌이 침과 효소 등을 섞어 만든 프로폴리스는 항산화 효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의 중소기업 홍보관을 돌며 노인 등을 모아 놓고 노래와 공연으로 호감을 산 후 화려하게 포장된 국내산 제품을 아마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오영탁 기자 o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2.txt

제목: 일양약품, 슈펙트 유럽혈액학회서 글리벡 대안으로 '급부상'  
날짜: 201406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910014560394  
본문:   <br/> <br/>일양약품 ‘슈펙트’가 지난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혈액학회에서 2세대 TKI 제제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 대비 경제적인 약가를 갖춘 신약’으로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백혈병 시장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이번 학회에서는 ‘닐로티닙’과 ‘다사티닙’의 장기간 FU시 나타나는 심혈관계 이상반응, 말초폐쇄성동맥질환, 흉막삼출 등 ‘2세대 TKI 제제들의 장기간 복용 시 나타나는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Management 및 이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br/> <br/>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임상 2상의 24개월 Long term Follow up(FU) 결과 및 Early Response에 따른 전체생존율(OS), 무진행생존율(PFS)의 결과를 발표했다. <br/> <br/>또 학회 진행이 본격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2세대 TKI 제제들의 비싼 약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치료제 선택에 있어 글리벡이 1차 치료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슈펙트의 경제적 약가가 학회의 핫이슈로 부각돼 관계자들과 유럽 및 미국 시장진출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br/> <br/>슈펙트 다국적 임상 2상 발표자로 참여한 동아대병원 김성현 교수는 “<span class='quot0'>12개월 이후 24개월까지 FU한 결과, 장기 복용 시 새롭게 발생되는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3개월과 6개월째 조기 반응(Early response)를 보인 환자들의 경우 전체생존율(OS) 및 무진행생존율(PFS)에서 Early response를 얻지 못한 환자들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임상시험 대상환자가 기존 여러 가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도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은 향후 백혈병 치료환자에게 우수한 대안이 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일양약품 슈펙트 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과 단일과제로는 최대 규모인 43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산 18호 신약으로 현재 1차 치료제를 위한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또 국제적인 SCI급 논문 및 저널을 통해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이자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소개 된 바 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3.txt

제목: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포기한 부모 늘었다  
날짜: 2014061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710014539589  
본문: 어린 자녀가 암에 걸려 회복이 힘든 경우 무리한 연명치료에 매달리는 대신 임종을 담담히 받아들인 부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은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2007∼2009년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소아암 환자 5203명 중 2010년까지 사망한 696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사망 전 30일간 항암제 이용률이 2007년 58.1%에서 2010년 28.9%로 대폭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망 전 2주일 동안의 항암제 이용률도 2007년 51.4%에서 2010년 21.7%로 줄었고, 심폐소생술 이용률 또한 28.6%에서 9.6%로 떨어졌다. <br/> <br/>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세(56.3%→29%) ▲6∼10세(50%→29%) ▲11∼17세(58.3%→22.6%) 등으로 0∼1세(63.6%→69.2%)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 전 30일간 항암제 이용률이 줄었다. 다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집에서 자녀를 간병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망 전 30일간 14일 이상 입원 비율은 2007년 70.5%에서 2010년 82.5%로 높아졌다. <br/> <br/>연구팀은 “큰 비용과 여러 부작용에도 아이의 치료를 쉽게 포기하지 않던 부모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연명 의료 중단 입법화의 영향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제 임종 시점의 소아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별도의 완화의료(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4.txt

제목: 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19일 건정심 열어 결정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7100000031  
본문: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 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 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5.txt

제목: 한국먼디피아, 소아암환자 가정에 생계비·상비약 지원  
날짜: 2014061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610014531597  
본문: 한국먼디파마(대표 이종호)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저금통을 운영해 모은 ‘희망나눔 기금’ 500만원을 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홍태선)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회사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6월 둘째 주를 ‘한국먼디파마 희망 주간’으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br/> <br/>한국먼디피아가 기부한 500만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아암 환자 다섯 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긴급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먼디피아는 또 암으로 고통받는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먼디파마 희망 꽃바구니’와 가정에서 상비해야 하는 구급상자를 총 열여섯 가족에게 전달했다. <br/> <br/>이종호 한국먼디피아 사장은 “<span class='quot0'>창립 기념일을 의미있게 보내고자 2013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소아암재단을 통해 소아 암 환자를 지원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국먼디파마는 지역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6.txt

제목: [건강 단신] ‘문동언 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개원 외  
날짜: 2014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510014527717  
본문: ‘문동언 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개원 <br/> <br/>문동언(사진) 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통증의학과 주임교수가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문동언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원했다. 문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경막외 신경성형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시술, 초음파 유도하 신경치료 등 비수술 통증 치료를 특화할 방침</span>”이라고 밝혔다. 병원 홈페이지(www.mpainclinic.co.kr)에서 다양한 통증 관련 정보 확인과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 이용이 가능하다 (02)535-7500 <br/> <br/>‘한국인의 3대 질환…’ 건강 강좌 <br/> <br/>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19일 오후 2시 동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인의 3대 질환 집중 대해부’란 제목의 무료 건강 강좌를 연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을 주제로 박승정 심장병원장, 유창식 암센터 소장, 김종성 뇌졸중센터 소장 등 교수 10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이들 질환의 예방·치료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들려준다. (02)3010-3051∼4 <br/> <br/>‘대장암 바로 알기’ 무료 강좌 <br/> <br/>강남세브란스병원(원장 이병석)은 19일 오후 2시 3층 대강당에서 ‘대장암 바로 알기’를 주제로 무료 건강 강좌를 연다. 대장암클리닉 이강영 팀장의 소개에 이어 교수들이 ▲대장암 환자 퇴원 후 관리 ▲대장·직장암의 최신 방사선 치료 ▲건강한 대장을 위한 영양 포인트 등 강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02)2019-1224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7.txt

제목: 갑상선암, 수술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날짜: 20140612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210014511759  
본문: 최근 가수 이문세의 갑상선암 재발 소식이 전해졌다. 이문세는 갑상선암 진단 후 한 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재발로 인해 다음달 중순 다시 한 번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br/> <br/>이문세가 앓고 있는 갑상선암은 발생률이 높아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질병이다. 또한 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재발을 걱정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br/> <br/>우리나라는 갑상선암 수술 비율에서 전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빈치로봇수술이라는 안전성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인 수술요법이 권장되고 있는 추세다. <br/> <br/>일부 환자의 경우 '그냥 수술하고 호르몬제(신지로이드) 복용하면 된다'라는 간단한 설명만을 듣고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수술 이후 적절한 호르몬 조절이 이뤄지지 못해 생기는 힘든 상황을 간과하기 십상이다. <br/> <br/>여기에 동위원소치료(방사성요오드)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감안한다면 고위험군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인 수술의 진행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한다. <br/> <br/>갑상선은 갑상선호르몬(Thyroid Hormone)을 분비하는 분비기관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신진대사의 조절을 긴장과 항진· 이완과 안정의 상태를 조성하여 신체 내외의 상태에 따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갑상선의 호르몬의 적절한 분비 조절을 통한 인체 기능조절 없이는 단 몇 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br/> <br/>이러한 이유로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도 많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환자의 경우 한방면역치료를 통해 갑상선암을 치료할 수 있다. <br/> <br/>한방면역치료는 갑상선의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줄어들도록 또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춰 환자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치료과정 중에는 6~8주마다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통해 치료의 진행 및 종양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br/> <br/>실제 양한방협진으로 한방면역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는 소람한방병원에서는 이미 수술을 진행한 환자들도 갑상선암의 재발을 막고 체내 갑상선분비기능 소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위험도는 낮추고 삶의 질을 보존하고 있다. <br/> <br/>특히 한방면역치료의 방법은 우리 인체가 가진 암에 대한 억제력을 키워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관리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r/> <br/>소람한방병원 하태현 한의학박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8.txt

제목: 빛으로 세포 내 단백질 원격조정 기술 개발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1100000039  
본문: 국내 연구진이 빛을 이용해 세포 내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원격 조정함으로써 암 세포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및사회성연구단의 허원도 바이오이미징 그룹리더(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광유도 분자올가미'(LARIAT)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기술은 세포에 빛을 쬐어 내부에 순간적으로 단백질 복합체인 올가미를 형성시켜 그 안에 원하는 단백질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둠으로써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차단하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세포의 이동과 분열 등 중요한 생명현상들을 약물처리 없이 빛으로만 불활성화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빛을 켜고 끔에 따라 매우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하면 세포 분열을 막을 수 있어 앞으로 암 세포와 신호전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허원도 교수는 "광유도 분자올가미 기술을 이용해 여러 가지 동물 모델에서의 암 전이와 뇌 과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기존 기술로는 밝히기 어려웠던 암 치료 방법이나 뇌의 복잡한 신경망 구조에서 신경세포의 기능 등을 규명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이자 생화학 연구방법 분야의 세계적 저널인 '네이처 메소드'(Nature Methods) 6월호에 소개된다.허 교수는 이달 광유전학 분야의 다른 원천기술 2개도 해외 유수의 저널에 발표할 예정이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39.txt

제목: 간암 재발시키는 유전자 돌연변이 규명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110014505170  
본문: 국내 연구진이 간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2위 암인 간암은 수술을 받아도 5년 내 재발률이 70%에 달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재발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한양대는 11일 공구(50·사진) 의대 교수팀이 유은실·이한주 울산대 의대 교수 공동연구팀과 간암 환자 231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간암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간암 조직과 정상 간 조직을 각각 떼어내 유전체 모두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군(전체 환자군의 9%)이 RB1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2년 내 조기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일 간질환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에 게재됐다. <br/> <br/>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0.txt

제목: 한양대 공구 교수, 간암유발 유전자 세계 최초 규명  
날짜: 20140611  
기자: 권이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110014502970  
본문: 국내 연구진이 간암을 재발시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2위 암인 간암은 수술을 받아도 5년 내 재발률이 70%에 달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재발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한양대는 11일 공구(50·사진) 의대 교수팀이 유은실·이한주 울산대 의대 교수 공동연구팀과 간암 환자 231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간암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간암 조직과 정상 간 조직을 각각 떼어내 유전체 모두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군(전체 환자군의 9%)이 RB1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2년 내 조기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 <br/>공구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로 구축된 간암의 유전체 돌연변이 지도는 간암의 항암치료제 개발 및 맞춤형 치료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일 간질환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에 게재됐다. <br/> <br/>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1.txt

제목: '스톤' 후쿠오카아시안영화제 경쟁 진출… 故 조세래 감독 유작  
날짜: 20140611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110014499975  
본문: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 '스톤'(감독 조세래)이 '제18회 후쿠오카아시안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br/> <br/>후쿠오카아시안영화제는 1987년 일본의 거장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이 창설한 영화제로, 내달 4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br/> <br/>'스톤'은 지난해 암 투병 중 별세한 고(故) 조세래 감독의 데뷔작이자 유작으로, 내기 바둑이나 하며 살아가던 천재 아마추어 바둑기사 민수(조동인 분)가 보스 남해(김뢰하)의 바둑 선생이 되면서 세상에 눈 뜨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br/> <br/>앞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하와이국제영화제, 프랑스 도빌 아시아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br/> <br/>스톤 해외배급사인 화인컷은 "지난해 8월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의 프리미어 이후 약 1년이나 지났는데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br/> <br/>이에 슈 마에다 후쿠오카아시안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프로를 꿈꾸는 아마추어 청년과 은퇴를 꿈꾸는 조직 보스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매우 감동받았다. 각자의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br/> <br/>고 조세래 감독의 아들이자 주연배우인 조동인은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 머물며 영화제 관객과의 대화, 무대인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스톤'은 오는 12일 국내 개봉된다. <br/> <br/>한편, 한국영화 '나쁜 남자'(2002), '헬로우 고스트'(2011), '네버엔딩 스토리'(2012), '파파로티'(2013) 등이 이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바 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2.txt

제목: 강한피부과, 암환자 탈모치료비 절반 지원키로  
날짜: 20140610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010014491092  
본문:  강한피부과(대표원장 강진수·사진)는 의사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암 환자들의 탈모 치료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br/> <br/> 유전적 탈모나 스트레스성 탈모 외에 탈모를 겪는 이들이 바로 암 환자들이다. 최근에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에 걸리는 여성이 급증하면서 여자들이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 후 탈모를 겪는 일이 많다. <br/> <br/> 암 환자들은 여러 번의 항암치료로 전체 또는 부분 탈모를 겪게 되는데, 항암치료와 더불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탈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가발이나 모자를 착용하더라도 적극적인 탈모 치료를 병행한다면 항암제 투약으로 인한 탈모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br/> <br/> 문제는 일반인에게도 부담스러운 탈모 치료비다. 암 치료까지 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강한피부과 강진수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암 투병만으로도 힘들고 지치는데, 탈모까지 겹쳐 우울증까지 생기는 환자들을 대하며 암 환자들의 탈모 치료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다</span>”고 말했다. <br/> <br/> 강 원장에 따르면 항암치료와 더불어 탈모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항암치료 도중 탈모 치료를 하면 모발이 통상적인 항암 탈모만큼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치료는 성장기 탈모에 적절한 약물을 배합한 모낭 주사와 레이저 치료, 헤어셀, 발광다이오드(LED) 치료를 병행한다. 강 원장은 “<span class='quot0'>3∼6개월이면 빠졌던 부위의 모발이 자라기 시작해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탈모 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한피부과 홈페이지(www.kangski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한피부과는 탈모 환자들을 위한 전문 두피·탈모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 원장은 대한탈모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02)1644-9007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3.txt

제목: 서울북부병원, 이주민 의료지원 MOU 체결  
날짜: 20140610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1010014493707  
본문: 서울시북부병원, 중랑구다문화센터 등 9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이주민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은 10일 한국이주민건강협회, 라파엘클리닉, 서울시외국인노동자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중랑구다문화센터 등 8개 단체와 ‘이주민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r/> <br/> 이번 협약에 따라 북부병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에게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난민 등 의료 취약계층 이주민들을 상대로 방문진료, 외래·입원 진료와 함께 의료비·간병비 지원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br/> <br/> 의료 취약계층 이주민 가운데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환자는 ‘301네트워크’와 연계해 진료비·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 단체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만성신장질환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 이주민들을 위한 혈액투석이나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병동 등에도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br/> <br/>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span class='quot0'>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주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다</span>”묘 “<span class='quot0'>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아 취약계층 이주민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4.txt

제목: 9월부터 병원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9100000052  
본문: 오는 9월부터 병원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방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가령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000∼11만100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2만3000원(예상),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000∼8000원 가량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복지부는 또 일방병상 확대가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춰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5.txt

제목: 병원 4인실 입원료 9월부터 건보 적용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910014486245  
본문: 오는 9월부터는 병실이 모자라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병실을 써야 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br/> <br/>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br/> <br/>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4∼5인실 2만1000여개가 일반병상으로 추가 분류되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현재 74%에서 83%로 확대된다. <br/> <br/>4∼5인실 상급병실료도 사라져 4∼5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내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입원료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br/> <br/>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br/> <br/>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4만원가량의 기본입원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br/> <br/>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span class='quot0'>일반병상 확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600억원가량</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6.txt

제목: "세포의 운명, 활성산소에 의한 ERK-JNK 분자 스위치가 좌우"  
날짜: 20140608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810014478249  
본문: 세포의 생(生)과 사(死)를 결정 짓는 활성산소의 작동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br/> <br/>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인산화효소로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MLK3((Mixed Lineage Kinase 3)가 매개하는 양성피드백 회로가 활성산소 농도에 대한 ERK(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와 JNK(c-Jun N-terminal kinases) 경로간 신호흐름 균형을 조절, 세포 생사를 가르는 분자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기선 박사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최근 밝혀냈다. <br/> <br/>활성산소는 세포 성장을 돕는 한편 세포 손상까지 일으켜 노화 등을 촉진하는데, 그 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생물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낮은 농도의 활성산소는 세포 내 필수적인 신호전달물질로서 세포신호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산화환원신호의 매개체가 된다. 하지만 과도한 활성산소 발생은 단백질이나 DNA, 지질 등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세포 주기 정지 및 사멸, 괴사를 일으킨다. <br/> <br/>이 같은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활성산소의 상반된 역할에 대한 실마리가 이번 연구에 의해 밝혀진 것. <br/> <br/>ERK는 세포 생존 및 증식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신호전달 분자이며, JNK는 세포의 스트레스 반응 및 사멸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분자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활성산소 농도가 낮을 때는 세포증식에 관여하는 ERK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반면,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사멸에 관여하는 JNK 단백질이 활성화됐다. <br/> <br/>이는 적절한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ERK 단백질이 활성화돼 세포가 분열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반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선 JNK 단백질이 활성화돼 분열을 멈추고 세포가 죽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br/> <br/>연구진은 "활성산소는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하는 만큼 암과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질병 및 노화와 같은 많은 생체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시스템생물학 연구를 통해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활성산소에 대한 상반된 세포반응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서, 향후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나 암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 성과는 사이언스 시그널링(Science Signaling)지 6월3일자에 게재됐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7.txt

제목: [기자가만난세상] 테러보다 위협적인 치매  
날짜: 2014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810014478321  
본문: “<span class='quot0'>치매환자를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스트레스로 인해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span>” <br/> <br/>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방화범이 82세 치매 환자라는 경찰 조사 결과를 접하자, 지난 4월 초 한국 여기자협회 워크숍으로 복지개혁을 살피러 간 영국에서 만난 케이 조(한국명 조광욱) 브리스톨대학 석좌교수 말이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주로 치매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던 가족이 간병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해 문제가 됐던 이전 사건들과 달리, 방화용의자가 요양병원 입원에 불만을 품은 치매 환자라는 점이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킨다.  <br/> <br/>김수미 특별기획취재팀 기자조 교수는 “<span class='quot1'>한국에서는 줄기세포가 뜨면 죄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식이다 보니 인기 없는 치매 분야에는 전문인력도 적고 연구 인프라도 부족하다</span>”고 걱정했다. <br/> <br/>영국은 지금 전례 없는 복지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작동하는 복지’라는 구호 아래 복지급여와 세액공제를 합한 ‘통합수당(Universal Credit)’의 가구당 상한액 설정, 고소득층 아동수당 삭감, 연금수급 연령 연장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을 정비하는 와중에도 치매관련 연구개발투자는 2015년 6600만파운드(약 1130억원)에서 2025년까지 1억3200만파운드로 늘렸다. 영국 노인 사망원인 4위인 치매 환자는 현재 80만명이며 2037년 14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 치료비만 한 해 230억파운드에 이르기 때문에 NHS(국가의료서비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치매 예방과 치료약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br/> <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캐머런 정부는 ‘테러보다 치매가 더 위협적’이라며 핵잠수함을 팔아 그 돈을 치매 연구에 투자할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1'>치매 증상을 1년 늦추면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실제 브리스톨대학 연구소에서는 치매환자 장기요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5년 계획으로 ‘스피어(SPHERE)’라는 스마트홈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스피어는 치매 환자가 다양한 인공감지장치가 설치된 자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돌봄 서비스이다.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스트레스를 막고 원격 프로그램으로 위험·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 수단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br/> <br/>이보다 더 부러운 것은 치매환자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다. 치매 등을 앓는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휴직이나 실직을 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우리나라는 둘째 자녀 출산과 군 복무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다. <br/> <br/>과잉 복지로 몸살을 앓는 영국과 이제 막 복지 개념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 국가다. 치매가 암이나 에이즈, 테러보다 심각한 위협인 건 마찬가지다. 치매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떠안아야 할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br/> <br/>김수미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8.txt

제목: [사설] 선거사범 엄단, 신속하고 단호할수록 좋다  
날짜: 2014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610014474495  
본문: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고석용 횡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어제 공개한 판결문은 “<span class='quot0'>자치단체장이란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명예 훼손을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span>”고 적시했다. 저질 선거문화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6·4 지방선거에서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이 적잖게 등장했다. 엄단이 필요하다. 사법 처리는 신속하고 단호할수록 좋다. <br/> <br/>검찰이 4일까지 입건한 선거사범은 2111명이다. 이 중 50명이 구속됐다. 선거사범 총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28.3% 늘었다. 선거에서 이긴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 2명 등 72명도 입건됐다. 3명은 기소됐고, 69명은 수사 중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 영향에도 물밑은 여전히 혼탁했던 것이다. <br/> <br/>대검 공안부 자료에 따르면 흑색선전 유형이 700명이나 된다. 이번 선거사범 가운데 33.2%로 가장 많다. 2년 전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후 흑색선전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언로를 넓힌 선의의 법제 보완이 큰 부작용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법제를 오남용하는 검은 손들을 정교하게 솎아내야 한다. 금품(21.7%), 폭력(4.6%), 공무원 선거개입(4.4%) 유형도 많다. 신악(新惡)과 구악(舊惡)이 함께 설친 셈이다. 한심하고 답답하다. <br/> <br/>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 대상은 많고 수사 인력은 부족하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선자 수사는 속도를 내야 한다. 감투 쓸 자격이 없는 이들이 장기간 권력을 휘두르며 지방재정을 축내게 해서는 안 된다. <br/> <br/>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사범들은 세월호 선주, 선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불량 DNA나 다름없다. 사회 건강을 좀먹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 불량 DNA를 도려내려면 사법부가 중심을 잡고 엄중 대처해야 한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온정주의 판결은 절대 금물이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선거법의 시한 규정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선거법만 엄격히 지켜져도 선거사범이 활개칠 공간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49.txt

제목: [막영애 현장을 가다③] 영애♥기웅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날짜: 20140605  
기자: 김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5100000037  
본문: 영애와 기웅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3(이하 막영애)’의 대표 커플 영애(김현숙)와 기웅(한기웅)을 만났다. 두 사람은 시즌12에서 첫 만남을 가진 뒤 줄곧 밀당 아닌 밀당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밀당보단 짝사랑에 가깝다. 영애를 남몰래 흠모하는 기웅, 그리고 그런 짝사랑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영애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는 답답하기만 하다.이제는 영애가 기웅의 마음을 알아줄 만도 한데, 오히려 영애는 승준사장에게 끼부리고 있는 상태. 그 모습을 보는 기웅은 영애에게 실망도 할 법 하지만, 그의 외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가 기대되는 영애♥기웅 커플이다.▲기웅과 영애와 이번 시즌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한기웅> 대본을 일주일 전에 받는데,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진전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다.김현숙> 이번엔 모르겠다. 배우들도 정확한 건 모른다. 시청자들이 기웅과 영애의 러브스토리를 원한다 하더라도, 극의 흐름은 작가들에 의해 결정된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우리 배우들도 모른다. 또 미리 알고 있다고 해도 말할 순 없다. 하지만 영애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랑이 하고 싶을 때인 건 분명하다.▲영애는 기웅에 대한 생각이 없을까.김현숙> 영애가 눈치도 빠르고 예민한 편인데, 사랑에 대해선 무딘 것 같다. 일단 나이차도 많다 보니, 이성으로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다. 그런 경우엔 상대방이 아무리 어필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영애에겐 기웅은 남자라기보단 동생에 가까울 것이다. 또 파혼 경험까지 있는데 기웅과 만날 수 있는 양심도 없을 것 같다.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닐까.한기웅> 이해는 한다.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인데, 아무리 바르고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나이차를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영애가 기웅을 쉽게 남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다른 한편으론 야속하긴 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남자로 안 본다는데….▲도대체 영애의 매력 포인트가 뭘까.김현숙> 영애가 뛰어나게 예쁜 것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지만, 그녀만이 가진 깊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굳이 설명한다면 더없이 따뜻하고, 속깊은 마음씨라고 해야할까(웃음). 그런 부분이 많은 연하남들에게 어필되는 것 같다. 내 캐릭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일도 똑부러지게 하지 않나(웃음).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음 씀씀이도 남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어필되는 것 같다.한기웅> 영애도 기웅처럼 솔직하고 바른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매력 때문에, 연상이지만 계속 끌리는 것 같다.▲방송 초반, 로이킴의 ‘봄봄봄’을 직접 불렀던데.한기웅> 녹음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다. 일본 스케쥴이 잡혀 있어서 갑자기 녹음하게 됐는데, 급하게 해야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했는데, 생각보다 잘 만져주셔서(?) 나쁘지 않게 나와서 다행이다(웃음).▲음반 내도 될 것 같더라.한기웅> 나는 내 노래를 정말 못듣겠더라(웃음). 듣는 즉시 손발이 오글오글 거린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해보고 싶긴 하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해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이번 시즌에 ‘라과장’과 ‘개지순’, 진상이 두 명으로 늘었다. 두 캐릭터를 비교한다면.김현숙> 영애에겐 암적인 존재들이다(웃음). 굳이 라과장과 개지순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 굳이 비교한다고 해봤자 51대 49 정도로 진짜 박빙이다. 라과장은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준다면, 개지순은 돌려서 후려치기다. 어떻게 보면 개지순이 더 여우인 셈이다. 라과장은 수가 다 보이지 않나. 극중 영애의 엄마, 아빠를 연기하시는 선배님들은 실제로 만나면 영애를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열받아 하신다(웃음).▲이번 시즌엔 회사에 이어 집에서도 문제가 많더라. 특히 핸드백으로 동생 영민을 내려치는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김현숙> 그날 마침 내가 체인백을 들고 와서, 그 날이 영민이의 제삿날이 된 셈이다(웃음). 때리는 것도 노하우가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세개 때리진 않았다. 믿어달라(웃음).▲영애를 괴롭히는 인물들이 많은데, 기웅 입장에선 누가 가장 미운가.한기웅> 현재로선 승준사장이 가장 얄미운 것 같다(웃음). 겉만 봐서는 라과장이 가장 얄밉지만, 영애가 어느 순간 사장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식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웅에겐 승준사장이 가장 미운 캐릭터인 것 같다.▲이번 시즌도 영애의 수난시대가 예고되는데, 혹시 역습은 없을까.김현숙> 방송 초반엔 커피에 침 뱉고, 바퀴벌레 담궜다 빼고 하는 것들이 역습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 역습이란, 영애가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능력으로 보여주는 게 진정한 역습같다. 작가들도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지, 조금씩 영애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한 두장면씩 더 들어가더라. 기대해달라.▲끝으로 기웅은 낙원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 안하나.한기웅> 처음 설정은 성실한 대학생이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엔 야간대학교를 다니는 캐릭터였다. 시간이 지나면 기웅이도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더 현실적인 조건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영애와의 사랑이 남아있기에 이직 생각은 현재로서 없지 않을까(웃음).윤기백 기자 giback@sportsworldi.com사진=김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0.txt

제목: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장생태계복원운동 발대식 열려  
날짜: 20140605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5100000331  
본문: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생태계복원운동 범국민 발대식이 지난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운동은 항생제 남용으로 OECD 회원국 중 환자 증가율 1위, 의료비 증가율 1위이며 암환자사망률과 40,50대사망율, 불임률 1위로 양산하고 있는 의료실태를 고발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서 OECD에서 가장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시민운동이다.이런 취지에 맞게 이날 참석자들은 70여 년에 불과한 잘못된 항생의학을 정부가 지켜주고자 5000년 검증된 민족의학을 송두리째 버린 현재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의료 실태를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발대식 행사는 여느 행사와 달리 남달랐다. 국민의례가 끝난 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묵념과 함께 연간 1만7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의료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묵념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원인도 모르는 채 의사의 지시만 따르다가 희생된 일에 대해 참석자 스스로가 참회하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였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세준(70) 자연의학자는 강연을 통해 “병원과 관피아 합작으로 질병공화국 한국호를 45도 좌초시켰다. 의료사고사망 사건은 안전불감증에 의료기술 미숙에 따른 살인이다.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국가에 내일이 있는데 연간 1만7000여건 의료사고사망에도 단 한 사건도 살인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 감기환자를 치료한다며 약을 처방하고 돈을 받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사기행각이다. 이런 의료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면 한국호가 회생의 길이 없다”며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효과를 말할 수 없도록 파파라치까지 동원해서 3중 4중 가중처벌로 전과 3범이 됐다”며 울분을 토로했다.이어 등장한 여운성 한의사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균과 세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특히 여운성 한의사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미생물 연구에 인정받고 있는 권위자로서 어려운 미생물 세계에 대해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춘천 자연의학병원 가정의학과 김태균 의사는 20여년 요양병원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질환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약을 끊으면 오히려 질병이 호전되는 현대의학에 한계를 느끼고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갈망해오던 중 SJP슈퍼유산균을 만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개업하게 됐다며 병원 항생제 등 화학 약을 과다하게 먹게 하는 제약회사의 일방적 논리에 이끌려가지 말 것을 강조했다.이번 행사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몇 년 전 의료 주권 회복을 위한 범국민 궐기대회가 안타깝게 무산된 기억을 되살리며, 이번 장생태계복원운동이 천만인 서명 운동을 통해 다시금 의료 주권을 되찾는 기회로 승화되기를 희망했다. 연간 의료사고 사망자가 1만7000여 명에 달하고, 암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서 문제의 해결을 정책 당국자나 대책 없는 의료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게 그들의 표정에 역력했다.복도에까지 빼곡히 앉아 있던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강연자들의 열변과 열강에 수십 차례의 박수로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강연자들은 하나 같이 항생제 남용으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과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며, “천만인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눈을 떠야 보건 당국이나 의료계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연이 끝나고 결의문을 촉구했다.참석자들은 또 국민행복시대건설을 공약한 박근혜정부에 의료보험 5분의1만 납부해도 남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하나 :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훌륭하듯이, 치료해 주는 정책보다 치료하는 방법을 유치원부터 노인정까지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 100만가지 약과 100만명의 의사보다 위대한 나의 자연치유능력은 식품에서 유지되고 향상된다. 식품의 효과를 검증 없이 고발해 애국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식품광고규제를 하루 빨리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 검증되지 않은 항생의학을 정부가 지켜주고자 5000년 역사가 입증한 민족의학을 말살시킨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 민족의학자가 당당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다.이날 행사의 목적은 전 국민이 ‘나와 가족건강을 내가 책임진다.’ 표어로 참 건강교육을 통해 의료보험 5분의1만 납부해도 남는 국민행복시대건설을 목표로 국민 건강교육을 펼칠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더욱이 이 조직을 선도할 회장으로 굴지의 대기업 전문경영인이며 대학교수이신 조영모 경영학 박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1.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개방의 철학이 탄생시키는 미래 과학  
날짜: 2014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410014459452  
본문: 지난달 22일 ‘서울디지털포럼’이 열렸다.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전 세계를 바꾼 이야기를 하는 이 행사에서 잭 안드라카라는 17세의 고등학생이 연단에 섰다. 안드라카는 미국 메릴랜드 고교생으로 15세 때 한장에 3센트 하는 종이센서로 췌장암, 난소암, 폐암을 5분 만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인텔 주최 과학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친구다. 최근에는 지멘스에서 주최한 월드챌린지에서 다른 친구와 여섯 가지 중요한 환경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안드라카는 암을 진단하기 위한 저렴한 센서를 만들기 위해 나노튜브와 항체를 물에 부어 섞은 다음 종이에 찍어 말리는 방식으로 초기 연구를 집과 학교에서 수행했다. 그리고, 추가 연구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200여곳에 연구방법을 보냈다.  <br/> <br/>정지훈 경희사이버대교수·미래학하지만 대부분 이 방법이 틀렸고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럼에도 다행히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그가 수행한 연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결국 그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심분리기를 고장 내는 등 실수도 많이 했지만 미래의학에 중요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br/> <br/>안드라카는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오픈콘텐츠를 요구해 봅시다. 췌장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도 관련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br/> <br/>이처럼 과거에는 가장 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과학 분야에서도 참여와 공유, 그리고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대중들이 직접 과학연구에 뛰어드는 대중과학 또는 시민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협업이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해지면서 비밀스럽게 혼자나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의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가 좋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br/> <br/>아마 대중과학보다 개인의 브랜드를 중시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스타를 원하는 접근 방법이 현재와 같이 계속 강조된다면 과학이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사회적 가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엘리트 체육이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고, 해당 스포츠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생활체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체육이 가졌던 본연의 가치인 많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과학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지나치게 일부의 엘리트 과학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과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br/> <br/>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쉽게 과학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흰 가운을 입고, 커다란 연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취미와 열정을 가지고 과학연구를 할 수 있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공유되고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과학의 발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br/> <br/>이미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대한 공유의 인프라는 구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소셜네트워크는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운동은 저렴하게 실험실 장비를 만들고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br/> <br/>바라건대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방형 과학의 시대를 과학자들이 솔선수범해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안드라카와 같은 청소년과 젊은 학자나 우리 주변의 숨겨진 과학적 재능을 갖춘 주부 과학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미래의 과학은 첨단의 새로운 과학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참여와 공유, 개방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시민과학, 대중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br/> <br/>정지훈 경희사이버대교수·미래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2.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암 환자 위한 '치유여행' 성료  
날짜: 2014060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310014444964  
본문: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 암센터는 최근 경기 가평 취옹예술관으로 ‘전이·진행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여행’(사진)을 다녀왔다고 3일 밝혔다. <br/> <br/> 병원 측에 따르면 이번 여행은 전이·재발된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암 환자와 가족 35명과 혈액종양내과 김지현·김진원·김세현·최문기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9명이 참여했다. 여행 기간 동안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숲을 거닐며 암과 함께 살아가는 어려움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또 음악과 춤 테라피, 도예교실 등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모처럼 기분 전환의 기회도 가졌다. 동행한 유방암 환자 A씨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의 치유여행은 2010년 시작해 올해가 5회째다. 이 병원 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교수는 “전이·재발 암 환자와 가족은 완치가 안된 것을 본인 탓으로 돌려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며 “완치가 아니면 실패라는 인식은 투병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전이성 암 환자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여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는 혈액종양내과 교수,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참여해 환자와 가족을 상담하는 소모임도 매월 2회 개최하고 있다. 치유여행과 소모임에 관한 문의는 암정보교육센터로 하면 된다. (031)787-2515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3.txt

제목: 양해림 렌즈콩 다이어트 화제, 12kg 감량… 효과 '대박'  
날짜: 2014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3100000380  
본문: 양해림의 렌즈콩(렌틸콩) 다이어트 효과가 공개돼 반응이 뜨겁다.지난 3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양해림의 렌즈콩 다이어트 성공기가 공개됐다.양해림은 렌즈콩 다이어트를 한 지 50일이 됐다면서 다이어트 시작 전 찍은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생 최고 몸무게 95kg이다. 비만 때문에 성인병도 있었다"면서 "렌즈콩이 단백질이 풍부해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다"고 설명했다.그가 예찬한 렌즈콩은 가수 이효리의 아침 밥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다. 렌틸콩으로도 불리는 렌즈콩은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임산부에게 좋은 비타민 B군과 태아의 기형을 막아주는 엽산도 많이 함유돼 있다. 심장병, 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 역할도 한다.렌즈콩 소식에 누리꾼들은 "렌즈콩 완전 화제네" "렌즈콩 나도 사먹을까" "렌즈콩 다이어트 효과 장난아니네" "렌즈콩이 렌틸콩이구나" "렌즈콩 다이어트 나도 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4.txt

제목: 아·태이론물리센터, 알렉세이 스타로빈스키 초청 워크숍 개최  
날짜: 20140603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310014447418  
본문:   <br/> <br/>(재)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가 동경대와 공동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br/> <br/>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 간 ‘우주 속의 암흑에너지’를 주제로 동경대와 공동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br/> <br/>암흑에너지는 암흑물질과 더불어 우주의 약 73%를 차지하는 우주 물질 구성요소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미지의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br/> <br/>올해는 급팽창 우주론의 창시자로 유명한 알렉세이 스타로빈스키 러시아 모스크바 란다우 이론물리연구소 교수가 강연자로 참석해 우주가 빅뱅 직후 급팽창하면서 우주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급팽창 우주론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br/> <br/>그는 지난달 29일 제2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카블리상’ 의 천체물리학 부분 수상자로 선정돼 그 명성을 드높였으며, 센터 초청으로 워크숍에 참여해 아태 지역 국내외 물리학자들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활동으로 연구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전망이다. <br/> <br/>카블리상은 노르웨이 출신 미국 발명가 프레드 카블리(1927~2013)를 기념해 기초과학 분야인 천체물리학, 나노과학, 신경과학 등 3개 부문에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상으로 2008년부터 격년으로 노르웨이 학술원에서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br/> <br/>APCTP 김승환 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워크숍에서는 초기 우주와 암흑에너지, 중성미자 등 우주론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발표와 암흑에너지의 본질 연구를 추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열띤 논쟁의 장을 통해 우주의 미래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5.txt

제목: KDB생명, 생명보험 업계 최초 전용 신용카드 출시  
날짜: 20140603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3100000382  
본문: KDB생명의 다이렉트보험이 OK캐쉬백, 롯데카드와 제휴해 전용 신용카드인 ‘KDB다이렉트보험 P+410’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보험 전용카드를 출시한 것으로 KDB다이렉트보험 월 보험료를 이 카드로 결제하면 매월 OK캐쉬백 포인트 4000점을 지급하며, 이 4000점과 카드를 사용하며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를 합쳐 최대 낸 보험료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가령 KDB다이렉트 암보험에 가입한 35세 남자가 주유비 15만원, 마트 30만원 등 40여만원을 이 카드로 결제하면 월 보험료인 1만1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실질적으로는 공짜로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또한 카드이름인 P+410은 ‘포인트를 4배, 10배까지 추가로 적립해 준다’는 의미로 전국 5만여개의 제휴점에서 카드 이용시 롯데포인트는 최대 4배, OK캐쉬백 포인트는 최대 10배의 특별 추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업계 1, 2위의 멤버십 서비스 업체인 OK캐쉬백, 롯데카드와 제휴해 런칭하는 만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라며 “확고한 고객 만족 경험을 통해 인터넷 보험 누적판매 1위의 위상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황은미 세계파이낸스 기자 hemked@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6.txt

제목: 종교 공부에 빠진 암 권위자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210014439588  
본문: “근대 종교학자 윌리엄 밀러가 설파한 ‘한 가지 종교만 아는 건 종교를 모르는 것’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자기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 모든 종교를 공부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게 어느덧 여기까지 왔네요.” <br/> <br/>박재갑(66·사진) 한국종교발전포럼 회장이 2009년 12월 창립 후 5년 만에 50번째 포럼을 열게 된 것이 감개무량한 듯 입을 열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을 지낸 박 회장은 국내 암 연구의 최고 권위자다. 현재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박 회장과 2일 만나 종교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br/> <br/>“한국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 집만 해도 아내는 천주교 신자이고 어머니는 개신교, 아버지는 유교를 각각 믿으셨죠. 평소 종교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2009년 늦둥이 막내의 대학 입학을 계기로 종교 공부를 본격화하기로 결심했죠.” <br/> <br/>현재 종교포럼 회원은 200명가량 된다. 평균 한 달에 한 번 모여 종교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도 한다. 회원 직업은 박 회장이 재직한 서울대 의대·치대 교수를 주축으로 기업인·종교인·공무원 등 다양하다. 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는 물론 원불교·민족종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까지 모든 종교에 폭넓게 문호를 개방한다. <br/> <br/>“저는 개인적으로 ‘다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좋아요.(웃음) 종교라는 게 서로 달라 보여도 결국 한 길로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7.txt

제목: 염증에도 좋은 차가버섯…매일 마시면 항염증 효과까지  
날짜: 20140602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210014434509  
본문: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염증’이다. 염증은 붉게 부어서 열이 나는 일반적인 상태를 지칭하기도 하고, 여기에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br/> <br/>염증은 암과도 관련이 깊다. 우리 몸에는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발생하지만 암세포가 암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인 치유력을 갖고 있다. 염증이 생기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암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br/> <br/>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제대로 발휘돼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림프구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면역력이 약화되곤 한다. 과립구의 지나친 활성화로 몸이 염증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br/> <br/>염증체질을 미연에 예방하려면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염증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br/> <br/>염증에 좋은 음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이 바로 ‘차가버섯’이다. 차가버섯은 러시아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유럽의 타이가 기후대의 자작나무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러시아가 그 본고장이다. 중앙아시아나 중국 북부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산간지역에서도 극소량이 발견되지만 러시아 자작나무 차가버섯의 품질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알려졌다. <br/> <br/>차가버섯은 면역력에 가장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식품으로 전해졌다. 차가버섯에 함유된 유효성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면역력에 작용하는 베타글루칸을 빼놓을 수 없다. 차가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자연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줄기와 가지가 (1-3),(1-6)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가장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항암 효과는 물론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조절 및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 <br/> <br/>또 베타글루칸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다양한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이노시톨· 여러 효소 및 SOD 활성을 촉진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망간과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br/> <br/>이러한 다양한 성분들로 인해 항암대체식품으로 가장 선호되는 식품으로 차가버섯이 지목되고 있다. 차가버섯의 항염증효과는 SCI급(SCOUPS등재 국제저널) Medical Journal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등재된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차가버섯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준을 감소시켜 대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논문에서는 대장염에 대한 작용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염증과 암은 발생 기전이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br/> <br/>앞서 언급했듯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환경 인자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고, 암세포가 번식하게 된다. 즉 몸의 면역력을 끌어 올려주는 차가버섯의 작용은 특정 질병과 염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암과 질병의 시발점이 되는 염증에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br/> <br/>차가버섯 전문업체 고려인삼공사는 “차가버섯에는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와 폴리페놀, 펩타이드, 트리테르페노이드, 스테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항박테리아· 항알러지· 항염증·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8.txt

제목: 흡연이 사망율 50% 높여, 男폐암환자 60%가 흡연때문  
날짜: 201406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210014435667  
본문: 담배를 피우면 한국인 등 아시아인의 사망률이 50% 가량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r/> <br/>또 남성 폐암 환자의 60.5%, 여성 폐암 환자의 16.7%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2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강대희, 박수경 교수 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 21개 코호트 연구에서 선정된 45세 이상 성인 105만 명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소개했다. <br/> <br/>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국제 학술지인 PLoS Med (Impact Factor = 15.253) 11권 4호(4월22일자)에 실렸다. <br/> <br/>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은 1.44배, 여성은 1.48배 사망률이 높았다. <br/> <br/>추적 기간 중 총 12만3975명이 사망했다. <br/> <br/>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남성은 15.8%, 여성은 3.3%에 달했다. <br/> <br/>이를 기준으로 7개국에서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4년 기준으로 157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7개국 인구를 모두 합하면 아시아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체 아시아 인 중 약 20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br/> <br/>사망 원인 중 남성 심혈관질환 사망자의 11.4%, 암 사망자의 30.5%,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의 19.8%가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여성에서는 각각 3.7%, 4.6%, 1.7%가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br/> <br/>폐암의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4배 높았다. 남성 폐암 환자의 60.5%, 여성 폐암 환자의 16.7%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유근영 교수는 "2004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45세 이상 성인 약 20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했다. 흡연은 아시아인에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며 국가차원의 금연정책을 펼 필요성을 제기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59.txt

제목: 항생의학으로 황폐화된 장내생태계복원운동 발대식 및 체험사례 발표회 개최  
날짜: 20140602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2100000197  
본문: ‘내 가족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자연의학자 박세준 회장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교육을 전개할 건강교육사 단체 발족을 위한 발대식과 체험사례 발표회가 오는 6월 3일(화요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민회관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다.연간 의료사고 사망자 1만7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사망하지 않은 의료사고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OECD회원국 중 암발생률 1위, 암사망율 1위, 40,50대 사망률 1위, 불임률 1위, 당뇨 등 대사증후군환자 1000만, 성인 30%가 비만 변비 등 과민성대장증후군환자 등 질병천국을 만든 현대의학에 생명을 의지할 수 없게 됐다.이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자신이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생명을 지킬 수 있을뿐 아니라 국가에 내일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호응으로 이번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구국정신의 이날 행사는 의대에서 교육하지 않은 생명의 근본 장내생태계와 발효와 부패 악취의 유해성을 알리는 자연의학자 박세준 회장이 발표한다.가정의학전문의 김태균박사는 현대의학이 수술과 항생제에 의존하는 ‘항생의학’의 한계를 밝히고 그 대안으로 이미 선진국들에게서 미래의학으로 대세가 된 ‘바이오프라틱스’를 통한 ‘근본의학’의 비젼을 발표할 예정이다.한의사 여운성은 SJP슈퍼유산균을 활용한 질병치료사례 발표로 누구나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세미나가 진행된다.2부에서는 건강교육 범 국민운동과 잘못된 규제개혁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양한방통합병원 동서병원 박상동 이사장, 강기갑 전의원, 한국민간의술연구회 신인주 회장, 동양자연의학연구소 김석봉 소장, 전통의학비방 발행인 등 1000여 명의 관련 인사들이 모여 자연의학과 전통의학 관련 인사들의 역할 증진을 강조할 예정이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0.txt

제목: 대학생들 “낡은 학교건물 안전 못 믿겠다”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210014438958  
본문: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학가에서 낡은 건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건물이) 흔들린다”, “무너질 것 같다”는 등 불안감을 호소해 대학 측이 안전검사를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도 “<span class='quot0'>세월호도 안전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결국 침몰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span>”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br/> <br/>전문가들은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도가 지나쳐 불안증으로 가는 것도 문제이므로 사회와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br/> <br/>2일 한국외국어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span class='quot1'>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건물이 흔들린다</span>”는 학생들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달 21일 관할 자치구가 안전점검을 했다.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 완공된 지 36년이 된 이 건물은 건물 내벽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흔들린다고 알려진 4, 5층은 학생들이 피하고 있어 한산했다. 이 대학에 다니는 강모(26·프랑스어과)씨는 “2008년 입학해 도서관을 찾았다가 벽에서 금을 발견했고, 선배에게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은 뒤로는 거의 간 적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건축구조 자문위원들은 한국외대 도서관을 점검한 결과 “<span class='quot2'>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가 철골로 바뀌면서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고,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이동할 때 약간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span>”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세월호도 정기검사를 받고도 침몰했다’ ‘육안으로만 검사를 했는데, 학교 측이 압력을 넣은 것 같다’는 등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검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의사가 감기라는데도 환자가 계속 암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span>”며 곤혹스러워했다. <br/> <br/>홍익대도 서울캠퍼스 노후 건물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비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977년 지어져 한 번 증축된 바 있는 인문사회관 C동에 대해 “건물 바닥 곳곳이 기울고 금이 생겼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이 건물에 건축공학과 교수들을 투입해 정밀진단을 한 뒤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며 항의하자 결국 외부업체 선정에 나섰다. <br/> <br/>홍익대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3'>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 지나치게 의심하는 개인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회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진단한다. <br/> <br/>이나미 정신과 전문의(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장)는 “<span class='quot4'>젊은 세대들이 사건·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 주변의 판단에 대해 믿지 못하면서 유언비어가 퍼지게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4'>개인적으로 불안증이 심각할 경우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전점검 결과와 책임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등 신뢰사회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1.txt

제목: 소식(小食) 습관이 암세포 번식 막아준다  
날짜: 20140601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1100000142  
본문: 평소 적은 칼로리를 섭취해주는 식습관이 암세포 성장·확산을 줄여주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막아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대학 방사선종양학과(radiation oncology) 연구진은 소식(小食) 습관이 여성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은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실험용 쥐의 식단을 칼로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소식 식단’으로 바꾼 뒤 암세포 변화 여부를 살폈다. 놀랍게도 쥐의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몸 속 암세포의 성장도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쥐 몸속 마이크로RNA 수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방사선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쥐 몸 속 마이크로RNA 수치가 가장 떨어졌을 때는 방사선 치료와 소식이 병행됐을 때였다.토머스 제퍼슨 대학 방사선종양학과 니콜 시몬 박사는 “<span class='quot0'>칼로리 제한 섭취가 체내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켜 암세포 주위 조직을 단단히 만들어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타 장기로의 전이·확산을 억제하는 것 같다</span>”고 추정했다.실제로 과거 의학 연구 결과 중에는 과체중일 경우, 유방암 치료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과 치료 기간 중 체중이 증가할 경우 예후 및 경과가 안 좋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연구진은 “<span class='quot0'>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 만큼 아직 일반화시키기에는 이르지만 향후 암 치료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유방암 연구(Breast Cancer Research)’에 발표됐다.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2.txt

제목: 단일 사상 최대 中 관광단 상륙… 제주 ‘들썩’  
날짜: 2014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60110014427642  
본문: 단일 단체관광객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관광단이 제주를 찾았다. <br/> <br/>1일 제주도에 따르면 암웨이 관광단 3500명은 지난달 30일 마리나 오브 더 시즈(13만8000t급)호를 타고 중국 상하이를 출발, 31일 오후 제주항에 도착했다.  <br/> <br/>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관광단 3500명이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항에 도착, 크루즈선에서 내리고 있다.중국 암웨이는 이번 1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보상관광단 1만7000여명을 제주에 보낸다. 관광단은 로얄캐리비안 소속 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1차례에 3000∼3800명씩 제주를 방문한다. <br/> <br/>중국 암웨이 보상관광단은 단일 단체 여행객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2011년 9월 8차례에 걸쳐 제주에 온 바오젠그룹 관광단 1만1200여명이 최다였다. <br/> <br/>관광단은 2개 팀으로 나눠 한 팀은 신라면세점∼칠성로∼성산일출봉, 다른 팀은 아쿠아플라넷 제주∼성산일출봉∼칠성로 코스를 둘러보는 하루 일정의 관광에 나섰다. <br/> <br/>이들은 제주 옛 도심인 칠성로 상가를 중심으로 3시간여 머물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지역상권에서 쇼핑을 즐겼다. 성산일출봉에서는 주변 상가와 부녀회가 공동으로 성산일출봉 야외광장에 설치한 ‘암웨이 존’ 33개 부스에서 유자차, 한라봉 초콜릿 등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사고 오메기떡 등 제주 토속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br/> <br/>제주여행 일정을 마친 암웨이 관광단은 같은 크루즈선을 타고 이날 오후 7시30분 부산으로 향했다. <br/> <br/>이들은 제주에 이어 부산 태종대·남포동 거리, 전남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을 둘러보고 ‘아이엠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K-팝 가수들의 공연 등 한류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끝으로 5박6일 일정의 한국 관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r/> <br/>암웨이 보상관광단의 한국 방문 비용만 238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개별여행객들의 소비·지출액을 포함하면 국내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3.txt

제목: 가난할수록 암 발병 비율은 낮으나 암으로 더 많이 사망  
날짜: 20140528  
기자: 국기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810014394176  
본문: 가난할수록 암에 걸리는 비율이 더 낮으나,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27일 (현지 시간) 미국에서 발표됐다. 뉴욕암등록처(NYSCR)는 미국의 16개주에 걸쳐 300만 명 가량의 종양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제력과 암 발병및 사망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뒤 이같이 밝혔다. <br/> <br/>이번에 조사 대상인 39 종류의 암 중에서 14가지의 암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암이 후두암, 자궁경부암, 간암, 음경암, 출혈성 육종암 등이라고 연구팀이 밝혔다. 대체로 가난할수록 흡연율이 높고,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자일수록 흑색종암, 피부암, 갑상선암, 고환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소득 격차에 따라 암이 잘 생기는 신체 부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생활 습관과 관련성이 있다고 연구팀이 설명했다. 대체로 가난할수록 흡연 뿐 아니라 음주도 많이 하고, 성병에 걸릴 확률도 높으며 식생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편이라고 연구팀이 강조했다. 연구팀은 또 부자일수록 피부암, 갑상선암, 고환암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가난한 사람은 이 분야 암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암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인종과 암 발병 간의 관계를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인종별 생활 습관 등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종별로 건강 관리 또는 병원 방문 습관 등에 차이가 있다고 연구팀이 강조했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4.txt

제목: 강남성심병원, 여성암 환자 위한 '메이크업' 강좌  
날짜: 20140528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810014393806  
본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원장 이열)은 최근 아모레퍼시픽 후원으로 여성암 환자를 위한 ‘2014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행사(사진)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머리 연출법 등을 소개하는 캠페인이다. <br/> <br/>이번 행사는 본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 중인 암 투병 여성 환자 25명이 참여했다. 이열 원장과 유방센터 정봉화 과장의 인사말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전문강사가 피부 보습 및 피부 마사지 등 스킨케어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모델 연출을 통한 메이크업 이론과 메이크업 전문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메이크업 실습도 진행했다. <br/> <br/>여성암 환자들은 길고 힘든 치료 과정에서 탈모 및 피부의 변화로 인해 외모적으로 자신감과 심리적인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들이 하루빨리 암을 극복하고 건강과 행복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외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가꾸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5.txt

제목: 日·獨 과학자 등 6명 '아시아 노벨상' 수상  
날짜: 2014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8100000220  
본문: 암, 당뇨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불균형 기제를 밝혀낸 일본과 독일 과학자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쇼상'(Shaw Prize)을 공동수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쇼상 시상식 주최 측은 모리 가즈토시(森和俊) 일본 교토대 교수와 피터 발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생명과학·약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이들은 단백질 분비 불균형으로 당뇨, 암, 낭포성 섬유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펴짐 반응'(UPR) 기제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주최 측은 "모리 교수와 발터 교수가 밝혀낸 (단백질 펴짐 반응) 기제는 광범위한 주요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반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수학 분야에서는 대수학, 대수기하학, 표현론을 연구한 조지 루스티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수상했다.천문학 분야에서는 초은하단 등 우주의 거대구조를 측정한 대니얼 아이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숀 콜 영국 더럼대 교수, 존 피콕 에든버러대 교수가 함께 상을 받았다. 쇼상은 영화제작사 '쇼 브라더스'를 설립한 홍콩의 유명 사업가인 런런 쇼(Run Run Shaw·邵逸夫)가 2002년 설립한 상이다. 시상 분야는 천문학, 생명과학 및 의학, 수학 등 3개 부문이며 상금은 각각 100만달러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6.txt

제목: 암세포 공격하는 면역세포 활동촉진 방법 규명  
날짜: 2014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8100000415  
본문: 한미 공동연구진이 체내 암세포 제거에 도움을 주는 NK세포의 활동을 촉진할 방법을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로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로도 불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면역치료제연구센터 최인표 박사팀과 미국 워싱턴대 그린버그 박사팀이 NK세포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인자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NK세포가 체내에서 제 구실을 하려면 '퍼포린'(perforin)이라는 단백질의 생산·분비가 필수적이다. NK세포는 암세포 등을 공격할 때 퍼포린을 분비해 암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여기에 그랜자임(granzyme) 효소를 넣어서 암세포를 녹인다. 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마이크로 RNA 'miR-150'이라는 조절인자를 발견하고 이 인자가 NK세포의 퍼포린 단백질 분비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miR-150이 결여된 쥐의 NK세포가 정상 NK세포보다 월등히 많은 퍼포린 단백질을 분비했으며 세포독성도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miR-150이 발현된 쥐의 NK세포는 퍼포린 분비량과 세포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최인표 박사는 "암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염증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NK세포의 조절을 통한 면역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알레르기·면역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지'(JACI) 4월 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7.txt

제목: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개발로 수지상세포치료 발전해  
날짜: 20140527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710014370910  
본문: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일본 암 치료전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모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암 줄기세포에서 발현하는 특이항원을 개발해 WT1펩티드(암항원)와 함께 수지상세포에 인식시켜 암을 치료하는 DC-AIVac/CSC요법(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백신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치료(DC-AIVac/CSC요법) <br/>암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은 지난 1997년 캐나다 연구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세포에서 최초로 발견했다. 학계에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서 줄기세포가 발견됐다. 간세포암· 위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등 15종류의 암 줄기세포가 그것이다. <br/> <br/>암 줄기세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세포의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복제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자기와 같은 세포 또는 여러 세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암 치료율이 향상돼 왔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근치적 수술로 암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만 그러한 경우는 조기에 암을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br/> <br/>이어 "특히 화학요법(항암제 치료)의 경우,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에 대해서는 대체로 항암제가 반응을 보이지만 휴면상태 또는 휴지기에 있는 암세포에 대해서는 반응이 거의 없는 편이다"며 "암 줄기세포는 평상시에 휴면상태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암세포를 만들어 내곤 한다"고 설명했다. <br/> <br/>동경에 제2 병원을 개설로 구보타 원장과 협진체제 실시 <br/>구라모치 박사는 작년 11월에 정부지원을 받아 동경에 새로이 ‘린카이’ 병원을 개설했고, 구보타 수나오(窪田　倭), 前 미국 성마리안느 대학병원의 외과교수가 병원장을 맡고 있다. <br/> <br/>구보타 원장은 특히 간· 담도· 췌장부위 쪽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구라모치 박사와 함께 협진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구라모치 박사는 일정에 따라 구마모토· 동경을 오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본인이 개발한 면역(세포)치료가 암치료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과 동시에 표준치료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표준치료가 되면 암으로 고통 받는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희망 섞인 어조로 말했다. <br/> <br/>제 4의 암 치료법으로 알려진 면역(세포)치료 전문병원· 센신병원 구라모치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치료를 선택할 때는 배양시설, 배양기술력 등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람들은 (주)에스유바이오를 통해 상담을 하면 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8.txt

제목: '스톤' 박원상 "긴 호흡의 액션… 난 아직 괜찮구나"  
날짜: 20140527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710014376220  
본문: 배우 박원상이 액션신 촬영에 대해 "내 옷을 입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br/> <br/>박원상은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스톤'(감독 조세래, 제작 샤인픽쳐스)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배우 조동인, 김뢰하 등과 액션 호흡을 맞추며 느낀 점들을 밝혔다. <br/> <br/>'부러진 화살'(감독 정지영·2012) 전에는 '똘마니(건달)' 역할도 많이 했다는 그는 오랜만에 '스톤'에서 조직폭력배 두목 남해(김뢰하 분)의 오른팔 인걸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br/> <br/>이날 박원상은 "오른팔 역할은 처음 해봤는데 꼭 맞춤 양복 같았다"며 "김뢰하 형님의 포스 덕분에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말 재밌고 신났다"고 말했다. <br/> <br/>또 "작품 후반부에 긴 호흡의 액션신이 있었는데 무술감독한테 칭찬까지 받았다"면서 "그때 '내가 아직 괜찮구나' 생각했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br/> <br/>'스톤'은 지난해 암 투병 중 별세한 고(故) 조세래 감독의 데뷔작이자 유작으로, 내기 바둑이나 하며 살아가던 천재 아마추어 바둑기사 민수(조동인 분)가 보스 남해(김뢰하)의 바둑 선생이 되면서 세상에 눈 뜨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내달 12일 개봉 예정.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스톤' 스틸컷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69.txt

제목: 여성 암환자에 메이크업 등 노하우 전수  
날짜: 2014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710014382508  
본문: 지난 4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과 녹차 산업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br/> <br/>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설립, 운영·후원하는 부문과 직접 참여하는 부문으로 나뉜다. <br/> <br/>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인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노하우를 전수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br/> <br/>올해에도 전국 35개 병원을 비롯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잠실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의 2014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0.txt

제목: '스톤' 조동인 눈물 글썽 "아버지 故 조세래 감독 기억해달라"  
날짜: 20140527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710014375419  
본문:   <br/> <br/>배우 조동인이 아버지 고(故) 조세래 감독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br/> <br/>27일 오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는 고 조세래 감독의 유작 '스톤'(제작 샤인픽쳐스) 언론배급시사회가 열렸다.  <br/> <br/>이날 김뢰하, 박원상 등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동인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영화 찍는 내내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슬프게 생각 안 하려고 한다"며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다. <br/> <br/>고 조세래 감독은 영화 '하얀전쟁'(1992)의 각본을 쓰고 3부작 바둑소설 '역수'를 집필한 영화인이자 소설가로, '스톤' 촬영을 마친 뒤 지난해 암 투병 중 별세했다. <br/> <br/>'스톤'은 프로기사의 꿈을 접고 내기 바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천재 아마추어 바둑기사 민수(조동인 분)가 조직의 보스(김뢰하 분)의 바둑 선생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br/> <br/>조동인은 아버지 조세래 감독으로부터 8세 때부터 바둑을 배웠다고 말했다.  <br/> <br/>그는 " 인터넷 바둑으로 3단"이라고 자신의 바둑 실력을 언급하며, "인터넷 바둑 급수가 조금 후하다. 기원 바둑으로 환산하면 4급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너스레를 떨어 간담회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다. <br/> <br/>'스톤'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 초청됐으며, 로카르노영화제를 비롯해 하와이국제영화제, 이탈리아 아시아티카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소개된 바 있다. 오는 6월12일 개봉.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스톤' 스틸컷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1.txt

제목: 홍정용 교수, 한국암학술재단 학술상 받아  
날짜: 201405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610014353459  
본문: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정용(사진)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제12차 학술대회에서 ‘한국암학술재단-㈜한미약품 학술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br/> <br/> 수상 논문은 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서의 p-AKT 발현의 의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비호지킨림프종 가운데 가장 흔한 림프구성 악성 종양으로, 한국인 임파선암 발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교수의 연구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있어 새로운 표적 치료제로 이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br/> <br/> 현재 세계 각국에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분자세포학적으로 분석해 환자별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홍 교수의 이번 논문은 종양학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종양학저널(Annals of Oncology)’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2.txt

제목: 음경 임플란트 수술로 고령자도 부부생활 자신감 찾는다  
날짜: 20140526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6100000077  
본문: 남성의 발기는 음경의 혈관에 혈액이 채워지는 현상이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어 커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만약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발기부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남성 발기부전의 원인중 하나가 바로 음경 해면체에 혈액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것이다. 고령층 발기부전은 노화로 음경 모세혈관이 막히고 손상돼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인데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이물질이 많으면 혈류량이 감소해 해면체에 혈액이 제대로 채워지지않아 발기력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오랜 흡연은 이런 혈관노화와 손상을 촉진 시킨다. 담배속 독성 물질이 혈관 경화를 일으키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부전 증상이 악화된다. 이외에도 과도한 음주, 고혈압, 복부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전립선 질환, 암 수술 후 후유증 등이 난치성 발기부전을 일으키게 된다. 난치성 발기부전은 고령의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키 어렵고 또 고령으로 인해 약물에 효과가 없거나 약한 경우이다. 이럴경우 난치성 발기부전 환자들은 약물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방법인 음경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전 세계가 인정한 수술로 음경 해면체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원할때 발기가 가능하고 감각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음경 임플란트는 크게 굴곡형과 팽창형으로 나뉜다. 굴곡형은 자유롭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수술방법으로 평상시에는 구부려 놓았다가 사용할 때만 쭉펴서 발기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수술 시간도 짧은 편이며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국소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당일 곧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반면 팽창형은 세 조각형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펌프를 이용한 발기작동 원리로 음낭 내의 설치한 작은 펌프를 눌러주면 음경 해면체에 마치 혈액이 충만되는 것과 같이 생리 식염수가 음경내 실린더로 충만되기 때문에 젊은시절 발기력과 거의 흡사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외양을 유지할 수 있어서 수술한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강남J(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은 음경의 길이와 둘레가 동시에 20%증가하는 AMS700 MS LGX(optimize Girth and Length with up to 20% elongation possible)수술을 시행해 실제적 자연발기와 가장 흡사한 모양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가시켰다. 특히 임플란트수술은 생리 식염수를 펌프에 채워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자연 발기과정과 유사하다. 박천진 원장은 “<span class='quot0'>현존하는 외과수술 중 가장 자연스럽고 관계중에 임플란트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 선호되는 방법이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술 후에도 음경의 감각이 남이있기 때문에 극치감을 얻는데에도 문제가 없고 고령의 발기부전 환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난후의 만족감도 매우 높은 편이다</span>”라고 말했다. 이 수술은 연령이나 질환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술이 가능하다. 한번 수술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체내에 삽입된 펌프를 누르면 언제든지 팽창과 수축이 가능해 마음대로 관계가 가능하다. 이제 과거 남자들의 고질병이었던 발기부전은 더이상 고민거리가 아니다. 조금의 노력만 더해진다면 빠르게 개선할수 있는 성적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법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3.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명품' 대상 받아  
날짜: 2014052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310014336027  
본문: 2014년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 후 김정숙 이대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 이순남 이화의료원장,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2014년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br/> <br/>23일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올해로 16회째인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각각 여성암센터, 건강증진센터 부문에서 나란히 대상을 받았다. 1999년 여성신문사가 제정한 이 상은 여성 소비자 대상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의견, 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br/> <br/>여성암센터 부문 대상을 받은 이대여성암병원은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여성암 환자 전용병동 등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혁신적 진료 서비스를 도입해 여성암 환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건강증진센터 부문 대상을 받은 이대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는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과 남성의 건강검진을 분리,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시스템은 물론 여성친화적인 편안한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br/> <br/>이화의료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암 질환 치료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3월부터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건강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4.txt

제목: 암 유전자 ‘검색엔진’ 개발… 암 극복 길 열리나  
날짜: 20140522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2100000322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에 대한 문헌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엔진을 개발했다. 암 정복을 위한 연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미래창조과학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종철 교수 연구팀과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이현주 교수가 공동 연구를 통해 암 유전자에 특화된 검색엔진 ‘온코서치’(http://oncosearch.biopathway.org)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암 발병의 주요 원인은 수천개에 달하는 유전자의 비정상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신호전달 체계 교란인데, 암 치료법을 발견하려면 유전자 변화가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이러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과거 연구결과들을 바로바로 수집해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연구 문헌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있지만, 문제는 이 방대한 DB에서 얼마나 빠르고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느냐이다.이번 연구팀이 개발한 온코서치는 첨단 텍스트마이닝 기술 등을 적용해 약 300만건의 생물학·의학 연구문헌이 저장된 DB ‘메드라인’에서 유전자 발현량 변화와 유전자 변이에 따른 암 진행상태를 기술하는 문장만 ‘콕’ 찝어 알려준다. 또 메드라인에 등재된 모든 논문에서 1700종 이상의 악성종양과 7500여 개의유전자 관련 문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암 연구의 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5월 9일자에 게재됐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5.txt

제목: 대전성모병원, '암 극복' 캠페인  
날짜: 20140522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210014326740  
본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원장 박재만 신부)은 22일 환자 및 가족, 의료진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암 극복 캠페인(사진)을 열었다고 밝혔다. <br/> <br/>캠페인은 종양혈액내과 양영준 교수의 ‘암환자 통증 관리’란 주제의 강의를 비롯해 통증에 관한 OX 퀴즈, 암성통증 관리 안내 책자 배부, 병동 설명회 등 형태로 진행됐다. 양 교수는 “<span class='quot0'>현대의학에서 암성통증은 97% 조절이 가능하지만, 암치료 중통증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환자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6.txt

제목: 음식이 약이 되는 ‘푸드슈티컬’ 제품화에 성공  
날짜: 2014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2100000346  
본문: ‘음식이 약’이라는 ‘푸드 슈티컬’ 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식품이 출시됐다.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음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올바른 음식 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사람들은 음식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 최근에는 음식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TV프로그램이 늘고, 의사들도 병원 치료보다 공공연히 음식을 통한 질병 치료를 언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도 과거와 많이 달라지는 추세다.몇 년 전부터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을 통해 식품으로부터 영양성분을 추출해 농축한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뉴트라슈티컬’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뉴트리션(영양)과 파마슈티컬(의약)이 결합된 말로 ‘영양이 약이 되게 한다’는 뜻이다. 약사 한형선씨는 “<span class='quot0'>진정한 음식 치유법은 ‘뉴트라슈티컬’ 보다는 ‘푸드슈티컬’이 더욱 효과적</span>”이라고 말했다. ‘요리하는 약사’로 잘 알려진 한형선씨가 주장하는 푸드슈티컬은 음식 그 자체가 약이 되게 하는 기술을 뜻한다.푸드슈티컬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우리 몸은 거대한 소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음식이 입을 통해 들어가면 위는 그것을 소화한 후, 장으로 보내게 되고 장에서는 수 십조개의 미생물들이 장 점막신경세포와 교류하며 인체의 각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 흡수해 간다.둘째, 푸드슈티컬이란 음식으로 장을 복원시키고 훈련시키는 기술이다. 장은 질병 치유에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장에는 뇌세포가 있어 습관이 들게된다. 나쁜 식습관으로 장이 잘못 길들여지면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역으로 좋은 습관이 들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셋째, 푸드슈티컬이란 장내 미생물군을 회복시키는 음식기술이다. 몸 속 미생물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일꾼과 같아서 그런 일꾼들이 항생제나 방부제, 농약성분으로 인해 허약해지게 되면 몸은 곧 질병에 걸리고 만다. 그러므로 병든 몸을 회복시키려면 장 내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마지막으로, 푸드슈티컬은 세포들의 센서를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점은 세포벽 외곽에 있는 섬모돌기들이 암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한 세포는 섬모세포돌기의 센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음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최종 섬모세포센서들까지도 회복시킨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모자연은 우리 전통 음식을 좀 더 현대의학적 지식 기반에서 재해석하고, 푸드 슈티컬을 기반으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이에 출시한 ‘세포죽’은 환자의 정상세포가 빠르게 회복되고 치유되어 스스로 병든 세포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식품을 해독하고 법제화로 영양소 흡수력을 극대화시킨 음식이다.연구·개발에 참여한 한형선 약사는 “<span class='quot1'>질병 극복의 핵심은 몸 안의 의사를 깨우는 것, 즉 자연치유력 향상이 답</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용서와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강한 의지력은 치유의 문을 여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인체의 암 덩어리도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야 없어진다</span>”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사진=모자연 ‘세포죽’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7.txt

제목: 부천 스마튼병원, 독거노인 수술비 지원  
날짜: 20140522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2100000383  
본문: “어르신, 이제 편히 걸으세요!”부천 스마튼병원(병원장 정세영)은 22일 긴급의료지원을 진행한 이옥자(77·부천 도당동) 할머니의 성공적인 수술과 퇴원을 기념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장세영 병원장을 비롯해 관절센터 황은천 원장이 함께 자리해 스마튼병원의 긴급의료지원 1호 수혜자이신 할머니의 쾌유를 빌었다.장세영 병원장은 “부천시에 사시는 이옥자 할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관절수술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정부의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이 할머니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관절내시경 수술을 집도한 관절센터 황은천 원장은 “무릎은 평상시 사용 빈도가 높고 신체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이 할머니의 경우, 무릎 연골판 파열이 심각해 당장 수술이 필요했다”며 “관절내시경수술은 수술 시간이 15∼20분으로 짧고, 피부절개가 작아 흉터가 거의 없으며, 회복기간도 짧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고 전했다.이옥자 할머니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평생 혼자 살아왔다. 왼쪽무릎이 아픈지 3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주사, 침 치료 안 해본 게 없다. 3개월 전부터는 움직일 수 조차 없었다. 주변의 소개로 찾아온 스마튼병원에서 이렇게 수술비를 지원해주니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스마튼병원은 척추, 관절 전문 수술·치료 병원으로 부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으로 일반검진, 직장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이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건강검진센터도 운영하고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8.txt

제목: 인간의 탐욕 앞에 가로막힌 정의… 개인·시스템에 깃든 무의식 탐사  
날짜: 2014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210014330712  
본문: 제10회 세계문학상 공동수상작 ‘보헤미안 랩소디’(정재민)와 ‘살고 싶다’(이동원)가 출판사 ‘나무옆의자’에서 나란히 출간됐다. 가벼운 소설이 범람하는 작단에 삶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바탕으로 생의 출구를 열어가는 반가운 작품이라는 평가다. <br/> <br/>“인간의 위대함을 믿지 않는 쪽이지만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나마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제게 가장 가치 있는 공부는 인간에 관한 공부이기에 인간의 본성을 탐색하는 문학의 주변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왜 소설을 쓰느냐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br/> <br/>‘보헤미안 랩소디’를 펴낸 현직 판사(대구가정법원) 작가 정재민(37·사진)씨는 ‘작가의 말’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래 전 장례식 때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 일기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이름을 공동으로 명기한 장편소설 ‘기린의 죽음’을 써서 제1회 세계문학상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죽은 어머니를 작가로 데뷔시키고 싶은 열망이 컸다고 했다. 이후 10여년에 걸쳐 “초점이 어머니에서 저 자신으로 옮겨지고 어머니의 문장들이 저의 문장들로 바뀌면서 탈바꿈되었다”고 후기에 썼다. 어머니를 작가로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신을 작가를 만든 셈이다. <br/> <br/>‘보헤미안 랩소디’는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이었는데도 의사가 탐욕 때문에 류마티스로 거짓 진단해 독한 약을 장복하게 하는 바람에 암으로 발전돼 사망한 사실을 중요한 고리로 삼는다. 현직판사인 아들이 이 의료사기를 파헤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만 권력과 불의한 장벽에 번번이 막혀 여의치 않다. 작가는 이 사실을 축으로 정의란 우리 사회에서 과연 무엇인지 정면으로 질문하면서도 이 과정을 날것으로 드러내지 않고 정신분석 과정을 도입해 개인은 물론 시스템의 심층에 깃든 무의식을 탐사하는 깊이를 보여준다. <br/> <br/>소설가 구효서는 이 소설의 뒤표지에 짤막하게 붙인 서평에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정신분석학을 이야기에 끌어들였다는 점이 이 소설의 인상을 강렬하게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판사 작가에게 이제는 죄와 벌, 역사와 사회에 대한 베른하르트 슐링크적인 전문성을 기대해도 좋겠다</span>”고 썼다. 소설가 김형경은 “<span class='quot1'>현실이 너무 잔혹해서 악몽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듯한, 정의라는 말이 너무 높아서 꿈조차 꿀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span>”라고 평가했다. <br/> <br/>‘독도 인 더 헤이그’나 ‘소설 이사부’ 같은 작품을 발표했던 정재민씨는 그동안 ‘하지환’이라는 필명을 썼는데, 필명을 버리고 이 작품부터 본명으로 글을 쓴다고 했다. 세계문학상은 명실공히 작가 인생의 본격적인 출발점인 셈이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79.txt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2월부터 시행  
날짜: 2014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1100000370  
본문: 오는 12월부터 환자가 의약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질병·사망 등 큰 피해를 보면 조사를 통해 장애 급여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한 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보건의료 전문가와 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는 지급 여부를 결정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불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피해구제급여의 보상범위는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사망 보상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 장애 보상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단,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약국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가치료용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는 피해구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된다. 아울러 제약사들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을 위해 기본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 기본분담금은 국내에서 완제 의약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약사가 대상이며 오는 10월부터 납부한다. 부담액은 제약사별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 이내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하며 금액은 피해 보상액의 25%다. 부담금 징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며 거둬들인 금액은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단체, 식약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가 관리한다.식약처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에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2017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0.txt

제목: 먹고 또 먹고… 멈출 수 없는 식탐의 경고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010014306966  
본문: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현대사회.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고, 원한다면 밤늦은 시간에도 음식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 음식들에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식탐을 의심해 봐야 한다. 비만, 고혈압, 당뇨는 물론 각종 암까지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건강의 위험요소, 식탐.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21일 밤 10시 ‘먹고, 또 먹고, 식탐의 경고’를 방송한다. <br/> <br/>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에게 식탐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만큼 식탐이 사회에 일반화돼 있다는 것. 사회의 다양한 먹거리들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식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세 끼 식사 이외에 간식, 야식 등이 주 원인이다.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 등이 많은 한국 사회는 식탐의 버릇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좋은 구조다.  <br/> <br/> 만일 자신도 모르게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식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식탐은 비만, 고혈압, 당뇨는 물론 각종 암까지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건강의 위험요소다.문제는 이로 인해 폭식과 과식을 반복하게 되면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한다는 것. 이는 소화 장애로 이어지며 비만을 일으키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특정 음식에 대한 지나친 식욕이 우리의 몸을 망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식사’가 아닌 ‘죽음을 위한 식사’가 이어진다. <br/> <br/>식탐은 왜 생기는 것일까. 먼저, 신체적인 이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사람 뇌 중심에 위치한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불균형해진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식탐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다. 본인이 생각하는 외적 신체 모습에 대한 왜곡과 이로 인한 섭식장애는 식탐의 또 다른 요인이다. 스트레스 또한 주요 정신적 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에 만연한 각종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을 끊임없이 먹도록 부추긴다. <br/> <br/>음식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그램은 식탐이 많은 사례자와 일반 사례자의 유전체 검사를 통해 식탐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1.txt

제목: "WHO, 세계에서 가장 호평받는 국제기구"  
날짜: 2014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9100000268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7차 연차 총회를 개막한 가운데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호평받는 국제기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연합뉴스가 갤럽의 조사를 인용, 보도했다.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인 세계 64개국 6만6306명과 16개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들의 평가도 조사를 벌인 결과 82%의 응답자가 WHO가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공헌하고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또 51%의 응답자는 WHO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42%는 WHO가 질병에서 인류를 지키고,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HO는 이번 연차총회에서 당뇨, 심장병, 암, 고질적인 폐질환 등 비전염성 통제 가능한 질병들의 예방 대책, 세계적인 폐결핵 예방 및 치료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2.txt

제목: [건강 단신] 뇌질환 초음파 치료 장비 개발 외  
날짜: 2014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810014283928  
본문: 뇌질환 초음파 치료 장비 개발 <br/>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원장 이학노)은 파킨슨병·우울증 등 뇌질환을 수술이나 치료제 대신 초음파로 치료하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핵의학과 정용안 교수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팀과 공동으로 만든 ‘저강도 집중초음파 뇌자극기’는 뇌 부위에 약 250㎑(킬로헤르츠)의 약한 초음파를 쏴 뇌질환을 치료하는 게 목표다. (032)280-6243 <br/> <br/>방사선 암 치료 최첨단 장비 도입 <br/> <br/>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원장 이병석)은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최첨단 장비 ‘VERSA HD APEX’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암 환자의 몸 바깥에서 방사선을 발생시킨 뒤 몸 안의 종양을 쬐어 치료한다. (02)2019-1260 <br/> <br/>백반증 환자 삶의 질 점수 4.6점 <br/> <br/>멜라닌 색소 파괴로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 환자들이 극심한 삶의 질 저하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보한의원(원장 이진혁)은 백반증 환자 250명을 상대로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보한의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긍정적 자세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1588-7675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3.txt

제목: ‘피부암 치료’ 휴 잭맨, ‘엑스맨’ 직접 홍보 나서…22일 개봉  
날짜: 2014051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810014282250  
본문:   <br/> <br/>작년 ‘피부암’ 치료 사실을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영화배우 휴 잭맨이 직접 개봉작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 중계’에서는 콧등에 상처가 남은 휴 잭맨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br/> <br/>이날 방송에서 휴 잭맨은 오는 22일 개봉하는 영화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인터뷰에 참석했다. 그는 방송 내내 밝은 모습을 유지했으며, 몸매에 감탄한 리포터를 향해 “몸만들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답해 재치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휴 잭맨은 ‘엑스맨’에서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로 ‘매그니토’를 꼽기도 했다. <br/> <br/>한편 휴 잭맨이 진단받은 피부암은 기저세포암(basal cell carcinoma)으로 오랜 기간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KBS 2TV 방송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4.txt

제목: 홍혜걸, “'영화 속 질병' 옥의 티 밝힌다"  
날짜: 20140516  
기자: 최정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6100000100  
본문: 현대미디어에서 운영하는 건강의학 전문채널 헬스메디tv의 의학 토크쇼 ‘쌈닥, 굿닥’에서는 오는 16일 밤 9시에 영화 속 질병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친다. 이날 방송에서는 홍혜걸, 유상우, 김시완 의사가 국내외 유명 영화에서 등장한 질병들의 옥의 티를 거침없는 입담으로 공개한다. 영화 ‘요람을 흔드는 손(천식)’부터 ‘너는 내 운명(에이즈)’, ‘뷰티풀 마인드(조연병)’, ‘애널라이즈 디스(공황장애)’’’까지 재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의 단골 질병인 백혈병과 뇌졸증, 암 등에 걸린 주인공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다 죽는다는 결말에 대해 세 의사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홍혜걸 박사는 ‘에이즈를 둘러싼 풍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모든 것을 밝힐 예정이다. 김시완 박사는 “<span class='quot0'>영화 제작자들이 병에 대한 내용을 담을 때는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보다 더 정확한 연출을 해줬으면 좋겠다</span>”고 전했다. 이어 정신과전문의 유상우 박사는 최근 자주 등장하는 사이코 패스(반사회적인격장애)에 대해 소개하며 “<span class='quot1'>사이코 패스들의 특성은 오랜 기간 동안 진득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span>”이라고 판별 방법을 알려줬다는 후문이다. 영화 속 잘못된 질병에 대한 의사들의 속풀이 토크는 오는 16일 밤 9시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의 의학 토크쇼 ‘쌈닥, 굿닥’ 7회에서 방송된다. ‘쌈닥, 굿닥(쌈DOC, 굿DOC)’은 의료계의 ‘썰전’을 표방한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일반인이 잘 알지 못했던 의료계의 진실을 실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의 입을 통해 들려줄 예정이다. 홍혜걸 의학전문기자, 김시완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상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MC로 출연한다. 금요일 밤 9시 방송.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5.txt

제목: "아사이베리는 만병통치약" 과대광고로 10배 폭리  
날짜: 20140516  
기자: 오영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610014275596  
본문: ‘4000원짜리 아사이베리를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10배 비싼 4만 원에…’ <br/> <br/>아사이베리(Acai berry)로 만든 수입 주스를 허위로 광고해 수입원가의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해온 다단계 판매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br/> <br/>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아사이베리가 원료인 혼합과일 주스를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 한국지사장 미국인 P(57)씨와 판매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r/> <br/>이들은 2009년 12월 강남구 청담동에 한국지사를 설립한 뒤 15만 명의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고, 수입원가가 4000~5000원인 아사이베리 주스를 병당 4만~5만 원에 팔아 4년간 7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이들은 한국지사와 부산, 광주, 평택, 대구 등 지역에서 제품설명회를 연 뒤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아사이베리 주스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이 과장해 광고한 효능은 당뇨병·고혈압·관절염·암·아토피·지방간·심혈관질환 증상 개선, 시력회복, 정력증가, 활성산소 제거, 다이어트, 숙변 제거, 방광기능 개선, 피부노화방지 등 20여 가지에 달한다. <br/> <br/>일부 다단계 판매원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사이베리 주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며 다단계 회원을 모집했다. <br/> <br/>경찰은 “<span class='quot0'>이 주스는 과일 채소를 섞은 음료일 뿐 질병 치료와 예방 효과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오영탁 기자 o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6.txt

제목: ‘아사이베리’ 주스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다단계 일당 덜미  
날짜: 2014051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610014275260  
본문: 아사이베리 주스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br/> <br/>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사이베리 주스를 건강음료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 한국지사장 미국인 P(57)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P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아사이베리 주스 설명회를 열고 음료가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아토피,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P씨 등은 병당 4000~5000원인 주스를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총 72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아사이베리 주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글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아사이베리를 원료로 만든 주스는 음료일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만병통치 음료가 될 수 없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span>”고 당부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7.txt

제목: ‘기적의 모금’ 말기암 英청년 하늘로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510014248234  
본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도 다른 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여 영국을 울린 스티븐 서튼(19·사진)이 14일(현지시간) 세상을 등졌다. <br/> <br/>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서튼의 어머니는 이날 ‘스티븐의 이야기’(https://www.facebook.com/StephensStory)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span class='quot0'>참으로 용감하고 이타적이며 재기발랄했던 아들이 오늘 새벽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span>”고 밝혔다. 서튼은 12일 직접 올린 마지막 포스팅에서 “이번 이슈를 횡단하는 손가락들이 참으로 결연해 보입니다. 조만간 병원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행보에 동참할 계획입니다”라고 썼다. <br/> <br/>서튼은 15세 때 장암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으로부터 지난해 시한부 인생이란 말을 듣고 46개 버킷리스트(죽기 전 반드시 해야할 일들)를 작성했다. 스카이다이빙과 드럼 공연 등 33가지를 잇따라 해냈다. 암환자를 위한 1만파운드(약 1750만원) 기금 활동도 죽기 전 해야 할 목록 중 하나였다. 그의 마지막 호소를 접한 전 세계 74만3400여명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영드 ‘셜록’ 시리즈 주연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도 그의 사연을 트위터 등에 올렸다. <br/> <br/>이날까지 마련된 불치병 청소년 환자 기금은 최종 목표한 300만파운드(약 51억7300만원)를 훌쩍 넘은 540만달러(55억3700만원)였다. 스티븐의 어머니는 “아들에 쏟아진 과분한 지지와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스티븐이 이토록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룩한 것만으로 아들은 결코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금액은 영국 ‘10대 암 트러스’(TCT)에 보내져 고인이 그토록 원했던 동료 환자들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8.txt

제목: KT, 유전체 분야 미래융합사업 강화  
날짜: 20140515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5100000413  
본문: KT(회장 황창규)와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유전체 분석기술의 발달로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유전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학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오는 7월까지 공동설립 한다고 15일 밝혔다.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는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원장 김선영)에 설립되며, KT는 유전체 분석을 위한 첨단 ICT 역량을 제공하고,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 연구 공간과 전문 연구인력을 제공해 유전체 분석 핵심솔루션 개발, 유전체 관련 사업발굴을 본격 추진한다.KT와 서울대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미국의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해 학문적인 선도는 물론 기술기반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창조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전체 분석 기술은 미래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하다. 예를 들어, 특정 암관련 유전체 연구를 통해 암의 발병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도울 수 있고, 발병 후에도 개인 유전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어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게 된다.또한,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게 되면 국내외 어디에서든 자신의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손쉽게 할 수 있어 그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KT는 “황창규 회장의 취임 후 융합영역에서 미래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ICT와 BT의 융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 국민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업적인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KT는 앞선 IT 기술을 활용해 대용량 유전체 분석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생명정보분석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면 “서울대학교 BT기술과의 융합으로 우리나라의 유전체 분석과 응용의 실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글로벌 수준의 IT 역량과 분석 인프라를 두루 갖춘 KT와 세계적 수준의 생명정보학 교수들이 있는 서울대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바이오인포매틱스와 그 응용에서 세계적으로 선도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유전체 관련 시장은 연평균 31%의 고성장을 보이며 201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50조 규모까지 예상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창조산업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권준상 세계파이낸스 기자 kjs@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89.txt

제목: “브루투스 너마저…” 혁명의 끝엔 또 다른 ‘시저’가 있을 뿐…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510014266949  
본문: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어. 개인적인 원한은 없어도, 다만 로마의 공익을 위해서지. 시저는 황제가 되고 싶어 해. 황제가 되면 천성이 어떻게 바뀔지 그게 문제야. 유난히 화창한 날 독사가 기어 나오는 법이니까. 시저에게 왕관을? 그건 독 바른 이빨을 주는 셈이지.” <br/> <br/>셰익스피어 최고의 정치심리극 ‘줄리어스 시저’(김광보 연출)가 21일부터 6월15일까지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오른다. 국내 공연이 많지 않은 데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에 비해 연구도 미미한 편인 ‘줄리어스 시저’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1598∼1601년 사이에 출판된 동명의 희곡이 원작이다. <br/> <br/> ‘줄리어스 시저’는 “혁명 공모자들 또한 그들이 죽인 시저와 같은 모습이며, 전쟁의 끝에는 승패가 아닌 스스로 파멸하는 한심함이 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유명한 대사로 잘 알려진 이 작품은 신으로 추앙받던 시저를 살해했지만 결국 실패한 혁명이 되고 마는 로마사 대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br/> <br/>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신앙과 같이 지지하는 정치가다. 고결한 성품으로 로마인들의 존경을 받지만 정치적 기교는 없는 인물이다. 그는 시저를 사랑했고 그의 총애를 받지만, 시저의 독재를 우려해 암살에 가담한다. 시저에 대한 원한이나 열등감을 가진 다른 암살 공모자들과 달리 브루투스는 유일하게 ‘공화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로마의 자유를 위해 행동한다. 시저가 두려움과 자신감의 양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라면, 브루투스는 무수히 많은 갈등을 감추려 노력하면서 거사의 정당성과 시저 암살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여질지에 신경을 쓰는 인물이다.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그로 인해 실패한다. <br/> <br/>안토니우스는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영리한 웅변가다. 시저가 죽은 후 암살파를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그는 기회주의자이자 선동가이다. 브루투스와 달리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자를 좋아했던 그는 클레오파트라와 깊은 사랑에 빠져 후에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br/> <br/>암살 공모자들은 시저를 살해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음모를 감추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거사 당일에도 원로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꾸민다. 암살의 주동자 카시어스는 이상주의자인 브루투스와 달리 매우 현실적인 인물로, 정치적 역량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는 부족하다. 그는 높은 덕망으로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브루투스를 혁명의 선두에 세우기 위해 그의 마음을 움직이며, 시저 살해의 명분을 만들어준다. <br/> <br/>로마인들 앞에 선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의 연설은 고금의 명문장으로 남는다. 브루투스는 이성적인 어조로 자신의 대의명분을 밝히며 군중의 이성에 호소하는 지적인 연설을 하는 반면, 안토니우스는 격정적으로 시저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역동적인 연설을 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권력과 군중의 관계다. 시민들은 연설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지지하고 부화뇌동하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그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향배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br/> <br/>로마 시민들은 시저 살해 직후 마치 신을 잃은 것과 같은 공허함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들은 브루투스의 연설을 듣고는 브루투스 만세를 외치며 시저가 잘 죽었다고 떠들어대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들은 뒤 브루투스의 집을 불사르자며 갑자기 적의를 표출한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동조하며 현혹되는 로마 시민들은 민중을 위해 거사를 모의한 ‘대의’의 허점을 보여준다. <br/> <br/>극은 한 이상주의자가 추구하던 이념을 위해 기존 질서를 파괴했을 경우, 결국 혼란을 자초하고, 그 자신마저 파멸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br/> <br/>“<span class='quot0'>이번 연극의 전제는 실패한 혁명</span>”이라고 말하는 연출가 김광보는 ‘혁명을 일으킨 이들이 과연 영웅적 인물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span class='quot0'>혁명 공모자들 또한 그들이 죽인 시저와 같은 모습이고, 전쟁의 끝에는 승패가 아닌 스스로 파멸하는 한심함이 있을 뿐</span>”이라면서 또다시 반복될 ‘역사’의 순환구조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음모를 둘러싼 인물 내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가 이번 공연의 관건이다. 연출은 거세게 몰아치다가도 숨죽이는 극의 흐름에서, 정치 뒤에 숨어 있는 치졸함, 명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광기에 휩싸인 인간 본연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특히 원작에 있던 두 명의 여자 배역을 과감히 없애고 16명의 남자배우들만 무대에 세운다. 에너지 넘치는 무대 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물 심리와 갈등을 풀어놓는다. <br/> <br/>‘줄리어스 시저’는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1594),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1607), ‘코리올레이너스’(1607∼1609)와 함께 셰익스피어가 로마를 배경으로 쓴 4대 정치극에 속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가 희극에서 비극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작품으로, 시저의 영웅적 면모보다는 인간적인 약점을 강조했다. 극은 ‘플루타크 영웅전’에 담겨 있는 시저, 브루투스, 안토니우스의 전기들에서 사건을 뽑아내 하나의 작품으로 압축한 것이다. 시저 살해를 중심으로 암살자들이 은밀하게 계획을 모의하는 과정이 전반부, 살해 이후 정치 소용돌이 속의 전투와 음모자들의 처절한 최후가 후반부다. 탁월한 짜임새에, 브루투스와 같이 걸출한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br/> <br/>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 화요일에 쉰다. 1644-2003.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0.txt

제목: "미국펀드에 투자 시 이점은…"  
날짜: 20140514  
기자: 권준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4100000383  
본문: 아디티아 코왈라 피델리티 자산운용 미국 주식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14일 미국 펀드에 투자할 때의 이점 세 가지를 제시했다.아디티아 코왈라 피델리티 자산운용 미국 주식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코왈라 매니저는 첫 번째 이점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과 헬스케어,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등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분포도 적절하다”며 “때문에 업종별 전망과 주식 선호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미국 주식시장은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투자할만한 규모의 기업들이 많고, 한 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선택이 용이하다”며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기업은 주주친화적인 편이며, 시장 규모 대비 내부자 거래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또한 시장 전반적으로 자본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코왈라 매니저는 현 시점에서 선진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피력했다. 코왈라 매니저는 “<span class='quot0'>지난 10년 동안 브라질, 러시아, 중동 등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누렸지만, 원자재 초강세가 끝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향후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반면, 미국의 경우 기술과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하는 혁신 사이클이 현재 정점에 있다</span>”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span class='quot0'>1980년대에 애플의 매킨토시가 데스크탑 컴퓨터에 혁명을 가져왔듯이, 다시 한 번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모바일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고, 현재 그 초기 단계에 있다</span>”고 판단했다. 또한, 코왈라 매니저는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과 임상 실험은 의학 분야의 혁신 사이클에도 상당한 기대를 하게 한다”며 “예를 들어, C형 간염 정복과 암 신치료법 개발은 의학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의 측면에서 미국이 굉장히 전도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준상 세계파이낸스 기자 kjs@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1.txt

제목: 김희정 “의무기록사 등의 양성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체계와 일치”  
날짜: 20140514  
기자: 이천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410014244702  
본문: 국민 보건서비스 안전 향상을 위해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br/> <br/>의무기록사는 면허제도로서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허취득 응시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기관에 마련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된 원격(cyber)대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반영되지 않아 원격대학 교육이수자의 응시자격 부여문제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br/> <br/>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2007년 관련 법률들이 동시에 고쳐지지 않아 발생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원격대학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도 의무기록사 면허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한다. <br/> <br/>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사등의 양성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의무기록사 시험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면허시험 자격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span class='quot0'>의료기록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짐 따라 의료기록사 면허시험 자격 인정 기준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우수한 의무기록사 양성을 통해 의료안전과 보건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이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2.txt

제목: 연세암병원, '태초 먹거리' 건강강좌 열어  
날짜: 2014051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310014237452  
본문: 연세암병원은 이계호 교수의 ‘태초 먹거리’ 건강 강좌를 오는 23일과 6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오후 1시 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br/> <br/>충남대 화학과에 재직 중인 이 교수는 유방암으로 딸을 잃은 슬픈 경험을 갖고 있다. 아버지로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의 폐해를 직접 겪은 그는 2010년부터 자연건강식을 알리는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세워 암 환자와 가족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r/> <br/>이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현대 음식의 단점을 지적하고, 암 예방과 함께 암 치료 후 재발을 피할 수 있는 각종 식단을 소개할 예정이다. <br/> <br/>각종 암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탁월하다는 건강식 정보가 범람하고 있지만 실제 기대했던 효과는 없고,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은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02)2228-4930,1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3.txt

제목: 레드와인, 암·심장병 예방에 도움 안돼  
날짜: 2014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3100000377  
본문: 프랑스인이 보통의 서양인처럼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서도 심장병 등 관련 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를 와인에서 찾는 '프렌치 패러독스'가 틀린 가설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리처드 셈바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2일 '미국의학협회저널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서 레드와인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계 항산화물질 레스베라트롤이 인간의 장수와 상관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마디로 레스베라트롤이 암이나 심장질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번 연구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와인 산지인 투스카니의 마을 두 곳에 거주하는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연구팀은 주민들이 식생활에서 섭취하는 레스베라트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줌 속 레스베라트롤 농도를 측정했다.지난 1998년 이 연구가 시작될 당시 조사대상자는 모두 65세 이상이었는데, 9년 뒤에는 전체의 34%가 사망했다.연구팀은 그러나 이들의 사망과 레스베라트롤 농도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암 및 심장질환의 진행과 레스베라트롤 농도 간에도 아무런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셈바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령의 성인들 사이에서 서구식 식생활로 섭취하는 레스베라트롤이 염증,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장수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4.txt

제목: 불의의 사고때 카드빚 면제 서비스 아십니까?  
날짜: 2014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310014242985  
본문: 보험은 죽음, 교통사고, 화재 등 미래에 다가올 불행이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지만 누구에게나 불행은 닥칠 수 있기에 일찍이 방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br/> <br/>카드사에도 사망·사고·장애 등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 상품이 있다. 채무자에게 각종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남은 카드 빚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DCDS(채무면제 및 유예 계약) 서비스다. 불의의 사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때 카드 사용액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사의 지원금 지급이 ‘포지티브’ 방식이라면 DCDS는 앞으로 내야 할 결제 금액을 면제해주는 ‘네거티브’ 형식의 보험인 셈이다.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모든 전업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다. <br/> <br/>일부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불완전 판매를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일종의 보험으로서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DCDS의 이해와 시장확대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호주 등에서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이 서비스를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업카드사만 판매 가능하다. <br/> <br/>◆가족형, 건강보장형, 여성형… 상황에 맞게 선택 <br/> <br/>7개 전업카드사가 채무를 변제해주는 사고는 거의 비슷하다.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뇌졸중, 만성신부전증, 암, 장기이식수술, 골절, 자동차사고(6주 이상 진단 시), 휴대전화 수리, 부인과 관련 질병 수술, 중장기입원, 얼굴 성형(흉터 수술), 주택 화재, 화상, 전화금융사기, 유괴·인신매매, 도난손해, 장기실업, 자연 또는 특별재해 등이다. <br/> <br/>카드사별 서비스 이름은 다르지만 대개 가족형, 개인형, 여성형 등 특성을 살려 구성했다. 무턱대고 보장 범위가 넓은 서비스에 가입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에 가입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카드 청구 금액을 면제해주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다. 여성형은 부인과 관련 질병 수술과 얼굴의 흉터 성형을 포함하고 있다. <br/> <br/>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면 실업 관련 서비스도 고려해볼 만하다. 삼성카드 ‘실업보장형’, ‘장기실업보장형’, 신한카드 ‘종합보장1’, 현대카드 ‘직장인플랜’ 서비스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카드 청구 금액을 면제 또는 유예해준다.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도 있다. 삼성카드 ‘가맹점보장형’은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절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카드 빚을 면제해준다. <br/> <br/>◆7개 전업카드사, 올해 1분기 61억원 지원 <br/> <br/>DCDS 수수료는 매달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 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책정한다. ‘나’에게 적용된 수수료율이 0.3%, 청구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서비스 이용료는 3000원이다. 이번 달 카드 채무액이 50만원이라면 이용료는 그 절반인 1500원이 된다. 가입 이후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상품은 유지된다. <br/> <br/>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 상품 중 수수료율이 낮은 서비스는 하나SK카드의 ‘기본형1’(0.14∼0.24%), 신한카드 ‘실속형2’(0.19%), 삼성카드 ‘개인형’(0.17∼0.22%)으로 자신의 사망, 치명적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만성신부전증, 암 등), 치명적 상해 등 상대적으로 큰 사안에만 대비한다. 수수료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 <br/> <br/>수수료율이 높은 서비스는 비씨카드 ‘KIDS safe’(0.41∼0.60%), 삼성카드 ‘라이프가족형’(0.42∼0.54%), 하나SK카드 ‘일반형 2, 3’, 현대카드 ‘라이프플랜’(0.53∼0.59%)으로 본인의 사망과 질병 외에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서비스는 채무 면제를 받게 되면 끝난다. <br/> <br/>채무면제 및 유예를 받으려면 카드사별 보상전담팀에 사건 발생 이후 5년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DCDS 이용자는 279만7000명으로 삼성카드(85만2000명), 신한카드(67만5000명), 현대카드(55만6000명), KB국민카드(32만2000명), 롯데카드(29만명), 하나SK카드(9만3000명), 비씨카드(9000명)다. 7개 카드사가 올해 1분기 서비스 가입자에게 면제해준 금액은 61억원이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5.txt

제목: SBS현장21, '노란 리본' 우리가 함께할게요  
날짜: 2014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3100000058  
본문: 세월호 사건 이후, 진도 팽목항을 비롯해 대한민국 거리 곳곳에는 희망의 글귀가 쓰인 '노란 리본'이 내걸렸다. 온 국민이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슬픔을 헤쳐나가고 있다. 진도 팽목항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이 넘쳐났고, 약 2만3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며 진도를 찾아왔다. 진도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까운 합동분향소를 찾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5년 전 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난 보내고, 같은 상실의 슬픔을 더욱 잘 알기에 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장현씨, 팽목항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로 얼어붙은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최용덕씨, 안산에서 유가족을 무료로 수송해 주고 있는 택시기사들, 지역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매일 팽목항으로 내려가는 안산 주민들, 평범한 사람의 작은 힘들이 모여 지쳐버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있다.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진 대한민국을 밝힐 희망의 불씨는 무엇인가. ‘현장21’은 슬픔과 분노의 폐허 속에서 재난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마지막 구원의 빛을 취재했다. 13일 화요일 밤 8시 55분 방송. 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6.txt

제목: '말기 정신암' 신간 발매 "당신의 정신은 건강하십니까?"  
날짜: 20140512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210014228638  
본문: '말기 정신암'이 발간됐다. 책은 본래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온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인육섭취, 유괴사건, 살인사건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br/> <br/>저자 '一甲(일갑)'은 '말기 정신암'에서 심각한 자연파괴나 각종 강력범죄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우리를 ‘말기 정신암’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면서, 책임회피나 책임전가를 일삼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했다. <br/> <br/>일갑은 “최근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한 자연파괴나 각종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는 인간이 자행한 결과이기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다.”라며 “그 책임 역시 우리 모두의 몫이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br/> <br/>한편 말기 정신암은 보민출판사에서 출판해 오는 17일에 발매된다. 반디앤루니스,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의 오프라인 서점과 도서11번가, 예스 24,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br/> <br/>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7.txt

제목: 산부인과학회, '퍼플리본 캠페인' 연기  
날짜: 20140512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210014224176  
본문: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장흡)는 5월 셋째 주(12~17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5회 ‘퍼플리본 캠페인’을 연기한다고 12일 밝혔다. <br/> <br/>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연 자체 회의에서 “<span class='quot0'>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애도에 동참하고자 캠페인 일정을 차후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퍼플리본 캠페인은 자궁경부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매년 5월 셋째 주를 ‘자궁경부암 예방주간’으로 정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5회째를 맞는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2분마다 한 명, 국내에서는 하루에 3명이 사망하는 대표적 여성 암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백신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자궁경부암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독려하는 퍼플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br/> <br/>김장흡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캠페인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8.txt

제목: 을지대병원, 암센터·건강증진센터 신축  
날짜: 20140512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210014226865  
본문: 을지대병원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할 예정인 종합건강증진센터 조감도. 을지대병원이 암센터 증축과 종합건강증진센터 신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br/> <br/> 12일 을지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본관 앞에 암센터를 증축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한다.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8585㎡(약 2600평) 규모로 증축하는 암센터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분야별로 특화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암 환자들이 수도권까지 올라가 진료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다. <br/> <br/> 신축 예정인 종합건강증진센터는 지하 7층, 지상 12층 연면적 2만1047㎡(약 6400평) 규모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 공간 배치와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제공으로 지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하층에는 주차 공간을 확충,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br/> <br/> 황인택 을지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0'>1981년 대전을지병원 개원, 2004년 둔산 이전 개원에 이은 ‘제3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증축할 암센터와 신축할 종합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위상도 높여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3-2999.txt

제목: 고령층 발기부전, 음경 임플란트로 자신감 되찾는다  
날짜: 20140512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2100000194  
본문: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한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의 남성은 고혈압, 당뇨병, 과도한 흡연과 음주, 비만과 노화, 전립선 질환, 암 수술 후 후유증 등이 주요 원인이 돼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발기부전은 처음에는 관계 도중에 발기가 유지가 안되어 더이상 진행못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서서히 진행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증가하고, 급기야 발기력이 약해 처음부터 관계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발기부전이 어느날 갑자기 발생해 계속될 수도 있다. 발기부전이 처음 생겼다면 먹는 약이나 자가 주사로 치료를 시도해 보지만, 고령층의 난치성 발기부전 즉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로도 큰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음경 임플란트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난치성 발기부전 치료 중에서 최후의 방법인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가장 확실한 발기효과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으며 남성수술 가운데서도 가장 고난이도에 속하는 치료법이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전 세계가 인정한 수술로 음경의 발기조직에 발기 기능을 대신할 임플란트를 삽입해 언제든지 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크게 굴곡형과 팽창형으로 나눠진다. 굴곡형은 굴곡이 가능한 인공 실린더를 음경 해면체에 삽입해서 평상시 발기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술방법으로 평상시에는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다가 관계시에 원하는 모양과 방향을 자연스럽게 발기상태로 바꿀 수 있다. 수술시간도 짧은 편이며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반면에 팽창형은 세 조각형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평상시와 발기시 음경의 모양이나 크기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특히 펌프를 이용한 발기 작동원리로 관계시 음낭내의 위치한 작은 펌프를 몇번 눌러주면 음경 해면체에 마치 혈액이 충만되는 것과 같이 생리 식염수가 음경내 실린더로 충만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 발기력과 거의 흡사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강남 J(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은 음경의 길이와 둘레가 동시에 20%증가하는 AMS700MS LGX(optimize Girth and Length with up to 20% elongation possible)삽입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으며 실제적 자연 발기와 가장 흡사한 발기 모양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가시켰다. 이제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발기부전이나 조루 개선 뿐만 아니라 팽창과 수축 또한 가능해졌다. 특히 음경의 굵기와 길이가 모두 늘어나 확대의 효과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박천진 원장은 “<span class='quot0'>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한번 수술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시 체내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면 언제든지 발기시킬 수 있어 언제나 부부생활이 가능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또한 관계전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외양을 유지할 수 있어서 수술한 표시가 전혀 나지 않고 연령이나 질환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술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남성의 발기력 약화로 인한 성기능 문제는 이제 부끄러워할 치료도 아니고 미뤄서도 안될 치료이다. 남성의 가장 중요한 성을 개선시키고 정상화 시키는 수술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컴플렉스를 털어버리고 활기찬 부부생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